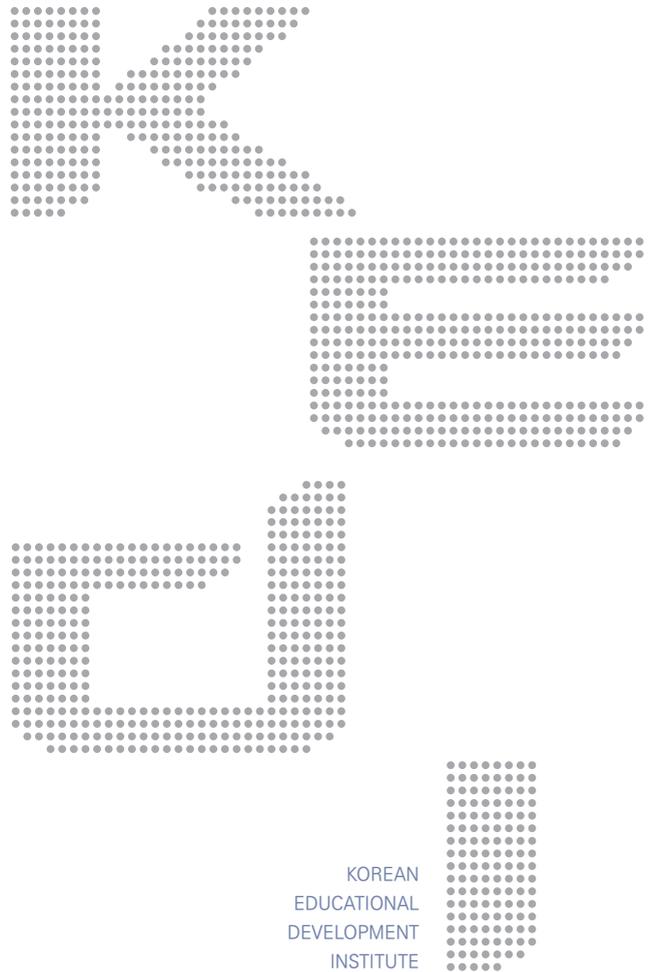


/ 연구보고 RR 2020-33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KEDI POLL 2020)

저 자 임소현 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KEDI POLL 2020)

저 자 임소현, 박병영, 황준성, 황은희, 백승주,
김혜자, 이정우

연구진 연구책임자 임소현(한국교육개발원)
공동연구자 박병영(한국교육개발원)
황준성(한국교육개발원)
황은희(한국교육개발원)
백승주(한국교육개발원)
김혜자(한국교육개발원)
이정우(한국교육개발원)
연구운영원 김성열(한국교육개발원)

머리말

15차에 걸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를 수행하면서 올해처럼 다양한 고민과 검토가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로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조사 시기 및 대상, 조사 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하여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4차 조사보다 응답자 수를 1,000명 더 확대하여 보다 탄탄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KEDI POLL의 다양한 내용이 언론과 연구 등을 통해 이슈화되었습니다. 다양한 사회 환경의 변화와 우리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KEDI POLL에 대한 관심과 지지는 계속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에 우리 연구진도 보다 시의 적절하고 과학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KEDI POLL 2020을 위해 많은 분들의 참여와 노고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사에 참여해 주신 5,000명의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다 좋은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고견을 나누어 주시고, 자문을 아끼지 않으신 교육부 등 정책담당자분들과 원내·외 전문가분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도 KEDI POLL 2020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준 연구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합니다.

2020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방 승 전**

연구요약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99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15차 조사가 실시된 교육여론조사를 통해 교육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및 태도의 변화 경향을 파악하고, 언론을 통한 이슈화로 국민여론을 형성함.
 - 우리 국민들이 교육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교육의 질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으며, 교육 현장이나 교육정책 결정자들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나아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의 교육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지 파악
 - KEDI POLL을 통해 교육 및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정부가 국민과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 지 확인 및 우리 교육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나 가치관의 변화 경향 파악
- 교육여론조사를 통해 교육정책 수립 및 그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제공함.

2. 연구 방법 및 내용

- KEDI POLL 2020의 조사대상은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전국 성인남녀 5,000명이며, 전면 웹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방법으로 연 1회 실시함(조사 기간: 2020. 08. 31(월) ~ 09. 25(금), 약 4주간).
- 조사 내용은 ① 교육정책 및 학교교육 평가, ② 교사, ③ 학생, ④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⑤ 고교정책 및 대입, ⑥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⑦ 대학교육, ⑧ 교육현안 및 미래교육, ⑨ 교육관 등 9개 영역에서 총 68(+3)개[기존 57(+2), 신규 11(+1)] 문항으로 구성함.

3. 연구 결과 및 분석

1) 교육정책 및 학교교육 평가

- 현 정부의 2020년 10대 교육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순위 정책은 대입 공정성 강화(20.3%),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15.7%),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15.1%), 고교 서열화 해소(10.0%) 순이었고,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순위 유·초·중등 교육정책으로는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24.4%),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13.0%), 온종일 돌봄정책 확대 및 서비스 강화(11.1%)를 꼽음.
- 현 정부에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순위 고등교육정책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29.6%), 등록금 부담 경감(22.5%),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11.2%) 순이었고, 1순위 평생·직업교육정책으로는 생애단계별 맞춤형 직업교육강화(20.4%), 중등 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고졸 취업 활성화(13.6%), 전문대학 역량 강화를 통한 직업교육 지역거점 육성(13.0%), 한국형 무크 강좌 등 온라인 평생교육 콘텐츠 및 인프라 확대(10.1%), 대학 창업 및 산학협력 활성화(10.0%)를 꼽음.
-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중 정부가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정책으로는 국·공립 유치원의 지속적 확충 및 설립 유형(매입형, 부모협동형 등) 다양화(24.0%), 방과후 과정 확대, 돌봄시간 다양화 등 돌봄 서비스 내실화(15.9%), 건강·안전관리 등 책임을 강화한 ‘학부모 안심유치원’ 확대(15.9%), 교비회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처벌 근거 신설 등 유치원 3법 강력 시행(13.7%),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한 운영을 위한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전면 도입(13.2%) 순으로 응답함.
- 초·중·고등학교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 56.2%가 ‘보통(C)’을 선택하였고, 평균점수는 2.86(5점 만점)으로 지난 14차 조사(2.75)보다 0.11p 상승함. 학교급별 평가에서도 지난 14차 조사보다 평균이 0.01~0.15p 높아진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평균 점수(초 3.11, 중 2.91, 고 2.64)가 낮아지는 응답 경향은 유사함.
- 학교가 ‘잘하고 있다(A+B)’는 평가를 받기 위한 우선 과제로 초·중·고 전반은 수업 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27.6%),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학생 지도(인성, 안전 등) 활동(27.3%)을, 초등학교는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학생 지도(인성, 안전 등) 활동(24.2%),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19.4%)을, 중학교는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학생 지도(인성, 안전 등) 활동(27.2%), 학생 성장 중심으로 평가 방법 개선(19.9%)을, 고등학교는 진로교육(진학 및 취업 지도 포함) 강화(34.9%), 수업 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15.0%)을 꼽음.

- 자녀의 학교 선택 시 중요 고려 요소로 초·중학교는 인성교육(초 31.2%, 중 25.4%)을, 고등학교는 진로 지도(23.2%)를, 대학교는 졸업생의 취업 실적(26.1%)을 꼽음. 초·중·고등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한 과제로는 학벌 위주의 사회체제 개선(25.2%), 수업 방식의 다양화(16.2%), 교원의 전문성 제고(16.1%), 교육 내용의 선택권 확대(14.6%), 진로교육 강화(12.0%), 대입 선발 방식 개선(11.2%) 순으로 응답함.
-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해 초·중·고 전반과 초·중·고등학교급 모두에서 보낼 생각이 없다(전반 56.9%, 초 76.5%, 중 67.5%, 고 47.5%)는 의견이 많으며, 학교급이 낮을 수록 응답률이 월등히 높음. 자녀의 조기유학 이유로는 외국어 학습 또는 자녀의 조기 다중언어 구사를 위해(29.9%), 경쟁 위주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23.6%), 자녀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21.8%), 우리나라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20.5%) 순으로, 우리나라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24.6%)을 1순위로 꼽은 지난 14차 조사의 응답 경향과 차이를 보임,
-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대해 일관성, 장기적 비전 측면에서 대체로 없다(각 52.9%, 51.4%)는 의견의 응답률이 높았고(평균 각 2.46, 2.48/5점 만점), 우리나라 여건에의 적합성과 국민여론 반영 측면에서는 보통(각 53.6%, 44.6%)의 응답이 많음(평균 각 2.79, 2.70). 네 가지 측면 모두 평균으로 지난 조사보다 0.1~0.13p 높아졌고, 네 가지 측면 중 장기적 비전(50.6%), 우리나라 여건에의 적합성(22.3%), 일관성(15.8%), 국민여론 반영(7.1%) 순으로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임.
- 정부의 교육신뢰회복 노력에 대해 보통(46.8%)의 응답률이 높았고(평균 2.75/5점 만점), 국가교육위원회 역할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사항으로 교육비전 및 중장기 정책방향 마련(34.3%),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27.9%), 국가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 수립(23.9%),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및 조정(13.3%) 순으로 응답함.

2) 교사

-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 정도에 대해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53.7%로 가장 높았고, 평균점수 2.95(5점 만점)로 지난 14차 조사(평균 2.79)보다 0.16p 높아짐. 학교급별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 3.05, 중학교 2.90, 고등학교 2.77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아짐.

- 초·중·고등학교 교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으로 초·중·고 전반은 학습 지도 능력(35.6%), 생활 지도 능력(29.9%)을, 초등학교 교사는 생활 지도 능력(50.5%),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 능력(17.9%)을, 중학교 교사는 학습 지도 능력(37.0%), 생활 지도 능력(24.1%)을, 고등학교 교사는 진로·진학지도 능력(49.8%), 학습 지도 능력(23.8%)을 가장 많이 선택함.
- 교사자격증은 없지만 현장경험 등이 있는 전문가를 초·중·고등학교 교사로 초빙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52.1%로 과반의 높은 응답률을 보임. 학교급별로도 모두 찬성의견(초 53.6%, 중 49.1%, 고 48.4%)이 높았으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찬성의견의 응답률은 낮아짐.
- 자녀의 직업으로서 교사에 대한 의견도 긍정의견이 60.4%로 높았으나, 교원의 교육 활동 침해행위 정도는 대체로 심각하다는 의견이 50.9%로 과반을 나타냄(평균 3.52/5점 만점).

3) 학생

- 학업 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학생의 노력과 열의(36.5%), 학교나 학급의 분위기(23.1%), 교사의 지도(13.2%), 가정의 학습 환경(11.3%) 순으로 선택함.
- 초·중·고 학생들의 인성 수준은 보통이다(49.2%)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평균 2.70/5점 만점), 학교급별 평균은 초등학생 2.83, 중학생 2.51, 고등학생 2.49로 여전히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인성 수준이 낮을 것이라 인식함. 학생들이 좋은 인성을 갖도록 하는 영향 요인으로 여전히 가정(52.4%)을 과반이 선택함.
- 초·중·고 학생들의 시민의식(민주시민성) 수준도 보통(55.4%)을 과반이상 선택함(평균 2.85/5점 만점). 학교급별 평균은 초등학생 2.90, 중학생 2.67, 고등학생 2.69로 인성 수준과는 달리 중학생을 가장 낮게 인식함. 학생들이 시민의식(민주시민성)을 갖도록 하는 영향 요인으로 학교(31.5%), 가정(29.1%), 사회(24.4%) 순으로 선택하였으며, 학생들의 시민의식(민주시민성) 제고를 위해 학교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민주

- 적 절차 강화(33.7%),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장려(29.6%), 수업에서의 민주시민교육 강화(18.4%), 학생자치활동 활성화(14.1%) 등을 증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함.
- 2~3년 전과 비교해 볼 때 학교폭력은 여전히 과반 이상이 심각하다(54.1%)라고 인식하고 있으며(평균 3.60/5점 만점), 가장 중요한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정교육의 부재(37.1%), 대중매체(영화, 드라마, 인터넷, 게임 등)의 폭력성(21.4%)을 1, 2순위로 꼽음.
 - 유·초·중·고등학교와 학부모의 원활한 소통에 대해 과반이 보통(54.3%) 수준이라고 응답하였고(평균 2.82/5점 만점), 학부모와 소통의 방식으로 휴대폰(문자, 앱 등) 및 SNS(블로그 등) 활용(46.5%), 교사(담임, 교장 등)와의 면담(25.6%)을 가장 많이 선택함.

4)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 초·중·고등학교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길러주기를 바라는 사항으로 사회성, 인간관계(27.3%), 도덕성(16.3%), 창의력(15.0%), 기본생활습관(12.1%)을 꼽음. 초등학교에서는 기본생활습관(30.6%), 도덕성(17.3%), 창의력(16.3%), 사회성, 인간관계(13.1%)를, 중학교에서는 사회성, 인간관계(22.3%), 도덕성(18.1%), 사고력(13.6%), 창의력(11.9%)을, 고등학교에서는 사회성, 인간관계(21.6%), 지식(15.3%), 민주시민성(12.0%), 사고력(10.6%)을 꼽아 여전히 학교급별로 차이를 보임.
-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 할 교과로 초등학교는 사회(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23.5%), 국어(17.3%)를, 중학교는 사회(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20.9%), 한국사(15.6%)를, 고등학교에서는 교양(철학, 진로와 직업, 환경 등)(22.1%), 영어(11.8%), 한국사(11.8%)를 가장 많이 선택하여 이 또한, 여전히 학교급별 차이를 보임.
- 현재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교육내용으로 초등학교는 인성교육(43.7%), 창의성교육(18.6%)을, 중학교는 인성교육(35.6%), 성교육(11.3%)을, 고등학교는 진로교육(22.2%), 인성교육(18.7%)을 가장 많이 선택함. 미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으로 자기관리역량(27.9%), 창의적 사고 역량(25.0%)을 가장 많이 꼽음. 미래 초등학생들에게는 창의적 사고 역량(27.4%), 의사소통 역량(22.5%)을, 미래 중학생들에게는 창의적 사고 역량(21.8%), 자기관리 역량(19.7%)을, 미래 고등

학생들에게는 자기관리 역량(24.2%), 지식정보처리 역량(22.0%)을 우선적으로 길러 주어야 할 역량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여 이 또한, 학교급별 차이를 보임.

- 학교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수업이수를 인정하는 것에 전반적으로는 찬성의견(47.0%)이 높았으나, 초등학교는 반대의견(45.3%)이, 중·고등학교에서는 찬성의견(중 43.7%, 고 46.4%)이 높음. 온라인교육의 수업이수 인정을 찬성한다면 수업이수로 인정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의 운영 형태로는 전반 및 초·중학교에서는 화상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면대면 교수-학습활동이 가능해야 인정할 수 있다(전반 44.7%, 초 42.1% 중 41.7%)를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오프라인 상(등교수업)에서의 활동이 포함되어야 인정할 수 있다(41.0%)를 가장 많이 선택하여 차이를 보임,

5) 고교정책 및 대입

- 현 정부의 고등학교 관련 교육정책 중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제 개편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각각 60.6%, 46.6%, 73.4%)는 의견이 높았고(평균 각각 3.66, 3.34, 3.94/5점 만점), 고교 학점제 도입에 대해서는 보통이다(44.6%)의 응답률이 여전히 높음(평균 3.28).
- 고교학점제 도입 및 단계적 확산을 위해 고등학교 교육에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순위 과제로 수업 및 평가 개선(성취평가제, 과정중심평가 등)(25.6%), 학생의 진로 및 학업 설계 역량 강화(25.6%), 다양한 과목 선택 및 이수 기회 제공(24.8%)을 꼽음.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 비중에 대해서는 과반이 낮으므로 더 높여야 한다(52.5%)는 의견을 선택함.
-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할 항목으로 여전히 대학수학능력시험(30.0%)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인성 및 봉사활동(24.2%), 특기·적성(23.5%), 고교 내신(13.4%) 순으로 응답함. 대학 진학을 위한 경쟁 전망에 대해서도 여전히 46.4%가 완화되거나 일류대 위주의 입시경쟁은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을 선택함(현재와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30.1%, 전반적으로 심화될 것이다 12.6%,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이다 6.9%, 잘 모르겠다 3.9%).

6)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 정부의 교육재정 지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교육단계로 고등학교(25.2%), 유아교육(20.6%), 초등학교(18.3%), 중학교(11.0%), 4년제 대학(9.5%), 잘 모르겠다(6.4%), 전문대학(4.2%), 학령기 이후 성인교육(3.7%), 대학원(1.2%) 순으로 응답함.
- 학생 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재정 규모에 대해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재정을 축소하지 말고 현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32.1%)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교육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 이후 교육재정을 축소해 나가야 한다(29.2%), 교육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교육재정을 증가해 나가야 한다(21.7%), 학생 수 감소비용에 따라 교육재정을 축소해 나가야 한다(11.4%) 순이었음.
- 무상교육 범위 확대를 위해 초·중·고 학생들에게 정부가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해 주어야 할 내용으로 초등학생은 학교급식비(35.5%), 방과후학교 교육비(23.0%)를, 중학생은 학교급식비(21.2%), 교복구입비(20.8%)를, 고등학생은 디지털학습장비 구입 및 활용비(25.5%), 학교급식비(20.9%)를 가장 많이 선택함.
-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교육영역에서의 정부 대응에 대해 대체로 적절(44.5%)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평균 3.35/5점 만점),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교육영역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일에 대해 학생들의 배움 및 학습 유지(36.4%), 급식 등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31.1%), 긴급 돌봄 등 보육/돌봄(21.7%), 방역 등 학교 지원(10.6%) 순으로 응답함.
- 국가 위기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 유지를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대응 과제로는 탄력적인 학교운영 체제 구축(28.3%), 온라인 수업체제 구축(27.4%), 학교단위 위기관리 매뉴얼 구축(27.3%), 교원의 위기 대응 능력 향상(17.0%)의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학교급별 학부모의 경우 초등학생 학부모는 단위 위기관리 매뉴얼 구축(32.3%)을, 중학생 학부모는 온라인 수업체제 구축(27.8%)을, 고등학생 학부모는 탄력적인 학교운영 체제 구축(30.4%)을 1순위로 꼽아 차이를 보임.

7) 대학교육

- 대학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제대로 양성 기능에 대한 평가에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모두 보통이다(4년제 대학 44.3%, 전문대학 49.9%)의 의견이 많음(평균 각각 2.74, 2.90/ 5점 만점). 지난 14차 조사보다 평균점수는 상승함.
- 대학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제대로 양성하기 위한 우선 과제로 4년제 대학은 학문 분야별 전문가의 양성(43.4%), 사회생활에 필요한 시민의식 및 인격적 소양의 함양(31.3%)을, 전문대학은 진로 탐색 및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직업 역량의 함양(56.6%), 학문 분야별 전문가의 양성(25.0%)을 가장 많이 선택하여 차이를 보임.
- 대학 교수들이 교육기관의 특성에 맞게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지에 대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모두 보통이다(4년제 대학 49.1%, 전문대학 53.9%)의 의견이 높았으며(평균 각각 2.72, 2.82),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모두 지난 14차 조사(2019년)의 평균보다는 다소 상승함.
- 정부가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반인 54.3%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선택함.
- 대학평가 시 가장 중요하게 반영해야 할 평가지표로 지난 10차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대학 경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25.4%)을 가장 많이 선택, 다음으로 교수들의 교육 역량(24.1%),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22.2%)의 응답률이 높음. 대학교육혁신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순위 과제로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31.1%), 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25.2%)를 꼽음.

8) 교육현안 및 미래교육

- 교육행정의 권한과 책임과 관련하여 유·초·중·고 교육정책의 수립, 교과목 표준 학습성취 기준 마련은 시·도교육청 교육감(각각 38.1%, 39.4%)이, 필수 교육과정의 결정은 교육부 장관(36.9%)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은 학교장(35.5%)이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함.
- 2~3년 전과 비교한 사교육 실태 변화에 대해 과반이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51.8%)이라 응답하였고, 사교육비 부담과 사교육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고부담-중효과(21.7%), 고부담-고효과(19.1%), 중부담-중효과(13.1%), 고부담-저효과(12.3%) 순으

로 응답함.

-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정책으로는 여전히 EBS 수능 연계(26.1%)를 1순위로 꼽았고 다음으로 대입전형 단순화(15.5%), EBS 강의(12.7%), 선행학습 금지 정책(11.5%), 방과후 학교(초등돌봄교실 포함) 운영(11.4%) 등을 꼽음.
-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남들이 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26.4%), 남들보다 앞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25.4%)의 응답률이 높았고, 자녀의 사교육비 부담 정도는 부담된다는 의견이 94.3%이었으며, 학교급별로는 초 94.7%, 중 95.9%, 고 93.7%가 부담된다고 응답함.
- 자녀의 사교육과 관련하여 대체로 사교육을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36.2%),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어도 사교육은 필요하고(37.0%), 어떤 종류의 사교육을 할 것인지는 부모가 결정(39.1%)하며, 취미생활은 말리지 않지만(54.7%), 자녀가 공부를 안하고 있으면 대체로 불안하고(45.6%), 보통은 자녀가 학원에 가거나 과외공부를 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기도 하다고 응답함(43.1%).
- 미래 사회 변화 중 우리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변화로 저출산 고령화(42.3%)를 1순위로 꼽고 있으며,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로 학습자관리시스템(학습 관리, 생활지도, 건강관리, 진로지도 등) 구축 및 운영(19.4%), 온라인-오프라인 학습 병행(15.2%), 유연한 학교 제도(학제) 구축(11.8%), 교과 교사, 학습컨설턴트, 특별전문강사 등 교원 다양화(11.7%)를 꼽음.
- 향후 미래 학교에서 더 강조될 역할과 기능으로 초등학교는 아동·학생들의 보육 혹은 돌봄(24.7%), 자기주도학습 등 문제해결 역량 교육(21.7%)을, 중학교는 자기주도 학습 등 문제해결 역량 교육(32.9%), 공동체 역량 및 협동·협업 역량 교육(17.6%)을, 고등학교는 미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탐색 및 교육(31.6%), 자기주도학습 등 문제해결 역량 교육(19.9%)을 1, 2순위로 선택함.

9) 교육관

- 자녀가 학교교육을 거부하는 경우 과반이 꼭 정규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으로 다른 대안을 찾겠다(51.1%)는 의견을 선택하였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그 학교가 아니더라도 정규학교는 꼭 다니게 하겠다(50.8%)가, 중·고등학교는 꼭 정

규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대안을 찾겠다(중 47.4%, 고 54.0%)는 의견이 높아 학교급별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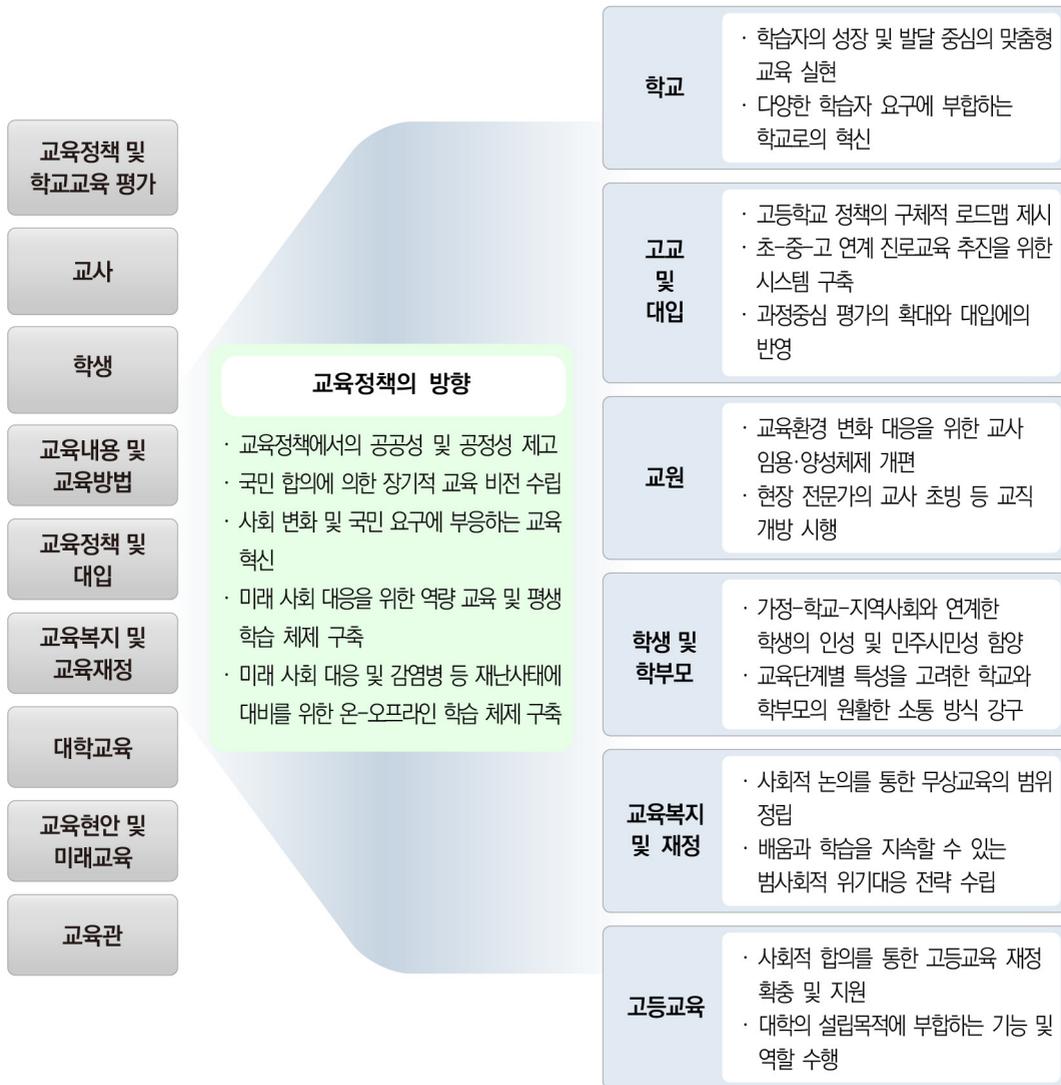
- 우리 사회에서 자녀교육에 성공했다는 것의 의미로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24.7%),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컸다(22.0%),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21.7%), 자녀가 경제적으로 잘 산다(14.0%),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갔다(11.3%),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6.2%) 순으로 응답함.
- 자녀의 장래 생활의 기대에 대해 본인의 흥미와 적성을 살림(24.9%),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냄(22.0%), 경제적으로 윤택함(20.4%) 순으로 응답률이 높고,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는 과반이 대학교 졸업까지(51.1%)를 선택함. 다음으로 취업할 때까지(17.2%), 고등학교 졸업까지(11.4%), 결혼할 때까지(7.0%), 대학원 석사까지(5.7%), 대학원 박사까지(4.3%), 평생(2.6%), 기타(0.3%), 중학교 졸업까지(0.3%) 순임.
- 대학 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은 여전히 심각할 정도로 존재(56.8%)하고, 우리나라의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는 앞으로 큰 변화 없을 것(각각 58.1%, 59.2%)이라고 전망함.
-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경제적 부의 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크고(68.3%, 평균 3.84/5점 만점), 사회적 지위 향상에 미치는 영향 또한 70.2%가 크다고 응답함(평균 3.87). 개인의 심리적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61.8%)는 응답률이 높음(평균 3.74).

4. 시사점 및 정책 과제

- 조사 결과 및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9개 영역별 시사점을 도출함.

[영역]	[시사점 요약]
교육정책 및 학교교육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문제에 있어 대입제도의 공정성에 가장 많은 관심과 우려 • 교육의 출발선인 유아교육 단계에서의 공공성 및 형평성 담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 기대 • 고등학교 교육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 필요 • 일반계 고등학교 등 단위 학교들의 교육역량 제고 필요 • 학교급에 따른 고유한 정책적 요구 확인 및 학교급별 교육수요자 요구에 따른 맞춤형 정책 추진 필요 • 장기적 비전에 따른 신뢰성 있는 교육정책에 대한 요구 • 학교에 대한 평가가 다소 상승한 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교육영역 대응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다는 인식에서 기인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별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기대와 요구가 상이함에 따른 교원정책의 학교급에 따른 차별적 접근 필요 • 현장 전문가의 교사 초빙은 고교학점제 도입 등 추진 중인 정책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 선행 •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다소 상승한 것은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 학교와 교사의 대응이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기 때문으로 해석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좋은 인성 형성에 가정,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의 역할도 점차 중요 • 학생들의 시민의식(민주시민성) 형성에 학교-가정, 학교-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 및 다양한 참여활동 필요 • 학부모와의 소통 방식에도 학교급에 따른 차별적 접근 필요 • 학교폭력의 주요 원인으로 가정교육의 부재, 대중매체의 폭력성 등 학교 밖 요인 지목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역할은 지식 함양 등의 인지적 영역뿐 아니라 사회성, 도덕성 함양 등 비인지적 영역에서도 중요함을 인식 • 학생들의 신체적·정서적 발달 및 학업 발달 과정을 모두 고려한 교육내용 강화 방안 모색 필요 • 비대면 온라인 수업과 관련, 어떻게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교육격차에 대한 우려를 약화시킬 것인지 지속적인 논의 필요
고교정책 및 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정부의 고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고교학점제와 관련 실질적으로 학점제 시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 우선 요구 • 대학입학전형과 관련, 교과와 비교과,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의 균형 있는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추진 필요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상교육 확대를 위한 요구와 필요가 특정 항목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 •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영역의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 •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교육의 본질인 배움과 학습을 유지해야 한다고 인식
대학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육의 사회적 효능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 • 대학의 유형에 따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우선과제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 •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 및 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에 초점을 둔 고등교육 정책 요구
교육현안 및 미래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교육비 부담은 크고, 부담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불안 심리가 사교육을 지속하는 원인으로 인식 • 학교 교육에서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요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정책의 추진을 통해 사교육에 대한 필요와 불안 완화 노력 • 저출산 사회에서 학습자에 대한 관리의 학교의 기능 및 역할 요구
교육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음을 확인 •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을 위한 교육적 지원 방안의 지속적 강구 필요 • 우리 사회의 학력, 학벌, 대학 서열화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계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인 거시적 노력 지속

-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9개 영역을 ① 교육정책의 방향을 포함하여 ② 학교, ③ 고교 및 대입, ④ 교원, ⑤ 학생 및 학부모, ⑥ 교육복지 및 재정, ⑦ 고등교육 등의 영역으로 재분류하고, 교육정책의 방향과 각 영역별 정책 과제를 탐색하여 제시함.



□ 주제어: 교육여론조사, 교육정책, 교육현안, 교육관, 여론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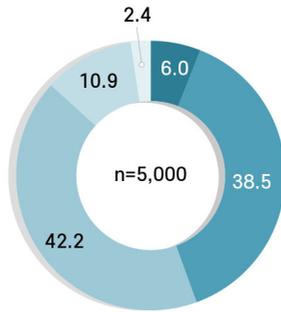
KEDI POLL 2015~2020 (인포그래픽)

1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영역의 정부 대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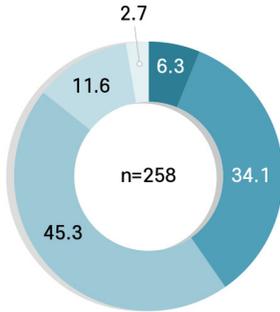
(단위:%)

● 매우 적절하다 ● 적절하다 ● 보통이다 ● 적절하지 않다 ● 전혀 적절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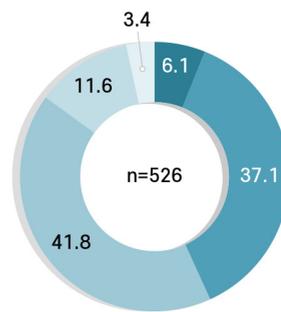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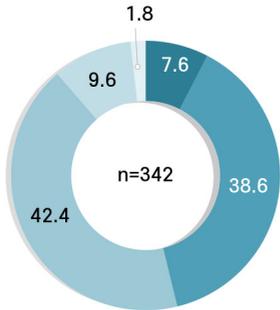
유치원생 학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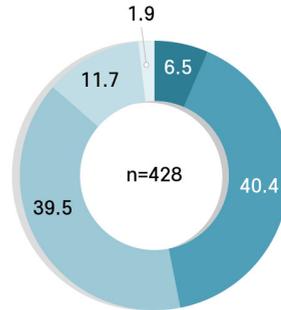
초등학생 학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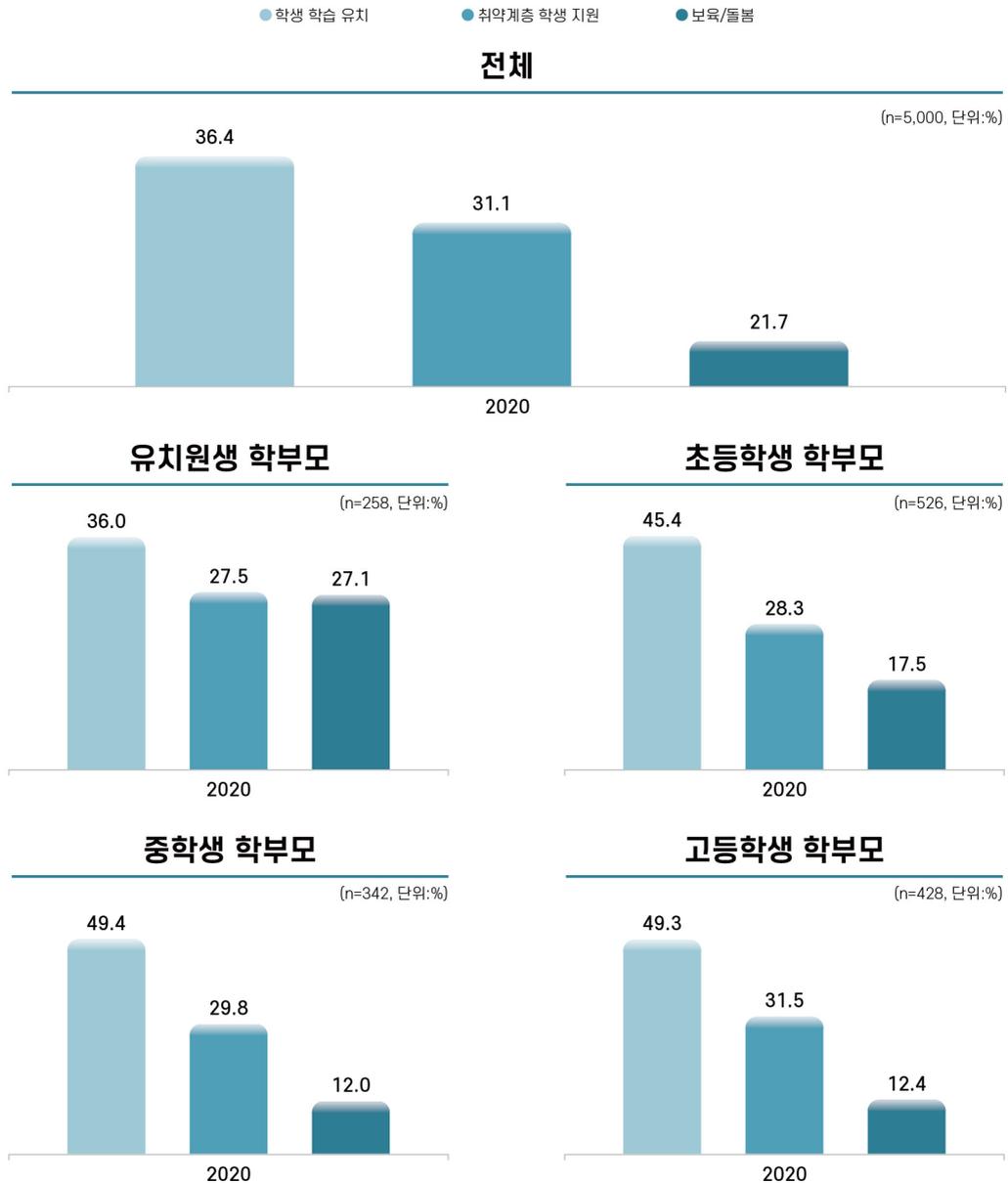
중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2 국가 위기상황 시 교육영역에서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역할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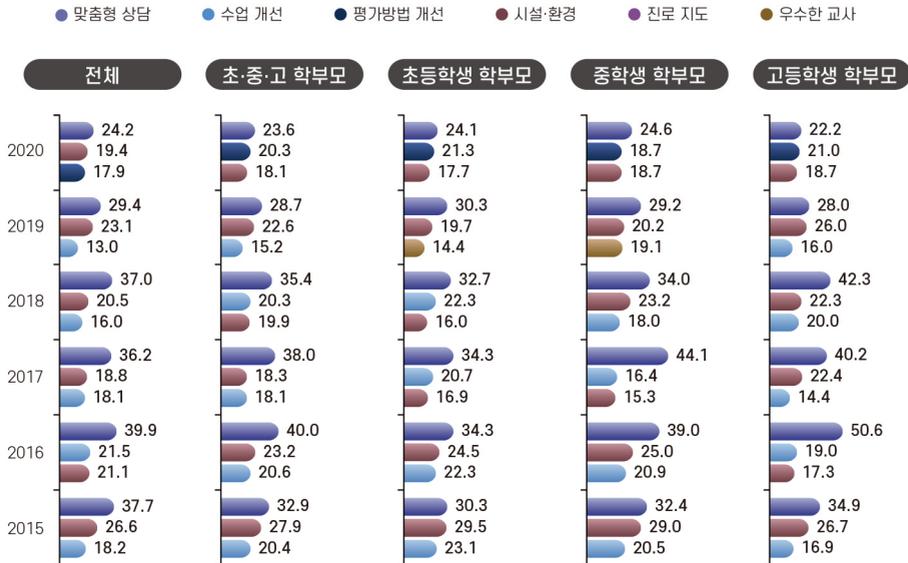
3 학교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초·중·고 전반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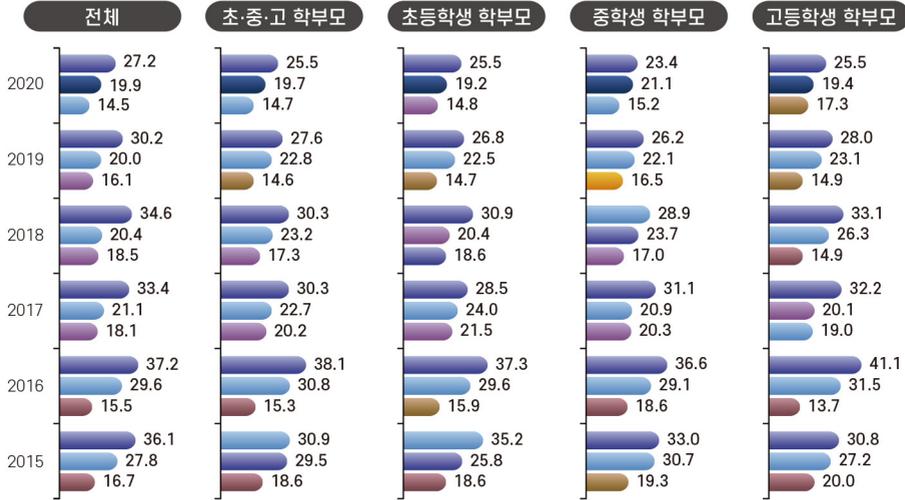
초등학교



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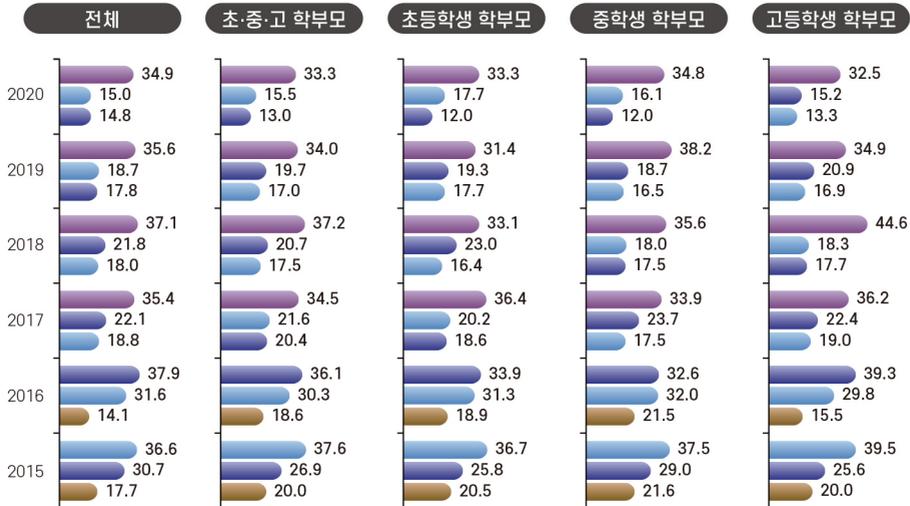
(단위:%)

● 맞춤형 상담 ● 수업 개선 ● 평가방법 개선 ● 시설·환경 ● 진로 지도 ● 우수한 교사 ● 진로지도/우수한 교사



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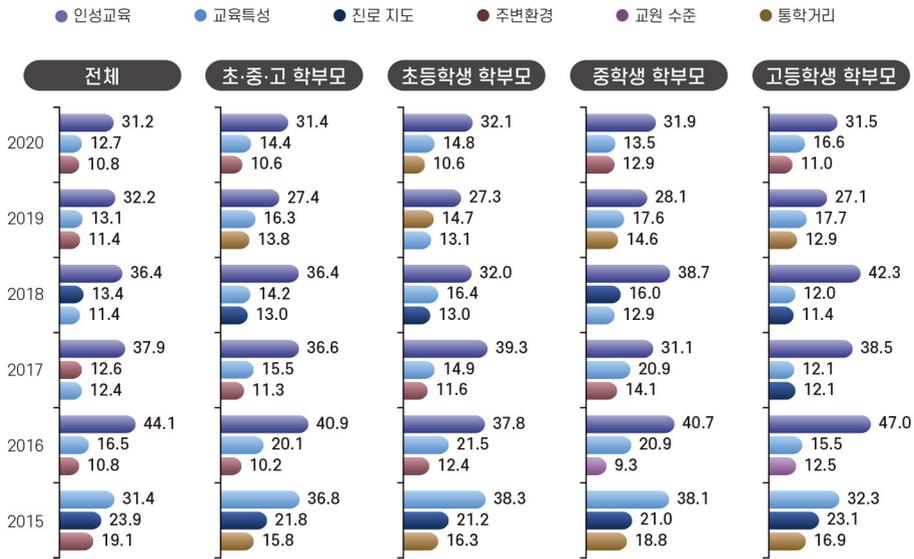
● 맞춤형 상담 ● 수업 개선 ● 시설·환경 ● 진로 지도 ● 우수한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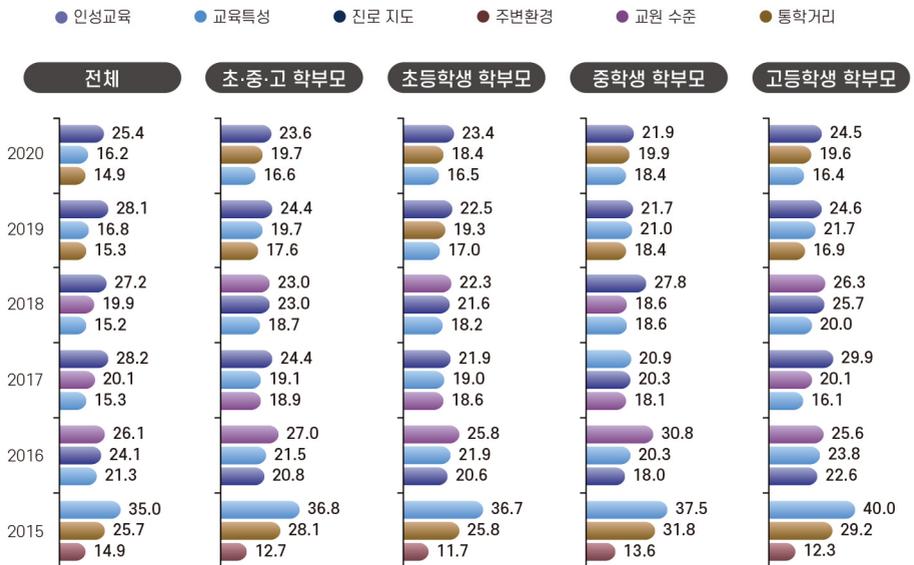
4 자녀가 다닐 학교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초등학교

(단위:%)



중학교



고등학교

(단위:%)

● 인성교육 ● 교육특성 ● 진로 지도 ● 교원수준 ● 진학 실적



대학교

● 교육특성 ● 진로 지도 ● 교원수준 ● 취업 실적 ● 학교 명성 ● 학교 명성/교원 수준



5 자녀를 외국의 초·중·고에 유학 보낼 의향은?

(BASE: 초·중·고 학부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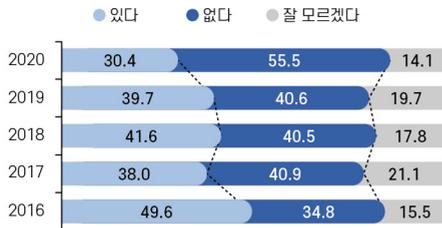
초·중·고 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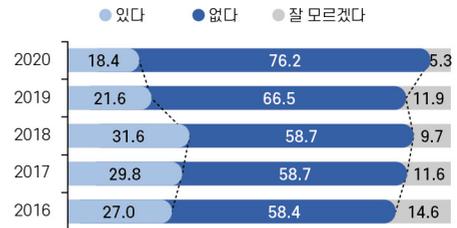
초등학생



초등학생 학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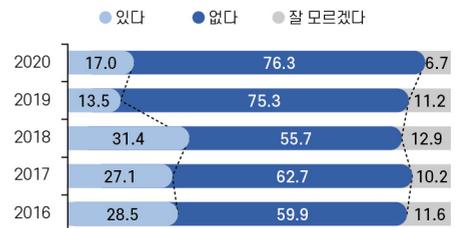
초등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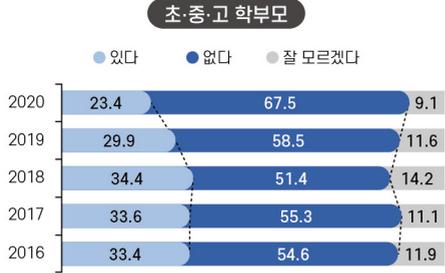


고등학생 학부모



(BASE: 초·중·고 학부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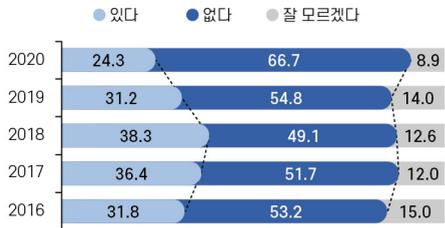
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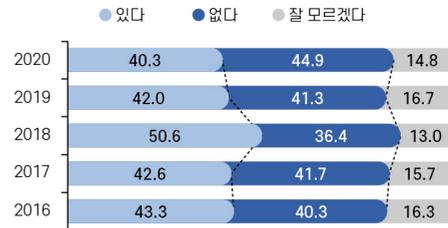
고등학교



초등학생 학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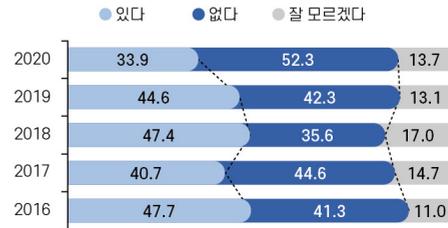
초등학생 학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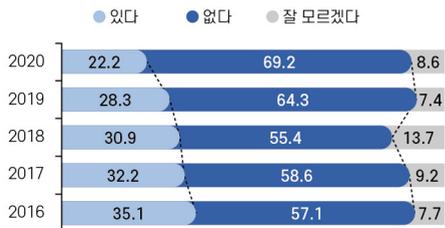
중학생 학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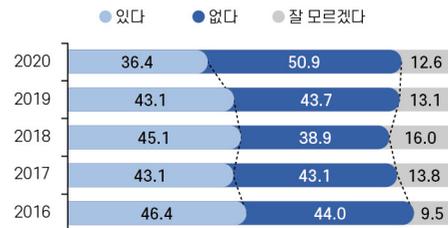
중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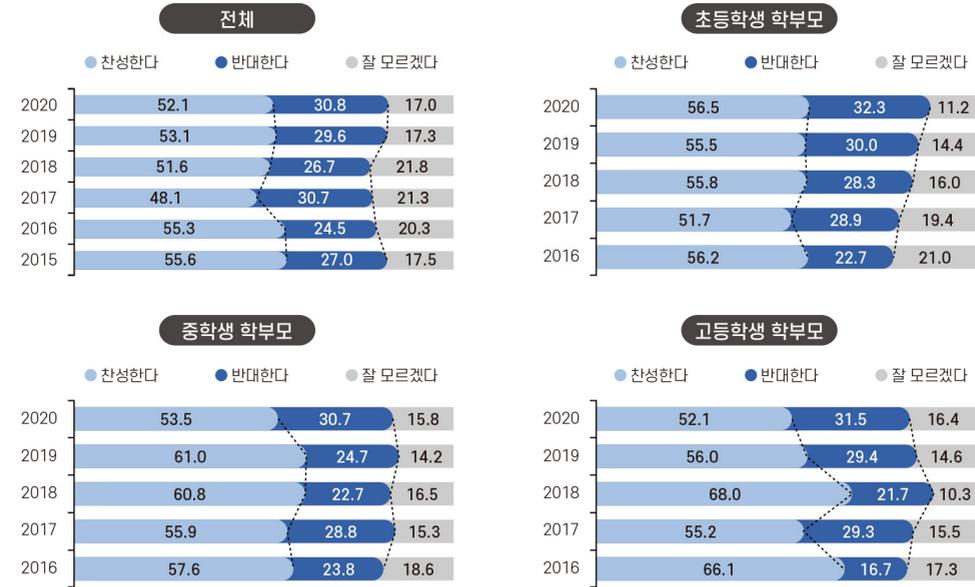
고등학생 학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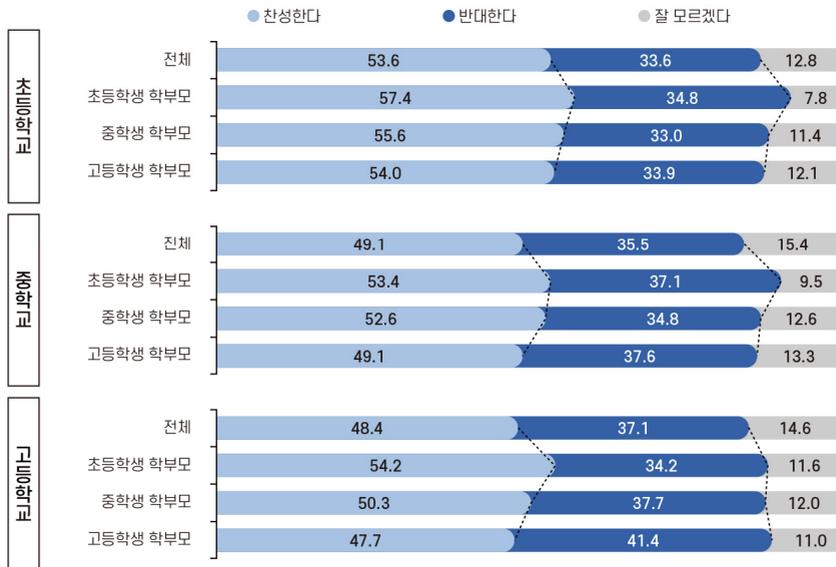
6 교원자격증이 없는 현장 경험 전문가를 일정비율 교사로 초빙한다면?

(단위:%)

초·중·고 전반



초·중·고등학교 (2020년)



7 학교에서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할 교육내용은?

(단위:%)

초등학교

- 인성교육
- 창의성교육
- 민주시민
- 안전교육
- 세계시민
- 특기적성
- 성교육
- 성/안전 교육
- 성/직업 교육
- 안전/통일 교육
- 성/민주시민 교육
- 안전/특기적성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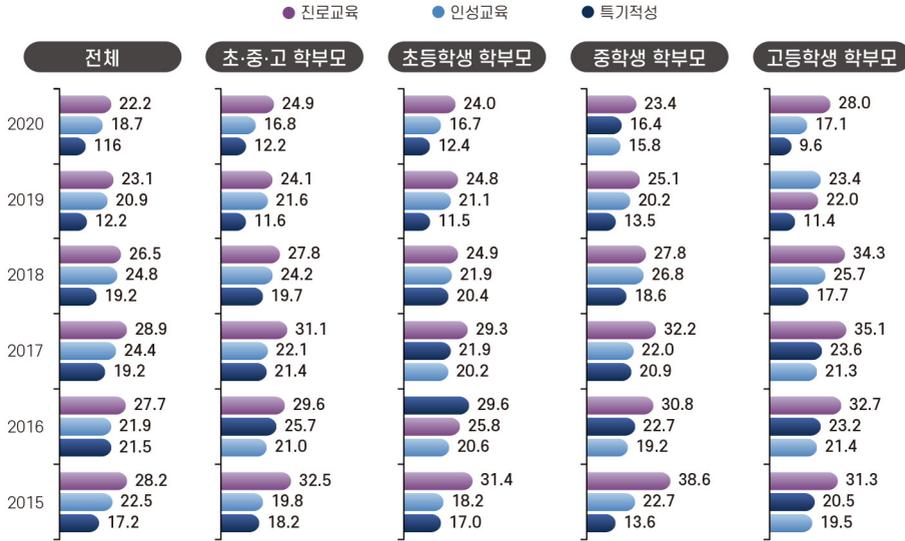
중학교

- 인성교육
- 창의성교육
- 민주시민
- 특기적성
- 성교육
- 진로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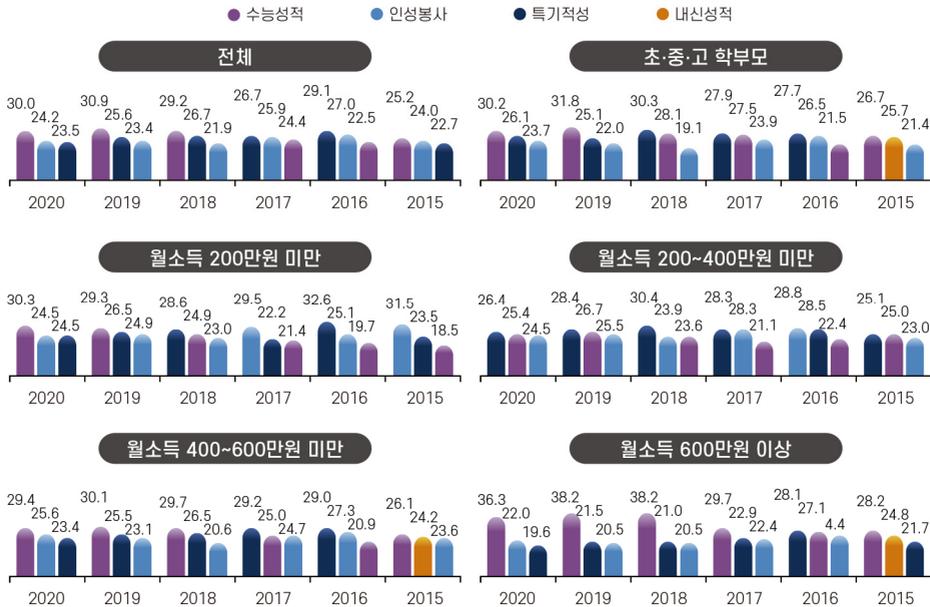


(단위:%)

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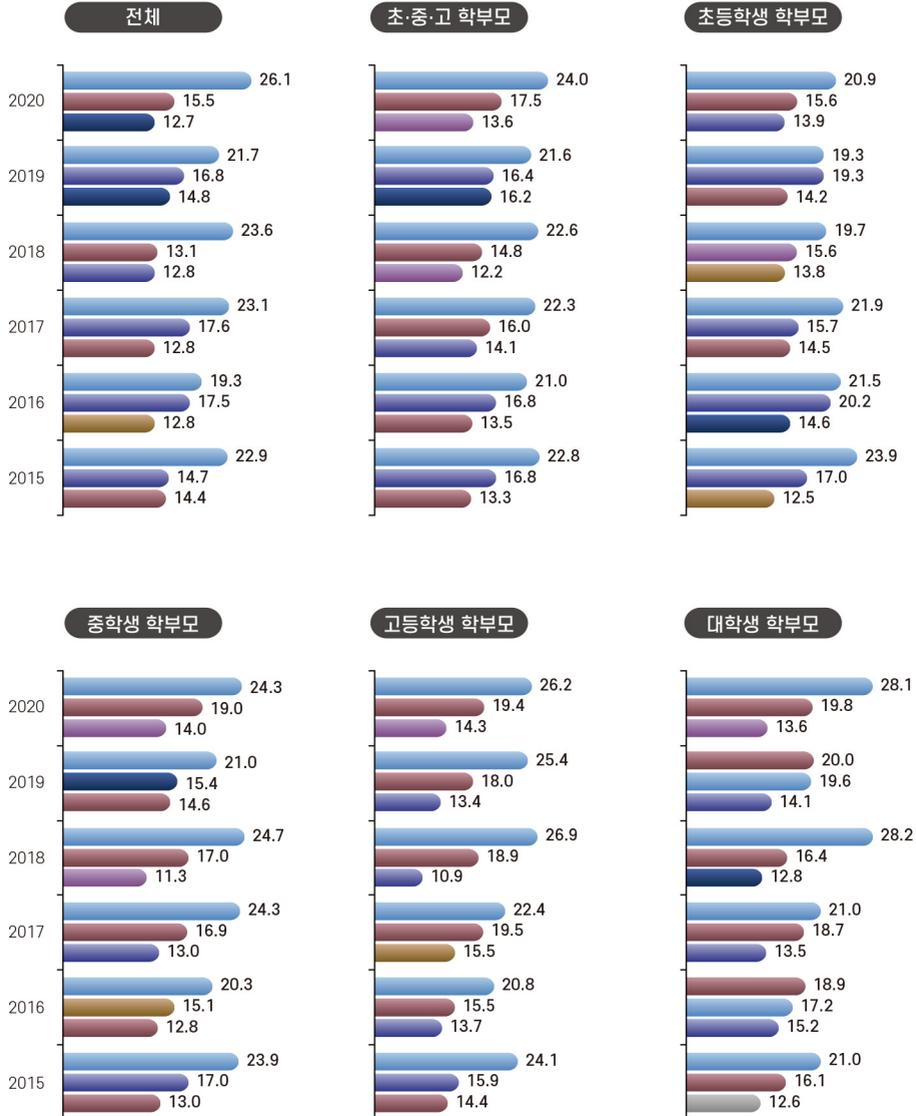
8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할 항목은?



9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정책은?

(단위:%)

● 방과후 학교
 ● EBS 수능연계
 ● EBS 강의
 ● 대입전형 단순화
 ● 선행학습 금지정책
 ● 자기주도 학습 전형
 ● 과정중심 평가강화
 ● 방과후 학교 / 자기 주도 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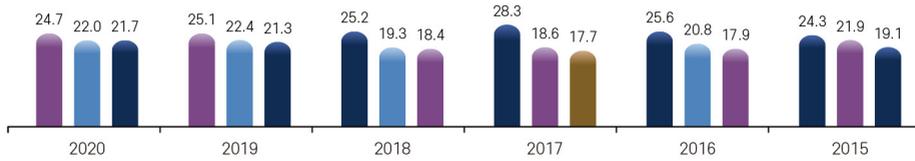


10 우리사회에서 자녀교육에 성공했다는 의미는?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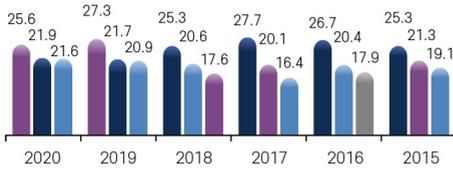
● 하고 싶은 일
 ● 인격 성장
 ● 좋은 직장
 ● 명문 대학
 ● 경제적 성공
 ● 명문대학 /하고 싶은 일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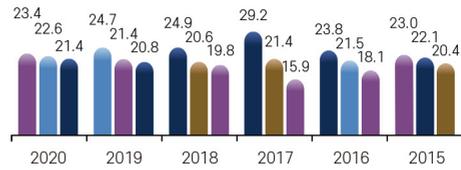


자녀 유무

자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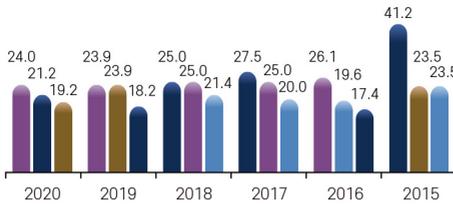


자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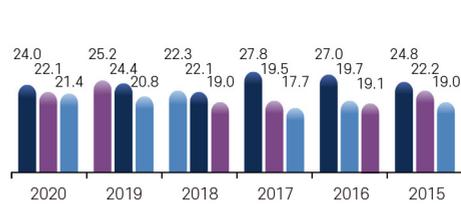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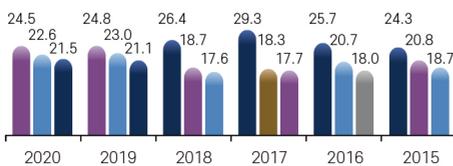
중졸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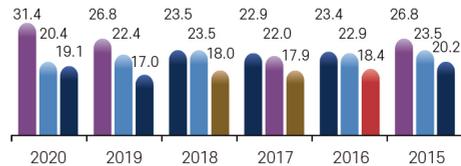
고졸



전문대·대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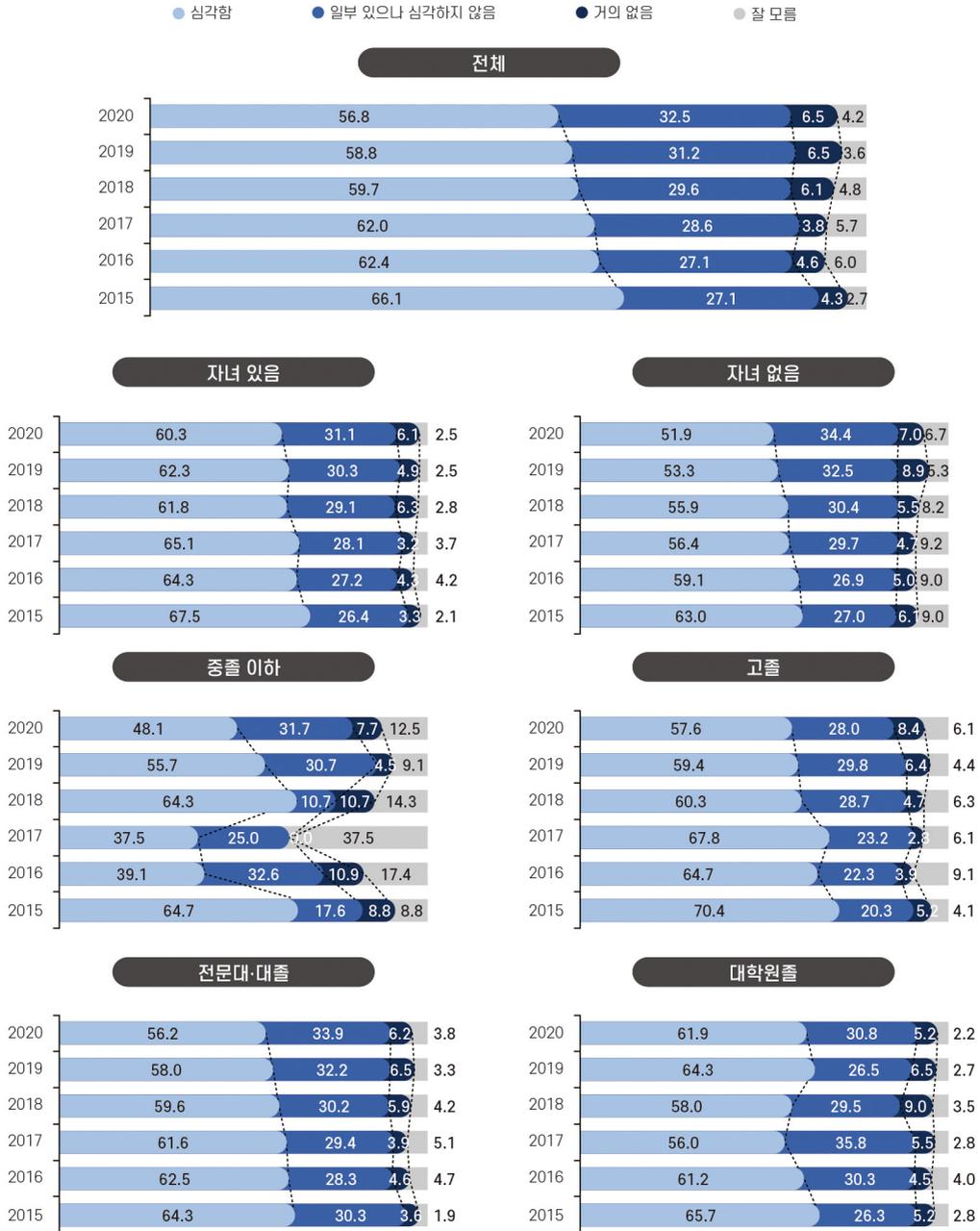


대학원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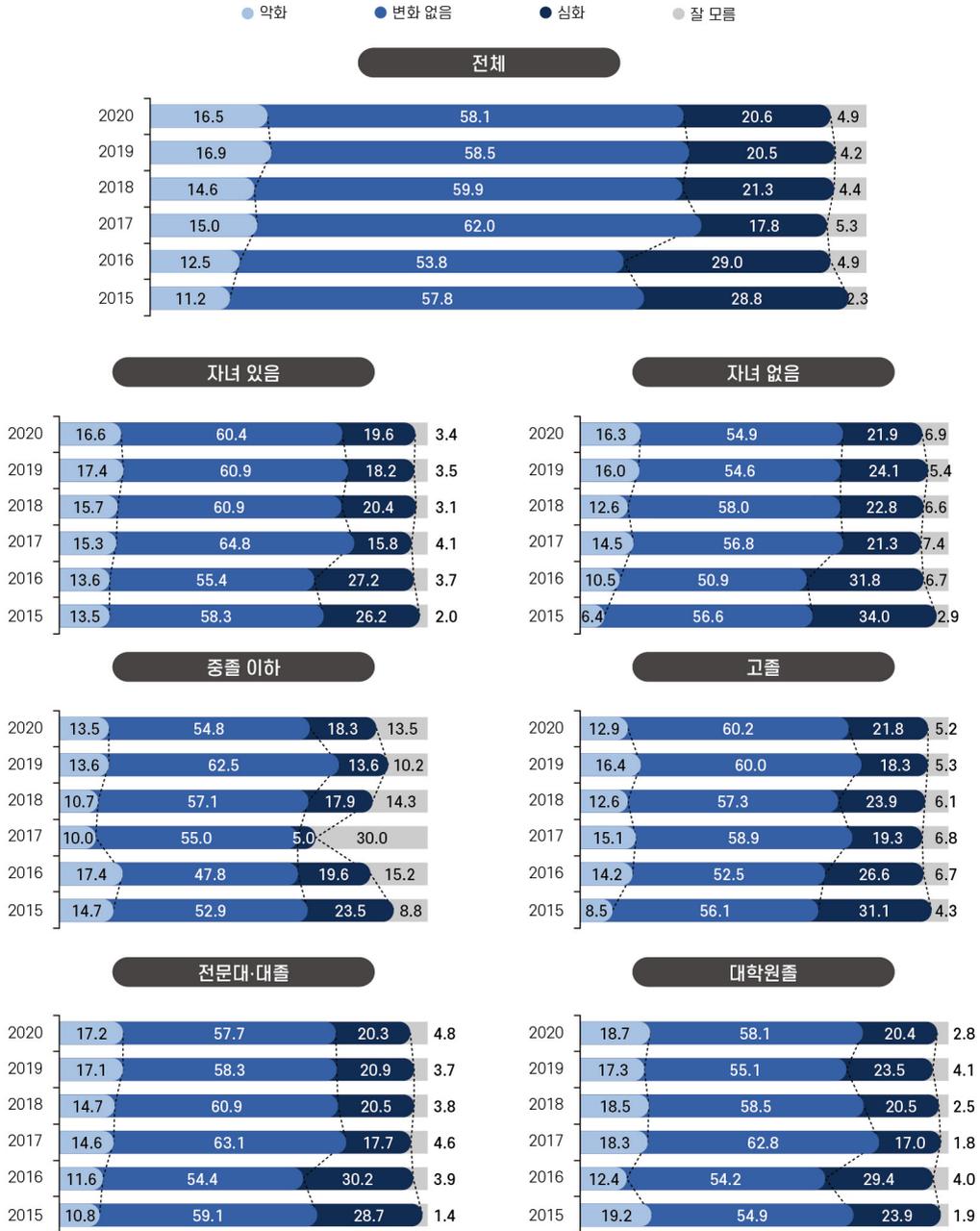
11 우리사회에서 대학 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은 어느 정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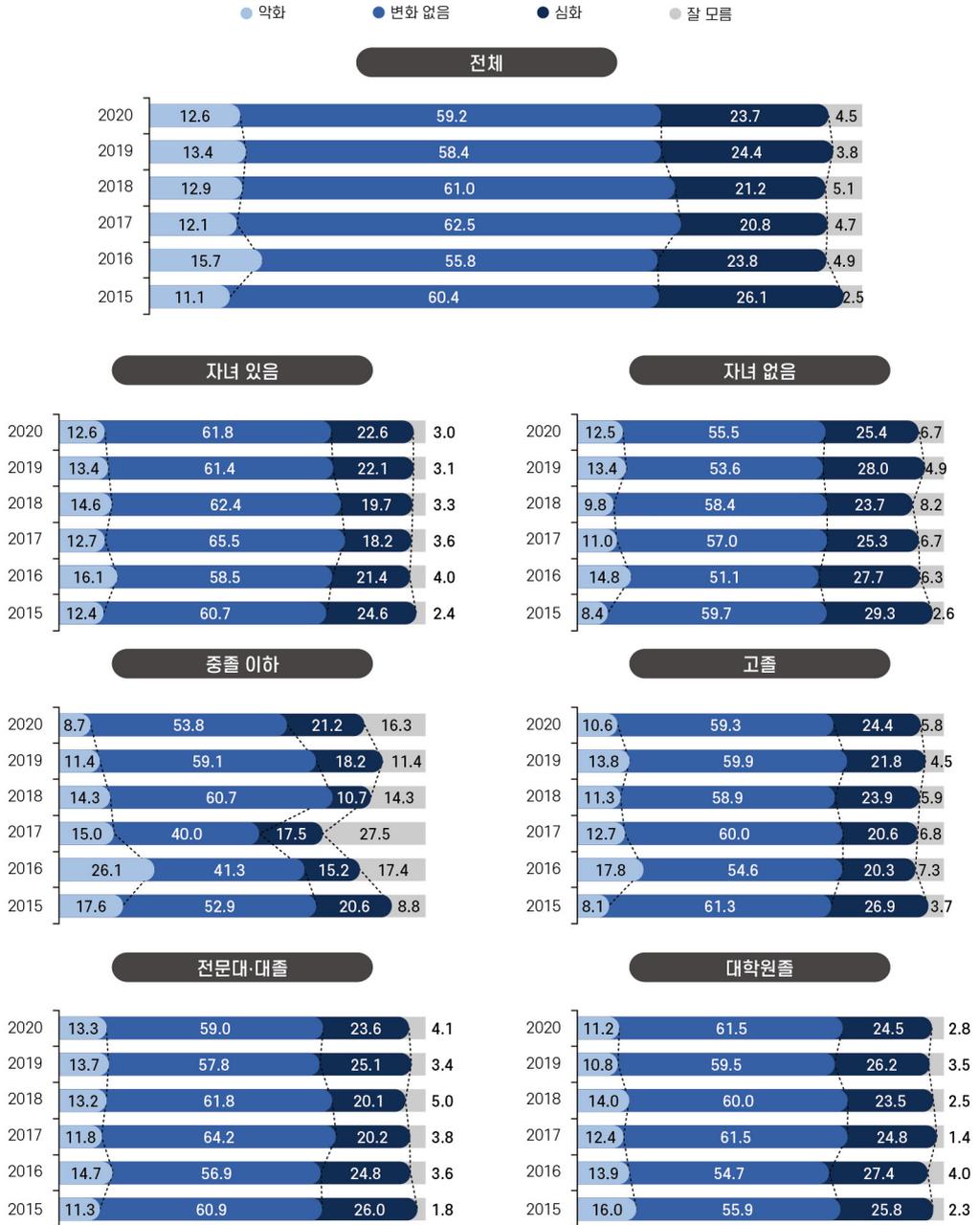
12 우리사회에서 학벌주의에 대한 앞으로의 변화 전망은?

(단위:%)



13 우리사회에서 대학 서열화에 대한 변화 전망은?

(단위:%)



I. 연구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5
	3. 연구 방법 및 조사 설계	9
II. 문헌 분석 및 조사도구 개발	1. 1~14차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17
	2. 국내 교육관련 여론조사	27
	3. 해외 교육관련 여론조사	34
	4. 2020년 정부 교육정책 및 여론 동향	40
	5. 조사도구 개발	44
III. 조사 결과 및 분석	1. 교육정책 및 학교교육 평가	55
	2. 교사	92
	3. 학생	102
	4.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116
	5. 고교정책 및 대입	134
	6.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144
	7. 대학교육	156
	8. 교육현안 및 미래교육	166
	9. 교육관	188

VI. 결론 및 정책 과제	1. 결론: 요약 및 시사점	207
	2. 정책 방향 및 과제	233
참고문헌	251
Abstract	255
부 록	1. KEDI POLL 2020 조사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	271
	2. KEDI POLL 차수별 조사내용 비교	275
	3. 국외 교육관련 여론조사 조사 내용	285
	4. 1~15차 조사문항별 분류	304
	5. KEDI POLL 2020 조사도구	319
	6. 기존 문항 수정 및 신규 개발 내역	343
	7. 응답자 배경변인별 분석 결과	408

표 목차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0)

〈표 I-1〉 15차 조사 설계	6
〈표 I-2〉 차수별 총 문항 수 및 영역	7
〈표 I-3〉 성·연령·지역별 표본 할당 결과	11
〈표 I-4〉 조사 내용	12
〈표 I-5〉 배경변인별 응답자 분포	12
〈표 II-1〉 1~14차 조사까지의 KEDI POLL 개요	17
〈표 II-2〉 KEDI POLL 1~13차 조사까지의 조사 내용 및 주요 성과	19
〈표 II-3〉 KEDI POLL 14차 조사 결과 요약	21
〈표 II-4〉 연령별 온라인 매체를 통한 학습 분야	28
〈표 II-5〉 2020 청소년 통계 조사 항목 및 수록 지표	29
〈표 II-6〉 15차 조사 신규 문항 개발(안)	46
〈표 II-7〉 1~14차 조사 문항의 수정(안)	46
〈표 II-8〉 1~14차 조사 문항과 동일 확정(안)	48
〈표 II-9〉 KEDI POLL 2020 조사 영역 및 내용	50
〈표 III-1〉 10대 교육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2020)	58
〈표 III-2〉 현 정부 유·초·중등 교육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2019~2020) ..	61
〈표 III-3〉 현 정부 고등교육 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2019~2020)	65
〈표 III-4〉 현 정부 평생·직업 교육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2020~2019) ..	68
〈표 III-5〉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2020) ..	71
〈표 III-6〉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평가(2020)	73
〈표 III-7〉 학교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과제(2017~2020)	76
〈표 III-8〉 학교 선택 시 고려 사항(2019~2020)	79
〈표 III-9〉 초·중·고등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한 과제(2008, 2010, 2017~2020)	81
〈표 III-10〉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의견(2017~2020)	83
〈표 III-10-1〉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이유(2019~2020)	85
〈표 III-11〉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네 가지 측면에 대한 의견(2019~2020)	87

표 목차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0)

〈표 Ⅲ-11-1〉 우리나라 교육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어야 할 측면(2018~2020)	89
〈표 Ⅲ-12〉 정부의 교육신뢰회복 노력에 대한 평가(2019~2020)	90
〈표 Ⅲ-13〉 국가교육위원회 역할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2020)	91
〈표 Ⅲ-14〉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 정도(2016~2020)	93
〈표 Ⅲ-15〉 교사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2019~2020)	96
〈표 Ⅲ-16〉 교사자격증이 없는 초빙교사에 대한 찬반의견(2018~2020)	98
〈표 Ⅲ-17〉 자녀 직업으로서 교사 희망에 대한 의견(2011~2020)	100
〈표 Ⅲ-18〉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정도 (2019~2020)	101
〈표 Ⅲ-19〉 학업 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2017~2020)	103
〈표 Ⅲ-20〉 학생의 인성 수준(2020)	105
〈표 Ⅲ-21〉 학생이 좋은 인성을 갖도록 하는 영향 요인(2015~2020)	106
〈표 Ⅲ-22〉 학생의 시민의식(민주시민성) 수준(2020)	108
〈표 Ⅲ-23〉 학생이 시민의식(민주시민성)을 갖도록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18~2020)	110
〈표 Ⅲ-24〉 학생의 시민의식(민주시민성) 제고를 위한 학교의 역할(2020)	111
〈표 Ⅲ-25〉 2~3년 전과 비교한 학교폭력 정도(2019~2020)	112
〈표 Ⅲ-26〉 학교폭력의 원인(2012~2020)	113
〈표 Ⅲ-27〉 유초중고등학교와 학부모의 소통 정도(2020)	115
〈표 Ⅲ-28〉 학부모와 원활한 소통 방식(2020)	116
〈표 Ⅲ-29〉 학교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길러주기를 바라는 사항(2017~2020)	118
〈표 Ⅲ-30〉 현재보다 중시해야 할 교과(2018~2020)	121
〈표 Ⅲ-31〉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할 교육내용(2018~2020)	124
〈표 Ⅲ-32〉 미래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2017~2020)	127
〈표 Ⅲ-33〉 온라인 교육의 수업이수 인정에 대한 의견(2020)	130
〈표 Ⅲ-33-1〉 수업이수로 인정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의 운영 형태 (2020)	133
〈표 Ⅲ-34〉 현 정부의 고등학교 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2018~2020)	136

표 목차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0)

〈표 Ⅲ-35〉	고등학교 교육에서 앞으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2020)	138
〈표 Ⅲ-36〉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 비중에 대한 의견(2019~2020)	140
〈표 Ⅲ-37〉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하는 항목(2011~2020)	141
〈표 Ⅲ-38〉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에 대한 전망(2011~2020)	143
〈표 Ⅲ-39〉	교육재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교육단계(2017~2020)	145
〈표 Ⅲ-40〉	무상교육 범위 확대를 위한 정부의 우선적 재정지원 내용(2016~2020)	148
〈표 Ⅲ-41〉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규모에 대한 의견(2015~2020)	150
〈표 Ⅲ-42〉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교육영역에서의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2020)	151
〈표 Ⅲ-43〉	국가 위기상황 시 교육영역에서 정부가 우선해야 할 역할(2020)	153
〈표 Ⅲ-44〉	국가 위기상황 시 학생들의 학습유지를 위한 우선해야 할 대응 과제(2020)	155
〈표 Ⅲ-45〉	대학교육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기능에 대한 평가(2015~2020)	157
〈표 Ⅲ-46〉	대학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해야 할 우선과제(2020)	159
〈표 Ⅲ-47〉	대학교수의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역할수행에 대한 평가(2015~2020)	161
〈표 Ⅲ-48〉	사립대학 지원 확대에 대한 찬반의견(2018~2020)	162
〈표 Ⅲ-49〉	대학 역량 진단 시 가장 중요하게 반영해야 할 지표(2015~2020)	163
〈표 Ⅲ-50〉	대학교육혁신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2020)	165
〈표 Ⅲ-51〉	교육행정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의견(2019~2020)	168
〈표 Ⅲ-52〉	2~3년 전과 비교한 사교육 실태 변화(1999, 2001, 2017~2020)	170
〈표 Ⅲ-53〉	사교육 비용 부담과 사교육 효과에 대한 의견(2020)	172
〈표 Ⅲ-54〉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정책(2011~2020)	173
〈표 Ⅲ-55〉	사교육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1999, 2001, 2017~2020)	176
〈표 Ⅲ-56〉	자녀 사교육비 부담 정도(2018~2020)	178
〈표 Ⅲ-57〉	자녀의 사교육과 관련한 생각(2020)	180
〈표 Ⅲ-58〉	우리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미래사회 변화(2016, 2019~2020)	182
〈표 Ⅲ-59〉	미래 초·중등학교 교육체제를 위한 요구 과제(2018~2020)	184
〈표 Ⅲ-60〉	미래 학교에서 더 강조될 역할과 기능(2019~2020)	186

표 목차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0)

〈표 Ⅲ-61〉 자녀의 학교교육 거부에 대한 학부모 태도(2015~2020)	190
〈표 Ⅲ-62〉 우리사회에서 자녀교육 성공에 대한 관점(2010, 2015~2020)	191
〈표 Ⅲ-63〉 자녀의 장래 생활에 대한 기대(2017~2020)	193
〈표 Ⅲ-64〉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담 정도(2018~2020)	194
〈표 Ⅲ-65〉 대학졸업장의 유무에 따른 차별 정도(2011~2020)	196
〈표 Ⅲ-66〉 우리나라 학벌주의에 대한 전망(2011~2020)	198
〈표 Ⅲ-67〉 대학 서열화에 대한 전망(2011~2020)	199
〈표 Ⅲ-68-1〉 교육이 경제적 부의 증대에 미치는 영향(2006, 2008, 2010, 2017~2020) ·	201
〈표 Ⅲ-68-2〉 교육이 사회적 지위 향상에 미치는 영향(2006, 2008, 2010, 2017~2020) ·	202
〈표 Ⅲ-68-3〉 교육이 심리적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2006, 2008, 2010, 2017~2020)	203

그림 목차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0)

[그림 Ⅰ-1] 지역별, 성별, 연령별 층화	11
[그림 Ⅰ-2] 단계별 표본 추출 과정	11
[그림 Ⅱ-1] KEDI POLL 조사영역별 관련 기사 현황(2019. 8 ~ 2020. 8)	42
[그림 Ⅲ-1] 10대 교육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1순위, 2020)	59
[그림 Ⅲ-2] 10대 교육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1+2순위, 2020)	59
[그림 Ⅲ-3] 현 정부 유·초·중등 교육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1순위, 2020)	62
[그림 Ⅲ-4] 현 정부 유·초·중등 교육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1+2순위, 2020)	63
[그림 Ⅲ-5] 현 정부 고등교육 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1순위, 2020)	66
[그림 Ⅲ-6] 현 정부 고등교육 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1+2순위, 2020)	66
[그림 Ⅲ-7] 현 정부 평생·직업 교육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1순위, 2020)	69
[그림 Ⅲ-8] 현 정부 평생·직업 교육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1+2순위, 2020)	69
[그림 Ⅲ-9]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2020)	71
[그림 Ⅲ-10]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평가(전체 평균, 2006~2020)	73
[그림 Ⅲ-11]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평가(평균 비교, 2006~2020)	74
[그림 Ⅲ-12] 학교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과제(2020)	77
[그림 Ⅲ-13] 학교 선택 시 고려 사항(2020)	80
[그림 Ⅲ-14] 초·중·고등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한 과제(전체, 2008, 2010, 2017~2020)	82
[그림 Ⅲ-15]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의견(전체, 2006~2020)	83
[그림 Ⅲ-16]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이유(2020)	85
[그림 Ⅲ-17]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네 가지 측면에 대한 의견(2020)	87
[그림 Ⅲ-18]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네 가지 측면에 대한 의견(평균, 2017~2020)	88
[그림 Ⅲ-19] 우리나라 교육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어야 할 측면(전체, 2018~2020)	89
[그림 Ⅲ-20] 정부의 교육신뢰회복 노력에 대한 평가(평균, 2019~2020)	90
[그림 Ⅲ-21] 국가교육위원회 역할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2020)	91
[그림 Ⅲ-22]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 정도(전체 평균, 2011~2020)	94
[그림 Ⅲ-23]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 정도(평균 비교, 2011~2020)	94

그림 목차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0)

[그림 III-24]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 정도(초·중·고 전반, 2020)	94
[그림 III-25]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 정도(초등학교, 2020)	94
[그림 III-26]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 정도(중학교, 2020)	95
[그림 III-27]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 정도(고등학교, 2020)	95
[그림 III-28] 초·중·고등학교 교사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2020)	97
[그림 III-29] 초등학교 교사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2020)	97
[그림 III-30] 중학교 교사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2020)	97
[그림 III-31] 고등학교 교사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2020)	97
[그림 III-32] 교사자격증이 없는 초빙교사에 대한 찬반의견(전체, 2008~2010, 2015~2020)	99
[그림 III-33] 교사자격증이 없는 초빙교사에 대한 찬반의견(초·중·고 전반, 2020)	99
[그림 III-34] 교사자격증이 없는 초빙교사에 대한 찬반의견(초등학교, 2020)	99
[그림 III-35] 교사자격증이 없는 초빙교사에 대한 찬반의견(중학교, 2020)	99
[그림 III-36] 교사자격증이 없는 초빙교사에 대한 찬반의견(고등학교, 2020)	99
[그림 III-37] 자녀 직업으로서 교사 희망에 대한 의견(전체, 2011~2020)	100
[그림 III-38] 자녀 직업으로서 교사 희망에 대한 의견(자녀 있는 응답자, 2011~2020)	100
[그림 III-39]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정도(전체, 2019~2020)	101
[그림 III-40] 학업 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전체, 2017~2020)	103
[그림 III-41] 학생의 인성 수준 (전체 평균, 2012~2020)	105
[그림 III-42] 학생의 인성 수준 (평균 비교, 2012~2020)	105
[그림 III-43] 학생이 좋은 인성을 갖도록 하는 영향 요인(전체, 2015~2020)	107
[그림 III-44] 학생의 시민의식(민주시민성) 수준 (평균 비교, 2020)	109
[그림 III-45] 학생의 시민의식(민주시민성) 수준 (전체 평균, 2018~2020)	109
[그림 III-46] 학생이 시민의식(민주시민성)을 갖도록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2020)	110
[그림 III-47] 학생이 시민의식(민주시민성)을 갖도록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체, 2018~2020)	110
[그림 III-48] 학생의 시민의식(민주시민성) 제고를 위한 학교의 역할(2020)	111

그림 목차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0)

[그림 III-49] 2~3년 전과 비교한 학교폭력 정도(2020)	112
[그림 III-50] 2~3년 전과 비교한 학교폭력 정도(전체, 2019~2020)	112
[그림 III-51] 학교폭력의 원인(전체, 2012~2020)	114
[그림 III-52] 유·초·중·고등학교와 학부모의 소통 정도(2020)	115
[그림 III-53] 학부모와 원활한 소통 방식(2020)	116
[그림 III-54] 학교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길러주기를 바라는 사항(전체, 2017~2020)	119
[그림 III-55] 초등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 할 교과(2020)	122
[그림 III-56] 중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 할 교과(2020)	122
[그림 III-57] 고등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 할 교과(2020)	122
[그림 III-58] 초등학교에서 강화되어야 할 교육내용(2020)	125
[그림 III-59] 중학교에서 강화되어야 할 교육내용(2020)	125
[그림 III-60] 고등학교에서 강화되어야 할 교육내용(2020)	125
[그림 III-61] 미래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전반, 2017~2020)	127
[그림 III-62] 미래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초등학교, 2017~2020)	128
[그림 III-63] 미래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중학교, 2017~2020)	128
[그림 III-64] 미래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고등학교, 2017~2020)	128
[그림 III-65] 온라인 교육의 수업이수 인정에 대한 의견(초·중고 전반, 2020)	130
[그림 III-66] 온라인 교육의 수업이수 인정에 대한 의견(초등학교, 2020)	130
[그림 III-67] 온라인 교육의 수업이수 인정에 대한 의견(중학교, 2020)	130
[그림 III-68] 온라인 교육의 수업이수 인정에 대한 의견(고등학교, 2020)	130
[그림 III-69] 수업이수로 인정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의 운영 형태(초·중고 전반, 2020)	133
[그림 III-70] 수업이수로 인정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의 운영 형태(초등학교, 2020)	133
[그림 III-71] 수업이수로 인정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의 운영 형태(중학교, 2020)	134
[그림 III-72] 수업이수로 인정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의 운영 형태(고등학교, 2020)	134
[그림 III-73] 현 정부의 고등학교 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전체, 2018~2020)	136
[그림 III-74] 고등학교 교육에서 앞으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1순위, 2020)	138

그림 목차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0)

[그림 III-75] 고등학교 교육에서 앞으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1+2순위, 2020)	139
[그림 III-76]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 비중에 대한 의견(전체, 2019~2020)	140
[그림 III-77]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하는 항목(2020)	141
[그림 III-78]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에 대한 전망(전체, 2011~2020)	143
[그림 III-79] 교육재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교육단계(전체, 2017~2020)	146
[그림 III-80] 무상교육 범위 확대를 위한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해 주어야 할 내용 (학교급별, 2020)	149
[그림 III-81]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규모에 대한 의견(전체, 2015~2020)	150
[그림 III-82]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교육영역에서의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2020)	152
[그림 III-83] 국가 위기상황 시 교육영역에서 정부가 우선해야 할 역할(2020)	154
[그림 III-84] 국가 위기상황 시 학생들의 학습유지를 위한 우선해야 할 대응 과제(2020)	155
[그림 III-85] 대학교육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기능에 대한 평가 (전체 평균, 2006~2020)	158
[그림 III-86] 대학교육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기능에 대한 평가 (평균 비교, 2006~2020)	158
[그림 III-87] 대학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해야 할 우선과제(4년제 대학, 2020)	160
[그림 III-88] 대학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해야 할 우선과제(전문대학, 2020)	160
[그림 III-89] 대학교수의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역할수행에 대한 평가(평균 비교, 2015~2020)	161
[그림 III-90] 사립대학 지원 확대에 대한 찬반의견(전체, 2018~2020)	162
[그림 III-91] 대학역량 진단 시 가장 중요하게 반영해야 할 지표(전체, 2015~2020)	164
[그림 III-92] 대학교육혁신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1순위, 2020)	166
[그림 III-93] 대학교육혁신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1+2순위, 2020)	166
[그림 III-94] 교육행정 권한과 책임에 대한 의견(전체, 2015~2020)	169
[그림 III-95] 교육행정 권한과 책임에 대한 의견(초·중·고 학부모, 2015~2020)	169
[그림 III-96] 2~3년 전과 비교한 사교육 실태 변화(2017~2020)	171
[그림 III-97] 사교육 비용 부담과 사교육 효과에 대한 의견(2020)	172

그림 목차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0)

[그림 Ⅲ-98]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정책(2020)	175
[그림 Ⅲ-99] 사교육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전체, 1999, 2001, 2017~2020)	177
[그림 Ⅲ-100] 자녀의 사교육비 부담 정도(2020)	178
[그림 Ⅲ-101] 자녀의 사교육과 관련한 생각(전체 평균, 2019~2020)	181
[그림 Ⅲ-102] 우리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미래사회 변화(전체, 2016, 2019~2020) ·	182
[그림 Ⅲ-103] 미래 초·중등학교 교육체제를 위한 요구 과제(2020)	185
[그림 Ⅲ-104] 미래 학교에서 더 강조될 역할과 기능(초등학교, 2020)	187
[그림 Ⅲ-105] 미래 학교에서 더 강조될 역할과 기능(중학교, 2020)	187
[그림 Ⅲ-106] 미래 학교에서 더 강조될 역할과 기능(고등학교, 2020)	188
[그림 Ⅲ-107] 자녀의 학교교육 거부에 대한 학부모 태도(전체, 2015~2020)	190
[그림 Ⅲ-108] 우리사회에서 자녀교육 성공에 대한 관점(전체, 2010, 2015~2020)	192
[그림 Ⅲ-109] 자녀의 장래 생활에 대한 기대(전체, 2017~2020)	193
[그림 Ⅲ-110]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담 정도(전체, 2018~2020)	195
[그림 Ⅲ-111] 대학졸업장의 유무에 따른 차별 정도(전체, 2011~2020)	197
[그림 Ⅲ-112] 우리나라 학벌주의에 대한 전망(전체, 2011~2020)	198
[그림 Ⅲ-113] 대학 서열화에 대한 전망(전체, 2011~2020)	200
[그림 Ⅲ-114] 교육이 경제적 부의 증대에 미치는 영향(전체, 2006, 2008, 2010, 2017~2020)	201
[그림 Ⅲ-115] 교육이 사회적 지위 향상에 미치는 영향(전체, 2006, 2008, 2010, 2017~2020)	202
[그림 Ⅲ-116] 교육이 심리적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전체, 2006, 2008, 2010, 2017~2020)	203
[그림 Ⅳ-1] KEDI POLL 2020 조사 결과 및 분석에 따른 시사점 요약	234
[그림 Ⅳ-2] KEDI POLL 2020를 통한 교육정책 방향 및 영역별 정책 과제 제안	235

부록 표 목차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0)

〈표 1-1〉 10대 교육정책 중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1순위)	408
〈표 1-2〉 10대 교육정책 중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2순위)	410
〈표 1-3〉 10대 교육정책 중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1+2순위)	412
〈표 2-1〉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유·초·중등 교육정책(1순위)	413
〈표 2-2〉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유·초·중등 교육정책(2순위)	415
〈표 2-3〉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유·초·중등 교육정책(1+2순위)	416
〈표 3-1〉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고등교육정책(1순위)	417
〈표 3-2〉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고등교육정책(2순위)	418
〈표 3-3〉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고등교육정책(1+2순위)	419
〈표 4-1〉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평생·직업교육정책(1순위)	420
〈표 4-2〉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평생·직업교육정책(2순위)	421
〈표 4-3〉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평생·직업교육정책(1+2순위)	422
〈표 5〉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423
〈표 6-1〉 초·중·고등학교 전반에 대한 평가	424
〈표 6-2〉 초등학교에 대한 평가	425
〈표 6-3〉 중학교에 대한 평가	426
〈표 6-4〉 고등학교에 대한 평가	427
〈표 7-1〉 학교가 'A+B'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과제: 초·중·고 전반	428
〈표 7-2〉 학교가 'A+B'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과제: 초등학교	429
〈표 7-3〉 학교가 'A+B'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과제: 중학교	430
〈표 7-4〉 학교가 'A+B'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과제: 고등학교	431
〈표 8-1〉 학교 선택시 고려사항: 초등학교	432
〈표 8-2〉 학교 선택시 고려사항: 중학교	433
〈표 8-3〉 학교 선택시 고려사항: 고등학교	434
〈표 8-4〉 학교 선택시 고려사항: 대학교	435
〈표 9〉 초·중·고등학교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것	436

부록 표 목차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0)

〈표 10-1〉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인식: 초·중·고 전반	437
〈표 10-2〉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인식: 초등학교	438
〈표 10-3〉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인식: 중학교	439
〈표 10-4〉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인식: 고등학교	440
〈표 10-1-1〉 조기유학 보낼 생각이 있다면 그 이유	441
〈표 11-1〉 우리나라 교육정책: 일관성	442
〈표 11-2〉 우리나라 교육정책: 장기적 비전	443
〈표 11-3〉 우리나라 교육정책: 우리나라 여건에의 적합성	444
〈표 11-4〉 우리나라 교육정책: 국민여론 반영	445
〈표 11-1-1〉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우리나라 교육정책	446
〈표 12〉 정부의 교육신뢰회복 노력에 대한 평가	447
〈표 13〉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국가교육위원회 역할	447
〈표 14-1〉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 정도: 초·중·고 전반	449
〈표 14-2〉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 정도: 초등학교	450
〈표 14-3〉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 정도: 중학교	451
〈표 14-4〉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 정도: 고등학교	452
〈표 15-1〉 교사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 초·중·고 전반	453
〈표 15-2〉 교사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 초등학교	454
〈표 15-3〉 교사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 중학교	455
〈표 15-4〉 교사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 고등학교	456
〈표 16-1〉 교사자격증이 없는 초빙교사에 대한 찬반의견: 초·중·고 전반	457
〈표 16-2〉 교사자격증이 없는 초빙교사에 대한 찬반의견: 초등학교	458
〈표 16-3〉 교사자격증이 없는 초빙교사에 대한 찬반의견: 중학교	459
〈표 16-4〉 교사자격증이 없는 초빙교사에 대한 찬반의견: 고등학교	460
〈표 17〉 자녀의 선생님 진로에 대한 의견	461
〈표 18〉 현재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정도	462

부록 표 목차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0)

〈표 19〉 학업 성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463
〈표 20-1〉 학생의 인성 수준: 초·중·고 전반	464
〈표 20-2〉 학생의 인성 수준: 초등학교	465
〈표 20-3〉 학생의 인성 수준: 중학교	466
〈표 20-4〉 학생의 인성 수준: 고등학교	467
〈표 21〉 학생이 좋은 인성을 갖도록 하는 영향 요인	468
〈표 22-1〉 학생의 민주시민성 수준: 초·중·고 전반	469
〈표 22-2〉 학생의 민주시민성 수준: 초등학교	470
〈표 22-3〉 학생의 민주시민성 수준: 중학교	471
〈표 22-4〉 학생의 민주시민성 수준: 고등학교	472
〈표 23〉 학생이 민주시민성을 갖도록 하는 영향 요인	473
〈표 24〉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민주시민성 제고를 위한 과제	474
〈표 25〉 학교 폭력의 완화 여부	475
〈표 26〉 학교 폭력의 원인	476
〈표 27〉 학교와 학부모의 소통 원활 정도	477
〈표 28〉 학부모와의 소통을 위해 보다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방식	478
〈표 29-1〉 초·중·고 전반에서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	479
〈표 29-2〉 초등학교에서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	480
〈표 29-3〉 중학교에서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	481
〈표 29-4〉 고등학교에서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	482
〈표 30-1〉 초등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 할 교과	483
〈표 30-2〉 중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 할 교과	484
〈표 30-3〉 고등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 할 교과	485
〈표 31-1〉 초등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교육	486
〈표 31-2〉 중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교육	487
〈표 31-3〉 고등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할 교육	488

부록 표 목차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0)

〈표 32-1〉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 초·중·고 전반	489
〈표 32-2〉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 초등학교	490
〈표 32-3〉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 중학교	491
〈표 32-4〉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 고등학교	492
〈표 33-1〉 온라인 교육 수업이수 인정 찬반의견: 초·중·고 전반	493
〈표 33-2〉 온라인 교육 수업이수 인정 찬반의견: 초등학교	494
〈표 33-3〉 온라인 교육 수업이수 인정 찬반의견: 중학교	495
〈표 33-4〉 온라인 교육 수업이수 인정 찬반의견: 고등학교	496
〈표 33-1-1〉 수업이수 인정 가능한 온라인 교육 운영 형태: 초·중·고 전반	497
〈표 33-1-2〉 수업이수 인정 가능한 온라인 교육 운영 형태: 초등학교	498
〈표 33-1-3〉 수업이수 인정 가능한 온라인 교육 운영 형태: 중학교	499
〈표 33-1-4〉 수업이수 인정 가능한 온라인 교육 운영 형태: 고등학교	500
〈표 34-1〉 고등학교 교육 정책(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현)	501
〈표 34-2〉 고등학교 교육 정책(고교 학점제 도입)	502
〈표 34-3〉 고등학교 교육 정책(외고·자사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제 개편)	503
〈표 34-4〉 고등학교 교육 정책(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504
〈표 35-1〉 고등학교 교육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1순위)	505
〈표 35-2〉 고등학교 교육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2순위)	506
〈표 35-3〉 고등학교 교육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1+2순위)	507
〈표 36〉 고교 단계에서 직업교육 비중에 대한 의견	508
〈표 37〉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할 항목	509
〈표 38〉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에 대한 전망	510
〈표 39〉 교육 재정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교육단계	511
〈표 40-1〉 초등학생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우선 순위	512
〈표 40-2〉 중학생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우선 순위	513
〈표 40-3〉 고등학생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우선 순위	514

부록 표 목차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0)

〈표 41〉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축소에 대한 의견	515
〈표 42〉 코로나19 교육영역 정부 대응 적절성	516
〈표 43〉 국가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교육영역에서 우선해야 할 일	516
〈표 44〉 국가 위기상황에서 학습 유지를 위해 우선해야 할 대응과제	518
〈표 45-1〉 대학교육의 인재양성 기능에 대한 평가: 4년제	518
〈표 45-2〉 대학교육의 인재양성 기능에 대한 평가: 전문대	520
〈표 46-1〉 제대로된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이 우선해야 할 과제: 4년제	521
〈표 46-2〉 제대로된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이 우선해야 할 과제: 전문대	522
〈표 47-1〉 4년제 대학 교수에 대한 교육능력 평가	523
〈표 47-2〉 전문대학 교수에 대한 교육능력 평가	524
〈표 48〉 사립대학 지원 확대에 대한 의견	525
〈표 49〉 대학평가 시 가장 중요하게 반영해야 할 지표	526
〈표 50-1〉 대학교육혁신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1순위)	527
〈표 50-2〉 대학교육혁신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2순위)	528
〈표 50-3〉 대학교육혁신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1+2순위)	529
〈표 51-1〉 교육 행정 권한과 책임: 유·초·중·고 교육정책의 수립	530
〈표 51-2〉 교육 행정 권한과 책임: 필수 교육과정의 결정	531
〈표 51-3〉 교육 행정 권한과 책임: 교과목 표준 학습성취 기준 마련	532
〈표 51-4〉 교육 행정 권한과 책임: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533
〈표 52〉 사교육 변화 정도	534
〈표 53〉 사교육비 부담과 사교육 효과 체감 정도	535
〈표 54〉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정책	536
〈표 55-1〉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 (1번)	537
〈표 55-2〉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 (2번)	538
〈표 56〉 사교육비 부담 정도	539
〈표 57-1〉 사교육 관련 생각: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	540

부록 표 목차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0)

〈표 57-2〉 사교육 관련 생각: 필요하다	541
〈표 57-3〉 사교육 관련 생각: 종류는 부모가 결정한다	542
〈표 57-4〉 사교육 관련 생각: 공부에 도움 안 되는 취미활동은 말린다	543
〈표 57-5〉 사교육 관련 생각: 공부 안 하면 불안하다	544
〈표 57-6〉 사교육 관련 생각: 학원이나 과외를 하면 마음이 편하다	545
〈표 58〉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미래 사회 변화	546
〈표 59-1〉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한 과제(1번)	547
〈표 59-2〉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한 과제(2번)	548
〈표 60-1〉 미래 학교에서 더 강조될 역할과 기능: 초등학교	549
〈표 60-2〉 미래 학교에서 더 강조될 역할과 기능: 중학교	550
〈표 60-3〉 미래 학교에서 더 강조될 역할과 기능: 고등학교	551
〈표 61-1〉 자녀의 학교교육 거부에 대한 학부모 태도: 초·중·고 전반	552
〈표 61-2〉 자녀의 학교교육 거부에 대한 학부모 태도: 초등학교	553
〈표 61-3〉 자녀의 학교교육 거부에 대한 학부모 태도: 중학교	554
〈표 61-4〉 자녀의 학교교육 거부에 대한 학부모 태도: 고등학교	555
〈표 62〉 우리 사회에서 자녀교육 성공의 의미	556
〈표 63-1〉 향후 희망하는 자녀의 생활(1번)	557
〈표 63-2〉 향후 희망하는 자녀의 생활(2번)	558
〈표 64〉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담 의향 기간	559
〈표 65〉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의 존재 정도	560
〈표 66〉 우리나라 학벌주의에 대한 전망	561
〈표 67〉 대학 서열화에 대한 전망	562
〈표 68-1〉 교육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경제적 부의 증대)	563
〈표 68-2〉 교육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사회적 지위 향상)	564
〈표 68-3〉 교육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심리적인 만족감)	565

CHAPTER

I

연구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및 조사 설계

KEDI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매년 실시하는 교육여론조사를 통해 교육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및 태도의 변화 경향을 파악하고, 언론을 통한 이슈화로 국민여론을 형성한다.

지난 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로 인한 고교체제 개편 논쟁이나 소위 ‘조국 사태’로 불거진 고교 서열화 및 대입에서의 공정성 논란 등은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가장 주목받는 이슈가 되었다. 그 이슈화 과정에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이하 KEDI POLL)」의 연구 결과는 언론을 통해 빈번하게 인용되었으며, 정부 또한, 교육정책의 개발 및 평가 등에 국민여론을 반영할 목적으로 KEDI POLL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1999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2020년인 올해 15차 조사가 실시되는 KEDI POLL은 교육 및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총체적 인식 및 태도를 파악하고, 서로 상반된 집단 간의 견해 차이를 확인하여 국민들이 시급히 개선되었으면 하는 교육현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거나, 정부의 관련 교육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KEDI POLL은 1년을 주기로 조사하는 시계열 조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태도가 어떠한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새롭게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현안을 중심으로 국민여론을 파악하여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이와 관련한 교육현안 및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을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조사 시기의 조정 등을 통해 지난 조사들과의 비교 분석에 오류가 없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KEDI POLL의 연구 목적은 우리 국민들이 교육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교육의

질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으며, 교육 현장이나 교육정책 결정자들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나아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의 교육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있다. 또한, KEDI POLL을 통해 교육 및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정부가 국민과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 교육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나 가치관의 변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교육여론조사를 통해 교육정책 수립 및 그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국민 의견을 수렴하거나 국민여론을 파악해 가는 과정은 정부가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되어야 하는 기초적인 정보수집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부 정책은 수요자인 국민을 위해 개발되고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하여 반영하는 일련의 행위들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과정일 수밖에 없다.

KEDI POLL의 초기 모델이 되었던 미국뿐만 아니라 교육과 관련하여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핀란드나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교육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연례행사인 교육 분야 박람회 ‘EDUCA’나 ‘시민 주도(Citizen’s Initiative)’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주요한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필수단계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청회를 활용한다(교육정책네트워크, 2019). 미국은 매년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태도 조사’나 ‘Education Next Poll’을 통해 미국 국민들이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 및 태도, 성향 등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교육정책에 대한 홍보 효과 및 정책 결정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도나 시도교육청, 전문여론기관 등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현안을 중심으로 수시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관련 정책에 대한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또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통계청에서는 ‘사회조사’나 ‘청소년 통계’ 등을 통해 사회개발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각 시도에서도 통계청과 같이 ‘사회조사’를 통해 각 시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개발이나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KEDI POLL 또한, 연구 결과를 통해 교육정책 수립에의 우선순위 제공이나 교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 및 그 개선과 보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무엇보다 KEDI POLL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오면서 연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교육 및 교육정책과 관련한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언론과 정책 당국에서 가장 많이 찾는 연구가 되고 있다.

상기의 연구 필요성 및 목적에 따라 KEDI POLL은 교육여론조사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사 내용, 조사 대상 및 조사 방법 등에서의 체계성을 갖추고, 시계열 조사연구로서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15차 조사인 KEDI POLL 2020의 세부적인 연구 목적 및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14차 조사까지의 조사 영역 및 내용을 검토하고, 조사 체계 및 문항 구성을 수정·보완하여 15차 조사도구를 개발한다.

둘째, 교육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여 지난(1~14차) 조사 결과와 비교한 변화 추이를 분석·제시한다.

셋째, 새롭게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현안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인지 정도 및 의견을 조사하여 분석·제시한다.

넷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및 교육정책 추진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2 연구 내용

가. 15차 조사체계 설계 및 조사도구 개발

1) 15차 조사체계 설계를 위한 문항 구성 재검토

- 1년을 주기로 실시하는 교육여론조사로서의 지속성, 일관성 유지를 위한 조사 영역 및 문항 구성 재검토
 - 연 1회 전면 온라인 조사 실시
 - 조사 영역 및 문항의 체계적 검토를 통해 조사의 신뢰성 및 타당성 확보

- 고정문항과 유동문항(현안문항)의 비중 검토(8:2 유지 검토)
- 온라인 조사에 따른 화면 구성 등 보완사항 검토

〈표 1-1〉 15차 조사 설계

구분	15차 조사
조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교육 및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및 태도 조사 • 새롭게 이슈화 된 교육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 정도 및 의견 조사
조사 대상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전국 성인남녀
표집 인원	5,000명*(지역, 성, 연령별 모집단 인구 비례 표집)
조사 문항	61~70문항(유동문항 비율 20% 유지 검토)
조사 방법	전면 온라인 조사(연 1회)
조사 시기	2020년 8월 말 ~ 9월 중순(4주간 조사 예정)

* 지난 해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자 수를 2배인 4,000명으로 확대하였고, 올해는 1,000명을 더 추가하여 5,000명으로 확대

2) 15차 조사도구 개발 및 IRB 심의

- 조사 영역*에 대한 검토 및 조정
 - * 12~14차 조사의 경우 9개 영역: ① 교육정책 및 학교교육 평가, ② 교사, ③ 학생, ④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⑤ 고교 정책 및 대입, ⑥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⑦ 대학교육, ⑧ 교육현안 및 미래교육, ⑨ 교육관
- 고정문항 선정
 - 고정문항 선정 기준을 설정하고, 1~14차 조사까지의 문항(문항 pool 구성 및 모듈화)을 전면 검토하여 15차 조사에 포함할 고정문항 선정
 - 선정과정에서 지난 14차 조사문항을 바탕으로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BH 등 정책 당국과 언론의 모니터링 실시
- 유동문항 개발
 - 새롭게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현안’에 대해 검토하고, 지난 조사들에 포함되었거나 검토되었던 문항도 필요한 경우 포함
 -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등 정책 당국에서 포함하고자 하는 유동문항을 사전에 조사하여 검토
- 개발된 조사도구는 기관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표 1-2〉 차수별 총 문항 수 및 영역

차수 (연도)	총 문항	영역
1차 (1999)	32문항	① 학교교육만족도 ② 21세기 강조되어야 할 교육내용 ③ 학교선택 ④ 입시제도 ⑤ 학교평가 ⑥ 학교평가 정책 ⑦ 교육재정 ⑧ 과외교육 ⑨ 학생체벌 ⑩ 교원 ⑪ 학생비행 ⑫ 교육개혁 평가 ⑬ 사회교육 ⑭ 컴퓨터 보유 및 활용 실태
2차 (2001)	32문항	① 초·중등교육 일반 ② 초·중등교육 정책 ③ 고등교육 정책 ④ 평생교육 정책 ⑤ 정보화교육 정책
3차 (2006)	39문항	① 초·중등교육 일반 ② 초·중등교육 정책 ③ 고등교육 ④ 평생교육 ⑤ 교육관
4차 (2008)	41문항	① 초·중등교육 일반 ② 초·중등교육 정책 ③ 고등교육 정책 ④ 교육관
5차 (2010)	59문항	① 초·중등교육 일반 ② 초·중등교육 정책 ③ 고등교육 정책 ④ 교육관
6차 (2011)	42문항	①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초·중등교육의 질 ② 교사의 질과 교직에 대한 견해 ③ 학생의 학습과 학교생활 ④ 교육정책 ⑤ 대학 운영과 대학교육의 질 ⑥ 한국교육의 현안과 미래
7차 (2012)	49문항	①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학교교육의 질 ② 교사의 질과 교직에 대한 견해 ③ 학생의 학교생활 ④ 학생의 학습 ⑤ 고교 및 대학 입시 ⑥ 교육복지 ⑦ 대학 운영과 대학 교육의 질 ⑧ 한국교육의 현안과 미래
8차 (2013)	60문항 (1차 조사 : 52문항, 2차 조사: 8문항)	①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학교교육의 질 ② 교사의 질과 교직에 대한 견해 ③ 학생의 학교생활 ④ 학생의 학습 ⑤ 고교 및 대학 입시 ⑥ 교육복지 ⑦ 대학 운영과 대학 교육의 질 ⑧ 한국교육의 현안과 미래 ⑨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 성과에 대한 견해 ⑩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에 대한 관심 ⑪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에 대한 동의 ⑫ 교육 정책 관련 가치관
9차 (2014)	61문항 (1차 조사 : 46문항, 2차 조사: 15문항)	①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학교교육의 질 ② 교사의 질과 교직에 대한 견해 ③ 학생의 정서와 생활 ④ 교육의 내용과 방식 ⑤ 고교 정책 및 대학 입시 ⑥ 교육복지 ⑦ 대학 운영과 대학교육의 질 ⑧ 한국교육의 현안과 미래(주요 교육 정책 및 ⑨ 교육과 교육정책에 대한 태도 및 인식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 포함)

차수 (연도)	총 문항	영역
10차 (2015)	53문항	①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학교교육의 질 ② 교사 ③ 학생 생활 ④ 교육과정 운영 ⑤ 고교 정책 및 대입 ⑥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⑦ 대학교육 ⑧ 교육현안 ⑨ 교육관
11차 (2016)	52문항	
12차 (2017)	52문항	① 교육정책 및 학교교육 평가 ② 교사 ③ 학생 ④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⑤ 고교 정책 및 대입 ⑥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⑦ 대학교육 ⑧ 교육현안 및 미래교육 ⑨ 교육관
13차 (2018)	55(+2)문항	
14차 (2019)	64(+2)문항	

출처: 임소현 외(2019),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9). pp.6~7.

나. 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1) 조사 실시

- 용역을 통해 전문조사기관을 선정하여 조사 실시
- 조사 시기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 조사들(10~14차)보다 2주 정도 늦게 실시할 예정으로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4주간 검토

2)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태도 변화 추이 분석

-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태도의 조사 차수(1~15차)별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교육정책 방향 설정에의 시사점 도출
- 한국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조사 문항의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조사대상 확대에 따른 응답자 배경변인별 차이를 보다 면밀히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고(2단계 비교 분석 검토), 10차 조사이후 변화 경향이 주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연구 결과는 인포그래픽으로 제시

- 3) 새롭게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 정도 및 의견 분석
- 새롭게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 정도를 확인하고, 응답자 특성별 의견을 분석·제시하여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 도출

다. 교육정책 수립·추진 지원을 위한 시사점 분석 및 정책 과제 도출

-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및 태도, 새롭게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인지 정도 및 의견 등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보다 발전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한 시사점 분석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방향 및 과제 제시

3 연구 방법 및 조사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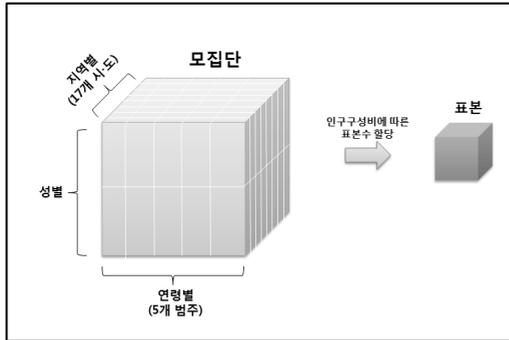
가. 문헌 분석

- 조사 영역 및 내용, 조사도구[고정문항, 유동문항(현안문항)] 설계를 위해 관련 문헌 분석 실시
- 고정문항 선정을 위해 1~14차 교육여론조사 보고서, 통계청의 사회조사 중 교육부 문, 통계청·여성가족부의 청소년 통계, 타 출연연 국민 요구 및 인식 조사 보고서, 미국의 PDK Poll 및 Education Next poll 보고서, 각 시·도 및 시·도교육청, 언론 및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기타 주요국의 자체 여론조사 등 관련 연구 결과의 조사 영역 및 문항 비교 분석
- 유동문항 개발을 위해 교육현안 주제 선정을 위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9~2020년 교육부 업무계획 및 업무보고 등 정부부처 관련 자료 및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13개월간)의 언론 기사 분석
 - 언론 기사는 국내 주요 6개 신문사(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의 오프라인 신문에 게재된 칼럼(기고, 사설, 시론, 기자의 눈 등 포함)에서 다루고 있는 교육 및 교육정책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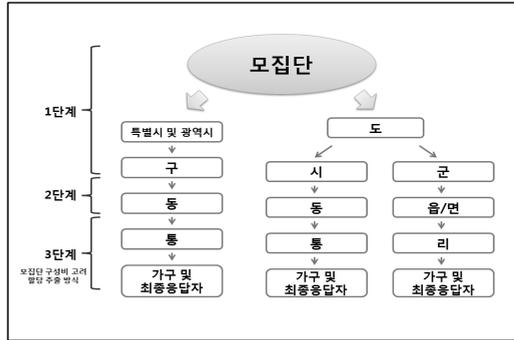
- 지난 12~14차(2017~2019년, 3개년) 조사 결과의 언론보도 내용을 분석하여 조사 도구 선정 및 개발에 참고

나. 설문조사(전면 온라인 조사) 실시

- 조사 설계
 - 조사 대상: 행정안전부 2020년 8월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성인 남녀를 모집단으로 하여 5,000명(모집단의 0.012% 정도) 표집
 - 표집 방법: 성별·지역별·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근거하여 ‘층화다단계집락비례할당 추출방법’ 적용, 학력·직업 등 배경변인 통제 방법을 병행하여 조사 대상 선정(성, 연령, 지역별 표본 할당 결과 <표 I-3> 참조)
 - 표본 추출 방식
 - ① 지역별, 성별, 연령별 층화
 - 2020년 8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표집틀 구성([부록 1] 참조)
 - 확정된 표집틀로부터 전국 시·도별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 인구구성비에 따라 표본수 할당([그림 I-1] 참조).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개인배경변인 분류 시 광역시에 포함
 - ② 1단계 집락추출: 시/군/구 추출
 - PPS(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방식으로 조사대상 시/군/구 추출
 - 추출된 시/군/구를 전국 시·도별로 각각 몇 개씩 추출할 것인가는 각 시·도별 인구구성비에 따라 비례할당
 - ③ 2단계 집락추출: 읍/면/동 추출
 - 1단계 집락추출과 동일한 PPS 방식으로 조사대상 읍/면/동 추출
 - ④ 3단계 최종 응답자 선정
 - 각 지역별로 성, 연령, 학력, 지역별 모집단 구성비를 고려하여 할당 추출 방식으로 최종 조사 대상 선정([그림 I-2] 참조)
 - 조사 방법: 웹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로 연 1회 실시



[그림 1-1] 지역별, 성별, 연령별 층화



[그림 1-2] 단계별 표본 추출 과정

<표 1-3> 성·연령·지역별 표본 할당 결과

(단위: 명)

행정구역	만19~29세		만30대		만40대		만50대		만60~74세		소계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서울	96	101	93	93	96	97	94	97	95	108	474	496	970	
부산	31	28	27	26	32	32	35	37	41	46	166	169	335	
대구	24	21	19	18	24	25	26	27	25	28	118	119	237	
인천	28	26	27	25	31	30	32	32	28	29	146	142	288	
광주	15	14	12	12	15	15	15	15	13	14	70	70	140	
대전	15	14	13	12	15	15	15	15	14	15	72	71	143	
울산	11	9	10	9	12	12	13	13	11	11	57	54	111	
세종	3	2	4	4	4	4	3	3	2	2	16	15	31	
경기	시	127	115	122	115	144	140	139	135	114	118	646	623	1,269
	군	2	1	1	1	2	2	3	2	3	3	11	9	20
강원	시	10	9	8	8	11	11	12	12	12	13	53	53	106
	군	4	2	3	2	3	3	5	4	6	6	21	17	38
충북	시	12	10	10	9	12	11	13	12	11	12	58	54	112
	군	3	2	3	2	4	3	5	4	6	6	21	17	38
충남	시	15	13	16	14	18	16	17	16	16	16	82	75	157
	군	3	2	2	2	4	3	5	4	7	7	21	18	39
전북	시	14	12	11	10	15	14	16	15	16	17	72	68	140
	군	2	2	2	2	3	2	4	3	5	5	16	14	30
전남	시	10	8	8	7	11	10	12	11	11	11	52	47	99
	군	5	4	4	4	7	5	9	7	12	12	37	32	69

행정구역	만19~29세		만30대		만40대		만50대		만60~74세		소계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경북	시	19	15	17	15	20	19	24	23	24	25	104	97	201
	군	3	3	3	3	5	4	6	5	8	8	25	23	48
경남	시	26	21	24	22	31	30	32	31	28	30	141	134	275
	군	3	2	2	2	4	3	6	5	7	8	22	20	42
제주		6	5	5	5	7	7	7	7	6	7	31	31	62
합계		487	441	446	422	530	513	548	535	521	557	2,532	2,468	5,000

모집단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2020.08.)

○ 조사 내용

- KEDI POLL 조사 내용은 크게 응답자의 개인 배경, 교육 및 교육정책 일반에 대한 고정문항, 교육현안에 관한 유동문항으로 구성하되, 유동문항의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구성(〈표 I-4〉 참조)

〈표 I-4〉 조사 내용

개인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 거주지역 - 연령 - 자녀 유무 및 수(영·유아, 유/초/중/고, 대학/대학원, 직장인/기타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수준 - 한 달 평균 가구소득 - 직업(본인, 배우자)
고정문항	교육 및 교육정책 일반에 대한 국민의 의식 및 태도가 조사주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내용	
유동문항	새롭게 이슈로 등장한 교육현안에 대한 국민의 인지 정도 및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	

〈표 I-5〉 배경변인별 응답자 분포

구분	응답자	
	사례수 (단위: 명)	비율 (단위: %)
전 체	5,000	100.0
성별	남	2,531
	여	2,469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중소도시(시 지역)	2,359
	읍·면(군)지역	324

구분		응답자	
		사례수 (단위: 명)	비율 (단위: %)
연령	19~29세	929	18.6
	30대	870	17.4
	40대	1,046	20.9
	50대	1,084	21.7
	60~74세	1,071	21.4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58.5
	자녀 없음	2,073	41.5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20.7
	기타	3,963	79.3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10.5
	기타	4,474	89.5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6.8
	기타	4,658	93.2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8.6
	기타	4,572	91.4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11.3
	기타	4,434	88.7
학력	중졸 이하	104	2.1
	고졸	886	17.7
	전문대/대졸	3,545	70.9
	대학원졸	465	9.3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9.3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32.7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31.2
	600만원 이상	1,340	26.8
직업군	관리자	621	12.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18.6
	사무 종사자	1,214	24.3
	서비스 종사자	190	3.8
	판매 종사자	210	4.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0.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3.3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02	2.0
	단순노무 종사자	199	4.0
	군인	13	0.3
기타	1,325	26.5	

*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시에 포함하였음.

** 다른 학교급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1명으로 함.

- 조사 용역
 - 여론조사의 조사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련 기술 및 인력 POOL을 확보하고 있는 전문 조사기관(코리아리서치) 활용
- 결과 분석
 - 문항별 특성에 따라 전체와 비교집단을 구분하고, 교차분석, 분산분석 등을 활용하여 빈도, 백분율 및 평균점수의 결과 값을 비교 제시
 - 지난 차수의 조사에 포함된 고정문항의 경우 각 조사 차수의 빈도, 백분율 및 평균점수의 변동 추이를 표와 그래프를 활용하여 비교 제시
 - 문항별로 응답자 배경변인별 분석을 실시하고, 그 분석 결과는 [부록 7]에 제시

다. KEDI POLL 문항 검토단(자문단) 및 전문가협의회 운영

- KEDI POLL 2020의 조사 영역 및 내용 검토, 조사도구 개발, 조사 결과의 해석 등을 위해 KEDI 내 각 실·센터의 연구 및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연구위원들과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정책 전문가, 선행연구자 등을 포함한 검토단(자문단) 구성 운영
- KEDI POLL 2020 조사 체계 검토, 조사 결과에 따른 시사점, 정책 방향 및 과제 등의 검토를 위해 조사연구 전문가, 교육정책 관련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정책협의회 및 집담회 운영

CHAPTER

II

문헌 분석 및 조사도구 개발

1. 1~14차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 국내 교육관련 여론조사
3. 국외 교육관련 여론조사
4. 2020년 정부 교육정책 및 여론 동향
5. 조사도구 개발

KEDI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0)

1 1~14차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지난해의 14차 조사까지 KEDI POLL은 조사 주기, 조사 대상(연령, 명수 등), 조사 방법 등에서 큰 변화를 겪어왔으나, 20여 년 동안 지속되어온 교육여론조사라는 점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 활용도가 매우 높다.

15차 조사인 KEDI POLL 2020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난 14차 조사보다는 다소 늦은 시기에 조사를 실시하였고, KEDI POLL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조사대상 규모를 4,000명(13차 조사까지는 2,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였다.

1999년 1차 조사부터 지난 14차 조사(2019년)까지 KEDI POLL의 조사 목적, 조사 대상 및 표집 방법, 조사 시기 및 방법 등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II-1>과 같다.

<표 II-1> 1~14차 조사까지의 KEDI POLL 개요

조사 차수 (연도)	조사 목적	조사 대상 및 표집 방법	조사 시기 및 방법
1차 (1999)	교육개혁 정책 중간 점검을 위한 국민들의 평가	20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남녀 27,876,061명(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95년 11월 기준)의 0.0055%인 1,541명 표집. 1가구당 1인 조사. 다단계 표집(시도의 구·군-3개 동·면) 95% 신뢰수준, 표집오차 $\pm 0.38\%$	1999.10.4.-10.20, 조사원 가구 방문 조사
2차 (2001)	우리나라의 교육 현황과 상황 변화 추세를 비교·분석하여 국민에게 알려주고, 관련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초 판단 자료 제공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남녀 30,685,984명 중 0.0041%인 1,267명, 다단계 층화 무선표집, 95% 신뢰수준, 표집오차 $\pm 2.75\%$	2001.7.21.~8.20, 조사원 가구 방문 조사
3차 (2006)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남녀 31,227,188명 중 0.0038%인 1,200명(통계청 2005년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시·도별 인구비례 표집, 다단계 무선 표집, 95% 신뢰수준, 표집오차 $\pm 2.83\%$	2006.9.15.~10.15, 조사원 가구 방문 조사

조사 차수 (연도)	조사 목적	조사 대상 및 표집 방법	조사 시기 및 방법
4차 (2008)	초·중등·고등교육에 대한 국민여론과 인식 변화, 국 민들의 교육관 변화,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 자 료 수집	20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남녀 32,948,751명 중 0.0036%인 1,200명 표집, 95% 신뢰수준, 표집오 차 ±2.83%p	2008.8.25.~9.19, 조사원 가구 방문 조사
5차 (2010)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남녀 33,408,173명 중 0.0045%인 1,500명 표집, 95% 신뢰수준, 표 집오차 ±2.53%p	2010.6.14.~7.23, 조사원 가구 방문 조사
6차 (2011)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남녀 34,127,262 명 중 0.0044%인 1,500명 표집, 95% 신뢰수준, 표집오차 ±2.53%p	2011.9.5.~10.5, 조사원 개별 면접조사
7차 (2012)	한국 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태도가 주기별로 어 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파 악하고, 교육현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 고 관련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합리적 인 기초 판단 자료 제공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남녀 34,401,486 명 중 0.0052%인 1,800명 표집, 95% 신뢰수준, 표집오차 ±2.31%p	2012.6.11.~7.13, 조사원 개별 면접조사
8차 (2013)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성인 남녀 38,561,083 명 중 0.0052%인 2,000명 표집, 95% 신뢰수준, 표집오차 ±2.19%p	2013.10월 초(1차 조사), 11월 중순(2차 조사), 온라인조사
9차 (2014)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성인 남녀 38,866,520 명 중 0.0051%인 2,000명 표집, 95% 신뢰수준, 표집오차 ±2.19%p	2014.7.22-8.27(1차 조사), 11.14-11.24(2차 조사), 온라인조사
10차 (2015)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전국 성인남녀 39,273,073명 중 0.0051%인 2,000명 표집, 95% 신뢰수준, 표집오차 ±2.19%p	2015.7.27.~8.28, 전면 온라인조사
11차 (2016)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전국 성인남녀 39,576,071명 중 0.0051%인 2,000명 표집, 95% 신뢰수준, 표집오차 ±2.19%p	2016.8.5.~8.31, 전면 온라인조사
12차 (2017)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전국 성인남녀 39,799,006명 중 0.0050%인 2,000명 표집, 95% 신뢰수준, 표집오차 ±2.19%p	2017. 8월 둘째 주부터 9월 첫째 주까지, 전면 온라인 조사
13차 (2018)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전국 성인남녀 39,563,263명 중 0.0051%인 2,000명 표집, 95% 신뢰수준, 표집오차 ±2.19%p	2018.8.6.~9.3, 전면 온라인조사
14차 (2019)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전국 성인남녀 39,770,219명 중 0.01%인 4,000명 표집, 95% 신뢰수준, 표집오차 ±1.55%p	2019.8.12.~9.6, 전면 온라인조사

출처: 임소현 외(2019),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9). pp.17~18. 재구성.

KEDI POLL의 1차 조사(1999년)에서부터 13차 조사(2018)까지의 차수별 주요 조사 내용 및 성과를 정리하여 요약하면 다음 <표 II-2>와 같으며, 1~14차의 차수별 전체적인 조사 내용은 [부록 2]로 제시하였다.

〈표 II-2〉 KEDI POLL 1~13차 조사까지의 조사 내용 및 주요 성과

조사 차수 (연도)	조사 내용 및 주요 성과
1차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학교교육 만족도, ② 21세기 강조되어야 할 교육내용, ③ 학교선택, ④ 입시제도, ⑤ 학교평가, ⑥ 학교평가 정책, ⑦ 교육재정, ⑧ 과외교육, ⑨ 학생체벌, ⑩ 교원, ⑪ 학생비행, ⑫ 교육개혁 평가, ⑬ 사회교육, ⑭ 컴퓨터 보유 및 활용 실태 영역에 관한 32문항 - 일반적 연구보고서 형태가 아닌 자료집 형태로 출간함으로써 국민들이 손쉽게 읽어볼 수 있도록 차별화
2차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영역을 1차 조사의 14개 영역에서 5개 영역(① 초·중등교육 일반, ② 초·중등교육 정책, ③ 고등교육 정책, ④ 평생교육 정책, ⑤ 정보화 교육 정책)으로 축소 - 사립 중·고등학교의 선발권 부여, 컴퓨터 보유 및 활용실태, 학교 수익사업 찬반, 학교 등록금 인상 또는 증세 부담 의사, 교원 노동조합 합법화 등 문항 제외, 공교육 내실화 방안, 교육재정, 대학평가, 학부제 등 변화된 교육환경에 따라 새로운 문항을 개발하여 총 32문항 포함 - 표집 방법이 개선되었다는 의의가 있으나 조사 절차 등이 여전히 표준화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조사 결과의 연간 추이 분석 제약 등 한계
3차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초·중등교육 일반, ② 초·중등교육 정책, ③ 고등교육, ④ 평생교육, ⑤ 교육관의 하위 영역으로 총 39문항 포함 - 자립형사립고 허용 여부, 학부제 찬반 의견, 정보화 사회에서 우선시 되어야 할 교육 등에 관한 문항 제외, 학교 및 교사 역할 수행 평가, 학교평가 시행 주기, 교육의 혜택에 대한 의견, 자녀교육 실패의 의미 등에 관한 문항 추가 - 표집방법 및 조사 절차가 표준화되어 이후 교육여론조사 추이 분석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되었고, 결과산출물을 잡지 형태의 요약보고서와 연구보고서 형식 모두를 활용하여 홍보자료로서의 역할 강화
4차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초·중등교육 일반, ② 초·중등교육 정책, ③ 고등교육 정책, ④ 교육관 영역으로 총 41문항 구성 - 사교육비 경감 대책, 대학별 본고사, 대학별 논술고사, 고교 등급제, 두발 및 복장 자율화 등 문항 제외, 0교시 수업에 대한 의견,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교직 개방, 외국인 학교 국내 교육체계 편입 등의 문항 개발 - 교육 전반에 대한 태도 및 교육관에 관한 고정문항 안정화 및 그 변화 추이 분석이 가능하여 실제 교육정책 추진 및 시행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성 확대
5차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조사와 동일 영역으로 18문항이 추가된 총 59문항으로 구성 - 0교시 수업에 대한 인식 및 의견, 종교계 학교의 종교과목 집중편성, 특정 대학 진학반 운영 등에 관한 문항 제외, 고교 학점제 도입, 대학등록금문제, 입학사정관제 등 유동문항이 새롭게 추가 - 조사결과가 교육과학기술부 정책 자료로 활용되는 등 교육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확대
6차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현안 관련 문항을 대폭 축소하고 교육 일반에 대한 고정문항 위주로 조사 실시 - ①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초·중등교육의 질, ② 교사의 질과 교직에 대한 견해, ③ 학생의 학습과 학교생활, ④ 교육정책, ⑤ 대학 운영과 대학교육의 질, ⑥ 한국교육의 현안과 미래 등 총 6개 영역으로 총 42문항 구성 - 교육비리, 고교 학점제, 교장 공모제 등에 관한 문항 제외, 교육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교육행정의 권한), 학교가 '수'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과제, 교사의 능력과 태도에 대한 신뢰도 등 30% 이내에서 신규문항 개발 - 6차 조사부터 2년 주기 조사에서 1년 주기 조사로 변화함으로써 교육정책에 대한 보다 즉각적인 피드백 자료의 역할 강화
7차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학교교육의 질, ② 교사의 질과 교직에 대한 견해, ③ 학생의 학교생활, ④ 학생의 학습, ⑤ 고교 및 대학 입시, ⑥ 교육복지, ⑦ 대학 운영과 대학 교육의 질, ⑧ 한국교육의 현안과 미래 등 8개 영역으로 확대 - 학생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학업, 경쟁 스트레스 정도, 학생의 인성, 도덕성 수준에 관한 문항 신설, 그 외에도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교육의 국가 기여 정도 등에 관한 문항 추가 등 총 49문항으로 구성

조사 차수 (연도)	조사 내용 및 주요 성과
8차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2회로 조사 확대, 총 문항 수 증가 - ①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학교교육의 질, ② 교사의 질과 교직에 대한 견해, ③ 학생의 학교생활, ④ 학생의 학습, ⑤ 고교 및 대학 입시, ⑥ 교육복지, ⑦ 대학 운영과 대학 교육의 질, ⑧ 한국교육의 현안과 미래, ⑨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성과에 대한 견해, ⑩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에 대한 관심, ⑪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에 대한 동의, ⑫ 교육 정책 관련 가치관 등 12개 영역으로 총 60문항 구성 (1차: 52개, 2차: 8개) - 2013년 새 정부가 출범한 해로 이전 정부에 대한 교육정책 평가와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견해에 대한 문항 포함
9차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학교교육의 질, ② 교사의 질과 교직에 대한 견해, ③ 학생의 정서와 생활, ④ 교육의 내용과 방식, ⑤ 고교 정책 및 대학 입시, ⑥ 교육복지, ⑦ 대학의 운영과 대학교육의 질, ⑧ 한국교육의 현안과 미래, ⑨ 교육과 교육정책에 대한 태도 및 인식 등 9개 영역으로 총 61문항 구성(1차: 46개, 2차: 15개) - 학교생활기록부 확대 정책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 문항,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적 지원 문항 개발 - 2014 PDK/갤럽조사의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문항을 참고하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PISA 관련 문항 추가
10차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 온라인 조사로 연 1회 조사로 변경 실시 - ① 공교육에 대한 정부 역할과 학교교육의 질, ② 교사, ③ 교육과정 운영, ④ 학생 생활, ⑤ 고교 정책 및 대입, ⑥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⑦ 대학교육, ⑧ 교육현안, ⑨ 교육관 등 9개 영역에서 총 53문항으로 구성 - 1~9차 문항을 전면 검토한 후 선행 조사 결과와 비교 가능한 변화 추이를 분석할 수 있도록 고정문항 선정, 국정과제 등 최근의 교육 및 교육정책에서의 현안을 중심으로 신규문항 개발
11차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차 조사와 같은 영역으로 총 52문항 구성 - 미래 학교에서 더 강조될 역할과 기능, 미래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 우리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미래 사회 변화 등의 미래교육과 관련한 문항 포함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학교의 역할, 과정중심평가 강화에 대한 찬반의견, 대입에서의 수시 및 정시 모집인원 비율에 대한 의견, 고교 단계의 직업교육 비중 확대에 대한 찬반의견, 일반고 내에서의 직업연계교육 확대 등 직업교육 확대에 대한 찬반의견, 정부의 교육개혁 6대 과제 중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의견, 자유학기제 확대에 대한 의견 등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문항 개발
12차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교육정책 및 학교교육 평가, ② 교사, ③ 학생, ④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⑤ 고교 정책 및 대입, ⑥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⑦ 대학교육, ⑧ 교육현안 및 미래교육, ⑨ 교육관 등 9개 영역에서 총 52문항 구성 - 조사 영역 및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고, 고정문항 대폭 수정 - KEDI POLL 조사 초기에 포함되었던 문항들(사교육 관련 문항, 교육관에 관한 문항 등) 포함, 특히, 새 정부 초기에 실시되어 새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정책 방안에 대한 의견, 국민이 새 정부에게 추진해주시기를 기대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문항 등 포함
13차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차 조사의 영역을 유지하되, 1~12차 조사 문항을 문항 pool로 구성하고 전면 검토하여 48개 고정문항 선정 - 총 55(+2)문항으로 구성하고, 10차(2015년) 조사 이후의 변화 추이를 연구요약과 함께 별도의 그래프로 제시하여 보다 많은 정보 제공

출처: 임소현 외(2019),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9). pp.19~23. 재구성.

2019년 14차 조사에서는 KEDI POLL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표집인원을 2,000명에서 4,000명으로 2배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지난 12~13차 조사영역과 동일

하게 ① 교육정책 및 학교교육 평가, ② 교사, ③ 학생, ④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⑤ 고교 정책 및 대입, ⑥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⑦ 대학교육, ⑧ 교육현안 및 미래교육, ⑨ 교육관 등 9개 영역으로 하여 총 64(+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정부의 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신규문항을 개발하여 포함하고(자녀의 조기유학 이유, 정부의 교육신뢰회복 노력에 대한 평가, 교육분야 신뢰회복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 국가교육위원회 역할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의견, 학생의 민주시민성 제고를 위한 학교의 역할, 다문화학생 수용에 대한 의견,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 비중에 대한 의견, 학령인구 감소시대 반드시 추진되었으면 하는 정책, 돌봄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 성인학습의 운영주체에 대한 의견, 대학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해야 할 우선과제, 자녀의 사교육과 관련한 생각 등), 지난 13차 조사와 같이 연구요약에 주요 결과를 응답자 특성별로 시각화하여 인포그래픽으로 제시하여 보다 활용도 높은 연구결과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14차 조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II-3>과 같으며, 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주요 언론에서는 ‘현 정부가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순위 정책’과 함께,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평가’, ‘교사 자질과 능력에 대한 신뢰’, ‘자녀 사교육 실태와 그 이유’, ‘대입전형에서의 반영 항목’ 및 ‘자녀교육 성공 기준’ 등 다양한 내용을 이슈화하여 기사로 다루었고, 언론뿐만 아니라 연구 등에서도 KEDI POLL에 대한 관심과 활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표 II-3> KEDI POLL 14차 조사 결과 요약

영역	번호	조사내용	주요 결과
교육 정책 및 학교 교육 평가 (12+2)	1	현 정부 유·초·중등 교육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	[1순위] - 국공립 유치원 확대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30.2%) -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 및 서비스 강화(16.0%) - 학생기록부 신뢰성 강화(9.3%)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8.6%) [1+2순위] -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19.6%) -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 및 서비스 강화(15.7%) -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키워주는 학교(11.4%) - 학생기록부 신뢰성 강화(9.4%)
	2	현 정부 고등교육 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	[1순위] - 등록금 부담 경감(33.0%) - 대입전형 단순화 추진(20.9%)

영역	번호	조사내용	주요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8.0%) -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회균형 선발 의무화(7.7%) [1+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금 부담 경감(25.8%) - 대입전형 단순화 추진(15.8%) -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 확충(10.1%) - 대학의 자율적 기반을 토대로 한 대학 혁신 지원(9.8%)
	3	현 정부 평생·직업교육 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단계별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23.3%) - 전문대학 역량 강화를 통한 직업교육 지역거점 육성(21.0%) - 대학 창업 및 산학협력 활성화(12.5%) -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확대(11.8%) [1+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단계별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18.8%) - 전문대학 역량 강화를 통한 직업교육 지역거점 육성(16.4%) -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확대(15.5%) - 대학 창업 및 산학협력 활성화(11.6%)
	4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평가	보통이다(C, 53.5%) * 평균 2.75(초 3.09, 중 2.82, 고 2.49)/ 5점 만점
	5	학교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 전반/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학생 지도(인성, 안전) 활동(전반 33.5%, 초 29.4%, 중 30.2%) - 고등학교: 진로교육 및 진학지도 강화(35.6%)
	6	학교 선택 시 고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학교: 인성교육(초 32.2%, 중 28.1%) - 고등학교: 진로 지도(23.4%) - 대학교: 졸업생의 취업 실적(26.4%)
	7	초·중·고등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별 위주의 사회체제 개선(27.0%) - 수업방식의 다양화(19.5%) - 교원의 전문성 제고(17.5%) - 대입 선발 방식 개선(16.0%) - 교육내용의 선택권 확대(15.0%)
	8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의견	보낼 생각이 없다(전반 44.7%, 초 72.5%, 중 58.5%, 고 42.5%)
	8-1	자녀의 조기유학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우리나라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24.6%) - (2순위) 초·중학생 학부모: 자녀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초 20.5%, 중 20.8%), 고등학생 학부모: 경쟁 위주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20.2%)
	9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네 가지 측면에 대한 의견	대체로 없다(59.7%)
일관성		대체로 없다(57.5%)	
장기적 비전		보통이다(50.2%)	
우리나라 여건 적합성		반영하고 있지 않다(45.5%)	
	9-1	우리나라 교육정책 추진에 중점을 뒀어야 할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 비전(51.8%) - 우리나라 여건에의 적합성(21.0%) - 일관성(17.4%) - 국민여론 반영(6.6%)
	10	정부의 교육신뢰회복 노력에 대한 평가	못하고 있다 44.4%(평균 2.63) * 보통이다 30.1%

영역	번호	조사내용	주요 결과
	11	교육분야 신뢰회복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정책	- 입시·학사·채용의 공정성 확보 정책(49.5%) * 초·중·고 학부모의 경우 57.6% - 중대비리 사안에 대한 신속한 감사·조사 실시(24.0%), - 대학 재정 투명성 강화(20.6%) - 대학 연구윤리 확립(5.6%)
	12	국가교육위원회 역할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정책	- 국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제, 교원정책, 대학입학정책의 장기적 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36.5%) - 미래 사회 대비 국가 교육 비전 및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5.7%)
교사 (5)	13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 정도	보통이다(50.4%)
	14	교사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	- 초·중·고 전반: 학습지도 능력(32.8%), 생활지도 능력(30.7%) - 초등학교: 생활지도 능력(50.2%), 학생 및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능력(20.7%) - 중학교: 학습지도 능력(37.4%)과 생활지도 능력(23.5%) - 고등학교: 진로·진학 지도 능력(52.4%)과 학습지도 능력(23.3%)
	15	교사자격증이 없는 초빙교사에 대한 찬반의견	찬성 53.1%, 반대 29.6%
	16	자녀 직업으로서 교사 희망에 대한 의견	긍정 66.8%, 부정 16.6%
	17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의견	대체로 심각하다 50.7%(평균 3.50) * 초·중·고 학부모: 보통이다 44.3%(평균 3.37)
학생 (9)	18	학업 성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학생의 노력과 열의(37.4%) - 학교나 학급의 학습 분위기(21.5%) - 가정의 경제적 뒷받침(10.9%)
	19	학생의 인성 수준	보통이다 46.3%(평균 2.58) * 초: 보통 47.6%(2.79), 중: 낮음 54.1%(2.42), 고: 낮음 55.1%(2.39)
	20	학생이 좋은 인성을 갖도록 하는 영향 요인	가정(55.0%)
	21	학생의 시민의식(민주시민성) 수준	보통이다 54.3%(평균 2.76) * 초: 보통 46.5%(2.82), 고: 낮음 43.0%(2.63), 중: 낮음 44.2%(2.60)
	22	학생이 민주시민성을 갖도록 하는 영향 요인	학교(34.0%), 사회(27.4%), 가정(26.5%)
	23	학생의 민주시민성 제고를 위한 학교의 역할	-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장려(43.2%) -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23.7%)
	24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의견	심각하다 55.8%(평균 3.59)
	25	학교폭력의 원인	- 가정교육의 부재(35.9%) - 대중매체(영화, 드라마, 인터넷, 게임 등)의 폭력성(23.6%)
	26	다문화학생 수용에 대한 의견	매우 긍정적(전체 73.0%, 초·중·고 학부모 72.9%)

영역	번호	조사내용	주요 결과
교육 과정 및 교육 내용 (4)	27	학교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길러 주기를 바라는 사항	- 초·중·고 전반: 사회성, 인간관계(28.8%), 창의력(17.7%), 도덕성(13.4%) - 초등학교: 기본 생활습관(29.3%), 창의력(20.0%), 도덕성(16.0%) - 중학교: 사회성, 인간관계(21.4%), 도덕성(18.0%), 사고력(14.5%) - 고등학교: 사회성, 인간관계(22.3%), 지식(16.2%), 사고력(11.4%)
	28	현재보다 중시해야 할 교과목	- 초등학교: 사회(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24.5%), 국어(15.5%) - 중학교: 한국사(21.2%), 사회(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21.2%) - 고등학교: 교양(철학, 진로와 직업, 환경 등)(19.7%), 한국사(15.7%)
	29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할 교육 내용	- 초·중학교: 인성교육(초 47.2%, 중 39.0%), 창의성교육(초 21.3%, 중 11.6%) - 고등학교: 진로교육(23.1%), 인성교육(20.9%)
	30	미래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	- 초·중·고 전반: 자기관리 역량(37.8%), 창의적 사고 역량(22.2%) - 초등학교: 창의적 사고 역량(27.5%), 의사소통 역량(20.6%) - 중학생: 창의적 사고 역량(23.0%), 자기관리 역량(19.5%) - 고등학생: 자기관리 역량(22.6%), 지식정보처리 역량(21.5%)
고교 정책 및 대입 (4)	31	현 정부 고등학교 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찬성(53.7%)/ 반대 15.8% 고교 학점제 도입: 보통(45.2%)/ 반대 19.3% 고교체제 개편: 찬성(50.9%)/ 반대 21.7%
	32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 비중에 대한 의견	낮으므로 더 높여야 한다(전체 55.4%, 초·중·고 학부모 59.3%)
	33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할 항목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30.8%) - 특기·적성(25.6%) - 인성 및 봉사활동(23.4%) - 고교 내신 성적(13.0%)
	34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에 대한 전망	- 완화되거나 일부대 위주의 입시경쟁은 유지될 것(47.5%) - 현재와 큰 변화는 없을 것(29.7%)
교육 복지 및 교육 재정 (7)	35	교육재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학교급	유치원 등 유아교육(30.0%), 고등학교(23.0%), 초등학교(13.7%)
	36	한정된 교육재정의 우선 투자 영역	[1순위] - 유아 보육·교육 무상화(23.2%) - 소외계층 교육지원(15.0%)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12.6%) -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강화(12.4%) - 소프트웨어교육, 융합 교육 등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12.2%) [1+2순위] - 유아 보육·교육 무상화(14.6%) - 소외계층 교육지원(14.1%), -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강화(12.6%)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12.4%)
	37	정부의 우선적 재정지원 내용	- 초등학교: 학교급식비(37.6%), 방과후학교 교육비(30.8%) - 중학교: 교복구입비(25.2%), 현장학습비(수학여행 경비 등) 및 수련활동비(19.0%) - 고등학교: 실험실습 시 안전장비 구입비(24.2%), 학교급식비(19.1%)
	38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규모에	- 교육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 이후 교육재정을 축소해 나가야

영역	번호	조사내용	주요 결과
		대한 의견	한다(33.5%) -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재정을 축소하지 말고 현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29.7%) - 교육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교육재정을 증가해 나가야 한다(20.8%)
	39	학령인구 감소시대 반드시 추진 되었으면 하는 정책	-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진로·상담기능 대폭 강화(28.8%) - 초등저학년 1:1 맞춤형 케어 시스템 구축(기초학력·인성교육부터 돌봄까지)(24.4%)
	40	돌봄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	- 유치원, 보육시설의 공공성, 투명성 강화(38.2%) - 아이 돌봄서비스 확대(21.9%)
	41	성인학습의 운영주체에 대한 의견	지자체(36.6%), 중앙정부(20.2%), 대학(17.2%), 직업훈련기관(16.7%)
대학 교육 (5)	42	대학교육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기능에 대한 평가	전반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55.4%(평균 2.40)
	43	대학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해야 할 우선과제	- 진로 탐색 및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직업 역량의 함양(38.0%) - 사회생활에 필요한 시민의식 및 인격적 소양의 함양(36.4%)
	44	대학교수의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역할수행에 대한 평가	- 4년제: 보통이다 49.1%(평균 2.59). - 전문대학: 보통이다 48.3%(평균 2.72)
	45	사립대학 지원 확대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	반대한다 52.3%, 찬성한다 28.5%, 잘 모르겠다 19.3%
	46	대학평가 시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지표	- 대학경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29.6%) - 교수들의 교육 역량(23.4%) -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22.0%)
	47	교육행정 권한과 책임에 대한 의견	유·초·중·고 교육정책의 수립: 교육감(37.6%) 필수 교육과정의 결정: 교육부 장관(36.4%) 교과목 표준 학습성취 기준 마련: 교육감(36.3%)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단위학교 교장(40.3%)
교육 현안 및 미래 교육 (10)	48	시·도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찬반 의견	찬성(49.0%)
	49	2-3년 전과 비교한 사교육 실태 변화	별다른 변화 없다(51.9%)
	50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정책	- EBS 수능연계(21.7%) - 방과후 학교(초등돌봄교실 포함) 운영(16.8%) - 대입전형 단순화(13.2%) - EBS 강의(14.7%) - 자기주도학습전형 방식(고입)(10.2%)
	51	사교육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	- 남들보다 앞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24.6%) - 남들이 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23.3%) -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17.6%)
	52	자녀 사교육비 부담 정도	부담된다 94.7%(초 94.9%, 중 94.4%, 고 94.3%)

영역	번호	조사내용	주요 결과
	53	자녀의 사교육과 관련한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교육을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42.7%) -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어도 사교육은 필요하다(35.2%) - 어떤 종류의 사교육을 할 것인지는 부모가 결정한다(36.9%) - 취미생활은 말리지 않는다(63.5%) - 자녀가 공부를 하지 않고 있으면 불안하다(43.2%) - 자녀가 학원에 가거나 과외공부를 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보통 41.5%)
	54	우리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미래사회 변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46.7%
	55	미래 초·중등학교 교육체제를 위한 요구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위한 유연한 교육체제 구축(22.9%) - 학습자관리시스템(학습 관리, 생활지도, 건강관리, 진로지도 등) 구축 및 운영(21.7%)
	56	미래 학교에서 더 강조될 역할과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아동·학생들의 보육 혹은 돌봄(25.0%) - 중학교: 자기주도학습 등 문제해결 역량 교육(33.4%) - 고등학교: 미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탐색 및 교육(45.7%)
교육관 (8)	57	자녀의 학교교육 거부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 꼭 정규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대안을 찾겠다(50.2%) * 지난 13차 조사보다 6.8%p 감소 - 초·중학교: 그 학교가 아니더라도 정규학교는 꼭 다니게 하겠다(초 52.4%, 중 47.5%) - 고등학교: 꼭 정규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대안을 찾겠다(54.5%)
	58	우리사회에서의 자녀교육 성공에 대한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25.1%) -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컸다(22.4%) -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21.3%) - 자녀가 경제적으로 잘 산다(14.4%) -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갔다(10.8%) -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6.1%)
	59	자녀의 장래 생활에 대한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냄(26.3%) - 경제적으로 윤택함(21.9%) - 본인의 개성이나 취미를 살림(18.2%) - 건강하게 살아감(14.9%) - 사회에 봉사하며 살아감(8.2%)
	60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담 정도	대학교 48.2%, 취업할 때까지 19.4%, 고등학교 10.3%, 결혼할 때까지 8.3%, 대학원(석사) 6.0%, 대학원(박사) 4.5%, 평생 2.7%
	61	대학 졸업장의 유무에 따른 차별 정도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58.8%)
	62	우리나라 학벌주의에 대한 전망	큰 변화 없을 것이다(58.5%)
	63	대학 서열화에 대한 전망	큰 변화 없을 것이다(58.4%)
	64	교육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경제적 부의 증대: 크다 65.7%(평균 3.76) 사회적 지위 향상: 크다 70.2%(평균 3.84) 심리적 만족감: 크다 60.7%(평균 3.70).

출처: 임소현 외(2019),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9).

2 > 국내 교육관련 여론조사

가. 2020년 사회조사(통계청) 중 교육부문

통계청은 삶의 질과 관련된 국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10개 부문을 매년 5개 부문씩, 부문별 2년을 주기로 '사회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통계청, 2020).

2020년의 경우 가족, 교육과 훈련, 건강, 범죄와 안전, 생활환경 등 5개 부문에 대해 전국 약 19,000 표본 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8,0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조사기간: 2020. 5. 13.~ 5. 28., 16일 동안), 지표의 성격에 따라 조사대상 연령, 조사대상 기간(시점) 등의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통계청, 2020).

2020년 사회조사 중 교육 및 훈련 부문의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비중은 59.3%로 2년 전보다 1.3%p 증가하였다.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 공부를 하는 이유에 대해 미래의 나를 위해 필요해서(79.6%)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못하면 부끄러워서(31.0%), 재미있어서(20.8%), 하지 않으면 혼나거나 벌을 받아서(1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2년 전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비중은 75.8%, 성품이 좋은 사람 71.7%, 나에게 긍정적 69.0%로 2년 전보다 각각 0.9%p, 0.8%p, 3.0%p 감소한 반면, 나에게 만족하는 비중은 66.5%로 2.3%p 증가하였으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중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원하는 단계까지 학교 교육을 받았다는 사람의 비중은 56.1%로 2년 전보다 0.1%p 감소하였는데, 교육 기회에 대한 충족도는 남자가 61.6%로 여자보다 10.8%p 더 높았고, 20대 이하가 79.7%로 가장 높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교육 기회 충족도는 낮아져 60세 이상은 32.5%로 나타났다. 원하는 단계까지 교육을 받지 못한 가장 주된 이유로 절반 이상이 경제적 형편(57.9%, 3.4%p 증가)이라고 응답하였다.

학생의 84.1%(1.4%p 증가), 부모의 91.6%(0.9%p 증가)가 대학교(4년제) 이상의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다음으로 학생은 대학원(석사)(11.2%), 부모는 대학원(박사)(10.4%)으

로 나타났다. 대학 이상 교육받기를 바라는 이유로는 학생과 부모 모두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인의 전공과 직업이 일치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37.2%로, 2년 전보다 0.6%p 증가하였다.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전공과 직업이 일치한다는 비중이 높아져 대학원 졸업의 경우 72.7%로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직에서 일치한다는 비중이 65.1%로 가장 높은 반면, 농어업, 서비스판매, 기능노무직은 불일치도가 높게 나타났다.

자녀 교육비가 가정 경제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64.1%로 2년 전보다 0.3%p 감소하였고, 교육비 부담의 요인으로는 학교 납입금 외 교육비가 67.2%로 가장 높았다. 한 학기를 기준으로 대학생의 등록금 마련 방법에 대해 부모님(가족)의 도움이 62.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장학금(24.8%), 대출(7.3%), 스스로 벌어서 마련(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학부모의 58.7%(0.1%p 증가)는 여건이 허락된다면 자녀를 다른 나라로 유학 보내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KEDI POLL의 연구 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학부모가 자녀의 유학을 원하는 이유는 국제적 안목을 지닌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가 49.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녀의 능력과 재능에 적합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27.0%), 현 교육제도가 자녀와 맞지 않아서(10.4%) 순이었다.

지난 1년 동안 인터넷(모바일) 등 정보 통신망으로 교육을 받거나 훈련에 참여한 사람의 비중은 41.1%였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온라인 학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온라인 매체를 통한 학습 분야를 살펴보면, 학업은 10대(93.4%)와 20대(45.1%), 직장인 필수교육은 30대(60.5%), 40대(59.6%), 50대(59.7%), 인문·교양·취미는 60세 이상(50.5%)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11-4〉 연령별 온라인 매체를 통한 학습 분야

(단위: %)

		13세 이상	13~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학습 경험 있음		41.1	90.9	64.4	50.8	47.4	32.0	10.1
분야	1순위	직장(42.3)	학업(93.4)	학업(45.1)	직장(60.5)	직장(59.6)	직장(59.7)	인문(50.5)
	2순위	인문(41.9)	어학(46.8)	시험(43.9)	인문(41.9)	인문(46.9)	인문(44.8)	직장(39.4)
	3순위	학업(33.7)	인문(35.9)	어학(38.6)	어학(32.2)	어학(27.4)	정보화(22.0)	정보화(21.7)

출처: 통계청(2020). 2020년 사회조사 결과, 보도자료, p.2.

나. 2020년 청소년 통계(통계청·여성가족부)

통계청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2002년부터 청소년의 모습을 다각적으로 조명하는 ‘청소년 통계’를 작성해 오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청소년 정책을 주관하는 여성가족부와 협력하고 있다(통계청, 2020). 청소년 통계는 국가승인통계를 중심으로 청소년과 관련한 통계를 발췌하거나, 재분류, 또는 가공하여 우리사회의 다양한 청소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통계청, 2020). 청소년의 범위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24세를 기본으로 하되, 작성 통계별 성격과 정책적 관심에 따라 포함된 지표별 청소년의 대상 연령에 차이가 있다(통계청, 2020).

KEDI POLL은 만 19~75세까지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라는 점에서 청소년 통계와는 구별되지만, 청소년 통계에는 청소년의 학습과 교육 영역에 학교생활 만족도, 학습시간, 사교육 등과 관련한 통계를 포함하고 있어 그 대상이 되는 학생들의 태도 및 인식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KEDI POLL과 연계하여 참고할 수 있으며, 특히, 문항의 수정이나 개발, 조사결과 분석에 참고할 수 있다(임소현 외, 2019).

2020 청소년 통계의 조사 영역은 ① 인구, ② 건강, ③ 학습·교육, ④ 경제활동, ⑤ 여가, ⑥ 사회참여·의식, ⑦ 안전·행동, ⑧ 관계 등 총 8개 영역, 3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에 따라 구체적인 조사 항목과 수록된 통계 및 청소년 대상 연령은 다음 <표 II-5>와 같다.

<표 II-5> 2020 청소년 통계 조사 항목 및 수록 지표

조사 부문	조사 항목	수록 지표 및 청소년 대상 연령
인구	인구추이, 학령인구, 다문화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사망원인통계」 : 9~24세 통계청, 「사회조사」 : 13~24세
건강	주관적 건강평가, 수면시간 및 규칙적 운동, 스트레스 및 우울감, 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 초·중·고등학생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15~2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별 취업자 통계 : 20~29세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 : 20~29세
학습·교육	학교생활 만족도, 학습시간, 사교육, 학업성취도, 진학을 및 취업률, 학업중단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부, 「교육기본통계조사」 : 초·중·고등학생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중·고등학생
경제활동	고용동향, 직업별 취업자, 임금수준, 직업 선택 요인, 선호하는 직장, 아르바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OECD, 「PISA(국제 학업성취도평가)」 : 만 15세 중·고등학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10대, 20대
여가	여가활동, 인터넷 이용, 문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폰과의존실태조사」 : 10대

조사 부문	조사 항목	수록 지표 및 청소년 대상 연령
사회참여·의식	봉사활동, 사회에 대한 신뢰도, 사회참여 의식, 양성평등 의식, 인권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검찰청, 「범죄분석」 : '17년까지 10~18세, '18년 14~18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초(4~6학년)·중·고등학생 - 아르바이트, 흡연 및 음주 : 중·고등학생
안전	스마트폰 과의존, 흡연 및 음주, 가출 경험 및 이유, 소년범죄	
관계	인간관계 만족도, 사회적 관계망, 고민 상담	

출처: 2020 청소년 통계(통계청·여성가족부, 2020). 재구성.

2020년 청소년 통계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 청소년 인구(9~24세)는 총인구의 16.5%인 854만 2천 명으로 나타났으며, 2060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학령인구(6~21세)는 782만 1천 명(총인구의 15.1%)이며, 2060년이 되면 총인구의 10% 아래로 낮아질 전망이다. 2019년 다문화 학생은 전년 대비 12.3% 증가한 13만 7천 명으로,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과 달리 다문화 학생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건강 영역에서는 2019년 초(4~6학년)·중·고등학생은 평일 수면시간은 평균 7.3시간(초 8.7시간, 중 7.4시간, 고 6.0시간)이었고, 중·고등학생의 39.9%가 평상시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며, 28.2%는 최근 12개월 내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4~6학년)·중·고등학생 10명 중 9명인 86.9%가 자신의 건강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교육 영역의 경우 2019년 초등학생 83.5%, 중학생 71.4%, 고등학생 61.0%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시간은 주당 평균 6.5시간으로, 이 또한, 2015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4~6학년)·중·고등학생의 76.5%가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고 느끼고, PISA 2018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읽기 2~7위, 수학 1~4위, 과학 3~5위로 세계 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여가와 관련해서는 2019년 초(4~6학년)·중·고등학생의 평일 여가시간은 1~2시간(27.2%), 2~3시간(22.0%), 1시간 미만(16.2%), 3~4시간(14.2%) 순으로 나타났고, 13~24세 청소년의 경우 여가활동으로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는 관광활동(58.5%), 취미·자기개발 활동

(48.8%), 문화예술관람(48.5%),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30.2%)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청소년(13~24세)의 86.2%는 최근 1년 내 문화예술 및 스포츠를 관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참여 및 의식 영역에서는 2019년 초(4~6학년)·중·고등학생의 88.3%는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96.4%는 남자와 여자가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4~6학년)·중·고등학생의 97.3%는 가정형편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며, 94.6%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동일한 교육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관계 영역의 경우 2019년 청소년(13~24세)의 89.9%는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64.9%는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만족하고 있는 반면, 3.8%는 인간관계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조사 중 교육

각 시도에서도 시·도민의 양적·질적 측면의 생활을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과 사회 변화, 사회적 관심사 및 주관적 인식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장·단기적 정책 개발 및 수립에의 유용하고 합리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만 15세 이상 가구주 및 가구원을 대상으로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임소현 외, 2019).

대부분의 시·도는 통계청 사회조사와 유사하게 1년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하되, 영역별로는 격년으로 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일부 시·도의 사회조사 항목 중에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에 관한 의견을 묻는 조사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가장 최근 실시된 시·도 자치단체의 사회조사 중 교육부문과 관련하여 그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울산시의 2019년 사회조사에서는 현재의 교육여건에 대해 만족 25.1%(2017년 대비 5.5%p 감소), 보통 57.4%, 불만족 17.5%로 나타났으며, 현 교육여건의 불만족스런 사항에 대해 가장 필요한 개선사항으로 정규교육의 질 향상(39.1%), 교육환경 개선(25.9%), 학교시설 확충(10.1%), 학교 앞 유해시설 정비(9.6%)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재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은 분야는 교우 및 교육자와의

관계(53.6%)로 나타났고, 만족도가 가장 낮은 분야는 소질, 적성 및 전공개발(14.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자녀의 월 평균 사교육비의 경우 고등학생이 52만4천원으로 가장 높고, 중학생 48만원, 초등학생 45만7천원, 대학(원)생 22만8천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월 평균 공교육비는 대학(원)생이 103만4천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자녀가 있는 부모의 75.6%는 자녀가 대학교(4년제 이상) 교육을 받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고학력을 기대하는 가장 주된 이유로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46.3%)를 1순위로 꼽았다(울산광역시, 2019).

전라남도의 2019년 사회지표 중 교육부문을 살펴보면, 평생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17.6%, 받아본 적은 없지만 받을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0.3%인 반면, 평생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받을 의향도 없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52.2%로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도, 관심도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평생교육을 받은 도민 중 직업 및 업무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용자의 비중이 27.0%로 2017년(24.9%)보다 2.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가장 받아보고 싶은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스포츠·레저(18.0%), 문화·교양(17.5%), 건강 관련 교육(17.0%)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3가구 중 1가구(34.9%)는 자녀를 타지역으로 진학시킬 의향이 있고, 그 이유로 특성화된 교육(30.4%)을 1순위로 꼽았다. 2018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9만원으로 2017년(15만8천원) 보다 3만2천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2016년 54.9%, 2017년 57.0%, 2018년 61.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졸업자수 21,696명 중 진학률은 71.4%(15,495명)로 나타났으며, 학업중단학생은 903명으로 1.6%의 학업중단율을 보였다(전라남도, 2019).

제주도의 2019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는 3.53점으로 2017년(3.72점) 대비 0.19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 요소별로는 교우관계(3.85점)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사와의 관계(3.56점), 교육내용(3.5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은 2017년 대비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위 요소별로는 지식/기술 습득(3.51점), 인격형성(3.23점), 생활/직업/취업에 활용(3.16점), 국가관 및 사회관 정립(3.0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내 대학이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는 취업 역량 강화가 68.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장학금 제도 등 재정 확립

(34.5%), 우수 교원 확보(28.9%),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2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1+2 순위 기준)(제주도, 2019).

라. 기타 타 출연연구기관 국민 요구 및 인식 조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연구 과제 발굴 및 수행을 위한 일련의 과정(Process) 혹은 사이클(Cycle)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구과제 발굴 단계에서 국민이 원하는 혹은 요구하는 연구주제 혹은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소속 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인 ‘대국민 종합 요구조사’를 추진하였다(김태완 외, 2020). 교육부문 주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초·중고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은 보통 수준을 약간 상회하고,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대학 교수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인식은 보통 수준을 나타내었다.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 정도(긍정 18.9%, 부정 35.3%) 및 입시와 채용에서의 공정성 인식(긍정 16.6%, 부정 32.9%)은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2020년 10대 교육정책 중 학생(학습자)의 행복한 삶을 위해 우선되어야 하는 정책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26.1%), 고졸 취업 활성화(15.0%), 고교 서열화 해소(12.4%), 민주시민교육 활성화(11.0%), 일반고 역량 강화(10.7%), 대입 공정성 강화(9.2%) 순으로 응답하였다. 정부의 재정 중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학교급에 대해 일반국민들은 유치원 등 유아교육(27.6%), 고등학교(25.0%), 초등학교(20.4%), 4년제 대학(8.3%)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 되었으면 하는 항목에 대해 일반국민의 38.6%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33.2%는 고교 내신 성적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도 관련 분야의 대국민 요구 및 인식조사를 실시 중으로, 교육분야는 아니더라도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KEDI POLL 문항 선정 및 개발, 조사분석 결과의 해석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몇 가지 주요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김미곤 외(2018)는 보건복지부 정책에 대한 국민 및 전문가 인식과 정책 평가를 목적으로 조사연구를 추진하였다. 이는 매년 실시하는 조사연구로 일반 국민 1,000명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 및 평가, 욕구를 파악하고 있으며, 주요 결과는 차년도 보건복지부 정책방향 및 연두보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통일연구원에서는 국민들의 통일인식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조사연구

구를 추진 중에 있다. 2018년의 경우 약 1,000명 이상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조사원이 직접 면대면 조사를 수행하였다. 주요 설문내용은 남북관계 인식, 탈북민에 대한 견해, 북한인권 및 경제 등에 대한 인식, 최근 진행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에 대한 국민인식을 파악하고 향후 통일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정동준 외, 20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경우 매년 국민과 농업인 종사자 약 2,500여명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과 정책 형성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조사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체적으로 향후 추진할 과제 개발을 위한 기본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다(송성환·박혜진, 2018).

3 > 국외 교육관련 여론조사

가. 미국의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태도 조사(The Phi Delta Kappa Poll of the Public's Attitudes Toward the Public Schools)¹⁾

미국의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태도 조사(The PDK Poll of the Public's Attitudes Toward the Public Schools, 이하 PDK)'는 1969년부터 연 1회 실시되어 2020년 52회 조사가 실시된 교육여론조사로, 일반 국민들이 학교와 교육, 교육정책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PDK 조사 결과는 데이터로 연구자들에게 제공되고, 교육정책 입법자들은 정책의 홍보 및 공유를 위해, 교육자들은 지역사회의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계획과 그 추진을 알리기 위해 활용한다.

52회 PDK 설문 조사는 3월 13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되었으며, 1,755명의 성인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진행하였다. 조사 내용으로는 시험 비중, 공립학교가 직면한 문제, 차터스쿨, 바우처, 인종 및 경제적 다양성, 읽기 및 독해력 교육 방법 등을 포함하여 현재 공교육의 핵심적인 주제들을 다룰 뿐만 아니라 정치적 태도와 정책 우선 순위에 대한 국민의 의견도 묻고 있다. 최근 10년간의 주요 조사 내용은 [부록 3]으로 제시하였다.

1) https://pdkpoll.org/wp-content/uploads/2020/08/Poll52-2020_PollSupplement.pdf(인출일: 2020. 11. 08)의 내용을 번역 인용함.

현재 미국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성인 응답자의 45%가 찬성하지만 53%는 반대하는 것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특히, 공화당을 지지하는 응답자 중 86%는 현재 교육 정책에 찬성하는 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11%만이 찬성하여 지지 정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응답자 대부분에서 공교육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공교육 정책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시험의 비중에 대해 성인 응답자의 41%가 너무 과하다고 응답하였고, 21%는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특히, 성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시험의 비중이 과하다는 의견은 1997년의 19%에서 2007년 43%로 그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학부모 대상으로 시험의 비중이 과하다는 의견은 2007년 52%에서 현재 3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립학교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는 19년 연속으로 재정 지원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꼽혔으며, 학교 내 괴롭힘 문제가 11%로 그 뒤를 이었다. 재정 지원 부족에 대해서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의견이 나뉘었는데, 진보 성향의 응답자 중 29%, 민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 중 26%가 재정 지원 부족을 가장 큰 문제라고 응답했지만, 보수 성향과 공화당은 각각 11%와 8%에 불과하였다. 또한 흡연, 약물 남용 등을 공립학교가 직면한 문제라 응답한 학부모의 비율이 2019년 4%에서 2020년 8%로 증가했다.

흡연, 약물 남용에 대해서는 성인 응답자의 65%가 전자담배 흡연을 심각한 문제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부모와 성인 응답자 중 54%가 오피오이드 복용 또한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으며, 응답자 중 절반에게서는 술과 마리화나에 대한 우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52~58%는 지역 공립학교가 학생들에게 약물 남용의 위험을 잘 가르치고 있다고 확신했으며, 42~48%는 그렇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다.

바우처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는 바우처가 제공되는 학교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사립학교 등록금의 일부를 지불하기 위해 지역 공립학교에 들어가는 세금을 사용하는 바우처에 대해서는 응답자 53%가 지지하는 반면, 사립학교가 아닌 종교학교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48%로 낮아졌다. 또한 지역 차터스쿨을 설립하거나 늘리는 등의 학교 선택에 대해서는 성인 응답자 10명 중 4명은 공립학교에 대한 재정을 줄이더라도 지역에 차터스쿨을 새로 설립하거나 늘리는 것에 대해 지지하였다. 2005년 이와 유사한 질문에 대해 28%가 지지한 것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그럼에도 공립학교에 대한 재정을

줄여 차터스쿨을 새로 설립 또는 늘리는 것에 대해 59%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약 비용이 문제 되지 않는다면 자녀를 어느 학교에 보낼 것인지에 대해 공립학교의 학부모 10명 중 6명은 현재 학교에 계속 다닐 것이라 응답한 반면, 4명은 다른 학교에 보낼 것이라 응답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응답은 소득과 인종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가계 소득이 10만 달러 미만인 부모들과 소수 인종 또는 소수 민족의 학부모 중 절반은 비용이 문제 되지 않는다면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를 바꾸겠다고 응답하였다.

학교 내 다양성을 줄이는 프로그램에는 찬성 의견보다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그 차이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특수 프로그램이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시험 점수를 활용하고 그에 따라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라틴계 학생들이 그 자격을 얻지 못한다면, 응답자 중 53%가 인종 또는 민족의 다양성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이 프로그램을 반대하였다.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자격을 얻지 못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응답자 중 54%가 반대하였다.

읽기 및 문해력 교육을 위한 방법에 대한 선호도에 대해서는 발음 중심 교수법과 총체적 언어접근법을 결합한 균형적 문해 교수법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인 응답자 중 72%가 균형적 문해 교수법이 어린 학생들에게 읽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 응답하였으며, 3명 중 2명은 문해력 교육에도 균형적 문해 교수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응답하였다.

나. 미국 Education Next Poll²⁾

Education Next Poll은 교육 계간 학술지 Education Next와 하버드 대학교의 PEPG(The Program on Education Policy and Governance)에 의해 2007년부터 매년 1회 실시되는 교육여론조사로, 2020년 14차 조사가 실시되었다. 여론조사의 주요 내용은 학교·경찰·우체국 평가, 교육재정, 책무성과 핵심공통교육과정, 학교선택, 교원정책,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인종차별, 이민, 고등교육, 정치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 8년간의 주요 조사 내용은 [부록 3]으로 제시하였다.

2020년에 실시된 14차 설문조사는 523명의 교사, 811명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913명

2) <https://www.educationnext.org/amid-pandemic-support-soars-online-learning-parent-poll-shows-2020-education-next-survey-public-opinion/>(인출일: 2020. 11. 08)의 내용을 번역 인용함.

의 히스패닉을 포함한 4,291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2020년 5월에 실시되었다.

Education Next Poll에서 발표한 14차 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교사 임금: 2008년 이후로 교사 임금 인상에 대한 지지는 그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 교사 급여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시받은 사람들 중 55%는 교사의 급여가 인상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1년 전과 비슷한 수치이며, 2017년에 비해 19%p 증가한 것이다. 반면, 해당 정보를 제시받지 못한 사람들 중의 65%가 교사 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 교육재정: 공립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를 늘릴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현재의 학교 지출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시받은 사람들 중 45%는 K-12 학교 지출이 증가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작년보다는 5%p 줄어들었고, 2017년보다는 6%p 증가하였다.
- 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학부모 중 73%는 기꺼이 그들의 자녀가 인터넷을 통해 일부 고등학교 과정을 수강하게끔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2009년보다 17%p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올 봄 학교 폐쇄에 따른 원격 교육의 긍정적 경험을 한 부모일 수록 온라인 교육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선택: 학교 선택에 대한 개혁의 지지도는 작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하였다. 저소득층 학생을 사립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정책은 공화당원의 59%와 민주당원의 56%의 지지를 포함하여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반면 차터스쿨에 대한 지지는 정당에 따라 공화당원의 54%가 지지하는 반면, 민주당원 중 37%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 등록금을 지원하는 바우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히스패닉 응답자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는 공화당원의 56%, 민주당원의 47%가 지지하는 반면,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바우처는 공화당원의 45%, 민주당원의 52%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 및 교사 평가: 응답자의 58%는 지역 공립학교를 A 또는 B 등급으로 평가하였고, 30%는 전국 공립학교 또한 이와 비슷한 등급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교사에 대해 훌륭하거나 우수하다는 평가가 61%로 2018년 이후 5%p 증가하였다.

- 무상 대학: 4년제 공립 대학의 무상화에 대해 지지하는 미국인은 55%로 이는 작년보다 5%p 하락한 수치이다. 특히 무상대학에 대해서는 민주당원의 74%가 지지하는 반면, 공화당원은 29%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당 노선을 따라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트럼프 효과: 핵심공통 교육과정, 차터스쿨, 장학금 세액 공제, 교사 성과급, 미등록 이민자를 위한 주 지원 대학 등록금 등 다섯 가지 사안에 대해 대통령의 의견을 제시 받은 응답자 그룹과 그렇지 않은 응답자 그룹을 비교한 결과, 여론에 뚜렷한 변화를 남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정책: 미국인들에게 포퓰리즘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 결과, 공화당 56%, 민주당 46%의 지지로 양쪽 모두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지역 및 전국 공립학교 평가에 낮은 성적을 부여한 반면 학교 선택의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기타 국외 교육여론조사 사례³⁾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 교육부는 2018년 12월 교육정책의 신뢰를 제고하고 사회 각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공공 교육 협의 과정’을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 포함시킨 바 있다. 주요 사례인 수업 중 휴대폰 사용 금지 정책과 관련하여 토론토 지역 교육청(Toronto District School Board)에서는 소속 학교에 한해 학생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 정책을 운영하였으나, 휴대폰 사용에 대한 여론의 대치가 지속되면서 온타리오 주 교육부는 ‘공공 협의 단계’에 디지털 기기 사용 항목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97%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학교에서 학생의 휴대폰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에 온타리오 주 교육부는 2019학년도 가을 학기부터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영국의 경우 2018년부터는 ‘학교 정보 통합 설문 조사(School Snapshot Omnibus Survey)’ 결과를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발표하고 있다. 해당 설문조사는 교육부의 재정으로 운영되는 모든 학교에 대한 다양한 교육 관련 주제를 다루는 연례 설문조사

3)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http://edpolicy.kedi.re.kr>)에서 발행하는 메일진 해외교육동향 370호의 기획기사(각국의 교육분야 대국민 의견수렴 사례) 중 캐나다, 영국, 독일, 핀란드 사례를 인용함.

로,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교에 지원과 안내를 제공하고, 교육정책의 효과성을 감시하며, 하위 교육위원회 등과 같은 다수의 이해당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관련 설문조사들은 매년 주제와 질문이 동일한 것은 아니며, 당해에 보다 집중적으로 다루는 주제를 중심으로 질문지를 개발한다. 이를 궁극적으로는 교육정책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직업학교 교원 단체(Berufsschullehrerverbands Baden-Württemberg, BLV)'에서는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직업학교 교사 3,101명을 대상으로 업무의 동기, 직업 만족도, 애로사항, 업무 조건과 부담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바 있다. 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74%의 응답자는 수업 전후의 업무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고, 65%는 관련 학교 업무를 보는 시간만큼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고 응답하였다. 직업학교 교원 단체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업시수 경감과 더 많은 휴식시간을 요구하였다. '서독일라디오(Westdeutscher Rundfunk, WDR)'는 학교 정보화에 대한 설문을 독일 전역의 학교장과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이에 총 5,259명이 응답하였다. 해당 설문은 학교의 태블릿 PC, 스마트보드(쌍방향 칠판), 컴퓨터, 인터넷, 교사 수업의 정보화 수준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는데, 응답자들은 학교 정보화에서 부족한 부분으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상태 저조, 기존 설비에 대한 관리 부적절, 정보화 관련 교사 연수의 부족을 꼽았다. 학교장은 원활한 학교 정보화를 위해 학교의 '디지털 업무담당자(digitalen Hausmeister)'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핀란드의 경우 2017년 10월부터 착수한 '교육정책 보고서(koulutuspoliittisen selonteon) 2030'이라는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교육문화부는 초안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단계로 설문조사(온라인, 2020. 1. 17~2. 14)를 실시한 바 있다. 학생, 학부모, 교육 분야 종사자 등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었으며, 웹사이트를 통한 설문 양식은 공용어인 핀란드어와 스웨덴어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제공하여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핀란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온라인 설문조사의 주제는 ① 모든 학교급에서 교육 수준과 능력 향상, 교육 격차 감소, 교육 평등 상승, ② 어린이와 젊은이의 복지 성취, ③ 교육과 트레이닝을 통한 성평등과 차별 없는 사회 증진, ④ 핀란드가 국제적으로 학습, 연구, 투자에 매력적인 곳이 되는 것 등이며, 온라인 설문조사 외에도 현장에서 의견수렴도 진행한다.

4 2020년 정부 교육정책 및 여론 동향

가. 2020년 주요 교육정책(교육부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교육부 업무계획은 교육정책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KEDI POLL에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할 대상이 되며, 시의성 있는 유동문항(신규문항) 개발 및 고정문항 수정, 나아가 조사결과의 해석을 위해 교육부 등 정책당국과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

교육부는 2020년 신년사를 통해 교육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제도개혁에 집중하겠다고, 사회제도개혁의 방향을 공정, 포용, 혁신 등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교육부, 2020a).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제도는 반드시 개선하여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고, 전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저소득층과 긴급 위기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현재보다 더 촘촘하게 마련하여 시행하며, 돌봄-배움-노동-노후-환경·안전 영역의 국가책임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자 하였다. 또한, 혁신의 기반인 인재양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국민들의 일-학습-삶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정책을 수립·추진하였다.

2020년 교육부는 지난해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미래교육 시스템 구축과 교육의 신뢰회복을 핵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1)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2)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3)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4)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 5) 고교학점제 추진, 6) 학교공간 혁신, 7)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8) 사학혁신 방안, 9) 대학·전문대학 혁신 지원 방안, 10)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의 10대 정책은 지속적으로 안착해 나가고자 하였다(교육부, 2020b).

지난 3월, 교육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혁신,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양성’이라는 목표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부터 초등까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책임교육을 실천하였다. 각별한 배려와 돌봄이 필요한 유아와 초등학생을 국가가 책임지고 챙겨서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하며,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도록 초등 1학년을 ‘학부모 안심학년제’로 운영하여 학습-안전-돌봄 전 영역에서 책임지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유치원 3법」 시행,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전면 도입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

고, 건강과 안전 분야 관리를 강화한 ‘학부모 안심유치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하였다.

둘째,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여 변화를 선도할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AI·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고등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올해 모든 초·중학교에 소프트웨어(SW) 교육 의무화를 완료하고, 이와 동시에 AI 교육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자 하였다. 인공지능(AI) 교육 등을 위한 미래형 학교 기반(인프라)을 구축하기 위해 2024년까지 모든 초·중·고 교실에 기기급 무선망(Wi-fi)을 설치한다. 또한, 대학과 전문대학이 자율성을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지역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셋째, 2019년 마련한 교육 공정성 강화 정책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창출하여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고졸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현장실습 참여지원금 신설하고, 중앙취업지원센터 신설 및 직업계고 취업지원관 확대 배치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을 중심으로, 교육현장 비리 근절, 사학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교육부 자체 혁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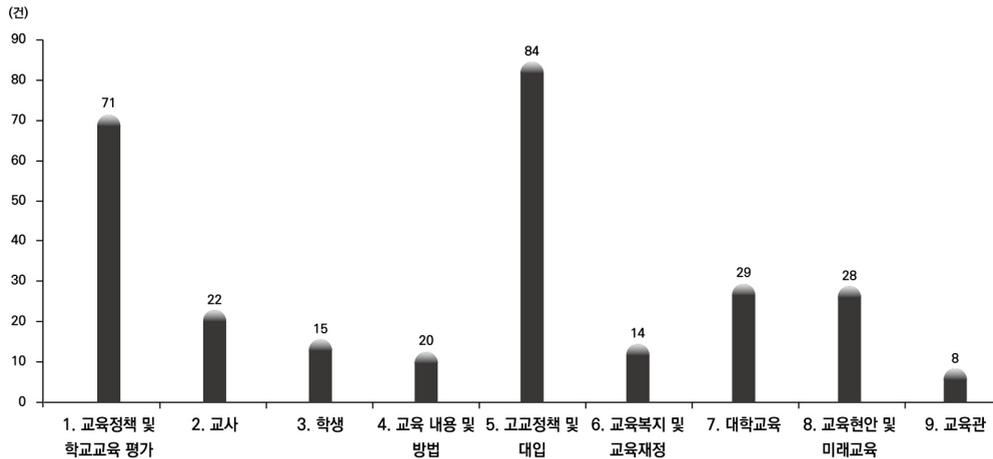
넷째, 2025년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 및 학교공간, 교원, 교육과정, 대입제도 변화 등 미래형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우리 교육의 질적 도약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과 교육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해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올해 600개교 교실을 혁신하고자 하였으며, 학교 전체 공간을 전면 재구조화하는 사업도 개시하였다. 특히, 교원이 미래 교육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미래 교육환경 및 정책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2022 교육과정’ 및 ‘미래형 수능 및 대입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준비도 착수하였다.

나. 언론을 통한 교육 관련 이슈 및 KEDI POLL 분석

2020년 정부의 교육정책 및 언론을 분석한 결과 주요 이슈들은 교육 공정성 회복과 대학 입시제도 개혁,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와 온라인 교육 등으로 정리하였다.

국내 주요 6개 신문(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한국, 경향)에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게재된 교육정책과 관련한 기사는 총 512건이었고, 이들 주요 이슈 관련 기사는

총 291건이었다. 주요 이슈별 언론 현황은 [그림 II-1]과 같으며, 언론에 나타난 이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동 문항(신규문항) 개발 및 고정문항 수정에 참고하였고, 15차 조사 도구(설문 문항)를 확정하는데 활용하였다.



[그림 II-1] KEDI POLL 조사영역별 관련 기사 현황(2019. 8 ~ 2020. 8)

2020년 주요 이슈 중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 및 온라인 교육과 관련한 언론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2월 3일 교육부는 전국 모든 학교의 개학을 3월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연기한다고 발표하였고, 이후 코로나19 감염자가 크게 늘고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3차례에 걸쳐 개학 연기를 단행하였다. 학교의 개학 연기는 우리 사회 돌봄 체계에 있어 큰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에 정부는 학교를 활용한 긴급 돌봄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초기 긴급 돌봄의 실제 이용률은 2%대에 그치기도 하였다.

교육부는 4월 9일부터 온라인 개학을 고3, 중3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하고, 나머지 학년은 4월 16일과 20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실시하였다(한국일보, 2020.04.01.).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교사들은 부족한 준비 기간과 부족한 인프라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고, 고3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에 포함되는 수행평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중앙일보, 2020.04.04.). 4월 9일 온라인 개학일 당일에 상당수 학교는 원격 수업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채 혼란을 겪었으며, 그동안

지적되었던 EBS 온라인 접속 시스템의 병목 현상 문제와 온라인 수업의 내용과 질에 대한 불만도 상당수 제기되었다(경향신문, 2020.04.09.).

이보다 먼저 사이버 강의로 봄 학기를 시작한 대학 또한 원활하지 못한 강의와 마비된 서버 등으로 교수와 학생 모두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하였고(중앙일보, 2020.03.19.), 1학기 전체를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겠다는 대학이 늘어감에 따라 부실한 온라인 강의와 실기, 실습, 실험 수업 등에 대한 부재를 지적하며, 대학생들은 등록금 반환 운동에 나서기도 하였다(한겨레신문, 2020.04.06.).

반면,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온라인 교육을 기회로 온라인 수업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여 스마트교육 활성화의 계기로 삼고,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념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한국일보, 2020.04.10.).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지금의 대학생 세대가 K-MOOC와 같은 온라인 강의에 더 익숙해진 만큼 온·오프라인 혼합형 학습으로의 교육 혁신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기도 하였다(중앙일보, 2020.06.16.).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9)’ 결과 발표 후 다양한 언론에서 14차 조사 결과를 다뤘는데, 가장 많이 언급된 주제로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평가’,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 정도’이며, 그 뒤를 이어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의 자녀교육 성공에 대한 관점’ 순으로 다뤘다. 우선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평가’에서는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 중 과반(54.3%)이 ‘보통’으로 평가하였으나, 부정적 평가(34.2%)가 긍정적 평가(11.5%)보다 높게 나온 점을 주목하였다(한국일보, 2020.01.19.).

또한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 정도’에 대해서도 초·중·고 학부모의 50.9%가 ‘보통’이라 평가했지만, ‘신뢰하지 못한다(29.4%)’나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4.0%)’는 응답(33.4%)이 ‘신뢰한다(15.5%)’나 ‘매우 신뢰한다(0.2%)’는 응답(15.7%)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이슈화 하였다(조선일보, 2020.01.20.).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평가’와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 정도’ 결과에 이어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도 함께 언급되었는데, 유치원과 초·중·고 학부모(969명) 중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부모 비율(2.1%)과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남들보다 앞서 나가게 하려고’ 24.6%), 그리고 사교육비가 부담된

다고 응답한 비율(94.7%)을 주로 게재하였다(한국일보, 2020.01.19.).

마지막으로 ‘자녀교육의 성공에 대한 관점’을 묻는 문항에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의견이 지난 2015~2018년간 1위를 차지했던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를 누르고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한 것도 언론에서 주목하였다(한겨레신문, 2020.01.19.). 그 밖에도 교사자격증은 없지만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교사로 초빙하는 방안과 우리 사회에서의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 그리고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할 항목 등에 대해서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5 조사도구 개발

가. 문헌 분석 결과의 시사점 및 활용

이상의 문헌 분석 결과를 토대로 KEDI POLL 2020 조사도구를 개발 및 수정하는데 다음과 같이 활용하였다.

첫째, 1~14차 조사 문항 전체를 검토하고, 연구진 및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취합하여 교육 및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파악하고, 그 추이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기 적합할 것이라 여겨지는 문항들을 고정문항으로 선정하였다. 조사 문항 영역은 지난 12~14차 조사와 같이 9개 영역을 유지하되, 문항의 내용에 따라 영역을 이동하는 등 재배치하였고, 영역 중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경우 코로나19 상황과 관련 온라인 학습 방법을 묻는 신규문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으로 명칭을 수정하였다. 즉, 15차 조사의 조사 영역은 9개 영역을 유지하되, ① 교육정책 및 학교 교육 평가, ② 교사, ③ 학생, ④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당초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⑤ 고교 정책 및 대입, ⑥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⑦ 대학교육, ⑧ 교육현안 및 미래교육, ⑨ 교육관으로 하여 조사도구를 선정·개발하였다.

둘째, KEDI POLL의 문항과 유사한 통계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다양한 조사 및 통계의 검토를 통해 고정문항의 선정 및 수정·보완에 참고하였다. 2020년 통계청 사회조사 중 교육 및 훈련 분야(학교 만족도, 자녀의 교육 기대, 교육비 부담, 자녀 유학 여부 및 그 이유 등)의 결과를 비교·분석하였으며, 통계청·여성가족부의 청소년 통계(초·중·고 학

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실태, 청소년의 여가 및 사회관계 등)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조사 중 교육(학교생활 만족도, 학교교육의 효과 및 기대, 교육비, 평생교육 등)에 대한 조사결과 등은 고정문항의 문항 및 선택지 수정·보완 및 향후 결과 비교 분석에 활용하였다. 특히, 통계청 사회조사의 결과 중 자녀 유학과 관련하여 보낼 의향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아 KEDI POLL의 지속적으로 보낼 생각이 없다는 응답률이 높은 응답 경향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문항의 의도가 다르기 때문으로 KEDI POLL에서는 초·중·고 자녀의 조기유학을 묻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셋째, KEDI POLL의 활용성이 높아지면서 국제비교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KEDI POLL의 초기 모델인 미국의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태도 조사(PDK 조사)와 Education next poll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결과에 대한 비교 분석이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조사에서 고정적으로 묻고 있는 문항들(학교에 대한 평가, 교원에 대한 평가, 교육재정의 규모, 강조되어야 할 교육과정 등)을 검토하여 KEDI POLL의 조사 영역 및 고정문항 선정에 참고하였고, KEDI POLL의 조사 결과와의 비교 및 분석 결과를 서술하는 방식에도 참고하고자 하였다.

넷째,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불거진 교육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주요 교육 이슈에 대한 전문 여론조사기관, 언론기관 등의 조사들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연구센터에서 발행하는 해외교육동향의 국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참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들은 해당 기관에서의 당면한 교육현안이나 특정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조사들이기 때문에 유동문항 개발 및 구성에 참고하는데 용이하였다.

다섯째, 15차 조사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유동문항의 개발을 위해 교육현안 이슈들을 발굴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언론사의 교육기사들을 검토하여 교육정책 관련 이슈들을 도출하였고, 정부의 2020년 업무계획을 모니터링하여 그 추진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였다. 또한, 최근 3년간의 KEDI POLL 주요 결과에 대한 언론 보도 등을 분석하여 유동문항 개발 및 고정문항을 수정·보완하고, 15차 조사도구 확정에 참고하였다.

여섯째, KEDI POLL 2019를 중심으로 한 교육부의 사전 검토를 통해 정책 담당자들의 의견을 연구진의 문항 검토 및 개발과 동시에 수렴하고자 하였다. 14차 조사문항을 중심으로 고정문항에 대한 정책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택지에 대한 수정·보완 사항을

점검하였고, 신규문항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활용하였다. 사전 검토 이후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등 정책 담당자와 관련 전문가들의 추가 검토를 통해 보다 시의적절한 문항 구성 및 15차 조사문항을 확정하고, 전문가 협의회 및 집담회 운영을 통해 조사결과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헌 분석을 통해 KEDI POLL의 15차 조사를 위한 조사도구의 개발, 수정·보완 및 선정에 참고하였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II-6~8>과 같다.

<표 II-6> 15차 조사 신규 문항 개발(안)

영역	번호	조사내용	비고
교육정책 및 학교교육 평가	1	10대 교육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	교육부 업무계획
	2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	현 정부 국정과제 및 교육부 업무계획, KEDI POLL 2019
학생	3	유·초·중·고등학교와 학부모의 소통 정도	교육부 요청
	4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방식	언론을 통한 이슈 분석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5	온라인 교육의 수업이수 인정에 대한 의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교육 관련 현안 분석
	6	수업이수로 인정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의 운영 형태	
고교 정책 및 대입	7	고등학교 교육에서 앞으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	교육부 요청, 교육정책 관련 이슈 분석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8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교육영역에서의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교육 관련 현안 분석
	9	국가 위기상황 시 교육영역에서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역할	
	10	국가 위기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 유지를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대응 과제	
대학교육	11	대학교육혁신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	현 정부 국정과제 및 교육부 업무계획
교육현안 및 미래교육	12	사교육 비용 부담과 사교육 효과에 대한 의견	교육현안 및 교육정책 관련 이슈 분석, KEDI POLL 2019

<표 II-7> 1~14차 조사 문항의 수정(안)

영역	번호	조사내용	조사 차수	비고
교육정책 및 학교교육 평가	1	현 정부 유·초·중등 교육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	12, 13, 14	선택지 수정
	2	현 정부 고등교육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	12, 13, 14	선택지 수정
	3	현 정부 평생·직업교육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12, 13, 14	선택지 수정

영역	번호	조사내용	조사 차수	비고
		추진해야 할 정책		
	4	학교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과제	6, 7, 8, 9, 10, 11, 12, 13, 14	선택지 수정
	5	초·중·고등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한 과제	2, 3, 4, 5, 12, 13, 14	선택지 수정
	6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이유	14	선택지 수정
	7	정부의 교육신뢰회복 노력에 대한 평가	14	질문 및 선택지 수정
	8	국가교육위원회 역할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	14	질문 및 선택지 수정
교사	9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 정도	6, 7, 8, 9, 10, 11, 12, 13, 14	학교급별 질문으로 수정
	10	교사자격증이 없는 교사 초빙에 대한 의견	4, 5, 10, 11, 12, 13, 14	학교급별 질문으로 수정
학생	11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12, 13, 14	질문 수정
	12	학생이 시민의식(민주시민성)을 갖도록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13, 14	질문 수정
	13	학생의 시민의식(민주시민성) 제고를 위해 학교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	14	질문 및 선택지 수정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14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할 교육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선택지 수정
고교 정책 및 대입	15	현 정부 고등학교 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12, 13, 14	질문 및 선택지 수정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16	교육재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교육단계	12, 13, 14	질문 및 선택지 수정
	17	무상교육 범위 확대를 위한 정부의 우선적 지원 내용	5, 6, 7, 8, 9, 10, 11, 12, 13, 14	질문 및 선택지 수정
대학교육	18	대학교육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 대한 평가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대학 유형별 질문으로 수정
	19	대학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해야 할 우선과제	14	대학 유형별 질문으로 수정
교육현안 및 미래교육	20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정책	6, 7, 8, 10, 11, 12, 13, 14	선택지 수정
	21	우리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미래사회 변화	12, 14	선택지 수정
	22	미래 초·중등학교 교육체제를 위한 요구 과제	13, 14	선택지 수정
	23	미래 학교에서 더 강조될 역할과 기능	11, 12, 13, 14	선택지 수정
교육관	24	자녀의 장래 생활에 대한 기대	12, 13, 14	선택지 수정
	25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담 정도	13, 14	선택지 수정

〈표 II-8〉 1~14차 조사 문항과 동일 확정(안)

영역	번호	조사내용	조사 차수
교육정책 및 학교교육 평가	1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평가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2	학교 선택 시 고려 사항	1, 2, 5, 6, 7, 8, 9, 10, 11, 12, 13, 14
	3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의견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4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네 가지 측면에 대한 의견	12, 13, 14
	5	우리나라 교육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어야 할 측면	13, 14
교사	6	교사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	9, 10, 11, 12, 13, 14
	7	자녀 직업으로서 교사 희망에 대한 의견	6, 7, 8, 9, 12, 14
	8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정도	14
학생	9	학생의 인성 수준	7, 8, 9, 10, 11, 12, 13, 14
	10	학생이 좋은 인성을 갖도록 하는 영향 요인	10, 11, 12, 13, 14
	11	학생의 시민의식(민주시민성) 수준	13, 14
	12	2-3년 전과 비교한 학교폭력 정도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3	학교폭력의 원인	7, 8, 9, 10, 11, 12, 13, 14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14	학교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길러주기를 바라는 사항	12, 13, 14
	15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 할 교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6	미래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	11, 12, 13, 14
고교 정책 및 대입	17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 비중에 대한 의견	14
	18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하는 항목	6, 7, 8, 9, 10, 11, 12, 13, 14
	19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에 대한 전망	6, 7, 8, 9, 10, 11, 12, 13, 14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20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규모에 대한 의견	10, 11, 12, 13, 14
대학교육	21	대학교수의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역할수행에 대한 평가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22	사립대학 지원 확대에 대한 찬반의견	13, 14
	23	대학 역량 진단 시 가장 중요하게 반영해야 할 지표	10, 11, 12, 13, 14
교육현안 및 미래교육	24	교육행정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의견	6, 7, 8, 10, 11, 12, 13, 14
	25	2-3년 전과 비교한 사교육 실태 변화	1, 2, 12, 13, 14
	26	사교육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	1, 2, 12, 13, 14
	27	자녀 사교육비 부담 정도	1, 2, 12, 13, 14
	28	자녀의 사교육과 관련한 생각	14
교육관	29	자녀의 학교교육 거부에 대한 학부모 태도	1, 2, 10, 11, 12, 13, 14
	30	우리사회에서 자녀교육 성공에 대한 관점	3, 4, 5, 10, 11, 12, 13, 14
	31	대학 졸업장의 유무에 따른 차별 정도	6, 7, 8, 9, 10, 11, 12, 13, 14
	32	우리나라 학벌주의에 대한 전망	6, 7, 8, 9, 10, 11, 12, 13, 14
	33	대학 서열화에 대한 전망	6, 7, 8, 9, 10, 11, 12, 13, 14
	34	교육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3, 4, 5, 12, 13, 14

나. 15차 조사도구 개발 및 최종 선정

1) 조사도구 초안 선정 및 개발

- KEDI POLL의 조사목적에 부합하고, 안정성·지속성·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사 문항을 선정·개발하였다.
- 1~14차 문항을 전면 검토 후 선행 조사 결과와 비교 가능한 변화 추이를 분석할 수 있도록 고정문항을 선정하고, 문헌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고정문항 수정·보완에 반영하였다.
-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 및 언론 분석 등을 통해 최근의 교육 및 교육정책에서의 현안을 분석하고, 이를 중심으로 신규 문항을 개발하였다.

2) 정책 담당자 대상 조사 문항 사전 검토

-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등 정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 문항에 대한 사전 조사 및 검토에 참여시켜 시의적절한 문항 개발 및 조사결과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 14차 조사문항을 중심으로 교육부의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 문항에 대한 검토 및 고정문항 선택지에 대한 수정·보완 사항을 점검하였고, 신규문항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활용하였다.

3) 15차 조사도구의 최종 선정: 9개 영역, 총 68(+3)개 문항[기존 33(+1)개, 수정·추가 24(+1)개, 신규 11(+1)개]

- 최종적으로 선정된 15차 조사도구의 영역별 조사 내용은 다음 <표 II-9>과 같으며, 기관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 KEDI POLL 2020의 조사도구는 [부록 5]에 제시하였으며, 1~15차 조사문항별 분류 및 지난 조사도구와 15차 조사도구와의 문항 비교는 [부록 4], [부록 6]으로 제시하였다.

〈표 II-9〉 KEDI POLL 2020 조사 영역 및 내용

영역	번호	조사 내용	조사 차수
교육정책 및 학교교육 평가 (13+2)	1	10대 교육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	신규
	2	현 정부 유·초·중등 교육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	12, 13, 14/ 수정
	3	현 정부 고등교육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	12, 13, 14/ 수정
	4	현 정부 평생·직업교육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	12, 13, 14/ 수정
	5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	신규
	6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평가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7	학교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과제	6, 7, 8, 9, 10, 11, 12, 13, 14/ 수정
	8	학교 선택 시 고려 사항	1, 2, 5, 6, 7, 8, 9, 10, 11, 12, 13, 14
	9	초·중·고등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한 과제	2, 3, 4, 5, 12, 13, 14/ 수정
	10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의견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0-1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이유	14/ 수정
	11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네 가지 측면에 대한 의견	12, 13, 14
	11-1	우리나라 교육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어야 할 측면	13, 14
교사 (5)	12	정부의 교육신회복 노력에 대한 평가	14/ 수정
	13	국가교육위원회 역할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	14/ 수정
	14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 정도	6, 7, 8, 9, 10, 11, 12, 13, 14/ 수정
	15	교사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	9, 10, 11, 12, 13, 14
	16	교사자격증이 없는 교사 초빙에 대한 의견	4, 5, 10, 11, 12, 13, 14/ 수정
학생 (10)	17	자녀 직업으로서 교사 희망에 대한 의견	6, 7, 8, 9, 12, 14
	18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정도	14
	19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12, 13, 14/ 수정
	20	학생의 인성 수준	7, 8, 9, 10, 11, 12, 13, 14
	21	학생이 좋은 인성을 갖도록 하는 영향 요인	10, 11, 12, 13, 14
	22	학생의 시민의식(민주시민성) 수준	13, 14
	23	학생이 시민의식(민주시민성)을 갖도록 하는 영향 요인	13, 14/ 수정
	24	학생의 시민의식(민주시민성) 제고를 위해 학교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	14/ 수정
	25	2-3년 전과 비교한 학교폭력 정도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26	학교폭력의 원인	7, 8, 9, 10, 11, 12, 13, 14

영역	번호	조사 내용	조사 차수
	27	유·초·중·고등학교와 학부모의 소통 정도	신규
	28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방식	신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5+1)	29	학교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길러주기를 바라는 사항	12, 13, 14
	30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 할 교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31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할 교육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수정
	32	미래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	11, 12, 13, 14
	33	온라인 교육의 수업이수 인정에 대한 의견	신규
	33-1	수업이수로 인정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의 운영 형태	신규
고교 정책 및 대입 (5)	34	현 정부 고등학교 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12, 13, 14/ 수정
	35	고등학교 교육에서 앞으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	신규
	36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 비중에 대한 의견	14
	37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할 항목	6, 7, 8, 9, 10, 11, 12, 13, 14
38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에 대한 전망	6, 7, 8, 9, 10, 11, 12, 13, 14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6)	39	교육재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교육단계	12, 13, 14/ 수정
	40	무상교육 범위 확대를 위한 정부의 우선적 지원 내용	5, 6, 7, 8, 9, 10, 11, 12, 13, 14/ 수정
	41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규모에 대한 의견	10, 11, 12, 13, 14
	42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교육영역에서의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	신규
	43	국가 위기상황 시 교육영역에서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역할	신규
44	국가 위기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 유지를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대응 과제	신규	
대학교육 (6)	45	대학교육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기능에 대한 평가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수정
	46	대학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해야 할 우선과제	14/ 수정
	47	대학교수의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역할수행에 대한 평가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48	사립대학 지원 확대에 대한 찬반의견	13, 14
	49	대학 역량 진단 시 가장 중요하게 반영해야 할 지표	10, 11, 12, 13, 14
	50	대학교육혁신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	신규
교육현안 및 미래교육 (10)	51	교육행정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의견	6, 7, 8, 10, 11, 12, 13, 14
	52	2-3년 전과 비교한 사교육 실태 변화	1, 2, 12, 13, 14
	53	사교육 비용 부담과 사교육 효과에 대한 의견	신규

영역	번호	조사 내용	조사 차수	
	54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정책	6, 7, 8, 10, 11, 12, 13, 14/ 수정	
	55	사교육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	1, 2, 12, 13, 14	
	56	자녀 사교육비 부담 정도	1, 2, 12, 13, 14	
	57	자녀의 사교육과 관련한 생각	14	
	58	우리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미래사회 변화	12, 14/ 수정	
	59	미래 초·중등학교 교육체제를 위한 요구 과제	13, 14/ 수정	
	60	미래 학교에서 더 강조될 역할과 기능	11, 12, 13, 14/ 수정	
	교육관 (8)	61	자녀의 학교교육 거부에 대한 학부모 태도	1, 2, 10, 11, 12, 13, 14
		62	우리사회에서 자녀교육 성공에 대한 관점	3, 4, 5, 10, 11, 12, 13, 14
		63	자녀의 장래 생활에 대한 기대	12, 13, 14/ 수정
64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담 정도	13, 14/ 수정	
65		대학 졸업장의 유무에 따른 차별 정도	6, 7, 8, 9, 10, 11, 12, 13, 14	
66		우리나라 학벌주의에 대한 전망	6, 7, 8, 9, 10, 11, 12, 13, 14	
67		대학 서열화에 대한 전망	6, 7, 8, 9, 10, 11, 12, 13, 14	
68		교육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3, 4, 5, 12, 13, 14	

CHAPTER

III

조사 결과 및 분석

1. 교육정책 및 학교교육 평가
2. 교사
3. 학생
4.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5. 고교정책 및 대입
6.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7. 대학교육
8. 교육현안 및 미래교육
9. 교육관

KEDI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0)

1 교육정책 및 학교교육 평가

요약

- 현 정부의 2020년 10대 교육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순위 정책은 대입 공정성 강화(20.3%),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15.7%),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15.1%), 고교 서열화 해소(10.0%) 순이었고,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순위 유·초·중등 교육정책으로는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24.4%),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13.0%), 온종일 돌봄정책 확대 및 서비스 강화(11.1%)를 꼽음.
- 현 정부에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순위 고등교육정책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29.6%), 등록금 부담 경감(22.5%),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11.2%) 순이었고, 1순위 평생·직업교육정책으로는 생애단계별 맞춤형 직업교육강화(20.4%), 중등 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고졸 취업 활성화(13.6%), 전문대학 역량 강화를 통한 직업교육 지역거점 육성(13.0%), 한국형 무크 강좌 등 온라인 평생교육 콘텐츠 및 인프라 확대(10.1%), 대학 창업 및 산학협력 활성화(10.0%)를 꼽음.
-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중 정부가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정책으로는 국·공립 유치원의 지속적 확충 및 설립 유형(매입형, 부모협동형 등) 다양화(24.0%), 방과후 과정 확대, 돌봄시간 다양화 등 돌봄 서비스 내실화(15.9%), 건강·안전관리 등 책임을 강화한 ‘학부모 안심유치원’ 확대(15.9%), 교비회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처벌 근거 신설 등 유치원 3법 강력 시행(13.7%),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한 운영을 위한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전면 도입(13.2%) 순으로 응답함.
- 초·중·고등학교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 56.2%가 ‘보통(C)’을 선택하였고, 평균점수는 2.86(5점 만점)으로 지난 14차 조사(2.75)보다 0.11p 상승함. 학교급별 평가에서도 지난 14차 조사보다 평균이 0.01~0.15p 높아진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평균 점수(초 3.11, 중 2.91, 고 2.64)가 낮아지는 응답 경향은 유사함.
- 학교가 ‘잘하고 있다(A+B)’는 평가를 받기 위한 우선 과제로 초·중·고 전반은 수업 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27.6%),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학생 지도(인성, 안전 등) 활동(27.3%)을, 초등학교는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학생 지도(인성, 안전 등) 활동(24.2%),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19.4%)을, 중학교는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학생 지도(인성, 안전 등) 활동(27.2%), 학생 성장

중심으로 평가 방법 개선(19.9%)을, 고등학교는 진로교육(진학 및 취업 지도 포함) 강화(34.9%), 수업 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15.0%)을 꼽음.

- 자녀의 학교 선택 시 중요 고려 요소로 초·중학교는 인성교육(초 31.2%, 중 25.4%)을, 고등학교는 진로 지도(23.2%)를, 대학교는 졸업생의 취업 실적(26.1%)을 꼽음. 초·중·고등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한 과제로는 학벌 위주의 사회체제 개선(25.2%), 수업 방식의 다양화(16.2%), 교원의 전문성 제고(16.1%), 교육 내용의 선택권 확대(14.6%), 진로교육 강화(12.0%), 대입 선발 방식 개선(11.2%) 순으로 응답함.
-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해 초·중·고 전반과 초·중·고등학교급 모두에서 보낼 생각이 없다(전반 56.9%, 초 76.5%, 중 67.5%, 고 47.5%)는 의견이 높으며, 학교급이 낮을수록 응답률이 월등히 높음. 자녀의 조기유학 이유로는 외국어 학습 또는 자녀의 조기 다중언어 구사를 위해(29.9%), 경쟁 위주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23.6%), 자녀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21.8%), 우리나라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20.5%) 순으로, 우리나라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24.6%)을 1순위로 꼽은 지난 14차 조사의 응답 경향과 차이를 보임.
-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대해 일관성, 장기적 비전 측면에서 대체로 없다(각 52.9%, 51.4%)는 의견의 응답률이 높았고(평균 각 2.46, 2.48/5점 만점), 우리나라 여건에의 적합성과 국민여론 반영 측면에서는 보통(각 53.6%, 44.6%)의 응답률이 높음(평균 각 2.79, 2.70). 네 가지 측면 모두 평균으로 지난 조사보다 0.1~0.13p 높아졌고, 네 가지 측면 중 장기적 비전(50.6%), 우리나라 여건에의 적합성(22.3%), 일관성(15.8%), 국민여론 반영(7.1%) 순으로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임.
- 정부의 교육실회복 노력에 대해 보통(46.8%)의 응답률이 높았고(평균 2.75/5점 만점), 국가교육위원회 역할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교육비전 및 중장기 정책방향 마련(34.3%),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27.9%), 국가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 수립(23.9%),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및 조정(13.3%) 순으로 응답함.

1) 10대 교육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

<질문> 다음은 2020년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10대 교육정책입니다.

10대 교육정책 중 정부가 앞으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를 순위대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이 문항은 이번 15차 조사의 신규 문항으로, 올해 교육부 신년사 및 업무계획을 통해 발표한 교육정책의 변화 방향에 대한 현장 안착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10대 핵심과제와 관련된 질문이다(교육부, 2020).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10대 교육정책 중 정부가 앞으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전체

응답자는 1순위로 대입 공정성 강화(20.3%)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15.7%),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15.1%), 고교 서열화 해소(10.0%), 고졸 취업 활성화(8.1%), 민주시민교육 활성화(7.9%), 사학 혁신(6.1%), 잘 모르겠다(6.1%), 대학·전문대학 혁신 지원(5.0%), 학교공간 혁신(3.9%), 고교학점제 추진(1.8%) 순으로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가 1+2순위로 선택한 10대 교육정책은 대입 공정성 강화(19.5%),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15.3%),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11.4%), 고졸 취업 활성화(10.6%), 고교 서열화 해소(10.2%), 민주시민교육 활성화(8.1%), 사학 혁신(7.0%), 대학·전문대학 혁신 지원(7.0%), 학교공간 혁신(5.2%), 잘 모르겠다(3.1%), 고교학점제 추진(2.6%) 순이었다.

응답자 개인 특성별로는 먼저, 자녀가 있는 집단의 경우 1순위 10대 교육정책으로 대입 공정성 강화(21.6%),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16.8%),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16.6%), 고교 서열화 해소(10.0%) 등의 순으로 많이 선택하였으며, 1+2순위 정책으로는 대입 공정성 강화(20.4%),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16.4%),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11.8%), 고교 서열화 해소(10.1%) 등의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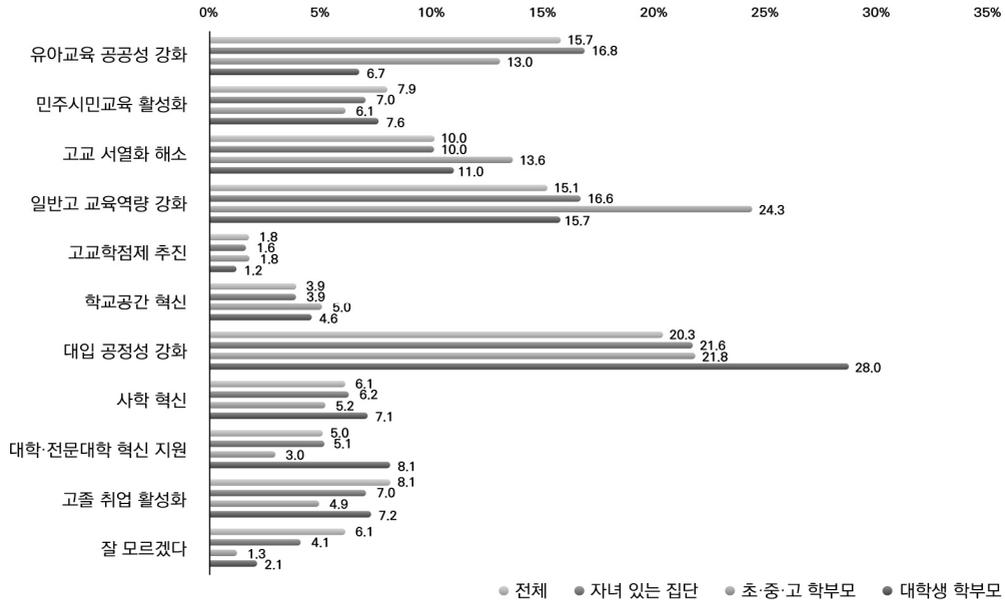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가 1순위로 꼽은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0대 교육정책은 전체 응답자와 달리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24.3%)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대입 공정성 강화(21.8%), 고교 서열화 해소(13.6%),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13.0%)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1+2순위는 대입 공정성 강화(21.9%),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21.3%), 고교 서열화 해소(12.5%),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9.2%) 등의 순이었다.

대학생 학부모 집단은 1순위 10대 교육정책에 대해 대입 공정성 강화(28.6%),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15.7%), 고교 서열화 해소(11.0%), 대학·전문대학 혁신 지원(8.1%)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1+2순위로 꼽은 10대 교육정책 또한, 대입 공정성 강화(23.9%)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15.5%), 고졸 취업 활성화(10.9%), 고교 서열화 해소(10.7%) 등의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어 자녀의 학교급이 높을수록 10대 교육정책 중 대입 공정성 강화를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학생 학부모 28.6% > 고등학생 학부모 27.1% > 중학생 학부모 23.4% > 초등학생 학부모 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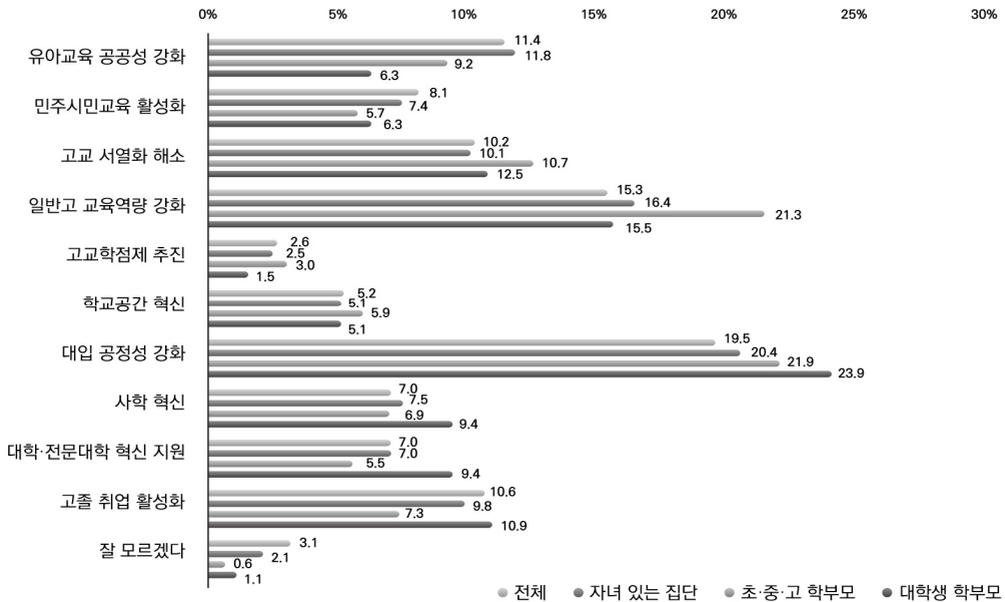
〈표 III-1〉 10대 교육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2020)

(단위: 명(%))

10대 교육정책	2020							
	전체		자녀가 있는 집단		초·중·고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1순위	1+2 순위	1순위	1+2 순위	1순위	1+2 순위	1순위	1+2 순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786 (15.7)	568 (11.4)	492 (16.8)	345 (11.8)	135 (13.0)	95 (9.2)	38 (6.7)	35 (6.3)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397 (7.9)	403 (8.1)	204 (7.0)	217 (7.4)	63 (6.1)	59 (5.7)	43 (7.6)	35 (6.3)
고교 서열화 해소	498 (10.0)	511 (10.2)	294 (10.0)	295 (10.1)	141 (13.6)	129 (12.5)	62 (11.0)	61 (10.7)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755 (15.1)	766 (15.3)	486 (16.6)	479 (16.4)	252 (24.3)	222 (21.3)	89 (15.7)	88 (15.5)
고교학점제 추진	88 (1.8)	132 (2.6)	48 (1.6)	72 (2.5)	19 (1.8)	31 (3.0)	7 (1.2)	9 (1.5)
학교공간 혁신	194 (3.9)	260 (5.2)	113 (3.9)	149 (5.1)	52 (5.0)	61 (5.9)	26 (4.6)	29 (5.1)
대입 공정성 강화	1,015 (20.3)	973 (19.5)	633 (21.6)	598 (20.4)	226 (21.8)	228 (21.9)	162 (28.6)	135 (23.9)
사학 혁신	305 (6.1)	350 (7.0)	182 (6.2)	218 (7.5)	54 (5.2)	72 (6.9)	40 (7.1)	53 (9.4)
대학·전문대학 혁신 지원	252 (5.0)	350 (7.0)	149 (5.1)	205 (7.0)	31 (3.0)	57 (5.5)	46 (8.1)	53 (9.4)
고졸 취업 활성화	405 (8.1)	530 (10.6)	206 (7.0)	288 (9.8)	51 (4.9)	76 (7.3)	41 (7.2)	62 (10.9)
잘 모르겠다	305 (6.1)	157 (3.1)	120 (4.1)	61 (2.1)	13 (1.3)	7 (0.6)	12 (2.1)	6 (1.1)
계	5,000 (100.0)	5,000 (100.0)	2,927 (100.0)	2,927 (100.0)	1,037 (100.0)	1,037 (100.0)	566 (100.0)	566 (100.0)



[그림 III-1] 10대 교육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1순위, 2020)



[그림 III-2] 10대 교육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1+2순위, 2020)

2) 현 정부 유·초·중등 교육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

<질문> 다음의 현 정부 유·초·중등 교육정책 중 정부가 앞으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를 순위대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이번 문항의 선택지와 관련, 추진 중인 정책과의 연계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상황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 및 추가하였다.

현 정부의 유·초·중등 교육정책 중 앞으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순위 정책으로 전체 응답자는 지난 14차 조사(2019년)와 같이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24.4%)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13.0%), 온종일 돌봄정책 확대 및 서비스 강화(11.1%),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키워주는 학교공간 혁신 추진(8.5%),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강화(6.8%), 국가차원의 기초학력 보장 체제 구축(5.8%),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5.7%), 잘 모르겠다(4.6%), 온라인 수업 확대 및 질적 강화(4.1%), 교원양성 제도 개선 및 교원 역량 제고(4.0%), 고교학점제 도입 및 확대(3.7%),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3.7%), SW·AI 교육 및 융합교육 강화(2.9%), 지방교육자치 강화 및 학교자치 활성화(1.5%)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1+2순위로 선택한 유·초·중등 교육정책은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16.1%), 온종일 돌봄정책 확대 및 서비스 강화(11.7%),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11.6%),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키워주는 학교공간 혁신 추진(11.5%),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강화(6.9%), 국가차원의 기초학력 보장 체제 구축(6.9%), 교원양성 제도 개선 및 교원 역량 제고(6.4%), 학교 노후 시설 개선 및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5.7%), 온라인 수업 확대 및 질적 강화(5.4%),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4.9%), SW·AI 교육 및 융합교육 강화(4.2%), 고교학점제 도입 및 확대(3.2%), 지방교육자치 강화 및 학교자치 활성화(3.0%), 잘 모르겠다(2.4%) 순이었다.

응답자 개인 특성 중 자녀가 있는 집단은 정부가 앞으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순위 유·초·중등 교육정책으로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24.8%),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14.9%), 온종일 돌봄정책 확대 및 서비스 강화(10.7%),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키워주는 학교공간 혁신 추진(9.0%) 등의 순으로 가장 많이 선

택하였고, 1+2순위로는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16.2%),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12.8%),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키워주는 학교공간 혁신 추진(11.9%), 온종일 돌봄정책 확대 및 서비스 강화(11.3%)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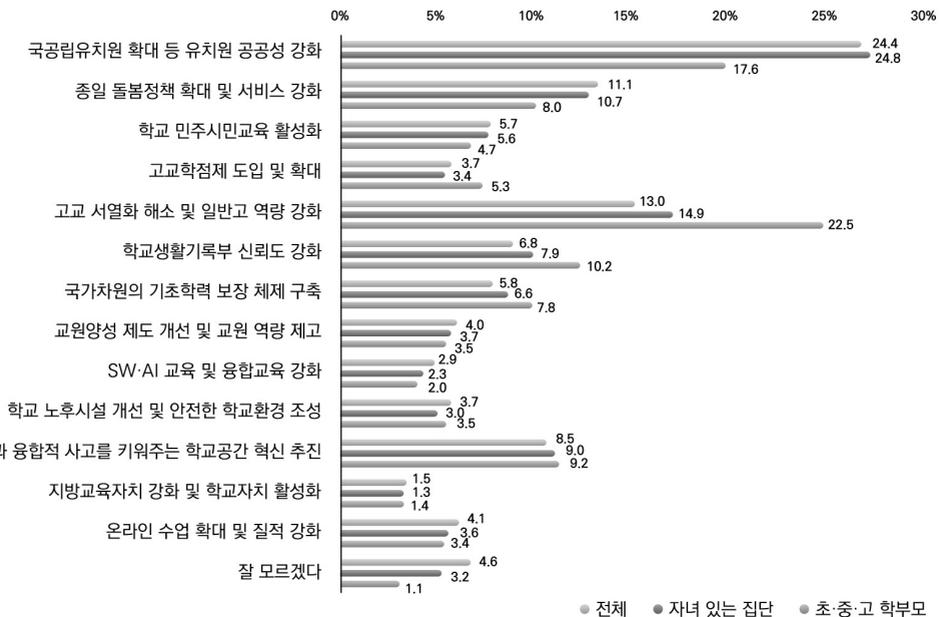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가 1순위로 꼽은 유·초·중등 교육정책으로는 전체 응답자와 달리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22.5%)를 가장 많이 선택하여 앞 문항의 응답 경향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고, 다음으로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17.6%),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강화(10.2%),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키워주는 학교공간 혁신 추진(9.2%)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1+2순위로는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17.8%),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키워주는 학교공간 혁신 추진(11.6%),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10.9%),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강화(9.8%) 등의 순이었다.

〈표 III-2〉 현 정부 유·초·중등 교육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2019~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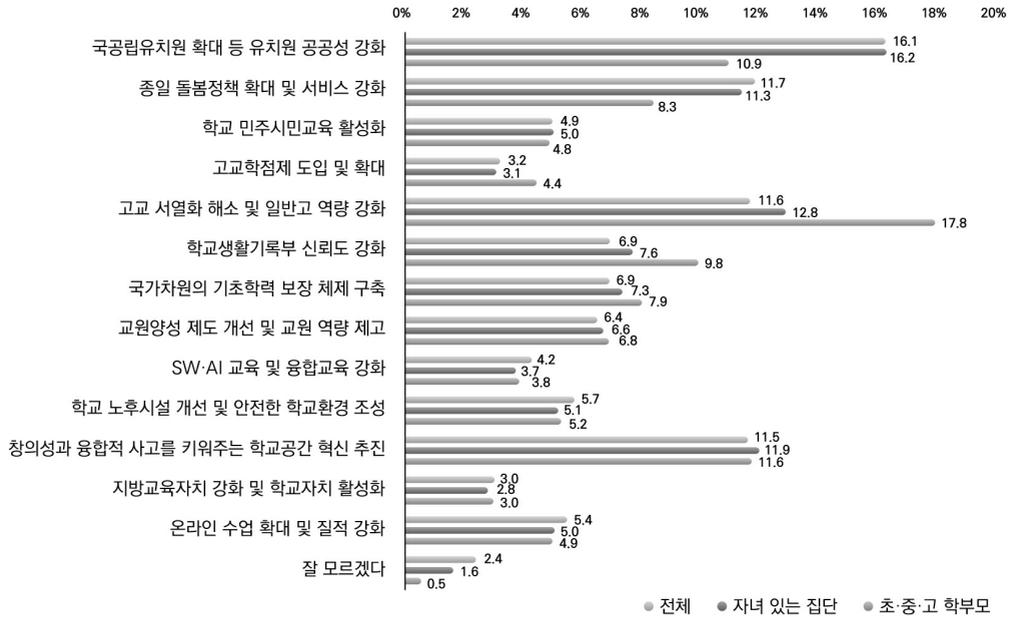
(단위: 명(%))

유·초·중등 교육정책	2020						2019	
	전체		자녀가 있는 집단		초·중·고 학부모		전체	
	1순위	1+2 순위	1순위	1+2 순위	1순위	1+2 순위	1순위	1+2 순위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	1,219 (24.4)	806 (16.1)	727 (24.8)	473 (16.2)	182 (17.6)	113 (10.9)	1,208 (30.2)	1,546 (19.6)
온종일 돌봄정책 확대 및 서비스 강화	556 (11.1)	587 (11.7)	312 (10.7)	331 (11.3)	83 (8.0)	86 (8.3)	640 (16.0)	1,238 (15.7)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286 (5.7)	247 (4.9)	164 (5.6)	146 (5.0)	49 (4.7)	50 (4.8)	-	-
고교학점제 도입 및 확대	187 (3.7)	159 (3.2)	100 (3.4)	89 (3.1)	55 (5.3)	46 (4.4)	120 (3.0)	237 (3.0)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	649 (13.0)	579 (11.6)	436 (14.9)	374 (12.8)	233 (22.5)	184 (17.8)	-	-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강화	342 (6.8)	344 (6.9)	230 (7.9)	224 (7.6)	106 (10.2)	102 (9.8)	370 (9.3)	740 (9.4)
국가차원의 기초학력 보장 체제 구축	291 (5.8)	343 (6.9)	193 (6.6)	213 (7.3)	81 (7.8)	82 (7.9)	191 (4.8)	505 (6.4)
교원양성 제도 개선 및 교원 역량 제고	201 (4.0)	323 (6.4)	109 (3.7)	195 (6.6)	36 (3.5)	71 (6.8)	148 (3.7)	459 (5.8)
SW·AI 교육 및 융합교육 강화	145 (2.9)	212 (4.2)	68 (2.3)	109 (3.7)	21 (2.0)	40 (3.8)	72 (1.8)	195 (2.5)

유·초·중등 교육정책	2020						2019	
	전체		자녀가 있는 집단		초·중·고 학부모		전체	
	1순위	1+2 순위	1순위	1+2 순위	1순위	1+2 순위	1순위	1+2 순위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186 (3.7)	284 (5.7)	89 (3.0)	150 (5.1)	36 (3.5)	54 (5.2)	164 (4.1)	478 (6.1)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키워주는 학교공간 혁신 추진	426 (8.5)	575 (11.5)	262 (9.0)	348 (11.9)	95 (9.2)	121 (11.6)	330 (8.3)	899 (11.4)
지방교육자치 강화 및 학교자치 활성화	74 (1.5)	150 (3.0)	39 (1.3)	81 (2.8)	14 (1.4)	31 (3.0)	38 (1.0)	124 (1.6)
온라인 수업 확대 및 질적 강화	206 (4.1)	272 (5.4)	105 (3.6)	147 (5.0)	35 (3.4)	51 (4.9)	-	-
잘 모르겠다	232 (4.6)	119 (2.4)	93 (3.2)	47 (1.6)	11 (1.1)	6 (0.5)	126 (3.2)	126 (1.6)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2020년 제외)	-	-	-	-	-	-	343 (8.6)	608 (7.7)
직업교육 강화 및 고졸 취업 활성화 (2020년 제외)	-	-	-	-	-	-	250 (6.3)	719 (9.1)
계	5,000 (100.0)	5,000 (100.0)	2,927 (100.0)	2,927 (100.0)	1,037 (100.0)	1,037 (100.0)	4,000 (100.0)	7,874 (100.0)



[그림 Ⅲ-3] 현 정부 유·초·중등 교육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1순위, 2020)



[그림 Ⅲ-4] 현 정부 유·초·중등 교육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1+2순위, 2020)

3) 현 정부 고등교육 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

〈질문〉 다음의 현 정부 고등교육 정책 중 정부가 앞으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를 순위대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이 문항 또한, 추진 중인 정책과 연계하여 선택지를 수정 및 추가 하였다. 현 정부 고등교육정책 중 정부가 앞으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순위 정책으로 전체 응답자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29.6%)를 가장 많이 선택하여 앞의 10대 교육정책 중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을 묻는 문항의 응답과 유사한 응답결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22.5%),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11.2%), 지방대학-지자체 협력기반의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원(6.3%),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회균형 선발 의무화(5.5%),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 확충(5.3%), 대학의 자율적 기반을 토대로 한 대학 혁신 지원(4.8%), 잘 모르겠다(4.6%), 대학의 혁신적 연구 역량 제고 및 학술생태계 조성 지원(4.0%), 전문

대학 지원 확대(3.2%),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및 효율적 배분(2.9%) 순으로 응답하였다. 1+2순위로는 등록금 부담 경감(21.2%),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20.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12.2%), 지방대학-지자체 협력기반의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원(8.8%), 대학의 자율적 기반을 토대로 한 대학 혁신 지원(7.2%),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 확충(6.7%), 대학의 혁신적 연구 역량 제고 및 학술생태계 조성 지원(6.5%),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회균형 선발 의무화(5.5%), 전문대학 지원 확대(5.0%), 고등교육재정 확충 및 효율적 배분(4.3%), 잘 모르겠다(2.4%)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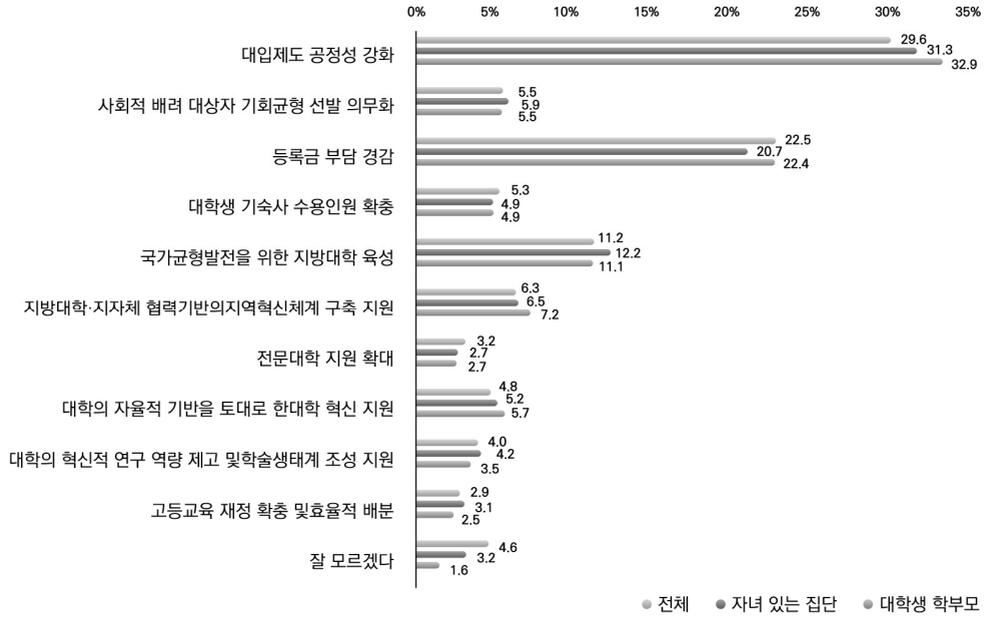
자녀가 있는 응답자 집단의 경우, 1순위 고등교육정책으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31.3%), 등록금 부담 경감(20.7%),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12.2%), 지방대학-지자체 협력기반의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원(6.5%),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회균형 선발 의무화(5.9%) 등의 순이었고, 1+2순위로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21.3%), 등록금 부담 경감(20.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12.5%), 지방대학-지자체 협력기반의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원(8.8%), 대학의 자율적 기반을 토대로 한 대학 혁신 지원(7.8%) 등의 순으로 선택하였다.

대학생 학부모인 응답자 집단 또한, 1순위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32.9%)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22.4%),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11.1%), 지방대학-지자체 협력기반의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원(7.2%), 대학의 자율적 기반을 토대로 한 대학 혁신 지원(5.7%) 등의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1+2순위로도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21.6%), 등록금 부담 경감(21.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11.2%), 지방대학-지자체 협력기반의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원(9.0%), 대학의 자율적 기반을 토대로 한 대학 혁신 지원(8.4%) 등의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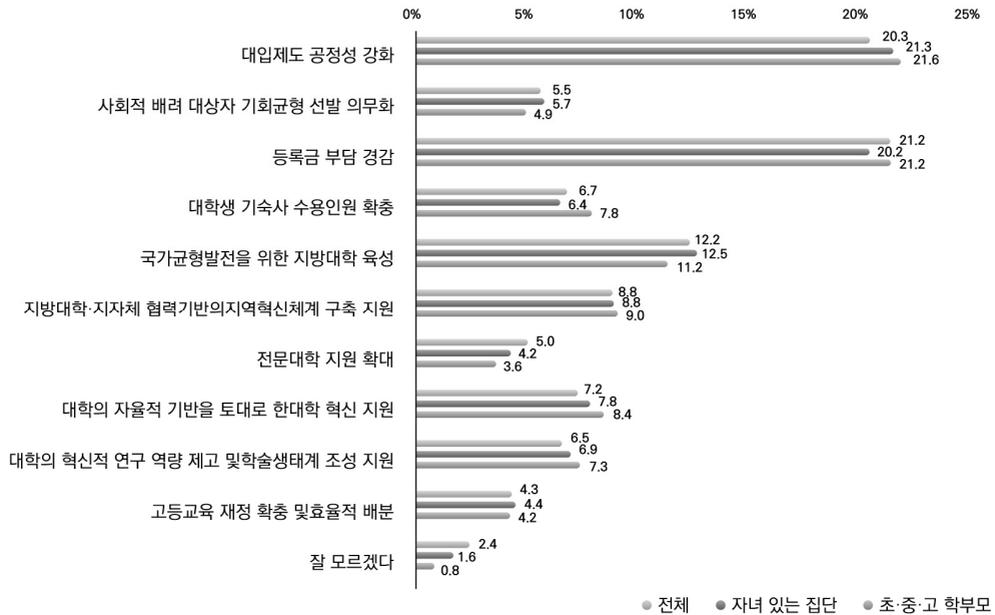
〈표 Ⅲ-3〉 현 정부 고등교육 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2019~2020)

(단위: 명(%))

고등교육정책	2020						2019	
	전체		자녀가 있는 집단		대학생 학부모		전체	
	1순위	1+2 순위	1순위	1+2 순위	1순위	1+2 순위	1순위	1+2 순위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1,482 (29.6)	1,013 (20.3)	915 (31.3)	624 (21.3)	186 (32.9)	122 (21.6)	-	-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회균형 선발 의 무화	277 (5.5)	277 (5.5)	172 (5.9)	167 (5.7)	31 (5.5)	28 (4.9)	307 (7.7)	563 (7.1)
등록금 부담 경감	1,125 (22.5)	1,059 (21.2)	607 (20.7)	593 (20.2)	127 (22.4)	120 (21.2)	1,320 (33.0)	2,029 (25.8)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 확충	266 (5.3)	336 (6.7)	144 (4.9)	188 (6.4)	28 (4.9)	44 (7.8)	291 (7.3)	799 (10.1)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560 (11.2)	611 (12.2)	358 (12.2)	367 (12.5)	63 (11.1)	64 (11.2)	-	-
지방대학-지자체 협력기반의 지역혁신 체계 구축 지원	317 (6.3)	438 (8.8)	190 (6.5)	258 (8.8)	41 (7.2)	51 (9.0)	-	-
전문대학 지원 확대	160 (3.2)	249 (5.0)	80 (2.7)	123 (4.2)	15 (2.7)	20 (3.6)	97 (2.4)	360 (4.6)
대학의 자율적 기반을 토대로 한 대학 혁신 지원	239 (4.8)	360 (7.2)	152 (5.2)	227 (7.8)	32 (5.7)	47 (8.4)	290 (7.3)	770 (9.8)
대학의 혁신적 연구 역량 제고 및 학술 생태계 조성 지원	199 (4.0)	325 (6.5)	122 (4.2)	202 (6.9)	20 (3.5)	41 (7.3)	228 (5.7)	677 (8.6)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및 효율적 배분	143 (2.9)	213 (4.3)	92 (3.1)	130 (4.4)	14 (2.5)	24 (4.2)	-	-
잘 모르겠다	232 (4.6)	119 (2.4)	95 (3.2)	48 (1.6)	9 (1.6)	5 (0.8)	125 (3.1)	125 (1.6)
대입전형 단순화 추진	-	-	-	-	-	-	834 (20.9)	1,244 (15.8)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 (2020년 제외)	-	-	-	-	-	-	318 (8.0)	731 (9.3)
지역 강소대학 지원 확대 (2020년 제외)	-	-	-	-	-	-	190 (4.8)	577 (7.3)
계	5,000 (100.0)	5,000 (100.0)	2,927 (100.0)	2,927 (100.0)	566 (100.0)	566 (100.0)	4,000 (100.0)	7,875 (100.0)



[그림 III-5] 현 정부 고등교육 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1순위, 2020)



[그림 III-6] 현 정부 고등교육 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1+2순위, 2020)

4) 현 정부 평생·직업교육 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

〈질문〉 다음의 현 정부 평생·직업교육정책 중 정부가 앞으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를 순위대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문항의 선택지에 중등 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고졸 취업 활성화를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현 정부 평생·직업교육정책 중 정부가 앞으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순위 정책에 대해 전체 응답자는 지난 14차 조사(2019년)와 같이 생애단계별 맞춤형 직업교육 강화(20.4%)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중등 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고졸 취업 활성화(13.6%), 전문대학 역량 강화를 통한 직업교육 지역거점 육성(13.0%), 한국형 무크 강좌 등 온라인 평생교육 콘텐츠 및 인프라 확대(10.1%), 대학 창업 및 산학협력 활성화(10.0%),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확대(9.6%), 대학의 평생교육기능 강화(8.0%), 평생학습도시 등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6.1%), 잘 모르겠다(5.6%), 재직자의 대학교육 지원 강화(3.6%)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1+2순위 평생·직업교육정책 또한, 생애단계별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17.5%)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전문대학 역량 강화를 통한 직업교육 지역거점 육성(12.8%),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확대(12.6%), 중등 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고졸 취업 활성화(10.6%), 대학 창업 및 산학협력 활성화(10.2%), 대학의 평생교육기능 강화(9.8%), 한국형 무크 강좌 등 온라인 평생교육 콘텐츠 및 인프라 확대(9.0%), 평생학습도시 등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8.8%), 재직자의 대학교육 지원 강화(5.8%), 잘 모르겠다(2.9%) 순이었다.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 1순위로 꼽은 평생·직업교육정책은 생애단계별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21.0%), 중등 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고졸 취업 활성화(13.9%), 전문대학 역량 강화를 통한 직업교육 지역거점 육성(13.5%), 한국형 무크 강좌 등 온라인 평생교육 콘텐츠 및 인프라 확대(10.4%) 등의 순이었고, 1+2순위로는 생애단계별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17.8%),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확대(13.3%), 전문대학 역량 강화를 통한 직업교육 지역거점 육성(13.0%), 중등 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고졸 취업 활성화(10.7%) 등의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대학생 학부모인 응답자 또한, 1순위 평생·직업교육정책으로 생애단계별 맞춤형 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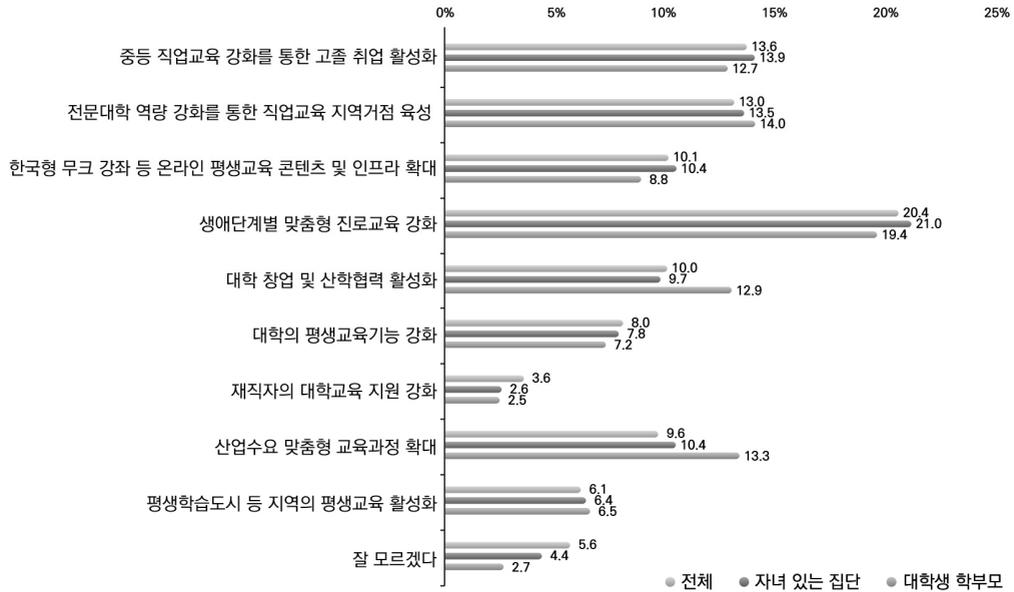
교육 강화(19.4%)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전문대학 역량 강화를 통한 직업교육 지역거점 육성(14.0%),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확대(13.3%), 대학 창업 및 산학협력 활성화(12.9%)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1+2순위로는 생애단계별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17.6%),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확대(13.6%), 전문대학 역량 강화를 통한 직업교육 지역거점 육성(12.2%), 대학 창업 및 산학협력 활성화(12.1%) 등의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평생·직업교육 정책의 경우 모든 응답집단에서 1순위로 생애단계별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나, 2순위로 선택한 정책은 응답자 개인 특성에 따라 상이한 응답경향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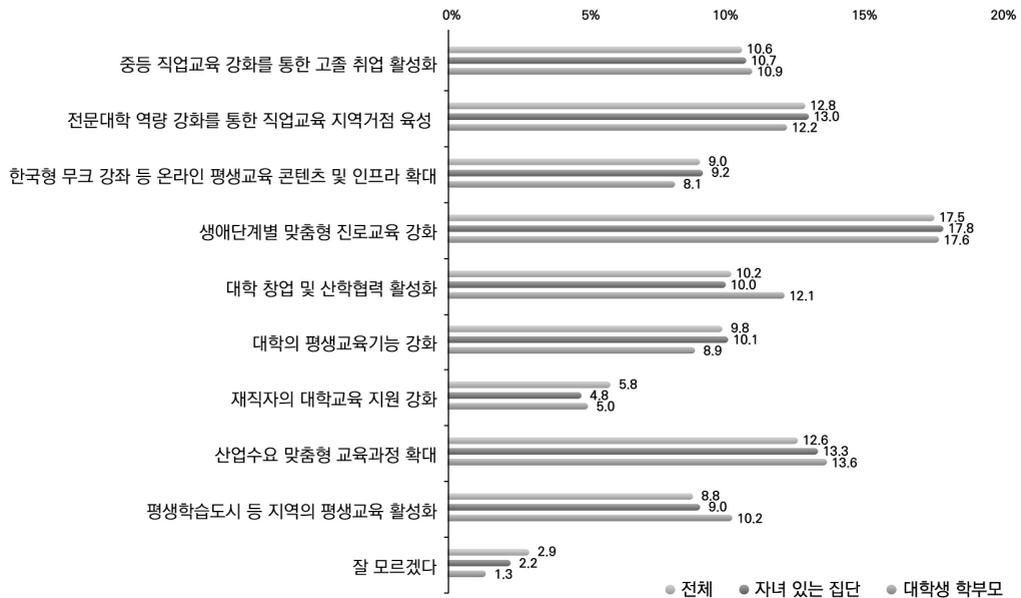
〈표 III-4〉 현 정부 평생·직업 교육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2020~2019)

(단위: 명(%))

평생·직업 교육정책	2020						2019	
	전체		자녀가 있는 집단		대학생 학부모		전체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중등 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고졸 취업 활성화	679 (13.6)	528 (10.6)	408 (13.9)	313 (10.7)	72 (12.7)	62 (10.9)	-	-
전문대학 역량 강화를 통한 직업교육 지역거점 육성	651 (13.0)	642 (12.8)	394 (13.5)	379 (13.0)	79 (14.0)	69 (12.2)	839 (21.0)	1,290 (16.4)
한국형 무크 강좌 등 온라인 평생교육 콘텐츠 및 인프라 확대	503 (10.1)	452 (9.0)	305 (10.4)	268 (9.2)	50 (8.8)	46 (8.1)	336 (8.4)	708 (9.0)
생애단계별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	1020 (20.4)	874 (17.5)	614 (21.0)	521 (17.8)	110 (19.4)	100 (17.6)	931 (23.3)	1,475 (18.8)
대학 창업 및 산학협력 활성화	500 (10.0)	508 (10.2)	284 (9.7)	292 (10.0)	73 (12.9)	68 (12.1)	501 (12.5)	912 (11.6)
대학의 평생교육기능 강화	401 (8.0)	492 (9.8)	229 (7.8)	295 (10.1)	41 (7.2)	50 (8.9)	360 (9.0)	792 (10.1)
재직자의 대학교육 지원 강화	178 (3.6)	291 (5.8)	75 (2.6)	140 (4.8)	14 (2.5)	28 (5.0)	163 (4.1)	492 (6.3)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확대	480 (9.6)	628 (12.6)	304 (10.4)	389 (13.3)	75 (13.3)	77 (13.6)	472 (11.8)	1,215 (15.5)
평생학습도시 등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	306 (6.1)	440 (8.8)	186 (6.4)	265 (9.0)	37 (6.5)	58 (10.2)	242 (6.1)	804 (10.2)
잘 모르겠다	282 (5.6)	145 (2.9)	128 (4.4)	65 (2.2)	15 (2.7)	8 (1.3)	156 (3.9)	156 (2.0)
계	5,000 (100.0)	5,000 (100.0)	2,927 (100.0)	2,927 (100.0)	566 (100.0)	566 (100.0)	4,000 (100.0)	7,844 (100.0)



[그림 III-7] 현 정부 평생·직업 교육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1순위, 2020)



[그림 III-8] 현 정부 평생·직업 교육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1+2순위, 2020)

5)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

〈질문〉 현 정부에서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중 정부가 앞으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항은 이번 15차 조사의 신규 문항으로, 올해 교육부 주요 업무계획 중 ‘포용’에 가치를 두고 유아부터 초등까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과 관련한 질문이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중 정부가 앞으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 전체 응답자는 국·공립 유치원의 지속적 확충 및 설립 유형(매입형, 부모협동형 등) 다양화(24.0%), 방과후 과정 확대, 돌봄시간 다양화 등 돌봄 서비스 내실화(15.9%), 건강·안전관리 등 책임을 강화한 ‘학부모 안심유치원’ 확대(15.9%), 교비회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처벌 근거 신설 등 유치원 3법 강력 시행(13.7%),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한 운영을 위한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전면 도입(13.2%),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 등 유치원비 안정화 추진(6.0%), 잘 모르겠다(5.9%), 유아놀이 중심의 개정 누리과정 현장 안착(5.4%)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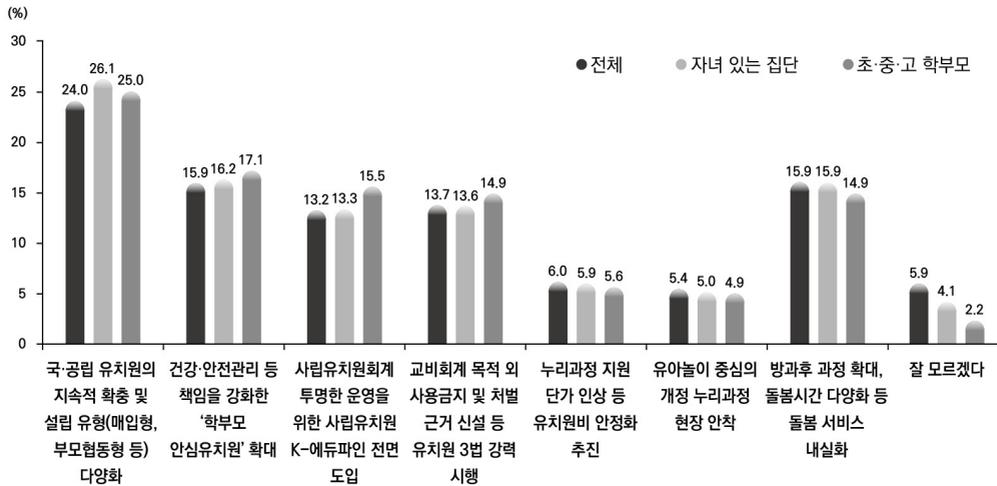
응답자 개인 특성별로는 먼저, 자녀가 있는 집단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의 지속적 확충 및 설립 유형(매입형, 부모협동형 등) 다양화(26.1%)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건강·안전관리 등 책임을 강화한 ‘학부모 안심유치원’ 확대(16.2%), 방과후 과정 확대, 돌봄시간 다양화 등 돌봄 서비스 내실화(15.9%), 교비회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처벌 근거 신설 등 유치원 3법 강력 시행(13.6%),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한 운영을 위한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전면 도입(13.3%)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국·공립 유치원의 지속적 확충 및 설립 유형(매입형, 부모협동형 등) 다양화(25.0%), 건강·안전관리 등 책임을 강화한 ‘학부모 안심유치원’ 확대(17.1%),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한 운영을 위한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전면 도입(15.5%), 교비회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처벌 근거 신설 등 유치원 3법 강력 시행(14.9%), 방과후 과정 확대, 돌봄시간 다양화 등 돌봄 서비스 내실화(14.9%) 등의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Ⅲ-5〉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2020)

(단위: 명(%))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2020		
	전체	자녀가 있는 집단	초·중·고 학부모
국·공립 유치원의 지속적 확충 및 설립 유형(매입형, 부모협동형 등) 다양화	1,198 (24.0)	765 (26.1)	259 (25.0)
건강·안전관리 등 책임을 강화한 '학부모 안심유치원' 확대	794 (15.9)	474 (16.2)	177 (17.1)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한 운영을 위한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전면 도입	658 (13.2)	388 (13.3)	161 (15.5)
교비회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처벌근거 신설 등 유치원 3법 강력 시행	685 (13.7)	397 (13.6)	154 (14.9)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 등 유치원비 안정화 추진	302 (6.0)	172 (5.9)	58 (5.6)
유아놀이 중심의 개정 누리과정 현장 안착	271 (5.4)	147 (5.0)	51 (4.9)
방과후 과정 확대, 돌봄시간 다양화 등 돌봄 서비스 내실화	797 (15.9)	465 (15.9)	154 (14.9)
잘 모르겠다	295 (5.9)	119 (4.1)	23 (2.2)
계	5,000 (100.0)	2,927 (100.0)	1,037 (100.0)



[그림 Ⅲ-9]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2020)

6)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평가

〈질문〉 현재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를 평가한다면 어떤 성적을 주시겠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를 평가한다면 어떤 성적을 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잘하고 있다) 16.2%, 보통이다 56.2%, 잘 못하고 있다(못하고 있다+전혀 못하고 있다) 27.6%로(평균 2.86/5점 만점), 지난 조사들과 같이 ‘보통이다’가 가장 높은 응답률(12차 52.3%, 13차 53.2%, 14차 53.5%)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 14차 조사(2019년)의 평균(2.75)보다 0.11p 높아진 결과를 나타내었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도 잘하고 있다 17.5%, 보통이다 54.0%, 잘 못하고 있다 28.6%로, 전체 응답자와 같이 ‘보통’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균은 2.87로 지난 14차 조사(평균 2.74)보다 0.13p 높아진 결과를 나타내었다.

각 학교급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에 대한 평가에 대해 전체 응답자는 잘하고 있다 33.2%, 보통이다 45.9%, 잘 못하고 있다 20.8%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높았고(평균 3.11),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평가에서도 잘하고 있다 36.6%, 보통이다 42.1%, 잘 못하고 있다 21.2%로,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평균 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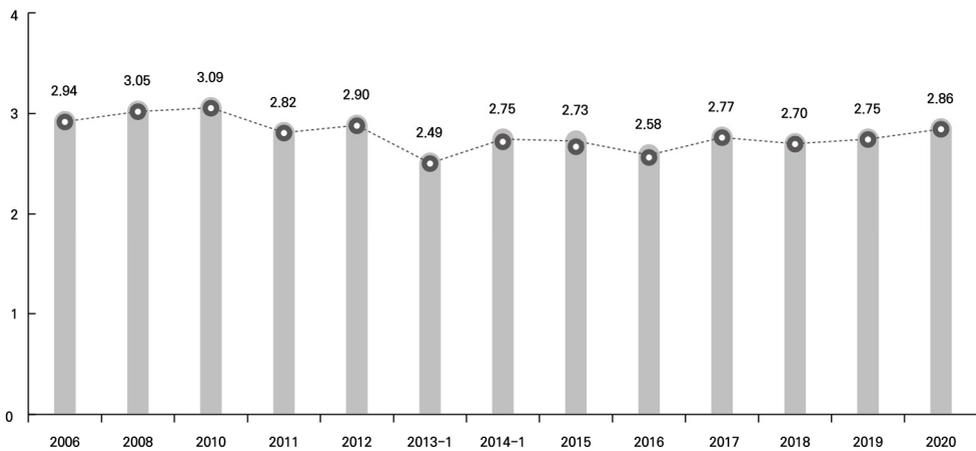
중학교에 대한 평가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경우 잘하고 있다 20.6%, 보통이다 52.3%, 잘 못하고 있다 27.1%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높았고(평균 2.91),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 또한, 잘하고 있다 20.1%, 보통이다 50.8%, 잘 못하고 있다 29.1%로 전체 응답자와 동일하게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2.89).

고등학교에 대한 평가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경우 잘하고 있다 13.7%, 보통이다 43.8%, 잘 못하고 있다 42.4%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나(평균 2.64).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잘하고 있다 13.6%, 보통이다 40.8%, 잘 못하고 있다 45.6%로, 전체 응답자와는 달리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높았다(평균 2.60). 그러나 학교급별 평가에서도 지난 14차 조사보다는 평균이 0.01~0.15p 높아진 결과를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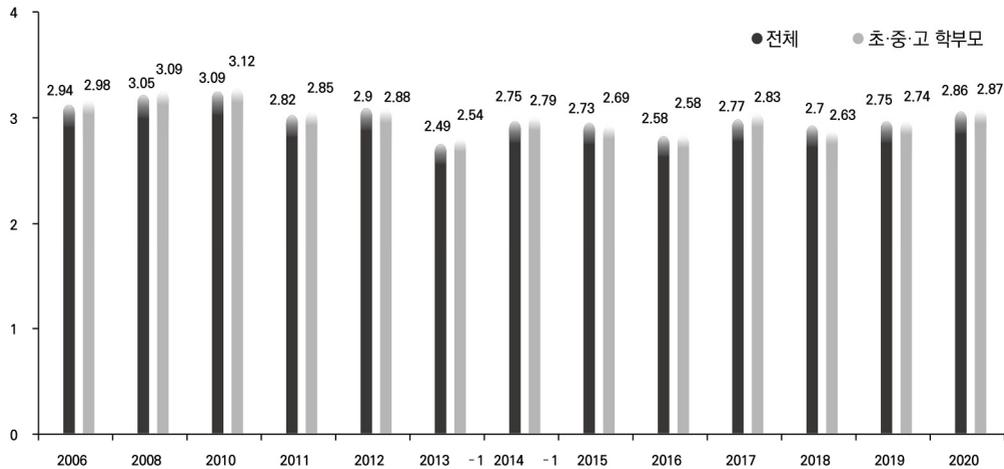
〈표 Ⅲ-6〉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평가(2020)

(단위: 명(%))

초·중·고교 평가	2020							
	전체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전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중·고 전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매우 잘하고 있다 (A)	50 (1.0)	116 (2.3)	67 (1.3)	72 (1.4)	10 (1.0)	29 (2.8)	19 (1.8)	15 (1.4)
잘하고 있다 (B)	759 (15.2)	1,546 (30.9)	966 (19.3)	617 (12.3)	171 (16.5)	351 (33.8)	190 (18.3)	127 (12.2)
보통이다 (C)	2,811 (56.2)	2,297 (45.9)	2,615 (52.3)	2,190 (43.8)	560 (54.0)	437 (42.1)	527 (50.8)	423 (40.8)
못하고 있다 (D)	1,190 (23.8)	860 (17.2)	1,144 (22.9)	1,692 (33.8)	262 (25.3)	191 (18.4)	260 (25.1)	376 (36.3)
전혀 못하고 있다 (E)	190 (3.8)	181 (3.6)	2,08 (4.2)	429 (8.6)	34 (3.3)	29 (2.8)	41 (4.0)	96 (9.3)
계	5,000 (100.0)	5,000 (100.0)	5,000 (100.0)	5,000 (100.0)	1,037 (100.0)	1,037 (100.0)	1,037 (100.0)	1,037 (100.0)
평균 (표준편차)	2.86 (0.75)	3.11 (0.84)	2.91 (0.80)	2.64 (0.86)	2.87 (0.75)	3.15 (0.85)	2.89 (0.81)	2.60 (0.87)
2019 평균 (표준편차)	2.75 (0.76)	3.09 (0.85)	2.82 (0.79)	2.49 (0.84)	2.74 (0.74)	3.14 (0.86)	2.80 (0.79)	2.46 (0.83)



[그림 Ⅲ-10]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평가(전체 평균, 2006-2020)



[그림 III-11]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평가(평균 비교, 2006~2020)

7) 학교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과제

<질문> 국민들로부터 학교가 ‘잘하고 있다(A+B)’는 평가를 받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 선택하여 주십시오(학교급별 동일 항목 선택 가능).

이번 조사에서 추진 중인 정책을 반영하여 문항의 선택지를 수정 및 추가하였다. 국민들로부터 학교가 ‘잘하고 있다(A+B)’는 평가를 받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전체 응답자는 수업 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27.6%),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학생 지도(인성, 안전 등) 활동(27.3%), 학생 성장 중심으로 평가 방법 개선(16.5%), 진로교육(진학 및 취업지도 포함) 강화(8.3%), 우수한 교사 확보 및 배치(7.2%),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7.1%), 좋은 교육시설(4.5%), 학부모 및 지역 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형성(1.3%), 기타(0.2%) 순으로 응답하였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수업 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30.6%),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학생 지도(인성, 안전 등) 활동(25.9%), 학생 성장 중심으로 평가 방법 개선(18.1%), 우수한 교사 확보 및 배치(8.9%), 진로교육(진학 및 취업지도 포함) 강화(7.2%),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5.5%), 좋은 교육시설(3.1%),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형성(0.5%), 기타(0.2%) 순으로 높은 응

답률을 보였다.

각 학교급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한 우선 과제로 전체 응답자는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학생 지도(인성, 안전 등) 활동(24.2%)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19.4%), 학생 성장 중심으로 평가 방법 개선(17.9%), 수업 내용과 방법의 개선(10.8%), 우수한 교사 확보 및 배치(10.1%) 등의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학생 지도(인성, 안전 등) 활동(23.6%), 학생 성장 중심으로 평가 방법 개선(20.3%),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18.1%), 수업 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11.2%), 우수한 교사 확보 및 배치(10.4%) 등의 순이었다.

중학교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한 우선과제의 경우도 전체 응답자는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학생 지도(인성, 안전 등) 활동(27.2%)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는 학생 성장 중심으로 평가 방법 개선(19.9%), 수업 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14.5%), 진로교육(진학 및 취업 지도 포함) 강화(11.6%), 우수한 교사 확보 및 배치(11.4%) 등의 순이었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학생 지도(인성, 안전 등) 활동(25.5%), 학생 성장 중심으로 평가 방법 개선(19.7%), 수업 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14.7%), 우수한 교사 확보 및 배치(13.7%), 진로교육(진학 및 취업 지도 포함) 강화(12.3%) 등의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고등학교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한 우선과제로 전체 응답자는 초·중학교의 응답과는 달리 진로교육(진학 및 취업 지도 포함) 강화(34.9%)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수업 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15.0%),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학생 지도(인성, 안전 등) 활동(14.8%), 학생 성장 중심으로 평가 방법 개선(10.9%), 우수한 교사 확보 및 배치(10.2%)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 또한, 진로교육(진학 및 취업 지도 포함) 강화(33.3%)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수업 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15.5%),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학생 지도(인성, 안전 등) 활동(13.0%), 학생 성장 중심으로 평가 방법 개선(12.4%), 우수한 교사 확보 및 배치(11.4%) 등의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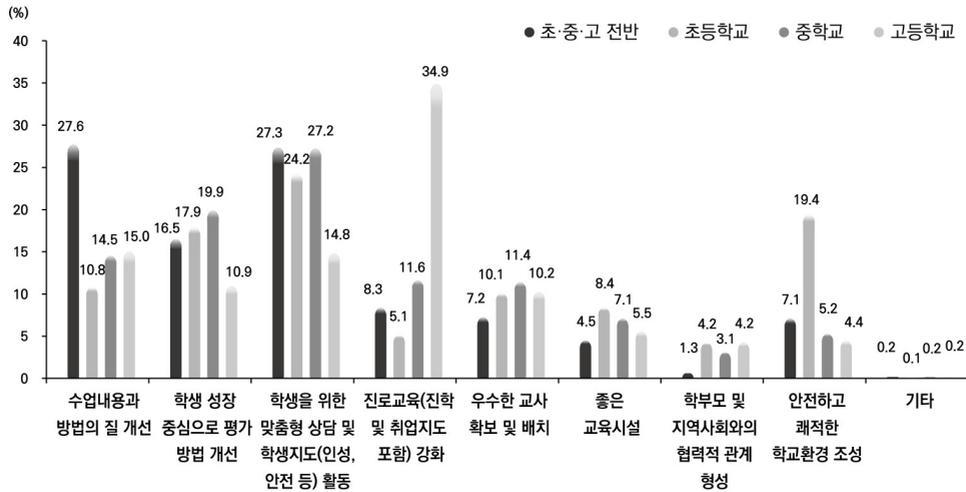
이 문항의 경우 최근 4년 동안(2017~2020년) 변함없이 초·중학교급은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학생 지도(인성, 안전 등) 활동을, 고등학교급은 진로교육(진학 및 취업

지도 포함) 강화를 학교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한 첫 번째 우선과제로 선택하고 있다.

〈표 III-7〉 학교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과제(2017~2020)

(단위: 명(%))

학교 우선 과제	2020								2019				2018			2017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전체			전체			
	전반	초	중	고	전반	초	중	고	전반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수업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	1,382 (27.6)	538 (10.8)	725 (14.5)	748 (15.0)	317 (30.6)	116 (11.2)	152 (14.7)	161 (15.5)	1,289 (32.2)	521 (13.0)	800 (20.0)	711 (17.8)	319 (16.0)	407 (20.4)	360 (18.0)	361 (18.1)	421 (21.1)	376 (18.8)	
학생 성장 중심으로 평가 방법 개선	824 (16.5)	893 (17.9)	993 (19.9)	544 (10.9)	188 (18.1)	211 (20.3)	204 (19.7)	129 (12.4)	-	-	-	-	-	-	-	-	-	-	-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학생지도 (인성, 안전 등) 활동	1,365 (27.3)	1,208 (24.2)	1,359 (27.2)	739 (14.8)	269 (25.9)	245 (23.6)	264 (25.5)	135 (13.0)	1,340 (33.5)	1,177 (29.4)	1,207 (30.2)	747 (18.7)	739 (37.0)	691 (34.6)	436 (21.8)	723 (36.2)	668 (33.4)	441 (22.1)	
진로교육 (진학 및 취업지도 포함) 강화	416 (8.3)	254 (5.1)	579 (11.6)	1,743 (34.9)	75 (7.2)	51 (4.9)	128 (12.3)	345 (33.3)	369 (9.2)	234 (5.9)	645 (16.1)	1,424 (35.6)	153 (7.7)	370 (18.5)	741 (37.1)	177 (8.9)	361 (18.1)	707 (35.4)	
우수한 교사 확보 및 배치	361 (7.2)	503 (10.1)	568 (11.4)	511 (10.2)	92 (8.9)	108 (10.4)	142 (13.7)	118 (11.4)	354 (8.9)	440 (11.0)	512 (12.8)	464 (11.6)	234 (11.7)	244 (12.2)	220 (11.0)	228 (11.4)	266 (13.3)	239 (12.0)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의 협력적 관계 형성	66 (1.3)	209 (4.2)	153 (3.1)	211 (4.2)	5 (0.5)	30 (2.9)	32 (3.1)	43 (4.1)	96 (2.4)	253 (6.3)	221 (5.5)	196 (4.9)	134 (6.7)	57 (2.9)	59 (3.0)	128 (6.4)	59 (3.0)	57 (2.9)	
좋은 교육시설	224 (4.5)	419 (8.4)	353 (7.1)	275 (5.5)	32 (3.1)	86 (8.3)	77 (7.4)	67 (6.5)	215 (5.4)	444 (11.1)	303 (7.6)	232 (5.8)	410 (20.5)	219 (11.0)	170 (8.5)	375 (18.8)	217 (10.9)	167 (8.4)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	353 (7.1)	969 (19.4)	262 (5.2)	221 (4.4)	57 (5.5)	188 (18.1)	36 (3.5)	37 (3.6)	318 (8.0)	922 (23.1)	302 (7.6)	208 (5.2)	410 (20.5)	219 (11.0)	170 (8.5)	375 (18.8)	217 (10.9)	167 (8.4)	
기타	9 (0.2)	7 (0.1)	8 (0.2)	8 (0.2)	2 (0.2)	2 (0.2)	2 (0.2)	2 (0.2)	19 (0.5)	9 (0.2)	10 (0.3)	18 (0.5)	11 (0.6)	12 (0.6)	14 (0.7)	7 (0.4)	8 (0.4)	13 (0.7)	
계	5,000 (100.0)	5,000 (100.0)	5,000 (100.0)	5,000 (100.0)	1,037 (100.0)	1,037 (100.0)	1,037 (100.0)	1,037 (100.0)	4,000 (100.0)	4,000 (100.0)	4,000 (100.0)	4,000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그림 III-12] 학교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과제(2020)

8) 학교 선택 시 고려 사항

〈질문〉 자녀가 다닐 학교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다음의 요소 중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겠습니까?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 선택하여 주십시오(학교급별 동일항목 선택 가능).

자녀의 초등학교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로 전체 응답자는 인성교육(31.2%)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12.7%), 학교 주변의 환경 및 여건(10.8%), 학교 안전(10.2%), 교원의 질적 수준(10.1%), 통학거리(10.0%), 민주적인 학교문화(4.3%), 진로 지도(4.2%), 학교시설(3.2%), 학교 명성이나 전통(2.6%), 상급학교 진학 실적(0.3%), 졸업생의 취업실적(0.3%), 교육비(0.2%), 기타(0.0%)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초등학생 학부모 응답자 또한 인성교육(32.1%)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14.8%), 교원의 질적 수준(10.6%), 학교 주변의 환경 및 여건(9.7%)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자녀의 중학교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로 전체 응답자는 초등학교와 동일하게 인성교육(25.4%)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교육 프

로그그램의 특성(16.2%), 교원의 질적 수준(14.9%), 학교 주변의 환경 및 여건(9.6%), 민주적인 학교문화(8.0%), 진로 지도(7.0%), 학교 안전(5.2%), 학교시설(5.0%), 통학거리(3.8%), 상급학교 진학 실적(2.8%), 학교 명성이나 전통(1.6%), 졸업생의 취업 실적(0.3%), 교육비(0.2%), 기타(0.0%)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중학생 학부모 응답자는 인성교육(21.9%), 교원의 질적 수준(19.9%),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18.4%), 학교 주변의 환경 및 여건(10.8%) 등의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자녀의 고등학교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로 전체 응답자는 초·중학교와는 달리 진로 지도(23.2%)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교원의 질적 수준(16.2%),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12.4%), 인성교육(11.3%), 상급학교 진학 실적(10.8%), 민주적인 학교문화(6.0%), 학교 주변의 환경 및 여건(4.8%), 학교 안전(3.5%), 학교시설(3.4%), 학교 명성이나 전통(3.1%), 통학거리(3.0%), 졸업생의 취업 실적(1.9%), 교육비(0.3%), 기타(0.0%)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고등학교 학부모 응답자 또한, 진로 지도(21.5%)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교원의 질적 수준(16.6%), 상급학교 진학 실적(15.0%),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10.7%)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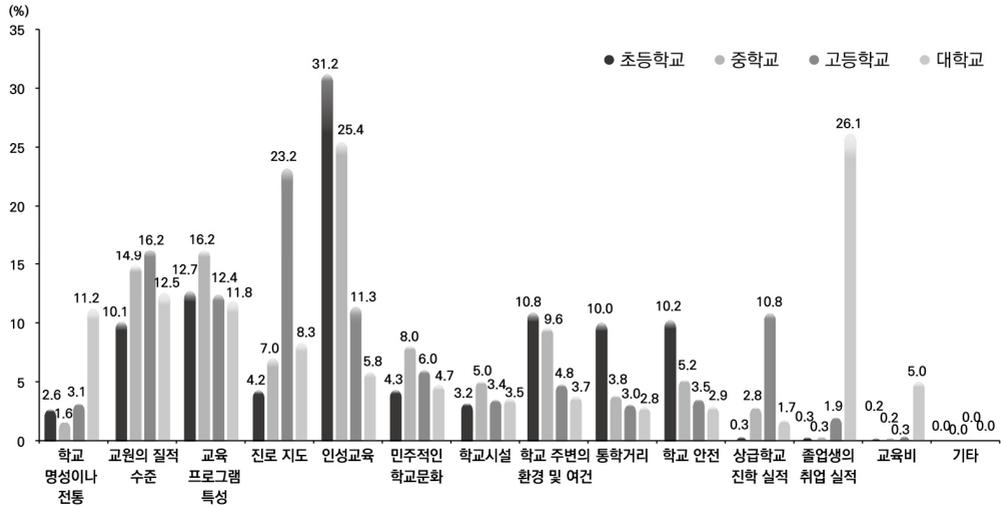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자녀의 대학교 선택 시 중요 고려 요소로 전체 응답자는 졸업생의 취업 실적(26.1%)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교원의 질적 수준(12.5%),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11.8%), 학교 명성이나 전통(11.2%), 진로 지도(8.3%), 인성교육(5.8%), 교육비(5.0%), 민주적인 학교문화(4.7%), 학교 주변의 환경 및 여건(3.7%), 학교시설(3.5%), 학교 안전(2.9%), 통학거리(2.8%), 상급학교 진학 실적(1.7%), 기타(0.0%)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대학생 학부모 응답자 또한, 졸업생의 취업 실적(32.2%)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교원의 질적 수준(14.3%),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12.2%), 학교 명성이나 전통(11.8%)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 문항 또한, 지속적으로 초·중학교급은 인성교육, 고등학교급은 진로 지도, 대학교의 경우 졸업생의 취업 실적을 자녀의 학교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로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8〉 학교 선택 시 고려 사항(2019~2020)

(단위: 명(%))

학교 선택 시 고려 사항	2020								2019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대학교
	전체	초등 학생 학부모	전체	중학생 학부모	전체	고등 학생 학부모	전체	대학생 학부모	전체	전체	전체	전체
학교 명성이나 전통	132 (2.6)	18 (3.4)	79 (1.6)	2 (0.6)	156 (3.1)	13 (3.0)	558 (11.2)	67 (11.8)	126 (3.2)	73 (1.8)	148 (3.7)	498 (12.5)
교원의 질적 수준	503 (10.1)	56 (10.6)	744 (14.9)	68 (19.9)	811 (16.2)	71 (16.6)	625 (12.5)	81 (14.3)	446 (11.2)	611 (15.3)	697 (17.4)	450 (11.3)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	633 (12.7)	78 (14.8)	810 (16.2)	63 (18.4)	619 (12.4)	46 (10.7)	590 (11.8)	69 (12.2)	524 (13.1)	673 (16.8)	516 (12.9)	523 (13.1)
진로 지도	212 (4.2)	26 (4.9)	348 (7.0)	17 (5.0)	1,158 (23.2)	92 (21.5)	413 (8.3)	37 (6.5)	157 (3.9)	323 (8.1)	936 (23.4)	371 (9.3)
인성교육	1,558 (31.2)	169 (32.1)	1,269 (25.4)	75 (21.9)	567 (11.3)	44 (10.3)	290 (5.8)	28 (4.9)	1,289 (32.2)	1,125 (28.1)	469 (11.7)	263 (6.6)
민주적인 학교 문화	214 (4.3)	17 (3.2)	402 (8.0)	30 (8.8)	298 (6.0)	33 (7.7)	236 (4.7)	21 (3.7)	149 (3.7)	278 (7.0)	221 (5.5)	221 (5.5)
학교시설	158 (3.2)	16 (3.0)	251 (5.0)	11 (3.2)	172 (3.4)	6 (1.4)	177 (3.5)	12 (2.1)	111 (2.8)	131 (3.3)	119 (3.0)	101 (2.5)
학교 주변의 환경 및 여건	542 (10.8)	51 (9.7)	479 (9.6)	37 (10.8)	238 (4.8)	21 (4.9)	187 (3.7)	11 (1.9)	455 (11.4)	316 (7.9)	168 (4.2)	119 (3.0)
통학거리	499 (10.0)	51 (9.7)	191 (3.8)	15 (4.4)	152 (3.0)	15 (3.5)	141 (2.8)	20 (3.5)	368 (9.2)	155 (3.9)	95 (2.4)	82 (2.1)
학교 안전	510 (10.2)	40 (7.6)	258 (5.2)	11 (3.2)	174 (3.5)	15 (3.5)	143 (2.9)	6 (1.1)	345 (8.6)	188 (4.7)	114 (2.9)	77 (1.9)
상급학교 진학 실적	15 (0.3)	3 (0.6)	140 (2.8)	13 (3.8)	540 (10.8)	64 (15.0)	85 (1.7)	6 (1.1)	11 (0.3)	103 (2.6)	404 (10.1)	59 (1.5)
졸업생의 취업 실적	14 (0.3)	1 (0.2)	16 (0.3)	0 (0.0)	97 (1.9)	8 (1.9)	1,305 (26.1)	182 (32.2)	8 (0.2)	9 (0.2)	78 (2.0)	1,057 (26.4)
교육비	9 (0.2)	0 (0.0)	12 (0.2)	0 (0.0)	17 (0.3)	0 (0.0)	249 (5.0)	26 (4.6)	11 (0.3)	13 (0.3)	32 (0.8)	178 (4.5)
기타	1 (0.0)	0 (0.0)	1 (0.0)	0 (0.0)	1 (0.0)	0 (0.0)	1 (0.0)	0 (0.0)	0 (0.0)	2 (0.1)	3 (0.1)	1 (0.0)
계	5,000 (100.0)	526 (100.0)	5,000 (100.0)	342 (100.0)	5,000 (100.0)	428 (100.0)	5,000 (100.0)	566 (100.0)	4,000 (100.0)	4,000 (100.0)	4,000 (100.0)	4,000 (100.0)



[그림 III-13] 학교 선택 시 고려 사항(2020)

9) 초·중·고등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한 과제

〈질문〉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항의 선택지에 진로교육 강화를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내실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로 전체 응답자는 학벌 위주의 사회체제 개선(25.2%), 수업 방식의 다양화(16.2%), 교원의 전문성 제고(16.1%), 교육 내용의 선택권 확대(14.6%), 진로교육 강화(12.0%), 대입 선발 방식 개선(11.2%),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4.3%), 기타(0.4%) 순으로 응답하였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도 학벌 위주의 사회 체제 개선(24.6%)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지만, 다음으로 교원의 전문성 제고(19.0%), 교육 내용의 선택권 확대(14.6%), 대입 선발 방식 개선(14.3%), 수업 방식의 다양화(13.4%), 진로교육 강화(10.3%),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3.6%), 기타(0.3%) 순으로 응답하여 전체 응답자의 응답 순위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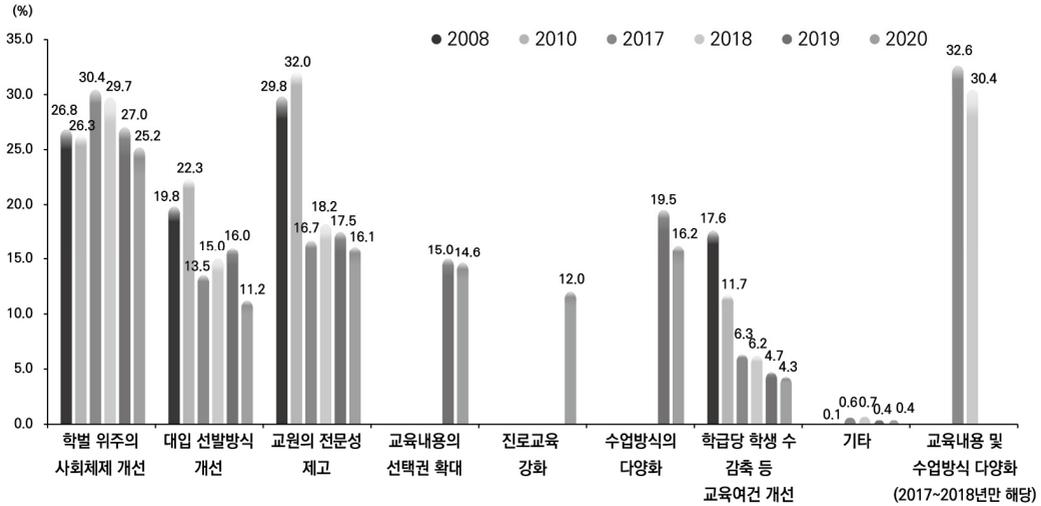
응답자 개인 특성 중 학력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학벌위주의 사회체제 개선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나, 학력이 높을수록 학벌위주의 사회체제 개선의

응답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중졸 이하 30.8% > 고졸 25.3% > 전문대/대졸 25.0% > 대학원졸 24.7%). 다음으로 중졸 이하는 교육내용의 선택권 확대(17.3%), 고졸은 수업 방식의 다양화(18.5%), 전문대/대졸은 교원의 전문성 제고(16.5%), 대학원졸은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수업방식의 다양화(각 15.9%)를 많이 선택하였다.

〈표 Ⅲ-9〉 초·중·고등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한 과제(2008, 2010, 2017~2020)

(단위: 명(%))

초·중·고 교육 내실화 과제	2020						2019	2018	2017	2010	2008
	전체	초중고 학부모	학력				전체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 /대졸	대학원 졸					
학벌 위주의 사회체제 개선	1,259 (25.2)	255 (24.6)	32 (30.8)	224 (25.3)	886 (25.0)	115 (24.7)	1,078 (27.0)	594 (29.7)	607 (30.4)	394 (26.3)	321 (26.8)
대입 선발 방식 개선	560 (11.2)	148 (14.3)	9 9(8.7)	66 (7.4)	414 (11.7)	72 (15.5)	639 (16.0)	300 (15.0)	270 (13.5)	335 (22.3)	238 (19.8)
교원의 전문성 제고	805 (16.1)	197 (19.0)	13 (12.5)	134 (15.1)	585 (16.5)	74 (15.9)	698 (17.5)	363 (18.2)	334 (16.7)	480 (32.0)	357 (29.8)
교육내용의 선택권 확대	731 (14.6)	151 (14.6)	18 (17.3)	155 (17.5)	503 (14.2)	54 (11.6)	600 (15.0)	607 (30.4)	652 (32.6)	-	-
수업방식의 다양화	811 (16.2)	139 (13.4)	11 (10.6)	164 (18.5)	563 (15.9)	74 (15.9)	779 (19.5)				
진로교육 강화	601 (12.0)	107 (10.3)	16 (15.4)	112 (12.6)	432 (12.2)	42 (9.0)	-	-	-	-	-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	214 (4.3)	37 (3.6)	5 (4.8)	31 (3.5)	145 (4.1)	33 (7.1)	189 (4.7)	123 (6.2)	125 (6.3)	176 (11.7)	211 (17.6)
기타	19 (0.4)	3 (0.3)	0 (0.0)	0 (0.0)	17 (0.5)	1 (0.2)	17 (0.4)	13 (0.7)	12 (0.6)	2 (0.1)	0 (0.0)
고등학교의 유형을 다양화 한다(2017년 이후 제외)	-	-	-	-	-	-	-	-	-	113 (7.5)	73 (6.1)
계	5,000 (100.0)	1,037 (100.0)	104 (100.0)	886 (100.0)	3,545 (100.0)	465 (100.0)	4,000 (100.0)	2,000 (100.0)	2,000 (100.0)	1,500 (100.0)	1,200 (100.0)



[그림 III-14] 초·중·고등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한 과제(전체, 2008, 2010, 2017~2020)

10)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의견

<질문> (초·중·고 학부모의 경우) 자녀를 외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유학을 보낼 생각이 있으십니까?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 선택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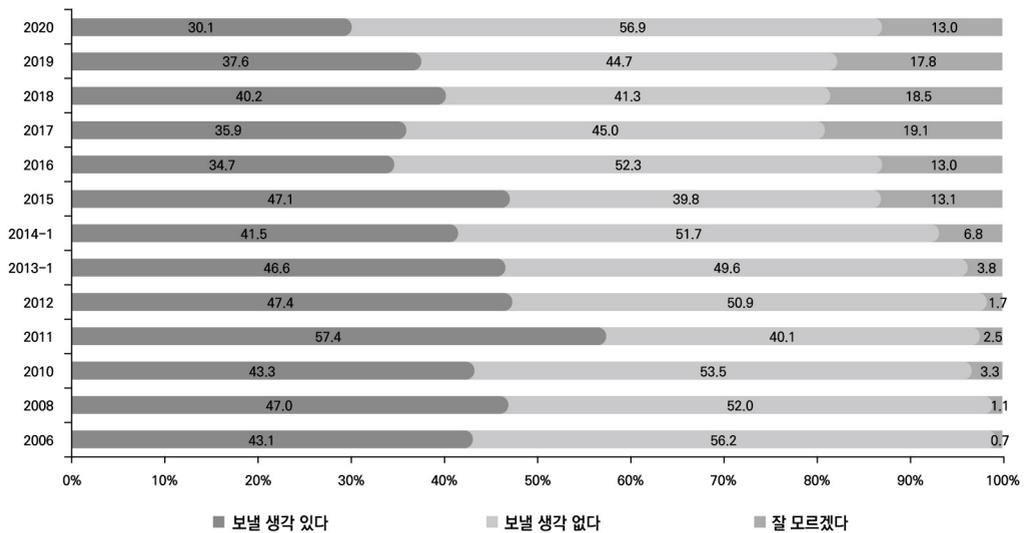
초·중·고 학부모 중 자녀를 외국의 초·중·고등학교로 유학 보낼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6.9%가 보낼 생각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보낼 생각이 있다 30.1%, 잘 모르겠다 13.0% 순으로 응답률을 나타내어, 지난 조사들과 유사한 응답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급의 경우 유학을 보낼 생각이 없다 76.5%, 보낼 생각이 있다 17.5%, 잘 모르겠다 6.1% 순으로, 보낼 생각이 없다는 응답이 70%를 넘었다. 중학교급의 경우에도 유학을 보낼 생각이 없다 67.5%, 보낼 생각이 있다 23.4%, 잘 모르겠다 9.1% 순으로, 보낼 생각이 없다는 응답이 과반이 넘었으며, 고등학교급에서도 보낼 생각이 없다 47.5%, 보낼 생각이 있다 38.3%, 잘 모르겠다 14.2% 순으로, 보낼 생각이 없다는 응답률이 높았으나, 초·중학교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III-10〉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의견(2017~2020)

(단위: 명(%))

조기 유학에 대한 의견	2020				2019				2018				2017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전반	초	중	고												
보낼 생각 있다	312 (30.1)	181 (17.5)	243 (23.4)	397 (38.3)	313 (37.6)	144 (17.3)	249 (29.9)	349 (41.9)	204 (40.2)	140 (27.6)	175 (34.4)	241 (47.4)	171 (35.9)	129 (27.1)	160 (33.6)	198 (41.6)
보낼 생각 없다	590 (56.9)	793 (76.5)	700 (67.5)	493 (47.5)	372 (44.7)	604 (72.5)	487 (58.5)	354 (42.5)	210 (41.3)	307 (60.4)	261 (51.4)	188 (37.0)	214 (45.0)	290 (60.9)	263 (55.3)	205 (43.1)
잘 모르겠다	135 (13.0)	63 (6.1)	94 (9.1)	147 (14.2)	148 (17.8)	85 (10.2)	97 (11.6)	130 (15.6)	94 (18.5)	61 (12.0)	72 (14.2)	79 (15.6)	91 (19.1)	57 (12.0)	53 (11.1)	73 (15.3)
계	1,037 (100.0)	1,037 (100.0)	1,037 (100.0)	1,037 (100.0)	833 (100.0)	833 (100.0)	833 (100.0)	833 (100.0)	508 (100.0)	508 (100.0)	508 (100.0)	508 (100.0)	476 (100.0)	476 (100.0)	476 (100.0)	476 (100.0)



[그림 III-15]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의견(전체, 2006~2020)

10-1) 자녀의 조기유학 이유

〈질문〉 (자녀의 조기유학을) 보낼 생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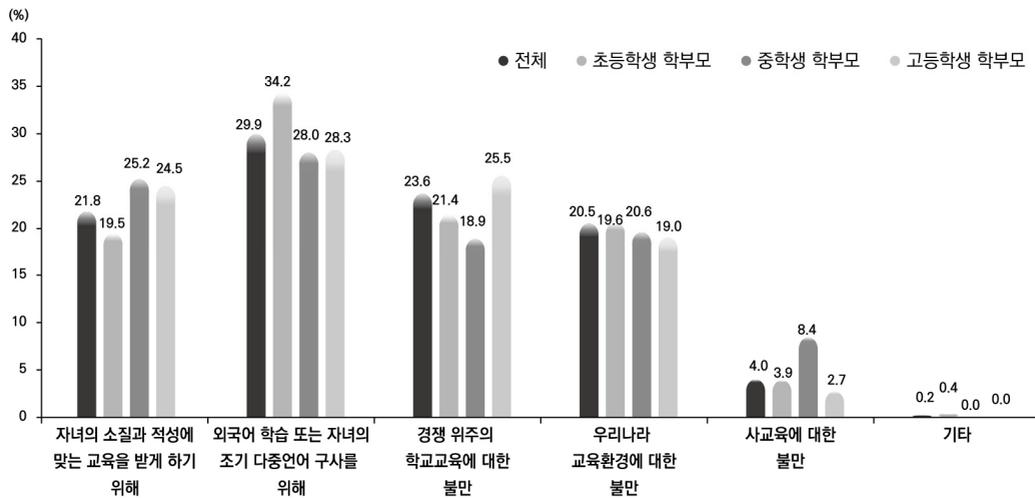
이 문항은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의 추가 문항으로, 선택지가 수정되었다. 자녀의 조기유학을 보낼 생각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는 외국어 학습 또는 자녀의 조기 다중언어 구사를 위해(29.9%)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경쟁 위주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23.6%), 자녀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21.8%), 우리나라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20.5%), 사교육에 대한 부담(4.0%), 기타(0.2%) 순으로 응답하여, 우리나라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24.6%)과 자녀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19.5%)를 1, 2순위로 선택한 지난 14차 조사(2019년)와 다른 응답 경향을 보였다.

응답자 개인 특성 중 자녀의 학교급에 따른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생 학부모는 외국어 학습 또는 자녀의 조기 다중언어 구사를 위해(34.2%), 경쟁 위주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21.4%), 우리나라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20.6%), 자녀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기 위해(19.5%) 등의 순으로, 중학생 학부모는 외국어 학습 또는 자녀의 조기 다중언어 구사를 위해(28.0%), 자녀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기 위해(25.2%), 우리나라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19.6%), 경쟁 위주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18.9%)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고등학생 학부모의 경우도 외국어 학습 또는 자녀의 조기 다중언어 구사를 위해(28.3%)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경쟁 위주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25.5%), 자녀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24.5%), 우리나라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19.0%)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10-1〉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이유(2019~2020)

(단위: 명(%))

자녀의 조기유학 이유	2020				2019			
	전체	초등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전체	초등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자녀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	104 (21.8)	50 (19.5)	36 (25.2)	45 (24.5)	83 (19.5)	48 (20.5)	30 (20.8)	31 (17.9)
외국어 학습 또는 자녀의 조기 다중언어 구사를 위해	143 (29.9)	88 (34.2)	40 (28.0)	52 (28.3)	80 (18.8)	44 (18.8)	24 (16.7)	32 (18.5)
경쟁 위주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	113 (23.6)	55 (21.4)	27 (18.9)	47 (25.5)	82 (19.2)	43 (18.4)	27 (18.8)	35 (20.2)
우리나라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	98 (20.5)	53 (20.6)	28 (19.6)	35 (19.0)	105 (24.6)	61 (26.1)	32 (22.2)	43 (24.9)
사교육에 대한 부담	19 (4.0)	10 (3.9)	12 (8.4)	5 (2.7)	5 (1.2)	3 (1.3)	2 (1.4)	2 (1.2)
기타	1 (0.2)	1 (0.4)	0 (0.0)	0 (0.0)	2 (0.5)	2 (0.9)	1 (0.7)	0 (0.0)
보다 우수한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 (2020년 제외)	-	-	-	-	69 (16.2)	33 (14.1)	28 (19.4)	30 (17.3)
계	478 (100.0)	257 (100.0)	143 (100.0)	184 (100.0)	426 (100.0)	234 (100.0)	144 (100.0)	173 (100.0)



[그림 III-16]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이유(2020)

11)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네 가지 측면에 대한 의견

〈질문〉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각각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일관성
- (2) 장기적 비전
- (3) 우리나라 여건에의 적합성
- (4) 국민여론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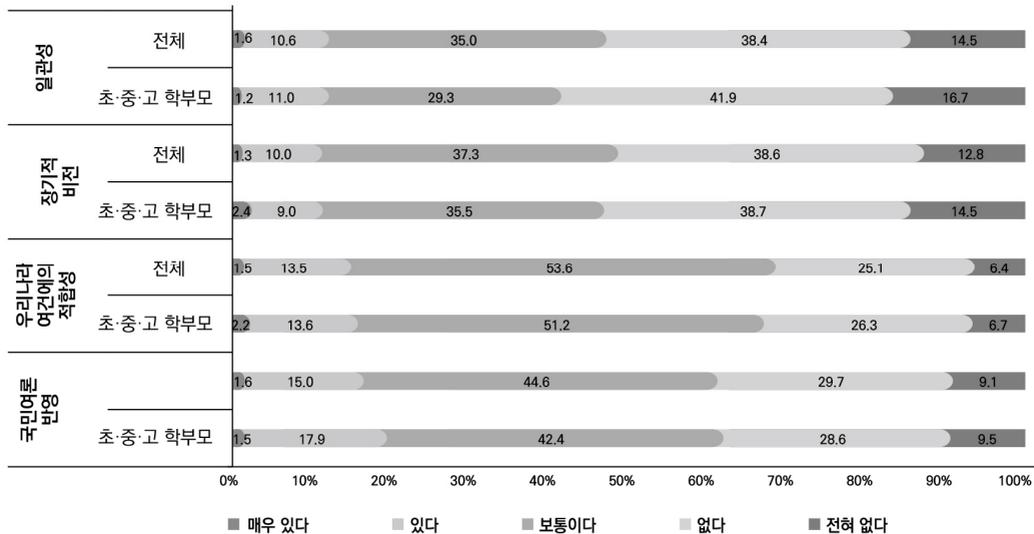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을 일관성, 장기적 비전, 우리나라 여건에의 적합성, 국민여론 반영 등 네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먼저, 일관성 측면의 경우 전체 응답자는 전반적으로 있다(매우 있다+있다) 12.2%, 보통이다 35.0%, 대체로 없다(없다+전혀 없다) 52.9%로 대체로 없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2.46점/5점 만점). 장기적 비전의 측면에서도 전반적으로 있다 11.3%, 보통이다 37.3%, 대체로 없다 51.4%로 대체로 없다는 의견이 높았다(평균 2.48). 교육정책이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가의 측면에서는 적합하다 15.0%, 보통이다 53.6%, 적합하지 않다 31.5%로 보통이다의 의견이 높았고(평균 2.79), 교육정책의 국민여론 반영 정도 측면에서도 반영하고 있다 16.6%, 보통이다 44.6%, 반영하고 있지 않다 38.8%로, 보통이다의 의견이 높았다(평균 2.70). 네 가지 측면 모두 평균으로 지난 14차 조사(2019년)의 응답결과와 비교하면 대체로 0.1~0.13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도 전체 응답자와 동일한 응답 경향을 보였는데, 교육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있다 12.2%, 보통이다 29.3%, 대체로 없다 58.6%로 대체로 없다는 의견이 높았으며(평균 2.38), 장기적 비전 측면에서도 전반적으로 있다 11.4%, 보통이다 35.5%, 대체로 없다 53.2%로 대체로 없다는 의견이 높았다(평균 2.46). 우리나라 여건에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적합하다 15.8%, 보통이다 51.2%, 적합하지 않다 33.0%로 보통이다의 의견이 많았고(평균 2.78), 국민여론 반영 정도에 대해서는 반영하고 있다 19.4%, 보통이다 42.4%, 반영하고 있지 않다 38.1%로 보통이라는 의견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평균 2.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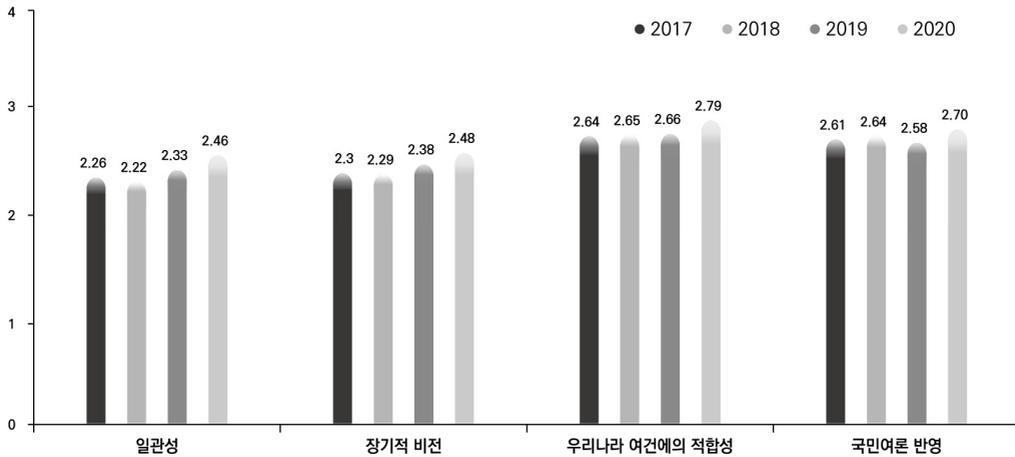
〈표 Ⅲ-11〉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네 가지 측면에 대한 의견(2019~2020)

(단위: 명(%))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일관성			장기적 비전			우리나라 여건에의 적합성			국민여론 반영		
	2020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2019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매우있다	79 (1.6)	12 (1.2)	44 (1.1)	64 (1.3)	25 (2.4)	28 (0.7)	73 (1.5)	23 (2.2)	32 (0.8)	78 (1.6)	16 (1.5)	54 (1.4)
있다	529 (10.6)	114 (11.0)	288 (7.2)	501 (10.0)	93 (9.0)	339 (8.5)	675 (13.5)	141 (13.6)	445 (11.1)	749 (15.0)	186 (17.9)	472 (11.8)
보통이다	1,750 (35.0)	304 (29.3)	1,282 (32.1)	1,867 (37.3)	368 (35.5)	1,336 (33.4)	2,678 (53.6)	531 (51.2)	2,006 (50.2)	2,232 (44.6)	440 (42.4)	1,675 (41.9)
없다	1,918 (38.4)	434 (41.9)	1,735 (43.4)	1,929 (38.6)	401 (38.7)	1,731 (43.3)	1,254 (25.1)	273 (26.3)	1,183 (29.6)	1,484 (29.7)	297 (28.6)	1,341 (33.5)
전혀없다	724 (14.5)	173 (16.7)	651 (16.3)	639 (12.8)	150 (14.5)	566 (14.2)	320 (6.4)	69 (6.7)	334 (8.4)	457 (9.1)	98 (9.5)	458 (11.5)
계	5,000 (100.0)	1,037 (100.0)	4,000 (100.0)									
평균 (표준편차)	2.46 (0.92)	2.38 (0.93)	2.33 (0.87)	2.48 (0.88)	2.46 (0.93)	2.38 (0.85)	2.79 (0.81)	2.78 (0.84)	2.66 (0.81)	2.70 (0.89)	2.73 (0.91)	2.58 (0.89)



[그림 Ⅲ-17]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네 가지 측면에 대한 의견(2020)



[그림 III-18]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네 가지 측면에 대한 의견(평균, 2017-2020)

11-1) 우리나라 교육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어야 할 측면

〈질문〉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측면을 가장 중점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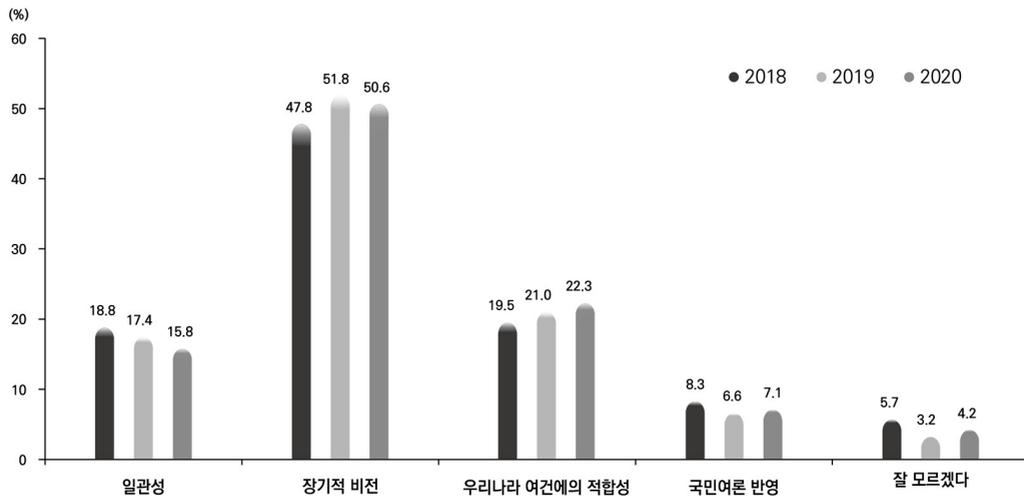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네 가지 측면(일관성, 장기적 비전, 우리나라 여건에의 적합성, 국민여론 반영)에서 볼 때 어떤 측면을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는 장기적 비전(50.6%)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우리나라 여건에의 적합성(22.3%), 일관성(15.8%), 국민여론 반영(7.1%), 잘 모르겠다(4.2%) 순으로 응답하였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 장기적 비전(52.3%), 우리나라 여건에의 적합성(22.6%), 일관성(16.5%), 국민여론 반영(6.8%), 잘 모르겠다(1.9%)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어, 지난 조사들과 동일하게 장기적 비전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나, 2순위로는 우리나라 여건에의 적합성을 많이 선택하여 일관성을 2순위로 선택한 지난 조사들과 차이를 보였다.

〈표 Ⅲ-11-1〉 우리나라 교육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어야 할 측면(2018~2020)

(단위: 명(%))

교육정책 추진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측면	2020		2019		2018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일관성	790 (15.8)	171 (16.5)	696 (17.4)	174 (20.9)	376 (18.8)	104 (20.5)
장기적 비전	2,532 (50.6)	542 (52.3)	2,071 (51.8)	424 (50.9)	956 (47.8)	257 (50.6)
우리나라 여건에의 적합성	1,113 (22.3)	234 (22.6)	841 (21.0)	170 (20.4)	389 (19.5)	92 (18.1)
국민여론 반영	356 (7.1)	70 (6.8)	264 (6.6)	48 (5.8)	166 (8.3)	39 (7.7)
잘 모르겠다	209 (4.2)	20 (1.9)	128 (3.2)	17 (2.0)	113 (5.7)	16 (3.1)
계	5,000 (100.0)	1,037 (100.0)	4,000 (100.0)	833 (100.0)	2,000 (100.0)	508 (100.0)



[그림 Ⅲ-19] 우리나라 교육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어야 할 측면(전체, 2018-2020)

12) 정부의 교육신뢰회복 노력에 대한 평가

〈질문〉 현 정부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고교체제 개편, 학사비리 근절 노력 등 교육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교육신뢰회복 노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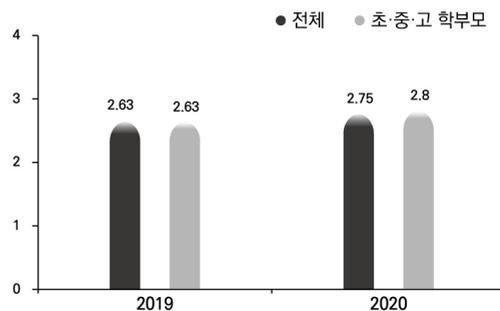
이 문항은 추진 중인 정책을 반영하여 문항에 제시한 정책들을 수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 정부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고교체제 개편, 학사비리 근절 노력 등 교육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에 대해 전체 응답자는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잘하고 있다) 17.1%, 보통이다 46.8%, 잘 못하고 있다(못하고 있다+전혀 못하고 있다) 36.1%로, 보통이라는 평가가 높았다(평균 2.75/5점 만점). 지난 14차 조사(2019년)보다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감소하여 평균이 0.12p 높아진 결과를 보였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 또한, 잘하고 있다 18.3%, 보통이다 48.7%, 잘 못하고 있다 33.0%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높았고, 평균 2.80으로 지난 14차 조사보다 0.17p 높아진 결과를 보였다.

〈표 III-12〉 정부의 교육신뢰회복 노력에 대한 평가(2019~2020)

(단위: 명(%))

정부의 교육신뢰회복 노력 평가	2020		2019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매우 잘하고 있다	71 (1.4)	18 (1.7)	66 (1.7)	10 (1.2)
잘하고 있다	785 (15.7)	172 (16.6)	555 (13.9)	124 (14.9)
보통이다	2,339 (46.8)	505 (48.7)	1,604 (40.1)	320 (38.4)
못하고 있다	1,422 (28.4)	2,73 (26.3)	1,366 (34.2)	302 (36.3)
전혀 못하고 있다	383 (7.7)	69 (6.7)	409 (10.2)	77 (9.2)
계	5,000 (100.0)	1,037 (100.0)	4,000 (100.0)	833 (100.0)
평균 (표준편차)	2.75 (0.86)	2.80 (0.85)	2.63 (0.90)	2.63 (0.89)



〔그림 III-20〕 정부의 교육신뢰회복 노력에 대한 평가(평균, 2019~2020)

13) 국가교육위원회 역할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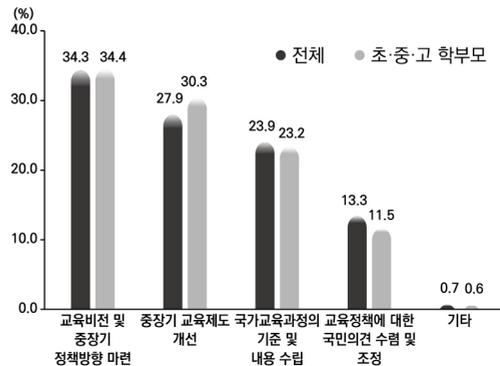
〈질문〉 현 정부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장기적 교육비전 마련 및 일관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독립적 행정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국가교육위원회 역할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검토 중인 내용을 반영하여 선택지를 수정하였다. 국가교육위원회 역할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는 교육비전 및 중장기 정책방향 마련(34.3%)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27.9%), 국가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 수립(23.9%),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및 조정(13.3%), 기타(0.7%) 순으로 응답하였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도 교육비전 및 중장기 정책방향 마련(34.4%)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30.3%), 국가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 수립(23.2%),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및 조정(11.5%), 기타(0.6%)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Ⅲ-13〉 국가교육위원회 역할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2020)

(단위: 명(%))

국가교육위원회 역할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	전체	초·중·고 학부모
교육비전 및 중장기 정책방향 마련	1,715 (34.3)	357 (34.4)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1,393 (27.9)	314 (30.3)
국가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 수립	1,196 (23.9)	241 (23.2)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및 조정	663 (13.3)	119 (11.5)
기타	33 (0.7)	6 (0.6)
계	5,000 (100.0)	1,037 (100.0)



〈그림 Ⅲ-21〉 국가교육위원회 역할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2020)

2 교사

요약

-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 정도에 대해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53.7%로 가장 높았고, 평균점수 2.95(5점 만점)로 지난 14차 조사(평균 2.79)보다 0.16p 높아짐. 학교급별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 3.05, 중학교 2.90, 고등학교 2.77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아짐.
- 초·중·고등학교 교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으로 초·중·고 전반은 학습 지도 능력(35.6%), 생활 지도 능력(29.9%)을, 초등학교 교사는 생활 지도 능력(50.5%),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 능력(17.9%)을, 중학교 교사는 학습 지도 능력(37.0%), 생활 지도 능력(24.1%)을, 고등학교 교사는 진로·진학지도 능력(49.8%), 학습 지도 능력(23.8%)을 가장 많이 선택함.
- 교사자격증은 없지만 현장경험 등이 있는 전문가를 초·중·고등학교 교사로 초빙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52.1%로 과반의 높은 응답률을 보임. 학교급별로도 모두 찬성의견(초 53.6%, 중 49.1%, 고 48.4%)이 높았으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찬성의견의 응답률은 낮아짐.
- 자녀의 직업으로서 교사에 대한 의견도 긍정의견이 60.4%로 높았으나,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정도는 대체로 심각하다는 의견이 50.9%로 과반을 나타냄(평균 3.52).

1)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 정도

〈질문〉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고 계십니까?

이번 15차 조사부터 학교급별 질문을 추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 정도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는 신뢰한다(매우 신뢰한다+신뢰한다) 22.2%, 보통이다 53.7%, 신뢰하지 못한다(신뢰하지 못한다+전혀 신뢰하지 못한다) 24.1%로 나타나,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평균 2.95/5점 만점).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 역시 신뢰한다(매우 신뢰한다+신뢰한다) 24.7%, 보통이다 51.5%, 신뢰하지 못한다 23.8%로, 보통이다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평균 2.98). 지난 조사들의 결과와 비교하면 보통이상의 응답률이 높았고, 특히 지난 14차 조사(2019년, 2.79)의 평균보다 0.16p 높아진 경과를 보였다.

학교급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초등학교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 정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는 신뢰한다 29.5%, 보통이다 47.2%, 신뢰하지 못한다 23.3%로 응

답하였고(평균 3.05), 초등학생 학부모 응답자는 신뢰한다 34.8%, 보통이다 46.4%, 신뢰하지 못한다 18.8%로 응답하였으며(평균 3.16),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신뢰한다 32.6%, 보통이다 46.7%, 신뢰하지 못한다 20.7%로 응답하여(평균 3.11), 초등학생 학부모의 평가가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교사들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정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는 신뢰한다 21.1%, 보통이다 50.5%, 신뢰하지 못한다 28.4%의 응답률을 보였다(평균 2.90). 중학생 학부모의 경우 신뢰한다 27.5%, 보통이다 47.4%, 신뢰하지 못한다 25.1%로 응답하였고(평균 3.01),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신뢰한다 22.8%, 보통이다 49.6%, 신뢰하지 못한다 27.7%로(평균 2.93), 중학교 교사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높았고, 초등학교급과 동일하게 중학생 학부모의 평가가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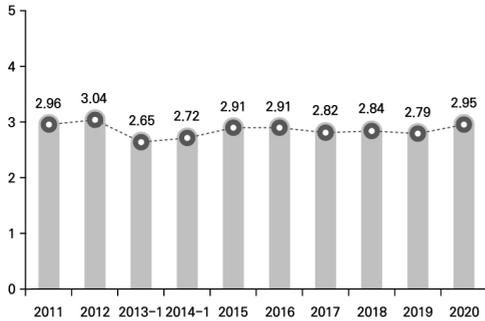
고등학교 교사들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 정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는 신뢰한다 18.4%, 보통이다 46.8%, 신뢰하지 못한다 34.9%로(평균 2.77), 초·중학교와 동일하게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초·중·고등학교 평가와 같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평균 점수는 낮아지는 응답 경향을 보였다. 고등학생 학부모의 경우 신뢰한다 19.6%, 보통이다 42.1%, 신뢰하지 못한다 38.3%로 응답하였으며(평균 2.73), 초·중·고 학부모의 경우 신뢰한다 19.6%, 보통이다 45.2%, 신뢰하지 못한다 35.2%로 응답하여(평균 2.78), 초·중학교와 달리 고등학생 학부모의 평가가 부정적임을 나타내었다.

〈표 Ⅲ-14〉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 정도(2016~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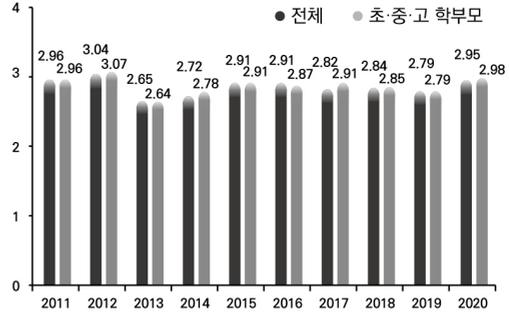
(단위: 명(%))

교사에 대한 신뢰	2020											2019	2018	2017	2016
	초·중·고 전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등 학생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전체	중학생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전체	고등 학생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매우 신뢰한다	59 (1.2)	14 (1.4)	136 (2.7)	25 (4.8)	40 (3.9)	88 (1.8)	7 (2.0)	25 (2.4)	83 (1.7)	7 (1.6)	21 (2.0)	34 (0.9)	26 (1.3)	38 (1.9)	38 (1.9)
신뢰한다	1049 (21.0)	242 (23.3)	1341 (26.8)	158 (30.0)	298 (28.7)	966 (19.3)	87 (25.4)	211 (20.3)	836 (16.7)	77 (18.0)	182 (17.6)	627 (15.7)	357 (17.9)	355 (17.8)	403 (20.2)
보통이다	2687 (53.7)	534 (51.5)	2360 (47.2)	244 (46.4)	484 (46.7)	2526 (50.5)	162 (47.4)	514 (49.6)	2338 (46.8)	180 (42.1)	469 (45.2)	2,017 (50.4)	1,011 (50.6)	951 (47.6)	1,003 (50.2)
신뢰하지 못한다	989 (19.8)	200 (19.3)	944 (18.9)	76 (14.4)	170 (16.4)	1177 (23.5)	73 (21.3)	239 (23.0)	1337 (26.7)	121 (28.3)	277 (26.7)	1,127 (28.2)	486 (24.3)	523 (26.2)	444 (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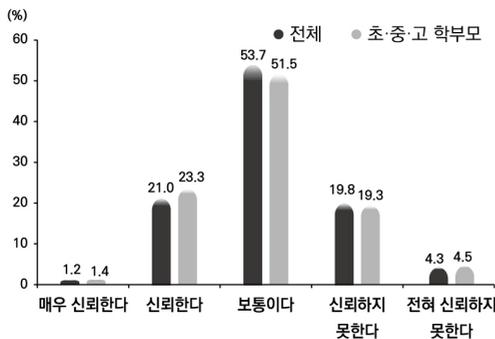
교사에 대한 신뢰	2020											2019	2018	2017	2016	
	초·중·고 전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등 학생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전체	중학생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전체	고등 학생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	216 (4.3)	47 (4.5)	219 (4.4)	23 (4.4)	45 (4.3)	243 (4.9)	13 (3.8)	48 (4.6)	406 (8.1)	43 (10.0)	88 (8.5)	195 (4.9)	120 (6.0)	133 (6.7)	112 (5.6)	
계	5000 (100.0)	1037 (100.0)	5000 (100.0)	526 (100.0)	1037 (100.0)	5000 (100.0)	342 (100.0)	1037 (100.0)	5000 (100.0)	428 (100.0)	1037 (100.0)	4,000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평균 (표준편차)	2.95 (0.79)	2.98 (0.81)	3.05 (0.86)	3.16 (0.89)	3.11 (0.88)	2.90 (0.83)	3.01 (0.84)	2.93 (0.84)	2.77 (0.88)	2.73 (0.93)	2.78 (0.90)	2.79 (0.79)	2.84 (0.83)	2.82 (0.87)	2.91 (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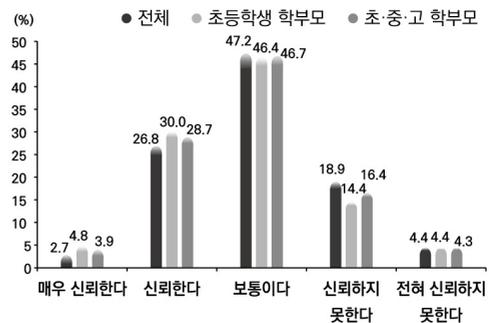
[그림 III-22]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 정도(전체 평균, 2011~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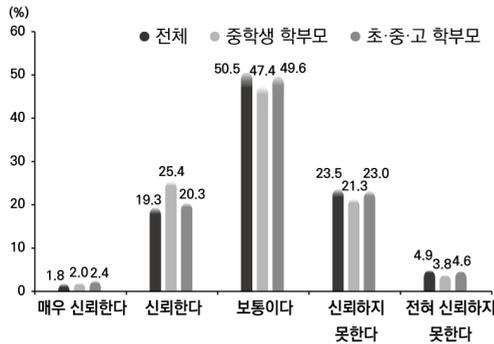
[그림 III-23]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 정도(평균 비교, 2011~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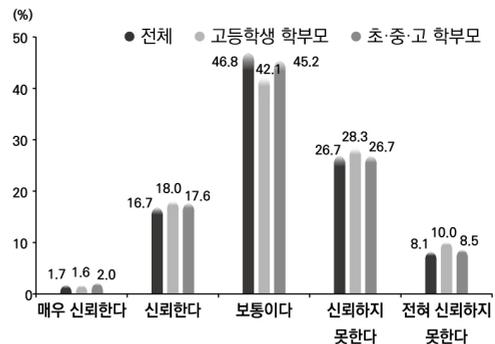
[그림 III-24]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 정도(초·중·고 전반, 2020)



[그림 III-25]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 정도(초등학교, 2020)



[그림 III-26]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 정도(중학교, 2020)



[그림 III-27]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 정도(고등학교, 2020)

2) 교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

<질문>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 선택하여 주십시오(학교급별 동일항목 선택 가능).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에 대해 전체 응답자는 학습 지도 능력(35.6%), 생활 지도 능력(29.9%),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 능력(13.7%), 진로·진학지도 능력(13.4%), 학급 경영 능력(6.9%), 기타(0.5%) 순으로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지난 14차 조사(2019년) 결과와 유사한 응답 경향을 보였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에도 학습 지도 능력(40.0%), 생활 지도 능력(26.0%),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 능력(13.3%), 진로·진학지도 능력(12.7%), 학급 경영 능력(7.7%), 기타(0.2%)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학교급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에 대해 전체 응답자는 생활 지도 능력(50.5%)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 능력(17.9%), 학습 지도 능력(14.6%), 학급 경영 능력(8.5%), 진로·진학지도 능력(8.1%), 기타(0.5%) 순으로 응답하였다. 초등학생 학부모 응답자도 생활 지도 능력(48.3%),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 능력(20.2%), 학습 지도 능력(15.2%), 진로·진학지도 능력(8.7%), 학급 경영 능력(7.4%), 기타(0.2%)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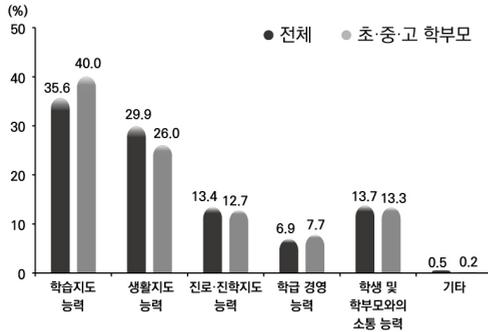
중학교 교사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으로는 전체 응답자는 학습 지도 능력(37.0%), 생활 지도 능력(24.1%), 진로·진학지도 능력(17.2%), 학급 경영 능력(13.2%),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 능력(8.1%), 기타(0.5%) 순으로, 중학생 학부모 응답자 또한, 학습 지도 능력(42.4%), 생활 지도 능력(20.5%), 진로·진학지도 능력(17.5%), 학급 경영 능력(12.6%),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 능력(7.0%), 기타(0.0%) 순으로 응답하였다.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경우 진로·진학지도 능력(49.8%)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학습 지도 능력(23.8%), 학급 경영 능력(9.5%),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 능력(8.2%), 생활 지도 능력(8.1%), 기타(0.5%)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고등학교 학부모 응답자 또한, 진로·진학지도 능력(49.3%), 학습 지도 능력(24.8%), 학급 경영 능력(10.3%),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 능력(7.9%), 생활 지도 능력(7.7%), 기타(0.0%)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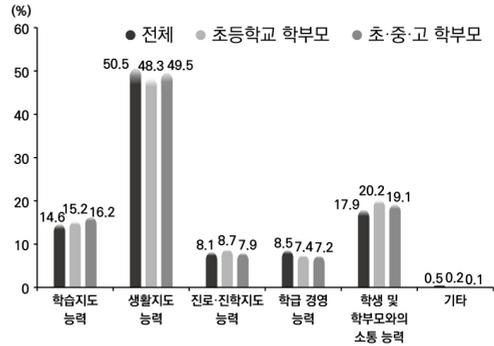
〈표 III-15〉 교사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2019~2020)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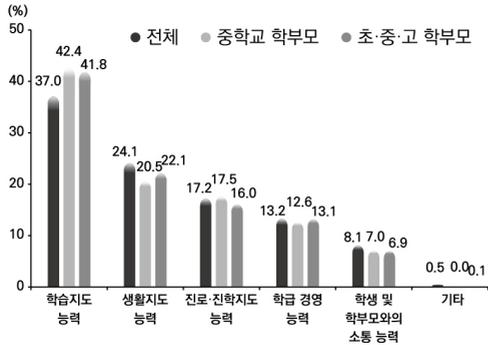
교사의 능력	2020											2019			
	초·중·고 전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반	초	중	고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등 학생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전체	중학생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전체	고등 학생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전체			
학습 지도 능력	1,782 (35.6)	415 (40.0)	728 (14.6)	80 (15.2)	168 (16.2)	1,851 (37.0)	145 (42.4)	433 (41.8)	1,192 (23.8)	106 (24.8)	283 (27.3)	1,311 (32.8)	545 (13.6)	1,495 (37.4)	931 (23.3)
생활 지도 능력	1,493 (29.9)	270 (26.0)	2,523 (50.5)	254 (48.3)	513 (49.5)	1,203 (24.1)	70 (20.5)	229 (22.1)	406 (8.1)	33 (7.7)	76 (7.3)	1,227 (30.7)	2,006 (50.2)	939 (23.5)	318 (8.0)
진로·진학 지도 능력	668 (13.4)	132 (12.7)	405 (8.1)	46 (8.7)	82 (7.9)	858 (17.2)	60 (17.5)	166 (16.0)	2,492 (49.8)	211 (49.3)	489 (47.2)	494 (12.4)	284 (7.1)	694 (17.4)	2,094 (52.4)
학급 경영 능력	345 (6.9)	80 (7.7)	426 (8.5)	39 (7.4)	75 (7.2)	662 (13.2)	43 (12.6)	136 (13.1)	475 (9.5)	44 (10.3)	105 (10.1)	280 (7.0)	316 (7.9)	460 (11.5)	331 (8.3)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 능력	685 (13.7)	138 (13.3)	893 (17.9)	106 (20.2)	198 (19.1)	403 (8.1)	24 (7.0)	72 (6.9)	412 (8.2)	34 (7.9)	83 (8.0)	659 (16.5)	827 (20.7)	393 (9.8)	307 (7.7)
기타	27 (0.5)	2 (0.2)	25 (0.5)	1 (0.2)	1 (0.1)	23 (0.5)	0 (0.0)	1 (0.1)	23 (0.5)	0 (0.0)	1 (0.1)	29 (0.7)	22 (0.6)	19 (0.5)	19 (0.5)
계	5,000 (100.0)	1,037 (100.0)	5,000 (100.0)	526 (100.0)	1,037 (100.0)	5,000 (100.0)	342 (100.0)	1,037 (100.0)	5,000 (100.0)	428 (100.0)	1,037 (100.0)	4,000 (100.0)	4,000 (100.0)	4,000 (100.0)	4,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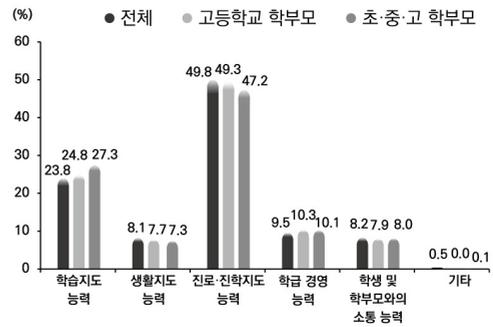
[그림 III-28] 초·중·고등학교 교사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2020)



[그림 III-29] 초등학교 교사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2020)



[그림 III-30] 중학교 교사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2020)



[그림 III-31] 고등학교 교사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2020)

3) 교사자격증이 없는 초빙교사에 대한 찬반의견

<질문> 교사자격증은 없지만 현장경험 등이 있는 전문가를 초·중·고등학교의 교사로 일정비율 초빙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항 또한, 이번 15차 조사부터 학교급별 질문을 추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사자격증은 없지만 현장경험 등이 있는 전문가를 초·중·고등학교의 교사로 일정비율 초빙하는 방안에 대해 전체 응답자는 찬성한다 52.1%, 반대한다 30.8%, 잘 모르겠다 17.0%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과반의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 또

한, 찬성한다 54.9%, 반대한다 31.7%, 잘 모르겠다 13.4%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과반의 응답률을 보였다.

학교급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에 교사자격증이 없는 전문가를 교사로 초빙하는 방안에 대해 전체 응답자는 찬성한다 53.6%, 반대한다 33.6%, 잘 모르겠다 12.8% 순으로 응답하였고, 초등학생 학부모 응답자도 찬성한다 57.4%, 반대한다 34.8%, 잘 모르겠다 7.8%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도 찬성한다 56.2%, 반대한다 33.8%, 잘 모르겠다 9.9% 순으로 응답하여 찬성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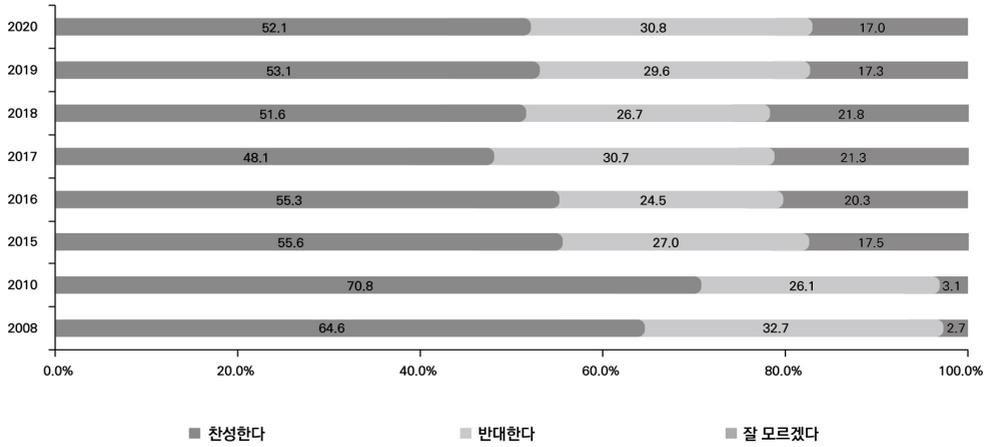
중학교에서 교사자격증이 없는 교사를 초빙하는 방안에 대해 전체 응답자는 찬성한다 49.1%, 반대한다 35.5%, 잘 모르겠다 15.4% 순으로 응답하였고, 중학생 학부모는 찬성한다 52.6%, 반대한다 34.8%, 잘 모르겠다 12.6%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과반이었으며,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도 찬성한다 52.2%, 반대한다 36.4%, 잘 모르겠다 11.5%의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고등학교에 교사자격증이 없는 전문가를 초빙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경우 찬성한다 48.4%, 반대한다 37.1%, 잘 모르겠다 14.6% 순으로 응답하였고, 고등학생 학부모 응답자는 찬성한다 47.7%, 반대한다 41.4%, 잘 모르겠다 11.0%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찬성한다 51.2%, 반대한다 36.8%, 잘 모르겠다 12.0%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여,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교사자격증이 없는 전문가를 교사로 초빙하는 방안에 대한 찬성의견의 응답률이 다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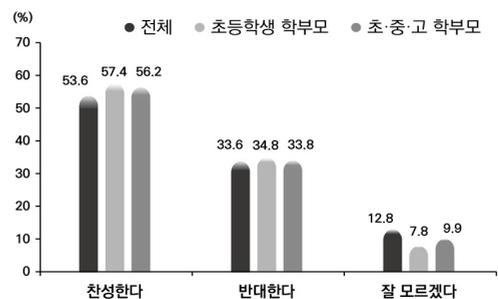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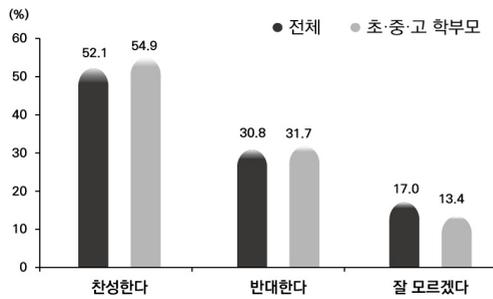
〈표 III-16〉 교사자격증이 없는 초빙교사에 대한 찬반의견(2018~2020)

(단위: 명(%))

교직 일부 개방	2020											2019	2018
	초·중·고 전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등 학생 학부모	초·중· 고 학부모	전체	중학생 학부모	초·중· 고 학부모	전체	고등 학생 학부모	초·중· 고 학부모		
찬성한다	2,606 (52.1)	569 (54.9)	2,681 (53.6)	302 (57.4)	583 (56.2)	2,456 (49.1)	180 (52.6)	541 (52.2)	2,418 (48.4)	204 (47.7)	531 (51.2)	2,125 (53.1)	1,032 (51.6)
반대한다	1,542 (30.8)	329 (31.7)	1,678 (33.6)	183 (34.8)	351 (33.8)	1,774 (35.5)	119 (34.8)	377 (36.4)	1,854 (37.1)	177 (41.4)	382 (36.8)	1,184 (29.6)	533 (26.7)
잘 모르 겠다	852 (17.0)	139 (13.4)	641 (12.8)	41 (7.8)	103 (9.9)	770 (15.4)	43 (12.6)	119 (11.5)	728 (14.6)	47 (11.0)	124 (12.0)	691 (17.3)	435 (21.8)
계	5,000 (100.0)	1,037 (100.0)	5,000 (100.0)	526 (100.0)	1,037 (100.0)	5,000 (100.0)	342 (100.0)	1,037 (100.0)	5,000 (100.0)	428 (100.0)	10,37 (100.0)	4,000 (100.0)	2,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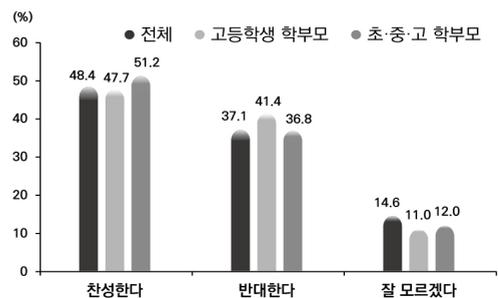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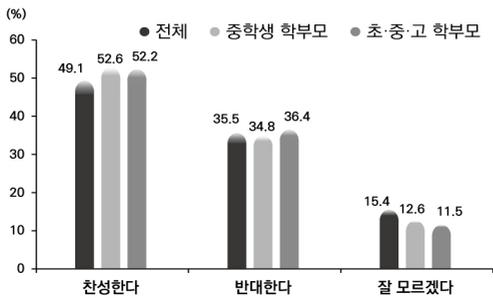


[그림 III-32] 교사자격증이 없는 초빙교사에 대한 찬반의견(전체, 2008~2010, 2015~2020)



[그림 III-33] 교사자격증이 없는 초빙교사에 대한 찬반의견(초·중·고 전반, 2020)

[그림 III-34] 교사자격증이 없는 초빙교사에 대한 찬반의견(초등학교, 2020)



[그림 III-35] 교사자격증이 없는 초빙교사에 대한 찬반의견(중학교, 2020)

[그림 III-36] 교사자격증이 없는 초빙교사에 대한 찬반의견(고등학교, 2020)

4) 자녀 직업으로서 교사 희망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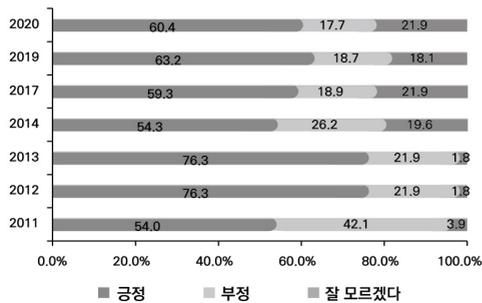
〈질문〉 자녀가 초·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가 초·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에 대해 전체 응답자는 긍정적으로 본다 60.4%, 부정적으로 본다 17.7%, 잘 모르겠다 21.9%를 선택하였고, 자녀가 있는 응답자 또한, 긍정적으로 본다 64.5%, 부정적으로 본다 16.1%, 잘 모르겠다 19.4%로 긍정으로 본다는 의견이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조사 시마다 자녀가 교사가 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의견이 과반의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자녀가 있는 응답자가 자녀의 직업으로서의 교사 희망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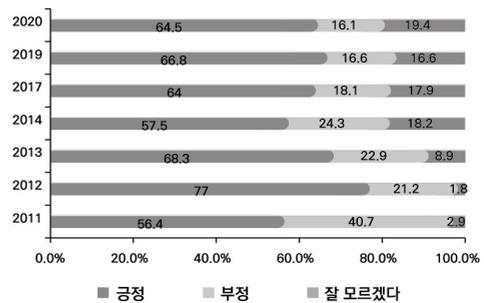
〈표 III-17〉 자녀 직업으로서 교사 희망에 대한 의견(2011~2020)

(단위: 명(%))

직업으로서 교사	2020		2019		2017		2014		2013		2012		2011	
	전체	자녀 있는 집단												
긍정적으로 본다	3,019 (60.4)	1,889 (64.5)	2,528 (63.2)	1,642 (66.8)	1,185 (59.3)	821 (64.0)	1,085 (54.3)	776 (57.5)	1,299 (76.3)	890 (68.3)	1,373 (76.3)	981 (77.0)	810 (54.0)	588 (56.4)
부정적으로 본다	887 (17.7)	471 (16.1)	749 (18.7)	408 (16.6)	377 (18.9)	232 (18.1)	523 (26.2)	328 (24.3)	476 (21.9)	298 (22.9)	395 (21.9)	270 (21.2)	632 (42.1)	424 (40.7)
잘 모르겠다	1,094 (21.9)	567 (19.4)	723 (18.1)	409 (16.6)	438 (21.9)	229 (17.9)	392 (19.6)	246 (18.2)	225 (1.8)	116 (8.9)	32 (1.8)	23 (1.8)	58 (3.9)	30 (2.9)
계	5,000 (100.0)	2,927 (100.0)	4,000 (100.0)	2,459 (100.0)	2,000 (100.0)	1,282 (100.0)	2,000 (100.0)	1,350 (100.0)	2,000 (100.0)	1,304 (100.0)	1,800 (100.0)	1,274 (100.0)	1,500 (100.0)	1,042 (100.0)



〈그림 III-37〉 자녀 직업으로서 교사 희망에 대한 의견(전체, 2011~2020)



〈그림 III-38〉 자녀 직업으로서 교사 희망에 대한 의견(자녀 있는 응답자, 2011~2020)

5)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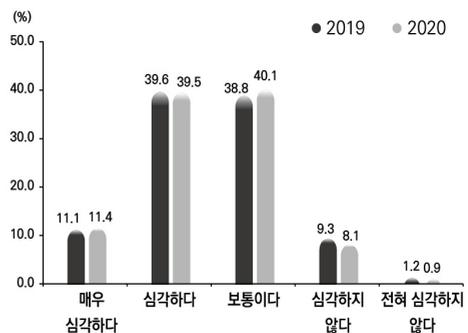
〈질문〉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부모 등)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부모 등)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정도를 묻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는 대체로 심각하다(매우 심각하다+심각하다) 50.9%, 보통이다 40.1%,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9.0%로 나타나, 대체로 심각하다는 의견의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3.52/5점 만점).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대체로 심각하다 42.0%, 보통이다 44.7%,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 13.3%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평균 3.35), 전체 응답자보다는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었다.

〈표 III-18〉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정도 (2019~2020)

(단위: 명(%))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정도	2020		2019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매우 심각하다	572 (11.4)	81 (7.8)	445 (11.1)	63 (7.6)
심각하다	1,974 (39.5)	355 (34.2)	1,583 (39.6)	294 (35.3)
보통이다	2,005 (40.1)	464 (44.7)	1,551 (38.8)	369 (44.3)
심각하지 않다	403 (8.1)	123 (11.9)	372 (9.3)	99 (11.9)
전혀 심각하지 않다	46 (0.9)	14 (1.4)	49 (1.2)	8 (1.0)
계	5,000 (100.0)	1,037 (100.0)	4,000 (100.0)	833 (100.0)
평균 (표준 편차)	3.52 (0.83)	3.35 (0.84)	3.50 (0.86)	3.37 (0.82)



[그림 III-39]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정도(전체, 2019~2020)

3 학생

요약

- 학업 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학생의 노력과 열의(36.5%), 학교나 학급의 분위기(23.1%), 교사의 지도(13.2%), 가정의 학습 환경(11.3%) 순으로 선택함.
- 초·중·고 학생들의 인성 수준은 보통이다(49.2%)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평균 2.70/5점 만점), 학교급별 평균은 초등학생 2.83, 중학생 2.51, 고등학생 2.49로 여전히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인성 수준이 낮을 것이라 인식함. 학생들이 좋은 인성을 갖도록 하는 영향 요인으로 여전히 가정(52.4%)을 과반이 선택함.
- 초·중·고 학생들의 시민의식(민주시민성) 수준도 보통(55.4%)을 과반 선택함(평균 2.85). 학교급별 평균은 초등학생 2.90, 중학생 2.67, 고등학생 2.69로 인성 수준과는 달리 중학생을 가장 낮게 인식함. 학생들이 시민의식(민주시민성)을 갖도록 하는 영향 요인으로 학교(31.5%), 가정(29.1%), 사회(24.4%) 순으로 선택하였으며, 학생들의 시민의식(민주시민성) 제고를 위해 학교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 강화(33.7%),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장려(29.6%), 수업에서의 민주시민교육 강화(18.4%), 학생자치활동 활성화(14.1%)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함.
- 2~3년 전과 비교해 볼 때 학교폭력은 여전히 과반 이상이 심각하다(54.1%)라고 인식하고 있으며(평균 3.60/5점 만점), 가장 중요한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정교육의 부재(37.1%), 대중매체(영화, 드라마, 인터넷, 게임 등의 폭력성(21.4%)을 1, 2순위로 꼽음.
- 유·초·중·고등학교와 학부모의 원활한 소통에 대해 과반이 보통(54.3%) 수준이라고 응답하였고(평균 2.82), 학부모와 소통의 방식으로 휴대폰(문자, 앱 등) 및 SNS(블로그 등) 활용(46.5%), 교사(답임, 교장 등)와의 면담(25.6%)을 가장 많이 선택함.

1)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질문〉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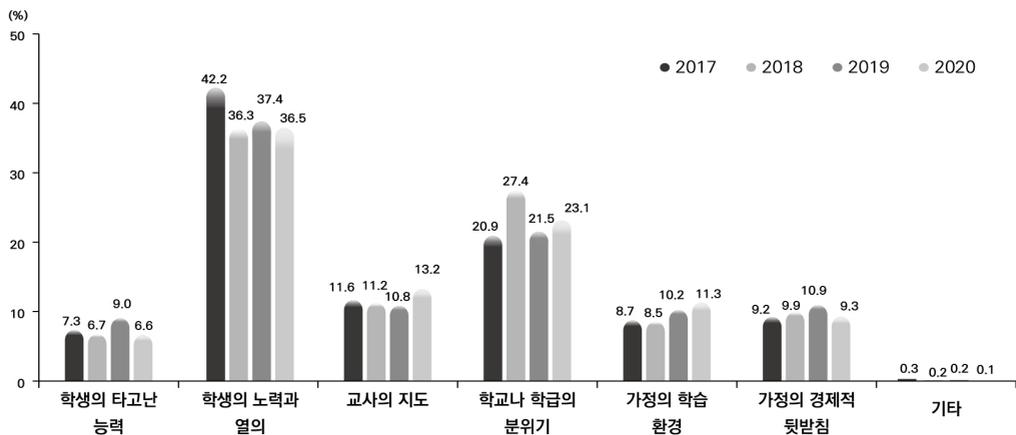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체 응답자는 학생의 노력과 열의(36.5%), 학교나 학급의 분위기(23.1%), 교사의 지도(13.2%), 가정의 학습 환경(11.3%), 가정의 경제적 뒷받침(9.3%), 학생의 타고난 능력(6.6%), 기타(0.1%) 순으로 응답하여, 지난 조사들과 유사한 응답 경향을 나타내었다. 12~14차 조사에서도 1순위는 학생의 노력과 열의(12차 42.2%, 13차 36.3%, 14차 37.4%)를, 2순위로는 학교나 학급의 학습 분위기(12차 20.9%, 13차 27.4%, 14차 21.5%)를 선택하였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에도 학생의 노력과 열의(40.5%)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학교나 학급의 분위기(22.3%), 교사의 지도(14.9%), 가정의 경제적 뒷받침(9.3%), 가정의 학습 환경(7.4%), 학생의 타고난 능력(5.6%), 기타(0.0%)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Ⅲ-19〉 학업 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2017~2020)

(단위: 명(%))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20		2019		2018		2017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학생의 타고난 능력	329 (6.6)	58 (5.6)	361 (9.0)	77 (9.2)	133 (6.7)	28 (5.5)	146 (7.3)	34 (7.1)
학생의 노력과 열의	1,823 (36.5)	420 (40.5)	1,494 (37.4)	321 (38.5)	726 (36.3)	185 (36.4)	843 (42.2)	208 (43.7)
교사의 지도	661 (13.2)	155 (14.9)	430 (10.8)	110 (13.2)	223 (11.2)	69 (13.6)	232 (11.6)	62 (13.0)
학교나 학급의 학습 분위기	1,156 (23.1)	231 (22.3)	861 (21.5)	164 (19.7)	547 (27.4)	139 (27.4)	417 (20.9)	96 (20.2)
가정의 학습 환경	563 (11.3)	77 (7.4)	409 (10.2)	60 (7.2)	170 (8.5)	35 (6.9)	174 (8.7)	34 (7.1)
가정의 경제적 뒷받침	463 (9.3)	96 (9.3)	436 (10.9)	99 (11.9)	198 (9.9)	52 (10.2)	183 (9.2)	41 (8.6)
기타	5 (0.1)	0 (0.0)	9 (0.2)	2 (0.2)	3 (0.2)	0 (0.0)	5 (0.3)	1 (0.2)
계	5,000 (100.0)	1,037 (100.0)	4,000 (100.0)	833 (100.0)	2,000 (100.0)	508 (100.0)	2,000 (100.0)	476 (100.0)



[그림 Ⅲ-40] 학업 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전체, 2017~2020)

2) 학생의 인성 수준

〈질문〉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인성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인성 수준에 대해 전체 응답자는 높음(매우 높다+높다) 13.3%, 보통 49.2%, 낮음(낮다+매우 낮다) 37.5%로, 보통의 응답률이 높았다(평균 2.70/5점 만점). 학생의 인성 수준도 지난 14차 조사(평균 2.58)보다 평균 0.12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 또한, 높음 15.5%, 보통 54.3%, 낮음 30.3%로 보통의 응답률이 과반을 나타내었다(평균 2.82).

학교급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인성 수준에 대해 전체 응답자는 높음 19.9%, 보통 47.8%, 낮음 32.2%의 응답률을 보였고(평균 2.83), 초등학생 학부모 응답자는 높음 29.8%, 보통 45.6%, 낮음 24.5%를 나타내었다(평균 3.05).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도 높음 27.0%, 보통 47.6%, 낮음 25.4%로 보통의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평균 3.01), 전체 응답자보다 학부모 응답자가 초등학생의 인성 수준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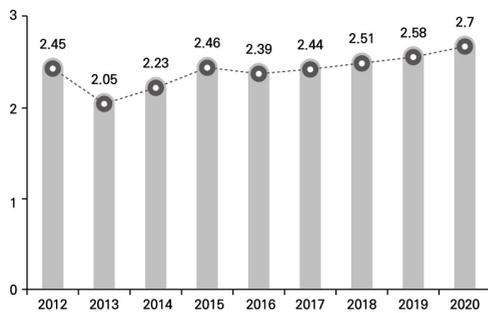
중학생의 인성 수준에 대해 전체 응답자는 높음 10.1%, 보통 40.6%, 낮음 49.3%로 대체로 낮다는 응답이 높았으나(평균 2.51), 중학생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 높음 14.7%, 보통 48.8%, 낮음 36.5%(평균 2.72),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 높음 13.0%, 보통 44.4%, 낮음 42.6%를 나타내어(평균 2.64), 학부모 응답자는 보통의 의견을 많이 선택하였다.

고등학생 인성 수준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는 높음 11.3%, 보통 39.3%, 낮음 49.3%로 대체로 낮다는 의견이 높았으나(평균 2.49), 고등학생 학부모 응답자는 높음 15.2, 보통 46.5%, 낮음 38.3%로(평균 2.69) 보통의 의견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그러나 초·중 학생과는 달리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 높음 13.6%, 보통 42.5%, 낮음 43.9%로 대체로 낮다는 의견이 더 높았다(평균 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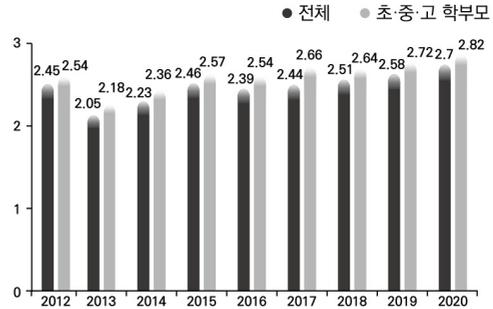
〈표 III-20〉 학생의 인성 수준(2020)

(단위: 명(%))

인성 수준	2020										
	초·중·고 전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등 학생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전체	중학생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전체	고등 학생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매우 높다	41 (0.8)	14 (1.4)	82 (1.6)	19 (3.6)	31 (3.0)	51 (1.0)	4 (1.2)	16 (1.5)	77 (1.5)	10 (2.3)	24 (2.3)
높다	624 (12.5)	146 (14.1)	914 (18.3)	138 (26.2)	249 (24.0)	457 (9.1)	46 (13.5)	119 (11.5)	489 (9.8)	55 (12.9)	117 (11.3)
보통이다	2,461 (49.2)	563 (54.3)	2,391 (47.8)	240 (45.6)	494 (47.6)	2,029 (40.6)	167 (48.8)	460 (44.4)	1,965 (39.3)	199 (46.5)	441 (42.5)
낮다	1,533 (30.7)	265 (25.6)	1,281 (25.6)	109 (20.7)	225 (21.7)	1,895 (37.9)	100 (29.2)	360 (34.7)	1,757 (35.1)	122 (28.5)	339 (32.7)
매우 낮다	341 (6.8)	49 (4.7)	332 (6.6)	20 (3.8)	38 (3.7)	568 (11.4)	25 (7.3)	82 (7.9)	712 (14.2)	42 (9.8)	116 (11.2)
계	5,000 (100.0)	1,037 (100.0)	5,000 (100.0)	526 (100.0)	1,037 (100.0)	5,000 (100.0)	342 (100.0)	1,037 (100.0)	5000 (100.0)	428 (100.0)	1,037 (100.0)
평균 (표준편차)	2.70 (0.80)	2.82 (0.78)	2.83 (0.86)	3.05 (0.87)	3.01 (0.85)	2.51 (0.85)	2.72 (0.83)	2.64 (0.84)	2.49 (0.91)	2.69 (0.90)	2.61 (0.91)
2019 평균 (표준편차)	2.58 (0.81)	2.72 (0.78)	2.79 (0.86)	3.00 (0.84)	2.97 (0.83)	2.42 (0.82)	2.61 (0.85)	2.54 (0.82)	2.39 (0.89)	2.44 (0.89)	2.46 (0.91)



[그림 III-41] 학생의 인성 수준
(전체 평균, 2012~2020)



[그림 III-42] 학생의 인성 수준
(평균 비교, 2012~2020)

3) 학생이 좋은 인성을 갖도록 하는 영향 요인

〈질문〉 학생들이 좋은 인성을 갖도록 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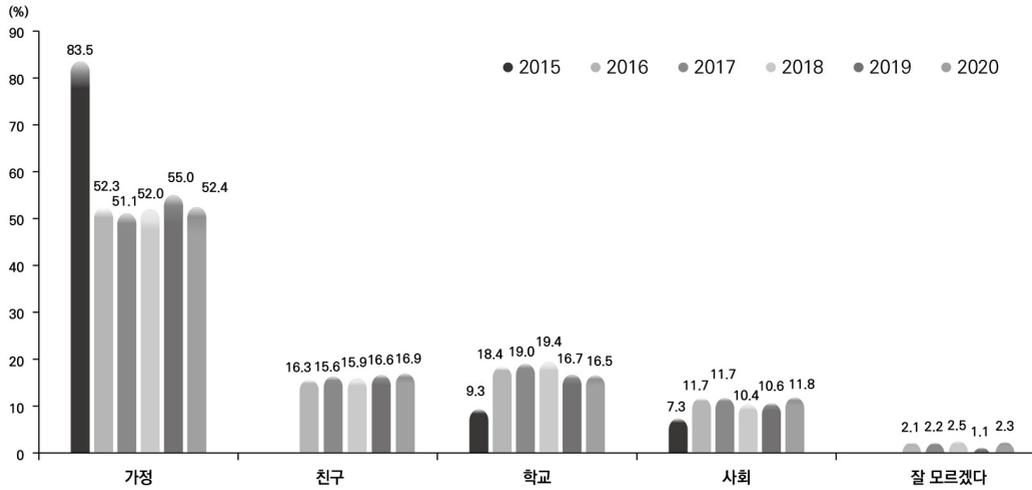
학생들이 좋은 인성을 갖도록 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체 응답자의 과반인 52.4%가 가정을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친구(16.9%), 학교(16.5%), 사회(11.8%), 잘 모르겠다(2.3%) 순으로 응답하여, 지난 조사들의 응답결과와 유사한 응답 경향을 나타내었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 또한, 가정(53.0%), 친구(17.9%), 학교(17.9%), 사회(9.8%), 잘 모르겠다(1.3%)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21〉 학생이 좋은 인성을 갖도록 하는 영향 요인(2015~2020)

(단위: 명(%))

학생 인성 영향 요인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가정	2,622 (52.4)	550 (53.0)	2,201 (55.0)	465 (55.8)	1,039 (52.0)	1,022 (51.1)	1,045 (52.3)	1,670 (83.5)
친구	846 (16.9)	186 (17.9)	665 (16.6)	138 (16.6)	317 (15.9)	325 (16.3)	311 (15.6)	-
학교	827 (16.5)	186 (17.9)	668 (16.7)	152 (18.2)	387 (19.4)	379 (19.0)	368 (18.4)	185 (9.3)
사회	591 (11.8)	102 (9.8)	422 (10.6)	67 (8.0)	208 (10.4)	233 (11.7)	233 (11.7)	145 (7.3)
잘 모르겠다	114 (2.3)	13 (1.3)	44 (1.1)	11 (1.3)	49 (2.5)	41 (2.1)	43 (2.2)	-
계	5,000 (100.0)	1,037 (100.0)	4,000 (100.0)	833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그림 Ⅲ-43] 학생이 좋은 인성을 갖도록 하는 영향 요인(전체, 2015~2020)

4) 학생의 시민의식(민주시민성) 수준

〈질문〉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시민의식(민주시민성)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시민의식(민주시민성)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는 높음(매우 높다+높다) 16.6%, 보통 55.4%, 낮음(낮다+매우 낮다) 28.0%로 보통을 과반 선택하였다(평균 2.85/5점 만점).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도 높음 21.7%, 보통이다 55.9%, 낮음 22.4%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평균 2.97).

학교급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초등학생의 시민의식(민주시민성) 수준에 대해 전체 응답자는 높음 22.0%, 보통 48.5%, 낮음 29.4%를 나타내었고(평균 2.90), 초등학생 학부모 응답자는 높음 31.0%, 보통 47.5%, 낮음 21.5%의 응답률을 나타내었으며(평균 3.11),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높음 29.3%, 보통 47.9%, 낮음 22.8%로 보통의 의견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평균 3.07).

중학생 시민의식(민주시민성) 수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경우 높음 13.4%, 보통 47.6%, 낮음 39.0%로 보통의 의견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평균 2.67), 중학생 학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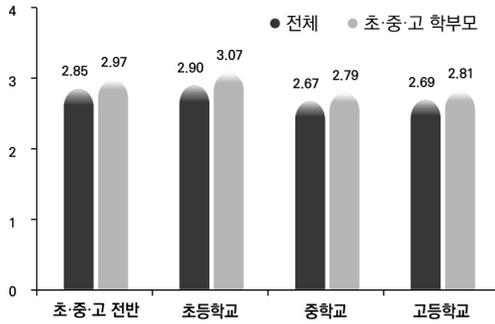
집단 또한, 높음 18.1%, 보통 50.3%, 낮음 31.6%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높았다(평균 2.82). 초·중·고 학부모도 높음 17.2%, 보통 48.7%, 낮음 34.1%를 나타내었다(평균 2.79).

고등학생의 시민의식(민주시민성) 수준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 높음 16.2%, 보통 44.7%, 낮음 39.0%(평균 2.69), 고등학생 학부모 응답자 높음 23.1%, 보통 44.9%, 낮음 32.0%(평균 2.85),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 또한, 높음 21.5%, 보통 44.1%, 낮음 34.4%의 응답률을 나타내어(평균 2.81),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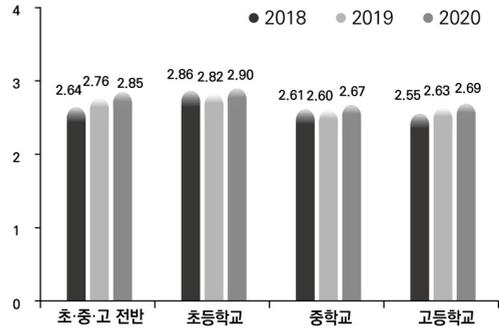
〈표 III-22〉 학생의 시민의식(민주시민성) 수준(2020)

(단위: 명(%))

시민의식 (민주 시민성)	2020										
	초·중·고 전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초·중· 고 학부모	전체	초등 학생 학부모	초·중· 고 학부모	전체	중학생 학부모	초·중· 고학부 모	전체	고등 학생 학부모	초·중· 고 학부모
매우 높다	47 (0.9)	16 (1.5)	112 (2.2)	25 (4.8)	46 (4.4)	62 (1.2)	5 (1.5)	27 (2.6)	72 (1.4)	8 (1.9)	25 (2.4)
높다	784 (15.7)	209 (20.2)	989 (19.8)	138 (26.2)	258 (24.9)	606 (12.1)	57 (16.7)	151 (14.6)	739 (14.8)	91 (21.3)	198 (19.1)
보통이다	2,769 (55.4)	580 (55.9)	2,427 (48.5)	250 (47.5)	497 (47.9)	2,381 (47.6)	172 (50.3)	505 (48.7)	2,237 (44.7)	192 (44.9)	457 (44.1)
낮다	1,153 (23.1)	194 (18.7)	1,208 (24.2)	95 (18.1)	197 (19.0)	1,545 (30.9)	86 (25.1)	288 (27.8)	1,469 (29.4)	104 (24.3)	273 (26.3)
매우 낮다	247 (4.9)	38 (3.7)	264 (5.3)	18 (3.4)	39 (3.8)	406 (8.1)	22 (6.4)	66 (6.4)	483 (9.7)	33 (7.7)	84 (8.1)
계	5,000 (100.0)	1,037 (100.0)	5,000 (100.0)	526 (100.0)	1,037 (100.0)	5,000 (100.0)	342 (100.0)	1,037 (100.0)	5,000 (100.0)	428 (100.0)	1,037 (100.0)
평균 (표준편차)	2.85 (0.77)	2.97 (0.77)	2.90 (0.85)	3.11 (0.87)	3.07 (0.87)	2.67 (0.84)	2.82 (0.84)	2.79 (0.86)	2.69 (0.89)	2.85 (0.91)	2.81 (0.92)
2019 평균 (표준편차)	2.76 (0.78)	2.87 (0.77)	2.82 (0.86)	3.01 (0.84)	2.98 (0.83)	2.60 (0.83)	2.82 (0.85)	2.71 (0.82)	2.63 (0.91)	2.78 (0.87)	2.76 (0.89)



[그림 III-44] 학생의 시민의식(민주시민성) 수준 (평균 비교, 2020)



[그림 III-45] 학생의 시민의식(민주시민성) 수준 (전체 평균, 2018~2020)

5) 학생이 시민의식(민주시민성)을 갖도록 하는 영향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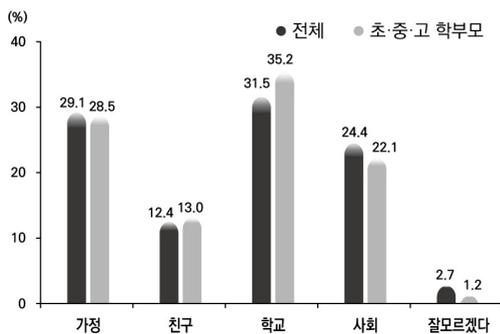
〈질문〉 학생들이 시민의식(민주시민성)을 갖도록 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학생들이 시민의식(민주시민성)을 갖도록 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체 응답자는 학교(31.5%)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가정(29.1%), 사회(24.4%), 친구(12.4%), 잘 모르겠다(2.7%) 순으로 응답하였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도 학교(35.2%), 가정(28.5%), 사회(22.1%), 친구(13.0%), 잘 모르겠다(1.2%)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지난 13~14차 조사(2018~2019년)의 응답결과와 비교해 보면, 1순위로 학교를 선택한 것은 동일하나 이번 조사에서는 2순위로 사회가 아닌 가정을 더 많이 선택하여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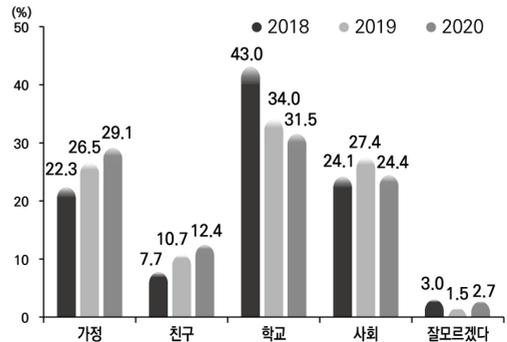
〈표 III-23〉 학생이 시민의식(민주시민성)을 갖도록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2018~2020)

(단위: 명(%))

학생의 시민의식 (민주시민성) 영향 요인	2020		2019		2018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가정	1,453 (29.1)	296 (28.5)	1,058 (26.5)	221 (26.5)	446 (22.3)
친구	620 (12.4)	135 (13.0)	429 (10.7)	79 (9.5)	154 (7.7)
학교	1,574 (31.5)	365 (35.2)	1,358 (34.0)	327 (39.3)	860 (43.0)
사회	1,219 (24.4)	229 (22.1)	1,096 (27.4)	195 (23.4)	481 (24.1)
잘 모르겠다	134 (2.7)	12 (1.2)	59 (1.5)	11 (1.3)	59 (3.0)
계	5,000 (100.0)	1,037 (100.0)	4,000 (100.0)	833 (100.0)	2,000 (100.0)



[그림 III-46] 학생이 시민의식(민주시민성)을 갖도록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2020)



[그림 III-47] 학생이 시민의식(민주시민성)을 갖도록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전체, 2018~2020)

6) 학생의 시민의식(민주시민성) 제고를 위한 학교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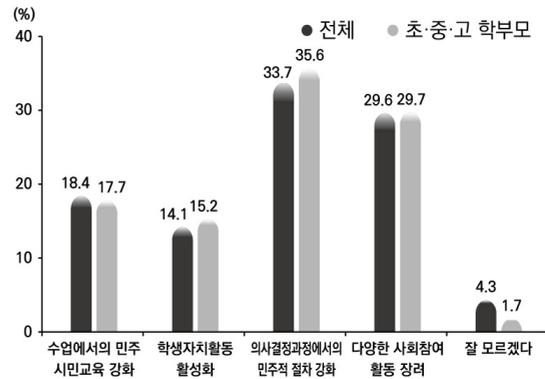
〈질문〉 초·중·고 학생의 시민의식(민주시민성) 제고를 위해 학교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의 시민의식(민주시민성) 제고와 관련한 정책을 반영하여 문항의 선택지를 수정 및 추가하였다. 초·중·고 학생들의 시민의식(민주시민성) 제고를 위해 학교가 가장 중점

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 전체 응답자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 강화(33.7%)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장려(29.6%), 수업에서의 민주시민교육 강화(18.4%), 학생자치활동 활성화(14.1%), 잘 모르겠다(4.3%) 순으로 응답하였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도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 강화(35.6%),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장려(29.7%), 수업에서의 민주시민교육 강화(17.7%), 학생자치활동 활성화(15.2%), 잘 모르겠다(1.7%)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표 III-24〉 학생의 시민의식(민주시민성) 제고를 위한 학교의 역할(2020)
(단위: 명(%))

학생의 시민의식 (민주시민성) 제고를 위한 학교의 역할	2020	
	전체	초·중·고 학부모
수업에서의 민주시민교육 강화	918 (18.4)	184 (17.7)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707 (14.1)	158 (15.2)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 강화	1,684 (33.7)	369 (35.6)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장려	1,478 (29.6)	308 (29.7)
잘 모르겠다	213 (4.3)	18 (1.7)
계	5,000 (100.0)	1,037 (100.0)



〔그림 III-48〕 학생의 시민의식(민주시민성 제고를 위한 학교의 역할(2020)

7) 학교폭력에 대한 의견

〈질문〉 2~3년 전과 비교해 볼 때 학교폭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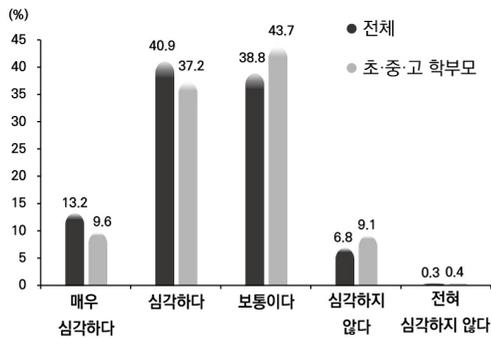
2~3년 전과 비교해 볼 때 학교폭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는 심각하다(매우 심각하다+심각하다) 54.1%, 보통이다 38.8%, 심각하지 않다(심각하지 않다+전혀 심각하지 않다) 7.1%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많았다(평균 3.60/5점 만

점), 초·중·고 학부모의 경우도 심각하다 46.9%, 보통이다 43.7%, 심각하지 않다 9.5%로, 전체 응답자보다 응답률은 낮았지만 심각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평균 3.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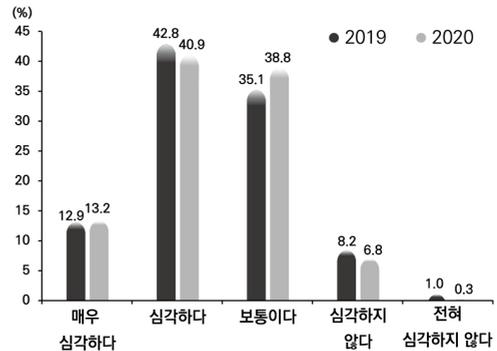
〈표 III-25〉 2~3년 전과 비교한 학교폭력 정도(2019~2020)

(단위: 명(%))

학교폭력 정도	2020		2019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매우 심각하다	658 (13.2)	100 (9.6)	517 (12.9)	77 (9.2)
심각하다	2,047 (40.9)	386 (37.2)	1713 (42.8)	332 (39.9)
보통이다	1,939 (38.8)	453 (43.7)	1404 (35.1)	350 (42.0)
심각하지 않다	340 (6.8)	94 (9.1)	326 (8.2)	70 (8.4)
전혀 심각하지 않다	16 (0.3)	4 (0.4)	40 (1.0)	4 (.5)
계	5,000 (100.0)	1,037 (100.0)	4000 (100.0)	833 (100.0)
평균 (표준편차)	3.60 (0.81)	3.47 (0.80)	3.59 (0.85)	3.49 (0.8)



[그림 III-49] 2~3년 전과 비교한 학교폭력 정도(2020)



[그림 III-50] 2~3년 전과 비교한 학교폭력 정도(전체, 2019~2020)

8) 학교폭력의 원인

〈질문〉 학교폭력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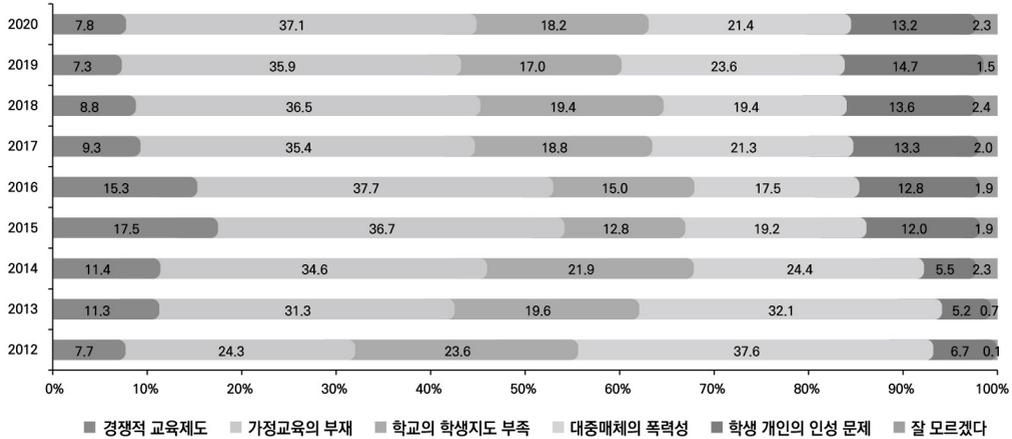
학교폭력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전체 응답자는 가정교육의 부재(37.1%)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대중매체(영화, 드라마, 인터넷, 게임 등)의 폭력성(21.4%), 학교의 학생지도 부족(18.2%), 학생 개인의 인성 문제(13.2%), 경쟁적 교육제도(입시경쟁 등)(7.8%), 잘 모르겠다(2.3%) 순으로 응답하여, 9차 조사(2014년) 이후의 조사 결과와 유사한 응답 경향을 보였고, 학교폭력의 중요 원인으로 학교 밖의 원인을 1~2순위로 선택하였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도 가정교육의 부재(32.1%), 대중매체(영화, 드라마, 인터넷, 게임 등)의 폭력성(23.9%), 학교의 학생지도 부족(21.2%), 학생 개인의 인성 문제(11.3%), 경쟁적 교육제도(입시경쟁 등)(10.2%), 잘 모르겠다(1.3%)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표 Ⅲ-26〉 학교폭력의 원인(2012~2020)

(단위: 명(%))

학교폭력의 원인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전체	초·중·고 학부모								
경쟁적 교육제도 (입시경쟁 등)	388 (7.8)	106 (10.2)	293 (7.3)	176 (8.8)	186 (9.3)	306 (15.3)	349 (17.5)	228 (11.4)	225 (11.3)	139 (7.7)
가정교육의 부재	1,854 (37.1)	333 (32.1)	1,436 (35.9)	730 (36.5)	708 (35.4)	753 (37.7)	733 (36.7)	691 (34.6)	625 (31.3)	438 (24.3)
학교의 학생지도 부족	911 (18.2)	220 (21.2)	679 (17.0)	388 (19.4)	375 (18.8)	299 (15.0)	256 (12.8)	437 (21.9)	392 (19.6)	425 (23.6)
대중매체(영화, 드라마, 인터넷, 게임 등)의 폭력성	1,071 (21.4)	248 (23.9)	943 (23.6)	387 (19.4)	425 (21.3)	349 (17.5)	384 (19.2)	488 (24.4)	641 (32.1)	676 (37.6)
학생 개인의 인성 문제	661 (13.2)	117 (11.3)	589 (14.7)	271 (13.6)	266 (13.3)	255 (12.8)	240 (12.0)	110 (5.5)	104 (5.2)	121 (6.7)
잘 모르겠다	115 (2.3)	13 (1.3)	60 (1.5)	48 (2.4)	40 (2.0)	38 (1.9)	38 (1.9)	46 (2.3)	13 (0.7)	1 (0.1)
계	5,000 (100.0)	1,037 (100.0)	4,000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1,800 (100.0)



[그림 III-51] 학교폭력의 원인(전체, 2012~2020)

9) 유·초·중·고등학교와 학부모의 소통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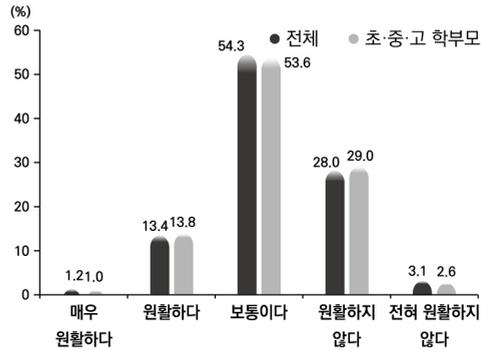
<질문> (유·초·중·고 학부모의 경우) 현재 유·초·중·고등학교와 학부모의 소통이 원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항은 이번 15차 조사에 처음 포함된 신규 문항으로, 현재 유·초·중·고등학교와 학부모의 소통이 원활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는 원활하다(매우 원활하다+원활하다) 14.6%, 보통이다 54.3%, 원활하지 않다(원활하지 않다+전혀 원활하지 않다) 31.1%로 보통의 의견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평균 2.82/5점 만점),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도 원활하다 14.8%, 보통이다 53.6%, 원활하지 않다 31.6%로 보통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평균 2.81).

〈표 III-27〉 유·초·중·고등학교와 학부모의 소통 정도(2020)

(단위: 명(%))

유·초·중·고등학교와 학부모의 소통 정도	2020	
	전체	초·중·고 학부모
매우 원활하다	14 (1.2)	10 (1.0)
원활하다	157 (13.4)	143 (13.8)
보통이다	637 (54.3)	556 (53.6)
원활하지 않다	329 (28.0)	301 (29.0)
전혀 원활하지 않다	36 (3.1)	27 (2.6)
계	1,173 (100.0)	1,037 (100.0)
평균 (표준편차)	2.82 (0.74)	2.81 (0.73)



[그림 III-52] 유·초·중·고등학교와 학부모의 소통 정도(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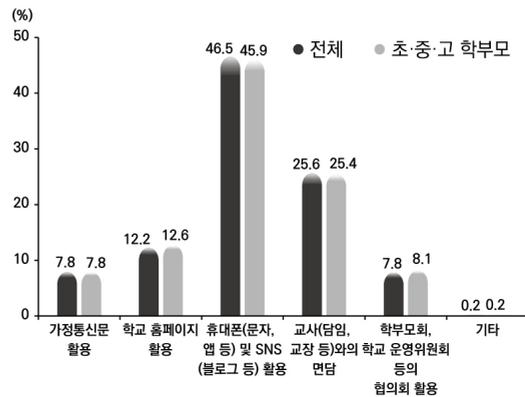
10)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방식

〈질문〉 (유·초·중·고 학부모의 경우) 유·초·중·고등학교에서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보다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방식**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문항 또한, 이번 15차 조사에 처음 포함된 문항으로, 유·초·중·고등학교에서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보다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방식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는 휴대폰(문자, 앱 등) 및 SNS(블로그 등) 활용(46.5%)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교사(담임, 교장 등)와의 면담(25.6%), 학교 홈페이지 활용(12.2%), 가정통신문 활용(7.8%),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협의회 활용(7.8%), 기타(0.2%) 순으로 응답하였다. 초·중·고 학부모의 경우도 휴대폰(문자, 앱 등) 및 SNS(블로그 등) 활용(45.9%), 교사(담임, 교장 등)와의 면담(25.4%), 학교 홈페이지 활용(12.6%),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협의회 활용(8.1%), 가정통신문 활용(7.8%), 기타(0.2%)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28〉 학부모와 원활한 소통 방식(2020)
(단위: 명(%))

유·초·중·고등학교와 학부모의 소통 방식	2020	
	전체	초·중·고 학부모
가정통신문 활용	92 (7.8)	81 (7.8)
학교 홈페이지 활용	143 (12.2)	131 (12.6)
휴대폰(문자, 앱 등) 및 SNS(블로그 등) 활용	545 (46.5)	476 (45.9)
교사(담임, 교장 등)와의 면담	300 (25.6)	263 (25.4)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협의회활용	91 (7.8)	84 (8.1)
기타	2 (0.2)	2 (0.2)
계	1,173 (100.0)	1,037 (100.0)



[그림 III-53] 학부모와 원활한 소통 방식(2020)

4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요약

- 초·중·고등학교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길러주기를 바라는 사항으로 사회성, 인간관계(27.3%), 도덕성(16.3%), 창의력(15.0%), 기본생활습관(12.1%)을 꼽음. 초등학교에서는 기본생활습관(30.6%), 도덕성(17.3%), 창의력(16.3%), 사회성, 인간관계(13.1%)을, 중학교에서는 사회성, 인간관계(22.3%), 도덕성(18.1%), 사고력(13.6%), 창의력(11.9%)을, 고등학교에서는 사회성, 인간관계(21.6%), 지식(15.3%), 민주시민성(12.0%), 사고력(10.6%)을 꼽아 여전히 학교급별로 차이를 보임.
-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 할 교과로 초등학교는 사회(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23.5%), 국어(17.3%)를, 중학교는 사회(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20.9%), 한국사(15.6%)를, 고등학교에서는 교양(철학, 진로와 직업, 환경 등)(22.1%), 영어(11.8%), 한국사(11.8%)를 가장 많이 선택하여 이 또한, 여전히 학교급별 차이를 보임.
- 현재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교육내용으로 초등학교는 인성교육(43.7%), 창의성교육(18.6%)을, 중학교는 인성교육(35.6%), 성교육(11.3%)을, 고등학교는 진로교육(22.2%), 인성교육(18.7%)을 가장 많이 선택함. 미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으로 자기관리역량(27.9%), 창의적 사고 역량(25.0%)을 가장 많이 꼽음. 미래 초등학교들에게는 창의적 사고 역량

(27.4%), 의사소통 역량(22.5%)을, 미래 중학생들에게는 창의적 사고 역량(21.8%), 자기관리 역량(19.7%)을, 미래 고등학생들에게는 자기관리 역량(24.2%), 지식정보처리 역량(22.0%)을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여 이 또한, 학교급별 차이를 보임.

- 학교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수업이수를 인정하는 것에 전반적으로는 찬성의견(47.0%)이 높았으나, 초등학교는 반대의견(45.3%)이, 중·고등학교에서는 찬성의견(중 43.7%, 고 46.4%)이 높음. 온라인 교육의 수업이수 인정을 찬성한다면 수업이수로 인정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의 운영 형태로는 전반 및 초·중학교에서는 화상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면대면 교수-학습활동이 가능해야 인정할 수 있다(전반 44.7%, 초 42.1% 중 41.7%)를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오프라인 상(등교 수업)에서의 활동이 포함되어야 인정할 수 있다(41.0%)를 가장 많이 선택하여 차이를 보임.

1) 학교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길러주기를 바라는 사항

<질문> 초·중·고등학교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길러주기를 바라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 선택하여 주십시오(학교급별 동일항목 선택 가능).

초·중·고등학교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길러주기를 바라는 사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는 사회성, 인간관계(27.3%)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도덕성(16.3%), 창의력(15.0%), 기본생활습관(12.1%), 사고력(9.9%), 지식(6.7%), 기술·지능(4.1%), 정서적 감수성(3.9%), 민주시민성(3.3%), 건강, 체력(1.2%), 리더십(0.3%), 기타(0.0%) 순으로 응답하였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 또한, 사회성, 인간관계(27.2%)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나, 다음으로는 창의력(18.9%), 도덕성(12.1%), 기본생활습관(11.5%), 사고력(10.1%), 지식(6.8%), 기술·지능(4.6%), 민주시민성(3.9%), 정서적 감수성(2.9%), 건강, 체력(1.3%), 리더십(0.8%), 기타(0.0%) 순으로 응답하였다. 지난 12~14차 조사(2017~2019년)에서도 초·중·고등학교 전반에서는 1~2순위로 사회성, 인간관계, 도덕성, 창의력 등의 응답률이 높았으나, 학교급별로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학교급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길러주기를 바라는 사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는 기본생활습관(30.6%), 도덕성(17.3%), 창의력(16.3%), 사회성, 인간관계(13.1%) 등의 순으로, 초등학생 학부모 응답자는 기본생활습관(28.5%), 창의력(20.7%), 도덕성(14.3%), 사회성, 인간관계(11.2%) 등의 순으로,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도 기본생활습관(30.1%), 창의력(18.6%), 도덕성(14.9%), 사회성, 인간관계(12.1%)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중학교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길러주기를 바라는 사항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경우 사회성, 인간관계(22.3%)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도덕성(18.1%), 사고력(13.6%), 창의력(11.9%) 등의 순으로, 중학생 학부모 응답자는 사회성, 인간관계(23.1%), 사고력(14.6%), 창의력(14.6%), 도덕성(12.6%) 등의 순으로,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도 사회성, 인간관계(21.4%)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나, 다음으로는 도덕성(16.1%), 사고력(14.6%), 창의력(13.8%)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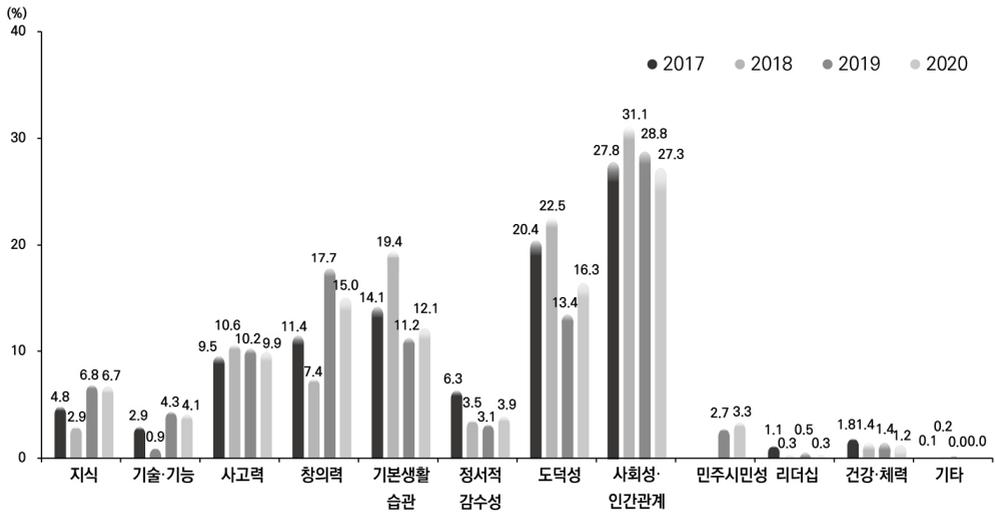
고등학교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길러주기를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경우 중학교와 동일하게 사회성, 인간관계(21.6%)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나, 다음으로는 지식(15.3%), 민주시민성(12.0%), 사고력(10.6%) 등의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고등학교 학부모 응답자도 사회성, 인간관계(20.6%)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지식(15.9%), 사고력(15.7%), 민주시민성(13.6%) 등의 순으로,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도 사회성, 인간관계(20.1%), 지식(18.3%), 사고력(12.4%), 민주시민성(11.2%) 등의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III-29〉 학교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길러주기를 바라는 사항(2017~2020)

(단위: 명(%))

학교에서 길러주기를 바라는 사항	2020											2019	2018	2017	
	초·중·고 전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중·고 전반		
	전체	초·중· 고 학부모	전체	초등 학생 학부모	초·중· 고 학부모	전체	중학생 학부모	초·중· 고 학부모	전체	고등 학생 학부모	초·중· 고 학부모	전체			
지식	334 (6.7)	71 (6.8)	73 (1.5)	8 (1.5)	10 (1.0)	224 (4.5)	20 (5.8)	56 (5.4)	765 (15.3)	68 (15.9)	190 (18.3)	273 (6.8)	58 (2.9)	193 (4.8)	
기술·기능	203 (4.1)	48 (4.6)	101 (2.0)	17 (3.2)	31 (3.0)	120 (2.4)	11 (3.2)	28 (2.7)	352 (7.0)	25 (5.8)	64 (6.2)	171 (4.3)	17 (0.9)	116 (2.9)	
사고력	495 (9.9)	105 (10.1)	279 (5.6)	34 (6.5)	58 (5.6)	681 (13.6)	50 (14.6)	151 (14.6)	531 (10.6)	67 (15.7)	129 (12.4)	406 (10.2)	211 (10.6)	378 (9.5)	
창의력	749 (15.0)	196 (18.9)	814 (16.3)	109 (20.7)	193 (18.6)	594 (11.9)	50 (14.6)	143 (13.8)	403 (8.1)	38 (8.9)	82 (7.9)	709 (17.7)	148 (7.4)	454 (11.4)	
기본 생활습관	606 (12.1)	119 (11.5)	1,529 (30.6)	150 (28.5)	312 (30.1)	417 (8.3)	27 (7.9)	88 (8.5)	203 (4.1)	10 (2.3)	43 (4.1)	448 (11.2)	388 (19.4)	565 (14.1)	
정서적 감수성	193 (3.9)	30 (2.9)	433 (8.7)	45 (8.6)	93 (9.0)	500 (10.0)	34 (9.9)	89 (8.6)	199 (4.0)	16 (3.7)	39 (3.8)	124 (3.1)	70 (3.5)	252 (6.3)	

학교에서 길러주기를 바라는 사항	2020											2019	2018	2017
	초·중·고 전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중·고 전반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등 학생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전체	중학생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전체	고등 학생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전체		
도덕성	817 (16.3)	125 (12.1)	865 (17.3)	75 (14.3)	155 (14.9)	905 (18.1)	43 (12.6)	167 (16.1)	515 (10.3)	24 (5.6)	84 (8.1)	537 (13.4)	450 (22.5)	816 (20.4)
사회성, 인간 관계	1,363 (27.3)	282 (27.2)	657 (13.1)	59 (11.2)	125 (12.1)	1,113 (22.3)	79 (23.1)	222 (21.4)	1,081 (21.6)	88 (20.6)	208 (20.1)	1,150 (28.8)	622 (31.1)	1,110 (27.8)
민주시민성	165 (3.3)	40 (3.9)	73 (1.5)	5 (1.0)	15 (1.4)	287 (5.7)	17 (5.0)	56 (5.4)	601 (12.0)	58 (13.6)	116 (11.2)	106 (2.7)	-	-
리더십	14 (0.3)	8 (0.8)	19 (0.4)	5 (1.0)	7 (0.7)	54 (1.1)	4 (1.2)	17 (1.6)	244 (4.9)	28 (6.5)	63 (6.1)	21 (0.5)	5 (0.3)	42 (1.1)
건강, 체력	59 (1.2)	13 (1.3)	155 (3.1)	18 (3.4)	37 (3.6)	103 (2.1)	7 (2.0)	20 (1.9)	104 (2.1)	6 (1.4)	19 (1.8)	54 (1.4)	27 (1.4)	71 (1.8)
기타	2 (0.0)	0 (0.0)	2 (0.0)	1 (0.2)	1 (0.1)	2 (0.0)	0 (0.0)	0 (0.0)	2 (0.0)	0 (0.0)	0 (0.0)	1 (0.0)	4 (0.2)	3 (0.1)
계	5,000 (100.0)	1,037 (100.0)	5,000 (100.0)	526 (100.0)	1,037 (100.0)	5,000 (100.0)	342 (100.0)	1,037 (100.0)	5,000 (100.0)	428 (100.0)	1,037 (100.0)	4,000 (100.0)	2,000 (100.0)	4,000 (100.0)



[그림 Ⅲ-54] 학교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길러주기를 바라는 사항(전체, 2017~2020)

2) 현재보다 중시해야 할 교과목

〈질문〉 초·중·고등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 할 교과는 무엇인지 보기 중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을 선택하여 주십시오(학교급별 동일항목 선택 가능).

초등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 할 교과에 대해 전체 응답자는 사회(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23.5%)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국어(17.3%), 예술(음악, 미술, 연극)(11.5%), 한국사(10.7%), 체육(10.6%), 교양(철학, 진로와 직업, 환경 등)(7.3%), 영어(5.8%), 과학(통합과학)(4.7%), 수학(3.6%), 기술·가정(1.6%), 기계·SW·디자인·농업 등 전문교과(1.5%), 제2외국어(1.0%), 한문(0.5%), 기타(0.3%) 순으로 응답하였다. 초등학생 학부모 응답자는 사회(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20.9%), 국어(20.0%), 체육(10.6%), 한국사(10.5%)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지난 13~14차 조사(2018~2019년)의 결과와 유사한 응답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중·고등학교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고, 특히, 2순위로 선택한 교과가 학교급별 특징을 갖는 것도 지난 결과들과 유사한 경향을 갖는다.

중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 할 교과로 전체 응답자의 경우 지난 14차 조사(2019년)에서는 한국사(21.2%)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나, 이번 15차 조사에서는 사회(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20.9%)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 한국사(15.6%), 교양(철학, 진로와 직업, 환경 등)(12.5%), 영어(10.3%), 수학(8.5%), 과학(통합과학)(6.7%), 체육(5.5%), 예술(음악, 미술, 연극)(5.4%), 기계·SW·디자인·농업 등 전문교과(4.4%), 국어(4.2%), 제2외국어(2.6%), 기술·가정(2.2%), 한문(0.9%), 기타(0.3%) 순으로 응답하였다. 중학생 학부모 응답자는 사회(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17.0%), 영어(15.5%), 교양(철학, 진로와 직업, 환경 등)(15.2%), 한국사(12.3%)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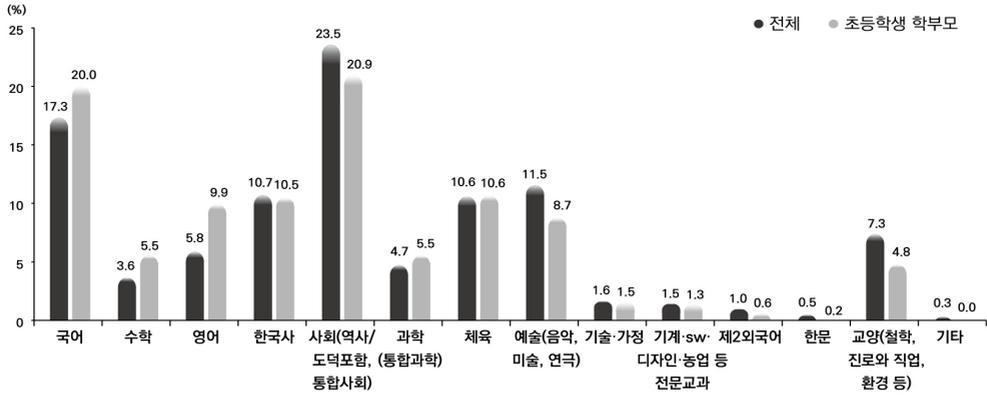
고등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 할 교과로 전체 응답자는 지난 13~14차(2018~2019년) 조사와 동일하게 교양(철학, 진로와 직업, 환경 등)(22.1%)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영어(11.8%), 한국사(11.8%), 사회(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11.4%), 기계·SW·디자인·농업 등 전문교과(11.0%), 수학(7.7%), 과학(통합과학)(5.7%), 체육(4.3%), 예술(음악, 미술, 연극)(3.8%), 국어(3.3%), 제2외국어(3.3%), 기술·가정(2.9%), 한문(0.7%), 기타(0.3%) 순으로 응답하였다. 고등학생 학부모의 경우에도 교양(철학, 진로와

직업, 환경 등)(24.1%)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 영어(17.1%), 수학(13.3%), 한국사(8.9%)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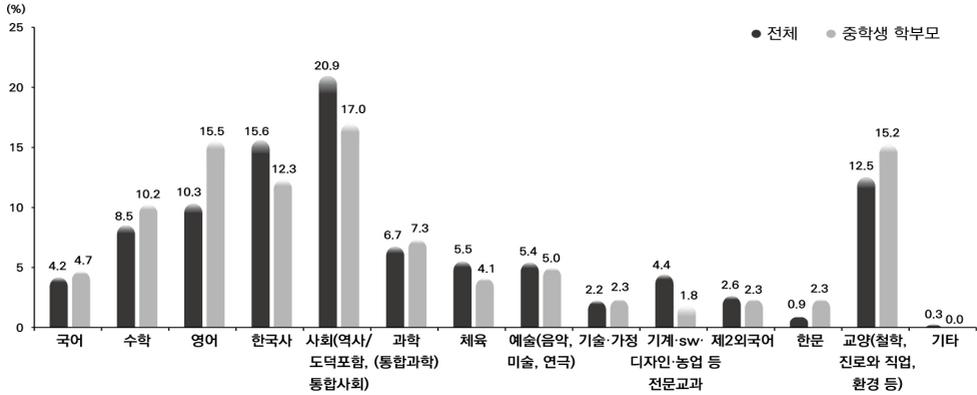
〈표 Ⅲ-30〉 현재보다 중시해야 할 교과(2018~2020)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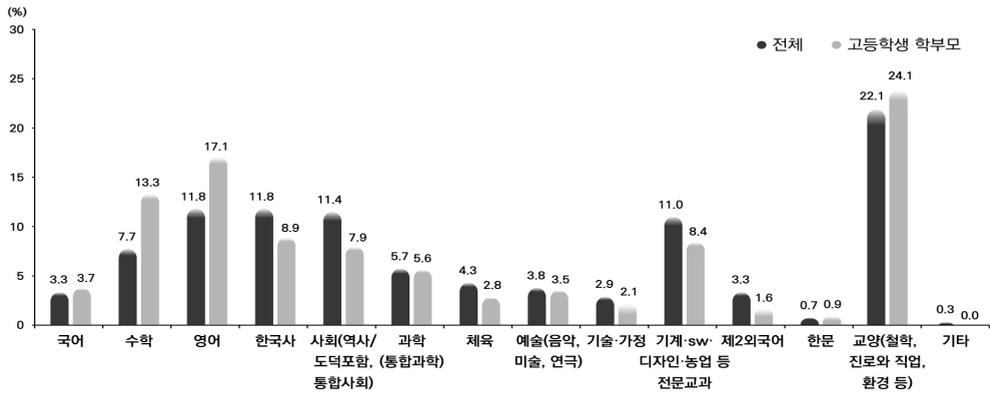
현재보다 중시해야 할 교과	2020						2019			2018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	중	고	초	중	고
	전체	초등 학생 학부모	전체	중학생 학부모	전체	고등 학생 학부모	전체			전체		
국어	865 (17.3)	105 (20.0)	208 (4.2)	16 (4.7)	166 (3.3)	16 (3.7)	618 (15.5)	153 (3.8)	116 (2.9)	279 (14.0)	94 (4.7)	60 (3.0)
수학	182 (3.6)	29 (5.5)	425 (8.5)	35 (10.2)	385 (7.7)	57 (13.3)	148 (3.7)	303 (7.6)	260 (6.5)	76 (3.8)	145 (7.3)	129 (6.5)
영어	292 (5.8)	52 (9.9)	515 (10.3)	53 (15.5)	588 (11.8)	73 (17.1)	299 (7.5)	463 (11.6)	507 (12.7)	139 (7.0)	215 (10.8)	241 (12.1)
한국사	534 (10.7)	55 (10.5)	779 (15.6)	42 (12.3)	588 (11.8)	38 (8.9)	563 (14.1)	849 (21.2)	628 (15.7)	166 (8.3)	286 (14.3)	233 (11.7)
사회(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	1,177 (23.5)	110 (20.9)	1,047 (20.9)	58 (17.0)	572 (11.4)	34 (7.9)	978 (24.5)	847 (21.2)	486 (12.2)	492 (24.6)	396 (19.8)	239 (12.0)
과학 (통합과학)	235 (4.7)	29 (5.5)	336 (6.7)	25 (7.3)	286 (5.7)	24 (5.6)	144 (3.6)	236 (5.9)	266 (6.7)	34 (1.7)	72 (3.6)	68 (3.4)
체육	528 (10.6)	56 (10.6)	275 (5.5)	14 (4.1)	214 (4.3)	12 (2.8)	407 (10.2)	209 (5.2)	133 (3.3)	260 (13.0)	136 (6.8)	80 (4.0)
예술 (음악/미술/연극)	576 (11.5)	46 (8.7)	270 (5.4)	17 (5.0)	188 (3.8)	15 (3.5)	440 (11.0)	183 (4.6)	129 (3.2)	209 (10.5)	133 (6.7)	66 (3.3)
기술·가정	82 (1.6)	8 (1.5)	111 (2.2)	8 (2.3)	143 (2.9)	9 (2.1)	42 (1.1)	71 (1.8)	61 (1.5)	38 (1.9)	51 (2.6)	55 (2.8)
기계·SW·디자인·농업 등 전문교과	73 (1.5)	7 (1.3)	220 (4.4)	6 (1.8)	548 (11.0)	36 (8.4)	55 (1.4)	145 (3.6)	409 (10.2)	78 (3.9)	109 (5.5)	121 (6.1)
제2외국어	50 (1.0)	3 (0.6)	131 (2.6)	8 (2.3)	166 (3.3)	7 (1.6)	48 (1.2)	121 (3.0)	183 (4.6)	33 (1.7)	61 (3.1)	85 (4.3)
한문	24 (0.5)	1 (0.2)	45 (0.9)	8 (2.3)	36 (0.7)	4 (0.9)	25 (0.6)	39 (1.0)	29 (0.7)	18 (0.9)	11 (0.6)	13 (0.7)
교양(철학, 진로와 직업, 환경 등)	367 (7.3)	25 (4.8)	625 (12.5)	52 (15.2)	1,105 (22.1)	103 (24.1)	226 (5.7)	377 (9.4)	787 (19.7)	167 (8.4)	285 (14.3)	601 (30.1)
기타	15 (0.3)	0 (0.0)	13 (0.3)	0 (0.0)	15 (0.3)	0 (0.0)	7 (0.2)	4 (0.1)	6 (0.2)	11 (0.6)	6 (0.3)	9 (0.5)
계	5,000 (100.0)	526 (100.0)	5,000 (100.0)	342 (100.0)	5,000 (100.0)	428 (100.0)	4,000 (100.0)	4,000 (100.0)	4,000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그림 III-55] 초등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 할 교과(2020)



[그림 III-56] 중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할 교과(2020)



[그림 III-57] 고등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할 교과(2020)

3)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할 교육

〈질문〉 초·중·고등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교육내용은 무엇인지 보기 중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을 선택하여 주십시오(학교급별 동일항목 선택 가능).

이번 조사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선택지로 추가하였다. 초등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교육내용으로 전체 응답자는 인성교육(43.7%)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창의성교육(18.6%), 성교육(6.8%), 안전교육(5.8%), 특기·적성교육(4.8%), 민주시민교육(4.5%), 세계시민교육(4.2%), 진로교육(3.1%), 직업교육(3.1%), 환경교육(2.3%), 정보소양교육(1.3%), 융합교육(1.0%), 평화통일교육(0.5%),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0.3%), 기타(0.1%) 순으로 응답하였다. 초등학생 학부모 응답자는 인성교육(38.2%), 창의성교육(24.0%), 안전교육(5.9%), 민주시민교육(5.7%), 특기·적성교육(5.7%)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 문항의 경우도 지난 13~14차 조사(2018~2019년)의 결과와 유사한 응답 경향을 나타내었고, 학교급에 따라 상이한 응답결과를 보이는 경향도 지난 결과들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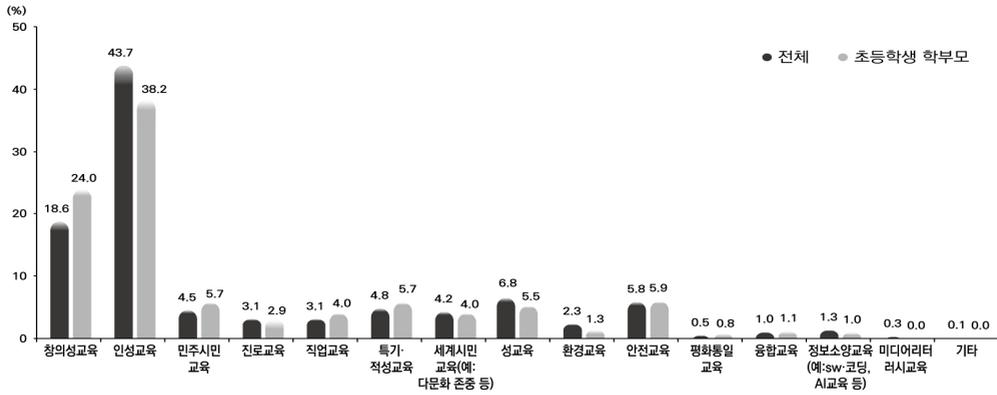
중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교육내용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경우 인성교육(35.6%), 성교육(11.3%), 특기·적성교육(10.3%), 창의성교육(9.7%), 민주시민교육(8.4%), 진로교육(6.8%), 세계시민교육(4.5%), 직업교육(3.4%), 정보소양교육(3.0%), 환경교육(2.5%), 안전교육(2.0%), 융합교육(1.3%), 평화통일교육(0.7%),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0.4%), 기타(0.1%) 순으로 응답하였고, 중학교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에도 인성교육(32.5%)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다음으로는 특기·적성교육(11.7%), 진로교육(10.8%), 창의성교육(9.9%)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고등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교육내용으로 전체 응답자는 여전히 진로교육(22.2%)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인성교육(18.7%), 특기·적성교육(11.6%), 민주시민교육(8.1%), 직업교육(7.2%), 성교육(6.5%), 창의성교육(5.2%), 정보소양교육(4.9%), 융합교육(4.3%), 세계시민교육(3.9%), 환경교육(2.9%), 안전교육(2.3%), 평화통일교육(1.4%),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0.7%), 기타(0.1%) 순으로 응답하였다. 고등학교 학부모의 경우에도 진로교육(28.0%), 인성교육(17.1%), 특기·적성교육(9.6%), 민주시민교육(7.9%) 등의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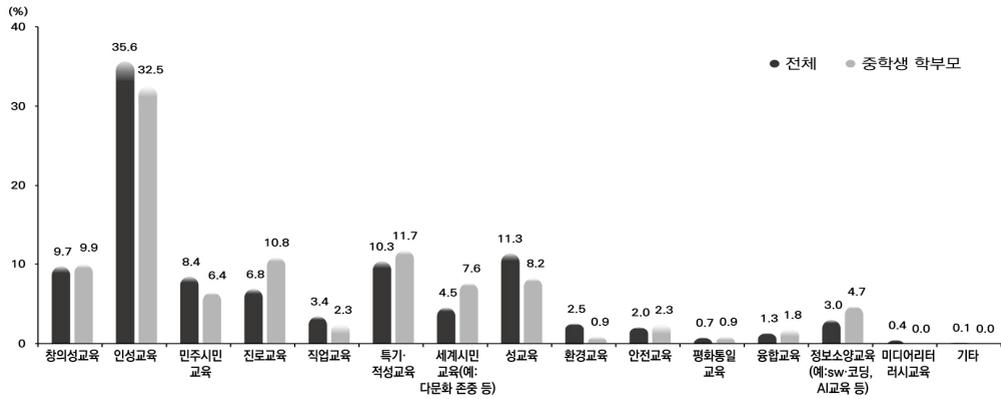
〈표 III-31〉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할 교육내용(2018~2020)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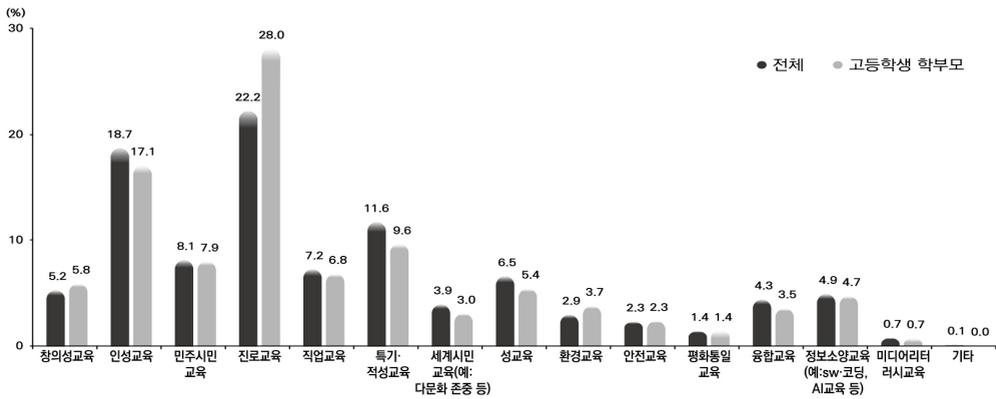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할 교육내용	2020						2019			2018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	중	고	초	중	고
	전체	초등학생 학부모	전체	중학생 학부모	전체	고등학생 학부모	전체					
창의성교육	932 (18.6)	126 (24.0)	484 (9.7)	34 (9.9)	261 (5.2)	25 (5.8)	851 (21.3)	464 (11.6)	234 (5.9)	320 (16.0)	240 (12.0)	118 (5.9)
인성교육	2,187 (43.7)	201 (38.2)	1,779 (35.6)	111 (32.5)	934 (18.7)	73 (17.1)	1,889 (47.2)	1,558 (39.0)	836 (20.9)	919 (46.0)	798 (39.9)	495 (24.8)
민주시민교육	225 (4.5)	30 (5.7)	419 (8.4)	22 (6.4)	403 (8.1)	34 (7.9)	175 (4.4)	361 (9.0)	356 (8.9)	114 (5.7)	178 (8.9)	133 (6.7)
진로교육	154 (3.1)	15 (2.9)	342 (6.8)	37 (10.8)	1,109 (22.2)	120 (28.0)	125 (3.1)	242 (6.1)	923 (23.1)	26 (1.3)	112 (5.6)	529 (26.5)
직업교육	154 (3.1)	21 (4.0)	170 (3.4)	8 (2.3)	360 (7.2)	29 (6.8)	115 (2.9)	136 (3.4)	347 (8.7)	-	-	-
특기·적성 교육	238 (4.8)	30 (5.7)	516 (10.3)	40 (11.7)	582 (11.6)	41 (9.6)	148 (3.7)	389 (9.7)	486 (12.2)	165 (8.3)	206 (10.3)	309 (15.5)
세계시민교육 (예: 다문화 존중 등)	212 (4.2)	21 (4.0)	225 (4.5)	26 (7.6)	194 (3.9)	13 (3.0)	194 (4.9)	182 (4.6)	170 (4.3)	60 (3.0)	60 (3.0)	87 (4.4)
성교육	339 (6.8)	29 (5.5)	565 (11.3)	28 (8.2)	327 (6.5)	23 (5.4)	184 (4.6)	408 (10.2)	251 (6.3)	162 (8.1)	288 (14.4)	188 (9.4)
환경교육	114 (2.3)	7 (1.3)	125 (2.5)	3 (0.9)	146 (2.9)	16 (3.7)	50 (1.3)	77 (1.9)	64 (1.6)	42 (2.1)	29 (1.5)	33 (1.7)
안전교육	291 (5.8)	31 (5.9)	101 (2.0)	8 (2.3)	113 (2.3)	10 (2.3)	193 (4.8)	56 (1.4)	52 (1.3)	166 (8.3)	46 (2.3)	43 (2.2)
평화통일교육	23 (0.5)	4 (0.8)	36 (0.7)	3 (0.9)	69 (1.4)	6 (1.4)	14 (0.4)	18 (0.5)	39 (1.0)	6 (0.3)	6 (0.3)	21 (1.1)
융합교육	49 (1.0)	6 (1.1)	65 (1.3)	6 (1.8)	217 (4.3)	15 (3.5)	24 (0.6)	40 (1.0)	128 (3.2)	-	-	-
정보소양교육 (예: SW·코딩 AI 교육 등)	65 (1.3)	5 (1.0)	148 (3.0)	16 (4.7)	243 (4.9)	20 (4.7)	34 (0.9)	65 (1.6)	109 (2.7)	19 (1.0)	36 (1.8)	44 (2.2)
미디어 리터 러시 교육	14 (0.3)	0 (0.0)	21 (0.4)	0 (0.0)	37 (0.7)	3 (0.7)	-	-	-	-	-	-
기타	3 (0.1)	0 (0.0)	4 (0.1)	0 (0.0)	5 (0.1)	0 (0.0)	4 (0.1)	4 (0.1)	5 (0.1)	1 (0.1)	1 (0.1)	0 (0.0)
계	5,000 (100.0)	526 (100.0)	5,000 (100.0)	342 (100.0)	5,000 (100.0)	428 (100.0)	4,000 (100.0)	4,000 (100.0)	4,000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그림 III-58] 초등학교에서 강화되어야 할 교육내용(2020)



[그림 III-59] 중학교에서 강화되어야 할 교육내용(2020)



[그림 III-60] 고등학교에서 강화되어야 할 교육내용(2020)

4) 미래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

〈질문〉 미래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학생들은 다양한 핵심 역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 선택하여 주십시오(학교급별 동일항목 선택 가능).

미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으로 전체 응답자는 지난 14차 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자기관리역량(27.9%)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창의적 사고 역량(25.0%), 의사소통 역량(14.7%), 공동체 역량(13.1%), 심미적 감성 역량(10.7%), 지식정보처리 역량(8.5%), 기타(0.0%) 순으로 응답하였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창의적 사고 역량(28.4%), 자기관리역량(26.8%), 의사소통 역량(14.3%), 공동체 역량(11.6%), 지식정보처리 역량(10.3%), 심미적 감성 역량(8.7%), 기타(0.0%)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급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미래사회에 살아가야 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으로 전체 응답자는 창의적 사고 역량(27.4%), 의사소통 역량(22.5%), 자기관리 역량(13.7%), 심미적 감성 역량(13.3%), 공동체 역량(12.6%), 지식정보처리 역량(10.5%) 순으로 응답하였고, 초등학생 학부모 응답자는 창의적 사고 역량(30.4%), 의사소통 역량(18.6%), 자기관리 역량(15.4%), 지식정보처리 역량(14.3%), 심미적 감성 역량(11.8%), 공동체 역량(9.5%), 기타(0.0%)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미래 중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경우 창의적 사고 역량(21.8%), 자기관리 역량(19.7%), 의사소통 역량(17.9%), 지식정보처리 역량(15.4%), 심미적 감성 역량(13.5%), 공동체 역량(11.6%), 기타(0.0%) 순으로 응답하였고, 중학교 학부모 응답자는 창의적 사고 역량(22.2%), 자기관리 역량(21.3%), 지식정보처리 역량(18.4%), 의사소통 역량(16.4%), 심미적 감성 역량(11.7%), 공동체 역량(9.9%), 기타(0.0%)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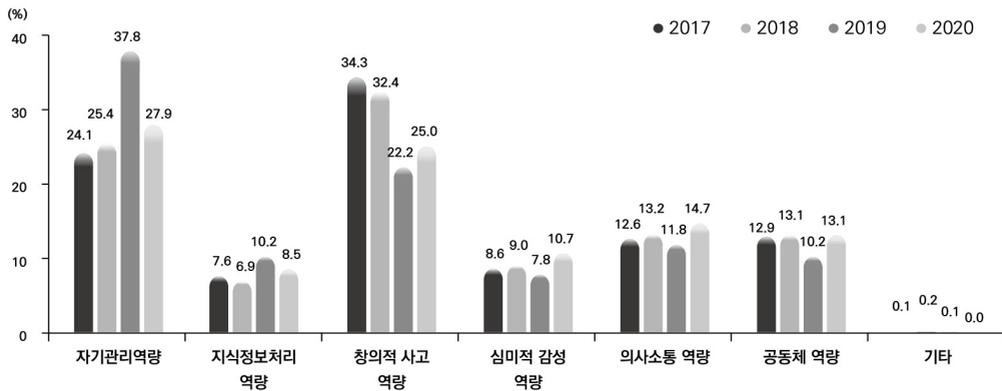
미래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에 대해 전체 응답자는 자기관리 역량(24.2%), 지식정보처리 역량(22.0%), 공동체 역량(15.9%), 창의적 사고 역량(15.3%), 의사소통 역량(13.3%), 심미적 감성 역량(9.3%), 기타(0.0%)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고등학생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 자기관리 역량(25.5%), 지식

정보처리 역량(22.9%), 창의적 사고 역량(14.5%), 공동체 역량(13.6%), 의사소통 역량(13.1%), 심미적 감성 역량(10.5%), 기타(0.0%)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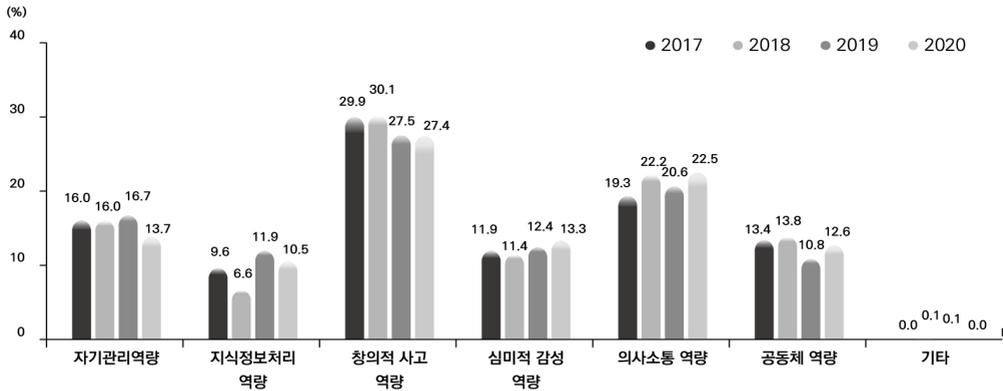
〈표 Ⅲ-32〉 미래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2017~2020)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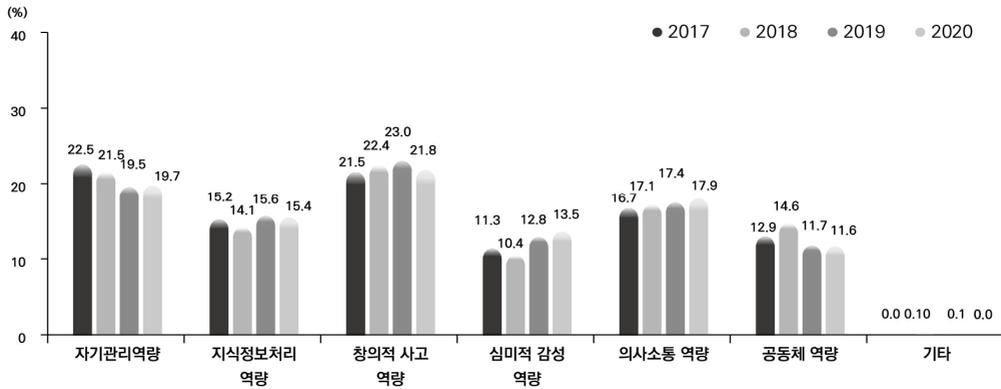
미래 학생 에게 우선 길러주어 야 할 역량	2020								2019				2018			
	초·중·고 전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반	초	중	고	전반	초	중	고
	전체	초·중· 고 학부모	전체	초등 학생 학부모	전체	중학생 학부모	전체	고등 학생 학부모	전체				전체			
									전체	초	중	고	전체	초	중	고
자기관리 역량	1,396 (27.9)	278 (26.8)	687 (13.7)	81 (15.4)	986 (19.7)	73 (21.3)	1,210 (24.2)	109 (25.5)	1,511 (37.8)	668 (16.7)	778 (19.5)	904 (22.6)	507 (25.4)	320 (16.0)	429 (21.5)	519 (26.0)
지식정보처 리 역량	426 (8.5)	107 (10.3)	523 (10.5)	75 (14.3)	769 (15.4)	63 (18.4)	1,098 (22.0)	98 (22.9)	406 (10.2)	477 (11.9)	622 (15.6)	859 (21.5)	137 (6.9)	131 (6.6)	281 (14.1)	401 (20.1)
창의적 사고 역량	1,252 (25.0)	294 (28.4)	1,369 (27.4)	160 (30.4)	1,090 (21.8)	76 (22.2)	767 (15.3)	62 (14.5)	886 (22.2)	1,099 (27.5)	920 (23.0)	645 (16.1)	648 (32.4)	601 (30.1)	447 (22.4)	347 (17.4)
심미적 감성 역량	534 (10.7)	90 (8.7)	664 (13.3)	62 (11.8)	677 (13.5)	40 (11.7)	465 (9.3)	45 (10.5)	313 (7.8)	495 (12.4)	511 (12.8)	372 (9.3)	180 (9.0)	228 (11.4)	208 (10.4)	126 (6.3)
의사소통 역량	734 (14.7)	148 (14.3)	1,124 (22.5)	98 (18.6)	897 (17.9)	56 (16.4)	664 (13.3)	56 (13.1)	472 (11.8)	825 (20.6)	697 (17.4)	519 (13.0)	264 (13.2)	444 (22.2)	342 (17.1)	243 (12.2)
공동체 역량	656 (13.1)	120 (11.6)	632 (12.6)	50 (9.5)	580 (11.6)	34 (9.9)	795 (15.9)	58 (13.6)	409 (10.2)	433 (10.8)	469 (11.7)	697 (17.4)	261 (13.1)	275 (13.8)	291 (14.6)	362 (18.1)
기타	2 (0.0)	0 (0.0)	1 (0.0)	0 (0.0)	1 (0.0)	0 (0.0)	1 (0.0)	0 (0.0)	3 (0.1)	3 (0.1)	3 (0.1)	4 (0.1)	3 (0.2)	1 (0.1)	2 (0.1)	2 (0.1)
계	5,000 (100.0)	1,037 (100.0)	5,000 (100.0)	526 (100.0)	5,000 (100.0)	342 (100.0)	5,000 (100.0)	428 (100.0)	4,000 (100.0)	4,000 (100.0)	4,000 (100.0)	4,000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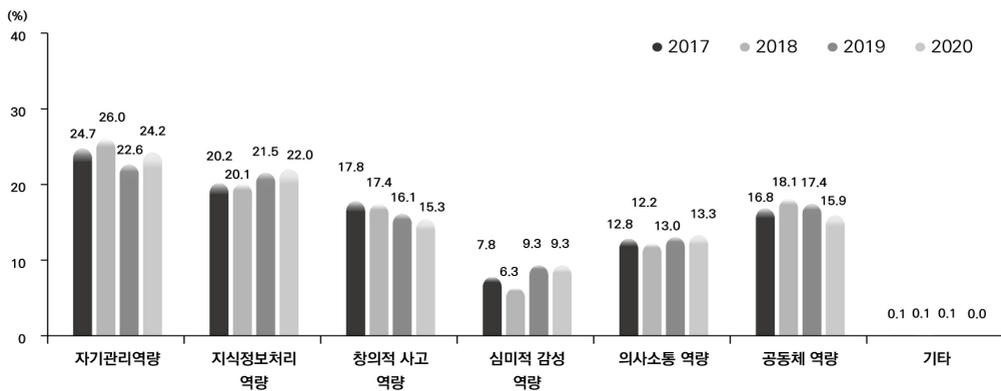
[그림 Ⅲ-61] 미래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전반, 2017~2020)



[그림 III-62] 미래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초등학교, 2017~2020)



[그림 III-63] 미래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중학교, 2017~2020)



[그림 III-64] 미래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고등학교, 2017~2020)

5) 온라인 교육의 수업이수 인정 여부

〈질문〉 학교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수업이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항은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이번 조사에 신규 문항으로 포함되었다. 학교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수업이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전체 응답자는 찬성한다 47.0%, 반대한다 33.0%, 잘 모르겠다 20.0% 순으로 응답하였고,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도 찬성한다 49.2%, 반대한다 35.5%, 잘 모르겠다 15.3%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급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수업이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전체 응답자는 반대한다 45.3%, 찬성한다 40.5%, 잘 모르겠다 14.2%로 응답하여 반대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초등학생 학부모는 찬성한다 46.2%, 반대한다 45.1%, 잘 모르겠다 8.7%로, 전체 응답자와는 달리 찬성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으며,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반대한다 47.6%, 찬성한다 43.8%, 잘 모르겠다 8.6% 순으로 전체 응답자와 같이 반대한다는 의견의 응답률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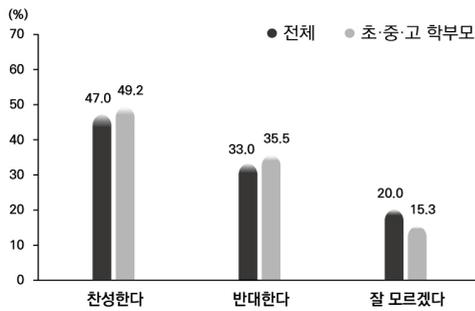
중학교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수업이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경우 찬성한다 43.7%, 반대한다 39.8%, 잘 모르겠다 16.5% 순으로, 초등학교와 달리 찬성한다는 의견이 더 높았고, 중학생 학부모 응답자도 찬성한다 47.7%, 반대한다 38.0%, 잘 모르겠다 14.3% 순으로 응답하여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그러나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반대한다 44.9%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찬성한다 42.9%, 잘 모르겠다 12.2% 순이었다.

고등학교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수업이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는 찬성한다 46.4%, 반대한다 37.4%, 잘 모르겠다 16.2%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았으나, 고등학생 학부모의 경우는 찬성한다 44.6%, 반대한다 44.2%, 잘 모르겠다 11.2%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양분되어 나타났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도 찬성한다 44.3%, 반대한다 43.2%, 잘 모르겠다 12.5%로 찬성의견이 근소한 차이로 높았지만 반대의견 또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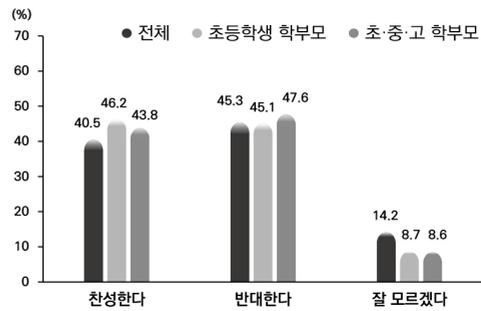
〈표 III-33〉 온라인 교육의 수업이수 인정에 대한 의견(2020)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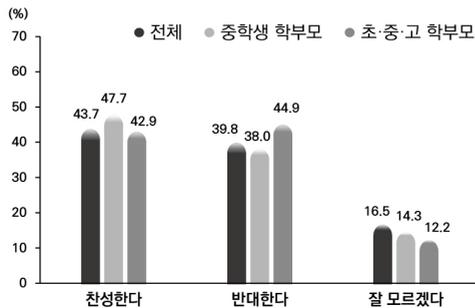
온라인 교육의 수업이수 인정 여부	2020										
	초·중·고 전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등학생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전체	중학생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전체	고등학생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찬성한다	2,349 (47.0)	510 (49.2)	2,023 (40.5)	243 (46.2)	454 (43.8)	2,185 (43.7)	163 (47.7)	445 (42.9)	2,319 (46.4)	191 (44.6)	459 (44.3)
반대한다	1,652 (33.0)	368 (35.5)	2,267 (45.3)	237 (45.1)	494 (47.6)	1,989 (39.8)	130 (38.0)	466 (44.9)	1,870 (37.4)	189 (44.2)	448 (43.2)
잘 모르겠다	999 (20.0)	159 (15.3)	710 (14.2)	46 (8.7)	89 (8.6)	826 (16.5)	49 (14.3)	126 (12.2)	811 (16.2)	48 (11.2)	130 (12.5)
계	5,000 (100.0)	1,037 (100.0)	5,000 (100.0)	526 (100.0)	1,037 (100.0)	5,000 (100.0)	342 (100.0)	1,037 (100.0)	5,000 (100.0)	428 (100.0)	1,03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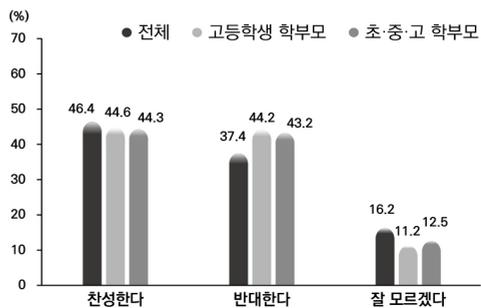
[그림 III-65] 온라인 교육의 수업이수 인정에 대한 의견(초·중·고 전반, 2020)



[그림 III-66] 온라인 교육의 수업이수 인정에 대한 의견(초등학교, 2020)



[그림 III-67] 온라인 교육의 수업이수 인정에 대한 의견(중학교, 2020)



[그림 III-68] 온라인 교육의 수업이수 인정에 대한 의견(고등학교, 2020)

5-1) 수업이수 인정 온라인 교육의 운영 형태

〈질문〉 (온라인교육의 수업이수 인정을 찬성한다면) 수업이수로 인정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의 운영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항은 이번 조사의 신규 문항으로 포함된 온라인 교육의 수업이수 인정 여부 문항의 추가 문항으로 포함되었다. 온라인교육의 수업이수 인정을 찬성한다면 수업이수로 인정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의 운영 형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는 화상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면대면 교수-학습활동이 가능해야 인정할 수 있다(44.7%), 어느 정도 오프라인 상(등교수업)에서의 활동이 포함되어야 인정할 수 있다(33.0%), 비실시간 강의형 콘텐츠 및 온라인 상 활동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20.1%), 잘 모르겠다(2.1%) 순으로 응답하였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도 화상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면대면 교수-학습활동이 가능해야 인정할 수 있다(42.9%), 어느 정도 오프라인 상(등교수업)에서의 활동이 포함되어야 인정할 수 있다(35.7%), 비실시간 강의형 콘텐츠 및 온라인 상 활동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19.8%), 잘 모르겠다(1.6%) 순으로 응답하였다.

초등학교에서의 수업이수로 인정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의 운영 형태에 대해 전체 응답자는 화상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면대면 교수-학습활동이 가능해야 인정할 수 있다(42.1%), 어느 정도 오프라인 상(등교수업)에서의 활동이 포함되어야 인정할 수 있다(33.5%), 비실시간 강의형 콘텐츠 및 온라인 상 활동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22.4%), 잘 모르겠다(2.0%) 순으로 응답한 반면, 초등학생 학부모는 어느 정도 오프라인 상(등교수업)에서의 활동이 포함되어야 인정할 수 있다(40.3%)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화상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면대면 교수-학습활동이 가능해야 인정할 수 있다(32.5%), 비실시간 강의형 콘텐츠 및 온라인 상 활동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24.3%), 잘 모르겠다(2.9%) 순으로 응답하였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화상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면대면 교수-학습활동이 가능해야 인정할 수 있다(39.9%), 어느 정도 오프라인 상(등교수업)에서의 활동이 포함되어야 인정할 수 있다(35.5%), 비실시간 강의형 콘텐츠 및 온라인 상 활동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22.9%), 잘 모르겠다(1.8%)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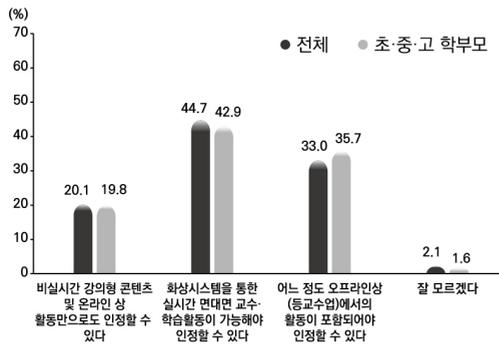
중학교에서의 수업이수로 인정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의 운영 형태는 전체 응답자의 경우 화상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면대면 교수-학습활동이 가능해야 인정할 수 있다(41.7%), 어느 정도 오프라인 상(등교수업)에서의 활동이 포함되어야 인정할 수 있다(39.2%), 비실시간 강의형 콘텐츠 및 온라인 상 활동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16.6%), 잘 모르겠다(2.5%) 순으로 응답하였고, 중학생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도 화상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면대면 교수-학습활동이 가능해야 인정할 수 있다(44.2%), 어느 정도 오프라인 상(등교수업)에서의 활동이 포함되어야 인정할 수 있다(37.4%), 비실시간 강의형 콘텐츠 및 온라인 상 활동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16.6%), 잘 모르겠다(1.8%)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 또한, 화상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면대면 교수-학습활동이 가능해야 인정할 수 있다(41.1%), 어느 정도 오프라인 상(등교수업)에서의 활동이 포함되어야 인정할 수 있다(40.4%), 비실시간 강의형 콘텐츠 및 온라인 상 활동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16.2%), 잘 모르겠다(2.2%) 순으로 응답하였다.

고등학교에서의 수업이수로 인정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의 운영 형태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경우 초·중학교와 달리 어느 정도 오프라인 상(등교수업)에서의 활동이 포함되어야 인정할 수 있다(41.0%)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화상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면대면 교수-학습활동이 가능해야 인정할 수 있다(36.0%), 비실시간 강의형 콘텐츠 및 온라인 상 활동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18.6%), 잘 모르겠다(4.4%) 순으로 응답하였다. 고등학생 학부모 응답자도 어느 정도 오프라인 상(등교수업)에서의 활동이 포함되어야 인정할 수 있다(43.5%)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화상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면대면 교수-학습활동이 가능해야 인정할 수 있다(39.3%), 비실시간 강의형 콘텐츠 및 온라인 상 활동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15.2%), 잘 모르겠다(2.1%) 순으로 응답하였고,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 또한, 어느 정도 오프라인 상(등교수업)에서의 활동이 포함되어야 인정할 수 있다(39.4%), 화상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면대면 교수-학습활동이 가능해야 인정할 수 있다(36.4%), 비실시간 강의형 콘텐츠 및 온라인 상 활동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19.2%), 잘 모르겠다(5.0%)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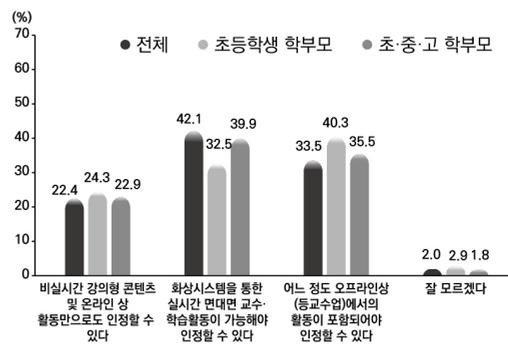
〈표 Ⅲ-33-1〉 수업이수로 인정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의 운영 형태 (2020)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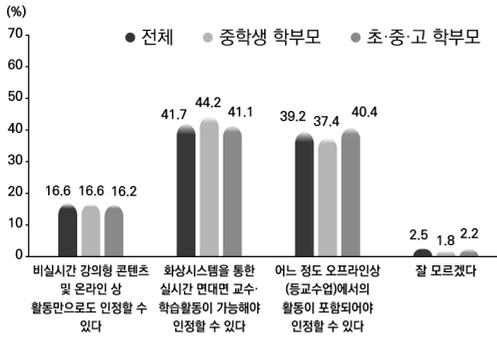
수업이수로 인정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의 운영 형태	2020										
	초·중·고 전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등학생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전체	중학생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전체	고등학생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비실시간 강의형 콘텐츠 및 온라인상 활동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	473 (20.1)	101 (19.8)	453 (22.4)	59 (24.3)	104 (22.9)	363 (16.6)	27 (16.6)	72 (16.2)	432 (18.6)	29 (15.2)	88 (19.2)
화상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면대면교수-학습활동이 가능해야 인정할 수 있다	1,051 (44.7)	219 (42.9)	851 (42.1)	79 (32.5)	181 (39.9)	911 (41.7)	72 (44.2)	183 (41.1)	835 (36.0)	75 (39.3)	167 (36.4)
어느 정도 오프라인 상(등교수업)에서의 활동이 포함되어야 인정할 수 있다	775 (33.0)	182 (35.7)	678 (33.5)	98 (40.3)	161 (35.5)	856 (39.2)	61 (37.4)	180 (40.4)	950 (41.0)	83 (43.5)	181 (39.4)
잘 모르겠다	50 (2.1)	8 (1.6)	41 (2.0)	7 (2.9)	8 (1.8)	55 (2.5)	3 (1.8)	10 (2.2)	102 (4.4)	4 (2.1)	23 (5.0)
계	2,349 (100.0)	510 (100.0)	2,023 (100.0)	243 (100.0)	454 (100.0)	2,185 (100.0)	163 (100.0)	445 (100.0)	2,319 (100.0)	191 (100.0)	45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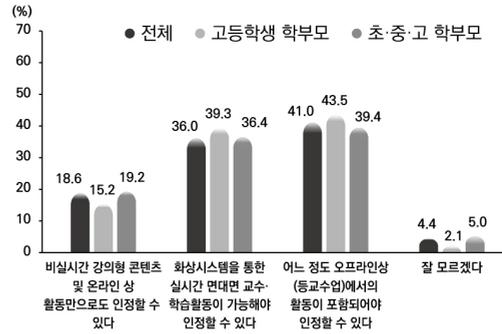
[그림 Ⅲ-69] 수업이수로 인정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의 운영 형태(초·중·고 전반, 2020)



[그림 Ⅲ-70] 수업이수로 인정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의 운영 형태(초등학교, 2020)



[그림 Ⅲ-71] 수업이수로 인정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의 운영 형태(중학교, 2020)



[그림 Ⅲ-72] 수업이수로 인정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의 운영 형태(고등학교, 2020)

5 고교정책 및 대입

요약

- 현 정부의 고등학교 관련 교육정책 중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제 개편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각각 60.6%, 46.6%, 73.4%)는 의견이 높았고(평균 각각 3.66, 3.34, 3.94/5점 만점), 고교 학점제 도입에 대해서는 보통이다(44.6%)의 응답률이 여전히 높음(평균 3.28).
- 고교학점제 도입 및 단계적 확산을 위해 고등학교 교육에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순위 과제로 수업 및 평가 개선(성취평가제, 과점중심평가 등)(25.6%), 학생의 진로 및 학업 설계 역량 강화(25.6%), 다양한 과목 선택 및 이수 기회 제공(24.8%)을 꼽음.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 비중에 대해서는 과반이 낮으므로 더 높여야 한다(52.5%)는 의견을 선택함.
-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할 항목으로 여전히 대학수학능력시험(30.0%)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인성 및 봉사활동(24.2%), 특기·적성(23.5%), 고교 내신(13.4%) 순으로 응답함. 대학 진학을 위한 경쟁 전망에 대해서도 여전히 46.4%가 완화되거나 일류대 위주의 입시경쟁은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을 선택함(현재와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30.1%, 전반적으로 심화될 것이다 12.6%,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이다 6.9%, 잘 모르겠다 3.9%).

1) 현 정부 고등학교 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질문〉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등학교 관련 교육정책입니다. 각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15차 조사에서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정책을 추가하여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4개의 고등학교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교 무상 교육 전면 실시에 대해 전체 응답자는 찬성한다(매우 찬성한다+찬성한다) 60.6%, 보통이다 28.7%, 반대한다(반대한다+매우 반대한다) 10.7%로 과반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으며(평균 3.66/5점 만점), 지난 12~14차 조사(2017~2019년) 결과와 유사한 응답 경향을 보였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73.5%였고, 다음으로 보통이다 20.1%, 반대한다 6.5%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평균 3.96)

고교학점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경우 찬성한다 39.5%, 보통이다 44.6%, 반대한다 15.9%로 여전히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나(평균 3.28),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찬성한다 46.1%, 보통이다 38.7%, 반대한다 15.2%로 전체 응답자와는 달리 찬성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3.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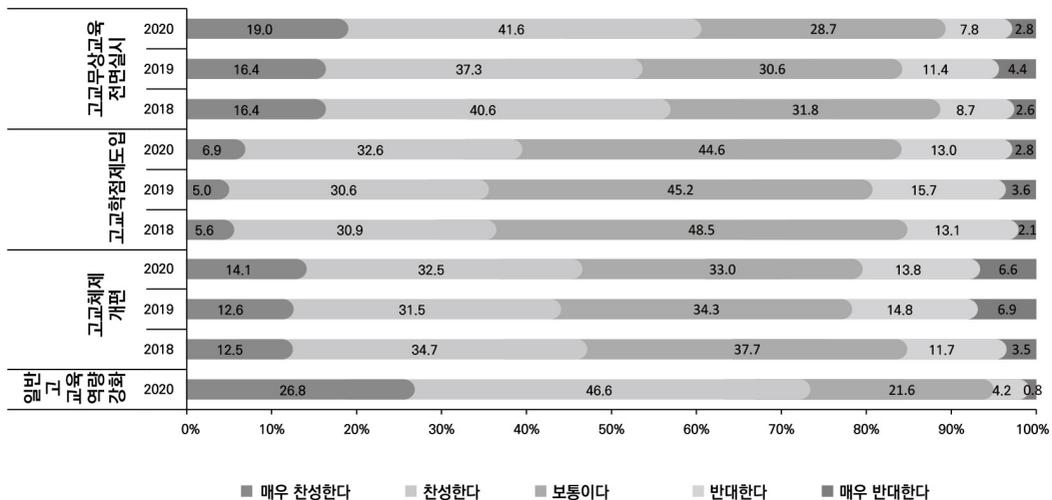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경우 찬성한다 46.6%, 보통이다 33.0%, 반대한다 20.4% 순으로 찬성의견이 많았고(평균 3.34), 초·중·고 학부모 또한, 찬성한다 55.5%, 보통이다 27.6%, 반대한다 16.9%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3.52).

새롭게 추가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경우 찬성한다 73.4%, 보통이다 21.6%, 반대한다 5.0%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70%를 상회하였고(평균 3.94),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80.3%가 찬성한다를 선택하였다(보통이다 15.9%, 반대한다 3.8%, 평균 4.11).

〈표 III-34〉 현 정부의 고등학교 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2018~2020)

(단위: 명(%))

고등학교 관련 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2021년 완성)				고교학점제 도입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제 개편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2020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전체	초·중 ·고 학부모	전체		전체	초·중 ·고 학부모	전체		전체	초·중 ·고 학부모	전체		전체	초·중 ·고 학부모
매우 찬성한다	951 (19.0)	314 (30.3)	654 (16.4)	327 (16.4)	345 (6.9)	95 (9.2)	201 (5.0)	111 (5.6)	706 (14.1)	191 (18.4)	504 (12.6)	250 (12.5)	1,342 (26.8)	369 (35.6)
찬성한다	2,078 (41.6)	448 (43.2)	1,492 (37.3)	812 (40.6)	1,630 (32.6)	383 (36.9)	1,223 (30.6)	617 (30.9)	1,623 (32.5)	385 (37.1)	1,258 (31.5)	694 (34.7)	2,328 (46.6)	464 (44.7)
보통이다	1,437 (28.7)	208 (20.1)	1,225 (30.6)	636 (31.8)	2,232 (44.6)	401 (38.7)	1,806 (45.2)	969 (48.5)	1,649 (33.0)	286 (27.6)	1,371 (34.3)	753 (37.7)	1,078 (21.6)	165 (15.9)
반대한다	392 (7.8)	49 (4.7)	454 (11.4)	173 (8.7)	652 (13.0)	128 (12.3)	627 (15.7)	261 (13.1)	691 (13.8)	123 (11.9)	592 (14.8)	234 (11.7)	211 (4.2)	31 (3.0)
매우 반대 한다	142 (2.8)	18 (1.7)	175 (4.4)	52 (2.6)	141 (2.8)	30 (2.9)	143 (3.6)	42 (2.1)	331 (6.6)	52 (5.0)	275 (6.9)	69 (3.5)	41 (0.8)	8 (0.8)
계	5,000 (100.0)	1,037 (100.0)	4,000 (100.0)	2,000 (100.0)	5,000 (100.0)	1,037 (100.0)	4,000 (100.0)	2,000 (100.0)	5,000 (100.0)	1,037 (100.0)	4,000 (100.0)	2,000 (100.0)	5,000 (100.0)	1,037 (100.0)
평균 (표준편차)	3.66 (0.97)	3.96 (0.92)	3.50 (1.03)	3.59 (0.95)	3.28 (0.88)	3.37 (0.92)	3.18 (0.88)	3.24 (0.83)	3.34 (1.09)	3.52 (1.08)	3.28 (1.08)	3.41 (0.97)	3.94 (0.85)	4.11 (0.83)



[그림 III-73] 현 정부의 고등학교 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전체, 2018~2020)

2) 고교교육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

〈질문〉 고교학점제 도입 및 단계적 확산을 위해 고등학교 교육에서 앞으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를 순위대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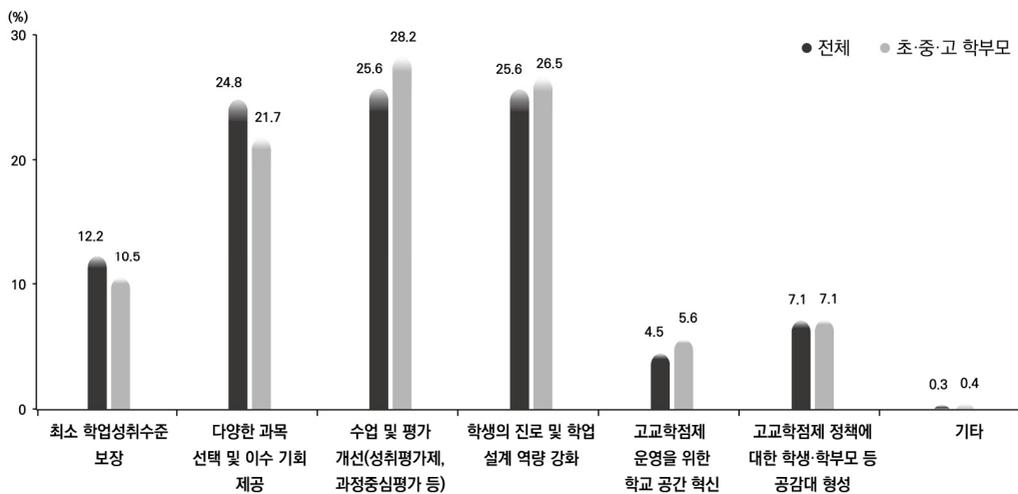
이 문항은 2025년 완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질문으로 이번 15차 조사에 신규 문항으로 포함되었다. 고교학점제 도입 및 단계적 확산을 위해 고등학교 교육에서 앞으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 전체 응답자는 1순위로 수업 및 평가 개선(성취평가제, 과정중심평가 등)(25.6%), 학생의 진로 및 학업 설계 역량 강화(25.6%), 다양한 과목 선택 및 이수 기회 제공(24.8%),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12.2%), 고교학점제 정책에 대한 학생·학부모 등 공감대 형성(7.1%),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학교공간 혁신(4.5%), 기타(0.3%) 순으로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가 1+2순위로 선택한 과제는 학생의 진로 및 학업 설계 역량 강화(26.4%), 다양한 과목 선택 및 이수 기회 제공(23.8%), 수업 및 평가 개선(성취평가제, 과정중심평가 등)(23.0%),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9.8%), 고교학점제 정책에 대한 학생·학부모 등 공감대 형성(8.5%),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학교공간 혁신(8.4%), 기타(0.1%) 순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고등학교 교육에서 앞으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순위 과제로 수업 및 평가 개선(성취평가제, 과정중심평가 등)(28.2%), 학생의 진로 및 학업 설계 역량 강화(26.5%), 다양한 과목 선택 및 이수 기회 제공(21.7%),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10.5%), 고교학점제 정책에 대한 학생·학부모 등 공감대 형성(7.1%),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학교공간 혁신(5.6%), 기타(0.4%) 순으로 응답하였고, 1+2순위 과제로는 학생의 진로 및 학업 설계 역량 강화(26.1%), 수업 및 평가 개선(성취평가제, 과정중심평가 등)(23.8%), 다양한 과목 선택 및 이수 기회 제공(22.7%),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학교공간 혁신(9.5%),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9.0%), 고교학점제 정책에 대한 학생·학부모 등 공감대 형성(8.6%), 기타(0.2%)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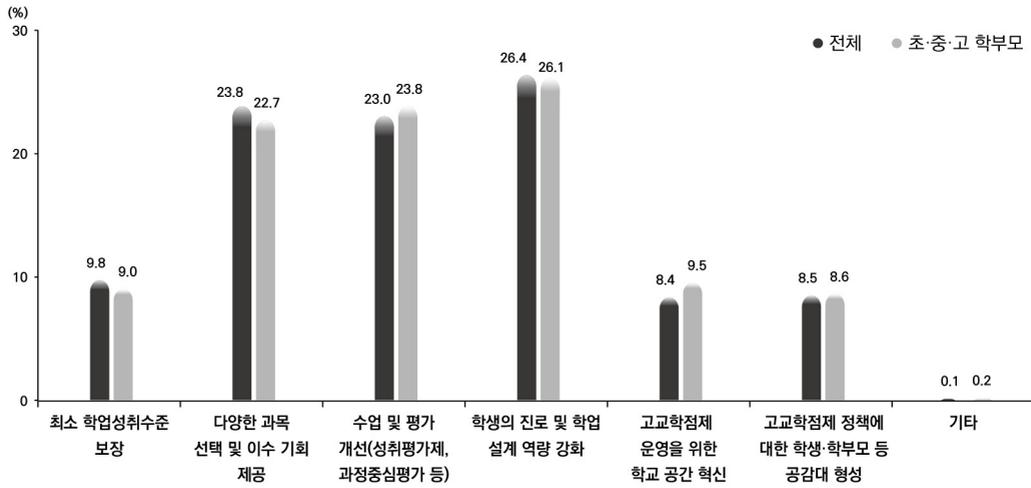
〈표 III-35〉 고등학교 교육에서 앞으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2020)

(단위: 명(%))

고교교육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	2020			
	전체		초·중·고 학부모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610 (12.2)	488 (9.8)	109 (10.5)	93 (9.0)
다양한 과목 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1,238 (24.8)	1,192 (23.8)	225 (21.7)	236 (22.7)
수업 및 평가 개선 (성취평가제, 과정중심평가 등)	1,282 (25.6)	1,151 (23.0)	292 (28.2)	247 (23.8)
학생의 진로 및 학업 설계 역량 강화	1,279 (25.6)	1,318 (26.4)	275 (26.5)	270 (26.1)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학교공간 혁신	223 (4.5)	418 (8.4)	58 (5.6)	99 (9.5)
고교학점제 정책에 대한 학생·학부모 등 공감대 형성	354 (7.1)	426 (8.5)	74 (7.1)	90 (8.6)
기타	14 (0.3)	7 (0.1)	4 (0.4)	2 (0.2)
계	5,000 (100.0)	5,000 (100.0)	1,037 (100.0)	1,037 (100.0)



[그림 III-74] 고등학교 교육에서 앞으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1순위, 2020)



[그림 Ⅲ-75] 고등학교 교육에서 앞으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1+2순위, 2020)

3)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 비중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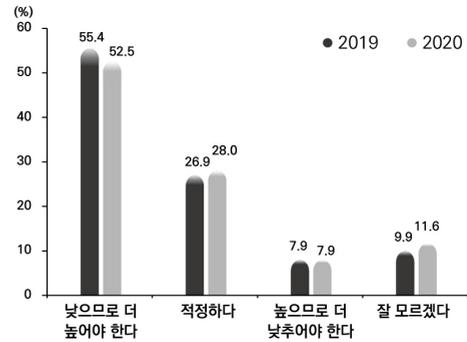
〈질문〉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포함)을 받는 학생의 비중이 전체 고등학생의 18.5% 정도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포함) 비중 정도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는 낮으므로 더 높여야 한다(52.5%)는 의견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다음으로 적정하다(28.0%), 잘 모르겠다(11.6%), 높으므로 더 낮추어야 한다(7.9%) 순으로 응답하였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도 낮으므로 더 높여야 한다(53.2%)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적정하다(28.5%), 잘 모르겠다(9.5%), 높으므로 더 낮추어야 한다(8.8%)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36〉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 비중에 대한 의견(2019~2020)

(단위: 명(%))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 비중에 대한 의견	2020		2019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낮으므로 더 높여야 한다	2,625 (52.5)	552 (53.2)	2,214 (55.4)	494 (59.3)
적정하다	1,400 (28.0)	296 (28.5)	1,075 (26.9)	218 (26.2)
높으므로 더 낮추어야 한다	394 (7.9)	91 (8.8)	315 (7.9)	57 (6.8)
잘 모르겠다	581 (11.6)	98 (9.5)	396 (9.9)	64 (7.7)
계	5,000 (100.0)	1,037 (100.0)	4,000 (100.0)	833 (100.0)



〈그림 III-76〉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 비중에 대한 의견(전체, 2019~2020)

4)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할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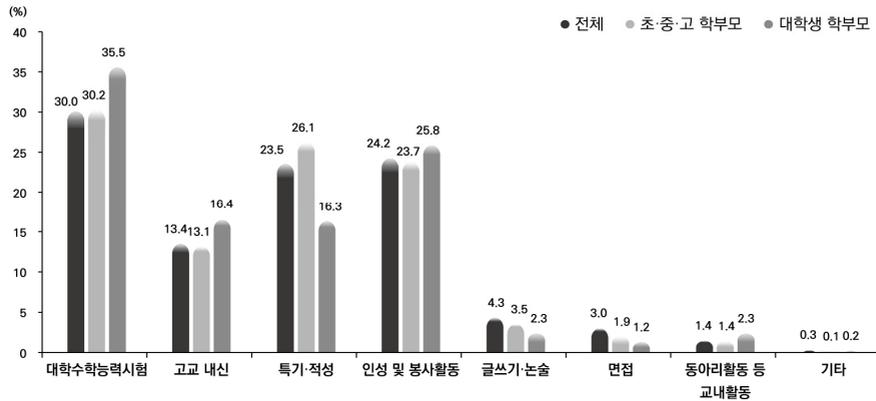
〈질문〉 다음 중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30.0%), 인성 및 봉사활동(24.2%), 특기·적성(23.5%), 고교 내신(13.4%), 글쓰기·논술(4.3%), 면접(3.0%), 동아리활동 등 교내활동(1.4%), 기타(0.3%) 순으로 응답하였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도 대학수학능력시험(30.2%)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특기·적성(26.1%), 인성 및 봉사활동(23.7%), 고교 내신(13.1%), 글쓰기·논술(3.5%), 면접(1.9%), 동아리활동 등 교내활동(1.4%), 기타(0.1%) 순의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대학생 학부모 응답자 집단도 대학수학능력시험(35.5%)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인성 및 봉사활동(25.8%), 고교 내신(16.4%), 특기·적성(16.3%), 글쓰기·논술(2.3%), 동아리활동 등 교내활동(2.3%), 면접(1.2%), 기타(0.2%) 순으로 응답하였다. 지난 13차 조사(2018년) 이후 가장 많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대입전형자료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다.

〈표 Ⅲ-37〉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하는 항목(2011~2020)

(단위: 명(%))

대학입학 전형 반영 항목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전체	초·중·고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전체								
대학수학 능력시험	1,501 (30.0)	313 (30.2)	201 (35.5)	1,233 (30.8)	584 (29.2)	487 (24.4)	450 (22.5)	503 (25.2)	476 (23.8)	461 (23.1)	364 (20.2)	382 (25.5)
고교 내신	671 (13.4)	136 (13.1)	93 (16.4)	519 (13.0)	226 (11.3)	259 (13.0)	342 (17.1)	435 (21.8)	391 (19.6)	364 (18.2)	517 (28.7)	525 (35.0)
특기·적성	1,174 (23.5)	271 (26.1)	92 (16.3)	1,022 (25.6)	534 (26.7)	533 (26.7)	582 (29.1)	454 (22.7)	525 (26.3)	654 (32.7)	499 (27.7)	359 (23.9)
인성 및 봉사 활동	1,209 (24.2)	246 (23.7)	146 (25.8)	935 (23.4)	438 (21.9)	518 (25.9)	539 (27.0)	479 (24.0)	557 (27.9)	437 (21.9)	332 (18.4)	186 (12.4)
글쓰기·논술	213 (4.3)	36 (3.5)	13 (2.3)	121 (3.0)	90 (4.5)	86 (4.3)	29 (1.5)	28 (1.4)	5 (0.3)	13 (0.7)	-	-
면접	148 (3.0)	20 (1.9)	7 (1.2)	80 (2.0)	58 (2.9)	50 (2.5)	48 (2.4)	92 (4.6)	46 (2.3)	71 (3.6)	79 (4.4)	45 (3.0)
동아리 활동 등 교내활동	71 (1.4)	14 (1.4)	13 (2.3)	77 (1.9)	47 (2.4)	49 (2.5)	-	-	-	-	-	-
기타	13 (0.3)	1 (0.1)	1 (0.2)	13 (0.3)	10 (0.5)	9 (0.5)	10 (0.5)	9 (0.5)	-	-	0 (0.0)	1 (0.1)
경시대회 등 수상실적 (2019 제외)	-	-	-	-	13 (0.7)	9 (0.5)	-	-	-	-	-	-
모름/무응답 (2012 이후 제외)	-	-	-	-	-	-	-	-	-	-	9 (0.5)	2 (0.1)
계	5,000 (100.0)	1,037 (100.0)	566 (100.0)	4,000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1,800 (100.0)	1,500 (100.0)



[그림 Ⅲ-77]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하는 항목(2020)

5)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에 대한 전망

〈질문〉 학생 각자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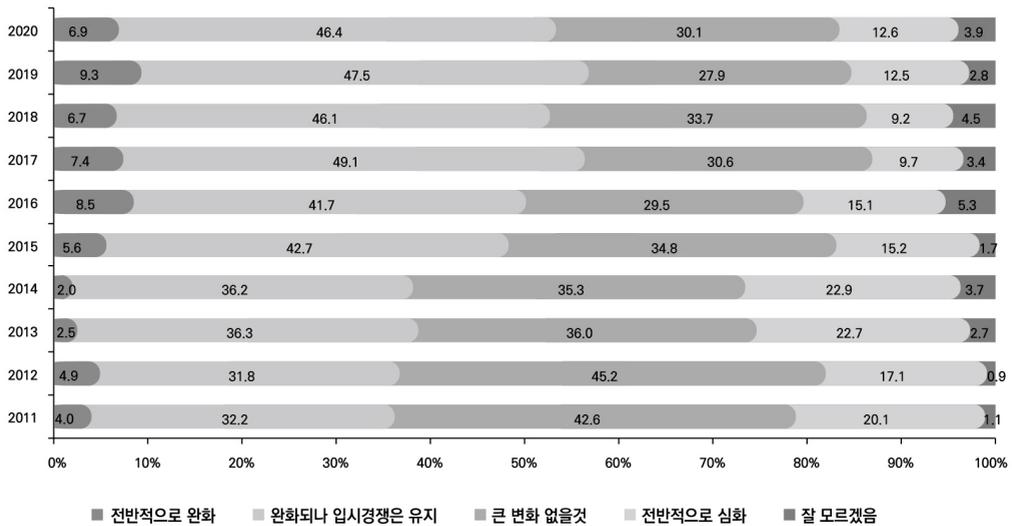
학생 각자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는 전반적으로 완화되나, 일류대 위주의 입시경쟁은 유지될 것이다(46.4%), 현재와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30.1%), 전반적으로 심화될 것이다(12.6%),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이다(6.9%), 잘 모르겠다(3.9%) 순으로 응답하여 지난 8차 조사(2013년) 이후의 지난 조사들의 응답결과와 유사한 응답 경향을 나타내었다.

응답자 개인 특성 중 학력에 따른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중졸이하의 응답자는 전반적으로 완화되나, 일류대 위주의 입시경쟁은 유지될 것이다(42.3%), 현재와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26.9%), 전반적으로 심화될 것이다(14.4%), 잘 모르겠다(11.5%),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이다(4.8%)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고졸 응답자는 전반적으로 완화되나, 일류대 위주의 입시경쟁은 유지될 것이다(43.2%), 현재와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33.9%), 전반적으로 심화될 것이다(11.9%),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이다(6.2%), 잘 모르겠다(4.9%) 순으로 응답하였다. 전문대 및 대졸자 집단도 전반적으로 완화되나, 일류대 위주의 입시경쟁은 유지될 것이다(46.6%)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현재와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29.9%), 전반적으로 심화될 것이다(12.8%),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이다(6.9%), 잘 모르겠다(3.8%) 순으로 응답하였다. 대학원졸 이상의 응답자는 전반적으로 완화되나, 일류대 위주의 입시경쟁은 유지될 것이다(52.3%), 현재와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25.2%), 전반적으로 심화될 것이다(12.3%),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이다(8.6%), 잘 모르겠다(1.7%)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Ⅲ-38〉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에 대한 전망(2011~2020)

(단위: 명(%))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에 대한 전망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전체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 /대졸	대학원 졸	전체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이다	346 (6.9)	5 (4.8)	55 (6.2)	246 (6.9)	40 (8.6)	373 (9.3)	133 (6.7)	148 (7.4)	169 (8.5)	112 (5.6)	39 (2.0)	50 (2.5)	88 (4.9)	60 (4.0)
전반적으로 완화되나, 일류 대 위주의 입시경쟁은 유지 될 것이다	2,321 (46.4)	44 (42.3)	383 (43.2)	1,651 (46.6)	243 (52.3)	1,900 (47.5)	921 (46.1)	981 (49.1)	834 (41.7)	854 (42.7)	724 (36.2)	725 (36.3)	573 (31.8)	483 (32.2)
현재와 큰 변화는 없을 것 이다	1,505 (30.1)	28 (26.9)	300 (33.9)	1,060 (29.9)	117 (25.2)	1,115 (27.9)	673 (33.7)	611 (30.6)	590 (29.5)	696 (34.8)	705 (35.3)	719 (36.0)	814 (45.2)	639 (42.6)
전반적으로 심화될 것이다	632 (12.6)	15 (14.4)	105 (11.9)	455 (12.8)	57 (12.3)	501 (12.5)	184 (9.2)	193 (9.7)	302 (15.1)	304 (15.2)	458 (22.9)	453 (22.7)	308 (17.1)	301 (20.1)
잘 모르겠다	196 (3.9)	12 (11.5)	43 (4.9)	133 (3.8)	8 (1.7)	111 (2.8)	89 (4.5)	67 (3.4)	105 (5.3)	34 (1.7)	74 (3.7)	53 (2.7)	17 (0.9)	17 (1.1)
계	5,000 (100.0)	104 (100.0)	886 (100.0)	3,545 (100.0)	465 (100.0)	4,000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1,800 (100.0)	1,500 (100.0)



[그림 Ⅲ-78]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에 대한 전망(전체, 2011~2020)

6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요약

- 정부의 교육재정 지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교육단계로 고등학교(25.2%), 유아교육(20.6%), 초등학교(18.3%), 중학교(11.0%), 4년제 대학(9.5%), 잘 모르겠다(6.4%), 전문대학(4.2%), 학령기 이후 성인교육(3.7%), 대학원(1.2%) 순으로 응답함.
- 무상교육 범위 확대를 위해 초·중·고 학생들에게 정부가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해 주어야 할 내용으로 초등학생은 학교급식비(35.5%), 방과후학교 교육비(23.0%)를, 중학생은 학교급식비(21.2%), 교복구입비(20.8%)를, 고등학생은 디지털학습장비 구입 및 활용비(25.5%), 학교급식비(20.9%)를 가장 많이 선택함.
- 학생 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재정 규모에 대해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재정을 축소하지 말고 현 수준을 유지하여야한다(32.1%)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교육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 이후 교육재정을 축소해 나가야한다(29.2%), 교육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교육재정을 증가해 나가야한다(21.7%), 학생 수 감소비용에 따라 교육재정을 축소해 나가야한다(11.4%) 순으로 응답함.
- 코로나 사태에 대한 교육영역에서의 정부 대응에 대해 대체로 적절(44.5%)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평균 3.35/5점 만점),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교육영역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일에 대해 학생들의 배움 및 학습 유지(36.4%), 급식 등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31.1%), 긴급 돌봄 등 보육/돌봄(21.7%), 방역 등 학교 지원(10.6%) 순으로 응답함.
- 국가 위기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 유지를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대응 과제로는 탄력적인 학교운영 체제 구축(28.3%), 온라인 수업체제 구축(27.4%), 학교단위 위기관리 매뉴얼 구축(27.3%), 교원의 위기 대응 능력 향상(17.0%)의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학교급별 학부모의 경우 초등학생 학부모는 단위 위기관리 매뉴얼 구축(32.3%)을, 중학생 학부모는 온라인 수업체제 구축(27.8%)을, 고등학생 학부모는 탄력적인 학교운영 체제 구축(30.4%)을 1순위로 꼽아 차이를 보임.

1) 교육재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학교급

〈질문〉 정부의 교육재정 지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교육단계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교육재정 지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교육단계로 전체 응답자는 고등학교(25.2%)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유아교육(20.6%), 초등학교(18.3%),

중학교(11.0%), 4년제 대학(9.5%), 잘 모르겠다(6.4%), 전문대학(4.2%), 학령기 이후 성인교육(3.7%), 대학원(1.2%) 순으로 응답하였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고등학교(32.7%), 초등학교(17.7%), 유아교육(15.5%), 4년제 대학(12.7%), 중학교(12.3%), 전문대학(3.3%), 잘 모르겠다(3.1%), 학령기 이후 성인교육(1.7%), 대학원(0.9%)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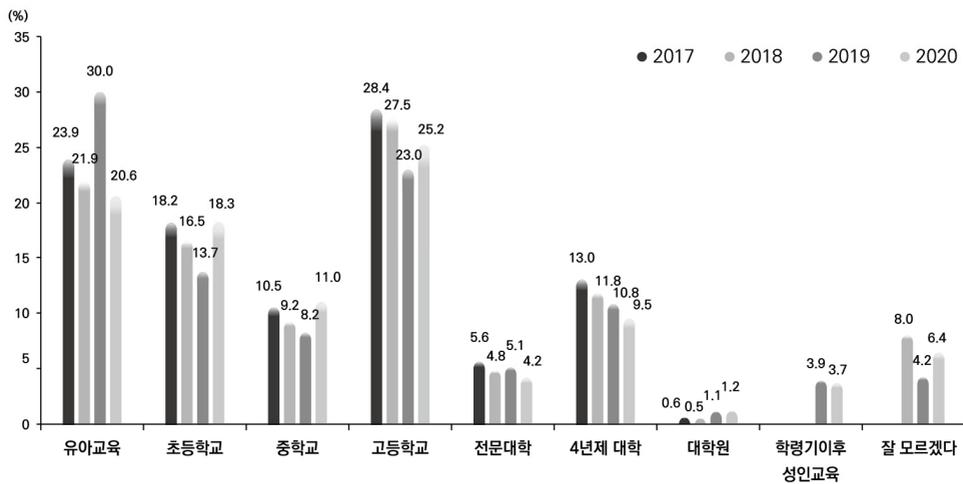
학교급별 학부모 응답자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생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 고등학교(29.1%), 초등학교(21.9%), 유아교육(16.3%), 중학교(13.9%), 4년제 대학(11.0%), 잘 모르겠다(3.2%), 전문대학(2.5%), 학령기이후 성인교육(1.3%), 대학원(0.8%) 순으로 응답하였고, 중학생 학부모는 고등학교(37.4%), 초등학교(16.1%), 4년제 대학(12.9%), 유아교육(12.6%), 중학교(11.4%), 잘 모르겠다(3.8%), 전문대학(3.2%), 학령기이후 성인교육(1.5%), 대학원(1.2%) 순으로 응답하였다. 고등학생 학부모는 고등학교(37.6%), 4년제 대학(14.7%), 유아교육(14.0%), 초등학교(12.4%), 중학교(11.0%), 전문대학(4.0%), 잘 모르겠다(2.8%), 학령기이후 성인교육(2.3%), 대학원(1.2%)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대학생 학부모 또한, 고등학교(25.4%)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유아교육(18.6%), 초등학교(17.3%), 4년제 대학(15.4%), 중학교(9.9%), 전문대학(4.8%), 잘 모르겠다(4.2%), 학령기이후 성인교육(3.7%), 대학원(0.7%) 순으로 응답하여, 초·중·고 및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응답자는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이 확대되어야 학교급으로 고등학교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표 Ⅲ-39〉 교육재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교육단계(2017~2020)

(단위: 명(%))

교육재정 우선 확대 교육단계	2020						2019	2018	2017
	전체	초·중·고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전체		
유아교육	1,030 (20.6)	161 (15.5)	86 (16.3)	43 (12.6)	60 (14.0)	105 (18.6)	1,200 (30.0)	437 (21.9)	478 (23.9)
초등학교	913 (18.3)	184 (17.7)	115 (21.9)	55 (16.1)	53 (12.4)	98 (17.3)	549 (13.7)	330 (16.5)	363 (18.2)
중학교	549 (11.0)	128 (12.3)	73 (13.9)	39 (11.4)	47 (11.0)	56 (9.9)	327 (8.2)	183 (9.2)	209 (10.5)
고등학교	1,261 (25.2)	339 (32.7)	153 (29.1)	128 (37.4)	161 (37.6)	144 (25.4)	920 (23.0)	550 (27.5)	568 (28.4)

교육재정 우선 확대 교육단계	2020						2019	2018	2017
	전체	초·중·고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전체		
전문대학	208 (4.2)	34 (3.3)	13 (2.5)	11 (3.2)	17 (4.0)	27 (4.8)	204 (5.1)	95 (4.8)	112 (5.6)
4년제 대학	475 (9.5)	132 (12.7)	58 (11.0)	44 (12.9)	63 (14.7)	87 (15.4)	430 (10.8)	235 (11.8)	259 (13.0)
대학원	59 (1.2)	9 (0.9)	4 (0.8)	4 (1.2)	5 (1.2)	4 (0.7)	45 (1.1)	10 (0.5)	11 (0.6)
학령기이후 성인 교육	184 (3.7)	18 (1.7)	7 (1.3)	5 (1.5)	10 (2.3)	21 (3.7)	157 (3.9)	-	-
잘 모르겠다	321 (6.4)	32 (3.1)	17 (3.2)	13 (3.8)	12 (2.8)	24 (4.2)	168 (4.2)	160 (8.0)	-
계	5,000 (100.0)	1,037 (100.0)	526 (100.0)	342 (100.0)	428 (100.0)	566 (100.0)	4,000 (100.0)	2,000 (100.0)	2,000 (100.0)



[그림 III-79] 교육재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교육단계(전체, 2017~2020)

2) 무상교육 범위 확대를 위한 정부의 우선적 지원 내용

〈질문〉 무상교육 범위 확대를 위해 초·중·고 학생들에게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 상황 등을 반영하여 선택지에 디지털학습장비 구입 및 활용비를 추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무상교육 범위 확대를 위해 초등학생에게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내용으로 전체 응답자는 학교급식비(35.5%), 방과후학교 교육비(23.0%), 현장학습비(수학여행 경비 등) 및 수련 활동비(18.6%), 학용품비·교재비(14.3%), 디지털학습장비 구입 및 활용비(7.4%), 교통비(0.8%), 기타(0.3%) 순으로 응답하였고, 초등학생 학부모 응답자도 학교급식비(28.5%), 방과후학교 교육비(27.0%), 현장학습비(수학여행 경비 등) 및 수련 활동비(21.9%), 학용품비·교재비(13.3%), 디지털학습장비 구입 및 활용비(8.4%), 교통비(0.8%), 기타(0.2%)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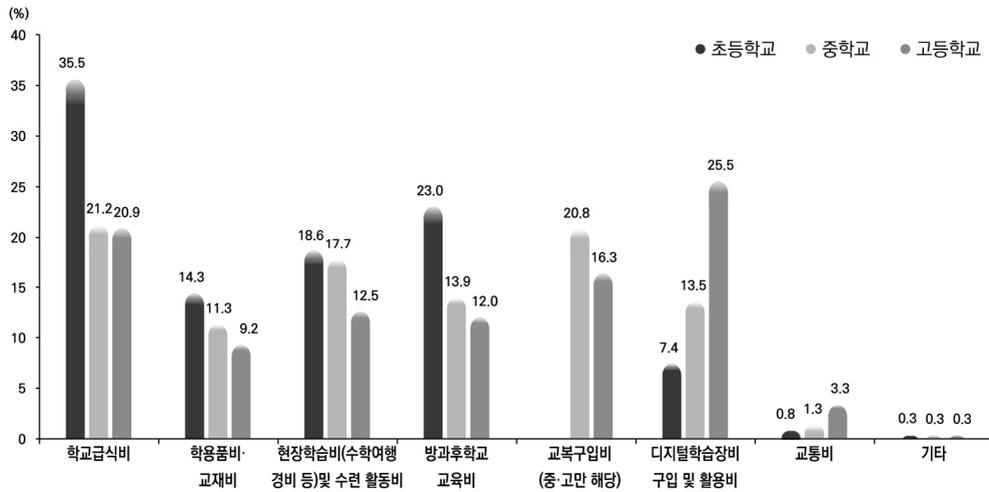
중학생에게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내용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경우 학교급식비(21.2%), 교복구입비(20.8%), 현장학습비(수학여행 경비 등) 및 수련 활동비(17.7%), 방과후학교 교육비(13.9%), 디지털학습장비 구입 및 활용비(13.5%), 학용품비·교재비(11.3%), 교통비(1.3%), 기타(0.3%) 순으로 응답하였고, 중학생 학부모 응답자는 교복구입비(26.0%), 학교급식비(21.3%), 현장학습비(수학여행 경비 등) 및 수련 활동비(15.5%), 방과후학교 교육비(12.6%), 학용품비·교재비(12.0%), 디지털학습장비 구입 및 활용비(11.7%), 교통비(0.9%), 기타(0.0%) 순으로 응답하였다.

고등학생에게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내용으로 전체 응답자는 새롭게 추가된 디지털학습장비 구입 및 활용비(25.5%)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학교급식비(20.9%), 교복구입비(16.3%), 현장학습비(수학여행 경비 등) 및 수련 활동비(12.5%), 방과후학교 교육비(12.0%), 학용품비·교재비(9.2%), 교통비(3.3%), 기타(0.3%) 순으로 응답하였다. 고등학생 학부모 응답자도 디지털학습장비 구입 및 활용비(24.3%)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는 교복구입비(21.0%), 학교급식비(19.6%), 현장학습비(수학여행 경비 등) 및 수련 활동비(13.3%), 방과후학교 교육비(11.9%), 학용품비·교재비(6.8%), 교통비(3.0%), 기타(0.0%)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40〉 무상교육 범위 확대를 위한 정부의 우선적 재정지원 내용(2016~2020)

(단위: 명(%))

정부의 우선적 재정지원	2020						2019			2018			2017			2016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전체	(초)학부모	전체	(중)학부모	전체	(고)학부모	전체			전체			전체			전체		
학교급식비	1,777 (35.5)	150 (28.5)	1,059 (21.2)	73 (21.3)	1,043 (20.9)	84 (19.6)	1,503 (37.6)	757 (18.9)	762 (19.1)	572 (28.6)	501 (25.1)	409 (20.5)	618 (30.9)	508 (25.4)	403 (20.2)	787 (39.4)	579 (29.0)	457 (22.9)
학용품비·교재비	717 (14.3)	70 (13.3)	564 (11.3)	41 (12.0)	462 (9.2)	29 (6.8)	560 (14.0)	396 (9.9)	318 (8.0)	166 (8.3)	280 (14.0)	299 (15.0)	170 (8.5)	284 (14.2)	312 (15.6)	232 (11.6)	351 (17.6)	357 (17.9)
현장학습비(수학 여행 경비 등) 및 수련 활동비	929 (18.6)	115 (21.9)	885 (17.7)	53 (15.5)	627 (12.5)	57 (13.3)	661 (16.5)	758 (19.0)	614 (15.4)	255 (12.8)	407 (20.4)	180 (9.0)	286 (14.3)	436 (21.8)	218 (10.9)	266 (13.3)	458 (22.9)	280 (14.0)
방과후학교 교육비	1,150 (23.0)	142 (27.0)	696 (13.9)	43 (12.6)	598 (12.0)	51 (11.9)	1,233 (30.8)	494 (12.4)	458 (11.5)	529 (26.5)	471 (23.6)	297 (14.9)	462 (23.1)	529 (26.5)	378 (18.9)	347 (17.4)	390 (19.5)	277 (13.9)
교복구입비 (중·고만 해당)	-	-	1,039 (20.8)	89 (26.0)	815 (16.3)	90 (21.0)	-	1,006 (25.2)	755 (18.9)	-	293 (14.7)	203 (10.2)	-	205 (10.3)	161 (8.1)	-	209 (10.5)	160 (8.0)
디지털학습 장비 구입 및 활용비	369 (7.4)	44 (8.4)	677 (13.5)	40 (11.7)	1,275 (25.5)	104 (24.3)	-	-	-	-	-	-	-	-	-	-	-	-
교통비	41 (0.8)	4 (0.8)	65 (1.3)	3 (0.9)	165 (3.3)	13 (3.0)	34 (0.9)	53 (1.3)	114 (2.9)	27 (1.4)	38 (1.9)	46 (2.3)	37 (1.9)	34 (1.7)	45 (2.3)	-	-	-
기타	17 (0.3)	1 (0.2)	15 (0.3)	0 (0.0)	15 (0.3)	0 (0.0)	9 (0.2)	11 (0.3)	13 (0.3)	7 (0.4)	10 (0.5)	13 (0.7)	7 (0.4)	4 (0.2)	8 (0.4)	8 (0.4)	13 (0.7)	14 (0.7)
방과후돌봄 서비스 비용 (초등학교만 해당, 2019 제외)	-	-	-	-	-	-	-	-	-	444 (22.2)	-	-	420 (21.0)	-	-	360 (18.0)	-	-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고등학교만 해당, 2019 제외)	-	-	-	-	-	-	-	-	-	-	-	553 (27.7)	-	-	475 (23.8)	-	-	455 (22.8)
실험실습 시 안전장비 구입비 (중·고만 해당 2020 제외)	-	-	-	-	-	-	-	525 (13.1)	966 (24.2)	-	-	-	-	-	-	-	-	-
계	5,000 (100.0)	526 (100.0)	5,000 (100.0)	342 (100.0)	5,000 (100.0)	428 (100.0)	4,000 (100.0)	4,000 (100.0)	4,000 (100.0)	2,000 (100.0)								



[그림 Ⅲ-80] 무상교육 범위 확대를 위한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해 주어야 할 내용(학교급별, 2020)

3)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규모에 대한 의견

〈질문〉 학생 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육재정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 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재정의 확대 및 축소에 대한 의견에 대해 전체 응답자는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재정을 축소하지 말고 현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32.1%)는 의견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교육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 이후 교육재정을 축소해 나가야 한다(29.2%), 교육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교육재정을 증가해 나가야 한다(21.7%), 학생 수 감소비율에 따라 교육재정을 축소해 나가야 한다(11.4%), 잘 모르겠다(5.6%)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즉, 학생 수가 감소되더라도 교육재정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교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증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53.8%로 과반이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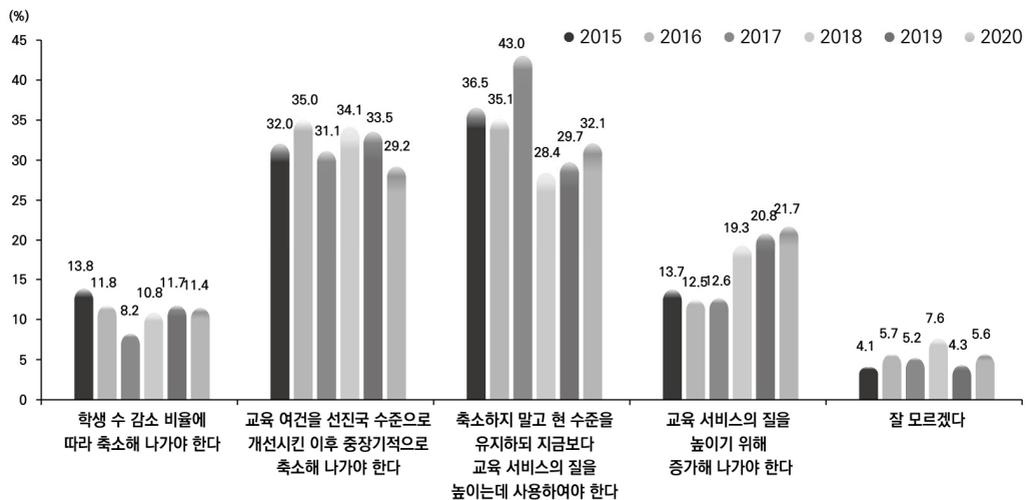
자녀가 있는 응답자도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재정을 축소하지 말고 현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32.8%), 교육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 이후 교육재정을 축소해 나가야 한다(30.4%), 교육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교육재정을 증

가해 나가야 한다(22.2%), 학생 수 감소비율에 따라 교육재정을 축소해 나가야 한다(10.9%), 잘 모르겠다(3.7%)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41〉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규모에 대한 의견(2015~2020)

(단위: 명(%))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규모에 대한 의견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전체	자녀 있는 집단	전체	자녀 있는 집단	전체	자녀 있는 집단	전체		
학생 수 감소비율에 따라 교육재정을 축소해 나가야 한다	571 (11.4)	319 (10.9)	469 (11.7)	278 (11.3)	215 (10.8)	145 (11.4)	164 (8.2)	235 (11.8)	275 (13.8)
교육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 이후 교육재정을 축소해 나가야 한다	1,459 (29.2)	891 (30.4)	1,340 (33.5)	805 (32.7)	682 (34.1)	447 (35.0)	621 (31.1)	700 (35.0)	640 (32.0)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재정을 축소하지 말고 현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1,604 (32.1)	960 (32.8)	1,188 (29.7)	754 (30.7)	567 (28.4)	381 (29.8)	860 (43.0)	702 (35.1)	730 (36.5)
교육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교육재정을 증가해 나가야 한다	1,084 (21.7)	650 (22.2)	832 (20.8)	542 (22.0)	385 (19.3)	255 (20.0)	251 (12.6)	249 (12.5)	274 (13.7)
잘 모르겠다	282 (5.6)	107 (3.7)	171 (4.3)	80 (3.3)	151 (7.6)	49 (3.8)	104 (5.2)	114 (5.7)	81 (4.1)
계	5,000 (100.0)	2,927 (100.0)	4,000 (100.0)	2,459 (100.0)	2,000 (100.0)	1,277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그림 III-81]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규모에 대한 의견(전체, 2015~2020)

4)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교육영역에서의 정부 대응 평가

〈질문〉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부는 교육영역에서 긴급 돌봄, 개학 연기, 온라인 개학 및 온라인 수업 운영, 학교 재량에 따른 등교 수업 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항은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 15차 조사의 신규 문항으로 포함하였다. 코로나 사태에 대한 교육영역에서의 정부 대응에 대해 전체 응답자는 적절하다(매우 적절하다+적절하다) 44.5%, 보통이다 42.2%, 적절하지 않다(적절하지 않다+전혀 적절하지 않다) 13.3%로 대체로 잘 대응했다고 평가하였다(평균 3.35/5점 만점). 초·중·고 학부모 또한, 적절하다 45.3%, 보통이다 40.8%, 적절하지 않다 13.9%로 전체 응답자와 같이 긍정적인 평가결과를 보였다(평균 3.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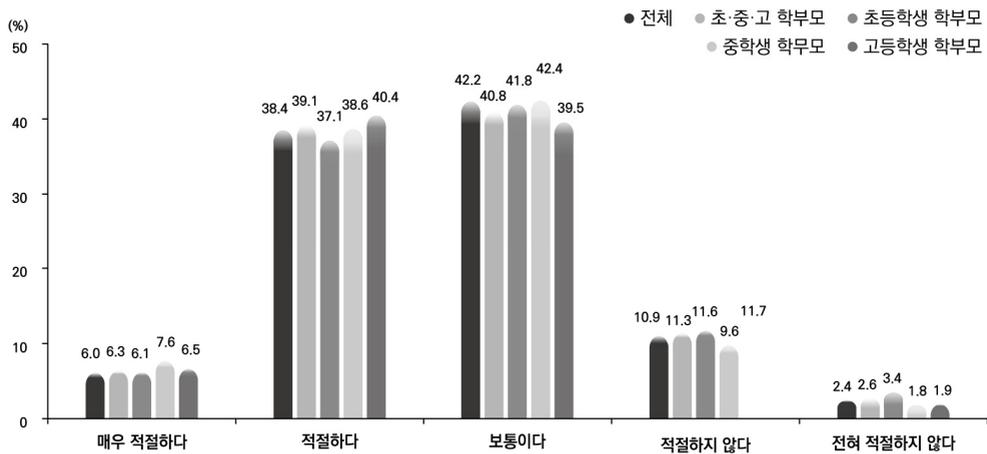
학교급별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 초등학생 학부모는 적절하다 43.2%, 보통이다 41.8%, 적절하지 않다 15.0%(평균 3.31), 중학생 학부모는 적절하다 46.2%, 보통이다 42.4%, 적절하지 않다 11.4%(평균 3.41), 고등학생 학부모는 적절하다 46.9%, 보통이다 39.5%, 적절하지 않다 13.6%(평균 3.38),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는 정부가 교육영역에서 코로나19 상황을 대체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표 III-42〉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교육영역에서의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2020)

(단위: 명(%))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교육영역에서의 정부 대응 평가	2020				
	전체	초·중·고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매우 적절하다	301 (6.0)	65 (6.3)	32 (6.1)	26 (7.6)	28 (6.5)
적절하다	1,922 (38.5)	405 (39.1)	195 (37.1)	132 (38.6)	173 (40.4)
보통이다	2,112 (42.2)	423 (40.8)	220 (41.8)	145 (42.4)	169 (39.5)
적절하지 않다	545 (10.9)	117 (11.3)	61 (11.6)	33 (9.6)	50 (11.7)
전혀 적절하지 않다	120 (2.4)	27 (2.6)	18 (3.4)	6 (1.8)	8 (1.9)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교육영역에서의 정부 대응 평가	2020				
	전체	초·중·고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계	5,000 (100.0)	1,037 (100.0)	526 (100.0)	342 (100.0)	428 (100.0)
평균(표준편차)	3.35 (0.84)	3.35 (0.86)	3.31 (0.88)	3.41 (0.83)	3.38 (0.85)



[그림 III-82]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교육영역에서의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2020)

5) 국가 위기상황 시 교육영역에서 정부가 우선해야 할 역할

〈질문〉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교육영역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항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신규 문항으로 포함하였고, COVID-19 사태와 같은 국가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교육영역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는 학생들의 배움 및 학습 유지(36.4%)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급식 등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31.1%), 긴급 돌봄 등 보육/돌봄(21.7%), 방역 등 학교 지원(10.6%), 기타(0.1%) 순으로 응답하였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도 학생들의 배움 및 학습 유지(47.8%)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 급식 등 취약계층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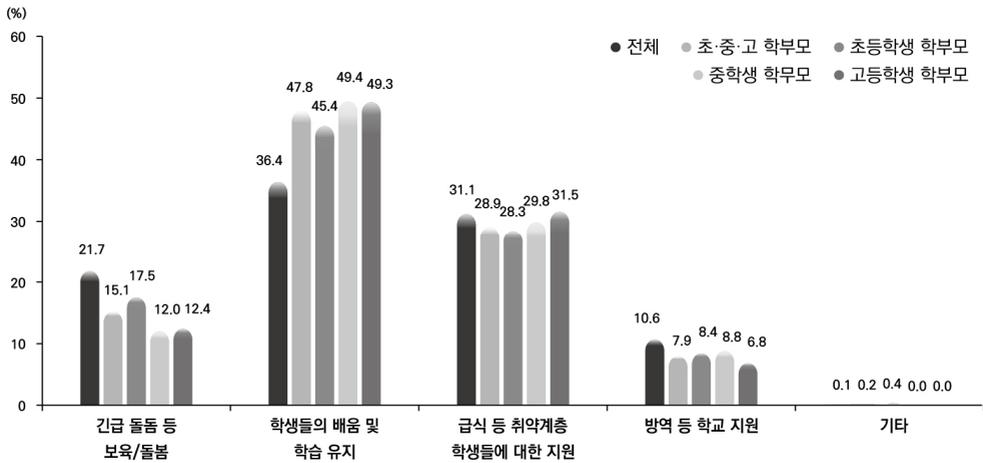
들에 대한 지원(28.9%), 긴급 돌봄 등 보육/돌봄(15.1%), 방역 등 학교 지원(7.9%), 기타(0.2%)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학교급별 학부모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생 학부모는 학생들의 배움 및 학습 유지(45.4%), 급식 등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28.3%), 긴급 돌봄 등 보육/돌봄(17.5%), 방역 등 학교 지원(8.4%), 기타(0.4%) 순으로 응답하였고, 중학생 학부모도 학생들의 배움 및 학습 유지(49.4%), 급식 등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29.8%), 긴급 돌봄 등 보육/돌봄(12.0%), 방역 등 학교 지원(8.8%), 기타(0.0%) 순으로 응답하였다. 고등학생 학부모 또한, 학생들의 배움 및 학습 유지(49.3%), 급식 등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31.5%), 긴급 돌봄 등 보육/돌봄(12.4%), 방역 등 학교 지원(6.8%), 기타(0.0%)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표 Ⅲ-43〉 국가 위기상황 시 교육영역에서 정부가 우선해야 할 역할(2020)

(단위: 명(%))

국가 위기상황 시 교육영역에서 정부가 우선해야 할 역할	2020				
	전체	초·중·고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긴급 돌봄 등 보육/돌봄	1,087 (21.7)	157 (15.1)	92 (17.5)	41 (12.0)	53 (12.4)
학생들의 배움 및 학습 유지	1,818 (36.4)	496 (47.8)	239 (45.4)	169 (49.4)	211 (49.3)
급식 등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	1,557 (31.1)	300 (28.9)	149 (28.3)	102 (29.8)	135 (31.5)
방역 등 학교 지원	531 (10.6)	82 (7.9)	44 (8.4)	30 (8.8)	29 (6.8)
기타	7 (0.1)	2 (0.2)	2 (0.4)	0 (0.0)	0 (0.0)
계	5,000 (100.0)	1,037 (100.0)	526 (100.0)	342 (100.0)	428 (100.0)



[그림 III-83] 국가 위기상황 시 교육영역에서 정부가 우선해야 할 역할(2020)

6) 국가 위기상황 시 학생들의 학습유지를 위한 우선 대응 과제

<질문>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 위기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 유지를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대응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항도 이번 15차 조사에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신규로 포함된 문항으로, COVID-19 사태와 같은 국가 위기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 유지를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대응 과제로 전체 응답자는 탄력적인 학교운영 체제 구축(28.3%), 온라인 수업체제 구축(27.4%), 학교단위 위기관리 매뉴얼 구축(27.3%), 교원의 위기 대응 능력 향상(17.0%), 기타(0.1%) 순으로 응답하였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학교단위 위기관리 매뉴얼 구축(28.8%)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탄력적인 학교운영 체제 구축(26.2%), 온라인 수업체제 구축(25.5%), 교원의 위기 대응 능력 향상(19.4%), 기타(0.1%)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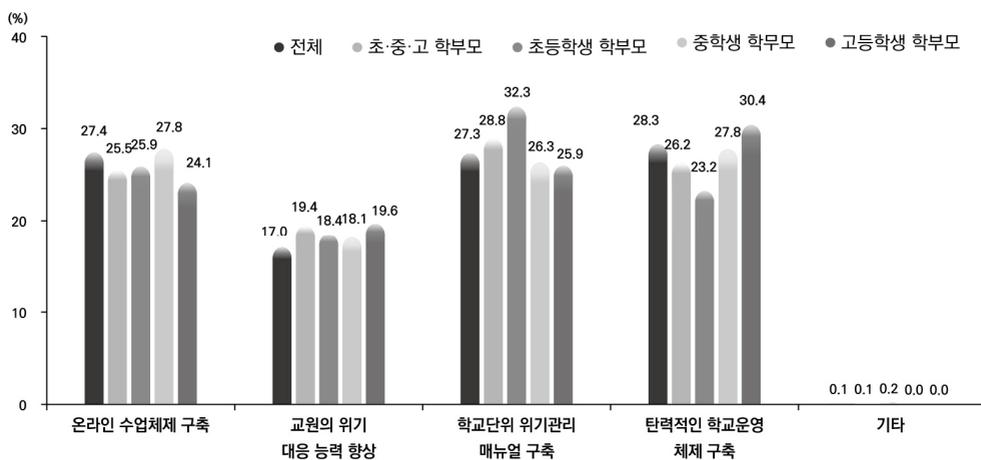
학교급별 학부모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생 학부모는 초·중·고 학부모와 같이 학교단위 위기관리 매뉴얼 구축(32.3%)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온라인 수업 체제 구축(25.9%), 탄력적인 학교운영 체제 구축(23.2%), 교원의 위기 대응 능력 향상(18.4%), 기타(0.2%) 순으로 응답하였다. 중학생 학부모는 온라인 수업체제 구축(27.8%),

탄력적인 학교운영 체제 구축(27.8%), 학교단위 위기관리 매뉴얼 구축(26.3%), 교원의 위기 대응 능력 향상(18.1%), 기타(0.0%) 순으로 응답하였고, 고등학생 학부모는 탄력적인 학교운영 체제 구축(30.4%), 학교단위 위기관리 매뉴얼 구축(25.9%), 온라인 수업체제 구축(24.1%), 교원의 위기 대응 능력 향상(19.6%), 기타(0.0%)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어, 자녀의 학교급에 따라 학부모 응답자의 응답결과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4〉 국가 위기상황 시 학생들의 학습유지를 위한 우선해야 할 대응 과제(2020)

(단위: 명(%))

국가 위기상황 시 학생들의 학습유지를 위한 우선 대응 과제	2020				
	전체	초·중·고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온라인 수업체제 구축	1,368 (27.4)	264 (25.5)	136 (25.9)	95 (27.8)	103 (24.1)
교원의 위기 대응 능력 향상	851 (17.0)	201 (19.4)	97 (18.4)	62 (18.1)	84 (19.6)
학교단위 위기관리 매뉴얼 구축	1,364 (27.3)	299 (28.8)	170 (32.3)	90 (26.3)	111 (25.9)
탄력적인 학교운영 체제 구축	1,413 (28.3)	272 (26.2)	122 (23.2)	95 (27.8)	130 (30.4)
기타	4 (0.1)	1 (0.1)	1 (0.2)	0 (0.0)	0 (0.0)
계	5,000 (100.0)	1,037 (100.0)	526 (100.0)	342 (100.0)	428 (100.0)



[그림 Ⅲ-84] 국가 위기상황 시 학생들의 학습유지를 위한 우선해야 할 대응 과제(2020)

7 대학교육

요약

- 대학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제대로 양성 기능에 대한 평가에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모두 보통이다(4년제 대학 44.3%, 전문대학 49.9%)의 의견이 많음(평균 각각 2.74, 2.90/5점 만점). 지난 14차 조사보다 평균점수는 상승함.
- 대학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제대로 양성하기 위한 우선 과제로 4년제 대학은 학문 분야별 전문가의 양성(43.4%), 사회생활에 필요한 시민의식 및 인격적 소양의 함양(31.3%)을, 전문대학은 진로 탐색 및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직업 역량의 함양(56.6%), 학문 분야별 전문가의 양성(25.0%)을 가장 많이 선택하여 차이를 보임.
- 대학 교수들이 교육기관의 특성에 맞게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지에 대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모두 보통이다(4년제 대학 49.1%, 전문대학 53.9%)의 의견이 많았으며(평균 각각 2.72, 2.82),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모두 지난 14차 조사(2019년)의 평균보다는 다소 상승함.
- 정부가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반인 54.3%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선택함.
- 대학평가 시 가장 중요하게 반영해야 할 평가지표로 지난 10차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대학 경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25.4%)을 가장 많이 선택, 다음으로 교수들의 교육 역량(24.1%),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22.2%)의 응답률이 높음. 대학교육혁신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순위 과제로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31.1%), 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25.2%)를 꼽음.

1) 대학교육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기능에 대한 평가

〈질문〉 우리나라의 대학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제대로 양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구분하여 선택해 주십시오.

이번 15차 조사부터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학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제대로 양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우선 4년제 대학의 경우 전체 응답자는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렇다) 17.8%, 보통이다 44.3%, 그렇지 못하다(그렇지 못하다+전혀 그렇지 못하다) 37.9%로 보통이다의 의견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평균 2.74/5점 만점), 대학생 학부모 응답자도 그렇다 17.1%, 보통이다 41.5%, 그렇지 못하다 41.3% 순으로 보통의 응답률이 높았으나, 그렇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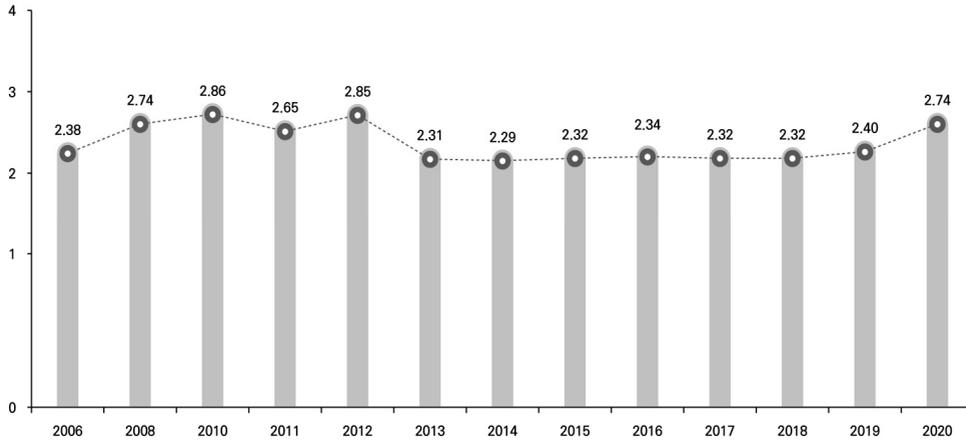
는 응답과 차이가 거의 없었다(평균 2.70). 그러나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구분하지 않았던 지난 14차 조사(2019년)보다는 대체로 평균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에 대한 평가도 전체 응답자의 경우 그렇다 21.9%, 보통이다 49.9%, 그렇지 못하다 28.2%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평균 2.90), 대학생 학부모 응답자 또한, 그렇다 28.4%, 보통이다 47.3%, 그렇지 못하다 24.2%로 보통이다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평균 3.02).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평균점수로 비교해 보면 4년제 대학보다 전문대학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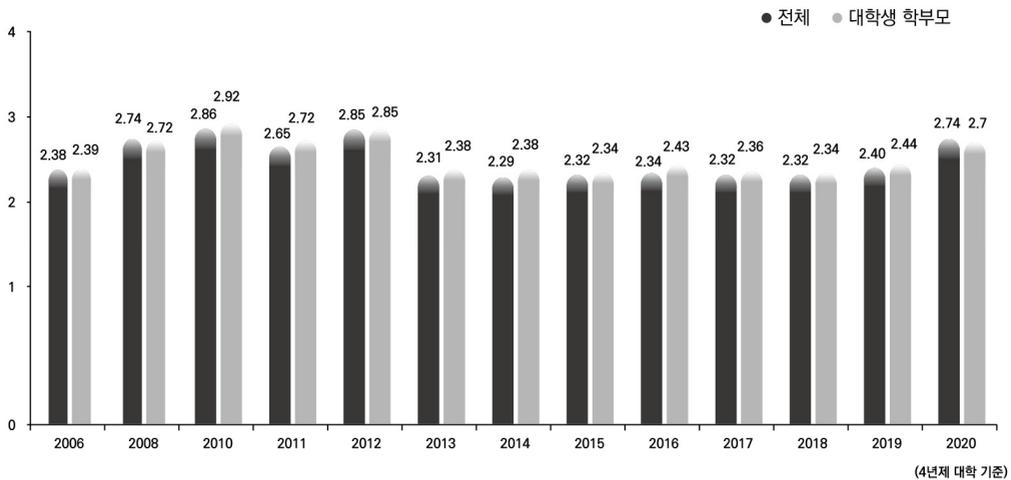
〈표 III-45〉 대학교육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기능에 대한 평가(2015~2020)

(단위: 명(%))

대학교육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기능에 대한 평가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전체	대학생 학부모	전체			
	전체	대학생 학부모	전체	대학생 학부모						
매우 그렇다	120 (2.4)	9 (1.6)	102 (2.0)	15 (2.7)	17 (0.4)	2 (0.4)	19 (1.0)	17 (0.9)	25 (1.3)	21 (1.1)
그렇다	769 (15.4)	88 (15.5)	993 (19.9)	146 (25.8)	185 (4.6)	24 (4.7)	130 (6.5)	145 (7.3)	149 (7.5)	151 (7.6)
보통이다	2,214 (44.3)	235 (41.5)	2,494 (49.9)	268 (47.3)	1,585 (39.6)	208 (40.3)	653 (32.7)	656 (32.8)	662 (33.1)	634 (31.7)
그렇지 못하다	1,503 (30.1)	195 (34.5)	1,126 (22.5)	110 (19.4)	1,811 (45.3)	246 (47.7)	875 (43.8)	831 (41.6)	799 (40.0)	838 (41.9)
전혀 그렇지 못하다	394 (7.9)	39 (6.9)	285 (5.7)	27 (4.8)	402 (10.1)	36 (7.0)	323 (16.2)	351 (17.6)	365 (18.3)	356 (17.8)
계	5,000 (100.0)	566 (100.0)	5,000 (100.0)	566 (100.0)	4,000 (100.0)	516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평균(표준편차)	2.74 (0.89)	2.70 (0.87)	2.90 (0.85)	3.02 (0.87)	2.40 (0.75)	2.44 (0.71)	2.32 (0.85)	2.32 (0.88)	2.34 (0.90)	2.32 (0.89)



[그림 III-85] 대학교육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기능에 대한 평가(전체 평균, 2006~2020)



[그림 III-86] 대학교육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기능에 대한 평가(평균 비교, 2006~2020)

2) 대학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해야 할 우선과제

<질문> 우리나라 대학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제대로 양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구분하여 선택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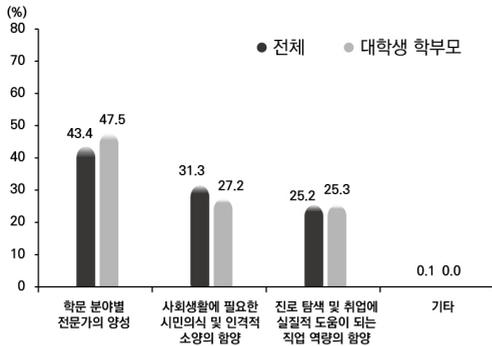
이 문항 또한, 이번 15차 조사부터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대학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제대로 양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로, 먼저 4년제 대학의 경우 전체 응답자는 학문 분야별 전문가의 양성(43.4%)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사회생활에 필요한 시민의식 및 인격적 소양의 함양(31.3%), 진로 탐색 및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업 역량의 함양(25.2%), 기타(0.1%) 순으로 응답하였다. 대학생 학부모도 학문 분야별 전문가의 양성(47.5%), 사회생활에 필요한 시민의식 및 인격적 소양의 함양(27.2%), 진로 탐색 및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업 역량의 함양(25.3%), 기타(0.0%) 순으로 응답하였다.

전문대학의 경우, 전체 응답자는 진로 탐색 및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직업 역량의 함양(56.6%)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학문 분야별 전문가의 양성(25.0%), 사회생활에 필요한 시민의식 및 인격적 소양의 함양(18.3%), 기타(0.0%) 순으로 응답하여 4년제 대학과 차이를 보였다. 대학생 학부모의 경우도 진로 탐색 및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직업 역량의 함양(63.8%), 학문 분야별 전문가의 양성(24.7%), 사회생활에 필요한 시민의식 및 인격적 소양의 함양(11.5%), 기타(0.0%)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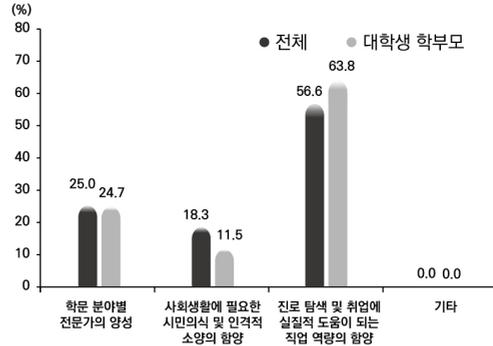
〈표 Ⅲ-46〉 대학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해야 할 우선과제(2020)

(단위: 명(%))

대학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해야 할 우선과제	2020				2019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전체	대학생 학부모
	전체	대학생 학부모	전체	대학생 학부모		
학문 분야별 전문가의 양성	2,170 (43.4)	269 (47.5)	1,252 (25.0)	140 (24.7)	1,010 (25.3)	145 (28.1)
사회생활에 필요한 시민의식 및 인격적 소양의 함양	1,565 (31.3)	154 (27.2)	917 (18.3)	65 (11.5)	1,456 (36.4)	153 (29.7)
진로 탐색 및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직업 역량의 함양	1,262 (25.2)	143 (25.3)	2,829 (56.6)	361 (63.8)	1,521 (38.0)	218 (42.2)
기타	3 (0.1)	0 (0.0)	2 (0.0)	0 (0.0)	13 (0.3)	0 (0.0)
계	5,000 (100.0)	566 (100.0)	5,000 (100.0)	566 (100.0)	4,000 (100.0)	516 (100.0)



[그림 III-87] 대학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해야 할 우선과제(4년제 대학, 2020)



[그림 III-88] 대학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해야 할 우선과제(전문대학, 2020)

3) 대학교수의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역할수행에 대한 평가

<질문>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들이 교육기관의 특성에 맞게 학생들의 교육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구분하여 선택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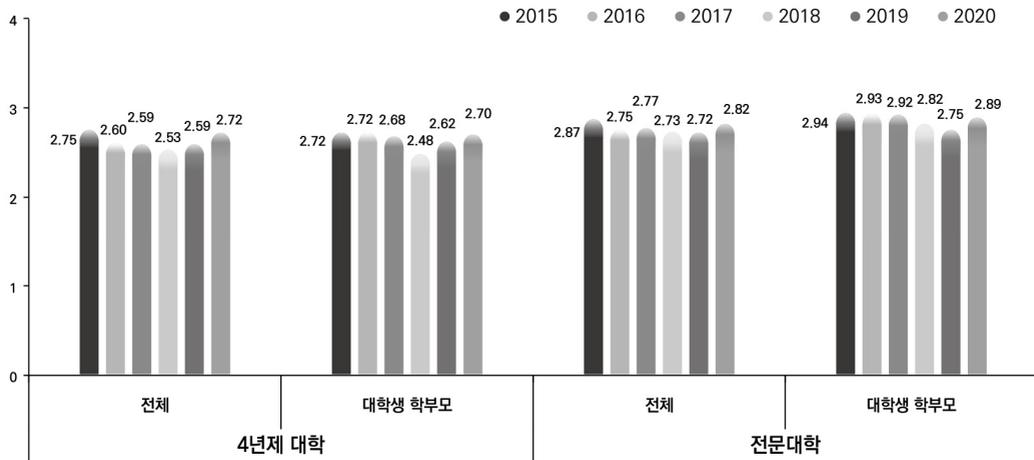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들이 교육기관의 특성에 맞게 학생들의 교육을 잘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먼저 4년제 대학 교수의 경우 전체 응답자는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잘하고 있다) 15.3%, 보통이다 49.1%, 못하고 있다(못하고 있다+전혀 못하고 있다) 35.6%로 보통이다의 의견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평균 2.72/5점 만점),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응답자도 잘하고 있다 14.3%, 보통이다 49.3%, 못하고 있다 36.4%로 보통이다의 의견이 높았다(평균 2.70).

전문대학 교수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는 잘하고 있다 16.6%, 보통이다 53.9%, 못하고 있다 29.4%로 보통의 응답률이 높았고(평균 2.82), 대학생 학부모 응답자도 잘하고 있다 21.0%, 보통이다 51.2%, 못하고 있다 27.7%의 응답률을 나타내었다(평균 2.89).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모두 지난 14차 조사(2019년)의 평균보다는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7〉 대학교수의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역할수행에 대한 평가(2015~2020)

(단위: 명(%))

대학교수의 역할 수행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4년제 대학		전문대학		4년제 대학	전문 대학								
	전체	대학생 학부모	전체	대학생 학부모	전체									
매우 잘하고 있다	51 (1.0)	2 (0.4)	68 (1.4)	8 (1.4)	37 (0.9)	31 (0.8)	20 (1.0)	28 (1.4)	15 (0.8)	33 (1.7)	24 (1.2)	25 (1.3)	28 (1.4)	19 (1.0)
잘하고 있다	713 (14.3)	79 (14.0)	764 (15.3)	111 (19.6)	329 (8.2)	539 (13.5)	175 (8.8)	294 (14.7)	208 (10.4)	316 (15.8)	224 (11.2)	320 (16.0)	282 (14.1)	385 (19.3)
보통이다	2,456 (49.1)	279 (49.3)	2,696 (53.9)	290 (51.2)	1,965 (49.1)	2,026 (50.7)	887 (44.4)	966 (48.3)	928 (46.4)	978 (48.9)	910 (45.5)	972 (48.6)	1,004 (50.2)	1,035 (51.8)
못하고 있다	1,367 (27.3)	162 (28.6)	1,152 (23.0)	126 (22.3)	1,310 (32.8)	1,101 (27.5)	687 (34.4)	536 (26.8)	645 (32.3)	498 (24.9)	621 (31.1)	488 (24.4)	543 (27.2)	442 (22.1)
전혀 못하고 있다	413 (8.3)	44 (7.8)	320 (6.4)	31 (5.5)	359 (9.0)	303 (7.6)	231 (11.6)	176 (8.8)	204 (10.2)	175 (8.8)	221 (11.1)	195 (9.8)	143 (7.2)	119 (6.0)
계	5,000 (100.0)	566 (100.0)	5,000 (100.0)	566 (100.0)	4,000 (100.0)	4,000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평균 (표준편차)	2.72 (0.84)	2.70 (0.82)	2.82 (0.81)	2.89 (0.83)	2.59 (0.80)	2.72 (0.82)	2.53 (0.85)	2.73 (0.87)	2.59 (0.84)	2.77 (0.88)	2.60 (0.87)	2.75 (0.88)	2.75 (0.83)	2.87 (0.82)



[그림 III-89] 대학교수의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역할수행에 대한 평가(평균 비교, 2015~2020)

4) 사립대학 지원 확대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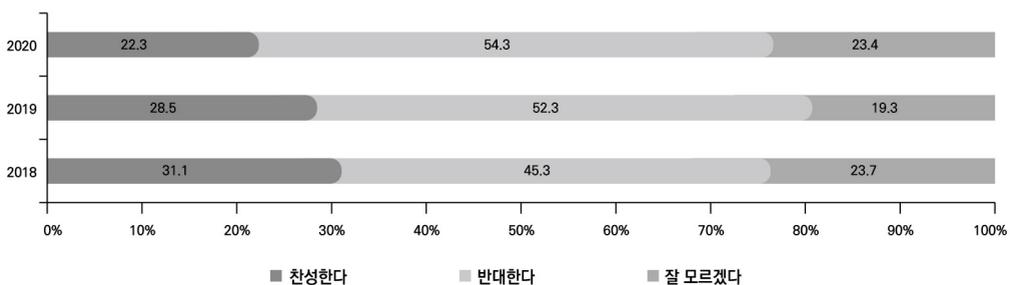
〈질문〉 정부가 국립대학처럼 사립대학에도 경상운영비 등 대학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등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 전체 응답자는 반대한다 54.3%, 잘 모르겠다 23.4%, 찬성한다 22.3% 순으로 응답하여 반대한다는 의견이 과반 이상의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응답자도 반대한다 52.1%, 찬성한다 29.9%, 잘 모르겠다 18.0% 순으로 응답하여 반대한다는 의견이 높았으며, 지난 13~14차 조사(2018~2019) 결과와 유사한 응답 경향을 나타내었다.

〈표 III-48〉 사립대학 지원 확대에 대한 찬반의견(2018~2020)

(단위: 명(%))

사립대학 지원 확대 정책	2020		2019		2018	
	전체	대학생 학부모	전체	대학생 학부모	전체	대학생 학부모
찬성한다	1,116 (22.3)	169 (29.9)	1,140 (28.5)	175 (33.9)	621 (31.1)	90 (30.2)
반대한다	2,715 (54.3)	295 (52.1)	2,090 (52.3)	253 (49.0)	905 (45.3)	156 (52.3)
잘 모르겠다	1,169 (23.4)	102 (18.0)	770 (19.3)	88 (17.1)	474 (23.7)	52 (17.4)
계	5,000 (100.0)	566 (100.0)	4,000 (100.0)	516 (100.0)	2,000 (100.0)	298 (100.0)



[그림 III-90] 사립대학 지원 확대에 대한 찬반의견(전체, 2018~2020)

5) 대학평가 시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지표

〈질문〉 다음 중 대학평가 시 가장 중요하게 반영해야 할 평가지표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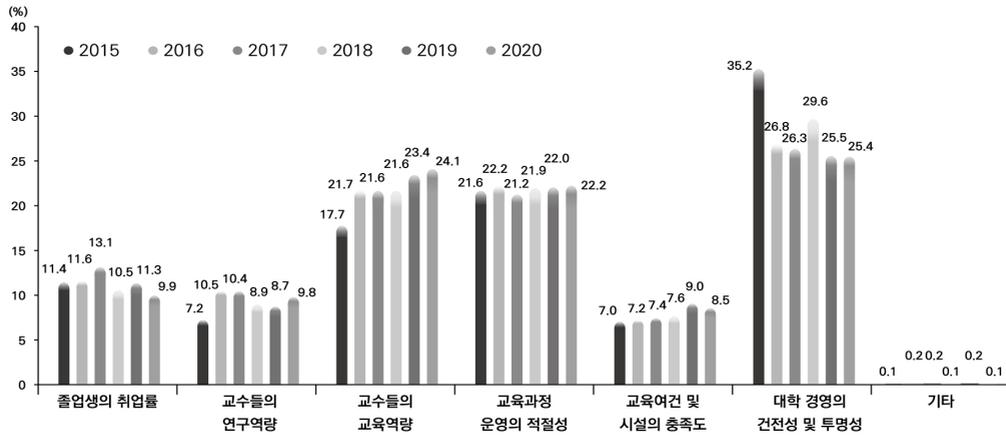
대학평가 시 가장 중요하게 반영해야 할 평가지표에 대해 전체 응답자는 여전히 대학 경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25.4%)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교수들의 교육 역량(24.1%),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22.2%), 졸업생의 취업률(9.9%), 교수들의 연구 역량(9.8%), 교육여건 및 시설의 충족도(8.5%), 기타(0.1%) 순으로 응답하였다. 지난 10차 조사(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대학 경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이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대학생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 대학 경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29.2%), 교수들의 교육 역량(23.9%),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15.0%), 졸업생의 취업률(12.9%), 교육여건 및 시설의 충족도(10.6%), 교수들의 연구 역량(8.5%), 기타(0.0%)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표 Ⅲ-49〉 대학 역량 진단 시 가장 중요하게 반영해야 할 지표(2015~2020)

(단위: 명(%))

대학평가 시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지표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전체	대학생 학부모	전체				
졸업생의 취업률	497 (9.9)	73 (12.9)	452 (11.3)	209 (10.5)	261 (13.1)	231 (11.6)	228 (11.4)
교수들의 연구 역량	488 (9.8)	48 (8.5)	347 (8.7)	178 (8.9)	208 (10.4)	209 (10.5)	143 (7.2)
교수들의 교육 역량	1,203 (24.1)	135 (23.9)	936 (23.4)	431 (21.6)	432 (21.6)	433 (21.7)	353 (17.7)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1,110 (22.2)	85 (15.0)	880 (22.0)	438 (21.9)	423 (21.2)	443 (22.2)	431 (21.6)
교육여건 및 시설의 충족도	426 (8.5)	60 (10.6)	360 (9.0)	151 (7.6)	148 (7.4)	144 (7.2)	140 (7.0)
대학 경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1,272 (25.4)	165 (29.2)	1,019 (25.5)	592 (29.6)	525 (26.3)	536 (26.8)	704 (35.2)
기타	4 (0.1)	0 (0.0)	6 (0.2)	1 (0.1)	3 (0.2)	4 (0.2)	1 (0.1)
계	5,000 (100.0)	566 (100.0)	4,000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그림 III-91] 대학역량 진단 시 가장 중요하게 반영해야 할 지표(전체, 2015~2020)

6) 대학교육혁신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

<질문>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교육혁신을 위해 앞으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를 순위대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이 문항은 현 정부 고등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새롭게 추가된 신규 문항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교육혁신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 전체 응답자가 1순위로 선택한 과제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31.1%), 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25.2%), 지자체-대학협력 기반 지역 혁신(11.5%), 대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 혁신(10.2%),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 혁신(10.1%), 대학의 자율혁신을 위한 대학평가 체제 개선(5.7%), 특성화 지향 대학체제 혁신(3.4%), 대학 간 상호 성장할 수 있는 대학체제 개편(2.8%), 기타(0.0%) 순이었고, 1+2순위로 선택한 대학교육혁신을 위한 과제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23.5%), 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22.5%),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 혁신(13.2%), 대학의 자율혁신을 위한 대학평가 체제 개선(11.0%), 지자체-대학협력 기반 지역 혁신(9.7%), 대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 혁신(8.2%), 특성화 지향 대학체제 혁신(7.3%), 대학 간 상호 성장할 수 있는 대학체제 개편(4.5%), 기타(0.0%)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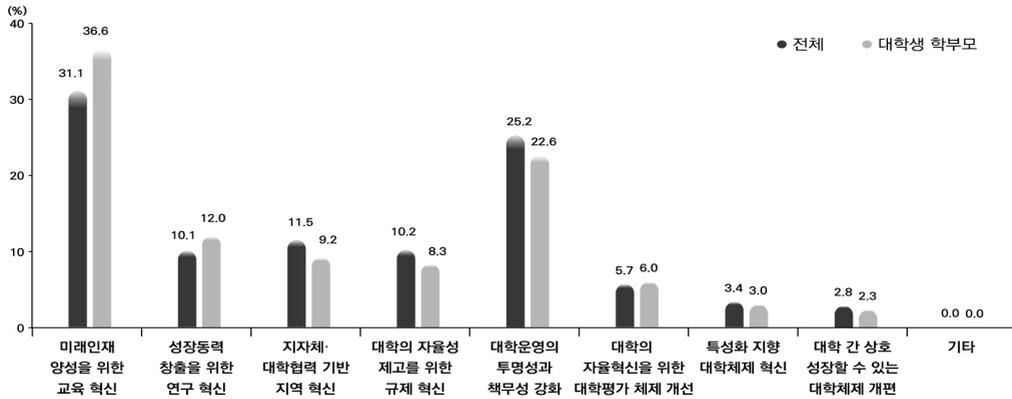
대학생 학부모 응답자가 21순위로 꼽은 대학교육혁신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36.6%), 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22.6%),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 혁신(12.0%), 지자체-대학협력 기반 지역 혁신(9.2%), 대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 혁신(8.3%), 대학의 자율혁신을 위한 대학평가 체제 개선(6.0%), 특성화 지향 대학체제 혁신(3.0%), 대학 간 상호 성장할 수 있는 대학체제 개편(2.3%), 기타(0.0%) 순이었고, 1+2순위로 선택한 대학교육혁신을 위한 과제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27.3%), 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20.2%),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 혁신(15.5%), 대학의 자율혁신을 위한 대학평가 체제 개선(10.5%), 지자체-대학협력 기반 지역 혁신(8.5%), 특성화 지향 대학체제 혁신(7.7%), 대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 혁신(6.5%), 대학 간 상호 성장할 수 있는 대학체제 개편(3.8%), 기타(0.0%)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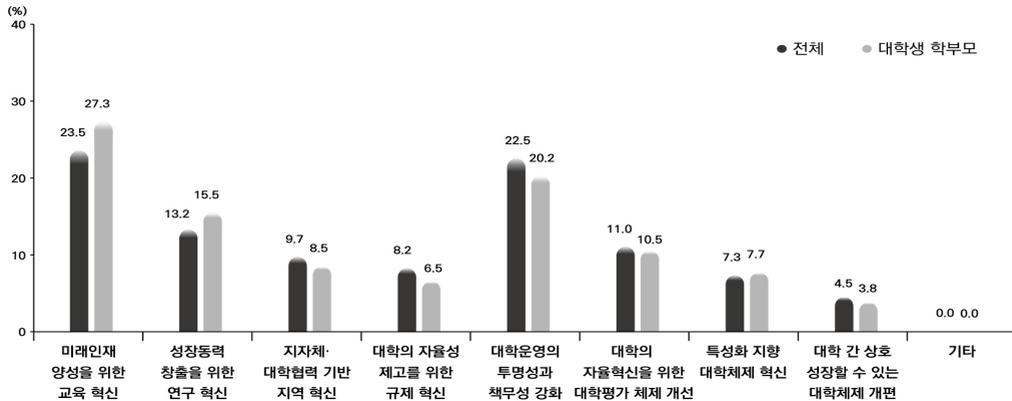
〈표 Ⅲ-50〉 대학교육혁신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2020)

(단위: 명(%))

대학교육혁신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	2020			
	전체		대학생 학부모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	1,553 (31.1)	1,176 (23.5)	207 (36.6)	155 (27.3)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 혁신	504 (10.1)	663 (13.2)	68 (12.0)	88 (15.5)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 혁신	574 (11.5)	485 (9.7)	52 (9.2)	48 (8.5)
대학의 자율성제고를 위한 규제 혁신	510 (10.2)	411 (8.2)	47 (8.3)	37 (6.5)
대학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	1,261 (25.2)	1,124 (22.5)	128 (22.6)	115 (20.2)
대학의 자율혁신을 위한 대학평가 체제 개선	285 (5.7)	551 (11.0)	34 (6.0)	60 (10.5)
특성화 지향 대학체제 혁신	169 (3.4)	366 (7.3)	17 (3.0)	44 (7.7)
대학 간 상호 성장할 수 있는 대학체제 개편	142 (2.8)	225 (4.5)	13 (2.3)	22 (3.8)
기타	2 (0.0)	2 (0.0)	0 (0.0)	0 (0.0)
계	5,000 (100.0)	5,000 (100.0)	566 (100.0)	566 (100.0)



[그림 III-92] 대학교육혁신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1순위, 2020)



[그림 III-93] 대학교육혁신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1+2순위, 2020)

8 교육현안 및 미래교육

요약

- 교육행정의 권한과 책임과 관련하여 유·초·중·고 교육정책의 수립, 교과목 표준 학습성취 기준 마련은 시·도교육청 교육감(각각 38.1%, 39.4%)이, 필수 교육과정의 결정은 교육부 장관(36.9%)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은 학교장(35.5%)이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함.
- 2~3년 전과 비교한 사교육 실태 변화에 대해 과반이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51.8%)이라 응답하였고, 사교육비 부담과 사교육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고부담-중효과(21.7%), 고부담-고효과(19.1%), 중부담

- 중효과(13.1%), 고부담-저효과(12.3%) 순으로 응답함.
-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정책으로는 여전히 EBS 수능 연계(26.1%)를 1순위로 꼽았고, 다음으로 대입전형 단순화(15.5%), EBS 강의(12.7%), 선행학습 금지 정책(11.5%), 방과후 학교(초등돌봄교실 포함) 운영(11.4%) 등을 꼽음.
-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남들이 하나씩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26.4%), 남들보다 앞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25.4%)의 응답률이 높았고, 자녀의 사교육비 부담 정도는 부담된다는 의견이 94.3%이었으며, 학교급별로는 초 94.7%, 중 95.9%, 고 93.7%가 부담된다고 응답함.
- 자녀의 사교육과 관련하여 대체로 사교육을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36.2%),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어도 사교육은 필요하고(37.0%), 어떤 종류의 사교육을 할 것인지는 부모가 결정(39.1%)하며, 취미생활은 말리지 않지만(54.7%), 자녀가 공부를 안하고 있으면 대체로 불안하고(45.6%), 자녀가 학원에 가거나 과외공부를 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기도 하다고 응답함(보통 43.1%).
- 미래 사회 변화 중 우리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변화로 저출산 고령화(42.3%)를 1순위로 꼽고 있으며,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로 학습자관리시스템(학습 관리, 생활지도, 건강관리, 진로지도 등) 구축 및 운영(19.4%), 온라인-오프라인 학습 병행(15.2%), 유연한 학교 제도(학제) 구축(11.8%), 교과 교사, 학습컨설턴트, 특별전문강사 등 교원 다양화(11.7%)를 꼽음.
- 향후 미래 학교에서 더 강조될 역할과 기능으로 초등학교는 아동·학생들의 보육 혹은 돌봄(24.7%), 자기주도학습 등 문제해결 역량 교육(21.7%)을, 중학교는 자기주도학습 등 문제해결 역량 교육(32.9%), 공동체 역량 및 협동·협업 역량 교육(17.6%)을, 고등학교는 미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탐색 및 교육(31.6%), 자기주도학습 등 문제해결 역량 교육(19.9%)을 1, 2순위로 선택함.

1) 교육행정 권한과 책임에 대한 의견

〈질문〉 다음과 같은 **교육행정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갖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까?

- (1) 유·초·중·고 교육정책의 수립
- (2) 필수 교육과정의 결정
- (3) 교과목 표준 학습성취 기준 마련
- (4)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유·초·중·고 교육정책의 수립에 교육행정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갖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는 지난 14차 조사(2019년)와 동일하게 시·도 교육감(38.1%)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교육부 장관(36.8%), 학교장(17.2%), 잘 모르겠다(7.9%) 순으로 응답하였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도 시·도 교육감(40.1%), 교육부 장관(38.3%),

학교장(17.0%), 잘 모르겠다(4.6%)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필수 교육과정의 결정에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는 지난 14차 조사(2019년)와 동일하게 교육부 장관(36.9%), 시·도 교육감(34.9%), 학교장(21.0%), 잘 모르겠다(7.3%) 순으로 응답하였으나, 초·중·고 학부모의 경우는 시·도 교육감(36.8%), 교육부 장관(36.1%), 학교장(24.2%), 잘 모르겠다(2.9%)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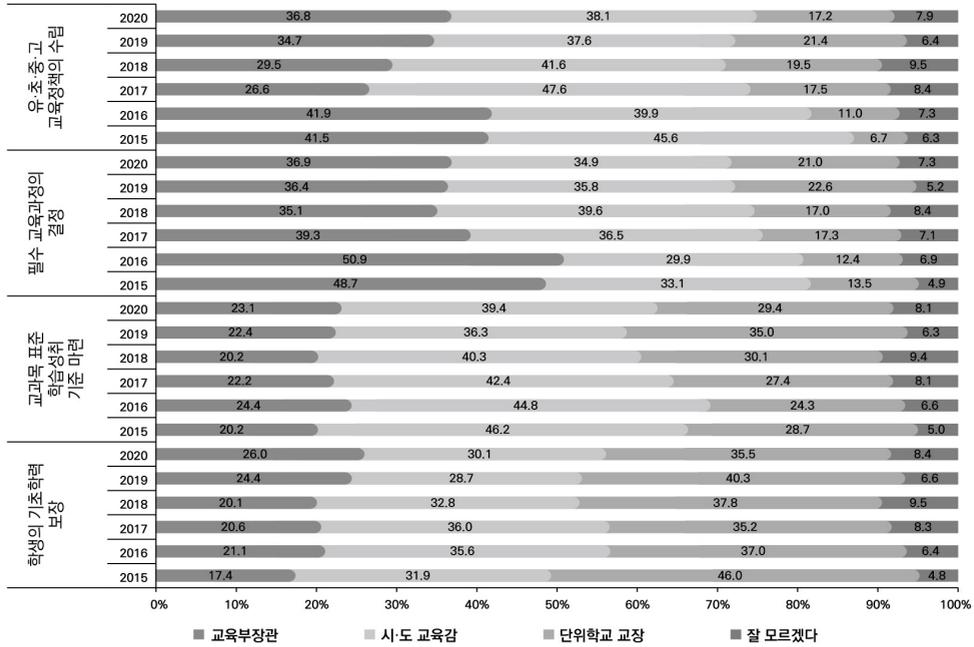
교과목 표준 학습성취 기준 마련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경우, 전체 응답자는 시·도 교육감(39.4%)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학교장(29.4%), 교육부 장관(23.1%), 잘 모르겠다(8.1%) 순으로 응답하였다. 초·중·고 학부모도 시·도 교육감(39.2%), 학교장(33.5%), 교육부 장관(23.9%), 잘 모르겠다(3.5%)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경우 학교장(35.5%), 시·도교육청 교육감(30.1%), 교육부장관(26.0%), 잘 모르겠다(8.4%) 순으로 응답하였고,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도 학교장(37.7%), 시·도교육청 교육감(31.1%), 교육부장관(26.7%), 잘 모르겠다(4.4%)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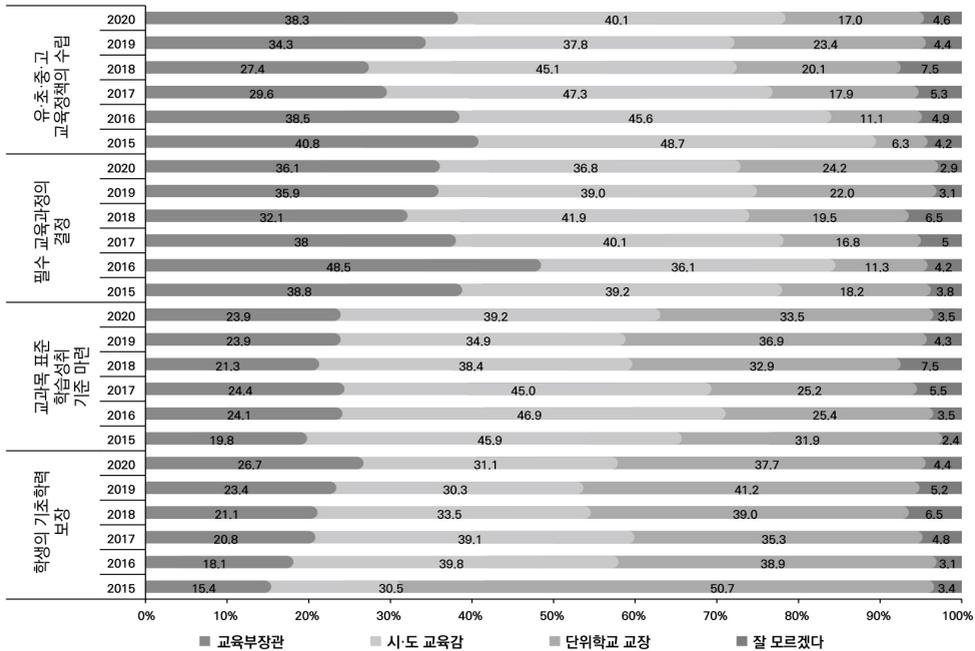
〈표 III-51〉 교육행정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의견(2019~2020)

(단위: 명(%))

교육행정의 권한과 책임	유·초·중·고 교육정책의 수립			필수 교육과정의 결정			교과목 표준 학습성취 기준 마련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2020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2019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교육부 장관	1,841 (36.8)	397 (38.3)	1,387 (34.7)	1,843 (36.9)	374 (36.1)	1,456 (36.4)	1,156 (23.1)	248 (23.9)	897 (22.4)	1,299 (26.0)	277 (26.7)	975 (24.4)
시·도 교육감	1,904 (38.1)	416 (40.1)	1,502 (37.6)	1,745 (34.9)	382 (36.8)	1,433 (35.8)	1,970 (39.4)	406 (39.2)	1,451 (36.3)	1,507 (30.1)	323 (31.1)	1,148 (28.7)
학교장	859 (17.2)	176 (17.0)	855 (21.4)	1,048 (21.0)	251 (24.2)	905 (22.6)	1,471 (29.4)	347 (33.5)	1,401 (35.0)	1,776 (35.5)	391 (37.7)	1,612 (40.3)
잘 모르겠다	396 (7.9)	48 (4.6)	256 (6.4)	364 (7.3)	30 (2.9)	206 (5.2)	403 (8.1)	36 (3.5)	251 (6.3)	418 (8.4)	46 (4.4)	265 (6.6)
계	5,000 (100.0)	1,037 (100.0)	4,000 (100.0)									



[그림 III-94] 교육행정 권한과 책임에 대한 의견(전체, 2015~2020)



[그림 III-95] 교육행정 권한과 책임에 대한 의견(초·중·고 학부모, 2015~2020)

2) 2~3년 전과 비교한 사교육 실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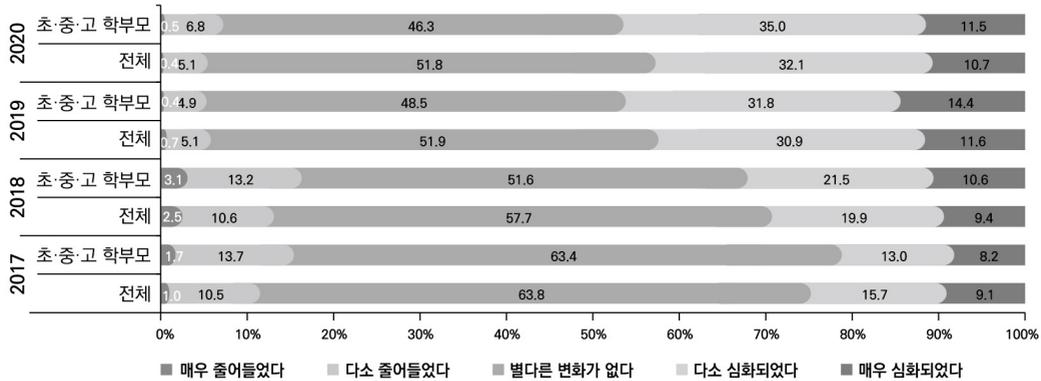
〈질문〉 2~3년 전과 비교해 볼 때 현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받고 있는 사교육(학원 수강, 개인·그룹과외, 학습지 등)이 어떻게 변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받고 있는 사교육이 2~3년 전과 비교해볼 때 어떻게 변화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의견(51.8%)을 과반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심화되었다(다소 심화되었다+매우 심화되었다) 42.8%, 줄어들었다(매우 줄어들었다+다소 줄어들었다) 5.5%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심화되었다 46.5%, 별다른 변화가 없다 46.3%, 줄어들었다 7.3%로 심화되었다는 의견의 응답률이 근소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2〉 2~3년 전과 비교한 사교육 실태 변화(1999, 2001, 2017~2020)

(단위: 명(%))

사교육 실태 변화	2020		2019		2018		2017		2001		1999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매우 줄어들었다	18 (0.4)	5 (0.5)	26 (0.7)	3 (0.4)	49 (2.5)	16 (3.1)	20 (1.0)	8 (1.7)	9 (0.7)	3 (0.7)	42 (2.8)	19 (3.0)
다소 줄어들었다	254 (5.1)	70 (6.8)	202 (5.1)	41 (4.9)	411 (10.6)	67 (13.2)	209 (10.5)	65 (13.7)	145 (11.4)	42 (9.9)	404 (26.8)	171 (27.4)
별다른 변화가 없다	2,590 (51.8)	480 (46.3)	2,076 (51.9)	404 (48.5)	1,154 (57.7)	262 (51.6)	1,276 (63.8)	302 (63.4)	360 (28.4)	122 (28.8)	715 (47.4)	298 (47.8)
다소 심화되었다	1,603 (32.1)	363 (35.0)	1,234 (30.9)	265 (31.8)	398 (19.9)	109 (21.5)	313 (15.7)	62 (13.0)	342 (27.0)	112 (26.5)	242 (16.0)	92 (14.8)
매우 심화되었다	535 (10.7)	119 (11.5)	462 (11.6)	120 (14.4)	188 (9.4)	54 (10.6)	182 (9.1)	39 (8.2)	351 (27.7)	137 (32.4)	106 (7.0)	43 (6.9)
잘 모르겠다 (2001 이후 제외)	-	-	-	-	-	-	-	-	60 (4.7)	7 (1.7)	-	-
계	5,000 (100.0)	1,037 (100.0)	4,000 (100.0)	833 (100.0)	2,000 (100.0)	508 (100.0)	2,000 (100.0)	476 (100.0)	1,267 (100.0)	423 (100.0)	1,509 (100.0)	623 (100.0)



[그림 III-96] 2~3년 전과 비교한 사교육 실태 변화(2017~2020)

3) 사교육 비용 부담과 사교육 효과에 대한 의견

〈질문〉 사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과 사교육으로 인한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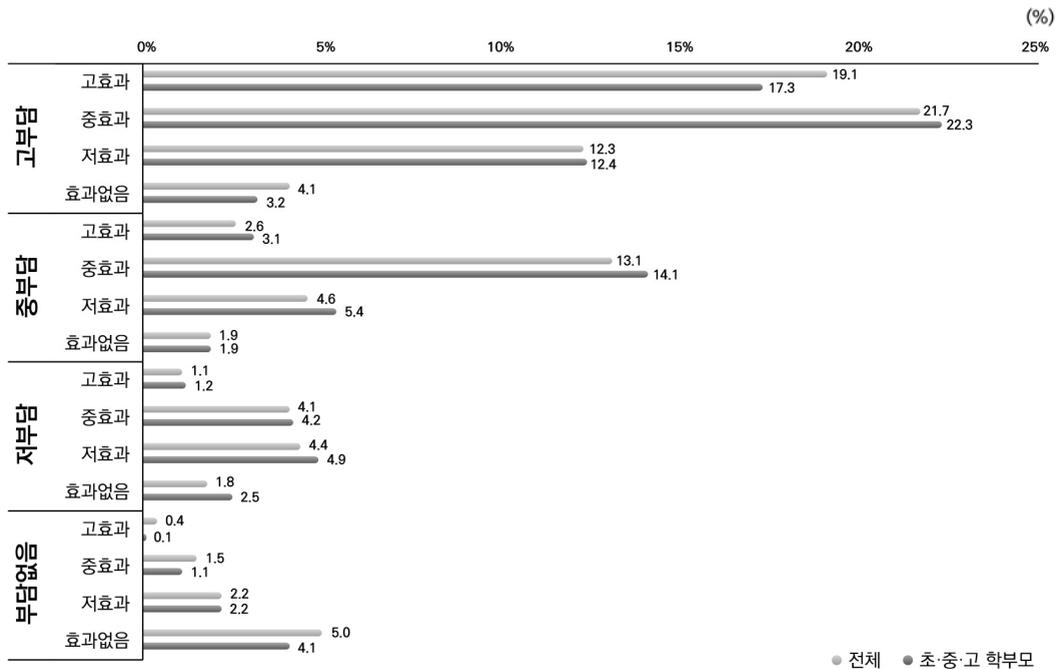
이 문항은 이번 15차 조사의 신규 문항으로 포함되었으며, 사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과 사교육으로 인한 효과에 대해 전체 응답자는 고부담-중효과(21.7%)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고부담-고효과(19.1%), 중부담-중효과(13.1%), 고부담-저효과(12.3%), 부담없음-효과없음(5.0%), 중부담-저효과(4.6%), 저부담-저효과(4.4%), 고부담-효과없음(4.1%), 저부담-중효과(4.1%), 중부담-고효과(2.6%), 부담없음-저효과(2.2%), 중부담-효과없음(1.9%), 저부담-효과없음(1.8%), 부담없음-중효과(1.5%), 저부담-고효과(1.1%), 부담없음-고효과(0.4%) 순으로 응답하였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도 고부담-중효과(22.3%)를 가장 많은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고부담-고효과(17.3%), 중부담-중효과(14.1%), 고부담-저효과(12.4%), 중부담-저효과(5.4%), 저부담-저효과(4.9%), 저부담-중효과(4.2%), 부담없음-효과없음(4.1%), 고부담-효과없음(3.2%), 중부담-고효과(3.1%), 저부담-효과없음(2.5%), 부담없음-저효과(2.2%), 중부담-효과없음(1.9%), 저부담-고효과(1.2%), 부담없음-중효과(1.1%), 부담없음-고효과(0.1%)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53〉 사교육 비용 부담과 사교육 효과에 대한 의견(2020)

(단위: 명(%))

사교육 비용 부담과 사교육 효과에 대한 의견	2020							
	전체				초·중·고 학부모			
사교육 효과 사교육 부담	고효과	중효과	저효과	효과없음	고효과	중효과	저효과	효과없음
고부담	954 (19.1)	1,085 (21.7)	614 (12.3)	205 (4.1)	179 (17.3)	231 (22.3)	129 (12.4)	33 (3.2)
중부담	132 (2.6)	655 (13.1)	231 (4.6)	97 (1.9)	32 (3.1)	146 (14.1)	56 (5.4)	20 (1.9)
저부담	57 (1.1)	205 (4.1)	220 (4.4)	92 (1.8)	12 (1.2)	44 (4.2)	51 (4.9)	26 (2.5)
부담없음	19 (0.4)	74 (1.5)	111 (2.2)	249 (5.0)	1 (0.1)	11 (1.1)	23 (2.2)	43 (4.1)
계	5,000 (100.0)				1,037 (100.0)			



[그림 III-97] 사교육 비용 부담과 사교육 효과에 대한 의견(2020)

4)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정책

〈질문〉 다음의 교육정책들 중에서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번 문항의 선택지와 관련, 추진 중인 정책과 연계하여 선택지를 일부 수정 및 추가하였다. 교육정책들 중에서 사교육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정책으로 전체 응답자는 EBS 수능 연계(26.1%), 대입전형 단순화(15.5%), EBS 강의(12.7%), 선행학습 금지 정책(11.5%), 방과후 학교(초등돌봄교실 포함) 운영(11.4%),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9.6%), 수능(영어, 한국사 등) 절대평가(6.3%), 고교체제 단순화(6.0%), 기타(0.9%) 순으로 응답하였다. EBS 수능연계 정책은 의 경우 지난 10차 조사(2015년)부터 계속적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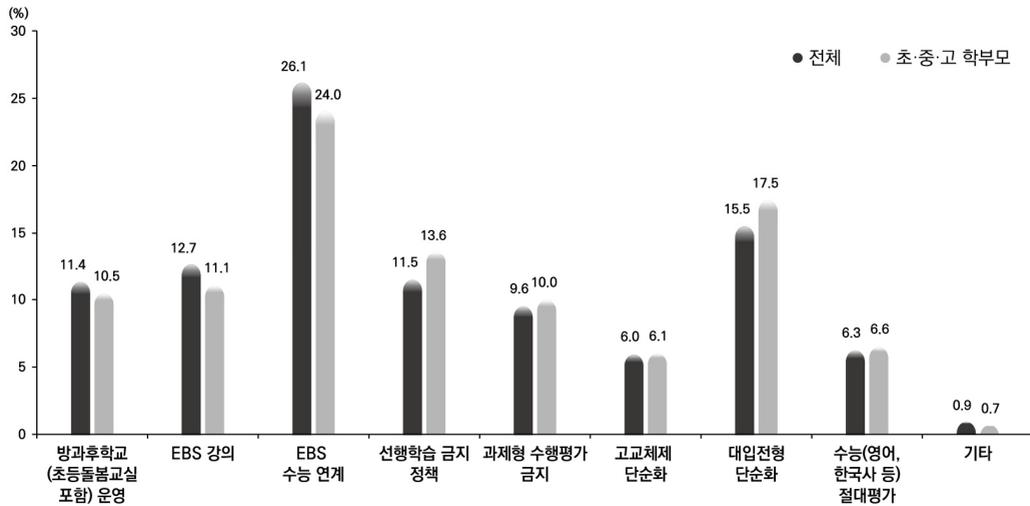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도 EBS 수능 연계(24.0%)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 대입전형 단순화(17.5%), 선행학습 금지 정책(13.6%), EBS 강의(11.1%), 방과후 학교(초등돌봄교실 포함) 운영(10.5%),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10.0%), 수능(영어, 한국사 등) 절대평가(6.6%), 고교체제 단순화(6.1%), 기타(0.7%)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Ⅲ-54〉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정책(2011~2020)

(단위: 명(%))

사교육비 경감 정책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3	2012	2011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방과후 학교(초등돌봄교실 포함) 운영	568 (11.4)	109 (10.5)	671 (16.8)	256 (12.8)	352 (17.6)	350 (17.5)	293 (14.7)	515 (25.8)	598 (33.2)	468 (31.2)
EBS 강의	633 (12.7)	115 (11.1)	588 (14.7)	225 (11.3)	234 (11.7)	250 (12.5)	192 (9.6)	438 (21.9)	548 (30.4)	467 (31.1)
EBS 수능 연계	1,307 (26.1)	249 (24.0)	869 (21.7)	472 (23.6)	462 (23.1)	386 (19.3)	458 (22.9)	-	-	-
선행학습 금지 정책	576 (11.5)	141 (13.6)	376 (9.4)	221 (11.1)	182 (9.1)	177 (8.9)	169 (8.5)	-	-	-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478 (9.6)	104 (10.0)	-	-	-	-	-	-	-	-
고교체제 단순화	300 (6.0)	63 (6.1)	-	-	-	-	-	-	-	-

사교육비 경감 정책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3	2012	2011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대입전형 단순화	777 (15.5)	181 (17.5)	529 (13.2)	261 (13.1)	255 (12.8)	232 (11.6)	287 (14.4)	-	-	-
수능(영어/한국사 등) 절대평가	315 (6.3)	68 (6.6)	183 (4.6)	93 (4.7)	67 (3.4)	40 (2.0)	-	-	-	-
기타	46 (0.9)	7 (0.7)	34 (0.9)	34 (1.7)	15 (0.8)	42 (2.1)	48 (2.4)	17 (0.9)	6 (0.3)	2 (0.1)
과정중심평가 강화 (2020 제외)	-	-	343 (8.6)	239 (12.0)	123 (6.2)	140 (7.0)	-	-	-	-
자기주도학습전형 방식 (고입) (2020 제외)	-	-	407 (10.2)	199 (10.0)	204 (10.2)	256 (12.8)	279 (14.0)	132 (6.6)	69 (3.8)	55 (3.7)
자유학기제 (2018 이후 제외)	-	-	-	-	106 (5.3)	127 (6.4)	-	-	-	-
교원능력개발 평가도입 (2015 이후 제외)	-	-	-	-	-	-	-	175 (8.8)	155 (8.6)	177 (11.8)
중등학교 절대평가 도입 (2016 이후 제외)	-	-	-	-	-	-	104 (5.2)	84 (4.2)	110 (6.1)	59 (3.9)
학원 수강료 공시 및 교습 시간 제한 (2016 이후 제외)	-	-	-	-	-	-	101 (5.1)	136 (6.8)	122 (6.8)	106 (7.1)
대학입학사정 전형방식 도입(2015 이후 제외)	-	-	-	-	-	-	-	75 (3.8)	61 (3.4)	33 (2.2)
취업시 학력/학벌 차별 해소 (2015 이후 제외)	-	-	-	-	-	-	-	428 (21.4)	131 (7.3)	132 (8.8)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2016 이후 제외)	-	-	-	-	-	-	69 (3.5)	-	-	-
모름/무응답 (2015 이후 제외)	-	-	-	-	-	-	-	0 (0.0)	0 (0.0)	1 (0.1)
계	5,000 (100.0)	1,037 (100.0)	4,000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1,800 (100.0)	1,500 (100.0)



[그림 III-98]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정책(2020)

5) 사교육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

〈질문〉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유가 2개 이상인 경우 복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는 남들이 하나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26.4%)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남들보다 앞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25.4%),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17.2%),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해서(13.5%), 방과 후 집에서 공부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6.4%), 특기·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5.9%), 자녀가 혼자서는 공부를 하지 않아서(4.9%), 기타(0.3%)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 경향은 다시 조사 문항으로 포함한 12차 조사(2017년) 이후 계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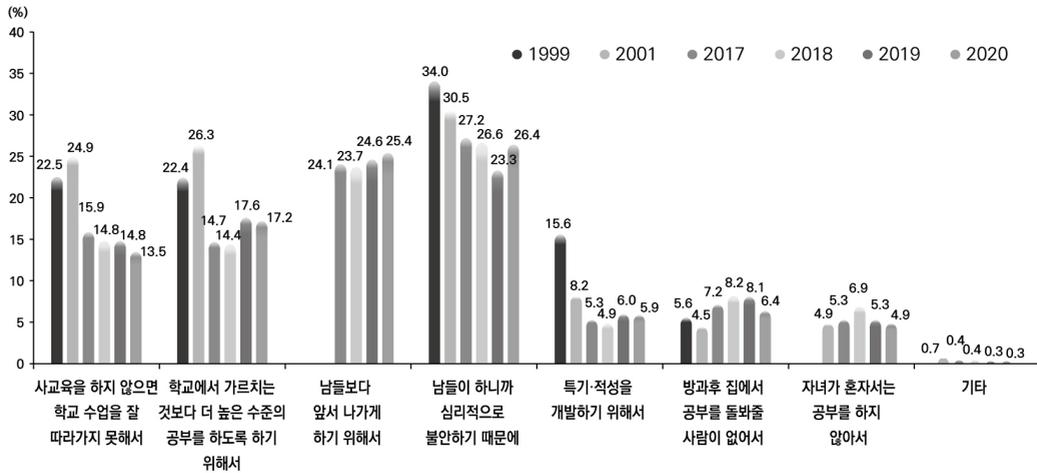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도 전체 응답자와 같이 남들이 하나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23.4%), 남들보다 앞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22.3%)를 1, 2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18.4%),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해서(15.3%), 자녀가 혼자서 공부하지 않아서(7.4%), 특기·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7.2%), 방과 후 집에서 공부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5.9%), 기타(0.2%)의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III-55〉 사교육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1999, 2001, 2017~2020)

(단위: 명(%))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	2020		2019		2018		2017		2001	1999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전체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해서	1,132 (13.5)	266 (15.3)	1,103 (14.8)	277 (17.9)	584 (14.8)	163 (16.3)	592 (15.9)	157 (17.7)	316 (24.9)	339 (22.5)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1,440 (17.2)	319 (18.4)	1,310 (17.6)	270 (17.4)	567 (14.4)	126 (12.6)	547 (14.7)	133 (15.0)	333 (26.3)	337 (22.4)
남들보다 앞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	2,133 (25.4)	387 (22.3)	1,832 (24.6)	317 (20.5)	935 (23.7)	217 (21.7)	897 (24.1)	198 (22.3)	-	-
남들이 하나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2,214 (26.4)	407 (23.4)	1,740 (23.3)	324 (20.9)	1,049 (26.6)	257 (25.8)	1,013 (27.2)	215 (24.3)	386 (30.5)	512 (34.0)
특기·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495 (5.9)	125 (7.2)	446 (6.0)	99 (6.4)	195 (4.9)	61 (6.1)	198 (5.3)	67 (7.6)	104 (8.2)	235 (15.6)
방과후 집에서 공부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537 (6.4)	102 (5.9)	600 (8.1)	122 (7.9)	324 (8.2)	86 (8.6)	267 (7.2)	62 (7.0)	57 (4.5)	84 (5.6)
자녀가 혼자서는 공부를 하지 않아서	415 (4.9)	128 (7.4)	398 (5.3)	129 (8.3)	273 (6.9)	81 (8.1)	198 (5.3)	50 (5.6)	62 (4.9)	-
기타	21 (0.3)	4 (0.2)	23 (0.3)	10 (0.6)	14 (0.4)	7 (0.7)	15 (0.4)	4 (0.5)	9 (0.7)	-
계	8,387 (100.0)	1,738 (100.0)	7,452 (100.0)	1,548 (100.0)	3,941 (100.0)	998 (100.0)	3,727 (100.0)	886 (100.0)	1,267 (100.0)	1,507 (100.0)



[그림 III-99] 사교육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전체, 1999, 2001, 2017~2020)

6) 자녀 사교육비 부담 정도

<질문> (유·초·중·고 학생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사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가계에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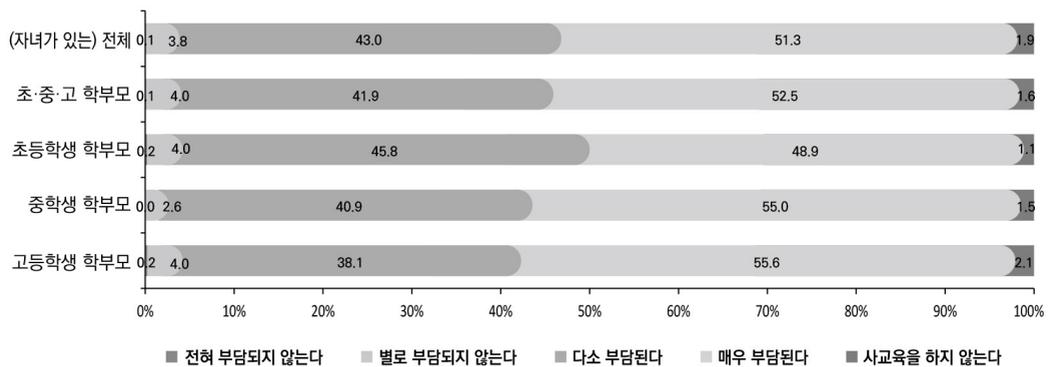
유·초·중·고 학생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사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부담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 자녀가 있는 전체 응답자는 부담된다(다소 부담된다+매우 부담된다) 94.3%, 부담되지 않는다(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3.8%, 사교육을 하지 않는다 1.9%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부담된다는 의견이 지난 14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응답자 중 초·중·고 학부모의 경우도 부담된다 94.3%, 부담 되지 않는다 4.1%, 사교육을 하지 않는다 1.6%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급별 학부모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부담된다는 의견이 초등학생 학부모는 94.7%, 중학생 학부모는 95.9%, 고등학생 학부모는 93.7%였으며, 부담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초등학생 학부모 4.2%, 중학생 학부모 2.6%, 고등학생 학부모 4.2%, 사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초등학생 학부모 1.1%, 중학생 학부모 1.5%, 고등학생 학부모 2.1%로 나타나, 자녀의 사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의 부담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6〉 자녀 사교육비 부담 정도(2018~2020)

(단위: 명(%))

사교육비 부담 정도	2020					2019					2018
	전체	초·중·고 학부모	초등 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고등 학생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초등 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고등 학생 학부모	전체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1 (0.1)	1 (0.1)	1 (0.2)	0 (0.0)	1 (0.2)	2 (0.2)	2 (0.2)	2 (0.5)	2 (0.7)	0 (0.0)	10 (0.8)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44 (3.8)	41 (4.0)	21 (4.0)	9 (2.6)	17 (4.0)	30 (3.1)	25 (3.0)	10 (2.3)	10 (3.7)	12 (3.4)	57 (4.5)
다소 부담된다	504 (43.0)	434 (41.9)	241 (45.8)	140 (40.9)	163 (38.1)	368 (38.0)	314 (37.7)	174 (39.9)	96 (36.0)	120 (34.3)	405 (31.7)
매우 부담된다	602 (51.3)	544 (52.5)	257 (48.9)	188 (55.0)	238 (55.6)	549 (56.7)	473 (56.8)	240 (55.0)	156 (58.4)	210 (60.0)	724 (56.7)
사교육을 하지 않는다	22 (1.9)	17 (1.6)	6 (1.1)	5 (1.5)	9 (2.1)	20 (2.1)	19 (2.3)	10 (2.3)	3 (1.1)	8 (2.3)	81 (6.3)
계	1,173 (100.0)	1,037 (100.0)	526 (100.0)	342 (100.0)	428 (100.0)	969 (100.0)	833 (100.0)	436 (100.0)	267 (100.0)	350 (100.0)	1,277 (100.0)



〈그림 III-100〉 자녀의 사교육비 부담 정도(2020)

7) 자녀의 사교육과 관련한 생각

〈질문〉 (유·초·중·고 학생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사교육과 관련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의 사교육과 관련한 생각을 묻는 문항으로, 먼저 사교육은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는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렇다) 27.6%, 보통이다 36.1%, 대체로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 36.2%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과 보통이다의 의견이 거의 같았다(평균 2.89/5점 만점). 초·중고 학부모의 경우, 대체로 그렇다 26.2%, 보통이다 37.1%, 대체로 그렇지 않다 36.6%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높았다(평균 2.87).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어도 사교육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는 대체로 그렇다 37.0%, 보통이다 31.4%, 대체로 그렇지 않다 31.6%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고(평균 3.04),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도 대체로 그렇다 37.5%, 보통이다 31.2%, 대체로 그렇지 않다 31.2%의 응답률을 보였다(평균 3.06).

어떤 종류의 사교육을 할 것인지는 부모가 결정한다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는 대체로 그렇다 39.1%, 보통이다 34.3%, 대체로 그렇지 않다 26.6%의 응답률을 보였고(평균 3.14),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도 대체로 그렇다 39.3%, 보통이다 34.2%, 대체로 그렇지 않다 26.4%로 대체로 그렇다는 의견이 높았다(평균 3.14).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취미활동은 하지 않도록 말린다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는 대체로 그렇다 16.5%, 보통이다 28.8%, 대체로 그렇지 않다 54.7%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높았고(평균 2.48),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도 대체로 그렇다 17.1%, 보통이다 28.1%, 대체로 그렇지 않다 54.9%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에 과반이 응답하였다(평균 2.49).

자녀가 공부를 안하고 있으면 불안한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는 대체로 그렇다 45.6%, 보통이다 34.5% 대체로 그렇지 않다 19.9%로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률이 높았고(평균 3.29),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도 대체로 그렇다 47.8%, 보통이다 33.6%, 대체로 그렇지 않다 18.6%로 대체로 그렇다는 의견이 높았다(평균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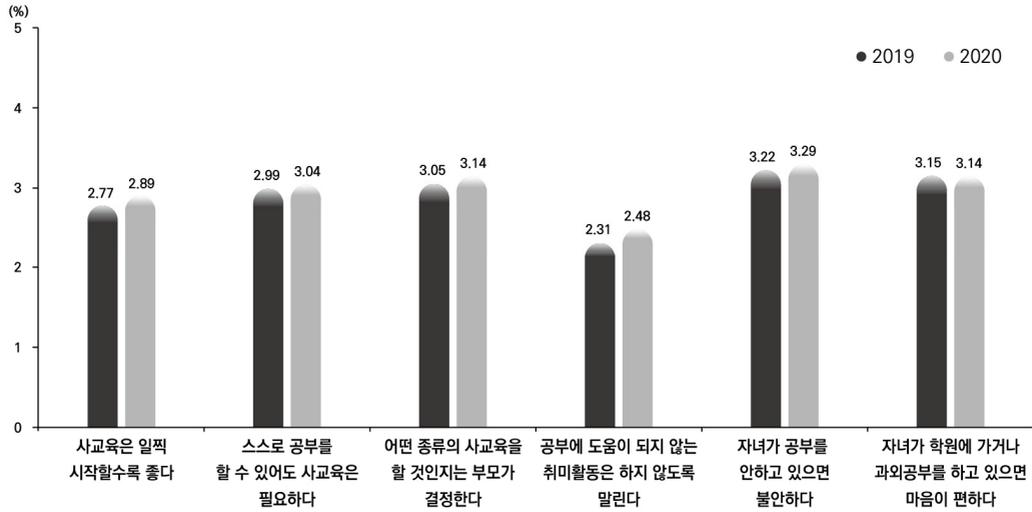
자녀가 학원에 가거나 과외공부를 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한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는 대체로 그렇다 35.8%, 보통이다 43.1%, 대체로 그렇지 않다 21.1%로 보통이다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평균 3.14), 초·중고 학부모의 경우도 대체로 그렇다 37.3%, 보통이다 42.3%, 대체로 그렇지 않다 20.3%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높았다(평균 3.17).

〈표 III-57〉 자녀의 사교육과 관련한 생각(2020)

(단위: 명(%))

자녀의 사교육과 관련한 생각	2020					
	사교육은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어도 사교육은 필요하다		어떤 종류의 사교육을 할 것인지는 부모가 결정한다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매우 그렇다	67 (5.7)	53 (5.1)	62 (5.3)	59 (5.7)	55 (4.7)	51 (4.9)
그렇다	257 (21.9)	219 (21.1)	372 (31.7)	330 (31.8)	404 (34.4)	357 (34.4)
보통이다	424 (36.1)	385 (37.1)	368 (31.4)	324 (31.2)	402 (34.3)	355 (34.2)
그렇지 않다	332 (28.3)	297 (28.6)	294 (25.1)	259 (25.0)	269 (22.9)	236 (22.8)
전혀 그렇지 않다	93 (7.9)	83 (8.0)	77 (6.6)	65 (6.3)	43 (3.7)	38 (3.7)
계	1,173 (100.0)	1,037 (100.0)	1,173 (100.0)	1,037 (100.0)	1,173 (100.0)	1,037 (100.0)
평균 (표준편차)	2.89 (1.02)	2.87 (1.00)	3.04 (1.02)	3.06 (1.02)	3.14 (0.94)	3.14 (0.95)

자녀의 사교육과 관련한 생각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취미활동은 하지 않도록 말린다		자녀가 공부를 안하고 있으면 불안하다		자녀가 학원에 가거나 과외공부를 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매우 그렇다	26 (2.2)	22 (2.1)	86 (7.3)	83 (8.0)	45 (3.8)	43 (4.1)
그렇다	167 (14.2)	155 (14.9)	449 (38.3)	413 (39.8)	375 (32.0)	344 (33.2)
보통이다	338 (28.8)	291 (28.1)	405 (34.5)	348 (33.6)	505 (43.1)	439 (42.3)
그렇지 않다	458 (39.0)	408 (39.3)	184 (15.7)	154 (14.9)	198 (16.9)	171 (16.5)
전혀 그렇지 않다	184 (15.7)	161 (15.5)	49 (4.2)	39 (3.8)	50 (4.3)	40 (3.9)
계	1,173 (100.0)	1,037 (100.0)	1,173 (100.0)	1,037 (100.0)	1,173 (100.0)	1,037 (100.0)
평균 (표준편차)	2.48 (0.99)	2.49 (0.99)	3.29 (0.96)	3.33 (0.95)	3.14 (0.89)	3.17 (0.89)



[그림 III-101] 자녀의 사교육과 관련한 생각(전체 평균, 2019~2020)

8) 우리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미래사회 변화

<질문> 미래 사회 변화 중 우리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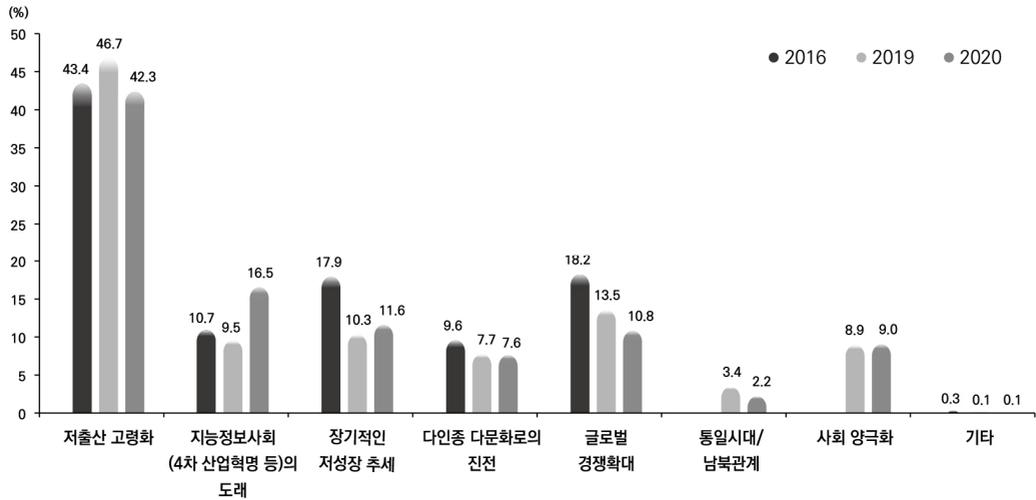
미래 사회 변화 중 우리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변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는 지난 11차(2016년), 14차 조사(2019년) 결과와 같이 저출산 고령화(42.3%)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 지능정보사회(4차 산업혁명 등)의 도래(16.5%), 장기적인 저성장 추세(11.6%), 글로벌 경쟁 확대(10.8%), 사회 양극화(9.0%), 다인종 다문화로의 진전(7.6%), 통일시대/남북관계(2.2%), 기타(0.1%) 순으로 응답하였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도 저출산 고령화(37.7%)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지능정보사회(4차 산업혁명 등)의 도래(19.6%), 장기적인 저성장 추세(13.4%), 글로벌 경쟁 확대(10.6%), 사회 양극화(9.1%), 다인종 다문화로의 진전(8.1%), 통일시대/남북관계(1.5%), 기타(0.0%)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표 III-58〉 우리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미래사회 변화(2016, 2019~2020)

(단위: 명(%))

우리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미래 사회 변화	2020		2019	2016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전체
저출산 고령화	2,117 (42.3)	391 (37.7)	1,869 (46.7)	868 (43.4)
지능정보사회(4차 산업혁명 등)의 도래	825 (16.5)	203 (19.6)	380 (9.5)	213 (10.7)
장기적인 저성장 추세	578 (11.6)	139 (13.4)	412 (10.3)	358 (17.9)
다인종 다문화로의 진전	379 (7.6)	84 (8.1)	308 (7.7)	191 (9.6)
글로벌 경쟁 확대	539 (10.8)	110 (10.6)	538 (13.5)	364 (18.2)
통일시대/남북관계	108 (2.2)	16 (1.5)	136 (3.4)	-
사회 양극화	450 (9.0)	94 (9.1)	355 (8.9)	-
기타	4 (0.1)	0 (0.0)	2 (0.1)	6 (0.3)
계	5,000 (100.0)	1,037 (100.0)	4,000 (100.0)	2,000 (100.0)



[그림 III-102] 우리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미래사회 변화(전체, 2016, 2019~2020)

9) 미래 초·중등학교 교육체제를 위한 요구 과제

〈질문〉 다음은 미래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육체제와 관련하여 요구(또는 기대)되어지는 과제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이중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는 무엇입니까?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이 문항의 경우도 추진 중인 정책의 반영 등 선택지를 추가 및 수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과제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는 학습자관리시스템(학습 관리, 생활지도, 건강관리, 진로지도 등) 구축 및 운영(19.4%), 온라인-오프라인 학습 병행(15.2%), 유연한 학교 제도(학제) 구축(11.8%), 교과 교사, 학습컨설턴트, 특별전문강사 등 교원 다양화(11.7%), 진학 진급제도의 탄력적 운영(9.6%),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자율성 확대(9.6%), 학교 밖 학습경험 인정(9.3%), 교육과정 내용량 축소(7.8%), 지역사회(마을) 공동체의 구심점 등 학교의 역할 확대(3.2%), 잘 모르겠다(2.5%)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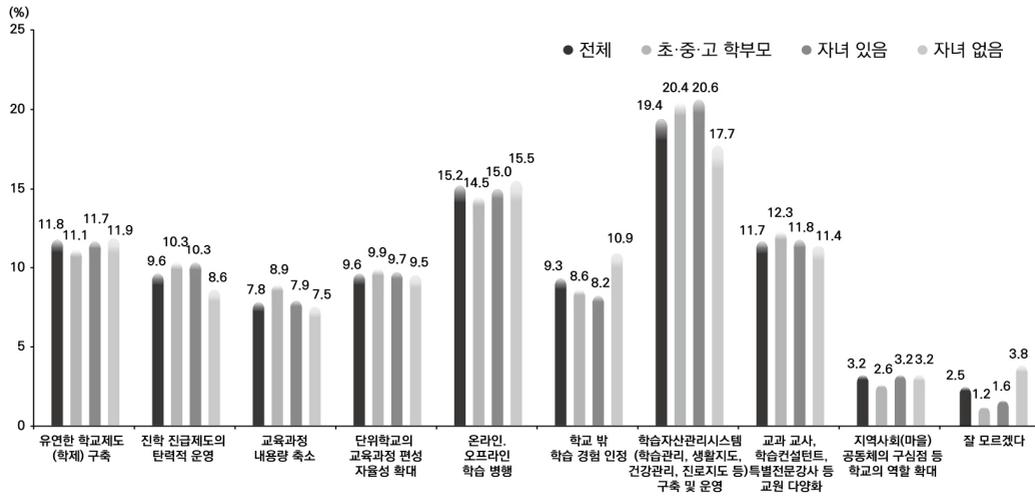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로는 먼저,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 학습자관리시스템(학습 관리, 생활지도, 건강관리, 진로지도 등) 구축 및 운영(20.4%), 온라인-오프라인 학습 병행(14.5%), 교과 교사, 학습컨설턴트, 특별전문강사 등 교원 다양화(12.3%), 유연한 학교제도(학제) 구축(11.1%), 진학 진급제도의 탄력적 운영(10.3%),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자율성 확대(9.9%), 교육과정 내용량 축소(8.9%), 학교 밖 학습경험 인정(8.6%), 지역사회(마을) 공동체의 구심점 등 학교의 역할 확대(2.6%), 잘 모르겠다(1.2%) 순으로 응답하였고,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 학습자관리시스템(학습 관리, 생활지도, 건강관리, 진로지도 등) 구축 및 운영(20.6%), 온라인-오프라인 학습 병행(15.0%), 교과 교사, 학습컨설턴트, 특별전문강사 등 교원 다양화(11.8%), 유연한 학교제도(학제) 구축(11.7%), 진학 진급제도의 탄력적 운영(10.3%),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자율성 확대(9.7%), 학교 밖 학습경험 인정(8.2%), 교육과정 내용량 축소(7.9%), 지역사회(마을) 공동체의 구심점 등 학교의 역할 확대(3.2%), 잘 모르겠다(1.6%) 순으로 응답하였다. 자녀가 없는 응답자의 경우에는 학습자관리시스템(학습 관리, 생활지도, 건강관리, 진로지도 등) 구축 및 운영(17.7%), 온라인-오프라인 학습 병행(15.5%), 유연한 학교제도(학제) 구축(11.9%), 교과

교사, 학습컨설턴트, 특별전문강사 등 교원 다양화(11.4%), 학교 밖 학습경험 인정(10.9%),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자율성 확대(9.5%), 진학 진급제도의 탄력적 운영(8.6%), 교육과정 내용량 축소(7.5%), 잘 모르겠다(3.8%), 지역사회(마을) 공동체의 구심점 등 학교의 역할 확대(3.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59〉 미래 초·중등학교 교육체제를 위한 요구 과제(2018~2020)

(단위: 명(%))

미래 초·중등학교 교육체제를 위한 요구 과제	2020				2019				2018
	전체	초·중·고 학부모	자녀 있음	자녀 없음	전체	초·중·고 학부모	자녀 있음	자녀 없음	전체
유연한 학교제도(학제) 구축	1,149 (11.8)	228 (11.1)	675 (11.7)	474 (11.9)	1,831 (22.9)	382 (22.9)	1,159 (23.6)	672 (21.8)	752 (18.8)
진학 진급제도의 탄력적 운영	940 (9.6)	212 (10.3)	595 (10.3)	345 (8.6)	933 (11.7)	201 (12.1)	549 (11.2)	384 (12.5)	479 (12.0)
교육과정 내용량 축소	757 (7.8)	183 (8.9)	457 (7.9)	300 (7.5)	656 (8.2)	163 (9.8)	408 (8.3)	248 (8.0)	374 (9.4)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자율성 확대	936 (9.6)	203 (9.9)	558 (9.7)	378 (9.5)	781 (9.8)	156 (9.4)	447 (9.1)	334 (10.8)	-
온라인-오프라인 학습 병행	1,484 (15.2)	298 (14.5)	864 (15.0)	620 (15.5)	1,226 (15.3)	269 (16.1)	751 (15.3)	475 (15.4)	502 (12.6)
학교 밖 학습경험 인정	906 (9.3)	177 (8.6)	471 (8.2)	435 (10.9)					
학습자관리시스템(학습 관리, 생활지도, 건강관리, 진로지도 등) 구축 및 운영	1,895 (19.4)	419 (20.4)	1,187 (20.6)	708 (17.7)	1,734 (21.7)	333 (20.0)	1,102 (22.4)	632 (20.5)	764 (19.1)
교과 교사, 학습컨설턴트, 특별전문강사 등 교원 다양화	1,138 (11.7)	253 (12.3)	681 (11.8)	457 (11.4)	839 (10.5)	162 (9.7)	502 (10.2)	337 (10.9)	393 (9.8)
지역사회(마을) 공동체의 구심점 등 학교의 역할 확대	311 (3.2)	53 (2.6)	182 (3.2)	129 (3.2)	-	-	-	-	-
학교유형의 다양화와 초·중·고 학교급간 연계 및 통합(2019 제외)	-	-	-	-	-	-	-	-	632 (15.8)
잘 모르겠다	242 (2.5)	24 (1.2)	92 (1.6)	150 (3.8)	-	-	-	-	104 (2.6)
계	9,758 (100.0)	2,050 (100.0)	5,762 (100.0)	3,996 (100.0)	8,000 (100.0)	1,666 (100.0)	4,918 (100.0)	3,082 (100.0)	4,000 (100.0)



[그림 Ⅲ-103] 미래 초·중등학교 교육체제를 위한 요구 과제(2020)

10) 미래 학교에서 더 강조될 역할과 기능

〈질문〉 미래 사회 변화 및 과학기술의 발달로 볼 때 학교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미래 학교에서 더 강조될 역할과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 선택하여 주십시오(학교급별 동일항목 선택 가능).

향후 미래 학교에서 더 강조될 역할과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학교급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응답자는 아동·학생들의 보육 혹은 돌봄(24.7%), 자기주도학습 등 문제해결 역량 교육(21.7%), 공동체 역량 및 협동·협업 역량 교육(21.1%), SW·AI 교육 및 코딩교육(11.0%), 융합 교육(8.1%), 지식의 전달 및 학습(7.8%), 미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탐색 및 교육(4.0%),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 체육, 예술 등의 평생교육(1.6%), 기타(0.0%) 순으로 응답하였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자기주도학습 등 문제해결 역량 교육(24.4%), 공동체 역량 및 협동·협업 역량 교육(22.8%), 아동·학생들의 보육 혹은 돌봄(20.9%) 등의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미래 중학교에서 더 강조될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경우 자기주도학습 등 문제해결 역량 교육(32.9%), 공동체 역량 및 협동·협업 역량 교육(17.6%), 미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탐색 및 교육(13.6%), SW·AI 교육 및 코딩교육(11.6%), 융합 교육

(11.1%), 지식의 전달 및 학습(9.8%), 아동·학생들의 보육 혹은 돌봄(2.3%),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 체육, 예술 등의 평생교육(1.0%), 기타(0.0%) 순으로 응답하였고, 초·중·고 학부모 자기주도학습 등 문제해결 역량 교육(38.2%), 공동체 역량 및 협동·협업 역량 교육(16.6%), 미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탐색 및 교육(12.2%), 지식의 전달 및 학습(10.2%) 등의 순으로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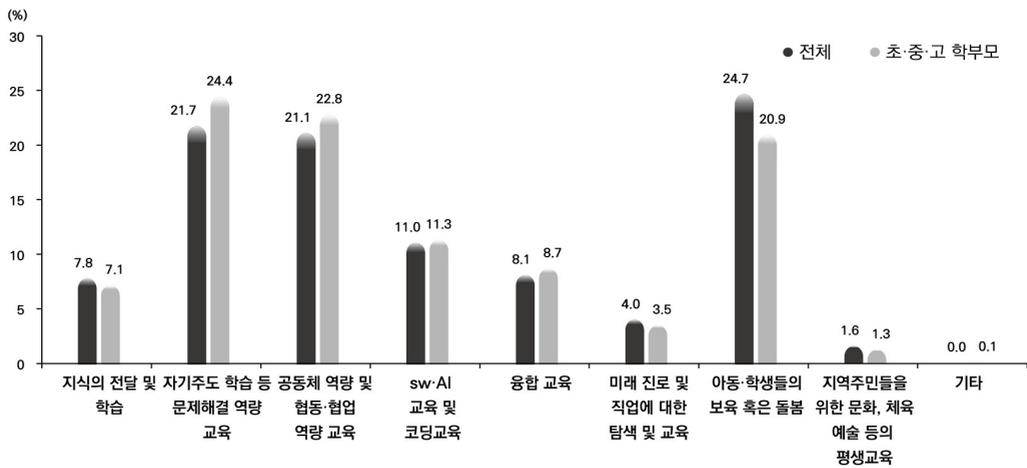
미래 고등학교에서 더 강조될 역할과 기능으로 전체 응답자는 미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탐색 및 교육(31.6%), 자기주도학습 등 문제해결 역량 교육(19.9%), 융합 교육(11.9%), 공동체 역량 및 협동·협업 역량 교육(11.6%), 지식의 전달 및 학습(11.2%), SW·AI 교육 및 코딩교육(8.6%), 아동·학생들의 보육 혹은 돌봄(3.1%),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 체육, 예술 등의 평생교육(2.0%), 기타(0.0%)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고,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미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탐색 및 교육(30.0%), 자기주도학습 등 문제해결 역량 교육(22.6%), 지식의 전달 및 학습(13.3%), 융합 교육(12.2%) 등의 순으로 선택하였다.

〈표 III-60〉 미래 학교에서 더 강조될 역할과 기능(2019~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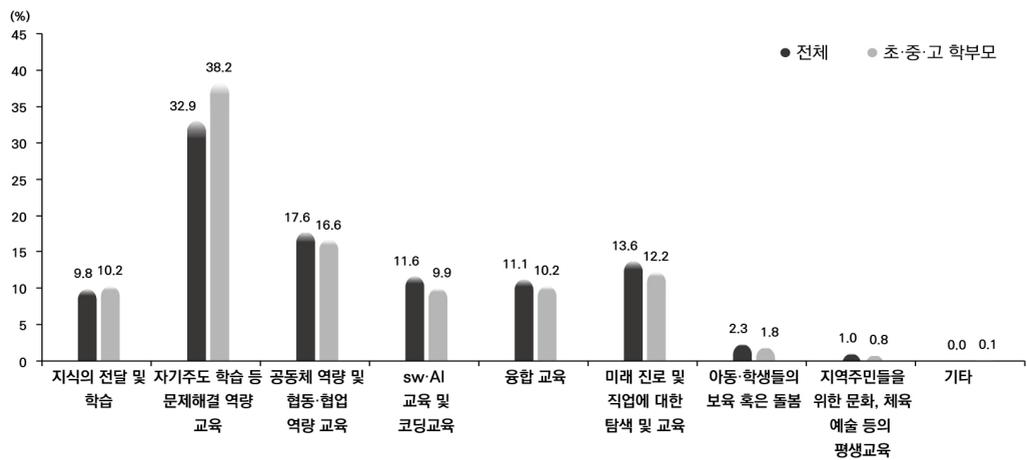
(단위: 명(%))

미래 학교의 역할과 기능	2020						2019			2018			2017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전체			전체		
지식의 전달 및 학습	389 (7.8)	74 (7.1)	490 (9.8)	106 (10.2)	562 (11.2)	138 (13.3)	338 (8.5)	357 (8.9)	347 (8.7)	114 (5.7)	158 (7.9)	133 (6.7)	135 (6.8)	156 (7.8)	140 (7.0)
자기주도학습 등 문제해결 역량 교육	1,086 (21.7)	253 (24.4)	1,647 (32.9)	396 (38.2)	995 (19.9)	234 (22.6)	872 (21.8)	1,334 (33.4)	805 (20.1)	559 (28.0)	754 (37.7)	478 (23.9)	652 (32.6)	794 (39.7)	421 (21.1)
공동체 역량 및 협동·협업 역량 교육	1,055 (21.1)	236 (22.8)	880 (17.6)	172 (16.6)	580 (11.6)	110 (10.6)	908 (22.7)	830 (20.8)	486 (12.2)	489 (24.5)	420 (21.0)	220 (11.0)	531 (26.6)	431 (21.6)	187 (9.4)
SW·AI 교육 및 코딩교육	552 (11.0)	117 (11.3)	578 (11.6)	103 (9.9)	431 (8.6)	73 (7.0)	377 (9.4)	408 (10.2)	282 (7.1)	207 (10.4)	208 (10.4)	122 (6.1)	163 (8.2)	174 (8.7)	136 (6.8)
융합 교육	404 (8.1)	90 (8.7)	557 (11.1)	106 (10.2)	597 (11.9)	127 (12.2)	274 (6.9)	370 (9.3)	476 (11.9)	-	-	-	-	-	-
미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탐색 및 교육	200 (4.0)	36 (3.5)	682 (13.6)	126 (12.2)	1,578 (31.6)	311 (30.0)	164 (4.1)	562 (14.1)	1,422 (35.6)	150 (7.5)	390 (19.5)	913 (45.7)	151 (7.6)	380 (19.0)	1,016 (50.8)
아동·학생들의 보육 혹은 돌봄	1,233 (24.7)	217 (20.9)	114 (2.3)	19 (1.8)	154 (3.1)	33 (3.2)	1,001 (25.0)	61 (1.5)	94 (2.4)	434 (21.7)	39 (2.0)	64 (3.2)	326 (16.3)	35 (1.8)	53 (2.7)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 체육,	79 (1.6)	13 (1.3)	50 (1.0)	8 (0.8)	102 (2.0)	11 (1.1)	59 (1.5)	73 (1.8)	83 (2.1)	47 (2.4)	31 (1.6)	69 (3.5)	39 (2.0)	30 (1.5)	47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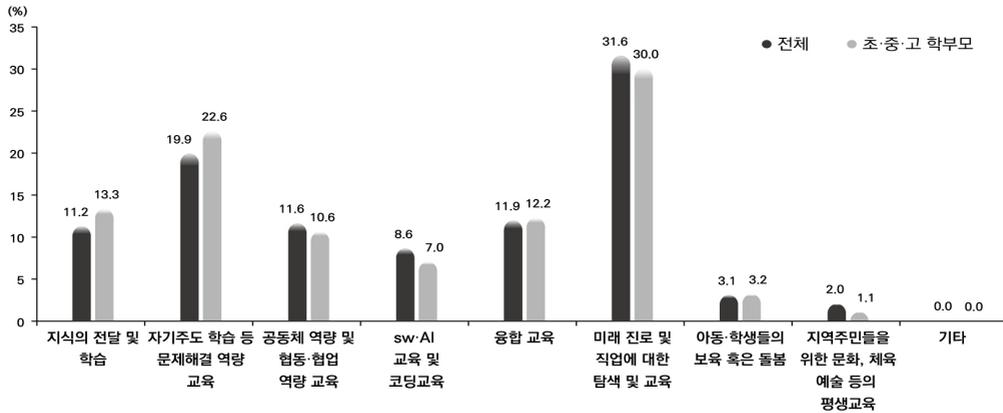
미래 학교의 역할과 기능	2020						2019			2018			2017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전체			전체		
예술 등의 평생교육															
기타	2 (0.0)	1 (0.1)	2 (0.0)	1 (0.1)	1 (0.0)	0 (0.0)	7 (0.2)	5 (0.1)	5 (0.1)	0 (0.0)	0 (0.0)	1 (0.1)	3 (0.2)	0 (0.0)	0 (0.0)
계	5,000 (100.0)	1,037 (100.0)	5,000 (100.0)	1,037 (100.0)	5,000 (100.0)	1,037 (100.0)	4,000 (100.0)	4,000 (100.0)	4,000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그림 III-104] 미래 학교에서 더 강조될 역할과 기능(초등학교, 2020)



[그림 III-105] 미래 학교에서 더 강조될 역할과 기능(중학교, 2020)



[그림 III-106] 미래 학교에서 더 강조될 역할과 기능(고등학교, 2020)

9 교육관

요약

- 자녀가 학교교육을 거부하는 경우 과반이 꼭 정규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대안을 찾겠다(51.1%)는 의견을 선택하였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그 학교가 아니더라도 정규학교는 꼭 다니게 하겠다(50.8%)가, 중·고등학교는 꼭 정규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대안을 찾겠다(중 47.4%, 고 54.0%)는 의견이 높아 학교급별 차이를 보임.
- 우리 사회에서 자녀교육에 성공했다는 것의 의미로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24.7%),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컸다(22.0%),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21.7%), 자녀가 경제적으로 잘 산다(14.0%),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갔다(11.3%),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6.2%) 순으로 응답함.
- 자녀의 장래 생활의 기대에 대해 본인의 흥미와 적성을 살림(24.9%), 가족이나 주위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냄(22.0%), 경제적으로 윤택함(20.4%)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고,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는 과반이 대학교 졸업까지(51.1%)를 선택함. 다음으로 취업할 때까지(17.2%), 고등학교 졸업까지(11.4%), 결혼할 때까지(7.0%), 대학원 석사까지(5.7%), 대학원 박사까지(4.3%), 평생(2.6%), 기타(0.3%), 중학교 졸업까지(0.3%) 순임.
- 대학 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은 여전히 심각할 정도로 존재(56.8%)하고, 우리나라의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는 앞으로 큰 변화 없을 것(각각 58.1%, 59.2%)이라고 전망함.
-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경제적 부의 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크고(68.3%, 평균 3.84/5점 만점), 사회적 지위 향상에 미치는 영향 또한 70.2%가 크다고 응답함(평균 3.87). 개인의 심리적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61.8%)는 응답률이 높음(평균 3.74).

1) 자녀의 학교교육 거부에 대한 의견

〈질문〉 학교의 여러 문제들(성적 위주의 교육, 학교폭력(왕따 등), 학교에 대한 불만족 등)로 귀하의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 선택하여 주십시오(학교급별 동일항목 선택 가능).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것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는 꼭 정규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대안을 찾겠다(51.1%), 그 학교가 아니더라도 정규학교는 꼭 다니게 하겠다(41.6%), 잘 모르겠다(7.3%) 순으로 응답하였고,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도 꼭 정규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대안을 찾겠다(53.0%), 그 학교가 아니더라도 정규학교는 꼭 다니게 하겠다(42.3%), 잘 모르겠다(4.6%)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것을 거부할 경우 전체 응답자는 그 학교가 아니더라도 정규학교는 꼭 다니게 하겠다(50.8%), 꼭 정규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대안을 찾겠다(41.8%), 잘 모르겠다(7.5%) 순으로 응답하였고, 초등학생 학부모와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 집단 모두 그 학교가 아니더라도 정규학교는 꼭 다니게 하겠다는 의견이 각각 51.5%, 54.8%로 가장 높았다.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것을 거부할 경우, 전체 응답자는 꼭 정규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대안을 찾겠다(47.4%), 그 학교가 아니더라도 정규학교는 꼭 다니게 하겠다(42.6%), 잘 모르겠다(10.0%) 순으로 응답하였고, 중학교 학부모도 꼭 정규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대안을 찾겠다(48.5%)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 또한, 꼭 정규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대안을 찾겠다(48.3%)는 응답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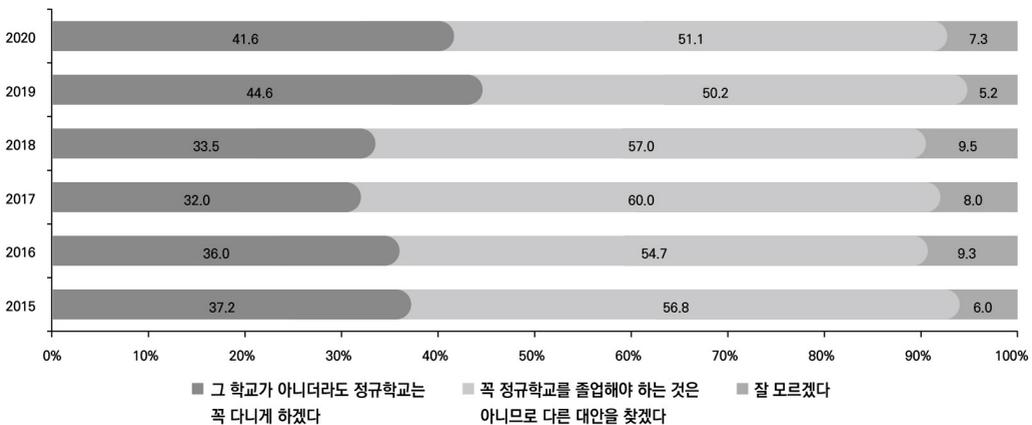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것을 거부할 경우, 전체 응답자는 꼭 정규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대안을 찾겠다(54.0%), 그 학교가 아니더라도 정규학교는 꼭 다니게 하겠다(34.8%), 잘 모르겠다(11.3%)는 응답을 보여, 다른 학교급보다 꼭 정규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대안을 찾겠다는 의견의 응답률이 높았다. 고등학생 학부모와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에도 꼭 정규학교를 졸업해

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대안을 찾겠다는 응답이 각각 53.5%, 52.7%로 과반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 III-61〉 자녀의 학교교육 거부에 대한 학부모 태도(2015~2020)

(단위: 명(%))

자녀의 학교교육 거부에 대한 학부모 태도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초·중·고 전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등 학생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전체	중학생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전체	고등 학생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그 학교가 아니더라도 정규학교는 꼭 다니게 하겠다	2,082 (41.6)	439 (42.3)	2,539 (50.8)	271 (51.5)	568 (54.8)	2,130 (42.6)	151 (44.2)	453 (43.7)	1,738 (34.8)	165 (38.6)	390 (37.6)	1,784 (44.6)	670 (33.5)	640 (32.0)	720 (36.0)	544 (40.4)
꼭 정규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대안을 찾겠다	2,554 (51.1)	550 (53.0)	2,088 (41.8)	227 (43.2)	424 (40.9)	2,370 (47.4)	166 (48.5)	501 (48.3)	2,698 (54.0)	229 (53.5)	546 (52.7)	2,009 (50.2)	1,140 (57.0)	1,199 (60.0)	1,094 (54.7)	724 (53.7)
잘 모르겠다	364 (7.3)	48 (4.6)	373 (7.5)	28 (5.3)	45 (4.3)	500 (10.0)	25 (7.3)	83 (8.0)	564 (11.3)	34 (7.9)	101 (9.7)	207 (5.2)	190 (9.5)	161 (8.1)	186 (9.3)	80 (5.9)
계	5,000 (100.0)	1,037 (100.0)	5,000 (100.0)	526 (100.0)	1,037 (100.0)	5,000 (100.0)	342 (100.0)	1,037 (100.0)	5,000 (100.0)	428 (100.0)	1,037 (100.0)	4,000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1,348 (100.0)



[그림 III-107] 자녀의 학교교육 거부에 대한 학부모 태도(전체, 2015~2020)

2) 우리사회에서의 자녀교육 성공에 대한 관점

〈질문〉 우리 사회에서 자녀교육에 성공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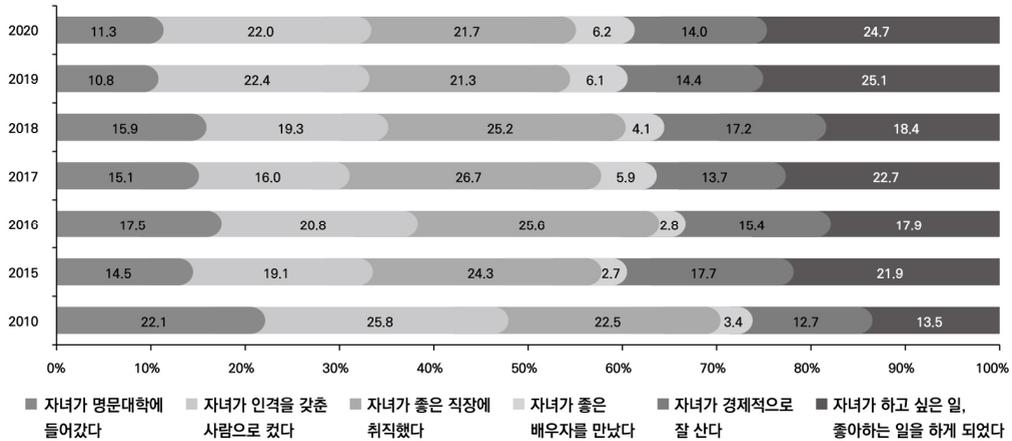
우리 사회에서 자녀교육에 성공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는 지난 14차 조사(2019년) 결과와 동일하게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24.7%)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컸다(22.0%),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21.7%), 자녀가 경제적으로 잘 산다(14.0%),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갔다(11.3%),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6.2%)의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도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26.3%)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컸다(21.7%),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20.7%), 자녀가 경제적으로 잘 산다(13.5%),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갔다(11.8%),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6.0%)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Ⅲ-62〉 우리사회에서 자녀교육 성공에 대한 관점(2010, 2015~2020)

(단위: 명(%))

자녀교육 성공 의미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0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갔다	567 (11.3)	122 (11.8)	433 (10.8)	90 (10.8)	318 (15.9)	298 (14.9)	350 (17.5)	290 (14.5)	331 (22.1)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컸다	1,101 (22.0)	225 (21.7)	894 (22.4)	179 (21.5)	386 (19.3)	321 (16.1)	416 (20.8)	381 (19.1)	387 (25.8)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1,085 (21.7)	215 (20.7)	853 (21.3)	180 (21.6)	503 (25.2)	565 (28.3)	512 (25.6)	485 (24.3)	338 (22.5)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	312 (6.2)	62 (6.0)	243 (6.1)	45 (5.4)	81 (4.1)	91 (4.6)	56 (2.8)	54 (2.7)	51 (3.4)
자녀가 경제적으로 잘 산다	701 (14.0)	140 (13.5)	575 (14.4)	121 (14.5)	344 (17.2)	353 (17.7)	308 (15.4)	353 (17.7)	190 (12.7)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1,234 (24.7)	273 (26.3)	1,002 (25.1)	218 (26.2)	368 (18.4)	372 (18.6)	358 (17.9)	437 (21.9)	203 (13.5)
계	5,000 (100.0)	1,037 (100.0)	4,000 (100.0)	833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1,500 (100.0)



[그림 III-108] 우리사회에서 자녀교육 성공에 대한 관점(전체, 2010, 2015~2020)

3) 자녀의 장래 생활에 대한 기대

<질문> 자녀가 장차 어떤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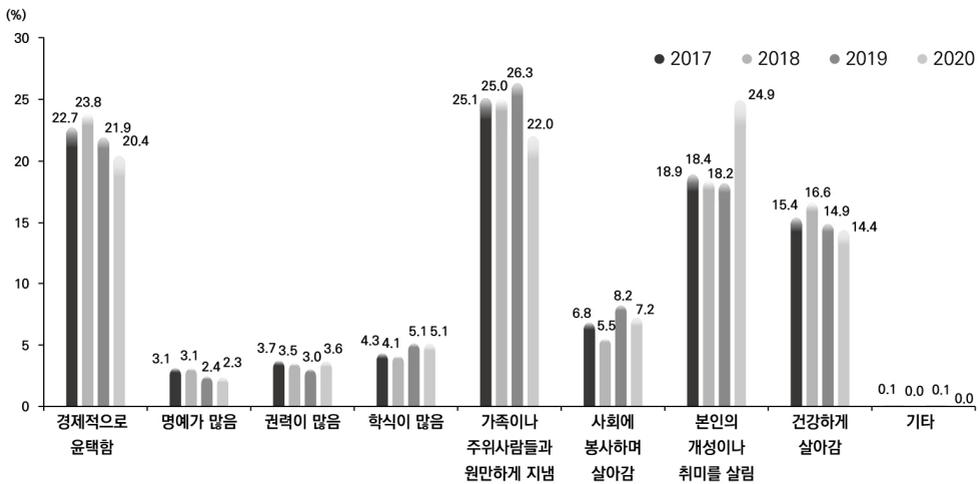
자녀의 장래 생활에 대한 기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는 지난 14차 조사(2019년)와는 다르게 본인의 흥미와 적성을 살림(24.9%)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가족이나 주위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냄(22.0%), 경제적으로 윤택함(20.4%), 건강하게 살아감(14.4%), 사회에 봉사하며 살아감(7.2%), 학식이 많음(5.1%), 권력이 많음(3.6%), 명예가 많음(2.3%), 기타(0.0%) 순으로 응답하였다.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에도 본인의 흥미와 적성을 살림(24.7%)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윤택함(22.0%), 가족이나 주위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냄(21.6%), 건강하게 살아감(14.8%), 사회에 봉사하며 살아감(7.3%), 학식이 많음(4.5%), 권력이 많음(3.0%), 명예가 많음(2.1%), 기타(0.0%)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Ⅲ-63〉 자녀의 장래 생활에 대한 기대(2017~2020)

(단위: 명(%))

자녀의 장래 생활에 대한 기대	2020		2019		2018		2017	
	전체	자녀있는 집단	전체	자녀있는 집단	전체	자녀있는 집단	전체	자녀있는 집단
경제적으로 윤택함	2,041 (20.4)	1,286 (22.0)	1,754 (21.9)	1,138 (23.1)	951 (23.8)	620 (24.3)	909 (22.7)	592 (23.1)
명예가 많음	234 (2.3)	124 (2.1)	189 (2.4)	101 (2.1)	125 (3.1)	82 (3.2)	122 (3.1)	77 (3.0)
권력이 많음	364 (3.6)	178 (3.0)	241 (3.0)	133 (2.7)	138 (3.5)	91 (3.6)	146 (3.7)	92 (3.6)
학식이 많음	506 (5.1)	265 (4.5)	406 (5.1)	205 (4.2)	165 (4.1)	105 (4.1)	173 (4.3)	101 (3.9)
가족이나 주위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냄	2,200 (22.0)	1,264 (21.6)	2,104 (26.3)	1,279 (26.0)	1,001 (25.0)	621 (24.3)	1,004 (25.1)	637 (24.8)
사회에 봉사하며 살아감	720 (7.2)	426 (7.3)	654 (8.2)	413 (8.4)	221 (5.5)	162 (6.3)	270 (6.8)	187 (7.3)
본인의 흥미와 적성을 살림	2,491 (24.9)	1,446 (24.7)	1,456 (18.2)	896 (18.2)	736 (18.4)	448 (17.5)	757 (18.9)	473 (18.4)
건강하게 살아감	1,441 (14.4)	864 (14.8)	1,189 (14.9)	752 (15.3)	662 (16.6)	424 (16.6)	616 (15.4)	404 (15.8)
기타	3 (0.0)	1 (0.0)	7 (0.1)	1 (0.0)	1 (0.0)	1 (0.0)	3 (0.1)	1 (0.0)
계	10,000 (100.0)	5,854 (100.0)	8,000 (100.0)	4,918 (100.0)	4,000 (100.0)	2,554 (100.0)	4,000 (100.0)	2,564 (100.0)



[그림 Ⅲ-109] 자녀의 장래 생활에 대한 기대(전체, 2017~2020)

4)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담 정도

〈질문〉 귀하는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언제까지 부담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언제까지 부담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 전체 응답자는 지난 13~14차 조사(2018~2019년)와 동일하게 대학교 졸업까지(51.1%)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취업할 때까지(17.2%), 고등학교 졸업까지(11.4%), 결혼할 때까지(7.0%), 대학원 석사까지(5.7%), 대학원 박사까지(4.3%), 평생(2.6%), 기타(0.3%), 중학교 졸업까지(0.3%)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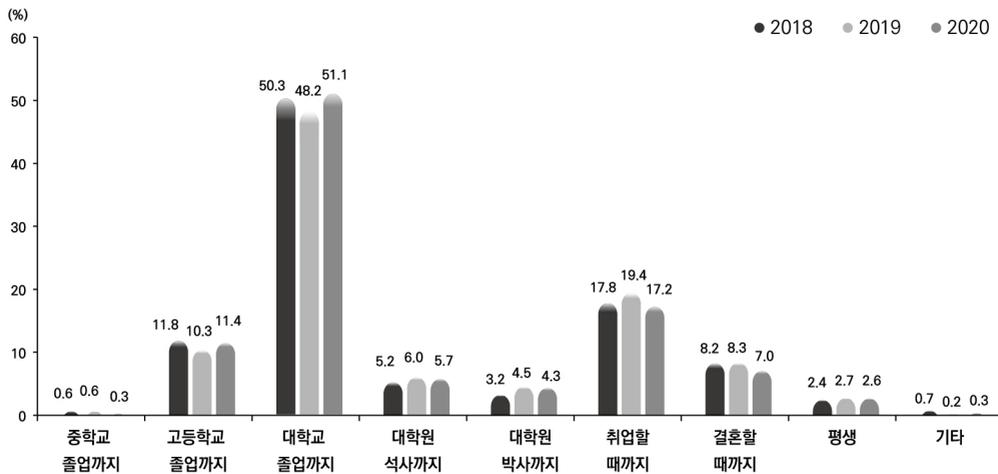
자녀가 있는 응답자 집단의 경우, 대학교 졸업까지(52.1%), 취업할 때까지(18.3%), 결혼할 때까지(8.6%), 고등학교 졸업까지(7.7%), 대학원 석사까지(5.4%), 대학원 박사까지(4.7%), 평생(2.8%), 중학교 졸업까지(0.3%), 기타(0.1%)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고,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도 대학교 졸업까지(61.0%), 취업할 때까지(13.6%), 고등학교 졸업까지(8.2%), 대학원 석사까지(5.8%), 대학원 박사까지(5.1%), 결혼할 때까지(4.6%), 평생(1.5%), 중학교 졸업까지(0.1%), 기타(0.0%)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64〉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담 정도(2018~2020)

(단위: 명(%))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담 정도	2020			2019			2018
	전체	자녀 있는 집단	초·중·고 학부모	전체	자녀 있는 집단	초·중·고 학부모	전체
중학교 졸업까지	13 (0.3)	9 (0.3)	1 (0.1)	25 (0.6)	11 (0.4)	4 (0.5)	12 (0.6)
고등학교 졸업까지	572 (11.4)	225 (7.7)	85 (8.2)	410 (10.3)	162 (6.6)	57 (6.8)	236 (11.8)
대학교 졸업까지	2,553 (51.1)	1,524 (52.1)	633 (61.0)	1,927 (48.2)	1,188 (48.3)	458 (55.0)	1,005 (50.3)
대학원 석사까지	286 (5.7)	159 (5.4)	60 (5.8)	240 (6.0)	155 (6.3)	55 (6.6)	104 (5.2)
대학원 박사까지	215 (4.3)	139 (4.7)	53 (5.1)	180 (4.5)	120 (4.9)	52 (6.2)	63 (3.2)
취업할 때까지	861 (17.2)	535 (18.3)	141 (13.6)	774 (19.4)	518 (21.1)	142 (17.0)	356 (17.8)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담 정도	2020			2019			2018
	전체	자녀 있는 집단	초·중·고 학부모	전체	자녀 있는 집단	초·중·고 학부모	전체
결혼할 때까지	351 (7.0)	251 (8.6)	48 (4.6)	330 (8.3)	243 (9.9)	51 (6.1)	164 (8.2)
평생	132 (2.6)	83 (2.8)	16 (1.5)	106 (2.7)	61 (2.5)	13 (1.6)	47 (2.4)
기타	17 (0.3)	2 (0.1)	0 (0.0)	8 (0.2)	1 (0.0)	1 (0.1)	13 (0.7)
계	5,000 (100.0)	2,927 (100.0)	1,037 (100.0)	4,000 (100.0)	2,459 (100.0)	833 (100.0)	2,000 (100.0)



[그림 Ⅲ-110]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담 정도(전체, 2018~2020)

5) 대학 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 정도

〈질문〉 현재 한국사회에서 대학 졸업장의 유무에 따른 차별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한국사회에서 대학 졸업장의 유무에 따른 차별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는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56.8%), 일부 존재하나 심각하지 않다(32.5%),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6.5%), 잘 모르겠다(4.2%) 순으로 응답하였다. 대학 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이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는 응답은 해당 문항이 처음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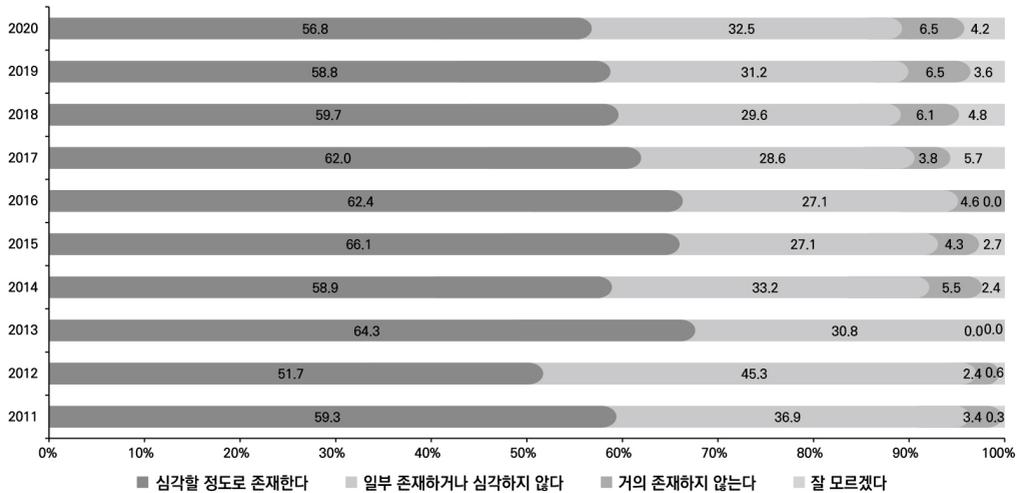
되기 시작한 지난 6차 조사(2011년)부터 이번 조사까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응답자 개인 특성 중 학력수준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중졸 이하 응답자는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48.1%), 일부 존재하나 심각하지 않다(31.7%), 잘 모르겠다(12.5%),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7.7%) 순으로 응답하였고, 고졸 응답자의 경우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57.6%), 일부 존재하나 심각하지 않다(28.0%),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8.4%), 잘 모르겠다(6.1%) 순으로 응답하였다. 전문대 및 대졸 응답자는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56.2%), 일부 존재하나 심각하지 않다(33.9%),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6.2%), 잘 모르겠다(3.8%) 순으로 응답하였고, 대학원졸업 이상 응답자 또한,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61.9%), 일부 존재하나 심각하지 않다(30.8%),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5.2%), 잘 모르겠다(2.2%)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65〉 대학졸업장의 유무에 따른 차별 정도(2011~2020)

(단위: 명(%))

대학졸업장 유무 차별성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전체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 /대졸	대학원 졸	전체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	2,839 (56.8)	50 (48.1)	510 (57.6)	1,991 (56.2)	288 (61.9)	2,352 (58.8)	1,193 (59.7)	1,239 (62.0)	1,247 (62.4)	1,321 (66.1)	1,178 (58.9)	1,285 (64.3)	930 (51.7)	890 (59.3)
일부 존재하나 심각하지 않다	1,624 (32.5)	33 (31.7)	248 (28.0)	1,200 (33.9)	143 (30.8)	1,247 (31.2)	591 (29.6)	572 (28.6)	542 (27.1)	541 (27.1)	664 (33.2)	615 (30.8)	816 (45.3)	554 (36.9)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325 (6.5)	8 (7.7)	74 (8.4)	219 (6.2)	24 (5.2)	258 (6.5)	121 (6.1)	75 (3.8)	91 (4.6)	85 (4.3)	110 (5.5)	60 (3.0)	44 (2.4)	51 (3.4)
잘 모르겠다	212 (4.2)	13 (12.5)	54 (6.1)	135 (3.8)	10 (2.2)	143 (3.6)	95 (4.8)	114 (5.7)	120 (6.0)	53 (2.7)	48 (2.4)	40 (2.0)	10 (0.6)	5 (0.3)
계	5,000 (100.0)	104 (100.0)	886 (100.0)	3,545 (100.0)	465 (100.0)	4,000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1,800 (100.0)	1,500 (100.0)



[그림 III-111] 대학졸업장의 유무에 따른 차별 정도(전체, 2011~2020)

6) 우리나라 학벌주의에 대한 전망

〈질문〉 우리나라의 학벌주의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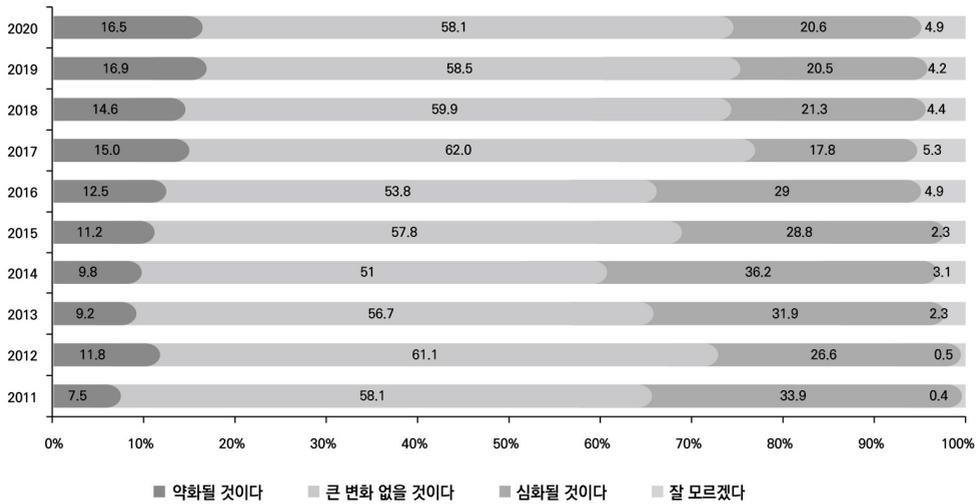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학벌주의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는 큰 변화 없을 것이다(58.1%), 심화될 것이다(20.6%), 약화될 것이다(16.5%), 잘 모르겠다(4.9%) 순으로 응답하여, 큰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과반 선택하였다. 지난 6차 조사(2011년)부터 이번 조사까지 학벌주의에 대한 변화 전망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응답자 개인 특성 중 학력수준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중졸 이하 응답자는 큰 변화 없을 것이다(54.8%), 심화될 것이다(18.3%), 약화될 것이다(13.5%), 잘 모르겠다(13.5%) 순으로 응답하였고, 고졸 응답자도 큰 변화 없을 것이다(60.2%), 심화될 것이다(21.8%), 약화될 것이다(12.9%), 잘 모르겠다(5.2%) 순으로 응답하였다. 전문대 및 대졸 응답자의 경우에는 큰 변화 없을 것이다(57.7%), 심화될 것이다(20.3%), 약화될 것이다(17.2%), 잘 모르겠다(4.8%)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대학원졸 이상의 응답자도 큰 변화 없을 것이다(58.1%), 심화될 것이다(20.4%), 약화될 것이다(18.7%), 잘 모르겠다(2.8%)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66〉 우리나라 학벌주의에 대한 전망(2011~2020)

(단위: 명(%))

학벌주의 전망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전체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 /대졸	대학원 졸	전체								
악화될 것이다	823 (16.5)	14 (13.5)	114 (12.9)	608 (17.2)	87 (18.7)	675 (16.9)	291 (14.6)	300 (15.0)	249 (12.5)	224 (11.2)	195 (9.8)	183 (9.2)	213 (11.8)	113 (7.5)
큰 변화 없을 것이다	2,906 (58.1)	57 (54.8)	533 (60.2)	2,046 (57.7)	270 (58.1)	2,339 (58.5)	1,197 (59.9)	1,239 (62.0)	1,075 (53.8)	1,155 (57.8)	1,019 (51.0)	1,134 (56.7)	1,099 (61.1)	872 (58.1)
심화될 것이다	1,028 (20.6)	19 (18.3)	193 (21.8)	721 (20.3)	95 (20.4)	818 (20.5)	425 (21.3)	355 (17.8)	579 (29.0)	575 (28.8)	724 (36.2)	637 (31.9)	479 (26.6)	509 (33.9)
잘 모르 겠다	243 (4.9)	14 (13.5)	46 (5.2)	170 (4.8)	13 (2.8)	168 (4.2)	87 (4.4)	106 (5.3)	97 (4.9)	46 (2.3)	62 (3.1)	46 (2.3)	9 (0.5)	6 (0.4)
계	5,000 (100.0)	104 (100.0)	886 (100.0)	3,545 (100.0)	465 (100.0)	4,000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1,800 (100.0)	1,500 (100.0)



[그림 III-112] 우리나라 학벌주의에 대한 전망(전체, 2011~2020)

7) 대학 서열화에 대한 전망

〈질문〉 흔히 대학을 일류대학, 이류대학 등으로 분류하는 우리나라의 대학 서열화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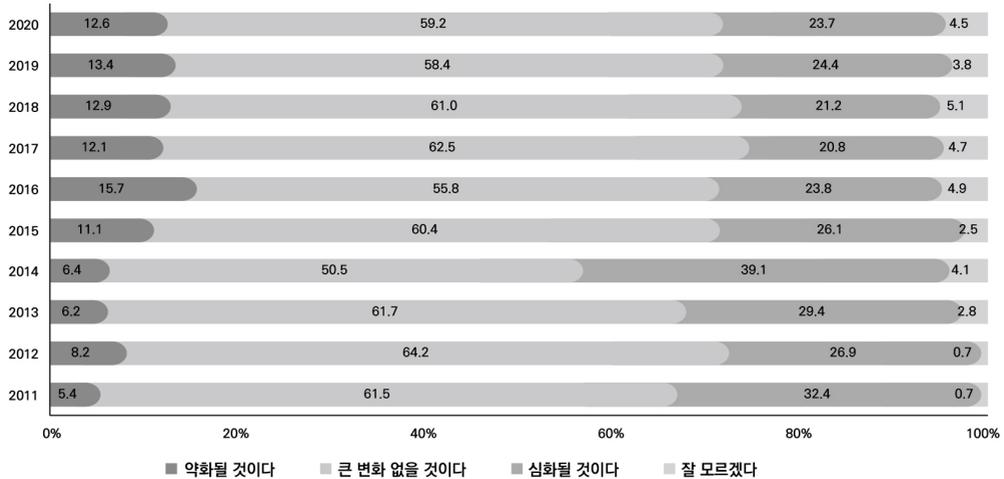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대학 서열화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는 큰 변화 없을 것이다(59.2%), 심화될 것이다(23.7%), 약화될 것이다(12.6%), 잘 모르겠다(4.5%) 순으로 응답하였다. 대학 서열화에 대한 전망 또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난 6차 조사(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응답자 개인 특성 중 학력수준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중졸 이하 응답자는 큰 변화 없을 것이다(53.8%), 심화될 것이다(21.2%), 잘 모르겠다(16.3%), 약화될 것이다(8.7%) 순으로 응답하였고, 고졸 응답자도 큰 변화 없을 것이다(59.3%), 심화될 것이다(24.4%), 약화될 것이다(10.6%), 잘 모르겠다(5.8%) 순으로 응답하였다. 전문대 및 대졸 응답자는 큰 변화 없을 것이다(59.0%), 심화될 것이다(23.6%), 약화될 것이다(13.3%), 잘 모르겠다(4.1%) 순이었고, 대학원졸 이상의 응답자도 큰 변화 없을 것이다(61.5%), 심화될 것이다(24.5%), 약화될 것이다(11.2%), 잘 모르겠다(2.8%)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Ⅲ-67〉 대학 서열화에 대한 전망(2011~2020)

(단위: 명(%))

대학 서열화 전망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전체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 /대졸	대학원 졸	전체								
약화될 것이다	628 (12.6)	9 (8.7)	94 (10.6)	473 (13.3)	52 (11.2)	537 (13.4)	257 (12.9)	242 (12.1)	313 (15.7)	222 (11.1)	128 (6.4)	123 (6.2)	147 (8.2)	81 (5.4)
큰 변화 없을 것이다	2,960 (59.2)	56 (53.8)	525 (59.3)	2,093 (59.0)	286 (61.5)	2,336 (58.4)	1,219 (61.0)	1,249 (62.5)	1,115 (55.8)	1,207 (60.4)	1,010 (50.5)	1,340 (61.7)	1,156 (64.2)	923 (61.5)
심화될 것이다	1,187 (23.7)	22 (21.2)	216 (24.4)	835 (23.6)	114 (24.5)	975 (24.4)	423 (21.2)	415 (20.8)	475 (23.8)	522 (26.1)	781 (39.1)	587 (29.4)	484 (26.9)	486 (32.4)
잘 모르겠다	225 (4.5)	17 (16.3)	51 (5.8)	144 (4.1)	13 (2.8)	152 (3.8)	101 (5.1)	94 (4.7)	97 (4.9)	49 (2.5)	81 (4.1)	56 (2.8)	13 (0.7)	10 (0.7)
계	5,000 (100.0)	104 (100.0)	886 (100.0)	3,545 (100.0)	465 (100.0)	4,000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1,800 (100.0)	1,500 (100.0)



[그림 III-113] 대학 서열화에 대한 전망(전체, 2011~2020)

8) 교육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정도

<질문>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다음의 측면에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이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경제적 부의 증대, 사회적 지위 향상, 심리적 만족감의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으로, 먼저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개인의 경제적 부의 증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체 응답자는 영향이 크다(매우 크다+다소 크다) 68.3%, 보통 28.4%, 영향이 작다(다소 작다+매우 작다) 3.4%의 응답률을 나타내었다(평균 3.84/5 점 만점).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도 영향이 크다 68.9%, 보통 27.4%, 영향이 작다 3.7%의 응답률을 나타내었다(평균 3.84).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사회적 지위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경우 영향이 크다 70.2%, 보통 24.1%, 영향이 작다 5.7% 순으로 응답하였고(평균 3.87),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도 영향이 크다 73.0%, 보통 21.4%, 영향이 작다 5.6% 순의 응답률을 나타내었다(평균 3.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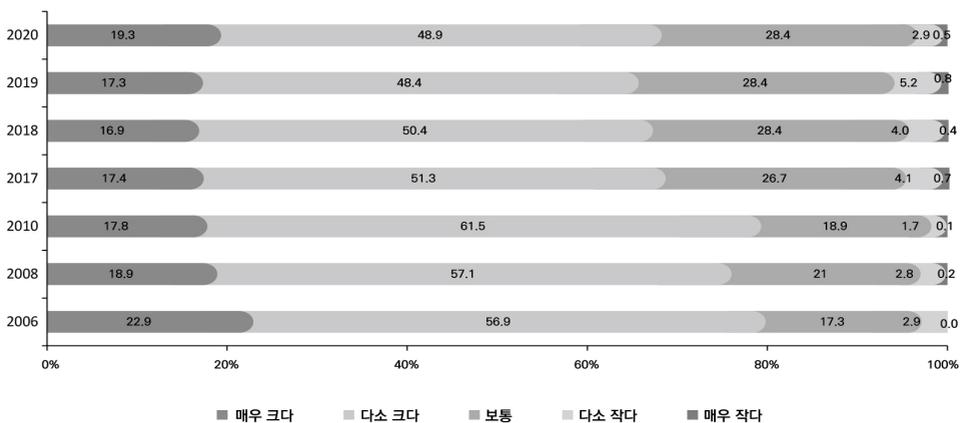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심리적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는 영향이 크다 61.8%, 보통이다 31.6%, 영향이 작다 6.6%의 응답률을 나타내었고(평균 3.74),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도 영향이 크다 63.5%, 보통이다 30.3%, 영향이 작다 6.2%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여(평균 3.76), 경제적 부의 증대, 사회적 지위 향상, 심리적 만족감 등 3가지 측면 모두 교육을 받을수록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가지 측면 중 심리적 만족감에 대한 영향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8-1〉 교육이 경제적 부의 증대에 미치는 영향(2006, 2008, 2010, 2017~2020)

(단위: 명(%))

경제적 부의 증대에 미치는 영향	2020		2019		2018	2017	2010	2008	2006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매우 크다	966 (19.3)	195 (18.8)	691 (17.3)	155 (18.6)	337 (16.9)	348 (17.4)	267 (17.8)	227 (18.9)	275 (22.9)
다소 크다	2,447 (48.9)	520 (50.1)	1,937 (48.4)	403 (48.4)	1,008 (50.4)	1,025 (51.3)	923 (61.5)	685 (57.1)	683 (56.9)
보통	1,418 (28.4)	284 (27.4)	1,135 (28.4)	234 (28.1)	568 (28.4)	533 (26.7)	283 (18.9)	252 (21.0)	208 (17.3)
다소 작다	146 (2.9)	33 (3.2)	206 (5.2)	37 (4.4)	79 (4.0)	81 (4.1)	25 (1.7)	34 (2.8)	34 (2.9)
매우 작다	23 (0.5)	5 (0.5)	31 (0.8)	4 (0.5)	8 (0.4)	13 (0.7)	2 (0.1)	2 (0.2)	0 (0.0)
계	5,000 (100.0)	1,037 (100.0)	4,000 (100.0)	833 (100.0)	2,000 (100.0)	2,000 (100.0)	1,500 (100.0)	1,200 (100.0)	1,200 (100.0)
평균 (표준편차)	3.84 (0.78)	3.84 (0.78)	3.76 (0.82)	3.80 (0.81)	3.79 (0.78)	3.81 (0.79)	3.95 (0.67)	3.92 (0.72)	4.00 (0.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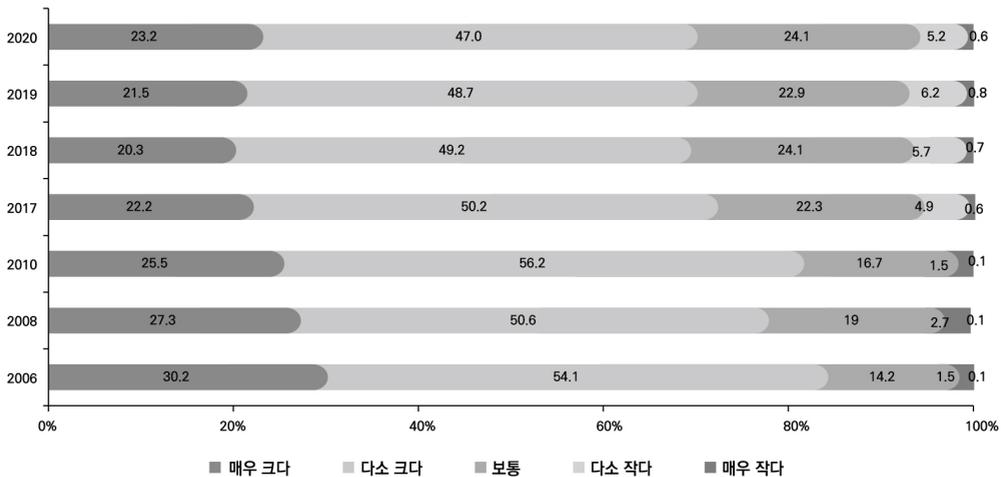


〈그림 III-114〉 교육이 경제적 부의 증대에 미치는 영향(전체, 2006, 2008, 2010, 2017~2020)

〈표 III-68-2〉 교육이 사회적 지위 향상에 미치는 영향(2006, 2008, 2010, 2017~2020)

(단위: 명(%))

사회적 지위 향상에 미치는 영향	2020		2019		2018	2017	2010	2008	2006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매우 크다	1,161 (23.2)	252 (24.3)	860 (21.5)	187 (22.4)	406 (20.3)	444 (22.2)	383 (25.5)	328 (27.3)	362 (30.2)
다소 크다	2,349 (47.0)	505 (48.7)	1,946 (48.7)	400 (48.0)	984 (49.2)	1,003 (50.2)	843 (56.2)	607 (50.6)	649 (54.1)
보통	1,203 (24.1)	222 (21.4)	915 (22.9)	200 (24.0)	482 (24.1)	445 (22.3)	250 (16.7)	232 (19.0)	170 (14.2)
다소 작다	258 (5.2)	54 (5.2)	248 (6.2)	40 (4.8)	114 (5.7)	97 (4.9)	22 (1.5)	32 (2.7)	18 (1.5)
매우 작다	29 (0.6)	4 (0.4)	31 (0.8)	6 (0.7)	14 (0.7)	11 (0.6)	2 (0.1)	1 (0.1)	1 (0.1)
계	5,000 (100.0)	1,037 (100.0)	4,000 (100.0)	833 (100.0)	2,000 (100.0)	2,000 (100.0)	1,500 (100.0)	1,200 (100.0)	1,200 (100.0)
평균 (표준편차)	3.87 (0.85)	3.91 (0.83)	3.84 (0.86)	3.87 (0.84)	3.82 (0.84)	3.89 (0.82)	4.06 (0.70)	4.02 (0.76)	4.13 (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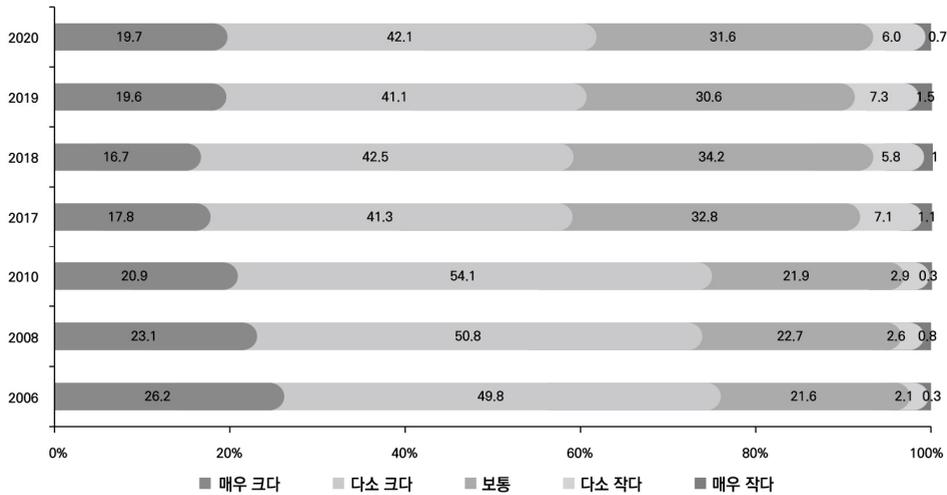


[그림 III-115] 교육이 사회적 지위 향상에 미치는 영향(전체, 2006, 2008, 2010, 2017~2020)

〈표 Ⅲ-68-3〉 교육이 심리적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2006, 2008, 2010, 2017~2020)

(단위: 명(%))

심리적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2020		2019		2018	2017	2010	2008	2006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매우 크다	986 (19.7)	198 (19.1)	782 (19.6)	159 (19.1)	333 (16.7)	355 (17.8)	313 (20.9)	277 (23.1)	314 (26.2)
다소 크다	2,105 (42.1)	461 (44.5)	1,644 (41.1)	354 (42.5)	849 (42.5)	826 (41.3)	811 (54.1)	609 (50.8)	598 (49.8)
보통	1,578 (31.6)	314 (30.3)	1,222 (30.6)	254 (30.5)	683 (34.2)	656 (32.8)	328 (21.9)	274 (22.7)	260 (21.6)
다소 작다	298 (6.0)	61 (5.9)	291 (7.3)	54 (6.5)	116 (5.8)	141 (7.1)	43 (2.9)	31 (2.6)	25 (2.1)
매우 작다	33 (0.7)	3 (0.3)	61 (1.5)	12 (1.4)	19 (1.0)	22 (1.1)	5 (0.3)	9 (0.8)	3 (0.3)
계	5,000 (100.0)	1,037 (100.0)	4,000 (100.0)	833 (100.0)	2,000 (100.0)	2,000 (100.0)	1,500 (100.0)	1,200 (100.0)	1,200 (100.0)
평균 (표준편차)	3.74 (0.86)	3.76 (0.84)	3.70 (0.92)	3.71 (0.90)	3.68 (0.85)	3.68 (0.88)	3.92 (0.75)	3.93 (0.79)	4.00 (0.76)



[그림 Ⅲ-116] 교육이 심리적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전체, 2006, 2008, 2010, 2017~2020)

CHAPTER **IV**

결론 및 정책 과제

1. 결론: 요약 및 시사점
2. 정책 방향 및 과제

KEDI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0)

1 결론: 요약 및 시사점

가. 교육정책 및 학교교육 평가

교육정책 및 학교교육 평가 영역에서는 우선 현 정부가 추진하는 10대 교육정책 중 보다 강화해야 할 정책을 묻는 문항으로 시작하여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 교육으로 나누어 상대적으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세부 정책들을 물었다. 그리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선택 방향을 물었다. 그밖에도 현재의 초·중·고등 학교에 대한 평가와 함께 좋은 평가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제, 자녀의 학교 선택 시 고려 사항, 초·중·고교 교육 내실화를 위한 과제, 자녀의 조기유학 희망 정도 및 이유, 우리 교육정책의 일관성·장기 비전·여건 적합성·여론 수용성 등에 대한 판단과 함께 정부의 교육실회복 노력에 대한 평가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기대 역할 등을 물었다. 이러한 문항들에 대한 응답결과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 정부의 10대 교육정책 중 앞으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의 1순위로 대입 공정성 강화(20.3%),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15.7%),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15.1%), 고교 서열화 해소(10.0%), 고졸 취업 활성화(8.1%)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1+2순위로 선택한 결과는 대입 공정성 강화(19.5%),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15.3%),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11.4%), 고졸 취업 활성화(10.6%), 고교 서열화 해소(10.2%)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국민들이 교육 문제에 있어 그 어떤 것보다도 대입제도의 공정성에 많은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응답자 개인 특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가 1순위로 꼽은 정책의 경우,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24.3%)가 대입 공정성 강화(21.8%) 보다 근소한 차이지만 높았음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초·중·고 학부모들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교를 비롯한 단위 학교들의 교육역량을 우선적으로 배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유·초·중등 교육정책 중 정부가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1순위 정책으로는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24.4%),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13.0%), 온종일 돌봄정책 확대 및 서비스 강화(11.1%),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키워주는 학교 공간 혁신 추진(8.5%)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1+2순위로 선택한 결과는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16.1%), 온종일 돌봄정책 확대 및 서비스 강화(11.7%),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11.6%),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키워주는 학교 공간 혁신 추진(11.5%)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의 출발선인 유아교육 단계 그리고 대입을 통해 고등교육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고등학교교육 단계에서 공공성과 함께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에 대한 기대가 큼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셋째, 고등교육 정책 중 정부가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1순위 정책으로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29.6%), 등록금 부담 경감(22.5%),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11.2%), 지방대학-지자체 협력기반의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원(6.3%)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1+2순위로 선택한 결과는 등록금 부담 경감(21.2%),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20.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12.2%), 지방대학-지자체 협력기반의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원(8.8%) 등의 순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입제도 공정성 문제와 대학 등록금 부담 문제가 너무 큰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음으로 인해 다른 중요한 고등교육 정책들이 간과되지 않도록 하는 균형 있는 관점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평생·직업교육정책 중 정부가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순위 정책으로는 생애단계별 맞춤형 직업교육강화(20.4%), 중등 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고졸 취업 활성화(13.6%), 전문대학 역량 강화를 통한 직업교육 지역거점 육성(13.0%), 한국형 무크 강좌 등 온라인 평생교육 콘텐츠 및 인프라 확대(10.1%), 대학 창업 및 산학협력 활성화(10.0%)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1+2순위로 선택한 결과는 생애단계별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17.5%), 전문대학 역량 강화를 통한 직업교육 지역거점 육성(12.8%),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확대(12.6%), 중등 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고졸 취업 활성화(10.6%), 대학 창업 및 산학협력 활성화(10.2%)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도 국민들은 교양교육 등 일반적인 평생교육·생애교육 보다는 진로·직업교육과 관련된 정책 강화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섯째,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공립 유치원의 지속적 확충 및 설립 유형 다양화(24.0%), 방과후 과정 확대 및 돌봄시간 다양화 등 돌봄 서비스 내실화(15.9%), 건강·안전관리 등 책임을 강화한 '학부모 안심유치원' 확대(15.9%), 교비회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처벌 근거 신설 등 유치원 3법 강력 시행(13.7%),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한 운영을 위한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전면 도입(13.2%) 등의 순으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공립 유치원의 확충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유형의 다양화를 통해 유아교육의 다양성 또한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여섯째,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는 국민들로부터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56.2%)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긍정적 평가는 16.2%였고, 부정적 평가는 27.6%였는데 이는 전년도의 긍정적 평가 12.7%와 부정적 평가 33.9% 보다 전반적으로 평가가 좋아졌음을 의미한다.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긍정적 평가(초 33.2%, 중 20.6%, 고 13.7%)가 떨어지는 반면, 부정적 평가(초 20.8%, 중 27.1%, 고 42.4%)는 올라가는 경향은 전년도와 동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그 동안의 교육정책들이 일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과 함께 고등학교 교육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보다 꾸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일곱째, 학교가 국민들로부터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묻은 결과 전체적으로는 수업 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27.6%),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학생 지도(인성, 안전 등) 활동(27.3%), 학생 성장 중심으로 평가 방법 개선(16.5%), 진로교육(진학 및 취업지도 포함) 강화(8.3%)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학생 지도(인성, 안전 등) 활동(초 24.2%, 중 27.2%)이 가장 필요하다고 한 반면, 고등학교는 진로교육(진학 및 취업 지도 포함) 강화(34.9%)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학교급에 있어 수업 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학교급에 따른 고유한 정책적 요구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정책 추진이라는 융통성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여덟째, 자녀의 학교를 선택할 때 주된 고려 요소로 초등학교급은 인성교육(31.2%),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12.7%), 학교 주변의 환경 및 여건(10.8%), 학교 안전(10.2%), 교

원의 질적 수준(10.1%), 통학거리(10.0%) 등의 순으로, 중학교급은 인성교육(25.4%),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16.2%), 교원의 질적 수준(14.9%), 학교 주변의 환경 및 여건(9.6%) 등의 순으로, 고등학교급은 진로 지도(23.2%), 교원의 질적 수준(16.2%),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12.4%), 인성교육(11.3%), 상급학교 진학 실적(10.8%) 등의 순으로 각각 응답하였다. 대학의 경우에는 졸업생의 취업 실적(26.1%), 교원의 질적 수준(12.5%),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11.8%), 학교 명성이나 전통(11.2%) 등의 순으로 또 다른 차이를 보여주었다. 즉,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인성교육의 실천 여부를, 고등학교는 진로 지도의 적절성을, 대학교는 졸업 후 취업 가능성을 주된 선택 요소로 꼽는 차이가 있는바, 이 또한 학교급별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교육정책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시사한다고 할 것이다.

아홉째, 초·중·고등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한 과제를 묻은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자들은 학벌 위주의 사회체제 개선(25.2%)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수업 방식의 다양화(16.2%), 교원의 전문성 제고(16.1%), 교육 내용의 선택권 확대(14.6%), 진로교육 강화(12.0%), 대입 선발 방식 개선(11.2%)을 응답하였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은 4.3%에 불과하였다. 즉, 국민들은 초·중·고등학교 교육 내실화를 어렵게 하는 주된 요소로 학벌 위주의 사회체제를 이야기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 또한 교육의 문제를 교육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 전체의 문제와 연결시켜 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책적 대응도 보다 거시적 측면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열 번째, 초·중·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의 조기 유학에 대한 생각을 묻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30.1%가 보낼 생각이 있다고 응답하여 전년도에 비해 조기 유학에 대한 요구가 어느 정도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급별로 보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조기유학에 대한 요구가 커짐(초 17.5%, 중 23.4%, 고 38.3%)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조기유학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외국어 학습 또는 자녀의 조기 다중언어 구사를 위해(29.9%)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이는 학교급별 차이가 없었다. 그 다음으로는 경쟁 위주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23.6%), 자녀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21.8%), 우리나라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20.5%)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응답결과는 전년도에 우리나라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이유였음을 고려할 때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이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나라 교육이 다른 국가들에 비

해 상대적으로 잘 대응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향후 교육환경에 대한 개선을 넘어 외국어 학습의 강화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열한 번째,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일관성과 장기적 비전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부정적 의견(일관성 52.9%, 장기적 비전 51.4%)이 많은 반면, 여건에의 적합성 및 국민여론 반영은 보통이라는 중립적 의견(여건 적합성 53.6%, 국민여론 반영 44.6%)이 많았다. 한편, 교육정책이 일관성, 장기적 비전, 여건에의 적합성, 국민여론 반영 중 어느 측면을 가장 중점에 두고 추진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장기적 비전(50.6%), 여건에의 적합성(22.3%), 일관성(15.8%), 국민여론 반영(7.1%)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의 교육정책이 장기적인 비전에 따른 것이기보다는 임기응변식의 정책이 많았다는 국민들의 준엄한 평가임과 동시에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교육의 특성을 감안한 장기적 비전에 따른 신뢰성 있는 교육정책에 대한 요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열두 번째, 현 정부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고교체제 개편, 학사비리 근절 노력 등 교육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에 대해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보통(46.8%)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리고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의견이 17.1%인 반면,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의견은 36.1%로 이와 관련하여 부정적 의견의 이유들을 찾아가면서 교육의 신뢰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열세 번째, 현 정부가 독립적 행정기구로 설치·운동을 추진 중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중점을 두어야 할 역할을 물은 결과, 응답자들은 교육비전 및 중장기 정책방향 마련(34.3%),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27.9%), 국가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 수립(23.9%),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및 조정(13.3%)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술한 것과 같이 우리 교육정책에 있어 미흡하다고 인식되는 장기적인 비전에 입각한 교육정책의 안정성의 부재 문제가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 교사

교사 영역에서는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 정도, 교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 초빙교사에 대한 찬반, 자녀 직업으로서 교사 희망에 대한 의견 및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의견을 묻고 다음과 같은 결과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 전체 응답자와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각각 평균 2.95와 2.98(5점 만점)로 보통 수준의 신뢰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조사한 학교급별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특별히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신뢰는 평균 3.05(전체 응답자 기준)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중학교는 2.9, 고등학교는 2.77로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초·중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는 자녀 학교급의 교사에 대한 신뢰는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예컨대, 초등학교 학부모는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신뢰는 평균 3.16으로 초·중·고 학부모(3.11)와 전체 응답자(3.05)보다 높은 수준이다. 반면에 고등학생 학부모는 다른 학교급 학부모와 큰 차이는 아니지만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낮은 수준의 신뢰를 보였다.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도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자녀가 다닐 학교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에 대한 질문에서 교원의 질적 수준을 초등학교 학부모는 3순위로, 중·고등학교 학부모는 2순위로 각각 꼽았다는 점이다. 교사의 능력과 자질이 교원의 질적 수준이라고 전제한다면, 후자를 제고함으로써 전자에 대한 신뢰감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 제고는 초·중·고등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한 2순위 과제로 초·중·고 학부모들은 꼽았다. 1순위로 지목된 학벌 위주의 사회체제 개선이라는 거시 수준의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회적 문제와 비교하면, 교원 전문성 제고는 정책적으로 더 단기적으로 실천가능한 수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교사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신뢰의 중요성을 전제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최근 7년 중 이번 조사에서 교사에 대한 신뢰 정도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교사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학교와 교사의 대응이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초·중·고등학교 교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은 학습지도 능력이라고 전체 응답자 중 35.6%가 응답하였다. 초·중·고 학부모는 이보다 조금 높은 40% 수준을 보였다. 학교급별로는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초등학교 교사에게는 생활지도 능력을(50.5%), 중학교 교사에게는 학습지도 능력을(37%), 고등학교 교사에게는 진로·진학지도 능력을(49.8%)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급별로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와 요구가 다름을 보여주며, 학교급에 따라 강조되어야 하

는 차별성도 존재하므로 교원정책 또한 학교급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교사자격증은 없으나 현장 경험 등이 있는 전문가를 초·중·고등학교 교사로 초빙하는 방안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2.1%가, 초·중·고 학부모는 이보다 조금 더 높은 54.9%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의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과반이 찬성하고 있음은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찬성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학부모의 초빙 교사 도입에 대한 찬성은 57.4%(반대 34.8%)인 반면, 고등학교 학부모의 찬성은 47.7%(반대 41.4%)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는 점은 관련한 제도 도입 시 학교급에 따른 차별적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특히, 현장 전문가의 교사 초빙은 고교학점제 도입과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제도 시행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자녀가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0.4%가,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64.5%가 각각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학령인구 감소가 점차적으로 뚜렷해지면서 임용시험을 합격하고도 ‘임용대기’ 중인 예비 교사를 둘러싼 ‘임용절벽’이 점차 쟁점이 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교사라는 직업은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사가 되는 것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한 직업적 안정성 추구, 교사라는 전문성 및 사회적 지위, 또는 다른 요인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교사의 전문성과 연계시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정도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50.9%)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전년도 결과와 동일한 수준이다. 반면, 초·중·고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은 42%로 더 낮게 응답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교권침해 사례를 접하는 경로, 예컨대 대중매체와 같은 간접적인 경험과 실제 학부모로서 교사와의 관계를 통한 직접적인 경험의 차이로 나타나는 결과 때문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또한 교권침해 정도에 대한 정의와 범위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격차의 원인이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교권침해

의 심각성에 대한 높은 인식은 직접적으로는 교원 처우 및 효능감에 관한 문제이면서, 간접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권을 보호하는 적절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 등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교원의 교육 활동 침해행위 정도가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자녀 직업으로서 교사 희망에 대한 정도와 연계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해 보인다. 복합적인 관점에서 교사의 역할 및 능력, 교사에 대한 신뢰 등을 이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 학생

학생 영역에서는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생의 인성 수준과 영향요인, 학생의 시민의식(민주시민성) 수준과 영향요인, 학생의 시민의식(민주시민성) 제고를 위한 학교의 역할, 학교폭력 정도 및 원인, 유·초·중·고등학교와 학부모의 소통 정도,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방식에 대한 의견을 묻고 다음과 같은 결과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국민들은 학생의 노력과 열의(36.5%), 학교나 학급의 학습 분위기(23.1%), 교사의 지도(13.2%), 가정의 학습 환경(11.3%), 가정의 경제적 뒷받침(9.3%), 학생의 타고난 능력(6.6%)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국민들은 학생요인(43.1%), 학교요인(36.3%), 가정요인(20.6%) 순으로 학업성취의 영향력을 인식하였고, 초·중·고 학부모들 또한, 학생요인(46.1%), 학교요인(37.2%), 가정요인(16.7%) 순으로 응답했다. 전반적으로 2017년 조사 이후 학생요인은 감소추세인 반면 학교 및 가정요인은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둘째, 초·중·고 학생의 인성 수준은 2013년(평균 2.05/5점 만점) 이후 2020년(평균 2.70)까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중학교(평균 2.51) 및 고등학교(평균 2.49)와 비교해 초등학교(평균 2.83) 인성 수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학교급별 인성 수준에 대한 부정적(낮다+매우낮다) 응답이 초등학교(32.3%), 중학교(49.3%), 고등학교(49.4%) 순으로 나타나 국민들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생의 인성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 학생들이 좋은 인성을 갖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52.4%)을 선택하였고, 친구(16.9%), 학교(16.5%), 사회(11.8%) 순으로 응답하였다. 국민들은 가정

을 학생들의 인성 형성에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15년 조사부터 일관된다. 반면, 사회라고 응답한 비율도 2018년 10.4%, 2019년 10.6%, 2020년 11.8%로 점차 증가하고 있어 학생들의 좋은 인성 형성에 가정,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의 역할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학생들의 시민의식(민주시민성) 수준의 평균은 2018년 2.64, 2019년 2.76, 2020년 2.85로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응답자의 과반이 학생들의 시민의식(민주시민성)을 보통(55.4%) 수준으로 응답하였지만 긍정적 인식(16.6%)보다 부정적 인식(28.0%)이 더 높았다. 학교급별로 평균과 긍정적·부정적 인식 정도를 비교해보면, 초등학교(2.90, 22.0%, 29.4%), 중학교(2.67, 13.4%, 39.0%), 고등학교(2.69, 16.2%, 39.0%)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국민들은 초·중·고 학생들의 시민의식(민주시민성) 수준을 낮게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중학생에 대한 평가는 가장 낮아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다섯째, 학생들의 시민의식(민주시민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교(31.5%), 가정(29.1%), 사회(24.4%), 친구(12.4%)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은 지난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다만, 학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2018년 43.0%, 2019년 34.0%, 2020년 31.5%로 점차 줄어드는 반면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2018년 22.3%, 2019년 26.5%, 2020년 29.1%로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초·중·고 학부모 응답결과에서 더욱 뚜렷하게 확인된다. 즉 학교의 중요성에 대한 비율은 2018년 46.7%, 2019년 39.3%, 2020년 35.2%였던 반면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비율은 2018년 20.1%, 2019년 26.5%, 2020년 28.5%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경향은 학생들의 시민의식(민주시민성) 형성에 있어 학교와 가정은 긴밀한 파트너로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여섯째, 학생의 시민의식(민주시민성) 제고를 위한 학교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은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 강화(33.7%),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장려(29.6%), 수업에서의 민주시민교육 강화(18.4%), 학생자치활동 활성화(14.1%)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육과정과 연계된 수업을 통한 방식 보다는 학교 및 교실 공간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의 더욱 효과적이라고 보았고, 더불어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다양한 참여활동이 학생의 시민의식(민주시민성) 제고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곱째, 학교폭력의 정도에 대해서는 2~3년 전과 비교해 심각하다는 응답이 54.1%로 높았고, 초·중·고 학부모 응답 또한 46.8%로 높은 수준이었다. 다만 전년도 조사와 비교해보면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보통이거나 심각하지 않다는 인식이 소폭 증가했고, 심각하다는 인식은 소폭 감소했다.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해 국민들은 가정교육의 부재를 1순위로 꼽았고, 다음은 대중매체의 폭력성, 학교의 학생지도 부족 순이었다. 특히 2017년 조사 이후 가정교육 다음으로 대중매체의 부적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덟째, 유·초·중·고등학교와 학부모의 소통 정도에 대해 보통(54.3%)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전체 평균은 2.82, 초·중·고 학부모 평균은 2.81이었다. 한편 부정적 응답(31.1%) 대비 긍정적 응답(14.6%)의 차이가 약 2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학교와 학부모 소통의 개선이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방식으로 휴대폰(문자, 앱) 및 SNS(블로그 등) 활용(46.5%)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교사(담임, 교장 등)와의 면담(25.6%), 학교 홈페이지 활용(12.2%) 등의 순이었다. 특히 휴대폰 및 SNS 활용과 교사와의 면담의 경우 초등학생 학부모(43.2%, 26.2%), 중학생 학부모(48.8%, 22.8%), 고등학생 학부모(47.2%, 25.7%)로 나타나, 초등학교 학부모의 경우 중·고등학생 학부모보다 대면을 통한 소통에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와의 소통 방식에도 학교급에 따른 차별적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라.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에서는 학교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길러주기를 바라는 사항,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 할 교과목,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할 교육, 미래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과 더불어 온라인 교육의 수업이수 인정과 수업이수 인정 온라인 교육의 운영 형태에 대한 의견을 새롭게 추가하여 묻고 다음과 같은 결과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초·중·고등학교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사회성·인간관계(1순위), 도덕성(2순위), 창의력(3순위), 기본 생활습관(4순위), 사고력(5순위) 등의 순서로 지목되었다. 초·중·고 학부모의 경우도 도덕성과 창의력의 순위만 바뀌었을 뿐 이들 5가지 사항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과거 3년간의 조사

결과와 동일하다. 한편 학교급에 따른 역점 사항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초등학교에서는 기본 생활습관이 1순위, 사회성·인간관계가 4순위, 중학교에서는 기본생활습관이 5순위, 사고력이 4순위, 고등학교에서는 지식이 2순위, 민주시민성이 3순위, 도덕성이 5순위로 각각 지목되었다. 이러한 학교급별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형식적인 형태의 교육이라는 사회적 행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적 상호작용이 시작되는 초등학교에서 기본 생활습관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학교에서의 공동체 생활과 학습활동으로의 적응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중학교에서 사고력과 창의력 등 학습 역량 요소들을 강화시키고, 고등학교에서는 진학 및 진로에 대한 지식 습득 등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역점 사항으로 지식을 2순위, 사고력을 3순위로 꼽은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사이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또한, 학교가 기여할 수 있는 공동체 삶에서 요구되는 필요한 사회적 가치 함양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초·중학교에서는 도덕성(2순위), 고등학교에서는 민주시민성(3순위), 도덕성(5순위)이 중요사항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초등학교에서 포괄적 사회적 가치체계를 확립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한 민주시민역량의 습득을 기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학교의 주된 역할은 지식 함양과 같은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성, 도덕성 함양 등과 같은 비인지적 영역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모두의 기저에 깔려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진급에 따른 교육의 방향 및 목적의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초·중·고등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 할 교과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학교급별로 다소 상이하게 응답하였다. 초등학교에서는 사회(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를 1순위로, 이어서 국어, 예술(음악/미술/연극), 한국사, 체육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사회교과를 1순위로 꼽았고, 한국사, 교양(철학, 진로와 직업, 환경 등), 영어, 수학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고등학교에서는 초·중학교와는 달리 1순위로 교양, 이어서 영어·한국사, 사회, 전문교과(기계·SW·디자인·농업 등)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지난 2년의 조사 결과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학부모들은 다소 다른 응답형태를 보였다. 초등학교에서는 사회, 국어, 체육, 한국사, 영어 순으로, 중학교에서는 사회, 영어, 교양, 한국사, 수학 순으로, 고등학교에서는 교양, 영어, 수학, 한국사, 전문교과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초교과(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의 중요성이 조금 더 부각되었다.

아울러 대학입학시험에서 주요 과목으로써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어·영어·수학은 학교급별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더 중시해야 할 과목들 중 하나로 지목되었다. 특별히 초등학교에서 국어가 2순위로 더 중시되어야 한다고 꼽혔는데, 이는 문해력이 학습의 기초가 된다는 이해 또는 디지털 기기 사용 급증으로 읽기·쓰기 능력 하락 우려 등에서 기인한 결과로 추측할 수 있다. 아울러 초등학교에서 사회, 예술, 체육이 중·고등학교에서 교양, 한국사 등이 우선순위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사항과 부합한 측면이 있다, 즉 역점 사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초교과영역 이외의 우선순위로 꼽힌 교과 교육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반면, 제2외국어, 한문, 기술·가정 등 대학입시와 거리가 먼 과목들은 여전히 중요도가 낮다는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초·중·고등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교육내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인성교육’이 초등·중학교에서는 1순위로, 고등학교에서는 2순위로 각각 응답하였는데, 지난 2년간의 조사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학교교육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 또는 수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아울러 학교급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앞서 분석한 역점 사항에 대한 질문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각 학교급 학부모들의 응답을 기준으로, 인성교육 다음으로 초등학교에서는 학습의 기초가 되는 창의성교육, 학교생활과 관련된 안전교육, 특기·적성교육 등이, 중학교에서는 특기·적성교육, 진로교육, 창의성교육, 성교육 등이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고등학교에서는 진로교육이 1순위, 이어서 인성교육, 특기·적성교육, 민주시민교육, 직업교육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특기·적성교육은 초·중·고등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순위로 꼽힌 교육내용이라는 점에서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서 이르기까지 연계성을 갖도록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고등학교는 대학 진학, 취업 등의 (직업)경력경로를 결정하는 주요 시점 또는 단계라고 전제한다면, 이번 조사에 확인된 요구되는 교육내용 결과는 합리적이다. 고등학교에서 진로교육의 중요성은 여타 질문들에서도 확인된다.

이상의 학교급별 차이를 종합하면, 초등학교는 학교 적응 및 학습의 초석을 다지는 과정, 중학교는 학습의 정교화 과정, 고등학교는 진로모색 및 준비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학생들의 신체적·정서적 발달과 학업발달 과정을 모두 고려한 교육내용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미래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초·중·고등학교 과정 전반에 걸쳐 전체 응답자는 자기관리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의사소통역량을, 초·중·고 학부모는 창의적 사고 역량, 자기관리역량, 의사소통역량을 1, 2, 3순위로 각각 응답하였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중학교와 고등학교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초·중학교에서는 창의적 사고역량을, 고등학교에서는 자기관리역량을 각각 가장 우선순위로 꼽았다. 또한 고등학교에서 지식정보처리역량과 공동체역량이 2, 3순위로 나타났다.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들은 적절한 자기관리를 토대로 지식 및 정보를 습득하고 처리하는 학습능력이 요구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체 역량의 경우는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사결과와 연계시켜 이해할 수 있다. 공동체 역량은 신체적·정서적으로 성인에 가까운 독립적인 주체로서 성장 단계에 있는 고등학생이 책임감 있는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학교에서 온라인 교육의 수업이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와 초·중·고 학부모 모두 찬성(47%, 49.2%)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반대 의견과 차이는 15% 내로 크지 않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도 각각 20%, 15.3%에 달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수업이수와의 관련성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각 학교급 학생 학부모들은 모두 찬성 의견을 보였지만, 반대 의견과의 차이는 중학교만 9.7%를 보였을 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1.1%, 0.4%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한편 초·중·고 학부모 경우 초·중학교에서 오히려 반대의견이 3.8%, 2% 각각 더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교에서는 찬성의견이 1.1% 높았다. 이번 조사가 진행된 시점이 1학기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경험한 이후, 즉 학부모들은 온라인 교육의 장·단점을 어느 정도 인지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찬반 의견이 다소 분분해 보이는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온라인 교육을 활용한 수업이수는 구체적인 시행계획 수립과 더불어 시행과 관련된 직·간접적 쟁점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온라인 교육의 수업이수 인정을 찬성한다는 전제하에, 수업이수로 인정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의 운영형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초·중·고등학교 과정 전반에 걸쳐 화상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면대면 교수-학습활동이 가능해야 한다는 응답이 1순위, 어느 정도 오프라인 상(등교수업)에서의 활동이 포함되는 운영형태가 2순위로 나타났다. 1순위와 2순위 간의 응답률 차이는 크지 않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오프라인 상에서의 활동이 포함되는 운영형태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대학입학시험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학습격차에 대한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일정수준의 등교수업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비실시간 강의형 콘텐츠 및 온라인 상 활동만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은 모든 학교급에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학교 수업은 면대면 또는 비대면 형식 여부와 별개로 교사와 학생 간 최소한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교수자와 학습자 간, 그리고 학습자 상호간의 실시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과 이를 토대로 어떻게 학습 효율성을 높이면서 교육격차에 대한 우려를 약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 고교정책 및 대입

고교 정책 및 대입 영역에서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 정책 중 고등학교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과 고교교육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 및 직업교육의 비중, 대입 반영 항목 및 대입에 대한 전망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고등학교 관련 정책 중 찬성이 반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찬성 60.6%, 반대 10.7%)와 이번 조사에서 처음 추가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찬성 73.4%, 반대 5.0%)에 대한 의견이었다. 이 외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된 질문의 경우 찬성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46.6%) 앞의 두 가지 정책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었다. 반면,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39.5%) 보다는 보통(44.6%)이라는 응답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것에는 전체적으로 73.4%, 초·중등 학부모의 경우 80.3%가 찬성하는 등 찬성의 비율

이 매우 높았으나, 일반고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경우 이에 비해 찬성 보다는 보통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볼 때, 아직까지 국민들의 고교학점제 정책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가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고교체제를 일반고 중심으로 전환하고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해 일반고 교육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무상교육을 도입하는 현 정부의 고교 정책의 방향성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고교학점제 도입 및 단계적 확산을 위해 고교교육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1순위 응답으로 수업 및 평가 개선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하였을 때는 학생의 진로 및 학업 설계 역량 강화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1순위 응답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순서대로 수업 및 평가 개선(25.6%), 학생의 진로 및 학업 설계 역량 강화(25.6%), 다양한 과목 선택 및 이수 기회 제공(24.8%)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고교학점제 정책에 대한 이해 및 공감대나 학교의 시설 여건 등의 물리적 환경 조성보다는 실질적으로 학점제 시행이 가능할 수 있는 수업과 평가 제도의 변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필요한 교과를 선택할 수 있는 역량 강화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과목 개설과 같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우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셋째, 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 비중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재의 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포함)을 받는 학생의 비중이 낮으므로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52.5%로 가장 많았으며 적정하다는 의견은 28% 정도였다. 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과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앞서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생의 진로 및 학업설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다만,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직업교육을 받는 방식 및 수준이 학교 유형 등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므로 추후 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의 직업 교육 확대가 바람직한지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대입과 관련하여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할 항목이 무엇인가를 조사한 결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3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인성 및 봉사활동(24.2%), 특기·적성(23.5%)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 응답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이후 1순위는 지속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었으나, 2순위의 경우 2018년,

2019년 특기·적성에서 2020년 인성 및 봉사활동으로 근소한 차이의 변동이 있었다. 고교 내신의 경우 2011년 전체의 35%로 1순위를 차지했으나 지속적으로 응답 비율이 감소하여 2018년 11.3%까지 감소한 후 2019년 13.0%, 2020년 13.4%로 약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입학에 대한 학생 선발에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와 같은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결과의 반영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인성 및 봉사활동과 같은 정성적인 평가 결과의 반영이 중요하다는 응답 또한 24.2%로 높게 나타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러 전형 항목 중 하나만을 선택할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비율이 높지만 영역별 합산 결과를 살펴보면 교과에 대한 성취 결과로 대표할 수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교 내신의 응답자 비율의 합이 43.4%인 반면, 비교과 영역인 특기·적성, 인성 및 봉사활동의 응답자 비율의 합은 47.7%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대학입학전형과 관련하여 교과와 비교과,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의 균형 있는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에 대한 전망과 관련하여 전체의 46.4%의 응답자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 전반적으로 완화되나, 일류대 위주의 입시 경쟁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2011년 조사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해왔으나 2020년 조사에서 2019년 대비 2.4% 감소하였고, 현재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도 2019년 대비 2.2%p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 볼 때,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일류대 중심의 입시 경쟁이 유지됨으로 인해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입시 경쟁을 체감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전망 역시 일류대 중심의 입시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지속적 노력과 함께 각 대학이 특색 있는 역량을 개발하여 학생, 학부모가 대학선택의 기준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바.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영역에서는 정부의 교육재정이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학교급, 무상교육의 범위확대를 위해 학교급별로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내용,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의 변화, 코로나19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능력, 국가위기 상황에서 교육영역 중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과 국가위기 상황에서 학생의 학습

유지를 위해 가장 우선시할 대응 과제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교육재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학교급에 대해 응답자 전체의 약 25.2%가 고등학교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유아교육(20.6%), 초등학교(18.3%), 중학교(11.0%)가 뒤를 이었다. 특히 시계열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2017년 조사 이후 고등학교와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요구가 전체의 50%내외를 유지하고 있어 국민들의 고등학교 및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요구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급에 따라서도 유·초등교육(38.9%), 중등교육(36.2%), 고등·평생교육(14.9%) 순으로 재정투자 확대 요구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2017년 조사 이후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 국민들의 교육재정의 투자와 배분에 대한 선호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무상교육의 범위확대를 위해 학교급별로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은 초등학교에서는 급식비(35.5%)와 방과후학교 교육비(23.0%), 중학교에서는 학교급식비(21.2%)와 교복구입비(20.7%), 고등학교에서는 디지털학습 장비 구입 및 활용비(25.5%)와 급식비(20.9%)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정부지원 필요 항목에 있어서 급식비, 학용품비·교재비, 현장학습비, 방과후학교 교육비, 교복구입비에 대한 필요성이 2016년 이후 70% 내외로 꾸준히 유지되면서 2020년의 디지털학습 장비 구입 및 활용비, 2019년의 실험실습 및 안전장비 구입비 등 새로운 수요에 대한 요구가 25%내외를 차지하고 있어 무상교육 확대를 위한 요구와 필요가 특정 항목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의 변화에 대해선 현 수준의 유지 의견이 32.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여건의 개선 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29.2%로 그 다음을 이었다. 특히 교육재정의 유지 및 확대의견이 전체 응답의 53.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축소(학생수 감소에 따른 축소+교육여건의 개선 후 추축)에 대한 의견은 40.6%로 2019년의 조사에 비해 축소에 찬성하는 의견은 감소하고, 유지 및 증액에 대한 의견은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다. 다만 시계열적으로는 2015년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 및 증액에 대한 의견이 축소에 대한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은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교육에 대한 지속적 투자를 주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교육영역에서의 정부의 대응 능력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3.35점을 수준⁴⁾을 보여 국민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영역에서 추진된 긴급 돌봄, 개학 연기, 온라인 개학 및 온라인 수업 운영, 학교 재량에 따른 등교 수업 등의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매우 적절+적절하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의 44.4%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학교급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모든 학교급에서 3.3점 이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였으며, 초·중·고등학교로 자녀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3.31점(긍정 평가 43.2%), 3.41점(긍정평가 46.2%), 3.38점(긍정평가 46.9%)으로 긍정적인 평가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국가위기 상황(예: 코로나19 사태)에서 교육영역 중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배움 및 학습 유지를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36.4%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양상은 자녀의 학교급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타나 국민들에게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교육의 본질인 배움과 학습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학교급에 따라서는 초등학생 학부모의 경우 중·고등학교 학부모에 비해 긴급 돌봄 및 보육에 대한 선호가 약 5% 수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급에 따른 일부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국가위기 상황(예: 코로나19 사태)에서 학생의 학습 유지를 위해 가장 우선시할 대응 과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탄력적인 학교운영 체제 구축(28.3%), 온라인 수업체제 구축(27.4%), 학교단위 위기관리 매뉴얼 구축(27.3%)을 비슷한 준에서 우선시할 대응 과제로 꼽고 있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학교단위 위기관리 매뉴얼 구축(32.3%)을,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탄력적인 학교운영 체제구축(27.8%)과 온라인 수업체제 구축(27.8%)을,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탄력적인 학교운영 체제 구축(30.4%)을 다른 과제보다 상회하는 수준에서 우선시 되는 대응과제로 꼽는 등의 차이를 보였으나 세 가지 대응 과제를 모두 중요시 하고 있는 경향은 자녀의 학교급에 따라 서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4) 매우 적절하다 5점, 적절하다 4점, 보통이다 3점, 적절하지 않다 2점 전혀 적절하지 않다 1점으로 역코딩하여 계산

사. 대학교육

대학교육에서는 대학교육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기능에 대한 평가, 대학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우선시 되어야 할 과제, 대학교수의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역할 수행 여부에 대한 평가, 사립대학 지원확대 정책에 대한 의견, 대학평가 시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지표, 대학교육혁신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 등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대학교육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5점 만점에 4년제 대학의 경우 2.74점(부정적 평가 38.0%). 전문대학의 경우 2.90점(부정적 평가 28.2%)으로 전반적으로 국민들은 대학교육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계열적으로 이러한 경향은 2006년 이후 지속되고 있으며, 2006년 조사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를 상회하고 있어 국민들의 대학교육의 사회적 효능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절대적인 수준에서 국민들의 평가는 부정적이지만, 2019년 조사에 비해 2020년 조사의 경우 부정적인 의견은 매우 감소한 반면(2019년 55.4%에서 2020년 4년제 38.0%, 전문대학 28.2%) 긍정적인 의견은 대폭 증가(2019년 5.0%에서 2020년 4년제 17.8%, 전문대학 21.9%)하면서 2013년 조사 이후 긍정적인 평가가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둘째, 대학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제대로 양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우선시 되어야 할 과제에 대해 4년제 대학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43.4%가 학문분야별 전문가 양성을 꼽고 있었으며, 전문대학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56.6%의 직업 역량의 함양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조사의 경우 전체적인 수준에서 직업 역량의 함양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20년 조사의 경우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과제를 분리하여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우선 과제를 조사한 결과 4년제 대학은 학문분야별 전문가 양성, 시민의식 및 인격적 소양 함양, 직업역량의 함양 순으로 나타났으나, 전문대학의 경우 직업역량의 함양, 학문분야별 전문가 양성, 시민의식 및 인격적 소양의 함양 순으로 나타나 대학의 유형에 따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우선과제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대학교수가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선 국민들은

4년제 대학은 5점 만점에 2.72점, 전문대학은 5점 만점에 2.82점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어 대학교수의 역할 수행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특히 절대적인 수준에서 2006년 이후 대학교수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3점을 하회하고 있어 대학교수의 역할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2019년 조사에 비해 2020년 조사의 경우 4년제 대학교수에 대한 평가는 2.59점에서 2.72점으로 높아졌으며, 전문대학 교수에 대한 평가도 2.62점에서 2.70점으로 소폭 상승해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넷째, 정부의 사립대학 지원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4.3%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의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양상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조사 이후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 정책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2018년 45.3%, 2019년 52.3%, 2020년 54.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찬성한다는 의견은 2018년 31.1%에서 2020년 22.3%까지 감소해 국민들의 사립대학 지원 정책에 대한 반대의견이 더욱 공고해 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대학평가 시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지표에 대해선 대학 경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가장 중요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25.4%로 가장 높은 선호를 보였으며, 교수들의 교육 역량(24.1%),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22.2%)이 그 다음을 이었다. 특히 국민들은 2015년 조사 이후 꾸준히 대학 경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에 대한 지표가 대학평가기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지표로 보고 있었으며 교수의 교육역량과 교육과정이 비슷한 수준에서 그 뒤를 이어 대학평가 시 우선시 되어야 할 지표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에는 큰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

여섯째, 대학교육 혁신을 위해 앞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31.1%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을 가장 우선시 할 과제로 꼽고 있었으며, 대학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가 25.2%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 과제와 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 과제가 전체 응답의 56.3%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들은 대학교육 혁신을 위해 정부가 양 과제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아. 교육현안 및 미래교육

교육현안 및 미래교육 영역에서는 먼저 교육현안과 관련하여 교육행정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의견과 사교육 실태와 부담, 효과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미래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미래 사회 변화,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초·중등 교육체제의 과제, 미래 사회 변화로 인해 더 강조되어야 할 학교의 역할과 기능 등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유·초·중·고 교육정책의 수립, 필수 교육과정의 결정, 교과목 표준 학습성취 기준 마련,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 주체를 조사하였는데, 유·초·중·고 교육정책의 수립에 대해서는 2019년 조사와 동일하게 시·도 교육감(38.1%)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육부 장관(36.8%), 학교장(17.2%), 잘 모르겠다(7.9%) 순으로 응답하였다. 초·중·고 학부모의 응답 경향도 전체 응답자의 응답 경향과 유사하였다. 필수 교육과정의 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는 교육부장관(36.9%), 시·도 교육감(34.9%), 학교장(21.0%), 잘 모르겠다(7.3%) 순으로 응답하여 14차 조사와 동일한 경향을 보여준 반면 초·중·고 학부모는 시·도 교육감(36.8%), 교육부 장관(36.1%), 학교장(24.2%), 잘 모르겠다(2.9%)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1~2순위 선택지 응답 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학부모의 응답 경향이 전체적인 경향과 큰 차이를 가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교과목 표준 학습성취 기준 마련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갖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는 시·도 교육감(39.4%)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학교장(29.4%), 교육부 장관(23.1%), 잘 모르겠다(8.1%) 순으로 응답하였다. 초·중·고 학부모도 전체 응답자와 유사한 응답 경향을 보여주었다. 교육행정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마지막 항목인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는 학교장(35.5%), 시·도교육감(30.1%), 교육부장관(26.0%), 잘 모르겠다(8.4%)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도 유사한 응답 경향으로 나타났다.

교육행정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4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필수 교육과정의 결정과 유·초·중·고 교육정책의 수립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에 대한 응답이 1, 2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교과목 표준 학습성취 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필수 교육과정의 결정이나 교육정책의 수립 등의 경우

여전히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교육현안 중 하나로 사교육과 관련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2019년 조사에 비해 일부 문항을 추가하였고 선택지를 현재의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조사하였다. 사교육 심화, 완화와 관련하여 현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받고 있는 사교육이 2-3년 전과 비교해볼 때 어떻게 변화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별다른 변화가 없다(51.8%), 심화되었다(42.8%), 줄어들었다(5.5%) 순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학부모의 경우 심화되었다(46.5%), 별다른 변화가 없다(46.3%), 줄어들었다(7.3%) 순으로 전체 응답 경향에 비해 심화되었다는 응답과 줄어들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사교육 비용 부담과 효과를 교차하여 조사하는 문항을 추가하였는데, 조사 결과 비용 부담의 경우 고부담(57.2%), 중부담(22.3%), 저부담(11.5%), 부담없음(9.1) 순으로 나타난 반면, 사교육 효과는 중효과(40.4%), 저효과(23.5%), 고효과(23.2%), 효과없음(12.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교육 비용 부담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과는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교육 경감 효과와 관련하여 올해 조사에서는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고교체제 단순화 정책을 선택지로 포함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경우 EBS 수능 연계(26.1%), 대입전형 단순화(15.5%), EBS 강의(12.7%), 선행학습 금지 정책(11.5%), 방과후 학교(초등돌봄교실 포함) 운영(11.4%),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9.6%), 수능(영어, 한국사 등) 절대평가(6.3%), 고교체제 단순화(6.0%), 기타(0.9%)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EBS 수능 연계(24.0%), 대입전형 단순화(17.5%), 선행학습 금지 정책(13.6%), EBS 강의(11.1%), 방과후 학교(초등돌봄교실 포함) 운영(10.5%),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10.0%), 수능(영어, 한국사 등) 절대평가(6.6%), 고교체제 단순화(6.1%), 기타(0.7%) 순으로 응답하였다. 선택지의 차이로 인해 지난 조사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EBS 수능 연계나 강의, 대입전형 단순화 등 대입 관련 정책이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교육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는 남들이 하나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26.4%), 남들보다 앞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25.4%),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17.2%),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해서(13.5%)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초·중·고 학부모의 경우도 응답 비율

의 차이는 있으나 1~4순위 응답 선택지는 전체 응답자와 동일하였다. 유·초·중·고 학생의 자녀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자녀 사교육 지출 비용 부담 정도를 조사한 결과, 부담된다(다소 부담된다+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이 94.3%로 조사되었다.

유·초·중·고 학생의 자녀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사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⁵⁾로 조사한 결과 사교육은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2.89점),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어도 사교육이 필요하다(3.04점), 어떤 종류의 사교육을 할 것인지는 부모가 결정한다(3.14점),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취미활동은 하지 않도록 말린다(2.48점), 자녀가 공부를 안하고 있으면 불안하다(3.29점), 자녀가 학원에 가거나 과외공부를 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3.14점)로 나타났다.

사교육과 관련한 위와 같은 응답 경향이 시사하는 것은 사교육 비용 부담이 크고 비용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교육이 심화되고 있다고 인식되는 상황에서 학부모의 불안이 사교육을 지속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교육은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거나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취미활동은 하지 않도록 말린다 등에 대한 동의 정도가 보통에 미치지 못하지만 사교육이 심화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가 공부를 안하고 있으면 불안하고 학원이나 과외공부를 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에서 나타나듯이 학교 수업보다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필요로 하거나 학교 수업을 보충할 필요 또한 사교육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점에서 본다면 직접적으로 사교육을 억제 또는 경감하려는 시도보다는 학교 교육에서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요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정책의 추진을 통해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사교육에 대한 필요와 불안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래 사회 변화 중 우리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변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는 지난 11차(2016년), 14차(2019년) 조사와 같이 마찬가지로 저출산 고령화(42.3%)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지능정보사회(4차 산업혁명 등)의 도래(16.5%), 장기적인 저성장 추세(11.6%), 글로벌 경쟁 확대(10.8%), 사회 양극화(9.0%), 다인종 다문화로의 진전(7.6%), 통일시대/남북관계(2.2%), 기타(0.1%)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현재 합계출산율이 1명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

5)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계산함.

는 저출산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 상황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교육뿐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미래 사회 변화의 주요 영향 요인이 될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래 초·중등학교 교육체제의 과제에 대한 조사에서는 이번 15차 조사에서 지역사회(마을) 공동체 구심점 등 학교의 역할 확대, 온라인-오프라인 학습 병행 등을 선택지로 포함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는 학습자관리시스템(학습 관리, 생활지도, 건강관리, 진로지도 등) 구축 및 운영(19.4%), 온라인-오프라인 학습 병행(15.2%), 유연한 학교제도(학제) 구축(11.8%), 교과 교사, 학습컨설턴트, 특별전문강사 등 교원 다양화(11.7%), 진학 진급제도의 탄력적 운영(9.6%),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자율성 확대(9.6%), 학교 밖 학습경험 인정(9.3%), 교육과정 내용량 축소(7.8%) 순으로 응답하였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 학습자관리시스템(학습 관리, 생활지도, 건강관리, 진로지도 등) 구축 및 운영(20.4%), 온라인-오프라인 학습 병행(14.5%), 교과 교사, 학습컨설턴트, 특별전문강사 등 교원 다양화(12.3%), 유연한 학교제도(학제) 구축(11.1%), 진학 진급제도의 탄력적 운영(10.3%),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자율성 확대(9.9%), 교육과정 내용량 축소(8.9%), 학교 밖 학습경험 인정(8.6%) 순으로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저출산 사회에서 학습자에 대한 관리의 학교 기능과 역할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년도인 14차 조사와 비교해보면, 선택지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4차 조사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았던 유연한 학교 제도(학제) 구축에 대한 응답 비율이 낮아지고 15차 조사에서 새로 선택지에 포함된 온라인-오프라인 학습 병행에 대한 응답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2순위 응답을 차지한 특징이 나타난다.

미래 학교에서 더 강조되어야 할 역할과 기능에 대한 조사 결과 초등학교에서는 아동·학생들의 보육 혹은 돌봄(24.7%), 자기주도학습 등 문제해결 역량 교육(21.7%), 공동체 역량 및 협동·협업 역량 교육(21.1%) 순으로 조사되었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 자기주도학습 등 문제해결 역량 교육(24.4%), 공동체 역량 및 협동·협업 역량 교육(22.8%), 아동·학생들의 보육 혹은 돌봄(20.9%) 순으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중학교에서 더 강조될 역할과 기능에 대해 전체 응답자는 자기주도학습 등 문제해결 역량 교육(32.9%), 공동체 역량 및 협동·협업 역량 교육(17.6%), 미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탐색 및 교육(13.6%), SW·AI 교육 및 코딩교육(11.6%), 융합 교육(11.1%), 지식의 전달 및

학습(9.8%)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여주었으며, 학부모의 응답 경향도 유사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에서 더 강조될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는 미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탐색 및 교육(31.6%), 자기주도학습 등 문제해결 역량 교육(19.9%), 융합 교육(11.9%), 공동체 역량 및 협동·협업 역량 교육(11.6%), 지식의 전달 및 학습(11.2%)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고,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미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탐색 및 교육(30.0%), 자기주도학습 등 문제해결 역량 교육(22.6%), 지식의 전달 및 학습(13.3%), 융합 교육(12.2%)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하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학교급에서 문제해결 역량과 공동체 역량 및 협동·협업 역량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지만, 초등학교에서는 보육과 돌봄 또한 강화되어야 하고, 고등학교에서는 미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탐색 및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자. 교육관

교육관 영역에서는 자녀의 학교 교육 거부에 대한 학부모의 태도, 자녀 교육 성공의 의미, 자녀의 장래 생활에 대한 기대 및 자녀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부담 시기, 대학 졸업자에 따른 차별의 정도, 학벌주의 및 대학 서열화에 대한 변화 전망, 교육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묻고 다음과 같은 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자녀가 학교의 여러 문제들로 학교에 다는 것을 거부할 경우 과반이 꼭 정규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대안을 찾겠다(51.1%)는 의견을 선택하였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그 학교가 아니더라도 정규학교는 꼭 다니게 하겠다(50.8%)는 의견이 과반이었고, 중·고등학교는 꼭 정규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대안을 찾겠다(중 47.4%, 고 54.0%)는 의견이 높았다. 여전히 국민들은 자녀가 원할 경우 정규학교가 아닌 대안학교를 포함한 대안교육에 적지 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다양한 시각에서의 대안교육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경우는 전체 응답자든 학부모 응답자든 꼭 정규학교를 다니게 하겠다는 의견이 높다.

둘째, 우리 사회에서 자녀 교육에 성공했다는 의미로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24.7%)를 1순위로 꼽았고, 다음으로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컸다(22.0%),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21.7%), 자녀가 경제적으로 잘 산다(14.0%) 등

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지난 2019년 조사부터 이번 조사와 같은 응답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불과 2년 전인 2018년 조사에서는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를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1~2순위로 꾸준히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컸다를 꼽고 있어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자녀의 장래 생활 기대와 관련해서는 지난 3년간 1순위를 지키고 있었던 가족이나 주위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냄(22.0%)을 2순위로 돌리고, 본인의 흥미와 적성을 살림(24.9%)을 1순위로 꼽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윤택함(20.4%)과 건강하게 살아감(14.4%) 등의 응답률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담 시기에 대해 과반이 대학교 졸업까지(51.1%)를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취업할 때까지(17.2%)를 꼽아 여전히 부모의 경제적 지원으로 인한 교육격차 발생과 그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대학교 이상의 경제적 지원을 생각하는 응답자가 87.9%(대학교 졸업까지 51.1%, 취업할 때까지 17.2%, 결혼할 때까지 7.0%, 대학원 석사까지 5.7%, 대학원 박사까지 4.3%, 평생 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을 위한 교육적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넷째, 대학 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은 여전히 심각할 정도로 존재(56.8%)하고, 우리나라의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는 앞으로도 큰 변화 없을 것(각각 58.1%, 59.2%)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 문항이 처음 포함된 2011년 조사 이후 선택지의 응답률(%)만 조금씩 변화될 뿐 응답결과는 불변이다. 즉, 조사가 실시된 10년 동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학력, 학벌, 대학 서열화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해결될 수 없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에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등 각계에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강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교육계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인 거시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경제적 부의 증대(68.3%), 사회적 지위 향상(70.2%), 개인의 심리적 만족감(61.8%)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응답하였다. 이 또한, 지난 조사들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3가지 측면 중 교육이 사회적 지위 향상이나 경제적 부의 증대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라는 인식은 앞의 학력, 학벌 및 대

학 서열화에 대한 인식과 맞물려 있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다시 한 번 강조되어야 한다.

2 정책 방향 및 과제

본 절에서는 KEDI POLL 2020의 조사 결과 및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과 과제를 탐색·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앞 절에서 9개 영역별 조사 결과에 터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그림 IV-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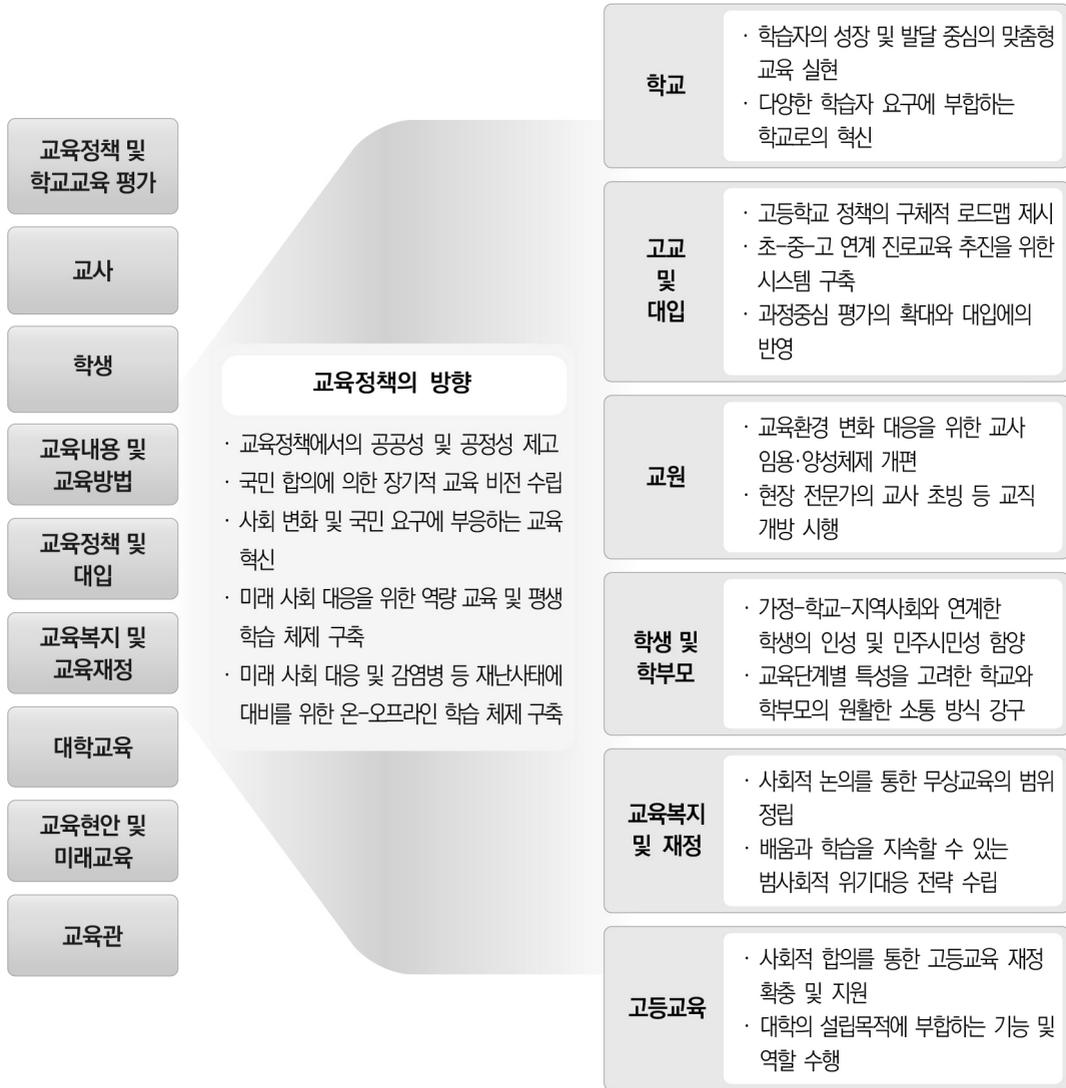
[영역]	[시사점 요약]
교육정책 및 학교교육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문제에 있어 대입제도의 공정성에 가장 많은 관심과 우려 • 교육의 출발선인 유아교육 단계에서의 공공성 및 형평성 담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 기대 • 고등학교 교육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 필요 • 일반계 고등학교 등 단위 학교들의 교육역량 제고 필요 • 학교급에 따른 고유한 정책적 요구 확인 및 학교급별 교육수요자 요구에 따른 맞춤형 정책 추진 필요 • 장기적 비전에 따른 신뢰성 있는 교육정책에 대한 요구 • 학교에 대한 평가가 다소 상승한 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교육영역 대응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던 인식에서 기인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별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기대와 요구가 상이함에 따른 교원정책의 학교급에 따른 차별적 접근 필요 • 현장 전문가의 교사 초빙은 고교학점제 도입 등 추진 중인 정책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 선행 •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다소 상승한 것은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 학교와 교사의 대응이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기 때문으로 해석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좋은 인성 형성에 가정,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의 역할도 점차 중요 • 학생들의 시민의식(민주시민성) 형성에 학교-가정, 학교-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 및 다양한 참여활동 필요 • 학부모와의 소통 방식에도 학교급에 따른 차별적 접근 필요 • 학교폭력의 주요 원인으로 가정교육의 부재, 대중매체의 폭력성 등 학교 밖 요인 지목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역할은 지식 함양 등의 인지적 영역뿐 아니라 사회성, 도덕성 함양 등 비인지적 영역에서도 중요함을 인식 • 학생들의 신체적·정서적 발달 및 학업 발달 과정을 모두 고려한 교육내용 강화 방안 모색 필요 • 비대면 온라인 수업과 관련, 어떻게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교육격차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킬 것인지 지속적인 논의 필요

고교정책 및 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정부의 고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고교학점제와 관련 실질적으로 학점제 시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 우선 요구 • 대학입학전형과 관련, 교과와 비교과,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의 균형 있는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추진 필요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상교육 확대를 위한 요구와 필요가 특정 항목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 •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영역의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 •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교육의 본질인 배움과 학습을 유지해야 한다고 인식
대학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육의 사회적 효능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 • 대학의 유형에 따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우선과제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 •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 및 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에 초점을 둔 고등교육 정책 요구
교육현안 및 미래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교육비 부담은 크고, 부담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불안 심리가 사교육을 지속하는 원인으로 인식 • 학교 교육에서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요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정책의 추진을 통해 사교육에 대한 필요와 불안 완화 노력 • 저출산 사회에서 학습자에 대한 관리의 학교의 기능 및 역할 요구
교육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음을 확인 •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을 위한 교육적 지원 방안의 지속적 강구 필요 • 우리 사회의 학력, 학벌, 대학 서열화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계분만 아니라 범정부적인 거시적 노력 지속

[그림 IV-1] KEDI POLL 2020 조사 결과 및 분석에 따른 시사점 요약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9개 영역을 ① 교육정책의 방향을 포함하여 ② 학교, ③ 고교 및 대입, ④ 교원, ⑤ 학생 및 학부모, ⑥ 교육복지 및 재정, ⑦ 고등교육 등의 영역으로 재분류하고, 교육정책의 방향과 각 영역별 정책 과제를 탐색하여 제시하였다.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기에 정책 과제별 수준이 상이할 수 있겠으나, 국민여론이라는 데이터에 근거한 과제의 도출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며, 관련된 세부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교육정책의 방향과 재분류한 각 영역별 정책 과제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 [그림 IV-2]와 같다.



[그림 IV-2] KEDI POLL 2020를 통한 교육정책 방향 및 영역별 정책 과제 제안

가. 교육정책의 방향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정책에서의 공공성 및 공정성 제고 · 국민 합의에 의한 장기적 교육 비전 수립 · 사회 변화 및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혁신 ·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역량 교육 및 평생학습 체제 구축 · 미래 사회 대응 및 감염병 등 재난사태에 대비를 위한 온-오프라인 학습 체제 구축
-----------	--

1) 교육정책에서의 공공성 및 공정성 제고

‘대입 공정성 강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등록금 부담 경감’, 이번 조사에서 학교 교육 관련 정책들 중 영역별로 가장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정책들로 꼽힌 것들이다. 즉, 많은 국민들이 그 어떤 것보다 교육에 있어서 공공성과 공정성 확장 정책들의 강화에 더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들을 수행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막대한 교육재정을 필요로 한다.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통해 실질적인 고등교육기회의 형평성 추구를 위해,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대입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 이것은 안정적이면서 지속적인 교육재정의 확보가 절실하고 중요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주위 여건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소위 인구절벽 시대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감소를 이유로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교육재정의 감축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사회적으로 학령기 아동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정책 당국이 더 많은 연구와 고민을 바탕으로 앞장 서 대응해야 한다. 학령기 아동의 감소에 대응하여 국가·사회가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사람의 역량을 최대한 키워주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전술한 교육의 공공성 및 공정성 강화와 함께 국민들의 또 다른 요구인 교육기관별로 최적의 교육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그리고, 학령기 아동 감소 시대를 맞이하여 교육재정의 절감이 아닌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우리 교육의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함을 역설하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실천해나가야 한다.

2) 국민 합의에 의한 장기적 교육 비전 수립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대표적 문제점이 장기적 비전의 부재 및 정책의 일관성 결여라는 사실이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또 한 번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국가교육위원회의 신설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이 또한 쉬운 것은 아니다. 문제의 지점을 확인하였다면 그 원인과 함께 실질적 해결책을 빨리 찾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 때 해결책이 오직 하나만 있는 경우는 드물며 다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또 다른 방안이 분명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이외의 대안도 함께 강구하여야 한다.

장기적 교육 비전 부재 문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면서도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10년짜리 ‘국가교육 기본계획’ 조차 갖고 있지 못한 현실 또한 그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 행정부가 10년을 바라보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소리를 듣게 될 것이며, 수립된 기본계획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보고한 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과 함께 평가받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책의 안정성과 신뢰성도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많은 정책 영역에서 기본계획의 수립을 강제하고 관련된 입법례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교육을 장기적으로 아우르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법과 제도의 현실이다. 차제에 교육 영역에 있어서 대표적인 기본법인 「교육기본법」에 장기적인 ‘국가교육 10년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세부 정책의 입안 및 추진을 의무화하는 조항의 신설과 함께 이를 실천하는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3) 사회 변화 및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혁신

초·중·고등학교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아직은 ‘보통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전년도에 비하여 긍정적 평가는 늘어난 반면에 부정적 평가는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의 조기 유학에 대한 요구도 전년도에 비하여 상당 수준 낮아지면서 조기 유학 희망 1순위 이유로 ‘우리나라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이 아닌 ‘외국어 학습 또는 조기 다중언어 구사’가 응답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민들의 우리 교육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향후의 과제는 이와 같이 국민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인식이 좋아진 이유가 무엇이며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를 찾아내는 것이다.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좋아진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학교교육 영역에서 정부 대응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내면에는 우리의 학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꾸준히 교육력을 배가시켜온 노력의 성과가 있다. 특히 디지털교과서 및 다양한 온라인 학습 체제를 개발하고 학교에 적용시켜오면서 원격교육에 대한 역

량을 축적해 왔으며, 안정적인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의 운영을 위해 노력하면서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제가 나름 구축된 것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위기 국면을 극복하는 큰 자산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관련하여 정부는 온라인교육에 대한 우리 학교교육의 역량을 꾸준히 배가시킴과 함께 학교에서의 돌봄과 안전이 지역사회와의 협력 아래에 국민들에게 보다 큰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문제는 학교교육에서의 온라인교육 강화 그리고 돌봄 서비스 강화에 대하여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반대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필요한 우려를 불식시킴과 함께 사회의 변화와 국민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학교교육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4)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역량 교육 및 평생학습 체제 구축

한국 사회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저출산 심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에서도 저출산 고령화가 교육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사회 변화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나 생산연령인구의 급감이 사회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학령인구의 감소는 학습자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요인이자 학습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가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이나 보육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노력 또한 저출산 경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의 강화는 필요하다.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 변화 외에도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 등의 변화는 사회, 경제, 교육의 전 분야에서 체계적인 대응을 필요로 한다. 교육에 한정한다면 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라 사회의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지식교육에서 역량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일과 교육의 순환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생애주기에 걸친 평생학습 체제의 구축과 초·중등학교에서 평생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역량을 형성하는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미 2015 교육과정 개정 등으로 이러한 정책 방향으로 움직여가고 있는데, 융복합 교육 등을 통해 교육과정이 목표로 하는 역량 형성에 보다 강조점이 주어져야 하며, 고등교육을 포함한 직업교육체계 또한 지속적인 숙련 형성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

도록 구조화되어야 한다.

저출산 심화 속에서 학습자 하나하나의 중요성이 커지고, 사회경제 변화 속에서 교육의 기능이 표준적인 노동력 양성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학습 역량을 제고하는 동시에 학습자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학습자의 학습 및 그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고 코칭하는 학교와 교원의 역할이 요구된다.

5) 미래 사회 대응 및 감염병 등 재난사태에 대비를 위한 온-오프라인 학습 체제 구축

수업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국한한다면 한국의 원격교육은 일반적인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어려운 대상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학령기 이후 학습자나 학업중단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방송통신중·고등학교나 건강상의 이유로 정규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원격수업 등이 그것이다. 정규학교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미이수 과목 이수나 다양한 교과 선택 기회 제공을 위해 온라인수업과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 원격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사태는 정규교육에서의 원격교육의 활용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제기하고 있다. 학교현장의 ICT 활용 교육이나 학업 보충이나 자율학습을 위한 EBS,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도교육청의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제공을 넘어서 학교수업에서 온라인교육과 오프라인교육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의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전면적 재난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원격교육 체제 구축의 필요성이다. 큰 틀에서 본다면 2020년 코로나19에 대한 교육적 대응은 오프라인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질 내용을 비대면 환경에서 온라인 콘텐츠나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정규학교가 기능하는 재난 상황에서 유지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학교가 가능하기 어려운 전면적 재난 상황 또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면적 원격교육 방식의 교육체제를 예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정규학교에서 온-오프라인 학습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또한 필요하다. 현재 정규학교에서의 수업인정 원격교육은 출석이 어려운 경우나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교과목에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와 같은 대면교

육과 비대면교육이 혼합되는 환경을 고려하면 교사가 수업 운영의 한 방식으로 온라인교육을 활용할 경우의 범위나 수업 방식, 결과의 기록 등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나. 학교

과제

- 학습자의 성장 및 발달 중심의 맞춤형 교육 실현
- 다양한 학습자 요구에 부합하는 학교로의 혁신

1) 학습자의 성장 및 발달 중심의 맞춤형 교육 실현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과 관련된 질문들의 응답 경향을 요약하면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접근의 필요성이다. 다시 말해 학생 성장 및 발달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기본생활습관, 사회성·인간관계, 인성교육, 특기·적성 교육, 자기관리 역량 등 학교급별로 비인지적 영역에서의 역량과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가 다양하면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교교육에 대한 기대는 단순하게 지식 습득과 학습능력 증진에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환원하면 학교교육의 다기능성에 대한 요구가 크다. 따라서 수요자 맞춤형 교육 제공이 정책적 우선순위가 된다면 필연적으로 학교급별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에 대한 접근은 달라져야 한다.

성장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교육은 학교교육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적 교육 환경 및 체제 구축이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별히 맞춤형 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교사 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학교가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과제 1순위로 고등학교에서는 진로교육을, 초·중학교에서는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학생지도(인성, 안전 등) 활동을 전체 응답자와 초·중·고 학부모 모두 각각 꼽았다.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체득화를 돕기 위한 생활지도 능력, 중·고등학교에서 진로교육과 특기·적성 교육 시행을 위한 진로·진학지도 능력이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 역량개발과 학생 성장 간 협력적 관계가 구축되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임소현 외(2019)는 현직 교사의 전문성 개발과 더불어 교직입직 전 단계에서의 준비가 학교급의 특성에 부합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사교육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학생의 발달 단계와 진급에 따른 다른 학교교육에 대한 수요와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학생성장 중심의 교육과정 및 교과 내용을 상황에 맞게 편성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성장은 학업적, 정서적, 신체적 성장을 모두 포함하는 다면성과 다양성을 포괄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연관된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특별히 교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2) 다양한 학습자 요구에 부합하는 학교로의 혁신

학습자별 학업성취의 차이는 불가피한 것이지만 최소한 학교급, 학년에 따른 기본적인 학력 수준의 성취는 다음 단계의 교육이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라는 점에서 학교 현장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 많은 연구뿐 아니라 일상적인 경험에서도 교육격차에 대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력이 큰 만큼 기초학력 보장은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지향점이기도 하다. 기초학력 보장의 문제가 교육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학점제 등을 통해 다양한 학습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 정부에서 외국어고등학교나 자율형 사립고 등의 일반고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 내에서 학습자의 학습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의 제공이 더욱 요구되며, 학습자의 진로나 직업에 대한 탐색 등도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직업계고등학교에서도 기초학력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기술적 변화 속에서 생애주기에 걸쳐 학습과 일의 순환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평생학습의 기초 역량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가 기초학력의 보장이나 다양한 학습 요구의 충족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출석기반 진급, 진학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학교간 공동교육과정이나 원격교육의 활용, 교원이나 교육지원인력의 활용 지원 등 중앙정부나 시도교육청 수준에서의 다양한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사교육 문제를 풀어나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기도 하다. 물론 한국 사회의 사교육 문제가 기본적으로 선호 대학이나 전공에 대한 대입경쟁에 기인한 것이며, 이번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대입과 관련한 정책이 사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대입 관련 정책을 어떻게 개선하더라도 선호 대학이나 전공에 대한 경쟁이 치열한 구조라면 사교육 경감 효과

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학습 수요나 학습 보충 등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 고교 및 대입

과제

- 고등학교 정책의 구체적 로드맵 제시
- 초-중-고 연계 진로교육 추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
- 과정중심 평가의 확대와 대입에의 반영

1) 고등학교 정책의 구체적 로드맵 제시

현 정부의 고등학교 관련 정책인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고교학점제 도입, 고교체제 개편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일반고의 교육을 혁신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과거 다양한 교육정책을 거쳐 지속되어 왔으며, 현 정부에서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와 고교학점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따라 필요한 교과를 선택하여 이수하게 되며, 이를 위해 일반고에서는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를 다양하게 개설하고 필요에 따라 시·도 인정 교과까지 개설하는 등 학생의 선택권을 넓히고자 하고 있다. 일반고의 교과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따라 학업을 이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교학점제의 완전 시행 이후 고교체제 개편을 목표로 정책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고등학교 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일반고 역량 강화는 찬성의 비율이 73.4%로 매우 높는데 반해 고교학점제 도입은 보통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고교체제 개편의 경우도 찬성의 비율이 보통보다 근소하게 높아 일반고 교육역량강화에 대한 의견과는 찬성 비율에 있어 큰 차이를 보였다. 고교학점제와 고교체제 개편의 두 정책 모두 큰 틀에서 일반고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정책임을 고려할 때, 두 정책의 찬성 여부에 대해 보통이라는 중립 의견이 가장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두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이 큰 틀에서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방향성 제시와 함께 고교학점제 및 고교체제 개편 정책의 구체적인 방안 및 로드맵 제시, 이에 대한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2) 초-중-고 연계 진로교육 추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

진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진로교육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입 또는 취업을 앞 둔 고등학교 단계의 진로교육은 특히 강화될 필요가 있다.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도입 등으로 이미 중학교 단계에서는 진로교육이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고등학교의 경우 진로에 대한 탐색보다는 입시를 위한 공부가 더욱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교과를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 단계에서부터 진로 및 학업설계를 위한 역량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보다 체계적인 진로교육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 및 탐색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고등학교 입학 단계에서 자신의 진로에 맞는 학업 설계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현재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시행되는 자유학기제 또는 자유학년제의 전 학년 확대, 혹은 중학교 3학년 2학기에서의 자유학기제 또는, 진로집중학기제 등을 통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간의 진로교육이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학생별 초-중-고 진로 탐색 과정 및 관련 교육 혹은 경험들을 축적하여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포트폴리오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등학교의 학점제 도입으로 학생들의 진로 상담 이외에 학업설계 지도가 필요함에 따라 진로 상담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등학교 전체 교사들이 학생들의 진로 및 학업설계 상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진로와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즉, 진로 및 학업설계 전문가 신규 양성 및 기존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과정중심 평가의 확대와 대입에의 반영

1990년대 후반 수행평가가 도입된 이후 학생들의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 이외에 학습 과정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학생들이 과도한 경쟁 체제에서 벗어나 서로 협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절대평가 방식의 성취평가제를 도입하고 성장중심의 학생평가, 과정중심의 학생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입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초·중학교와는 달리 고등학교의 경우 내신 성적이 등급화되어 대학 입시에 반영됨으로 인해 여전히 성취도와 함께 석차등급을 산출하고 있어 실질

적으로는 상대평가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대평가 체제는 학생의 성장과 협업을 증시하는 교육의 지향점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2025년 전면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 운영에도 적합하지 않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될 경우 소인수 교과목의 개설이 증가하고 온·오프라인 공동교육 과정이 활성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성취평가제(절대평가)시행과 교사별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등학교의 내신 평가 방식은 절대평가로 전환된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대입제도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고등학교 내신 평가가 전 과목 성취평가제로 이루어질 경우 대입에서의 내신의 반영도 현재의 등급에 따른 정량적 평가에서, 학생의 학습과 성장 과정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라. 교원

과제

- 교육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교사 임용·양성체제 개편
- 현장 전문가의 교사 초빙 등 교직 개방 시행

1) 교육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교사 임용·양성체제 개편

응답자의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가 보통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조사결과는 교사에게 우선 필요한 능력과 교사임용 및 양성과정과 연계시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교사에 대한 신뢰와 교사에게 요구되는 필요한 능력 간의 상관관계 여부를 이해해야 한다. 또한 교사에게 우선시 되는 능력은 학교교육의 목표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따라 도출될 수 있는데, 이는 교사선발 및 양성체제 개편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 교사선발체제, 즉 신규 교사임용의 핵심인 ‘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임용시험, 이하)’은 논의의 중심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교육신문(2020.09.07.)은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측정하기 어려운 현재 임용시험제도가 학교 현장 및 임용시험과 동떨어진 현 초등교원양성기관의 교과과정과 더불어 초등 임용시험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초등학교는 생활지도 능력, 중학교는 학습지도능력, 고등학교는 진로·진학지도 능력이 가장 우선시되는 교사

의 능력으로 뽑혔는데, 교사 전문성과 능력을 현재 임용시험 주도 양성과정으로 구비토록 할 수 있느냐는 문제이다.

지필 위주로 편중된 지식 중심 암기식 임용시험은 그 내용과 방식, 평가의 타당성,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된 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사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임용시험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으로 연결된다. 교사양성체제개편에 대한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의 계속된 논의도 동일한 맥락이다. 일단 시험은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인식이 강하므로, 임용시험 폐지는 선택가능한 선택지는 아니다. 교사의 질 담보를 위해 교사선발체제와 양성체제를 연계시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한편, 공통적으로 요구되거나(동질성) 학교급별로 다르게 교사에게 요구되는(차별성) 능력을 현재의 교사선발 및 양성체제가 얼마나 충족시키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적 사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핀란드 교원양성 제도의 세 가지 주요 특징 중 ‘이론과 현장 실천의 조화’(김이경, n.d.)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론은 학위과정, 현장 실천은 현장실습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장 실천이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교육실습 기간은 초등교원 양성기관 간 편차가 존재하지만 평균 4~12주, 사범대학은 4주 정도이다(김자미, 2017, 설양환·박효원·박일수, 2019). 반면에 미국에서 초등은 12개월 이상, 중등은 18개월 이상이며, 독일에서 초등은 18개월, 중등은 24개월 이상이며, 영국은 초등 18주, 중등은 24주 이상 실습(또한 초·중등 모두 12개월 이상 수습 과정 추가), 그리고 핀란드는 대학에서 8주, 대학원에서 4개월의 실습을 진행한다(김자미, 2017). 따라서 국내에서 이론의 이해 및 습득에 초점을 맞춘 학위 과정 내용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실습기간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기능과 지식 위주의 교사양성 과정은 한계가 존재한다. 인성교육과 같은 비인지적 영역에서 학습자들의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가, 고급화되어 가고 있는 교육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 등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필요하다. 결국 예비교사들에게 교직 입문 전 현장적합성 높은 경험을 실습과정이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완하는 노력(임소현 외, 2019), 즉 학위과정 내용과 종합실습의 양·질적 관리에 대한 제고를 통한 교사역량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교사 임용 및 양성 문제는 사실 지금까지 논의가 되고 있지만, 구체화되어 실행되고 있지 않는 실정인데, 이는 복잡한 난제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급박하고 광범위한 교육환경 변화는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정책입안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연계·협력을 통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2) 현장 전문가의 교사 초빙 등 교직 개방 시행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 등과 같은 다양한 경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정책은 현장경험을 갖춘 다양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때 효과가 증대된다(임소현 외, 2019)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임소현 외(2019)는 관련 제도의 시행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 또는 제도 마련, 신원 조회 시스템 구축, 교사의 단계적 검증 체제 구축 등을 망라하는 실질적인 질 관리 방안 강구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응답자의 과반이 교사자격증은 없으나 현장 경험 등이 있는 전문가를 일정비율 초빙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반드시 정책 추진의 당위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책적 관점에서 관련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직의 개방은 교사 임용시험의 당위성 및 공정성 문제 등과 연계되어 논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 및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교사 선발부터 활용 방안까지 연계된 단계적인 시행계획, 교사 신분 및 처우 등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포함한 일련의 로드맵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상향식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불협화음을 줄이는 정책적 접근도 필요하다.

마. 학생 및 학부모

과제

- 가정-학교-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의 인성 및 민주시민성 함양
- 교육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학교와 학부모의 원활한 소통 방식 강구

1) 가정-학교-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의 인성 및 민주시민성 함양

초·중고 학생의 인성 및 시민의식(민주시민성)에 대한 평가는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학생들의 인성 및 시민의식(민주시민성)은 낮은 수준이라는 인식이 높다. 학생들의 인성 형성에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으로 가정이 1순위로 꼽혔고, 학교에 이어 사회라고 응답한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학생의 시민의식(민주시민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교이고, 최근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의 인성 및 시민의식(민주시민성) 함양에 있어 가정, 학교, 사회의 협

력 및 연계에 대한 인식이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2015년 제정·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 기본방향과도 부합된다. 2015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에서 교육과정을 통한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은 초·중·고 교육목표로 명시되었고, 2018년 교육부가 수립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에서는 참여와 실천을 통한 시민적 효능감이 강조되었다.

결국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라는 학생의 일상적 삶에서 인성 및 시민의식(민주시민성) 교육을 실천하고 함양할 수 있는 환경, 즉 사회구조적 기반의 내실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교육과정과 연계된 시민의식(민주시민성) 함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창의적 체험활동 및 자유학기 활동, 나아가 학생들이 지역사회 문제 등에 일상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시민적 효능감이 제고되는 경험의 확대도 필요하다.

2) 교육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학교와 학부모의 원활한 소통 방식 강구

학생 영역에 포함된 학생의 인성 수준과 영향요인, 학생의 시민의식(민주시민성) 수준과 영향요인, 학생의 시민의식(민주시민성) 제고를 위한 학교의 역할, 학교폭력 정도 및 원인 문항에서 공통적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 인성 및 민주시민성 함양 등에 있어 학교와 학부모의 원활한 소통이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욱이 유·초·중·고 학부모들의 경우 학교와의 소통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31.1%로 높아 소통의 현실적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소통방식은 유·초·중·고 교육단계별 특성에 따라 면담이 선호되기도 하고, 비대면 방식의 휴대폰 및 SNS, 학교 홈페이지 등에 대한 선호가 높을 수 있어 학교현장과 학부모 간 유연한 협의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학교와 학부모의 원활한 소통 강화 및 확대는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에 일차적 목표를 두되 동시에 학교교육에 대한 존중과 교사에 대한 신뢰, 학교와 학부모의 협력적 관계 조성 등과 연계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바. 교육복지 및 재정

과제

- 사회적 논의를 통한 무상교육의 범위 정립
- 배움과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범사회적 위기대응 전략 수립

1) 사회적 논의를 통한 무상교육의 범위 정립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항목에 대한 국민들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급별로 유사한 항목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학교급식비와 방과후 학교비는 지속적으로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항목으로 제기되어온 것들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무상교육의 범위 확대를 위한 정부의 우선 재정지원 항목에 있어서도 학교급식비나 방과후 학교 교육비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항목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들의 지속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학교 급식비나 방과후 학교 교육비에 대한 무상화에 대한 논의는 답보 상태이다. 이는 현실적으로는 한정된 정부의 교육재정의 배분의 문제, 학술적으로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무상교육이나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우선 항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사회에서의 무상교육의 범위, 기간, 대상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제기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현행 법체계상의 의무교육, 무상교육 등의 개념과 질적·양적 범위에 대한 논쟁이 있는 만큼 국민들의 요구와 정책 대응이 조응할 수 있는 다각적인 실천적 노력들이 요구된다.

2) 배움과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범사회적 위기대응 전략 수립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교육당국의 정책적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긴급 돌봄, 개학 연기, 온라인 비대면 수업 등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재난·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교육 본연의 배움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체제를 요구하고 있음도 이번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학생들의 학습유지를 위한 대응과제의 선호도를 보건데 국민들은 탄력적인 학교 운영, 학교단위 위기관리 매뉴얼 구축 등 단위 학교의 수준에서의 체계적인 대응 능력을 구축해 줄 것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가위기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의 배움과 학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탄력적 학사운영, 온라인 수업방안 등을 포함한 학교단위의 종합적인 위기관리 매뉴얼 구축이 요구된다. 더욱이 국가적 위기 사태 속에서 학교

단위 위기관리 매뉴얼이 체계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단위학교-정부-노동시장(시민사회)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단위학교 중심의 지역사회 위기관리 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사. 고등교육

과제

-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및 지원
- 대학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기능 및 역할 수행

1)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및 지원

상당수의 국민들이 교육재정이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교육단계에 있어서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등 고등교육 단계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정부의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과반을 상회하고 있어 국민들은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확충과 지원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물론, 이는 사립대학 위주의 우리 사회 대학구조 속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학 비리, 부실 대학 운영의 문제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국민들이 갖고 있는 대학에 대한 불신이 작용하고 있음이 엿보인다.

하지만 국민들의 시선과 달리 정부의 대학혁신지원방안(2019)을 살펴보면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재정 확충을 기반 과제로 설정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기 위해 고등교육 재정책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고등교육 단계에 대한 정부의 재정을 확충하고, 이를 통한 선진국 수준의 교육·연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대학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자구 노력들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 지속되고 있는 사학에 대한 각종 감사, 부정·비리에 대한 외부 견제장치 이외에도 대학 스스로가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보강하려는 자정 노력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대학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기능 및 역할 수행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대학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제대로 양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4년제 대학의 경우 학문 분야별 전문가의 양성을 우선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전문대학의 경우 진로 탐색 및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업 역량의 함양을 우선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제대로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 요구하는 우선과제가 차별적이라는 점은 우리 사회에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기능과 역할이 차별적이라는 생각이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사회적으로 전문대학에 대한 낮은 인식,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역할이 점차 모호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대학은 각각의 설립목적에 맞는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체제로의 개편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역할 재정립 논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교육부(2020a). 2020년 교육부 신년사. 보도자료.
- 교육부(2020b). 2020년 교육부 업무계획. 보도자료.
- 교육정책네트워크(2019). 메일진 해외교육동향 346호. 기획기사: 각국의 소통을 위한 교육정책의 신뢰제고 사례.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정책네트워크(2020). 메일진 해외교육동향 370호. 기획기사: 각국의 교육분야 대국민 의견수렴 사례. 한국교육개발원.
- 김미곤, 이태진, 송태민, 우선희, 김성아(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양분, 김현진, 박호근(200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01).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01-8.
- 김일혁, 김양분(2006).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06).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06-24.
- 김자미(2017). 해외의 교원양성 체계 비교 분석. 한국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20(5), 49-59.
- 김정민, 김일혁, 양승실, 이선호(2014a).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4).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4-24.
- 김태완, 임완섭, 김기태, 주유선, 이주미, 강예은, 최준영, 한창근, 임소현, 박병영, 황준성, 백승주, 김혜자, 김규식, 이정우, 김성근, 김상현, 오세영(2020). 대국민 종합 요구조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20-28-01.
- 남궁지영, 김창환, 우명숙(201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2).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2-24.
- 남궁지영, 우명숙(2010).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0).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0-03.
- 남궁지영, 우명숙(201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1). 한국교육개

- 발원 연구보고 RR 2011-23.
- 설양환, 박효원, 박일수(2019). 교원양성기관 학교현장실습 운영 현황 분석: 초등교원양성기관을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36(1), 51-77.
- 성기선(1999).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1999).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99-5.
- 송성환, 박혜진(2018). 농업·농촌에 대한 2018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농촌경제연구원.
- 울산광역시(2019). 2019년 울산광역시 사회조사 결과보고서. 울산광역시.
- 유균상, 남궁지영, 김일혁(2008).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08).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08-31.
- 이강주, 양승실, 차성현(2013).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3).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3-35.
- 임소현, 강영혜, 김홍주, 조옥경(2015).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5).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5-14.
- 임소현, 김은영, 백승주, 황은희, 황준성, 김홍주(2017).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7).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7-23.
- 임소현, 김홍주, 한은정, 황은희(2016).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6).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6-23.
- 임소현, 박병영, 황준성, 백승주, 유경훈, 허은정(2019).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9).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9-27.
- 임소현, 박병영, 황준성, 허은정, 백승주(2018).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8).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8-03.
- 전라남도(2019). 2019년 전남의 사회지표. 전라남도
- 정동준, 김선, 김희정, 나용우, 문인철, 송영훈, 최규빈, 임경훈, 이정옥(2018). 2018 통일인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제주특별자치도(2019). 2019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제주특별자치도.
- 통계청(2020). 2020년도 사회조사. 보도자료.
- 통계청·여성가족부(2020). 2020 청소년 통계. 보도자료.

〈웹사이트〉

- 김이경(n.d). 핀란드의 교사 양성과 신규채용 제도 혁신 사례. https://happyedu.moe.go.kr/happy/bbs/selectHappy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216&nttId=8320 (인출일: 2020.11.01.).
- Education Next(2020). Amid Pandemic, Support Soars for Online Learning, Parent Poll Shows. <https://www.educationnext.org/amid-pandemic-support-soars-online-learning-parent-poll-shows-2020-education-next-survey-public-opinion/>(인출일: 2020. 11. 08).
- Phi Delta Kappa International(2020). Public School Priorities in a Political Year. https://pdkpoll.org/wp-content/uploads/2020/08/Poll52-2020_PollSupplement.pdf(인출일: 2020. 11. 08).

〈신문기사〉

- 경향신문(2020.04.09.). 사설: 온라인개학 첫날 드러난 문제점, 서둘러 보완해야.
- 조선일보(2020.01.20.). 사회: 학부모 3명 중 1명이 “교사 신뢰 못한다”... “신뢰한다”의 2배.
- 중앙일보(2020.03.19.). 오피니언: 웃픈 대학 사이버 강의 ... “지금 2020년 맞나요?”.
- 중앙일보(2020.04.04.). 오피니언: “교육부에는 계획이 없었다”.
- 중앙일보(2020.06.16.). 사설: [시론] 종강 다가온 ‘코로나 학기’...교육혁신 계기 삼아야.
- 한겨레신문(2020.01.19.). 사회: 자녀교육 성공 기준은 “하고 싶은 일”...‘좋은 직장’ 제치고 첫 1위.
- 한겨레신문(2020.04.06.). 사설: 대학,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귀기울여야.
- 한국교육신문(2020.09.07.). 오피니언: 합격과 함께 잊혀진 ‘임용고시’를 아시나요?
<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92150>.
- 한국일보(2020.01.19.). 사회: 공교육 불신...학부모 98% "사교육시킨다".
- 한국일보(2020.04.01.). 사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 피해혼란 없게 철저히 준비해야.
- 한국일보(2020.04.10). 사설: 차질 빛은 ‘온라인 개학’ 첫날, 혼란 최소화엔 전력 기울여야.

KEDI POLL 2020

Im, Sohyun
Park, Byungyoung
Hwang, Junseong
Hwang, Eunhui
Baek, Seungju
Kim, Hyeja
Lee, Jeongwoo
Kim, Seongyeol

KEDI POLL 2020 was undertaken to investigate how the public feels about nation's schools and education policies.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what Korean society expects from educators and policy-makers. Serving as the most trusted source of public opinions about Korean education and educational issues, this is the 15th annual KEDI POLL in a series that began in 1999.

The resul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tratified sample of 5,000 adults(age 19~75) in Korea. This online poll consists of nine sub-categories and 68 questions. The sub-categories are the following: 1. Evaluation of Education Policy and Schools, 2. Teachers, 3. Student Life, 4. Curriculum and Teaching/Learning method, 5. High School Policies and College Admission, 6. Educational Welfare Service and Education Finance, 7. Higher

Education, 8. Current Issues in Education and Education for the Future, 9. Viewpoint on Education.

〈Evaluation of Education Policy and Schools〉

- The public prioritizes ‘fair admissions to higher education (20.3%)’, ‘strengthening public service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15.7%)’, and ‘eliminating a hierarchical ranking structure in secondary education (10.0%)’ as the most significant policies of which current government should focus on. When asked to choose the most wanted policy at the education level from pre-school to secondary school, 24.4% of the respondents pick ‘expanding and strengthening public service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Moreover, 13.0% of the respondents select ‘eliminating a hierarchical ranking structure in secondary education and strengthening public high schools’, and 11.1% of the respondents choose ‘an expansion of all-day after-school childcare’.
- When asked to select the most wanted policy at the higher education level, 29.6% of the respondents choose ‘fair admissions to higher education’ while 22.5% want ‘reduction in college tuition’. In light of policies related to life-long learning and career education, Koreans want to strengthen customized career education(20.4%) and increase employment chances without a degree through a vigorous career education(13.6%).
- To strengthen public service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public sees ‘expanding public kindergartens and diversifying the types of public services(24.0%)’ and ‘increasing the after-school programs and improving all-day childcare services(15.9%)’ need to be emphasized. There is also a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safety and transparency in financial management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 Most Koreans(56.2%) give C’s to schools in primary and secondary levels,

which also concludes that more Koreans evaluate schools negatively in general.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level of dissatisfaction with education increases as it proceeds onto a higher level of schooling. Thus the dissatisfaction level is highest at the high school level. The average score for each level is the following, primary education 3.11, lower secondary 2.91, upper secondary 2.64 on a five-point Likert scale. However, the overall results indicate 0.11p higher scores compared to the last year's evaluation.

- The public believes 'improving the quality of coursework and delivering method' and 'personalized advising and teaching' would positively impact the school evaluation. It is recommended to center on career education and college advisory at the high school level to achieve positive evaluation results.
- Regarding the school choices, the primary and lower secondary education level results reveal that a character education(primary level: 31.2%, lower secondary level: 25.4%) i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to make a school choice decision. On the other hand, career advisory(23.2%) i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at the high school level. At the college education level, graduate employability(26.1%) i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making a school choice decision.
- When asked whether parents are willing to send their children to study abroad, 56.9% of the respondents say they are not interested in (at primary level: 76.5%, lower secondary level: 67.5%, upper secondary level: 47.5%). The result presents that learning foreign languages is the biggest reason to send their children abroad. This conflicts with the last year's response as dissatisfaction with Korean education was the biggest reason to consider studying abroad.
- The respondents believe education policies in Korea are not consistent, nor having a long-term vision. At the same time, they view education policies

are somewhat suitable for Korea's conditions and reflect public opinions moderately. Moreover, the respondents put long-term planning for education policy as the most needed action for better quality.

- Although the respondents believe the government is putting effort to gain public trust in education, they expect the National Committee on Education to focus on long-term planning and reforming education policy.

〈Teachers〉

- Korean public holds an Average level of trust (2.95 on a 5-point Likert scale) in primary and secondary teachers' competency, although the public tends to show a lower level of trust in high schools' teacher competency (2.77; primary level 3.05; lower secondary level 2.90). The overall evaluation demonstrates a higher level of trust in teacher competency compared to the last year(overall score from last year: 2.79).
- In general, the public wants Korean teachers to acquire the ability to supervise learning(35.6%) and teach life skills(29.9%). Specifically, Koreans expect primary school teachers to have the ability to teach life skills(50.5%) and communication skills with pupils and parents (17.9%) the most. For lower secondary teachers, people expect to have the ability to supervise learning(37.0%) and teach life skills(24.1%). Furthermore, Koreans expect upper secondary teachers to develop career and college admission advisory skills (49.8%) and supervising learning skills(23.8%).
- The survey shows that more than half (52.1%) of Koreans agree to allow a portion of elementary and secondary teaching positions to be filled with field experts with no teaching license.
- Regarding public view on the teaching profession, the survey result shows that 60.4% of the respondents would support their children to become a teacher. However,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50.9%) agree that

teachers' rights are not protected, nor academic freedoms are supported.

〈Student Life〉

- Koreans believe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on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s are individual effort/grit(36.5%), academic atmosphere of school/classroom(23.1%), supervision of teachers(13.2%), and family engagement in education(11.3%).
- On the perception of pupils' moral/ethical standards, 49.2% of the respondents answer students have an average level of moral/ethical standards(2.70 on a five-point Likert scale ranging from very poor=1 to very good=5). In detail, public view on elementary students' moral/ethical standards scores 2.83, lower secondary students score 2.51, and upper secondary students score 2.49. On factors influencing pupils' moral/ethical standards, the respondents considered family factors to be more influential than formal education.
- The public perceives that students' level of democratic citizenship is on average (2.85 on a 5-point Likert scale). In detail, public view on democratic citizenship level of elementary students score 2.90, lower secondary students score 2.67, and upper secondary students score 2.69. Survey on factors cultivating democratic citizenship reveals that Formal Education(31.5%), Family(29.1%), and Society(24.4%) to be influential. In order to foster democratic citizenship, schools are expected to create democratic school cultures(33.7%), encourage participation in various social activities(29.6%), strengthe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18.4%), and promote student autonomy(14.1%).
- On a comparative study of School Violence over the past 2-3 years, 54.1% of the respondents describe that a School Violence problem is at a dangerous level. The respondents view consistent lack of parental guidance(37.1%)

- and violence in mass media(21.4%) to cause students' violent behaviors.
- Regarding the communication methods with family, more than half of respondents(54.3%) think schools are doing great at communicating (average score 2.82 on a five-point Likert scale). The most common ways of communicating with schools include 'using a cellphone(text message or mobile application) and Social Network Service (46.5%)' and 'meeting in person(25.6%)'.

〈Curriculum and Teaching/Learning method〉

- The findings on what Koreans wish for youths to cultivate from formal education include sociability and relations(27.3%), morality(16.3%), creativity(15.0%), and good daily habits(12.1%). In particular, the respondents wish elementary students to develop good daily habits the most. The respondents expect middle school students to have sociability and morality the most, while high school students to develop sociability and knowledge the most. The results imply that the public expects a different aspect to be cultivated at each educational level.
- The respondents think Social Studies(including history and ethics) should be more emphasized in the current curriculum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education. Koreans want to emphasize more elective courses(such as career education, philosophy, environmental studies) in the high school curriculum. The public's demands on course to be emphasized diverge by educational level; however, these findings are similar to the last year's results.
- In terms of curricular improvement, respondents want character education and creativity education to be strengthened the most at primary education. There is a demand for increasing character education and sex education in lower secondary education. In the case of upper secondary education,

the public asks for more career education and character education.

- Overall, Koreans are optimistic about the accreditation of online learning(47.0%). However, they are less favorable on accreditation of online classes at primary education(45.3% oppose). In comparison, they somewhat support the accreditation of online classes at lower secondary(43.7% support) and upper secondary(46.4% support). If they were to accredit online classes, the public thinks live video conference classes should be required for prim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 other hand, people believe high school students need to take some offline courses accredited.

〈High School Policies and College Admission〉

- Koreans support the proposed agendas regarding high school policies. They support free high school education(60.6%), eliminating special schools--such as magnet schools or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46.6%), and reorganization of the current high school system(73.4%). However, they are still neutral about implementing a credit system for high schools--where students can choose the courses they want to take
- When asked to prioritize projects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Koreans want the government to concentrate on improving the academic evaluation system (25.6%), helping students to manage and construct their future(25.6%), and providing a wide variety of courses and opportunities(24.8%). About the policy to expand vocational high schools (Meister high school and specialized high school), 52.5% agreed to expand.
- The survey suggests that CSAT(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30.0%) should be considered the most for a college admission decision. As follows, 'character/volunteer experience' and 'specialty/personal aptitude' could also be counted for college admission. On average, Koreans expect that

the overall competition for college admission would be lessened. However, it is held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that people project the admission process for prestigious universities will remain competitive.

〈Educational Welfare Service and Education Finance〉

- The public observes upper secondary education(25.2%) needs to expand educational finances the most, while early childhood education(23.0%) seems to be the second most urgent level with more financial support.
- Given that the number of students has been decreasing, 32.1% of the respondents say the government should maintain public education funds at the current level. Other respondents(29.2%) believe that public finances for education can be decreased only after Korean education quality meets a developed country's education quality level. In comparison, 21.7% of the respondents insist on increasing public funds in education.
- To expand the free public education for all, Koreans prioritize funding on a meal plan (35.5%) and an after-school program (23.0%) at the elementary school level. Koreans prioritize funding on a meal plan(21.2%) and school uniform(20.8%) for lower secondary education. They want to put funding for digital education tools(25.5%) and a meal plan(20.9%) in priorities for the upper secondary level.
- Koreans admit that public education's response to the Coronavirus has been appropriate(3.35 on a five-point Likert scale). In times of crisis like COVID-19, people want the Korean government to prioritize funding on maintaining students' learning(36.4%), supporting a meal plan and financially at-risk students(31.1%), providing emergency childcare services(21.7%), and providing preventive measures(10.6%).
- When asked to prioritize the first response to the crisis in schools, people want to build a flexible school system(32.3%), develop an online learning

system(27.4%), produce a manual for crisis(27.3%), and accelerate teachers' ability to respond to a crisis(17.0%).

〈Higher Education〉

- The majority of respondents pose neutral opinions on the evaluation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When asked to rate whether institutions educate students well enough to be prepared for post-graduation, the respondents rate 4-year institutions 2.74 and 2-year institutions 2.90 on a five-point Likert scale.
- To improve the evaluation of higher education, the public wants 4-year colleges and universities to concentrate on nurturing experts in different fields(43.4%) and developing democratic citizenship(31.4%). On the other hand, people want 2-year colleges to pay attention to teaching capacity building for careers(56.6%) and nurturing experts in different fields(25.0%).
- The respondents give an 'Average' score to whether professors at Korean universities teach appropriately based on their institutions' specialties. Compared to last year's opinion, the overall evaluation of learning contents' appropriateness in higher education has been positively changed.
- More than half of respondents disagree on increasing financial support for private universities(54.3%).
- When asked to choose the most crucial factor in evaluating universities, 25.4% of the respondents pick 'financial transparency in university management', 24.1% of the respondents choose 'ability of instructors', and 22.2% of the respondents select 'appropriateness of curriculum'. These three have been selected as critical factors for the last few years; thus, the public's expectation of higher education has not changed much. When asked to choose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for innovation in higher education, many respondents choose an innovative education for future

generations (31.1%) and improvement in responsibility and transparency of institution management(25.2%).

〈Current Issues in Education and Education for the Future〉

- In regards to the matter of education governance, the public insists that school districts should be responsible for policy-making and setting a standard achievement level for students. Establishing a core curriculum is a task of the Minister of Education. On the other hand, people think school principals should be responsible for students' essential knowledge achievement.
- The public believes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change in an individual's educational costs compared to the prior 2-3 years. Many believe private tutoring, in general, is a financially high burden, while the effect of private education is not large enough.
- Besides, among the factors mentioned, those that respondents rate as most effective in reducing individual's educational expenses include linking EBS courses to the CSAT(26.1%), simplification of the college admission process(15.5%), and general EBS courses(12.7%).
- The survey results also explain that parents spend money on private tutoring because they feel insecure by not providing private tutoring when everyone else invests in private education(26.4%). Moreover, parents want their children to exceed their peers by receiving private tutoring(25.4%). The results also reveal that most parents(94.3%) feel overwhelmed by the educational expenses they spend on children.
- Interestingly, Korean parents hold a bilateral perspective toward private tutoring. Many parents admit that starting private tutoring at an early age is not helpful. However, they think private education is necessary for their children even when children can self-learn. Most parents want to have the autonomy to decide what type of private education their children would

get. Moreover, Korean parents somewhat support what children do for hobbies, although they feel insecure when their children do not study. At the same time, some parents feel even relieved when their children are receiving private tutoring.

- Koreans(43.2%) consider that a low birthrate in an aging society i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future education. In the meantime, they believe establishing a learning management system(19.4%), blending online and offline learning(15.2%), operating a flexible education system(11.8%) and diversifying teaching staffs(11.7%) are the most critical tasks for education in the future.
- The public wants future elementary schools to focus on childcare(24.7%), middle schools focus on teaching students self-management and problem-solving skills (32.9%), and high schools focus on career education for the future job market(31.6%).

〈Viewpoint on Education〉

- When children refuse to attend a school, Koreans(51.1%) will find an alternative education option. However, the responses vary depending on the education level. For example, slightly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50.8%) would find another formal education instead of non-formal education if their children refuse to attend primary school. At both lower and upper secondary education levels, respondents would look for alternative options that are not necessarily formal education.
- When the public is asked to define the meaning of 'being successful in educating their offsprings', 22.0% of the respondents respond 'growing up with a good personality,' 21.7% of the respondents think 'when they(children) find a job they wanted', and 14.0% of the respondents say 'being financially stable.'
- Regarding the financial support for offsprings, the public tends to support

their children until they graduate college(51.1%) or even until they get a job(17.2%). The results indicate that a plethora of Korean parents are willing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their children till their children achieve abilities to become financially independent.

- The respondents(56.8%) observe that having a college degree in Korean society affects employability and many other societal aspects. Furthermore, the public(59.2%) believes that a hierarchical ranking structure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Korea will not change. The result displays that discrimination formed by academic background and ‘Hakbeolism’ is still significantly noticeable in Korean society, and 58.1% of the respondents think this ‘Hackbeolism’ would not disappear.
- Finally, the survey intends to find a correlation between education and social status, wealth, and satisfaction. The public perceives that the more education they receive, the more possibilities to become affluent, achieve higher social status, and feel satisfi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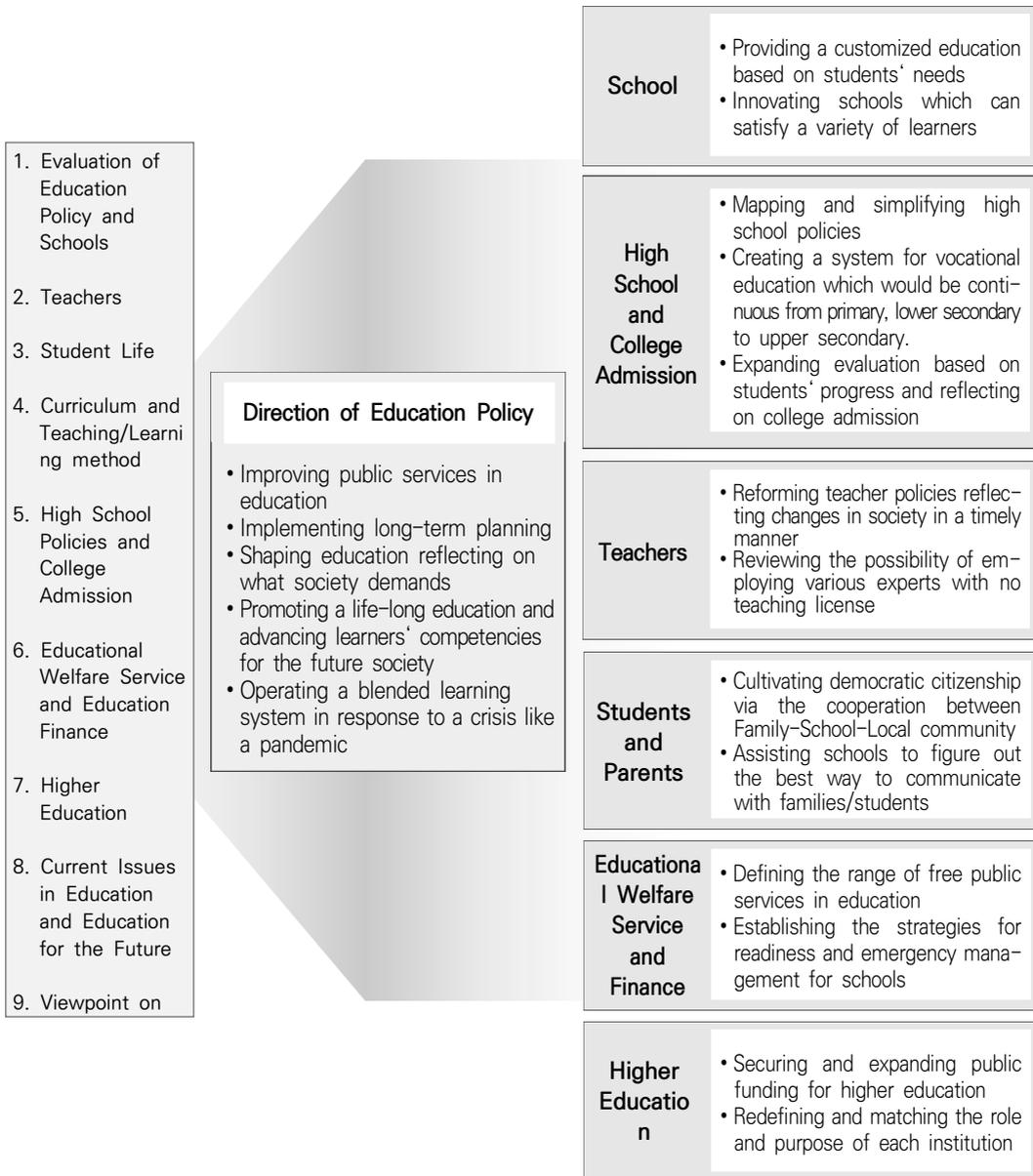
Policy Implications and Proposals

The table below summarizes the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earch outcomes.

Categories	Summaries
<p>Evaluation of Education Policy and School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ir admission to higher education has been the most concerning issue. • Expecting effort on equitable and quality public servic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 There is a need for continuous efforts to maintain optimistic views on high school education. • There is a need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public high schools and the competency of an individual school. • Policies need to reflect the specific and customized demands of each educational level. • Building public trust in education based on long-term planning. • The public believes the Korean government has handled crises such as COVID-19 well, specifically in the education field.

Teach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sponses of schools and teachers to COVID-19 have been great. • Parents have different expectations for teachers at different levels of schooling.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reflect on various aspects of teacher policies. • There is a need to conduct critical research on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Besides, the availability of employing more experts with no teaching license also needs to be studied in depth.
Student Lif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public recognizes the role of society in shaping students' characters. • There is a need to cooperate between school-family & school-community to advance students' democratic citizenship. • Depending on the education level, schools should seek different mechanisms for communication with family.
Curriculum and Teaching/Learning metho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public emphasizes the role of schools for students' cognitive development as well as sociability and ethical standards. • There is a need for an advancing curriculum that assists students' mental and physical development. • In times of online learning, schools should seek efficiency and ways to reduce a gap.
High School Policies and College Admis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 general, the public is satisfied with current policies on upper secondary education. • There are demands for understanding and presenting more specifics on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 Regarding the college admission procedure, there should be more effort to figure out a suitable evaluation mechanism.
Educational Welfare Service & Education Fin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sistent demands are presents on specific aspects of free public service in education. • Educational welfare reflects schools' good response to COVID-19. • In times of crisis, the public expects schools to help to maintain and encourage students' learning.
Higher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fforts to change the negative perceptions towards Korean colleges and universities are in need. • Depending on the types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e public holds different expectations. • There is a demand for transparency and responsibility for future higher education.
Current Issues in Education and Education for the Fu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public recognizes a high burden of expenses on private education. However, anxiety exists when parents are not participating in private tutoring. • Efforts to alleviate the public's anxiety and promote customized education are in need. • Recognizing the role of education for a low birthrate in an aging society.
Viewpoint on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at the public thinks as a core value of education has not changed. • In need of consistent help towards financially at-risk students. • Korean society needs to pay attention to diminish the effects of hierarchical ranking structure or Hakbeolism that are prevalent in education.

Based on the summarized implications, this study reorganized sub-categories of the poll that lead to convincing policy proposals.



Keywords: Education Poll, Education Policy, Public Opinion Trend, Education policy issues, School Emergency Management

부 록

1. KEDI POLL 2020 조사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
2. KEDI POLL 차수별 조사내용 비교
3. 국외 교육관련 여론조사 조사 내용
4. 1~15차 조사문항별 분류
5. KEDI POLL 2020 조사도구
6. 기존 문항 수정 및 신규 개발 내역
7. 응답자 배경변인별 분석 결과

KEDI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0)

[부록 1] KEDI POLL 2020 조사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

□ 성·연령·지역별 모집단 인구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74세
전국	총계	39,533,429	7,362,206	6,886,341	8,238,159	8,537,810	6,503,677
	남	20,015,571	3,864,564	3,545,864	4,182,656	4,303,377	3,181,598
	여	19,517,858	3,497,642	3,340,477	4,055,503	4,234,433	3,322,079
서울특별시	소계	7,620,952	1,557,233	1,474,210	1,513,893	1,494,030	1,194,628
	남	3,720,303	758,771	737,866	749,413	731,895	564,321
	여	3,900,649	798,462	736,344	764,480	762,135	630,307
부산광역시	소계	2,639,750	466,621	421,815	507,389	565,300	515,480
	남	1,307,488	243,383	215,558	255,132	273,728	244,460
	여	1,332,262	223,238	206,257	252,257	291,572	271,020
대구광역시	소계	1,867,963	351,245	297,257	383,387	423,111	316,791
	남	931,867	187,752	154,199	188,895	206,722	150,723
	여	936,096	163,493	143,058	194,492	216,389	166,068
인천광역시	소계	2,278,699	433,474	406,198	480,014	506,235	353,521
	남	1,155,201	225,876	209,805	244,944	252,539	175,034
	여	1,123,498	207,598	196,393	235,070	253,696	178,487
광주광역시	소계	1,099,455	228,386	187,337	241,210	231,698	159,081
	남	548,186	119,161	95,467	119,556	114,749	75,772
	여	551,269	109,225	91,870	121,654	116,949	83,309
대전광역시	소계	1,127,219	230,489	195,347	237,244	240,207	173,666
	남	567,900	120,779	101,671	117,986	119,504	84,336
	여	559,319	109,710	93,676	119,258	120,703	89,330
울산광역시	소계	884,758	158,940	153,926	187,575	209,056	140,659
	남	460,222	88,949	81,561	95,229	106,396	70,914
	여	424,536	69,991	72,365	92,346	102,660	69,745

구분		계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74세
세종특별 자치시	소계	246,990	39,595	60,647	66,684	43,538	28,668
	남	124,379	20,093	29,566	34,092	22,626	14,213
	여	122,611	19,502	31,081	32,592	20,912	14,455
경기도	소계	10,205,281	1,948,251	1,899,064	2,275,173	2,196,060	1,467,786
	남	5,194,733	1,024,505	977,579	1,154,673	1,112,012	729,467
	여	5,010,548	923,746	921,485	1,120,500	1,084,048	738,319
강원도	소계	1,152,266	196,090	166,241	222,996	265,615	233,054
	남	596,054	109,573	87,210	114,688	136,568	116,015
	여	556,212	86,517	79,031	108,308	129,047	117,039
충청북도	소계	1,200,358	216,047	194,839	239,957	271,787	215,694
	남	624,302	119,474	103,268	124,249	139,783	107,954
	여	576,056	96,573	91,571	115,708	132,004	107,740
충청남도	소계	1,558,810	265,180	270,101	325,903	336,678	270,229
	남	820,546	145,715	145,182	173,605	177,648	134,844
	여	738,264	119,465	124,919	152,298	159,030	135,385
전라북도	소계	1,329,614	232,574	190,344	268,490	297,965	248,828
	남	681,317	124,996	98,129	138,619	154,025	122,931
	여	648,297	107,578	92,215	129,871	143,940	125,897
전라남도	소계	1,342,060	220,188	187,040	259,411	311,261	264,713
	남	706,400	122,182	98,542	139,016	166,774	133,279
	여	635,660	98,006	88,498	120,395	144,487	131,434
경상북도	소계	1,967,779	311,489	293,481	382,248	457,034	396,966
	남	1,024,790	175,199	156,420	199,597	236,238	196,823
	여	942,989	136,290	137,061	182,651	220,796	200,143
경상남도	소계	2,515,513	416,780	405,572	535,009	577,818	447,082
	남	1,297,712	230,780	211,931	275,384	294,629	222,264
	여	1,217,801	186,000	193,641	259,625	283,189	224,818
제주특별 자치도	소계	495,962	89,624	82,922	111,576	110,417	76,831
	남	254,171	47,376	41,910	57,578	57,541	38,248
	여	241,791	42,248	41,012	53,998	52,876	38,583

출처: 주민등록인구통계 2020년 8월 기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성·연령·지역별 모집단 인구 구성비

(단위: %)

구분		계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74세
전국	총계	100.00	18.62	17.42	20.84	21.60	16.45
	남	50.63	9.78	8.97	10.58	10.89	8.05
	여	49.37	8.85	8.45	10.26	10.71	8.40
서울특별시	소계	19.28	3.94	3.73	3.83	3.78	3.02
	남	9.41	1.92	1.87	1.90	1.85	1.43
	여	9.87	2.02	1.86	1.93	1.93	1.59
부산광역시	소계	6.68	1.18	1.07	1.28	1.43	1.30
	남	3.31	0.62	0.55	0.65	0.69	0.62
	여	3.37	0.56	0.52	0.64	0.74	0.69
대구광역시	소계	4.73	0.89	0.75	0.97	1.07	0.80
	남	2.36	0.47	0.39	0.48	0.52	0.38
	여	2.37	0.41	0.36	0.49	0.55	0.42
인천광역시	소계	5.76	1.10	1.03	1.21	1.28	0.89
	남	2.92	0.57	0.53	0.62	0.64	0.44
	여	2.84	0.53	0.50	0.59	0.64	0.45
광주광역시	소계	2.78	0.58	0.47	0.61	0.59	0.40
	남	1.39	0.30	0.24	0.30	0.29	0.19
	여	1.39	0.28	0.23	0.31	0.30	0.21
대전광역시	소계	2.85	0.58	0.49	0.60	0.61	0.44
	남	1.44	0.31	0.26	0.30	0.30	0.21
	여	1.41	0.28	0.24	0.30	0.31	0.23
울산광역시	소계	2.24	0.40	0.39	0.47	0.53	0.36
	남	1.16	0.22	0.21	0.24	0.27	0.18
	여	1.07	0.18	0.18	0.23	0.26	0.18
세종특별 자치시	소계	0.62	0.10	0.15	0.17	0.11	0.07
	남	0.31	0.05	0.07	0.09	0.06	0.04
	여	0.31	0.05	0.08	0.08	0.05	0.04
경기도	소계	25.81	4.93	4.80	5.76	5.55	3.71
	남	13.14	2.59	2.47	2.92	2.81	1.85
	여	12.67	2.34	2.33	2.83	2.74	1.87

구분		계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74세
강원도	소계	2.91	0.50	0.42	0.56	0.67	0.59
	남	1.51	0.28	0.22	0.29	0.35	0.29
	여	1.41	0.22	0.20	0.27	0.33	0.30
충청북도	소계	3.04	0.55	0.49	0.61	0.69	0.55
	남	1.58	0.30	0.26	0.31	0.35	0.27
	여	1.46	0.24	0.23	0.29	0.33	0.27
충청남도	소계	3.94	0.67	0.68	0.82	0.85	0.68
	남	2.08	0.37	0.37	0.44	0.45	0.34
	여	1.87	0.30	0.32	0.39	0.40	0.34
전라북도	소계	3.36	0.59	0.48	0.68	0.75	0.63
	남	1.72	0.32	0.25	0.35	0.39	0.31
	여	1.64	0.27	0.23	0.33	0.36	0.32
전라남도	소계	3.39	0.56	0.47	0.66	0.79	0.67
	남	1.79	0.31	0.25	0.35	0.42	0.34
	여	1.61	0.25	0.22	0.30	0.37	0.33
경상북도	소계	4.98	0.79	0.74	0.97	1.16	1.00
	남	2.59	0.44	0.40	0.50	0.60	0.50
	여	2.39	0.34	0.35	0.46	0.56	0.51
경상남도	소계	6.36	1.05	1.03	1.35	1.46	1.13
	남	3.28	0.58	0.54	0.70	0.75	0.56
	여	3.08	0.47	0.49	0.66	0.72	0.57
제주특별 자치도	소계	1.25	0.23	0.21	0.28	0.28	0.19
	남	0.64	0.12	0.11	0.15	0.15	0.10
	여	0.61	0.11	0.10	0.14	0.13	0.10

[부록 2] KEDI POLL 차수별 조사내용 비교

□ 1~5차(1999~2009년)

(○: 기존문항, ●: 신규문항)

조사영역		조사내용	1차 (1999)	2차 (2001)	3차 (2006)	4차 (2008)	5차 (2009)	
초·중등 교육일반	학교 역할	학교 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	○	○	○	○	○	
	학교 기능	학교 기능 수행에 대한 인식	○	○				
	교사	교사 역할에 대한 인식	○	○	○	○	○	
		초지 관행에 대한 의견	○	○				
	공교육 내실화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대책		●	○	○	○	
	교육 내용	중시해야 할 교육 내용	○	○	○	○	○	
	학교 선택권	학교 선택 시 선택 기준	○	○			○	
		학겨 선택 시 이동 여부	○	○				
	교육 비리	뇌물 및 인사비리의 심각성 및 원인					●	
	교육감 선출	교육감 선출방식					●	
	학생 생활		학교 폭력 대책 효과에 대한 인식	○	○	○	○	○
			교사의 학생 체벌에 대한 의견	○	○	○	○	○
			교사의 언어폭력의 심각성					●
			두발복장 자유화 찬반 여부			●		
			IT 관련 기기 중독의 심각성				●	○
	예산	교육투자 예산 우선순위		●				
	학교교육 거부	학교교육 거부에 대한 학부모의 태도	○	○				
	창의성 교육	창의성 교육의 필요성과 우리나라 교육현실					●	
	초·중등 교육정책	수업	주5일 수업 전면 시행 시점			●		
0교시 수업에 대한 바람직성						●		
0교시 수업에 대한 찬반 의견						○		
수준별 수업 찬반 의견					●	○	○	
고교 학점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							○	
종교계 학교의 종교과목 집중편성에 대한 의견						○		
특정대학 진학반 편성에 대한 찬반 의견						○		
방과후학교에 대한 찬반 의견					●	○	○	
방과후 학원강사 수업에 대한 찬반 의견						○	○	

조사영역	조사내용	1차 (1999)	2차 (2001)	3차 (2006)	4차 (2008)	5차 (2009)
	방과후학교 활성화에 따른 사교육비 변화					○
영어교육 내실화	영어교과를 영어로 수업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				○	○
	영어교과를 영어로 수업시 사교육 변화 예측				○	○
조기영어 교육	학교에서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 교육에 대한 찬반 의견			●		
교직 개방	교직 일부 외부 개방에 대한 찬반 의견				○	○
	교장공모제에 대한 찬반 의견				○	○
	교장공모제 확대에 따른 기대효과					○
학교평가	학교평가의 필요성	○	○	○		
교원	학생, 학부모 교원평가 찬반 의견			●	○	
	교원평가 결과 활용에 대한 찬반 의견					●
	교직원체 가입 명단 공개에 대한 찬반 의견					●
	교원노조 합법화 정책의 학교교육 영향	○				
교육개혁	교육 개혁 정책에 대한 의견	○	○			
	교육개혁 추진 평가	○				
평준화 정책 및 고교 다양화 정책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의견	○	○	○	○	○
	고교 다양화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
자립형 사립고	자립형 사립고교의 확대 여부	○	○			
저소득층 지원	무상급식의 확대 범위					●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우선순위					●
대입제도	다양한 대입전형 방식의 찬반 의견	○	○			
	대학별 본고사 시행 찬반 의견			●		
	대학별 논술 시행 찬반 의견			●		
	고교등급제에 대한 찬반 의견			●		
	기여 입학제에 대한 찬반 의견			●		
	학생부확대반영 찬반 의견			●		
학교재정	학교 재정 확충 방안 필요성	○	○			
	투자 수준에 대한 평가	○	○			
	교육세 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	○	○	○	○	○
사교육	과외의 변화 정도	○	○			
	과외 이유	○	○			
	학교교육 개선 이후 과외 변화 정도		●			

조사영역		조사내용	1차 (1999)	2차 (2001)	3차 (2006)	4차 (2008)	5차 (2009)
		과외의 부담 정도	○	○			
		향후 사교육의 변화 예측			●	○	○
		사교육 경감 대책의 효과			●		
	사교육비 대책: 입시	특목고 및 자율고 전형방식 전환에 따른 사교육비 변화					●
		EBS 수능강의 수능시험 대목 반영에 따른 사교육비 변화					●
	국내·외 특수 목적 교육	조기 유학에 대한 의견			●	○	○
외국인학교 입학에 대한 의견					●	○	
국제중학교 확대 설립에 대한 의견					●		
고등교육 일반	대학 역할	대학의 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			●	○	○
	교수 역할	교수 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			●	○	○
	대학 진학률	대학진학률에 대한 의견					○
	교육 내용	다루어져야 하는 교육 내용		●			
	교육 만족도	대학교육 기관별 만족도	○	○			
고등교육 정책	대학 평가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금 정책에 대한 필요성		●	○	○	
	교육 재정	공공재정의 사립학교 확대 지원금 정책에 대한 필요성			●	○	○
	대학 등록금	대학 등록금 후불제에 대한 찬반 의견				●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 우선순위					●
	학부제	학부제의 바람직성		●			
	학교법인 이사추천	학교법인이사 추천제도 관련			●	○	
	지방 국립대 발전 방안	입학할당제, 등록금차등제의 기여정도			●	○	
	입학 사정관 제도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의견				●	
		입학사정관에 의한 학생 선발 규모 확대에 대한 의견					●
		입학사정관제 확대에 따른 사교육비 변화 예측					●
입학사정관제도의 기대효과 및 문제점						●	
평생교육 실태	평생교육 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여부	○	○	○		
		참여 이유		●	○		
		참여하지 않는 이유	○	○	○		
		향후 참여 의향	○				

조사영역		조사내용	1차 (1999)	2차 (2001)	3차 (2006)	4차 (2008)	5차 (2009)
		사회교육에 대한 공공재원의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교육에 대한 노력	○				
정보화 교육실태	실태	가정의 컴퓨터 보유 유무	○				
		컴퓨터 활용 능력	○				
		향후 컴퓨터 구입 계획	○				
	학교교육내용	정보화 사회에서의 학교교육 내용		●			
교육관	자녀교육목적	자녀교육의 목적			●	○	○
	개인의 성공 요인	성공 요인에 대한 가치관			●	○	○
	교육의 혜택	경제적 영향에 대한 관점			●	○	○
		사회적 지위 영향에 대한 관점			●	○	○
		심리적 만족감 영향에 대한 관점			●	○	○
	자녀교육 성공관	자녀교육 성공에 대한 관점			●	○	○

□ 6~15차(2011~2020년)

(○: 기존문항, ●: 신규문항)

조사 영역	조사 내용	6차 (2011)	7차 (2012)	8차 (2013)	9차 (2014)	10차 (2015)	11차 (2016)	12차 (2017)	13차 (2018)	14차 (2019)	15차 (2020)
교육 정책 및 학교 교육 평가	현 정부의 교육정책 중 잘하고 있는 정책	○	○	○		○					
	현재 가장 잘 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	○	○				
	지난 정부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교육정책							●			
	현 정부 유·초·중등 교육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							●	○	○	○
	현 정부 고등교육 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							●	○	○	○
	현 정부 평생·직업교육 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									●	○
	초·중등학교에 대한 평가	○	○	○	○	○	○	○	○	○	○
	학교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과제	●	○	○	○	○	○	○	○	○	○
	학교 선택시 고려사항	○	○	○	○	○	○	○	○	○	○
	초·중·고등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한 과제							○	○	○	○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현안 문제		●	○							
	가장 좋은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한 의견					●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의견	○	○	○	○	○	○	○	○	○	○
	자녀의 조기유학 이유									●	○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네 가지 측면에 대한 의견							●	○	○	○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네 가지 측면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정책에 대한 의견								●	○	○
	정부의 교육신뢰회복 노력에 대한 평가									●	○
	교육분야 신뢰회복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									●	
	국가교육위원회 역할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									●	○
	10 대교육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										●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										●	
교사	교사의 역할수행에 대한 평가	○	○	○	○	○					

조사 영역	조사 내용	6차 (2011)	7차 (2012)	8차 (2013)	9차 (2014)	10차 (2015)	11차 (2016)	12차 (2017)	13차 (2018)	14차 (2019)	15차 (2020)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 정도	●	○	○	○	○	○	○	○	○	○
	교사 월급 결정 기준	●	○	○							
	학업성적에 따른 교사 월급 반영 정도	●	○	○							
	자녀의 직업으로 교사 희망에 대한 의견	●	○	○	○			○		○	○
	교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				●	○	○	○	○	○	○
	교사자격증이 없는 초빙교사에 대한 찬반의견					○	○	○	○	○	○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한 의견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의견									●	○
학생	학업 성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	○
	교육별에 대한 찬반 의견	●	○	○	○	○	○				
	학생의 학교생활 스트레스 정도		●	○	○	○	○	○	○		
	학교폭력에 대한 의견	○	○	○	○	○	○	○	○	○	○
	학교 폭력의 원인		●	○	○	○	○	○	○	○	○
	IT 관련 기기 중독의 심각성 수준	○	○	○	○	○	○				
	학생의 성공 척도	●	○	○							
	학생의 학습수준 (성적) 결정 요인	●	○	○	○	○	○				
	학생의 인성 수준		●	○	○	○	○	○	○	○	○
	학생이 좋은 인성을 갖도록 하는 영향 요인					●	○	○	○	○	○
	학생들의 시민의식(민주시민성) 수준								●	○	○
	학생들의 민주시민성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 요인								●	○	○
	학생의 민주시민성 제고를 위한 학교의 역할									●	○
	다문화학생 수용에 대한 의견									●	
	유·초·중·고등학교와 학부모의 소통										●
	유·초·중·고등학교와 학부모의 소통 활성화 방식										●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현재보다 중시해야 할 교과목	○	○	○	○	○	○		○	○	○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할 교육	○	○	○	○	○	○		○	○	○
	학교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길러주기를 바라는 사항							●	○	○	○
	통합학교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								●		
	미래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						●	○	○	○	○
	온라인 교육 수업이수 인정										●

조사 영역	조사 내용	6차 (2011)	7차 (2012)	8차 (2013)	9차 (2014)	10차 (2015)	11차 (2016)	12차 (2017)	13차 (2018)	14차 (2019)	15차 (2020)
고교 정책 및 대입	수업이수로 인정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운영 형태										●
	고교평준화정책에 대한 찬반의견	○	○	○	○	○	○				
	고교다양화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	○	○	○	○	○	○				
	고교 단계의 직업교육 비중 확대에 대한 찬반의견						●	○	○		
	일반고 내에서의 직업연계교육 확대 등 직업교육 확대에 대한 찬반의견						●	○	○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 비중에 대한 의견									●	○
	현 정부 고등학교 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	○	○	○
	대학입학사정관제의 점수위주 입시제도 보완 효과	●	○	○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할 항목	●	○	○	○	○	○	○	○	○	○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에 대한 전망	●	○	○	○	○	○	○	○	○	○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대입에서의 수시 및 정시 모집인원 비율에 대한 의견						●				
	고등학교의 신입생 자체 선발에 대한 찬반의견					●					
	고교학점제 도입 및 단계적 확산을 위해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										●
	무상급식 지원 범위	○	○	○	○	○	○				
	정부의 우선적 재정지원 내용	○	○	○	○	○	○	○	○	○	○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찬반의견		●	○	○	○					
	한정된 교육재정의 우선 투자 영역		●	○	○	○	○	○	○	○	○
	바람직한 영유아 지원방식					●					
	학생수 감소와 교육재정 규모에 대한 의견					●	○	○	○	○	○
	교육재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학교급							●	○	○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학령인구 감소시대 반드시 추진되었으면 하는 정책									●	
	돌봄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									●	
	성인학습의 운영주체에 대한 의견									●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교육영역에서 정부 대응										●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 위기상황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일										●

조사 영역	조사 내용	6차 (2011)	7차 (2012)	8차 (2013)	9차 (2014)	10차 (2015)	11차 (2016)	12차 (2017)	13차 (2018)	14차 (2019)	15차 (2020)
대학교 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 위기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 유지를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일										●
	대학교육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기능에 대한 평가	○	○	○	○	○	○	○	○	○	○
	대학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해야 할 우선과제									●	○
	대학교수의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역할수행에 대한 평가	○	○	○	○	○	○	○	○	○	○
	대학 재정의 투명성	●	○	○	○	○					
	지방대학 우선 지원에 대한 찬반의견			●		○	○	○	○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한 찬반의견					○			○	○	○
	대학등록금 인하방안에 대한 찬반 의견	●	○	○							
	자녀대학 입학시 등록금 부담 의향	●	○	○	○						
	자녀대학 졸업 후 구직성공 가능성	●	○	○	○						
	대학교수의 자질에 대한 신뢰					●	○	○			
	대학평가 시 가장 중요하게 반영해야 할 지표					●	○	○	○	○	○
대학교육혁신을 위해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										●	
교육현 안 및 미래교 육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			●	○						
	초등학교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각 정책의 시급함 정도			●							
	중학교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각 정책의 시급함 정도			●							
	고등학교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각 정책의 시급함 정도			●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 성과에 대한 의견			●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			●							
	교육정책과 관련된 기본적 가치관			●							
	교육행정 권한과 책임에 대한 의견	●	○	○	○	○	○	○	○	○	○
	시·도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찬반의견			●	○	○	○	○	○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의 점수위주 입시제도 보완효과				●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적 지원				●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의견 (중·고등학생 평가 과목 수의 적절성, 초등학교 평가 폐지에 대한 의견)				●						

조사 영역	조사 내용	6차 (2011)	7차 (2012)	8차 (2013)	9차 (2014)	10차 (2015)	11차 (2016)	12차 (2017)	13차 (2018)	14차 (2019)	15차 (2020)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의견 (인지 여부, 국가 간 학업성취도 차이를 제대로 측정하는지, 한국 교육의 질 제고 기여에 대한 인식)				●						
	가정교육 역점 사항				●						
	교육현안 이해도와 동의 정도				●						
	유·보 통합에 대한 의견					●					
	9시 등교에 대한 찬반의견					●					
	우리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미래 사회 변화						●			○	○
	정부의 교육개혁 6대 과제 중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의견						●				
	자유학기제 확대에 대한 의견						●				
	자녀의 방과후학교 참여의사	●	○	○	○						
	수준별 수업에 대한 찬반 의견	○	○	○	○	○					
	영어 공교육 시기	○	○	○	○						
	학칙 제·개정 시 의견 반영의 우선 주체					●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큰 정책	○	○	○		○	○	○	○	○	○
	사교육의 근본 원인					●					
	2-3년 전과 비교한 사교육 실태 변화							○	○	○	○
	사교육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							○	○	○	○
	자녀 사교육비 부담 정도							○	○	○	○
	자녀의 사교육과 관련한 생각									●	○
	EBS 수능 연계(70% 이상) 정책에 대한 의견					●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학교의 역할						●				
	과정중심평가 강화에 대한 찬반의견						●				
	미래 학교에서 더 강조될 역할과 기능						●	○	○	○	○
	미래 초·중등학교 교육체제를 위한 요구 과제								●		○
	사교육 비용에 대한 부담과 사교육 효과										●
교육관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 정도	●	○	○	○	○	○	○	○	○	○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	●	○	○	○	○	○				
	자녀에 대한 교육 기대수준	●	○	○	○						
	자녀의 마이스터고 진학에 대한 의견	●	○	○	○						
	기업의 일정비율 고졸자 신규채용에 대한 의견	●	○	○	○	○	○	○			
	사교육에 대한 미래 전망	○	○	○	○	○					

조사 영역	조사 내용	6차 (2011)	7차 (2012)	8차 (2013)	9차 (2014)	10차 (2015)	11차 (2016)	12차 (2017)	13차 (2018)	14차 (2019)	15차 (2020)
	입시경쟁에 대한 미래 전망	●	○	○	○	○					
	대학 서열화에 대한 미래 전망	●	○	○	○	○	○	○	○	○	○
	우리나라 학벌주의에 대한 전망	●	○	○	○	○	○	○	○	○	○
	학력차별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								●		
	교육의 국가사회발전 기여 정도		●	○	○						
	자녀 성장에 대한 바람				●	○					
	자녀의 학교교육 거부에 대한 의견					○	○	○	○	○	○
	우리사회에서의 자녀교육의 성공에 대한 관점					○	○	○	○	○	○
	자녀의 장래 생활에 대한 기대							○	○	○	○
	교육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	○	○	○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가능 시기								●	○	○

[부록 3] 국외 교육관련 여론조사 조사 내용

□ 미국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태도 조사' 연도별 조사내용

영역	조사내용	연도별 조사내용									
		43회 2011	44회 2012	45회 2013	46회 2014	47회 2015	48회 2016	49회 2017	50회 2018	51회 2019	52회 2020
기본 정보	공립학교에 다니는 자녀 유무						○	○			
	학령기(6-18세) 자녀 유무						○	○			
	자녀가 다니는 학교 유형(공립/사립/그외 기타)						○	○			
	19세 또는 19세 이상 자녀 유무						○	○			
	자녀의 학년						○	○			
학교 평가	학교평가 (A, B, C, D, F)	미국 전역의 공립학교 평가						○	○	○	○
		소속된 지역의 공립학교 평가	○	○	○	○	○	○	○	○	○
		자녀가 다니는 학교 평가						○	○	○	○
	학교가 'A' 평가를 받기 위해 해야 하는 것								○		
	미국의 공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		
	교원 평가	○									
	교장 및 교육행정가 평가	○									
	학교위원회 평가	○									
	학부모 평가	○									
	학교의 각종평가	○	○	○	○	○					
	학교가 직면한 문제	○	○	○	○	○	○	○	○	○	○
	자신이 경험한 학교 생활과 비교하였을 때, 오늘날 교육에 대한 평가								○		
	자신이 경험한 학교와 비교하였을 때, 오늘날 공립학교에 대한 평가								○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	
	학교 역량 평가 방법									○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평가할 때 도움이 되는 것									○	
	주(州)에서 지역 공립학교에 대한 평가 여부									○	
	주(州)의 지역 공립학교 평가 인지 여부									○	
	지역 공립학교 평가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기									○	
	지역 공립학교 평가에 대한 접근 용이성, 이해도, 효용 여부									○	
지역 공립학교 평가에 대한 정확도									○		
공교육 개선	공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공립학교를 개혁하거나, 공립학교의 대안을 찾는 것 중 어떤 방법을 선호하는가								○		
	당신의 지역사회의 공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립학교를 개혁하거나, 공립학교의 대안을 찾는 것 중								○		

영역	조사내용	연도별 조사내용									
		43회 2011	44회 2012	45회 2013	46회 2014	47회 2015	48회 2016	49회 2017	50회 2018	51회 2019	52회 2020
	어떤 방법을 선호하는가										
학교 목표 및 수행	공립학교 교육의 핵심 목표						○			○	
	공립학교 교육의 주 목적									○	
	교육의 핵심 목표의 중요도						○				
	지역 학교의 교육 목표 반영 정도						○				
학교 운영	학교 통제(교사 파업 등)			○							
	학생 등록 감소			○							
	조기교육(국가의 미취학 아동 지원)			○							
	교과의 활동·스포츠			○							
	학생 문제		○	○							
	학교 수업시간				○						
	자녀의 정규 수업시간이 가정의 일정과 적합한가								○		
	(고교자녀를 둔 학부모에게만 질문) 자녀의 정규 수업시간을 지금보다 늘릴 것인가/줄일 것인가/유지할 것인가								○		
	자녀의 정규수업 시작 시간								○		
	이상적인 자녀의 정규수업 시작 시간								○		
	자녀의 정규수업 종료 시간								○		
	이상적인 자녀의 정규수업 종료 시간								○		
	정규시간을 바꾸려는 이유들에 대한 의견 (더 많은 수업시간, 부모들의 스케줄, 더 많은 교실에서의 시간)								○		
	자녀의 학교 일정 변경에 반대하는 이유들에 대한 의견 (버스에서 보내는 시간의 증가, 버스 비용의 증가, 방과 전/후 활동에 방해)										
	학교 징계의 적절성									○	
	학교의 징계 처리에 대한 공정성									○	
	징계 처리를 위한 중재 과정 중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함께하는 것에 대한 효과성									○	
	학생의 잘못된 행동의 대처 방법									○	
	규정을 어긴 학생에 대한 무관용 원칙 찬반									○	
	우연히 무기로 분류된 물건을 지닌 학생을 정학하는 것에 대한 찬반									○	
학교 경찰이 처리해야 할 사항									○		
학교에서 징계해야 할 사항									○		
학교 교육 이해	지역학교: 교육 공간 부족	○		○							
	매체 보도		○								

영역	조사내용		연도별 조사내용										
			43회 2011	44회 2012	45회 2013	46회 2014	47회 2015	48회 2016	49회 2017	50회 2018	51회 2019	52회 2020	
학교의 질	중요한 정도 (5점 척도) /가장 중요한 한가지 선택	학생이 표준화된 학업성취도 시험에서 잘하는 정도											
		협동적이며 타인을 존중하며, 끈기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학교에서 잘 가르치는 정도									○		
		고급과정 수업 제공											
		미술·음악 수업 제공											
		교외 활동 제공											
		기술·엔지니어링 수업 제공											
	주(州)에서 해당 지역의 공립학교 평가를 얼마나 잘 하고 있다고 생각									○			
	학교의 질과 학생에게 사용되는 재정과의 상관 관계										○		
직무 기술		공립고등학교에서 직무기술 수업 제공하는 것에 찬반								○			
		지역 공립고등학교에서 직무기술 수업을 현재와 같이 유지, 증대, 감축								○			
		지역 공립고등학교에서 특정 분야 취직에 필요한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에 찬반								○			
		자녀의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예측								○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을 간다면) 대학 선택 예측								○			
		(고등학교 졸업 후 학업·일을 병행 한다면) 대학 선택 예측								○			
		자녀 진로 선택에 있어 부모의 바람(대학진학, 취직, 학업·일 병행)								○		○	
		대학 진학, 취업준비, 시민교육 중 공립학교의 주요 목표										○	
		공립학교에서 핵심과목 교육, 취업 준비 교육의 비중										○	
		직무 기술, 고등 학문, 예술 중 선호하는 선택 과목										○	
		직무 기술 과목 중 선호하는 과목										○	
		학생들의 직무 기술 수업 선택에 대한 찬반										○	
학교 선택	차터 스쿨	차터스쿨 정책 찬반	○	○	○	○	○						
		설립 권한				○							
		온라인 차터스쿨			○								
	공립·사립	사립학교에 공공재원 지원 찬반	○	○	○	○	○			○			
		사립학교 선택 이유	○	○	○	○	○						
	학교 선택 찬반						○						
	학교 선택을 위한 정보						○						
차터 스쿨· 공립		공립학교, 차터스쿨, 종교학교, 사립학교 중 선택 가능하다면								○			
		해당 지역에 자녀를 보낼 수 있는 학교(차터스쿨,								○			

영역	조사내용	연도별 조사내용									
		43회 2011	44회 2012	45회 2013	46회 2014	47회 2015	48회 2016	49회 2017	50회 2018	51회 2019	52회 2020
학교	종교학교, 사립학교)에 대한 인지										
	비용 문제가 없는 경우 현재 재학중인 학교 또는 다른 학교로 보낼지 여										○
차터스쿨·공립학교	공립학교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해당 지역에 차터스쿨을 새로 설립하거나 추가하는 것에 대한 찬반 여부										○
학교수행 및 차터스쿨	차터스쿨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						○				
	실패한 학교	실패한 학교에 대한 의견					○				
		유지할 경우, 개선 방안					○				
		폐교할 경우, 개선 방안					○				
도시학교	도시학교의 발전		○								
	도시학교 발전을 위한 증세		○								
교육과정·교수	배워야할 내용	변화한 사회 반영				○					
		직업 기술 강조				○					
		공통교과과정		○	○	○	○				
		수준의 적정성						○			
	고등학교 3학생의 학업 생산성				○						
	정부 영향				○						
	졸업요건 대체방안	○									
	교육과정 만족도				○	○					
	성인이 되었을 때 필요한 기술의 반영 정도						○				
	새로운 교육과정 도입으로 인한 교육 내용의 변화 가능성						○				
	새로운 교육과정의 효과성에 대한 전망						○				
	국민 윤리, 민주주의, 종교, 성경 등 과목의 필수, 선택 과목 여부									○	
	동의하지 않는 정치·종교적 수업에 대한 우려 정도									○	
	지역 공립학교에서 가르칠 기본 가치에 대한 동의 가능성 여부									○	
	사실과 가치관 중 선호하는 교육 내용									○	
	가치관 교육에서 다루야 할 주제									○	
	지역 공립학교에서 성취도 테스트 강조 여부									○	
	전자담배, 마리화나, 술, 마약성 진통제 등에 대해 교육이 잘 수행되는지 여부									○	
	전자담배를 소지한 학생을 적발한 경우 학교에서 우선해야 할 대응									○	
	독해 교육에 효과적인 방법									○	

영역	조사내용		연도별 조사내용											
			43회 2011	44회 2012	45회 2013	46회 2014	47회 2015	48회 2016	49회 2017	50회 2018	51회 2019	52회 2020		
	문해력 교육에 효과적인 방법													○
	스스로 평가하는 개인 독서량													○
학습 부담	학교 과제의 양에 대한 의견							○						
	자녀가 느끼는 학습부담 정도							○						
	자녀가 부담을 느끼는 가장 큰 원인							○						
기술	IT 교육		○											
	컴퓨터에 대한 투자		○											
	컴퓨터 활용		○											
학생 평가	대안적 평가					○								
	학생 평가의 긍정적인 효과					○	○							
	각각의 학생평가에 대한 지지 정도					○	○							
	표준화된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여부에 대한 학부모의 권한 찬반의견						○	○						
	표준화된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신뢰도								○					
	표준화된 학업성취도 평가가 자녀의 공립학교 교육을 제대로 평가하는지에 대한 의견								○					
	협동, 타인 존중, 문제해결에 있어서의 끈기 같은 능력도 평가하는 것에 찬반								○					
	표준화된 학업성취도 평가가 자녀의협동, 타인 존중, 문제해결에 있어서의 끈기 같은 능력도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								○					
	공립학교가 학생의 협동, 타인 존중, 문제해결에 있어서의 끈기 같은 능력에도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								○					
	지역 공립학교 학생들의 전자담배, 마리화나, 술, 마약성 진통제 등 사용에 대한 문제 정도													○
특수 학업 프로그램의 학생 선발을 위해 시험 성적을 엄격히 반영하는지에 대한 찬반													○	
학생들의 시험 성적 활용 방안에 대한 적절 여부													○	
학업 성취 격차	축소 노력	높은 기준 설정의 효과성		○										
		중요성 인식		○										
재정 지원	재정지원의 평등성			○										
	재정지원 분야							○						
	공교육 개선을 위한 증세 찬반							○						
	재정지원 우선순위							○						
	재정규모 증가에 따른 학교개선 가능성							○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을										○			

영역	조사내용	연도별 조사내용									
		43회 2011	44회 2012	45회 2013	46회 2014	47회 2015	48회 2016	49회 2017	50회 2018	51회 2019	52회 2020
	선호하는가?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지원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가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도움이 덜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줄이거나 학교의 세금을 올리는 것 중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는가								○		
	학교 재정 지원에 대한 적절성									○	
	학교 재정 지원 수준에 따른 공직 후보자 선호도									○	
	학교 재정 지원에 대한 공직 후보자 입장의 중요도									○	
	학교 재정 지원 증가를 위한 재정 마련 방안									○	
	학교 재정 지원을 위한 복권 활용 찬반									○	
	합법적 마약, 도박을 통한 학교 재정 지원 찬반									○	
바우처	공공재원을 전적으로 공립학교에 사용 혹은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이나 종교학교에도 부분적 사용							○			
	(공공재원을 공립뿐만 아니라 사립이나 종교학교에서도 사용한다) 공공재원을 공립이나 사립에 사용한다면, 경쟁으로 인해 공립학교의 질이 개선될 수도 있지만 공립학교로 돌아가는 재원이 줄어들어 악화 될 수도 있다. 그래도 공립이나 사립에 사용할 것인가								○		
	공공재원으로 자녀를 (모든 유형의) 학교에 보낼 수 있다고 가정. 공립학교가 지속적으로 다니는 학생들에 한해서만 지원을 받는다면, 이러한 방법이 공립학교의 질을 개선 혹은 악화								○		
	재정지원을 받는다면, 자녀를 공립학교에 계속 다니도록 선택 혹은 사립이나 종교학교를 다니도록 선택								○		
	(사립·종교학교 선택) 실제 사립·종교학교 등록금의 반도 안 되는 지원금이며, 나머지를 본인이 지불해야한다면 공립학교를 갈지 의견								○		
	사립학교 등록금 또는 지역 공립학교 등록금에 일부 지불할 수 있는 바우처 프로그램에 대한 찬반										○
통합·평등	지역의 학교에 인종적 배경이 다른 학생들이 다니는 것이 중요한 정도							○			
	지역의 학교에 경제적 배경이 다른 학생들이 다니는 것이 중요한 정도							○			
	인종적 배경이 다른 학생들과 학교를 다니는 것이 (백인학생 혹은 흑인, 히스패닉 학생한테 있어) 학습환경을 개선, 악화, 유지							○			
	경제적 배경이 다른 학생들과 학교를 다니는 것이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학생한테 있어) 학습환경을							○			

영역	조사내용	연도별 조사내용									
		43회 2011	44회 2012	45회 2013	46회 2014	47회 2015	48회 2016	49회 2017	50회 2018	51회 2019	52회 2020
	개선, 악화, 유지										
	자녀를 비슷한 인종의 학생이 많은 학교로 보낼 것인지 다른 인종의 학생이 많은 학교로 보낼 것인지							○			
	학교까지의 거리가 멀지라도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를 선호하는가, 다양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거리를 선호하는가							○			
	자녀를 비슷한 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있는 학교를 보낼 것인지 다양한 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교로 보낼 것인지							○			
	학교까지의 거리가 멀지라도 경제적 배경이 다양한 학교를 선호하는가, 다양하지 않아도 가까운 학교를 선호하는가							○			
	본인 소속의 지역사회가 얼마나 다양하다고 생각하는지							○			
교육 기회	부유한 지역의 학생들과 비교하였을 때 소득이 낮은 지역의 학생들의 교육기회가 더 많다/적다/동등하다								○		
	도시의 학생들과 비교하였을 때 지방 학생들의 교육기회가 더 많다/적다/동등하다								○		
	백인 학생들과 비교하였을 때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학생들의 교육기회가 더 많다/적다/동등하다								○		
	부유한 지역의 학교와 비교하였을 때 소득이 낮은 지역의 학교들이 학생들에 대한 기대가 높다/낮다/같다								○		
	도시의 학교와 비교하였을 때 지방의 학교들이 학생들에 대한 기대가 높다/낮다/같다								○		
	백인학생들과 비교하였을 때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 학생들에 대한 학교의 기대가 높다/낮다/같다								○		
학교와 학부모 간 의사 소통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느끼는 소속감						○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의 노력						○				
	학부모의 학교방문 기회 제공 여부 및 정도 (예: 학부모 공개 수업 등)						○				
	학교 운영 관련 학부모의 참여 기회 제공 유무						○				
	학교 소식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						○				
고등 교육	대학교육의 중요성				○						
	등록금 지불여부	○	○	○	○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길 원하는 이유										
	자녀의 대학 진학 희망 여부										
	전문대학/일반대학/석사/박사과정 중 보수가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은								○		

영역	조사내용	연도별 조사내용									
		43회 2011	44회 2012	45회 2013	46회 2014	47회 2015	48회 2016	49회 2017	50회 2018	51회 2019	52회 2020
	성공을 위한 4년제 대학의 가치								○		
	지역 전문대학이 무료로 운영되는 제안에 대한 지지								○		
	4년제 대학 학생들의 등록금을 돕기 위해 연방정부의 기금을 증액하는 것에 대한 지지								○		
	K-12에 다니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 지불 능력								○		
국가 목표	계획된 국가 교육정책의 중요 정도			○							
	정부인사 평가	○	○	○	○	○					
정부 정책	국가 프로그램										
	연방정부의 교육예산		○								
	기타 국가주도 교육 정책	○									
	정당		○			○					
	선거: 교육재정 지원 지지하는 정당		○								
	경제 활성화 법 중 교육 지원 부분										
	도널드 트럼프의 교육정책 처리 방식에 대한 의견										○
	대통령 선에서 공교육 문제가 차지하는 중요도										○
	현재와 비교하여 더 집중하거나 덜 집중해야 할 정책										○
낙오 학생 방지법 (NCLB)	찬반 의견										
	교육발전에 도움 여부										
	낙오학생방지법에 대한 친숙도			○							
교원	좋은 교사 유치 및 보유	○									
	단체 교섭	○									
	능력 있는 교사 유치	○									
	원하는 교사 특징		○								
	교사 자격	○			○						
	교사 선임권	○									
	교사 보상/급여	○					○				
	교사 임금이 높다/낮다/적당하다								○	○	
	(평균 임금 \$39,000로 가정)높다/낮다/적당하다								○		
	교사들이 임금을 위해 파업할 때 지지 여부								○	○	
	임금 외 교육 여건 등을 위한 교사들의 파업 지지 여부									○	
	교원 평가		○	○	○						
	교사에 대한 신뢰								○		
	자녀가 직업으로 교사가 되는 것 (교사가 되지 않기를 바랄 경우)중요 이유								○	○	
	교사 및 교장에 대한 신임	○	○	○	○						

영역	조사내용	연도별 조사내용									
		43회 2011	44회 2012	45회 2013	46회 2014	47회 2015	48회 2016	49회 2017	50회 2018	51회 2019	52회 2020
	교원 종신 재직권					○					
	교사·행정가의 책무성	○			○						
	지역사회에서의 교사 평가									○	
	최근 교직을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고려 여부									○	
	교직을 그만둘 것을 고려하게 하는 주된 이유									○	
부모	공립학교의 부모 통제 정도		○								
	자녀 교육비					○					
	자녀들의 등교에 대한 태도									○	
학생	학업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학교 안전	취학 전 백신접종					○					
	자녀가 학교에 있을 때, 안전하다고 생각 하는가								○		
	자녀의 학교가 총격으로부터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생각 하는가								○		
	(한명 이상의 무장경찰을 학교에 상주/정신과의사 배치/교사나 교직원 총기 소유 허용/모든 학생의 정신 진단 중)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		
	교사, 교직원들이 총을 소지하기 위해 특별한 훈련과 승인을 받는다면 총을 소지하는 것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		
	총을 소지한 교사나 교직원들에게 추가적인 임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		
	자녀의 교사가 총을 소지 하길 원하는 가								○		
	교사나 교직원이 총을 소지 할 경우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불안정한가 똑같은가								○		
	정신건강서비스와 무장 경비원 중 학교가 비용을 지불하길 원하는 것								○		
	취약 계층	이주 학생		○	○	○					
군인 자녀		○									
특수 교육	학습장애를 위한 특수교육 경험 여부						○				
인터넷 속도	가정의 인터넷 속도						○				
기타	다음의 항목에 대해 공립학교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	보건 서비스									
		치과 서비스									
		정신건강 서비스								○	
		방과후 프로그램									

영역	조사내용	연도별 조사내용									
		43회 2011	44회 2012	45회 2013	46회 2014	47회 2015	48회 2016	49회 2017	50회 2018	51회 2019	52회 2020
	학교들이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가적인 공공 자금을 지원받는 것의 정당성							○			
	몇 해에 걸쳐 실패한 공립학교에 대한 책임은 누가 담당해야하나							○			
	합법적 마약, 도박에 대한 찬반									○	

출처: 임소현 외(2019).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9). 한국교육개발원. pp267-275., Phi Delta Kappa International(2020). Public School Priorities in a Political Year. 내용 재구성.

□ 미국 ‘Education Next Poll’ 연도별 조사내용

영역	조사내용	연도별 조사내용								
		7회 2013	8회 2014	9회 2015	10회 2016	11회 2017	12회 2018	13회 2019	14회 2020	
학교 평가	우리지역 공립학교의 점수(A,B,C,D,F)	○	○	○	○	○	○	○	○	
	우리지역 사립학교의 점수(A,B,C,D,F)	○								
	우리주 공립학교의 점수(A,B,C,D,F)		○							
	미국 전체 공립학교의 점수(A,B,C,D,F)	○	○	○	○	○	○	○	○	
	우리지역 우체국에 대한 평가(A,B,C,D,F)									
	우리지역 경찰에 대한 평가(A,B,C,D,F)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였을 때 미국의 초·중학교에 대한 평가						○			
	다음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우리지역 학교의 점수	영재/낙오학생	○	○	○					
		여학생/남학생/읽기/수학/예술/역사/과학			○					
		고소득가정/저소득가정		○						
	더 강조되어야 할 교육	읽기/수학/예술/역사/과학/인성교육/창의성/지구온난화/체육/따돌림방지		○						
	다음의 요소가 나라에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미쳤는가에 대한 의견	공립 초등학교/공립 중학교						○		
		전문대학/일반대학						○		
		우체국						○		
		지방법원						○		
		교회와 종교단체						○		
	뉴스 매체						○			
	가정과 학교 중 아이들 학업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			
	국제적으로 표준화 된 시험에 맞춘 학교 개혁의 필요성	○								
	국가의 미래 번영과 관련하여 국제적 표준 시험 성적의 중요성	○	○							
고등학교 학생의 성취결과는 미국의 미래 번영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가?		○								
국제 성취도 평가에서 미국 학생들이 다른 나라 학생들에 비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								
국제 학력 평가에서 다른 나라 학생들과 비교한 미국의 학생들의 성취도에 대한 추측		○								
국제 학력 평가에서 미국 내 다른 지역 학생들과 비교한 우리지역 학생들의 성취도에 대한 추측		○								
다른 학군과의 학업 성취도 수준 비교							○			
다른 학군과의 학업 성취도 증가율 비교							○			
학교 예산	우리 지역 공립학교 예산 추측	○	○	○	○	○	○	○		
	예산 추측에 대한 확신(1-7 척도)					○				
	미국 전체 공립학교 예산액 추측		○		○					
	(정부의 현 지원 금액 제시), 정부의 지역 공립학교의 예산은 증가/유지/삭감 되어야 하는가?	○	○	○	○	○	○	○		

영역	조사내용	연도별 조사내용							
		7회 2013	8회 2014	9회 2015	10회 2016	11회 2017	12회 2018	13회 2019	14회 2020
	(정부의 현 지원 금액 제시), 연방 정부의 지역 공립학교의 예산은 증가/유지/삭감 되어야 하는가?							○	
	(정부의 현 지원 금액 제시), 주 정부의 지역 공립학교의 예산은 증가/유지/삭감 되어야 하는가?							○	
	(정부의 현 지원 금액 제시), 지역 정부의 지역 공립학교의 예산은 증가/유지/삭감 되어야 하는가?							○	○
	(정부의 현 지원 금액 제시, 연방·주·지역 정부의 지원 비율 제시), 연방 정부의 지역 공립학교의 예산은 증가/유지/삭감 되어야 하는가?							○	
	(정부의 현 지원 금액 제시, 연방·주·지역 정부의 지원 비율 제시), 주 정부의 지역 공립학교의 예산은 증가/유지/삭감 되어야 하는가?							○	
	(정부의 현 지원 금액 제시, 연방·주·지역 정부의 지원 비율 제시), 지역 정부의 지역 공립학교의 예산은 증가/유지/삭감 되어야 하는가?							○	
	정부의 지역 공립학교의 예산은 증가/유지/삭감 되어야 하는가?				○	○	○	○	○
	연방·주·지역 정부의 학교 예산 지원 비율 예측	○		○				○	
	연방·주·지역 정부의 학교 예산 지원 비율은 어떠해야 할까?			○					
	정부가 학교 예산을 늘릴 때, 교실 당 학생 수 감소, 교사 급여 인상, 각 교실마다 책과 기자재를 공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이 중 어떤 것을 가장 선호하는가?		○						
채무 성과 핵심 공동 교육 과정	핵심공동 교육과정(Common Core) 사용에 대한 인지		○						
	핵심공동교육과정(Common Core) 사용에 대한 찬반	○	○	○	○	○	○	○	○
	전국의 학생들이 동일한 표준 교육과정 사용에 대한 찬반					○	○	○	○
	(대통령의 Common Core 반대 의견 제시) 핵심공동교육과정(Common Core) 사용에 대한 찬반					○			○
	우리 지역에 핵심공동 교육과정 시행여부에 대한 인지			○					
	핵심공동 교육과정은 우리지역 학교에 긍정/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					
	연방정부가 3-8학년 과정 중 매년, 그리고 고등학교 때 한 번의 읽기·수학 성취평가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반			○	○	○	○	○	
	각 학구에서 3-8학년 과정 중 매년, 그리고 고등학교 때 한 번의 읽기·수학 성취평가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반						○		
	각 주에서 3-8학년 과정 중 매년, 그리고 고등학교 때 한 번의 읽기·수학 성취평가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반						○		
	3-8학년 학생들이 연방 정부가 요구하는 시험에 평균 8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고 할 때, 연방 정부가 3-8학년 과정 중 매년, 그리고 고등학교 때 한 번의 읽기·수학 성취평가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반							○	
	혁신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만드는 교육 시스템의 능력을 저해시키는 연방정부의 읽기·수학 성취평가에 대한 찬반						○		
	학생의 평가 참여 여부를 학부모가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에 대한 찬반			○	○	○			
	읽기와 수학 평가를 통해 학생의 학업 성취를 측정하는 것에 얼마나 찬성하는가(1~6척도)			○					

영역	조사내용	연도별 조사내용							
		7회 2013	8회 2014	9회 2015	10회 2016	11회 2017	12회 2018	13회 2019	14회 2020
	모든 주(州)에서 공통적으로 표준화 된 시험을 치르는 것에 대한 찬반			○	○				
	고등학교 졸업시험에 대한 찬반	○	○						
	몇몇 주(州)에서 실시하는 4학년 승급시험에 대한 찬반	○							
연방제	몇몇 주(州)에서 학문적 성과가 낮은 학교들에 대해 주(州)가 통제하도록 법 허용, 찬반					○			
	몇몇 주(州)에서 예산관리 소홀의 증거가 있는 학교들에 대해 주(州)가 통제하도록 법 허용, 찬반					○			
	표준 교육과정·학교 실패·학교 실패 해결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주체는 지역·주·연방정부 중 어디라고 추측			○	○	○			
	표준 교육과정·학교 실패·학교 실패 해결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주체가 지역·주·연방정부 중 어디여야 한다고 생각					○			
학교 선택 정책	차터스쿨에 대한 찬반	○	○	○	○	○	○		
	(많은 주들의 정부의 지원을 받지만 교과부의 관리는 받지 않는 학교를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 제시) 차터스쿨에 대한 찬반						○	○	○
	(많은 주들의 정부의 지원을 받지만 교과부의 관리는 받지 않는 학교를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 미국 공립학교 학생의 차터스쿨 재학률 제시) 차터스쿨에 대한 찬반							○	
	(많은 주들의 정부의 지원을 받지만 교과부의 관리는 받지 않는 학교를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 차터스쿨에 등록된 인종 비율 제시) 차터스쿨에 대한 찬반							○	
	공립 차터스쿨 설립에 대한 찬반						○		
	(대통령의 차터스쿨 찬성 의견 제시) 차터스쿨에 대한 찬반					○			○
	차터스쿨에 대한 인지 (종교, 학비를 내는지, 학생들이 원하면 갈 수 있는지 여부 등)	○							
	성적이 낮은 공립학교 학부모들이 차터스쿨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대한 찬반	○							
	차터스쿨의 수업료 청구 가능 여부							○	
	지역 학군에 차터스쿨 유무에 대한 인지							○	
	저소득층 학생을 사립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정책에 대한 찬반		○	○	○	○	○	○	○
	저소득층 학생을 사립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연방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							○	
	(대통령의 찬성 의견 제시) 저소득층 학생을 사립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정책에 대한 찬반					○			○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의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해 사립학교에 등록시키는 가정에 정부가 학비를 보조하는 정책에 대한 찬반	○	○	○	○	○	○	○	○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를 둔 가정에 정부의 지원으로 사립학교 등록시키는 정책에 대한 찬반						○		
	사립학교 등록을 원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비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찬반					○	○		

영역	조사내용	연도별 조사내용							
		7회 2013	8회 2014	9회 2015	10회 2016	11회 2017	12회 2018	13회 2019	14회 2020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의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해 사립학교에 등록시키는 저소득층 가정에 정부가 학비를 보조하는 정책에 대한 찬반					○	○	○	○
	사립학교 등록을 원하는 모든 학생들의 등록금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찬반				○	○			
	저소득층과 중산층 4살 아동이 프리스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용을 보조하는 정책에 대한 찬반	○							
	고등학교에서 학습시간 중 학생 스스로 컴퓨터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는 적절한 시간에 대한 의견			○	○				
	당신의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인터넷으로 학습 강의를 수강하는 것에 대한 찬반	○							
	고등학교 학생이 온라인 수업과 교실에서의 수업 중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보는가?	○							
	최근 함께 거주한 적 있는 학교에 다니는 연령의 아이는 어떤 형태의 학교에 다녔는가?		○	○					
	부모가 학교에 자녀를 보내지 않고 집에서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 찬반					○			○
	홈쿨링을 선택한 가정의 경우 학부모가 지역 교육구로부터 허가 받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찬반					○			○
	홈쿨링을 선택한 가정의 경우 학부모가 지역 교육구에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찬반					○			○
	몇몇 주에서 학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을 경우 정부가 교육적 용도로만 사용 가능한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찬반					○			
	우리 지역 학교 교사들의 점수(A,B,C,D,F)		○	○	○				
	우리 지역 교사들을 평가한다면 다음에 해당하는 교사는 몇 퍼센트인가	훌륭함							
좋음						○	○		○
만족									
만족스럽지 못함									
	우리나라 전체 교사들의 점수(A,B,C,D,F)		○	○					
	교사들의 평균 급여 수준에 대한 예측	○	○	○	○	○	○	○	○
교원 정책 (인사 규정)	교사들의 평균 급여 예측에 대한 확신					○			
	공립학교 교사의 급여 증가/유지/삭감에 대한 의견		○	○	○	○	○	○	○
	(해당 주 공립학교 교사 급여 제시) 교사의 급여 증가/유지/삭감에 대한 의견					○	○	○	○
	교사의 급여를 위한 세수 증가/유지/삭감에 대한 의견			○	○				
	학생 학업 성취를 교사의 급여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찬반	○	○	○	○	○	○	○	○
	(대통령의 찬성 의견 제시) 학생 학업 성취를 교사의 급여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찬반					○			○
	공립학교 교사들에 대한 신뢰	○							
	교사의 정년보장에 대한 찬반	○	○		○	○	○	○	
	학생의 성취평가가 교사 정년 보장에 반영되는 것에 대한 찬반	○	○						

영역	조사내용	연도별 조사내용								
		7회 2013	8회 2014	9회 2015	10회 2016	11회 2017	12회 2018	13회 2019	14회 2020	
	수학 및 과학 등 교사 부족 과목이 발생. 과목을 교사의 급여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찬반		○					○		
	사회적 약자층의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는지에 따라 교사의 급여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찬반							○		
	교장의 평가를 교사의 급여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찬반							○		
	동료 교사의 평가를 교사의 급여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찬반							○		
	교사 경력을 교사의 급여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찬반							○		
	석사 학위를 교사의 급여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찬반							○		
	특수학교에서 교사 부족 현상이 발생. 특수학교 여부를 교사의 급여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찬반		○							
노동 조합과 단체 교섭	몇몇 주에서 교원 노동 조합비를 비조합원에게도 강제하는 것에 대한 찬반			○	○	○	○			
	교원단체가 학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		○	○	○	○	○	○	○	
	단체 교섭에 대한 긍정/부정 의견						○			
	단체 교섭의 많은 규칙과 제안을 만들어 학교의 성과를 저해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 하는가?						○			
	단체 교섭의 많은 규칙과 제안을 만들어 학교의 성과를 저해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 하지 않는가?						○			
	단체 교섭이 학교가 성과를 낼 수 있게 합리적인 규칙과 규정을 만든다는 의견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 하는가?						○			
	단체 교섭이 학교가 성과를 낼 수 있게 합리적인 규칙과 규정을 만든다는 의견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 하지 않는가?						○			
	우편 노동 조합이 우편 서비스 질에 미친 영향이 긍정적/부정적 인가?						○			
	경찰노조가 치안유지에 미친 영향이 긍정적/부정적인가?						○			
	공립학교 교사들의 파업에 대한 권리에 대한 의견						○	○		
	(교사에게 질문)	근무하는 학교의 설립유형 (사립/비사립/공립(차터,일반)/기)						○	○	
		교원 노조에 가입여부						○	○	○
		지역 교원 노조의 단체 교섭 활동에 대한 만족도						○	○	
지역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에 대한 만족도							○	○		
지역 교원 노조의 단체 교섭 활동에 대한 만족도							○			
근무하는 학교에서 교사를 대표하는 노조 존재 여부							○	○		
교과 과정 및 교육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사회적, 정서적 행복 중 중점							○		
	3학년 학생들이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과 함께 수업해야 하는지, 모든 수준의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해야 하는지							○		
	중학교 학생들이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해야 하는지, 모든 수준의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해야 하는지							○		
	고등학교 학생들이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해야 하는지, 모든 수준의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해야 하는지							○		

영역	조사내용	연도별 조사내용							
		7회 2013	8회 2014	9회 2015	10회 2016	11회 2017	12회 2018	13회 2019	14회 2020
	모든 고등학생이 대학 진학을 준비하기 위한 수업을 해야 하는지 일부 학생만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수업을 해야하는지							○	
학교 안전	총기 사고에 대한 지역 공립학교의 보안 확신 여부							○	
인종 차별	교육구의 히스패닉, 흑인 학생에 대한 차별 예방 정책 찬반				○		○	○	
	연방정부의 히스패닉, 흑인 학생 차별 예방 정책 찬반				○		○		
차별 철폐 조치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의 인종적 배경을 고려하여 학생을 배정하는 것에 대한 찬반						○		
	공립학교에서 가족의 소득을 고려하여 학생을 배정하는 것에 대한 찬반						○		
이민	영어를 잘 못하는 학생들을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에 배정할 것인지 모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에 배정할 것인지					○		○	
	영어를 잘 못하는 이민자의 자녀들을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에 배정할 것인지 모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에 배정할 것인지					○			
	이민자 자녀가 많은 교육 구에 정부가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찬반					○			
	(현재 미국의 고학력 이민자 비자 발급 수 제시) 발급하는 비자 수 증가/유지/삭감에 대한 의견					○	○		
	관할 학교 내에 이민 학생 수에 따라 정부가 추가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찬반						○		
	(거주지로의 최근 이민자 수 제시)관할 학교 내에 이민 학생 수에 따라 정부가 추가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찬반						○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당신의 주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주에서 지원하는 대학 등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찬반							○	○
	(대통령의 반대이건 제시)불법체류 이민자들이 당신의 주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주에서 지원하는 대학 등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찬반								○
정치적 참여	지역 교육위원회는 시장과 같은 다른 관료에 의해 임명되는가?	○							
	미래에는 학교교육위원회 선출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							
	기존의 교육 위원에게 다시 투표할 것인가, 새로운 지원자에게 투표할 것인가?	○							
	앞으로 교육위원회에 참석할 생각이 있는가?	○							
	앞으로 지역의 학교를 위해 봉사할 생각이 있는가?	○							
	정치 참여 빈도						○	○	○
	지난 학교 이사회 선거의 투표 여부						○	○	○
	선출직 공무원은 항상 국민의 뜻을 따라야하는지에 대한 찬반								○
	선출직 공무원이 아닌 국민이 중요 정책을 결정해야하는지에 대한 찬반								○
	선출직 공무원 대신 일반 시민으로서 대표되는 것에 대한 찬반								○
국민과 선출직 공무원간 정치적 차이와 국민 간 정치적 차이와의 비교								○	
선출직 공무원이 말에 비해 행동이 부족한지에 대한 동의								○	

영역	조사내용	연도별 조사내용							
		7회 2013	8회 2014	9회 2015	10회 2016	11회 2017	12회 2018	13회 2019	14회 2020
	선출직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 항상 의견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동의								○
방과후 활동 (종교 클럽)	우리 지역 공립학교에서 종교적인 학생들이 방과후 활동으로 종교적 동호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 찬반					○			
	우리 지역 공립학교에서 복음주의 학생들이 방과후 활동으로 종교적 동아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 찬반					○			
	우리 지역 공립학교에서 무슬림 학생들이 방과후 활동으로 종교적 동아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 찬반					○			
	우리 지역 공립학교에서 무신론자 학생들이 방과후 활동으로 종교적 동아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 찬반					○			
유아 교육	정부가 지원하는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교사 연봉 증가/유지/삭감					○			
	(유아교육 프로그램 교사 연봉 제시) 정부가 지원하는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교사 연봉 증가/유지/삭감					○			
	(유아교육 프로그램 교사 연봉과 초등교사 연봉 제시) 정부가 지원하는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교사 연봉 증가/유지/삭감					○			
	정부가 지원하는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학생들이 주(州)시험(읽기, 수학)을 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찬반					○			
	정부가 지원하는 유아교육 프로그램이 성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 학생들이 주(州)시험(읽기, 수학)을 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찬반					○			
디지털 교육	학생의 수요를 강조하는 교육 관점의 적절한 명칭에 대한 의견	○							
	학생 개인에게 맞춤형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교육방법의 적절한 명칭에 대한 의견	○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computer-assisted instruction)의 적절한 명칭에 대한 의견	○							
	이전 교육과정을 완전히 익힌 후에 그 다음 단계 학습으로 넘어갈 것을 강조하는 교육방법의 명칭에 대한 의견	○							
	혼합형 학습(Blended learning) 방법을 사용하는 교실과 전통적 방식의 교실 중 어디에서 학생들이 더 많이 배울까?	○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컴퓨터나 다른 기기 활용에 사용한다면 받을 영향(긍정, 부정)					○			
	우리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수업시간에 교육 목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					○			
	우리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수업시간에 교육 목적으로 휴대용 컴퓨터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찬반					○			
	(일반적으로 고등학생들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24학점을 이수) 이 중 몇 학점을 온라인 수업으로 이수 가능하도록 허용 할 것인지					○			○
	공립학교의 수업에서 F를 받은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으로 해당 강좌를 재수강 하게 할 것인지 혹은 학생들의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강좌를 재수강 하게 할 것인지					○			
학교가 대학수준의 상급과정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온라인					○				

영역	조사내용	연도별 조사내용							
		7회 2013	8회 2014	9회 2015	10회 2016	11회 2017	12회 2018	13회 2019	14회 2020
	수업으로 이수 가능하도록 허용할 것인지 혹은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께서 모든 수업을 이수하도록 할 것인지								
	인터넷을 통해 고등학교의 일부 학업과정 이수하는 것에 대한 찬반								○
대학 진학 준비	4년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고교 졸업생 수가 증가/유지/감소 되었다고 보는가?		○						
	최근, 연방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이 대학에 진학할 때 재정적 지원을 한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전에 주의 시험을 통과하여 대학에 진학할 만큼의 학업수준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고등 교육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대 수준의 일을 위해 얼마나 학문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지역사회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		
	전문대와 일반대학 교수들의 정치성향에 대한 평가						○		
	대학 진학기 자녀가 있다고 가정했을 시 부모가 바라는 자녀의 대학선택, 2년제, 4년제, 둘 다 아님					○			
	(4년제 졸업생과 2년제 졸업생의 평균 연봉 비교 제시) 대학 진학기 자녀가 있다고 가정했을 시 부모가 바라는 자녀의 대학선택, 2년제, 4년제, 둘 다 아님					○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의 1년간 평균 학비 비교 제시) 대학 진학기 자녀가 있다고 가정했을 시 부모가 바라는 자녀의 대학선택, 2년제, 4년제, 둘 다 아님					○			
	(4년제 졸업생과 2년제 졸업생의 평균 연봉 비교,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의 1년간 평균 학비 비교 제시) 대학 진학기 자녀가 있다고 가정했을 시 부모가 바라는 자녀의 대학선택, 2년제, 4년제, 둘 다 아님					○			
	대학교에 임용되는 교수에 대한 관점	다양성을 위해 인종적 배경 고려하여 임용					○		
		온전히 교수의 능력을 바탕으로 임용							
	대학교에 임용되는 교수에 대한 관점	다양성을 위해 성별을 고려하여 임용					○		
		온전히 교수의 능력을 바탕으로 임용							
	대학교에 임용되는 교수에 대한 관점	다양성을 위해 정치적 성향 고려하여 임용					○		
		온전히 교수의 능력을 바탕으로 임용							
		우리 주 공립 4년제 대학과 종합대학에 대한 평가						○	○
		미국 전체 공립 4년제 대학과 종합대학에 대한 평가						○	○
	(명문 주립 종합대학 제시) 해당 대학에 대한 평가						○		
	(비명문 주립 4년제 대학 제시) 해당 대학에 대한 평가						○		
	(주립 2년제 대학 제시) 해당 대학에 대한 평가						○		
	우리 주 사립 4년제 대학에 대한 평가						○	○	
	미국 전체 사립 4년제 대학에 대한 평가						○	○	
	미국 전체 사립 2년제 대학 무상화에 대한 찬반						○		

영역	조사내용	연도별 조사내용							
		7회 2013	8회 2014	9회 2015	10회 2016	11회 2017	12회 2018	13회 2019	14회 2020
	미국 2년제 대학 졸업생의 일반적 근로소득이 연 46,000달러일 때, 모든 2년제 대학의 무상화에 대한 찬반							○	
	미국 전체 사립 4년제 대학 무상화에 대한 찬반							○	
	미국 전체 공립 4년제 대학 무상화에 대한 찬반								○
	(대학생 가구 소득 정보 제시) 미국 전체 공립 4년제 대학 무상화에 대한 찬반								○
	미국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일반적 근로소득이 연 61,400달러일 때, 모든 4년제 대학의 무상화에 대한 찬반							○	
학교의 정책	학생의 퇴학 및 정학 처분을 할 때 인종 비율을 고려하도록 하는 학교구의 정책에 대한 의견			○					
교과 운영	우리지역 학교에서 각 교과에 할당된 수업시간 (읽기/수학/예술/역사/과학)				○				
	우리지역 학교에서 각 교과에 할당되어야 할 수업시간				○				

출처: 임소현 외(2019).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9). 한국교육개발원. pp276-274., Education Next(2020). Amid Pandemic, Support Soars for Online Learning, Parent Poll Shows. 내용 재구성.

[부록 4] 1~15차 조사문항별 분류

(문항번호) ● 신규 문항, ○ 기존 문항, ● 수정 문항(미지망 수정문항 기준 선택지 및 하위문항 변경, 추가, 삭제)

문항	연도	1999	2001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년 1차 2차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학교급별 학교교육 만족도	●(1)		●(1)													
	●(24)		●(24)													
현재보다 증시해야 할 교과목	●(2)		●(5)	○(22)	○(7)	●(4)	●(12)	○(21)	○(21)	●(12)	●(10)	●(10)	●(21)	○(22)	●(28)	○(30)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할 교육내용	●(3)		●(8)								●(11)	●(11)	●(22)	●(23)	●(29)	●(31)
재학 중인 학교에 대한 평가	●(4)		○(9)			●(5)	●(4)	○(4)	○(4)	●(4)	○(4)	●(5)	●(6)	○(5)	●(6)	○(8)
학교 선택시 고려 사항	●(5)		○(10)								●(47)	○(46)	○(45)	●(48)	○(57)	○(61)
자녀의 학교교육 거부에 대한 학부모 태도	●(6)		●(12)	●(15)	○(22)	○(26)	○(16)	○(25)	○(25)	○(20)	○(25)	○(25)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7)															
사립 중·고등학교에 선발권 부여	●(8)															
수능반영 비율 축소, 다양한 기준 및 방법 의한 대입제도	●(9)		●(14)													
학교의 5가지 역할 수행 평가	●(10)		○(2)													
학교평가 정책 찬반 의견	●(11)		○(15)													
학교 수익사업 찬반 의견	●(12)															
학교 등록금 인상 또는 중세 부담 의사	●(13)															
정부의 교육 투자 수준	●(14)		●(17)													
사교육(과외교육) 실태 변화	●(15)		●(18)									●(40)	○(41)	○(49)	○(52)	
사교육(과외) 하는 주요 이유	●(16)		○(19)												○(51)	○(55)
자녀 사교육(과외교육) 비용 부담 정도	●(17)		○(21)												○(52)	○(56)
학생체벌	●(18)		○(22)	○(6)	○(5)	○(9)										

연도	1999	2001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1차 2차	2014년 1차 2차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문항															
교사에 대한 태도	●(19)	○(3)													
교원 노동조합 합법화 정책	●(20)														
춘치 관행	●(21)	○(23)													
학생 비행	●(22)	○(4)													
교육개혁 추진 평가	●(23)														
교육개혁 정책 평가	●(24)	○(11)													
사회(평생)교육 경험	●(25)	○(29)	○(31)												
사회(평생)교육 참여 못한 이유	●(26)	○(31)	○(33)												
사회(평생)교육 요구	●(27)														
사회(평생)교육에 대한 공공재원의 지원	●(28)														
지방자치단체의 사회(평생)교육에 대한 노력	●(29)														
가정의 컴퓨터 보유 여부	●(30)														
컴퓨터 활용 능력	●(31)														
컴퓨터 구입 계획	●(32)														
공교육 내실화 방안	●(6)	○(3)	○(3)									●(7)	○(6)	○(7)	○(9)
교육투자 우선순위	●(7)														
지립형 사립고 허용 여부	●(13)														
학교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5가지 방안 의견	●(16)														
학교교육의 개선과 과외교육	●(20)														
대학교육의 중시 할 내용	●(25)														
대학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금 정책	●(26)	○(27)	○(30)												

연도	1999	2001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1차 2차	2014년 1차 2차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문항															
대학 재정 확충(기여입학, 등록금 인상, 세금인상)	●(27)														
학부제 찬반 의견	●(28)														
사회(명생)교육 소요 경비	●(29-2)														
사회(명생)교육 참여 이유	●(30)	○(32)													
정보화 사회에서 우선시 되어야 할 교육	●(32)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평가 (수·우·미·양·가)		●(1)	○(1)	○(1)	●(1)	○(2)	○(2)	○(2)	○(2)	●(2)	●(3)	●(4)	○(3)	○(4)	○(6)
교사의 역할 수행 평가		●(2)	○(2)	○(2)	○(2)	●(5)	○(8)	○(8)	○(6)						
학교평가 시행 주기 의견		●(4)													
학교폭력 완화 노력		●(5)	○(4)	○(8)	○(8)	○(14)	○(16)	○(16)	○(19)	○(16)	○(17)	○(18)	○(19)	●(24)	○(25)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세금 인상		●(7)	○(23)	○(30)											
사교육(비) 변화 예측		●(8)	○(24)	○(31)	○(39)	○(45)	○(45)	○(45)	○(40)						
사교육비 경감 대책		●(9)													
대학별 본고사		●(10)													
대학별 논술 고사		●(11)													
대입- 고교등급제		●(12)													
사립대학 기여 입학제도		●(13)													
학교생활기록부 50%이상 확대 반영 정책		●(14)													
수준별 수업에 대한 찬반의견(동일 교과서)		●(16)	○(10)	○(12-1)	○(19)	○(23)	○(23)	○(23)	○(14)	○(20)					
방과후학교 찬반 의견		●(17)	○(13)	○(14)											
영어 공교육 시기		●(18)				●(20)	○(24)	○(24)	○(13)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의견		●(19)	○(25)	○(34)	○(38)	○(38)	○(44)	○(44)	○(39)	○(6)	●(6)	○(8)	○(7)	●(8)	○(10)

연도	1999	2001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1차 2차	2014년 1차 2차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문항															
학부모의 교원평가 참여			●(20) ○(20)												
학생의 교원평가 참여			●(21) ○(21)												
주5일 수업 도입 시기			●(23)												
두발 및 복장 자율화			●(24)												
대학의 인재 양성 기능에 대한 평가			●(25) ○(28)	●(37)	●(27) ○(33)	○(33)			○(29)	●(66) ○(36)	○(32)	○(34)	○(42)	●(45)	
대학교수의 역할수행에 대한 평가			●(26) ○(29)	●(38)	●(28) ○(34)	○(34)			○(30)	●(38) ○(38)	○(34)	●(35)	○(44)	○(47)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한 찬반의견			●(28) ○(31)	○(40)						○(40)		○(37)	○(45)	○(48)	
학교법인이사 추천제도			●(29) ○(33)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한 입학할 당제 및 등록금차등제			●(30) ○(34)												
자녀를 교육시키는 목적			●(34) ○(36)	○(46)											
개인의 성공 또는 출세에 미치는 가장 큰 요인			●(35) ○(37)	○(47)											
교육의 혜택에 대한 의견 (경제적 부의 증대에 대한 영향)			●(36) ○(38)	○(48-(1))											
교육의 혜택에 대한 의견 (사회적 지위 향상에 대한 영향)			●(37) ○(39)	○(48-(2))								○(52)	○(55)	○(64)	○(68)
교육의 혜택에 대한 의견 (심리적 만족감에 대한 영향)			●(38) ○(40)	○(48-(3))											
자녀교육 성공(실패)에 대한 관점			●(39) ○(41)	●(49)						●(53) ○(53)	○(52)	○(50)	○(52)	○(58)	○(62)
IT 관련 기기 중독의 심각성 수준			●(6)	○(11)	○(15)	○(17)	○(17)	○(11)		●(12)	●(13)				
0교시 수업에 대한 인식			●(8)												
0교시 수업에 대한 의견			●(9)												
종교계 학교의 종교과목 집중편성			●(11)												
특정 대학 진학반 운영			●(12)												

연도	1999	2001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1차 2차	2014년 1차 2차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문항															
방과후학교 학원 강사 강의 찬반 의견				●(14)	○(15)										
영어교과 원어수업(초등학교)				●(15)	○(17)										
영어교과 원어수업(중·고등학교)				●(16)	○(18)										
영어교과 원어수업(사교육비 변화)				●(17)	○(19)										
교사자격증이 없는 초빙교사에 대한 찬반의견				●(18)	○(20)					○(9)	○(9)	○(12)	●(11)	○(15)	●(16)
교장 공모제 찬반 의견				●(19)	○(21)										
외국인 학교 국내 교육체계 편입				●(26)	○(35)										
국제중학교 확대 설립				●(27)											
대학 등록금 후불제 또는 미래소 득연계 학자금대출				●(32)											
입학사정관제 공정성에 따른 소송문제 의견				●(35)											
교육비리 심각성(뇌물, 인사비리 포함)					●(6)										
교육비리 원인					●(6-1)										
교육감 선출 방식					●(7)										
교사 언어폭력의 심각성					●(10)										
맞춤식 수업(수준별 교과서 제작)					●(12-2)										
고교 학점제 도입					●(13)										
방과후학교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 예측					●(16)										
교장 공모제 효과 예측					●(22)										
교원 평가 결과 활용(교사 연수)					●(23)										
교원 평가 결과 활용(인사 반영)					●(24)										

연도	1999	2001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1차 2차	2014년 1차 2차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문화															
교원단체 기묘 교사 명단 공개					●(25)										
고교 다양화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27)	○(17)	○(26)	○(26)	○(21)	○(4)	○(26)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찬반의견					●(28)	●(21)	○(29)	○(29)	●(25)	○(31)	●(32-1)				
찬성 시 지원 범위에 대한 의견											●(32-2)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우선적 재정지원 내용					●(29)	●(22)	○(30)	○(30)	●(26)	●(32)	●(33)	●(30)	○(32)	●(37)	○(40)
외고, 국제고, 특목고, 자율고의 입학사정관제 도입					●(32)										
EBS 강의 수능 반영의 사교육비 감소 효과 예측					●(33)										
대학에 대한 전반적 평가					●(36)										
대학 진학률에 대한 인식					●(39)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 방안 우선 순위					●(41)										
입학사정관 제도 학생 선발 규모 확대					●(42)										
입학사정관 제도에 따른 사교육 비 변화					●(43)										
입학사정관 제도 기대 효과					●(44)										
입학사정관 제도 문제점					●(45)										
창조성 개발 필요성					●(50)										
					●(50-1)										
보인 또는 자녀의 창조성 전반적 평가					●(51)										
					●(51-1)										
보인 또는 자녀의 창조성 항목별 평가					●(52)										
정규 학교교육을 통한 창조성 신장					●(53)										

연도	1999	2001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1차 2차	2014년 1차 2차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문항															
창조성 개발의 학업성취 또는 직 무성취 영향					●(54)										
정규학교교육이 창조성 개발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유					●(55)										
정규 학교교육에서 습득한 지식 의 실제 활용 비율					●(56) ●(56-1)										
창조성 개발 방안					●(57)										
기존 대입에 필요한 능력					●(58)										
직무를 위해 필요한 능력					●(59)										
창의성과 수업 관계					●(59-1)										
새 대입제도에 따른 필요 능력					●(59-2)										
창조성 개발에 따른 경제성장을					●(59-3)										
교육행정의 권한						●(1)	○(1)	○(1)	●(1)	○(1)	○(1)	○(37)	○(39)	●(47)	○(51)
학교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과제						●(3)	○(3)	○(3)	○(3)	○(3)	●(4)	●(5)	●(4)	●(5)	●(7)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도						●(6)	○(9)	○(9)	○(7)	○(7)	○(7)	○(10)	○(9)	○(13)	○(14)
교사 월급 결정 기준						●(7)	○(10)	○(10)							
학생 상자에 따른 교사 월급 반영 정도						●(8)	○(11)	○(11)							
직업으로서 교사						●(9)	○(12)	○(12)	○(8)	○(1)			○(13)	●(16)	○(17)
개인의 성공 요인(타고난 능력/후 천적 노력)						●(10)	○(18)	○(18)							
학생의 학업성취(성적) 영향요인 (교사/학부모/친구)						●(11)	○(19)	○(19)	○(16)	○(21)	●(22)				
교육법에 대한 찬반 의견						●(13)	○(13)	○(13)	○(17)	○(19)	○(20)				
반과후학교 참여 희망 유무						●(18)	○(22)	○(22)	○(15)						

연도	1999	2001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1차 2차	2014년 1차 2차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문항															
인학사정관계 점수위주 입시제도 보완		●(23)					○(27)	○(27)							
대입 중요 반영 항목		●(24)					○(28)	○(28)	○(23)	●(28)	○(31)	●(26)	○(28)	●(33)	○(37)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정책		●(25)					○(6)	○(6)		●(23)	●(23)	●(39)	●(42)	○(50)	●(54)
우수 교육정책 평가		●(26)					○(7)	○(7)							
대학 재정의 투명성		●(29)					○(35)	○(35)	○(31)	●(39)					
대학 재정지원(장학금 포함) 통한 등록금 인하 방안		●(30)					○(36)	○(36)							
자녀 대학 입학 시 등록금 부담 의향		●(31)					○(37)	○(37)	○(32)						
자녀의 대학 졸업 후 구직 성공 가능성		●(32)					○(38)	○(38)	●(33)						
대학 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		●(33)					○(39)	○(39)	○(34)	○(49)	○(48)	○(47)	○(49)	○(61)	○(65)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		●(34)					○(40)	○(40)	○(35)	○(50)	○(49)				
자녀에 대한 교육 기대수준		●(35)					○(41)	○(41)	○(36)						
자녀의 마이스티고 진학에 대한 의견		●(36)					○(42)	○(42)	○(37)						
기업의 일정보이율 고졸자 신규채 용에 대한 의견		●(37)					○(43)	○(43)	○(38)	○(48)	○(47)	○(46)			
입시 경쟁에 대한 미래 전망		●(40)					○(46)	○(46)	○(41)	○(29)		○(27)	○(29)	○(34)	○(38)
대학 서열화에 대한 전망		●(41)					○(47)	○(47)	○(42)	○(51)	○(50)	○(49)	○(51)	○(63)	○(67)
학벌주의에 대한 전망		●(42)					○(48)	○(48)	○(43)	○(52)	○(51)	○(48)	○(50-1)	○(62)	○(66)
해결이 필요한 교육 문제							●(5)	○(5)							
학생의 스트레스 정도							●(14)	○(14)	○(10)	●(13)	●(14)	○(15)	○(14)		
학교폭력의 원인							●(15)	○(15)	○(18)	●(17)	○(18)	●(19)	○(20)	○(25)	○(26)

연도	1999	2001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1차 2차	2014년 1차 2차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문항															
학생의 인성·도덕성 수준							●(20)	○(20)	○(9)	●(14)	○(15)	○(16)	○(15)	●(19)	○(20)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찬반 의견							●(31)	○(31)	●(27)	○(33)					
국가 재원의 우선적 투자 내용							●(32)	○(32)	●(28)	○(34)	●(34)	●(29)	●(31)	●(36)	
교육의 국가사회발전 기여 정도							●(49)	○(49)	○(44)						
시·도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찬반 의견								●(50)	○(8)	○(45)	○(45)	○(38)	○(40)	○(48)	
지방대학에 대한 우선적 지원에 대한 찬반의견								●(51)		○(41)	○(39)	○(35)	●(36)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							●(52)	○(45)							
초등학교의 시급한 교육정책								●(3)							
중학교의 시급한 교육정책								●(4)							
고등학교의 시급한 교육정책								●(5)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 성과								●(6)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 관 심도 및 동의 정도								●(7)							
사회인식 및 교육관								●(8)							
교사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									●(5)	●(8)	●(8)	○(11)	○(10)	○(14)	○(15)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									●(22)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적 지원									●(24)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									●(46)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시 금성									●(46-1)	○(13-1)					
현재 가장 잘 하고 있는 정책									●(46-2)	○(13-2)	●(43)	○(42)			

연도	1999	2001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1차 2차	2014년 1차 2차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문항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중·고등학생 평가 과목 수의 적절성									●(9-1)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초등학생 평가 폐지에 대한 의견									●(9-2)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인지 여부									●(10-1)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국가 간 학업성취도 차이를 제대로 측정하는지에 대한 인식									●(10-2)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한국 교육의 질 제고 기여에 대한 인식									●(10-3)						
자녀 성장에 대한 부담									●(11)						
기장교육 역점 사항									●(12)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 및 동의정도(1)									●(13)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 및 동의 정도(2)									●(14)						
교육현안 이해도 및 동의정도									●(15)						
가장 좋은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한 의견										●(5)					
학생의 인성교육에 대한 책임										●(15)	◎(16)	○(17)	○(17)	○(20)	○(21)
학칙 제·개정 시 의견 반영의 우선 주체										●(18)					
사교육의 근본 원인										●(22)					
EBS 수능 연계(70% 이상) 정책 유지에 대한 의견										●(24)	○(24)				

연도	1999	2001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1차 2차	2014년 1차 2차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문항															
고등학교의 신입생 자체 선발에 대한 찬반의견										●(27)	○(29)				
비림직업한 영유아 지원방식										●(30)					
지방교육재정의 축소·확대에 대한 의견										●(35)	○(35)	●(31)	●(33)	○(38)	○(41)
교수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도										●(37)	●(37)	○(33)			
대학평가 시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지표										●(42)	○(40)	○(36)	○(38)	○(46)	○(49)
유보 통합에 대한 의견										●(44)					
9시 등교에 대한 찬반의견										●(46)					
미래 학교에서 더 강조될 역할과 기능											●(2)	●(43)	○(46)	●(56)	○(60)
미래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											●(12)	○(44)	○(47)	○(30)	○(32)
이동학대 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학교의 역할											●(19)				
과정중심평가 강화에 대한 찬반의견											●(21)				
고교 단계의 직업교육 비중 확대에 대한 찬반의견											●(27)	○(24)	●(26)		
일반고 내에서의 직업연계교육 확대 등 직업교육 확대에 대한 찬반의견											●(28)	○(25)	●(27)		
대입에서의 수시 및 정시 모집인원 비율에 대한 의견											●(30)		●(29)		
우리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미래 사회 변화											●(41)			●(54)	○(58)

연도	1999	2001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1차 2차	2014년 1차 2차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문항															
정부의 교육개혁 6대 과제 중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의견											●(43)				
자유학기제 확대에 대한 의견											●(44)				
지난 정부 교육정책 평가												●(1)			
현 정부 유·초·중등 교육정책 우선순위												●(2)	●(1)	●(1)	●(2)
현 정부 고등·평생 교육정책 우선순위												●(3)	●(2)	●(2, 3)	●(3, 4)
네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 교육정책 평가												●(9)	○(8-1)	○(9)	○(11)
네 가지 측면에서 교육정책을 볼 때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측면													●(8-2)	○(9-1)	○(11-1)
학업 성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14)	○(13)	○(18)	●(19)
학교에서 역점을 두어 길러주기를 바라는 사항												●(20)	●(21)	●(27)	○(29)
현 정부 고등학교 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23)	○(25)	●(31)	●(34)
교육재정 지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학교급												●(28)	○(30)	●(35)	●(39)
자녀의 장래 생활에 대한 기대												●(51)	○(53)	○(59)	●(63)
교장공모제 확대													●(12)		
학생들의 사회성 수준													●(16)	●(21)	○(22)
학생들의 민주시민성 형성에 책임													●(18)	●(22)	○(23)
초·중·고 통합학교 도입 방안													●(2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													●(40)		

연도	1999	2001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1차 2차	2014년 1차 2차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문항															
미래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													●(45)	○(55)	○(59)
학력차별을 법으로 금지 시키는 방안에 대한 찬반의견													●(50-2)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언제 까지 부담													●(54)	○(60)	○(64)
정부의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한 찬반의견													●(37)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이유														●(8-1)	○(10-1)
교육실패회복 노력에 대한 평가														●(10)	○(12)
교육실패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11)	
국가교육위원회 역할 중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														●(12)	○(13)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에 의한 교원 교육활동 침해 정도														●(17)	○(18)
민주시민성 제고를 위해 학교가 추진해야 할 과제														●(23)	○(24)
다문화학생과 같이 공부하는 것에 대한 의견														●(26)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중에 대한 의견														●(32)	○(36)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그간 추진하기 어려웠던 정책 중 추진되어야 할 정책														●(39)	
돌봄정책 주요과제 중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														●(40)	

연도	1999	2001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1차 2차	2014년 1차 2차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문항															
성인학습의 운영 주체에 대한 의견														●(41)	
대학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평가를 받기 위한 과제														●(43)	○(46)
자녀의 사교육과 관련한 의견														●(53)	○(57)
10대 교육정책 중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															●(1)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															●(5)
유·초·중·고등학교와 학부모의 소통 원활 정도															●(27)
유·초·중·고등학교에서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활성화되어야 하는 방식															●(28)
학교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수업 이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															●(33)
수업이수로 인정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운영 형태에 대한 의견															●(33-1)
고교학점제 도입 및 단계적 확산을 위해 고등학교 교육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															●(35)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교육영역에서 정부 대응의 적절 여부															●(42)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교육영역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역할															●(43)

연도	1999	2001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1차 2차	2014년 1차 2차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문항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 위치를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대응 과제를 대학교육혁신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를 사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과 사교육으로 인한 효과에 대한 의견															●(44)
															●(50)
															●(53)

IRB No. 2020-21-05T-N

유효기간: 2020.08.19. ~ 2020.12.31.

[부록 5] KEDI POLL 2020 조사도구**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ID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본 설문조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견해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교육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여론조사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주요 교육 문제나 정책에 대해 어떻게 인
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를 파악하여 각종 교육정책의 개발 및 추
진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여러분의 응답이 향후 우리나라의 교육을 개선하
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을 보호하고, 오직 연구의 목적
으로만 활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한국교육개발원장 반 상 진
연구 책임자 임 소 현

■ 주관기관 :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정책네트워크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7



DBID

A. 기초 자료 질문

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2. 거주지역

- ① 서울특별시 ② 광역시특별자치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
- ③ 중소도시(시 지역) ④ 군(읍·면) 지역

3. 연령 (만 _____ 세)

4. 자녀 유무 ① 유 (☞5번으로) ② 무 (☞ 1영역 1번으로)

5. 자녀의 수를 아래의 분류에 따라 표시해 주십시오.

※ 자녀의 총 수	_____명
① 유치원(어린이집, 학원 등 포함)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나 아동	_____명
② 유치원생(어린이집, 학원 등 포함)	_____명
③ 초등학생*	_____명
④ 중학생*	_____명
⑤ 고등학생*	_____명
⑥ 전문대 학생	_____명
⑦ 일반대 학생	_____명
⑧ 대학원 학생	_____명
⑨ 직장인(자영업 포함)	_____명
⑩ 기타(미취업, 출가 등) : _____	_____명

* 자녀가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 자녀 연령에 해당하는 보기에 표시

1. 교육정책 및 학교교육 평가

1. 다음은 2020년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10대 교육정책입니다. **10대 교육 정책 중 정부가 앞으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를 순위대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 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 ②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③ 고교 서열화 해소
- ④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 ⑤ 고교학점제 추진
- ⑥ 학교공간 혁신
- ⑦ 대입 공정성 강화
- ⑧ 사학 혁신
- ⑨ 대학·전문대학 혁신 지원
- ⑩ 고졸 취업 활성화
- ⑪ 잘 모르겠다

2. 다음의 현 정부 유·초·중등 교육정책 중 **정부가 앞으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를 순위대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 ①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
- ② 온종일 돌봄정책 확대 및 서비스 강화
- ③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④ 고교학점제 도입 및 확대
- ⑤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
- ⑥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강화
- ⑦ 국가차원의 기초학력 보장 체제 구축
- ⑧ 교원양성 제도 개선 및 교원 역량 제고
- ⑨ SW·AI 교육 및 융합교육 강화
- ⑩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⑪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키워주는 학교공간 혁신 추진
- ⑫ 지방교육자치 강화 및 학교자치 활성화

<p>⑬ 온라인 수업 확대 및 질적 강화 ① 잘 모르겠다</p>
<p>3. 다음의 현 정부 고등교육정책 중 정부가 앞으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를 순위대로 선택하여 주십시오.</p> <p style="text-align: center;">1순위_____ 2순위_____</p> <p>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②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회균형 선발 의무화 ③ 등록금 부담 경감 ④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 확충 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⑥ 지방대학-지자체 협력기반의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원 ⑦ 전문대학 지원 확대 ⑧ 대학의 자율적 기반을 토대로 한 대학 혁신 지원 ⑨ 대학의 혁신적 연구 역량 제고 및 학술생태계 조성 지원 ⑩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및 효율적 배분 ① 잘 모르겠다</p>
<p>4. 다음의 현 정부 평생·직업교육정책 중 정부가 앞으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를 순위대로 선택하여 주십시오.</p> <p style="text-align: center;">1순위_____ 2순위_____</p> <p>① 중등 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고졸 취업 활성화 ② 전문대학 역량 강화를 통한 직업교육 지역거점 육성 ③ 한국형 무크 강좌 등 온라인 평생교육 콘텐츠 및 인프라 확대 ④ 생애단계별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 ⑤ 대학 창업 및 산학협력 활성화 ⑥ 대학의 평생교육기능 강화 ⑦ 재직자의 대학교육 지원 강화 ⑧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확대 ⑨ 평생학습도시 등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 ① 잘 모르겠다</p>
<p>5. 현 정부에서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중 정부가 앞으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p>

IRB No. 2020-21-05T-N

유효기간: 2020.08.19. ~ 2020.12.31.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국·공립 유치원의 지속적 확충 및 설립 유형(매입형, 부모협동형 등) 다양화
- ② 건강·안전관리 등 책임을 강화한 ‘학부모 안심유치원’ 확대
- ③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한 운영을 위한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전면 도입
- ④ 교비회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처벌 근거 신설 등 유치원 3법 강력 시행
- ⑤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 등 유치원비 안정화 추진
- ⑥ 유아놀이 중심의 개정 누리과정 현장 안착
- ⑦ 방과후 과정 확대, 돌봄시간 다양화 등 돌봄 서비스 내실화
- ⑧ 잘 모르겠다 _____

6. 현재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를 평가한다면 어떤 성적을 주시겠습니까?

초·중·고 전반 _____ 초등학교 _____ 중학교 _____ 고등학교 _____

- ① 매우 잘하고 있다(A)
- ② 잘하고 있다(B)
- ③ 보통이다(C)
- ④ 못하고 있다(D)
- ⑤ 전혀 못하고 있다(E)

7. 국민들로부터 학교가 ‘잘하고 있다(A+B)’는 평가를 받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 선택하여 주십시오(학교급별 동일항목 선택 가능).

초·중·고 전반 _____ 초등학교 _____ 중학교 _____ 고등학교 _____

- ① 수업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
- ② 학생 성장 중심으로 평가 방법 개선
- ③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학생지도(인성, 안전 등) 활동
- ④ 진로교육(진학 및 취업지도 포함) 강화
- ⑤ 우수한 교사 확보 및 배치
- ⑥ 좋은 교육시설
- ⑦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형성
- ⑧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
- ⑨ 기타 _____

8. 자녀가 다닐 학교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다음의 요소 중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

하게 고려하겠습니까?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 선택하여 주십시오(학교급별 동일항목 선택 가능).

초등학교 _____ 중학교 _____ 고등학교 _____ 대학교 _____

① 학교 명성이나 전통 ② 교원의 질적 수준 ③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
 ④ 진로 지도 ⑤ 인성교육 ⑥ 민주적인 학교문화
 ⑦ 학교시설 ⑧ 학교 주변의 환경 및 여건 ⑨ 통학거리
 ⑩ 학교 안전 ⑪ 상급학교 진학 실적 ⑫ 졸업생의 취업 실적
 ⑬ 교육비 ⑭ 기타 _____

9. 초·중·고등학교의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학벌 위주의 사회체제 개선
 ② 대입 선발 방식 개선
 ③ 교원의 전문성 제고
 ④ 교육내용의 선택권 확대
 ⑤ 진로교육 강화
 ⑥ 수업방식의 다양화
 ⑦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
 ⑧ 기타 _____

10. (초·중·고 학부모의 경우) 자녀를 외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유학을 보낼 생각이 있습니까?

초·중·고 전반 _____ 초등학교 _____ 중학교 _____ 고등학교 _____

① 보낼 생각이 있다 ② 보낼 생각이 없다 ③ 잘 모르겠다

10-1. (자녀의 조기유학을) 보낼 생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자녀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
 ② 외국어 학습 또는 자녀의 조기 다중언어 구사를 위해
 ③ 경쟁 위주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
 ④ 우리나라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
 ⑤ 사교육에 대한 부담
 ⑥ 기타 _____

IRB No. 2020-21-05T-N

유효기간: 2020.08.19. ~ 2020.12.31.

11.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각각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가지 측면	매우 있다	있다	보통이다	없다	전혀 없다
(1) 일관성	①	②	③	④	⑤
(2) 장기적 비전	①	②	③	④	⑤
(3) 우리나라 여건에의 적합성	①	②	③	④	⑤
(4) 국민여론 반영	①	②	③	④	⑤

11-1.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측면을 가장 중점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일관성
- ② 장기적 비전
- ③ 우리나라 여건에의 적합성
- ④ 국민여론 반영
- ⑤ 잘 모르겠다

12. 현 정부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고교체제 개편, 학사비리 근절 노력 등 교육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교육신뢰회복 노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 ① 매우 잘하고 있다
- ② 잘하고 있다
- ③ 보통이다
- ④ 못하고 있다
- ⑤ 전혀 못하고 있다

13. 현 정부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장기적 교육비전 마련 및 일관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독립적 행정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국가교육위원회 역할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육비전 및 중장기 정책방향 마련
- ②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 ③ 국가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 수립
- ④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및 조정
- ⑥ 기타 _____

2. 교사

14.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고 계십니까?

초·중·고 전반 _____ 초등학교 _____ 중학교 _____ 고등학교 _____

- ① 매우 신뢰한다
- ② 신뢰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신뢰하지 못한다
- ⑤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

15.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 선택하여 주십시오(학교급별 동일항목 선택 가능).

초·중·고 전반 _____ 초등학교 _____ 중학교 _____ 고등학교 _____

- ① 학습 지도 능력
- ② 생활 지도 능력
- ③ 진로·진학지도 능력
- ④ 학급 경영 능력
- ⑤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 능력
- ⑥ 기타 _____

16. 교사자격증은 없지만 현장경험 등이 있는 전문가를 초·중·고등학교의 교사로 일정비율을 초빙하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중·고 전반 _____ 초등학교 _____ 중학교 _____ 고등학교 _____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17. 자녀가 초·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긍정적으로 본다 ② 부정적으로 본다 ③ 잘 모르겠다

18.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부모 등)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심각하다
- ② 심각하다
- ③ 보통이다

IRB No. 2020-21-05T-N

유효기간: 2020.08.19. ~ 2020.12.31.

- ④ 심각하지 않다
- ⑤ 전혀 심각하지 않다

3. 학생

19.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생의 타고난 능력
- ② 학생의 노력과 열의
- ③ 교사의 지도
- ④ 학교나 학급의 학습 분위기
- ⑤ 가정의 학습 환경
- ⑥ 가정의 경제적 뒷받침
- ⑦ 기타_____

20.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인성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초·중·고 전반_____ 초등학교_____ 중학교_____ 고등학교_____

- ① 매우 높다
- ② 높다
- ③ 보통이다
- ④ 낮다
- ⑤ 매우 낮다

21. **학생들이 좋은 인성을 갖도록 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가정
- ② 친구
- ③ 학교
- ④ 사회
- ⑤ 잘 모르겠다

22.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시민의식(민주시민성)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초·중·고 전반_____ 초등학교_____ 중학교_____ 고등학교_____

- ① 매우 높다
- ② 높다
- ③ 보통이다
- ④ 낮다
- ⑤ 매우 낮다

23. **학생들이 시민의식(민주시민성)을 갖도록 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가정
- ② 친구
- ③ 학교
- ④ 사회
- ⑤ 잘 모르겠다

24. **초·중·고 학생의 시민의식(민주시민성) 제고를 위해 학교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수업에서의 민주시민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③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 강화 ④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장려 ① 잘 모르겠다
<p>25. 2~3년 전과 비교해 볼 때 학교폭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심각하다 ③ 보통이다 ④ 심각하지 않다 ⑤ 전혀 심각하지 않다
<p>26. 학교폭력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경쟁적 교육제도(입시경쟁 등) ② 가정교육의 부재 ③ 학교의 학생지도 부족 ④ 대중매체(영화, 드라마, 인터넷, 게임 등)의 폭력성 ⑤ 학생 개인의 인성 문제 ① 잘 모르겠다
<p>27. (유·초·중·고 학부모의 경우) 현재 유·초·중·고등학교와 학부모의 소통이 원활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매우 원활하다 ② 원활하다 ③ 보통이다 ④ 원활하지 않다 ⑤ 전혀 원활하지 않다
<p>28. (유·초·중·고 학부모의 경우) 유·초·중·고등학교에서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보다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방식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정통신문 활용 ② 학교 홈페이지 활용 ③ 휴대폰(문자, 앱 등) 및 SNS(블로그 등) 활용 ④ 교사(담임, 교장 등)와의 면담 ⑤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협의회 활용

IRB No. 2020-21-05T-N

유효기간: 2020.08.19. ~ 2020.12.31.

⑥ 기타 _____

4.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29. 초·중·고등학교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길러주기를 바라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 선택하여 주십시오(학교급별 동일항목 선택 가능).

초·중·고 전반 _____ 초등학교 _____ 중학교 _____ 고등학교 _____

- | | |
|-----------|-------------|
| ① 지식 | ⑦ 도덕성 |
| ② 기술, 기능 | ⑧ 사회성, 인간관계 |
| ③ 사고력 | ⑨ 민주시민성 |
| ④ 창의력 | ⑩ 리더십 |
| ⑤ 기본생활습관 | ⑪ 건강, 체력 |
| ⑥ 정서적 감수성 | ⑫ 기타 _____ |

30. 초·중·고등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증시해야 할 교과는 무엇인지 보기 중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을 선택하여 주십시오(학교급별 동일항목 선택 가능).

초등학교 _____ 중학교 _____ 고등학교 _____

교과 보기

- | | |
|----------------------|------------------------|
| ① 국어 | ⑧ 예술(음악, 미술, 연극) |
| ② 수학 | ⑨ 기술·가정 |
| ③ 영어 | ⑩ 기계·SW·디자인·농업 등 전문교과 |
| ④ 한국사 | ⑪ 제2외국어 |
| ⑤ 사회(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 | ⑫ 한문 |
| ⑥ 과학(통합과학) | ⑬ 교양(철학, 진로와 직업, 환경 등) |
| ⑦ 체육 | ⑭ 기타 _____ |

31. 초·중·고등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교육내용은 무엇인지 보기 중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을 선택하여 주십시오(학교급별 동일항목 선택 가능).

초등학교 _____ 중학교 _____ 고등학교 _____

교육내용(교육영역) 보기

- | | |
|----------|------------------------------|
| ① 창의성교육 | ⑨ 환경교육 |
| ② 인성교육 | ⑩ 안전교육 |
| ③ 민주시민교육 | ⑪ 평화통일교육 |
| ④ 진로교육 | ⑫ 융합교육 |
| ⑤ 직업교육 | ⑬ 정보소양교육(예: SW, 코딩, AI 교육 등) |

- | | |
|-----------------------|---------------|
| ⑥ 특기·적성교육 | 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
| ⑦ 세계시민교육(예: 다문화 존중 등) | ⑮ 기타 _____ |
| ⑧ 성교육 | |

32. **미래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학생들은 다양한 핵심 역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 선택하여 주십시오(학교급별 동일항목 선택 가능).

초·중·고 전반 _____ 초등학교 _____ 중학교 _____ 고등학교 _____

- ① **자기관리 역량**(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 ② **지식정보처리 역량**(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 ③ **창의적 사고 역량**(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능력)
- ④ **심미적 감성 역량**(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
- ⑤ **의사소통 역량**(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능력)
- ⑥ **공동체 역량**(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 ⑦ 기타 _____

33. 학교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수업이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중·고 전반 _____ 초등학교 _____ 중학교 _____ 고등학교 _____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33-1. (33번 문항의 1번 응답자만: 온라인교육의 수업이수 인정을 찬성한다면) **수업이수로 인정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의 운영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비실시간 강의형 콘텐츠 및 온라인 상 활동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
- ② 화상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면대면 교수-학습활동이 가능해야 인정할 수 있다.
- ③ 어느 정도 오프라인 상(등교수업)에서의 활동이 포함되어야 인정할 수 있다.
- ④ 잘 모르겠다

5. 고교 정책 및 대입

34.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등학교 관련 교육정책**입니다. 각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교 정책	매우 찬성한다	찬성한다	보통이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1)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2021년 완성)	①	②	③	④	⑤
(2) 고교학점제 도입	①	②	③	④	⑤
(3)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제 개편	①	②	③	④	⑤
(4)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①	②	③	④	⑤

35. **고교학점제 도입 및 단계적 확산을 위해 고등학교 교육에서 앞으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를 순위대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 ①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 ② 다양한 과목 선택 및 이수 기회 제공
- ③ 수업 및 평가 개선(성취평가제, 과정중심평가 등)
- ④ 학생의 진로 및 학업 설계 역량 강화
- ⑤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학교 공간 혁신
- ⑥ 고교학점제 정책에 대한 학생·학부모 등 공감대 형성
- ⑦ 기타_____

36.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포함)**을 받는 학생의 비중이 전체 고등학생의 약 18.5% 정도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낮으므로 더 높여야 한다
- ② 적정하다
- ③ 높으므로 더 낮추어야 한다
- ④ 잘 모르겠다

37. 다음 중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대학수학능력시험
- ② 고교 내신
- ③ 특기·적성

- ④ 인성 및 봉사활동
- ⑤ 글쓰기·논술
- ⑥ 면접
- ⑦ 동아리활동 등 교내활동
- ⑧ 기타_____

38. 학생 각자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이다
- ② 전반적으로 완화되나, 일류대 위주의 입시경쟁은 유지될 것이다
- ③ 현재와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 ④ 전반적으로 심화될 것이다
- ⑤ 잘 모르겠다

6.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39. 정부의 교육재정 지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교육단계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유아교육
- ② 초등학교
- ③ 중학교
- ④ 고등학교
- ⑤ 전문대학
- ⑥ 4년제 대학
- ⑦ 대학원
- ⑧ 학령기이후 성인교육
- ⑨ 잘 모르겠다

40. 무상교육 범위 확대를 위해 초·중·고 학생들에게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초등학교_____ 중학교_____ 고등학교_____

- ① 학교급식비
- ② 학용품비·교재비
- ③ 현장학습비(수학여행 경비 등) 및 수련 활동비

IRB No. 2020-21-05T-N

유효기간: 2020.08.19. ~ 2020.12.31.

- ④ 방과후학교 교육비
- ⑤ 교복구입비(중·고만 해당)
- ⑥ 디지털학습장비 구입 및 활용비
- ⑦ 교통비
- ⑧ 기타_____

41. **학생 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육재정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생 수 감소비율에 따라 교육재정을 축소해 나가야한다
- ② 교육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 이후 교육재정을 축소해 나가야한다
- ③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재정을 축소하지 말고 현 수준을 유지하여야한다
- ④ 교육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교육재정을 증가해 나가야한다
- ⑤ 잘 모르겠다

42.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부는 **교육영역**에서 긴급 돌봄, 개학 연기, 온라인 개학 및 온라인 수업 운영, 학교 재량에 따른 등교 수업 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절하다
- ② 적절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적절하지 않다
- ⑤ 전혀 적절하지 않다

43.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교육영역**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긴급 돌봄 등 보육/돌봄
- ② 학생들의 배움 및 학습 유지
- ③ 급식 등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
- ④ 방역 등 학교 지원
- ⑤ 기타_____

44.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 위기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 유지**를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대응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온라인 수업체제 구축

- ② 교원의 위기 대응 능력 향상
- ③ 학교단위 위기관리 매뉴얼 구축
- ④ 탄력적인 학교운영 체제 구축
- ⑤ 기타_____

7. 대학교육

45. 우리나라의 **대학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제대로 양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구분하여 선택해 주십시오.

4년제 대학_____ 전문대학_____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못하다
- ⑤ 전혀 그렇지 못하다

46. 우리나라 **대학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제대로 양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구분하여 선택해 주십시오.

4년제 대학_____ 전문대학_____

- ① 학문 분야별 전문가의 양성
- ② 사회생활에 필요한 시민의식 및 인격적 소양의 함양
- ③ 진로 탐색 및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직업 역량의 함양
- ④ 기타 _____

47.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들이 교육기관의 특성에 맞게 학생들의 교육**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구분하여 선택해 주십시오.

4년제 대학 교수_____ 전문대학 교수_____

- ① 매우 잘하고 있다
- ② 잘하고 있다
- ③ 보통이다
- ④ 못하고 있다
- ⑤ 전혀 못하고 있다

48. 정부가 국립대학처럼 사립대학에도 경상운영비 등 대학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등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49. 다음 중 **대학평가 시 가장 중요하게 반영해야 할 지표**는 무엇입니까?

- ① 졸업생의 취업률
- ② 교수들의 연구 역량
- ③ 교수들의 교육 역량
- ④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 ⑤ 교육여건 및 시설의 충족도
- ⑥ 대학경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 ⑦ 기타 _____

50.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교육혁신을 위해 앞으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를 순위대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 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
- ②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 혁신
- ③ 지자체-대학협력 기반 지역 혁신
- ④ 대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 혁신
- ⑤ 대학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
- ⑥ 대학의 자율혁신을 위한 대학평가 체제 개선
- ⑦ 특성화 지향 대학 체제 혁신
- ⑧ 대학 간 상호 성장할 수 있는 대학체제 개편
- ⑨ 기타_____

8. 교육현안 및 미래교육

51. 다음과 같은 **교육행정의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갖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까?

교육행정 권한과 책임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학교장	잘 모르겠다
(1) 유·초·중·고 교육정책의 수립	①	②	③	④
(2) 필수 교육과정의 결정	①	②	③	④
(3) 교과목 표준 학습성취 기준 마련	①	②	③	④
(4)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①	②	③	④

52. 2-3년 전과 비교해 볼 때 현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받고 있는 사교육(학원 수강, 개인·그룹과의, 학습지 등)이 어떻게 변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줄어들었다
- ② 다소 줄어들었다
- ③ 별다른 변화가 없다
- ④ 다소 심화되었다
- ⑤ 매우 심화되었다

53. 사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과 사교육으로 인한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사교육 효과			
		고효과	중효과	저효과	효과없음
사교육 부담	고부담	①	②	③	④
	중부담	⑤	⑥	⑦	⑧
	저부담	⑨	⑩	⑪	⑫
	부담없음	⑬	⑭	⑮	⑯

54. 다음의 교육정책들 중에서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방과후 학교(초등돌봄교실 포함) 운영
- ② EBS 강의
- ③ EBS 수능 연계
- ④ 선행학습 금지 정책
- ⑤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 ⑥ 고교체제 단순화
- ⑦ 대입전형 단순화
- ⑧ 수능(영어, 한국사 등) 절대평가
- ⑨ 기타 _____

55. 사교육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2개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 ①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해서
- ②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 ③ 남들보다 앞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
- ④ 남들이 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 ⑤ 특기·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 ⑥ 방과 후 집에서 공부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IRB No. 2020-21-05T-N

유효기간: 2020.08.19. ~ 2020.12.31.

⑦ 자녀가 혼자서는 공부를 하지 않아서

⑧ 기타 _____

56. (유초·중고 학생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사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가계에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 ①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
 ② 별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
 ③ 다소 부담된다
 ④ 매우 부담된다
 ⑤ 사교육을 하지 않는다

57. (유초·중고 학생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사교육과 관련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의 사교육과 관련한 생각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사교육은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	①	②	③	④	⑤
(2)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어도 사교육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어떤 종류의 사교육을 할 것인지는 부모가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4)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취미활동은 하지 않도록 말린다	①	②	③	④	⑤
(5) 자녀가 공부를 안하고 있으면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자녀가 학원에 가거나 과외공부를 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58. 미래 사회 변화 중 **우리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저출산 고령화
 ② 지능정보사회(4차 산업혁명 등)의 도래
 ③ 장기적인 저성장 추세
 ④ 다인종 다문화로의 진전
 ⑤ 글로벌 경쟁 확대
 ⑥ 통일시대/남북관계
 ⑦ 사회 양극화
 ⑧ 기타 _____

59. 다음은 **미래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육체제**와 관련하여 요구(또는 기대)되어지는 과제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이중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는 무엇입니까?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_____ / _____

- ① 유연한 학교제도(학제) 구축
- ② 진학 진급제도의 탄력적 운영
- ③ 교육과정 내용량 축소
- ④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자율성 확대
- ⑤ 온라인-오프라인 학습 병행
- ⑥ 학교 밖 학습경험 인정
- ⑦ 학습자관리시스템(학습 관리, 생활지도, 건강관리, 진로지도 등) 구축 및 운영
- ⑧ 교과 교사, 학습컨설턴트, 특별전문강사 등 교원 다양화
- ⑨ 지역사회(마을) 공동체의 구심점 등 학교의 역할 확대
- ⑩ 잘 모르겠다

60. 미래 사회 변화 및 과학기술의 발달로 볼 때 학교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미래 학교에서 더 강조될 역할과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 선택하여 주십시오(학교급별 동일항목 선택 가능).

초등학교 _____ 중학교 _____ 고등학교 _____

- ① 지식의 전달 및 학습
- ② 자기주도학습 등 문제해결 역량 교육
- ③ 공동체 역량 및 협동·협업 역량 교육
- ④ SW·AI 교육 및 코딩 교육
- ⑤ 융합 교육
- ⑥ 미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탐색 및 교육
- ⑦ 아동·학생들의 보육 혹은 돌봄
- ⑧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 체육, 예술 등의 평생교육
- ⑨ 기타 _____

9. 교육관

61. 학교의 여러 문제들(성적 위주의 교육, 학교폭력(왕따 등), 학교에 대한 불만족 등)로 귀하의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 선택하여 주십시오(학교급별 동일항목 선택 가능).

IRB No. 2020-21-05T-N

유효기간: 2020.08.19. ~ 2020.12.31.

초·중·고 전반 _____ 초등학교 _____ 중학교 _____ 고등학교 _____

- ① 그 학교가 아니더라도 정규학교는 꼭 다니게 하겠다
- ② 꼭 정규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대안을 찾겠다
- ③ 잘 모르겠다

62. **우리사회에서 자녀교육에 성공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갔다
- ②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컸다
- ③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 ④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
- ⑤ 자녀가 경제적으로 잘 산다
- ⑥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63. **자녀가 장차 어떤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_____ / _____

- ① 경제적으로 윤택함
- ② 명예가 많음
- ③ 권력이 많음
- ④ 학식이 많음
- ⑤ 가족이나 주위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냄
- ⑥ 사회에 봉사하며 살아감
- ⑦ 본인의 흥미와 적성을 살림
- ⑧ 건강하게 살아감
- ⑨ 기타 _____

64.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언제까지 부담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중학교 졸업까지
- ② 고등학교 졸업까지
- ③ 대학교 졸업까지
- ④ 대학원 석사까지
- ⑤ 대학원 박사까지
- ⑥ 취업할 때까지
- ⑦ 결혼할 때까지
- ⑧ 평생

⑨ 기타 _____

65. 현재 한국사회에서 **대학 졸업장의 유무에 따른 차별**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
 ② 일부 존재하나 심각하지 않다
 ③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④ 잘 모르겠다

66. **우리나라의 학벌주의**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약화될 것이다
 ② 큰 변화 없을 것이다
 ③ 심화될 것이다
 ④ 잘 모르겠다

67. 흔히 대학을 일류대학, 이류대학 등으로 분류하는 **우리나라의 대학 서열화**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약화될 것이다
 ② 큰 변화 없을 것이다
 ③ 심화될 것이다
 ④ 잘 모르겠다

68.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다음의 측면에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이다	다소 작다	매우 작다
(1) 경제적 부의 증대에 미치는 영향	①	②	③	④	⑤
(2) 사회적 지위 향상에 미치는 영향	①	②	③	④	⑤
(3) 심리적인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①	②	③	④	⑤

B. 인구통계학적 질문

6. 귀하의 교육수준(재학 및 중퇴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대학/전문대 재학 ⑥ 전문대 졸업
 ⑦ 대학교 졸업 ⑧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⑨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7. [기혼인 경우(사실혼 포함)만 응답] 맞벌이 여부 ① 맞벌이 부부임 ② 맞벌이 부부가 아님

8. 한 달 평균 가구총소득(이자 수입, 임대료 수입 등을 포함하되 세금 공제 이전의 액수로 계산해 주십시오)

- ① 200만원 미만 ②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③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④ 600만원 이상

9. 직업(한 가지가 아닌 경우, 본업 또는 주된 수입원)은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번호를 골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9-1) 본인의 직업 _____, 9-2) 배우자의 직업 _____

관리자	(11) 공공 및 기업 고위직 (12)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13) 전문서비스 관리직	(14)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15)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22)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2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2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27)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2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사무 종사자	(31)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32) 금융 및 보험 사무직	(33) 법률 및 감사 사무직 (39)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서비스 종사자	(41)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42)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43)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44)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판매 종사자	(51) 영업직 (52) 매장 판매직	(53)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61) 농·축산 숙련직 (62) 임업 숙련직	(63) 어업 숙련직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1) 식품 가공관련 기능직 (72) 섬유·의복 및 가죽관련 기능직 (73)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관련 기능직 (74) 금속성형 관련 기능직 (75) 운송 및 기계관련 기능직	(76) 전기 및 전자관련 기능직 (77) 건설 및 채굴관련 기능직 (78) 영상 및 통신 장비관련 기능직 (79) 기타 기능 관련직
장치·기계조 작 및 조립 종사자	(81)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직 (82)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조작직 (83) 화학관련 기계조작직 (84)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조작직 (85)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조작직	(8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조작직 (87) 운전 및 운송 관련직 (88)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관련 기 계조작직 (89)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조작직
단순노무 종사자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92) 운송관련 단순 노무직 (93) 제조관련 단순 노무직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 무직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 무직
군인	(A1) 군인	
기타	(01) 학생 (03) 정년퇴직, 연금생활자 (05) 기타()	(02) 주부 (04) 무직(실업)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7차 개정) 기준

[부록 6] 기존 문항 수정 및 신규 개발 내역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허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p>1. 교육정책 및 학교교육 평가</p> <p>1. 다음은 2020년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10대 교육정책입니다. 10대 교육정책 중 정부가 앞으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를 순위대로 선택하여 주십시오.</p> <p>1순위_____ 2순위_____</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②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③ 고교 서열화 해소 ④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⑤ 고교학점제 추진 ⑥ 학교공간 혁신 ⑦ 대입 공정성 강화 ⑧ 사학 혁신 ⑨ 대학·전문대학 혁신 지원 ⑩ 고졸 취업 활성화 ⑪ 잘 모르겠다 	<p>2020</p>	<p>[신규문항]</p> <p>다음은 2020년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10대 교육정책입니다. 10대 교육정책 중 정부가 앞으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를 순위대로 선택하여 주십시오.</p>	<p>[신규문항 선택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②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③ 고교 서열화 해소 ④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⑤ 고교학점제 추진 ⑥ 학교공간 혁신 ⑦ 대입 공정성 강화 ⑧ 사학 혁신 ⑨ 대학·전문대학 혁신 지원 ⑩ 고졸 취업 활성화 ⑪ 잘 모르겠다 	
<p>2. 다음의 현 정부 유·초·중·고 교육정책 중 정부가 앞으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를 순위대로 선택하여 주십시오.</p> <p>1순위_____ 2순위_____</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립유치원 확대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 ② 온종일 돌봄정책 확대 및 서비스 강화 ③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④ 고교학점제 도입 및 확대 ⑤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 ⑥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강화 ⑦ 국가차원의 기초학력 보장 체제 구축 	<p>2017</p>	<p>[신규문항]</p> <p>현 정부 국정과제 중 교육관련세부 정책들입니다.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유·초·중·고 교육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를 순위대로 선택하여 주십시오.</p>	<p>자녀 있는 집단/초·중·고 학부모</p>	<p>[신규문항 선택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②교사·교육프로그렘·교육시설 질 균등화 ③온종일 돌봄교실 초등학교 신·학년으로 확대 및 내실화 ④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⑤유아·초등학교 적정 학습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 법제화 ⑥고교 학점제 도입 및 확대 ⑦단계적 고교체제 개편(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일반고와 인시(동시 실시) 등 ⑧기초학력 보장법 제정 등 국가차원의 기초학력 보장체제 구축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하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p>⑧ 교원양성 제도 개선 및 교원 역량 제고 ⑨ SWAI 교육 및 융합교육 강화 ⑩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⑪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키워주는 학교공간 혁신 추진 ⑫ 지방교육자치 강화 및 학교자치 활성화 ⑬ 온라인 수업 확대 및 질적 강화 ⑭ 잘 모르겠다</p>				<p>⑨ 초·중·고 학교 학생 평가제도 개선 ⑩ 교장공모제 확대 및 교원인사제도 개선 ⑪ 소프트웨어교육 내실화 및 선도 핵심교원 육성 ⑫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⑬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의 강화 ⑭ 잘 모르겠다</p>
	2018	<p>• (질문 수정) → 현 정부 국정과제 중 교육관련 세부 정책들입니다.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유·초·중등 교육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를 순위대로 선택하여 주십시오.</p>	<p>자녀 있는 집단/ 초·중·고 학부모</p>	<p>• (삭제) ⑨ 초·중·고 학교 학생 평가제도 개선 • (추가) ⑩ 자유학년제 도입 • (변경) ② 교사·교육프로그램·교육시설 질 강화 → ⑩ • (변경) ③ 온종일 돌봄교실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및 내실화 → ② • (변경) ④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 ⑦ • (변경) ⑤ 유아·초등학생 적정 학습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 법제화 → ③ • (변경) ⑦ 단계적 고교체제 개편(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일반고와 임시 등시 실시 등) → ⑤ • (변경) ⑩ 교장공모제 확대 및 교원인사제도 개선 → ⑨</p>
	2019	<p>• (질문 수정) → 1. 현 정부 유·초·중 등 교육정책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를 순위대로 선택하여 주십시오.</p>	<p>자녀 있는 집단/ 초·중·고 학부모</p>	<p>• (삭제) ③ 유아·초등학생 적정 학습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 법제화 • (삭제) ④ 중학교 자유학년제 도입 • (삭제) ⑤ 단계적 고교체제 개편(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일반고와 임시 등시 실시 등) • (추가) ⑥ 학생기록부 신뢰성 강화 • (추가) ⑩ 직업교육 강화 및 고졸 취업 활성화 • (추가) ⑪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키워주는 학교공간 혁신 추진 • (변경) ①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 ①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p>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하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② 은종일 돌봄교실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및 내실화→② 은종일 돌봄교실 확대 및 서비스 강화 • (변경) ⑥ 고교 학점제 도입 및 확대→③ 고교 학점제 도입 및 확대 • (변경) ⑦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④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 (변경) ⑧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 등 국가차원의 기초학력 보장 체계 구축 • (변경) ⑨ 교장공모제 확대 및 교원인사제도 개선→⑦ 교원양성 제도 개선 및 교원 역량 제고 ⑩ 교사 교육프로그램·교육시설 질 균등화 • (변경) ⑪ 소프트웨어교육 내실화 및 선도 학교 교원 육성→⑧ SW 및 융합교육 강화 • (변경) ⑫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⑨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 (변경) ⑬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의 강화→⑫ 지방교육자치 강화
	2020	-	<p>자녀 있는 집단/초·중·고 학부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 ④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 (추가) ③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추가) ⑤ 교과서열화 해소 및 일반교 역량 강화 • (추가) ⑩ 온라인 수업 확대 및 질적 강화 • (변경) ② 은종일 돌봄교실 확대 및 서비스 강화→② 은종일 돌봄정책 확대 및 서비스 강화 • (변경) ③ 고교 학점제 도입 및 확대→④ 고교 학점제 도입 및 확대 • (변경) ⑤ 학생기록부 신뢰성 강화→⑥ 학교 생활기록부 신뢰도 강화 • (변경) ⑫ 지방교육자치 강화→⑫ 지방교육자치 강화 및 학교자치 활성화 • (변경) ⑥ 국가차원의 기초학력 보장 체계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하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p>3. 다음의 현 정부 고등교육정책 중 정부가 앞으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를 순위대로 선택하여 주십시오.</p> <p>1순위 _____ 2순위 _____</p> <p>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②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회균형 선발 의무화 ③ 등록금 부담 경감 ④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 확충 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⑥ 지방대학-지자체 협력기반의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원 ⑦ 전문대학 지원 확대 ⑧ 대학의 자율적 기반을 토대로 한 대학 혁신 지원 ⑨ 대학의 혁신적 연구 역량 제고 및 학술생태계 조성 지원 ⑩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및 효율적 배분 ⑪ 잘 모르겠다</p>	<p>2017</p>	<p>[신규문항] 현 정부 국정과제 중 교육관련 세부 정책들입니다.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고등·평생 교육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를 순위대로 선택하여 주십시오.</p>	<p>자녀 있는 집단/ 대학생 학부모</p>	<p>구축→⑦ 국가위원의 기초학력 보장 체제 구축 • (변경) ⑦ 교원양성 제도 개선 및 교원 역량 제고→⑧ 교원양성 제도 개선 및 교원 역량 제고 • (변경) ⑧ SW 및 융합교육 강화→ ⑨ SWAI 교육 및 융합교육 강화 • (변경) ⑨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⑩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p>
<p>3. 다음의 현 정부 고등교육정책 중 정부가 앞으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를 순위대로 선택하여 주십시오.</p> <p>1순위 _____ 2순위 _____</p> <p>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②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회균형 선발 의무화 ③ 등록금 부담 경감 ④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 확충 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⑥ 지방대학-지자체 협력기반의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원 ⑦ 전문대학 지원 확대 ⑧ 대학의 자율적 기반을 토대로 한 대학 혁신 지원 ⑨ 대학의 혁신적 연구 역량 제고 및 학술생태계 조성 지원 ⑩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및 효율적 배분 ⑪ 잘 모르겠다</p>	<p>2018</p>	<p>• (질문 수정) → 현 정부 국정과제 중 교육관련 세부 정책들입니다.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고등·평생 교육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를 순위대로 선택하여 주십시오.</p>	<p>자녀 있는 집단/ 대학생 학부모</p>	<p>• (추가) ⑪마이스터고, 특성학교 지원 등 현장 중심 직업교육 강화 • (변경) ⑥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 및 지역 강소 대학 지원 확대→ ⑦ • (변경) ⑦대학 재정지원사업 전면 개편→ ⑧ • (변경) ⑩한국형 무크(K-MOOC) 강좌 확대 → ⑩한국형 무크 강좌 등 온라인 평생교육</p>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하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 수정) → 현 정부 고등·평생·직업 교육정책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를 순위대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p>자녀 있는 집단/대학생 학부모</p>	<p>콘텐츠 및 인프라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① 대학-공공기관-지자체 연계 및 대학 내 기업·연구소 입주 등 산학협력 활성화 → ⑫ • (삭제) ②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 • (삭제) ⑥ 대학 재정지원사업 전면 개편 • (삭제) ⑥ 공영형 사립대 전환 및 육성 • (삭제) ⑩ 한국형 무크 강좌 등 온라인 평생교육 콘텐츠 및 인프라 확대 • (삭제) ⑪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지원 등 현장 중심 직업교육 강화 • (삭제) ⑫ 대학-공공기관-지자체 연계 및 대학 내 기업·연구소 입주 등 산학협력 활성화 • (추가) ⑥ 지역 강소대학 지원 확대 • (추가) ⑧ 대학의 자율적 기반을 토대로 한 대학 혁신 지원 • (추가) ⑨ 대학의 혁신적 연구 역량 제고 및 학술생태계 조성 지원 • (변경) ① 복잡한 대입전형 단순화 추진 및 적용 → ① 대입전형 단순화 추진 • (변경) ③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회균형 선별 의무화 → ② • (변경) ④ 대학생이 체감하는 등록금 부담 경감 → ③ 등록금 부담 경감 • (변경) ⑤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 확충 → ④ • (변경) ⑦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 및 지역 간 소대학 지원 확대 → ⑤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 • (변경) ⑨ 전문대학 지원 확대 및 공영형 전문대 운영으로 직업교육 지역거점 육성 → ⑦ 전문대학 지원 확대
	20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 ① 대입전형 단순화 추진 • (삭제) ⑥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 • (삭제) ⑥ 지역 강소대학 지원 확대 • (추가) 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하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p>4. 다음의 현 정부 평생·직업교육정책 중 정부가 앞으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를 순위대로 선택하여 주십시오.</p> <p>1순위 _____ 2순위 _____</p> <p>① 중등 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고졸 취업 활성화 ② 한국형 무크 강좌 등 온라인 평생교육 콘텐츠 및 인프라 확대 ③ 생애단계별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 ④ 대학 장년 및 산학협력 활성화 ⑤ 대학의 평생교육기능 강화 ⑥ 재직자의 대학교육 지원 강화 ⑦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확대 ⑧ 평생학습도시 등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 ⑨ 잘 모르겠다</p>	<p>2017</p>	<p>[신규문항] 현 정부 국정과제 중 교육관련 세부 정책들입니다.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고등·평생 교육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를 순위대로 선택하여 주십시오.</p>	<p>자녀 있는 집단/대학생 학부모</p>	<p>• (추가) 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 (추가) ⑥ 지방대학-지자체 협력기반의 지역 혁신체계 구축지원 • (추가) ⑩ 고등교육 제정 확충 및 효율적 배분</p> <p>[신규문항 선택지] ① 복잡한 대입전형 단순화 추진 및 적용 ②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 ③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회균형 선발 의무화 ④ 대학생이 체감하는 등록금 부담 경감 ⑤ 대학생 기술사 수용인원 확충 ⑥ 가점 국립대 집중 육성 및 지역 강소대학 지원 확대 ⑦ 대학 재정지원사업 전면 개편 ⑧ 공영형 사립대 전환 및 육성 ⑨ 전문대학 지원 확대 및 공영형 전문대 운영으로 직업교육 지역거점 육성 ⑩ 한국형 무크(K-MOOC) 강좌 확대 ⑪ 대학-공공기관-지자체 연계 및 대학 내 기업·연구소 입주 등 산학협력 활성화 ⑫ 잘 모르겠다</p>
<p>4. 다음의 현 정부 평생·직업교육정책 중 정부가 앞으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를 순위대로 선택하여 주십시오.</p> <p>1순위 _____ 2순위 _____</p> <p>① 중등 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고졸 취업 활성화 ② 한국형 무크 강좌 등 온라인 평생교육 콘텐츠 및 인프라 확대 ③ 생애단계별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 ④ 대학 장년 및 산학협력 활성화 ⑤ 대학의 평생교육기능 강화 ⑥ 재직자의 대학교육 지원 강화 ⑦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확대 ⑧ 평생학습도시 등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 ⑨ 잘 모르겠다</p>	<p>2018</p>	<p>• (질문 수정) → 현 정부 국정과제 중 교육관련 세부 정책들입니다.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고등·평생 교육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를 순위대로 선택하여 주십시오.</p>	<p>자녀 있는 집단/대학생 학부모</p>	<p>• (추가) ①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지원 등 현장 중심 직업교육 강화 • (변경) ⑥가점 국립대 집중 육성 및 지역 고소대학 지원 확대 → ⑦ • (변경) ⑦대학 재정지원사업 전면 개편 → ⑥ • (변경) ⑩한국형 무크(K-MOOC) 강좌 확대 → ⑩한국형 무크 강좌 등 온라인 평생교육 콘텐츠 및 인프라 확대 • (변경) ⑪대학-공공기관-지자체 연계 및 대학 내 기업·연구소 입주 등 산학협력 활성화 → ⑫</p>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하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 수정) → 현 정부 고등·평생·직업 교육정책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를 순위대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p>자녀 있는 집단/ 대학생 학부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 ① 복잡한 대입전형 단순화 추진 및 적용 • (삭제) ②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 • (삭제) ③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회균형 선발 의무화 • (삭제) ④ 대학생이 체감하는 등록금 부담 경감 • (삭제) ⑤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 확충 • (삭제) ⑥ 대학 재정지원사업 전면 개편 • (삭제) ⑦ 가점 국립대 집중 육성 및 지역 강소대학 지원 확대 • (삭제) ⑧ 공영형 사립대 전환 및 육성 • (변경) ⑨ 전문대학 지원 확대 및 공영형 전문대 운영으로 직업교육 지역거점 육성 → ① 전문대학 역량 강화를 통한 직업교육 지역거점 육성 • (변경) ⑩ 한국형 무크 강좌 등 온라인 평생교육 콘텐츠 및 인프라 확대 → ② • (변경) ⑪ 마이스티고, 특성화고 지원 등 현장 중심 직업교육 강화 → ③ 생애단계별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 • (변경) ⑫ 대학-공공기관-지자체 연계 및 대학 내 기업·연구소 입주 등 산학협력 활성화 → ④ 대학 창업 및 산학협력 활성화 • (추가) ⑤ 대학의 평생교육기능 강화 • (추가) ⑥ 재직자의 대학교육 지원 강화 • (추가) ⑦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확대 • (추가) ⑧ 평생학습도시 등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
	2020	-	<p>자녀 있는 집단/ 대학생 학부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① 전문대학 역량 강화를 통한 직업교육 지역거점 육성 → ① 중등 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고졸 취업 활성화
<p>5. 현 정부에서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중 정부가 앞으로 더 중</p>	2020	<p>[신규문항] 현 정부에서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p>	<p>[신규문항 선택지] ① 국립유치원의 지속적 확충 및 설립 유</p>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하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p>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① 국공립 유치원의 지속적 확충 및 설립 유형(매입형, 부모협동형 등) 다양화 ② 건강안전관리 등 책임을 강화한 '학부모 안심유치원' 확대 ③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화 운영을 위한 사립 유치원 K-에듀파인 전면 도입 ④ 교비회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처벌 근거 신설 등 유치원 3법 강력 시행 ⑤ 누리과정 지원 단계 인상 등 유치원비 안정화 추진 ⑥ 유아놀이 중심의 개정 누리과정 현장 인착 ⑦ 방과후 과정 확대, 돌봄시간 다양화 등 돌봄 서비스 내실화 ⑧ 잘 모르겠다</p>		<p>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중 정부가 앞으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형(매입형, 부모협동형 등) 다양화 ② 건강안전관리 등 책임을 강화한 '학부모 안심유치원' 확대 ③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화 운영을 위한 사립 유치원 K-에듀파인 전면 도입 ④ 교비회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처벌 근거 신설 등 유치원 3법 강력 시행 ⑤ 누리과정 지원 단계 인상 등 유치원비 안정화 추진 ⑥ 유아놀이 중심의 개정 누리과정 현장 인착 ⑦ 방과후 과정 확대, 돌봄시간 다양화 등 돌봄 서비스 내실화 ⑧ 잘 모르겠다</p>
<p>6. 현재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를 평가한다면 어떤 성적을 주시겠습니까?</p> <p>초·중·고 전반 _____ 초등학교 _____ 중학교 _____ 고등학교 _____</p> <p>① 매우 잘하고 있다(A) ② 잘하고 있다(B) ③ 보통이다(C) ④ 못하고 있다(D) ⑤ 전혀 못하고 있다(E)</p>	<p>2006</p> <p>2008</p> <p>2010</p> <p>2011</p>	<p>[신규문항]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평가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수,우,미,양'가의 형태로 성적을 매기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평가한다면 어떤 성적을 주시겠습니까?</p>	<p>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p> <p>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p> <p>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p> <p>초·중·고 학부모</p>	<p>[신규문항 선택지] ①수(매우잘함) ②우(어느 정도 잘함) ③미(보통) ④양(별로 못함) ⑤가(전혀 못함) ⑥잘 모르겠다</p> <p>-</p> <p>• (추가) 100점 만점 점수 환산</p> <p>• (삭제) 100점 만점 점수 환산</p>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하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2012	-	초·중·고 학부모	-	
	2013-1	-	초·중·고 학부모	-	
	2015	-	초·중·고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 ⑨ 잘 모르겠다 	
	2016	-	초·중·고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① 수 (매우 잘하고 있다) → ①A (매우 잘하고 있다) • (변경) ② 우 (잘하고 있다) → ②B (잘하고 있다) • (변경) ③ 미 (보통이다) → ③C (보통이다) • (변경) ④ 양 (못하고 있다) → ④D (못하고 있다) • (변경) ⑥ 가 (전혀 못하고 있다) → ⑥E (전혀 못하고 있다) 	
	2017	-	초·중·고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①A (매우 잘하고 있다) → ① 매우 잘하고 있다 (A) • (변경) ②B (잘하고 있다) → ② 잘하고 있다 (B) • (변경) ③C (보통이다) → ③ 보통이다 (C) • (변경) ④D (못하고 있다) → ④ 못하고 있다 (D) • (변경) ⑥E (전혀 못하고 있다) → ⑥ 전혀 못하고 있다 (E) 	
	2018	-	-	-	
	2019	-	-	-	
	2020	-	-	-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하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p>7. 국민들로부터 학교가 '잘하고 있다(A+B)'는 평가를 받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 선택하여 주십시오(학교급별 동일항목 선택 가능).</p> <p>초·중·고 전반 _____ 초등학교 _____ 중학교 _____ 고등학교 _____</p> <p>① 수업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 ②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학생지도(인성, 안전 등) 활동 ③ 진로교육 및 진학지도 강화 ④ 우수한 교사 확보 및 배치 ⑤ 좋은 교육시설 ⑥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협력적 관계 형성 ⑦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 ⑧ 기타 _____</p>	<p>2011</p> <p>[신규문항] 국민들로부터 학교가 '수(매우 잘하고 있다)'를 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p>	<p>초·중·고 학부모</p>	<p>[신규문항 선택지] ① 수업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 ② 우수한 교사 확보 및 배치 ③ 좋은 교육시설과 환경의 제공 ④ 학생을 위한 친절한 상담 활동 ⑤ 학부모와의 좀 더 협력적 관계 형성 ⑥ 기타 _____</p>	
	2012	-	초·중·고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④ 학생을 위한 친절한 상담활동 → ④ 학생을 위한 친절한 상담 및 학생지도 (인성, 안전) 활동
	2013-1	-	초·중·고 학부모	
	2014-1	-	초·중·고 학부모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 순위(1, 2위) • (추가) 학교급(초, 중, 고) 	초·중·고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⑤ 학부모와의 좀 더 협력적 관계 형성 → ⑤ 학부모와의 협력적 관계 형성 강화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 수정) '수(매우 잘하고 있다)'를 받기 위해 → '잘하고 있다(A+B)'는 평가를 받기 위해 	초·중·고 학부모	-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학교급 추가) 초·중·고 전반 	초·중·고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③ 진로교육 및 진학지도 강화 • (변경) ④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학생지도(인성, 안전) 활동 → ② • (변경) ② 우수한 교사 확보 및 배치 → ④ • (변경) ③ 좋은 교육시설과 환경의 제공 → ⑤ • (변경) ⑤ 학부모와의 협력적 관계 형성 → ⑥ • (변경) ⑥ 기타 → ⑦
	2018	-	-	-
	2019	-	초·중·고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⑤ 좋은 교육시설과 환경의 제공 → ⑤ 좋은 교육시설 • (변경) ⑥ 학부모와의 협력적 관계 형성 → ⑥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형성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하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2020	-	초·중·고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⑦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 • (추가) ② 학생 성장 중심으로 평가 방법 개선 • (변경) ②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학생지도(인성, 안전 등) 활동→③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학생지도(인성, 안전 등) 활동 • (변경) ③ 진로교육 및 진학지도 강화→④ 진로교육(진학 및 취업지도 포함) 강화 • (변경) ④ 우수한 교사 확보 및 배치→⑥ 우수 한 교사 확보 및 배치 • (변경) ⑤ 좋은 교육시설→⑥ 좋은 교육시설 • (변경) ⑥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협력적 관계 형성→⑦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협력적 관계 형성 • (변경) ⑦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⑧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
8. 자녀가 다닐 학교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다음의 요소 중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겠습니까?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 선택하여 우선시요(학교급별 동일항목 선택 가능).	1999	<p>[신규문항] (자녀가 있는 대상만 응답)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자녀가 다닐 학교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다음의 요소 중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겠습니까? 학교급별로 하나만 표 해 주십시오. 학교급 (초, 중, 고)</p> <p>* 두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질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계속 다닐지 여부, 옮기고 싶다면 이유 2.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자녀가 다닐 학교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 (자녀가 있다고 가정하고 응답) 	학교급별 학부모	<p>[신규문항 선택지] 학교 명칭이나 전통 교원의 질적 수준 상급학교 진학 실적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 학교시설 및 주변환경 통학거리</p>
	2001		학교급별 학부모	-
	2010		초·중·고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⑧ 기타 • (변경) 학교시설 및 주변 환경→ ⑤ 학교시설.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하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기타 학부모	⑥지역환경 및 여건으로 분리
2011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학교급 중 '대학교' 추가 • (질문 수정)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서 '삭제' 	학교급별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⑤졸업후 해당학교의 취업 실적 • (변경) ⑤학교시설 → ⑥ • (변경) ⑥지역환경 및 여건 → ⑦ • (변경) ⑥기타 → ⑨
2012		2012	-	학교급별 학부모	
2013-1		2013-1	-	학교급별 학부모	
2014-1		2014-1	-	학교급별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⑨ 교육비 • (변경) ⑥학교시설 → ④ • (변경) ⑦지역환경 및 여건 → ⑤ • (변경) ⑥통학거리 → ⑥ • (변경) ④상급학교 진학 실적 → ⑦ • (변경) ⑥졸업후 해당학교의 취업실적 → ⑧ 졸업생의 취업 실적 • (변경) ⑨기타 → ⑩
2015		2015	-	학교급별 학부모	
2016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학교급별 중복선택 가능) 	학교급별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④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 지도 • (추가) ⑤인성교육 • (변경) ④학교시설 → ⑥ • (변경) ⑤지역 환경 및 여건 → ⑦ • (변경) ⑥통학 거리 → ⑧ • (변경) ⑦상급학교 진학 실적 → ⑨ • (변경) ⑧졸업생의 취업 실적 → ⑩ • (변경) ⑨교육비 → ⑪ • (변경) ⑩기타 → ⑫
2017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 수정) (학교급별 중복선택 가능) → (학교급별 동일항목 선택 가능) 	학교급별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⑨ 학교 인건(문화) • (변경) ⑨상급학교 진학 실적 → ⑩ • (변경) ⑩졸업생의 취업 실적 → ⑪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하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2018	-	학교급별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⑩교육비→ ⑫ • (변경) ⑫기타→ ⑬ • (추가) ⑥민주적인 학교문화 • (변경) ⑥학교시설→ ⑦ • (변경) ⑦학교 주변의 환경 및 여건→ ⑧ • (변경) ⑧통학거리→ ⑨ • (변경) ⑨학교 안전(문화)→ ⑩ • (변경) ⑩상급학교 진학 실적→ ⑪ • (변경) ⑪졸업생의 취업 실적→ ⑫ • (변경) ⑫교육비→ ⑬ • (변경) ⑬기타 → ⑭
	2019	-	학교급별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④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 지도→④ 진로지도 • (변경) ⑩ 학교 안전(문화)→⑩ 학교 안전
	2020	-	학교급별 학부모	-
9. 초·중·고등학교의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01	[신규문항]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요?	초·중·고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문항 선택지] ① 교원의 전문성을 높인다 ② 집단 따돌림, 폭력 등 문제 학생에 대한 생활 지도를 개선한다 ③ 대학 입학 제도를 개선한다 ④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인다 ⑤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세우는 등 초·중·고등학교를 다양화한다 ⑥ 학벌 위주의 사회 체제를 바꾼다 ⑦ 기타 _____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벌 위주의 사회체제 개선 ② 대입 선발 방식 개선 ③ 교원의 전문성 제고 ④ 교육내용의 선택권 확대 ⑤ 진로교육 강화 ⑥ 수업방식의 다양화 ⑦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 ⑧ 기타 _____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 수정)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요? → 초·중·고등학교의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초·중·고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 ②집단 따돌림, 폭력 등 문제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개선한다 • (변경) ⑥학벌 위주의 사회 체제를 바꾼다→ ① • (변경) ③대학 입학 제도를 개선한다→ ②집 수 위주의 대입 선발 방식을 바꾼다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하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①교원의 전문성을 높인다→ ③교원의 명예와 전문성을 높인다 • (변경) ⑤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세우는 등 초·중·고등학교를 다양화한다→ ⑤특수목적 고등학교(과학고, 외국어고 등)를 확대하여 세우는 등, 학교 유형을 다양화한다
	2008	-	초·중·고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④학급당 학생 수를 줄인다→ ④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환경을 개선한다 • (변경) ⑥특수목적 고등학교(과학고, 외국어고 등)를 확대하여 세우는 등, 학교 유형을 다양화한다→ ⑥고등학교의 유형을 다양화한다(기숙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등)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 수정) 초·중·고등학교의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공교육기관인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초·중·고 학부모	-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 수정) 공교육기관인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삭제) 두 가지 선택 	초·중·고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④교육내용 및 수업방식을 다양화한다 • (삭제) ⑤고등학교의 유형을 다양화한다(기숙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등) • (변경) ④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환경을 개선한다 → ⑤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을 개선한다
	2018	-	-	-
	2019	-	초·중·고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① 학벌 위주의 사회체제를 비꾼다→ ① 학벌 위주의 사회체제 개선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허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② 점수 위주의 대입 선발 방식을 비교다→② 대입 선발 방식 개선 • (변경) ③ 교원의 열의와 전문성을 높인다→③ 교원의 전문성 제고 • (변경) ④ 교육내용 및 수업방식을 다양화 한다→④ 교육내용의 선택권 확대 • (변경) ④ 교육내용 및 수업방식을 다양화 한다→⑤ 수업방식의 다양화 • (변경) 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을 개선한다→⑥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 • (추가) ⑤ 진로교육 강화 • (변경) ⑤ 수업방식의 다양화→⑥수업방식의 다양화 • (변경) ⑥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⑦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
<p>10. (초·중·고 학부모의 경우) 자녀를 외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유학을 보낼 생각이 있으십니까? 초·중·고 전반 _____ 초등학교 _____ 중학교 _____ 고등학교 _____ ① 보낼 생각이 있다 ② 보낼 생각이 없다 ③ 잘 모르겠다</p>	2020	-		
	2006	[신규문항] 자녀가 있다고 가정하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여건이 되신다면 자녀를 외국의 초등학교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조기 유학을 보낼 생각이 있으십니까?	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	[신규문항 선택지] ① 보낼 생각이 있다 ② 보낼 생각이 없다 ③ 잘 모르겠다
	2008	-	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	-
	2010	• (질문 수정) 조기 유학→ 유학	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	-
	2011	• (질문 수정) 여건이 되신다면 자녀를 외국의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유학을 보낼 생각이 있으십니까?	초·중·고 학부모	-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하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2012	-	초·중·고 학부모	-
	2013-1	-	초·중·고 학부모	-
	2014-1	-	초·중·고 학부모	-
	2015	-	초·중·고 학부모	-
	2016	• (추가) 학교급(초, 중, 고)	초·중·고 학부모	-
	2017	• (질문 수정) 자녀를 외국의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 자녀를 외국의 초·중·고등학교에 • (추가) 학교급(초·중·고 전변)	초·중·고 학부모	-
	2018	-	-	-
	2019	• (질문 수정) 여권이 되신다면 자녀를 외국의 초·중·고등학교에 → (초·중·고 학부모의 경우) 자녀를 외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초·중·고 학부모	-
	2020	-	-	-
	10-1. (자녀의 조기유학을) 보낼 생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자녀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 ② 외국어 학습 또는 자녀의 조기 다중언어 구사를 위해 ③ 경쟁 위주의 학교환경에 대한 불만 ④ 우리나라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 ⑤ 사교육에 대한 부담 ⑥ 기타 _____	2019	[신규문항] (자녀의 조기유학을) 보낼 생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초·중·고 학부모	<p>[신규문항 선택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경쟁 위주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 ② 우리나라 학교환경에 대한 불만 ③ 보다 우수한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 ④ 자녀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 ⑤ 외국어 학습 또는 자녀의 조기 다중언어 구사를 위해 ⑥ 사교육에 대한 부담 ⑦ 기타 _____
	2020	-	초·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 ③보다 우수한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하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2019 설문 문항	11.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각각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네 가지 측면</th> <th>매우 있다</th> <th>있다</th> <th>보통이다</th> <th>없다</th> <th>전혀 없다</th> </tr> </thead> <tbody> <tr> <td>(1) 일관성</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2) 장기적 비전</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3) 우리나라 여건에의 적합성</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4) 국민여론 반영</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body> </table>	네 가지 측면	매우 있다	있다	보통이다	없다	전혀 없다	(1) 일관성	①	②	③	④	⑤	(2) 장기적 비전	①	②	③	④	⑤	(3) 우리나라 여건에의 적합성	①	②	③	④	⑤	(4) 국민여론 반영	①	②	③	④	⑤	2017	[신규문항]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각각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초·중·고 학부모	[신규문항 선택지] (1)일관성 (2)장기적 비전 (3)우리나라 여건에의 적합성 (4)국민여론 반영
		네 가지 측면	매우 있다	있다	보통이다	없다	전혀 없다																												
		(1) 일관성	①	②	③	④	⑤																												
		(2) 장기적 비전	①	②	③	④	⑤																												
		(3) 우리나라 여건에의 적합성	①	②	③	④	⑤																												
		(4) 국민여론 반영	①	②	③	④	⑤																												
		2018	-	-	-	-																													
		2019	-	-	-	-																													
		2020	-	-	-	-																													
		2018	[신규문항]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측면을 가장 중점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초·중·고 학부모	[신규문항 선택지] ① 일관성 ② 장기적 비전 ③ 우리나라 여건에의 적합성 ④ 국민여론 반영 ⑤ 잘 모르겠다																														
		2019	-	초·중·고 학부모	-																														
2020	-	초·중·고 학부모	-																																
2019	[신규문항]	초·중·고 학부모	[신규문항 선택지]																																
2019	12. 현 정부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교교체제 개편, 학사비리 근절 노력 등 교육	2019	[신규문항]	초·중·고 학부모	[신규문항 선택지]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하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p>육신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교육신뢰회복 노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p> <p>① 매우 잘하고 있다 ② 잘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못하고 있다 ⑤ 전혀 못하고 있다</p>	2020	<p>현 정부는 대학의 학사 부정 실태 조사, 체육계 비리 관련 대학 종합감사, 교수 감질 및 자녀 입학비리 조사, 미성년 논문 부정 관련 특별 감사 등을 위해 교육부에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교육신뢰회복 노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p> <p>• (질문 수정) 대학의 학사 부정 실태 조사, 체육계 비리 관련 대학 종합감사, 교수 감질 및 자녀 입학비리 조사, 미성년 논문 부정 관련 특별 감사 등을 위해 교육부에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고교체제 개편, 학사비리 근절 노력 등 교육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p>		<p>① 매우 잘하고 있다 ② 잘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못하고 있다 ⑤ 전혀 못하고 있다</p>
<p>12. 현 정부는 중장기 교육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 교육정책의 정치·독립성 보장 및 국민적 참여와 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독립적 행정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국가교육위원회 역할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① 교육비전 및 중장기 정책방향 마련 ②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③ 국가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 수립 ④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및 조정 ⑤ 기타</p>	2019	<p>[신규문항]</p> <p>현 정부는 중장기 교육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 교육정책의 정치·독립성 보장 및 국민적 참여와 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독립적 행정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국가교육위원회 역할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신규문항 선택지]</p> <p>① 미래 사회 대비 국가 교육 비전 및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② 국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제, 교원정책, 대학입학정책의 장기적 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 ③ 교육과정의 연구·개발·고시에 관한 사항 ④ 지방교육자치 강화 지원 및 조정, 교육과 지역사회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⑤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⑥ 기타</p>
	2020	<p>• (질문 수정) 중장기 교육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 교육정책의 정치·독립성 보장 및 국민적 참여와 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장기적 교육비전 마련</p>		<p>• (변경) ① 미래 사회 대비 국가 교육 비전 및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① 교육비전 및 중장기 정책방향 마련 • (변경) ② 국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제, 교원정책, 대학입학정책의 장기적 방향 수립에 관</p>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하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몇 일만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한 사항→② 증장기 교육제도 개선 • (변경)③ 교육과정의 연구·개발·고시에 관한 사항→③ 국가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 수립 • (변경)⑤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④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2. 교사 14.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고 계십니까? 초·중·고 전반 _____ 초등학교 _____ 중학교 _____ 고등학교 _____ ① 매우 신뢰한다 ② 신뢰한다 ③ 보통이다 ④ 신뢰하지 못한다 ⑤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	2011 2012 2013-1 2014-1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신규문항]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교직 자문서의 능력과 태도를 어느 정도 신뢰하고 계십니까? • (질문 수정)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신규문항 선택지] ① 매우 신뢰한다 ② 어느 정도 신뢰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신뢰하지 못한다 ⑤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 ⑥ 잘 모르겠다 - - - - • (삭제) ⑥ 잘 모르겠다 - - - - - - - - - -
• (추가) 학교급(초·중·고 전반, 초, 중,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하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15.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 선택하여 주십시오(학교급별 동일항목 선택 가능). 초·중·고 전반 _____ 초등학교 _____ 중학교 _____ 고등학교 _____ ① 학습 지도 능력 ② 생활 지도 능력 ③ 진로·진학지도 능력 ④ 학급 경영 능력 ⑤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 능력 ⑥ 기타 _____	2014-1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고) [신규문항]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위(1, 2, 3위) • (삭제) 순위 (1, 2, 3위) • (추가) 학교급 (초, 중, 고) - • (질문 수정)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 선택하여 주십시오(학교급별 중복선택 가능)→ 학교급별 응답시 동일항목 선택이 가능합니다. • (추가) 학교급 (초·중·고 전반)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학교급별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학교급별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학교급별 학부모 - 초·중·고 학부모/학교급별 학부모 -	[신규문항 선택지] ① 학습 지도 능력 ② 생활 지도 능력 ③ 진로 지도 능력 ④ 의사소통 능력 ⑤ 기타 _____ • (추가) ④학급 경영 능력 • (변경) ④의사소통 능력→ ⑤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 능력 • (변경) ⑥기타 _____ → ⑥ • (변경) ③진로 지도 능력→ ③ 진로·진학지도 능력
16. 교사자격증은 없지만, 현장경험 등이 있는 전문기를 초·중·고등학교의 교사로 일정비율 채용하는 장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중·고 전반 _____ 초등학교 _____ 중학교 _____ 고등학교 _____	2008	[신규문항] 일정 이상 학력을 갖추고 다양한 분야의 직업 경력이 있는 사람을 교직 과정 연수 후 일정 비율 교사로 채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중·고 학부모/기타 학부모	[신규문항 선택지]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하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2010	• (질문 수정) → 교사자격증은 없지만 대학(원)에서 관련 분야를 졸업하고 현장경험 등이 있는 진문가를 초·중·고등학교의 교사로 일정비용 초빙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문 수정) 교사자격증은 없지만 대학(원)에서 관련 분야를 졸업하고 현장경험 등이 있는 진문가를 → 교사자격증은 없지만 현장경험 등이 있는 진문가를	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
17. 자녀가 초·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긍정적으로 본다 ② 부정적으로 본다 ③ 잘 모르겠다	2011	[신규문항] 귀하는 자녀가 초·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될 것을 희망하십니까? 이 될 것을 희망하십니까?	자녀 있는 집단 자녀 있는 집단	[신규문항 선택지] ①예 ②아니오 ③잘 모르겠다 • (변경) ①예→① 긍정적으로 본다 • (변경) ②아니오→② 부정적으로 본다
17. 자녀가 초·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긍정적으로 본다 ② 부정적으로 본다 ③ 잘 모르겠다	2012	• (질문 수정) 귀하는 자녀가 초·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될 것을 희망하십니까? →귀하의 자녀가 초·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 있는 집단	• (변경) ①예→① 긍정적으로 본다 • (변경) ②아니오→② 부정적으로 본다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하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2019 설문 문항 18.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부모 등)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심각하다 ③ 보통이다 ④ 심각하지 않다 ⑤ 전혀 심각하지 않다	2013	-	자녀 있는 집단	-
	2014-2	-	자녀 있는 집단	-
	2017	-	자녀 있는 집단	-
	2019	-	자녀 있는 집단	-
	2020	-	자녀 있는 집단	-
	[신규문항]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부모 등)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심각하다 ③ 보통이다 ④ 심각하지 않다 ⑤ 전혀 심각하지 않다	2019	[신규문항 선택지]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심각하다 ③ 보통이다 ④ 심각하지 않다 ⑤ 전혀 심각하지 않다	[신규문항 선택지]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심각하다 ③ 보통이다 ④ 심각하지 않다 ⑤ 전혀 심각하지 않다
3. 학생	2020	-		-
19.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학생의 타고난 능력 ② 학생의 노력과 열의 ③ 교사의 지도 ④ 학교나 학급의 학습 분위기 ⑤ 가정의 학습 환경 ⑥ 가정의 경제적 뒷받침	[신규문항] 학업 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17	[신규문항 선택지] ① 학생의 타고난 능력 ② 학생의 노력과 열의 ③ 교사의 지도 ④ 학교나 학급의 학습 분위기 ⑤ 가정의 학습 환경 ⑥ 가정의 경제적 뒷받침 ⑦ 기타 _____	초·중·고 학부모	[신규문항 선택지] ① 학생의 타고난 능력 ② 학생의 노력과 열의 ③ 교사의 지도 ④ 학교나 학급의 학습 분위기 ⑤ 가정의 학습 환경 ⑥ 가정의 경제적 뒷받침 ⑦ 기타 _____
	[신규문항] 학업 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17	[신규문항 선택지] ① 학생의 타고난 능력 ② 학생의 노력과 열의 ③ 교사의 지도 ④ 학교나 학급의 학습 분위기 ⑤ 가정의 학습 환경 ⑥ 가정의 경제적 뒷받침 ⑦ 기타 _____	초·중·고 학부모	[신규문항 선택지] ① 학생의 타고난 능력 ② 학생의 노력과 열의 ③ 교사의 지도 ④ 학교나 학급의 학습 분위기 ⑤ 가정의 학습 환경 ⑥ 가정의 경제적 뒷받침 ⑦ 기타 _____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허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⑦ 기타 _____	2018	-	초·중·고 학부모	-
	2019	-	초·중·고 학부모	-
20.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인성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초·중·고 전반 _____ 초등학교 _____ 고등학교 _____ ① 매우 높다 ② 높다 ③ 보통이다 ④ 낮다 ⑤ 매우 낮다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수정) 학업 성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초·중·고 학부모	-
	2012	[신규문항]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인성·도덕성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초·중·고 학부모	[신규문항] ① 매우 높다 ② 높다 ③ 보통이다 ④ 낮다 ⑤ 매우 낮다 ⑥ 잘 모르겠다
	2013-1	-	초·중·고 학부모	-
	2014-1	-	초·중·고 학부모	-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학교급(초·중·고 전반, 초, 중, 고) 	초·중·고 학부모/ 학교급별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 ⑥ 잘 모르겠다
	2016	-	초·중·고 학부모/ 학교급별 학부모	-
	2017	-	초·중·고 학부모/ 학교급별 학부모	-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허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2018	-	초·중·고 학부모/ 학교급별 학부모	-
	2019	• (질문 수정)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인성·도덕성 수준은 →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인성 수준은	초·중·고 학부모/ 학교급별 학부모	-
	2020	-	초·중·고 학부모/ 학교급별 학부모	-
	2015	[신규문항] 학생들이 좋은 인성을 갖도록 지도해야 할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초·중·고 학부모	[신규문항 선택지] ① 가정 ② 학교 ③ 사회
	2016	• (질문 수정) → 학생들이 좋은 인성을 갖도록 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초·중·고 학부모	• (추가) ②친구 • (추가) ①잘 모르겠다 • (변경) ②학교 → ③ • (변경) ③사회 → ④
	2017	-	초·중·고 학부모	-
	2018	-	초·중·고 학부모	-
	2019	-	초·중·고 학부모	-
	2020	-	초·중·고 학부모	-
	2018	[신규문항]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사회성(더불어 사는 능력)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초·중·고 전반 _____ 초등학교 _____ 중학교 _____ 고등학교 _____	[신규문항]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사회성(더불어 사는 능력)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초·중·고 전반	초·중·고 학부모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하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① 매우 높다 ② 높다 ③ 보통이다 ④ 낮다 ⑤ 매우 낮다			초등학교 _____ 중학교 _____ 고등학교 _____		④ 낮다 ⑤ 매우 낮다
		2019	• (질문 수정) 재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사회성(더불어 사는 능력) 수준은 →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시민의식(민주시민성) 수준은	초·중·고 학부모	-
23. 학생들이 시민의식(민주시민성)을 갖도록 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① 가정 ② 친구 ③ 학교 ④ 사회 ⑤ 잘 모르겠다		2020	-	초·중·고 학부모	-
		2018	[신규문항] 학생들이 민주시민성을 갖도록 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초·중·고 학부모	[신규문항 선택지] ① 가정 ② 친구 ③ 학교 ④ 사회 ⑤ 잘 모르겠다
24. 초·중·고 학생의 민주시민성 제고를 위해 학교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수업에서의 민주시민교육 강화 ②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③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 강화 ④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장려 ⑤ 잘 모르겠다		2019	[신규문항] 초·중·고 학생의 민주시민성 제고를 위해 학교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규문항 선택지] ① 민주시민교육 수업 강화 ②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③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장려 ④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⑤ 잘 모르겠다
		2020	• (질문 수정) 초·중·고 학생의 민주시민성 제고를 위해 → 초·중·고 학생의 시민의식(민주시민성) 제고를 위해	초·중·고 학부모	-
		2020		초·중·고 학부모	[신규문항 선택지] ① 민주시민교육 수업 강화 ②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 강화 ③ (추가) ③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 강화 ④ (변경) ① 민주시민교육 수업 강화 → ① 수업에서의 민주시민교육 강화 ⑤ (변경) ③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장려 → ④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장려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하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25. 2-3년 전과 비교해 볼 때 학교폭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심각하다 ③ 보통이다 ④ 심각하지 않다 ⑤ 전혀 심각하지 않다	2006	[신규문항]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	[신규문항 선택지] ①매우 효과 있음 ②어느 정도 효과 있음 ③보통 ④별로 효과 없음 ⑤전혀 효과 없음 ⑥전혀 아는 바가 없음
	2008	-	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	-
	2010	• (질문 수정) 해결하기 위한→ 인화하기 위한	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	• (변경) ⑥전혀 아는 바가 없음→ ⑥잘 모르겠음
	2011	• (질문 수정) 정부나 학교가 학교폭력 문제를 해소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초·중·고 학부모	• (변경) ①매우 효과 있음 → ①매우 그렇다 • (변경) ②어느 정도 효과 있음 → ②어느 정도 그렇다 • (변경) ③보통 → ③보통이다 • (변경) ④별로 효과 없음 → ④별로 그렇지 못하다 • (변경) ⑤전혀 효과 없음 → ⑤전혀 그렇지 못하다
	2012	-	초·중·고 학부모	-
	2013-1	-	초·중·고 학부모	-
	2014-1	-	초·중·고 학부모	-
	2015	• (질문 수정) 과거에 비해 학교폭력이 완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초·중·고 학부모	• (삭제) ⑥잘 모르겠다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하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2019 설문 문항	26. 학교폭력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경쟁적 교육제도(입시경쟁 등) ② 가정교육의 부재 ③ 학교의 학생지도 부족 ④ 대중매체(영화, 드라마, 인터넷, 게임 등)의 폭력성 ⑤ 학생 개인의 인성 문제 ⑥ 잘 모르겠다	2016	-	초·중·고 학부모	-
		2017	• (변경) 과거에 비해 → 2-3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초·중·고 학부모	-
		2018	-	초·중·고 학부모	-
		2019	• (변경) 2-3년 전과 비교해 볼 때 학교폭력은 어느 정도라고	초·중·고 학부모	• (변경) ① 매우 그렇다 → ① 매우 심각하다 • (변경) ② 그렇다 → ② 심각하다 • (변경) ③ 보통이다 → ③ 보통이다 • (변경) ④ 그렇지 못하다 → ④ 심각하지 않다 • (변경) ⑤ 전혀 그렇지 못하다 → ⑤ 전혀 심각하지 않다
		2020	-	초·중·고 학부모	-
		2012	[신규문항] 학교폭력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초·중·고 학부모	[신규문항 선택지] ① 점수 위주의 입시 경쟁체제 ② 가정교육의 부재 ③ 학교의 폭력방지 노력 부족 ④ 대중매체(인터넷, 게임 포함)의 폭력성 ⑤ 학생 개인 ⑥ 잘 모르겠다
		2013-1	-	초·중·고 학부모	-
		2014-1	-	초·중·고 학부모	-
		2014-2	-	초·중·고 학부모	-
		2015	-	초·중·고 학부모	• (변경) ① 점수 위주의 입시 경쟁 체제 → ① 성취위주의 입시경쟁 풍토 • (변경) ③ 학교의 폭력방지 노력 부족 → ③ 학교의 학생지도 부족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하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2016		초·중·고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④대중매체(인터넷, 게임 포함)의 폭력성 → ④대중 매체(영화, 드라마, 인터넷, 게임 포함)의 폭력성 • (변경) ⑤학생 개인 → 학생 개인의 인성 문제
	2017		초·중·고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①성적위주의 입시경쟁 풍토 → ①경쟁적 교육제도(입시경쟁 등)
	2018		초·중·고 학부모	
	2019		초·중·고 학부모	
	2020		초·중·고 학부모	
<p>27. (유·초·중·고 학부모의 경우) 현재 유·초·중·고등학교와 학부모의 소통이 원활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p>① 매우 원활하다 ② 원활하다 ③ 보통이다 ④ 원활하지 않다 ⑤ 전혀 원활하지 않다</p>		<p>[신규문항] (유·초·중·고 학부모의 경우) 현재 유·초·중·고등학교와 학부모의 소통이 원활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p>유·초·중·고 학부모</p>	<p>[신규문항 선택지] ① 매우 원활하다 ② 원활하다 ③ 보통이다 ④ 원활하지 않다 ⑤ 전혀 원활하지 않다</p>
<p>28. (유·초·중·고 학부모의 경우) 유·초·중·고등학교에서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보다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방식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p> <p>① 가정통신문 활용 ② 학교 홈페이지 활용 ③ 휴대문(문자, 앱 등) 및 SNS(블로그 등) 활용 ④ 교사(담임, 교장 등)와의 면담 ⑤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협의회 활용 ⑥ 기타 _____</p>		<p>[신규문항] (유·초·중·고 학부모의 경우) 유·초·중·고등학교에서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보다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방식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p>	<p>유·초·중·고 학부모</p>	<p>[신규문항 선택지] ① 가정통신문 활용 ② 학교 홈페이지 활용 ③ 휴대문(문자, 앱 등) 및 SNS(블로그 등) 활용 ④ 교사(담임, 교장 등)와의 면담 ⑤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협의회 활용 ⑥ 기타 _____</p>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하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4.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29. 초·중·고등학교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길러주기를 바라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 선택하여 주십시오(학교급별 동일항목 선택 가능). 초·중·고 전반 _____ 초등학교 _____ 중학교 _____ 고등학교 _____ ① 지식 ② 기술, 기능 ③ 사고력 ④ 창의력 ⑤ 기본생활습관 ⑥ 정서적 감수성 ⑦ 도덕성 ⑧ 사회성, 인간관계 ⑨ 민주시민성 ⑩ 건강, 체력 ⑪ 기타 _____	2017	[신규문항] 재나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길러주기를 바라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초·중·고 학부모	[신규문항 선택지] ① 지식 ② 기술, 기능 ③ 사고력 ④ 창의력 ⑤ 기본생활습관 ⑥ 정서적 감수성 ⑦ 도덕성 ⑧ 사회성, 인간관계 ⑨ 리더십 ⑩ 건강, 체력 ⑪ 기타 _____	
	30. 초·중·고등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 할 교과는 무엇인지 보기 중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을 선택하여 주십시오(학교급별 동일항목 선택 가능). 초등학교 _____ 중학교 _____ 고등학교 _____	2018	• (질문 수정) 초·중·고등학교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길러주기를 바라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 선택하여 주십시오(학교급별 동일항목 선택 가능). • (추가) 학교급(초중고 전반, 초, 중, 고)	초·중·고 학부모/ 학교급별 학부모	-
	2019	-	초·중·고 학부모/ 학교급별 학부모	• (변경) ⑨ 리더십 → ⑩ 민주시민성	
	2020	-	초·중·고 학부모/ 학교급별 학부모	-	
	1999	[신규문항] 21세기를 맞이하여 초·중등학교가 현재보다 특히 더 중시해야 할 교육 내용이 무엇인지 보기에서 각각 세 가지씩 골라 _ _ _ _ 에 번호를 써 주십시오. 학	초·중·고 학부모/ 학교급별 학부모	[신규문항 선택지] - 환경교육 - 성교육 - 외국어교육 - 한자교육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하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① 국어 ② 사회(역사/도덕 포함) ③ 수학 ④ 과학 ⑤ 사회(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 ⑥ 예술(음악, 미술, 연극) ⑦ 영어 ⑧ 한국사 ⑨ 기술·가정 ⑩ 기계·SW·디자인·농업 등 전문교과 ⑪ 제2외국어 ⑫ 한문 ⑬ 교양(철학, 진로와 직업, 환경 등) ⑭ 기타			교급(초, 중, 고)		-컴퓨터교육 -통일교육 -진로교육 -예술교육
		2001	• (질문 수정) 초·중등학교가 → 초·중·고등학교가 • (추가) 순위(1, 2, 3위) 추가	-	• (추가) 9.시민교육(예: 타인존중, 공공질서 교육) • (추가) 10.국제이해교육(예: 외국문화 이해) • (변경) 예절교육 → 8.인성교육
		2006	• (질문 수정) 21세기를 맞이하여 → 앞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 할 교육 내용이 각각 무엇인지를 보기에서 골라 중요한 순서대로 번호를 써주세요. 학교급(초, 중, 고) 순위(1, 2, 3위)	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	-
		2008	-	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	-
		2010	-	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	• (추가) ①다문화 교육 • (추가) ②창의성 교육 • (추가) ③교과교육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 • (추가) ④예체능교육 • (추가) ⑤특기적성교육 • (추가) ⑥사회성교육 (인간관계능력, 사교성 등)
		2011	• (질문 수정) '앞으로' 삭제	학교급별 학부모	• (삭제) 컴퓨터 교육 • (삭제) 통일교육 • (삭제) 국제이해교육 • (삭제) 다문화교육 • (삭제) 사회성 교육 • (변경) ⑨교과교육 → ⑨국어교육, ⑩수학교육, ⑪과학교육으로 분리 • (변경) ⑩시민교육 → ⑤민주시민교육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하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2012	-	학교급별 학부모	-	
	2013-1	-	학교급별 학부모	-	
	2014-1	-	학교급별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⑭안전교육 • (추가) ⑮역사교육 • (추가) ⑯다문화 교육 	
		*'교과와 교육내용' 2문항으로 분리	학교급별 학부모	[교과목록]	
	2015	• (삭제) 순위 (1, 2, 3위)	학교급별 학부모	①국어, ②수학, ③영어, ④사회(역사/도덕 포함), ⑤한국사, ⑥과학, ⑦체육, ⑧예술(음악/미술), ⑨기술·가정, ⑩제2외국어, ⑪한문, ⑫교양	
	2016	-	학교급별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⑩정보(SW) • (추가) ⑬기타 • (변경) ②수학→③ • (변경) ③영어→⑦ • (변경) ④사회(역사/도덕포함)→② • (변경) ⑤한국사→⑧ • (변경) ⑥과학→④ • (변경) ⑦체육→⑤ • (변경) ⑧예술(음악/미술)→⑥ • (변경) ⑩제2외국어→⑪ • (변경) ⑪한문→⑫ • (변경) ⑫교양→⑬교양(한경 등) • (변경) ⑩정보(SW)→⑩정보(SW·코딩) 	
	2017	• (질문 수정) 학교급별 중복선택 가능 → 학교급별 동일항목 선택 가능	학교급별 학부모		
	2018	-	학교급별 학부모	-	
	2019	-	학교급별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⑤ 체육→⑤ 사회(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하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31. 초·중·고등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교육은 무엇인지 보기 중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을 선택하여 주십시오(학교급별 동일항목 선택 가능). 초등학교 _____ 중학교 _____ 고등학교 _____	2020	-	학교급별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⑩ 정보(SW·코딩)→⑩ 기계·SW·디자인·농업 등 전문교과 • (변경) ⑨ 교양(진로와 직업, 환경 등)→⑨ 교양(철학, 진로와 직업, 환경 등)
	2015	*중시해야 할 교과 문항에서 분리된 문항	학교급별 학부모	[교육 내용 목록] ①창의성교육, ②인성교육, ③진로교육, ④특기·적성교육, ⑤민주시민교육 (예: 타인존중, 공공질서 교육 등), ⑥성교육, ⑦환경교육, ⑧안전교육, ⑨다문화교육, ⑩통일교육
교육내용(교육영역) 보기 ① 창의성교육 ② 인성교육 ③ 민주시민교육 ④ 진로교육 ⑤ 직업교육 ⑥ 특기·적성교육 ⑦ 세계시민교육(예: 다문화 존중 등) ⑧ 성교육 ⑨ 환경교육 ⑩ 안전교육 ⑪ 평화통일교육 ⑫ 융합교육 ⑬ 정보스양교육(예: SW, 코딩, AI 교육 등) 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⑮ 기타 _____	2016	-	학교급별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⑩정보스양교육(예: SW 교육 등) • (추가) ⑪ 기타 • (변경) ⑤민주시민교육(예: 타인존중, 공공질서 교육 등)→ ⑤세계시민교육(예:다문화 존중 등) • (변경) ⑨다문화교육→ ⑨통일교육
	2017	-	학교급별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⑩정보스양교육(예: SW 교육 등)→ ⑩정보스양교육(예: SW·코딩 교육 등)
	2018	-	학교급별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③민주시민교육 • (변경) ③진로교육→ ④ • (변경) ④특기·적성교육→ ⑤ • (변경) ⑤세계시민교육(예: 다문화 존중 등)→ ⑥ • (변경) ⑥성교육→ ⑦ • (변경) ⑦환경교육→ ⑧ • (변경) ⑨통일교육→ ⑩평화통일교육 • (변경) ⑩정보스양교육(예: SW·코딩 교육 등)→ ⑪ • (변경) ⑪기타 _____→ ⑫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하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2019	-	학교급별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⑤ 직업교육 • (추가) ⑫ 융합교육 • (변경) ⑤ 특기·적성교육 → ⑥ • (변경) ⑥ 세계시민교육(예: 다문화 존중 등) → ⑦ • (변경) ⑦ 상교육 → ⑧ • (변경) ⑧ 환경교육 → ⑨ • (변경) ⑨ 안전교육 → ⑩ • (변경) ⑩ 평화통일교육 → ⑪ • (변경) ⑪ 정보소양교육(예: SW·코딩 교육 등) → ⑬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 수정) 초·중·고등학교에서 현재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교육은 무엇인지 자→초·중·고등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교육내용은 무엇인지 	학교급별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 (변경) ⑩ 정보소양교육(예: SW·코딩 교육 등) → ⑬ 정보소양교육(예: SW, 코딩, AI 교육 등)
<p>32. 미래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학생들은 다양한 핵심 역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 선택하여 주십시오(학교급별 동일항목 선택 가능).</p> <p>초·중·고 전반 _____ 초등학교 _____ 중학교 _____ 고등학교 _____</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기관리 역량(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② 지식정보처리 역량(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③ 창의적 사고 역량(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능력) ④ 심미적 감성 역량(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 ⑤ 의사소통 역량(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능력) ⑥ 공동체 역량(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⑦ 기타 _____ 	2016	<p>(신규문항)</p> <p>21세기를 살아가는 미래 학생들은 다양한 핵심 역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 선택하여 주십시오(학교급별 중복선택 가능).</p>	초·중·고 학부모	<p>[신규문항 선택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기관리 역량: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② 지식정보처리 역량: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③ 창의적 사고 역량: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능력 ④ 심미적 감성 역량: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 ⑤ 의사소통 역량: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능력 ⑥ 공동체 역량: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하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33. 학교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수업이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중·고 전반 _____ 초등학교 _____ 중학교 _____ 고등학교 _____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2017	• (질문 수정) 21세기를 살아가는 미래 학생들은 → 미래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학생들은 • (질문 수정) 학교급별 중복선택 가능 → 학교급별 동일항목 선택 가능	초·중·고 학부모	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⑦ 기타 _____
	2018	-	초·중·고 학부모	-
	2019	-	초·중·고 학부모	-
	2020	[신규문항] 학교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수업이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규문항] 학교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수업이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규문항 선택지]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33-1. (33번 문항의 1번 응답지만: 온라인교육의 수업이수 인정을 찬성한다면) 수업이수로 인정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의 운영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비실시간 강의형 콘텐츠 및 온라인 상 활동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 ② 화상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면대면 교수-학습활동이 가능해야 인정할 수 있다. ③ 어느 정도 오프라인 상(등교수업)에서의 활동이 포함되어야 인정할 수 있다. ④ 잘 모르겠다	2020	[신규문항] (33번 문항의 1번 응답지만: 온라인 교육의 수업이수 인정을 찬성한다면) 수업이수로 인정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의 운영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규문항 선택지] ① 비실시간 강의형 콘텐츠 및 온라인 상 활동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 ② 화상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면대면 교수-학습활동이 가능해야 인정할 수 있다. ③ 어느 정도 오프라인 상(등교수업)에서의 활동이 포함되어야 인정할 수 있다. ④ 잘 모르겠다	
	2017	[신규문항]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고등학교 관련 교육정책입니다. 각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규문항 선택지] (1)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현(2022년 완성) (2)고교 학점제 도입 (3)외고·자사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 체제 개편	
5. 고교 정책 및 대입 34.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고등학교 관련 교육정책입니다. 각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7	[신규문항]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고등학교 관련 교육정책입니다. 각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규문항 선택지] (1)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현(2022년 완성) (2)고교 학점제 도입 (3)외고·자사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 체제 개편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하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고교 정책	매우 찬성한다	찬성한다	보통이다				
(1)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2021년 완성)	①	②	③	④	⑤	고등학생 학부모	-
(2) 고교 학점제 도입	①	②	③	④	⑤	고등학생 학부모	-
(3)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단계적 전환 등 고교체제 개편	①	②	③	④	⑤	고등학생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2) 고교 학점제 도입→(2) 고교학점제 도입 • (변경) (3)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단계적 전환 등 고교체제 개편→(3)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제 개편 • (추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35. 고교학점제 도입 및 단계적 확산을 위해 고등학교 교육에서 앞으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를 순위대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①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② 다양한 과목 선택 및 이수 기회 제공 ③ 수업 및 평가 개선(성취평가제, 과정중심평가 등) ④ 학생의 진로 및 학업 설계 역량 강화 ⑤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학교 공간 혁신 ⑥ 고교학점제 정책에 대한 학생·학부모 등 공감대 형성 ⑦ 기타 _____					고등학생 학부모	[신규문항·선택지] ①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② 다양한 과목 선택 및 이수 기회 제공 ③ 수업 및 평가 개선(성취평가제, 과정중심평가 등) ④ 학생의 진로 및 학업 설계 역량 강화 ⑤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학교 공간 혁신 ⑥ 고교학점제 정책에 대한 학생·학부모 등 공감대 형성 ⑦ 기타 _____
36.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특성학교, 마이스터고 등 포함)을 받는 학생의 비중이 전체 고등학생의 18.5% 정도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낮으므로 더 높여야 한다					고등학생 학부모	[신규문항·선택지] ① 낮으므로 더 높여야 한다 ② 적정하다 ③ 높으므로 더 낮추어야 한다 ④ 잘 모르겠다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하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② 적절하다 ③ 높으므로 더 낮추어야 한다 ① 잘 모르겠다	2020	• (문항 수정)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특성학교, 마이스터고 등 포함)을 받는 학생의 비중이 전체 고등학생의 18.5% 정도입니다. →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특성 학교, 마이스터고 등 포함)을 받는 학생의 비중이 전체 고등학생의 약 18.5% 정도입니다.	고등학생 학부모	-
37. 다음 중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대학수학능력시험 ④ 인성 및 봉사활동 ⑦ 동아리활동 등 교내활동 ② 고교 내신 ⑤ 글쓰기·논술 ③ 특기·적성 ⑥ 면접 ⑧ 기타_____	2011	[신규문항] 다음 중 대학입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초·중·고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신규문항 선택지] ①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② 고교 내신성적 ③ 특기·적성 ④ 인성 및 봉사활동 ⑤ 면접 및 에세이 성적 ⑥ 기타_____
	2012	-	초·중·고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
	2013-1	-	초·중·고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
	2014-1	• (질문 수정) 대학입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초·중·고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 (변경) ⑤면접 및 에세이 성적 → ⑤면접 및 글쓰기 성적
	2014-2	-	초·중·고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
	2015	-	초·중·고	• (변경) ④인성 및 사회봉사 → ④인성 및 봉사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하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p>38. 학생 각자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①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이다 ② 전반적으로 완화되나, 일부대 위주의 임시경쟁은 유지될 것이다 ③ 현재와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④ 전반적으로 심화될 것이다 ① 잘 모르겠다</p>	2016	-	초·중·고 학부모/대학생 학부모	활동 • (변경) ⑤ 면접 및 글쓰기 성적 → ⑤ 면접, ⑥ 글 쓰기·논술 로 분리
	2017	-	초·중·고 학부모/대학생 학부모	• (추가) ⑦ 동아리활동 등 교내활동 • (추가) ⑧ 경시대회 등 수상실적 • (변경) ⑥ 글쓰기·논술 → ④ • (변경) ⑤ 면접 → ⑥ • (변경) ⑦ 기타 → ⑧
	2018	-	초·중·고 학부모/대학생 학부모	-
	2019	-	초·중·고 학부모/대학생 학부모	• (삭제) ⑧ 경시대회 등 수상실적 • (변경) ①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 ① 대학수학능력시험 • (변경) ② 고교 내신 성적 → ② 고교 내신
	2020	-	초·중·고 학부모/대학생 학부모	-
	2011	[신규문항] 우리나라의 임시경쟁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력집단	[신규문항 선택지] ①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이다 ② 전반적으로 완화되나, 일부대 위주의 임시 경쟁은 유지될 것이다 ③ 큰 변화 없을 것이다 ④ 전반적으로 심화될 것이다 ⑤ 잘 모르겠다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하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2012	-	학력집단	-
		2013-1	-	학력집단	-
		2014-1	-	학력집단	-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 수정) 우리나라의 입시경쟁은 → 학생 각자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은 	학력집단	-
		2016	-	학력집단	-
		2017	-	학력집단	-
		2018	-	학력집단	-
		2019	-	학력집단	-
		2020	-	학력집단	-
<p>6.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p> <p>39. 정부의 교육재정 지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학교급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p> <p>① 유치원 등 유아교육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전문대학 ⑥ 4년제 대학 ⑦ 대학원 ⑧ 학령기이후 성인교육 ⑨ 잘 모르겠다</p>					
		2017	<p>[신규 문항]</p> <p>정부의 교육재정 지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학교급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p>	초·중·고 학부모/ 학교급별 학부모	[신규문항 선택지] ① 유치원 등 유아교육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전문대학 ⑥ 4년제 대학 ⑦ 대학원
		2018	-	학부모/ 학교급별 학부모	• (추가) ⑩ 잘 모르겠다
		2019	-	학부모/ 학교급별 학부모	• (추가) ⑧ 학령기이후 성인교육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 수정) 정부의 교육재정 지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학교급은 → 정부의 교육재정 지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교육단계 	학부모/ 학교급별 학부모	• (변경) ① 유치원 등 유아교육 → ① 유아교육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하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p>37. 무상교육 범위 확대를 위해 초·중·고 학생들에게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을 선택하여 주십시오.</p> <p>초등학교 _____ 중학교 _____ 고등학교 _____</p> <p>① 학교급식비 ② 학용품비·교재비 ③ 현장학습비(수학여행 경비 등) 및 수련 활동비 ④ 방과후학교 교육비 ⑤ 교복구입비(중·고만 해당) ⑥ 실험실습 시 안전장비 구입비(중·고만 해당) ⑦ 교통비 ⑧ 기타 _____</p>	<p>2010</p> <p>는 [신규문항]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정부가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 해 주어야 할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순위(1, 2순위)</p>	<p>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p>	<p>[신규문항 선택지] ① 등록금 및 학교운영비 ② 학교급식비 ③ 방과후학교 교육비 ④ 학원, 과외비 ⑤ 참고서, 학용품비, 교재비 ⑥ 방과후 돌봄서비스(독서실 포함) 비용 ⑦ 현장학습비(수학여행 포함) 및 수련활동비 ⑧ 기타</p> <p>• (삭제) ④학원, 과외비 • (삭제) ⑦현장학습비 및 수련활동비 • (변경) ①등록금 및 학교운영비→ ①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 운영비 • (변경) ②학교급식비→ ④ • (변경) ⑤참고서·학용품비·교재비→ ② • (변경) ⑥방과후 돌봄서비스(독서실 포함) 비 용→ ⑤ • (변경) ⑧기타→ ⑥</p>	
	<p>2011</p>	<p>-</p>	<p>초·중·고 학부모</p>	
	<p>2012</p>	<p>• (질문 수정)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정형편 이 어려운 초·중·고 학생들에게</p>	<p>초·중·고 학부모</p>	<p>-</p>
	<p>2013-1</p>	<p>-</p>	<p>초·중·고 학부모</p>	<p>-</p>
	<p>2014-1</p>	<p>• (추가) 학교급 (초, 중, 고)</p>	<p>학교급별 학부모</p>	<p>• (변경) ①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 운영비→ ①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 비 • (변경) ③방과후학교 교육비→ ③방과후학교 교육비(자유수강권) • (변경) ⑤방과후 돌봄서비스(독서실 포함) 비 용 → ⑤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비용</p>
	<p>2015</p>	<p>• (삭제) 순위(1, 2위) • (질문 수정) 정부가 우선적으로 재정</p>	<p>학교급별 학부모</p>	<p>• (추가) ② 현장학습비 및 수련 활동비 • (변경) ②참고서·학용품비·교재비→ ①</p>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하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지원 →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 • (질문 수정)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추가		• (변경) ①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 ⑥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고등학교만 해당) • (변경) ⑥기타 → ⑦ • (변경) ⑤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비용 → ⑤ 방과후 돌봄서비스 비용(초등학교만 해당)
	2016	-	학교급별 학부모	• (추가) ⑥ 교복구입비(중·고만 해당) • (변경) ⑥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고등학교만 해당) → ⑦ • (변경) ⑦기타 → ⑧
	2017	• (질문 수정)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학교급별 학부모	• (추가) ⑤ 교동비 • (변경) ⑤방과후학교 교육비(자유수강권) → ⑥ • (변경) ⑥교복구입비(중·고만 해당) → ⑦ • (변경) ⑦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고등학교만 해당) → ⑧ • (변경) ⑧기타 → ⑨
	2018	-	학교급별 학부모	-
	2019	-	학교급별 학부모	• (삭제) ⑥ 방과후 돌봄서비스 비용(초등학교만 해당) • (삭제) ⑤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고등학교만 해당) • (변경) ① 참고서·학용품비·교재비 → ② 학용품비·교재비 • (변경) ② 현장학습비(수학여행 경비 등) 및 수련 활동비 → ③ 현장학습비(수학여행 경비 등) 및 수련 활동비 • (변경) ③ 방과후학교 교육비(자유수강권) → ④ 방과후학교 교육비 • (변경) ④ 학교급식비 → ① 학교급식비 • (변경) ⑤ 교동비 → ⑦ 교동비 • (변경) ⑦ 교복구입비(중·고만 해당) → ⑤ 교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하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복구임비(중·고만 해당) • (변경) ④ 기타→⑥ • (추가) ⑥ 실험실습 시 안전장비 구입비(중·고만 해당)
	2020	• (질문 수정) 초·중·고 학생들에게 정 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에 주어야 할 내용은→무상교육 범위 확대를 위해 초·중·고 학생들에게 강 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내용은	학교급별 학부모	• (변경) ⑥ 실험실습 시 안전장비 구입비(중·고만 해당)→⑥ 디지털학습장비 구입 및 활용비
41. 학생 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육재정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015	[신규문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정과 관련하여,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을 축소해야한다는 의견과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이 아직도 선진국들의 평균에 못 미치고 있어 시가지조라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 있는 집단	[신규문항 선택지] ① 학생 수 감소비율에 따라 축소해 나가야한다 ② 교육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시킨 이후 중장기적으로 축소해 나가야한다 ③ 축소하지 말고 현 수준을 유지하되 지금보다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해야한다 ④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증가해 나가야한다 ⑤ 잘 모르겠다
	2016	-	자녀 있는 집단	-
	2017	• (질문 수정)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정과 관련하여,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을 축소해야한다는 의견과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이 아직도 선진국들의 평균에 못 미치고 있어 시가지조라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학생 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자녀 있는 집단	• (변경) ① 학생 수 감소비율에 따라 축소해 나가야한다→① 학생 수 감소비율에 따라 교육 재정을 축소해 나가야한다 • (변경) ② 교육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시킨 이후 중장기적으로 축소해 나가야한다→② 교육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시킨 이후 중장기적으로 교육재정을 축소해 나가야한다 • (변경) ③ 축소하지 말고 현 수준을 유지하되 지금보다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하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p>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육재정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p>		<p>하아한다→ ③교육재정을 축소하지 말고 현 수준을 유지하되 자금보다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해야한다 • (변경) ④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증가해 나가야한다→ ④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재정을 증가해 나가야한다 • (변경) ②교육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시킨 이후 중장기적으로 교육재정을 축소해 나가야한다→ ②교육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 이후 교육재정을 축소해 나가야한다 • (변경) ③교육재정을 축소하지 말고 현 수준을 유지하되 자금보다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해야한다→ ③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재정을 축소하지 말고 현 수준을 유지해야한다 • (변경) ④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재정을 증가해 나가야한다→ ④교육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교육재정을 증가해 나가야한다</p>
	2018	-	자녀 있는 집단	
	2019	-	자녀 있는 집단	-
<p>42.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부는 교육영역에서 긴급 돌봄, 개학 연기, 온라인 개학 및 온라인 수업 운영, 학교 재량에 따른 등교 수업 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p>① 매우 적절하다 ② 적절하다 ③ 보통이다 ④ 적절하지 않다 ⑤ 전혀 적절하지 않다</p>	2020	<p>(신규문항)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부는 교육영역에서 긴급 돌봄, 개학 연기, 온라인 개학 및 온라인 수업 운영, 학교 재량에 따른 등교 수업 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p>(신규문항 선택지) ① 매우 적절하다 ② 적절하다 ③ 보통이다 ④ 적절하지 않다 ⑤ 전혀 적절하지 않다</p>
<p>43.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교육영역에서 가장 우선해 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2020	<p>(신규문항)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 위기상황</p>		<p>(신규문항 선택지) ① 긴급 돌봄 등 보육/돌봄</p>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하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① 긴급 돌봄 등 보육/돌봄 ② 학생들의 배움 및 학습 유지 ③ 급식 등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 ④ 방역 등 학교 지원 ⑤ 기타 _____ 44.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 위기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 유지를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대응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온라인 수업체제 구축 ② 교원의 위기 대응 능력 향상 ③ 학교단위 위기관리 매뉴얼 구축 ④ 탄력적인 학교운영 체제 구축 ⑤ 기타 _____	2020	에서 정부가 교육영역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규문항]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 위기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 유지를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대응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② 학생들의 배움 및 학습 유지 ③ 급식 등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 ④ 방역 등 학교 지원 ⑤ 기타 _____ [신규문항 선택지] ① 온라인 수업체제 구축 ② 교원의 위기 대응 능력 향상 ③ 학교단위 위기관리 매뉴얼 구축 ④ 탄력적인 학교운영 체제 구축 ⑤ 기타 _____
7. 대학교육 45. 우리나라의 대학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제대로 양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구분하여 선택해 주십시오. 4년제 대학 _____ 전문대학 _____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못하다 ⑤ 전혀 그렇지 못하다	2006	[신규문항]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 수정) 인재 양성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 인재를 얼마나 잘 양성하고 있다고 • (추가) 100점 만점 점수 환산 2008 2010 2011	초·중·고 학부모/기타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기타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기타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신규문항 선택지] ① 매우 잘함 ② 어느 정도 잘함 ③ 보통 ④ 별로 못함 ⑤ 전혀 못함 ⑥ 전혀 아는 바가 없다 - • (변경) ⑥전혀 아는 바가 없다 → ⑥잘 모르겠음 • (변경) ①매우 잘함 → ①매우 잘하고 있다 • (변경) ②어느 정도 잘함 → ②어느 정도 잘하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하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③보통→③보통이다 • (변경) ④별로 못함→④별로 못하고 있다 • (변경) ⑤전혀 못함→⑤전혀 못하고 있다 • (변경) ⑥전혀 이는 바가 없다→⑥잘 모르겠다
	2012	-	대학생 학부모	-
	2013-1	-	대학생 학부모	-
	2014-1	-	대학생 학부모	• (변경) ⑥전혀 못하고 있다→⑥이주 못하고 있다
	2015	• (질문 수정) 인재를 얼마나 잘 양성하고 있다고→인재를 양성하고 있다고	대학생 학부모	• (삭제) ⑨잘 모르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①매우 잘하고 있다→ ①매우 그렇다 • (변경) ②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 ②그렇다 • (변경) ④별로 못하고 있다→ ④그렇지 못하다 • (변경) ⑤전혀 못하고 있다→ ⑤전혀 그렇지 못하다
	2016	-	대학생 학부모	-
	2017	• (질문 수정)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고 →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제대로 양성하고 있다고	대학생 학부모	-
	2018	-	대학생 학부모	-
	2019	-	대학생 학부모	-
	2020	• (추가) 학교급(4년제 대학, 전문대학)	대학생 학부모	-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하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p>46. 우리나라 대학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제대로 양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구분하여 선택해 주십시오.</p> <p>4년제 대학 _____ 전문대학 _____</p> <p>① 학문 분야별 전문가의 양성 ② 사회생활에 필요한 시민의식 및 인격적 소양의 함양 ③ 진로 탐색 및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직업 역량의 함양 ④ 기타 _____</p>	<p>2019</p>	<p>[신규문항] 우리나라 대학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제대로 양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신규문항 선택지] ① 학문 분야별 전문가의 양성 ② 사회생활에 필요한 시민의식 및 인격적 소양의 함양 ③ 진로 탐색 및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직업 역량의 함양 ④ 기타 _____</p>
<p>47.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들이 교육기관의 특성에 맞게 학생들의 교육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구분하여 선택해 주십시오.</p> <p>4년제 대학 교수 _____ 전문대학 교수 _____</p> <p>① 매우 잘하고 있다 ② 잘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못하고 있다 ⑤ 전혀 못하고 있다</p>	<p>2020</p>	<p>• (추가) 학교급(4년제 대학, 전문대학)</p>		<p>-</p>
<p>48.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p>2006</p>	<p>[신규문항]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p>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p>	<p>[신규문항 선택지] ① 매우 잘함 ② 어느 정도 잘함 ③ 보통 ④ 별로 못함 ⑤ 전혀 못함 ⑥ 전혀 아는 바가 없다</p>
<p>49. 현재 우리나라 대학 교수 _____ 전문대학 교수 _____</p>	<p>2008</p>	<p>-</p>	<p>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p>	<p>-</p>
<p>50. 현재 우리나라 대학 교수 _____ 전문대학 교수 _____</p>	<p>2010</p>	<p>• (추가) 100점 만점 점수 환산</p>	<p>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p>	<p>• (변경) ⑨전혀 아는 바가 없다 → ⑩잘 모르겠음</p>
<p>51. 현재 우리나라 대학 교수 _____ 전문대학 교수 _____</p>	<p>2011</p>	<p>• (삭제) 100점 만점 점수 환산</p>	<p>대학생 학부모</p>	<p>• (변경) ①매우 잘함 → ①매우 잘하고 있다 • (변경) ②어느 정도 잘함 → ②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 • (변경) ③보통 → ③보통이다 • (변경) ④별로 못함 → ④별로 못하고 있다 • (변경) ⑤전혀 못함 → ⑤전혀 못하고 있다 • (변경) ⑥잘 모르겠음 → ⑥잘 모르겠다</p>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하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48. 정부가 국립대학처럼 사립대학에도 경성운영비 등 대학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등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2012	-	대학생 학부모	-	-
	2013-1	-	대학생 학부모	-	-
	2014-1	-	대학생 학부모	• (변경) ⑤전혀 못하고 있다→⑤아주 못하고 있다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 수정) →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들이 학생들의 교육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구분하여 선택해 주십시오. • (추가) 4년제 대학/전문 대학 	대학생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 ①잘 모르겠다 • (변경) ②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②잘하고 있다 • (변경) ④별로 못하고 있다→④못하고 있다 	
	2016	-	대학생 학부모	-	
	2017	-	대학생 학부모	-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 수정) →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들이 교육기관의 특성에 맞게 학생들의 교육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구분하여 선택해 주십시오. 	대학생 학부모	-	
	2019	-	대학생 학부모	-	
	2020	-	대학생 학부모	-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문항) 정부가 국립대학처럼 사립대학에도 경성운영비 등 대학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등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생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문항 선택지)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2019	-	대학생	-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하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2020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
49. 다음 중 대학평가 시 가장 중요하게 반영해야 할 평가지표는 무엇입니까? ① 졸업생의 취업률 ② 교수들의 연구 역량 ③ 교수들의 교육 역량 ④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⑤ 교육여건 및 시설의 충족도 ⑥ 대학경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⑦ 기타 _____	2015	[신규문항] 다음 중 대학평가 시 가장 중요하게 반영해야 할 평가지표는 무엇입니까? 2015	초·중·고 학부모	[신규문항 선택지] ① 졸업생의 취업률 ② 교수들의 연구 역량 ③ 교수들의 교육 역량 ④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⑤ 교육여건 및 시설의 충족도 ⑥ 대학경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⑦ 기타 _____
50.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교육혁신을 위해 앞으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 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를 순위대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 ②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 혁신 ③ 지자체-대학협력 기반 지역 혁신 ④ 대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 혁신 ⑤ 대학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⑥ 대학의 자율혁신을 위한 대학평가 체제 개선	2020	[신규문항]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교육혁신을 위해 앞으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를 순위대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2020	초·중·고 학부모	[신규문항 선택지] 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 ②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 혁신 ③ 지자체-대학협력 기반 지역 혁신 ④ 대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 혁신 ⑤ 대학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⑥ 대학의 자율혁신을 위한 대학평가 체제 개선 ⑦ 특성화 지향 대학 체제 혁신 ⑧ 대학 간 상호 성장할 수 있는 대학체제 개편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하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⑦ 특성화 지방 대학 체제 혁신 ⑧ 대학 간 상호 성장할 수 있는 대학체제 개편 ⑨ 기타					⑨ 기타																									
8. 교육현안 및 미래교육																														
51. 다음과 같은 교육행정 권한을 누가 갖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까?			[신규문항]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 중 다음과 같은 교육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한다고 보십니까? (1) 초·중·고 교육정책의 결정 (2) 학생의 표준 학습성취 기준 마련 (3) 학생의 기초학력 성취 보장 (4) 필수 교육과정의 결정	초·중·고 학부모 [신규문항 선택지] 교육과학기술부(중앙정부) 장관 시·도교육청(시·도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지역교육지원청(시·군·구 기초자치단체) 교육장																										
<table border="1"> <thead> <tr> <th>교육행정 권한과 책임</th> <th>교육부 장관</th> <th>시·도 교육감</th> <th>학교장</th> <th>잘 모르겠다</th> </tr> </thead> <tbody> <tr> <td>(1) 유·초·중·고 교육정책의 수립</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r> <tr> <td>(2) 필수 교육과정의 결정</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r> <tr> <td>(3) 교과목 표준 학습성취 기준 마련</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r> <tr> <td>(4)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r> </tbody> </table>		교육행정 권한과 책임	교육부 장관	시·도 교육감	학교장	잘 모르겠다	(1) 유·초·중·고 교육정책의 수립	①	②	③	④	(2) 필수 교육과정의 결정	①	②	③	④	(3) 교과목 표준 학습성취 기준 마련	①	②	③	④	(4)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①	②	③	④	2011			
교육행정 권한과 책임	교육부 장관	시·도 교육감	학교장	잘 모르겠다																										
(1) 유·초·중·고 교육정책의 수립	①	②	③	④																										
(2) 필수 교육과정의 결정	①	②	③	④																										
(3) 교과목 표준 학습성취 기준 마련	①	②	③	④																										
(4)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①	②	③	④																										
		2012	-	초·중·고 학부모	-																									
		2013-1	-	초·중·고 학부모	• (변경) 교육과학기술부(중앙정부) 장관 → 교육부 장관 교육부(중앙정부) 장관																									
		2014-1	• (변경) (2) 학생의 표준 학습성취 기준 마련 → (2) 학생의 학습성취 기준 마련 • (변경) (3) 학생의 기초학력 성취 보장 → (3) 학생의 기초학력 성취 보장 • (변경) (4) 필수 교육과정의 결정 → (4) 교육과정의 결정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 (변경) 교육부(중앙정부) 장관 → 교육부 장관 • (변경) 시·도교육청(시·도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 시·도교육청 교육감 • (변경)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시·군·구 기초자치단체) → 단위학교 교장																									
		2015	• (설문 수정) → 다음과 같은 교육행정 권한을 누가 갖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까? • (변경) (1) 초·중·고 교육 정책의 결정 → (1) 유·초·중·고 교육 정책의 수립 • (변경) (2) 학생의 학습성취 기준 마련 → (2) 학생의 표준 학습성취 기준 마련	초·중·고 학부모	• (추가) ⑩ 잘 모르겠다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하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52. 2~3년 전과 비교해 볼 때 현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받고 있는 사교육(학원 수강, 개인·그룹과외, 학습지 등)이 어떻게 변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줄어들었다 ② 다소 줄어들었다 ③ 별다른 변화가 없다 ④ 다소 심화되었다 ⑤ 매우 심화되었다		• (변경) (3) 학생의 기초학력 성취 → (3) 학생의 기초학력 성취 보장 • (변경) (4) 교육과정의 결정 → (4) 필수 교육과정의 결정		
	2016	-	초·중·고 학부모	-
	2017	• (변경) (2) 학생의 표준 학습성취 기준 마련 → (3) • (변경) (3) 학생의 기초학력 성취 보장 → (4) • (변경) (4) 필수 교육과정의 결정 → (2)	초·중·고 학부모	-
	2018	-	초·중·고 학부모	-
	2019	• (변경)(3) 학생의 표준 학습성취 기준 마련 → (3) 교과목 표준 학습성취 기준 마련 • (변경)(4) 학생의 기초학력 성취 보장 → (4)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초·중·고 학부모	• (변경) 사·도 교육청 교육감 → 사·도 교육감 • (변경) 단위학교 교장 → 학교장
	2020	-	초·중·고 학부모	-
	1999	[신규문항] 지난 2~3년 전과 비교해 볼 때 현재 초·중등 학생이 받고 있는 과외교육(학원수강, 개인과외 등)의 정도가 어떻게 변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초·중등 학부모	[신규문항 선택지] 매우 줄어들었다 다소 줄어들었다 별다른 변화가 없다 다소 심화되었다 매우 심화되었다
	2001	• (질문 수정) 지난 2~3년 전과 비교해 볼 때 현재 초·중등 학생이 받고 있는 과외교육(학원수강, 개인과외 등)의 정도가 어떻게 변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난 2~3년 전과 비교해 볼 때 현재	초·중·고 학부모	• (추가) (6) 질 모르겠다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하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53. 사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과 사교육으로 인한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4">사교육 효과</th> </tr> <tr> <th>고효과</th> <th>중효과</th> <th>저효과</th> <th>효과없음</th> </tr> </thead> <tbody> <tr> <td>고부담</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r> <tr> <td>중부담</td> <td>⑤</td> <td>⑥</td> <td>⑦</td> <td>⑧</td> </tr> <tr> <td>저부담</td> <td>⑨</td> <td>⑩</td> <td>⑪</td> <td>⑫</td> </tr> <tr> <td>부담없음</td> <td>⑬</td> <td>⑭</td> <td>⑮</td> <td>⑯</td> </tr> </tbody> </table>	구분	사교육 효과				고효과	중효과	저효과	효과없음	고부담	①	②	③	④	중부담	⑤	⑥	⑦	⑧	저부담	⑨	⑩	⑪	⑫	부담없음	⑬	⑭	⑮	⑯	2017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받고 있는 과외교육(학원 수강, 개인·그룹 과외, 학습지 등)이 어떻게 변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 수정) 과외교육 → 사교육	초·중·고 학부모	• (삭제) (6) 잘 모르겠다
			구분	사교육 효과																														
		고효과		중효과	저효과	효과없음																												
		고부담	①	②	③	④																												
		중부담	⑤	⑥	⑦	⑧																												
저부담	⑨	⑩	⑪	⑫																														
부담없음	⑬	⑭	⑮	⑯																														
2018	-	초·중·고 학부모	-																															
2019	-	초·중·고 학부모	-																															
2020	-	초·중·고 학부모	-																															
2020	[신규문항] 사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과 사교육으로 인한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0	[신규문항] 선택지 고효과 중효과 저효과 효과없음	고·중·고 학부모 중·중·고 학부모 저·중·고 학부모 부·중·고 학부모	고효과 중효과 저효과 효과없음 고·중·고 학부모 중·중·고 학부모 저·중·고 학부모 부·중·고 학부모																													
54. 다음의 교육정책들 중에서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방과후 학교(초등돌봄교실 포함) 운영 ② EBS 강의 ③ EBS 수능 연계 ④ 선행학습 금지 정책 ⑤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⑥ 고교체제 단순화 ⑦ 대입전형 단순화	2011	[신규문항] 다음 중 어떤 정책이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초·중·고 학부모	[신규문항] 선택지 ① 방과후학교 운영 ② EBS 강의 및 영어교육방송 ③ 교원능력개발평가 도입 ④ 중등학교 질내평가 도입 ⑤ 학원 수강료 공시 및 교습시간 제한 ⑥ 특목고 및 자율고 자기주도학습 전형방식 도입 ⑦ 대학 입학사정관 전형방식 도입 ⑧ 취업시 학력·학벌 차별 해소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하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⑧ 수능(영어, 한국사 등) 절대평가	2012	• (추가) 순위(1순위, 2순위)	초·중·고 학부모	⑨ 기타 _____
⑨ 기타 _____	2013-1	-	초·중·고 학부모	-
	2015	• (질문 수정) → 다음의 교육정책들 중 에서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초·중·고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③EBS 수능연계 • (추가) ④신행학습 금지 정책 • (추가) ⑤대입전형 간소화 • (추가) ⑥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 (삭제) 교원능력개발평가 도입 • (삭제) 대학 입학사정관 전형방식 도입 • (삭제) 취업시 학력·학벌 차별 해소 • (변경) ⑥특목고 및 자율고 자기주도학습 전 형방식 도입 → ⑦자기주도학습 전형방식 도 입
	2016	-	초·중·고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② 자유학기제 • (추가) ⑥ 과장중심평가 강화 • (추가) ⑨ 수능(영어) 절대평가 • (삭제) ⑤중등학교 절대평가 도입 • (삭제) ⑥학원 수강료 공시 및 교습시간 제한 • (삭제) ⑨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 (변경) ②EBS 강의 및 영어교육방송→ ③ • (변경) ③EBS 수능연계→ ④EBS 수능연계 (70%) • (변경) ⑦자기주도학습 전형방식 도입→ ⑦자 기주도학습 전형방식 도입(교입) • (변경) ④신행학습 금지 정책→⑤
	2017	-	초·중·고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①방과후 학교 운영 → ①방과후 학교 (초등돌봄교실 포함) 운영 • (변경) ⑥ 대입전형 간소화 →③ 대입전형 단 순화 • (변경) ⑨ 수능(영어) 절대평가→ ⑨ 수능(영 어, 한국사) 절대평가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허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55. 사교육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2개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①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해서 ②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③ 남들보다 앞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 ④ 남들이 하나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⑤ 특기·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⑥ 방과 후 집에서 공부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⑦ 자녀가 혼자서는 공부를 하지 않아서 ⑧ 기타 _____	2018	-	초·중·고 학부모	• (삭제) ②자유학기제 • (변경) ③EBS 강의 및 영어교육방송→ ② EBS 강의 • (변경) ④EBS 수능연계(70% 이상)→ ③ EBS 수능연계 • (변경) ⑤신행학습 금지 정책→ ④ • (변경) ⑥과정중심평가 강화→ ⑤ • (변경) ⑦자기주도학습 전형방식 도입(고입)→ ⑥ • (변경) ⑧대입전형 단순화→ ⑦ • (변경) ⑨수능(영어, 한국사) 절대평가→ ⑥수능(영어, 한국사 등) 절대평가 • (변경) ⑩기타____→ ⑧
	2019	-	초·중·고 학부모	
	2020	-	초·중·고 학부모	• (변경) ⑤ 과정중심평가 강화→⑤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 (변경) ⑥ 자기주도학습 전형방식(고입)→⑥고교체제 단순화
	1999	[신규문항]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과외를 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초·중·고 학부모	[신규문항 선택지]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해서 학교 수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위해 학교에서 다루지 않는 학습, 기능 습득을 위해 남들이 하나까 심리적 불안 때문에 방과후 집에서 공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자녀가 혼자서는 공부를 하지 않아서
	2001	• (질문 수정) 가장 중요한 이유는 → 가장 큰 이유는 • (질문 수정) '하나만 더 드신다면요?' 추가	초·중·고 학부모	• (추가) 6) 자녀가 혼자서는 공부를 하지 않아서 • (추가) 7) 기타_____ • (변경)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해서→ 1) 과외를 하지 않으면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해서 • (변경) 학교 수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위해→ 2)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높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하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 수정)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과외를 시키는 가장 큰 이유 →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유가 2개 이상인 경우 복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초·중·고 학부모	<p>은 수준의 공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학교에서 다루지 않는 학습, 기능 습득 위해 → 3) 특기·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 (변경) 남들이 하니까 심리적 불안 때문에 → 4) 남들이 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 수정)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유가 2개 이상인 경우 복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초·중·고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③ 남들보다 앞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 • (변경) 1) 과외를 → ① 사교육을 • (변경) 3) 특기·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 ⑤ • (변경) 5) 방과 후 집에서 공부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 ⑥ • (변경) 6) 자녀가 혼자서는 공부를 하지 않아서 → ⑦ • (변경) 7) 기타 ___ → ⑧
	2019		초·중·고 학부모	
	2020		초·중·고 학부모	
<p>56. (유·초·중·고 학생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사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가계에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p> <p>①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 ② 별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 ③ 다소 부담된다 ④ 매우 부담된다 ⑤ 사교육을 하지 않는다</p>	1999	<p>[신규문항] (자녀가 있을 경우만 대답) 자녀의 과외 교육(학원, 개인과외, 학습지 등)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가계에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p>	<p>학교급별 학부모 (유·초·중·고)</p>	<p>[신규문항 선택지]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다소 부담된다 매우 부담된다 해당 없음</p>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하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2019 설문 문항	57. (우·초·중고 학생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사교육과 관련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의 사교육과 관련한 생각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 수정) 자녀의 과외교육(학원, 개인과외, 학습지 등)→ 자녀의 과외교육(학원, 개인·그룹 과외, 학습지 등) 	학교급별 학부모 (유치원·초·중·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 그저 그렇다 • (변경) 해당 없음→ 5)과외를 하지 않는다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 수정) 자녀의 과외 교육(학원, 개인·그룹 과외, 학습지 등)→ 사교육 	초·중·고 학부모/학교급별 학부모 (초·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5)과외를 하지 않는다→⑤사교육을 하지 않는다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 수정) 자녀의 사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가계에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유·초·중·고 학생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사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가계에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학교급별 학부모 (유치원·초·중·공)	-
		2019	-	학교급별 학부모 (유치원·초·중·공)	-
		2020	-	학교급별 학부모 (유치원·초·중·공)	-
		2019	[신규문항] (우·초·중고 학생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사교육과 관련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규문항 하위문항] (1) 사교육은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 (2)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도 사교육은 필요하다	학교급별 학부모 (유치원·초·중·공)	[신규문항 선택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019	[신규문항 하위문항] (1) 사교육은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 (2)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어도 사교육은 필요하다	학교급별 학부모 (유치원·초·중·공)	[신규문항 하위문항] (1) 사교육은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 (2)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어도 사교육은 필요하다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하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자녀의 사교육과 관련한 생각 (3) 어떤 종류의 사교육을 할 것인지는 부모가 결정한다 (4)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취미활동은 하지 않도록 말한다 (5) 자녀가 공부를 안하고 있으면 불안하다 (6) 자녀가 학원에 가거나 과외공부를 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020					
[신규문항 선택지] 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② 다인종 다문화로의 급속한 진전 ③ 글로벌 경쟁 확대 ④ 지능정보사회의 도래 ⑤ 장기적인 저성장 추세, 고실업 추세 ⑥ 기타					
58. 미래 사회 변화 중 우리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② 지능정보사회의 도래 ③ 장기적인 저성장 추세 ④ 다인종 다문화로의 급속한 진전 ⑤ 글로벌 경쟁 확대 ⑥ 통일시대/남북관계 ⑦ 사회 양극화 ⑧ 기타 _____					
[신규문항] 미래 사회 변화 중 우리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16					
초·중·고 학부모					
2019					
초·중·고 학부모					
2020					
초·중·고 학부모					
[변경] 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① 저출산 고령화 [변경] ② 지능정보사회의 도래→② 지능정보사회(4차 산업혁명 등)의 도래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하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p>59. 다음은 미래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육체제와 관련하여 요구(또는 기대)되어지는 과제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이중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는 무엇입니까?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p> <p>_____ / _____</p> <p>① 유연한 학교제도(학제) 구축 ② 진학 진급제도의 탄력적 운영 ③ 교육과정 내용량 축소 ④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자율성 확대 ⑤ 온라인-오프라인 학습 병행 ⑥ 학교 교사, 학습컨설턴트, 특별전담강사 등 교원 다양화 ⑦ 학습자관리시스템(학습 관리, 생활지도, 건강관리, 진로지도 등) 구축 및 운영 ⑧ 교과 교사, 학습컨설턴트, 특별전담강사 등 교원 다양화 ⑨ 지역사회(마을) 공동체의 중심적 역할 확대 ⑩ 잘 모르겠다</p>	<p>2018</p> <p>[신규문항] 다음은 미래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육체제와 관련하여 요구(또는 기대)되어지는 과제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이중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과제는 무엇입니까?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p> <p>_____ / _____</p>	<p>초·중 학부모</p>	<p>• (변경) ④ 다인종 다문화로의 급속한 진전→④ 다인종 다문화로의 진전</p> <p>[신규문항 선택지] ①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위한 유연한 교육체제 구축 ② 교육과정 내용량 축소 ③ 학교유형의 다양화와 초·중·고 학교급간 연계 및 통합 ④ 진학 진급제도의 탄력적 운영 ⑤ 온라인-오프라인 학습 병행 및 학교 밖 학습경험 인정 ⑥ 학습자관리시스템(학습 관리, 생활지도, 건강관리, 진로지도 등) 구축 및 운영 ⑦ 교과 교사, 학습컨설턴트, 특별전담강사 등 교원 다양화 ⑩ 잘 모르겠다</p>	
<p>_____ / _____</p> <p>① 유연한 학교제도(학제) 구축 ② 진학 진급제도의 탄력적 운영 ③ 교육과정 내용량 축소 ④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자율성 확대 ⑤ 온라인-오프라인 학습 병행 ⑥ 학교 교사, 학습컨설턴트, 특별전담강사 등 교원 다양화 ⑦ 학습자관리시스템(학습 관리, 생활지도, 건강관리, 진로지도 등) 구축 및 운영 ⑧ 교과 교사, 학습컨설턴트, 특별전담강사 등 교원 다양화 ⑨ 지역사회(마을) 공동체의 중심적 역할 확대 ⑩ 잘 모르겠다</p>	<p>2019</p> <p>-</p>	<p>초·중 학부모</p>	<p>• (변경)③ 학교유형의 다양화와 초·중·고 학교 급간 연계 및 통합→③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 자율성 확대</p>	
<p>_____ / _____</p> <p>① 유연한 학교제도(학제) 구축 ② 진학 진급제도의 탄력적 운영 ③ 교육과정 내용량 축소 ④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자율성 확대 ⑤ 온라인-오프라인 학습 병행 ⑥ 학교 교사, 학습컨설턴트, 특별전담강사 등 교원 다양화 ⑦ 학습자관리시스템(학습 관리, 생활지도, 건강관리, 진로지도 등) 구축 및 운영 ⑧ 교과 교사, 학습컨설턴트, 특별전담강사 등 교원 다양화 ⑨ 지역사회(마을) 공동체의 중심적 역할 확대 ⑩ 잘 모르겠다</p>	<p>2020</p> <p>• (질문 수정)이중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과제는 무엇입니까?→이중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는 무엇입니까?</p>	<p>초·중 학부모</p>	<p>①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위한 유연한 교육체제 구축 ② 교육과정 내용량 축소 ③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 자율성 확대 • (변경) ①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위한 유연한 교육체제 구축→① 유연한 학교제도(학제) 구축 • (변경) ② 교육과정 내용량 축소→③ 교육과정 내용량 축소 • (변경) ③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 자율성 확대→④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 자율성 확대 • (변경) ④ 진학 진급제도의 탄력적 운영→②진학 진급제도의 탄력적 운영 • (변경) ⑤ 온라인-오프라인 학습 병행 및</p>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하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p>60. 미래 사회 변화 및 과학기술의 발달로 볼 때 학교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미래 학교에서 더 강조될 역할과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 선택하여 주십시오(학교급별 동일항목 선택 가능).</p> <p style="text-align: center;">초등학교 _____ 중학교 _____ 고등학교 _____</p> <p>① 지식의 전달 및 학습 ② 자기주도학습 등 문제해결 역량 교육 ③ 공동체 역량 및 협동·협업 역량 교육 ④ SW 교육 및 코딩교육 ⑤ 융합 교육 ⑥ 미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탐색 및 교육 ⑦ 아동·학생들의 보육 혹은 돌봄 ⑧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 체육, 예술 등의 평생교육 ⑨ 기타 _____</p>	<p>2016</p>	<p>[신규문항] 미래 사회 변화 및 과학기술의 발달로 볼 때 학교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미래 학교에서 더 강조될 역할과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 선택하여 주십시오(학교급별 중복 선택 가능).</p>	<p>초·중·고 학부모</p>	<p>[신규문항 선택지] ① 지식의 전달 및 학습 ②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방법 및 문제해결력 교육 ③ IT기 활용 교육, SW 코딩 교육 ④ 미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탐색 및 교육 ⑤ 아동·학생들의 보육 혹은 돌봄 ⑥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 체육, 예술 등의 평생교육 ⑦ 기타 _____</p>
<p>60. 미래 사회 변화 및 과학기술의 발달로 볼 때 학교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미래 학교에서 더 강조될 역할과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 선택하여 주십시오(학교급별 동일항목 선택 가능).</p> <p style="text-align: center;">초등학교 _____ 중학교 _____ 고등학교 _____</p> <p>① 지식의 전달 및 학습 ② 자기주도학습 등 문제해결 역량 교육 ③ 공동체 역량 및 협동·협업 역량 교육 ④ SW 교육 및 코딩교육 ⑤ 융합 교육 ⑥ 미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탐색 및 교육 ⑦ 아동·학생들의 보육 혹은 돌봄 ⑧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 체육, 예술 등의 평생교육 ⑨ 기타 _____</p>	<p>2017</p>	<p>• (질문 수정) 학교급별 중복선택 가능 → 학교급별 동일항목 선택 가능</p>	<p>초·중·고 학부모</p>	<p>• (추가) ③ 공동체 역량 및 협동·협업 역량 교육 • (변경) ③ IT기 활용 교육, SW 코딩 교육 → (4) SW 교육 및 코딩 교육 • (변경) ④ 미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탐색 및 교육 → ⑤ 아동·학생들의 보육 혹은 돌봄 • (변경) ⑥ 아동·학생들의 보육 혹은 돌봄 → ⑥ • (변경) ⑧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 체육, 예술 등의 평생교육 → ⑦ • (변경) ⑨ 기타 → ⑧</p>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하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2018	-	초·중·고 학부모	-
	2019	-	초·중·고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②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방법 및 문제 해결력 교육 → ② 자기주도학습 등 문제해결 역량 교육 • (변경) ⑤ 미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탐색 및 교육 → ⑥ • (변경) ⑥ 아동·학생들의 보호 혹은 돌봄 → ⑦ • (변경) ⑦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 체육, 예술 등의 평생교육 → ⑧ • (변경) ⑧ 기타 → ⑨ • (추가) ⑤ 융합 교육 • (변경) ④ SW 교육 및 코딩교육 → ④ SW·AI 교육 및 코딩 교육
<p>9. 교육관</p> <p>61. 학교의 여러 문제들(성적 위주의 교육, 학교폭력(왕따 등), 학교에 대한 불만족 등)로 귀하의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 선택하여 주십시오(학교급별 동일항목 선택 가능).</p> <p>초·중·고 전반 _____ 초등학교 _____ 중학교 _____ 고등학교 _____</p> <p>① 그 학교가 아니더라도 정규학교는 꼭 다니게 하겠다 ② 꼭 정규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대안을 찾겠다 ① 잘 모르겠다</p>	2020	-		
	1999	<p>[신규문항]</p> <p>(자녀가 있는 경우만 대답) 최근에 학교의 여러 문제를 때문에 자발적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과 학부모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것을 원강히 거부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p> <p>• (질문 수정) '예를 들어서 집단 따돌림(왕따)이나 학교 폭력, 학교에 대한 불만족 등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p> <p>• (질문 수정) 원강히 거부하는 경우 → 거부하는 경우</p>	자녀 있는 집단/ 학교급별 학부모	<p>[신규문항 선택지]</p> <p>어떻게 해서든 학교를 계속 다니게 한다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자녀의 소질을 살려나 가게 한다 잘 모르겠다</p>
	2001		자녀 있는 집단/ 학교급별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4) 기타 _____ • (변경) 어떻게 해서든 학교를 계속 다니게 하겠다 → 1) 그 학교가 아니더라도 학교는 꼭 다니게 하겠다 • (변경)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자녀의 소질을 살려 나가게 한다 → 2) 꼭 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쪽으로 소질을 살려 보겠다 • (변경) 잘 모르겠다 → 3)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하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 수정) 학교의 여러 문제들(성적 위주의 교육, 학교폭력(양파 등), 학교에 대한 불만족 등)로 귀하의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녀 있는 집단/ 학교급별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 4)기타 • (변경) 1)그 학교가 아니라도 학교는 꼭 다니게 하겠다→ ①그 학교가 아니라도 정규 학교는 꼭 다니게 하겠다 • (변경) 2)꼭 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쪽으로 소질을 살펴보겠다→ ②꼭 정규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대안을 찾겠다 • (변경) 3)어떻게 해야할지 전혀 모르겠다→ ④잘 모르겠다
	2016	-	자녀 있는 집단/ 학교급별 학부모	-
	2017	-	자녀 있는 집단/ 학교급별 학부모	-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 수정) 학교의 여러 문제들(성적 위주의 교육, 학교폭력(양파 등), 학교에 대한 불만족 등)로 귀하의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교의 여러 문제들(성적 위주의 교육, 학교폭력(양파 등), 학교에 대한 불만족 등)로 귀하의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 선택하여 주십시오(학교급별 동일 항목 선택 가능) 초·중·고 전반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 있는 집단/ 학교급별 학부모	-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하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62. 우리 사회에서 자녀교육에 성공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갔다 ②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컸다 ③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④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 ⑤ 자녀가 경제적으로 잘 산다 ⑥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고등학교__ 2019	-	자녀 있는 집단/학교급별 학부모	-
	2020	-	자녀 있는 집단/학교급별 학부모	-
	2006	[신규문항] 우리 사회에서 자녀교육에 실패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 실패___ / 두 번째 실패___	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	[신규문항 선택지] ①자녀가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 ②자녀가 일류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 ③자녀가 인간성 좋은 사람으로 되지 못하고 비뚤어졌다 ④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했다 ⑤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다
	2008	•(질문 수정) 실패했다는 것→ 성공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성공___ / 두 번째 성공___	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	•(추가) ⑥자녀가 경제적으로 잘 산다 •(변경) ②자녀가 일류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 → ①자녀가 일류 대학에 들어갔다 •(변경) ①자녀가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 → ②자녀가 대학에 들어갔다 •(변경) ③자녀가 인간성 좋은 사람으로 되지 못하고 비뚤어졌다 → ③자녀가 인간성 좋은 사람으로 컸다 •(변경) ④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했다 → ④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변경) ⑤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다 → ⑤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
	2010	-	초·중·고 학부모/ 기타	•(추가) ⑥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삭제) 자녀가 대학에 들어갔다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하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①자녀가 일류대학에 들어갔다→ ①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갔다 • (변경) ③자녀가 인간성 좋은 사람으로 컸다 → ②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컸다 • (변경) ④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③ • (변경) ⑤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 ④ • (변경) ⑥자녀가 경제적으로 잘 산다→ ⑤
	2015	• (삭제) 첫 번째 성공, 두 번째 성공	초·중·고 학부모	-
	2016	-	초·중·고 학부모	-
	2017	-	초·중·고 학부모	-
	2018	-	초·중·고 학부모	-
	2019	-	초·중·고 학부모	-
	2020	-	초·중·고 학부모	-
63. 자녀가 장차 어떤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신규 문항] 자녀가 장차 어떤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자녀 있는 집단	[신규문항 선택지] ① 경제적으로 윤택함 ② 명예가 많음 ③ 권력이 많음 ④ 학식이 많음 ⑤ 가족이나 주위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냄 ⑥ 사회에 봉사하며 살아감 ⑦ 본인의 흥미와 적성을 살림 ⑧ 건강하게 살아감 ⑨ 기타 _____
	2017	[신규 문항] 자녀가 장차 어떤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신규문항 선택지] ① 경제적으로 윤택함 ② 명예가 많음 ③ 권력이 많음 ④ 학식이 많음 ⑤ 가족이나 주위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냄 ⑥ 사회에 봉사하며 살아감 ⑦ 본인의 개성이나 취미를 살림 ⑧ 건강하게 살아감 ⑨ 기타 _____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허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64. 귀하는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언제까지 부담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중학교 졸업까지 ② 고등학교 졸업까지 ③ 대학교 졸업까지 ④ 대학원 석사까지 ⑤ 대학원 박사까지 ⑥ 취업할 때까지 ⑦ 결혼할 때까지 ⑧ 평생 ⑨ 기타 _____	2018	-	자녀 있는 집단	-	
	2019	-	자녀 있는 집단	-	
	2020	-	자녀 있는 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⑦ 본인의 개성이나 취미를 살림→⑦ 본인의 흥미와 적성을 살림 	
	2018	[신규 문항] 귀하는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언제까지 부담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자녀 있는 집단	[신규문항 선택지] ① 중학교 이하 ② 고등학교 ③ 대학교 ④ 대학원(석사) ⑤ 대학원(박사) ⑥ 취업할 때까지	
	2019	-	자녀 있는 집단	-	
	2020	-	자녀 있는 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① 중학교 이하→①중학교 졸업까지 • (변경) ② 고등학교→② 고등학교 졸업까지 • (변경) ③ 대학교→③ 대학교 졸업까지 • (변경) ④ 대학원(석사)→④ 대학원 석사까지 • (변경) ⑤ 대학원(박사)→⑤ 대학원 박사까지 	
	2011	[신규문항] 현재 한국사회에서 대학 졸업장의 유무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력집단	[신규문항 선택지] ① 심각한 정도로 존재한다 ② 일부 존재하나 심각하지 않다 ③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④ 잘 모르겠다	
	2012	-	학력집단	-	
	2013-1	-	학력집단	-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허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2014-1	-	학력집단	-
	2015	•(질문 수정)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력집단	-
	2016	-	학력집단	-
	2017	-	학력집단	-
	2018	-	학력집단	-
	2019	-	학력집단	-
	2020	-	학력집단	-
	2011	[신규문항] 우리나라의 학벌주의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학력집단	[신규문항 선택지] ① 약화될 것이다 ② 큰 변화 없을 것이다 ③ 심화될 것이다 ④ 잘 모르겠다
	2012	-	학력집단	-
	2013-1	-	학력집단	-
	2014-1	-	학력집단	-
	2015	-	학력집단	-
	2016	-	학력집단	-
	2017	-	학력집단	-
	2018	-	학력집단	-
	2019	-	학력집단	-
	2020	-	학력집단	-
	2011	[신규문항] 흔히 대학을 일류대학이니 이류대학이니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대학 서열화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력집단	[신규문항 선택지] ① 약화될 것이다 ② 큰 변화 없을 것이다 ③ 심화될 것이다 ④ 잘 모르겠다
	2011	[신규문항] 흔히 대학을 일류대학, 이류대학 등으로 분류하는 우리나라의 대학 서열화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력집단	[신규문항 선택지] ① 약화될 것이다 ② 큰 변화 없을 것이다 ③ 심화될 것이다 ④ 잘 모르겠다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허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① 잘 모르겠다		2012	-	학력집단	-																								
		2013-1	-	학력집단	-																								
		2014-1	-	학력집단	-																								
		2015	-	학력집단	-																								
		2016	-	학력집단	-																								
		2017	•(질문 수정) → 흔히 대학을 일류대학, 이류대학 등으로 분류하는 우리나라의 대학 서열화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력집단	-																								
		2018	-	학력집단	-																								
		2019	-	학력집단	-																								
		2020	-	학력집단	-																								
68.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다음의 측면에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06	[신규문항]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다음의 측면에서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36.경제적 부의 증대에 대한 영향 37.사회적 지위 향상에 대한 영향 38.심리적인 만족감에 대한 영향	초·중·고 학부모/기타 학부모																									
<table border="1"> <thead> <tr> <th>개인에게 미치는 영향</th> <th>매우 크다</th> <th>다소 크다</th> <th>보통 이다</th> <th>다소 작다</th> <th>매우 작다</th> </tr> </thead> <tbody> <tr> <td>(1) 경제적 부의 증대에 미치는 영향</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2) 사회적 지위 향상에 미치는 영향</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3) 심리적인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body> </table>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 이다	다소 작다	매우 작다	(1) 경제적 부의 증대에 미치는 영향	①	②	③	④	⑤	(2) 사회적 지위 향상에 미치는 영향	①	②	③	④	⑤	(3) 심리적인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①	②	③	④	⑤	2008	•(질문 수정)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합니까?	초·중·고 학부모/기타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경) 경제적 부의 증대에 대한 영향→ 38. 경제적 부의 증대에 미치는 영향 •(변경) 사회적 지위 향상에 대한 영향→ 39. 사회적 지위 향상에 미치는 영향 •(변경) 심리적인 만족감에 대한 영향→ 40. 심리적인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 이다	다소 작다	매우 작다																								
(1) 경제적 부의 증대에 미치는 영향	①	②	③	④	⑤																								
(2) 사회적 지위 향상에 미치는 영향	①	②	③	④	⑤																								
(3) 심리적인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①	②	③	④	⑤																								
		2010	-	초·중·고 학부모/기타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38.경제적 부의 증대에 미치는 영향 → (1) • (변경) 39.사회적 지위 향상에 미치는 영향 → (2) 																								

2019 설문 문항	연도	설문/하위 문항 변동 사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40. 심리적인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3) * 기존 세 문항을 한 문항으로 종합, 하위 문항으로 변경
	2017	•(질문 수정) 어떠합니까? →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	-
	2018	-	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	-
	2019	-	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	-
	2020	-	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	-

[부록 기] 응답자 배경변인별 분석 결과6)

〈표 1-1〉 10대 교육정책 중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1순위)

구분	응답비율												χ^2		
	사례 수	유아 교육 공공성 강화	민주 시민 교육 활성화	고교 서열화 해소	일반 고교 역량 강화	고교 학점제 추진	학교 공간 혁신	대입 공정성 강화	사학 혁신	대학·전문대학 혁신 지원	고졸 취업 활성화	잘 모르겠다		계	
전 체	5,000	15.7	7.9	10.0	15.1	1.8	3.9	20.3	6.1	5.0	8.1	6.1	100.0	-	
성별	남	2,531	15.4	8.1	10.9	13.9	1.6	3.8	20.1	7.7	5.2	7.7	5.7	100.0	34.061*** (df=10)
	여	2,469	16.0	7.7	9.0	16.4	1.9	4.0	20.5	4.5	4.9	8.5	6.5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15.7	8.9	10.0	14.8	1.8	3.7	22.4	5.5	4.7	7.5	4.9	100.0	20.946 (df=30)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15.7	6.9	10.9	14.4	2.0	3.9	19.2	6.3	5.3	8.6	6.6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15.6	7.9	9.8	15.6	1.6	3.9	20.2	6.0	5.0	8.0	6.5	100.0	
	읍·면(군)지역	324	16.4	9.3	6.8	15.4	1.9	4.0	19.4	7.7	5.6	8.6	4.9	100.0	
연령	19~29세	929	14.1	8.6	11.3	13.0	1.9	3.9	19.1	3.0	7.0	9.9	8.2	100.0	271.160*** (df=40)
	30대	870	27.1	8.3	11.1	12.0	1.4	4.3	16.6	5.2	2.9	5.6	5.6	100.0	
	40대	1,046	14.4	6.6	10.3	22.2	1.8	4.0	19.6	6.4	3.6	6.1	4.9	100.0	
	50대	1,084	9.5	7.1	10.5	15.6	2.0	3.5	24.2	7.7	6.3	9.0	4.6	100.0	
	60~74세	1,071	15.4	9.2	6.9	12.0	1.6	3.8	21.2	7.7	5.2	9.5	7.4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16.8	7.0	10.0	16.6	1.6	3.9	21.6	6.2	5.1	7.0	4.1	100.0	87.362*** (df=10)
	자녀 없음	2,073	14.2	9.3	9.8	13.0	1.9	3.9	18.4	5.9	5.0	9.6	8.9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13.0	6.1	13.6	24.3	1.8	5.0	21.8	5.2	3.0	4.9	1.3	100.0	187.704*** (df=10)
	기타	3,963	16.4	8.4	9.0	12.7	1.7	3.6	19.9	6.3	5.6	8.9	7.4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19.6	6.7	13.3	23.0	1.3	6.3	16.9	5.1	2.3	3.8	1.7	100.0	92.086*** (df=10)
	기타	4,474	15.3	8.1	9.6	14.2	1.8	3.6	20.7	6.2	5.4	8.6	6.6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7.9	4.4	14.0	29.8	2.6	2.6	23.4	5.3	3.2	4.4	2.3	100.0	101.368*** (df=10)
	기타	4,658	16.3	8.2	9.7	14.0	1.7	4.0	20.1	6.2	5.2	8.4	6.4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7.7	5.8	13.6	24.5	2.8	3.3	27.1	4.9	3.7	6.1	0.5	100.0	98.738*** (df=10)
	기타	4,572	16.5	8.1	9.6	14.2	1.7	3.9	19.7	6.2	5.2	8.3	6.6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6.7	7.6	11.0	15.7	1.2	4.6	28.6	7.1	8.1	7.2	2.1	100.0	87.628*** (df=10)
	기타	4,434	16.9	8.0	9.8	15.0	1.8	3.8	19.2	6.0	4.6	8.2	6.6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18.3	5.8	10.6	8.7	1.9	1.9	20.2	5.8	2.9	4.8	19.2	100.0	185.436*** (df=30)
	고졸	886	13.2	7.4	10.0	13.1	1.9	4.7	15.5	4.9	4.3	16.1	8.8	100.0	
	전문대/대졸	3,545	16.1	8.0	10.2	16.0	1.7	3.8	20.7	6.1	5.4	6.6	5.4	100.0	
	대학원졸	465	17.2	9.2	8.2	13.3	1.7	3.4	26.2	8.4	3.9	5.2	3.2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14.8	8.4	7.7	10.3	1.5	2.4	19.1	5.6	6.5	11.6	12.0	100.0	161.862*** (df=30)
	200만원 이상 -	1,635	16.5	8.3	10.6	12.8	1.8	4.6	16.8	6.2	4.6	10.0	8.0	100.0	

6) 개인배경변인별 χ^2 검증, t검증/F검증 결과 제시

구분	응답비율													χ^2		
	사례 수	유아 교육 공공성 강화	민주 시민 교육 활성화	고교 서열화 해소	일반 고 교육 역량 강화	고교 학점제 추진	학교 공간 혁신	대입 공정성 강화	사학신	대학·전문 대학 혁신 지원	고졸 취업 활성화	잘 모르겠다	계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17.1	7.7	10.8	18.4	2.1	3.7	19.4	5.6	5.0	6.7	3.6	100.0			
600만원 이상	1,340	13.5	7.7	9.0	15.7	1.5	3.7	26.0	6.8	5.1	6.3	4.6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15.6	7.6	11.9	14.7	2.6	4.5	20.8	7.1	4.0	7.4	3.9	100.0	150.796** (df=10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15.6	8.6	11.9	15.7	2.0	3.0	20.8	6.6	4.6	5.7	5.4	100.0		
	사무 종사자	1,214	18.6	7.2	9.4	15.2	1.6	3.8	20.1	5.3	5.0	8.1	5.7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18.4	8.4	10.0	13.7	1.6	3.2	17.9	9.5	4.2	8.4	4.7	100.0		
	판매 종사자	210	14.8	8.1	8.1	22.9	2.4	6.2	19.0	4.3	2.9	5.7	5.7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21.9	15.6	9.4	12.5	0.0	6.3	12.5	0.0	0.0	12.5	9.4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17.6	12.7	12.7	11.5	1.8	4.2	16.4	7.3	2.4	8.5	4.8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16.7	6.9	9.8	16.7	1.0	1.0	20.6	8.8	4.9	9.8	3.9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15.6	5.0	11.1	14.1	3.0	3.5	15.1	5.5	5.5	11.1	10.6	100.0		
	군인	13	23.1	0.0	0.0	7.7	0.0	0.0	23.1	0.0	7.7	23.1	15.4	100.0		
기타	1,325	12.5	8.0	8.1	14.3	1.2	4.2	21.9	5.8	6.6	9.6	7.8	100.0			

〈표 1-2〉 10대 교육정책 중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2순위)

구분	응답비율											χ ²		
	사례수	유아 교육 공공성 강화	민주 시민 교육 활성화	고교 서열화 해소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고교 학점제 추진	학교 공간 혁신	대입 공정성 강화	사학 혁신	대학· 전문 대학 혁신 지원	고졸 취업 활성화		계	
전 체	4,695	6.7	8.2	10.5	15.5	3.6	6.6	18.6	8.0	9.1	13.3	100.0	-	
성별	남	2,386	6.5	7.5	10.5	15.7	3.8	6.4	17.0	9.5	9.4	13.7	100.0	25.356** (df=9)
	여	2,309	7.0	8.9	10.5	15.4	3.3	6.8	20.2	6.4	8.7	12.8	100.0	
거주 지역	서울특별시	926	6.5	8.2	9.3	16.4	4.1	6.8	20.8	9.3	7.2	11.3	100.0	44.144* (df=27)
	광역시, 특별자치시	1,255	7.3	8.5	10.4	14.2	3.3	5.6	20.6	7.2	9.8	13.1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206	6.4	8.4	11.0	16.0	3.5	6.8	17.0	8.0	9.5	13.3	100.0	
	읍·면(군)지역	308	7.5	5.2	11.4	14.9	2.9	8.1	14.6	7.1	8.8	19.5	100.0	
연령	19~29세	853	6.3	9.5	11.7	14.1	4.6	8.3	16.8	4.5	11.8	12.4	100.0	118.433*** (df=36)
	30대	821	8.6	8.5	10.8	17.3	4.0	8.8	18.9	7.1	6.3	9.6	100.0	
	40대	995	5.3	6.4	11.2	17.3	3.3	6.7	21.6	7.2	7.8	13.1	100.0	
	50대	1,034	5.9	8.1	10.3	14.4	3.2	4.7	18.6	10.5	10.1	14.2	100.0	
	60~74세	992	7.8	8.7	8.8	14.8	2.9	5.0	16.8	9.8	9.2	16.2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807	6.5	7.9	10.1	16.1	3.3	6.4	19.2	8.8	9.0	12.8	100.0	13.668 (df=9)
	자녀 없음	1,888	7.0	8.6	11.1	14.7	3.9	6.9	17.7	6.8	9.2	14.0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24	5.3	5.4	11.3	18.4	4.2	6.8	22.1	8.7	8.1	9.8	100.0	49.030*** (df=9)
	기타	3,671	7.1	9.0	10.3	14.8	3.4	6.5	17.6	7.8	9.3	14.2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17	6.6	6.2	11.8	21.5	4.1	8.7	20.1	8.3	6.4	6.4	100.0	47.546*** (df=9)
	기타	4,178	6.7	8.4	10.3	14.8	3.5	6.3	18.4	7.9	9.4	14.1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34	3.9	3.9	12.3	19.2	1.5	4.5	24.6	8.7	9.6	12.0	100.0	30.923*** (df=9)
	기타	4,361	6.9	8.5	10.4	15.3	3.7	6.7	18.1	7.9	9.0	13.4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6	3.5	4.9	10.1	14.8	5.6	5.4	23.2	9.2	9.6	13.6	100.0	26.729** (df=9)
	기타	4,269	7.1	8.5	10.5	15.6	3.3	6.7	18.1	7.8	9.0	13.2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54	5.8	4.9	10.5	15.3	1.8	5.6	19.1	11.7	10.6	14.6	100.0	29.571** (df=9)
	기타	4,141	6.9	8.6	10.5	15.6	3.8	6.7	18.5	7.5	8.9	13.1	100.0	
학력	중졸 이하	84	2.4	6.0	8.3	17.9	3.6	3.6	16.7	11.9	7.1	22.6	100.0	37.061 (df=27)
	고졸	808	6.6	9.3	10.5	13.4	4.7	6.2	19.4	6.2	8.3	15.5	100.0	
	전문대/대졸	3,353	6.9	8.1	10.9	15.9	3.4	6.6	18.5	8.0	9.2	12.5	100.0	
	대학원졸	450	6.7	7.1	8.2	16.7	2.4	7.8	18.2	10.0	9.8	13.1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09	6.8	10.0	13.2	12.2	4.4	6.1	13.7	7.6	8.8	17.1	100.0	47.864** (df=27)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504	6.1	9.5	10.4	14.6	3.5	6.8	18.4	7.1	9.0	14.5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04	6.6	8.0	10.2	16.1	3.9	7.4	19.5	8.1	8.6	11.6	100.0	
	600만원 이상	1,278	7.6	6.3	10.2	17.1	3.1	5.5	19.2	8.9	9.7	12.5	100.0	
직업군	관리자	597	6.9	7.0	11.1	15.1	3.9	6.2	16.2	9.2	10.1	14.4	100.0	107.966 (df=9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879	7.8	8.9	10.4	15.5	4.7	5.8	18.5	9.0	10.0	9.4	100.0	

구분	응답비율												χ^2
	사례수	유아 교육 공공성 강화	민주 시민 교육 활성화	고교 서열화 해소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고교 학점제 추진	학교 공간 혁신	대입 공정성 강화	사학 혁신	대학· 전문 대학 혁신 지원	고졸 취업 활성화	계	
사무 종사자	1,145	6.9	7.3	12.0	17.4	2.6	7.6	18.5	7.9	7.7	12.1	100.0	
서비스 종사자	181	8.8	6.1	10.5	13.8	2.2	7.7	16.6	5.5	10.5	18.2	100.0	
판매 종사자	198	6.1	8.6	6.6	13.1	5.6	5.6	21.2	7.1	8.6	17.7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9	10.3	10.3	20.7	24.1	0.0	3.4	13.8	6.9	0.0	10.3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57	5.7	6.4	9.6	18.5	3.8	8.3	20.4	8.3	8.3	10.8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98	5.1	9.2	13.3	9.2	6.1	8.2	12.2	8.2	13.3	15.3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78	5.1	12.9	7.3	12.4	5.1	7.9	21.3	6.7	7.9	13.5	100.0	
군인	11	9.1	9.1	9.1	18.2	0.0	0.0	9.1	9.1	0.0	36.4	100.0	
기타	1,222	5.9	8.8	9.7	15.1	3.0	6.0	19.7	7.4	9.3	15.1	100.0	

〈표 1-3〉 10대 교육정책 중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1+2순위)

구분	사례수	응답비율											χ ²	
		유아 교육 공공성 강화	민주 시민 교육 활성화	고교 서열 화 해소	일반 고 교 역량 강화	고교 학점 제 추진	학교 공간 혁신	대입 공정 성 강화	사학 혁신	대학· 전문 대학 혁신 지원	고졸 취업 활성 화	잘 모르 겠다		
전 체	5,000	11.4	8.1	10.2	15.3	2.6	5.2	19.5	7.0	7.0	10.6	3.1	-	
성별	남	2,531	11.1	7.9	10.7	14.7	2.6	5.0	18.6	8.5	7.2	10.6	2.9	54.945*** (df=11)
	여	2,469	11.6	8.3	9.8	15.9	2.6	5.3	20.4	5.4	6.7	10.6	3.3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11.2	8.6	9.6	15.6	2.9	5.2	21.6	7.4	5.9	9.4	2.5	47.763* (df=33)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11.7	7.7	10.7	14.3	2.7	4.7	19.9	6.7	7.5	10.8	3.4	
	중소도시(시 지역)	2,359	11.2	8.2	10.4	15.8	2.5	5.3	18.7	6.9	7.1	10.5	3.4	
	읍·면(군)지역	324	12.0	7.3	9.0	15.2	2.4	6.0	17.1	7.4	7.1	13.9	2.5	
연령	19~29세	929	10.4	9.0	11.5	13.5	3.2	6.0	18.0	3.7	9.3	11.1	4.3	405.548*** (df=44)
	30대	870	18.2	8.4	11.0	14.5	2.7	6.4	17.7	6.1	4.6	7.6	2.9	
	40대	1,046	10.0	6.5	10.7	19.8	2.5	5.3	20.6	6.8	5.7	9.5	2.5	
	50대	1,084	7.7	7.6	10.4	15.0	2.6	4.1	21.4	9.1	8.1	11.6	2.4	
	60~74세	1,071	11.7	9.0	7.8	13.4	2.2	4.4	19.1	8.7	7.1	12.7	3.8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11.8	7.4	10.1	16.4	2.5	5.1	20.4	7.5	7.0	9.8	2.1	109.161*** (df=11)
	자녀 없음	2,073	10.8	9.0	10.5	13.8	2.9	5.3	18.1	6.3	7.0	11.7	4.7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9.2	5.7	12.5	21.3	3.0	5.9	21.9	6.9	5.5	7.3	0.6	266.117*** (df=11)
	기타	3,963	12.0	8.7	9.6	13.7	2.5	5.0	18.8	7.0	7.4	11.5	3.8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13.1	6.4	12.6	22.2	2.7	7.5	18.5	6.7	4.3	5.1	0.9	164.279*** (df=11)
	기타	4,474	11.2	8.3	9.9	14.5	2.6	4.9	19.6	7.0	7.3	11.3	3.4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5.9	4.1	13.2	24.6	2.1	3.6	24.0	7.0	6.4	8.1	1.2	142.496*** (df=11)
	기타	4,658	11.8	8.4	10.0	14.6	2.7	5.3	19.1	7.0	7.0	10.8	3.3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5.6	5.4	11.8	19.7	4.2	4.3	25.2	7.0	6.7	9.8	0.2	134.083*** (df=11)
	기타	4,572	11.9	8.3	10.1	14.9	2.5	5.3	18.9	7.0	7.0	10.7	3.4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6.3	6.3	10.7	15.5	1.5	5.1	23.9	9.4	9.4	10.9	1.1	116.954*** (df=11)
	기타	4,434	12.0	8.3	10.2	15.3	2.8	5.2	18.9	6.7	6.7	10.6	3.4	
학력	중졸 이하	104	11.2	5.9	9.6	12.8	2.7	2.7	18.6	8.5	4.8	12.8	10.6	186.527*** (df=33)
	고졸	886	10.0	8.3	10.3	13.2	3.2	5.4	17.4	5.5	6.2	15.8	4.6	
	전문대/대졸	3,545	11.6	8.0	10.5	15.9	2.6	5.1	19.6	7.0	7.3	9.5	2.8	
	대학원졸	465	12.0	8.2	8.2	15.0	2.1	5.6	22.3	9.2	6.8	9.1	1.6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11.1	9.2	10.3	11.2	2.9	4.1	16.6	6.5	7.6	14.2	6.4	206.783*** (df=33)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11.5	8.9	10.5	13.7	2.6	5.7	17.6	6.6	6.8	12.1	4.2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11.9	7.8	10.5	17.3	2.9	5.5	19.5	6.8	6.8	9.1	1.8	
	600만원 이상	1,340	10.6	7.0	9.6	16.4	2.3	4.6	22.7	7.8	7.3	9.3	2.4	
직업군	관리자	621	11.3	7.3	11.5	14.9	3.2	5.3	18.6	8.1	7.0	10.8	2.0	197.307*** (df=11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11.8	8.7	11.2	15.6	3.3	4.4	19.7	7.7	7.2	7.5	2.8	
	사무 종사자	1,214	12.9	7.3	10.6	16.3	2.1	5.6	19.3	6.5	6.3	10.0	2.9	
	서비스 종사자	190	13.7	7.3	10.2	13.7	1.9	5.4	17.3	7.5	7.3	13.2	2.4	
	판매 종사자	210	10.5	8.3	7.4	18.1	3.9	5.9	20.1	5.6	5.6	11.5	2.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16.4	13.1	14.8	18.0	0.0	4.9	13.1	3.3	0.0	11.5	4.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11.8	9.6	11.2	14.9	2.8	6.2	18.3	7.8	5.3	9.6	2.5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11.0	8.0	11.5	13.0	3.5	4.5	16.5	8.5	9.0	12.5	2.0	
	단순노무 종사자	199	10.6	8.8	9.3	13.3	4.0	5.6	18.0	6.1	6.6	12.2	5.6	
	군인 기타	13 1,325	16.7 9.3	4.2 8.4	4.2 8.9	12.5 14.7	0.0 2.1	0.0 5.1	16.7 20.8	4.2 6.6	4.2 7.9	29.2 12.2	8.3 4.0	

〈표 2-1〉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유·초·중등 교육정책(1순위)

구분	응답비율															계	χ ²	
	사례수	공공유치율 확대 공공강화	공립유치율 등 지원성 강화	일 일 중 중 복 복 심 심 대 대 및 및 서 서 비 비 스 스 강 강 화	학 학 교 교 주 주 시 시 민 민 교 교 육 육 활 활 성 성 화	고 고 교 교 학 학 제 제 도 도 입 입 및 및 확 확 대	고 고 교 교 서 서 열 열 화 화 및 및 일 일 반 반 교 교 육 육 강 강 화	학 학 교 교 생 생 기 기 록 록 부 부 도 도 강 강 화	국 국 가 가 차 차 원 원 의 의 기 기 초 초 학 학 력 력 보 보 장 장 체 체 제 제 구 구	교 교 원 원 성 성 제 제 선 선 및 및 교 교 원 원 양 양 성 성	SW, SW, SI SI 교 교 육 육 및 및 융 융 합 합 교 교 육 육 강 강 화	학 학 교 교 노 노 후 후 설 설 계 계 및 및 안 안 전 전 한 한 학 학 교 교 경 경 조 조	창 창 의 의 성 성 과 과 합 합 작 작 을 을 키 키 워 워 는 는 주 주 관 관 학 학 교 교 간 간 신 신 진 진	지 지 방 방 교 교 육 육 자 자 치 치 화 화 및 및 학 학 교 교 자 자 치 치 활 활 성 성 화	온 온 라 라 인 인 수 수 업 업 대 대 및 및 직 직 업 업 강 강 화			잘 잘 모 모 르 르 겠 겠 다
전 체	5,000	24.4	11.1	5.7	3.7	13.0	6.8	5.8	4.0	2.9	3.7	8.5	1.5	4.1	4.6	100.0	-	
성별	남	2,531	24.6	9.1	6.3	4.1	14.0	6.7	5.8	3.5	3.4	4.0	9.2	1.5	3.2	4.6	100.0	50.037***
	여	2,469	24.2	13.2	5.1	3.4	11.9	7.0	5.9	4.5	2.3	3.5	7.8	1.5	5.1	4.7	100.0	(df=13)
거주 지역	서울특별시	974	21.1	9.9	7.2	4.8	15.2	6.6	6.8	3.9	2.5	3.9	8.0	1.1	5.5	3.5	100.0	56.753*(df=39)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26.1	11.1	6.0	4.0	11.3	5.9	6.1	4.3	3.1	3.3	8.3	1.4	4.3	4.7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24.6	11.5	5.1	3.1	12.9	7.7	5.1	3.9	2.9	3.9	8.9	1.6	3.7	5.2	100.0	
	읍·면(군)지역	324	25.0	12.3	4.3	4.3	13.6	5.6	7.1	4.0	3.7	4.0	8.3	1.9	2.2	3.7	100.0	
연령	19~29세	929	17.8	13.2	6.2	4.8	9.3	7.9	4.2	5.0	5.5	5.6	7.4	1.4	5.0	6.8	100.0	233.188***
	30대	870	29.1	15.4	5.5	6.1	11.4	4.7	4.1	3.6	2.3	3.1	5.5	1.5	3.7	4.0	100.0	
	40대	1,046	23.4	9.1	5.4	3.4	16.3	7.7	6.5	3.6	2.1	3.6	9.0	1.8	4.8	3.2	100.0	
	50대	1,084	24.2	7.8	5.1	2.6	16.7	7.6	6.9	4.7	2.6	3.2	10.0	1.1	3.6	4.0	100.0	
	60~74세	1,071	27.5	11.1	6.3	2.3	10.6	6.1	6.8	3.3	2.2	3.2	10.0	1.6	3.6	5.4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24.8	10.7	5.6	3.4	14.9	7.9	6.6	3.7	2.3	3.0	9.0	1.3	3.6	3.2	100.0	100.409***
	자녀 없음	2,073	23.7	11.8	5.9	4.2	10.3	5.4	4.7	4.4	3.7	4.7	7.9	1.7	4.9	6.7	100.0	(df=13)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17.6	8.0	4.7	5.3	22.5	10.2	7.8	3.5	2.0	3.5	9.2	1.4	3.4	1.1	100.0	212.128***
	기타	3,963	26.2	11.9	6.0	3.3	10.5	6.0	5.3	4.2	3.1	3.8	8.4	1.5	4.3	5.6	100.0	(df=13)
초등 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20.2	10.3	5.3	5.3	18.4	7.8	8.2	2.7	1.9	4.2	9.5	1.3	4.0	1.0	100.0	51.773**
	기타	4,474	24.9	11.2	5.8	3.6	12.3	6.7	5.5	4.2	3.0	3.7	8.4	1.5	4.1	5.1	100.0	(df=13)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11.7	5.8	5.0	5.0	25.4	12.9	9.6	3.5	2.6	3.2	9.4	1.8	2.9	1.2	100.0	119.755***
	기타	4,658	25.3	11.5	5.8	3.6	12.1	6.4	5.5	4.1	2.9	3.8	8.5	1.5	4.2	4.9	100.0	(df=13)
고등 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16.4	6.3	4.2	5.6	25.5	12.9	6.8	3.7	1.4	2.6	8.6	1.4	3.7	0.9	100.0	129.458***
	기타	4,572	25.1	11.6	5.9	3.6	11.8	6.3	5.7	4.0	3.0	3.8	8.5	1.5	4.2	5.0	100.0	(df=13)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21.6	6.9	4.9	3.2	17.5	10.6	5.3	4.9	3.2	4.8	9.5	1.1	4.4	2.1	100.0	50.900**
	기타	4,434	24.7	11.7	5.8	3.8	12.4	6.4	5.9	3.9	2.9	3.6	8.4	1.5	4.1	5.0	100.0	(df=13)
학력	중졸 이하	104	25.0	12.5	2.9	2.9	8.7	7.7	4.8	2.9	1.0	1.9	6.7	3.8	4.8	14.4	100.0	92.788**
	고졸	886	23.4	10.5	6.9	5.1	11.2	5.8	6.7	3.7	2.0	4.1	8.0	1.0	4.7	7.0	100.0	
	전문대/대졸	3,545	25.0	11.6	5.6	3.7	13.2	6.9	5.6	4.0	3.0	3.6	8.3	1.5	3.9	4.0	100.0	
	대학원졸	465	21.1	8.2	5.4	1.9	15.5	8.0	6.0	5.2	4.5	4.3	11.4	1.5	4.3	2.8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465	24.9	10.3	6.0	2.8	7.5	6.0	4.5	3.4	2.4	4.3	8.4	1.9	7.7	9.7	100.0	131.521***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24.2	12.5	5.8	4.1	11.1	5.4	5.9	4.0	3.2	3.9	8.4	2.0	3.8	5.7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25.8	10.6	5.7	4.2	15.7	7.5	6.5	3.8	2.5	2.6	7.6	1.0	3.1	3.2	100.0	
	600만원 이상	1,340	22.8	10.3	5.5	3.1	14.0	8.1	5.4	4.4	3.1	4.6	9.7	1.3	4.4	3.3	100.0	

구분	응답비율																χ^2
	사례수	공공유치 확대 유망성 강화	공립원생 유치성 강화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 및 서비스 강화	학교민주주의 활성화	고교학점제 도입 및 확대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강화	국가차원의 기초학력보장체 구축	교원제도 개선 및 교역량 제고	SW, AI 교육 및 활용 강화	학교후설선진 및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창의성과 융합을 키우는 주교공간 혁신 추진	지방교육자치화 및 학교자치 활성화	온라인 수업 확대 및 질적 강화	잘 모르겠다	
관리자	621	24.3	10.6	5.5	5.2	15.9	7.2	6.0	3.4	1.6	3.2	9.3	1.4	3.7	2.6	100.0	205.160 *** (df=13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23.0	10.1	6.5	3.2	15.8	6.5	5.5	4.3	3.7	3.8	8.6	1.2	3.9	4.0	100.0	
사무 종사자	1,214	25.9	12.4	5.0	4.4	12.2	8.0	5.7	4.0	3.7	3.1	7.5	1.2	3.5	3.5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25.8	15.3	5.3	3.7	11.1	5.3	8.4	2.6	2.6	3.2	6.8	1.6	2.1	6.3	100.0	
판매 종사자	210	21.0	13.3	7.6	1.4	19.0	4.3	6.2	1.4	1.9	3.3	9.5	1.9	4.8	4.3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21.9	9.4	12.5	3.1	15.6	3.1	15.6	0.0	3.1	0.0	0.0	0.0	6.3	9.4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31.5	7.9	7.3	4.2	13.9	7.9	6.1	1.2	3.0	3.0	6.1	1.2	1.8	4.8	100.0	
정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29.4	9.8	3.9	7.8	11.8	5.9	2.9	4.9	2.9	4.9	9.8	1.0	1.0	3.9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26.1	9.5	7.5	5.0	10.1	4.5	4.0	3.5	0.5	4.0	8.5	1.5	5.0	10.1	100.0	
군인	13	15.4	7.7	0.0	0.0	15.4	7.7	7.7	0.0	7.7	15.4	0.0	0.0	0.0	23.1	100.0	
기타	1,325	22.9	10.8	5.3	2.6	10.0	6.9	5.9	5.3	2.7	4.5	9.6	2.0	5.6	5.9	100.0	

〈표 2-2〉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유·초·중등 교육정책(2순위)

구분	응답비율														χ ²		
	사례수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공공성 강화	온종일 돌봄 교실 확대 및 서비스 강화	학교 민주 시민 교육 활성화	고교 학점제 도입 확대	고교 서열화 및 일반교 역량 강화	학교 생활 기록부 신뢰도 강화	국가 차원의 기초 학력 보장 체제 구축	교원양성제도 개선 및 교원역량 제고	SW, AI 교육 융합 강화	학교노후 시설 및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창의성과 과제를 키우는 학교 공간 혁신 추진	지방교육 자치 강화 및 학교 자치 활성화	온라인 수업 및 질적 강화		계	
전 체	4,768	7.5	12.4	4.1	2.6	10.1	6.9	7.9	9.0	5.7	7.7	14.6	4.6	6.8	100.0	-	
성별	남	2,414	7.5	11.6	4.4	3.1	10.1	6.8	8.1	8.8	6.2	8.1	14.6	4.2	6.6	100.0	13.877
	여	2,354	7.5	13.3	3.9	2.1	10.1	7.0	7.8	9.2	5.1	7.3	14.7	5.0	7.1	100.0	(df=12)
거주 지역	서울특별시	940	6.1	11.1	3.9	2.4	10.6	8.0	9.0	7.8	8.3	13.4	3.1	6.9	100.0	47.303 (df=36)	
	광역시, 특별자치시	1,280	7.8	12.3	4.1	2.8	10.9	5.9	7.8	8.8	4.5	9.0	5.5	6.3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236	7.8	13.1	4.2	2.5	9.7	6.8	7.2	9.1	5.3	6.7	15.4	4.8	7.2		100.0
	읍·면(군)지역	312	7.7	12.2	4.5	2.6	8.0	8.3	10.3	8.3	6.7	8.3	13.1	4.2	5.8		100.0
연령	19~29세	866	7.3	11.2	4.2	2.9	8.4	6.8	8.0	8.1	7.9	10.3	13.7	4.8	6.5	100.0	122.762** * (df=48)
	30대	835	9.0	17.7	2.9	2.9	9.3	6.3	8.9	9.0	6.2	6.5	11.5	3.6	6.2	100.0	
	40대	1,013	5.6	10.3	4.5	2.7	12.3	8.9	8.4	7.9	4.9	7.3	15.1	5.1	6.9	100.0	
	50대	1,041	6.1	11.0	3.8	2.0	11.2	6.6	7.7	9.9	4.6	6.2	16.6	6.0	8.1	100.0	
	60~74세	1,013	9.6	12.5	5.0	2.7	8.8	5.7	7.0	10.0	5.1	8.6	15.5	3.3	6.2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834	7.2	12.0	4.3	2.7	10.6	7.4	8.0	9.7	5.2	7.3	14.9	4.3	6.5	100.0	18.360
	자녀 없음	1,934	7.9	13.0	3.8	2.5	9.4	6.2	7.9	8.0	6.4	8.4	14.2	5.1	7.3	100.0	(df=12)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26	4.1	8.7	5.0	3.5	13.1	9.5	8.1	10.2	5.7	7.0	14.1	4.6	6.5	100.0	68.036*** (df=12)
	기타	3,742	8.4	13.4	3.9	2.4	9.3	6.2	7.9	8.7	5.7	7.9	14.8	4.6	6.9	100.0	
초등 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1	4.4	11.5	5.8	3.8	11.7	9.4	9.2	11.9	6.0	6.9	11.7	2.5	5.2	100.0	40.238*** (df=12)
	기타	4,247	7.8	12.5	3.9	2.4	9.9	6.6	7.8	8.6	5.6	7.8	15.0	4.9	7.0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38	4.4	5.6	3.3	3.6	15.4	8.9	8.3	9.2	6.2	7.4	16.0	3.8	8.0	100.0	33.881** (df=12)
	기타	4,430	7.7	12.9	4.2	2.5	9.7	6.7	7.9	9.0	5.6	7.8	14.5	4.7	6.7	100.0	
고등 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4	3.3	6.6	4.5	3.1	13.4	9.7	6.4	10.4	5.9	7.3	16.5	6.8	6.1	100.0	43.368*** (df=12)
	기타	4,344	7.9	13.0	4.1	2.6	9.8	6.6	8.1	8.9	5.6	7.8	14.5	4.4	6.9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54	6.9	9.0	3.6	1.4	11.7	9.2	6.3	8.3	5.2	6.7	17.0	6.9	7.8	100.0	29.852** (df=12)
	기타	4,214	7.5	12.8	4.2	2.8	9.9	6.6	8.2	9.1	5.7	7.9	14.3	4.3	6.7	100.0	
학력	중졸 이하	89	9.0	14.6	1.1	2.2	11.2	7.9	4.5	10.1	3.4	10.1	14.6	3.4	7.9	100.0	41.298 (df=36)
	고졸	824	7.5	10.8	3.3	3.2	8.4	7.9	9.6	9.5	5.1	7.4	14.2	5.7	7.5	100.0	
	전문대/대졸	3,403	7.6	12.7	4.1	2.6	10.0	6.7	7.7	9.1	5.9	7.7	14.8	4.5	6.5	100.0	
	대학원졸	452	6.0	12.6	6.6	1.8	13.5	6.4	7.3	7.1	5.5	8.4	13.9	3.3	7.5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420	8.1	12.9	2.9	3.3	7.1	6.7	8.8	8.3	5.5	10.7	13.8	5.0	6.9	100.0	30.840 (df=36)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542	7.4	13.0	3.8	2.4	10.6	6.0	8.0	8.7	5.8	7.7	14.7	5.3	6.7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10	6.7	12.2	4.5	2.7	10.1	7.7	8.0	9.3	5.4	7.5	15.8	3.8	6.3	100.0	
	600만원 이상	1,296	8.3	11.8	4.5	2.5	10.5	7.2	7.5	9.3	5.8	7.2	13.4	4.6	7.6	100.0	
직업군	관리자	605	7.4	10.6	5.0	2.5	9.4	7.6	8.9	9.8	5.3	7.3	15.4	4.8	6.1	100.0	108.634 (df=12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892	7.8	12.0	4.9	2.5	11.8	6.4	6.8	8.5	8.0	7.2	13.5	4.9	5.7	100.0	
	사무 종사자	1,172	6.5	13.8	3.7	2.5	10.5	7.1	8.7	8.0	5.5	7.5	15.0	3.7	7.5	100.0	
	서비스 종사자	178	9.0	12.9	4.5	2.8	9.0	6.7	7.9	7.3	3.9	7.9	16.9	2.2	9.0	100.0	
	판매 종사자	201	8.5	12.4	4.0	4.0	6.0	5.0	10.0	11.9	6.0	7.0	13.9	5.0	6.5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9	10.3	13.8	6.9	3.4	3.4	3.4	6.9	6.9	6.9	6.9	13.8	10.3	6.9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57	6.4	12.7	4.5	1.9	8.3	10.2	5.1	8.3	3.8	7.0	15.3	7.6	8.9	100.0	
	장차·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98	6.1	9.2	7.1	2.0	10.2	5.1	10.2	16.3	3.1	7.1	10.2	5.1	8.2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79	6.7	12.3	2.8	5.6	12.8	6.7	8.9	7.3	4.5	8.4	16.2	3.4	4.5	100.0	
	군인	10	0.0	20.0	0.0	0.0	10.0	20.0	10.0	0.0	0.0	0.0	40.0	0.0	0.0	100.0	
	기타	1,247	8.1	12.3	3.4	2.3	9.7	6.8	7.3	9.5	5.1	8.8	14.4	5.1	7.1	100.0	

〈표 2-3〉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유·초·중등 교육정책(1+2순위)

구분	사례수	응답비율															χ^2
		국공립유치원 등 유치원성 강화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 서비스 강화	학교민주 시민교육 활성화	고교점제 도입 및 확대	고교서열화 및 해소 일반고 역량 강화	학교생활 기록부 신뢰도 강화	국가차원의 기초 학력 보장 체제 구축	교원양성 제도 개선 및 교원역량 제고	SW, AI 및 교육융합교 강화	학교후 시설 개선 및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키워주는 공간 혁신 추진	지방교육 자치 강화 및 학교 자치 활성화	온라인 수업 확대 및 질적 강화	잘 모르겠다		
전체	5,000	16.1	11.7	4.9	3.2	11.6	6.9	6.9	6.4	4.2	5.7	11.5	3.0	5.4	2.4	-	
성별	남	2,531	16.2	10.3	5.4	3.6	12.1	6.8	6.9	6.1	4.8	6.0	11.9	2.8	4.9	2.4	56.759*** (df=14)
	여	2,469	16.0	13.2	4.5	2.8	11.1	7.0	6.8	3.7	5.4	11.2	3.2	6.0	2.4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13.7	10.4	5.6	3.7	13.0	7.3	7.9	6.6	5.1	6.1	10.7	2.1	6.2	1.8	80.371*** (df=42)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17.2	11.7	5.1	3.4	11.1	5.9	6.9	6.5	3.7	6.1	11.4	3.4	5.3	2.4	
	중소도시(시 지역)	2,359	16.5	12.3	4.7	2.8	11.4	7.3	6.1	6.4	4.1	5.2	12.0	3.2	5.4	2.7	
	읍·면(군)지역	324	16.5	12.3	4.4	3.5	10.8	6.9	8.6	6.1	5.2	6.1	10.7	3.0	3.9	1.9	
연령	19~29세	929	12.7	12.3	5.2	3.9	8.9	7.4	6.0	6.5	6.6	7.9	10.5	3.1	5.7	3.5	349.063*** (df=56)
	30대	870	19.2	16.5	4.2	4.5	10.4	5.5	6.5	6.2	4.2	4.8	8.4	2.5	4.9	2.1	
	40대	1,046	14.7	9.7	5.0	3.1	14.3	8.3	7.4	5.7	3.5	5.4	12.0	3.4	5.8	1.6	
	50대	1,084	15.3	9.4	4.5	2.3	14.0	7.1	7.3	7.2	3.6	4.7	13.2	3.5	5.8	2.0	
	60~74세	1,071	18.8	11.8	5.7	2.5	9.7	5.9	6.9	6.5	3.6	5.8	12.7	2.4	4.9	2.8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16.2	11.3	5.0	3.1	12.8	7.6	7.3	6.6	3.7	5.1	11.9	2.8	5.0	1.6	111.209*** (df=14)
	자녀 없음	2,073	16.1	12.4	4.9	3.4	9.9	5.8	6.2	6.2	5.0	6.5	11.0	3.3	6.0	3.5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10.9	8.3	4.8	4.4	17.8	9.8	7.9	6.8	3.8	5.2	11.6	3.0	4.9	0.5	316.755*** (df=14)
	기타	3,963	17.5	12.7	5.0	2.9	9.9	6.1	6.6	6.3	4.4	5.8	11.5	3.0	5.6	2.9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12.3	10.9	5.5	4.6	15.1	8.6	8.7	7.3	3.9	5.5	10.6	1.9	4.6	0.5	83.275*** (df=14)
	기타	4,474	16.6	11.8	4.9	3.0	11.2	6.7	6.6	6.4	4.3	5.7	11.6	3.1	5.5	2.6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8.1	5.7	4.1	4.3	20.4	10.9	9.0	6.3	4.4	5.3	12.6	2.8	5.4	0.6	179.698*** (df=14)
	기타	4,658	16.7	12.2	5.0	3.1	10.9	6.6	6.7	6.5	4.2	5.7	11.4	3.0	5.4	2.5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9.9	6.5	4.3	4.3	19.5	11.3	6.6	7.0	3.6	4.9	12.6	4.1	4.9	0.5	188.866*** (df=14)
	기타	4,572	16.7	12.2	5.0	3.1	10.8	6.4	6.9	6.4	4.3	5.8	11.4	2.9	5.5	2.6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14.3	7.9	4.3	2.3	14.6	9.9	5.8	6.6	4.2	5.7	13.2	3.9	6.1	1.1	83.392*** (df=14)
	기타	4,434	16.4	12.2	5.0	3.3	11.2	6.5	7.0	6.4	4.3	5.7	11.3	2.9	5.4	2.5	
학력	중졸 이하	104	17.6	13.5	2.1	2.6	9.8	7.8	4.7	6.2	2.1	5.7	10.4	3.6	6.2	7.8	110.200*** (df=42)
	고졸	886	15.7	10.6	5.1	4.2	9.8	6.8	8.1	6.5	3.5	5.7	11.0	3.3	6.1	3.6	
	전문대/대졸	3,545	16.5	12.1	4.8	3.1	11.7	6.8	6.6	6.5	4.4	5.6	11.5	3.0	5.2	2.0	
	대학원졸	465	13.6	10.4	6.0	1.9	14.5	7.2	6.7	6.1	5.0	6.3	12.6	2.4	5.9	1.4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16.9	11.5	4.5	3.1	7.3	6.3	6.6	5.8	3.8	7.3	11.0	3.4	7.3	5.1	131.880*** (df=42)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16.1	12.7	4.8	3.3	10.8	5.7	6.9	6.3	4.5	5.7	11.5	3.6	5.2	2.9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16.4	11.4	5.1	3.5	13.0	7.6	7.3	6.5	3.9	5.0	11.7	2.3	4.7	1.6	
	600만원 이상	1,340	15.6	11.0	5.0	2.8	12.3	7.7	6.4	6.8	4.4	5.8	11.5	3.0	6.0	1.7	
직업군	관리자	621	16.0	10.6	5.2	3.8	12.7	7.4	7.4	6.5	3.4	5.2	12.3	3.1	4.9	1.3	209.198*** (df=14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15.6	11.0	5.7	2.9	13.8	6.4	6.2	6.4	5.8	5.4	11.0	3.0	4.8	2.0	
	사무 종사자	1,214	16.3	13.1	4.4	3.5	11.4	7.5	7.2	6.0	4.6	5.3	11.2	2.4	5.5	1.8	
	서비스 종사자	190	17.7	14.1	4.9	3.3	10.1	6.0	8.2	4.9	3.3	5.4	11.7	1.9	5.4	3.3	
	판매 종사자	210	14.8	12.9	5.8	2.7	12.7	4.6	8.0	6.6	3.9	5.1	11.7	3.4	5.6	2.2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32	16.4	11.5	9.8	3.3	9.8	3.3	11.5	3.3	4.9	3.3	6.6	4.9	6.6	4.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19.3	10.2	5.9	3.1	11.2	9.0	5.6	4.7	3.4	5.0	10.6	4.3	5.3	2.5	
	정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18.0	9.5	5.5	5.0	11.0	5.5	6.5	10.5	3.0	6.0	10.0	3.0	4.5	2.0	
	단순노무 종사자	199	16.9	10.8	5.3	5.3	11.4	5.6	6.3	5.3	2.4	6.1	12.2	2.4	4.8	5.3	
	군인 기타	13	8.7	13.0	0.0	0.0	13.0	13.0	8.7	0.0	4.3	8.7	17.4	0.0	0.0	13.0	
기타	1,325	15.7	11.5	4.4	2.5	9.8	6.8	6.6	7.3	3.9	6.6	11.9	3.5	6.3	3.0		

〈표 3-1〉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고등교육정책(1순위)

구분	응답비율													계	X ²
	사례수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회 균등 선발 의무화	등록금 부담 경감	대학생 기숙사 수용 인원 확충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대학 육성	지방 대학- 지자체 협력 기반의 지역 혁신 체계 구축 지원	전문 대학 지원 확대	대학의 자율적 기반을 토대로 한 혁신 지원	대학의 혁신적 연구 역량 제고 학술 생태계 조성 지원	고등교육 재정 및 효율적 배분	잘 모르겠다			
전 체	5,000	29.6	5.5	22.5	5.3	11.2	6.3	3.2	4.8	4.0	2.9	4.6	100.0	-	
성별	남	2,531	28.5	5.4	22.2	5.3	12.5	6.2	2.8	5.3	4.1	2.9	4.8	100.0	15.868 (df=10)
	여	2,469	30.8	5.7	22.8	5.3	9.8	6.5	3.6	4.3	3.9	2.8	4.5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32.4	4.9	22.1	6.3	8.2	5.3	4.3	6.2	4.8	2.1	3.4	100.0	63.248*** (df=30)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28.1	6.0	21.8	4.7	12.7	7.4	2.9	4.4	4.0	2.9	5.0	100.0	
	중소도시(시 지역) 읍·면(군)지역	2,359	29.9	4.9	23.4	5.0	11.4	6.1	2.9	4.4	3.9	3.2	4.9	100.0	
연령	19~29세	929	24.0	5.8	26.7	8.0	7.6	5.7	5.1	2.9	2.4	6.8	100.0	152.990*** (df=40)	
	30대	870	27.9	6.0	25.4	5.2	12.0	6.8	3.4	3.2	2.2	4.7	100.0		
	40대	1,046	33.4	3.9	24.4	4.6	10.4	6.2	2.4	4.4	3.7	3.0	100.0		
	50대	1,084	32.7	6.3	20.0	5.2	11.6	5.9	2.5	4.7	4.1	3.3	3.7		100.0
	60~74세	1,071	29.1	5.8	17.2	4.0	14.0	7.1	2.9	6.3	5.7	2.6	5.3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31.3	5.9	20.7	4.9	12.2	6.5	2.7	5.2	4.2	3.1	3.2	100.0	66.036*** (df=10)
	자녀 없음	2,073	27.4	5.1	25.0	5.9	9.7	6.1	3.9	4.2	3.7	2.5	6.6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32.7	6.5	23.9	4.8	10.2	6.8	2.4	4.7	3.5	3.4	1.2	100.0	48.173*** (df=10)
	기타	3,963	28.8	5.3	22.1	5.5	11.5	6.2	3.4	4.8	4.1	2.7	5.6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31.9	5.7	25.5	4.4	10.6	6.5	2.5	4.9	3.4	3.6	1.0	100.0	24.431** (df=10)
	기타	4,474	29.4	5.5	22.2	5.4	11.3	6.3	3.3	4.8	4.0	2.8	5.1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34.5	5.0	21.6	5.0	10.8	8.2	2.6	4.7	1.8	3.8	2.0	100.0	16.778 (df=10)
	기타	4,658	29.3	5.6	22.6	5.3	11.2	6.2	3.2	4.8	4.1	2.8	4.8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32.5	8.4	23.4	5.4	9.1	6.8	3.0	4.2	4.0	2.3	0.9	100.0	25.017** (df=10)
	기타	4,572	29.4	5.3	22.4	5.3	11.4	6.3	3.2	4.8	4.0	2.9	5.0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32.9	5.5	22.4	4.9	11.1	7.2	2.7	5.7	3.5	2.5	1.6	100.0	18.304 (df=10)
	기타	4,434	29.2	5.5	22.5	5.4	11.2	6.2	3.3	4.7	4.0	2.9	5.0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21.2	3.8	23.1	3.8	14.4	3.8	2.9	3.8	5.8	0.0	17.3	100.0	153.419*** (df=30)
	고졸	886	23.4	7.7	21.4	6.2	10.8	6.7	5.2	4.4	2.5	5.3	6.4	100.0	
	전문대/대졸	3,545	30.8	5.3	23.5	5.3	10.9	6.3	2.9	4.6	3.9	2.5	4.0	100.0	
	대학원졸	465	34.8	3.9	17.0	3.9	13.1	6.5	1.9	7.1	6.7	1.7	3.4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28.6	5.4	23.2	4.5	6.9	5.8	3.2	3.9	4.9	3.7	9.9	100.0	104.060*** (df=30)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25.7	5.7	24.0	6.2	12.2	5.9	3.4	5.2	3.1	3.1	5.4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31.2	6.2	22.6	5.3	10.4	7.1	3.5	4.4	3.3	2.8	3.3	100.0	
	600만원 이상	1,340	33.1	4.6	20.3	4.6	12.5	6.2	2.5	5.0	5.5	2.3	3.4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26.7	5.8	24.5	5.8	13.5	6.4	2.9	4.7	4.2	2.6	2.9	100.0	185.909*** (df=10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31.9	4.1	21.6	5.3	11.9	6.0	2.8	5.1	4.8	1.8	4.6	100.0	
	사무 종사자	1,214	31.3	6.0	24.4	5.6	10.1	6.6	2.5	4.6	3.5	2.0	3.4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20.5	10.5	26.8	4.7	10.5	4.2	4.7	4.7	4.2	4.2	4.7	100.0	
	판매 종사자	210	25.7	8.1	26.7	4.8	10.0	6.7	4.3	4.3	3.8	2.9	2.9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18.8	3.1	28.1	9.4	0.0	12.5	0.0	9.4	6.3	3.1	9.4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23.0	6.7	26.1	4.8	12.7	6.1	3.0	3.0	4.8	4.2	5.5	100.0	
	장차·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22.5	6.9	14.7	5.9	18.6	10.8	3.9	7.8	2.9	2.9	2.9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24.1	5.5	25.1	7.5	7.0	5.5	5.0	4.0	1.5	5.5	9.0	100.0	
	군인	13	7.7	15.4	15.4	0.0	7.7	7.7	0.0	0.0	0.0	23.1	23.1	100.0	
기타	1,325	32.5	4.6	18.9	4.7	11.0	6.2	3.7	4.9	4.0	3.5	6.0	100.0		

〈표 3-2〉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고등교육정책(2순위)

구분	응답비율												χ ²
	사례수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회 균형 선발 의무화	등록금 부담 경감	대학생 기숙사 수용 인원 확충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대학 육성	지방 대학- 지자체 협력 기반의 지역 혁신 체계 구축 지원	전문 대학 지원 확대	대학의 자율적 기반을 토대로 대학 혁신 지원	대학의 혁신적 연구 역량 제고 및 생대계 조성 지원	고등 교육 재정 및 효율적 배분	계	
전 체	4,768	10.4	5.6	19.8	8.2	13.3	11.3	6.8	9.8	9.1	5.7	100.0	-
성별	남	2,409	10.0	5.9	19.0	8.3	13.7	11.1	6.4	9.9	5.6	100.0	11.947
	여	2,359	10.9	5.2	20.6	8.1	12.8	11.5	7.3	9.6	5.8	100.0	(df=9)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41	10.5	6.1	20.3	7.4	9.8	10.3	8.2	11.6	5.5	100.0	47.447** (df=27)
	광역시, 특별자치시	1,276	8.9	5.8	17.9	8.5	15.9	12.8	6.3	9.2	5.7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243	11.3	4.9	20.5	8.3	13.3	10.7	6.4	9.5	5.9	100.0	
	읍·면(군지역)	308	10.4	7.8	20.8	8.4	12.7	12.3	8.1	8.4	5.8	100.0	
연령	19~29세	866	9.4	5.1	20.7	8.4	13.3	11.4	9.0	9.2	5.4	100.0	85.078*** (df=36)
	30대	829	10.7	5.7	19.5	9.4	12.9	12.5	7.8	9.8	7.0	100.0	
	40대	1,015	10.4	5.9	22.5	8.2	14.7	11.3	5.8	7.6	6.5	100.0	
	50대	1,044	9.6	5.4	18.9	8.6	12.9	10.8	5.3	9.6	13.2	100.0	
	60~74세	1,014	11.9	5.7	17.5	6.6	12.5	10.7	6.8	12.5	10.3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832	11.0	5.5	19.7	8.0	12.9	11.2	5.8	10.4	9.7	100.0	21.295*
	자녀 없음	1,936	9.6	5.6	19.8	8.5	13.9	11.4	8.4	8.8	8.3	100.0	(df=9)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25	11.4	5.6	22.0	8.4	13.4	13.0	4.5	7.8	7.9	100.0	25.986**
	기타	3,743	10.2	5.6	19.2	8.1	13.3	10.8	7.5	10.3	9.5	100.0	(df=9)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1	12.7	6.5	22.1	7.9	14.2	11.7	5.6	7.5	6.9	100.0	14.122
	기타	4,247	10.1	5.4	19.5	8.2	13.2	11.3	7.0	10.0	9.4	100.0	(df=9)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35	10.4	5.1	25.4	9.6	10.4	13.7	5.7	5.4	7.5	100.0	20.440*
	기타	4,433	10.4	5.6	19.4	8.1	13.5	11.1	6.9	10.1	9.3	100.0	(df=9)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4	10.8	5.0	21.7	8.7	13.4	13.4	3.3	8.7	8.7	100.0	12.538
	기타	4,344	10.4	5.6	19.6	8.1	13.3	11.1	7.2	9.9	9.2	100.0	(df=9)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57	10.2	4.3	19.9	10.8	11.3	10.8	4.5	11.1	11.1	100.0	17.963*
	기타	4,211	10.4	5.7	19.8	7.9	13.5	11.4	7.1	9.6	8.9	100.0	(df=9)
학력	중졸 이하	86	12.8	9.3	19.8	12.8	11.6	10.5	8.1	4.7	5.8	100.0	81.870*** (df=27)
	고졸	829	9.5	7.0	17.1	7.2	12.2	12.2	11.1	10.0	6.9	100.0	
	전문대/대졸	3,404	10.4	5.3	20.8	8.3	13.7	11.2	6.2	9.5	9.0	100.0	
	대학원졸	449	11.8	4.5	16.9	8.5	12.2	10.5	3.3	11.8	14.9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19	8.1	8.4	22.9	6.9	15.5	9.3	8.4	7.9	6.4	100.0	60.402*** (df=27)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546	10.2	5.8	18.4	8.5	13.6	12.6	8.2	8.7	8.1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09	10.3	4.7	19.8	7.4	14.2	11.5	6.6	10.7	9.6	100.0	
	600만원 이상	1,294	11.5	5.4	20.4	9.1	11.0	10.2	5.0	10.4	10.7	100.0	
직업군	관리자	603	10.4	6.3	18.1	8.5	12.9	13.3	5.5	8.5	12.1	100.0	118.892* (df=9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886	10.6	4.1	20.1	9.4	13.5	11.3	6.0	9.7	10.4	100.0	
	사무 종사자	1,173	11.4	5.5	21.1	7.8	13.9	10.8	6.9	9.8	6.8	100.0	
	서비스 종사자	181	7.2	8.8	16.0	11.0	16.0	7.7	8.8	8.8	7.2	100.0	
	판매 종사자	204	12.3	4.9	13.2	8.8	15.7	11.3	7.8	7.8	9.8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9	17.2	6.9	10.3	10.3	10.3	6.9	13.8	6.9	13.8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56	14.1	3.2	16.0	8.3	12.8	15.4	8.3	9.0	5.1	100.0	
	정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99	9.1	9.1	15.2	6.1	18.2	12.1	8.1	7.1	11.1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81	8.8	10.5	17.1	7.2	14.4	13.8	9.4	7.7	6.1	100.0	
	군인 기타	10 1,246	20.0 9.1	10.0 5.1	20.0 22.2	0.0 7.4	0.0 11.6	10.0 10.5	10.0 6.7	10.0 11.5	20.0 9.8	0.0 100.0	

〈표 3-3〉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고등교육정책(1+2순위)

구분	응답비율												χ^2
	사례수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회 균형 선발 의무화	등록금 부담 경감	대학생 기숙사 수용 인원 확충	국가 균형 발전 을 위 한 지 방 대 학 육 성	지방 대학- 지 지 체 협 력 기 반 의 지 역 혁 신 체 계 구 축 지 원	전문 대학 지원 확대	대학의 자 율 적 기 반 을 토 대 로 한 대 학 혁 신 지 원	대학의 혁신 적 연구 역 량 제 고 및 학 술 생 태 계 조 성 지 원	고 등 교 육 재 정 및 효 율 적 배 분	잘 모 르 겠 다	
전 체	5,000	20.3	5.5	21.2	6.7	12.2	8.8	5.0	7.2	6.5	4.3	2.4	-
성별	남	2,531	19.5	5.7	20.6	6.8	13.1	8.6	4.6	7.5	7.0	4.2	2.5
	여	2,469	21.1	5.4	21.7	6.7	11.3	8.9	5.4	6.9	6.0	4.3	2.3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21.7	5.5	21.2	6.8	9.0	7.8	6.2	8.8	7.5	3.8	1.7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18.7	5.9	19.9	6.5	14.2	10.0	4.5	6.8	6.5	4.3	2.6
	중소도시(시 지역)	2,359	20.8	4.9	22.0	6.6	12.3	8.4	4.6	6.9	6.4	4.5	2.5
	읍·면(군)지역	324	18.0	8.9	20.6	7.8	12.7	9.3	5.7	6.6	4.0	4.0	2.5
연령	19-29세	929	16.9	5.5	23.8	8.2	10.4	8.5	7.0	7.1	5.4	3.8	3.5
	30대	870	19.5	5.8	22.5	7.2	12.4	9.6	5.6	6.4	5.1	3.4	2.4
	40대	1,046	22.1	4.9	23.4	6.4	12.5	8.7	4.1	6.0	5.1	5.3	1.5
	50대	1,084	21.4	5.8	19.5	6.9	12.3	8.3	3.9	7.1	8.6	4.5	1.9
	60-74세	1,071	20.8	5.8	17.3	5.3	13.3	8.8	4.8	9.3	7.9	4.0	2.7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21.3	5.7	20.2	6.4	12.5	8.8	4.2	7.8	6.9	4.4	1.6
	자녀 없음	2,073	18.8	5.3	22.5	7.2	11.7	8.7	6.1	6.4	5.9	4.0	3.4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22.1	6.0	23.0	6.6	11.8	9.8	3.4	6.3	5.7	4.7	0.6
	기타	3,963	19.8	5.4	20.7	6.8	12.3	8.5	5.4	7.5	6.7	4.1	2.9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22.3	6.1	23.8	6.1	12.4	9.1	4.0	6.2	5.2	4.3	0.5
	기타	4,474	20.0	5.5	20.9	6.8	12.2	8.7	5.1	7.3	6.7	4.3	2.6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22.6	5.0	23.5	7.2	10.6	10.9	4.1	5.0	4.6	5.3	1.0
	기타	4,658	20.1	5.6	21.0	6.7	12.3	8.6	5.0	7.4	6.6	4.2	2.5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21.7	6.7	22.5	7.0	11.3	10.1	3.2	6.5	6.3	4.2	0.5
	기타	4,572	20.1	5.4	21.0	6.7	12.3	8.6	5.1	7.3	6.5	4.3	2.6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21.6	4.9	21.2	7.8	11.2	9.0	3.6	8.4	7.3	4.2	0.8
	기타	4,434	20.1	5.6	21.2	6.6	12.3	8.7	5.2	7.1	6.4	4.3	2.6
학력	중졸 이하	104	17.4	6.3	21.6	7.9	13.2	6.8	5.3	4.2	5.8	2.1	9.5
	고졸	886	16.7	7.3	19.4	6.7	11.5	9.3	8.0	7.1	4.6	6.0	3.3
	전문대/대졸	3,545	20.8	5.3	22.2	6.8	12.3	8.7	4.5	7.0	6.4	4.0	2.0
	대학원졸	465	23.5	4.2	17.0	6.1	12.7	8.4	2.6	9.4	10.7	3.6	1.8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18.9	6.8	23.1	5.7	11.0	7.5	5.7	5.8	5.7	4.9	5.2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18.2	5.8	21.3	7.3	12.9	9.1	5.7	6.9	5.5	4.5	2.8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20.9	5.5	21.2	6.3	12.3	9.3	5.1	7.5	6.4	3.9	1.7
	600만원 이상	1,340	22.5	5.0	20.3	6.8	11.7	8.2	3.8	7.7	8.1	4.2	1.7
직업군	관리자	621	18.7	6.0	21.3	7.1	13.2	9.8	4.2	6.5	8.1	3.5	1.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21.5	4.1	20.9	7.3	12.7	8.6	4.4	7.3	7.5	3.4	2.4
	사무 종사자	1,214	21.5	5.8	22.7	6.7	12.0	8.7	4.7	7.2	5.2	3.9	1.7
	서비스 종사자	190	14.0	9.7	21.6	7.8	13.2	5.9	6.7	6.7	5.7	6.2	2.4
	판매 종사자	210	19.1	6.5	20.0	6.8	12.8	8.9	6.0	6.0	6.8	5.6	1.4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18.0	4.9	19.7	9.8	4.9	9.8	6.6	8.2	9.8	3.3	4.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18.7	5.0	21.2	6.5	12.8	10.6	5.6	5.9	5.0	5.9	2.8
	정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15.9	8.0	14.9	6.0	18.4	11.4	6.0	7.5	7.0	3.5	1.5
	단순노무 종사자	199	16.8	7.9	21.3	7.4	10.5	9.5	7.1	5.8	3.7	5.3	4.7
	군인	13	13.0	13.0	17.4	0.0	4.3	8.7	4.3	4.3	8.7	13.0	13.0
	기타	1,325	21.2	4.9	20.5	6.0	11.3	8.3	5.2	8.1	6.8	4.7	3.1

〈표 4-1〉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평생·직업교육정책(1순위)

구분	사례수	응답비율											계	χ ²
		중등 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고졸 취업 활성화	전문 대학 역량 강화를 통한 직업 교육 지역 거점 육성	한국형 무크 강좌 등 온라인 평생 교육 콘텐츠 및 인프라 확대	생애 단계별 맞춤형 진로 교육 강화	대학 창업 및 산학 협력 활성화	대학의 평생 교육 기능 강화	재직자의 대학 교육 지원 강화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과정 확대	평생 학습 등 도시 지역의 평생 교육 활성화	잘 모르겠다			
전 체	5,000	13.6	13.0	10.1	20.4	10.0	8.0	3.6	9.6	6.1	5.6	100.0	-	
성별	남	2,531	13.8	11.7	10.6	19.4	10.6	8.1	3.4	10.3	6.4	5.7	100.0	16.665 (df=9)
	여	2,469	13.4	14.4	9.5	21.4	9.4	7.9	3.8	8.9	5.9	5.6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10.9	12.3	12.4	22.1	10.3	9.3	4.5	9.0	5.3	3.8	100.0	63.405*** (df=27)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14.1	13.2	10.7	18.9	10.1	7.9	3.0	10.3	5.7	6.0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13.9	13.0	8.8	21.1	10.2	7.2	3.3	10.0	6.2	6.3	100.0	
	읍·면(군)지역	324	16.7	14.5	9.3	16.4	7.4	10.8	4.9	5.6	9.6	4.9	100.0	
연령	19-29세	929	12.9	11.8	11.0	18.2	11.6	9.1	5.8	8.2	3.7	7.6	100.0	116.801*** (df=36)
	30대	870	11.7	14.3	10.8	20.7	11.4	8.2	5.4	7.2	4.8	5.5	100.0	
	40대	1,046	14.1	13.5	8.5	22.4	10.7	7.4	3.0	9.2	7.1	4.3	100.0	
	50대	1,084	14.4	13.2	9.9	21.7	9.5	6.4	1.8	11.1	7.4	4.7	100.0	
	60~74세	1,071	14.4	12.4	10.4	18.9	7.3	9.2	2.4	11.7	7.1	6.3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13.9	13.5	10.4	21.0	9.7	7.8	2.6	10.4	6.4	4.4	100.0	49.759*** (df=9)
	자녀 없음	2,073	13.1	12.4	9.6	19.6	10.4	8.3	5.0	8.5	5.8	7.4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14.3	15.7	10.9	21.9	12.0	7.4	2.2	8.9	4.3	2.4	100.0	54.014*** (df=9)
	기타	3,963	13.4	12.3	9.8	20.0	9.5	8.2	3.9	9.8	6.6	6.5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13.9	16.2	11.2	22.2	9.7	8.4	2.9	7.8	5.3	2.5	100.0	20.290* (df=9)
	기타	4,474	13.5	12.7	9.9	20.2	10.0	8.0	3.6	9.8	6.2	6.0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16.4	15.2	10.5	21.1	11.7	8.5	2.3	8.8	1.8	3.8	100.0	20.197* (df=9)
	기타	4,658	13.4	12.9	10.0	20.4	9.9	8.0	3.6	9.7	6.4	5.8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14.5	14.7	11.7	21.7	13.8	6.3	1.6	10.0	4.0	1.6	100.0	33.171*** (df=9)
	기타	4,572	13.5	12.9	9.9	20.3	9.6	8.2	3.7	9.6	6.3	6.0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12.7	14.0	8.8	19.4	12.9	7.2	2.5	13.3	6.5	2.7	100.0	29.137** (df=9)
	기타	4,434	13.7	12.9	10.2	20.5	9.6	8.1	3.7	9.1	6.1	6.0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9.6	9.6	7.7	11.5	5.8	10.6	1.0	16.3	5.8	22.1	100.0	142.991*** (df=27)
	고졸	886	20.3	12.8	9.4	17.9	8.1	7.1	3.4	7.1	6.7	7.2	100.0	
	전문대/대졸	3,545	11.7	13.5	10.6	21.3	10.5	7.9	3.8	9.8	6.0	4.9	100.0	
	대학원졸	465	15.7	10.5	7.7	20.2	10.8	10.1	2.8	11.4	6.5	4.3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14.4	10.5	8.6	20.2	8.8	5.2	4.3	9.2	6.9	11.8	100.0	92.804*** (df=27)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14.6	13.0	8.9	20.0	9.6	8.6	3.5	8.4	6.6	6.9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13.5	14.3	11.4	20.0	11.3	7.7	3.0	8.9	6.1	3.8	100.0	
	600만원 이상	1,340	12.2	12.4	10.4	21.4	9.3	8.7	4.0	12.0	5.3	4.2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13.4	11.3	11.6	21.4	11.3	9.5	2.9	10.1	5.0	3.5	100.0	149.303*** (df=9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11.1	12.9	9.9	19.7	11.7	8.0	4.3	10.1	6.9	5.4	100.0	
	사무 종사자	1,214	13.3	13.8	11.0	21.8	10.6	8.2	4.5	7.7	5.0	4.0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14.7	17.4	9.5	17.9	9.5	3.7	3.2	12.1	5.8	6.3	100.0	
	판매 종사자	210	14.8	17.6	10.5	21.4	11.4	5.2	2.4	8.6	5.2	2.9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15.6	15.6	9.4	9.4	9.4	21.9	0.0	6.3	6.3	6.3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11.5	13.9	9.1	20.6	7.3	6.1	6.1	11.5	6.7	7.3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16.7	9.8	9.8	16.7	7.8	11.8	2.0	17.6	4.9	2.9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16.1	12.1	8.0	20.6	6.0	9.5	5.5	7.0	5.5	9.5	100.0	
	군인	13	15.4	15.4	0.0	0.0	7.7	7.7	7.7	15.4	7.7	23.1	100.0	
기타	1,325	14.9	12.0	9.2	20.0	8.6	7.7	2.3	10.0	7.4	7.8	100.0		

〈표 4-2〉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평생·직업교육정책(2순위)

구분	사례수	응답비율										계	χ ²
		중등 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고졸 취업 활성화	전문 대학 역량 강화를 통한 직업교육 거점 육성	한국형 무크 강좌 등 온라인 평생 교육 콘텐츠 및 인프라 확대	생애 단계별 맞춤형 진로 교육 강화	대학 창업 및 산학 협력 활성화	대학의 평생 교육 기능 강화	재직자의 교육 지원 강화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과정 확대	평생 학습 등 도시 지역의 평생 교육 활성화			
전 체	4,718	7.4	12.6	8.0	14.4	10.3	11.8	8.2	15.7	11.6	100.0	-	
성별	남	2,387	7.5	11.0	8.1	13.4	10.4	12.4	8.3	17.6	11.2	100.0	26.788** (df=8)
	여	2,331	7.2	14.3	7.8	15.3	10.3	11.2	8.2	13.7	12.0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37	6.9	11.7	8.4	16.2	10.4	13.9	7.7	14.8	9.9	100.0	36.638* (df=24)
	광역시, 특별자치시	1,262	7.8	13.2	7.4	14.5	10.0	12.4	7.8	15.0	11.9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211	7.2	12.8	7.5	13.5	11.1	10.4	8.7	16.8	12.1	100.0	
	읍·면(군)지역	308	8.1	11.4	12.7	14.6	6.5	12.7	8.1	13.6	12.3	100.0	
연령	19~29세	858	6.9	12.2	9.2	13.6	11.5	14.2	12.1	11.9	8.3	100.0	83.937*** (df=32)
	30대	822	8.2	13.9	6.8	15.5	9.5	11.6	10.0	14.1	10.6	100.0	
	40대	1,001	7.7	13.1	7.4	13.7	10.0	11.5	8.1	17.0	11.6	100.0	
	50대	1,033	6.8	11.4	6.9	15.2	11.1	10.9	6.0	17.9	13.7	100.0	
	60~74세	1,004	7.4	12.7	9.6	13.9	9.6	11.1	5.9	16.7	13.1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799	7.3	12.4	7.8	14.5	10.3	12.4	7.1	16.3	11.9	100.0	15.138 (df=8)
	자녀 없음	1,919	7.4	12.9	8.2	14.2	10.5	10.9	9.8	14.8	11.3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12	7.6	11.8	7.4	13.6	12.1	12.6	7.8	16.7	10.4	100.0	9.132 (df=8)
	기타	3,706	7.3	12.9	8.1	14.6	9.9	11.5	8.3	15.4	12.0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13	7.4	11.7	7.8	15.2	10.1	15.2	7.8	14.4	10.3	100.0	7.984 (df=8)
	기타	4,205	7.3	12.7	8.0	14.3	10.4	11.4	8.3	15.9	11.8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29	9.4	11.2	5.2	13.4	14.0	10.3	7.3	18.8	10.3	100.0	14.570 (df=8)
	기타	4,389	7.2	12.7	8.2	14.4	10.1	11.9	8.3	15.5	11.7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1	8.3	10.9	7.4	12.1	14.3	10.9	7.1	18.8	10.2	100.0	14.823 (df=8)
	기타	4,297	7.3	12.8	8.0	14.6	10.0	11.9	8.3	15.4	11.8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51	9.1	10.3	7.4	15.8	11.3	10.5	7.6	14.0	14.0	100.0	11.977 (df=8)
	기타	4,167	7.1	12.9	8.0	14.2	10.2	12.0	8.3	15.9	11.3	100.0	
학력	중졸 이하	81	9.9	16.0	12.3	16.0	8.6	9.9	8.6	13.6	4.9	100.0	45.954** (df=24)
	고졸	822	8.8	16.8	7.9	12.4	10.1	12.8	7.2	14.8	9.2	100.0	
	전문대/대졸	3,370	7.1	11.9	7.9	14.4	10.4	12.0	8.6	15.8	12.0	100.0	
	대학원졸	445	6.5	9.9	7.6	17.5	11.0	9.0	7.0	17.1	14.4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10	8.8	15.9	8.3	9.5	8.0	12.9	6.8	14.6	15.1	100.0	45.210** (df=24)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523	7.7	13.5	8.3	14.2	10.6	11.2	7.5	15.7	11.4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01	7.1	12.9	7.5	14.1	9.6	13.2	9.4	15.9	10.4	100.0	
	600만원 이상	1,284	6.8	10.4	8.0	16.4	11.7	10.5	8.2	15.8	12.2	100.0	
직업군	관리자	599	5.3	12.4	8.3	12.5	10.0	13.5	8.5	17.2	12.2	100.0	121.763** (df=8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879	7.2	10.9	7.5	17.2	11.6	11.8	8.3	13.2	12.3	100.0	
	사무 종사자	1,165	7.5	13.3	7.8	14.8	10.9	11.0	10.8	13.9	10.0	100.0	
	서비스 종사자	178	7.9	15.2	6.2	11.8	11.2	11.2	10.1	14.6	11.8	100.0	
	판매 종사자	204	6.9	13.2	6.4	9.3	6.4	14.7	7.4	26.0	9.8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0	16.7	3.3	6.7	10.0	16.7	16.7	3.3	16.7	1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53	9.8	9.8	9.8	17.6	7.2	11.8	11.8	13.1	9.2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99	8.1	10.1	9.1	14.1	14.1	12.1	7.1	17.2	8.1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80	7.8	13.9	10.0	9.4	11.7	11.1	8.9	17.2	10.0	100.0	
	군인	10	10.0	0.0	20.0	40.0	10.0	10.0	0.0	10.0	0.0	100.0	
기타	1,221	7.7	13.6	8.1	14.3	9.3	11.2	5.2	17.0	13.6	100.0		

〈표 4-3〉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평생·직업교육정책(1+2순위)

구분	사례수	응답비율										χ ²
		중등 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고졸 취업 활성화	전문 대학 강화를 통한 직업 교육 지역 육성	한국형 무크 강좌 등 온라인 평생 교육 콘텐츠 및 인프라 확대	생애 단계별 맞춤형 진로 교육 강화	대학 창업 및 산학 협력 활성화	대학의 평생 교육 기능 강화	재직자의 대학 교육 지원 강화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과정 확대	평생 학습 도시 등 지역의 평생 교육 활성화	잘 모르겠다	
전 체	5,000	10.6	12.8	9.0	17.5	10.2	9.8	5.8	12.6	8.8	2.9	-
성별	남	2,531	10.7	11.4	9.4	16.5	10.5	10.2	5.7	13.8	8.7	2.9
	여	2,469	10.4	14.3	8.7	18.4	9.8	9.5	5.9	11.3	8.9	2.9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8.9	12.0	10.5	19.2	10.3	11.6	6.1	11.9	7.6	1.9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11.1	13.2	9.1	16.8	10.1	10.1	5.3	12.6	8.7	3.1
	중소도시(시 지역)	2,359	10.7	12.9	8.2	17.4	10.6	8.7	5.9	13.3	9.1	3.2
	읍·면(군)지역	324	12.5	13.0	10.9	15.5	7.0	11.7	6.5	9.5	10.9	2.5
연령	19-29세	929	10.0	12.0	10.1	16.0	11.6	11.6	8.8	10.0	5.9	4.0
	30대	870	10.0	14.1	8.9	18.1	10.5	9.8	7.6	10.6	7.6	2.8
	40대	1,046	10.9	13.3	8.0	18.1	10.4	9.4	5.5	13.0	9.3	2.2
	50대	1,084	10.7	12.3	8.4	18.5	10.3	8.6	3.9	14.4	10.5	2.4
	60-74세	1,071	11.0	12.6	10.0	16.5	8.4	10.1	4.1	14.1	10.0	3.2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10.7	13.0	9.2	17.8	10.0	10.1	4.8	13.3	9.0	2.2
	자녀 없음	2,073	10.3	12.7	8.9	17.0	10.4	9.5	7.3	11.5	8.4	3.9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11.0	13.8	9.2	17.8	12.0	10.0	5.0	12.7	7.3	1.2
	기타	3,963	10.4	12.6	9.0	17.4	9.7	9.8	6.1	12.5	9.2	3.4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10.7	14.0	9.5	18.8	9.9	11.7	5.3	11.1	7.8	1.3
	기타	4,474	10.5	12.7	9.0	17.3	10.2	9.6	5.9	12.7	8.9	3.1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13.0	13.3	7.9	17.3	12.8	9.4	4.8	13.7	6.0	1.9
	기타	4,658	10.4	12.8	9.1	17.5	10.0	9.9	5.9	12.5	9.0	3.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11.4	12.8	9.5	17.0	14.0	8.6	4.4	14.4	7.1	0.8
	기타	4,572	10.5	12.8	9.0	17.5	9.8	10.0	6.0	12.4	9.0	3.1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10.9	12.2	8.1	17.6	12.1	8.9	5.0	13.6	10.2	1.3
	기타	4,434	10.5	12.9	9.2	17.5	9.9	10.0	5.9	12.4	8.6	3.1
학력	중졸 이하	104	9.7	12.4	9.7	13.5	7.0	10.3	4.3	15.1	5.4	12.4
	고졸	886	14.8	14.7	8.7	15.3	9.1	9.8	5.2	10.8	7.9	3.7
	전문대/대졸	3,545	9.5	12.7	9.3	17.9	10.4	9.9	6.1	12.7	8.9	2.5
	대학원졸	465	11.2	10.2	7.7	18.9	10.9	9.6	4.8	14.2	10.3	2.2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11.8	13.0	8.5	15.2	8.5	8.8	5.5	11.8	10.7	6.3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11.3	13.2	8.6	17.2	10.1	9.8	5.4	11.9	8.9	3.5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10.3	13.6	9.5	17.1	10.5	10.4	6.1	12.3	8.2	1.9
	600만원 이상	1,340	9.6	11.4	9.2	19.0	10.5	9.6	6.1	13.9	8.7	2.1
직업군	관리자	621	9.4	11.8	10.0	17.0	10.7	11.5	5.7	13.6	8.5	1.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9.2	11.9	8.7	18.5	11.7	9.8	6.3	11.6	9.5	2.8
	사무 종사자	1,214	10.4	13.6	9.4	18.4	10.8	9.5	7.6	10.8	7.5	2.1
	서비스 종사자	190	11.4	16.3	7.9	14.9	10.3	7.3	6.5	13.3	8.7	3.3
	판매 종사자	210	10.9	15.5	8.5	15.5	8.9	9.9	4.8	17.1	7.5	1.4
	농림어업 속련 종사자	32	16.1	9.7	8.1	9.7	12.9	19.4	1.6	11.3	8.1	3.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10.7	11.9	9.4	19.2	7.2	8.8	8.8	12.3	7.9	3.8
	정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12.4	10.0	9.5	15.4	10.9	11.9	4.5	17.4	6.5	1.5
	단순노무 종사자	199	12.1	12.9	9.0	15.3	8.7	10.3	7.1	11.9	7.7	5.0
	군인	13	13.0	8.7	8.7	17.4	8.7	8.7	4.3	13.0	4.3	13.0
	기타	1,325	11.5	12.8	8.7	17.3	9.0	9.4	3.7	13.4	10.4	4.1

〈표 5〉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구분	사례수	응답비율									χ^2
		국·공립 유치원의 지속적 확충 및 설립 유형 (매입형, 부모협동형 등) 다양화	건강, 안전관리 등 책임을 강화한 '학부모 안심 유치원' 확대	사립 유치원 회계 투명한 운을 위한 사립 유치원 K-에듀파인 전면 도입	교비회계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처벌 근거 신설 등 유치원 3법 강력 시행	누리 과정 지원 단계 인상 등 유치원비 안정화 추진	유아 놀이 중심의 개정 누리 과정 현장 안착	방과후 과정 확대, 돌봄 시간 다양화 등 돌봄 서비스 내실화	잘 모르 겠다	계	
전 체	5,000	24.0	15.9	13.2	13.7	6.0	5.4	15.9	5.9	100.0	-
성별	남	2,531	26.0	14.7	13.7	5.5	5.8	14.5	6.1	100.0	25.640** (df=7)
	여	2,469	21.8	17.1	12.6	6.6	5.1	17.4	5.7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22.4	17.1	14.9	14.4	7.2	5.5	13.2	5.2	23.515 (df=21)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24.7	16.2	12.9	12.2	6.0	5.6	16.2	6.2	
	중소도시(시 지역)	2,359	24.0	15.6	12.4	14.0	5.6	5.4	16.9	6.1	
	읍·면(군)지역	324	25.6	12.3	14.5	15.4	6.2	4.3	16.4	5.2	
연령	19~29세	929	19.1	16.9	10.3	13.2	7.4	7.2	15.9	9.9	95.983*** (df=28)
	30대	870	22.1	16.3	15.3	13.1	7.5	6.2	14.6	4.9	
	40대	1,046	24.5	15.7	15.5	15.3	5.4	4.3	15.9	3.5	
	50대	1,084	25.3	15.7	12.5	14.4	5.5	4.8	16.1	5.6	
	60~74세	1,071	27.9	15.0	12.2	12.3	4.9	4.9	16.9	5.8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26.1	16.2	13.3	13.6	5.9	5.0	15.9	4.1	57.188*** (df=7)
	자녀 없음	2,073	20.9	15.4	13.0	13.9	6.3	6.0	16.0	8.5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25.0	17.1	15.5	14.9	5.6	4.9	14.9	2.2	40.635*** (df=7)
	기타	3,963	23.7	15.6	12.5	13.4	6.2	5.6	16.2	6.9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24.7	17.7	16.2	13.1	5.7	5.1	16.0	1.5	24.811** (df=7)
	기타	4,474	23.9	15.7	12.8	13.8	6.1	5.5	15.9	6.4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24.6	14.9	17.8	15.2	4.4	5.0	14.9	3.2	13.503 (df=7)
	기타	4,658	23.9	16.0	12.8	13.6	6.2	5.5	16.0	6.1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23.1	18.0	13.6	17.1	6.5	4.4	14.7	2.6	15.610* (df=7)
	기타	4,572	24.0	15.7	13.1	13.4	6.0	5.5	16.1	6.2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27.0	15.2	11.3	18.4	3.7	4.6	15.7	4.1	24.754** (df=7)
	기타	4,434	23.6	16.0	13.4	13.1	6.3	5.5	16.0	6.1	
학력	중졸 이하	104	15.4	13.5	9.6	14.4	6.7	2.9	20.2	17.3	57.678*** (df=21)
	고졸	886	21.1	17.8	13.5	13.0	6.7	5.8	14.8	7.3	
	전문대/대졸	3,545	24.6	15.1	13.3	13.5	6.0	5.6	16.4	5.5	
	대학원졸	465	26.5	18.7	12.0	16.1	5.2	3.9	14.0	3.7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20.2	17.4	12.5	10.3	5.4	5.2	17.8	11.2	63.443*** (df=21)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22.8	15.7	12.6	13.9	6.5	6.1	15.5	6.9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24.2	15.9	14.7	13.3	6.5	5.8	15.0	4.6	
	600만원 이상	1,340	26.3	15.6	12.2	15.1	5.1	4.3	16.9	4.4	
직업군	관리자	621	23.3	15.8	16.1	13.8	5.6	4.8	17.1	3.4	119.112* ** (df=7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22.7	15.6	13.7	15.7	7.0	4.7	16.4	4.2	
	사무 종사자	1,214	24.6	15.7	13.1	13.3	5.5	6.6	16.3	4.9	
	서비스 종사자	190	27.4	12.6	13.7	8.4	10.0	3.2	17.4	7.4	
	판매 종사자	210	29.5	11.9	13.3	12.9	7.6	3.8	15.2	5.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25.0	12.5	12.5	9.4	3.1	6.3	25.0	6.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23.6	17.6	12.1	19.4	5.5	4.8	10.3	6.7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20.6	13.7	10.8	13.7	9.8	10.8	12.7	7.8	
	단순노무 종사자	199	17.1	15.1	16.6	14.1	7.0	8.0	10.6	11.6	
	군인	13	15.4	15.4	7.7	15.4	7.7	7.7	7.7	23.1	
	기타	1,325	24.5	17.6	11.2	12.8	4.9	4.9	16.3	7.7	

〈표 6-1〉 초·중·고등학교 전반에 대한 평가

구분	사례수	응답 비율						종합결과			평균 (5점)	표준 편차	F
		매우 잘하고 있다 (A)	잘하고 있다 (B)	보통 이다 (C)	못하고 있다 (D)	전혀 못하고 있다 (E)	못하고 있음	보통 있음	잘하고 있음				
전 체	5,000	1.0	15.2	56.2	23.8	3.8	27.6	56.2	16.2	2.86	0.7	-	
성별	남	2,531	0.8	15.8	53.1	25.0	5.4	30.4	53.1	16.5	2.81	0.8	17.321*** (df=1)
	여	2,469	1.3	14.6	59.5	22.6	2.1	24.7	59.5	15.8	2.90	0.7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1.4	13.3	54.3	26.6	4.3	30.9	54.3	14.8	2.81	0.8	3.828** (df=3)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1.1	15.4	56.2	23.8	3.4	27.3	56.2	16.5	2.87	0.7	
	중소도시(시 지역)	2,359	0.8	15.1	56.9	23.2	4.0	27.2	56.9	15.9	2.86	0.7	
	읍·면(군)지역	324	0.6	20.4	56.8	19.8	2.5	22.2	56.8	21.0	2.97	0.7	
연령	19~29세	929	1.5	14.9	54.9	24.9	3.9	28.7	54.9	16.4	2.85	0.8	1.186 (df=4)
	30대	870	1.3	15.5	58.6	20.5	4.1	24.6	58.6	16.8	2.89	0.8	
	40대	1,046	0.7	13.2	58.6	24.2	3.3	27.5	58.6	13.9	2.84	0.7	
	50대	1,084	0.8	15.3	53.9	26.4	3.6	30.0	53.9	16.1	2.83	0.8	
	60~74세	1,071	0.8	17.0	55.5	22.6	4.1	26.7	55.5	17.8	2.88	0.8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0.9	16.3	55.2	24.1	3.6	27.6	55.2	17.2	2.87	0.8	1.718 (df=1)
	자녀 없음	2,073	1.2	13.6	57.7	23.4	4.1	27.6	57.7	14.7	2.84	0.7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1.0	16.5	54.0	25.3	3.3	28.5	54.0	17.5	2.87	0.8	0.155 (df=1)
	기타	3,963	1.0	14.8	56.8	23.4	3.9	27.4	56.8	15.8	2.86	0.7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1.5	16.3	56.3	22.2	3.6	25.9	56.3	17.9	2.90	0.8	1.797 (df=1)
	기타	4,474	0.9	15.0	56.2	24.0	3.8	27.8	56.2	16.0	2.85	0.7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0.3	17.0	55.6	25.1	2.0	27.2	55.6	17.3	2.88	0.7	0.416 (df=1)
	기타	4,658	1.1	15.0	56.3	23.7	3.9	27.6	56.3	16.1	2.86	0.8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0.5	16.8	51.9	28.0	2.8	30.8	51.9	17.3	2.84	0.7	0.232 (df=1)
	기타	4,572	1.0	15.0	56.6	23.4	3.9	27.3	56.6	16.1	2.86	0.7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1.1	14.3	53.7	27.9	3.0	30.9	53.7	15.4	2.83	0.7	1.216 (df=1)
	기타	4,434	1.0	15.3	56.5	23.3	3.9	27.2	56.5	16.3	2.86	0.7	
학력	중졸 이하	104	0.0	6.7	64.4	27.9	1.0	28.8	64.4	6.7	2.77	0.6	5.027** (df=3)
	고졸	886	1.2	17.6	59.0	18.4	3.7	22.1	59.0	18.8	2.94	0.7	
	전문대/대졸	3,545	1.0	14.4	56.4	24.5	3.7	28.2	56.4	15.4	2.84	0.7	
	대학원졸	465	1.1	18.3	47.7	27.5	5.4	32.9	47.7	19.4	2.82	0.8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1.3	13.1	57.4	23.0	5.2	28.2	57.4	14.4	2.82	0.8	3.645* (df=3)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0.9	15.1	59.3	20.9	3.9	24.8	59.3	16.0	2.88	0.7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1.2	16.4	55.2	24.4	2.8	27.2	55.2	17.6	2.89	0.7	
	600만원 이상	1,340	0.9	14.6	53.3	26.9	4.3	31.3	53.3	15.4	2.81	0.8	
직업군	관리자	621	1.1	15.0	53.1	26.2	4.5	30.8	53.1	16.1	2.82	0.8	1.209 (df=1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1.6	15.5	53.2	25.9	3.8	29.7	53.2	17.1	2.85	0.8	
	사무 종사자	1,214	0.7	15.7	57.2	23.9	2.6	26.4	57.2	16.4	2.88	0.7	
	서비스 종사자	190	0.0	18.9	58.4	17.9	4.7	22.6	58.4	18.9	2.92	0.7	
	판매 종사자	210	1.0	17.6	52.4	21.4	7.6	29.0	52.4	18.6	2.83	0.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3.1	21.9	43.8	28.1	3.1	31.3	43.8	25.0	2.94	0.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1.2	16.4	63.0	15.8	3.6	19.4	63.0	17.6	2.96	0.7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1.0	16.7	61.8	20.6	0.0	20.6	61.8	17.6	2.98	0.6	
	단순노무 종사자	199	1.5	10.1	61.3	21.6	5.5	27.1	61.3	11.6	2.80	0.7	
	군인	13	0.0	15.4	53.8	30.8	0.0	30.8	53.8	15.4	2.85	0.7	
	기타	1,325	0.8	14.0	57.5	23.7	4.0	27.7	57.5	14.8	2.84	0.7	

〈표 6-2〉 초등학교에 대한 평가

구분	응답 비율											F	
	사례수	매우 잘하고 있다 (A)	잘하고 있다 (B)	보통 이다 (C)	못하고 있다 (D)	전혀 못하고 있다 (E)	종합결과			평균 (5점)	표준 편차		
							못하고 있음	보통	잘하고 있음				
전 체	5,000	2.3	30.9	45.9	17.2	3.6	20.8	45.9	33.2	3.11	0.8	-	
성별	남	2,531	2.6	30.3	44.0	17.9	5.2	23.1	44.0	32.9	3.07	0.9	10.997** (df=1)
	여	2,469	2.1	31.5	47.9	16.5	2.0	18.5	47.9	33.6	3.15	0.8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2.6	27.9	45.2	20.3	4.0	24.3	45.2	30.5	3.05	0.9	2.972* (df=3)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2.1	31.6	45.1	17.3	3.8	21.1	45.1	33.7	3.11	0.8	
	중소도시(시 지역)	2,359	2.4	31.1	46.9	16.1	3.4	19.5	46.9	33.5	3.13	0.8	
	읍·면(군)지역	324	1.9	35.5	44.4	15.1	3.1	18.2	44.4	37.3	3.18	0.8	
연령	19~29세	929	2.3	27.1	46.9	19.6	4.1	23.7	46.9	29.4	3.04	0.8	3.664** (df=4)
	30대	870	2.4	27.4	49.2	17.0	4.0	21.0	49.2	29.8	3.07	0.8	
	40대	1,046	2.3	32.5	45.6	16.3	3.3	19.6	45.6	34.8	3.14	0.8	
	50대	1,084	2.0	33.0	43.8	17.6	3.5	21.1	43.8	35.1	3.12	0.8	
	60~74세	1,071	2.6	33.4	44.9	15.8	3.3	19.0	44.9	36.0	3.16	0.8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2.6	33.3	44.0	16.9	3.2	20.1	44.0	35.9	3.15	0.8	16.155*** (df=1)
	자녀 없음	2,073	2.0	27.5	48.7	17.6	4.2	21.8	48.7	29.5	3.05	0.8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2.8	33.8	42.1	18.4	2.8	21.2	42.1	36.6	3.15	0.9	3.440 (df=1)
	기타	3,963	2.2	30.2	46.9	16.9	3.8	20.7	46.9	32.3	3.10	0.8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3.4	33.5	42.4	17.3	3.4	20.7	42.4	36.9	3.16	0.9	2.114 (df=1)
	기타	4,474	2.2	30.6	46.4	17.2	3.6	20.8	46.4	32.8	3.11	0.8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2.0	36.5	40.9	18.4	2.0	20.5	40.9	38.6	3.18	0.8	2.553 (df=1)
	기타	4,658	2.3	30.5	46.3	17.1	3.7	20.8	46.3	32.8	3.11	0.8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2.8	34.1	42.1	19.6	1.4	21.0	42.1	36.9	3.17	0.8	2.522 (df=1)
	기타	4,572	2.3	30.6	46.3	17.0	3.8	20.8	46.3	32.9	3.11	0.8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3.0	36.2	40.5	17.3	3.0	20.3	40.5	39.2	3.19	0.9	5.479* (df=1)
	기타	4,434	2.2	30.2	46.6	17.2	3.7	20.9	46.6	32.5	3.10	0.8	
학력	중졸 이하	104	0.0	18.3	55.8	24.0	1.9	26.0	55.8	18.3	2.90	0.7	3.416* (df=3)
	고졸	886	2.5	31.8	47.2	15.2	3.3	18.5	47.2	34.3	3.15	0.8	
	전문대/대졸	3,545	2.3	30.4	46.1	17.4	3.8	21.2	46.1	32.7	3.10	0.8	
	대학원졸	465	2.4	36.3	39.8	17.8	3.7	21.5	39.8	38.7	3.16	0.9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2.2	23.4	51.6	17.2	5.6	22.8	51.6	25.6	2.99	0.8	3.566* (df=3)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2.4	30.0	48.9	14.7	4.0	18.7	48.9	32.4	3.12	0.8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2.6	32.4	43.4	19.0	2.6	21.5	43.4	35.1	3.14	0.8	
	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1,340	1.9	32.8	43.4	18.1	3.7	21.9	43.4	34.8	3.11	0.9	
	600만원 이상	1,340	1.9	32.8	43.4	18.1	3.7	21.9	43.4	34.8	3.11	0.9	
직업군	관리자	621	2.6	31.6	46.1	16.9	2.9	19.8	46.1	34.1	3.14	0.8	1.291 (df=1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3.3	32.2	43.4	17.4	3.7	21.1	43.4	35.5	3.14	0.9	
	사무 종사자	1,214	2.1	31.0	45.9	18.1	2.9	21.0	45.9	33.1	3.11	0.8	
	서비스 종사자	190	1.6	32.6	44.2	18.4	3.2	21.6	44.2	34.2	3.11	0.8	
	판매 종사자	210	2.9	28.6	43.3	17.1	8.1	25.2	43.3	31.4	3.01	0.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3.1	31.3	43.8	15.6	6.3	21.9	43.8	34.4	3.09	0.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1.8	30.3	46.1	17.6	4.2	21.8	46.1	32.1	3.08	0.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1.0	40.2	39.2	18.6	1.0	19.6	39.2	41.2	3.22	0.8	
	단순노무 종사자	199	3.0	21.6	50.8	18.1	6.5	24.6	50.8	24.6	2.96	0.9	
	군인	13	0.0	30.8	53.8	15.4	0.0	15.4	53.8	30.8	3.15	0.7	
	기타	1,325	1.7	30.6	48.2	15.9	3.6	19.5	48.2	32.3	3.11	0.8	

〈표 6-3〉 중학교에 대한 평가

구분	응답 비율											F	
	사례수	매우 잘하고 있다 (A)	잘하고 있다 (B)	보통 이다 (C)	못하고 있다 (D)	전혀 못하고 있다 (E)	종합결과			평균 (5점)	표준 편차		
							못하고 있음	보통	잘하고 있음				
전 체	5,000	1.3	19.3	52.3	22.9	4.2	27.0	52.3	20.7	2.91	0.8	-	
성별	남	2,531	1.2	20.0	49.5	23.9	5.5	29.4	49.5	21.2	2.88	0.8	8.327** (df=1)
	여	2,469	1.5	18.7	55.2	21.8	2.8	24.7	55.2	20.1	2.94	0.8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2.4	16.5	49.7	26.5	4.9	31.4	49.7	18.9	2.85	0.8	3.373* (df=3)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1.6	19.9	53.4	20.7	4.4	25.1	53.4	21.5	2.94	0.8	
	중소도시(시 지역)	2,359	0.8	19.6	52.7	23.1	3.8	26.9	52.7	20.4	2.91	0.8	
	읍·면(군)지역	324	0.9	23.1	52.8	19.8	3.4	23.1	52.8	24.1	2.98	0.8	
연령	19~29세	929	1.3	18.5	52.9	23.1	4.2	27.3	52.9	19.8	2.90	0.8	1.601 (df=4)
	30대	870	2.2	18.3	53.3	22.3	3.9	26.2	53.3	20.5	2.93	0.8	
	40대	1,046	1.1	17.2	53.7	23.5	4.5	28.0	53.7	18.3	2.87	0.8	
	50대	1,084	1.3	19.8	50.9	23.6	4.3	28.0	50.9	21.1	2.90	0.8	
	60~74세	1,071	1.0	22.4	51.0	21.8	3.8	25.6	51.0	23.4	2.95	0.8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1.4	20.2	51.4	23.0	4.0	27.1	51.4	21.6	2.92	0.8	1.273 (df=1)
	자녀 없음	2,073	1.3	18.1	53.6	22.7	4.3	27.0	53.6	19.4	2.89	0.8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1.8	18.3	50.8	25.1	4.0	29.0	50.8	20.2	2.89	0.8	0.664 (df=1)
	기타	3,963	1.2	19.6	52.7	22.3	4.2	26.5	52.7	20.8	2.91	0.8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2.3	17.3	51.1	24.3	4.9	29.3	51.1	19.6	2.88	0.8	0.925 (df=1)
	기타	4,474	1.2	19.6	52.4	22.7	4.1	26.8	52.4	20.8	2.91	0.8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0.9	19.9	50.3	25.4	3.5	28.9	50.3	20.8	2.89	0.8	0.152 (df=1)
	기타	4,658	1.4	19.3	52.4	22.7	4.2	26.9	52.4	20.7	2.91	0.8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1.6	19.2	52.1	25.0	2.1	27.1	52.1	20.8	2.93	0.8	0.434 (df=1)
	기타	4,572	1.3	19.3	52.3	22.7	4.4	27.0	52.3	20.6	2.91	0.8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1.2	19.8	49.6	26.3	3.0	29.3	49.6	21.0	2.90	0.8	0.076 (df=1)
	기타	4,434	1.4	19.3	52.6	22.4	4.3	26.7	52.6	20.6	2.91	0.8	
학력	중졸 이하	104	0.0	13.5	57.7	25.0	3.8	28.8	57.7	13.5	2.81	0.7	2.134 (df=3)
	고졸	886	1.4	20.5	54.3	19.9	4.0	23.8	54.3	21.9	2.95	0.8	
	전문대/대졸	3,545	1.2	19.0	52.0	23.6	4.1	27.8	52.0	20.2	2.90	0.8	
	대학원졸	465	2.6	20.6	49.7	22.4	4.7	27.1	49.7	23.2	2.94	0.8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1.3	15.3	54.2	22.2	7.1	29.2	54.2	16.6	2.82	0.8	5.360** (df=3)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1.2	20.3	53.7	21.0	3.7	24.8	53.7	21.5	2.94	0.8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1.7	20.3	51.5	23.1	3.3	26.5	51.5	22.0	2.94	0.8	
	600만원 이상	1,340	1.1	18.4	50.8	25.1	4.6	29.7	50.8	19.5	2.86	0.8	
직업군	관리자	621	1.4	20.6	49.3	24.6	4.0	28.7	49.3	22.1	2.91	0.8	0.744 (df=1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1.9	18.0	52.2	23.6	4.3	27.9	52.2	19.9	2.90	0.8	
	사무 종사자	1,214	1.5	19.4	52.4	23.6	3.0	26.7	52.4	20.9	2.93	0.8	
	서비스 종사자	190	1.1	22.6	51.1	22.1	3.2	25.3	51.1	23.7	2.96	0.8	
	판매 종사자	210	1.4	21.0	45.7	24.8	7.1	31.9	45.7	22.4	2.85	0.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3.1	21.9	34.4	31.3	9.4	40.6	34.4	25.0	2.78	1.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0.6	23.6	50.3	22.4	3.0	25.5	50.3	24.2	2.96	0.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1.0	25.5	49.0	20.6	3.9	24.5	49.0	26.5	2.99	0.8	
	단순노무 종사자	199	0.5	18.1	55.3	18.6	7.5	26.1	55.3	18.6	2.85	0.8	
	군인	13	0.0	30.8	46.2	23.1	0.0	23.1	46.2	30.8	3.08	0.8	
	기타	1,325	1.0	17.8	55.5	21.4	4.4	25.7	55.5	18.8	2.90	0.8	

〈표 6-4〉 고등학교에 대한 평가

구분	응답 비율											F	
	사례수	매우 잘하고 있다 (A)	잘하고 있다 (B)	보통 이다 (C)	못하고 있다 (D)	전혀 못하고 있다 (E)	종합결과			평균 (5점)	표준 편차		
							못하고 있음	보통	잘하고 있음				
전 체	5,000	1.4	12.3	43.8	33.8	8.6	42.4	43.8	13.8	2.64	0.9	-	
성별	남	2,531	1.5	12.8	40.2	34.9	10.5	45.5	40.2	14.3	2.60	0.9	13.550*** (df=1)
	여	2,469	1.3	11.9	47.5	32.7	6.6	39.3	47.5	13.2	2.69	0.8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1.4	11.5	40.7	37.1	9.3	46.4	40.7	12.9	2.59	0.9	7.151*** (df=3)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1.8	11.9	45.9	31.8	8.6	40.4	45.9	13.7	2.66	0.9	
	중소도시(시 지역)	2,359	1.3	11.7	43.8	34.5	8.6	43.1	43.8	13.1	2.63	0.8	
	읍·면(군)지역	324	0.9	21.0	44.4	27.5	6.2	33.6	44.4	21.9	2.83	0.9	
연령	19~29세	929	2.0	9.9	44.2	35.0	8.8	43.8	44.2	11.9	2.61	0.9	5.639*** (df=4)
	30대	870	2.2	15.3	44.8	30.3	7.4	37.7	44.8	17.5	2.75	0.9	
	40대	1,046	1.1	9.8	43.8	36.9	8.3	45.2	43.8	11.0	2.59	0.8	
	50대	1,084	0.7	13.7	40.9	34.6	10.1	44.7	40.9	14.4	2.60	0.9	
	60~74세	1,071	1.3	13.2	45.6	31.9	8.0	40.0	45.6	14.5	2.68	0.8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1.3	13.2	43.1	33.8	8.6	42.4	43.1	14.5	2.65	0.9	0.297 (df=1)
	자녀 없음	2,073	1.6	11.1	44.8	34.0	8.5	42.5	44.8	12.7	2.63	0.8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1.4	12.2	40.8	36.3	9.3	45.5	40.8	13.7	2.60	0.9	2.645 (df=1)
	기타	3,963	1.4	12.4	44.6	33.2	8.4	41.6	44.6	13.8	2.65	0.9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1.9	12.4	42.2	34.4	9.1	43.5	42.2	14.3	2.63	0.9	0.042 (df=1)
	기타	4,474	1.4	12.3	44.0	33.8	8.5	42.3	44.0	13.7	2.64	0.9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0.9	12.6	42.7	35.7	8.2	43.9	42.7	13.5	2.62	0.8	0.188 (df=1)
	기타	4,658	1.5	12.3	43.9	33.7	8.6	42.3	43.9	13.8	2.64	0.9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1.4	12.4	37.6	39.3	9.3	48.6	37.6	13.8	2.57	0.9	3.102 (df=1)
	기타	4,572	1.4	12.3	44.4	33.3	8.5	41.8	44.4	13.8	2.65	0.9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1.1	13.3	37.5	37.5	10.8	48.2	37.5	14.3	2.56	0.9	5.371* (df=1)
	기타	4,434	1.5	12.2	44.6	33.4	8.3	41.7	44.6	13.7	2.65	0.9	
학력	중졸 이하	104	1.0	8.7	49.0	36.5	4.8	41.3	49.0	9.6	2.64	0.7	8.910*** (df=3)
	고졸	886	1.8	14.6	49.4	27.5	6.7	34.2	49.4	16.4	2.77	0.8	
	전문대/대졸	3,545	1.4	11.6	43.2	35.1	8.7	43.8	43.2	13.0	2.62	0.9	
	대학원졸	465	1.1	14.4	36.8	35.9	11.8	47.7	36.8	15.5	2.57	0.9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1.7	9.0	46.2	31.4	11.6	43.0	46.2	10.8	2.58	0.9	7.823*** (df=3)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1.5	14.1	45.7	31.6	7.2	38.7	45.7	15.6	2.71	0.8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1.8	11.9	43.9	34.4	8.0	42.4	43.9	13.7	2.65	0.9	
	600만원 이상	1,340	0.8	11.9	40.5	36.8	9.9	46.7	40.5	12.8	2.57	0.9	
직업군	관리자	621	1.4	14.0	38.6	36.1	9.8	45.9	38.6	15.5	2.61	0.9	1.218 (df=1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1.9	12.3	41.0	35.8	8.9	44.8	41.0	14.2	2.62	0.9	
	사무 종사자	1,214	1.4	12.4	45.4	33.3	7.5	40.8	45.4	13.8	2.67	0.8	
	서비스 종사자	190	1.1	14.2	49.5	29.5	5.8	35.3	49.5	15.3	2.75	0.8	
	판매 종사자	210	1.9	12.9	39.5	37.1	8.6	45.7	39.5	14.8	2.62	0.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3.1	18.8	34.4	25.0	18.8	43.8	34.4	21.9	2.63	1.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1.2	18.2	43.0	30.3	7.3	37.6	43.0	19.4	2.76	0.9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3.9	16.7	35.3	36.3	7.8	44.1	35.3	20.6	2.73	1.0	
	단순노무 종사자	199	1.0	11.1	47.2	30.2	10.6	40.7	47.2	12.1	2.62	0.9	
	군인	13	0.0	7.7	69.2	23.1	0.0	23.1	69.2	7.7	2.85	0.6	
	기타	1,325	1.0	10.2	46.8	33.1	8.9	42.0	46.8	11.2	2.61	0.8	

〈표 7-1〉 학교가 ‘A+B’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과제: 초·중·고 전반

구분	응답 비율											χ ²	
	사례수	수업 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	학생 성장 중심으로 평가 방법 개선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학생 지도 (인성, 등 안전 활동)	진로 교육 (진학 및 취업 지도 포함) 강화	우수한 교사 확보 및 배치	좋은 교육 시설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협력적 관계 형성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	기타	계		
전 체	5,000	27.6	16.5	27.3	8.3	7.2	4.5	1.3	7.1	0.2	100.0	-	
성별	남	2,531	27.1	16.9	26.0	8.6	7.3	4.8	1.3	7.8	0.2	100.0	12.999 (df=10)
	여	2,469	28.2	16.0	28.6	8.1	7.2	4.2	1.3	6.3	0.1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30.4	16.7	26.5	8.6	6.7	3.7	1.0	6.2	0.2	100.0	36.436 (df=30)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28.4	17.1	28.1	7.4	6.8	4.2	1.4	6.6	0.1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26.4	16.2	27.2	8.6	7.5	4.8	1.4	7.8	0.2	100.0	
	읍·면(군)지역	324	25.3	15.4	27.5	9.3	8.6	5.6	1.2	6.5	0.6	100.0	
연령	19~29세	929	21.7	19.8	27.4	11.8	7.8	4.6	1.4	5.3	0.1	100.0	95.976*** (df=40)
	30대	870	29.4	16.4	23.7	10.6	6.2	4.8	1.4	7.5	0.0	100.0	
	40대	1,046	30.3	16.4	27.1	6.9	7.7	4.0	0.9	6.2	0.5	100.0	
	50대	1,084	29.4	15.0	27.5	6.7	7.6	4.5	1.2	7.8	0.2	100.0	
	60~74세	1,071	26.9	15.1	30.2	6.4	6.7	4.5	1.8	8.3	0.1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29.0	16.0	27.6	7.3	7.5	4.1	1.3	7.0	0.1	100.0	20.684* (df=10)
	자녀 없음	2,073	25.8	17.1	26.8	9.7	6.8	5.0	1.4	7.1	0.2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30.6	18.1	25.9	7.2	8.9	3.1	0.5	5.5	0.2	100.0	31.424*** (df=10)
	기타	3,963	26.9	16.0	27.7	8.6	6.8	4.8	1.5	7.5	0.2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30.2	17.9	26.8	7.4	7.6	2.1	1.0	6.8	0.2	100.0	12.479 (df=10)
	기타	4,474	27.3	16.3	27.4	8.4	7.2	4.8	1.4	7.1	0.2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31.6	19.6	23.4	6.7	9.1	3.5	0.3	5.6	0.3	100.0	16.446 (df=10)
	기타	4,658	27.4	16.3	27.6	8.4	7.1	4.6	1.4	7.2	0.2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27.8	18.9	26.4	7.9	9.3	4.4	0.0	5.1	0.0	100.0	14.317 (df=10)
	기타	4,572	27.6	16.3	27.4	8.4	7.0	4.5	1.4	7.2	0.2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30.4	17.7	26.3	6.2	8.0	4.8	0.9	5.8	0.0	100.0	10.043 (df=10)
	기타	4,434	27.3	16.3	27.4	8.6	7.1	4.4	1.4	7.2	0.2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22.1	20.2	31.7	9.6	7.7	1.0	1.0	6.7	0.0	100.0	39.242 (df=30)
	고졸	886	24.3	14.7	30.4	9.1	7.7	4.7	1.7	7.2	0.2	100.0	
	전문대/대졸	3,545	28.1	16.3	27.1	8.5	7.1	4.5	1.2	7.1	0.2	100.0	
	대학원졸	465	31.6	20.6	22.4	4.9	7.5	4.5	1.7	6.5	0.2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29.5	14.2	29.0	8.4	6.5	3.4	1.5	7.5	0.0	100.0	24.727 (df=30)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26.2	17.0	27.0	8.8	6.5	5.3	1.7	7.2	0.4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27.9	17.2	27.1	8.3	7.6	3.8	1.0	7.0	0.1	100.0	
	600만원 이상	1,340	28.4	15.7	27.2	7.8	7.9	4.6	1.3	6.9	0.1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26.7	19.3	27.1	7.7	6.9	5.3	0.5	6.3	0.2	100.0	109.927 (df=10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28.6	16.9	25.4	8.9	7.3	5.1	1.6	5.9	0.2	100.0	
	사무 종사자	1,214	29.9	14.3	28.3	8.5	6.8	4.6	1.1	6.6	0.0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21.6	20.0	30.5	7.9	8.4	4.2	1.1	6.3	0.0	100.0	
	판매 종사자	210	27.1	19.5	27.1	7.1	7.6	2.4	1.0	7.6	0.5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21.9	12.5	31.3	6.3	9.4	9.4	0.0	9.4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23.0	19.4	23.0	7.3	7.3	5.5	3.0	10.9	0.6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23.5	17.6	24.5	17.6	6.9	2.9	2.0	3.9	1.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21.6	17.1	32.2	7.5	6.5	5.0	1.5	8.0	0.5	100.0	
	군인	13	38.5	0.0	15.4	15.4	7.7	7.7	0.0	15.4	0.0	100.0	
기타	1,325	28.1	15.6	27.4	7.8	7.5	3.7	1.6	8.2	0.2	100.0		

〈표 7-2〉 학교가 'A+B'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과제: 초등학교

구분	응답 비율											χ^2	
	사례수	수업 내용과 방법의 개선	학생 성장 중심으로 평가 방법 개선	학생을 위한 맞춤형 및 학생 지도 (인성, 등 안전 활동)	진로 교육 (진학 및 취업 지도 포함) 강화	우수한 교사 확보 및 배치	좋은 교육 시설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형성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	기타	계		
전 체	5,000	10.8	17.9	24.2	5.1	10.1	8.4	4.2	19.4	0.1	100.0	-	
성별	남	2,531	10.4	18.5	23.9	5.3	10.2	8.5	4.0	19.2	0.2	100.0	4.405 (df=10)
	여	2,469	11.1	17.3	24.5	4.9	10.0	8.3	4.4	19.5	0.1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11.2	19.9	22.3	5.7	10.3	8.6	4.7	17.0	0.2	100.0	34.208 (df=30)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11.1	18.5	24.6	4.8	9.4	8.9	3.9	18.6	0.1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10.2	17.3	24.8	4.9	10.2	7.9	3.9	20.6	0.1	100.0	
	읍·면(군)지역	324	12.0	12.7	23.5	5.2	11.1	9.3	5.6	20.4	0.3	100.0	
연령	19~29세	929	6.9	18.0	27.1	8.1	12.3	9.0	3.7	14.9	0.1	100.0	126.855*** (df=40)
	30대	870	10.8	19.7	22.9	6.7	10.5	8.2	3.9	17.5	0.0	100.0	
	40대	1,046	11.7	21.0	25.1	3.6	9.0	7.3	3.3	18.7	0.3	100.0	
	50대	1,084	12.8	16.8	23.0	3.5	9.2	8.0	4.2	22.2	0.2	100.0	
	60~74세	1,071	11.1	14.3	22.9	4.2	9.7	9.4	5.7	22.6	0.1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11.5	17.7	23.4	4.4	10.0	8.3	4.4	20.2	0.1	100.0	17.693 (df=10)
	자녀 없음	2,073	9.7	18.0	25.2	6.1	10.1	8.5	3.9	18.2	0.2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11.2	20.3	23.6	4.9	10.4	8.3	2.9	18.1	0.2	100.0	12.231 (df=10)
	기타	3,963	10.6	17.2	24.3	5.1	10.0	8.4	4.5	19.7	0.1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11.2	21.3	24.1	5.3	9.9	8.2	2.1	17.7	0.2	100.0	13.249 (df=10)
	기타	4,474	10.7	17.5	24.2	5.1	10.1	8.4	4.4	19.6	0.1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10.5	18.7	24.6	4.4	11.4	8.5	2.9	18.7	0.3	100.0	6.272 (df=10)
	기타	4,658	10.8	17.8	24.1	5.1	10.0	8.4	4.3	19.4	0.1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9.8	21.0	22.2	4.2	10.5	9.1	4.4	18.7	0.0	100.0	5.712 (df=10)
	기타	4,572	10.8	17.6	24.3	5.2	10.0	8.3	4.2	19.4	0.2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11.7	15.4	24.2	4.6	8.5	9.2	4.4	22.1	0.0	100.0	8.461 (df=10)
	기타	4,434	10.6	18.2	24.2	5.1	10.3	8.3	4.1	19.0	0.2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4.8	12.5	26.0	2.9	17.3	8.7	7.7	20.2	0.0	100.0	34.992 (df=30)
	고졸	886	10.5	15.5	24.2	5.6	12.1	8.8	3.5	19.8	0.1	100.0	
	전문대/대졸	3,545	10.9	18.3	24.0	5.2	9.5	8.5	4.3	19.2	0.1	100.0	
	대학원졸	465	11.6	20.2	25.2	3.9	8.6	6.5	3.9	20.0	0.2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13.8	15.3	21.9	4.1	9.9	9.7	3.7	21.7	0.0	100.0	28.872 (df=30)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10.2	17.1	24.5	5.3	10.2	8.6	4.9	19.1	0.2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9.7	18.5	24.9	5.4	10.9	7.4	3.7	19.2	0.1	100.0	
	600만원 이상	1,340	11.6	19.0	23.6	4.8	9.0	8.8	4.0	19.1	0.1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9.7	19.0	21.6	5.2	10.5	9.0	3.9	21.1	0.2	100.0	125.244* (df=10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11.3	18.5	24.8	4.8	10.3	7.5	4.3	18.2	0.2	100.0	
	사무 종사자	1,214	10.4	17.9	27.0	6.4	9.5	7.7	3.3	17.8	0.0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9.5	22.1	21.1	6.8	10.0	8.4	5.8	16.3	0.0	100.0	
	판매 종사자	210	16.2	16.7	21.9	5.7	10.0	11.4	3.8	14.3	0.0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6.3	21.9	28.1	0.0	9.4	18.8	0.0	15.6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10.3	18.8	26.1	3.0	9.7	11.5	5.5	15.2	0.0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5.9	15.7	25.5	6.9	14.7	10.8	3.9	15.7	1.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12.6	16.6	24.1	6.0	11.1	7.0	5.5	16.6	0.5	100.0	
	군인	13	7.7	15.4	15.4	0.0	23.1	30.8	0.0	7.7	0.0	100.0	
기타	1,325	10.9	16.6	22.8	3.8	9.7	7.9	4.7	23.5	0.2	100.0		

〈표 7-3〉 학교가 'A+B'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과제: 중학교

구분	응답 비율											χ ²	
	사례수	수업 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	학생 성장 중심으로 평가 방법 개선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학생 지도 (인성, 등 안전 활동)	진로 교육 (진학 및 취업 지도 포함) 강화	우수한 교사 확보 및 배치	좋은 교육 시설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형성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	기타	계		
전 체	5,000	14.5	19.9	27.2	11.6	11.4	7.1	3.1	5.2	0.2	100.0	-	
성별	남	2,531	14.1	19.6	26.8	11.9	11.6	7.8	2.6	5.5	0.2	100.0	12.083 (df=10)
	여	2,469	14.9	20.2	27.6	11.3	11.1	6.3	3.5	5.0	0.1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15.4	19.4	24.0	14.2	11.5	8.3	3.1	3.9	0.2	100.0	53.311** (df=30)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13.8	20.4	28.7	11.4	11.2	7.1	3.1	4.3	0.1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15.0	20.2	27.7	10.2	11.1	6.6	3.1	5.9	0.2	100.0	
	읍·면(군)지역	324	11.1	16.4	26.9	14.8	13.6	6.5	2.5	8.0	0.3	100.0	
연령	19~29세	929	10.8	18.6	27.3	16.4	10.4	8.0	2.9	5.5	0.1	100.0	74.722** (df=40)
	30대	870	14.0	20.8	26.8	12.2	9.9	8.0	3.4	4.8	0.0	100.0	
	40대	1,046	15.4	20.9	27.9	10.8	11.2	5.7	2.7	5.0	0.4	100.0	
	50대	1,084	16.3	20.1	25.7	10.7	12.5	6.4	3.1	5.0	0.2	100.0	
	60~74세	1,071	15.4	18.9	28.1	8.6	12.4	7.5	3.2	5.9	0.1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15.1	19.6	26.6	10.9	12.5	7.1	3.3	4.8	0.1	100.0	19.905* (df=10)
	자녀 없음	2,073	13.6	20.2	28.0	12.5	9.8	7.0	2.7	5.9	0.2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14.7	19.7	25.5	12.3	13.7	7.4	3.1	3.5	0.2	100.0	17.056 (df=10)
	기타	3,963	14.5	19.9	27.6	11.4	10.7	7.0	3.1	5.7	0.2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14.6	19.2	25.5	14.8	11.0	7.2	3.6	3.8	0.2	100.0	10.469 (df=10)
	기타	4,474	14.5	19.9	27.4	11.2	11.4	7.0	3.0	5.4	0.2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15.2	21.1	23.4	13.5	13.7	6.7	2.6	3.5	0.3	100.0	11.320 (df=10)
	기타	4,658	14.4	19.8	27.5	11.4	11.2	7.1	3.1	5.4	0.2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13.3	19.4	25.5	10.7	17.3	7.9	2.8	3.0	0.0	100.0	21.477* (df=10)
	기타	4,572	14.6	19.9	27.3	11.7	10.8	7.0	3.1	5.4	0.2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16.8	21.0	24.6	10.2	12.9	7.1	3.4	4.1	0.0	100.0	9.545 (df=10)
	기타	4,434	14.2	19.7	27.5	11.8	11.2	7.1	3.0	5.4	0.2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15.4	14.4	29.8	11.5	12.5	6.7	1.9	7.7	0.0	100.0	27.330 (df=30)
	고졸	886	12.2	18.7	29.1	10.9	12.3	7.2	4.0	5.4	0.1	100.0	
	전문대/대졸	3,545	14.8	20.3	26.8	11.5	11.0	7.3	2.8	5.4	0.2	100.0	
	대학원졸	465	16.6	19.6	25.6	13.8	12.3	5.2	3.4	3.4	0.2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19.1	17.8	27.3	9.9	9.9	5.8	2.4	7.7	0.0	100.0	41.541 (df=30)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13.7	19.5	27.2	11.6	11.0	8.1	3.1	5.6	0.3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13.2	20.2	28.3	11.9	11.2	7.4	3.6	4.2	0.1	100.0	
	600만원 이상	1,340	15.4	20.6	25.9	11.8	12.5	5.9	2.7	5.1	0.1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13.0	20.0	24.8	11.9	14.3	8.5	3.1	4.2	0.2	100.0	135.844* (df=10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14.6	19.8	27.9	10.3	11.5	7.6	2.8	5.2	0.2	100.0	
	사무 종사자	1,214	15.3	20.2	28.3	11.9	9.5	6.6	3.9	4.4	0.0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8.9	18.4	27.4	16.3	10.5	8.9	4.2	5.3	0.0	100.0	
	판매 종사자	210	13.8	20.0	23.8	14.3	13.3	6.2	4.8	3.3	0.5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6.3	12.5	28.1	9.4	15.6	12.5	3.1	12.5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14.5	18.2	27.3	9.7	12.7	9.1	1.2	7.3	0.0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6.9	15.7	32.4	11.8	13.7	7.8	4.9	5.9	1.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12.6	16.1	25.6	9.0	12.6	12.6	2.5	8.5	0.5	100.0	
	군인	13	15.4	15.4	7.7	15.4	7.7	15.4	0.0	23.1	0.0	100.0	
기타	1,325	16.3	21.1	27.2	11.5	10.8	4.9	2.3	5.7	0.2	100.0		

〈표 7-4〉 학교가 'A+B'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과제: 고등학교

구분	응답 비율											χ^2
	사례수	수업 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	학생 성장 중심으로 평가 방법 개선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학생 (인성, 등) 안전 활동	진로 교육 (진학 및 취업 지도 포함) 강화	우수한 교사 확보 및 배치	좋은 교육 시설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협력적 관계 형성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	기타	계	
전 체	5,000	15.0	10.9	14.8	34.9	10.2	5.5	4.2	4.4	0.2	100.0	-
성별	남	2,531	14.6	10.9	16.0	33.5	9.6	5.7	4.7	4.8	100.0	16.405 (df=10)
	여	2,469	15.4	10.8	13.6	36.2	10.8	5.3	3.8	4.1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14.9	10.4	13.4	33.7	10.7	7.4	5.0	4.3	100.0	29.346 (df=30)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14.3	10.6	14.8	35.8	10.1	5.1	4.2	4.9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15.0	11.4	15.4	34.7	10.2	5.0	3.9	4.2	100.0	
	읍·면(군)지역	324	17.3	9.3	14.2	35.5	9.9	5.2	4.3	4.0	100.0	
연령	19~29세	929	11.2	11.5	13.7	35.1	12.6	6.8	4.4	4.6	100.0	80.416*** (df=40)
	30대	870	15.2	10.1	13.7	32.5	10.8	6.6	6.1	5.1	100.0	
	40대	1,046	15.7	12.0	12.7	36.7	10.2	5.1	3.6	3.6	100.0	
	50대	1,084	16.2	11.2	16.6	32.8	9.7	4.6	3.3	5.4	100.0	
	60~74세	1,071	16.1	9.6	16.8	36.8	8.2	4.9	4.0	3.5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16.0	10.7	14.9	34.6	9.9	5.4	4.3	4.0	100.0	11.701 (df=10)
	자녀 없음	2,073	13.5	11.1	14.6	35.2	10.7	5.6	4.1	5.0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15.5	12.4	13.0	33.3	11.4	6.5	4.1	3.6	100.0	13.579 (df=10)
	기타	3,963	14.8	10.5	15.2	35.3	9.9	5.2	4.2	4.6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17.7	11.6	12.0	33.3	11.2	6.1	5.1	2.9	100.0	13.466 (df=10)
	기타	4,474	14.6	10.8	15.1	35.0	10.1	5.4	4.1	4.6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16.1	10.8	12.0	34.8	11.4	6.4	4.7	3.5	100.0	7.874 (df=10)
	기타	4,658	14.9	10.9	15.0	34.9	10.1	5.4	4.2	4.5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13.3	12.9	15.2	32.5	11.0	7.5	3.5	4.2	100.0	8.285 (df=10)
	기타	4,572	15.1	10.7	14.7	35.1	10.1	5.3	4.3	4.4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16.4	13.4	14.7	35.0	9.9	3.9	3.4	3.4	100.0	11.605 (df=10)
	기타	4,434	14.8	10.6	14.8	34.8	10.3	5.7	4.3	4.6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9.6	15.4	17.3	29.8	10.6	4.8	5.8	6.7	100.0	38.193 (df=30)
	고졸	886	12.8	9.4	15.1	34.7	11.3	7.3	4.1	5.3	100.0	
	전문대/대졸	3,545	15.2	10.7	14.7	35.3	10.1	5.1	4.5	4.2	100.0	
	대학원졸	465	18.3	13.8	14.0	33.3	8.8	5.2	2.4	4.1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16.1	8.6	18.7	35.5	8.2	4.5	4.1	4.3	100.0	37.736 (df=30)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12.7	10.4	14.6	36.0	11.1	6.2	4.0	4.6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15.8	10.8	15.0	34.0	10.0	5.1	5.0	4.3	100.0	
	600만원 이상	1,340	16.3	12.4	13.4	34.3	10.1	5.4	3.6	4.3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13.5	11.9	17.1	31.6	10.0	6.3	4.2	5.3	100.0	136.265** (df=10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14.9	10.9	13.5	34.2	10.9	6.1	4.8	4.5	100.0	
	사무 종사자	1,214	15.2	10.7	14.9	36.3	9.3	5.4	4.5	3.6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10.0	11.6	21.1	32.1	13.7	4.7	3.2	3.7	100.0	
	판매 종사자	210	14.3	10.5	17.6	31.9	9.5	6.2	5.2	4.3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9.4	0.0	12.5	46.9	3.1	12.5	6.3	9.4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13.3	11.5	15.2	34.5	9.1	4.2	8.5	3.6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10.8	14.7	10.8	31.4	11.8	7.8	6.9	4.9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11.1	9.5	16.1	33.7	8.5	9.5	4.5	6.5	100.0	
	군인	13	15.4	7.7	7.7	15.4	7.7	15.4	15.4	15.4	100.0	
	기타	1,325	17.6	10.6	13.4	36.8	10.8	3.8	2.6	4.3	100.0	

〈표 8-1〉 학교 선택시 고려사항: 초등학교

구분	응답 비율																χ ²	
	사례수	학교 명성 이나 전통	교원의 질적 수준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	진로 지도	인성 교육	민주적 인 학교문 화	학교 시설	학교 주변의 환경 및 여건	통학 거리	학교 안전	상급 학교 진학 실적	졸업생 의 취업 실적	교육비	기타 (경쟁 없는 교육환경 등)	계		
전 체	5,000	2.6	10.1	12.7	4.2	31.2	4.3	3.2	10.8	10.0	10.2	0.3	0.3	0.2	0.0	100.0	-	
성별	남	2,531	3.1	9.9	11.9	4.9	30.4	4.3	3.1	11.5	9.2	10.7	0.3	0.4	0.2	0.0	100.0	23.227* (df=13)
	여	2,469	2.2	10.2	13.5	3.5	32.0	4.2	3.2	10.1	10.8	9.7	0.3	0.2	0.1	0.0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3.1	11.2	14.0	6.3	30.1	4.8	2.7	9.9	7.8	9.7	0.1	0.3	0.2	0.0	100.0	52.487 (df=39)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2.6	10.9	11.9	4.2	31.6	4.2	3.1	11.3	8.8	10.3	0.5	0.1	0.2	0.1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2.5	9.5	12.5	3.6	30.6	4.0	3.4	11.2	11.4	10.4	0.3	0.4	0.2	0.0	100.0	
	읍·면(군)지역	324	2.2	7.4	13.0	3.1	36.1	4.9	3.1	9.0	11.4	9.9	0.0	0.0	0.0	0.0	100.0	
연령	19-29세	929	2.4	8.9	11.1	7.4	25.8	6.1	3.9	10.1	11.0	12.1	0.2	0.5	0.4	0.0	100.0	152.526* ** (df=52)
	30대	870	3.6	10.5	12.5	6.2	26.3	3.7	4.7	11.1	9.3	11.0	0.3	0.3	0.2	0.1	100.0	
	40대	1,046	3.1	10.7	14.7	3.1	31.4	3.3	2.3	11.5	10.1	9.1	0.5	0.2	0.2	0.0	100.0	
	50대	1,084	2.9	10.6	12.3	2.9	36.7	4.5	2.5	10.0	8.9	8.0	0.5	0.3	0.1	0.0	100.0	
	60-74세	1,071	1.5	9.5	12.5	2.4	33.9	3.9	2.8	11.5	10.6	11.2	0.0	0.1	0.0	0.0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2.4	10.5	13.8	3.6	32.6	3.7	2.9	10.8	9.8	9.4	0.3	0.2	0.0	0.0	100.0	48.536*** (df=13)
	자녀 없음	2,073	2.9	9.5	11.0	5.2	29.1	5.1	3.6	10.9	10.2	11.4	0.3	0.4	0.4	0.0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3.1	10.1	14.4	4.5	31.4	3.6	2.9	10.6	9.8	8.7	0.7	0.2	0.0	0.0	100.0	18.313 (df=13)
	기타	3,963	2.5	10.0	12.2	4.2	31.1	4.5	3.2	10.9	10.0	10.6	0.2	0.3	0.2	0.0	100.0	
초등학교 학부모	초등학교 학부모	526	3.4	10.6	14.8	4.9	32.1	3.2	3.0	9.7	9.7	7.6	0.6	0.2	0.0	0.0	100.0	13.561 (df=13)
	기타	4,474	2.5	10.0	12.4	4.2	31.0	4.4	3.2	11.0	10.0	10.5	0.3	0.3	0.2	0.0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3.5	6.1	13.5	2.9	31.9	4.4	2.9	12.9	9.6	11.4	0.6	0.3	0.0	0.0	100.0	12.150 (df=13)
	기타	4,658	2.6	10.3	12.6	4.3	31.1	4.3	3.2	10.7	10.0	10.1	0.3	0.3	0.2	0.0	100.0	
고등학교 학부모	고등학교 학부모	428	2.3	10.0	16.6	4.0	31.5	3.5	3.3	11.0	9.3	7.7	0.5	0.2	0.0	0.0	100.0	11.098 (df=13)
	기타	4,572	2.7	10.1	12.3	4.3	31.1	4.4	3.1	10.8	10.0	10.4	0.3	0.3	0.2	0.0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2.1	10.6	14.7	2.3	34.1	3.4	2.1	10.6	12.4	7.2	0.4	0.2	0.0	0.0	100.0	24.500* (df=13)
	기타	4,434	2.7	10.0	12.4	4.5	30.8	4.4	3.3	10.9	9.7	10.6	0.3	0.3	0.2	0.0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1.9	9.6	9.6	3.8	32.7	1.9	2.9	13.5	4.8	18.3	0.0	1.0	0.0	0.0	100.0	64.816** (df=39)
	고졸	886	2.6	11.6	11.2	4.6	34.0	5.1	2.7	7.8	9.5	9.8	0.2	0.6	0.3	0.0	100.0	
	전문대/대졸	3,545	2.6	9.6	13.0	4.4	30.0	4.1	3.2	11.6	10.1	10.5	0.3	0.2	0.1	0.0	100.0	
	대학원졸	465	3.2	10.3	13.5	2.4	34.0	4.3	3.4	10.1	11.2	6.7	0.4	0.0	0.2	0.2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4.5	9.5	9.7	2.6	32.7	5.6	3.7	8.4	9.5	12.5	0.9	0.4	0.2	0.0	100.0	48.445 (df=39)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2.2	10.4	12.8	3.9	31.3	4.3	3.0	10.3	9.8	11.3	0.2	0.3	0.1	0.0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2.6	10.3	13.4	4.6	31.3	4.0	2.9	11.4	9.4	9.4	0.2	0.3	0.1	0.1	100.0	
	600만원 이상	1,340	2.5	9.6	12.6	4.9	30.3	4.0	3.5	11.6	11.0	9.0	0.4	0.2	0.4	0.0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3.2	9.0	14.2	5.2	31.6	2.4	3.1	13.8	9.2	7.6	0.2	0.5	0.2	0.0	100.0	132.344 (df=13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2.7	11.6	12.9	4.2	29.6	4.1	3.4	11.5	9.5	9.8	0.4	0.1	0.0	0.1	100.0	
	사무 종사자	1,214	2.6	9.5	13.4	5.2	31.5	4.2	3.4	9.6	10.0	9.8	0.3	0.3	0.2	0.0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1.6	12.1	10.5	3.2	32.1	6.3	3.7	11.1	8.9	9.5	0.5	0.0	0.5	0.0	100.0	
	판매 종사자	210	2.9	11.4	14.3	5.2	30.5	4.8	1.4	7.1	11.9	9.0	0.0	1.0	0.5	0.0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9.4	15.6	3.1	0.0	40.6	9.4	0.0	6.3	6.3	9.4	0.0	0.0	0.0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1.8	8.5	10.3	4.2	31.5	5.5	3.0	10.9	12.1	10.9	0.0	0.6	0.6	0.0	100.0	
	정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1.0	11.8	12.7	6.9	31.4	6.9	3.9	11.8	6.9	6.9	0.0	0.0	0.0	0.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6.0	10.6	15.6	4.5	28.6	5.0	3.0	9.5	7.5	8.5	0.5	0.0	0.5	0.0	100.0	
	군인	13	0.0	7.7	15.4	7.7	15.4	15.4	0.0	23.1	15.4	0.0	0.0	0.0	0.0	0.0	100.0	
	기타	1,325	2.1	9.4	11.2	2.8	32.0	4.3	3.1	10.7	10.9	12.9	0.3	0.2	0.2	0.0	100.0	

〈표 8-2〉 학교 선택시 고려사항: 중학교

구분	응답 비율																χ^2	
	사례수	학교 명성 이나 전통	교원 의 질적 수준	교육 프로그램 의 특성	진로 지도	인성 교육	민주 적인 학교 문화	학교 시설	학교 주변 의 환경 및 여건	통학 거리	학교 안전	상급 학교 진학 실적	졸업 생의 취업 실적	교육 비	기타 (경쟁 없는 교육 환경 등)	계		
전 체	5,000	1.6	14.9	16.2	7.0	25.4	8.0	5.0	9.6	3.8	5.2	2.8	0.3	0.2	0.0	100.0	-	
성별	남	2,531	2.0	14.4	15.4	6.7	25.7	7.7	5.0	10.0	3.9	5.5	2.8	0.4	0.3	0.0	100.0	16.066 (df=13)
	여	2,469	1.2	15.4	17.0	7.2	25.1	8.4	5.1	9.1	3.7	4.8	2.8	0.2	0.2	0.0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1.7	14.4	14.7	8.1	23.8	8.2	6.5	9.3	4.2	5.6	2.9	0.2	0.3	0.0	100.0	40.140 (df=39)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1.8	14.9	17.3	7.6	23.8	8.0	4.5	11.0	3.2	4.6	2.8	0.2	0.2	0.1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1.4	15.5	16.0	6.3	26.5	7.8	4.6	9.1	4.2	5.2	2.8	0.4	0.3	0.0	100.0	
	읍·면(군)지역	324	1.5	12.0	17.9	5.6	28.7	9.6	5.6	8.0	2.2	5.9	2.5	0.6	0.0	0.0	100.0	
연령	19~29세	929	2.0	9.1	14.3	11.8	22.5	8.0	7.2	9.7	7.1	4.8	2.3	0.6	0.4	0.0	100.0	200.073*** (df=52)
	30대	870	2.4	14.1	14.0	8.6	24.0	8.5	6.4	9.2	3.7	5.2	3.0	0.5	0.2	0.1	100.0	
	40대	1,046	1.6	18.1	18.1	5.2	23.9	7.6	3.7	10.4	2.7	4.8	3.6	0.1	0.3	0.0	100.0	
	50대	1,084	0.8	18.1	17.7	4.0	27.5	7.7	3.6	8.9	2.9	5.8	2.3	0.5	0.3	0.0	100.0	
	60~74세	1,071	1.2	14.1	16.2	6.2	28.3	8.6	4.7	9.6	3.2	5.1	2.8	0.0	0.0	0.0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1.4	16.6	17.0	5.5	25.6	7.8	4.5	10.2	3.2	4.9	3.0	0.1	0.1	0.0	100.0	67.011*** (df=13)
	자녀 없음	2,073	1.8	12.5	15.1	9.0	25.1	8.4	5.7	8.6	4.7	5.5	2.5	0.6	0.4	0.0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1.4	19.7	16.6	4.9	23.6	6.7	4.8	11.6	2.6	4.1	3.9	0.1	0.0	0.0	100.0	56.872*** (df=13)
	기타	3,963	1.6	13.6	16.1	7.5	25.8	8.4	5.1	9.1	4.1	5.4	2.5	0.4	0.3	0.0	100.0	
초등학교 학부모	초등학교 학부모	526	2.1	18.4	16.5	6.3	23.4	6.5	3.8	12.4	1.7	4.9	4.0	0.0	0.0	0.0	100.0	28.923** (df=13)
	기타	4,474	1.5	14.5	16.2	7.0	25.6	8.2	5.2	9.3	4.1	5.2	2.7	0.4	0.3	0.0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0.6	19.9	18.4	5.0	21.9	8.8	3.2	10.8	4.4	3.2	3.8	0.0	0.0	0.0	100.0	23.054* (df=13)
	기타	4,658	1.7	14.5	16.0	7.1	25.6	8.0	5.2	9.5	3.8	5.3	2.7	0.3	0.3	0.0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0.9	19.6	16.4	4.0	24.5	7.2	5.8	11.4	3.3	3.0	3.5	0.2	0.0	0.0	100.0	23.780* (df=13)
	기타	4,572	1.6	14.4	16.2	7.2	25.5	8.1	4.9	9.4	3.9	5.4	2.7	0.3	0.3	0.0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0.9	18.6	20.5	3.5	24.4	8.5	3.9	9.7	3.0	4.1	2.3	0.4	0.4	0.0	100.0	31.493** (df=13)
	기타	4,434	1.7	14.4	15.7	7.4	25.5	8.0	5.2	9.6	3.9	5.3	2.9	0.3	0.2	0.0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1.0	12.5	15.4	6.7	24.0	7.7	7.7	7.7	4.8	7.7	4.8	0.0	0.0	0.0	100.0	49.562 (df=39)
	고졸	886	0.6	12.6	15.1	7.7	28.4	7.8	5.2	9.9	3.6	4.9	3.3	0.7	0.2	0.0	100.0	
	전문대/대졸	3,545	1.7	15.4	16.2	7.0	24.7	8.2	5.0	9.6	3.9	5.1	2.7	0.3	0.3	0.0	100.0	
	대학원졸	465	3.0	15.5	18.5	5.2	25.2	7.7	3.9	9.2	3.4	5.4	2.6	0.2	0.0	0.2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2.2	12.0	13.3	6.7	29.2	8.0	5.6	8.4	5.4	6.5	2.4	0.4	0.0	0.0	100.0	41.549 (df=39)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1.4	14.1	16.0	7.5	25.4	8.0	5.0	9.9	4.0	4.8	3.1	0.6	0.2	0.0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1.7	14.6	17.4	6.5	25.6	8.4	4.7	9.7	3.2	5.2	2.6	0.2	0.1	0.1	100.0	
	600만원 이상	1,340	1.5	17.1	16.0	7.0	23.8	7.7	5.1	9.4	3.7	5.1	2.9	0.1	0.5	0.0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1.8	15.8	18.2	5.8	24.2	8.1	5.0	10.5	2.6	5.5	1.9	0.3	0.5	0.0	100.0	118.679 (df=13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1.9	15.5	16.5	6.5	25.7	7.6	5.3	9.9	3.6	4.7	2.4	0.3	0.0	0.1	100.0	
	사무 종사자	1,214	2.1	13.6	17.1	8.3	25.1	7.7	5.7	9.6	3.3	3.8	3.0	0.4	0.2	0.0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1.1	17.9	12.6	7.9	24.7	8.9	4.7	11.6	2.1	3.7	4.2	0.0	0.5	0.0	100.0	
	판매 종사자	210	1.0	13.3	14.8	8.6	29.0	6.2	4.3	8.6	4.3	6.7	2.4	0.5	0.5	0.0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0.0	15.6	9.4	12.5	25.0	12.5	6.3	3.1	0.0	9.4	6.3	0.0	0.0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0.6	11.5	17.0	5.5	26.7	6.7	4.2	9.7	3.6	10.3	2.4	1.2	0.6	0.0	100.0	
	장차·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1.0	17.6	10.8	7.8	32.4	4.9	4.9	7.8	3.9	4.9	3.9	0.0	0.0	0.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2.0	12.1	17.6	6.5	24.6	9.5	5.0	7.5	4.5	5.5	4.5	0.5	0.0	0.0	100.0	
	군인	13	0.0	15.4	15.4	7.7	15.4	0.0	0.0	30.8	15.4	0.0	0.0	0.0	0.0	0.0	100.0	
	기타	1,325	1.1	15.6	15.2	6.3	25.0	8.9	4.5	9.2	5.1	5.8	2.8	0.2	0.3	0.0	100.0	

〈표 8-3〉 학교 선택시 고려사항: 고등학교

구분	응답 비율																χ ²	
	사례수	학교 명성 이나 전통	교원의 질적 수준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	진로 지도	인성 교육	민주 적인 학교 문화	학교 시설	학교 주변의 환경 및 여건	통학 거리	학교 안전	상급 학교 진학 실적	졸업생 의 취업 실적	교육비	기타 (경쟁 없는 교육환 경 등)	계		
전 체	5,000	3.1	16.2	12.4	23.2	11.3	6.0	3.4	4.8	3.0	3.5	10.8	1.9	0.3	0.0	100.0	-	
성별	남	2,531	3.4	15.6	11.6	22.5	11.9	6.0	4.1	5.3	3.1	3.5	10.7	1.9	0.4	0.0	100.0	19.509 (df=13)
	여	2,469	2.8	16.9	13.2	23.9	10.8	6.0	2.8	4.2	3.0	3.5	10.9	1.9	0.2	0.0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3.4	16.8	11.6	20.1	11.0	6.6	4.1	4.3	4.0	4.1	12.0	1.6	0.3	0.0	100.0	45.704 (df=39)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3.1	14.9	12.4	23.6	12.4	5.7	3.6	4.2	2.8	3.5	11.1	2.2	0.5	0.1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3.2	17.5	12.9	23.7	10.8	5.6	3.2	5.0	2.8	3.2	10.0	1.9	0.3	0.0	100.0	
	읍·면(군)지역	324	2.2	10.5	10.8	26.2	11.7	8.0	2.5	6.5	3.4	3.7	12.0	2.2	0.3	0.0	100.0	
연령	19-29세	929	3.8	13.6	9.9	25.8	9.7	5.7	5.8	5.8	5.4	3.3	8.7	1.8	0.6	0.0	100.0	156.236*** (df=52)
	30대	870	4.8	15.1	12.9	22.8	10.7	7.0	4.8	4.8	3.0	4.0	7.2	2.3	0.5	0.1	100.0	
	40대	1,046	2.7	16.5	14.2	23.1	10.8	5.9	2.1	4.9	2.3	2.7	12.3	2.0	0.4	0.0	100.0	
	50대	1,084	2.4	18.6	13.7	19.3	12.7	6.1	1.8	4.2	3.0	3.8	11.7	2.3	0.3	0.0	100.0	
	60-74세	1,071	2.3	16.7	10.9	25.1	12.4	5.2	3.2	4.3	1.8	3.6	13.1	1.3	0.0	0.0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2.9	17.3	12.3	23.0	10.6	6.0	2.8	4.6	2.6	3.6	12.3	1.8	0.2	0.0	100.0	45.882*** (df=13)
	자녀 없음	2,073	3.4	14.7	12.4	23.4	12.3	5.9	4.4	5.0	3.7	3.3	8.6	2.2	0.5	0.0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3.4	17.2	12.2	21.1	9.7	7.3	1.9	5.2	3.1	3.7	13.2	1.7	0.2	0.0	100.0	28.228** (df=13)
	기타	3,963	3.1	16.0	12.4	23.7	11.8	5.6	3.8	4.6	3.0	3.4	10.2	2.0	0.4	0.0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3.8	15.8	13.5	21.5	9.9	7.2	2.3	5.5	3.0	3.6	12.2	1.3	0.4	0.0	100.0	10.240 (df=13)
	기타	4,474	3.0	16.3	12.2	23.4	11.5	5.8	3.6	4.7	3.0	3.5	10.6	2.0	0.3	0.0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3.2	17.8	12.0	22.2	9.4	8.5	1.2	5.6	2.6	2.9	12.9	1.5	0.3	0.0	100.0	14.468 (df=13)
	기타	4,658	3.1	16.1	12.4	23.2	11.5	5.8	3.6	4.7	3.1	3.5	10.6	2.0	0.3	0.0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3.0	16.6	10.7	21.5	10.3	7.7	1.4	4.9	3.5	3.5	15.0	1.9	0.0	0.0	100.0	19.666 (df=13)
	기타	4,572	3.1	16.2	12.5	23.3	11.4	5.8	3.6	4.7	3.0	3.5	10.4	1.9	0.4	0.0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3.7	20.0	13.8	20.3	8.3	6.2	2.1	4.6	2.3	3.0	13.8	1.9	0.0	0.0	100.0	27.104* (df=13)
	기타	4,434	3.0	15.7	12.2	23.5	11.7	5.9	3.6	4.8	3.1	3.5	10.4	1.9	0.4	0.0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0.0	12.5	9.6	23.1	14.4	7.7	4.8	6.7	1.9	6.7	8.7	3.8	0.0	0.0	100.0	103.066*** (df=39)
	고졸	886	2.4	14.2	9.5	23.5	15.2	6.2	3.4	4.6	4.4	3.5	8.9	3.7	0.5	0.0	100.0	
	전문대/대졸	3,545	3.4	16.1	13.1	23.5	10.4	6.0	3.5	4.6	3.0	3.5	11.0	1.7	0.3	0.0	100.0	
	대학원졸	465	3.4	21.5	13.1	20.0	10.1	5.2	3.0	5.6	1.3	2.8	13.3	0.2	0.2	0.2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2.6	14.0	13.1	21.3	13.8	4.5	4.1	6.7	3.4	4.1	9.5	2.4	0.6	0.0	100.0	74.398** (df=39)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2.6	16.3	11.9	25.4	11.3	6.2	3.2	4.5	3.5	4.3	8.3	2.3	0.3	0.0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3.1	16.5	12.1	21.9	12.1	6.0	4.0	4.7	3.4	3.3	11.2	1.5	0.2	0.1	100.0	
	600만원 이상	1,340	4.0	16.5	13.1	22.5	9.7	6.2	2.8	4.5	1.9	2.5	13.9	1.8	0.4	0.0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3.4	14.7	11.4	23.8	11.0	5.6	4.0	6.8	2.7	3.1	11.1	2.1	0.3	0.0	100.0	150.468 (df=13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4.0	17.9	12.2	22.7	11.6	6.5	3.7	3.8	2.7	3.2	10.9	0.8	0.1	0.1	100.0	
	사무 종사자	1,214	3.2	16.5	14.3	22.7	11.0	6.1	3.0	4.7	3.2	2.5	10.2	2.3	0.3	0.0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3.2	14.7	7.9	29.5	13.2	3.2	3.7	4.7	4.2	2.6	10.0	2.1	1.1	0.0	100.0	
	판매 종사자	210	3.3	13.3	13.3	23.8	13.3	2.9	3.8	7.1	2.9	4.8	8.6	1.4	1.4	0.0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0.0	9.4	18.8	18.8	15.6	9.4	6.3	6.3	3.1	0.0	9.4	3.1	0.0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1.2	9.1	16.4	25.5	12.7	7.3	2.4	5.5	4.8	6.1	5.5	3.0	0.6	0.0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2.9	14.7	12.7	17.6	8.8	5.9	5.9	7.8	2.0	3.9	14.7	2.9	0.0	0.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4.0	11.1	9.0	21.1	13.6	9.5	6.0	4.0	4.0	4.0	11.6	2.0	0.0	0.0	100.0	
	군인	13	0.0	30.8	7.7	15.4	0.0	7.7	15.4	7.7	7.7	7.7	0.0	0.0	0.0	0.0	100.0	
	기타	1,325	2.5	18.0	11.6	23.2	10.7	5.7	2.7	3.9	2.8	4.3	12.0	2.2	0.3	0.0	100.0	

〈표 8-4〉 학교 선택시 고려사항: 대학교

구분	사례수	응답 비율															χ ²	
		학교 명성이 나 전통	교원 의 질적 수준	교육 프로그 램의 특성	진로 지도	인성 교육	민주 적인 학교 문화	학교 시설	학교 주변의 환경 및 여건	통학 거리	학교 안전	상급 학교 진학 실적	졸업생 의 취업 실적	교육 비	기타 (경쟁 없는 교육환경 등)	계		
전 체	5,000	11.2	12.5	11.8	8.3	5.8	4.7	3.5	3.7	2.8	2.9	1.7	26.1	5.0	0.0	100.0	-	
성별	남	2,531	10.9	11.7	12.9	7.8	6.4	4.9	3.7	3.8	3.0	3.1	2.0	24.8	5.0	0.0	100.0	21.626 (df=13)
	여	2,469	11.4	13.3	10.7	8.7	5.2	4.5	3.4	3.7	2.6	2.6	1.4	27.4	5.0	0.0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11.4	13.8	12.4	7.4	5.4	4.9	4.4	3.1	4.4	3.1	2.0	24.1	3.6	0.0	100.0	59.927* (df=39)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10.9	11.6	10.7	8.0	6.0	5.3	3.1	4.5	2.7	2.8	2.1	27.7	4.5	0.1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11.5	13.0	11.9	8.5	5.8	4.4	3.5	3.3	2.3	2.9	1.4	26.1	5.3	0.0	100.0	
	읍·면(군)지역	324	8.6	8.6	13.9	10.2	6.2	4.0	3.4	5.2	2.2	2.2	1.2	25.6	8.6	0.0	100.0	
연령	19~29세	929	13.9	11.2	8.4	7.9	5.6	5.0	5.1	4.8	4.7	4.5	2.8	21.5	4.6	0.0	100.0	196.155* ** (df=52)
	30대	870	12.5	12.4	13.2	9.1	6.1	3.6	5.5	5.3	3.0	3.6	2.4	19.2	4.0	0.1	100.0	
	40대	1,046	11.8	13.2	11.5	10.2	4.9	4.4	3.2	3.5	1.8	2.4	1.4	26.4	5.4	0.0	100.0	
	50대	1,084	8.9	14.7	13.3	6.5	6.5	4.7	1.8	2.9	2.0	2.1	1.1	29.7	5.7	0.0	100.0	
	60~74세	1,071	9.3	10.8	12.4	7.7	5.9	5.8	2.8	2.6	2.8	2.1	1.0	31.7	4.9	0.0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10.4	12.5	11.8	7.9	5.5	4.9	3.0	3.4	2.5	2.5	1.6	29.3	4.8	0.0	100.0	49.589*** (df=13)
	자녀 없음	2,073	12.3	12.5	11.8	8.8	6.2	4.5	4.3	4.2	3.3	3.3	1.8	21.6	5.3	0.0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10.8	14.1	11.1	8.4	4.8	4.4	2.9	3.9	2.1	2.9	2.5	26.8	5.3	0.0	100.0	15.398 (df=13)
	기타	3,963	11.3	12.1	12.0	8.2	6.1	4.8	3.7	3.7	3.0	2.9	1.5	25.9	4.9	0.0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11.6	14.1	9.3	8.6	4.4	4.4	4.2	4.0	2.3	2.9	2.9	24.9	6.7	0.0	100.0	16.334 (df=13)
	기타	4,474	11.1	12.3	12.1	8.2	6.0	4.8	3.5	3.7	2.9	2.9	1.6	26.2	4.8	0.0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10.2	12.3	10.8	10.2	5.8	4.1	2.6	3.8	1.8	3.8	2.0	28.7	3.8	0.0	100.0	8.385 (df=13)
	기타	4,658	11.2	12.5	11.9	8.1	5.8	4.8	3.6	3.7	2.9	2.8	1.7	25.9	5.1	0.0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10.0	13.1	12.1	7.9	4.9	4.9	1.9	4.4	1.9	2.3	2.3	30.1	4.0	0.0	100.0	12.775 (df=13)
	기타	4,572	11.3	12.4	11.8	8.3	5.9	4.7	3.7	3.7	2.9	2.9	1.6	25.7	5.1	0.0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11.8	14.3	12.2	6.5	4.9	3.7	2.1	1.9	3.5	1.1	1.1	32.2	4.6	0.0	100.0	34.841** (df=13)
	기타	4,434	11.1	12.3	11.8	8.5	5.9	4.8	3.7	4.0	2.7	3.1	1.8	25.3	5.0	0.0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2.9	17.3	4.8	10.6	6.7	4.8	4.8	5.8	5.8	3.8	0.0	28.8	3.8	0.0	100.0	108.113* ** (df=39)
	고졸	886	7.3	11.5	11.4	8.2	7.8	7.0	3.5	4.4	3.0	3.5	1.6	23.8	6.9	0.0	100.0	
	전문대/대졸	3,545	11.7	12.2	11.8	8.3	5.4	4.3	3.8	3.7	2.9	2.8	1.8	26.7	4.7	0.0	100.0	
	대학원졸	465	16.3	15.5	14.2	7.1	5.2	3.9	1.7	2.6	1.1	2.2	1.3	24.9	3.9	0.2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8.8	12.5	12.9	8.4	7.1	4.1	4.1	3.2	3.4	2.8	1.9	24.3	6.5	0.0	100.0	60.171* (df=39)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9.7	12.5	11.6	9.4	6.4	4.6	3.4	4.0	3.1	3.1	1.6	25.0	5.7	0.0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11.4	11.7	11.2	8.3	5.9	4.9	3.8	4.7	2.6	3.3	2.0	25.6	4.6	0.1	100.0	
	600만원 이상	1,340	13.5	13.4	12.5	6.7	4.6	4.9	3.3	2.5	2.5	2.2	1.4	28.6	4.1	0.0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10.1	11.9	12.1	7.2	5.6	5.6	3.7	3.2	3.2	3.1	1.3	28.0	4.8	0.0	100.0	185.287* * (df=13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13.1	13.3	13.6	7.8	6.2	4.6	3.8	4.3	1.9	2.8	2.2	22.7	3.6	0.1	100.0	
	사무 종사자	1,214	12.3	13.3	11.3	9.5	4.8	4.1	4.0	3.6	2.7	2.6	2.3	24.8	4.8	0.0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11.6	12.1	8.4	11.1	6.8	3.2	1.1	1.6	4.2	3.2	2.6	28.9	5.3	0.0	100.0	
	판매 종사자	210	6.7	9.5	14.3	10.0	8.1	3.8	3.8	5.2	2.4	2.9	1.4	27.1	4.8	0.0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3.1	6.3	9.4	9.4	3.1	6.3	6.3	9.4	0.0	3.1	0.0	37.5	6.3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4.8	10.9	11.5	9.1	4.8	6.7	4.2	6.1	3.0	4.8	1.8	24.8	7.3	0.0	100.0	
	장차·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5.9	12.7	7.8	9.8	6.9	3.9	3.9	6.9	4.9	2.9	0.0	29.4	4.9	0.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6.5	12.1	6.5	7.0	10.6	5.5	6.0	4.5	5.0	8.0	0.5	20.1	7.5	0.0	100.0	
	군인	13	7.7	7.7	15.4	30.8	0.0	0.0	7.7	7.7	7.7	0.0	0.0	7.7	7.7	0.0	100.0	
	기타	1,325	12.0	12.5	12.2	7.0	5.4	5.0	2.6	2.9	2.7	2.0	1.3	28.9	5.5	0.0	100.0	

〈표 9〉 초·중·고등학교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것

구분	응답 비율										계	χ ²
	사례수	학벌 위주의 사회 체제 개선	대입 선발 방식 개선	교원의 전문성 제고	교육 내용의 선택권 확대	진로 교육 강화	수업 방식의 다양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 여건 개선	기타 (인성 교육 필수화 등)	계		
전 체	5,000	25.2	11.2	16.1	14.6	12.0	16.2	4.3	0.4	100.0	-	
성별	남	2,531	26.7	11.6	15.8	14.4	12.2	14.6	4.3	0.5	100.0	24.575 (df=17)
	여	2,469	23.6	10.8	16.4	14.9	11.8	17.9	4.3	0.3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23.3	12.4	18.7	16.3	9.8	15.8	3.4	0.3	100.0	54.268 (df=51)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26.0	10.6	15.3	15.3	12.3	16.2	4.1	0.3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25.2	11.3	15.4	13.4	13.0	16.7	4.6	0.5	100.0	
	읍·면(군)지역	324	27.2	9.3	17.0	16.0	10.8	14.2	5.2	0.3	100.0	
연령	19~29세	929	21.0	9.7	14.0	15.0	18.5	14.9	6.2	0.8	100.0	172.053*** (df=68)
	30대	870	23.6	10.2	17.4	17.6	12.9	14.1	3.6	0.7	100.0	
	40대	1,046	26.3	13.7	16.3	11.7	10.6	17.4	3.8	0.3	100.0	
	50대	1,084	27.5	12.6	15.1	14.3	8.5	17.6	4.2	0.1	100.0	
	60~74세	1,071	26.7	9.4	17.7	15.1	10.6	16.5	3.6	0.2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25.5	12.1	17.4	14.7	10.4	15.9	3.9	0.2	100.0	47.653*** (df=17)
	자녀 없음	2,073	24.7	9.9	14.3	14.5	14.4	16.6	4.9	0.6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24.6	14.3	19.0	14.6	10.3	13.4	3.6	0.3	100.0	38.695** (df=17)
	기타	3,963	25.3	10.4	15.3	14.6	12.5	17.0	4.5	0.4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23.4	15.0	19.0	14.6	10.5	13.5	3.6	0.4	100.0	24.383 (df=17)
	기타	4,474	25.4	10.8	15.8	14.6	12.2	16.5	4.4	0.4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26.0	15.2	17.5	13.2	9.1	13.7	5.0	0.3	100.0	25.780 (df=17)
	기타	4,658	25.1	10.9	16.0	14.7	12.2	16.4	4.2	0.4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26.2	14.0	18.5	15.0	10.7	12.1	3.5	0.0	100.0	13.002 (df=17)
	기타	4,572	25.1	10.9	15.9	14.6	12.1	16.6	4.4	0.4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27.0	14.3	14.7	15.9	8.8	15.4	3.9	0.0	100.0	16.247 (df=17)
	기타	4,434	24.9	10.8	16.3	14.5	12.4	16.3	4.3	0.4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30.8	8.7	12.5	17.3	15.4	10.6	4.8	0.0	100.0	63.125 (df=51)
	고졸	886	25.3	7.4	15.1	17.5	12.6	18.5	3.5	0.0	100.0	
	전문대/대졸	3,545	25.0	11.7	16.5	14.2	12.2	15.9	4.1	0.5	100.0	
	대학원졸	465	24.7	15.5	15.9	11.6	9.0	15.9	7.1	0.2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27.7	8.4	13.1	13.5	15.1	16.1	5.8	0.2	100.0	63.075 (df=51)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25.0	10.0	15.2	14.6	13.8	17.1	3.9	0.4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24.7	11.7	17.4	15.6	10.8	15.4	4.0	0.4	100.0	
	600만원 이상	1,340	25.1	13.1	16.6	14.0	10.2	16.1	4.6	0.4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23.5	13.2	17.9	13.7	11.3	17.4	2.6	0.5	100.0	154.427 (df=17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25.7	14.0	15.9	13.7	10.5	13.0	6.5	0.6	100.0	
	사무 종사자	1,214	23.5	10.4	16.5	15.2	13.3	17.1	3.7	0.3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26.8	8.9	17.4	14.7	12.6	15.3	4.2	0.0	100.0	
	판매 종사자	210	23.3	10.5	15.7	20.0	12.9	13.3	3.3	1.0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25.0	12.5	9.4	18.8	3.1	25.0	6.3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27.9	9.1	12.1	18.8	12.1	18.8	1.2	0.0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21.6	8.8	16.7	20.6	16.7	13.7	2.0	0.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23.6	9.5	12.6	18.1	14.6	16.6	5.0	0.0	100.0	
	군인	13	0.0	7.7	15.4	38.5	15.4	15.4	7.7	0.0	100.0	
	기타	1,325	27.6	10.2	16.1	12.5	11.4	17.3	4.6	0.3	100.0	

〈표 10-1〉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인식: 초·중·고 전반

구분	응답 비율					χ^2	
	사례수	보낼 생각이 있다	보낼 생각이 없다	잘 모르겠다	계		
전 체	1,037	30.1	56.9	13.0	100.0	-	
성별	남	558	30.8	58.1	11.1	100.0	3.884 (df=2)
	여	479	29.2	55.5	15.2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213	36.2	51.2	12.7	100.0	13.741* (df=6)
	광역시, 특별자치시	263	30.8	54.4	14.8	100.0	
	중소도시(시 지역)	490	28.4	58.4	13.3	100.0	
	읍·면(군)지역	71	21.1	73.2	5.6	100.0	
연령	19~29세	8	62.5	37.5	0.0	100.0	14.430 (df=8)
	30대	138	34.1	51.4	14.5	100.0	
	40대	571	29.8	55.3	14.9	100.0	
	50대	292	27.7	63.4	8.9	100.0	
	60~74세	28	32.1	53.6	14.3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037	30.1	56.9	13.0	100.0	-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30.1	56.9	13.0	100.0	-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30.4	55.5	14.1	100.0	1.301 (df=2)
	기타	511	29.7	58.3	11.9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27.5	58.5	14.0	100.0	1.778 (df=2)
	기타	695	31.4	56.1	12.5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29.2	59.1	11.7	100.0	1.817 (df=2)
	기타	609	30.7	55.3	14.0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193	27.5	59.6	13.0	100.0	0.846 (df=2)
	기타	844	30.7	56.3	13.0	100.0	
학력	고졸	119	20.2	62.2	17.6	100.0	10.016* (df=4)
	전문대/대졸	805	30.4	57.0	12.5	100.0	
	대학원졸	113	38.1	50.4	11.5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9	26.3	57.9	15.8	100.0	23.138** (df=6)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98	20.7	67.7	11.6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465	28.2	58.7	13.1	100.0	
	600만원 이상	355	38.0	48.5	13.5	100.0	
직업군	관리자	236	34.3	53.8	11.9	100.0	30.602 (df=2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95	36.4	53.8	9.7	100.0	
	사무 종사자	294	28.6	55.8	15.6	100.0	
	서비스 종사자	39	28.2	48.7	23.1	100.0	
	판매 종사자	51	27.5	58.8	13.7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5	40.0	20.0	4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2	28.1	62.5	9.4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4	21.4	57.1	21.4	100.0	
	단순노무 종사자	21	28.6	57.1	14.3	100.0	
	군인	3	66.7	33.3	0.0	100.0	
	기타	147	19.7	70.1	10.2	100.0	

〈표 10-2〉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인식: 초등학교

구분	응답 비율					χ^2	
	사례수	보낼 생각이 있다	보낼 생각이 없다	잘 모르겠다	계		
전 체	1,037	17.5	76.5	6.1	100.0	-	
성별	남	558	17.4	77.1	5.6	100.0	0.595 (df=2)
	여	479	17.5	75.8	6.7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213	24.4	68.5	7.0	100.0	18.656** (df=6)
	광역시, 특별자치시	263	17.1	74.9	8.0	100.0	
	중소도시(시 지역)	490	16.1	78.8	5.1	100.0	
	읍·면(군)지역	71	7.0	90.1	2.8	100.0	
연령	19~29세	8	50.0	50.0	0.0	100.0	13.332 (df=8)
	30대	138	23.2	70.3	6.5	100.0	
	40대	571	16.1	77.1	6.8	100.0	
	50대	292	16.8	78.1	5.1	100.0	
	60~74세	28	14.3	85.7	0.0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037	17.5	76.5	6.1	100.0	-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17.5	76.5	6.1	100.0	-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18.4	76.2	5.3	100.0	1.597 (df=2)
	기타	511	16.4	76.7	6.8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17.0	76.3	6.7	100.0	0.428 (df=2)
	기타	695	17.7	76.5	5.8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15.7	78.3	6.1	100.0	1.662 (df=2)
	기타	609	18.7	75.2	6.1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193	14.0	80.8	5.2	100.0	2.532 (df=2)
	기타	844	18.2	75.5	6.3	100.0	
학력	고졸	119	10.9	78.2	10.9	100.0	11.416* (df=4)
	전문대/대졸	805	17.6	77.1	5.2	100.0	
	대학원졸	113	23.0	69.9	7.1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9	15.8	73.7	10.5	100.0	8.877 (df=6)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98	10.6	83.3	6.1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465	18.9	75.1	6.0	100.0	
	600만원 이상	355	19.4	74.6	5.9	100.0	
직업군	관리자	236	17.8	78.4	3.8	100.0	35.181* (df=2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95	20.0	75.4	4.6	100.0	
	사무 종사자	294	19.4	72.4	8.2	100.0	
	서비스 종사자	39	17.9	76.9	5.1	100.0	
	판매 종사자	51	9.8	80.4	9.8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5	40.0	40.0	2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2	15.6	84.4	0.0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4	28.6	50.0	21.4	100.0	
	단순노무 종사자	21	14.3	76.2	9.5	100.0	
	군인	3	66.7	33.3	0.0	100.0	
기타	147	10.2	84.4	5.4	100.0		

〈표 10-3〉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인식: 중학교

구분	응답 비율					χ^2	
	사례수	보낼 생각이 있다	보낼 생각이 없다	잘 모르겠다	계		
전 체	1,037	23.4	67.5	9.1	100.0	-	
성별	남	558	24.2	67.9	7.9	100.0	2.183 (df=2)
	여	479	22.5	67.0	10.4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213	31.5	57.3	11.3	100.0	18.334** (df=6)
	광역시, 특별자치시	263	19.8	72.6	7.6	100.0	
	중소도시(시 지역)	490	23.5	67.6	9.0	100.0	
	읍·면(군)지역	71	12.7	78.9	8.5	100.0	
연령	19~29세	8	62.5	37.5	0.0	100.0	17.607* (df=8)
	30대	138	24.6	59.4	15.9	100.0	
	40대	571	23.1	68.3	8.6	100.0	
	50대	292	22.6	70.2	7.2	100.0	
	60~74세	28	21.4	71.4	7.1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037	23.4	67.5	9.1	100.0	-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23.4	67.5	9.1	100.0	-
	초등학생 학부모	526	24.3	66.7	8.9	100.0	0.484 (df=2)
중학생 학부모	기타	511	22.5	68.3	9.2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23.1	69.0	7.9	100.0
기타		695	23.6	66.8	9.6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22.2	69.2	8.6	100.0	0.914 (df=2)
	기타	609	24.3	66.3	9.4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193	21.2	71.0	7.8	100.0	1.348 (df=2)
	기타	844	23.9	66.7	9.4	100.0	
학력	고졸	119	13.4	73.1	13.4	100.0	11.357* (df=4)
	전문대/대졸	805	24.0	67.3	8.7	100.0	
	대학원졸	113	30.1	62.8	7.1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9	21.1	63.2	15.8	100.0	14.619* (df=6)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98	17.2	73.7	9.1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465	21.5	69.9	8.6	100.0	
	600만원 이상	355	29.6	61.1	9.3	100.0	
직업군	관리자	236	26.7	67.8	5.5	100.0	38.809** (df=2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95	25.1	67.7	7.2	100.0	
	사무 종사자	294	23.5	63.6	12.9	100.0	
	서비스 종사자	39	23.1	61.5	15.4	100.0	
	판매 종사자	51	13.7	72.5	13.7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5	40.0	20.0	4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2	25.0	71.9	3.1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4	42.9	57.1	0.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21	19.0	66.7	14.3	100.0	
	군인	3	66.7	33.3	0.0	100.0	
기타	147	16.3	76.9	6.8	100.0		

〈표 10-4〉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인식: 고등학교

구분	응답 비율					χ^2	
	사례수	보낼 생각이 있다	보낼 생각이 없다	잘 모르겠다	계		
전 체	1,037	38.3	47.5	14.2	100.0	-	
성별	남	558	38.2	48.0	13.8	100.0	0.185 (df=2)
	여	479	38.4	47.0	14.6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213	48.4	39.4	12.2	100.0	14.827* (df=6)
	광역시, 특별자치시	263	37.3	49.8	12.9	100.0	
	중소도시(시 지역)	490	35.5	49.8	14.7	100.0	
	읍·면(군)지역	71	31.0	47.9	21.1	100.0	
연령	19~29세	8	87.5	12.5	0.0	100.0	26.033** (df=8)
	30대	138	43.5	35.5	21.0	100.0	
	40대	571	38.2	47.5	14.4	100.0	
	50대	292	33.9	55.1	11.0	100.0	
	60~74세	28	46.4	39.3	14.3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037	38.3	47.5	14.2	100.0	-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38.3	47.5	14.2	100.0	-
	초등학교 학부모	526	40.3	44.9	14.8	100.0	3.065 (df=2)
	기타	511	36.2	50.3	13.5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33.9	52.3	13.7	100.0	5.079 (df=2)
	기타	695	40.4	45.2	14.4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36.4	50.9	12.6	100.0	3.655 (df=2)
	기타	609	39.6	45.2	15.3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193	37.3	48.7	14.0	100.0	0.133 (df=2)
	기타	844	38.5	47.3	14.2	100.0	
학력	고졸	119	31.1	46.2	22.7	100.0	9.049 (df=4)
	전문대/대졸	805	38.9	48.0	13.2	100.0	
	대학원졸	113	41.6	46.0	12.4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9	31.6	52.6	15.8	100.0	18.038** (df=6)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98	28.3	54.5	17.2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465	37.0	49.0	14.0	100.0	
	600만원 이상	355	45.9	41.4	12.7	100.0	
직업군	관리자	236	44.1	43.2	12.7	100.0	29.392 (df=2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95	40.5	49.7	9.7	100.0	
	사무 종사자	294	38.8	43.9	17.3	100.0	
	서비스 종사자	39	33.3	38.5	28.2	100.0	
	판매 종사자	51	33.3	49.0	17.6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5	60.0	20.0	2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2	34.4	53.1	12.5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4	42.9	42.9	14.3	100.0	
	단순노무 종사자	21	38.1	47.6	14.3	100.0	
	군인	3	33.3	66.7	0.0	100.0	
기타	147	27.9	60.5	11.6	100.0		

〈표 10-1-1〉 조기유학 보낼 생각이 있다면 그 이유

구분	응답 비율								χ^2	
	사례수	자녀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	외국어 학습 또는 자녀의 조기 다중언어 구사를 위해	경쟁 위주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 대한 불만	사교육에 대한 부담	기타 (교사의 수준에 대한 불만 등)	계		
전 체	478	21.8	29.9	23.6	20.5	4.0	0.2	100.0	-	
성별	남	257	20.2	31.9	24.9	19.1	3.5	0.4	100.0	3.436 (df=5)
	여	221	23.5	27.6	22.2	22.2	4.5	0.0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122	20.5	30.3	23.8	23.8	1.6	0.0	100.0	10.494 (df=15)
	광역시, 특별자치시	119	21.8	31.9	22.7	17.6	5.9	0.0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14	21.0	29.0	24.3	21.5	3.7	0.5	100.0	
	읍·면(군)지역	23	34.8	26.1	21.7	8.7	8.7	0.0	100.0	
연령	19-29세	7	14.3	14.3	42.9	28.6	0.0	0.0	100.0	47.263** (df=20)
	30대	80	15.0	35.0	27.5	18.8	3.8	0.0	100.0	
	40대	257	21.0	28.0	23.3	22.2	5.4	0.0	100.0	
	50대	120	26.7	31.7	20.8	19.2	1.7	0.0	100.0	
	60~74세	14	35.7	28.6	21.4	7.1	0.0	7.1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478	21.8	29.9	23.6	20.5	4.0	0.2	100.0	-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478	21.8	29.9	23.6	20.5	4.0	0.2	100.0	-
	초등학생 학부모	257	19.5	34.2	21.4	20.6	3.9	0.4	100.0	6.882 (df=5)
중학생 학부모	143	25.2	28.0	18.9	19.6	8.4	0.0	100.0	13.833* (df=5)	
고등학생 학부모	184	24.5	28.3	25.5	19.0	2.7	0.0	100.0		3.870 (df=5)
대학생 학부모	86	27.9	24.4	22.1	20.9	4.7	0.0	100.0	3.338 (df=5)	
학력	고졸	45	24.4	31.1	26.7	15.6	2.2	0.0		100.0
전문대/대졸	379	20.8	30.3	23.7	20.6	4.2	0.3	100.0		
대학원졸	54	25.9	25.9	20.4	24.1	3.7	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6	0.0	50.0	0.0	33.3	16.7	0.0	100.0	15.794 (df=15)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71	23.9	31.0	23.9	16.9	4.2	0.0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215	20.9	27.4	28.4	18.1	4.7	0.5	100.0	
	600만원 이상	186	22.6	31.7	18.8	24.2	2.7	0.0	100.0	
직업군	관리자	124	14.5	31.5	25.8	23.4	4.0	0.8	100.0	46.352 (df=5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8	30.6	24.5	22.4	21.4	1.0	0.0	100.0	
	사무 종사자	134	22.4	34.3	19.4	16.4	7.5	0.0	100.0	
	서비스 종사자	15	20.0	26.7	46.7	6.7	0.0	0.0	100.0	
	판매 종사자	24	12.5	29.2	37.5	20.8	0.0	0.0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	33.3	33.3	33.3	0.0	0.0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4	21.4	42.9	14.3	14.3	7.1	0.0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9	44.4	22.2	11.1	22.2	0.0	0.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8	25.0	37.5	25.0	12.5	0.0	0.0	100.0	
	군인	2	0.0	100.0	0.0	0.0	0.0	0.0	100.0	
	기타	47	21.3	19.1	23.4	31.9	4.3	0.0	100.0	

〈표 11-1〉 우리나라 교육정책: 일관성

구분	응답 비율										F	
	사례수	매우 있다	있다	보통 이다	없다	전혀 없다	종합결과			평균 (5점)		표준 편차
							없음	보통	있음			
전 체	5,000	1.6	10.6	35.0	38.4	14.5	52.8	35.0	12.2	2.46	0.9	-
성별	남	2,531	1.9	10.6	32.6	37.9	17.0	54.8	32.6	12.5	2.43	1.0
	여	2,469	1.2	10.6	37.4	38.9	11.9	50.8	37.4	11.8	2.50	0.9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2.1	10.3	33.4	38.1	16.2	54.3	33.4	12.3	2.44	0.9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1.9	11.2	36.0	37.3	13.7	51.0	36.0	13.0	2.50	0.9
	중소도시(시 지역)	2,359	1.3	10.2	35.2	38.7	14.5	53.3	35.2	11.5	2.45	0.9
	읍·면(군)지역	324	1.2	11.7	34.3	40.7	12.0	52.8	34.3	13.0	2.49	0.9
연령	19~29세	929	2.9	14.5	42.4	29.5	10.7	40.2	42.4	17.4	2.70	0.9
	30대	870	2.5	13.0	39.3	33.8	11.4	45.2	39.3	15.5	2.61	0.9
	40대	1,046	1.1	9.8	31.0	43.1	15.0	58.1	31.0	10.9	2.39	0.9
	50대	1,084	0.6	8.5	30.1	42.9	18.0	60.9	30.1	9.0	2.31	0.9
	60~74세	1,071	1.1	8.1	34.0	40.5	16.2	56.8	34.0	9.2	2.37	0.9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1.3	9.2	31.6	41.6	16.3	57.9	31.6	10.5	2.38	0.9
	자녀 없음	2,073	2.0	12.5	39.8	33.8	11.9	45.7	39.8	14.5	2.59	0.9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1.2	11.0	29.3	41.9	16.7	58.5	29.3	12.2	2.38	0.9
	기타	3,963	1.7	10.5	36.5	37.4	13.9	51.3	36.5	12.2	2.49	0.9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2.1	12.5	28.1	41.8	15.4	57.2	28.1	14.6	2.44	1.0
	기타	4,474	1.5	10.3	35.8	38.0	14.4	52.3	35.8	11.9	2.47	0.9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0.0	10.8	28.9	45.9	14.3	60.2	28.9	10.8	2.36	0.9
	기타	4,658	1.7	10.6	35.4	37.8	14.5	52.3	35.4	12.3	2.47	0.9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0.5	10.0	28.5	43.0	18.0	61.0	28.5	10.5	2.32	0.9
	기타	4,572	1.7	10.6	35.6	37.9	14.2	52.1	35.6	12.3	2.48	0.9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1.2	7.8	26.7	44.2	20.1	64.3	26.7	9.0	2.26	0.9
	기타	4,434	1.6	10.9	36.1	37.6	13.8	51.4	36.1	12.6	2.49	0.9
학력	중졸 이하	104	0.0	7.7	45.2	36.5	10.6	47.1	45.2	7.7	2.50	0.8
	고졸	886	1.7	11.6	42.9	32.8	10.9	43.8	42.9	13.3	2.60	0.9
	전문대/대졸	3,545	1.6	10.4	33.9	39.4	14.6	54.1	33.9	12.0	2.45	0.9
	대학원졸	465	1.7	10.3	26.0	41.1	20.9	61.9	26.0	12.0	2.31	1.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1.9	9.2	40.2	34.4	14.2	48.6	40.2	11.2	2.50	0.9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1.8	11.1	39.2	35.8	12.0	47.9	39.2	12.9	2.55	0.9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2.0	11.0	32.9	39.9	14.2	54.1	32.9	13.0	2.47	0.9
	600만원 이상	1,340	0.7	9.9	30.5	41.0	17.9	58.9	30.5	10.6	2.34	0.9
직업군	관리자	621	1.1	10.5	29.1	43.2	16.1	59.3	29.1	11.6	2.37	0.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1.4	10.7	34.2	38.3	15.4	53.7	34.2	12.1	2.44	0.9
	사무 종사자	1,214	1.8	11.4	35.1	39.7	11.9	51.6	35.1	13.3	2.51	0.9
	서비스 종사자	190	2.1	16.3	33.2	35.8	12.6	48.4	33.2	18.4	2.59	1.0
	판매 종사자	210	1.9	11.9	36.2	34.8	15.2	50.0	36.2	13.8	2.50	1.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0.0	15.6	28.1	46.9	9.4	56.3	28.1	15.6	2.50	0.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1.2	12.1	40.0	35.8	10.9	46.7	40.0	13.3	2.57	0.9
	정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3.9	15.7	40.2	30.4	9.8	40.2	40.2	19.6	2.74	1.0
	단순노무 종사자	199	3.0	9.0	42.7	33.2	12.1	45.2	42.7	12.1	2.58	0.9
	군인	13	7.7	23.1	46.2	15.4	7.7	23.1	46.2	30.8	3.08	1.0
	기타	1,325	1.2	8.2	36.2	37.6	16.9	54.5	36.2	9.4	2.39	0.9

〈표 11-2〉 우리나라 교육정책: 장기적 비전

구분	응답 비율											F	
	사례수	매우 있다	있다	보통 이다	없다	전혀 없다	종합결과			평균 (5점)	표준 편차		
							없음	보통	있음				
전 체	5,000	1.3	10.0	37.3	38.6	12.8	51.4	37.3	11.3	2.48	0.9	-	
성별	남	2,531	1.3	10.1	34.9	38.6	15.2	53.8	34.9	11.3	2.44	0.9	15.013*** (df=1)
	여	2,469	1.3	10.0	39.9	38.6	10.3	48.9	39.9	11.3	2.53	0.9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1.3	9.7	34.9	40.0	14.1	54.1	34.9	11.0	2.44	0.9	3.396* (df=3)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1.9	10.6	36.9	38.5	12.2	50.7	36.9	12.4	2.51	0.9	
	중소도시(시 지역)	2,359	1.1	9.5	37.6	39.1	12.8	51.9	37.6	10.6	2.47	0.9	
	읍·면(군)지역	324	0.3	12.7	45.1	30.9	11.1	42.0	45.1	13.0	2.60	0.9	
연령	19~29세	929	1.0	11.8	35.1	39.8	12.3	52.1	35.1	12.8	2.49	0.9	4.955** (df=4)
	30대	870	1.8	10.3	39.7	37.8	10.3	48.2	39.7	12.2	2.56	0.9	
	40대	1,046	1.4	7.8	38.9	38.0	13.9	51.8	38.9	9.3	2.45	0.9	
	50대	1,084	1.0	7.7	36.3	40.6	14.4	55.0	36.3	8.7	2.40	0.9	
	60~74세	1,071	1.2	12.7	36.9	36.7	12.5	49.2	36.9	13.9	2.53	0.9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1.5	10.3	36.9	37.9	13.4	51.3	36.9	11.8	2.49	0.9	0.070 (df=1)
	자녀 없음	2,073	0.9	9.6	38.0	39.5	12.0	51.5	38.0	10.6	2.48	0.9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2.4	9.0	35.5	38.7	14.5	53.1	35.5	11.4	2.46	0.9	0.845 (df=1)
	기타	3,963	1.0	10.3	37.8	38.6	12.3	50.9	37.8	11.3	2.49	0.9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4.2	9.3	34.6	37.1	14.8	51.9	34.6	13.5	2.51	1.0	0.473 (df=1)
	기타	4,474	0.9	10.1	37.7	38.8	12.5	51.3	37.7	11.0	2.48	0.9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0.3	8.2	41.8	36.3	13.5	49.7	41.8	8.5	2.46	0.8	0.375 (df=1)
	기타	4,658	1.4	10.2	37.0	38.8	12.7	51.5	37.0	11.5	2.49	0.9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1.4	9.3	34.8	40.4	14.0	54.4	34.8	10.7	2.44	0.9	1.348 (df=1)
	기타	4,572	1.3	10.1	37.6	38.4	12.7	51.1	37.6	11.4	2.49	0.9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1.2	8.0	32.7	42.2	15.9	58.1	32.7	9.2	2.36	0.9	11.855** (df=1)
	기타	4,434	1.3	10.3	37.9	38.1	12.4	50.5	37.9	11.6	2.50	0.9	
학력	중졸 이하	104	0.0	10.6	40.4	39.4	9.6	49.0	40.4	10.6	2.52	0.8	14.662*** (df=3)
	고졸	886	1.4	12.1	45.1	33.2	8.2	41.4	45.1	13.4	2.65	0.8	
	전문대/대졸	3,545	1.3	9.6	36.2	39.4	13.5	52.9	36.2	10.9	2.46	0.9	
	대학원졸	465	1.5	8.8	30.8	42.4	16.6	58.9	30.8	10.3	2.36	0.9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1.1	9.7	41.5	34.4	13.3	47.7	41.5	10.8	2.51	0.9	4.870** (df=3)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0.9	10.2	40.7	37.7	10.5	48.1	40.7	11.1	2.53	0.8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1.9	10.8	34.6	39.7	13.1	52.8	34.6	12.7	2.49	0.9	
	600만원 이상	1,340	1.1	9.0	35.0	39.9	15.1	54.9	35.0	10.1	2.41	0.9	
직업군	관리자	621	1.4	10.1	36.7	37.8	13.8	51.7	36.7	11.6	2.48	0.9	1.866* (df=1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1.2	10.1	33.3	42.0	13.5	55.4	33.3	11.3	2.44	0.9	
	사무 종사자	1,214	1.7	9.8	37.5	39.2	11.8	51.0	37.5	11.5	2.50	0.9	
	서비스 종사자	190	1.6	11.6	38.4	37.4	11.1	48.4	38.4	13.2	2.55	0.9	
	판매 종사자	210	2.4	11.4	33.8	36.7	15.7	52.4	33.8	13.8	2.48	1.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0.0	9.4	56.3	21.9	12.5	34.4	56.3	9.4	2.63	0.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1.8	7.3	46.1	33.9	10.9	44.8	46.1	9.1	2.55	0.9	
	정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1.0	17.6	43.1	32.4	5.9	38.2	43.1	18.6	2.75	0.8	
	단순노무 종사자	199	0.5	11.1	41.7	35.2	11.6	46.7	41.7	11.6	2.54	0.9	
	군인	13	0.0	15.4	46.2	23.1	15.4	38.5	46.2	15.4	2.62	1.0	
기타	1,325	0.8	9.2	38.0	38.6	13.4	52.0	38.0	10.0	2.45	0.9		

〈표 11-3〉 우리나라 교육정책: 우리나라 여건에의 적합성

구분	응답 비율											F	
	사례수	매우 있다	있다	보통 이다	없다	전혀 없다	종합결과			평균 (5점)	표준 편차		
							없음	보통	있음				
전 체	5,000	1.5	13.5	53.6	25.1	6.4	31.5	53.6	15.0	2.79	0.8	-	
성별	남	2,531	1.4	12.8	52.0	25.9	7.9	33.8	52.0	14.1	2.74	0.8	17.624*** (df=1)
	여	2,469	1.5	14.3	55.1	24.2	4.9	29.1	55.1	15.8	2.83	0.8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1.0	15.3	50.5	26.5	6.7	33.2	50.5	16.3	2.78	0.8	2.182 (df=3)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2.0	13.6	55.8	22.1	6.4	28.5	55.8	15.6	2.83	0.8	
	중소도시(시 지역)	2,359	1.3	12.4	53.5	26.5	6.2	32.7	53.5	13.7	2.76	0.8	
	읍·면(군)지역	324	1.5	15.4	53.4	22.8	6.8	29.6	53.4	17.0	2.82	0.8	
연령	19~29세	929	2.3	15.9	50.8	24.5	6.5	31.0	50.8	18.2	2.83	0.9	1.606 (df=4)
	30대	870	1.1	14.3	53.8	24.6	6.2	30.8	53.8	15.4	2.80	0.8	
	40대	1,046	1.3	12.0	56.5	23.5	6.7	30.2	56.5	13.3	2.78	0.8	
	50대	1,084	1.2	11.8	53.2	27.4	6.4	33.8	53.2	13.0	2.74	0.8	
	60~74세	1,071	1.4	14.0	53.2	25.1	6.3	31.4	53.2	15.4	2.79	0.8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1.7	13.2	53.0	25.9	6.3	32.1	53.0	14.9	2.78	0.8	0.078 (df=1)
	자녀 없음	2,073	1.1	14.0	54.4	24.0	6.6	30.6	54.4	15.1	2.79	0.8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2.2	13.6	51.2	26.3	6.7	33.0	51.2	15.8	2.78	0.8	0.004 (df=1)
	기타	3,963	1.3	13.5	54.2	24.8	6.3	31.1	54.2	14.7	2.79	0.8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3.2	15.2	50.2	24.7	6.7	31.4	50.2	18.4	2.84	0.9	2.347 (df=1)
	기타	4,474	1.3	13.3	54.0	25.1	6.4	31.5	54.0	14.6	2.78	0.8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1.2	11.1	57.9	24.0	5.8	29.8	57.9	12.3	2.78	0.8	0.033 (df=1)
	기타	4,658	1.5	13.7	53.2	25.2	6.4	31.6	53.2	15.2	2.79	0.8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1.6	12.4	49.5	30.8	5.6	36.4	49.5	14.0	2.74	0.8	1.747 (df=1)
	기타	4,572	1.4	13.6	53.9	24.5	6.5	31.0	53.9	15.0	2.79	0.8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2.1	11.0	51.9	28.8	6.2	35.0	51.9	13.1	2.74	0.8	1.986 (df=1)
	기타	4,434	1.4	13.8	53.8	24.6	6.4	31.0	53.8	15.2	2.79	0.8	
학력	중졸 이하	104	1.0	11.5	52.9	28.8	5.8	34.6	52.9	12.5	2.73	0.8	1.391 (df=3)
	고졸	886	1.0	14.2	56.5	23.3	5.0	28.2	56.5	15.2	2.83	0.8	
	전문대/대졸	3,545	1.6	13.0	53.8	25.2	6.5	31.7	53.8	14.6	2.78	0.8	
	대학원졸	465	1.7	16.1	46.5	27.1	8.6	35.7	46.5	17.8	2.75	0.9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1.1	10.3	55.7	26.7	6.2	32.9	55.7	11.4	2.73	0.8	1.809 (df=3)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1.3	14.3	54.4	23.9	6.0	29.9	54.4	15.7	2.81	0.8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1.8	13.5	53.6	24.8	6.3	31.1	53.6	15.3	2.80	0.8	
	600만원 이상	1,340	1.3	13.6	51.7	26.3	7.1	33.4	51.7	14.9	2.76	0.8	
직업군	관리자	621	1.3	12.6	49.4	30.3	6.4	36.7	49.4	13.8	2.72	0.8	2.262* (df=1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1.9	15.3	52.1	24.1	6.6	30.7	52.1	17.2	2.82	0.8	
	사무 종사자	1,214	1.6	15.0	54.8	23.3	5.3	28.6	54.8	16.6	2.84	0.8	
	서비스 종사자	190	2.1	16.8	46.8	27.4	6.8	34.2	46.8	18.9	2.80	0.9	
	판매 종사자	210	1.9	13.3	54.3	21.9	8.6	30.5	54.3	15.2	2.78	0.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0.0	12.5	59.4	21.9	6.3	28.1	59.4	12.5	2.78	0.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1.2	14.5	53.3	26.7	4.2	30.9	53.3	15.8	2.82	0.8	
	정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2.0	17.6	52.9	22.5	4.9	27.5	52.9	19.6	2.89	0.8	
	단순노무 종사자	199	1.0	10.1	52.3	28.6	8.0	36.7	52.3	11.1	2.67	0.8	
	군인	13	0.0	15.4	61.5	23.1	0.0	23.1	61.5	15.4	2.92	0.6	
	기타	1,325	1.0	10.9	56.3	24.7	7.1	31.8	56.3	11.9	2.74	0.8	

〈표 11-4〉 우리나라 교육정책: 국민여론 반영

구분	응답 비율										F		
	사례수	매우 있다	있다	보통 이다	없다	전혀 없다	종합결과			평균 (5점)		표준 편차	
							없음	보통	있음				
전 체	5,000	1.6	15.0	44.6	29.7	9.1	38.8	44.6	16.5	2.70	0.9	-	
성별	남	2,531	1.7	14.7	43.1	29.2	11.3	40.5	43.1	16.4	2.66	0.9	10.050** (df=1)
	여	2,469	1.4	15.3	46.3	30.2	6.9	37.1	46.3	16.7	2.74	0.8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1.7	15.7	41.7	31.5	9.3	40.9	41.7	17.5	2.69	0.9	1.372 (df=3)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1.6	15.6	46.6	26.7	9.5	36.3	46.6	17.1	2.73	0.9	
	중소도시(시 지역)	2,359	1.5	13.6	45.0	31.1	8.7	39.8	45.0	15.2	2.68	0.9	
	읍·면(군)지역	324	1.2	20.1	42.6	25.9	10.2	36.1	42.6	21.3	2.76	0.9	
연령	19~29세	929	2.7	14.3	45.6	28.3	9.0	37.4	45.6	17.0	2.73	0.9	1.918 (df=4)
	30대	870	2.2	16.2	45.1	27.7	8.9	36.6	45.1	18.4	2.75	0.9	
	40대	1,046	1.1	15.6	44.8	30.0	8.5	38.5	44.8	16.6	2.71	0.9	
	50대	1,084	0.9	15.1	42.9	31.7	9.3	41.1	42.9	16.1	2.67	0.9	
	60~74세	1,071	1.2	13.8	45.0	30.1	9.9	40.0	45.0	15.0	2.66	0.9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1.4	15.1	44.1	29.9	9.5	39.4	44.1	16.5	2.69	0.9	0.944 (df=1)
	자녀 없음	2,073	1.7	14.8	45.4	29.3	8.7	38.0	45.4	16.5	2.72	0.9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1.5	17.9	42.4	28.6	9.5	38.1	42.4	19.5	2.73	0.9	1.860 (df=1)
	기타	3,963	1.6	14.2	45.2	30.0	9.1	39.0	45.2	15.8	2.69	0.9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2.7	18.6	41.3	28.3	9.1	37.5	41.3	21.3	2.77	0.9	3.921* (df=1)
	기타	4,474	1.4	14.6	45.0	29.8	9.1	39.0	45.0	16.0	2.69	0.9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0.9	17.8	45.6	24.6	11.1	35.7	45.6	18.7	2.73	0.9	0.332 (df=1)
	기타	4,658	1.6	14.8	44.6	30.1	9.0	39.1	44.6	16.4	2.70	0.9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0.9	18.0	41.6	30.8	8.6	39.5	41.6	18.9	2.72	0.9	0.150 (df=1)
	기타	4,572	1.6	14.7	44.9	29.6	9.2	38.8	44.9	16.3	2.70	0.9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0.9	13.8	43.6	30.7	11.0	41.7	43.6	14.7	2.63	0.9	4.264* (df=1)
	기타	4,434	1.6	15.1	44.8	29.5	8.9	38.5	44.8	16.8	2.71	0.9	
학력	중졸 이하	104	0.0	14.4	47.1	32.7	5.8	38.5	47.1	14.4	2.70	0.8	2.233 (df=3)
	고졸	886	1.6	15.8	48.8	25.7	8.1	33.9	48.8	17.4	2.77	0.9	
	전문대/대졸	3,545	1.6	14.5	44.5	30.2	9.3	39.4	44.5	16.1	2.69	0.9	
	대학원졸	465	1.9	17.2	37.2	32.9	10.8	43.7	37.2	19.1	2.67	0.9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2.2	9.9	48.0	30.8	9.2	40.0	48.0	12.0	2.65	0.9	2.102 (df=3)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1.6	14.8	46.7	28.2	8.7	36.9	46.7	16.4	2.72	0.9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1.7	16.5	42.6	30.8	8.3	39.1	42.6	18.3	2.73	0.9	
	600만원 이상	1,340	1.1	15.1	43.3	29.9	10.6	40.4	43.3	16.3	2.66	0.9	
직업군	관리자	621	1.1	16.7	43.0	28.2	11.0	39.1	43.0	17.9	2.69	0.9	1.229 (df=1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1.9	14.9	42.8	31.0	9.4	40.4	42.8	16.8	2.69	0.9	
	사무 종사자	1,214	1.8	16.6	44.4	29.2	8.1	37.2	44.4	18.4	2.75	0.9	
	서비스 종사자	190	1.6	16.3	45.8	28.4	7.9	36.3	45.8	17.9	2.75	0.9	
	판매 종사자	210	1.4	16.2	41.0	29.5	11.9	41.4	41.0	17.6	2.66	0.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0.0	21.9	37.5	31.3	9.4	40.6	37.5	21.9	2.72	0.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1.8	12.7	51.5	28.5	5.5	33.9	51.5	14.5	2.77	0.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1.0	21.6	41.2	28.4	7.8	36.3	41.2	22.5	2.79	0.9	
	단순노무 종사자	199	1.5	9.0	44.2	36.2	9.0	45.2	44.2	10.6	2.58	0.8	
	군인	13	0.0	15.4	53.8	23.1	7.7	30.8	53.8	15.4	2.77	0.8	
기타	1,325	1.4	12.9	46.9	29.4	9.4	38.9	46.9	14.3	2.67	0.9		

〈표 11-1-1〉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우리나라 교육정책

구분	응답 비율							χ^2	
	사례수	일관성	장기적 비전	우리나라 여건에의 적합성	국민여론 반영	잘 모르겠다	계		
전 체	5,000	15.8	50.6	22.3	7.1	4.2	100.0	-	
성별	남	2,531	16.9	51.1	20.7	7.2	4.1	100.0	9.445 (df=4)
	여	2,469	14.7	50.1	23.8	7.0	4.3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16.0	52.2	21.5	7.2	3.2	100.0	9.329 (df=12)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16.5	48.5	23.2	7.0	4.9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15.3	51.3	21.9	7.4	4.2	100.0	
	읍·면(군)지역	324	16.0	50.6	23.8	5.6	4.0	100.0	
연령	19~29세	929	11.1	47.7	24.1	10.5	6.6	100.0	74.570*** (df=16)
	30대	870	13.7	51.1	22.9	7.9	4.4	100.0	
	40대	1,046	16.3	52.7	21.7	6.4	3.0	100.0	
	50대	1,084	18.6	51.9	20.3	5.9	3.2	100.0	
	60~74세	1,071	18.3	49.5	22.7	5.4	4.1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17.2	50.7	23.2	6.1	2.8	100.0	53.053*** (df=4)
	자녀 없음	2,073	13.9	50.5	20.9	8.5	6.1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16.5	52.3	22.6	6.8	1.9	100.0	17.248** (df=4)
	기타	3,963	15.6	50.2	22.2	7.2	4.8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15.8	53.2	22.4	6.5	2.1	100.0	7.279 (df=4)
	기타	4,474	15.8	50.3	22.2	7.2	4.4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17.8	53.2	20.8	6.7	1.5	100.0	8.384 (df=4)
	기타	4,658	15.7	50.5	22.4	7.1	4.4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17.1	49.5	24.1	7.2	2.1	100.0	6.108 (df=4)
	기타	4,572	15.7	50.7	22.1	7.1	4.4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18.9	51.4	21.4	6.4	1.9	100.0	12.347* (df=4)
	기타	4,434	15.4	50.5	22.4	7.2	4.5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11.5	40.4	30.8	2.9	14.4	100.0	67.176*** (df=12)
	고졸	886	17.3	44.4	25.2	8.5	4.7	100.0	
	전문대/대졸	3,545	15.4	51.6	21.8	7.2	4.0	100.0	
	대학원졸	465	17.2	57.4	18.3	4.7	2.4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18.5	44.5	18.7	8.8	9.5	100.0	67.762*** (df=12)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14.3	49.8	23.6	7.5	4.8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16.1	50.9	22.6	7.8	2.6	100.0	
	600만원 이상	1,340	16.3	53.5	21.4	5.4	3.4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13.8	53.5	23.0	6.9	2.7	100.0	107.998*** (df=4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16.7	52.4	21.5	7.2	2.2	100.0	
	사무 종사자	1,214	15.5	53.5	21.3	6.9	2.8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16.3	48.9	21.6	8.9	4.2	100.0	
	판매 종사자	210	13.3	48.1	28.6	5.7	4.3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18.8	40.6	31.3	6.3	3.1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20.6	44.2	25.5	6.7	3.0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13.7	47.1	27.5	8.8	2.9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11.6	40.2	27.1	8.0	13.1	100.0	
	군인	13	15.4	46.2	30.8	0.0	7.7	100.0	
	기타	1,325	16.8	49.0	20.6	7.2	6.4	100.0	

〈표 12〉 정부의 교육신뢰회복 노력에 대한 평가

구분	응답 비율											F	
	사례수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보통 이다	못하고 있다	전혀 못하고 있다	종합결과			평균 (5점)	표준 편차		
							못하고 있음	보통	잘하고 있음				
전 체	5,000	1.4	15.7	46.8	28.4	7.7	36.1	46.8	17.1	2.75	0.9	-	
성별	남	2,531	1.6	16.2	43.9	28.7	9.6	38.3	43.9	17.8	2.71	0.9	7.570** (df=1)
	여	2,469	1.2	15.2	49.7	28.1	5.7	33.8	49.7	16.4	2.78	0.8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1.7	14.8	45.3	30.7	7.5	38.2	45.3	16.5	2.73	0.9	0.299 (df=3)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1.4	15.5	47.1	28.4	7.5	36.0	47.1	16.9	2.75	0.9	
	중소도시(시 지역)	2,359	1.2	16.4	47.1	27.2	8.1	35.3	47.1	17.6	2.75	0.9	
	읍·면(군)지역	324	1.9	14.2	47.8	30.9	5.2	36.1	47.8	16.0	2.77	0.8	
연령	19~29세	929	1.5	13.5	47.4	30.7	7.0	37.7	47.4	15.0	2.72	0.8	1.691 (df=4)
	30대	870	2.0	14.4	48.7	28.6	6.3	34.9	48.7	16.3	2.77	0.8	
	40대	1,046	1.6	15.6	49.2	27.4	6.1	33.6	49.2	17.2	2.79	0.8	
	50대	1,084	1.4	17.3	44.9	27.9	8.5	36.3	44.9	18.7	2.75	0.9	
	60~74세	1,071	0.7	17.2	44.2	27.9	10.0	37.9	44.2	17.9	2.71	0.9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1.2	16.9	46.1	27.6	8.1	35.8	46.1	18.1	2.75	0.9	0.328 (df=1)
	자녀 없음	2,073	1.8	13.9	47.7	29.6	7.0	36.6	47.7	15.7	2.74	0.8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1.7	16.6	48.7	26.3	6.7	33.0	48.7	18.3	2.80	0.9	5.629* (df=1)
	기타	3,963	1.3	15.5	46.3	29.0	7.9	36.9	46.3	16.8	2.73	0.9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1.9	17.7	48.3	26.2	5.9	32.1	48.3	19.6	2.83	0.9	5.982* (df=1)
	기타	4,474	1.4	15.5	46.6	28.7	7.9	36.6	46.6	16.8	2.74	0.9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1.2	16.4	50.9	25.4	6.1	31.6	50.9	17.5	2.81	0.8	1.913 (df=1)
	기타	4,658	1.4	15.7	46.5	28.7	7.8	36.4	46.5	17.1	2.74	0.9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1.4	17.1	48.1	26.2	7.2	33.4	48.1	18.5	2.79	0.9	1.237 (df=1)
	기타	4,572	1.4	15.6	46.7	28.7	7.7	36.4	46.7	17.0	2.74	0.9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1.4	17.5	44.5	27.9	8.7	36.6	44.5	18.9	2.75	0.9	0.008 (df=1)
	기타	4,434	1.4	15.5	47.1	28.5	7.5	36.0	47.1	16.9	2.75	0.9	
학력	중졸 이하	104	0.0	10.6	49.0	29.8	10.6	40.4	49.0	10.6	2.60	0.8	3.261* (df=3)
	고졸	886	0.7	18.1	49.3	25.5	6.4	31.9	49.3	18.7	2.81	0.8	
	전문대/대졸	3,545	1.6	14.9	47.1	28.9	7.5	36.3	47.1	16.5	2.74	0.9	
	대학원졸	465	1.5	18.5	38.7	30.5	10.8	41.3	38.7	20.0	2.69	0.9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2.2	13.1	48.4	26.9	9.5	36.3	48.4	15.3	2.72	0.9	0.507 (df=3)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1.2	15.0	49.6	27.7	6.5	34.3	49.6	16.1	2.77	0.8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1.7	15.6	46.2	29.0	7.5	36.5	46.2	17.2	2.75	0.9	
	600만원 이상	1,340	1.2	17.6	43.4	29.2	8.6	37.8	43.4	18.8	2.74	0.9	
직업군	관리자	621	1.8	15.6	44.1	29.0	9.5	38.5	44.1	17.4	2.71	0.9	1.498 (df=1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2.0	16.0	45.1	29.3	7.5	36.8	45.1	18.1	2.76	0.9	
	사무 종사자	1,214	1.3	16.0	48.9	27.8	5.9	33.8	48.9	17.3	2.79	0.8	
	서비스 종사자	190	0.5	23.2	42.6	27.4	6.3	33.7	42.6	23.7	2.84	0.9	
	판매 종사자	210	0.5	16.7	45.7	25.7	11.4	37.1	45.7	17.1	2.69	0.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0.0	12.5	50.0	21.9	15.6	37.5	50.0	12.5	2.59	0.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0.6	13.9	55.8	25.5	4.2	29.7	55.8	14.5	2.81	0.7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2.0	22.5	42.2	27.5	5.9	33.3	42.2	24.5	2.87	0.9	
	단순노무 종사자	199	2.0	9.5	51.3	29.1	8.0	37.2	51.3	11.6	2.68	0.8	
	군인	13	0.0	7.7	53.8	30.8	7.7	38.5	53.8	7.7	2.62	0.8	
	기타	1,325	1.2	14.8	46.4	29.2	8.4	37.6	46.4	16.0	2.71	0.9	

〈표 13〉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국가교육위원회 역할

구분	사례수	응답 비율					기타 (처별 수위 마련, 기존 기구 활용 등)	계	χ ²
		교육 비전 및 중장기 정책 방향 마련	중장기 교육 제도 개선	국가 교육 과정의 기준 및 내용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및 조정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및 조정			
전 체	5,000	34.3	27.9	23.9	13.3	0.7	100.0	-	
성별	남	2,531	34.9	29.4	22.1	12.9	0.7	100.0	29.024 (df=19)
	여	2,469	33.7	26.3	25.8	13.6	0.6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32.4	31.7	23.4	11.6	0.8	100.0	67.500 (df=57)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34.0	26.9	24.5	14.1	0.4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35.2	27.3	23.7	13.2	0.6	100.0	
	읍·면(군)지역	324	34.6	24.4	24.7	15.1	1.2	100.0	
연령	19~29세	929	30.5	30.7	23.8	14.6	0.4	100.0	96.982 (df=76)
	30대	870	31.1	31.1	25.4	11.0	1.3	100.0	
	40대	1,046	36.7	26.7	23.3	12.8	0.5	100.0	
	50대	1,084	36.9	26.4	23.4	13.1	0.2	100.0	
	60~74세	1,071	35.2	25.4	23.9	14.5	1.0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35.1	27.2	23.9	13.2	0.6	100.0	20.709 (df=19)
	자녀 없음	2,073	33.1	28.8	24.0	13.4	0.7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34.4	30.3	23.2	11.5	0.6	100.0	18.065 (df=19)
	기타	3,963	34.3	27.2	24.1	13.7	0.7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35.2	31.4	22.2	10.3	1.0	100.0	23.999 (df=19)
	기타	4,474	34.2	27.4	24.1	13.6	0.6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32.7	33.0	21.3	12.6	0.3	100.0	6.963 (df=19)
	기타	4,658	34.4	27.5	24.1	13.3	0.7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34.8	28.0	24.3	12.4	0.5	100.0	4.734 (df=19)
	기타	4,572	34.3	27.8	23.9	13.3	0.7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39.0	24.7	23.5	12.4	0.4	100.0	21.504 (df=19)
	기타	4,434	33.7	28.3	24.0	13.4	0.7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29.8	24.0	30.8	14.4	1.0	100.0	107.339*** (df=57)
	고졸	886	29.9	27.8	28.6	13.5	0.2	100.0	
	전문대/대졸	3,545	34.8	28.1	22.9	13.5	0.7	100.0	
	대학원졸	465	40.0	26.9	21.3	10.5	1.3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32.3	26.2	23.9	17.2	0.4	100.0	66.295 (df=57)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33.6	27.5	25.6	12.5	0.9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33.3	30.1	23.1	12.9	0.6	100.0	
	600만원 이상	1,340	37.0	26.3	22.9	13.3	0.4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37.5	25.6	23.3	13.2	0.3	100.0	128.183 (df=19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36.1	27.8	24.1	11.4	0.6	100.0	
	사무 종사자	1,214	34.0	30.7	23.6	11.1	0.6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34.2	25.8	21.1	18.4	0.5	100.0	
	판매 종사자	210	34.8	30.0	23.3	11.9	0.0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25.0	21.9	31.3	21.9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24.2	33.9	29.1	12.1	0.6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36.3	26.5	28.4	8.8	0.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24.6	30.2	27.6	17.1	0.5	100.0	
	군인	13	30.8	23.1	23.1	23.1	0.0	100.0	
	기타	1,325	34.6	25.5	23.2	15.6	1.1	100.0	

〈표 14-1〉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 정도: 초·중·고 전반

구분	응답 비율											F	
	사례수	매우 신뢰한다	신뢰한다	보통이다	신뢰하지 못한다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	종합결과			평균(5점)	표준편차		
							신뢰함	보통	신뢰함				
전체	5,000	1.2	21.0	53.7	19.8	4.3	24.1	53.7	22.2	2.95	0.8	-	
성별	남	2,531	1.2	21.9	52.3	19.4	5.1	24.5	52.3	23.2	2.95	0.8	0.025 (df=1)
	여	2,469	1.1	20.0	55.2	20.1	3.5	23.7	55.2	21.1	2.95	0.8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1.3	18.3	53.8	21.9	4.7	26.6	53.8	19.6	2.90	0.8	3.418* (df=3)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1.3	22.0	52.4	20.4	3.9	24.3	52.4	23.2	2.96	0.8	
	중소도시(시 지역)	2,359	1.2	20.9	54.2	19.1	4.6	23.7	54.2	22.1	2.95	0.8	
	읍·면(군)지역	324	0.3	25.6	55.6	16.0	2.5	18.5	55.6	25.9	3.05	0.7	
연령	19~29세	929	1.7	21.5	53.3	18.6	4.8	23.5	53.3	23.3	2.97	0.8	1.120 (df=4)
	30대	870	0.9	20.0	56.9	18.2	4.0	22.2	56.9	20.9	2.96	0.8	
	40대	1,046	1.1	22.2	52.0	19.9	4.9	24.8	52.0	23.2	2.95	0.8	
	50대	1,084	0.8	19.6	53.3	21.9	4.3	26.2	53.3	20.5	2.91	0.8	
	60~74세	1,071	1.4	21.5	53.7	19.9	3.5	23.4	53.7	22.9	2.97	0.8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1.3	22.0	52.8	19.9	4.0	23.9	52.8	23.3	2.97	0.8	3.127 (df=1)
	자녀 없음	2,073	1.0	19.6	55.1	19.6	4.7	24.3	55.1	20.6	2.93	0.8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1.4	23.3	51.5	19.3	4.5	23.8	51.5	24.7	2.98	0.8	1.601 (df=1)
	기타	3,963	1.1	20.4	54.3	19.9	4.3	24.2	54.3	21.5	2.94	0.8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2.3	25.5	50.8	16.7	4.8	21.5	50.8	27.8	3.04	0.8	7.428** (df=1)
	기타	4,474	1.1	20.5	54.1	20.1	4.3	24.4	54.1	21.5	2.94	0.8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0.6	28.4	50.3	16.7	4.1	20.8	50.3	28.9	3.05	0.8	5.597* (df=1)
	기타	4,658	1.2	20.4	54.0	20.0	4.3	24.3	54.0	21.7	2.94	0.8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0.2	19.9	54.0	21.7	4.2	25.9	54.0	20.1	2.90	0.8	1.678 (df=1)
	기타	4,572	1.3	21.1	53.7	19.6	4.3	23.9	53.7	22.4	2.95	0.8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0.9	21.7	50.9	21.9	4.6	26.5	50.9	22.6	2.92	0.8	0.647 (df=1)
	기타	4,434	1.2	20.9	54.1	19.5	4.3	23.8	54.1	22.1	2.95	0.8	
학력	중졸 이하	104	0.0	12.5	63.5	21.2	2.9	24.0	63.5	12.5	2.86	0.7	2.866* (df=3)
	고졸	886	1.1	22.3	56.4	17.0	3.0	20.1	56.4	23.5	3.01	0.7	
	전문대/대졸	3,545	1.1	20.8	53.5	20.1	4.5	24.6	53.5	21.9	2.94	0.8	
	대학원졸	465	1.9	21.9	48.2	22.6	5.4	28.0	48.2	23.9	2.92	0.9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1.5	15.1	55.7	22.6	5.2	27.7	55.7	16.6	2.85	0.8	4.423** (df=3)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1.3	20.4	55.5	18.5	4.3	22.8	55.5	21.7	2.96	0.8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1.4	23.2	52.1	19.7	3.6	23.3	52.1	24.6	2.99	0.8	
	600만원 이상	1,340	0.6	21.2	52.9	20.4	4.9	25.3	52.9	21.8	2.92	0.8	
직업군	관리자	621	1.1	21.3	51.9	21.1	4.7	25.8	51.9	22.4	2.93	0.8	2.432** (df=1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1.8	23.7	51.0	18.9	4.5	23.5	51.0	25.5	2.99	0.8	
	사무 종사자	1,214	1.2	19.5	55.2	20.9	3.1	24.1	55.2	20.8	2.95	0.8	
	서비스 종사자	190	1.1	23.2	51.1	18.4	6.3	24.7	51.1	24.2	2.94	0.8	
	판매 종사자	210	0.5	22.9	53.3	17.1	6.2	23.3	53.3	23.3	2.94	0.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0.0	37.5	46.9	9.4	6.3	15.6	46.9	37.5	3.16	0.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2.4	24.2	50.9	17.0	5.5	22.4	50.9	26.7	3.01	0.9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1.0	34.3	52.0	9.8	2.9	12.7	52.0	35.3	3.21	0.7	
	단순노무 종사자	199	1.5	22.1	50.8	22.6	3.0	25.6	50.8	23.6	2.96	0.8	
	군인	13	0.0	15.4	76.9	7.7	0.0	7.7	76.9	15.4	3.08	0.5	
기타	1,325	0.7	17.7	56.5	20.4	4.7	25.1	56.5	18.4	2.89	0.8		

〈표 14-2〉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 정도: 초등학교

구분	응답 비율											F	
	사례수	매우 신뢰한다	신뢰한다	보통이다	신뢰하지 못한다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	종합결과			평균(5점)	표준편차		
							신뢰불합	보통	신뢰함				
전체	5,000	2.7	26.8	47.2	18.9	4.4	23.3	47.2	29.5	3.05	0.9	-	
성별	남	2,531	3.1	28.6	44.9	17.9	5.4	23.4	44.9	31.7	3.06	0.9	1.488 (df=1)
	여	2,469	2.3	25.0	49.5	19.8	3.3	23.2	49.5	27.3	3.03	0.8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2.0	24.5	45.6	23.1	4.8	27.9	45.6	26.5	2.96	0.9	4.866** (df=3)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3.6	26.9	47.3	17.9	4.3	22.2	47.3	30.5	3.08	0.9	
	중소도시(시 지역)	2,359	2.6	27.2	47.8	18.1	4.3	22.4	47.8	29.8	3.06	0.9	
	읍·면(군)지역	324	2.2	30.6	47.5	16.0	3.7	19.8	47.5	32.7	3.11	0.8	
연령	19~29세	929	3.3	26.5	45.5	19.3	5.4	24.7	45.5	29.8	3.03	0.9	1.538 (df=4)
	30대	870	2.2	24.6	47.9	21.1	4.1	25.3	47.9	26.8	3.00	0.8	
	40대	1,046	2.7	26.9	48.9	17.1	4.5	21.6	48.9	29.5	3.06	0.9	
	50대	1,084	2.3	28.1	46.0	18.7	4.8	23.5	46.0	30.4	3.04	0.9	
	60~74세	1,071	3.1	27.5	47.6	18.6	3.2	21.8	47.6	30.6	3.09	0.8	
자녀유무	자녀 있음	2,927	3.1	27.7	47.4	17.8	4.0	21.7	47.4	30.9	3.08	0.9	12.742*** (df=1)
	자녀 없음	2,073	2.2	25.5	46.9	20.5	5.0	25.4	46.9	27.7	2.99	0.9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3.9	28.7	46.7	16.4	4.3	20.7	46.7	32.6	3.11	0.9	8.099** (df=1)
	기타	3,963	2.4	26.3	47.3	19.5	4.4	23.9	47.3	28.7	3.03	0.9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4.8	30.0	46.4	14.4	4.4	18.8	46.4	34.8	3.16	0.9	10.966** (df=1)
	기타	4,474	2.5	26.4	47.3	19.4	4.4	23.8	47.3	28.9	3.03	0.9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4.7	31.0	45.0	14.9	4.4	19.3	45.0	35.7	3.17	0.9	7.218** (df=1)
	기타	4,658	2.6	26.5	47.4	19.2	4.4	23.6	47.4	29.1	3.04	0.9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2.6	27.6	48.1	18.0	3.7	21.7	48.1	30.1	3.07	0.8	0.436 (df=1)
	기타	4,572	2.7	26.7	47.1	19.0	4.4	23.4	47.1	29.5	3.04	0.9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3.2	30.2	44.0	18.0	4.6	22.6	44.0	33.4	3.09	0.9	1.944 (df=1)
	기타	4,434	2.7	26.4	47.6	19.0	4.4	23.3	47.6	29.0	3.04	0.9	
학력	중졸 이하	104	1.0	20.2	54.8	22.1	1.9	24.0	54.8	21.2	2.96	0.7	0.803 (df=3)
	고졸	886	2.0	25.8	50.9	17.8	3.4	21.2	50.9	27.9	3.05	0.8	
	전문대/대졸	3,545	2.9	26.6	46.9	18.8	4.8	23.6	46.9	29.6	3.04	0.9	
	대학원졸	465	2.8	31.6	41.1	20.9	3.7	24.5	41.1	34.4	3.09	0.9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3.0	18.9	52.0	20.0	6.0	26.0	52.0	21.9	2.93	0.9	5.214** (df=3)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1.8	27.5	47.9	18.3	4.4	22.8	47.9	29.4	3.04	0.8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2.6	29.7	46.2	18.3	3.3	21.5	46.2	32.3	3.10	0.8	
	600만원 이상	1,340	3.8	25.4	45.9	19.9	5.1	24.9	45.9	29.2	3.03	0.9	
직업군	관리자	621	3.9	27.1	45.6	19.8	3.7	23.5	45.6	30.9	3.08	0.9	0.865 (df=1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3.3	29.4	42.1	20.8	4.4	25.2	42.1	32.7	3.06	0.9	
	사무 종사자	1,214	2.2	28.2	47.3	18.8	3.5	22.3	47.3	30.4	3.07	0.8	
	서비스 종사자	190	2.6	26.8	46.3	19.5	4.7	24.2	46.3	29.5	3.03	0.9	
	판매 종사자	210	2.4	26.2	45.7	19.0	6.7	25.7	45.7	28.6	2.99	0.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0.0	46.9	31.3	18.8	3.1	21.9	31.3	46.9	3.22	0.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3.6	24.2	47.3	20.0	4.8	24.8	47.3	27.9	3.02	0.9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1.0	30.4	51.0	13.7	3.9	17.6	51.0	31.4	3.11	0.8	
	단순노무 종사자	199	2.5	21.6	49.2	21.6	5.0	26.6	49.2	24.1	2.95	0.9	
	군인	13	7.7	7.7	61.5	23.1	0.0	23.1	61.5	15.4	3.00	0.8	
기타	1,325	2.3	24.3	51.5	16.9	5.0	21.9	51.5	26.6	3.02	0.8		

〈표 14-3〉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 정도: 중학교

구분	응답 비율											F	
	사례수	매우 신뢰한다	신뢰한다	보통이다	신뢰하지 못한다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	종합결과			평균 (5점)	표준 편차		
전 체	5,000	1.8	19.3	50.5	23.5	4.9	28.4	50.5	21.1	2.90	0.8	-	
성별	남	2,531	1.7	20.0	49.3	23.3	5.7	29.0	49.3	21.7	2.89	0.8	0.581 (df=1)
	여	2,469	1.8	18.7	51.8	23.8	4.0	27.8	51.8	20.5	2.90	0.8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1.6	16.6	52.1	24.4	5.2	29.7	52.1	18.3	2.85	0.8	2.769* (df=3)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2.2	21.1	49.4	22.6	4.8	27.3	49.4	23.2	2.93	0.8	
	중소도시(시 지역)	2,359	1.6	19.4	49.9	24.2	4.9	29.2	49.9	20.9	2.88	0.8	
	읍·면(군)지역	324	1.9	19.8	54.9	19.8	3.7	23.5	54.9	21.6	2.96	0.8	
연령	19~29세	929	1.9	19.7	48.8	23.6	6.0	29.6	48.8	21.6	2.88	0.9	0.384 (df=4)
	30대	870	2.0	18.4	50.9	24.5	4.3	28.7	50.9	20.3	2.89	0.8	
	40대	1,046	1.7	19.2	51.3	23.0	4.7	27.7	51.3	20.9	2.90	0.8	
	50대	1,084	1.8	18.7	51.2	22.7	5.6	28.3	51.2	20.5	2.88	0.8	
	60~74세	1,071	1.5	20.4	50.2	24.1	3.7	27.8	50.2	21.9	2.92	0.8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1.9	20.1	50.1	23.5	4.4	27.9	50.1	22.0	2.92	0.8	4.642* (df=1)
	자녀 없음	2,073	1.5	18.2	51.2	23.5	5.5	29.1	51.2	19.7	2.87	0.8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2.4	20.3	49.6	23.0	4.6	27.7	49.6	22.8	2.93	0.8	2.067 (df=1)
	기타	3,963	1.6	19.1	50.8	23.7	4.9	28.6	50.8	20.6	2.89	0.8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3.0	21.1	49.4	22.4	4.0	26.4	49.4	24.1	2.97	0.8	4.452* (df=1)
	기타	4,474	1.6	19.1	50.6	23.7	5.0	28.6	50.6	20.7	2.89	0.8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2.0	25.4	47.4	21.3	3.8	25.1	47.4	27.5	3.01	0.8	6.520* (df=1)
	기타	4,658	1.7	18.9	50.8	23.7	4.9	28.6	50.8	20.6	2.89	0.8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1.6	19.9	50.0	23.1	5.4	28.5	50.0	21.5	2.89	0.8	0.007 (df=1)
	기타	4,572	1.8	19.3	50.6	23.6	4.8	28.4	50.6	21.0	2.90	0.8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2.3	20.5	48.2	24.9	4.1	29.0	48.2	22.8	2.92	0.8	0.570 (df=1)
	기타	4,434	1.7	19.2	50.8	23.4	5.0	28.3	50.8	20.9	2.89	0.8	
학력	중졸 이하	104	0.0	12.5	55.8	29.8	1.9	31.7	55.8	12.5	2.79	0.7	1.791 (df=3)
	고졸	886	1.5	20.1	54.3	19.8	4.4	24.2	54.3	21.6	2.94	0.8	
	전문대/대졸	3,545	1.8	19.2	50.0	23.9	5.1	29.1	50.0	21.0	2.89	0.8	
	대학원졸	465	2.6	20.2	46.5	26.2	4.5	30.8	46.5	22.8	2.90	0.9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1.5	13.8	56.1	22.6	6.0	28.6	56.1	15.3	2.82	0.8	3.147* (df=3)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1.9	18.3	51.4	23.6	4.8	28.4	51.4	20.2	2.89	0.8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1.7	22.2	48.4	23.7	3.9	27.6	48.4	24.0	2.94	0.8	
	600만원 이상	1,340	1.7	19.1	49.9	23.6	5.7	29.3	49.9	20.8	2.88	0.8	
직업군	관리자	621	1.8	18.5	49.6	25.4	4.7	30.1	49.6	20.3	2.87	0.8	1.772 (df=1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2.4	20.7	48.2	23.0	5.7	28.7	48.2	23.0	2.91	0.9	
	사무 종사자	1,214	1.8	19.4	50.1	25.2	3.5	28.7	50.1	21.2	2.91	0.8	
	서비스 종사자	190	1.1	24.2	47.9	20.5	6.3	26.8	47.9	25.3	2.93	0.9	
	판매 종사자	210	2.4	17.1	49.5	23.8	7.1	31.0	49.5	19.5	2.84	0.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0.0	28.1	43.8	21.9	6.3	28.1	43.8	28.1	2.94	0.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1.2	20.6	52.1	21.2	4.8	26.1	52.1	21.8	2.92	0.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3.9	29.4	51.0	12.7	2.9	15.7	51.0	33.3	3.19	0.8	
	단순노무 종사자	199	2.0	18.1	47.7	29.1	3.0	32.2	47.7	20.1	2.87	0.8	
	군인	13	0.0	23.1	61.5	15.4	0.0	15.4	61.5	23.1	3.08	0.6	
	기타	1,325	1.2	17.4	53.7	22.3	5.4	27.7	53.7	18.6	2.87	0.8	

〈표 14-4〉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 정도: 고등학교

구분	응답 비율											F
	사례수	매우 신뢰한다	신뢰한다	보통이다	신뢰하지 못한다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	종합결과			평균 (5점)	표준 편차	
							신뢰 못함	보통	신뢰함			
전 체	5,000	1.7	16.7	46.8	26.7	8.1	34.9	46.8	18.4	2.77	0.9	-
성별	남	2,531	1.7	17.0	45.6	26.1	9.6	35.7	45.6	18.6	2.75	0.9
	여	2,469	1.7	16.4	47.9	27.4	6.6	34.0	47.9	18.1	2.79	0.9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1.8	14.1	47.1	28.2	8.7	37.0	47.1	15.9	2.72	0.9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1.6	17.7	47.9	25.1	7.7	32.8	47.9	19.4	2.81	0.9
	중소도시(시 지역)	2,359	1.5	17.0	45.5	27.6	8.3	35.9	45.5	18.6	2.76	0.9
	읍·면(군)지역	324	2.2	18.2	50.0	22.5	7.1	29.6	50.0	20.4	2.86	0.9
연령	19~29세	929	2.3	15.1	47.8	25.5	9.4	34.9	47.8	17.3	2.75	0.9
	30대	870	1.8	16.2	49.4	25.3	7.2	32.5	49.4	18.0	2.80	0.9
	40대	1,046	1.4	16.2	47.9	26.2	8.3	34.5	47.9	17.6	2.76	0.9
	50대	1,084	1.4	16.4	45.2	27.9	9.1	37.0	45.2	17.8	2.73	0.9
	60~74세	1,071	1.5	19.4	44.2	28.4	6.5	34.9	44.2	20.9	2.81	0.9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1.7	18.0	45.3	27.3	7.7	35.1	45.3	19.7	2.79	0.9
	자녀 없음	2,073	1.6	14.9	48.9	25.9	8.7	34.6	48.9	16.5	2.75	0.9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2.0	17.6	45.2	26.7	8.5	35.2	45.2	19.6	2.78	0.9
	기타	3,963	1.6	16.5	47.2	26.7	8.0	34.8	47.2	18.1	2.77	0.9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2.5	17.5	48.1	25.1	6.8	31.9	48.1	20.0	2.84	0.9
	기타	4,474	1.6	16.6	46.6	26.9	8.3	35.2	46.6	18.2	2.76	0.9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1.8	20.8	43.9	25.7	7.9	33.6	43.9	22.5	2.83	0.9
	기타	4,658	1.7	16.4	47.0	26.8	8.1	35.0	47.0	18.1	2.77	0.9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1.6	18.0	42.1	28.3	10.0	38.3	42.1	19.6	2.73	0.9
	기타	4,572	1.7	16.6	47.2	26.6	7.9	34.5	47.2	18.3	2.77	0.9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1.8	18.0	42.2	28.4	9.5	38.0	42.2	19.8	2.74	0.9
	기타	4,434	1.6	16.6	47.3	26.5	7.9	34.5	47.3	18.2	2.77	0.9
학력	중졸 이하	104	1.0	8.7	59.6	27.9	2.9	30.8	59.6	9.6	2.77	0.7
	고졸	886	1.9	18.1	49.0	23.5	7.6	31.0	49.0	20.0	2.83	0.9
	전문대/대졸	3,545	1.5	16.4	46.5	27.6	8.1	35.6	46.5	17.9	2.76	0.9
	대학원졸	465	2.6	18.3	41.9	26.5	10.8	37.2	41.9	20.9	2.75	1.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1.3	14.0	47.3	28.0	9.5	37.4	47.3	15.3	2.70	0.9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2.0	16.3	48.0	26.1	7.7	33.8	48.0	18.2	2.79	0.9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1.8	17.9	46.2	26.3	7.8	34.2	46.2	19.7	2.79	0.9
	600만원 이상	1,340	1.3	16.9	45.8	27.5	8.5	36.0	45.8	18.1	2.75	0.9
직업군	관리자	621	1.8	16.7	42.8	29.8	8.9	38.6	42.8	18.5	2.73	0.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2.4	17.8	44.7	26.6	8.6	35.2	44.7	20.1	2.79	0.9
	사무 종사자	1,214	1.0	16.6	49.0	26.2	7.2	33.4	49.0	17.6	2.78	0.8
	서비스 종사자	190	1.1	18.4	46.8	22.6	11.1	33.7	46.8	19.5	2.76	0.9
	판매 종사자	210	2.4	14.8	45.2	28.1	9.5	37.6	45.2	17.1	2.72	0.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0.0	34.4	40.6	9.4	15.6	25.0	40.6	34.4	2.94	1.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1.2	17.0	46.7	24.8	10.3	35.2	46.7	18.2	2.74	0.9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5.9	22.5	43.1	23.5	4.9	28.4	43.1	28.4	3.01	0.9
	단순노무 종사자	199	1.5	16.6	45.2	31.2	5.5	36.7	45.2	18.1	2.77	0.8
	군인	13	0.0	23.1	69.2	7.7	0.0	7.7	69.2	23.1	3.15	0.6
	기타	1,325	1.5	15.2	48.7	26.7	7.9	34.6	48.7	16.7	2.76	0.9

〈표 15-1〉 교사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 초·중·고 전반

구분	응답 비율								χ^2	
	사례수	학습 지도 능력	생활 지도 능력	진로·진학 지도 능력	학급 경영 능력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 능력	기타(교사의 인성 및 자질 등)	계		
전 체	5,000	35.6	29.9	13.4	6.9	13.7	0.5	100.0	-	
성별	남	2,531	35.8	30.3	14.3	6.2	12.9	0.5	100.0	15.076 (df=8)
	여	2,469	35.5	29.4	12.4	7.6	14.5	0.6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33.4	30.8	16.7	5.4	12.8	0.8	100.0	40.212* (df=24)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38.4	28.6	12.6	6.6	13.3	0.5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35.3	30.2	12.0	7.5	14.5	0.5	100.0	
	읍·면(군)지역	324	33.3	29.9	16.0	7.7	12.7	0.3	100.0	
연령	19~29세	929	26.5	35.7	21.0	6.5	10.3	0.0	100.0	153.041*** (df=32)
	30대	870	33.9	29.5	15.6	6.7	13.3	0.9	100.0	
	40대	1,046	39.0	25.8	10.9	6.8	17.0	0.5	100.0	
	50대	1,084	40.3	29.4	9.6	7.4	12.5	0.7	100.0	
	60~74세	1,071	37.0	29.4	11.1	7.1	14.8	0.6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38.0	28.3	11.7	7.2	14.5	0.4	100.0	40.491*** (df=8)
	자녀 없음	2,073	32.3	32.1	15.8	6.5	12.6	0.7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40.0	26.0	12.7	7.7	13.3	0.2	100.0	24.863** (df=8)
	기타	3,963	34.5	30.9	13.5	6.7	13.8	0.6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36.9	27.0	12.7	8.2	14.8	0.4	100.0	15.954* (df=8)
	기타	4,474	35.5	30.2	13.4	6.8	13.6	0.6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41.8	23.7	12.6	8.2	13.7	0.0	100.0	11.649 (df=8)
	기타	4,658	35.2	30.3	13.4	6.8	13.7	0.6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40.9	25.9	13.1	7.9	12.1	0.0	100.0	10.147 (df=8)
	기타	4,572	35.1	30.2	13.4	6.8	13.8	0.6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38.3	28.4	11.0	7.2	14.7	0.4	100.0	5.969 (df=8)
	기타	4,434	35.3	30.0	13.7	6.9	13.6	0.6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24.0	35.6	17.3	8.7	13.5	1.0	100.0	37.062* (df=24)
	고졸	886	32.6	31.9	13.7	7.1	14.2	0.5	100.0	
	전문대/대졸	3,545	35.9	29.5	13.6	6.8	13.7	0.5	100.0	
	대학원졸	465	42.2	27.1	9.9	7.1	12.5	1.3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35.7	31.8	12.0	4.3	15.7	0.4	100.0	29.685 (df=24)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33.8	29.4	13.8	8.4	14.0	0.7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34.9	30.4	13.3	7.1	13.9	0.4	100.0	
	600만원 이상	1,340	38.7	29.2	13.4	5.8	12.4	0.5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37.5	28.3	14.2	7.7	11.9	0.3	100.0	83.708 (df=8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35.5	29.9	14.1	5.6	14.1	0.8	100.0	
	사무 종사자	1,214	34.6	30.7	14.0	6.8	13.3	0.7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28.9	32.6	13.7	7.4	16.8	0.5	100.0	
	판매 종사자	210	36.2	32.9	11.9	4.8	13.8	0.5	100.0	
	농림어업 속련 종사자	32	31.3	43.8	6.3	12.5	6.3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35.8	28.5	15.8	6.7	13.3	0.0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28.4	28.4	25.5	5.9	11.8	0.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37.7	34.7	15.6	3.5	8.5	0.0	100.0	
	군인	13	7.7	30.8	30.8	15.4	15.4	0.0	100.0	
	기타	1,325	37.3	28.1	10.5	8.2	15.3	0.6	100.0	

〈표 15-2〉 교사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 초등학교

구분	사례수	응답 비율						계	χ^2	
		학습 지도 능력	생활 지도 능력	진로·진학 지도 능력	학급 경영 능력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 능력	기타(교사의 인성 및 자질 등)			
전 체	5,000	14.6	50.5	8.1	8.5	17.9	0.5	100.0	-	
성별	남	2,531	15.4	48.9	8.8	8.4	18.1	0.5	100.0	14.792 (df=9)
	여	2,469	13.7	52.0	7.4	8.6	17.7	0.5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13.4	48.6	9.4	11.5	16.3	0.7	100.0	54.653** (df=27)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15.0	49.5	9.5	8.8	16.9	0.4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14.3	52.1	6.9	7.4	18.9	0.5	100.0	
	읍·면(군)지역	324	17.9	48.1	7.4	6.8	19.1	0.6	100.0	
연령	19~29세	929	10.2	50.6	12.1	13.9	13.2	0.0	100.0	146.227*** (df=36)
	30대	870	14.1	46.6	10.6	9.7	18.2	0.9	100.0	
	40대	1,046	15.3	50.8	7.0	6.0	20.4	0.6	100.0	
	50대	1,084	17.0	52.0	6.2	6.6	17.7	0.5	100.0	
	60~74세	1,071	15.5	51.6	5.7	7.3	19.3	0.6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15.6	50.9	7.1	7.4	18.7	0.3	100.0	31.287*** (df=9)
	자녀 없음	2,073	13.1	49.9	9.6	10.0	16.7	0.7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16.2	49.5	7.9	7.2	19.1	0.1	100.0	13.453 (df=9)
	기타	3,963	14.1	50.7	8.2	8.9	17.5	0.6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15.2	48.3	8.7	7.4	20.2	0.2	100.0	9.610 (df=9)
	기타	4,474	14.5	50.7	8.0	8.6	17.6	0.5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14.6	49.4	5.8	8.2	21.9	0.0	100.0	7.667 (df=9)
	기타	4,658	14.6	50.5	8.3	8.5	17.6	0.5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16.4	52.8	7.5	5.8	17.5	0.0	100.0	8.083 (df=9)
	기타	4,572	14.4	50.2	8.2	8.8	17.9	0.5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17.8	52.3	7.1	3.9	18.6	0.4	100.0	23.418** (df=9)
	기타	4,434	14.1	50.2	8.2	9.1	17.8	0.5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13.5	43.3	9.6	11.5	21.2	1.0	100.0	25.732 (df=27)
	고졸	886	15.6	48.6	8.8	9.4	17.2	0.5	100.0	
	전문대/대졸	3,545	14.6	50.3	8.2	8.4	18.0	0.5	100.0	
	대학원졸	465	12.7	56.6	5.4	7.1	17.4	0.9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15.7	50.5	8.0	7.7	17.8	0.2	100.0	30.324 (df=27)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14.2	49.8	9.2	8.7	17.4	0.7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13.6	50.0	7.9	9.2	19.0	0.4	100.0	
	600만원 이상	1,340	15.7	51.8	7.0	7.8	17.1	0.5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15.8	47.5	8.4	7.6	20.5	0.3	100.0	101.907 (df=9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12.6	50.6	7.5	10.1	18.5	0.6	100.0	
	사무 종사자	1,214	14.3	49.8	8.4	9.1	18.0	0.5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16.8	46.3	6.3	11.1	18.9	0.5	100.0	
	판매 종사자	210	16.7	46.2	12.4	6.7	17.6	0.5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21.9	46.9	6.3	9.4	15.6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16.4	43.0	13.9	6.1	20.6	0.0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13.7	45.1	15.7	10.8	14.7	0.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21.1	45.2	11.1	11.6	11.1	0.0	100.0	
	군인	13	7.7	46.2	15.4	15.4	15.4	0.0	100.0	
	기타	1,325	13.7	55.9	5.9	6.9	17.0	0.7	100.0	

〈표 15-3〉 교사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 중학교

구분	응답 비율								χ^2	
	사례수	학습 지도 능력	생활 지도 능력	진로·진학 지도 능력	학급 경영 능력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 능력	기타(교사의 인성 및 자질 등)	계		
전 체	5,000	37.0	24.1	17.2	13.2	8.1	0.5	100.0	-	
성별	남	2,531	35.5	26.3	16.1	13.6	8.1	0.4	100.0	21.633** (df=8)
	여	2,469	38.6	21.7	18.3	12.9	8.0	0.5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35.9	23.8	17.6	13.6	8.6	0.5	100.0	10.885 (df=24)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36.5	24.3	17.9	13.6	7.4	0.4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37.7	24.4	16.5	12.6	8.2	0.5	100.0	
	읍·면(군)지역	324	37.3	21.3	17.6	15.4	8.0	0.3	100.0	
연령	19~29세	929	29.0	23.9	22.6	15.7	8.8	0.0	100.0	127.328*** (df=32)
	30대	870	32.1	22.9	21.0	14.4	8.9	0.8	100.0	
	40대	1,046	43.9	20.6	13.6	12.0	9.6	0.4	100.0	
	50대	1,084	39.9	25.1	16.1	12.2	6.1	0.6	100.0	
	60~74세	1,071	38.4	27.5	13.8	12.4	7.3	0.6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40.3	24.1	15.4	12.8	7.1	0.3	100.0	47.508*** (df=8)
	자녀 없음	2,073	32.4	24.0	19.6	13.9	9.5	0.7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41.8	22.1	16.0	13.1	6.9	0.1	100.0	22.681** (df=8)
	기타	3,963	35.8	24.6	17.5	13.3	8.4	0.6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42.8	21.1	14.3	14.6	7.0	0.2	100.0	23.009** (df=8)
	기타	4,474	36.3	24.4	17.5	13.1	8.2	0.5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42.4	20.5	17.5	12.6	7.0	0.0	100.0	7.175 (df=8)
	기타	4,658	36.6	24.3	17.1	13.3	8.1	0.5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38.6	23.4	18.7	12.1	7.2	0.0	100.0	3.992 (df=8)
	기타	4,572	36.9	24.1	17.0	13.3	8.1	0.5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43.6	24.7	15.0	10.1	6.4	0.2	100.0	17.857* (df=8)
	기타	4,434	36.2	24.0	17.4	13.6	8.3	0.5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43.3	24.0	13.5	10.6	7.7	1.0	100.0	27.760 (df=24)
	고졸	886	34.0	23.5	18.3	14.9	8.9	0.5	100.0	
	전문대/대졸	3,545	37.0	24.5	17.0	13.1	8.0	0.4	100.0	
	대학원졸	465	41.7	21.9	16.8	11.8	6.7	1.1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35.5	29.0	16.8	9.5	9.0	0.2	100.0	46.503** (df=24)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34.3	22.5	18.7	14.3	9.6	0.6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37.7	23.9	16.3	13.6	8.1	0.4	100.0	
	600만원 이상	1,340	40.1	24.4	16.5	12.8	5.7	0.4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36.9	23.2	16.4	14.3	8.9	0.3	100.0	65.025 (df=8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36.8	25.1	15.9	13.7	7.9	0.6	100.0	
	사무 종사자	1,214	35.9	23.7	18.9	13.8	7.3	0.4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30.5	29.5	16.8	12.1	10.5	0.5	100.0	
	판매 종사자	210	36.2	26.2	20.0	8.6	8.6	0.5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31.3	34.4	18.8	9.4	6.3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26.7	27.9	20.6	15.8	9.1	0.0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37.3	21.6	13.7	18.6	8.8	0.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34.2	22.1	18.6	18.1	7.0	0.0	100.0	
	군인	13	46.2	7.7	23.1	15.4	7.7	0.0	100.0	
	기타	1,325	41.1	22.9	15.9	11.5	8.1	0.6	100.0	

〈표 15-4〉 교사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 고등학교

구분	사례수	응답 비율						계	χ ²	
		학습 지도 능력	생활 지도 능력	진로·진학 지도 능력	학급 경영 능력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 능력	기타(교사의 인성 및 자질 등)			
전 체	5,000	23.8	8.1	49.8	9.5	8.2	0.5	100.0	-	
성별	남	2,531	24.9	9.2	47.2	9.7	8.6	0.4	100.0	21.643** (df=8)
	여	2,469	22.7	7.0	52.6	9.3	7.9	0.5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23.0	7.8	48.6	11.6	8.5	0.5	100.0	15.661 (df=24)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23.2	8.8	49.4	9.5	8.6	0.4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24.8	7.9	50.4	8.8	7.8	0.5	100.0	
	읍·면(군)지역	324	22.5	8.0	51.5	8.3	9.3	0.3	100.0	
연령	19~29세	929	22.1	8.7	48.0	11.2	10.0	0.0	100.0	69.666*** (df=32)
	30대	870	23.0	10.2	45.3	10.5	10.2	0.8	100.0	
	40대	1,046	26.8	7.0	48.4	9.1	8.4	0.4	100.0	
	50대	1,084	23.2	7.9	51.3	9.7	7.4	0.6	100.0	
	60~74세	1,071	23.9	7.2	55.1	7.5	5.8	0.6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24.6	7.6	51.0	9.2	7.4	0.3	100.0	18.438* (df=8)
	자녀 없음	2,073	22.8	8.9	48.2	10.0	9.4	0.7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27.3	7.3	47.2	10.1	8.0	0.1	100.0	19.639* (df=8)
	기타	3,963	22.9	8.3	50.5	9.3	8.3	0.6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26.8	7.8	45.8	11.6	7.8	0.2	100.0	18.109* (df=8)
	기타	4,474	23.5	8.2	50.3	9.3	8.3	0.5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28.4	5.0	49.1	9.4	8.2	0.0	100.0	9.369 (df=8)
	기타	4,658	23.5	8.4	49.9	9.5	8.2	0.5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24.8	7.7	49.3	10.3	7.9	0.0	100.0	2.796 (df=8)
	기타	4,572	23.8	8.2	49.9	9.4	8.3	0.5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25.3	6.9	53.0	8.7	6.0	0.2	100.0	8.698 (df=8)
	기타	4,434	23.7	8.3	49.4	9.6	8.5	0.5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30.8	6.7	44.2	11.5	5.8	1.0	100.0	52.513** (df=24)
	고졸	886	17.8	9.8	51.9	11.1	8.9	0.5	100.0	
	전문대/대졸	3,545	24.3	7.8	49.9	9.3	8.4	0.4	100.0	
	대학원졸	465	30.5	7.7	46.7	7.5	6.5	1.1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26.2	8.6	44.9	9.7	10.3	0.2	100.0	36.910* (df=24)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22.0	8.1	51.3	10.0	8.0	0.6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23.3	7.4	49.2	10.7	9.1	0.4	100.0	
	600만원 이상	1,340	26.0	8.9	50.5	7.4	6.8	0.4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21.7	6.6	50.4	11.8	9.2	0.3	100.0	85.183 (df=8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27.0	8.6	48.0	7.8	8.0	0.6	100.0	
	사무 종사자	1,214	22.2	8.2	49.4	10.9	8.8	0.4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19.5	8.9	50.5	10.5	10.0	0.5	100.0	
	판매 종사자	210	22.9	12.4	47.6	8.6	8.1	0.5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21.9	9.4	40.6	21.9	6.3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21.8	9.1	47.3	12.7	9.1	0.0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19.6	12.7	52.0	6.9	8.8	0.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22.1	6.5	45.2	13.6	12.6	0.0	100.0	
	군인	13	23.1	15.4	61.5	0.0	0.0	0.0	100.0	
	기타	1,325	25.7	7.2	52.5	7.4	6.6	0.6	100.0	

〈표 16-1〉 교사자격증이 없는 초빙교사에 대한 찬반의견: 초·중·고 전반

구분		응답 비율				계	χ^2
		사례수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전 체		5,000	52.1	30.8	17.0	100.0	-
성별	남	2,531	56.2	29.6	14.2	100.0	43.164*** (df=2)
	여	2,469	47.9	32.2	19.9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53.2	31.1	15.7	100.0	8.819 (df=6)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51.8	30.2	18.0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51.5	30.8	17.7	100.0	
	읍·면(군)지역	324	54.9	33.0	12.0	100.0	
연령	19~29세	929	44.7	34.9	20.5	100.0	35.706*** (df=8)
	30대	870	50.6	31.7	17.7	100.0	
	40대	1,046	54.2	30.4	15.4	100.0	
	50대	1,084	56.4	29.2	14.5	100.0	
	60~74세	1,071	53.5	28.8	17.7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53.6	31.0	15.4	100.0	13.955** (df=2)
	자녀 없음	2,073	50.1	30.6	19.3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54.9	31.7	13.4	100.0	12.382** (df=2)
	기타	3,963	51.4	30.6	18.0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56.5	32.3	11.2	100.0	14.244** (df=2)
	기타	4,474	51.6	30.7	17.7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53.5	30.7	15.8	100.0	0.475 (df=2)
	기타	4,658	52.0	30.9	17.1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52.1	31.5	16.4	100.0	0.204 (df=2)
	기타	4,572	52.1	30.8	17.1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54.6	30.9	14.5	100.0	3.191 (df=2)
	기타	4,434	51.8	30.8	17.4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42.3	28.8	28.8	100.0	21.533** (df=6)
	고졸	886	48.9	31.5	19.6	100.0	
	전문대/대졸	3,545	52.8	30.6	16.5	100.0	
	대학원졸	465	55.1	31.6	13.3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46.5	28.0	25.6	100.0	32.846*** (df=6)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52.4	29.8	17.9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52.4	32.1	15.5	100.0	
	600만원 이상	1,340	53.5	31.6	14.9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61.5	28.8	9.7	100.0	84.999*** (df=2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54.5	32.4	13.1	100.0	
	사무 종사자	1,214	50.7	31.1	18.3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58.4	29.5	12.1	100.0	
	판매 종사자	210	53.8	28.6	17.6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50.0	31.3	18.8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46.1	35.8	18.2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52.9	32.4	14.7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49.2	25.6	25.1	100.0	
	군인	13	23.1	53.8	23.1	100.0	
	기타	1,325	47.7	30.9	21.4	100.0	

〈표 16-2〉 교사자격증이 없는 초빙교사에 대한 찬반의견: 초등학교

구분	응답 비율					χ^2	
	사례수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계		
전 체	5,000	53.6	33.6	12.8	100.0	-	
성별	남	2,531	54.7	33.4	11.9	100.0	4.545 (df=2)
	여	2,469	52.5	33.7	13.8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54.1	33.3	12.6	100.0	6.976 (df=6)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52.9	33.4	13.7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53.5	33.5	13.0	100.0	
	읍·면(군)지역	324	56.5	35.2	8.3	100.0	
연령	19~29세	929	44.7	39.1	16.3	100.0	61.204*** (df=8)
	30대	870	49.5	37.1	13.3	100.0	
	40대	1,046	56.8	31.6	11.6	100.0	
	50대	1,084	58.6	31.5	10.0	100.0	
	60~74세	1,071	56.6	29.9	13.5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55.6	32.9	11.4	100.0	16.498*** (df=2)
	자녀 없음	2,073	50.8	34.4	14.8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56.2	33.8	9.9	100.0	10.191** (df=2)
	기타	3,963	52.9	33.5	13.6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57.4	34.8	7.8	100.0	13.424** (df=2)
	기타	4,474	53.2	33.4	13.4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55.6	33.0	11.4	100.0	0.861 (df=2)
	기타	4,658	53.5	33.6	12.9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54.0	33.9	12.1	100.0	0.189 (df=2)
	기타	4,572	53.6	33.5	12.9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58.5	33.2	8.3	100.0	12.989** (df=2)
	기타	4,434	53.0	33.6	13.4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45.2	25.0	29.8	100.0	38.737*** (df=6)
	고졸	886	51.1	33.9	15.0	100.0	
	전문대/대졸	3,545	54.3	33.4	12.3	100.0	
	대학원졸	465	55.1	35.9	9.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49.2	31.2	19.6	100.0	30.245*** (df=6)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54.2	32.3	13.5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54.5	33.3	12.2	100.0	
	600만원 이상	1,340	53.4	36.2	10.4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59.9	33.0	7.1	100.0	75.659*** (df=2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54.0	36.3	9.7	100.0	
	사무 종사자	1,214	51.9	34.2	13.9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58.4	31.6	10.0	100.0	
	판매 종사자	210	56.2	30.0	13.8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53.1	28.1	18.8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47.3	35.8	17.0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57.8	34.3	7.8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47.2	30.2	22.6	100.0	
	군인	13	15.4	46.2	38.5	100.0	
	기타	1,325	52.7	32.4	14.9	100.0	

〈표 16-3〉 교사자격증이 없는 초빙교사에 대한 찬반의견: 중학교

구분		응답 비율				계	χ^2
		사례수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전 체		5,000	49.1	35.5	15.4	100.0	-
성별	남	2,531	52.6	33.8	13.6	100.0	27.413*** (df=2)
	여	2,469	45.6	37.2	17.3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49.4	35.5	15.1	100.0	5.966 (df=6)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49.1	34.3	16.6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48.4	36.3	15.3	100.0	
	읍·면(군)지역	324	53.4	34.3	12.3	100.0	
연령	19~29세	929	41.6	38.6	19.8	100.0	38.094*** (df=8)
	30대	870	48.3	35.6	16.1	100.0	
	40대	1,046	50.6	35.1	14.3	100.0	
	50대	1,084	53.7	33.5	12.8	100.0	
	60~74세	1,071	50.3	35.0	14.7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50.4	36.1	13.5	100.0	20.450*** (df=2)
	자녀 없음	2,073	47.3	34.5	18.1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52.2	36.4	11.5	100.0	15.845*** (df=2)
	기타	3,963	48.3	35.3	16.4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53.4	37.1	9.5	100.0	15.897*** (df=2)
	기타	4,474	48.6	35.3	16.1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52.6	34.8	12.6	100.0	2.875 (df=2)
	기타	4,658	48.9	35.5	15.6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49.1	37.6	13.3	100.0	1.920 (df=2)
	기타	4,572	49.1	35.3	15.6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52.3	36.9	10.8	100.0	10.544** (df=2)
	기타	4,434	48.7	35.3	16.0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38.5	33.7	27.9	100.0	36.276*** (df=6)
	고졸	886	44.0	36.9	19.1	100.0	
	전문대/대졸	3,545	50.1	35.1	14.7	100.0	
	대학원졸	465	53.5	35.7	10.8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43.9	34.0	22.2	100.0	30.547*** (df=6)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48.0	34.8	17.2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50.8	35.9	13.3	100.0	
	600만원 이상	1,340	50.4	36.3	13.3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57.6	31.9	10.5	100.0	62.641*** (df=2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51.0	35.6	13.3	100.0	
	사무 종사자	1,214	47.6	37.1	15.2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54.2	33.7	12.1	100.0	
	판매 종사자	210	52.4	31.4	16.2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50.0	31.3	18.8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40.6	40.0	19.4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50.0	38.2	11.8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39.7	34.7	25.6	100.0	
	군인	13	38.5	30.8	30.8	100.0	
기타	1,325	46.4	35.9	17.7	100.0		

〈표 16-4〉 교사자격증이 없는 초빙교사에 대한 찬반의견: 고등학교

구분		응답 비율					χ^2
		사례수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계	
전 체		5,000	48.4	37.1	14.6	100.0	-
성별	남	2,531	52.7	35.0	12.2	100.0	45.150*** (df=2)
	여	2,469	43.9	39.2	16.9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48.9	37.0	14.2	100.0	2.226 (df=6)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48.9	36.0	15.0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47.7	37.6	14.7	100.0	
	읍·면(군)지역	324	49.4	38.0	12.7	100.0	
연령	19~29세	929	43.1	40.2	16.8	100.0	17.455* (df=8)
	30대	870	49.7	35.9	14.5	100.0	
	40대	1,046	49.8	35.4	14.8	100.0	
	50대	1,084	50.4	37.3	12.4	100.0	
	60~74세	1,071	48.5	36.9	14.7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48.9	37.9	13.3	100.0	9.850** (df=2)
	자녀 없음	2,073	47.7	35.9	16.4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51.2	36.8	12.0	100.0	8.297* (df=2)
	기타	3,963	47.6	37.1	15.2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54.2	34.2	11.6	100.0	8.962* (df=2)
	기타	4,474	47.7	37.4	14.9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50.3	37.7	12.0	100.0	1.991 (df=2)
	기타	4,658	48.2	37.0	14.7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47.7	41.4	11.0	100.0	6.471* (df=2)
	기타	4,572	48.4	36.7	14.9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48.6	39.9	11.5	100.0	5.552 (df=2)
	기타	4,434	48.3	36.7	15.0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42.3	29.8	27.9	100.0	41.186*** (df=6)
	고졸	886	44.8	37.9	17.3	100.0	
	전문대/대졸	3,545	48.5	37.2	14.4	100.0	
	대학원졸	465	55.7	36.3	8.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44.9	35.5	19.6	100.0	22.855** (df=6)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47.8	35.7	16.5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49.6	37.7	12.8	100.0	
	600만원 이상	1,340	48.8	38.6	12.6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55.2	34.3	10.5	100.0	58.820*** (df=2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50.7	37.6	11.7	100.0	
	사무 종사자	1,214	46.9	37.9	15.2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55.3	32.1	12.6	100.0	
	판매 종사자	210	49.0	35.7	15.2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50.0	28.1	21.9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41.8	40.0	18.2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49.0	38.2	12.7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42.2	32.2	25.6	100.0	
	군인	13	23.1	61.5	15.4	100.0	
기타	1,325	45.7	38.5	15.8	100.0		

〈표 17〉 자녀의 선생님 진로에 대한 의견

구분	응답 비율					χ^2	
	사례수	긍정적으로 본다	부정적으로 본다	잘 모르겠다	계		
전 체	5,000	60.4	17.7	21.9	100.0	-	
성별	남	2,531	62.4	17.8	19.8	100.0	13.746** (df=2)
	여	2,469	58.3	17.7	24.0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56.4	20.6	23.0	100.0	14.442* (df=6)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60.2	17.8	22.0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61.3	16.9	21.9	100.0	
	읍·면(군)지역	324	66.7	15.1	18.2	100.0	
연령	19~29세	929	52.5	22.5	25.0	100.0	88.277*** (df=8)
	30대	870	52.9	22.8	24.4	100.0	
	40대	1,046	60.8	16.3	22.9	100.0	
	50대	1,084	67.4	14.9	17.6	100.0	
	60~74세	1,071	65.7	13.8	20.4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64.5	16.1	19.4	100.0	51.325*** (df=2)
	자녀 없음	2,073	54.5	20.1	25.4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64.0	15.8	20.2	100.0	7.402* (df=2)
	기타	3,963	59.4	18.2	22.3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62.2	17.7	20.2	100.0	1.114 (df=2)
	기타	4,474	60.2	17.7	22.1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68.4	12.6	19.0	100.0	10.842** (df=2)
	기타	4,658	59.8	18.1	22.1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66.8	12.9	20.3	100.0	10.041** (df=2)
	기타	4,572	59.8	18.2	22.0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68.2	13.8	18.0	100.0	16.444*** (df=2)
	기타	4,434	59.4	18.2	22.4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43.3	14.4	42.3	100.0	35.205*** (df=6)
	고졸	886	61.6	17.0	21.3	100.0	
	전문대/대졸	3,545	60.8	17.4	21.9	100.0	
	대학원졸	465	58.9	22.6	18.5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53.8	17.8	28.4	100.0	20.917** (df=6)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60.9	16.3	22.8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60.4	19.4	20.3	100.0	
	600만원 이상	1,340	62.0	17.5	20.4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66.8	17.4	15.8	100.0	59.686*** (df=2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58.7	21.1	20.2	100.0	
	사무 종사자	1,214	60.2	17.8	22.0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62.1	20.0	17.9	100.0	
	판매 종사자	210	64.8	16.2	19.0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65.6	12.5	21.9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55.2	17.6	27.3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64.7	18.6	16.7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47.7	22.1	30.2	100.0	
	군인	13	46.2	15.4	38.5	100.0	
기타	1,325	60.0	14.9	25.1	100.0		

〈표 18〉 현재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정도

구분	응답 비율											F	
	사례수	매우 심각 하다	심각 하다	보통 이다	심각 하지 않다	전혀 심각 하지 않다	종합결과			평균 (5점)	표준 편차		
							심각 하지 않음	보통	심각함				
전 체	5,000	11.4	39.5	40.1	8.1	0.9	9.0	40.1	50.9	3.52	0.8	-	
성별	남	2,531	12.9	40.1	37.6	8.5	1.0	9.4	37.6	53.0	3.55	0.9	6.701* (df=1)
	여	2,469	9.9	38.9	42.7	7.7	0.9	8.5	42.7	48.8	3.49	0.8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10.0	39.3	41.1	8.3	1.3	9.7	41.1	49.3	3.48	0.8	1.073 (df=3)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12.4	38.0	40.8	7.8	1.0	8.9	40.8	50.3	3.53	0.8	
	중소도시(시 지역)	2,359	11.3	40.9	38.8	8.3	0.7	9.0	38.8	52.2	3.54	0.8	
	읍·면(군)지역	324	13.3	35.5	43.8	6.8	0.6	7.4	43.8	48.8	3.54	0.8	
연령	19~29세	929	13.1	37.1	38.9	9.9	1.0	10.9	38.9	50.3	3.52	0.9	3.043* (df=4)
	30대	870	13.1	35.7	41.3	8.9	1.0	9.9	41.3	48.9	3.51	0.9	
	40대	1,046	9.7	37.5	43.5	8.2	1.1	9.4	43.5	47.1	3.46	0.8	
	50대	1,084	10.1	42.7	39.1	7.6	0.5	8.0	39.1	52.9	3.55	0.8	
	60~74세	1,071	11.7	43.2	37.9	6.2	1.0	7.2	37.9	54.9	3.58	0.8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9.8	39.4	40.9	8.8	1.1	9.9	40.9	49.2	3.48	0.8	19.050*** (df=1)
	자녀 없음	2,073	13.7	39.6	39.0	7.0	0.7	7.7	39.0	53.3	3.59	0.8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7.8	34.2	44.7	11.9	1.4	13.2	44.7	42.0	3.35	0.8	56.105*** (df=1)
	기타	3,963	12.4	40.9	38.9	7.1	0.8	7.9	38.9	53.2	3.57	0.8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7.2	34.0	45.8	11.4	1.5	12.9	45.8	41.3	3.34	0.8	28.899*** (df=1)
	기타	4,474	11.9	40.1	39.4	7.7	0.8	8.5	39.4	52.1	3.55	0.8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9.1	33.0	45.6	11.4	0.9	12.3	45.6	42.1	3.38	0.8	11.053** (df=1)
	기타	4,658	11.6	40.0	39.7	7.8	0.9	8.7	39.7	51.6	3.54	0.8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7.9	34.6	44.9	11.9	0.7	12.6	44.9	42.5	3.37	0.8	15.840*** (df=1)
	기타	4,572	11.8	39.9	39.7	7.7	0.9	8.6	39.7	51.7	3.54	0.8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9.5	43.3	37.8	8.1	1.2	9.4	37.8	52.8	3.52	0.8	0.044 (df=1)
	기타	4,434	11.7	39.0	40.4	8.1	0.9	8.9	40.4	50.7	3.53	0.8	
학력	중졸 이하	104	11.5	27.9	48.1	11.5	1.0	12.5	48.1	39.4	3.38	0.9	9.021*** (df=3)
	고졸	886	9.5	35.7	46.2	7.8	0.9	8.7	46.2	45.1	3.45	0.8	
	전문대/대졸	3,545	11.5	39.7	39.6	8.3	0.8	9.2	39.6	51.2	3.53	0.8	
	대학원졸	465	14.6	47.5	30.8	5.6	1.5	7.1	30.8	62.2	3.68	0.8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10.8	38.1	42.2	7.1	1.9	9.0	42.2	48.8	3.49	0.9	2.638* (df=3)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10.9	37.4	43.9	7.0	0.9	7.8	43.9	48.3	3.51	0.8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10.8	39.9	39.4	9.2	0.6	9.9	39.4	50.7	3.51	0.8	
	600만원 이상	1,340	13.1	42.0	35.6	8.4	1.0	9.3	35.6	55.1	3.58	0.9	
직업군	관리자	621	8.9	39.0	40.9	10.5	0.8	11.3	40.9	47.8	3.45	0.8	2.035* (df=1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13.1	40.9	36.6	8.4	1.0	9.4	36.6	54.0	3.57	0.9	
	사무 종사자	1,214	12.4	40.5	39.1	6.9	1.1	8.0	39.1	52.9	3.56	0.8	
	서비스 종사자	190	14.2	36.8	40.5	7.4	1.1	8.4	40.5	51.1	3.56	0.9	
	판매 종사자	210	12.9	43.3	36.2	7.1	0.5	7.6	36.2	56.2	3.61	0.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12.5	50.0	34.4	3.1	0.0	3.1	34.4	62.5	3.72	0.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8.5	44.2	39.4	7.9	0.0	7.9	39.4	52.7	3.53	0.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14.7	37.3	33.3	12.7	2.0	14.7	33.3	52.0	3.50	1.0	
	단순노무 종사자	199	12.1	27.6	51.8	7.5	1.0	8.5	51.8	39.7	3.42	0.8	
	군인	13	7.7	46.2	23.1	23.1	0.0	23.1	23.1	53.8	3.38	1.0	
	기타	1,325	10.0	38.6	42.8	7.7	0.9	8.6	42.8	48.6	3.49	0.8	

〈표 19〉 학업 성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분	응답 비율									χ^2	
	사례수	학생의 타고난 능력	학생의 노력과 열의	교사의 지도	학교나 학급의 학습 분위기	가정의 학습 환경	가정의 경제적 뒷받침	기타 (교육 정책 변화 등)	계		
전 체	5,000	6.6	36.5	13.2	23.1	11.3	9.3	0.1	100.0	-	
성별	남	2,531	7.0	36.7	13.4	22.6	10.9	9.2	0.1	100.0	2.974 (df=7)
	여	2,469	6.2	36.2	13.0	23.6	11.6	9.3	0.1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8.1	36.4	14.7	22.3	10.7	7.7	0.1	100.0	33.660* (df=21)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5.8	38.5	14.1	21.9	10.3	9.3	0.1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6.3	35.2	12.2	23.9	11.8	10.5	0.1	100.0	
	읍·면(군)지역	324	7.4	37.3	13.0	25.0	12.7	4.6	0.0	100.0	
연령	19~29세	929	6.6	32.4	14.2	22.1	14.5	10.0	0.2	100.0	58.916** (df=28)
	30대	870	7.7	34.3	14.9	24.9	10.7	7.4	0.1	100.0	
	40대	1,046	5.9	39.8	12.2	22.8	9.0	10.3	0.0	100.0	
	50대	1,084	6.6	39.0	10.9	23.7	9.8	9.9	0.1	100.0	
	60~74세	1,071	6.3	35.9	14.3	22.3	12.6	8.5	0.1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6.2	38.5	13.9	23.0	9.2	9.1	0.1	100.0	42.064*** (df=7)
	자녀 없음	2,073	7.1	33.5	12.2	23.3	14.1	9.6	0.1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5.6	40.5	14.9	22.3	7.4	9.3	0.0	100.0	29.548*** (df=7)
	기타	3,963	6.8	35.4	12.8	23.3	12.3	9.3	0.1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6.3	41.6	16.0	19.4	9.1	7.6	0.0	100.0	16.004* (df=7)
	기타	4,474	6.6	35.9	12.9	23.6	11.5	9.5	0.1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6.4	41.8	9.4	25.1	7.0	10.2	0.0	100.0	14.305* (df=7)
	기타	4,658	6.6	36.1	13.5	23.0	11.6	9.2	0.1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5.4	40.4	13.8	24.5	5.8	10.0	0.0	100.0	16.553* (df=7)
	기타	4,572	6.7	36.1	13.2	23.0	11.8	9.2	0.1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5.1	41.2	10.6	25.1	6.9	11.1	0.0	100.0	24.189** (df=7)
	기타	4,434	6.8	35.9	13.6	22.9	11.8	9.0	0.1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1.0	25.0	14.4	24.0	18.3	17.3	0.0	100.0	52.164*** (df=21)
	고졸	886	6.7	32.5	15.2	23.5	12.3	9.7	0.1	100.0	
	전문대/대졸	3,545	6.3	37.5	12.6	23.9	10.7	8.9	0.1	100.0	
	대학원졸	465	9.5	38.7	14.0	16.6	11.6	9.5	0.2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8.8	29.0	11.0	24.1	14.2	12.9	0.0	100.0	51.803*** (df=21)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5.3	35.5	15.2	23.4	11.9	8.7	0.2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6.4	37.1	13.8	23.6	10.5	8.5	0.1	100.0	
	600만원 이상	1,340	7.6	39.5	11.0	21.9	10.4	9.6	0.1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5.3	37.7	15.6	24.8	8.7	7.9	0.0	100.0	72.300 (df=7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7.6	36.6	12.1	21.7	12.2	9.7	0.1	100.0	
	사무 종사자	1,214	6.4	37.1	12.8	23.8	10.6	9.3	0.0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6.3	32.6	13.7	24.7	12.6	9.5	0.5	100.0	
	판매 종사자	210	4.3	41.4	15.2	17.6	9.0	12.4	0.0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6.3	43.8	15.6	21.9	12.5	0.0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7.3	33.9	12.7	27.9	11.5	6.7	0.0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5.9	31.4	19.6	27.5	8.8	6.9	0.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5.5	29.1	13.1	27.6	11.1	13.6	0.0	100.0	
	군인	13	0.0	30.8	7.7	46.2	7.7	7.7	0.0	100.0	
	기타	1,325	7.2	36.7	12.5	21.5	12.8	9.1	0.2	100.0	

〈표 20-1〉 학생의 인성 수준: 초·중·고 전반

구분	응답 비율											F	
	사례수	매우 높다	높다	보통 이다	낮다	매우 낮다	종합결과			평균 (5점)	표준 편차		
							낮음	보통	높음				
전 체	5,000	0.8	12.5	49.2	30.7	6.8	37.5	49.2	13.3	2.70	0.8	-	
성별	남	2,531	0.9	13.4	47.3	31.2	7.2	38.4	47.3	14.3	2.70	0.8	0.021 (df=1)
	여	2,469	0.7	11.5	51.2	30.1	6.4	36.6	51.2	12.3	2.70	0.8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0.7	12.8	47.2	32.8	6.5	39.2	47.2	13.6	2.69	0.8	0.905 (df=3)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0.9	13.5	48.3	30.5	6.8	37.3	48.3	14.4	2.71	0.8	
	중소도시(시 지역)	2,359	0.8	11.4	50.4	30.1	7.1	37.3	50.4	12.3	2.69	0.8	
	읍·면(군)지역	324	0.6	14.8	50.0	28.7	5.9	34.6	50.0	15.4	2.76	0.8	
연령	19~29세	929	1.1	14.1	43.5	32.3	9.0	41.3	43.5	15.2	2.66	0.9	1.059 (df=4)
	30대	870	0.9	14.6	48.5	27.2	8.7	36.0	48.5	15.5	2.72	0.9	
	40대	1,046	0.9	11.1	53.5	28.9	5.6	34.5	53.5	12.0	2.73	0.8	
	50대	1,084	0.6	11.8	49.5	32.0	6.1	38.1	49.5	12.4	2.69	0.8	
	60~74세	1,071	0.7	11.4	50.2	32.4	5.2	37.6	50.2	12.1	2.70	0.8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0.9	12.7	51.5	29.7	5.2	34.9	51.5	13.6	2.74	0.8	23.131*** (df=1)
	자녀 없음	2,073	0.7	12.2	46.1	32.0	9.1	41.1	46.1	12.8	2.63	0.8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1.4	14.1	54.3	25.6	4.7	30.3	54.3	15.4	2.82	0.8	29.104*** (df=1)
	기타	3,963	0.7	12.1	47.9	32.0	7.4	39.4	47.9	12.7	2.67	0.8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2.1	16.5	52.5	23.6	5.3	28.9	52.5	18.6	2.87	0.8	25.445*** (df=1)
	기타	4,474	0.7	12.0	48.8	31.5	7.0	38.5	48.8	12.7	2.68	0.8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0.3	15.8	56.7	23.7	3.5	27.2	56.7	16.1	2.86	0.7	14.318*** (df=1)
	기타	4,658	0.9	12.2	48.7	31.2	7.1	38.2	48.7	13.1	2.69	0.8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0.9	11.7	56.8	27.1	3.5	30.6	56.8	12.6	2.79	0.7	6.712* (df=1)
	기타	4,572	0.8	12.6	48.5	31.0	7.1	38.1	48.5	13.4	2.69	0.8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0.5	10.2	50.5	34.3	4.4	38.7	50.5	10.8	2.68	0.7	0.260 (df=1)
	기타	4,434	0.9	12.8	49.1	30.2	7.1	37.3	49.1	13.6	2.70	0.8	
학력	중졸 이하	104	0.0	4.8	55.8	28.8	10.6	39.4	55.8	4.8	2.55	0.7	4.263** (df=3)
	고졸	886	1.0	13.8	51.9	27.1	6.2	33.3	51.9	14.8	2.76	0.8	
	전문대/대졸	3,545	0.8	12.6	48.9	31.0	6.8	37.8	48.9	13.3	2.70	0.8	
	대학원졸	465	1.1	11.2	44.9	35.3	7.5	42.8	44.9	12.3	2.63	0.8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1.1	8.4	47.1	34.0	9.5	43.4	47.1	9.5	2.58	0.8	4.381** (df=3)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0.8	12.2	50.5	29.1	7.4	36.5	50.5	13.0	2.70	0.8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1.0	13.5	49.6	29.6	6.4	36.0	49.6	14.4	2.73	0.8	
	600만원 이상	1,340	0.6	13.1	48.0	32.6	5.7	38.3	48.0	13.7	2.70	0.8	
직업군	관리자	621	1.3	15.6	50.2	28.7	4.2	32.9	50.2	16.9	2.81	0.8	2.736** (df=1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0.8	13.0	46.8	32.1	7.3	39.4	46.8	13.8	2.68	0.8	
	사무 종사자	1,214	0.9	13.0	46.9	32.5	6.8	39.2	46.9	13.9	2.69	0.8	
	서비스 종사자	190	1.1	12.6	50.5	27.4	8.4	35.8	50.5	13.7	2.71	0.8	
	판매 종사자	210	1.0	13.3	41.4	33.8	10.5	44.3	41.4	14.3	2.60	0.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0.0	15.6	59.4	21.9	3.1	25.0	59.4	15.6	2.88	0.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0.6	14.5	50.3	27.9	6.7	34.5	50.3	15.2	2.75	0.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2.0	18.6	49.0	27.5	2.9	30.4	49.0	20.6	2.89	0.8	
	단순노무 종사자	199	0.5	11.1	54.8	23.6	10.1	33.7	54.8	11.6	2.68	0.8	
	군인	13	0.0	0.0	69.2	30.8	0.0	30.8	69.2	0.0	2.69	0.5	
기타	1,325	0.5	9.5	52.2	30.8	6.9	37.7	52.2	10.0	2.66	0.8		

〈표 20-2〉 학생의 인성 수준: 초등학교

구분	응답 비율											F	
	사례수	매우 높다	높다	보통 이다	낮다	매우 낮다	종합결과			평균 (5점)	표준 편차		
							낮음	보통	높음				
전 체	5,000	1.6	18.3	47.8	25.6	6.6	32.3	47.8	19.9	2.83	0.9	-	
성별	남	2,531	2.0	20.0	44.9	25.4	7.7	33.1	44.9	22.0	2.83	0.9	0.239 (df=1)
	여	2,469	1.3	16.5	50.8	25.8	5.6	31.4	50.8	17.8	2.82	0.8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1.4	16.3	49.7	26.0	6.6	32.5	49.7	17.8	2.80	0.8	1.073 (df=3)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1.4	18.6	49.1	24.6	6.3	30.9	49.1	20.0	2.84	0.8	
	중소도시(시 지역)	2,359	1.7	18.4	46.7	26.4	6.8	33.1	46.7	20.1	2.82	0.9	
	읍·면(군)지역	324	2.5	21.9	45.1	23.1	7.4	30.6	45.1	24.4	2.89	0.9	
연령	19~29세	929	1.7	13.3	46.2	27.7	11.1	38.8	46.2	15.1	2.67	0.9	14.155*** (df=4)
	30대	870	1.4	16.1	47.4	26.8	8.4	35.2	47.4	17.5	2.75	0.9	
	40대	1,046	1.6	19.9	50.1	23.4	5.0	28.4	50.1	21.5	2.90	0.8	
	50대	1,084	1.4	21.2	47.9	24.1	5.4	29.5	47.9	22.6	2.89	0.8	
	60~74세	1,071	2.1	19.8	47.3	26.6	4.2	30.8	47.3	21.8	2.89	0.8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2.0	21.4	47.6	24.5	4.5	29.0	47.6	23.4	2.92	0.8	84.057*** (df=1)
	자녀 없음	2,073	1.1	13.8	48.1	27.3	9.6	36.9	48.1	15.0	2.70	0.9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3.0	24.0	47.6	21.7	3.7	25.4	47.6	27.0	3.01	0.9	59.913*** (df=1)
	기타	3,963	1.3	16.8	47.9	26.6	7.4	34.1	47.9	18.1	2.78	0.9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3.6	26.2	45.6	20.7	3.8	24.5	45.6	29.8	3.05	0.9	40.420*** (df=1)
	기타	4,474	1.4	17.3	48.1	26.2	7.0	33.2	48.1	18.8	2.80	0.9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1.5	25.1	48.8	21.1	3.5	24.6	48.8	26.6	3.00	0.8	14.952*** (df=1)
	기타	4,658	1.7	17.8	47.7	26.0	6.9	32.8	47.7	19.4	2.81	0.9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2.8	23.1	50.2	21.3	2.6	23.8	50.2	25.9	3.02	0.8	24.595*** (df=1)
	기타	4,572	1.5	17.8	47.6	26.0	7.0	33.0	47.6	19.4	2.81	0.9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2.1	19.6	50.5	23.5	4.2	27.7	50.5	21.7	2.92	0.8	7.327** (df=1)
	기타	4,434	1.6	18.1	47.5	25.9	6.9	32.8	47.5	19.7	2.81	0.9	
학력	중졸 이하	104	1.0	10.6	51.0	32.7	4.8	37.5	51.0	11.5	2.70	0.8	1.366 (df=3)
	고졸	886	1.6	17.3	47.7	27.2	6.2	33.4	47.7	18.8	2.81	0.8	
	전문대/대졸	3,545	1.6	18.1	48.6	25.0	6.7	31.7	48.6	19.7	2.83	0.9	
	대학원졸	465	2.2	23.7	41.1	25.8	7.3	33.1	41.1	25.8	2.88	0.9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1.7	11.4	48.8	28.8	9.2	38.1	48.8	13.1	2.68	0.9	7.485*** (df=3)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1.1	18.1	48.0	25.3	7.6	32.8	48.0	19.2	2.80	0.9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2.1	19.0	48.3	25.1	5.6	30.6	48.3	21.0	2.87	0.9	
	600만원 이상	1,340	1.8	20.1	46.7	25.6	5.8	31.4	46.7	21.9	2.86	0.9	
직업군	관리자	621	2.4	22.5	46.9	24.0	4.2	28.2	46.9	25.0	2.95	0.9	3.028** (df=1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1.1	19.2	47.6	24.5	7.6	32.2	47.6	20.2	2.81	0.9	
	사무 종사자	1,214	1.8	18.5	46.7	26.4	6.5	32.9	46.7	20.3	2.83	0.9	
	서비스 종사자	190	3.2	18.4	47.9	22.1	8.4	30.5	47.9	21.6	2.86	0.9	
	판매 종사자	210	1.9	14.3	39.0	33.3	11.4	44.8	39.0	16.2	2.62	0.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0.0	15.6	46.9	31.3	6.3	37.5	46.9	15.6	2.72	0.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1.2	12.7	53.3	27.3	5.5	32.7	53.3	13.9	2.77	0.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0.0	25.5	43.1	26.5	4.9	31.4	43.1	25.5	2.89	0.8	
	단순노무 종사자	199	1.5	12.1	51.3	27.6	7.5	35.2	51.3	13.6	2.72	0.8	
	군인	13	0.0	23.1	38.5	30.8	7.7	38.5	38.5	23.1	2.77	0.9	
	기타	1,325	1.5	17.1	50.1	24.9	6.3	31.2	50.1	18.6	2.83	0.8	

〈표 20-3〉 학생의 인성 수준: 중학교

구분	응답 비율											F
	사례수	매우 높다	높다	보통 이다	낮다	매우 낮다	종합결과			평균 (5점)	표준 편차	
							낮음	보통	높음			
전 체	5,000	1.0	9.1	40.6	37.9	11.4	49.3	40.6	10.2	2.51	0.8	-
성별	남	2,531	1.0	9.9	41.2	35.9	12.0	47.8	41.2	10.9	2.52	0.9
	여	2,469	1.1	8.3	39.9	40.0	10.7	50.7	39.9	9.4	2.49	0.8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1.4	9.5	39.6	38.7	10.7	49.4	39.6	11.0	2.52	0.9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1.3	9.0	41.2	36.9	11.7	48.5	41.2	10.3	2.51	0.9
	중소도시(시 지역)	2,359	0.7	8.9	40.1	38.5	11.7	50.3	40.1	9.6	2.48	0.8
	읍·면(군)지역	324	0.9	10.2	44.4	35.2	9.3	44.4	44.4	11.1	2.58	0.8
연령	19~29세	929	1.3	8.7	36.9	36.5	16.6	53.1	36.9	10.0	2.42	0.9
	30대	870	1.5	9.4	39.0	38.0	12.1	50.1	39.0	10.9	2.50	0.9
	40대	1,046	0.9	8.5	43.2	37.6	9.8	47.4	43.2	9.4	2.53	0.8
	50대	1,084	1.0	9.7	41.2	38.2	9.9	48.1	41.2	10.7	2.54	0.8
	60~74세	1,071	0.6	9.3	41.8	39.0	9.2	48.3	41.8	9.9	2.53	0.8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1.2	10.1	42.1	37.5	9.1	46.6	42.1	11.3	2.57	0.8
	자녀 없음	2,073	0.7	7.8	38.4	38.4	14.6	53.0	38.4	8.5	2.42	0.9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1.5	11.5	44.4	34.7	7.9	42.6	44.4	13.0	2.64	0.8
	기타	3,963	0.9	8.5	39.6	38.7	12.3	51.0	39.6	9.4	2.47	0.8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2.3	11.6	42.6	34.8	8.7	43.5	42.6	13.9	2.64	0.9
	기타	4,474	0.9	8.9	40.3	38.3	11.7	49.9	40.3	9.7	2.49	0.8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1.2	13.5	48.8	29.2	7.3	36.5	48.8	14.6	2.72	0.8
	기타	4,658	1.0	8.8	40.0	38.5	11.7	50.2	40.0	9.8	2.49	0.8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1.2	11.9	46.0	34.8	6.1	40.9	46.0	13.1	2.67	0.8
	기타	4,572	1.0	8.9	40.1	38.2	11.9	50.0	40.1	9.9	2.49	0.9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1.6	8.0	40.3	41.9	8.3	50.2	40.3	9.5	2.53	0.8
	기타	4,434	0.9	9.3	40.6	37.4	11.8	49.1	40.6	10.2	2.50	0.9
학력	중졸 이하	104	1.0	5.8	40.4	41.3	11.5	52.9	40.4	6.7	2.43	0.8
	고졸	886	1.2	10.3	43.7	34.1	10.7	44.8	43.7	11.5	2.57	0.9
	전문대/대졸	3,545	0.9	9.1	40.2	38.5	11.3	49.8	40.2	10.0	2.50	0.8
	대학원졸	465	1.3	8.4	37.6	39.8	12.9	52.7	37.6	9.7	2.45	0.9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1.3	5.4	41.1	38.1	14.2	52.3	41.1	6.7	2.42	0.8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0.8	9.7	40.9	37.2	11.4	48.6	40.9	10.5	2.51	0.8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1.3	9.6	40.8	37.6	10.7	48.3	40.8	11.0	2.53	0.9
	600만원 이상	1,340	0.8	9.3	39.8	39.1	11.0	50.1	39.8	10.1	2.50	0.8
직업군	관리자	621	1.6	11.0	44.1	35.7	7.6	43.3	44.1	12.6	2.63	0.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0.9	9.3	36.6	40.5	12.8	53.3	36.6	10.1	2.45	0.9
	사무 종사자	1,214	1.2	8.7	38.3	39.5	12.4	51.8	38.3	9.9	2.47	0.9
	서비스 종사자	190	2.6	13.2	37.9	33.2	13.2	46.3	37.9	15.8	2.59	1.0
	판매 종사자	210	1.4	8.1	41.0	33.8	15.7	49.5	41.0	9.5	2.46	0.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0.0	18.8	37.5	37.5	6.3	43.8	37.5	18.8	2.69	0.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1.2	10.3	44.8	32.7	10.9	43.6	44.8	11.5	2.58	0.9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0.0	15.7	40.2	37.3	6.9	44.1	40.2	15.7	2.65	0.8
	단순노무 종사자	199	0.0	8.0	43.7	34.7	13.6	48.2	43.7	8.0	2.46	0.8
	군인	13	0.0	0.0	69.2	30.8	0.0	30.8	69.2	0.0	2.69	0.5
	기타	1,325	0.7	7.5	42.9	38.3	10.6	48.8	42.9	8.2	2.50	0.8

〈표 20-4〉 학생의 인성 수준: 고등학교

구분	응답 비율											F	
	사례수	매우 높다	높다	보통 이다	낮다	매우 낮다	종합결과			평균 (5점)	표준 편차		
							낮음	보통	높음				
전 체	5,000	1.5	9.8	39.3	35.1	14.2	49.4	39.3	11.3	2.49	0.9	-	
성별	남	2,531	1.8	10.5	37.5	34.7	15.5	50.2	37.5	12.3	2.48	0.9	0.440 (df=1)
	여	2,469	1.3	9.0	41.1	35.6	13.0	48.6	41.1	10.3	2.50	0.9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1.5	10.6	37.6	35.4	14.9	50.3	37.6	12.1	2.48	0.9	1.135 (df=3)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2.0	10.8	38.7	34.9	13.6	48.5	38.7	12.8	2.53	0.9	
	중소도시(시 지역)	2,359	1.3	8.6	40.7	35.0	14.5	49.5	40.7	9.9	2.47	0.9	
	읍·면(군)지역	324	1.2	12.0	37.0	36.1	13.6	49.7	37.0	13.3	2.51	0.9	
연령	19~29세	929	1.9	10.1	41.4	31.0	15.5	46.5	41.4	12.1	2.52	0.9	1.511 (df=4)
	30대	870	2.1	11.7	38.6	32.9	14.7	47.6	38.6	13.8	2.54	1.0	
	40대	1,046	1.3	8.8	42.0	34.5	13.4	47.9	42.0	10.1	2.50	0.9	
	50대	1,084	1.3	9.5	37.2	38.4	13.7	52.0	37.2	10.8	2.46	0.9	
	60~74세	1,071	1.2	9.2	37.5	37.9	14.2	52.1	37.5	10.4	2.45	0.9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1.5	10.2	38.8	36.6	12.8	49.4	38.8	11.8	2.51	0.9	2.894 (df=1)
	자녀 없음	2,073	1.5	9.1	40.0	33.1	16.2	49.3	40.0	10.7	2.47	0.9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2.3	11.3	42.5	32.7	11.2	43.9	42.5	13.6	2.61	0.9	21.514*** (df=1)
	기타	3,963	1.3	9.4	38.5	35.8	15.0	50.8	38.5	10.7	2.46	0.9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2.7	11.0	39.0	35.7	11.6	47.3	39.0	13.7	2.57	0.9	4.777* (df=1)
	기타	4,474	1.4	9.6	39.3	35.1	14.6	49.6	39.3	11.0	2.48	0.9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3.5	11.7	46.2	27.8	10.8	38.6	46.2	15.2	2.69	0.9	18.010*** (df=1)
	기타	4,658	1.4	9.6	38.8	35.7	14.5	50.2	38.8	11.0	2.48	0.9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2.3	12.9	46.5	28.5	9.8	38.3	46.5	15.2	2.69	0.9	23.203*** (df=1)
	기타	4,572	1.5	9.5	38.6	35.8	14.7	50.4	38.6	11.0	2.47	0.9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1.4	8.1	38.9	38.9	12.7	51.6	38.9	9.5	2.47	0.9	0.523 (df=1)
	기타	4,434	1.6	10.0	39.4	34.7	14.4	49.1	39.4	11.5	2.50	0.9	
학력	중졸 이하	104	0.0	9.6	40.4	36.5	13.5	50.0	40.4	9.6	2.46	0.8	3.441* (df=3)
	고졸	886	1.8	11.2	40.4	33.3	13.3	46.6	40.4	13.0	2.55	0.9	
	전문대/대졸	3,545	1.5	9.8	39.7	34.8	14.3	49.1	39.7	11.3	2.49	0.9	
	대학원졸	465	1.9	7.1	34.0	41.3	15.7	57.0	34.0	9.0	2.38	0.9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1.3	6.0	38.7	36.1	17.8	54.0	38.7	7.3	2.37	0.9	3.467* (df=3)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1.7	10.3	40.1	33.5	14.4	47.9	40.1	12.0	2.51	0.9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1.7	10.3	39.2	34.6	14.1	48.7	39.2	12.1	2.51	0.9	
	600만원 이상	1,340	1.2	9.8	38.7	37.4	13.0	50.4	38.7	11.0	2.49	0.9	
직업군	관리자	621	2.1	11.0	36.6	36.1	14.3	50.4	36.6	13.0	2.50	0.9	0.519 (df=1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1.1	10.5	37.2	38.1	13.0	51.1	37.2	11.6	2.49	0.9	
	사무 종사자	1,214	1.6	9.3	39.5	34.7	14.9	49.6	39.5	11.0	2.48	0.9	
	서비스 종사자	190	2.6	12.1	34.7	34.2	16.3	50.5	34.7	14.7	2.51	1.0	
	판매 종사자	210	2.4	10.0	39.5	32.9	15.2	48.1	39.5	12.4	2.51	0.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3.1	9.4	43.8	31.3	12.5	43.8	43.8	12.5	2.59	0.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1.8	10.9	38.2	33.3	15.8	49.1	38.2	12.7	2.50	0.9	
	장차·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2.0	17.6	39.2	26.5	14.7	41.2	39.2	19.6	2.66	1.0	
	단순노무 종사자	199	3.0	7.0	45.2	29.6	15.1	44.7	45.2	10.1	2.53	0.9	
	군인	13	0.0	0.0	61.5	30.8	7.7	38.5	61.5	0.0	2.54	0.7	
	기타	1,325	0.9	8.5	41.4	35.4	13.7	49.1	41.4	9.4	2.47	0.9	

〈표 21〉 학생이 좋은 인성을 갖도록 하는 영향 요인

구분	응답 비율							χ^2	
	사례수	가정	친구	학교	사회	잘 모르겠다	계		
전 체	5,000	52.4	16.9	16.5	11.8	2.3	100.0	-	
성별	남	2,531	49.7	16.9	18.7	12.7	1.9	100.0	28.139*** (df=4)
	여	2,469	55.2	17.0	14.3	10.9	2.6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50.0	17.8	18.2	12.6	1.4	100.0	11.323 (df=12)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53.4	17.2	15.7	11.4	2.3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52.7	16.4	16.6	11.8	2.5	100.0	
	읍·면(군)지역	324	54.0	17.0	14.5	11.1	3.4	100.0	
연령	19~29세	929	42.1	23.5	14.3	16.9	3.2	100.0	145.534*** (df=16)
	30대	870	46.0	20.7	17.0	14.1	2.2	100.0	
	40대	1,046	59.2	15.6	15.6	8.4	1.2	100.0	
	50대	1,084	55.9	13.4	18.2	10.6	1.9	100.0	
	60~74세	1,071	56.6	13.1	17.4	10.1	2.9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54.8	15.2	17.6	10.4	2.0	100.0	40.606*** (df=4)
	자녀 없음	2,073	49.1	19.4	15.0	13.9	2.7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53.0	17.9	17.9	9.8	1.3	100.0	12.832* (df=4)
	기타	3,963	52.3	16.7	16.2	12.3	2.5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54.0	19.6	16.5	8.7	1.1	100.0	10.780* (df=4)
	기타	4,474	52.3	16.6	16.5	12.2	2.4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57.9	17.0	14.0	9.4	1.8	100.0	5.805 (df=4)
	기타	4,658	52.0	16.9	16.7	12.0	2.3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52.3	15.9	19.4	11.7	0.7	100.0	7.725 (df=4)
	기타	4,572	52.4	17.0	16.3	11.8	2.4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55.3	13.6	18.6	10.8	1.8	100.0	8.028 (df=4)
	기타	4,434	52.1	17.3	16.3	12.0	2.3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51.9	13.5	14.4	5.8	14.4	100.0	99.716*** (df=12)
	고졸	886	50.1	17.5	19.4	10.0	2.9	100.0	
	전문대/대졸	3,545	52.1	17.2	16.6	12.3	1.9	100.0	
	대학원졸	465	59.4	14.8	11.4	13.1	1.3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53.1	15.7	12.7	13.3	5.2	100.0	45.290*** (df=12)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49.9	17.5	17.9	11.7	2.9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51.9	17.2	17.6	11.9	1.4	100.0	
	600만원 이상	1,340	55.9	16.3	15.0	11.3	1.5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49.8	17.7	21.6	10.1	0.8	100.0	122.769*** (df=4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54.9	16.4	14.4	12.5	1.8	100.0	
	사무 종사자	1,214	51.5	19.9	15.7	11.8	1.2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53.7	16.3	17.9	10.0	2.1	100.0	
	판매 종사자	210	53.3	14.3	23.3	7.6	1.4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46.9	25.0	12.5	9.4	6.3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46.1	15.8	22.4	11.5	4.2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51.0	16.7	16.7	15.7	0.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44.2	14.6	23.6	10.6	7.0	100.0	
	군인	13	38.5	15.4	15.4	15.4	15.4	100.0	
	기타	1,325	54.9	15.1	13.5	13.1	3.4	100.0	

〈표 22-1〉 학생의 민주시민성 수준: 초·중·고 전반

구분	응답 비율											F	
	사례수	매우 높다	높다	보통 이다	낮다	매우 낮다	종합결과			평균 (5점)	표준 편차		
							낮음	보통	높음				
전 체	5,000	0.9	15.7	55.4	23.1	4.9	28.0	55.4	16.6	2.85	0.8	-	
성별	남	2,531	1.1	16.6	52.5	23.6	6.1	29.8	52.5	17.7	2.83	0.8	2.555 (df=1)
	여	2,469	0.8	14.7	58.3	22.5	3.7	26.2	58.3	15.5	2.86	0.7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0.9	15.1	56.0	22.3	5.7	28.0	56.0	16.0	2.83	0.8	0.892 (df=3)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1.1	15.8	55.8	23.3	3.9	27.3	55.8	16.9	2.87	0.8	
	중소도시(시 지역)	2,359	0.9	15.5	54.9	23.6	5.1	28.7	54.9	16.4	2.83	0.8	
	읍·면(군)지역	324	0.6	18.5	54.9	20.4	5.6	25.9	54.9	19.1	2.88	0.8	
연령	19~29세	929	1.2	14.7	52.3	25.2	6.6	31.8	52.3	15.9	2.79	0.8	1.927 (df=4)
	30대	870	0.8	16.1	56.2	20.5	6.4	26.9	56.2	16.9	2.84	0.8	
	40대	1,046	1.0	16.0	56.4	22.6	4.1	26.7	56.4	16.9	2.87	0.8	
	50대	1,084	0.8	17.6	54.2	22.9	4.5	27.4	54.2	18.5	2.87	0.8	
	60~74세	1,071	0.9	13.9	57.6	24.0	3.5	27.5	57.6	14.8	2.85	0.7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1.2	17.0	55.9	22.1	3.7	25.8	55.9	18.2	2.90	0.8	33.335*** (df=1)
	자녀 없음	2,073	0.5	13.8	54.6	24.4	6.7	31.1	54.6	14.3	2.77	0.8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1.5	20.2	55.9	18.7	3.7	22.4	55.9	21.7	2.97	0.8	34.816*** (df=1)
	기타	3,963	0.8	14.5	55.2	24.2	5.3	29.5	55.2	15.3	2.81	0.8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2.3	20.2	56.3	17.3	4.0	21.3	56.3	22.4	2.99	0.8	21.610*** (df=1)
	기타	4,474	0.8	15.2	55.3	23.7	5.1	28.8	55.3	15.9	2.83	0.8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1.2	23.1	55.3	16.4	4.1	20.5	55.3	24.3	3.01	0.8	16.246*** (df=1)
	기타	4,658	0.9	15.1	55.4	23.6	5.0	28.6	55.4	16.1	2.83	0.8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0.7	21.3	55.4	19.9	2.8	22.7	55.4	22.0	2.97	0.7	12.386*** (df=1)
	기타	4,572	1.0	15.2	55.4	23.4	5.1	28.5	55.4	16.1	2.83	0.8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0.9	17.1	55.3	23.0	3.7	26.7	55.3	18.0	2.89	0.8	1.617 (df=1)
	기타	4,434	0.9	15.5	55.4	23.1	5.1	28.2	55.4	16.4	2.84	0.8	
학력	중졸 이하	104	0.0	5.8	68.3	21.2	4.8	26.0	68.3	5.8	2.75	0.6	1.217 (df=3)
	고졸	886	1.1	15.9	57.1	21.4	4.4	25.8	57.1	17.0	2.88	0.8	
	전문대/대졸	3,545	0.9	15.8	55.0	23.3	5.0	28.3	55.0	16.7	2.84	0.8	
	대학원졸	465	0.9	16.6	52.3	24.7	5.6	30.3	52.3	17.4	2.82	0.8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1.1	10.3	55.9	24.9	7.7	32.7	55.9	11.4	2.72	0.8	5.178** (df=3)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1.0	15.6	56.0	22.5	4.9	27.4	56.0	16.6	2.85	0.8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1.0	16.9	55.7	22.2	4.3	26.5	55.7	17.8	2.88	0.8	
	600만원 이상	1,340	0.7	16.3	54.1	24.1	4.8	28.9	54.1	17.0	2.84	0.8	
직업군	관리자	621	0.8	20.8	52.3	22.5	3.5	26.1	52.3	21.6	2.93	0.8	1.116 (df=1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1.0	17.3	52.6	22.9	6.1	29.1	52.6	18.3	2.84	0.8	
	사무 종사자	1,214	1.0	14.5	55.2	25.0	4.3	29.3	55.2	15.5	2.83	0.8	
	서비스 종사자	190	0.5	16.3	56.8	19.5	6.8	26.3	56.8	16.8	2.84	0.8	
	판매 종사자	210	2.4	15.2	50.5	23.8	8.1	31.9	50.5	17.6	2.80	0.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0.0	21.9	46.9	25.0	6.3	31.3	46.9	21.9	2.84	0.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0.6	17.6	50.9	25.5	5.5	30.9	50.9	18.2	2.82	0.8	
	정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1.0	19.6	50.0	26.5	2.9	29.4	50.0	20.6	2.89	0.8	
	단순노무 종사자	199	1.5	13.6	63.3	17.1	4.5	21.6	63.3	15.1	2.90	0.7	
	군인	13	0.0	7.7	61.5	23.1	7.7	30.8	61.5	7.7	2.69	0.8	
	기타	1,325	0.8	12.9	59.4	22.3	4.7	26.9	59.4	13.7	2.83	0.7	

〈표 22-2〉 학생의 민주시민성 수준: 초등학교

구분	응답 비율											F
	사례수	매우 높다	높다	보통 이다	낮다	매우 낮다	종합결과			평균 (5점)	표준 편차	
							낮음	보통	높음			
전 체	5,000	2.2	19.8	48.5	24.2	5.3	29.4	48.5	22.0	2.90	0.9	-
성별	남	2,531	2.9	20.3	46.1	24.1	6.5	30.7	46.1	23.3	2.89	0.9
	여	2,469	1.5	19.2	51.1	24.2	4.0	28.2	51.1	20.7	2.90	0.8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1.3	19.4	48.5	25.1	5.7	30.8	48.5	20.7	2.86	0.8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2.5	19.2	49.4	24.2	4.8	29.0	49.4	21.7	2.90	0.8
	중소도시(시 지역)	2,359	2.3	20.2	47.6	24.5	5.3	29.8	47.6	22.6	2.90	0.9
	읍·면(군)지역	324	3.4	20.1	51.9	18.8	5.9	24.7	51.9	23.5	2.96	0.9
연령	19~29세	929	1.5	14.0	47.1	29.2	8.2	37.4	47.1	15.5	2.71	0.9
	30대	870	1.7	19.0	46.6	26.6	6.2	32.8	46.6	20.7	2.83	0.9
	40대	1,046	2.7	21.3	50.5	21.0	4.5	25.5	50.5	24.0	2.97	0.8
	50대	1,084	3.0	22.2	47.5	22.5	4.8	27.3	47.5	25.2	2.96	0.9
	60~74세	1,071	2.1	21.5	50.5	22.6	3.3	25.9	50.5	23.6	2.97	0.8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3.0	23.1	48.3	21.7	3.8	25.6	48.3	26.2	3.00	0.9
	자녀 없음	2,073	1.1	15.1	48.9	27.6	7.3	34.9	48.9	16.2	2.75	0.8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4.4	24.9	47.9	19.0	3.8	22.8	47.9	29.3	3.07	0.9
	기타	3,963	1.7	18.4	48.7	25.5	5.7	31.2	48.7	20.1	2.85	0.8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4.8	26.2	47.5	18.1	3.4	21.5	47.5	31.0	3.11	0.9
	기타	4,474	1.9	19.0	48.7	24.9	5.5	30.4	48.7	21.0	2.87	0.8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2.9	24.0	49.1	18.4	5.6	24.0	49.1	26.9	3.00	0.9
	기타	4,658	2.2	19.5	48.5	24.6	5.3	29.8	48.5	21.7	2.89	0.9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4.9	24.8	47.9	19.4	3.0	22.4	47.9	29.7	3.09	0.9
	기타	4,572	2.0	19.3	48.6	24.6	5.5	30.1	48.6	21.3	2.88	0.9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3.4	23.3	48.8	20.8	3.7	24.6	48.8	26.7	3.02	0.9
	기타	4,434	2.1	19.3	48.5	24.6	5.5	30.1	48.5	21.4	2.88	0.9
학력	중졸 이하	104	0.0	11.5	58.7	26.0	3.8	29.8	58.7	11.5	2.78	0.7
	고졸	886	1.7	19.5	51.1	22.9	4.7	27.7	51.1	21.2	2.91	0.8
	전문대/대졸	3,545	2.2	19.7	48.5	24.2	5.4	29.6	48.5	21.9	2.89	0.9
	대학원졸	465	3.9	22.8	41.5	25.8	6.0	31.8	41.5	26.7	2.93	0.9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1.3	13.1	51.8	26.9	6.9	33.8	51.8	14.4	2.75	0.8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1.6	18.7	49.9	24.0	5.7	29.8	49.9	20.3	2.86	0.8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2.5	21.7	48.2	23.3	4.2	27.6	48.2	24.2	2.95	0.8
	600만원 이상	1,340	3.1	21.1	46.1	24.3	5.4	29.7	46.1	24.2	2.92	0.9
직업군	관리자	621	4.5	23.7	46.9	20.6	4.3	25.0	46.9	28.2	3.03	0.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1.7	20.3	45.1	26.3	6.6	32.8	45.1	22.1	2.84	0.9
	사무 종사자	1,214	1.6	20.0	47.9	25.7	4.7	30.4	47.9	21.7	2.88	0.8
	서비스 종사자	190	2.6	20.0	45.3	26.8	5.3	32.1	45.3	22.6	2.88	0.9
	판매 종사자	210	3.3	17.6	41.9	28.1	9.0	37.1	41.9	21.0	2.78	1.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3.1	15.6	56.3	21.9	3.1	25.0	56.3	18.8	2.94	0.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2.4	18.2	50.3	24.8	4.2	29.1	50.3	20.6	2.90	0.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2.9	21.6	52.9	19.6	2.9	22.5	52.9	24.5	3.02	0.8
	단순노무 종사자	199	3.5	13.1	60.3	17.6	5.5	23.1	60.3	16.6	2.91	0.8
	군인	13	0.0	7.7	61.5	30.8	0.0	30.8	61.5	7.7	2.77	0.6
	기타	1,325	1.6	18.9	51.2	23.2	5.1	28.3	51.2	20.5	2.89	0.8

〈표 22-3〉 학생의 민주시민성 수준: 중학교

구분	응답 비율											F	
	사례수	매우 높다	높다	보통이다	낮다	매우 낮다	종합결과			평균 (5점)	표준 편차		
							낮음	보통	높음				
전 체	5,000	1.2	12.1	47.6	30.9	8.1	39.0	47.6	13.4	2.67	0.8	-	
성별	남	2,531	1.3	13.1	45.6	30.7	9.3	40.0	45.6	14.4	2.66	0.9	0.924 (df=1)
	여	2,469	1.2	11.1	49.7	31.1	6.9	38.0	49.7	12.3	2.69	0.8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1.5	10.4	47.7	31.7	8.6	40.3	47.7	11.9	2.64	0.8	1.368 (df=3)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1.5	11.5	48.4	30.4	8.3	38.6	48.4	13.0	2.68	0.8	
	중소도시(시 지역)	2,359	1.0	12.7	47.1	31.2	8.0	39.2	47.1	13.7	2.68	0.8	
	읍·면(군)지역	324	0.9	15.7	48.1	28.1	7.1	35.2	48.1	16.7	2.75	0.8	
연령	19~29세	929	1.3	11.0	44.7	32.2	10.9	43.1	44.7	12.3	2.60	0.9	3.138* (df=4)
	30대	870	1.7	11.8	45.6	31.6	9.2	40.8	45.6	13.6	2.65	0.9	
	40대	1,046	1.1	12.2	50.4	29.1	7.3	36.3	50.4	13.3	2.71	0.8	
	50대	1,084	1.4	12.6	48.3	29.8	7.8	37.6	48.3	14.0	2.70	0.8	
	60~74세	1,071	0.8	12.7	48.4	32.1	6.0	38.1	48.4	13.5	2.70	0.8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1.6	13.6	48.0	30.2	6.6	36.9	48.0	15.2	2.73	0.8	34.079*** (df=1)
	자녀 없음	2,073	0.8	10.0	47.1	31.8	10.2	42.1	47.1	10.8	2.59	0.8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2.6	14.6	48.7	27.8	6.4	34.1	48.7	17.2	2.79	0.9	26.231*** (df=1)
	기타	3,963	0.9	11.5	47.3	31.7	8.6	40.3	47.3	12.4	2.64	0.8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4.0	14.3	47.7	27.9	6.1	34.0	47.7	18.3	2.82	0.9	18.163*** (df=1)
	기타	4,474	0.9	11.9	47.6	31.2	8.4	39.6	47.6	12.8	2.66	0.8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1.5	16.7	50.3	25.1	6.4	31.6	50.3	18.1	2.82	0.8	10.492** (df=1)
	기타	4,658	1.2	11.8	47.4	31.3	8.2	39.6	47.4	13.0	2.66	0.8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1.6	15.7	49.3	27.3	6.1	33.4	49.3	17.3	2.79	0.8	9.628** (df=1)
	기타	4,572	1.2	11.8	47.5	31.2	8.3	39.5	47.5	13.0	2.66	0.8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1.2	13.3	47.3	31.3	6.9	38.2	47.3	14.5	2.71	0.8	0.942 (df=1)
	기타	4,434	1.2	12.0	47.7	30.9	8.3	39.1	47.7	13.2	2.67	0.8	
학력	중졸 이하	104	0.0	7.7	53.8	29.8	8.7	38.5	53.8	7.7	2.61	0.8	1.540 (df=3)
	고졸	886	1.2	12.3	50.7	29.3	6.4	35.8	50.7	13.5	2.73	0.8	
	전문대/대졸	3,545	1.2	11.9	47.2	31.3	8.3	39.6	47.2	13.1	2.66	0.8	
	대학원졸	465	1.7	14.4	43.2	31.0	9.7	40.6	43.2	16.1	2.68	0.9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1.1	6.9	50.8	29.5	11.8	41.3	50.8	8.0	2.56	0.8	3.284* (df=3)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1.1	11.8	48.9	30.8	7.5	38.2	48.9	12.9	2.68	0.8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1.5	12.8	46.4	31.9	7.4	39.3	46.4	14.3	2.69	0.8	
	600만원 이상	1,340	1.2	13.5	46.4	30.4	8.4	38.9	46.4	14.7	2.69	0.9	
직업군	관리자	621	1.6	16.4	45.1	30.6	6.3	36.9	45.1	18.0	2.76	0.9	1.731 (df=1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1.5	13.0	43.2	32.8	9.5	42.3	43.2	14.5	2.64	0.9	
	사무 종사자	1,214	1.2	11.0	46.5	33.6	7.7	41.4	46.5	12.2	2.64	0.8	
	서비스 종사자	190	1.6	14.7	46.8	24.7	12.1	36.8	46.8	16.3	2.69	0.9	
	판매 종사자	210	3.3	10.0	44.3	28.1	14.3	42.4	44.3	13.3	2.60	1.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0.0	9.4	50.0	34.4	6.3	40.6	50.0	9.4	2.63	0.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0.6	15.8	44.8	30.3	8.5	38.8	44.8	16.4	2.70	0.9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1.0	15.7	53.9	23.5	5.9	29.4	53.9	16.7	2.82	0.8	
	단순노무 종사자	199	1.0	12.1	53.8	26.1	7.0	33.2	53.8	13.1	2.74	0.8	
	군인	13	0.0	7.7	76.9	7.7	7.7	15.4	76.9	7.7	2.85	0.7	
	기타	1,325	0.7	9.9	52.2	30.0	7.2	37.2	52.2	10.6	2.67	0.8	

〈표 22-4〉 학생의 민주시민성 수준: 고등학교

구분	응답 비율											F	
	사례수	매우 높다	높다	보통 이다	낮다	매우 낮다	종합결과			평균 (5점)	표준 편차		
							낮음	보통	높음				
전 체	5,000	1.4	14.8	44.7	29.4	9.7	39.0	44.7	16.2	2.69	0.9	-	
성별	남	2,531	1.7	15.2	42.1	29.6	11.4	41.0	42.1	16.9	2.66	0.9	4.882* (df=1)
	여	2,469	1.2	14.3	47.4	29.2	7.9	37.1	47.4	15.5	2.72	0.8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1.6	13.9	43.2	30.5	10.8	41.3	43.2	15.5	2.65	0.9	1.362 (df=3)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1.8	13.4	47.7	28.5	8.6	37.1	47.7	15.2	2.71	0.9	
	중소도시(시 지역)	2,359	1.2	15.6	43.5	30.1	9.7	39.8	43.5	16.7	2.68	0.9	
	읍·면(군)지역	324	1.2	17.6	46.0	24.7	10.5	35.2	46.0	18.8	2.74	0.9	
연령	19~29세	929	1.3	14.9	44.6	28.6	10.7	39.3	44.6	16.1	2.67	0.9	0.825 (df=4)
	30대	870	2.0	16.3	42.5	29.0	10.2	39.2	42.5	18.3	2.71	0.9	
	40대	1,046	1.2	14.6	47.3	28.3	8.5	36.8	47.3	15.9	2.72	0.9	
	50대	1,084	1.4	14.9	44.8	29.3	9.5	38.8	44.8	16.3	2.69	0.9	
	60~74세	1,071	1.4	13.4	44.1	31.5	9.6	41.1	44.1	14.8	2.66	0.9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1.7	15.9	43.8	29.9	8.7	38.6	43.8	17.6	2.72	0.9	8.761** (df=1)
	자녀 없음	2,073	1.1	13.2	46.1	28.7	11.0	39.7	46.1	14.2	2.65	0.9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2.4	19.1	44.1	26.3	8.1	34.4	44.1	21.5	2.81	0.9	25.728*** (df=1)
	기타	3,963	1.2	13.7	44.9	30.2	10.1	40.2	44.9	14.8	2.66	0.9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3.0	18.3	43.0	27.9	7.8	35.7	43.0	21.3	2.81	0.9	10.456** (df=1)
	기타	4,474	1.3	14.4	44.9	29.5	9.9	39.4	44.9	15.6	2.68	0.9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3.2	18.7	48.5	22.5	7.0	29.5	48.5	21.9	2.89	0.9	17.993*** (df=1)
	기타	4,658	1.3	14.5	44.5	29.9	9.9	39.7	44.5	15.8	2.68	0.9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1.9	21.3	44.9	24.3	7.7	32.0	44.9	23.1	2.85	0.9	15.840*** (df=1)
	기타	4,572	1.4	14.2	44.7	29.9	9.8	39.7	44.7	15.6	2.67	0.9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1.2	18.0	41.2	30.2	9.4	39.6	41.2	19.3	2.72	0.9	0.544 (df=1)
	기타	4,434	1.5	14.4	45.2	29.3	9.7	39.0	45.2	15.8	2.69	0.9	
학력	중졸 이하	104	0.0	10.6	55.8	25.0	8.7	33.7	55.8	10.6	2.68	0.8	1.372 (df=3)
	고졸	886	1.6	14.6	47.1	28.9	7.9	36.8	47.1	16.1	2.73	0.9	
	전문대/대졸	3,545	1.4	14.9	44.5	29.4	9.8	39.2	44.5	16.3	2.69	0.9	
	대학원졸	465	1.9	15.1	39.4	31.2	12.5	43.7	39.4	17.0	2.63	0.9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1.7	9.5	49.0	25.2	14.6	39.8	49.0	11.2	2.58	0.9	2.792* (df=3)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1.2	14.9	45.5	29.0	9.4	38.3	45.5	16.1	2.70	0.9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1.8	15.1	45.2	29.0	8.9	37.9	45.2	16.9	2.72	0.9	
	600만원 이상	1,340	1.2	16.0	41.8	31.8	9.2	41.0	41.8	17.2	2.68	0.9	
직업군	관리자	621	1.3	18.0	40.6	31.1	9.0	40.1	40.6	19.3	2.71	0.9	0.606 (df=1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1.7	15.4	41.7	30.8	10.4	41.2	41.7	17.1	2.67	0.9	
	사무 종사자	1,214	1.5	13.4	44.0	32.0	9.1	41.1	44.0	14.9	2.66	0.9	
	서비스 종사자	190	1.6	16.8	41.6	27.4	12.6	40.0	41.6	18.4	2.67	1.0	
	판매 종사자	210	2.4	17.6	41.0	25.2	13.8	39.0	41.0	20.0	2.70	1.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0.0	9.4	46.9	34.4	9.4	43.8	46.9	9.4	2.56	0.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1.2	17.0	41.8	27.9	12.1	40.0	41.8	18.2	2.67	0.9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1.0	20.6	43.1	28.4	6.9	35.3	43.1	21.6	2.80	0.9	
	단순노무 종사자	199	1.0	12.6	55.3	23.6	7.5	31.2	55.3	13.6	2.76	0.8	
	군인	13	0.0	7.7	69.2	15.4	7.7	23.1	69.2	7.7	2.77	0.7	
기타	1,325	1.3	13.1	49.2	27.2	9.1	36.4	49.2	14.4	2.70	0.9		

〈표 23〉 학생이 민주시민성을 갖도록 하는 영향 요인

구분	응답 비율							χ^2	
	사례수	가정	친구	학교	사회	잘 모르겠다	계		
전 체	5,000	29.1	12.4	31.5	24.4	2.7	100.0	-	
성별	남	2,531	29.4	13.3	31.1	24.0	2.2	100.0	7.965 (df=4)
	여	2,469	28.8	11.5	31.8	24.7	3.2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27.8	13.1	31.3	25.9	1.8	100.0	18.098 (df=12)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29.3	13.0	32.4	22.0	3.4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29.9	11.7	31.3	24.7	2.5	100.0	
	읍·면(군)지역	324	25.9	13.0	29.3	27.8	4.0	100.0	
연령	19~29세	929	25.3	14.4	26.3	29.3	4.7	100.0	89.890*** (df=16)
	30대	870	27.6	17.6	30.2	22.5	2.1	100.0	
	40대	1,046	30.1	11.3	34.3	22.5	1.8	100.0	
	50대	1,084	30.4	10.2	34.3	23.2	1.8	100.0	
	60~74세	1,071	31.2	9.7	31.4	24.6	3.1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29.2	11.5	33.6	23.7	1.9	100.0	29.719*** (df=4)
	자녀 없음	2,073	28.8	13.6	28.5	25.4	3.7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28.5	13.0	35.2	22.1	1.2	100.0	20.420*** (df=4)
	기타	3,963	29.2	12.2	30.5	25.0	3.1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28.3	14.4	36.3	19.8	1.1	100.0	16.775** (df=4)
	기타	4,474	29.1	12.2	30.9	24.9	2.9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30.1	12.0	33.6	22.5	1.8	100.0	2.426 (df=4)
	기타	4,658	29.0	12.4	31.3	24.5	2.7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27.8	12.6	35.7	23.4	0.5	100.0	11.729* (df=4)
	기타	4,572	29.2	12.4	31.1	24.5	2.9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29.3	9.7	35.2	25.1	0.7	100.0	15.869** (df=4)
	기타	4,434	29.0	12.7	31.0	24.3	2.9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24.0	13.5	27.9	17.3	17.3	100.0	107.256*** (df=12)
	고졸	886	28.3	14.6	29.6	23.9	3.6	100.0	
	전문대/대졸	3,545	28.8	12.1	32.3	24.6	2.2	100.0	
	대학원졸	465	33.8	10.5	29.5	24.9	1.3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28.6	11.0	30.1	24.3	6.0	100.0	39.345*** (df=12)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28.1	13.1	30.3	25.1	3.4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28.3	12.7	33.1	24.1	1.7	100.0	
	600만원 이상	1,340	31.2	11.7	31.5	23.8	1.8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28.2	14.7	34.8	21.3	1.1	100.0	115.692*** (df=4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30.5	13.0	30.6	23.8	2.2	100.0	
	사무 종사자	1,214	27.2	13.4	32.2	25.4	1.8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30.5	11.6	31.6	24.7	1.6	100.0	
	판매 종사자	210	33.3	13.8	34.3	17.1	1.4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28.1	18.8	15.6	34.4	3.1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24.8	14.5	27.3	30.3	3.0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25.5	19.6	30.4	21.6	2.9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25.1	15.1	30.7	19.6	9.5	100.0	
	군인	13	30.8	15.4	7.7	38.5	7.7	100.0	
	기타	1,325	30.7	8.5	30.8	26.3	3.8	100.0	

〈표 24〉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민주시민성 제고를 위한 과제

구분	응답 비율						계	χ^2	
	사례수	수업에서의 민주시민 교육 강화	학생자치 활동 활성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 강화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장려	잘 모르겠다			
전 체	5,000	18.4	14.1	33.7	29.6	4.3	100.0	-	
성별	남	2,531	17.5	14.9	33.9	29.2	4.5	100.0	4.822 (df=4)
	여	2,469	19.2	13.4	33.4	30.0	4.0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18.0	15.6	34.2	28.2	4.0	100.0	14.995 (df=12)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19.0	15.6	32.7	28.1	4.6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18.4	12.8	34.3	30.3	4.3	100.0	
	읍·면(군)지역	324	17.0	13.6	31.8	34.6	3.1	100.0	
연령	19~29세	929	16.1	17.5	30.5	28.7	7.1	100.0	71.931*** (df=16)
	30대	870	17.7	16.7	32.4	28.9	4.4	100.0	
	40대	1,046	16.2	13.2	34.7	33.0	3.0	100.0	
	50대	1,084	19.6	13.0	33.9	30.4	3.0	100.0	
	60~74세	1,071	21.8	11.2	36.2	26.6	4.2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19.1	13.5	35.4	29.0	3.1	100.0	34.328*** (df=4)
	자녀 없음	2,073	17.3	15.1	31.3	30.3	5.9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17.7	15.2	35.6	29.7	1.7	100.0	22.368*** (df=4)
	기타	3,963	18.5	13.9	33.2	29.5	4.9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16.2	14.6	36.7	30.6	1.9	100.0	11.134* (df=4)
	기타	4,474	18.6	14.1	33.3	29.4	4.5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20.2	16.4	30.7	30.1	2.6	100.0	5.246 (df=4)
	기타	4,658	18.2	14.0	33.9	29.5	4.4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18.2	16.1	35.3	29.0	1.4	100.0	10.691* (df=4)
	기타	4,572	18.4	14.0	33.5	29.6	4.5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19.6	12.9	36.2	29.5	1.8	100.0	11.777* (df=4)
	기타	4,434	18.2	14.3	33.4	29.6	4.6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21.2	10.6	29.8	21.2	17.3	100.0	58.947*** (df=12)
	고졸	886	16.9	13.4	34.9	29.7	5.1	100.0	
	전문대/대졸	3,545	18.4	14.7	33.0	30.1	3.9	100.0	
	대학원졸	465	20.0	12.3	37.6	27.3	2.8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22.2	11.0	27.1	30.8	9.0	100.0	65.943*** (df=12)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16.8	14.6	33.0	30.2	5.4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17.8	14.9	35.5	29.4	2.4	100.0	
	600만원 이상	1,340	19.6	13.9	34.6	28.6	3.3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15.5	16.1	36.6	29.3	2.6	100.0	85.101*** (df=4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18.7	14.7	36.9	26.6	3.0	100.0	
	사무 종사자	1,214	18.0	15.4	31.6	32.0	2.9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17.9	16.8	30.5	31.1	3.7	100.0	
	판매 종사자	210	17.6	12.9	34.3	29.0	6.2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21.9	12.5	21.9	37.5	6.3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18.2	13.3	34.5	28.5	5.5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12.7	15.7	37.3	30.4	3.9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15.6	13.1	33.7	27.1	10.6	100.0	
	군인	13	0.0	0.0	53.8	38.5	7.7	100.0	
기타	1,325	20.9	11.8	32.0	29.5	5.8	100.0		

〈표 25〉 학교 폭력의 완화 여부

구분	응답 비율											F	
	사례수	매우 심각 하다	심각 하다	보통 이다	심각 하지 않다	전혀 심각 하지 않다	종합결과			평균 (5점)	표준 편차		
							심각 하지 않음	보통	심각함				
전 체	5,000	13.2	40.9	38.8	6.8	0.3	7.1	38.8	54.1	3.60	0.8	-	
성별	남	2,531	11.3	38.3	41.9	8.1	0.4	8.5	41.9	3.52	0.8	47.102*** (df=1)	
	여	2,469	15.1	43.6	35.6	5.5	0.2	5.8	35.6	3.68	0.8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13.6	40.8	37.8	7.6	0.3	7.9	37.8	3.60	0.8	1.534 (df=3)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13.9	42.2	36.0	7.2	0.6	7.8	36.0	3.62	0.8		
	중소도시(시 지역) 읍·면(군)지역	2,359 324	13.0 10.2	40.6 38.6	40.1 43.2	6.1 8.0	0.2 0.0	6.3 8.0	40.1 43.2	53.6 48.8	3.60 3.51		0.8 0.8
연령	19~29세	929	15.5	37.6	36.5	9.8	0.6	10.4	36.5	53.1	3.57	0.9	2.162 (df=4)
	30대	870	17.1	38.4	37.9	6.1	0.5	6.6	37.9	55.5	3.66	0.8	
	40대	1,046	13.4	42.6	37.2	6.6	0.2	6.8	37.2	56.0	3.62	0.8	
	50대	1,084	10.1	42.8	40.8	6.1	0.2	6.3	40.8	53.0	3.57	0.8	
	60~74세	1,071	10.7	42.4	41.0	5.7	0.2	5.9	41.0	53.1	3.58	0.8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10.8	40.6	41.0	7.2	0.3	7.6	41.0	51.5	3.54	0.8	31.384*** (df=1)
	자녀 없음	2,073	16.4	41.4	35.6	6.2	0.3	6.5	35.6	57.8	3.67	0.8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9.6	37.2	43.7	9.1	0.4	9.5	43.7	46.9	3.47	0.8	34.551*** (df=1)
	기타	3,963	14.1	41.9	37.5	6.2	0.3	6.5	37.5	56.0	3.63	0.8	
초등학교 학부모	초등학교 학부모	526	12.5	38.2	39.2	9.3	0.8	10.1	39.2	50.8	3.52	0.9	4.821* (df=1)
	기타	4,474	13.2	41.3	38.7	6.5	0.3	6.8	38.7	54.5	3.61	0.8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7.6	38.0	44.2	9.6	0.6	10.2	44.2	45.6	3.42	0.8	16.966*** (df=1)
	기타	4,658	13.6	41.2	38.4	6.6	0.3	6.9	38.4	54.7	3.61	0.8	
고등학교 학부모	고등학교 학부모	428	6.1	34.1	52.1	7.7	0.0	7.7	52.1	40.2	3.39	0.7	32.336*** (df=1)
	기타	4,572	13.8	41.6	37.5	6.7	0.3	7.1	37.5	55.4	3.62	0.8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9.5	38.2	45.6	6.4	0.4	6.7	45.6	47.7	3.50	0.8	9.023** (df=1)
	기타	4,434	13.6	41.3	37.9	6.9	0.3	7.2	37.9	54.9	3.61	0.8	
학력	중졸 이하	104	13.5	33.7	45.2	7.7	0.0	7.7	45.2	47.1	3.53	0.8	3.918** (df=3)
	고졸	886	11.6	38.1	42.2	7.7	0.3	8.0	42.2	49.8	3.53	0.8	
	전문대/대졸	3,545	13.7	41.6	38.2	6.3	0.2	6.5	38.2	55.3	3.62	0.8	
	대학원졸	465	11.8	42.8	35.5	8.6	1.3	9.9	35.5	54.6	3.55	0.9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15.9	40.6	37.8	5.2	0.4	5.6	37.8	56.6	3.66	0.8	2.217 (df=3)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13.0	42.2	37.6	7.1	0.1	7.2	37.6	55.2	3.61	0.8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12.9	38.6	40.5	7.6	0.4	7.9	40.5	51.5	3.56	0.8	
	600만원 이상	1,340	12.7	42.2	38.5	6.1	0.4	6.6	38.5	54.9	3.61	0.8	
직업군	관리자	621	12.4	38.5	39.8	9.2	0.2	9.3	39.8	50.9	3.54	0.8	2.876** (df=1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12.1	39.5	39.1	8.7	0.6	9.4	39.1	51.6	3.54	0.8	
	사무 종사자	1,214	15.7	42.7	35.6	5.8	0.2	6.0	35.6	58.4	3.68	0.8	
	서비스 종사자	190	11.1	45.8	36.3	6.8	0.0	6.8	36.3	56.8	3.61	0.8	
	판매 종사자	210	13.3	39.0	41.9	5.2	0.5	5.7	41.9	52.4	3.60	0.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12.5	40.6	43.8	3.1	0.0	3.1	43.8	53.1	3.63	0.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12.1	41.8	38.8	7.3	0.0	7.3	38.8	53.9	3.59	0.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12.7	26.5	50.0	10.8	0.0	10.8	50.0	39.2	3.41	0.8	
	단순노무 종사자	199	15.1	32.7	43.2	8.5	0.5	9.0	43.2	47.7	3.53	0.9	
	군인	13	23.1	38.5	23.1	15.4	0.0	15.4	23.1	61.5	3.69	1.0	
기타	1,325	12.0	43.4	39.4	4.9	0.3	5.2	39.4	55.4	3.62	0.8		

〈표 26〉 학교 폭력의 원인

구분	응답 비율							χ ²	
	사례수	경쟁적 교육제도 (입시경쟁 등)	가정 교육의 부재	학교의 학생지도 부족	대중매체 (영화, 드라마, 인터넷, 게임 등)의 폭력성	학생 개인의 인성 문제	잘 모르겠다		
전 체	5,000	7.8	37.1	18.2	21.4	13.2	2.3	-	
성별	남	2,531	8.3	37.7	20.8	17.3	13.7	2.1	62.844*** (df=5)
	여	2,469	7.2	36.5	15.6	25.6	12.7	2.5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8.5	36.7	21.7	19.2	12.2	1.7	23.648 (df=15)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8.6	37.0	17.9	21.9	12.6	2.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7.2	36.9	17.4	22.1	13.6	2.7	
	읍·면(군)지역	324	5.9	39.8	15.1	21.3	15.7	2.2	
연령	19~29세	929	5.5	36.0	19.5	16.0	19.2	3.9	117.605*** (df=20)
	30대	870	7.1	36.4	19.7	20.8	14.0	2.0	
	40대	1,046	9.3	36.9	16.9	22.9	12.2	1.7	
	50대	1,084	10.9	34.6	18.8	22.0	12.4	1.3	
	60~74세	1,071	5.6	41.3	16.6	24.5	9.2	2.8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8.3	35.9	18.7	24.0	11.1	1.9	56.722*** (df=5)
	자녀 없음	2,073	6.9	38.7	17.5	17.8	16.2	2.9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10.2	32.1	21.2	23.9	11.3	1.3	39.115*** (df=5)
	기타	3,963	7.1	38.4	17.4	20.8	13.7	2.6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10.1	30.2	22.6	25.1	10.3	1.7	26.235*** (df=5)
	기타	4,474	7.5	37.9	17.7	21.0	13.6	2.4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10.8	28.4	21.1	27.2	11.4	1.2	22.234*** (df=5)
	기타	4,658	7.5	37.7	18.0	21.0	13.4	2.4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10.0	34.8	18.2	23.4	12.9	0.7	9.881 (df=5)
	기타	4,572	7.5	37.3	18.2	21.2	13.3	2.4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10.8	35.0	18.9	22.3	12.4	0.7	16.016** (df=5)
	기타	4,434	7.4	37.3	18.1	21.3	13.3	2.5	
학력	중졸 이하	104	3.8	42.3	13.5	19.2	7.7	13.5	82.064*** (df=15)
	고졸	886	6.9	34.4	19.6	22.2	14.4	2.4	
	전문대/대졸	3,545	8.0	36.9	18.3	21.4	13.6	1.9	
	대학원졸	465	8.8	42.2	16.3	20.6	9.2	2.8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6.2	39.1	15.9	19.1	14.2	5.4	64.252*** (df=15)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6.4	37.4	17.0	21.9	14.9	2.5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9.2	34.6	20.5	23.3	11.2	1.2	
	600만원 이상	1,340	8.4	39.0	17.8	19.4	13.2	2.2	
직업군	관리자	621	8.7	32.9	21.9	24.5	10.8	1.3	111.543*** (df=5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9.3	39.3	18.0	18.6	13.3	1.5	
	사무 종사자	1,214	8.3	36.3	19.0	21.8	12.9	1.6	
	서비스 종사자	190	7.9	37.4	18.4	23.2	12.1	1.1	
	판매 종사자	210	9.0	43.8	16.2	18.6	10.5	1.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9.4	28.1	18.8	25.0	18.8	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5.5	39.4	16.4	24.2	11.5	3.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5.9	32.4	23.5	21.6	14.7	2.0	
	단순노무 종사자	199	5.0	40.2	24.6	12.1	11.6	6.5	
	군인	13	0.0	30.8	15.4	7.7	38.5	7.7	
	기타	1,325	6.4	37.0	15.1	22.9	15.1	3.5	

〈표 27〉 학교와 학부모의 소통 원할 정도

구분	응답 비율											F	
	사례수	매우 원할하다	원할하다	보통이다	원할하지 않다	전혀 원할하지 않다	종합결과			평균(5점)	표준편차		
							원할하지 않음	보통	원할함				
전 체	1,173	1.2	13.4	54.3	28.0	3.1	31.1	54.3	14.6	2.82	0.7	-	
성별	남	640	1.3	14.4	51.4	29.2	3.8	33.0	51.4	15.6	2.80	0.8	0.522 (df=1)
	여	533	1.1	12.2	57.8	26.6	2.3	28.9	57.8	13.3	2.83	0.7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236	1.7	12.3	53.0	28.4	4.7	33.1	53.0	14.0	2.78	0.8	0.373 (df=3)
	광역시, 특별자치시	305	2.3	13.4	53.8	27.2	3.3	30.5	53.8	15.7	2.84	0.8	
	중소도시(시 지역)	553	0.5	13.2	55.3	28.8	2.2	30.9	55.3	13.7	2.81	0.7	
	읍·면(군)지역	79	0.0	17.7	53.2	25.3	3.8	29.1	53.2	17.7	2.85	0.8	
연령	19~29세	19	5.3	5.3	63.2	21.1	5.3	26.3	63.2	10.5	2.84	0.8	1.018 (df=4)
	30대	221	1.8	12.2	59.7	22.2	4.1	26.2	59.7	14.0	2.86	0.7	
	40대	611	1.1	13.3	55.8	27.5	2.3	29.8	55.8	14.4	2.83	0.7	
	50대	294	0.3	14.6	47.3	34.4	3.4	37.8	47.3	15.0	2.74	0.8	
	60~74세	28	3.6	17.9	46.4	25.0	7.1	32.1	46.4	21.4	2.86	0.9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173	1.2	13.4	54.3	28.0	3.1	31.1	54.3	14.6	2.82	0.7	-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1.0	13.8	53.6	29.0	2.6	31.6	53.6	14.8	2.81	0.7	0.016 (df=1)
	기타	136	2.9	10.3	59.6	20.6	6.6	27.2	59.6	13.2	2.82	0.8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1.5	15.2	54.0	27.0	2.3	29.3	54.0	16.7	2.87	0.7	4.523* (df=1)
	기타	647	0.9	11.9	54.6	28.9	3.7	32.6	54.6	12.8	2.77	0.7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0.6	12.0	58.5	27.5	1.5	28.9	58.5	12.6	2.83	0.7	0.118 (df=1)
	기타	831	1.4	14.0	52.6	28.3	3.7	32.0	52.6	15.4	2.81	0.8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0.7	12.4	51.6	32.5	2.8	35.3	51.6	13.1	2.76	0.7	4.244* (df=1)
	기타	745	1.5	14.0	55.8	25.5	3.2	28.7	55.8	15.4	2.85	0.7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193	0.0	13.5	47.7	35.8	3.1	38.9	47.7	13.5	2.72	0.7	4.271* (df=1)
	기타	980	1.4	13.4	55.6	26.5	3.1	29.6	55.6	14.8	2.84	0.7	
학력	고졸	129	0.8	11.6	62.0	22.5	3.1	25.6	62.0	12.4	2.84	0.7	0.811 (df=2)
	전문대/대졸	913	1.3	13.4	54.4	28.0	2.8	30.9	54.4	14.7	2.82	0.7	
	대학원졸	131	0.8	15.3	45.8	33.6	4.6	38.2	45.8	16.0	2.74	0.8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0	0.0	5.0	70.0	20.0	5.0	25.0	70.0	5.0	2.75	0.6	1.425 (df=3)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239	2.1	10.9	56.5	27.2	3.3	30.5	56.5	13.0	2.81	0.8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515	1.4	15.0	54.6	26.8	2.3	29.1	54.6	16.3	2.86	0.7	
	600만원 이상	399	0.5	13.3	51.9	30.6	3.8	34.3	51.9	13.8	2.76	0.7	
직업군	관리자	258	1.2	14.7	48.1	31.8	4.3	36.0	48.1	15.9	2.77	0.8	0.893 (df=1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28	1.3	14.0	54.4	26.3	3.9	30.3	54.4	15.4	2.82	0.8	
	사무 종사자	338	0.6	13.6	54.4	29.3	2.1	31.4	54.4	14.2	2.81	0.7	
	서비스 종사자	42	2.4	9.5	64.3	19.0	4.8	23.8	64.3	11.9	2.86	0.8	
	판매 종사자	60	3.3	11.7	61.7	21.7	1.7	23.3	61.7	15.0	2.93	0.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5	0.0	40.0	40.0	0.0	20.0	20.0	40.0	40.0	3.00	1.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42	2.4	16.7	52.4	28.6	0.0	28.6	52.4	19.0	2.93	0.7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7	0.0	17.6	58.8	23.5	0.0	23.5	58.8	17.6	2.94	0.7	
	단순노무 종사자	23	0.0	4.3	47.8	43.5	4.3	47.8	47.8	4.3	2.52	0.7	
	군인	4	0.0	0.0	50.0	50.0	0.0	50.0	50.0	0.0	2.50	0.6	
	기타	156	1.3	10.9	60.3	25.0	2.6	27.6	60.3	12.2	2.83	0.7	

〈표 28〉 학부모와의 소통을 위해 보다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방식

구분	응답 비율							χ ²	
	사례수	가정 통신문 활용	학교 홈페이지 활용	휴대폰 (문자, 앱 등) 및 SNS (블로그 등) 활용	교사(담임, 교장 등) 와의 면담	학부모회, 학교운영 위원회 등 협의체 활용	기타(익명 게시판 활용, 전문가 상담 등)		
전 체	1,173	7.8	12.2	46.5	25.6	7.8	0.2	-	
성별	남	640	8.3	10.5	42.2	29.8	9.2	0.0	25.620*** (df=6)
	여	533	7.3	14.3	51.6	20.5	6.0	0.4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236	8.9	16.9	40.7	23.3	9.3	0.8	26.768 (df=18)
	광역시, 특별자치시	305	8.5	13.4	49.2	23.0	5.9	0.0	
	중소도시(시 지역)	553	7.2	9.0	47.4	27.8	8.5	0.0	
	읍·면(군)지역	79	6.3	15.2	46.8	26.6	5.1	0.0	
연령	19~29세	19	21.1	21.1	47.4	10.5	0.0	0.0	24.131 (df=24)
	30대	221	7.7	12.7	51.6	23.1	5.0	0.0	
	40대	611	7.0	12.3	46.0	27.2	7.2	0.3	
	50대	294	9.2	11.2	43.5	24.5	11.6	0.0	
	60~74세	28	3.6	10.7	46.4	32.1	7.1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173	7.8	12.2	46.5	25.6	7.8	0.2	-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7.8	12.6	45.9	25.4	8.1	0.2	3.821 (df=6)
	기타	136	8.1	8.8	50.7	27.2	5.1	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8.2	15.4	43.2	26.2	6.8	0.2	13.661* (df=6)
	기타	647	7.6	9.6	49.1	25.0	8.5	0.2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8.2	12.0	48.8	22.8	7.9	0.3	4.972 (df=6)
	기타	831	7.7	12.3	45.5	26.7	7.7	0.1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7.7	10.7	47.2	25.7	8.6	0.0	3.081 (df=6)
	기타	745	7.9	13.0	46.0	25.5	7.2	0.3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193	10.4	11.4	47.7	19.2	11.4	0.0	10.107 (df=6)
	기타	980	7.3	12.3	46.2	26.8	7.0	0.2	
학력	고졸	129	6.2	14.7	49.6	23.3	6.2	0.0	7.256 (df=12)
	전문대/대졸	913	8.3	12.2	46.3	24.9	8.1	0.2	
	대학원졸	131	6.1	9.9	44.3	32.8	6.9	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0	15.0	5.0	35.0	35.0	10.0	0.0	38.690** (df=18)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239	11.7	15.9	44.8	23.0	4.2	0.4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515	7.8	14.4	43.1	25.6	8.9	0.2	
	600만원 이상	399	5.3	7.5	52.4	26.6	8.3	0.0	
직업군	관리자	258	4.7	11.6	46.9	28.7	8.1	0.0	60.152 (df=6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28	8.8	7.9	49.1	28.1	6.1	0.0	
	사무 종사자	338	7.7	15.7	44.4	24.9	7.4	0.0	
	서비스 종사자	42	9.5	9.5	40.5	31.0	9.5	0.0	
	판매 종사자	60	16.7	10.0	41.7	23.3	8.3	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5	0.0	20.0	40.0	40.0	0.0	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42	9.5	14.3	42.9	26.2	7.1	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7	11.8	5.9	47.1	35.3	0.0	0.0	
	단순노무 종사자	23	0.0	17.4	60.9	17.4	4.3	0.0	
	군인	4	0.0	0.0	25.0	25.0	50.0	0.0	
	기타	156	9.0	12.8	49.4	17.3	10.3	1.3	

〈표 29-1〉 초·중·고 전반에서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

구분	응답 비율														χ^2	
	사례수	지식	기술, 능력	사고력	창의력	기본 생활 습관	정서적 감수성	도덕성	사회성, 인간관계	민주 시민성	리더십	건강, 체력	기타 (인성 교육 등)	계		
전체	5,000	6.7	4.1	9.9	15.0	12.1	3.9	16.3	27.3	3.3	0.3	1.2	0.0	100.0	-	
성별	남	2,531	6.8	4.5	10.4	17.1	11.0	3.6	15.5	26.2	3.3	0.2	1.3	0.1	100.0	31.907** (df=12)
	여	2,469	6.6	3.6	9.4	12.8	13.2	4.1	17.2	28.3	3.3	0.3	1.1	0.0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6.8	5.2	11.9	15.9	12.1	4.1	13.0	26.4	3.1	0.2	1.2	0.0	100.0	38.252 (df=36)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7.3	3.9	9.7	16.0	12.1	3.7	16.7	26.7	2.5	0.3	1.2	0.0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6.2	3.6	9.2	14.2	12.1	3.6	17.4	28.2	4.0	0.3	1.2	0.1	100.0	
	읍·면(군)지역	324	7.4	4.0	10.2	13.9	12.3	5.9	17.0	25.6	2.5	0.3	0.9	0.0	100.0	
연령	19~29세	929	8.0	6.9	11.7	12.5	11.7	5.0	17.4	22.3	3.2	0.2	1.0	0.1	100.0	121.254** * (df=48)
	30대	870	8.6	4.9	11.7	14.4	11.8	4.3	17.1	24.1	1.7	0.1	1.0	0.1	100.0	
	40대	1,046	5.9	3.4	9.0	15.9	11.6	3.0	14.1	31.5	3.5	0.7	1.4	0.0	100.0	
	50대	1,084	6.4	2.9	8.2	16.8	11.7	4.0	16.8	27.8	4.2	0.1	1.2	0.0	100.0	
	60~74세	1,071	5.0	2.7	9.4	14.9	13.6	3.4	16.5	29.4	3.5	0.3	1.2	0.0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6.3	3.7	9.6	16.4	12.6	3.1	15.1	28.0	3.5	0.4	1.3	0.0	100.0	42.600*** (df=12)
	자녀 없음	2,073	7.2	4.6	10.3	13.0	11.4	4.9	18.1	26.2	3.0	0.1	1.0	0.0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6.8	4.6	10.1	18.9	11.5	2.9	12.1	27.2	3.9	0.8	1.3	0.0	100.0	46.019*** (df=12)
	기타	3,963	6.6	3.9	9.8	14.0	12.3	4.1	17.5	27.3	3.2	0.2	1.2	0.1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8.4	5.1	9.7	20.7	10.5	2.5	13.5	24.7	2.5	1.0	1.5	0.0	100.0	37.189*** (df=12)
	기타	4,474	6.5	3.9	9.9	14.3	12.3	4.0	16.7	27.6	3.4	0.2	1.1	0.0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7.0	5.0	8.2	17.0	11.7	2.0	12.3	30.7	4.7	0.6	0.9	0.0	100.0	15.103 (df=12)
	기타	4,658	6.7	4.0	10.0	14.8	12.2	4.0	16.6	27.0	3.2	0.3	1.2	0.0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6.1	3.7	9.3	16.8	12.6	4.0	9.1	31.1	5.8	0.5	0.9	0.0	100.0	29.327** (df=12)
	기타	4,572	6.7	4.1	10.0	14.8	12.1	3.8	17.0	26.9	3.1	0.3	1.2	0.0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5.1	2.8	9.4	17.3	11.5	3.9	12.4	31.3	4.9	0.0	1.4	0.0	100.0	24.943* (df=12)
	기타	4,434	6.9	4.2	10.0	14.7	12.2	3.9	16.8	26.7	3.1	0.3	1.2	0.0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4.8	2.9	9.6	9.6	10.6	8.7	21.2	28.8	3.8	0.0	0.0	0.0	100.0	67.726** (df=36)
	고졸	886	7.7	5.5	10.6	13.5	13.5	3.6	16.1	25.2	2.0	0.2	1.8	0.1	100.0	
	전문대/대졸	3,545	6.6	3.7	9.7	15.4	11.7	3.9	16.2	28.3	3.3	0.3	1.0	0.0	100.0	
	대학원졸	465	6.0	4.1	10.3	15.7	13.3	2.8	16.3	23.0	5.8	0.6	1.7	0.2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7.7	2.6	9.0	11.6	10.3	5.8	17.4	30.1	3.2	0.2	1.9	0.0	100.0	61.650** (df=36)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7.5	4.1	9.5	14.1	11.5	4.0	17.9	27.9	2.3	0.2	1.1	0.0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5.6	4.6	10.7	16.5	13.3	2.9	15.3	26.7	3.0	0.3	1.1	0.1	100.0	
	600만원 이상	1,340	6.6	3.9	9.8	15.4	12.2	4.2	15.3	26.2	4.9	0.4	1.1	0.1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6.1	4.2	11.0	20.1	12.4	3.7	13.8	23.8	3.5	0.2	1.1	0.0	100.0	198.408** * (df=12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7.2	4.4	11.4	14.9	10.9	3.3	15.6	26.4	4.2	0.9	0.8	0.1	100.0	
	사무 종사자	1,214	6.5	4.2	9.0	15.4	12.8	4.0	15.1	28.8	3.0	0.2	1.1	0.0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6.3	2.1	11.1	15.3	11.1	4.7	20.0	25.8	3.2	0.0	0.5	0.0	100.0	
	판매 종사자	210	4.8	5.7	11.4	17.1	15.2	1.4	18.1	22.9	1.4	0.5	1.4	0.0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9.4	9.4	3.1	15.6	12.5	3.1	15.6	31.3	0.0	0.0	0.0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9.7	3.6	10.9	14.5	14.5	2.4	18.8	20.0	4.2	0.0	1.2	0.0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3.9	6.9	11.8	16.7	15.7	2.9	11.8	26.5	2.0	0.0	1.0	1.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9.5	8.5	10.1	14.1	12.6	4.5	17.1	20.6	1.5	0.0	1.5	0.0	100.0	
	군인	13	0.0	15.4	23.1	0.0	7.7	0.0	15.4	38.5	0.0	0.0	0.0	0.0	100.0	
기타	1,325	6.5	2.6	8.5	12.1	11.3	4.7	18.3	30.7	3.5	0.2	1.7	0.0	100.0		

〈표 29-2〉 초등학교에서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

구분	응답 비율														χ^2	
	사례수	지식	기술, 기능	사고력	창의력	기본 생활 습관	정서적 감수성	도덕성	사회성, 인간 관계	민주 시민성	리더십	건강, 체력	기타 (인성 교육 등)	계		
전 체	5,000	1.5	2.0	5.6	16.3	30.6	8.7	17.3	13.1	1.5	0.4	3.1	0.0	100.0	-	
성별	남	2,531	1.5	1.8	5.7	16.1	27.9	10.2	18.2	13.0	1.6	0.5	3.5	0.0	100.0	33.450*** (df=11)
	여	2,469	1.5	2.2	5.4	16.4	33.3	7.1	16.4	13.3	1.3	0.3	2.7	0.0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1.7	2.0	6.7	16.8	26.6	9.8	16.6	14.5	1.8	0.5	2.9	0.1	100.0	29.793 (df=33)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1.6	2.1	5.1	17.1	30.8	9.2	18.2	11.8	1.0	0.3	2.9	0.0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1.2	2.0	5.4	15.5	32.0	8.0	17.4	13.4	1.5	0.3	3.2	0.0	100.0	
	읍·면(군)지역	324	2.2	2.2	5.2	16.7	31.8	8.3	14.8	12.7	1.9	0.6	3.7	0.0	100.0	
연령	19~29세	929	1.8	1.9	5.3	14.7	25.6	8.9	20.3	16.4	2.2	0.4	2.3	0.1	100.0	104.905*** (df=44)
	30대	870	2.1	2.3	5.3	17.8	27.1	9.3	18.0	14.7	0.9	0.2	2.2	0.0	100.0	
	40대	1,046	0.8	3.2	5.8	20.0	29.6	8.6	14.5	12.5	1.6	0.5	2.9	0.0	100.0	
	50대	1,084	1.4	1.4	5.5	13.9	34.1	8.3	17.5	11.5	1.7	0.6	4.0	0.1	100.0	
	60~74세	1,071	1.4	1.4	5.9	15.1	35.0	8.3	16.5	11.3	0.9	0.2	3.9	0.0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1.3	2.0	5.8	16.4	32.7	8.5	16.0	12.1	1.2	0.4	3.6	0.0	100.0	34.013*** (df=11)
	자녀 없음	2,073	1.7	2.0	5.3	16.2	27.6	8.8	19.2	14.7	1.8	0.4	2.4	0.0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1.0	3.0	5.6	18.6	30.1	9.0	14.9	12.1	1.4	0.7	3.6	0.1	100.0	23.230* (df=11)
	기타	3,963	1.6	1.8	5.6	15.7	30.7	8.6	17.9	13.4	1.5	0.3	3.0	0.0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1.5	3.2	6.5	20.7	28.5	8.6	14.3	11.2	1.0	1.0	3.4	0.2	100.0	27.451** (df=11)
	기타	4,474	1.5	1.9	5.5	15.8	30.8	8.7	17.7	13.4	1.5	0.3	3.1	0.0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0.6	3.5	4.4	18.7	27.8	6.7	17.5	13.7	2.0	0.6	4.4	0.0	100.0	14.247 (df=11)
	기타	4,658	1.5	1.9	5.7	16.1	30.8	8.8	17.3	13.1	1.4	0.4	3.0	0.0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0.5	2.8	5.1	15.0	34.1	9.6	15.7	11.7	1.9	0.2	3.5	0.0	100.0	10.342 (df=11)
	기타	4,572	1.6	1.9	5.6	16.4	30.2	8.6	17.5	13.3	1.4	0.4	3.1	0.0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1.1	1.4	4.9	15.2	38.3	7.8	16.1	10.1	0.7	0.4	4.1	0.0	100.0	25.713** (df=11)
	기타	4,434	1.5	2.1	5.7	16.4	29.6	8.8	17.5	13.5	1.6	0.4	3.0	0.0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1.9	1.0	7.7	16.3	24.0	14.4	19.2	13.5	0.0	0.0	1.9	0.0	100.0	47.885* (df=33)
	고졸	886	2.5	1.5	7.2	16.1	29.6	8.0	16.7	13.3	0.9	0.2	3.8	0.1	100.0	
	전문대/대졸	3,545	1.2	2.3	5.2	16.3	30.7	8.7	17.7	12.9	1.5	0.4	2.9	0.0	100.0	
	대학원졸	465	1.3	1.1	4.5	16.1	33.1	8.0	14.6	14.8	2.4	0.4	3.4	0.2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3.2	2.2	5.2	14.6	30.5	6.9	20.2	10.8	2.4	0.2	3.9	0.0	100.0	49.269* (df=33)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1.5	2.2	6.4	15.7	29.3	9.1	16.8	13.9	1.3	0.4	3.4	0.0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0.8	1.5	4.8	16.7	32.1	9.2	17.5	12.2	1.7	0.4	3.0	0.0	100.0	
	600만원 이상	1,340	1.5	2.3	5.7	17.1	30.4	8.1	16.7	14.0	1.0	0.4	2.5	0.1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1.1	3.7	5.6	19.2	28.0	7.4	17.4	11.4	1.3	0.2	4.7	0.0	100.0	163.235** (df=11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1.8	1.2	4.1	15.5	31.0	9.5	18.3	14.6	1.5	0.6	1.8	0.0	100.0	
	사무 종사자	1,214	1.0	2.1	6.0	16.5	27.8	9.1	17.1	15.2	1.8	0.3	3.0	0.1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1.6	1.6	5.8	15.8	27.4	8.4	20.0	12.6	1.6	1.1	4.2	0.0	100.0	
	판매 종사자	210	0.5	1.9	5.7	16.7	28.6	12.9	19.0	9.5	0.5	0.0	4.8	0.0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3.1	6.3	6.3	21.9	31.3	6.3	9.4	15.6	0.0	0.0	0.0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2.4	3.6	5.5	15.2	30.3	10.9	13.9	12.7	1.2	1.2	3.0	0.0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1.0	3.9	4.9	19.6	22.5	13.7	14.7	15.7	1.0	0.0	2.0	1.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4.5	2.0	6.0	18.1	29.1	9.0	18.1	9.5	0.5	0.5	2.5	0.0	100.0	
	군인	13	0.0	0.0	7.7	30.8	38.5	0.0	7.7	7.7	0.0	0.0	7.7	0.0	100.0	
	기타	1,325	1.4	1.4	6.1	14.6	35.5	7.1	16.9	12.0	1.6	0.2	3.2	0.0	100.0	

〈표 29-3〉 중학교에서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

구분	응답 비율													χ^2		
	사례수	자식	기술 가능	사고력	창의력	기본 생활 습관	정서적 감수성	도덕 성	사회성, 인간 관계	민주 시민성	리더 십	건강, 체력	기타 (인성 교육등)		계	
전 체	5,000	4.5	2.4	13.6	11.9	8.3	10.0	18.1	22.3	5.7	1.1	2.1	0.0	100.0	-	
성별	남	2,531	4.2	2.2	13.7	13.8	9.4	9.7	17.5	20.9	5.3	0.9	2.3	0.1	100.0	36.254*** (df=12)
	여	2,469	4.7	2.6	13.5	9.9	7.3	10.3	18.8	23.7	6.2	1.3	1.9	0.0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3.8	2.7	13.1	12.5	9.1	10.4	17.4	20.3	6.6	1.5	2.6	0.0	100.0	26.764 (df=36)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4.9	2.2	13.2	11.3	9.1	10.2	18.1	23.5	5.1	0.9	1.6	0.0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4.5	2.3	14.0	12.2	7.8	9.5	18.3	22.7	5.6	0.9	2.2	0.1	100.0	
	읍·면(군)지역	324	4.9	2.8	13.9	9.9	7.1	12.0	19.1	19.8	7.1	1.5	1.9	0.0	100.0	
연령	19~29세	929	3.4	2.9	12.4	9.7	10.0	10.0	19.5	22.5	6.2	1.2	2.0	0.1	100.0	80.883** (df=48)
	30대	870	4.8	2.9	14.3	11.1	10.2	9.7	17.1	21.3	4.6	2.0	2.0	0.1	100.0	
	40대	1,046	6.1	2.5	15.4	11.6	7.8	8.7	17.7	22.4	4.9	1.1	1.9	0.0	100.0	
	50대	1,084	4.1	2.1	11.9	13.5	7.9	9.2	19.0	24.0	5.7	0.6	1.9	0.0	100.0	
	60~74세	1,071	3.9	1.8	14.2	13.1	6.3	12.3	17.2	21.0	7.1	0.7	2.4	0.0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5.0	2.3	14.1	12.7	7.2	10.0	17.3	22.0	6.1	1.2	2.1	0.0	100.0	29.246** (df=12)
	자녀 없음	2,073	3.8	2.6	12.9	10.7	9.9	10.0	19.3	22.6	5.3	0.9	2.0	0.0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5.4	2.7	14.6	13.8	8.5	8.6	16.1	21.4	5.4	1.6	1.9	0.0	100.0	18.487 (df=12)
	기타	3,963	4.2	2.3	13.4	11.4	8.3	10.4	18.6	22.5	5.8	0.9	2.1	0.1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6.1	2.9	16.9	12.4	9.1	9.3	16.2	18.6	5.5	2.1	1.0	0.0	100.0	23.464* (df=12)
	기타	4,474	4.3	2.3	13.2	11.8	8.2	10.1	18.3	22.7	5.8	1.0	2.2	0.0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5.8	3.2	14.6	14.6	7.9	9.9	12.6	23.1	5.0	1.2	2.0	0.0	100.0	12.095 (df=12)
	기타	4,658	4.4	2.3	13.5	11.7	8.4	10.0	18.5	22.2	5.8	1.1	2.1	0.0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4.7	2.1	11.0	15.4	7.9	7.9	15.9	25.2	5.6	1.2	3.0	0.0	100.0	15.140 (df=12)
	기타	4,572	4.5	2.4	13.9	11.5	8.4	10.2	18.3	22.0	5.8	1.1	2.0	0.0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4.8	1.8	12.4	13.6	6.5	10.8	16.8	24.0	5.8	1.1	2.5	0.0	100.0	8.695 (df=12)
	기타	4,434	4.4	2.5	13.8	11.7	8.6	9.9	18.3	22.0	5.7	1.1	2.0	0.0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3.8	2.9	10.6	14.4	5.8	13.5	21.2	18.3	4.8	2.9	1.9	0.0	100.0	56.903* (df=36)
	고졸	886	4.5	1.8	13.1	11.1	10.6	12.2	17.5	21.1	5.0	0.5	2.6	0.1	100.0	
	전문대/대졸	3,545	4.6	2.5	13.5	12.2	8.0	9.5	18.0	22.8	5.7	1.3	1.9	0.0	100.0	
	대학원졸	465	3.9	2.8	16.1	10.1	7.5	8.6	19.4	21.5	7.7	0.2	1.9	0.2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6.0	1.7	10.5	11.6	7.5	10.1	21.5	20.2	6.7	0.2	3.9	0.0	100.0	66.687** (df=36)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4.7	2.4	13.4	11.3	8.9	10.8	18.5	20.7	6.1	1.3	1.8	0.0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3.8	1.9	13.8	12.5	8.8	10.5	17.3	22.3	5.3	1.7	1.9	0.1	100.0	
	600만원 이상	1,340	4.5	3.1	14.8	12.0	7.3	8.4	17.4	24.8	5.4	0.3	1.9	0.1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4.8	3.7	14.5	12.7	7.9	10.0	17.4	21.4	3.7	1.6	2.3	0.0	100.0	192.228** * (df=12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3.7	1.7	12.3	11.2	8.9	10.0	19.6	22.7	6.2	1.5	2.0	0.1	100.0	
	사무 종사자	1,214	4.0	2.8	13.4	11.4	7.8	9.2	18.3	24.9	5.8	0.9	1.3	0.0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3.7	1.6	11.6	11.1	7.4	12.6	12.1	29.5	6.3	2.6	1.6	0.0	100.0	
	판매 종사자	210	5.7	1.9	12.4	14.3	10.0	8.6	20.0	23.8	2.9	0.0	0.5	0.0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0.0	6.3	15.6	15.6	12.5	3.1	25.0	18.8	0.0	3.1	0.0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6.7	3.0	15.2	9.1	11.5	13.3	17.0	16.4	6.1	0.6	1.2	0.0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3.9	2.9	8.8	14.7	18.6	14.7	13.7	13.7	5.9	0.0	2.0	1.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6.0	1.5	15.1	14.1	11.6	11.6	16.1	16.6	4.5	1.0	2.0	0.0	100.0	
	군인	13	0.0	0.0	23.1	7.7	15.4	7.7	7.7	38.5	0.0	0.0	0.0	0.0	100.0	
	기타	1,325	4.9	2.0	14.6	11.8	6.6	9.7	18.5	20.8	6.9	0.8	3.2	0.0	100.0	

〈표 29-4〉 고등학교에서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

구분	응답 비율														χ ²	
	사례수	지식	기술, 기능	사고력	창의력	기본 생활 습관	정서적 감수성	도덕성	사회성, 인간관계	민주 시민성	리더십	건강, 체력	기타 (인성 교육등)	계		
전 체	5,000	15.3	7.0	10.6	8.1	4.1	4.0	10.3	21.6	12.0	4.9	2.1	0.0	100.0	-	
성별	남	2,531	14.6	6.8	10.6	9.9	4.2	4.2	10.4	20.8	11.8	4.4	2.2	0.1	100.0	30.207** (df=12)
	여	2,469	16.0	7.2	10.7	6.2	3.9	3.7	10.2	22.4	12.3	5.3	1.9	0.0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15.3	6.1	12.5	7.9	4.3	4.3	9.7	20.3	11.8	5.6	2.2	0.0	100.0	35.099 (df=36)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14.4	7.2	10.1	8.1	4.8	4.2	10.6	21.9	11.3	5.3	2.0	0.0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15.9	7.8	10.4	8.0	3.5	3.5	10.4	22.0	12.1	4.1	2.2	0.1	100.0	
	읍·면(군)지역	324	14.8	4.0	9.0	8.6	4.0	5.2	9.9	21.6	15.1	6.5	1.2	0.0	100.0	
연령	19~29세	929	16.6	8.1	9.4	6.4	4.7	5.3	12.4	20.7	8.7	4.6	3.1	0.1	100.0	127.018*** (df=48)
	30대	870	16.6	9.1	9.2	8.9	5.4	4.8	10.1	19.2	9.7	4.5	2.5	0.1	100.0	
	40대	1,046	18.2	5.9	11.5	7.5	4.3	4.1	9.0	21.5	10.7	5.3	2.1	0.0	100.0	
	50대	1,084	13.5	5.0	11.3	8.8	3.6	3.2	10.7	23.3	14.3	5.0	1.4	0.0	100.0	
	60~74세	1,071	12.2	7.7	11.4	8.8	2.6	2.8	9.5	22.8	15.8	4.9	1.5	0.0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15.5	6.8	11.2	8.0	3.5	3.4	9.0	21.9	13.3	5.6	1.8	0.0	100.0	48.461*** (df=12)
	자녀 없음	2,073	15.1	7.4	9.7	8.1	4.9	4.8	12.1	21.2	10.2	3.9	2.5	0.0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18.3	6.2	12.4	7.9	4.1	3.8	8.1	20.1	11.2	6.1	1.8	0.0	100.0	26.630** (df=12)
	기타	3,963	14.5	7.3	10.1	8.1	4.0	4.0	10.9	22.0	12.2	4.6	2.1	0.1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18.8	5.9	10.3	7.2	6.1	3.6	9.5	20.2	10.3	5.9	2.3	0.0	100.0	16.607 (df=12)
	기타	4,474	14.9	7.2	10.7	8.2	3.8	4.0	10.4	21.8	12.2	4.8	2.1	0.0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19.9	7.3	11.1	6.4	3.5	4.4	7.3	20.8	10.2	7.0	2.0	0.0	100.0	14.666 (df=12)
	기타	4,658	15.0	7.0	10.6	8.2	4.1	4.0	10.5	21.7	12.2	4.7	2.1	0.0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15.9	5.8	15.7	8.9	2.3	3.7	5.6	20.6	13.6	6.5	1.4	0.0	100.0	31.148** (df=12)
	기타	4,572	15.2	7.2	10.1	8.0	4.2	4.0	10.7	21.7	11.9	4.7	2.1	0.0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13.8	4.9	12.5	7.8	2.7	4.4	8.5	21.2	15.7	6.7	1.8	0.0	100.0	24.999* (df=12)
	기타	4,434	15.5	7.3	10.4	8.1	4.2	3.9	10.5	21.7	11.5	4.6	2.1	0.0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10.6	7.7	10.6	10.6	1.9	3.8	16.3	20.2	11.5	5.8	1.0	0.0	100.0	82.829*** (df=36)
	고졸	886	10.5	10.0	9.8	8.1	5.2	4.7	10.4	24.0	10.6	4.9	1.6	0.1	100.0	
	전문대/대졸	3,545	16.3	6.5	10.5	7.7	3.8	3.7	10.2	21.9	12.2	4.8	2.2	0.0	100.0	
	대학원졸	465	17.8	4.9	12.9	10.3	4.1	4.5	9.5	15.3	13.1	5.2	2.2	0.2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12.0	7.5	12.0	8.6	3.7	4.1	11.6	20.9	13.3	4.1	2.2	0.0	100.0	69.851** (df=36)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12.6	8.0	10.1	8.3	4.4	5.0	11.6	21.2	12.3	4.4	2.3	0.0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15.1	6.7	10.8	8.3	4.2	3.7	9.0	22.1	12.9	4.7	2.3	0.1	100.0	
	600만원 이상	1,340	20.0	6.2	10.5	7.3	3.6	3.1	9.8	21.9	10.1	5.9	1.6	0.1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13.4	6.9	9.7	9.2	3.4	4.5	10.6	19.3	14.3	6.0	2.7	0.0	100.0	197.004*** (df=12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18.1	6.5	10.3	9.3	4.2	4.3	10.2	18.5	11.3	5.1	2.2	0.1	100.0	
	사무 종사자	1,214	16.0	6.9	11.0	7.1	3.9	4.0	9.6	24.2	10.9	4.9	1.6	0.0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10.5	6.3	10.5	8.4	5.3	3.2	10.0	24.7	11.1	7.4	2.6	0.0	100.0	
	판매 종사자	210	13.8	7.1	12.9	8.1	2.9	3.3	11.0	24.8	9.5	5.2	1.4	0.0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15.6	6.3	6.3	12.5	3.1	0.0	6.3	9.4	31.3	9.4	0.0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13.9	4.2	9.1	6.7	6.7	4.8	11.5	20.6	17.6	0.6	4.2	0.0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17.6	8.8	5.9	9.8	5.9	8.8	6.9	21.6	8.8	2.9	2.0	1.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8.5	8.0	9.0	16.6	6.0	5.0	12.1	20.1	8.5	4.5	1.5	0.0	100.0	
	군인	13	23.1	7.7	0.0	0.0	7.7	7.7	15.4	23.1	7.7	0.0	7.7	0.0	100.0	
	기타	1,325	15.5	7.8	11.6	6.3	3.7	3.1	10.6	22.2	12.7	4.5	2.0	0.0	100.0	

〈표 30-1〉 초등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 할 교과

구분	응답 비율															χ^2		
	사례수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역사/도덕포함)	과학(통합과학)	체육	예술(음악, 미술, 연극)	기술·가정	기계·SW 등 전문교과	제2외국어	한문	교양(철학, 환경 등)	기타		계	
전체	5,000	17.3	3.6	5.8	10.7	23.5	4.7	10.6	11.5	1.6	1.5	1.0	0.5	7.3	0.3	100.0	-	
성별	남	2,531	16.7	4.0	5.9	11.1	24.3	5.1	10.4	9.1	1.8	1.6	0.9	0.5	8.4	0.4	100.0	48.879*** (df=17)
	여	2,469	17.9	3.3	5.8	10.2	22.8	4.3	10.8	14.0	1.5	1.3	1.1	0.5	6.3	0.2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14.2	4.6	6.8	9.5	23.9	4.6	12.0	12.1	2.3	1.3	0.8	0.5	6.8	0.5	100.0	69.303* (df=51)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18.2	3.5	6.7	11.4	21.4	3.9	8.7	12.7	1.4	1.6	0.9	0.7	8.7	0.1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17.9	3.4	5.0	11.2	24.0	4.8	11.1	10.7	1.5	1.4	1.2	0.4	6.9	0.3	100.0	
	읍·면(군)지역	324	18.2	2.8	5.2	7.1	27.5	7.4	9.6	10.8	1.9	1.5	0.6	0.3	6.8	0.3	100.0	
연령	19~29세	929	13.5	4.5	6.6	10.9	17.1	5.9	12.9	9.9	2.7	3.4	1.4	0.3	10.9	0.0	100.0	223.649*** (df=68)
	30대	870	13.3	3.9	7.9	12.4	21.4	5.3	12.1	11.4	2.4	1.1	1.6	0.0	6.7	0.5	100.0	
	40대	1,046	19.9	3.8	5.9	9.4	22.4	4.8	11.7	12.9	1.0	1.1	0.7	0.7	5.7	0.1	100.0	
	50대	1,084	18.5	3.3	4.2	9.9	28.3	4.2	7.9	11.3	1.6	0.8	0.6	0.7	8.2	0.4	100.0	
	60~74세	1,071	20.1	2.8	5.1	11.2	27.2	3.6	8.9	11.9	0.8	0.9	0.8	0.6	5.5	0.6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18.5	3.9	5.9	10.6	25.1	4.6	9.8	11.7	1.2	0.9	0.7	0.6	6.1	0.3	100.0	68.808*** (df=17)
	자녀 없음	2,073	15.6	3.2	5.7	10.9	21.3	4.8	11.6	11.3	2.3	2.2	1.4	0.3	9.0	0.2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18.9	5.1	7.5	11.3	22.2	5.0	10.4	10.1	1.3	1.1	0.6	0.7	5.9	0.0	100.0	33.726** (df=17)
	기타	3,963	16.9	3.3	5.4	10.5	23.9	4.6	10.6	11.9	1.7	1.6	1.1	0.4	7.7	0.4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20.0	5.5	9.9	10.5	20.9	5.5	10.6	8.7	1.5	1.3	0.6	0.2	4.8	0.0	100.0	40.420** (df=17)
	기타	4,474	17.0	3.4	5.4	10.7	23.8	4.6	10.5	11.8	1.7	1.5	1.1	0.5	7.6	0.3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20.5	3.8	7.0	8.5	24.0	4.4	12.6	10.2	1.2	1.5	0.6	0.9	5.0	0.0	100.0	12.978 (df=17)
	기타	4,658	17.1	3.6	5.8	10.8	23.5	4.7	10.4	11.6	1.7	1.5	1.0	0.5	7.5	0.3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18.5	5.6	4.7	13.3	22.2	4.0	8.4	12.1	0.9	0.9	0.7	1.2	7.5	0.0	100.0	21.335 (df=17)
	기타	4,572	17.2	3.5	5.9	10.4	23.7	4.8	10.8	11.5	1.7	1.5	1.0	0.4	7.3	0.3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15.4	4.1	4.6	11.1	27.6	4.6	8.5	13.3	0.7	0.4	0.7	0.7	7.8	0.7	100.0	31.153* (df=17)
	기타	4,434	17.5	3.6	6.0	10.6	23.0	4.7	10.8	11.3	1.8	1.6	1.0	0.5	7.3	0.2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13.5	1.9	3.8	12.5	26.0	5.8	12.5	10.6	1.9	0.0	2.9	1.0	7.7	0.0	100.0	78.803** (df=51)
	고졸	886	21.4	3.5	5.4	11.2	25.5	4.7	9.0	8.8	1.9	1.7	0.9	0.6	4.7	0.6	100.0	
	전문대/대졸	3,545	16.3	3.6	6.1	10.5	23.2	4.6	10.9	12.1	1.7	1.6	1.0	0.4	7.7	0.2	100.0	
	대학원졸	465	17.6	4.3	4.9	10.5	21.9	4.9	10.8	12.5	0.2	0.6	0.6	0.6	9.7	0.6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20.6	3.4	3.4	11.0	23.7	3.9	10.5	9.7	1.1	1.7	1.1	0.2	8.8	0.9	100.0	63.606 (df=51)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16.7	3.5	5.8	11.1	22.9	4.9	10.9	11.3	2.0	1.9	1.1	0.4	7.3	0.2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17.9	4.6	6.0	11.2	22.6	4.7	10.4	11.7	1.6	1.5	1.0	0.4	6.3	0.1	100.0	
	600만원 이상	1,340	16.2	2.8	6.5	9.4	25.4	4.8	10.4	12.2	1.5	0.7	0.9	0.7	8.1	0.4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19.2	4.0	5.5	10.6	25.9	5.3	8.9	10.1	2.4	0.5	0.6	0.8	6.0	0.2	100.0	216.861** (df=17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14.6	3.7	5.2	11.7	20.8	6.4	10.7	14.0	0.8	1.6	1.0	0.4	8.9	0.3	100.0	
	사무 종사자	1,214	15.7	3.6	6.8	11.8	24.2	4.0	12.4	10.4	1.6	1.9	1.2	0.2	6.2	0.1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15.3	1.1	6.8	12.6	25.8	5.8	10.5	12.6	1.6	0.5	1.1	1.6	4.7	0.0	100.0	
	판매 종사자	210	18.1	2.9	9.0	12.4	22.9	3.3	8.6	9.0	2.4	1.0	1.4	1.4	7.1	0.5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34.4	3.1	3.1	9.4	15.6	9.4	6.3	9.4	0.0	3.1	0.0	0.0	6.3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15.2	4.8	8.5	10.9	22.4	6.1	11.5	9.7	3.0	1.8	0.6	0.0	4.8	0.6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12.7	3.9	5.9	6.9	30.4	5.9	6.9	9.8	6.9	2.9	0.0	0.0	7.8	0.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21.1	3.0	4.5	12.6	23.1	7.5	7.5	9.0	2.5	2.0	2.0	0.0	4.5	0.5	100.0	
	군인	13	7.7	0.0	0.0	30.8	23.1	15.4	7.7	0.0	7.7	0.0	0.0	0.0	7.7	0.0	100.0	
	기타	1,325	19.6	3.9	5.0	8.2	23.4	3.1	10.7	12.6	1.1	1.4	0.9	0.5	9.1	0.5	100.0	

〈표 30-2〉 중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 할 교과

구분	응답 비율																χ ²	
	사례수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통합 과학)	체육	예술(음악, 미술, 연극)	기술·가정	기계·SW등 전문 교과	제2 외국어	한문	교양(철학, 환경 등)	기타	계		
전 체	5,000	4.2	8.5	10.3	15.6	20.9	6.7	5.5	5.4	2.2	4.4	2.6	0.9	12.5	0.3	100.0	-	
성별	남	2,531	4.0	8.9	9.8	15.9	21.2	7.7	5.8	4.7	2.2	4.3	2.2	0.9	12.1	0.3	100.0	25.980
	여	2,469	4.3	8.1	10.8	15.2	20.7	5.7	5.2	6.1	2.3	4.5	3.1	0.9	12.9	0.2	100.0	(df=17)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5.0	8.9	10.7	12.7	17.4	8.0	6.9	7.3	3.8	3.9	2.2	0.3	12.3	0.6	100.0	81.303**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4.3	8.2	10.1	16.6	21.2	6.4	5.1	5.1	1.9	4.8	2.8	1.3	12.3	0.0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3.6	8.9	10.0	16.0	22.3	6.3	5.3	4.7	1.7	4.5	2.8	0.9	12.5	0.3	100.0	
	읍·면(군)지역	324	4.9	5.2	12.0	17.0	20.7	7.1	4.6	5.9	2.8	3.4	1.9	0.9	13.6	0.0	100.0	
연령	19~29세	929	3.3	6.2	9.5	12.5	13.9	8.0	6.6	6.1	3.6	9.0	3.3	1.0	16.9	0.1	100.0	244.581***
	30대	870	3.9	7.6	11.3	16.0	19.0	5.7	7.2	6.8	3.6	4.6	2.4	0.2	11.3	0.5	100.0	
	40대	1,046	5.2	10.7	10.5	13.5	23.6	6.1	5.1	4.6	1.1	3.2	3.2	1.3	12.0	0.0	100.0	
	50대	1,084	4.3	8.5	10.4	17.2	21.8	6.6	4.8	5.8	1.1	3.3	1.8	1.3	12.8	0.3	100.0	
	60~74세	1,071	3.9	9.1	9.9	18.4	25.2	7.1	4.3	4.0	2.1	2.5	2.5	0.6	9.9	0.5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4.5	9.6	11.2	15.3	22.6	7.2	4.9	4.9	1.7	3.1	2.2	1.1	11.4	0.3	100.0	89.777***
	자녀 없음	2,073	3.7	6.9	9.0	16.0	18.6	6.0	6.3	6.1	2.9	6.2	3.2	0.7	14.1	0.2	100.0	(df=17)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4.3	12.5	13.6	12.6	19.1	7.7	4.2	4.6	1.8	3.4	2.1	1.7	12.2	0.0	100.0	74.469***
	기타	3,963	4.1	7.4	9.4	16.4	21.4	6.5	5.8	5.6	2.3	4.7	2.8	0.7	12.6	0.3	100.0	(df=17)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4.0	12.5	13.9	12.5	18.8	8.6	4.0	5.3	2.5	3.2	2.7	1.5	10.5	0.0	100.0	36.794**
	기타	4,474	4.2	8.0	9.9	15.9	21.2	6.5	5.7	5.4	2.2	4.5	2.6	0.8	12.7	0.3	100.0	(df=17)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4.7	10.2	15.5	12.3	17.0	7.3	4.1	5.0	2.3	1.8	2.3	2.3	15.2	0.0	100.0	35.667**
	기타	4,658	4.1	8.4	9.9	15.8	21.2	6.7	5.6	5.4	2.2	4.6	2.6	0.8	12.3	0.3	100.0	(df=17)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4.2	13.6	12.9	12.9	18.9	7.2	4.7	3.7	0.7	4.2	2.1	1.9	13.1	0.0	100.0	34.934**
	기타	4,572	4.2	8.0	10.1	15.8	21.1	6.7	5.6	5.6	2.4	4.4	2.7	0.8	12.4	0.3	100.0	(df=17)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4.4	9.2	11.5	14.3	21.7	7.4	3.2	5.3	1.1	4.1	0.7	1.8	14.8	0.5	100.0	36.075**
	기타	4,434	4.1	8.4	10.1	15.7	20.8	6.6	5.8	5.4	2.4	4.4	2.9	0.8	12.2	0.2	100.0	(df=17)
학력	중졸 이하	104	5.8	7.7	7.7	20.2	18.3	7.7	8.7	2.9	4.8	5.8	1.0	0.0	9.6	0.0	100.0	86.177**
	고졸	886	3.2	8.1	11.4	17.0	23.5	7.8	4.9	5.2	2.1	3.0	3.7	1.0	8.7	0.3	100.0	
	전문대/대졸	3,545	4.3	8.3	10.4	15.6	20.3	6.2	5.7	5.5	2.1	4.9	2.5	0.9	13.1	0.2	100.0	
	대학원졸	465	4.7	10.8	8.2	11.6	21.7	8.6	4.3	5.6	2.4	3.0	1.5	1.1	15.9	0.6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5.4	7.3	9.0	16.6	21.9	3.9	6.0	6.0	3.2	2.8	2.2	0.6	14.4	0.6	100.0	87.780**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3.5	7.1	9.7	16.0	21.3	7.8	5.6	5.8	2.3	5.4	3.2	0.8	11.4	0.2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3.1	9.8	11.5	15.4	21.2	6.7	5.3	5.5	2.1	3.8	2.8	1.2	11.5	0.1	100.0	
	600만원 이상	1,340	5.7	9.1	10.1	14.9	19.9	6.5	5.5	4.6	2.0	4.4	1.8	0.7	14.3	0.4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4.3	9.8	12.6	15.3	23.2	6.9	5.5	4.8	1.6	2.6	2.4	1.4	9.5	0.0	100.0	156.40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4.0	8.9	9.0	12.5	21.7	7.2	6.6	5.2	2.0	5.6	2.3	1.1	13.6	0.3	100.0	
	사무 종사자	1,214	4.4	8.0	10.5	16.2	19.9	6.4	5.7	5.8	2.3	4.4	2.9	0.7	12.6	0.1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4.2	7.4	10.5	17.4	19.5	6.3	5.3	5.8	3.2	4.2	3.7	1.1	11.6	0.0	100.0	
	판매 종사자	210	3.3	8.1	12.9	15.2	22.9	9.0	4.3	4.8	1.4	5.2	1.9	0.0	10.5	0.5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3.1	6.3	9.4	18.8	15.6	9.4	6.3	3.1	6.3	0.0	0.0	3.1	18.8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3.6	7.9	7.3	13.3	24.2	9.1	10.3	3.6	4.2	4.8	1.8	0.6	9.1	0.0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0.0	12.7	8.8	17.6	19.6	2.9	5.9	7.8	3.9	3.9	2.0	1.0	13.7	0.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6.0	5.0	15.1	19.1	19.6	7.5	6.0	5.0	3.0	6.0	1.5	0.5	5.0	0.5	100.0	
	군인	13	0.0	0.0	15.4	38.5	15.4	7.7	7.7	7.7	7.7	0.0	0.0	0.0	0.0	0.0	100.0	
	기타	1,325	4.2	8.7	9.3	16.4	20.2	6.0	4.1	5.7	1.9	4.2	3.1	0.8	14.9	0.5	100.0	

〈표 30-3〉 고등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 할 교과

구분	응답 비율															χ^2		
	사례수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통합과학)	체육	예술(음악, 미술, 연극)	기술·가정	기계·SW 등 전문교과	제2외국어	한문	교양(철학, 환경 등)	기타		계	
전체	5,000	3.3	7.7	11.8	11.8	11.4	5.7	4.3	3.8	2.9	11.0	3.3	0.7	22.1	0.3	100.0	-	
성별	남	2,531	3.2	8.5	11.6	11.3	12.3	6.3	4.0	3.4	3.4	10.4	2.9	0.6	21.7	0.4	100.0	29.722* (df=18)
	여	2,469	3.4	6.8	11.9	12.3	10.6	5.1	4.5	4.1	2.3	11.5	3.7	0.9	22.6	0.2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3.6	8.4	12.7	11.7	10.9	5.5	4.4	4.4	3.9	9.2	3.3	0.7	20.6	0.5	100.0	62.001 (df=54)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3.1	8.2	11.4	11.5	10.9	6.3	4.5	3.9	2.5	11.5	3.6	0.6	22.0	0.1	100.0	
	중소도시(시 지역) 읍·면(군)지역	2,359	3.3	7.3	11.4	11.9	12.3	5.7	4.2	2.9	2.8	10.9	3.2	0.7	22.9	0.4	100.0	
연령	19~29세	929	2.0	6.9	10.8	11.7	10.5	5.7	5.4	5.6	3.9	12.8	4.5	0.9	19.1	0.2	100.0	159.310*** (df=72)
	30대	870	4.1	7.7	11.3	12.3	11.1	5.1	6.1	4.8	3.8	11.8	3.6	0.6	17.2	0.5	100.0	
	40대	1,046	4.3	10.3	12.4	10.0	12.0	5.4	3.9	3.5	2.1	10.0	2.9	0.4	22.6	0.1	100.0	
	50대	1,084	3.8	6.7	12.6	11.3	11.9	6.5	3.3	2.8	1.8	8.5	2.7	1.0	26.8	0.4	100.0	
	60~74세	1,071	2.3	6.8	11.5	13.5	11.4	5.8	3.2	2.5	3.1	12.0	3.2	0.7	23.5	0.4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3.5	8.7	13.3	11.1	10.9	5.8	3.7	3.2	2.7	10.3	2.8	0.8	22.9	0.3	100.0	53.626*** (df=18)
	자녀 없음	2,073	3.1	6.3	9.6	12.7	12.2	5.5	5.2	4.5	3.0	11.9	4.1	0.6	21.0	0.3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3.6	12.4	16.6	10.3	9.5	4.9	3.8	3.4	2.6	9.2	2.2	0.7	20.7	0.2	100.0	89.034*** (df=18)
	기타	3,963	3.3	6.5	10.5	12.1	12.0	5.9	4.4	3.9	2.9	11.4	3.6	0.7	22.5	0.3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3.6	11.2	16.7	10.6	9.7	4.2	4.2	4.4	2.9	9.7	3.0	0.2	19.2	0.4	100.0	40.590** (df=18)
	기타	4,474	3.3	7.3	11.2	11.9	11.6	5.9	4.3	3.7	2.9	11.1	3.4	0.8	22.4	0.3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3.5	12.6	17.5	11.7	9.1	4.1	2.9	3.2	2.6	10.5	1.5	0.6	20.2	0.0	100.0	32.937* (df=18)
	기타	4,658	3.3	7.3	11.3	11.8	11.6	5.8	4.4	3.8	2.9	11.0	3.5	0.7	22.2	0.3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3.7	13.3	17.1	8.9	7.9	5.6	2.8	3.5	2.1	8.4	1.6	0.9	24.1	0.0	100.0	51.610*** (df=18)
	기타	4,572	3.3	7.2	11.3	12.0	11.8	5.7	4.4	3.8	2.9	11.2	3.5	0.7	21.9	0.3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4.2	9.4	12.9	9.4	11.0	6.7	4.1	1.9	2.7	9.7	2.8	0.7	23.9	0.7	100.0	27.681 (df=18)
	기타	4,434	3.2	7.5	11.6	12.1	11.5	5.6	4.3	4.0	2.9	11.1	3.4	0.7	21.9	0.2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0.0	5.8	8.7	13.5	8.7	7.7	6.7	3.8	6.7	12.5	5.8	1.9	18.3	0.0	100.0	86.203** (df=54)
	고졸	886	2.8	5.5	12.5	10.2	12.2	5.6	4.9	4.5	4.1	13.1	2.6	0.6	21.1	0.3	100.0	
	전문대/대졸	3,545	3.3	7.8	11.9	12.1	11.6	5.5	4.1	3.7	2.5	10.6	3.6	0.7	22.3	0.3	100.0	
	대학원졸	465	4.9	11.8	9.9	11.6	9.5	7.3	4.3	2.8	2.6	9.0	1.7	0.6	23.4	0.4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3.0	4.3	7.7	14.6	12.5	5.8	3.4	4.1	2.4	11.6	4.3	1.1	24.5	0.6	100.0	103.773*** (df=54)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2.7	6.5	12.0	11.3	11.4	5.4	3.9	4.0	3.1	12.5	4.2	0.7	22.0	0.2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2.6	9.4	12.4	12.5	10.8	5.8	4.6	4.2	2.9	10.6	3.3	0.6	20.2	0.2	100.0	
	600만원 이상	1,340	5.0	8.4	12.2	10.5	11.9	5.9	4.7	2.8	2.8	9.3	1.9	0.7	23.6	0.4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4.3	7.7	14.0	11.4	10.6	7.2	5.0	3.4	3.4	8.2	2.1	1.1	21.4	0.0	100.0	229.847** (df=18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3.6	9.8	10.7	10.1	11.2	6.4	4.7	4.7	3.3	11.4	3.3	0.8	19.8	0.2	100.0	
	사무 종사자	1,214	3.0	6.8	12.4	13.3	11.8	3.9	4.6	3.7	2.5	11.4	4.0	0.2	22.0	0.3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3.7	7.4	11.6	15.3	6.8	5.8	4.2	4.2	3.7	10.0	2.6	1.1	23.7	0.0	100.0	
	판매 종사자	210	3.8	8.6	13.8	11.4	14.8	5.2	1.4	2.4	4.3	9.5	2.4	1.0	21.0	0.5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3.1	0.0	25.0	6.3	6.3	3.1	6.3	0.0	0.0	34.4	3.1	3.1	9.4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4.2	7.3	8.5	9.7	13.9	4.2	6.7	6.7	4.8	13.3	1.8	0.0	18.8	0.0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0.0	5.9	8.8	11.8	17.6	6.9	2.9	3.9	2.9	17.6	4.9	0.0	16.7	0.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6.0	4.5	13.6	8.5	11.6	8.0	5.0	4.0	5.5	13.1	4.0	1.0	14.6	0.5	100.0	
	군인	13	0.0	0.0	7.7	38.5	7.7	15.4	7.7	0.0	0.0	15.4	0.0	0.0	7.7	0.0	100.0	
기타	1,325	2.6	7.8	10.7	11.8	11.2	6.0	3.4	3.2	1.7	10.2	3.5	0.9	26.5	0.5	100.0		

〈표 31-1〉 초등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교육

구분	응답 비율																		χ ²
	사례수	창의성 교육	인성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진로 교육	직업 교육	특기·적성 교육	세계 시민 교육	성교육	환경 교육	안전 교육	평화 통일 교육	융합 교육	정보 소양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타	계		
전 체	5,000	18.6	43.7	4.5	3.1	3.1	4.8	4.2	6.8	2.3	5.8	0.5	1.0	1.3	0.3	0.1	100.0	-	
성별	남	2,531	18.8	43.3	4.9	3.4	3.2	5.0	4.3	5.8	1.9	5.8	0.6	0.9	1.6	0.3	0.0	100.0	24.818 (df=15)
	여	2,469	18.5	44.2	4.1	2.8	3.0	4.5	4.1	7.7	2.6	5.8	0.3	1.1	1.0	0.2	0.1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16.2	41.4	5.7	3.3	4.5	4.4	5.5	6.9	3.0	5.7	0.6	1.1	1.1	0.3	0.1	100.0	61.595 (df=45)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20.5	43.8	3.7	3.5	2.8	5.0	4.2	7.0	2.2	4.4	0.2	1.2	1.3	0.2	0.1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18.8	44.7	4.4	2.8	2.8	4.7	3.6	7.0	1.9	6.3	0.5	0.8	1.5	0.3	0.0	100.0	
	읍·면(군)지역	324	17.0	43.8	4.6	3.1	2.2	4.9	5.2	4.3	3.7	8.3	0.6	1.2	0.6	0.3	0.0	100.0	
연령	19~29세	929	14.6	36.0	4.6	4.5	5.2	6.0	5.4	11.3	2.9	5.4	0.4	0.5	2.4	0.6	0.1	100.0	223.919** * (df=60)
	30대	870	20.2	37.5	5.1	4.0	4.9	4.6	4.6	9.4	2.1	4.6	0.8	1.0	0.9	0.1	0.1	100.0	
	40대	1,046	21.4	44.9	3.7	2.8	1.9	6.0	3.8	5.4	1.9	5.8	0.4	0.8	1.0	0.2	0.0	100.0	
	50대	1,084	19.6	49.6	4.4	1.7	2.0	3.6	3.8	4.5	1.8	5.7	0.4	1.5	1.3	0.1	0.0	100.0	
	60~74세	1,071	17.1	48.5	4.8	2.8	2.0	3.7	3.8	4.4	2.8	7.3	0.4	1.0	1.0	0.4	0.1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19.1	45.3	4.8	2.8	2.8	4.7	4.0	4.9	2.2	6.5	0.4	1.2	1.2	0.2	0.0	100.0	62.428*** (df=15)
	자녀 없음	2,073	17.9	41.5	4.1	3.5	3.5	4.9	4.6	9.5	2.5	4.9	0.5	0.7	1.5	0.4	0.1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20.5	42.8	5.0	2.7	3.8	5.5	4.2	4.8	1.6	5.8	0.6	1.7	0.9	0.0	0.0	100.0	31.745** (df=15)
	기타	3,963	18.1	44.0	4.4	3.2	2.9	4.6	4.2	7.3	2.4	5.8	0.4	0.8	1.4	0.4	0.1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24.0	38.2	5.7	2.9	4.0	5.7	4.0	5.5	1.3	5.9	0.8	1.1	1.0	0.0	0.0	100.0	25.355* (df=15)
	기타	4,474	18.0	44.4	4.4	3.1	3.0	4.6	4.3	6.9	2.4	5.8	0.4	1.0	1.3	0.3	0.1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17.3	45.6	5.8	2.3	2.9	5.6	4.1	5.8	0.9	5.6	0.6	2.0	1.5	0.0	0.0	100.0	12.739 (df=15)
	기타	4,658	18.7	43.6	4.4	3.1	3.1	4.7	4.3	6.8	2.4	5.8	0.5	0.9	1.3	0.3	0.1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16.6	47.7	4.7	2.8	3.3	5.8	4.0	4.0	2.1	5.8	0.2	2.1	0.9	0.0	0.0	100.0	18.258 (df=15)
	기타	4,572	18.8	43.4	4.5	3.1	3.1	4.7	4.3	7.0	2.3	5.8	0.5	0.9	1.3	0.3	0.1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18.9	51.1	3.5	1.4	1.6	3.2	4.1	5.1	1.9	5.7	0.5	1.9	1.1	0.0	0.0	100.0	34.412** (df=15)
	기타	4,434	18.6	42.8	4.6	3.3	3.3	5.0	4.3	7.0	2.3	5.8	0.5	0.9	1.3	0.3	0.1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14.4	46.2	0.0	2.9	5.8	3.8	4.8	6.7	4.8	8.7	1.0	1.0	0.0	0.0	0.0	100.0	45.091 (df=45)
	고졸	886	17.8	43.0	3.8	4.1	3.7	5.5	4.5	6.3	2.0	6.0	0.5	0.9	1.4	0.5	0.0	100.0	
	전문대/대졸	3,545	18.9	43.4	4.7	2.9	2.9	4.7	3.9	7.2	2.4	5.8	0.5	1.0	1.4	0.3	0.1	100.0	
	대학원졸	465	19.1	47.3	5.2	2.6	2.6	3.9	5.8	4.1	1.5	4.7	0.4	1.3	1.1	0.2	0.2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15.7	47.5	2.4	2.2	2.8	4.9	4.1	8.8	2.6	6.5	0.2	1.3	0.6	0.4	0.0	100.0	47.447 (df=45)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18.4	43.7	4.8	3.3	3.2	4.8	4.2	7.5	2.4	5.0	0.7	0.8	0.9	0.3	0.1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18.7	42.4	4.6	3.0	3.5	4.7	4.6	6.8	2.1	6.7	0.3	0.7	1.7	0.2	0.1	100.0	
600만원 이상	1,340	19.9	44.1	4.9	3.2	2.5	4.6	4.0	5.2	2.3	5.6	0.4	1.4	1.5	0.3	0.1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23.3	39.1	5.2	4.7	2.6	6.0	4.2	5.5	1.6	4.8	0.2	1.1	1.6	0.2	0.0	100.0	191.218* (df=15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18.1	44.6	5.0	2.4	3.8	4.8	6.0	6.2	1.8	4.5	0.6	0.9	0.8	0.3	0.2	100.0	
	사무 종사자	1,214	17.4	44.2	4.0	2.8	3.5	4.9	3.1	8.4	2.6	6.0	0.7	0.6	1.6	0.2	0.0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20.0	42.6	4.2	4.2	5.3	2.1	4.7	6.3	2.6	6.8	0.5	0.0	0.5	0.0	0.0	100.0	
	판매 종사자	210	18.1	46.2	3.8	3.3	3.8	5.7	3.3	8.1	0.0	4.3	0.0	2.4	0.5	0.5	0.0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21.9	40.6	3.1	3.1	6.3	6.3	0.0	3.1	0.0	12.5	0.0	0.0	3.1	0.0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20.6	37.0	5.5	4.2	4.2	4.8	3.0	9.1	3.0	4.2	0.0	1.8	1.8	0.6	0.0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13.7	37.3	5.9	3.9	4.9	8.8	3.9	4.9	3.9	6.9	1.0	2.9	2.0	0.0	0.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19.6	36.7	7.0	5.0	3.0	6.5	6.0	7.0	2.5	3.5	1.0	1.0	1.0	0.0	0.0	100.0	
	군인	13	15.4	15.4	7.7	7.7	15.4	15.4	0.0	7.7	0.0	15.4	0.0	0.0	0.0	0.0	0.0	100.0	
	기타	1,325	17.8	47.5	3.9	2.3	1.6	3.5	4.2	6.0	2.8	7.3	0.2	1.1	1.4	0.4	0.1	100.0	

〈표 31-2〉 중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교육

구분	응답 비율																	χ ²	
	사례수	창의성 교육	인성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진로 교육	직업 교육	특기·적성 교육	세계 시민 교육	성교육	환경 교육	안전 교육	평화 통일 교육	융합 교육	정보 소양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타	계		
전 체	5,000	9.7	35.6	8.4	6.8	3.4	10.3	4.5	11.3	2.5	2.0	0.7	1.3	3.0	0.4	0.1	100.0	-	
성별	남	2,531	11.7	34.8	9.1	7.1	3.2	9.7	4.4	9.1	2.5	2.5	0.8	0.8	3.7	0.4	0.1	100.0	79.321*** (df=16)
	여	2,469	7.6	36.4	7.6	6.6	3.6	10.9	4.6	13.5	2.5	1.5	0.6	1.8	2.2	0.4	0.0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11.1	31.5	6.8	7.4	4.7	11.7	6.2	10.2	2.6	2.3	0.8	0.9	3.2	0.6	0.1	100.0	66.475* (df=48)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10.1	34.8	8.3	6.8	4.1	10.2	3.9	11.4	2.8	2.5	0.6	1.6	2.6	0.4	0.0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8.9	38.0	8.5	6.6	2.7	9.8	4.3	11.7	2.3	1.6	0.7	1.4	3.1	0.4	0.1	100.0	
	읍·면(군)지역	324	9.6	33.6	13.0	7.4	1.9	10.5	3.4	11.1	2.5	2.8	0.9	0.6	2.8	0.0	0.0	100.0	
연령	19~29세	929	4.7	28.2	6.1	10.8	4.4	10.7	5.0	16.9	4.2	2.2	1.1	0.6	4.2	0.8	0.2	100.0	258.672*** (df=64)
	30대	870	8.9	33.0	7.1	6.4	5.4	10.6	5.1	14.6	2.2	2.8	0.8	1.0	1.7	0.2	0.2	100.0	
	40대	1,046	9.3	38.9	8.2	6.5	2.3	11.4	4.7	10.1	1.9	1.6	0.7	1.1	3.0	0.3	0.0	100.0	
	50대	1,084	11.9	40.4	8.7	5.8	3.4	8.3	4.2	6.8	2.2	2.0	0.8	2.1	3.0	0.4	0.0	100.0	
	60~74세	1,071	12.8	35.9	11.2	5.1	2.0	10.8	3.8	9.4	2.1	1.7	0.3	1.4	2.9	0.5	0.0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11.2	36.6	9.1	6.5	3.1	10.6	4.4	8.9	2.3	2.1	0.6	1.5	2.9	0.4	0.0	100.0	73.871*** (df=16)
	자녀 없음	2,073	7.5	34.2	7.3	7.3	3.8	10.0	4.7	14.7	2.8	1.9	0.9	1.1	3.1	0.5	0.2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11.0	33.8	7.3	8.8	3.2	12.0	5.1	8.3	1.9	2.5	1.0	1.4	3.7	0.1	0.0	100.0	38.317** (df=16)
	기타	3,963	9.3	36.0	8.7	6.3	3.5	9.9	4.3	12.1	2.6	1.9	0.7	1.3	2.8	0.5	0.1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11.2	33.1	7.0	7.8	4.0	13.5	4.4	9.3	2.1	2.7	1.1	1.1	2.5	0.2	0.0	100.0	17.785 (df=16)
	기타	4,474	9.5	35.9	8.5	6.7	3.3	9.9	4.5	11.5	2.5	1.9	0.7	1.3	3.0	0.4	0.1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9.9	32.5	6.4	10.8	2.3	11.7	7.6	8.2	0.9	2.3	0.9	1.8	4.7	0.0	0.0	100.0	34.337** (df=16)
	기타	4,658	9.7	35.8	8.5	6.5	3.5	10.2	4.3	11.5	2.6	2.0	0.7	1.3	2.8	0.5	0.1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10.5	35.3	7.9	10.0	2.8	9.6	5.6	7.0	2.1	2.3	0.9	1.2	4.7	0.0	0.0	100.0	25.000 (df=16)
	기타	4,572	9.6	35.6	8.4	6.5	3.5	10.4	4.4	11.7	2.5	2.0	0.7	1.3	2.8	0.5	0.1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11.3	35.7	11.0	5.7	3.7	9.4	4.6	8.0	2.7	1.4	0.7	1.9	3.9	0.2	0.0	100.0	21.721 (df=16)
	기타	4,434	9.5	35.6	8.1	7.0	3.4	10.4	4.5	11.7	2.5	2.1	0.7	1.2	2.8	0.5	0.1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4.8	35.6	9.6	7.7	3.8	14.4	6.7	9.6	1.9	2.9	0.0	1.0	1.9	0.0	0.0	100.0	43.894 (df=48)
	고졸	886	8.2	33.2	8.4	7.7	3.0	12.9	4.3	12.3	2.6	2.3	0.9	1.4	2.4	0.6	0.0	100.0	
	전문대/대졸	3,545	9.7	36.1	8.3	6.6	3.6	9.7	4.5	11.4	2.5	2.1	0.7	1.2	3.1	0.4	0.1	100.0	
	대학원졸	465	13.5	36.1	8.8	6.7	2.4	9.2	4.7	9.0	2.2	0.9	0.9	2.2	3.0	0.4	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8.8	36.6	10.3	4.7	1.9	10.1	3.7	14.0	3.0	1.5	0.6	1.5	2.4	0.9	0.0	100.0	65.293* (df=48)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8.9	34.6	8.3	6.5	3.5	11.3	4.0	13.0	2.7	2.1	0.7	0.9	3.1	0.4	0.1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11.1	34.9	7.9	6.8	3.7	10.4	4.9	10.6	2.4	2.2	0.9	1.5	2.4	0.1	0.1	100.0	
직업군	600만원 이상	1,340	9.3	37.2	8.4	8.1	3.5	9.1	4.9	9.1	2.2	1.9	0.6	1.5	3.7	0.6	0.0	100.0	191.575* (df=160)
	관리자	621	13.4	35.6	8.1	6.3	4.2	10.5	4.8	6.8	3.1	2.4	0.6	1.3	2.9	0.2	0.0	100.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9.5	36.3	8.0	7.4	3.4	9.0	3.6	10.7	2.8	2.3	1.2	1.2	3.7	0.8	0.3	100.0	
	사무 종사자	1,214	8.9	35.3	7.7	8.5	3.0	10.0	4.8	12.9	2.5	1.9	0.6	0.8	3.0	0.2	0.0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6.8	33.7	10.0	8.9	2.6	9.5	3.2	13.7	3.7	4.7	2.1	1.1	0.0	0.0	0.0	100.0	
	판매 종사자	210	8.6	40.0	7.6	5.7	3.8	13.8	5.7	8.6	1.0	1.0	0.0	1.9	2.4	0.0	0.0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6.3	37.5	21.9	3.1	3.1	3.1	3.1	12.5	0.0	0.0	0.0	3.1	6.3	0.0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8.5	31.5	10.3	6.1	4.2	12.7	6.7	9.1	3.6	3.0	0.0	1.2	3.0	0.0	0.0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12.7	23.5	8.8	2.9	7.8	12.7	6.9	12.7	4.9	3.9	0.0	1.0	2.0	0.0	0.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9.0	34.7	8.0	7.5	3.0	13.1	7.0	6.0	3.5	2.5	0.5	0.5	3.5	1.0	0.0	100.0	
	군인	13	7.7	23.1	15.4	23.1	0.0	0.0	7.7	15.4	7.7	0.0	0.0	0.0	0.0	0.0	0.0	100.0	
기타	1,325	9.5	36.5	8.8	5.3	3.1	10.4	3.9	13.4	1.7	1.3	0.7	1.9	2.9	0.6	0.1	100.0		

〈표 31-3〉 고등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할 교육

구분	응답 비율																	χ ²	
	사례수	창의성 교육	인성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진로 교육	직업 교육	특기·적성 교육	세계 시민 교육	성교육	환경 교육	안전 교육	평화 통일 교육	융합 교육	정보 소양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타	계		
전 체	5,000	5.2	18.7	8.1	22.2	7.2	11.6	3.9	6.5	2.9	2.3	1.4	4.3	4.9	0.7	0.1	100.0	-	
성별	남	2,531	6.5	17.4	8.7	21.5	7.4	12.4	4.2	5.1	3.2	2.6	1.4	3.9	4.7	0.8	0.2	100.0	57.380*** (df=17)
	여	2,469	3.9	20.0	7.4	22.8	7.0	10.9	3.5	8.1	2.7	1.9	1.4	4.8	5.0	0.7	0.0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4.5	16.2	7.3	22.9	7.7	11.5	4.6	6.9	3.8	2.0	2.0	5.1	4.4	0.9	0.2	100.0	46.882 (df=51)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5.4	19.2	7.9	21.7	6.6	11.7	4.6	6.5	2.5	2.2	1.4	5.0	4.7	0.6	0.0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5.6	19.6	8.6	22.0	7.3	11.8	3.1	6.2	2.8	2.2	1.2	3.7	5.0	0.8	0.1	100.0	
	읍·면(군)지역	324	4.0	17.0	7.4	23.1	7.4	10.8	4.3	8.0	2.8	4.0	0.9	3.7	5.9	0.6	0.0	100.0	
연령	19~29세	929	2.8	16.9	4.4	22.2	9.4	8.6	4.2	11.0	5.1	2.8	1.5	4.0	6.0	1.0	0.2	100.0	223.147*** (df=68)
	30대	870	3.9	17.1	6.9	23.3	8.3	12.1	4.5	8.5	3.0	2.6	2.0	3.0	3.7	0.9	0.2	100.0	
	40대	1,046	5.4	19.8	8.5	21.8	6.6	14.0	3.2	5.4	2.8	1.8	1.5	4.6	3.7	0.8	0.1	100.0	
	50대	1,084	7.0	22.4	8.9	19.2	5.8	11.9	4.8	4.5	2.4	2.3	0.6	4.9	4.7	0.6	0.0	100.0	
	60~74세	1,071	6.3	16.6	10.8	24.6	6.4	11.4	2.9	4.2	1.7	1.9	1.5	4.9	6.1	0.6	0.0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6.3	18.1	9.1	22.8	6.7	11.8	3.8	5.1	2.6	2.2	1.3	4.7	4.9	0.8	0.0	100.0	63.517*** (df=17)
	자녀 없음	2,073	3.7	19.5	6.6	21.4	8.0	11.5	4.0	8.5	3.4	2.4	1.5	3.9	4.9	0.7	0.2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5.0	16.8	7.9	24.9	6.9	12.2	3.8	6.0	3.4	2.2	1.4	4.9	3.7	0.9	0.1	100.0	19.144 (df=17)
	기타	3,963	5.3	19.2	8.1	21.5	7.3	11.5	3.9	6.7	2.8	2.3	1.4	4.2	5.2	0.7	0.1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4.6	16.7	7.2	24.0	6.7	12.4	4.9	6.3	3.2	2.7	1.5	5.3	3.2	1.1	0.2	100.0	20.772 (df=17)
	기타	4,474	5.3	18.9	8.2	22.0	7.3	11.6	3.8	6.6	2.9	2.2	1.4	4.2	5.1	0.7	0.1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4.1	15.8	6.7	23.4	9.4	16.4	2.6	6.7	2.3	2.0	1.2	5.8	3.2	0.3	0.0	100.0	20.464 (df=17)
	기타	4,658	5.3	18.9	8.2	22.1	7.0	11.3	4.0	6.5	3.0	2.3	1.4	4.2	5.0	0.8	0.1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5.8	17.1	7.9	28.0	6.8	9.6	3.0	5.4	3.7	2.3	1.4	3.5	4.7	0.7	0.0	100.0	14.260 (df=17)
	기타	4,572	5.2	18.8	8.1	21.6	7.2	11.8	4.0	6.6	2.8	2.3	1.4	4.4	4.9	0.7	0.1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7.6	16.1	9.4	24.7	4.8	11.3	3.7	3.7	2.8	2.5	0.7	5.5	6.4	0.9	0.0	100.0	33.522* (df=17)
	기타	4,434	4.9	19.0	7.9	21.9	7.5	11.7	3.9	6.9	2.9	2.2	1.5	4.2	4.7	0.7	0.1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2.9	25.0	4.8	21.2	7.7	11.5	2.9	6.7	1.9	4.8	1.9	4.8	3.8	0.0	0.0	100.0	77.041* (df=51)
	고졸	886	3.6	17.2	8.5	21.7	8.7	12.5	4.7	5.5	4.5	3.0	1.7	2.8	5.0	0.6	0.0	100.0	
	전문대/대졸	3,545	5.3	18.8	7.8	22.2	7.1	11.7	3.7	7.1	2.6	2.2	1.4	4.5	4.8	0.8	0.1	100.0	
	대학원졸	465	8.0	19.4	9.7	23.2	5.4	9.9	4.1	4.5	2.4	0.6	0.9	5.6	5.6	0.6	0.2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5.4	20.9	7.7	23.0	5.4	11.8	3.4	7.3	2.2	1.9	1.3	3.9	5.2	0.6	0.0	100.0	46.872 (df=51)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4.7	18.7	7.6	22.3	7.2	12.2	4.5	6.5	2.9	3.0	1.2	4.0	4.3	0.8	0.1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4.8	18.3	8.3	20.8	7.7	12.1	3.5	7.2	3.5	1.9	1.6	4.2	5.3	0.8	0.1	100.0	
	600만원 이상	1,340	6.3	18.4	8.4	23.4	7.2	10.4	3.7	5.4	2.6	1.9	1.4	5.1	4.9	0.6	0.1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6.6	17.1	11.0	20.8	6.4	12.9	4.5	5.5	2.4	2.6	1.9	3.9	4.0	0.5	0.0	100.0	190.279 (df=17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5.9	20.7	7.6	20.9	8.0	10.0	3.4	6.5	3.0	1.4	1.1	5.1	4.7	1.4	0.3	100.0	
	사무 종사자	1,214	4.0	18.5	6.4	22.4	7.7	13.0	4.0	7.7	3.0	2.8	1.6	3.9	4.5	0.5	0.1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2.6	18.4	12.1	18.9	8.9	13.7	2.1	6.8	4.2	2.6	1.1	1.1	6.3	1.1	0.0	100.0	
	판매 종사자	210	4.8	21.0	5.2	22.4	8.1	10.0	4.3	5.7	3.8	1.0	1.4	5.7	5.7	1.0	0.0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3.1	3.1	15.6	25.0	12.5	18.8	9.4	3.1	0.0	3.1	0.0	0.0	6.3	0.0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3.6	14.5	7.9	25.5	6.7	11.5	3.0	9.7	3.6	5.5	1.8	2.4	3.0	1.2	0.0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6.9	10.8	6.9	27.5	7.8	12.7	7.8	5.9	2.0	1.0	3.9	2.0	4.9	0.0	0.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8.5	21.1	6.0	18.6	5.5	10.6	4.5	6.0	4.0	3.0	3.5	4.0	4.5	0.0	0.0	100.0	
	군인	13	7.7	23.1	7.7	15.4	7.7	15.4	23.1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기타	1,325	5.3	18.9	8.6	23.7	6.3	10.8	3.4	6.0	2.6	2.0	0.7	5.4	5.6	0.7	0.1	100.0	

〈표 32-1〉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 초·중·고 전반

구분	응답 비율								계	χ^2	
	사례수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기타 (취향에 맞는 진로 선택 역량 등)			
전 체	5,000	27.9	8.5	25.0	10.7	14.7	13.1	0.0	100.0	-	
성별	남	2,531	26.2	9.5	27.6	9.8	13.2	13.6	0.0	100.0	38.874*** (df=7)
	여	2,469	29.6	7.5	22.4	11.6	16.2	12.6	0.0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26.5	9.5	27.8	10.5	14.3	11.3	0.1	100.0	27.845 (df=21)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29.4	9.5	24.5	10.6	13.3	12.7	0.0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27.4	7.9	24.3	10.5	15.9	14.0	0.0	100.0	
	읍·면(군)지역	324	29.6	6.2	24.4	13.0	13.0	13.9	0.0	100.0	
연령	19~29세	929	26.3	10.3	22.3	11.6	16.0	13.5	0.0	100.0	54.623** (df=28)
	30대	870	25.1	11.3	26.0	12.4	14.1	11.0	0.1	100.0	
	40대	1,046	30.5	8.4	24.8	9.5	14.1	12.7	0.0	100.0	
	50대	1,084	30.2	6.5	24.8	9.4	15.1	14.0	0.0	100.0	
	60~74세	1,071	26.9	6.9	27.2	10.9	14.0	14.0	0.1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28.2	8.7	26.8	9.7	14.2	12.4	0.0	100.0	21.429** (df=7)
	자녀 없음	2,073	27.6	8.3	22.5	12.1	15.4	14.1	0.0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26.8	10.3	28.4	8.7	14.3	11.6	0.0	100.0	19.241** (df=7)
	기타	3,963	28.2	8.0	24.2	11.2	14.8	13.5	0.1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26.4	10.5	28.3	9.5	13.7	11.6	0.0	100.0	8.021 (df=7)
	기타	4,474	28.1	8.3	24.7	10.8	14.8	13.3	0.0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26.9	10.8	26.0	7.9	15.5	12.9	0.0	100.0	5.554 (df=7)
	기타	4,658	28.0	8.4	25.0	10.9	14.6	13.1	0.0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26.2	9.3	28.3	8.4	15.7	12.1	0.0	100.0	5.922 (df=7)
	기타	4,572	28.1	8.4	24.7	10.9	14.6	13.2	0.0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31.6	7.4	26.3	8.8	12.2	13.6	0.0	100.0	9.565 (df=7)
	기타	4,434	27.4	8.7	24.9	10.9	15.0	13.1	0.0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25.0	4.8	22.1	23.1	13.5	11.5	0.0	100.0	38.778* (df=21)
	고졸	886	25.1	9.6	27.4	10.9	15.7	11.3	0.0	100.0	
	전문대/대졸	3,545	27.9	8.4	24.7	10.5	14.8	13.7	0.1	100.0	
	대학원졸	465	34.2	8.0	24.1	8.6	12.5	12.7	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31.6	6.9	21.9	9.5	15.7	14.0	0.4	100.0	45.775** (df=21)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26.7	8.4	23.9	11.3	15.1	14.6	0.0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26.2	9.0	27.6	10.4	15.2	11.5	0.0	100.0	
	600만원 이상	1,340	30.1	8.7	24.5	10.7	13.2	12.9	0.0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27.1	8.9	30.4	8.9	13.8	11.0	0.0	100.0	119.926*** (df=7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27.2	9.9	26.2	9.7	14.6	12.4	0.0	100.0	
	사무 종사자	1,214	26.0	9.6	22.7	11.7	14.9	15.1	0.0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25.3	6.3	24.7	15.3	18.4	10.0	0.0	100.0	
	판매 종사자	210	29.0	8.1	25.2	11.4	12.4	13.8	0.0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25.0	6.3	28.1	6.3	21.9	12.5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24.2	10.3	27.9	10.9	12.7	13.3	0.6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18.6	9.8	35.3	8.8	14.7	12.7	0.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27.1	11.1	24.1	15.1	10.6	12.1	0.0	100.0	
	군인	13	7.7	0.0	38.5	23.1	30.8	0.0	0.0	100.0	
	기타	1,325	32.3	6.2	22.7	10.0	15.2	13.5	0.1	100.0	

〈표 32-2〉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 초등학교

구분	응답 비율								χ ²		
	사례수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기타 (취향에 맞는 진로 선택 역량 등)		계	
전 체	5,000	13.7	10.5	27.4	13.3	22.5	12.6	0.0	100.0	-	
성별	남	2,531	14.4	11.1	26.3	12.8	22.2	13.2	0.0	100.0	8.536 (df=6)
	여	2,469	13.1	9.8	28.5	13.7	22.7	12.1	0.0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12.8	12.1	28.1	15.1	20.4	11.4	0.0	100.0	42.322** (df=18)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15.0	10.4	28.0	13.2	20.9	12.4	0.0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13.5	9.8	27.1	11.6	24.2	13.7	0.0	100.0	
	읍·면(군)지역	324	13.0	10.2	24.4	20.7	22.5	9.3	0.0	100.0	
연령	19~29세	929	13.8	9.7	25.8	14.6	23.1	12.9	0.0	100.0	62.351*** (df=24)
	30대	870	13.1	12.9	32.0	13.9	17.5	10.6	0.1	100.0	
	40대	1,046	13.2	10.2	30.6	10.8	23.9	11.3	0.0	100.0	
	50대	1,084	14.1	10.1	24.4	13.1	22.4	15.8	0.0	100.0	
	60~74세	1,071	14.4	9.7	24.8	14.2	24.6	12.2	0.0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13.7	11.0	27.2	13.3	22.4	12.4	0.0	100.0	4.101 (df=6)
	자녀 없음	2,073	13.8	9.6	27.7	13.3	22.5	13.0	0.0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14.2	12.6	29.9	12.3	20.1	10.9	0.0	100.0	16.790* (df=6)
	기타	3,963	13.6	9.9	26.7	13.5	23.1	13.1	0.0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15.4	14.3	30.4	11.8	18.6	9.5	0.0	100.0	20.815** (df=6)
	기타	4,474	13.5	10.0	27.0	13.5	22.9	13.0	0.0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13.5	11.1	27.2	13.2	20.8	14.3	0.0	100.0	1.563 (df=6)
	기타	4,658	13.8	10.4	27.4	13.3	22.6	12.5	0.0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12.6	11.9	29.2	11.9	21.7	12.6	0.0	100.0	2.815 (df=6)
	기타	4,572	13.8	10.3	27.2	13.4	22.6	12.6	0.0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13.6	9.4	27.6	11.5	23.0	15.0	0.0	100.0	5.349 (df=6)
	기타	4,434	13.8	10.6	27.4	13.5	22.4	12.3	0.0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12.5	9.6	31.7	25.0	15.4	5.8	0.0	100.0	26.504 (df=18)
	고졸	886	13.4	10.0	27.5	14.7	22.2	12.1	0.0	100.0	
	전문대/대졸	3,545	14.0	10.8	27.0	12.8	22.8	12.6	0.0	100.0	
	대학원졸	465	12.5	9.0	28.8	12.0	22.4	15.3	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15.7	7.5	26.5	13.5	23.2	13.3	0.2	100.0	27.783 (df=18)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14.1	10.5	28.9	12.6	22.5	11.4	0.0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12.6	11.5	27.2	14.0	22.4	12.2	0.0	100.0	
	600만원 이상	1,340	14.0	10.2	26.0	13.1	22.2	14.4	0.0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13.8	12.9	25.6	13.8	21.3	12.6	0.0	100.0	101.075** (df=6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12.2	10.1	27.4	12.3	24.9	13.1	0.0	100.0	
	사무 종사자	1,214	13.4	11.0	29.4	13.9	20.8	11.4	0.0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13.2	8.4	28.9	13.2	22.6	13.7	0.0	100.0	
	판매 종사자	210	16.7	11.4	24.8	13.8	21.4	11.9	0.0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12.5	21.9	25.0	12.5	12.5	15.6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20.0	10.9	31.5	13.3	16.4	7.3	0.6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10.8	16.7	26.5	11.8	19.6	14.7	0.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13.6	16.1	24.6	15.6	18.1	12.1	0.0	100.0	
	군인	13	15.4	0.0	15.4	30.8	23.1	15.4	0.0	100.0	
	기타	1,325	14.2	7.7	26.6	12.7	24.9	13.9	0.0	100.0	

〈표 32-3〉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 중학교

구분	응답 비율								χ^2		
	사례수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기타 (취향에 맞는 진로 선택 역량 등)		계	
전 체	5,000	19.7	15.4	21.8	13.5	17.9	11.6	0.0	100.0	-	
성별	남	2,531	19.1	16.0	24.0	12.1	17.5	11.2	0.0	100.0	23.946** (df=6)
	여	2,469	20.4	14.7	19.5	15.0	18.4	12.0	0.0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18.2	16.3	21.5	14.0	19.0	11.1	0.0	100.0	9.079 (df=18)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19.5	15.3	22.2	14.1	17.2	11.7	0.0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20.0	15.0	22.0	13.3	18.1	11.6	0.0	100.0	
	읍·면(군)지역	324	23.5	15.1	19.8	12.0	17.0	12.7	0.0	100.0	
연령	19~29세	929	18.3	13.9	22.1	15.1	19.4	11.3	0.0	100.0	41.377* (df=24)
	30대	870	20.0	17.9	20.3	12.6	19.2	9.8	0.1	100.0	
	40대	1,046	21.0	15.0	21.2	11.1	19.7	12.0	0.0	100.0	
	50대	1,084	20.5	14.9	22.0	14.0	14.7	13.8	0.0	100.0	
	60~74세	1,071	18.7	15.4	23.1	14.8	17.3	10.7	0.0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20.2	15.6	22.4	13.7	16.7	11.5	0.0	100.0	9.862 (df=6)
	자녀 없음	2,073	19.1	15.1	21.0	13.3	19.7	11.7	0.0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22.1	15.8	23.0	11.9	16.5	10.8	0.0	100.0	9.900 (df=6)
	기타	3,963	19.1	15.3	21.5	14.0	18.3	11.8	0.0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20.9	16.2	24.3	12.5	16.3	9.7	0.0	100.0	5.600 (df=6)
	기타	4,474	19.6	15.3	21.5	13.7	18.1	11.8	0.0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21.3	18.4	22.2	11.7	16.4	9.9	0.0	100.0	5.097 (df=6)
	기타	4,658	19.6	15.2	21.8	13.7	18.1	11.7	0.0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24.1	13.8	21.7	11.2	16.1	13.1	0.0	100.0	8.971 (df=6)
	기타	4,572	19.3	15.5	21.8	13.8	18.1	11.5	0.0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19.6	13.4	23.7	14.1	16.8	12.4	0.0	100.0	3.708 (df=6)
	기타	4,434	19.7	15.6	21.6	13.5	18.1	11.5	0.0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16.3	16.3	22.1	15.4	15.4	14.4	0.0	100.0	18.445 (df=18)
	고졸	886	17.7	18.6	22.1	14.8	16.3	10.5	0.0	100.0	
	전문대/대졸	3,545	20.3	14.7	22.0	13.1	18.2	11.7	0.0	100.0	
	대학원졸	465	20.0	14.2	19.8	13.8	19.8	12.5	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21.3	13.1	23.2	13.1	16.1	12.9	0.2	100.0	22.410 (df=18)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18.1	16.0	22.3	14.4	18.7	10.5	0.0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20.4	15.6	20.6	13.4	17.8	12.2	0.0	100.0	
	600만원 이상	1,340	20.4	15.1	22.0	12.8	17.8	11.8	0.0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20.9	18.4	22.9	12.2	14.3	11.3	0.0	100.0	90.046** (df=6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18.1	16.1	20.9	13.5	18.8	12.6	0.0	100.0	
	사무 종사자	1,214	21.4	13.5	20.8	13.8	18.9	11.5	0.0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20.5	14.2	25.3	16.3	14.2	9.5	0.0	100.0	
	판매 종사자	210	17.6	16.2	24.3	11.4	20.5	10.0	0.0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9.4	31.3	25.0	12.5	15.6	6.3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21.2	21.8	21.8	12.1	14.5	7.9	0.6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18.6	18.6	26.5	15.7	12.7	7.8	0.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14.1	16.6	21.1	14.6	19.6	14.1	0.0	100.0	
	군인	13	23.1	23.1	7.7	15.4	30.8	0.0	0.0	100.0	
	기타	1,325	19.9	13.5	21.7	13.8	18.7	12.3	0.0	100.0	

〈표 32-4〉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 고등학교

구분	응답 비율								계	χ ²	
	사례수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기타 (취향에 맞는 진로 선택 역량 등)			
전 체	5,000	24.2	22.0	15.3	9.3	13.3	15.9	0.0	100.0	-	
성별	남	2,531	23.1	21.6	17.3	8.7	13.3	16.0	0.0	100.0	19.512** (df=6)
	여	2,469	25.4	22.4	13.3	9.9	13.3	15.8	0.0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24.8	20.6	17.8	9.7	12.4	14.7	0.0	100.0	15.509 (df=18)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24.4	21.6	14.0	9.2	14.7	16.2	0.0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24.1	22.8	14.9	9.2	13.1	15.9	0.0	100.0	
	읍·면(군)지역	324	21.9	21.3	16.7	9.9	11.7	18.5	0.0	100.0	
연령	19~29세	929	22.3	24.7	14.6	11.6	13.9	12.9	0.0	100.0	44.645** (df=24)
	30대	870	24.7	20.6	14.5	11.5	14.1	14.5	0.1	100.0	
	40대	1,046	25.2	22.5	14.3	8.4	12.6	16.9	0.0	100.0	
	50대	1,084	24.5	20.4	15.4	8.1	13.7	17.9	0.0	100.0	
	60~74세	1,071	24.1	21.8	17.6	7.6	12.3	16.6	0.0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24.1	21.8	15.5	8.8	13.2	16.7	0.0	100.0	6.423 (df=6)
	자녀 없음	2,073	24.4	22.2	15.1	10.0	13.5	14.8	0.0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23.9	23.4	14.0	10.3	13.5	14.9	0.0	100.0	5.582 (df=6)
	기타	3,963	24.3	21.6	15.7	9.0	13.2	16.2	0.0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23.0	22.2	13.1	11.2	15.0	15.4	0.0	100.0	6.132 (df=6)
	기타	4,474	24.3	21.9	15.6	9.1	13.1	16.0	0.0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25.4	23.7	13.2	7.6	14.3	15.8	0.0	100.0	3.386 (df=6)
	기타	4,658	24.1	21.8	15.5	9.4	13.2	15.9	0.0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25.5	22.9	14.5	10.5	13.1	13.6	0.0	100.0	3.193 (df=6)
	기타	4,572	24.1	21.9	15.4	9.2	13.3	16.1	0.0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25.8	21.2	16.4	7.1	11.5	18.0	0.0	100.0	8.239 (df=6)
	기타	4,434	24.0	22.1	15.2	9.6	13.5	15.6	0.0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30.8	16.3	15.4	9.6	19.2	8.7	0.0	100.0	19.878 (df=18)
	중졸	886	23.5	20.0	16.3	10.6	13.4	16.3	0.0	100.0	
	전문대/대졸	3,545	24.0	22.5	15.1	9.3	13.2	15.9	0.0	100.0	
	대학원졸	465	25.8	23.2	15.1	6.7	12.0	17.2	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24.5	20.0	17.0	9.2	13.3	15.7	0.2	100.0	19.968 (df=18)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25.3	22.6	14.4	9.2	13.0	15.5	0.0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22.6	21.4	16.7	9.6	14.0	15.8	0.0	100.0	
	600만원 이상	1,340	24.6	22.5	14.3	9.2	12.8	16.6	0.0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20.9	19.6	16.4	10.1	14.8	18.0	0.0	100.0	108.546*** (df=6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23.6	24.2	16.3	8.6	11.1	16.3	0.0	100.0	
	사무 종사자	1,214	24.9	21.7	13.6	10.5	14.5	14.9	0.0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22.1	17.9	14.2	11.1	19.5	15.3	0.0	100.0	
	판매 종사자	210	29.0	22.4	15.7	5.7	13.3	13.8	0.0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18.8	12.5	15.6	15.6	31.3	6.3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27.3	21.2	15.2	8.5	12.7	14.5	0.6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21.6	25.5	13.7	8.8	17.6	12.7	0.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22.6	14.6	17.1	15.1	14.1	16.6	0.0	100.0	
	군인	13	7.7	15.4	23.1	15.4	23.1	15.4	0.0	100.0	
	기타	1,325	25.4	23.5	15.7	7.7	11.2	16.5	0.0	100.0	

〈표 33-1〉 온라인 교육 수업이수 인정 찬반의견: 초·중·고 전반

구분		응답 비율				계	χ^2
		사례수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전 체		5,000	47.0	33.0	20.0	100.0	-
성별	남	2,531	49.8	34.0	16.2	100.0	46.852*** (df=2)
	여	2,469	44.1	32.1	23.9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47.1	34.0	18.9	100.0	4.824 (df=6)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47.1	32.6	20.3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47.1	32.3	20.6	100.0	
	읍·면(군)지역	324	45.1	37.3	17.6	100.0	
연령	19~29세	929	44.6	33.0	22.4	100.0	10.022 (df=8)
	30대	870	47.6	32.0	20.5	100.0	
	40대	1,046	47.8	33.5	18.7	100.0	
	50대	1,084	48.6	33.8	17.6	100.0	
	60~74세	1,071	46.1	32.8	21.1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47.6	34.2	18.1	100.0	15.611*** (df=2)
	자녀 없음	2,073	46.1	31.4	22.6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49.2	35.5	15.3	100.0	17.862*** (df=2)
	기타	3,963	46.4	32.4	21.2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49.0	34.0	16.9	100.0	3.465 (df=2)
	기타	4,474	46.7	32.9	20.3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51.8	30.1	18.1	100.0	3.360 (df=2)
	기타	4,658	46.6	33.3	20.1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49.8	37.1	13.1	100.0	14.306** (df=2)
	기타	4,572	46.7	32.7	20.6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48.4	36.9	14.7	100.0	12.221** (df=2)
	기타	4,434	46.8	32.5	20.7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32.7	26.9	40.4	100.0	42.442*** (df=6)
	고졸	886	46.0	31.3	22.7	100.0	
	전문대/대졸	3,545	47.0	33.5	19.5	100.0	
	대학원졸	465	51.6	34.2	14.2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46.0	29.7	24.3	100.0	38.873*** (df=6)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45.1	31.1	23.9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47.0	35.6	17.4	100.0	
	600만원 이상	1,340	49.6	33.7	16.7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52.3	36.6	11.1	100.0	57.466*** (df=2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47.4	35.2	17.4	100.0	
	사무 종사자	1,214	47.4	31.1	21.5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48.9	31.6	19.5	100.0	
	판매 종사자	210	47.6	33.3	19.0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43.8	28.1	28.1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47.9	29.7	22.4	100.0	
	정지·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48.0	33.3	18.6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44.7	31.2	24.1	100.0	
	군인	13	61.5	15.4	23.1	100.0	
기타	1,325	43.5	32.8	23.7	100.0		

〈표 33-2〉 온라인 교육 수업이수 인정 찬반의견: 초등학교

구분		응답 비율					χ^2
		사례수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계	
전 체		5,000	40.5	45.3	14.2	100.0	-
성별	남	2,531	41.6	45.8	12.6	100.0	10.599** (df=2)
	여	2,469	39.3	44.9	15.8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40.6	45.1	14.4	100.0	1.825 (df=6)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40.0	46.3	13.7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40.8	44.6	14.6	100.0	
	읍·면(군)지역	324	39.8	47.2	13.0	100.0	
연령	19~29세	929	37.7	44.5	17.9	100.0	22.631** (df=8)
	30대	870	39.4	44.8	15.7	100.0	
	40대	1,046	41.4	46.7	12.0	100.0	
	50대	1,084	43.0	45.1	11.9	100.0	
	60~74세	1,071	40.2	45.5	14.3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41.5	46.6	11.8	100.0	32.800*** (df=2)
	자녀 없음	2,073	38.9	43.5	17.6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43.8	47.6	8.6	100.0	34.163*** (df=2)
	기타	3,963	39.6	44.7	15.7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46.2	45.1	8.7	100.0	17.111*** (df=2)
	기타	4,474	39.8	45.4	14.8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46.5	42.1	11.4	100.0	6.170* (df=2)
	기타	4,658	40.0	45.6	14.4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41.6	50.9	7.5	100.0	18.279*** (df=2)
	기타	4,572	40.4	44.8	14.8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42.6	49.5	8.0	100.0	20.664*** (df=2)
	기타	4,434	40.2	44.8	15.0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36.5	30.8	32.7	100.0	44.744*** (df=6)
	고졸	886	39.8	43.6	16.6	100.0	
	전문대/대졸	3,545	40.5	45.8	13.7	100.0	
	대학원졸	465	42.6	48.2	9.2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39.4	41.3	19.4	100.0	34.523*** (df=6)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39.8	43.3	16.9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40.4	47.3	12.2	100.0	
	600만원 이상	1,340	41.6	46.9	11.4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42.7	50.2	7.1	100.0	65.849*** (df=2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38.8	48.3	12.9	100.0	
	사무 종사자	1,214	41.4	44.4	14.3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44.7	42.6	12.6	100.0	
	판매 종사자	210	41.4	46.7	11.9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46.9	37.5	15.6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41.2	41.8	17.0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46.1	45.1	8.8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36.2	40.7	23.1	100.0	
	군인	13	53.8	23.1	23.1	100.0	
기타	1,325	38.9	43.5	17.6	100.0		

〈표 33-3〉 온라인 교육 수업이수 인정 찬반의견: 중학교

구분		응답 비율					χ^2
		사례수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계	
전 체		5,000	43.7	39.8	16.5	100.0	-
성별	남	2,531	45.3	40.5	14.3	100.0	19,319*** (df=2)
	여	2,469	42.1	39.1	18.8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43.4	41.0	15.6	100.0	8.127 (df=6)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42.4	40.3	17.3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44.9	38.3	16.8	100.0	
	읍·면(군)지역	324	40.7	45.1	14.2	100.0	
연령	19~29세	929	41.6	39.1	19.4	100.0	23.443** (df=8)
	30대	870	41.7	38.6	19.7	100.0	
	40대	1,046	43.5	42.2	14.3	100.0	
	50대	1,084	44.8	41.0	14.2	100.0	
	60~74세	1,071	46.2	37.8	16.0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44.6	41.1	14.3	100.0	24,339*** (df=2)
	자녀 없음	2,073	42.5	38.0	19.6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42.9	44.9	12.2	100.0	24,055*** (df=2)
	기타	3,963	43.9	38.4	17.7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43.2	44.5	12.4	100.0	9,479** (df=2)
	기타	4,474	43.8	39.2	17.0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47.7	38.0	14.3	100.0	2,675 (df=2)
	기타	4,658	43.4	39.9	16.7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43.2	46.3	10.5	100.0	15,188** (df=2)
	기타	4,572	43.7	39.2	17.1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45.1	43.1	11.8	100.0	10,517** (df=2)
	기타	4,434	43.5	39.4	17.1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39.4	24.0	36.5	100.0	54,693*** (df=6)
	고졸	886	43.6	37.5	19.0	100.0	
	전문대/대졸	3,545	42.9	40.9	16.1	100.0	
	대학원졸	465	50.8	38.9	10.3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44.5	35.1	20.4	100.0	27,547*** (df=6)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42.2	38.5	19.3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43.7	42.2	14.0	100.0	
	600만원 이상	1,340	45.2	40.1	14.7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47.0	43.3	9.7	100.0	44,644** (df=2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44.7	40.5	14.9	100.0	
	사무 종사자	1,214	42.9	40.4	16.6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46.3	37.9	15.8	100.0	
	판매 종사자	210	42.9	38.1	19.0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43.8	37.5	18.8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44.2	36.4	19.4	100.0	
	정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50.0	39.2	10.8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38.7	38.2	23.1	100.0	
	군인	13	38.5	38.5	23.1	100.0	
기타	1,325	42.2	38.3	19.5	100.0		

〈표 33-4〉 온라인 교육 수업이수 인정 찬반의견: 고등학교

구분		응답 비율					χ^2
		사례수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계	
전 체		5,000	46.4	37.4	16.2	100.0	-
성별	남	2,531	47.1	38.7	14.2	100.0	15.408*** (df=2)
	여	2,469	45.6	36.1	18.3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45.5	38.7	15.8	100.0	4.523 (df=6)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46.2	38.0	15.8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47.2	36.0	16.7	100.0	
	읍·면(군)지역	324	43.8	40.7	15.4	100.0	
연령	19~29세	929	48.4	33.4	18.2	100.0	17.932* (df=8)
	30대	870	45.2	36.6	18.3	100.0	
	40대	1,046	44.6	40.8	14.6	100.0	
	50대	1,084	47.1	38.4	14.5	100.0	
	60~74세	1,071	46.6	37.3	16.2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45.9	39.7	14.4	100.0	24.989*** (df=2)
	자녀 없음	2,073	47.0	34.2	18.8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44.3	43.2	12.5	100.0	23.986*** (df=2)
	기타	3,963	46.9	35.9	17.2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44.7	42.4	12.9	100.0	8.218* (df=2)
	기타	4,474	46.6	36.8	16.6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46.2	41.2	12.6	100.0	4.451 (df=2)
	기타	4,658	46.4	37.1	16.5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44.6	44.2	11.2	100.0	13.257** (df=2)
	기타	4,572	46.5	36.8	16.7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45.6	43.5	11.0	100.0	17.272*** (df=2)
	기타	4,434	46.5	36.6	16.9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36.5	26.9	36.5	100.0	48.681*** (df=6)
	고졸	886	44.9	37.5	17.6	100.0	
	전문대/대졸	3,545	46.1	37.8	16.1	100.0	
	대학원졸	465	53.1	36.8	10.1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46.9	33.1	20.0	100.0	28.733*** (df=6)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45.7	35.2	19.1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46.4	39.6	14.0	100.0	
	600만원 이상	1,340	47.0	39.0	14.0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47.0	41.1	11.9	100.0	39.156** (df=2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48.4	37.1	14.4	100.0	
	사무 종사자	1,214	47.5	37.4	15.1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46.8	35.8	17.4	100.0	
	판매 종사자	210	40.5	41.9	17.6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40.6	43.8	15.6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41.2	38.8	20.0	100.0	
	정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47.1	39.2	13.7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42.2	32.2	25.6	100.0	
	군인	13	38.5	46.2	15.4	100.0	
기타	1,325	45.9	35.6	18.5	100.0		

〈표 33-1-1〉 수업이수 인정 가능한 온라인 교육 운영 형태: 초·중·고 전반

구분	응답 비율						χ^2	
	사례수	비실시간 강의형 및 온라인 상 활동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	화상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면대면 교수-학습활동이 가능해야 인정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오프라인 상(등교수업)에서의 활동이 포함되어야 인정할 수 있다	잘 모르겠다	계		
전 체	2,349	20.1	44.7	33.0	2.1	100.0	-	
성별	남	1,261	22.1	43.1	32.9	1.8	100.0	8.103* (df=3)
	여	1,088	17.8	46.6	33.1	2.5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459	19.2	49.2	29.2	2.4	100.0	15.058 (df=9)
	광역시, 특별자치시	633	23.1	42.5	32.2	2.2	100.0	
	중소도시(시 지역)	1,111	18.6	43.6	35.8	2.0	100.0	
	읍·면(군)지역	146	21.9	49.3	26.7	2.1	100.0	
연령	19~29세	414	22.0	48.3	25.6	4.1	100.0	36.194*** (df=12)
	30대	414	21.0	47.3	30.0	1.7	100.0	
	40대	500	21.8	38.2	38.8	1.2	100.0	
	50대	527	18.0	43.6	36.4	1.9	100.0	
	60~74세	494	18.4	47.4	32.2	2.0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394	19.2	44.9	33.9	2.0	100.0	2.446 (df=3)
	자녀 없음	955	21.5	44.5	31.7	2.3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510	19.8	42.9	35.7	1.6	100.0	2.900 (df=3)
	기타	1,839	20.2	45.2	32.2	2.3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258	24.0	38.4	34.9	2.7	100.0	5.592 (df=3)
	기타	2,091	19.7	45.5	32.8	2.1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177	21.5	41.2	36.2	1.1	100.0	2.171 (df=3)
	기타	2,172	20.0	45.0	32.7	2.2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213	14.6	48.8	36.2	0.5	100.0	8.235* (df=3)
	기타	2,136	20.7	44.3	32.7	2.3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74	21.5	44.5	32.5	1.5	100.0	0.980 (df=3)
	기타	2,075	20.0	44.8	33.1	2.2	100.0	
학력	중졸 이하	34	8.8	64.7	23.5	2.9	100.0	14.089 (df=9)
	고졸	408	21.1	41.9	33.6	3.4	100.0	
	전문대/대졸	1,667	20.4	45.3	32.6	1.7	100.0	
	대학원졸	240	18.3	42.9	35.8	2.9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14	24.3	38.8	34.1	2.8	100.0	11.700 (df=9)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737	20.5	44.2	32.6	2.7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733	18.4	46.1	34.4	1.1	100.0	
	600만원 이상	665	20.3	45.7	31.6	2.4	100.0	
직업군	관리자	325	23.4	43.1	30.5	3.1	100.0	38.646 (df=3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40	21.8	43.4	33.4	1.4	100.0	
	사무 종사자	576	16.8	46.7	35.1	1.4	100.0	
	서비스 종사자	93	19.4	38.7	38.7	3.2	100.0	
	판매 종사자	100	18.0	47.0	33.0	2.0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4	50.0	28.6	21.4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9	22.8	40.5	35.4	1.3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49	16.3	57.1	22.4	4.1	100.0	
	단순노무 종사자	89	31.5	38.2	29.2	1.1	100.0	
	군인	8	12.5	50.0	37.5	0.0	100.0	
	기타	576	18.4	46.2	32.5	3.0	100.0	

〈표 33-1-2〉 수업이수 인정 가능한 온라인 교육 운영 형태: 초등학교

구분	응답 비율						χ ²	
	사례수	비실시간 강의형 및 온라인 상 활동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	화상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면대면 교수-학습활동이 가능해야 인정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오프라인 상(등교수업)에서의 활동이 포함되어야 인정할 수 있다	잘 모르겠다	계		
전 체	2,023	22.4	42.1	33.5	2.0	100.0	-	
성별	남	1,053	23.8	40.7	33.0	2.5	100.0	5.290 (df=3)
	여	970	20.8	43.5	34.1	1.5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395	19.7	46.1	33.4	0.8	100.0	15.625 (df=9)
	광역시, 특별자치시	537	25.7	38.7	33.9	1.7	100.0	
	중소도시(시 지역)	962	21.7	42.3	33.6	2.4	100.0	
	읍·면(군)지역	129	21.7	41.9	31.8	4.7	100.0	
연령	19~29세	350	23.7	41.1	31.7	3.4	100.0	10.832 (df=12)
	30대	343	21.6	42.9	33.2	2.3	100.0	
	40대	433	23.3	39.5	36.0	1.2	100.0	
	50대	466	22.7	44.2	31.8	1.3	100.0	
	60~74세	431	20.6	42.5	34.6	2.3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216	22.3	41.7	34.2	1.8	100.0	1.268 (df=3)
	자녀 없음	807	22.6	42.6	32.5	2.4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454	22.9	39.9	35.5	1.8	100.0	1.607 (df=3)
	기타	1,569	22.2	42.7	33.0	2.1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243	24.3	32.5	40.3	2.9	100.0	11.255* (df=3)
	기타	1,780	22.1	43.4	32.6	1.9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159	28.3	38.4	30.8	2.5	100.0	3.831 (df=3)
	기타	1,864	21.9	42.4	33.7	2.0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178	19.7	44.9	35.4	0.0	100.0	5.195 (df=3)
	기타	1,845	22.7	41.8	33.3	2.2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41	24.1	43.6	31.5	0.8	100.0	2.743 (df=3)
	기타	1,782	22.2	41.9	33.8	2.2	100.0	
학력	중졸 이하	38	23.7	42.1	31.6	2.6	100.0	7.439 (df=9)
	고졸	353	23.2	43.3	30.3	3.1	100.0	
	전문대/대졸	1,434	22.3	41.2	34.5	2.0	100.0	
	대학원졸	198	21.2	46.0	32.3	0.5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83	26.8	39.3	32.2	1.6	100.0	15.478 (df=9)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651	22.4	38.2	36.6	2.8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31	19.5	46.3	32.6	1.6	100.0	
	600만원 이상	558	24.2	42.7	31.4	1.8	100.0	
직업군	관리자	265	24.9	45.7	28.3	1.1	100.0	33.117 (df=3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60	25.6	40.8	31.7	1.9	100.0	
	사무 종사자	502	18.9	40.2	39.2	1.6	100.0	
	서비스 종사자	85	20.0	37.6	38.8	3.5	100.0	
	판매 종사자	87	23.0	43.7	31.0	2.3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	40.0	33.3	26.7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68	30.9	32.4	35.3	1.5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47	25.5	44.7	27.7	2.1	100.0	
	단순노무 종사자	72	25.0	38.9	31.9	4.2	100.0	
	군인	7	0.0	71.4	28.6	0.0	100.0	
	기타	515	20.6	44.7	32.2	2.5	100.0	

〈표 33-1-3〉 수업이수 인정 가능한 온라인 교육 운영 형태: 중학교

구분	응답 비율						χ^2	
	사례수	비실시간 강의형 및 온라인 상 활동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	화상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면대면 교수-학습활동이 가능해야 인정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오프라인 상(등교수업)에서의 활동이 포함되어야 인정할 수 있다	잘 모르겠다	계		
전 체	2,185	16.6	41.7	39.2	2.5	100.0	-	
성별	남	1,146	18.8	41.0	38.5	1.7	100.0	12.961** (df=3)
	여	1,039	14.2	42.4	39.9	3.4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423	18.7	44.4	34.8	2.1	100.0	9.449 (df=9)
	광역시, 특별자치시	570	16.7	38.6	42.1	2.6	100.0	
	중소도시(시 지역)	1,060	15.5	42.0	40.0	2.5	100.0	
	읍·면(군)지역	132	18.9	43.9	34.1	3.0	100.0	
연령	19~29세	386	18.9	41.2	35.8	4.1	100.0	15.859 (df=12)
	30대	363	18.7	44.4	35.3	1.7	100.0	
	40대	455	16.3	40.4	41.1	2.2	100.0	
	50대	486	15.6	41.8	40.9	1.6	100.0	
	60~74세	495	14.5	41.2	41.2	3.0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305	15.2	41.8	40.4	2.6	100.0	5.371 (df=3)
	자녀 없음	880	18.8	41.5	37.4	2.4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445	16.2	41.1	40.4	2.2	100.0	0.500 (df=3)
	기타	1,740	16.7	41.8	38.9	2.6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227	18.5	37.4	40.1	4.0	100.0	3.803 (df=3)
	기타	1,958	16.4	42.2	39.1	2.3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163	16.6	44.2	37.4	1.8	100.0	0.718 (df=3)
	기타	2,022	16.6	41.5	39.3	2.6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185	14.6	40.5	43.8	1.1	100.0	3.311 (df=3)
	기타	2,000	16.8	41.8	38.8	2.7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55	17.6	38.4	42.4	1.6	100.0	2.698 (df=3)
	기타	1,930	16.5	42.1	38.8	2.6	100.0	
학력	중졸 이하	41	19.5	39.0	34.1	7.3	100.0	10.975 (df=9)
	고졸	386	15.0	41.7	39.1	4.1	100.0	
	전문대/대졸	1,522	17.0	42.0	39.0	2.0	100.0	
	대학원졸	236	16.5	40.3	41.1	2.1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07	20.3	35.7	40.1	3.9	100.0	11.437 (df=9)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690	14.9	42.0	40.4	2.6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82	15.5	42.7	40.0	1.8	100.0	
	600만원 이상	606	18.5	42.2	36.5	2.8	100.0	
직업군	관리자	292	17.1	38.7	40.8	3.4	100.0	22.196 (df=3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15	17.6	40.5	40.0	1.9	100.0	
	사무 종사자	521	16.9	43.2	38.2	1.7	100.0	
	서비스 종사자	88	15.9	40.9	38.6	4.5	100.0	
	판매 종사자	90	16.7	45.6	34.4	3.3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4	35.7	28.6	35.7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3	19.2	45.2	35.6	0.0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51	13.7	45.1	37.3	3.9	100.0	
	단순노무 종사자	77	23.4	41.6	32.5	2.6	100.0	
	군인	5	0.0	60.0	40.0	0.0	100.0	
	기타	559	14.1	41.7	41.1	3.0	100.0	

〈표 33-1-4〉 수업이수 인정 가능한 온라인 교육 운영 형태: 고등학교

구분	응답 비율						χ ²	
	사례수	비실시간 강의형 및 온라인 상 활동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	화상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면대면 교수-학습활동이 가능해야 인정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오프라인 상(등교수업)에서의 활동이 포함되어야 인정할 수 있다	잘 모르겠다	계		
전 체	2,319	18.6	36.0	41.0	4.4	100.0	-	
성별	남	1,192	19.6	35.6	40.4	4.4	100.0	1.627 (df=3)
	여	1,127	17.6	36.5	41.5	4.4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443	21.4	39.5	35.0	4.1	100.0	18.480* (df=9)
	광역시, 특별자치시	620	17.9	36.6	41.1	4.4	100.0	
	중소도시(시 지역)	1,114	17.0	34.4	44.1	4.6	100.0	
	읍·면(군)지역	142	26.1	35.2	34.5	4.2	100.0	
연령	19~29세	450	20.4	36.9	36.9	5.8	100.0	21.978* (df=12)
	30대	393	21.6	33.6	39.4	5.3	100.0	
	40대	466	21.5	33.7	41.0	3.9	100.0	
	50대	511	14.5	36.8	45.2	3.5	100.0	
	60~74세	499	16.2	38.5	41.5	3.8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344	16.9	37.2	41.6	4.3	100.0	6.813 (df=3)
	자녀 없음	975	21.0	34.4	40.1	4.5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459	19.2	36.4	39.4	5.0	100.0	0.929 (df=3)
	기타	1,860	18.5	35.9	41.3	4.2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235	23.8	32.3	36.6	7.2	100.0	10.773* (df=3)
	기타	2,084	18.0	36.4	41.5	4.1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158	20.9	38.6	35.4	5.1	100.0	2.215 (df=3)
	기타	2,161	18.5	35.8	41.4	4.3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191	15.2	39.3	43.5	2.1	100.0	4.768 (df=3)
	기타	2,128	18.9	35.7	40.7	4.6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58	19.0	34.1	44.6	2.3	100.0	4.069 (df=3)
	기타	2,061	18.6	36.2	40.5	4.7	100.0	
학력	중졸 이하	38	13.2	44.7	36.8	5.3	100.0	11.615 (df=9)
	고졸	398	16.6	35.4	41.5	6.5	100.0	
	전문대/대졸	1,636	19.0	36.3	40.5	4.2	100.0	
	대학원졸	247	20.2	33.6	44.1	2.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18	20.2	35.3	38.5	6.0	100.0	16.357 (df=9)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747	18.1	33.6	43.4	5.0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724	16.6	37.7	40.6	5.1	100.0	
	600만원 이상	630	21.1	37.1	39.4	2.4	100.0	
직업군	관리자	292	21.9	35.3	38.0	4.8	100.0	46.588* (df=3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50	20.4	32.7	43.3	3.6	100.0	
	사무 종사자	577	16.6	37.4	42.1	3.8	100.0	
	서비스 종사자	89	20.2	33.7	41.6	4.5	100.0	
	판매 종사자	85	12.9	42.4	38.8	5.9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3	30.8	30.8	15.4	23.1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68	22.1	26.5	44.1	7.4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48	14.6	37.5	39.6	8.3	100.0	
	단순노무 종사자	84	25.0	36.9	38.1	0.0	100.0	
	군인	5	0.0	100.0	0.0	0.0	100.0	
	기타	608	17.1	37.3	40.8	4.8	100.0	

〈표 34-1〉 고등학교 교육 정책(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현)

구분	응답 비율											F	
	사례수	매우 찬성 한다	찬성 한다	보통 이다	반대 한다	매우 반대 한다	종합결과			평균 (5점)	표준 편차		
							반대	보통	찬성				
전 체	5,000	19.0	41.6	28.7	7.8	2.8	10.7	28.7	60.6	3.66	1.0	-	
성별	남	2,531	21.9	39.6	28.2	6.9	3.4	10.3	28.2	61.5	3.70	1.0	7.358** (df=1)
	여	2,469	16.1	43.5	29.3	8.8	2.3	11.1	29.3	59.6	3.62	0.9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18.7	37.4	32.5	8.2	3.2	11.4	32.5	56.1	3.60	1.0	3.749* (df=3)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16.9	42.5	29.4	8.3	2.8	11.2	29.4	59.4	3.62	1.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20.9	42.0	26.8	7.7	2.7	10.3	26.8	62.9	3.71	1.0	
	읍·면(군)지역	324	15.1	47.2	28.7	5.9	3.1	9.0	28.7	62.3	3.65	0.9	
연령	19~29세	929	16.9	33.4	35.4	9.9	4.4	14.3	35.4	50.3	3.48	1.0	32.427*** (df=4)
	30대	870	18.3	41.6	31.6	6.3	2.2	8.5	31.6	59.9	3.67	0.9	
	40대	1,046	27.1	44.9	21.9	3.8	2.3	6.1	21.9	72.0	3.91	0.9	
	50대	1,084	19.4	45.3	24.4	8.7	2.2	10.9	24.4	64.7	3.71	0.9	
	60~74세	1,071	13.3	41.5	31.7	10.4	3.2	13.5	31.7	54.8	3.51	1.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20.7	42.6	26.0	8.0	2.7	10.7	26.0	63.3	3.71	1.0	16.366*** (df=1)
	자녀 없음	2,073	16.6	40.1	32.6	7.7	3.0	10.7	32.6	56.7	3.60	1.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30.3	43.2	20.1	4.7	1.7	6.5	20.1	73.5	3.96	0.9	125.074*** (df=1)
	기타	3,963	16.1	41.1	31.0	8.7	3.1	11.8	31.0	57.2	3.58	1.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32.1	42.2	20.0	3.4	2.3	5.7	20.0	74.3	3.98	0.9	67.088*** (df=1)
	기타	4,474	17.5	41.5	29.8	8.4	2.9	11.3	29.8	59.0	3.62	1.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34.8	41.8	17.5	5.0	0.9	5.8	17.5	76.6	4.05	0.9	59.374*** (df=1)
	기타	4,658	17.9	41.5	29.6	8.1	3.0	11.0	29.6	59.4	3.63	1.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28.3	46.3	18.7	5.6	1.2	6.8	18.7	74.5	3.95	0.9	41.941*** (df=1)
	기타	4,572	18.2	41.1	29.7	8.0	3.0	11.0	29.7	59.3	3.63	1.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21.0	42.9	25.8	8.1	2.1	10.2	25.8	64.0	3.73	1.0	2.926 (df=1)
	기타	4,434	18.8	41.4	29.1	7.8	2.9	10.7	29.1	60.1	3.65	1.0	
학력	중졸 이하	104	14.4	34.6	40.4	8.7	1.9	10.6	40.4	49.0	3.51	0.9	3.040* (df=3)
	고졸	886	16.0	41.2	31.5	8.2	3.0	11.3	31.5	57.2	3.59	1.0	
	전문대/대졸	3,545	19.7	41.9	28.0	7.6	2.8	10.4	28.0	61.6	3.68	1.0	
	대학원졸	465	20.9	41.1	26.5	8.4	3.2	11.6	26.5	61.9	3.68	1.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16.3	40.4	33.8	6.0	3.4	9.5	33.8	56.8	3.60	0.9	1.512 (df=3)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17.6	42.8	29.9	7.5	2.2	9.7	29.9	60.4	3.66	0.9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20.4	41.6	27.6	7.8	2.5	10.3	27.6	62.1	3.70	1.0	
	600만원 이상	1,340	20.0	40.4	26.9	8.9	3.8	12.7	26.9	60.4	3.64	1.0	
직업군	관리자	621	21.1	45.4	24.5	7.1	1.9	9.0	24.5	66.5	3.77	0.9	3.465*** (df=1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20.3	40.5	29.2	7.3	2.7	10.0	29.2	60.8	3.68	1.0	
	사무 종사자	1,214	19.9	43.3	26.5	7.7	2.6	10.2	26.5	63.3	3.70	1.0	
	서비스 종사자	190	21.6	42.6	25.8	7.9	2.1	10.0	25.8	64.2	3.74	1.0	
	판매 종사자	210	16.2	44.8	28.1	6.2	4.8	11.0	28.1	61.0	3.61	1.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6.3	43.8	37.5	9.4	3.1	12.5	37.5	50.0	3.41	0.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18.8	43.6	23.6	10.3	3.6	13.9	23.6	62.4	3.64	1.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24.5	40.2	29.4	3.9	2.0	5.9	29.4	64.7	3.81	0.9	
	단순노무 종사자	199	22.1	31.7	36.2	7.5	2.5	10.1	36.2	53.8	3.63	1.0	
	군인	13	7.7	30.8	46.2	15.4	0.0	15.4	46.2	38.5	3.31	0.9	
	기타	1,325	15.9	39.6	32.1	8.9	3.5	12.4	32.1	55.5	3.56	1.0	

〈표 34-2〉 고등학교 교육 정책(고교 학점제 도입)

구분	응답 비율											F	
	사례수	매우 찬성 한다	찬성 한다	보통 이다	반대 한다	매우 반대 한다	종합결과			평균 (5점)	표준 편차		
							반대	보통	찬성				
전 체	5,000	6.9	32.6	44.6	13.0	2.8	15.9	44.6	39.5	3.28	0.9	-	
성별	남	2,531	8.2	33.5	41.1	13.9	3.3	17.2	41.1	41.7	3.29	0.9	1.785 (df=1)
	여	2,469	5.5	31.7	48.3	12.2	2.3	14.5	48.3	37.3	3.26	0.8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6.3	31.2	45.6	13.0	3.9	16.9	45.6	37.5	3.23	0.9	3.269* (df=3)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6.6	30.8	45.9	13.6	3.1	16.7	45.9	37.4	3.24	0.9	
	중소도시(시 지역)	2,359	7.4	33.8	44.0	12.5	2.3	14.8	44.0	41.2	3.32	0.9	
	읍·면(군)지역	324	6.5	35.2	41.4	15.1	1.9	17.0	41.4	41.7	3.29	0.9	
연령	19~29세	929	6.0	25.2	49.3	15.5	4.0	19.5	49.3	31.2	3.14	0.9	10.344*** (df=4)
	30대	870	7.4	28.9	47.8	13.0	3.0	16.0	47.8	36.2	3.25	0.9	
	40대	1,046	8.7	36.1	42.5	9.9	2.7	12.6	42.5	44.8	3.38	0.9	
	50대	1,084	6.7	36.4	39.9	14.5	2.5	17.0	39.9	43.2	3.30	0.9	
	60~74세	1,071	5.7	34.7	44.9	12.5	2.1	14.7	44.9	40.4	3.29	0.8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7.2	36.0	41.1	13.1	2.6	15.7	41.1	43.2	3.32	0.9	17.802*** (df=1)
	자녀 없음	2,073	6.5	27.8	49.6	13.0	3.1	16.1	49.6	34.2	3.22	0.9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9.2	36.9	38.7	12.3	2.9	15.2	38.7	46.1	3.37	0.9	15.106*** (df=1)
	기타	3,963	6.3	31.5	46.2	13.2	2.8	16.0	46.2	37.8	3.25	0.9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9.1	37.3	39.0	11.2	3.4	14.6	39.0	46.4	3.37	0.9	7.254** (df=1)
	기타	4,474	6.6	32.1	45.3	13.3	2.7	16.0	45.3	38.7	3.27	0.9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10.8	32.7	42.4	12.0	2.0	14.0	42.4	43.6	3.38	0.9	5.356* (df=1)
	기타	4,658	6.6	32.6	44.8	13.1	2.9	16.0	44.8	39.2	3.27	0.9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8.6	39.0	36.7	12.9	2.8	15.7	36.7	47.7	3.38	0.9	6.257* (df=1)
	기타	4,572	6.7	32.0	45.4	13.1	2.8	15.9	45.4	38.7	3.27	0.9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7.2	37.3	38.3	14.7	2.5	17.1	38.3	44.5	3.32	0.9	1.634 (df=1)
	기타	4,434	6.9	32.0	45.4	12.8	2.9	15.7	45.4	38.9	3.27	0.9	
학력	중졸 이하	104	2.9	29.8	51.9	14.4	1.0	15.4	51.9	32.7	3.19	0.8	0.503 (df=3)
	고졸	886	6.5	32.4	47.0	11.7	2.4	14.1	47.0	38.9	3.29	0.8	
	전문대/대졸	3,545	6.8	32.5	44.8	13.0	2.8	15.9	44.8	39.3	3.27	0.9	
	대학원졸	465	9.2	34.4	37.2	15.3	3.9	19.1	37.2	43.7	3.30	1.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7.3	28.8	49.0	11.2	3.7	14.8	49.0	36.1	3.25	0.9	0.391 (df=3)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5.5	32.9	46.7	12.8	2.1	14.9	46.7	38.4	3.27	0.8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7.0	32.6	44.9	13.7	1.8	15.4	44.9	39.6	3.29	0.9	
	600만원 이상	1,340	8.4	33.5	40.3	13.3	4.6	17.8	40.3	41.9	3.28	1.0	
직업군	관리자	621	8.7	37.8	37.5	12.7	3.2	15.9	37.5	46.5	3.36	0.9	1.972* (df=1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7.5	33.2	42.6	12.8	3.9	16.7	42.6	40.7	3.28	0.9	
	사무 종사자	1,214	6.2	32.5	46.5	12.7	2.1	14.8	46.5	38.6	3.28	0.8	
	서비스 종사자	190	9.5	33.2	45.3	8.4	3.7	12.1	45.3	42.6	3.36	0.9	
	판매 종사자	210	7.1	31.4	43.3	14.3	3.8	18.1	43.3	38.6	3.24	0.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3.1	34.4	50.0	12.5	0.0	12.5	50.0	37.5	3.28	0.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5.5	30.9	46.7	15.2	1.8	17.0	46.7	36.4	3.23	0.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12.7	34.3	38.2	12.7	2.0	14.7	38.2	47.1	3.43	0.9	
	단순노무 종사자	199	10.6	29.6	43.2	15.1	1.5	16.6	43.2	40.2	3.33	0.9	
	군인	13	0.0	15.4	61.5	23.1	0.0	23.1	61.5	15.4	2.92	0.6	
	기타	1,325	5.2	30.6	47.9	13.5	2.7	16.2	47.9	35.8	3.22	0.8	

〈표 34-3〉 고등학교 교육 정책(외고·자사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제 개편)

구분	응답 비율											F	
	사례수	매우 찬성 한다	찬성 한다	보통 이다	반대 한다	매우 반대 한다	종합결과			평균 (5점)	표준 편차		
							반대	보통	찬성				
전 체	5,000	14.1	32.5	33.0	13.8	6.6	20.4	33.0	46.6	3.34	1.1	-	
성별	남	2,531	16.5	30.5	29.7	14.9	8.5	23.3	29.7	47.0	3.32	1.2	1.658 (df=1)
	여	2,469	11.7	34.5	36.3	12.8	4.7	17.5	36.3	46.2	3.36	1.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14.0	29.5	32.8	16.7	7.1	23.8	32.8	43.4	3.26	1.1	1.777 (df=3)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14.3	32.5	32.9	14.3	6.0	20.3	32.9	46.8	3.35	1.1	
	중소도시(시 지역)	2,359	14.2	33.3	33.2	12.5	6.8	19.3	33.2	47.5	3.36	1.1	
	읍·면(군)지역	324	13.3	35.2	32.4	12.7	6.5	19.1	32.4	48.5	3.36	1.1	
연령	19~29세	929	10.9	27.4	40.6	14.0	7.1	21.1	40.6	38.3	3.21	1.0	16.076*** (df=4)
	30대	870	12.6	31.5	37.2	13.9	4.7	18.6	37.2	44.1	3.33	1.0	
	40대	1,046	15.4	37.8	31.5	10.5	4.9	15.4	31.5	53.2	3.48	1.0	
	50대	1,084	18.2	35.0	26.6	14.4	5.9	20.3	26.6	53.1	3.45	1.1	
	60~74세	1,071	12.8	29.9	30.9	16.2	10.2	26.4	30.9	42.7	3.19	1.2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15.4	33.9	29.3	14.2	7.1	21.3	29.3	49.3	3.36	1.1	4.183* (df=1)
	자녀 없음	2,073	12.3	30.4	38.1	13.3	5.9	19.2	38.1	42.7	3.30	1.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18.4	37.1	27.6	11.9	5.0	16.9	27.6	55.5	3.52	1.1	37.970*** (df=1)
	기타	3,963	13.0	31.2	34.4	14.3	7.0	21.4	34.4	44.2	3.29	1.1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18.8	37.1	28.9	10.8	4.4	15.2	28.9	55.9	3.55	1.1	23.125*** (df=1)
	기타	4,474	13.6	31.9	33.5	14.2	6.9	21.1	33.5	45.5	3.31	1.1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19.6	36.8	28.4	12.0	3.2	15.2	28.4	56.4	3.58	1.0	17.932*** (df=1)
	기타	4,658	13.7	32.1	33.3	14.0	6.9	20.8	33.3	45.9	3.32	1.1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18.5	36.4	26.4	12.9	5.8	18.7	26.4	54.9	3.49	1.1	9.174** (df=1)
	기타	4,572	13.7	32.1	33.6	13.9	6.7	20.6	33.6	45.8	3.32	1.1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18.2	32.9	26.7	13.1	9.2	22.3	26.7	51.1	3.38	1.2	0.941 (df=1)
	기타	4,434	13.6	32.4	33.8	13.9	6.3	20.2	33.8	46.0	3.33	1.1	
학력	중졸 이하	104	8.7	24.0	49.0	15.4	2.9	18.3	49.0	32.7	3.20	0.9	0.760 (df=3)
	고졸	886	10.2	34.8	36.9	13.0	5.2	18.2	36.9	44.9	3.32	1.0	
	전문대/대졸	3,545	14.3	32.5	32.8	14.0	6.5	20.5	32.8	46.8	3.34	1.1	
	대학원졸	465	21.7	29.7	23.4	13.8	11.4	25.2	23.4	51.4	3.37	1.3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12.5	29.5	37.8	14.0	6.2	20.2	37.8	41.9	3.28	1.1	1.240 (df=3)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11.9	35.7	34.9	12.0	5.5	17.5	34.9	47.6	3.37	1.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15.1	31.8	32.2	14.7	6.2	20.9	32.2	46.9	3.35	1.1	
	600만원 이상	1,340	16.3	30.3	29.9	14.9	8.7	23.6	29.9	46.6	3.31	1.2	
직업군	관리자	621	17.1	32.2	29.1	14.8	6.8	21.6	29.1	49.3	3.38	1.1	2.072* (df=1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16.6	31.9	30.4	14.0	7.2	21.2	30.4	48.4	3.37	1.1	
	사무 종사자	1,214	13.8	34.8	33.0	13.3	5.2	18.5	33.0	48.5	3.39	1.0	
	서비스 종사자	190	16.3	34.7	30.5	11.1	7.4	18.4	30.5	51.1	3.42	1.1	
	판매 종사자	210	13.8	30.5	39.0	10.0	6.7	16.7	39.0	44.3	3.35	1.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6.3	28.1	31.3	21.9	12.5	34.4	31.3	34.4	2.94	1.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12.1	32.7	40.6	10.3	4.2	14.5	40.6	44.8	3.38	1.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13.7	33.3	34.3	15.7	2.9	18.6	34.3	47.1	3.39	1.0	
	단순노무 종사자	199	11.6	28.6	36.7	18.1	5.0	23.1	36.7	40.2	3.24	1.0	
	군인	13	7.7	15.4	53.8	15.4	7.7	23.1	53.8	23.1	3.00	1.0	
	기타	1,325	12.0	31.6	34.2	14.2	8.0	22.2	34.2	43.6	3.25	1.1	

〈표 34-4〉 고등학교 교육 정책(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구분	사례수	응답 비율										F	
		매우 찬성 한다	찬성 한다	보통 이다	반대 한다	매우 반대 한다	종합결과			평균 (5점)	표준 편차		
							반대	보통	찬성				
전 체	5,000	26.8	46.6	21.6	4.2	0.8	5.0	21.6	73.4	3.94	0.9	-	
성별	남	2,531	28.4	45.6	20.1	4.8	1.1	5.9	20.1	74.0	3.95	0.9	0.821 (df=1)
	여	2,469	25.2	47.5	23.0	3.6	0.6	4.2	23.0	72.8	3.93	0.8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27.5	44.1	21.8	5.3	1.2	6.6	21.8	71.7	3.91	0.9	2.971* (df=3)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25.0	47.1	22.3	4.4	1.2	5.6	22.3	72.2	3.90	0.9	
	중소도시(시 지역)	2,359	28.1	46.6	21.1	3.8	0.4	4.2	21.1	74.7	3.98	0.8	
	읍·면(군)지역	324	23.5	50.9	21.3	3.4	0.9	4.3	21.3	74.4	3.93	0.8	
연령	19~29세	929	22.2	42.0	29.5	5.1	1.3	6.4	29.5	64.2	3.79	0.9	19.474*** (df=4)
	30대	870	23.3	45.4	25.2	5.4	0.7	6.1	25.2	68.7	3.85	0.9	
	40대	1,046	32.4	46.7	17.4	2.6	1.0	3.5	17.4	79.1	4.07	0.8	
	50대	1,084	29.2	49.5	17.3	3.3	0.6	4.0	17.3	78.8	4.03	0.8	
	60~74세	1,071	25.9	48.4	20.2	5.0	0.6	5.6	20.2	74.2	3.94	0.8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29.7	47.1	18.4	4.0	0.7	4.7	18.4	76.8	4.01	0.8	44.809*** (df=1)
	자녀 없음	2,073	22.8	45.7	26.0	4.5	1.0	5.5	26.0	68.5	3.85	0.9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35.6	44.7	15.9	3.0	0.8	3.8	15.9	80.3	4.11	0.8	52.791*** (df=1)
	기타	3,963	24.6	47.0	23.0	4.5	0.8	5.4	23.0	71.6	3.90	0.9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33.8	46.0	16.3	3.2	0.6	3.8	16.3	79.8	4.09	0.8	18.185*** (df=1)
	기타	4,474	26.0	46.6	22.2	4.3	0.8	5.2	22.2	72.6	3.93	0.9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38.3	42.7	16.1	2.3	0.6	2.9	16.1	81.0	4.16	0.8	23.359*** (df=1)
	기타	4,658	26.0	46.8	22.0	4.4	0.8	5.2	22.0	72.8	3.93	0.9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37.4	44.6	13.8	3.0	1.2	4.2	13.8	82.0	4.14	0.8	25.068*** (df=1)
	기타	4,572	25.9	46.7	22.3	4.3	0.8	5.1	22.3	72.6	3.93	0.8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33.0	49.1	14.5	3.0	0.4	3.4	14.5	82.2	4.11	0.8	25.934*** (df=1)
	기타	4,434	26.0	46.2	22.5	4.4	0.9	5.3	22.5	72.3	3.92	0.9	
학력	중졸 이하	104	22.1	33.7	36.5	7.7	0.0	7.7	36.5	55.8	3.70	0.9	16.827*** (df=3)
	고졸	886	21.1	47.2	24.8	5.4	1.5	6.9	24.8	68.3	3.81	0.9	
	전문대/대졸	3,545	27.5	46.6	21.4	3.8	0.8	4.5	21.4	74.0	3.96	0.8	
	대학원졸	465	34.0	48.2	13.1	4.5	0.2	4.7	13.1	82.2	4.11	0.8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21.9	45.2	27.5	3.7	1.7	5.4	27.5	67.1	3.82	0.9	10.123*** (df=3)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22.9	49.2	23.5	3.6	0.7	4.3	23.5	72.1	3.90	0.8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28.5	44.4	21.4	5.1	0.6	5.8	21.4	72.8	3.95	0.9	
	600만원 이상	1,340	31.5	46.3	17.2	4.1	0.8	4.9	17.2	77.8	4.04	0.9	
직업군	관리자	621	30.3	45.4	19.0	4.5	0.8	5.3	19.0	75.7	4.00	0.9	3.008** (df=1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29.9	45.5	19.1	4.6	0.9	5.5	19.1	75.5	3.99	0.9	
	사무 종사자	1,214	26.3	47.4	21.6	4.2	0.5	4.7	21.6	73.7	3.95	0.8	
	서비스 종사자	190	27.9	44.2	22.6	3.2	2.1	5.3	22.6	72.1	3.93	0.9	
	판매 종사자	210	22.4	51.4	21.0	3.8	1.4	5.2	21.0	73.8	3.90	0.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15.6	43.8	34.4	6.3	0.0	6.3	34.4	59.4	3.69	0.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21.8	46.7	26.7	3.6	1.2	4.8	26.7	68.5	3.84	0.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30.4	40.2	23.5	4.9	1.0	5.9	23.5	70.6	3.94	0.9	
	단순노무 종사자	199	20.1	41.2	28.1	9.5	1.0	10.6	28.1	61.3	3.70	0.9	
	군인	13	23.1	23.1	46.2	7.7	0.0	7.7	46.2	46.2	3.62	1.0	
	기타	1,325	25.8	48.2	22.1	3.2	0.8	3.9	22.1	74.0	3.95	0.8	

〈표 35-1〉 고등학교 교육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1순위)

구분	응답 비율									χ^2	
	사례수	최소 학업 성취 수준 보장	다양한 과목 선택 및 이수 기회 제공	수업 및 평가 개선 (성취, 과정, 중심, 평가 등)	학생의 진로 및 학업 설계 역량 강화	고교 학점제 운영을 위한 학교 공간 혁신	고교 학점제에 대한 학생·학부모 등 공감대 형성	기타 (인성 교육 등)	계		
전 체	5,000	12.2	24.8	25.6	25.6	4.5	7.1	0.3	100.0	-	
성별	남	2,531	11.4	23.9	26.5	25.6	4.7	7.4	0.4	100.0	16.734 (df=13)
	여	2,469	13.0	25.6	24.8	25.6	4.2	6.8	0.1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13.1	24.1	27.9	24.3	4.5	5.7	0.2	100.0	33.531 (df=39)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13.0	25.4	24.9	25.0	4.5	7.0	0.2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11.6	24.5	25.4	26.5	4.3	7.5	0.3	100.0	
	읍·면(군)지역	324	10.8	26.2	23.5	25.0	5.6	8.6	0.3	100.0	
연령	19~29세	929	12.5	23.5	25.1	29.5	4.4	4.7	0.3	100.0	82.678** (df=52)
	30대	870	12.5	28.0	24.4	25.5	4.7	4.7	0.1	100.0	
	40대	1,046	11.6	21.1	29.2	26.3	4.3	7.1	0.5	100.0	
	50대	1,084	12.8	26.3	23.1	24.0	4.2	9.4	0.2	100.0	
	60~74세	1,071	11.7	25.2	26.3	23.2	4.7	8.7	0.3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11.5	25.1	26.2	24.1	4.7	8.1	0.3	100.0	23.074* (df=13)
	자녀 없음	2,073	13.2	24.3	24.8	27.7	4.1	5.7	0.2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10.5	21.7	28.2	26.5	5.6	7.1	0.4	100.0	26.280* (df=13)
	기타	3,963	12.6	25.6	25.0	25.3	4.2	7.1	0.3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11.2	20.7	29.7	26.0	7.0	4.6	0.8	100.0	44.887*** (df=13)
	기타	4,474	12.3	25.2	25.2	25.5	4.2	7.4	0.2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13.2	19.9	25.7	26.6	5.8	8.8	0.0	100.0	8.053 (df=13)
	기타	4,658	12.1	25.1	25.6	25.5	4.4	7.0	0.3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8.9	23.6	26.4	27.3	4.4	9.3	0.0	100.0	9.863 (df=13)
	기타	4,572	12.5	24.9	25.6	25.4	4.5	6.9	0.3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12.2	26.0	25.1	22.1	3.9	10.4	0.4	100.0	21.291 (df=13)
	기타	4,434	12.2	24.6	25.7	26.0	4.5	6.7	0.3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19.2	22.1	24.0	19.2	4.8	10.6	0.0	100.0	36.284 (df=39)
	고졸	886	13.3	24.9	24.7	25.1	4.0	7.9	0.1	100.0	
	전문대/대졸	3,545	11.8	24.7	25.7	26.1	4.7	6.6	0.3	100.0	
	대학원졸	465	11.2	25.6	27.5	23.9	3.2	8.2	0.4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14.6	21.7	23.0	28.4	3.2	9.0	0.0	100.0	44.785 (df=39)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12.6	25.5	24.3	26.4	4.2	6.7	0.3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12.4	25.8	26.0	24.2	5.1	6.3	0.1	100.0	
	600만원 이상	1,340	10.6	23.7	27.8	25.2	4.4	7.8	0.5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12.1	25.3	28.7	22.9	4.3	6.3	0.5	100.0	129.661 (df=13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11.4	25.1	26.3	23.8	6.5	6.6	0.4	100.0	
	사무 종사자	1,214	12.4	24.9	25.5	26.4	4.2	6.3	0.2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11.1	25.3	24.2	27.9	4.7	6.8	0.0	100.0	
	판매 종사자	210	14.8	26.7	26.2	23.3	3.8	4.8	0.5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9.4	21.9	37.5	18.8	3.1	9.4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10.9	24.2	28.5	26.7	3.6	5.5	0.6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11.8	23.5	23.5	32.4	2.9	5.9	0.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16.1	22.6	27.1	24.1	4.0	5.5	0.5	100.0	
	군인	13	0.0	23.1	46.2	15.4	15.4	0.0	0.0	100.0	
	기타	1,325	12.2	24.4	23.1	27.2	3.6	9.4	0.2	100.0	

〈표 35-2〉 고등학교 교육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2순위)

구분	응답 비율									χ ²	
	사례수	최소 학업 성취 수준 보장	다양한 과목 선택 및 이수 기회 제공	수업 및 평가 개선 (성취, 과정, 중심, 평가)	학생의 진로 및 학업 설계 역량 강화	고교 학점제 운영을 위한 학교 공간 혁신	고교 학점제에 대한 학생·학부모 등 공감대 형성	기타 (인성 교육 등)	계		
전 체	4,996	7.3	22.9	20.4	27.1	12.3	9.9	0.0	100.0	-	
성별	남	2,528	6.9	22.5	21.0	26.4	12.5	10.6	0.0	100.0	5.892 (df=6)
	여	2,468	7.7	23.3	19.9	27.8	12.0	9.2	0.0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3	6.7	23.2	20.7	25.8	14.1	9.6	0.0	100.0	16.068 (df=18)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2	6.7	23.0	19.4	28.6	13.0	9.3	0.0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7	7.9	22.4	20.9	27.2	11.2	10.3	0.1	100.0	
	읍·면(군)지역	324	7.1	25.3	20.1	24.7	11.7	11.1	0.0	100.0	
연령	19~29세	927	8.0	21.4	21.5	28.8	12.8	7.6	0.0	100.0	35.503 (df=24)
	30대	869	5.2	22.1	20.3	30.5	13.1	8.7	0.1	100.0	
	40대	1,045	6.9	24.0	19.9	26.2	11.6	11.4	0.0	100.0	
	50대	1,084	8.3	23.6	20.0	26.4	11.9	9.8	0.0	100.0	
	60~74세	1,071	7.8	23.1	20.5	24.6	12.1	11.8	0.1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6	7.6	22.6	19.9	26.4	13.1	10.4	0.0	100.0	8.729 (df=6)
	자녀 없음	2,070	7.0	23.3	21.2	28.2	11.1	9.3	0.0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7.5	23.7	19.5	25.7	13.5	10.1	0.0	100.0	4.259 (df=6)
	기타	3,959	7.2	22.7	20.7	27.5	11.9	9.9	0.1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6.8	25.7	19.4	24.1	13.1	10.8	0.0	100.0	5.408 (df=6)
	기타	4,470	7.4	22.6	20.5	27.5	12.2	9.8	0.0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8.8	25.1	21.1	25.1	10.5	9.4	0.0	100.0	3.677 (df=6)
	기타	4,654	7.2	22.7	20.4	27.3	12.4	10.0	0.0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7.7	21.7	18.9	27.6	13.8	10.3	0.0	100.0	2.044 (df=6)
	기타	4,568	7.3	23.0	20.6	27.1	12.1	9.9	0.0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7.6	23.9	18.6	27.7	12.9	9.4	0.0	100.0	2.184 (df=6)
	기타	4,430	7.3	22.8	20.7	27.0	12.2	10.0	0.0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3.8	20.2	24.0	25.0	16.3	10.6	0.0	100.0	17.899 (df=18)
	고졸	885	8.7	23.3	17.3	27.9	12.7	10.1	0.1	100.0	
	전문대/대졸	3,543	6.9	22.9	21.0	27.2	12.3	9.7	0.0	100.0	
	대학원졸	464	8.6	22.6	21.3	25.6	10.6	11.2	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9.0	24.1	20.4	24.1	11.8	10.5	0.0	100.0	27.879 (df=18)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3	6.2	24.7	18.4	28.1	11.8	10.7	0.1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7.4	21.5	20.0	27.6	13.7	9.7	0.1	100.0	
	600만원 이상	1,338	7.8	22.0	23.3	26.5	11.3	9.1	0.0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7.2	21.7	20.8	25.3	13.8	11.1	0.0	100.0	70.734 (df=6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7	6.7	22.4	20.5	28.3	11.4	10.7	0.0	100.0	
	사무 종사자	1,214	7.2	22.3	22.1	28.9	11.4	8.0	0.1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7.9	27.4	18.9	25.3	13.2	7.4	0.0	100.0	
	판매 종사자	209	6.7	21.1	15.3	35.4	12.4	8.6	0.5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15.6	28.1	18.8	9.4	18.8	9.4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4	9.8	20.7	15.9	32.3	11.6	9.8	0.0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5.9	16.7	24.5	25.5	16.7	10.8	0.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4.5	23.1	19.6	25.1	16.6	11.1	0.0	100.0	
	군인	13	7.7	15.4	30.8	30.8	7.7	7.7	0.0	100.0	
	기타	1,325	7.8	24.6	20.0	24.7	11.8	11.1	0.0	100.0	

〈표 35-3〉 고등학교 교육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1+2순위)

구분	응답 비율									χ^2	
	사례수	최소 학업 성취 수준 보장	다양한 과목 선택 및 이수 기회 제공	수업 및 평가 개선 (성취제, 과제, 중심 평가)	학생의 진로 및 학업 설계 역량 강화	고교 학점제 운영을 위한 학교 공간 혁신	고교 학점제에 대한 학생·학부모 등 공감대 형성	기타 (인성 교육 등)	계		
전 체	5,000	9.8	23.8	23.0	26.4	8.4	8.5	0.2	100.0	-	
성별	남	2,531	9.2	23.2	23.7	26.0	8.6	9.0	0.2	100.0	26.804* (df=14)
	여	2,469	10.4	24.4	22.3	26.7	8.1	8.0	0.1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9.9	23.7	24.3	25.1	9.3	7.7	0.1	100.0	47.058 (df=42)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9.8	24.2	22.2	26.8	8.7	8.2	0.1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9.8	23.4	23.2	26.8	7.7	8.9	0.2	100.0	
	읍·면(군)지역	324	9.0	25.8	21.8	24.8	8.6	9.9	0.2	100.0	
연령	19~29세	929	10.2	22.4	23.3	29.1	8.6	6.1	0.2	100.0	114.384*** (df=56)
	30대	870	8.9	25.1	22.3	28.0	8.9	6.7	0.1	100.0	
	40대	1,046	9.2	22.6	24.5	26.3	7.9	9.2	0.2	100.0	
	50대	1,084	10.6	25.0	21.5	25.2	8.1	9.6	0.1	100.0	
	60~74세	1,071	9.8	24.1	23.4	23.9	8.4	10.2	0.2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9.5	23.9	23.1	25.2	8.9	9.2	0.2	100.0	33.590** (df=14)
	자녀 없음	2,073	10.1	23.8	23.0	27.9	7.6	7.5	0.1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9.0	22.7	23.8	26.1	9.5	8.6	0.2	100.0	21.021 (df=14)
	기타	3,963	9.9	24.1	22.8	26.4	8.1	8.5	0.2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9.0	23.2	24.5	25.1	10.1	7.7	0.4	100.0	31.209** (df=14)
	기타	4,474	9.8	23.9	22.9	26.5	8.2	8.6	0.1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11.0	22.5	23.4	25.9	8.2	9.1	0.0	100.0	4.118 (df=14)
	기타	4,658	9.7	23.9	23.0	26.4	8.4	8.5	0.2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8.3	22.7	22.7	27.5	9.1	9.8	0.0	100.0	9.068 (df=14)
	기타	4,572	9.9	23.9	23.1	26.2	8.3	8.4	0.2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9.9	24.9	21.8	24.9	8.4	9.9	0.2	100.0	15.784 (df=14)
	기타	4,434	9.7	23.7	23.2	26.5	8.4	8.3	0.2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11.5	21.2	24.0	22.1	10.6	10.6	0.0	100.0	48.658 (df=42)
	고졸	886	11.0	24.1	21.0	26.5	8.3	9.0	0.1	100.0	
	전문대/대졸	3,545	9.4	23.8	23.3	26.7	8.5	8.2	0.2	100.0	
	대학원졸	465	9.9	24.1	24.4	24.8	6.9	9.7	0.2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11.8	22.9	21.7	26.2	7.5	9.8	0.0	100.0	68.566** (df=42)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9.4	25.1	21.4	27.2	8.0	8.7	0.2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9.9	23.7	23.0	25.9	9.4	8.0	0.1	100.0	
	600만원 이상	1,340	9.2	22.8	25.5	25.8	7.8	8.5	0.3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9.7	23.5	24.7	24.1	9.1	8.7	0.2	100.0	158.576 (df=14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9.1	23.8	23.4	26.0	8.9	8.6	0.2	100.0	
	사무 종사자	1,214	9.8	23.6	23.8	27.7	7.8	7.2	0.1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9.5	26.3	21.6	26.6	8.9	7.1	0.0	100.0	
	판매 종사자	210	10.7	23.9	20.8	29.4	8.1	6.7	0.5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12.5	25.0	28.1	14.1	10.9	9.4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10.3	22.5	22.2	29.5	7.6	7.6	0.3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8.8	20.1	24.0	28.9	9.8	8.3	0.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10.3	22.9	23.4	24.6	10.3	8.3	0.3	100.0	
	군인	13	3.8	19.2	38.5	23.1	11.5	3.8	0.0	100.0	
	기타	1,325	10.0	24.5	21.5	25.9	7.7	10.3	0.1	100.0	

〈표 36〉 고교 단계에서 직업교육 비중에 대한 의견

구분	응답 비율						χ^2	
	사례수	낮으므로 더 높여야 한다	적정하다	높으므로 더 낮추어야 한다	잘 모르겠다	계		
전 체	5,000	52.5	28.0	7.9	11.6	100.0	-	
성별	남	2,531	54.8	27.7	8.1	9.4	100.0	27.491*** (df=3)
	여	2,469	50.1	28.4	7.6	13.9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50.2	30.7	7.5	11.6	100.0	8.618 (df=9)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52.5	28.3	7.7	11.5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53.0	26.9	8.0	12.0	100.0	
	읍·면(군)지역	324	55.6	26.5	9.0	9.0	100.0	
연령	19~29세	929	39.5	35.0	11.6	13.9	100.0	135.916*** (df=12)
	30대	870	45.9	33.6	9.7	10.9	100.0	
	40대	1,046	56.5	25.0	6.1	12.3	100.0	
	50대	1,084	60.0	23.2	6.6	10.1	100.0	
	60~74세	1,071	57.7	25.1	6.2	11.0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55.9	26.8	7.5	9.8	100.0	39.371*** (df=3)
	자녀 없음	2,073	47.8	29.7	8.4	14.1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53.2	28.5	8.8	9.5	100.0	6.902 (df=3)
	기타	3,963	52.3	27.9	7.6	12.2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50.6	30.4	10.3	8.7	100.0	10.073* (df=3)
	기타	4,474	52.7	27.7	7.6	12.0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54.1	27.5	6.7	11.7	100.0	0.835 (df=3)
	기타	4,658	52.4	28.0	8.0	11.6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56.5	27.1	5.8	10.5	100.0	4.553 (df=3)
	기타	4,572	52.1	28.1	8.1	11.7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62.0	22.3	6.4	9.4	100.0	23.177*** (df=3)
	기타	4,434	51.3	28.7	8.1	11.9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37.5	22.1	11.5	28.8	100.0	52.947*** (df=9)
	고졸	886	49.7	29.3	9.5	11.5	100.0	
	전문대/대졸	3,545	52.7	28.0	7.7	11.6	100.0	
	대학원졸	465	60.0	26.5	5.2	8.4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55.1	19.1	7.3	18.5	100.0	46.733*** (df=9)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51.8	27.8	7.6	12.8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51.5	30.3	8.3	10.0	100.0	
	600만원 이상	1,340	53.7	28.7	7.9	9.7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53.6	30.4	8.7	7.2	100.0	59.135** (df=3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53.2	28.4	8.2	10.2	100.0	
	사무 종사자	1,214	50.8	30.0	8.2	11.0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56.8	25.3	8.4	9.5	100.0	
	판매 종사자	210	54.8	29.5	5.7	10.0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46.9	31.3	9.4	12.5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54.5	23.6	7.9	13.9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54.9	29.4	6.9	8.8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42.7	30.7	10.6	16.1	100.0	
	군인	13	53.8	15.4	23.1	7.7	100.0	
기타	1,325	53.2	25.0	6.7	15.1	100.0		

〈표 37〉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할 항목

구분	응답 비율										χ^2	
	사례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고교 내신	특기, 적성	인성 및 봉사 활동	글쓰기, 논술	면접	동아리 활동 등 교내 활동	기타 (공모전 수상 경험 등)	계		
전 체	5,000	30.0	13.4	23.5	24.2	4.3	3.0	1.4	0.3	100.0	-	
성별	남	2,531	31.2	11.8	23.2	25.3	4.0	2.9	1.3	0.2	100.0	19.437 (df=12)
	여	2,469	28.8	15.1	23.8	23.0	4.5	3.0	1.5	0.3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31.9	12.3	23.4	23.4	4.7	2.9	0.9	0.4	100.0	25.294 (df=36)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28.6	14.3	23.6	24.1	4.8	2.8	1.6	0.1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30.1	13.4	23.4	24.7	3.8	3.0	1.4	0.3	100.0	
	읍·면(군)지역	324	29.6	13.6	23.8	22.8	4.0	3.7	2.5	0.0	100.0	
연령	19~29세	929	27.9	11.3	25.3	21.1	5.9	6.5	1.5	0.5	100.0	154.060*** (df=48)
	30대	870	25.2	12.0	29.8	23.3	5.4	2.8	1.0	0.6	100.0	
	40대	1,046	30.2	14.9	24.5	23.8	3.7	1.9	1.0	0.0	100.0	
	50대	1,084	33.8	13.1	18.9	26.8	3.2	1.9	2.0	0.2	100.0	
	60~74세	1,071	31.8	15.3	20.4	25.2	3.5	2.1	1.5	0.1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31.6	14.4	21.6	25.4	3.5	2.0	1.4	0.1	100.0	68.346*** (df=12)
	자녀 없음	2,073	27.7	12.0	26.1	22.5	5.4	4.3	1.4	0.5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30.2	13.1	26.1	23.7	3.5	1.9	1.4	0.1	100.0	12.686 (df=12)
	기타	3,963	30.0	13.5	22.8	24.3	4.5	3.2	1.4	0.3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28.3	14.3	26.8	24.9	3.2	1.9	0.6	0.0	100.0	11.969 (df=12)
	기타	4,474	30.2	13.3	23.1	24.1	4.4	3.1	1.5	0.3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33.9	12.3	25.7	21.1	3.8	1.8	1.5	0.0	100.0	7.434 (df=12)
	기타	4,658	29.7	13.5	23.3	24.4	4.3	3.0	1.4	0.3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30.6	12.4	25.9	22.4	4.4	1.4	2.6	0.2	100.0	11.616 (df=12)
	기타	4,572	30.0	13.5	23.3	24.3	4.2	3.1	1.3	0.3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35.5	16.4	16.3	25.8	2.3	1.2	2.3	0.2	100.0	42.304*** (df=12)
	기타	4,434	29.3	13.0	24.4	24.0	4.5	3.2	1.3	0.3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25.0	12.5	19.2	26.9	10.6	4.8	0.0	1.0	100.0	98.287*** (df=36)
	고졸	886	24.5	15.0	24.7	27.7	4.2	2.0	1.9	0.0	100.0	
	전문대/대졸	3,545	30.1	13.0	24.3	23.6	4.1	3.2	1.4	0.3	100.0	
	대학원졸	465	41.3	14.0	15.7	21.3	3.9	2.6	1.3	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30.3	11.2	24.5	24.5	3.0	3.9	2.2	0.4	100.0	78.477*** (df=36)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25.4	14.0	26.4	24.5	5.0	2.9	1.4	0.4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29.4	13.1	23.4	25.6	4.2	3.1	1.0	0.2	100.0	
	600만원 이상	1,340	36.3	13.9	19.6	22.0	3.8	2.6	1.6	0.1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26.9	12.4	24.6	27.7	4.3	2.3	1.6	0.2	100.0	112.927 (df=12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33.9	12.1	21.9	21.6	5.2	3.6	1.4	0.4	100.0	
	사무 종사자	1,214	27.5	14.3	24.5	25.4	4.8	2.7	0.7	0.2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24.7	14.7	25.8	26.3	4.2	3.2	1.1	0.0	100.0	
	판매 종사자	210	25.7	11.4	28.6	27.1	3.3	2.9	1.0	0.0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28.1	12.5	15.6	28.1	3.1	6.3	6.3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26.1	14.5	30.3	20.6	3.6	3.6	1.2	0.0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25.5	13.7	20.6	32.4	3.9	2.9	1.0	0.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23.6	15.1	24.1	27.6	2.5	3.0	4.0	0.0	100.0	
	군인	13	30.8	0.0	15.4	38.5	7.7	7.7	0.0	0.0	100.0	
	기타	1,325	34.3	13.9	21.6	21.5	3.6	2.9	1.7	0.5	100.0	

〈표 38〉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에 대한 전망

구분	응답 비율							χ^2	
	사례수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완화되나, 일류대 입시 경쟁은 유지될 것이다	현재와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심화될 것이다	잘 모르겠다	계		
전 체	5,000	6.9	46.4	30.1	12.6	3.9	100.0	-	
성별	남	2,531	7.3	46.5	29.0	13.5	3.7	100.0	6.718 (df=4)
	여	2,469	6.5	46.3	31.3	11.8	4.1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7.4	45.6	29.6	14.1	3.4	100.0	19.806 (df=12)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6.5	45.9	31.0	13.5	3.1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6.6	47.1	30.4	11.4	4.5	100.0	
	읍·면(군)지역	324	9.6	46.0	25.3	13.9	5.2	100.0	
연령	19~29세	929	4.6	33.3	36.5	18.8	6.8	100.0	158.716*** (df=16)
	30대	870	7.2	42.9	32.8	13.7	3.4	100.0	
	40대	1,046	7.1	53.4	27.2	9.2	3.1	100.0	
	50대	1,084	8.4	48.8	29.2	11.0	2.6	100.0	
	60~74세	1,071	7.0	51.4	26.1	11.5	4.0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7.4	50.5	28.7	10.7	2.7	100.0	81.018*** (df=4)
	자녀 없음	2,073	6.2	40.6	32.1	15.4	5.6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8.2	50.3	29.2	10.0	2.2	100.0	24.471*** (df=4)
	기타	3,963	6.6	45.4	30.3	13.3	4.4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8.9	51.7	27.2	9.9	2.3	100.0	16.207** (df=4)
	기타	4,474	6.7	45.8	30.4	13.0	4.1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7.6	50.9	28.1	10.8	2.6	100.0	4.839 (df=4)
	기타	4,658	6.9	46.1	30.2	12.8	4.0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7.2	49.8	31.3	9.6	2.1	100.0	8.838 (df=4)
	기타	4,572	6.9	46.1	30.0	12.9	4.1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8.1	54.1	27.4	8.7	1.8	100.0	26.499*** (df=4)
	기타	4,434	6.8	45.4	30.4	13.1	4.2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4.8	42.3	26.9	14.4	11.5	100.0	41.524*** (df=12)
	고졸	886	6.2	43.2	33.9	11.9	4.9	100.0	
	전문대/대졸	3,545	6.9	46.6	29.9	12.8	3.8	100.0	
	대학원졸	465	8.6	52.3	25.2	12.3	1.7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8.4	40.6	28.2	12.3	10.5	100.0	78.217*** (df=12)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7.0	44.2	31.9	12.9	3.9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7.2	49.6	28.5	11.8	2.9	100.0	
	600만원 이상	1,340	5.9	47.5	30.4	13.4	2.8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7.7	52.2	26.7	10.3	3.1	100.0	93.002*** (df=4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7.2	48.7	29.0	12.9	2.3	100.0	
	사무 종사자	1,214	7.2	45.1	31.5	13.3	2.8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8.4	48.9	23.2	16.8	2.6	100.0	
	판매 종사자	210	6.2	38.1	39.0	12.4	4.3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6.3	46.9	31.3	12.5	3.1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7.3	42.4	35.8	10.3	4.2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9.8	35.3	35.3	16.7	2.9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6.5	39.2	28.1	15.6	10.6	100.0	
	군인	13	15.4	38.5	30.8	7.7	7.7	100.0	
	기타	1,325	5.7	46.8	29.9	11.9	5.7	100.0	

〈표 39〉 교육 재정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교육단계

구분	응답 비율											χ^2	
	사례수	유아 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학령기 이후 성인 교육	잘 모르겠다	계		
전 체	5,000	20.6	18.3	11.0	25.2	4.2	9.5	1.2	3.7	6.4	100.0	-	
성별	남	2,531	21.8	18.0	10.3	25.3	4.2	10.3	1.0	3.2	5.9	100.0	16.732* (df=8)
	여	2,469	19.3	18.6	11.7	25.2	4.1	8.7	1.3	4.2	6.9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18.9	19.4	12.8	23.9	4.7	9.1	2.0	3.8	5.3	100.0	31.951 (df=24)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20.3	17.4	10.7	26.9	4.0	9.9	1.2	3.4	6.2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21.2	18.1	10.3	25.1	4.1	9.2	0.7	3.9	7.2	100.0	
	읍·면(군)지역	324	22.2	19.1	11.7	22.8	3.4	10.8	2.2	2.8	4.9	100.0	
연령	19~29세	929	14.7	13.7	12.9	29.8	4.8	10.9	1.8	3.4	7.9	100.0	131.993*** (df=32)
	30대	870	22.8	17.9	13.3	23.7	4.6	7.8	1.5	2.1	6.3	100.0	
	40대	1,046	17.7	19.3	11.7	27.8	3.3	10.4	0.6	4.0	5.2	100.0	
	50대	1,084	21.4	17.8	9.7	25.2	4.0	10.2	1.2	4.4	6.1	100.0	
	60~74세	1,071	26.0	21.9	8.0	20.0	4.2	8.0	0.9	4.1	6.8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21.8	19.0	10.4	25.6	3.9	10.1	1.1	3.4	4.9	100.0	42.899*** (df=8)
	자녀 없음	2,073	18.9	17.2	11.8	24.7	4.5	8.7	1.4	4.1	8.6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15.5	17.7	12.3	32.7	3.3	12.7	0.9	1.7	3.1	100.0	101.689*** (df=8)
	기타	3,963	21.9	18.4	10.6	23.3	4.4	8.7	1.3	4.2	7.3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16.3	21.9	13.9	29.1	2.5	11.0	0.8	1.3	3.2	100.0	41.788*** (df=8)
	기타	4,474	21.1	17.8	10.6	24.8	4.4	9.3	1.2	4.0	6.8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12.6	16.1	11.4	37.4	3.2	12.9	1.2	1.5	3.8	100.0	48.179*** (df=8)
	기타	4,658	21.2	18.4	10.9	24.3	4.2	9.3	1.2	3.8	6.6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14.0	12.4	11.0	37.6	4.0	14.7	1.2	2.3	2.8	100.0	72.511*** (df=8)
	기타	4,572	21.2	18.8	11.0	24.1	4.2	9.0	1.2	3.8	6.8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18.6	17.3	9.9	25.4	4.8	15.4	0.7	3.7	4.2	100.0	31.977*** (df=8)
	기타	4,434	20.9	18.4	11.1	25.2	4.1	8.8	1.2	3.7	6.7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22.1	18.3	12.5	25.0	1.9	1.0	0.0	1.0	18.3	100.0	104.719*** (df=24)
	고졸	886	17.8	18.7	11.7	28.1	4.9	6.7	0.9	4.6	6.5	100.0	
	전문대/대졸	3,545	20.9	17.8	10.9	25.1	4.3	10.5	1.0	3.2	6.2	100.0	
	대학원졸	465	23.0	20.9	9.7	20.4	2.4	9.2	3.7	5.8	4.9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23.0	13.5	8.2	23.0	5.4	6.9	1.9	6.2	11.8	100.0	100.229*** (df=24)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19.7	20.0	11.6	24.1	4.5	8.1	0.7	3.7	7.5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20.8	18.5	11.7	26.9	3.7	10.4	0.8	2.3	4.8	100.0	
	600만원 이상	1,340	20.6	17.5	10.3	25.4	3.9	11.0	1.9	4.3	5.1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20.5	21.3	11.4	24.2	5.0	10.1	0.8	2.7	4.0	100.0	133.506*** (df=8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21.7	19.1	11.7	23.8	3.7	8.9	2.0	3.9	5.2	100.0	
	사무 종사자	1,214	18.6	18.6	12.6	27.8	3.4	10.2	0.8	2.9	5.0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22.1	17.4	13.7	23.2	3.2	10.0	0.5	2.6	7.4	100.0	
	판매 종사자	210	20.5	15.7	9.5	29.5	3.8	9.0	1.0	4.8	6.2	100.0	
	농림어업 속련 종사자	32	21.9	12.5	6.3	21.9	9.4	18.8	0.0	3.1	6.3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25.5	15.8	12.1	21.2	4.8	9.1	1.8	2.4	7.3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14.7	16.7	10.8	35.3	6.9	7.8	2.0	3.9	2.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12.1	12.6	12.6	29.6	7.0	10.1	1.0	3.5	11.6	100.0	
	군인	13	30.8	15.4	7.7	23.1	7.7	7.7	0.0	0.0	7.7	100.0	
	기타	1,325	22.5	18.0	8.4	23.1	4.2	8.8	1.1	4.9	9.1	100.0	

〈표 40-1〉 초등학생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우선 순위

구분	응답 비율									χ^2	
	사례수	학교 급식비	학용품비·교재비	현장학습비(수학 여행경비 등) 및 수련 활동비	방과후 학교 교육비	디지털 학습 장비 구입 및 활용비	교통비	기타	계		
전 체	5,000	35.5	14.3	18.6	23.0	7.4	0.8	0.3	100.0	-	
성별	남	2,531	34.7	15.8	18.5	22.0	7.5	1.1	0.5	100.0	23.826** (df=10)
	여	2,469	36.4	12.9	18.7	24.1	7.2	0.5	0.2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33.2	14.8	19.5	24.4	6.8	0.9	0.4	100.0	19.583 (df=30)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36.5	13.9	18.9	22.1	7.7	0.7	0.1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36.0	14.2	18.2	22.6	7.6	0.9	0.5	100.0	
	읍·면(군)지역	324	35.5	15.4	17.3	25.3	5.9	0.6	0.0	100.0	
연령	19~29세	929	31.6	17.3	22.1	19.3	6.8	1.9	1.0	100.0	106.611*** (df=40)
	30대	870	36.2	14.6	20.1	22.2	6.0	0.8	0.1	100.0	
	40대	1,046	36.6	13.3	18.5	24.7	6.0	0.6	0.4	100.0	
	50대	1,084	34.9	11.5	18.0	25.0	10.1	0.4	0.2	100.0	
	60~74세	1,071	38.0	15.4	15.0	23.2	7.7	0.6	0.1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33.8	13.9	18.6	24.9	8.1	0.5	0.1	100.0	42.688*** (df=10)
	자녀 없음	2,073	38.0	15.0	18.5	20.3	6.3	1.2	0.7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30.2	13.3	22.8	25.5	7.6	0.6	0.1	100.0	32.248*** (df=10)
	기타	3,963	36.9	14.6	17.5	22.4	7.3	0.9	0.4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28.5	13.3	21.9	27.0	8.4	0.8	0.2	100.0	20.189* (df=10)
	기타	4,474	36.4	14.5	18.2	22.5	7.3	0.8	0.4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35.1	13.7	19.3	25.4	5.8	0.6	0.0	100.0	3.827 (df=10)
	기타	4,658	35.6	14.4	18.5	22.8	7.5	0.8	0.4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29.0	12.6	26.2	24.3	7.7	0.2	0.0	100.0	25.123** (df=10)
	기타	4,572	36.2	14.5	17.9	22.9	7.3	0.9	0.4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30.6	14.5	19.3	25.3	9.7	0.7	0.0	100.0	13.030 (df=10)
	기타	4,434	36.2	14.3	18.5	22.7	7.1	0.8	0.4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34.6	13.5	20.2	23.1	7.7	1.0	0.0	100.0	42.406 (df=30)
	고졸	886	36.2	15.1	17.8	22.8	6.5	1.0	0.5	100.0	
	전문대/대졸	3,545	35.4	14.3	19.1	22.9	7.2	0.8	0.2	100.0	
	대학원졸	465	35.7	13.1	15.5	23.9	10.1	0.6	1.1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40.2	13.1	14.4	22.6	6.9	2.6	0.2	100.0	52.895** (df=30)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37.6	13.8	18.5	22.7	6.4	0.7	0.4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33.5	15.1	19.8	23.3	7.6	0.4	0.3	100.0	
	600만원 이상	1,340	33.8	14.6	18.7	23.1	8.6	0.7	0.4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32.5	13.2	22.7	23.5	7.7	0.3	0.0	100.0	113.121 (df=10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35.8	13.1	19.5	21.5	8.9	0.3	0.8	100.0	
	사무 종사자	1,214	34.6	14.6	18.0	26.0	5.9	0.6	0.2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28.9	16.3	23.7	25.8	4.7	0.5	0.0	100.0	
	판매 종사자	210	38.6	18.1	17.6	17.6	7.1	1.0	0.0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31.3	6.3	31.3	18.8	12.5	0.0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37.6	12.1	18.2	21.8	9.1	0.6	0.6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33.3	12.7	23.5	19.6	8.8	1.0	1.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33.7	19.6	16.6	21.1	6.5	2.5	0.0	100.0	
	군인	13	30.8	15.4	23.1	23.1	7.7	0.0	0.0	100.0	
	기타	1,325	38.4	14.4	15.5	22.3	7.5	1.4	0.4	100.0	

〈표 40-2〉 중학생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우선 순위

구분	응답 비율										χ^2	
	사례수	학교 급식비	학용품비·교재비	현장학습비(수학 여행 경비 등) 및 수련 활동비	방과후 학교 교육비	교복 구입비(중·고만 해당)	디지털 학습 장비 구입 및 활용비	교통비	기타	계		
전 체	5,000	21.2	11.3	17.7	13.9	20.8	13.5	1.3	0.3	100.0	-	
성별	남	2,531	19.8	12.6	17.4	15.5	17.6	15.1	1.6	0.4	100.0	64.678*** (df=11)
	여	2,469	22.6	9.9	18.0	12.3	24.0	11.9	1.0	0.2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21.0	12.5	18.1	14.1	19.9	12.8	1.1	0.4	100.0	20.806 (df=33)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20.5	11.3	17.7	14.2	21.1	13.6	1.5	0.1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21.9	10.7	17.1	13.6	21.5	13.6	1.2	0.4	100.0	
	읍·면(군)지역	324	19.4	11.4	20.7	14.5	17.0	15.1	1.9	0.0	100.0	
연령	19~29세	929	20.7	10.0	13.9	15.8	24.4	11.7	2.7	0.8	100.0	142.241** * (df=44)
	30대	870	22.1	13.2	17.6	15.7	19.7	10.1	1.5	0.1	100.0	
	40대	1,046	23.5	10.9	14.8	13.7	24.0	12.4	0.3	0.4	100.0	
	50대	1,084	20.6	10.7	19.7	12.4	20.3	15.4	0.7	0.2	100.0	
	60~74세	1,071	19.2	11.8	21.8	12.6	15.9	17.1	1.5	0.1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19.6	11.2	18.9	13.3	20.9	15.0	1.0	0.1	100.0	43.512*** (df=11)
	자녀 없음	2,073	23.3	11.3	16.1	14.8	20.6	11.5	1.8	0.6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20.1	12.3	17.0	13.2	24.5	12.3	0.5	0.1	100.0	24.196* (df=11)
	기타	3,963	21.5	11.0	17.9	14.1	19.8	13.9	1.5	0.4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18.3	12.5	16.5	12.0	26.2	13.9	0.4	0.2	100.0	22.395* (df=11)
	기타	4,474	21.5	11.1	17.8	14.1	20.1	13.5	1.4	0.3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21.3	12.0	15.5	12.6	26.0	11.7	0.9	0.0	100.0	9.038 (df=11)
	기타	4,658	21.2	11.2	17.9	14.0	20.4	13.7	1.3	0.3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20.6	11.2	18.0	15.9	22.0	11.7	0.7	0.0	100.0	5.615 (df=11)
	기타	4,572	21.2	11.3	17.7	13.7	20.7	13.7	1.4	0.3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22.3	8.3	18.0	13.1	21.6	16.1	0.7	0.0	100.0	12.592 (df=11)
	기타	4,434	21.0	11.7	17.7	14.0	20.7	13.2	1.4	0.3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22.1	13.5	15.4	13.5	21.2	11.5	2.9	0.0	100.0	68.719*** (df=33)
	고졸	886	19.8	11.7	19.4	12.1	21.6	13.0	2.1	0.3	100.0	
	전문대/대졸	3,545	20.5	11.5	17.8	14.4	21.0	13.5	1.1	0.2	100.0	
	대학원졸	465	28.6	8.4	14.0	13.8	17.8	15.7	0.6	1.1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22.6	12.5	15.9	11.6	22.2	11.2	3.9	0.2	100.0	57.908** (df=33)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20.9	11.6	17.9	13.9	21.1	13.0	1.2	0.4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20.4	11.0	18.7	14.5	21.4	13.1	0.7	0.3	100.0	
	600만원 이상	1,340	22.0	10.7	16.9	14.1	19.2	15.6	1.2	0.2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17.1	12.9	18.4	16.9	21.1	12.9	0.8	0.0	100.0	138.807* (df=11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24.1	8.6	18.0	14.1	18.0	15.5	1.0	0.8	100.0	
	사무 종사자	1,214	23.0	12.4	16.3	13.4	21.5	12.6	0.6	0.2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17.4	11.6	16.3	17.9	24.2	11.1	1.6	0.0	100.0	
	판매 종사자	210	20.5	14.3	22.9	13.8	16.7	11.0	1.0	0.0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9.4	12.5	18.8	25.0	12.5	18.8	3.1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17.6	6.1	17.6	17.0	24.8	13.9	2.4	0.6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16.7	17.6	12.7	20.6	17.6	12.7	2.0	0.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19.6	14.6	18.1	16.1	18.1	10.6	3.0	0.0	100.0	
	군인 기타	13	7.7	15.4	15.4	23.1	15.4	23.1	0.0	0.0	100.0	
기타	1,325	21.5	10.4	18.2	10.7	22.5	14.3	2.0	0.4	100.0		

〈표 40-3〉 고등학생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우선 순위

구분	응답 비율										χ ²	
	사례수	학교 급식비	학용품비·교재비	현장학습비(수학 여행 경비 등) 및 수련 활동비	방과후 학교 교육비	교복 구입비(중·고만 해당)	디지털 학습 장비 구입 및 활용비	교통비	기타	계		
전 체	5,000	20.9	9.2	12.5	12.0	16.3	25.5	3.3	0.3	100.0	-	
성별	남	2,531	19.2	10.6	13.2	13.0	14.9	3.7	0.4	100.0	37.720*** (df=11)	
	여	2,469	22.6	7.9	11.9	10.9	17.8	25.9	2.9	0.2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20.2	11.6	13.7	12.2	12.9	4.2	0.4	100.0	34.749 (df=33)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20.2	8.5	13.0	12.4	16.8	3.2	0.1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21.7	8.7	11.9	11.4	17.3	25.6	2.9	0.4		100.0
	읍·면(군)지역	324	19.1	9.3	12.0	13.6	17.0	25.3	3.7	0.0		100.0
연령	19~29세	929	21.0	12.6	11.1	12.7	17.8	18.3	5.8	0.8	100.0	186.895** * (df=44)
	30대	870	22.5	11.7	10.6	14.8	14.9	21.7	3.6	0.1	100.0	
	40대	1,046	22.8	7.6	11.8	11.3	20.4	23.3	2.4	0.4	100.0	
	50대	1,084	20.7	6.2	14.8	10.6	15.7	29.2	2.7	0.2	100.0	
	60~74세	1,071	17.6	9.0	13.9	11.0	12.8	33.1	2.4	0.1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19.3	7.9	13.2	11.9	17.1	27.9	2.6	0.1	100.0	62.915*** (df=11)
	자녀 없음	2,073	23.1	11.1	11.6	12.1	15.1	22.1	4.2	0.6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18.5	8.3	12.3	12.2	22.0	24.0	2.6	0.1	100.0	38.256*** (df=11)
	기타	3,963	21.5	9.5	12.6	11.9	14.8	25.9	3.5	0.4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15.8	9.3	12.0	12.4	23.0	25.1	2.3	0.2	100.0	30.437** (df=11)
	기타	4,474	21.5	9.2	12.6	11.9	15.5	25.5	3.4	0.3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21.9	7.9	12.9	11.1	24.6	19.0	2.6	0.0	100.0	24.214* (df=11)
	기타	4,658	20.8	9.3	12.5	12.0	15.7	26.0	3.3	0.3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19.6	6.8	13.3	11.9	21.0	24.3	3.0	0.0	100.0	11.830 (df=11)
	기타	4,572	21.0	9.5	12.5	12.0	15.9	25.6	3.3	0.3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20.3	5.3	14.7	11.1	17.7	27.6	3.4	0.0	100.0	17.192 (df=11)
	기타	4,434	20.9	9.7	12.3	12.1	16.1	25.2	3.3	0.3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20.2	10.6	11.5	15.4	13.5	27.9	1.0	0.0	100.0	56.953** (df=33)
	고졸	886	19.8	8.5	15.6	10.6	15.8	25.3	4.2	0.3	100.0	
	전문대/대졸	3,545	20.5	9.6	12.0	12.3	16.9	25.4	3.2	0.2	100.0	
	대학원졸	465	25.8	8.0	11.4	11.2	13.1	26.2	3.2	1.1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20.9	8.2	12.9	11.8	15.3	25.8	4.9	0.2	100.0	32.297 (df=33)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20.6	9.5	12.2	12.9	16.2	24.9	3.3	0.4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20.1	8.5	12.6	12.2	17.6	25.3	3.5	0.3	100.0	
	600만원 이상	1,340	22.2	10.1	12.8	10.5	15.3	26.4	2.5	0.2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17.7	7.7	13.4	13.8	19.2	25.4	2.7	0.0	100.0	97.817 (df=11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23.9	8.3	12.8	12.1	14.4	25.2	2.6	0.8	100.0	
	사무 종사자	1,214	21.7	9.8	13.1	11.4	17.2	23.3	3.3	0.2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17.4	8.9	9.5	13.7	19.5	27.4	3.7	0.0	100.0	
	판매 종사자	210	19.0	10.0	14.3	13.3	16.2	23.8	3.3	0.0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9.4	12.5	15.6	28.1	9.4	25.0	0.0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17.0	11.5	12.1	12.7	13.9	29.7	2.4	0.6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15.7	11.8	13.7	10.8	13.7	28.4	5.9	0.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18.6	9.0	11.1	17.1	14.6	25.6	4.0	0.0	100.0	
	군인	13	7.7	7.7	7.7	7.7	23.1	46.2	0.0	0.0	100.0	
기타	1,325	21.8	9.5	11.8	10.0	15.8	26.8	3.9	0.4	100.0		

〈표 41〉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축소에 대한 의견

구분	사례수	응답 비율					잘 모르겠다	계	χ^2
		학생 수 감소 비율에 따라 교육재정을 축소해 나가야 한다	교육 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 이후 교육 재정을 축소해 나가야 한다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 재정을 축소하지 말고 현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교육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교육 재정을 증가해 나가야 한다				
전 체	5,000	11.4	29.2	32.1	21.7	5.6	100.0	-	
성별	남	2,531	10.5	29.5	31.3	23.5	5.2	100.0	14.193** (df=4)
	여	2,469	12.3	28.9	32.9	19.8	6.1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10.7	30.9	31.7	22.3	4.4	100.0	15.011 (df=12)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13.0	29.3	31.4	20.7	5.6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11.0	28.4	32.4	21.7	6.4	100.0	
	읍·면(군)지역	324	10.2	29.0	33.6	23.5	3.7	100.0	
연령	19~29세	929	11.9	25.8	31.4	21.1	9.7	100.0	70.350*** (df=16)
	30대	870	11.6	30.2	31.5	21.0	5.6	100.0	
	40대	1,046	9.8	26.2	34.5	25.6	3.8	100.0	
	50대	1,084	11.3	31.2	31.4	22.2	3.9	100.0	
	60~74세	1,071	12.4	32.1	31.5	18.3	5.7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10.9	30.4	32.8	22.2	3.7	100.0	56.856*** (df=4)
	자녀 없음	2,073	12.2	27.4	31.1	20.9	8.4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8.5	28.4	35.2	25.9	1.9	100.0	56.973*** (df=4)
	기타	3,963	12.2	29.4	31.3	20.6	6.6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8.9	27.0	34.6	27.4	2.1	100.0	27.227*** (df=4)
	기타	4,474	11.7	29.4	31.8	21.0	6.1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6.1	28.4	36.5	26.6	2.3	100.0	22.535*** (df=4)
	기타	4,658	11.8	29.2	31.8	21.3	5.9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8.2	30.6	35.3	24.1	1.9	100.0	19.159** (df=4)
	기타	4,572	11.7	29.0	31.8	21.5	6.0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12.9	31.3	31.6	22.3	1.9	100.0	17.781** (df=4)
	기타	4,434	11.2	28.9	32.1	21.6	6.1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9.6	26.0	27.9	16.3	20.2	100.0	79.893*** (df=12)
	고졸	886	11.6	26.2	34.7	19.1	8.5	100.0	
	전문대/대졸	3,545	11.3	29.9	31.7	22.1	5.0	100.0	
	대학원졸	465	12.0	30.3	31.4	24.5	1.7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11.2	31.2	30.1	16.1	11.4	100.0	59.483*** (df=12)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11.4	28.4	31.8	21.3	7.0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11.1	29.7	33.0	22.6	3.7	100.0	
	600만원 이상	1,340	11.9	28.8	32.0	23.1	4.3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10.1	29.6	33.2	23.0	4.0	100.0	97.872*** (df=4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9.9	28.1	31.8	25.7	4.5	100.0	
	사무 종사자	1,214	11.4	29.0	33.5	22.1	4.0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14.2	25.8	32.1	23.2	4.7	100.0	
	판매 종사자	210	10.0	31.0	34.8	20.5	3.8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3.1	40.6	40.6	9.4	6.3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9.7	30.9	26.1	27.3	6.1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13.7	30.4	27.5	24.5	3.9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10.6	26.1	27.1	22.6	13.6	100.0	
	군인	13	15.4	30.8	30.8	7.7	15.4	100.0	
기타	1,325	13.2	30.0	31.7	17.2	7.9	100.0		

〈표 42〉 코로나19 교육영역 정부 대응 적절성

구분	응답 비율											F	
	사례수	매우 적절하다	적절하다	보통이다	적절하지 않다	전혀 적절하지 않다	종합결과			평균 (5점)	표준 편차		
							적절하지 않음	보통	적절함				
전 체	5,000	6.0	38.4	42.2	10.9	2.4	13.3	42.2	44.5	3.35	0.8	-	
성별	남	2,531	6.3	38.3	40.3	11.9	3.2	15.1	40.3	44.6	3.33	0.9	3.449 (df=1)
	여	2,469	5.8	38.6	44.2	9.8	1.6	11.5	44.2	44.3	3.37	0.8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5.3	36.2	43.5	12.2	2.7	14.9	43.5	41.6	3.29	0.8	3.887** (df=3)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5.8	37.2	43.0	11.1	2.8	13.9	43.0	43.0	3.32	0.9	
	중소도시(시 지역)	2,359	6.5	39.2	41.7	10.3	2.3	12.6	41.7	45.7	3.37	0.8	
	읍·면(군)지역	324	5.6	44.4	39.2	10.5	0.3	10.8	39.2	50.0	3.44	0.8	
연령	19~29세	929	5.3	32.3	45.5	13.7	3.2	16.9	45.5	37.6	3.23	0.9	9.779*** (df=4)
	30대	870	6.2	33.8	45.1	11.7	3.2	14.9	45.1	40.0	3.28	0.9	
	40대	1,046	7.6	40.5	40.1	9.8	2.0	11.8	40.1	48.2	3.42	0.8	
	50대	1,084	6.0	42.8	39.0	10.1	2.1	12.2	39.0	48.8	3.40	0.8	
	60~74세	1,071	4.9	41.1	42.5	9.8	1.7	11.5	42.5	46.0	3.38	0.8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5.4	40.0	41.6	10.8	2.2	13.0	41.6	45.4	3.36	0.8	0.562 (df=1)
	자녀 없음	2,073	6.9	36.2	43.2	11.0	2.7	13.7	43.2	43.1	3.34	0.9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6.3	39.1	40.8	11.3	2.6	13.9	40.8	45.3	3.35	0.9	0.019 (df=1)
	기타	3,963	6.0	38.3	42.6	10.8	2.3	13.1	42.6	44.2	3.35	0.8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6.1	37.1	41.8	11.6	3.4	15.0	41.8	43.2	3.31	0.9	1.314 (df=1)
	기타	4,474	6.0	38.6	42.3	10.8	2.3	13.1	42.3	44.6	3.35	0.8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7.6	38.6	42.4	9.6	1.8	11.4	42.4	46.2	3.41	0.8	1.779 (df=1)
	기타	4,658	5.9	38.4	42.2	11.0	2.4	13.4	42.2	44.3	3.34	0.8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6.5	40.4	39.5	11.7	1.9	13.6	39.5	47.0	3.38	0.8	0.720 (df=1)
	기타	4,572	6.0	38.3	42.5	10.8	2.4	13.3	42.5	44.2	3.34	0.8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6.2	44.0	37.3	10.6	1.9	12.5	37.3	50.2	3.42	0.8	4.530* (df=1)
	기타	4,434	6.0	37.7	42.9	10.9	2.5	13.4	42.9	43.7	3.34	0.8	
학력	중졸 이하	104	1.9	33.7	54.8	8.7	1.0	9.6	54.8	35.6	3.27	0.7	0.803 (df=3)
	고졸	886	4.0	38.5	44.8	11.1	1.7	12.8	44.8	42.4	3.32	0.8	
	전문대/대졸	3,545	6.5	38.0	42.7	10.3	2.5	12.8	42.7	44.5	3.36	0.8	
	대학원졸	465	6.9	42.8	31.4	15.7	3.2	18.9	31.4	49.7	3.34	0.9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8.2	35.3	45.2	9.0	2.4	11.4	45.2	43.4	3.38	0.9	0.599 (df=3)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5.0	38.7	44.5	10.2	1.7	11.9	44.5	43.6	3.35	0.8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5.7	38.1	41.9	11.8	2.5	14.3	41.9	43.8	3.33	0.8	
	600만원 이상	1,340	6.9	39.7	38.8	11.3	3.2	14.6	38.8	46.6	3.36	0.9	
직업군	관리자	621	6.1	37.5	41.1	12.4	2.9	15.3	41.1	43.6	3.32	0.9	1.152 (df=1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6.8	39.0	39.0	11.6	3.7	15.3	39.0	45.7	3.34	0.9	
	사무 종사자	1,214	5.9	37.2	44.6	10.3	1.9	12.2	44.6	43.2	3.35	0.8	
	서비스 종사자	190	5.3	46.8	35.3	11.1	1.6	12.6	35.3	52.1	3.43	0.8	
	판매 종사자	210	4.3	40.0	37.6	14.3	3.8	18.1	37.6	44.3	3.27	0.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0.0	31.3	56.3	12.5	0.0	12.5	56.3	31.3	3.19	0.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6.1	38.8	41.8	12.1	1.2	13.3	41.8	44.8	3.36	0.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5.9	36.3	39.2	18.6	0.0	18.6	39.2	42.2	3.29	0.8	
	단순노무 종사자	199	5.5	34.7	47.7	10.1	2.0	12.1	47.7	40.2	3.32	0.8	
	군인	13	0.0	30.8	46.2	15.4	7.7	23.1	46.2	30.8	3.00	0.9	
	기타	1,325	6.2	39.1	43.7	9.0	2.0	11.0	43.7	45.3	3.38	0.8	

〈표 43〉 국가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교육영역에서 우선해야 할 일

구분	응답 비율							χ^2	
	사례수	긴급 돌봄 등 보육/돌봄	학생들의 배움 및 학습 유지	급식 등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	방역 등 학교 지원	기타	계		
전 체	5,000	21.7	36.4	31.1	10.6	0.1	100.0	-	
성별	남	2,531	20.8	36.9	30.7	11.4	0.1	100.0	12.537 (df=9)
	여	2,469	22.7	35.8	31.6	9.8	0.2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19.7	39.1	31.6	9.2	0.3	100.0	40.154 (df=27)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22.5	34.2	31.8	11.5	0.0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22.1	36.5	30.4	10.8	0.1	100.0	
	읍·면(군)지역	324	21.9	35.8	32.1	9.9	0.3	100.0	
연령	19~29세	929	19.5	27.3	41.1	11.8	0.2	100.0	149.988*** (df=36)
	30대	870	26.4	30.7	33.8	8.9	0.2	100.0	
	40대	1,046	17.4	44.2	27.9	10.4	0.1	100.0	
	50대	1,084	20.9	40.0	27.4	11.5	0.1	100.0	
	60~74세	1,071	24.9	37.4	27.3	10.3	0.1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21.7	41.1	27.5	9.5	0.1	100.0	88.704*** (df=9)
	자녀 없음	2,073	21.8	29.7	36.2	12.2	0.2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15.1	47.8	28.9	7.9	0.2	100.0	90.586*** (df=9)
	기타	3,963	23.5	33.4	31.7	11.3	0.1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17.5	45.4	28.3	8.4	0.4	100.0	34.800*** (df=9)
	기타	4,474	22.2	35.3	31.5	10.9	0.1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12.0	49.4	29.8	8.8	0.0	100.0	35.165*** (df=9)
	기타	4,658	22.5	35.4	31.2	10.8	0.2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12.4	49.3	31.5	6.8	0.0	100.0	47.595*** (df=9)
	기타	4,572	22.6	35.1	31.1	11.0	0.2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20.1	45.2	23.3	11.3	0.0	100.0	28.266** (df=9)
	기타	4,434	21.9	35.2	32.1	10.5	0.2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20.2	29.8	40.4	8.7	1.0	100.0	64.170*** (df=27)
	고졸	886	20.3	32.6	34.9	12.2	0.0	100.0	
	전문대/대졸	3,545	22.3	36.9	30.8	9.9	0.1	100.0	
	대학원졸	465	20.9	41.1	24.5	13.3	0.2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22.2	29.7	35.1	12.9	0.2	100.0	33.774 (df=27)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22.1	35.0	32.0	10.7	0.1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20.9	37.5	31.0	10.4	0.3	100.0	
	600만원 이상	1,340	22.2	39.0	28.9	10.0	0.0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18.2	44.3	30.0	7.6	0.0	100.0	147.601*** (df=9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23.8	35.7	28.2	11.9	0.3	100.0	
	사무 종사자	1,214	24.3	35.7	31.3	8.7	0.0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22.1	30.5	36.8	10.5	0.0	100.0	
	판매 종사자	210	14.8	38.1	28.1	19.0	0.0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25.0	34.4	34.4	6.3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23.6	29.1	37.0	10.3	0.0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14.7	35.3	34.3	14.7	1.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17.1	32.2	35.2	15.6	0.0	100.0	
	군인	13	38.5	23.1	30.8	7.7	0.0	100.0	
기타	1,325	21.4	36.1	31.6	10.6	0.2	100.0		

〈표 44〉 국가 위기상황에서 학습 유지를 위해 우선해야 할 대응과제

구분	응답 비율						χ^2	
	사례수	온라인 수업체제 구축	교원의 위기 대응 능력 향상	학교단위 위기관리 매뉴얼 구축	탄력적인 학교운영 체제 구축	기타(학급당 학생 수 감소 등)		
전 체	5,000	27.4	17.0	27.3	28.3	0.1	-	
성별	남	2,531	27.2	17.1	26.6	29.0	0.0	5.898 (df=7)
	여	2,469	27.5	16.9	27.9	27.5	0.1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25.5	21.1	28.9	24.3	0.2	46.184** (df=21)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29.0	16.6	28.2	26.1	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27.6	15.5	25.7	31.1	0.1	
	읍·면(군)지역	324	24.1	17.3	30.2	28.4	0.0	
연령	19~29세	929	23.6	16.9	32.9	26.3	0.3	68.988*** (df=28)
	30대	870	24.8	18.6	30.5	26.0	0.1	
	40대	1,046	28.8	17.4	27.6	26.2	0.0	
	50대	1,084	28.5	16.1	24.5	30.8	0.0	
	60~74세	1,071	30.2	16.3	22.2	31.3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27.5	17.7	25.9	28.9	0.0	12.777 (df=7)
	자녀 없음	2,073	27.2	16.1	29.2	27.4	0.1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25.5	19.4	28.8	26.2	0.1	13.694 (df=7)
	기타	3,963	27.9	16.4	26.9	28.8	0.1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25.9	18.4	32.3	23.2	0.2	20.853** (df=7)
	기타	4,474	27.5	16.9	26.7	28.9	0.1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27.8	18.1	26.3	27.8	0.0	0.738 (df=7)
	기타	4,658	27.3	16.9	27.4	28.3	0.1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24.1	19.6	25.9	30.4	0.0	5.150 (df=7)
	기타	4,572	27.7	16.8	27.4	28.1	0.1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27.6	17.7	24.2	30.6	0.0	4.090 (df=7)
	기타	4,434	27.3	16.9	27.7	28.0	0.1	
학력	중졸 이하	104	28.8	17.3	36.5	17.3	0.0	23.974 (df=21)
	고졸	886	27.4	17.6	28.4	26.5	0.0	
	전문대/대졸	3,545	27.0	17.0	27.6	28.3	0.1	
	대학원졸	465	29.9	15.9	20.9	33.3	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33.8	11.4	26.9	27.7	0.2	49.746*** (df=21)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28.1	17.2	28.3	26.3	0.1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24.9	19.1	28.0	27.8	0.1	
	600만원 이상	1,340	27.0	16.3	25.3	31.3	0.0	
직업군	관리자	621	25.3	21.6	25.4	27.7	0.0	57.959 (df=7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27.8	16.0	26.3	29.8	0.1	
	사무 종사자	1,214	27.0	16.8	29.7	26.4	0.0	
	서비스 종사자	190	27.4	15.3	27.4	30.0	0.0	
	판매 종사자	210	23.3	19.0	30.0	27.6	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25.0	15.6	31.3	28.1	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25.5	18.2	31.5	24.8	0.0	
	장차·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25.5	25.5	28.4	20.6	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27.1	22.1	27.1	23.6	0.0	
	군인	13	23.1	23.1	23.1	30.8	0.0	
기타	1,325	29.5	14.1	25.5	30.6	0.2		

〈표 45-1〉 대학교육의 인재양성 기능에 대한 평가: 4년제

구분	응답 비율											F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못하다	전혀 그렇지 못하다	종합결과		평균 (5점)	표준 편차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					
전 체	5,000	2.4	15.4	44.3	30.1	7.9	37.9	44.3	17.8	2.74	0.9	-	
성별	남	2,531	2.6	14.8	42.4	30.9	9.3	40.2	42.4	17.4	2.71	0.9	9.436** (df=1)
	여	2,469	2.2	16.0	46.2	29.2	6.4	35.6	46.2	18.1	2.78	0.9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2.7	15.6	43.0	31.1	7.6	38.7	43.0	18.3	2.75	0.9	0.765 (df=3)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2.3	16.9	43.3	29.3	8.2	37.5	43.3	19.2	2.76	0.9	
	중소도시(시 지역)	2,359	2.3	14.3	45.1	30.5	7.8	38.3	45.1	16.6	2.73	0.9	
	읍·면(군)지역	324	2.8	16.4	46.3	26.9	7.7	34.6	46.3	19.1	2.80	0.9	
연령	19~29세	929	3.8	18.0	43.5	26.5	8.3	34.8	43.5	21.7	2.82	0.9	5.079*** (df=4)
	30대	870	3.3	16.1	45.4	28.7	6.4	35.2	45.4	19.4	2.81	0.9	
	40대	1,046	1.9	15.3	44.7	28.6	9.5	38.0	44.7	17.2	2.72	0.9	
	50대	1,084	1.8	13.8	42.8	34.1	7.4	41.5	42.8	15.7	2.69	0.9	
	60~74세	1,071	1.5	14.2	45.1	31.6	7.7	39.2	45.1	15.7	2.70	0.9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2.2	15.8	44.1	30.7	7.3	38.0	44.1	17.9	2.75	0.9	0.216 (df=1)
	자녀 없음	2,073	2.7	14.8	44.5	29.2	8.7	37.9	44.5	17.6	2.74	0.9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2.4	17.6	43.4	28.6	8.0	36.6	43.4	20.0	2.78	0.9	1.851 (df=1)
	기타	3,963	2.4	14.8	44.5	30.4	7.8	38.3	44.5	17.2	2.73	0.9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2.9	17.5	44.7	27.8	7.2	35.0	44.7	20.3	2.81	0.9	3.230 (df=1)
	기타	4,474	2.3	15.1	44.2	30.3	8.0	38.3	44.2	17.5	2.74	0.9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2.0	19.3	42.7	24.9	11.1	36.0	42.7	21.3	2.76	1.0	0.175 (df=1)
	기타	4,658	2.4	15.1	44.4	30.4	7.6	38.1	44.4	17.5	2.74	0.9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2.6	17.3	43.0	30.6	6.5	37.1	43.0	19.9	2.79	0.9	1.122 (df=1)
	기타	4,572	2.4	15.2	44.4	30.0	8.0	38.0	44.4	17.6	2.74	0.9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1.6	15.5	41.5	34.5	6.9	41.3	41.5	17.1	2.70	0.9	1.192 (df=1)
	기타	4,434	2.5	15.4	44.6	29.5	8.0	37.5	44.6	17.9	2.75	0.9	
학력	중졸 이하	104	0.0	11.5	57.7	20.2	10.6	30.8	57.7	11.5	2.70	0.8	3.944** (df=3)
	고졸	886	3.6	16.0	48.1	24.6	7.7	32.3	48.1	19.6	2.83	0.9	
	전문대/대졸	3,545	2.1	15.5	43.3	31.6	7.5	39.1	43.3	17.5	2.73	0.9	
	대학원졸	465	3.0	14.4	41.3	30.8	10.5	41.3	41.3	17.4	2.69	0.9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3.2	11.8	46.0	29.7	9.2	38.9	46.0	15.1	2.70	0.9	3.108* (df=3)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2.6	15.8	44.4	29.3	7.9	37.2	44.4	18.4	2.76	0.9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2.5	16.4	45.4	28.5	7.2	35.7	45.4	18.9	2.78	0.9	
	600만원 이상	1,340	1.8	14.9	42.2	33.0	8.1	41.1	42.2	16.6	2.69	0.9	
직업군	관리자	621	2.4	16.3	41.2	31.7	8.4	40.1	41.2	18.7	2.73	0.9	0.970 (df=1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2.8	16.7	42.8	30.2	7.4	37.7	42.8	19.5	2.77	0.9	
	사무 종사자	1,214	2.7	14.1	45.8	29.4	8.0	37.4	45.8	16.8	2.74	0.9	
	서비스 종사자	190	2.1	17.9	36.3	33.7	10.0	43.7	36.3	20.0	2.68	1.0	
	판매 종사자	210	3.3	16.2	44.3	26.2	10.0	36.2	44.3	19.5	2.77	1.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0.0	12.5	50.0	31.3	6.3	37.5	50.0	12.5	2.69	0.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0.6	13.9	48.5	30.9	6.1	37.0	48.5	14.5	2.72	0.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3.9	22.5	42.2	27.5	3.9	31.4	42.2	26.5	2.95	0.9	
	단순노무 종사자	199	4.0	14.6	47.2	25.1	9.0	34.2	47.2	18.6	2.79	0.9	
	군인	13	0.0	30.8	30.8	30.8	7.7	38.5	30.8	30.8	2.85	1.0	
	기타	1,325	1.7	14.4	45.7	30.6	7.6	38.3	45.7	16.1	2.72	0.9	

〈표 45-2〉 대학교육의 인재양성 기능에 대한 평가: 전문대

구분	응답 비율											F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못하다	전혀 그렇지 못하다	종합결과			평균 (5점)	표준 편차		
							그렇지 못하다	보통	그렇다				
전 체	5,000	2.0	19.9	49.9	22.5	5.7	28.2	49.9	21.9	2.90	0.9	-	
성별	남	2,531	2.3	18.6	48.4	23.6	7.0	30.7	48.4	20.9	2.85	0.9	14.512*** (df=1)
	여	2,469	1.8	21.1	51.4	21.4	4.3	25.7	51.4	22.9	2.95	0.8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1.4	19.9	48.0	24.1	6.5	30.6	48.0	21.4	2.86	0.9	2.426 (df=3)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2.5	19.4	48.8	24.1	5.1	29.3	48.8	21.9	2.90	0.9	
	중소도시(시 지역)	2,359	2.0	19.6	50.8	21.7	5.8	27.5	50.8	21.7	2.90	0.8	
	읍·면(군)지역	324	2.2	23.1	52.8	16.7	5.2	21.9	52.8	25.3	3.00	0.8	
연령	19~29세	929	2.0	17.7	50.7	22.5	7.1	29.6	50.7	19.7	2.85	0.9	2.551* (df=4)
	30대	870	1.6	17.1	51.7	24.0	5.5	29.5	51.7	18.7	2.85	0.8	
	40대	1,046	2.6	20.0	50.0	20.8	6.6	27.4	50.0	22.6	2.91	0.9	
	50대	1,084	1.9	22.7	48.5	21.9	5.0	26.8	48.5	24.6	2.95	0.8	
	60~74세	1,071	2.0	21.0	48.9	23.6	4.5	28.1	48.9	23.0	2.92	0.8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2.4	21.7	48.7	22.4	4.9	27.3	48.7	24.1	2.94	0.9	17.601*** (df=1)
	자녀 없음	2,073	1.6	17.3	51.6	22.7	6.8	29.6	51.6	18.9	2.84	0.8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2.8	22.7	47.7	21.2	5.6	26.8	47.7	25.5	2.96	0.9	6.159* (df=1)
	기타	3,963	1.8	19.1	50.4	22.9	5.7	28.6	50.4	21.0	2.88	0.8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3.2	23.0	47.3	22.4	4.0	26.4	47.3	26.2	2.99	0.9	6.631* (df=1)
	기타	4,474	1.9	19.5	50.2	22.5	5.9	28.4	50.2	21.4	2.89	0.8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1.5	23.4	46.5	21.3	7.3	28.7	46.5	24.9	2.90	0.9	0.006 (df=1)
	기타	4,658	2.1	19.6	50.1	22.6	5.6	28.2	50.1	21.7	2.90	0.8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3.3	23.1	49.3	19.4	4.9	24.3	49.3	26.4	3.00	0.9	7.069** (df=1)
	기타	4,572	1.9	19.6	49.9	22.8	5.8	28.6	49.9	21.5	2.89	0.8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2.7	25.8	47.3	19.4	4.8	24.2	47.3	28.4	3.02	0.9	12.945*** (df=1)
	기타	4,434	2.0	19.1	50.2	22.9	5.8	28.7	50.2	21.1	2.88	0.8	
학력	중졸 이하	104	1.0	7.7	58.7	26.9	5.8	32.7	58.7	8.7	2.71	0.7	6.854*** (df=3)
	고졸	886	2.0	25.3	48.9	18.7	5.1	23.8	48.9	27.3	3.00	0.9	
	전문대/대졸	3,545	2.0	19.0	50.1	23.2	5.7	28.9	50.1	21.0	2.88	0.8	
	대학원졸	465	2.6	18.7	48.2	23.7	6.9	30.5	48.2	21.3	2.86	0.9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2.2	17.2	51.2	22.8	6.7	29.5	51.2	19.4	2.85	0.9	2.191 (df=3)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2.0	18.1	52.7	21.5	5.7	27.3	52.7	20.1	2.89	0.8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2.3	22.9	46.2	23.8	4.7	28.5	46.2	25.3	2.94	0.9	
	600만원 이상	1,340	1.8	19.3	50.3	22.1	6.5	28.6	50.3	21.1	2.88	0.9	
직업군	관리자	621	3.2	21.4	47.0	22.9	5.5	28.3	47.0	24.6	2.94	0.9	0.700 (df=1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2.3	19.5	49.1	23.6	5.6	29.2	49.1	21.7	2.89	0.9	
	사무 종사자	1,214	1.8	19.8	50.0	22.8	5.6	28.4	50.0	21.6	2.89	0.8	
	서비스 종사자	190	3.2	24.2	43.7	23.7	5.3	28.9	43.7	27.4	2.96	0.9	
	판매 종사자	210	4.3	22.9	43.3	22.4	7.1	29.5	43.3	27.1	2.95	1.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0.0	25.0	46.9	21.9	6.3	28.1	46.9	25.0	2.91	0.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1.8	18.2	50.9	24.8	4.2	29.1	50.9	20.0	2.88	0.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1.0	25.5	50.0	18.6	4.9	23.5	50.0	26.5	2.99	0.8	
	단순노무 종사자	199	1.5	16.1	53.3	21.1	8.0	29.1	53.3	17.6	2.82	0.9	
	군인	13	0.0	23.1	53.8	23.1	0.0	23.1	53.8	23.1	3.00	0.7	
	기타	1,325	1.3	18.6	53.0	21.4	5.7	27.2	53.0	19.8	2.88	0.8	

〈표 46-1〉 제대로된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이 우선해야 할 과제: 4년제

구분	응답 비율						χ^2	
	사례수	학문 분야별 전문가의 양성	사회생활에 필요한 시민의식 및 인격적 소양의 함양	진로 탐색 및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직업 역량의 함양	기타	계		
전 체	5,000	43.4	31.3	25.2	0.1	100.0	-	
성별	남	2,531	43.2	33.6	23.2	0.0	100.0	20.134** (df=5)
	여	2,469	43.6	29.0	27.3	0.1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45.8	31.9	22.3	0.0	100.0	15.828 (df=15)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43.4	30.1	26.4	0.1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43.0	31.0	25.9	0.1	100.0	
	읍·면(군)지역	324	39.2	36.4	24.4	0.0	100.0	
연령	19~29세	929	43.1	30.7	26.2	0.1	100.0	16.879 (df=20)
	30대	870	42.0	32.1	25.9	0.1	100.0	
	40대	1,046	44.6	30.4	24.9	0.1	100.0	
	50대	1,084	43.0	31.0	26.0	0.0	100.0	
	60~74세	1,071	44.1	32.4	23.5	0.0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42.9	31.8	25.2	0.0	100.0	5.287 (df=5)
	자녀 없음	2,073	44.1	30.5	25.2	0.1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40.5	33.7	25.8	0.0	100.0	5.825 (df=5)
	기타	3,963	44.2	30.7	25.1	0.1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38.6	33.5	27.9	0.0	100.0	6.065 (df=5)
	기타	4,474	44.0	31.0	24.9	0.1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43.3	32.5	24.3	0.0	100.0	0.515 (df=5)
	기타	4,658	43.4	31.2	25.3	0.1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40.2	35.3	24.5	0.0	100.0	3.856 (df=5)
	기타	4,572	43.7	30.9	25.3	0.1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47.5	27.2	25.3	0.0	100.0	6.301 (df=5)
	기타	4,434	42.9	31.8	25.2	0.1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35.6	39.4	25.0	0.0	100.0	38.694** (df=15)
	고졸	886	38.5	36.2	25.2	0.1	100.0	
	전문대/대졸	3,545	43.8	30.0	26.1	0.1	100.0	
	대학원졸	465	51.2	30.1	18.7	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44.7	32.7	22.6	0.0	100.0	16.025 (df=15)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42.1	31.4	26.4	0.1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42.0	31.7	26.3	0.0	100.0	
	600만원 이상	1,340	46.2	30.1	23.6	0.1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38.5	38.3	23.2	0.0	100.0	85.841** (df=5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51.2	28.1	20.7	0.0	100.0	
	사무 종사자	1,214	41.7	30.2	28.0	0.1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37.9	42.6	19.5	0.0	100.0	
	판매 종사자	210	38.6	34.8	26.7	0.0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31.3	46.9	21.9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40.0	32.1	27.9	0.0	100.0	
	장차·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35.3	33.3	31.4	0.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42.2	35.2	22.6	0.0	100.0	
	군인	13	46.2	46.2	7.7	0.0	100.0	
	기타	1,325	44.8	27.7	27.3	0.2	100.0	

〈표 46-2〉 제대로된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이 우선해야 할 과제: 전문대

구분	응답 비율						χ^2	
	사례수	학문 분야별 전문가의 양성	사회생활에 필요한 시민의식 및 인격적 소양의 함양	진로 탐색 및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직업 역량의 함양	기타	계		
전 체	5,000	25.0	18.3	56.6	0.0	100.0	-	
성별	남	2,531	24.9	17.7	57.3	0.0	100.0	3.560 (df=4)
	여	2,469	25.2	19.0	55.8	0.0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24.4	19.8	55.7	0.0	100.0	9.053 (df=12)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25.7	18.8	55.4	0.1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25.2	17.2	57.6	0.0	100.0	
	읍·면(군)지역	324	23.1	20.1	56.8	0.0	100.0	
연령	19~29세	929	24.0	21.9	54.0	0.1	100.0	42.944*** (df=16)
	30대	870	26.0	20.8	53.2	0.0	100.0	
	40대	1,046	28.7	16.4	54.8	0.1	100.0	
	50대	1,084	24.0	15.0	61.0	0.0	100.0	
	60~74세	1,071	22.7	18.5	58.8	0.0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25.1	16.6	58.3	0.0	100.0	17.603** (df=4)
	자녀 없음	2,073	25.0	20.7	54.2	0.1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27.5	14.9	57.7	0.0	100.0	12.601* (df=4)
	기타	3,963	24.4	19.3	56.3	0.1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29.1	16.3	54.6	0.0	100.0	5.773 (df=4)
	기타	4,474	24.6	18.6	56.8	0.0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31.9	14.6	53.5	0.0	100.0	10.371* (df=4)
	기타	4,658	24.5	18.6	56.8	0.0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25.5	13.1	61.4	0.0	100.0	9.232 (df=4)
	기타	4,572	25.0	18.8	56.1	0.0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24.7	11.5	63.8	0.0	100.0	22.486*** (df=4)
	기타	4,434	25.1	19.2	55.7	0.0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31.7	23.1	45.2	0.0	100.0	41.689*** (df=12)
	고졸	886	24.2	23.7	52.0	0.1	100.0	
	전문대/대졸	3,545	25.7	17.2	57.1	0.0	100.0	
	대학원졸	465	20.4	15.5	64.1	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26.7	20.0	53.3	0.0	100.0	15.368 (df=12)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26.7	18.5	54.6	0.1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24.9	18.3	56.8	0.0	100.0	
	600만원 이상	1,340	22.6	17.5	59.9	0.0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24.2	16.7	59.1	0.0	100.0	35.536 (df=4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24.2	18.3	57.5	0.0	100.0	
	사무 종사자	1,214	25.3	19.0	55.6	0.1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25.3	20.0	54.7	0.0	100.0	
	판매 종사자	210	28.6	22.4	49.0	0.0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21.9	9.4	68.8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30.3	10.9	58.8	0.0	100.0	
	장차·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36.3	18.6	45.1	0.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24.6	22.1	53.3	0.0	100.0	
	군인 기타	13 1,325	15.4 23.9	30.8 18.0	53.8 58.0	0.0 0.1	100.0 100.0	

〈표 47-1〉 4년제 대학 교수에 대한 교육능력 평가

구분	응답 비율											F	
	사례수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보통 이다	못하고 있다	전혀 못하고 있다	종합결과			평균 (5점)	표준 편차		
							못하고 있음	보통	잘하고 있음				
전 체	5,000	1.0	14.3	49.1	27.3	8.3	35.6	49.1	15.3	2.72	0.8	-	
성별	남	2,531	1.1	14.8	48.0	26.9	9.2	36.1	48.0	15.9	2.72	0.9	0.471 (df=1)
	여	2,469	1.0	13.7	50.3	27.8	7.3	35.1	50.3	14.7	2.73	0.8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1.1	15.1	46.8	29.2	7.8	37.0	46.8	16.2	2.73	0.9	2.855* (df=3)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1.1	15.3	49.5	25.5	8.6	34.1	49.5	16.4	2.75	0.9	
	중소도시(시 지역)	2,359	1.0	13.2	49.0	28.1	8.7	36.8	49.0	14.2	2.70	0.8	
	읍·면(군)지역	324	0.6	15.4	55.2	23.5	5.2	28.7	55.2	16.0	2.83	0.8	
연령	19~29세	929	2.0	16.7	44.2	27.6	9.5	37.0	44.2	18.7	2.74	0.9	3.142* (df=4)
	30대	870	1.6	14.8	50.7	24.3	8.6	32.9	50.7	16.4	2.77	0.9	
	40대	1,046	0.8	12.1	50.4	27.5	9.2	36.7	50.4	12.9	2.68	0.8	
	50대	1,084	0.5	12.8	48.4	30.4	7.9	38.3	48.4	13.3	2.68	0.8	
	60~74세	1,071	0.5	15.2	51.5	26.4	6.3	32.8	51.5	15.7	2.77	0.8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0.8	15.2	49.4	27.3	7.4	34.7	49.4	16.0	2.75	0.8	5.001* (df=1)
	자녀 없음	2,073	1.4	13.0	48.8	27.4	9.5	36.9	48.8	14.3	2.69	0.9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0.9	15.2	48.8	27.4	7.7	35.1	48.8	16.1	2.74	0.8	0.542 (df=1)
	기타	3,963	1.1	14.0	49.2	27.3	8.4	35.7	49.2	15.1	2.72	0.8	
초등학교 학부모	초등학교 학부모	526	1.5	15.4	47.5	27.9	7.6	35.6	47.5	16.9	2.75	0.9	0.669 (df=1)
	기타	4,474	1.0	14.1	49.3	27.3	8.3	35.6	49.3	15.1	2.72	0.8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0.6	15.5	48.8	26.3	8.8	35.1	48.8	16.1	2.73	0.8	0.007 (df=1)
	기타	4,658	1.1	14.2	49.1	27.4	8.2	35.6	49.1	15.2	2.72	0.8	
고등학교 학부모	고등학교 학부모	428	0.5	15.7	49.1	28.3	6.5	34.8	49.1	16.1	2.75	0.8	0.513 (df=1)
	기타	4,572	1.1	14.1	49.1	27.3	8.4	35.7	49.1	15.2	2.72	0.8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0.4	14.0	49.3	28.6	7.8	36.4	49.3	14.3	2.70	0.8	0.339 (df=1)
	기타	4,434	1.1	14.3	49.1	27.2	8.3	35.5	49.1	15.4	2.73	0.8	
학력	중졸 이하	104	0.0	12.5	58.7	22.1	6.7	28.8	58.7	12.5	2.77	0.8	7.554*** (df=3)
	고졸	886	0.9	17.0	54.4	20.9	6.8	27.7	54.4	17.9	2.84	0.8	
	전문대/대졸	3,545	1.0	13.5	48.3	28.7	8.5	37.2	48.3	14.5	2.70	0.8	
	대학원졸	465	1.7	14.8	43.2	30.8	9.5	40.2	43.2	16.6	2.69	0.9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0.9	11.2	51.4	26.2	10.3	36.6	51.4	12.0	2.66	0.8	3.393* (df=3)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1.4	14.0	50.6	26.3	7.6	33.9	50.6	15.4	2.75	0.8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1.3	15.3	48.6	27.1	7.8	34.8	48.6	16.6	2.75	0.9	
	600만원 이상	1,340	0.3	14.4	47.1	29.3	8.9	38.2	47.1	14.7	2.68	0.8	
직업군	관리자	621	0.8	14.8	49.3	26.9	8.2	35.1	49.3	15.6	2.73	0.8	0.998 (df=1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1.9	14.3	46.2	29.3	8.3	37.6	46.2	16.3	2.72	0.9	
	사무 종사자	1,214	1.2	14.2	48.1	28.2	8.4	36.6	48.1	15.3	2.71	0.9	
	서비스 종사자	190	1.1	15.3	50.5	22.6	10.5	33.2	50.5	16.3	2.74	0.9	
	판매 종사자	210	0.5	15.2	48.6	26.7	9.0	35.7	48.6	15.7	2.71	0.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0.0	18.8	50.0	25.0	6.3	31.3	50.0	18.8	2.81	0.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1.2	12.7	52.1	24.2	9.7	33.9	52.1	13.9	2.72	0.9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0.0	24.5	52.0	18.6	4.9	23.5	52.0	24.5	2.96	0.8	
	단순노무 종사자	199	1.5	13.1	52.3	24.1	9.0	33.2	52.3	14.6	2.74	0.9	
	군인	13	0.0	15.4	61.5	23.1	0.0	23.1	61.5	15.4	2.92	0.6	
	기타	1,325	0.5	13.2	50.7	27.8	7.8	35.6	50.7	13.7	2.71	0.8	

〈표 47-2〉 전문대학 교수에 대한 교육능력 평가

구분	응답 비율											F	
	사례수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보통 이다	못하고 있다	전혀 못하고 있다	종합결과			평균 (5점)	표준 편차		
							못하고 있음	보통	잘하고 있음				
전 체	5,000	1.4	15.3	53.9	23.0	6.4	29.4	53.9	16.6	2.82	0.8	-	
성별	남	2,531	1.5	15.3	52.7	23.2	7.3	30.5	52.7	16.8	2.80	0.8	2.391 (df=1)
	여	2,469	1.2	15.3	55.2	22.9	5.4	28.3	55.2	16.5	2.84	0.8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1.4	13.1	54.2	24.3	6.9	31.2	54.2	14.6	2.78	0.8	2.781* (df=3)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1.5	16.0	52.4	23.8	6.3	30.1	52.4	17.5	2.83	0.8	
	중소도시(시 지역)	2,359	1.2	15.3	54.5	22.6	6.4	29.0	54.5	16.4	2.82	0.8	
	읍·면(군)지역	324	1.9	18.8	54.9	19.1	5.2	24.4	54.9	20.7	2.93	0.8	
연령	19~29세	929	1.6	12.8	53.5	24.1	8.0	32.1	53.5	14.4	2.76	0.8	7.282*** (df=4)
	30대	870	1.6	12.0	54.8	24.8	6.8	31.6	54.8	13.6	2.77	0.8	
	40대	1,046	1.1	13.0	56.5	22.1	7.3	29.3	56.5	14.1	2.79	0.8	
	50대	1,084	1.1	18.8	50.2	23.9	6.0	29.9	50.2	19.9	2.85	0.8	
	60~74세	1,071	1.4	18.8	54.8	20.7	4.3	25.0	54.8	20.2	2.92	0.8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1.6	17.5	53.4	22.2	5.4	27.6	53.4	19.1	2.88	0.8	33.363*** (df=1)
	자녀 없음	2,073	1.0	12.2	54.7	24.2	7.9	32.1	54.7	13.2	2.74	0.8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2.4	15.9	53.0	22.3	6.4	28.6	53.0	18.3	2.86	0.8	2.517 (df=1)
	기타	3,963	1.1	15.1	54.2	23.2	6.4	29.6	54.2	16.2	2.81	0.8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3.0	16.7	54.6	20.2	5.5	25.7	54.6	19.8	2.92	0.8	7.984** (df=1)
	기타	4,474	1.2	15.1	53.8	23.4	6.5	29.9	53.8	16.3	2.81	0.8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2.0	16.4	51.5	22.2	7.9	30.1	51.5	18.4	2.82	0.9	0.005 (df=1)
	기타	4,658	1.3	15.2	54.1	23.1	6.3	29.4	54.1	16.5	2.82	0.8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2.1	16.1	51.9	24.3	5.6	29.9	51.9	18.2	2.85	0.8	0.498 (df=1)
	기타	4,572	1.3	15.2	54.1	22.9	6.5	29.4	54.1	16.5	2.82	0.8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1.4	19.6	51.2	22.3	5.5	27.7	51.2	21.0	2.89	0.8	4.813* (df=1)
	기타	4,434	1.4	14.7	54.3	23.1	6.5	29.7	54.3	16.1	2.81	0.8	
학력	중졸 이하	104	0.0	7.7	64.4	22.1	5.8	27.9	64.4	7.7	2.74	0.7	7.230*** (df=3)
	고졸	886	1.6	20.1	53.3	20.3	4.7	25.1	53.3	21.7	2.93	0.8	
	전문대/대졸	3,545	1.3	13.9	54.7	23.4	6.7	30.1	54.7	15.2	2.80	0.8	
	대학원졸	465	1.9	18.1	47.1	25.8	7.1	32.9	47.1	20.0	2.82	0.9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1.5	12.9	53.8	23.4	8.4	31.8	53.8	14.4	2.76	0.8	2.517 (df=3)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1.3	16.0	53.4	22.8	6.5	29.4	53.4	17.2	2.83	0.8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1.5	16.3	53.8	23.3	5.1	28.4	53.8	17.8	2.86	0.8	
	600만원 이상	1,340	1.2	14.1	54.8	22.9	7.0	29.9	54.8	15.3	2.80	0.8	
직업군	관리자	621	1.8	15.5	52.8	23.5	6.4	30.0	52.8	17.2	2.83	0.8	1.853* (df=1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1.4	16.0	50.7	24.3	7.5	31.9	50.7	17.4	2.79	0.8	
	사무 종사자	1,214	1.4	14.2	54.0	24.1	6.3	30.4	54.0	15.6	2.80	0.8	
	서비스 종사자	190	3.2	16.8	51.1	21.1	7.9	28.9	51.1	20.0	2.86	0.9	
	판매 종사자	210	3.8	14.8	50.0	24.3	7.1	31.4	50.0	18.6	2.84	0.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0.0	21.9	40.6	31.3	6.3	37.5	40.6	21.9	2.78	0.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1.8	16.4	53.9	20.0	7.9	27.9	53.9	18.2	2.84	0.9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0.0	22.5	54.9	18.6	3.9	22.5	54.9	22.5	2.96	0.8	
	단순노무 종사자	199	1.0	9.0	56.8	24.1	9.0	33.2	56.8	10.1	2.69	0.8	
	군인	13	7.7	30.8	53.8	7.7	0.0	7.7	53.8	38.5	3.38	0.8	
	기타	1,325	0.5	15.5	57.4	21.5	5.1	26.6	57.4	16.0	2.85	0.8	

〈표 48〉 사립대학 지원 확대에 대한 의견

구분	응답 비율					χ^2	
	사례수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계		
전 체	5,000	22.3	54.3	23.4	100.0	-	
성별	남	2,531	24.0	56.4	19.6	100.0	41.966*** (df=2)
	여	2,469	20.6	52.1	27.3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23.2	53.9	22.9	100.0	8.302 (df=6)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21.4	55.3	23.3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21.7	54.3	24.0	100.0	
	읍·면(군)지역	324	28.1	50.9	21.0	100.0	
연령	19~29세	929	20.8	50.1	29.2	100.0	45.906*** (df=8)
	30대	870	18.2	54.6	27.2	100.0	
	40대	1,046	23.2	55.9	20.8	100.0	
	50대	1,084	24.6	55.8	19.6	100.0	
	60~74세	1,071	23.8	54.6	21.6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24.6	55.6	19.8	100.0	57.792*** (df=2)
	자녀 없음	2,073	19.1	52.4	28.5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26.1	55.6	18.2	100.0	23.823*** (df=2)
	기타	3,963	21.3	53.9	24.7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27.0	54.0	19.0	100.0	10.568** (df=2)
	기타	4,474	21.8	54.3	23.9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25.7	55.3	19.0	100.0	4.981 (df=2)
	기타	4,658	22.1	54.2	23.7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27.8	55.4	16.8	100.0	15.015** (df=2)
	기타	4,572	21.8	54.2	24.0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29.9	52.1	18.0	100.0	24.649*** (df=2)
	기타	4,434	21.4	54.6	24.1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10.6	45.2	44.2	100.0	56.253*** (df=6)
	고졸	886	22.9	51.4	25.7	100.0	
	전문대/대졸	3,545	21.8	54.8	23.4	100.0	
	대학원졸	465	27.5	58.5	14.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17.0	52.3	30.8	100.0	40.168*** (df=6)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20.9	52.8	26.3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23.5	56.2	20.3	100.0	
	600만원 이상	1,340	24.6	54.6	20.8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26.1	59.3	14.7	100.0	73.660*** (df=2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23.4	56.4	20.2	100.0	
	사무 종사자	1,214	20.9	54.2	24.9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23.2	56.3	20.5	100.0	
	판매 종사자	210	30.0	46.2	23.8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31.3	46.9	21.9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16.4	59.4	24.2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29.4	52.9	17.6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18.1	52.8	29.1	100.0	
	군인	13	15.4	53.8	30.8	100.0	
기타	1,325	20.5	51.5	28.1	100.0		

〈표 49〉 대학평가 시 가장 중요하게 반영해야 할 지표

구분	응답 비율									χ ²	
	사례수	졸업생의 취업률	교수들의 연구 역량	교수들의 교육 역량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교육여건 및 시설의 충족도	대학 경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기타	계		
전 체	5,000	9.9	9.8	24.1	22.2	8.5	25.4	0.1	100.0	-	
성별	남	2,531	8.7	11.7	23.7	20.9	9.0	25.9	0.1	100.0	38.244*** (df=8)
	여	2,469	11.2	7.7	24.5	23.6	8.0	25.0	0.0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7.2	11.1	27.8	23.2	8.0	22.6	0.1	100.0	61.181*** (df=24)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11.1	9.3	25.0	23.7	7.4	23.5	0.0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10.3	9.3	22.9	20.9	9.1	27.4	0.1	100.0	
	읍·면(군)지역	324	10.5	11.1	17.3	22.5	10.2	28.1	0.3	100.0	
연령	19~29세	929	10.5	10.1	29.7	24.0	7.4	18.0	0.2	100.0	121.495*** (df=32)
	30대	870	9.3	7.5	27.9	24.4	9.5	21.4	0.0	100.0	
	40대	1,046	9.8	9.8	22.0	24.6	8.5	25.3	0.1	100.0	
	50대	1,084	11.2	10.1	22.9	16.7	8.9	30.3	0.1	100.0	
	60~74세	1,071	8.9	11.0	19.2	22.1	8.3	30.4	0.0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10.0	10.0	23.0	21.3	8.5	27.1	0.0	100.0	19.181* (df=8)
	자녀 없음	2,073	9.8	9.4	25.5	23.4	8.5	23.2	0.2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11.1	8.7	24.5	22.6	9.3	23.9	0.0	100.0	6.565 (df=8)
	기타	3,963	9.6	10.0	23.9	22.1	8.3	25.8	0.1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10.5	9.5	24.5	23.6	9.3	22.6	0.0	100.0	3.489 (df=8)
	기타	4,474	9.9	9.8	24.0	22.0	8.4	25.8	0.1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14.0	7.9	21.1	21.9	9.9	25.1	0.0	100.0	10.071 (df=8)
	기타	4,658	9.6	9.9	24.3	22.2	8.4	25.5	0.1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11.2	8.9	25.7	21.0	8.9	24.3	0.0	100.0	2.636 (df=8)
	기타	4,572	9.8	9.8	23.9	22.3	8.5	25.5	0.1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12.9	8.5	23.9	15.0	10.6	29.2	0.0	100.0	28.740*** (df=8)
	기타	4,434	9.6	9.9	24.1	23.1	8.3	25.0	0.1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4.8	7.7	21.2	29.8	13.5	23.1	0.0	100.0	60.672*** (df=24)
	고졸	886	10.6	8.6	24.3	22.0	7.1	27.3	0.1	100.0	
	전문대/대졸	3,545	10.0	9.1	24.1	22.3	8.9	25.6	0.1	100.0	
	대학원졸	465	9.5	17.4	23.7	20.4	7.3	21.5	0.2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12.9	8.4	15.3	21.7	9.0	32.3	0.4	100.0	61.672*** (df=24)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10.2	9.8	25.0	21.1	9.1	24.8	0.0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8.8	8.8	24.7	24.6	8.2	24.8	0.1	100.0	
	600만원 이상	1,340	9.9	11.3	25.1	21.0	8.1	24.6	0.0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11.3	11.9	24.5	19.5	9.0	23.8	0.0	100.0	132.302*** (df=8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9.0	11.7	25.5	22.9	8.2	22.6	0.0	100.0	
	사무 종사자	1,214	9.9	8.1	24.9	24.2	8.1	24.8	0.1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8.4	8.4	23.7	25.8	8.4	25.3	0.0	100.0	
	판매 종사자	210	6.7	9.0	22.9	27.6	8.6	25.2	0.0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15.6	15.6	18.8	18.8	25.0	6.3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10.3	7.3	27.3	19.4	7.3	28.5	0.0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2.9	9.8	33.3	22.5	7.8	22.5	1.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10.1	9.5	25.6	20.1	10.6	24.1	0.0	100.0	
	군인	13	0.0	7.7	23.1	23.1	15.4	30.8	0.0	100.0	
기타	1,325	11.2	9.4	21.1	20.5	8.4	29.3	0.2	100.0		

〈표 50-1〉 대학교육혁신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1순위)

구분	응답 비율											χ^2	
	사례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 혁신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대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 혁신	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	대학의 자율 혁신을 위한 대학 평가 개선	특성화 지향 대학 체제 혁신	대학 간 상호 성장할 수 있는 대학 체제 개편	기타	계		
전 체	5,000	31.1	10.1	11.5	10.2	25.2	5.7	3.4	2.8	0.0	100.0	-	
성별	남	2,531	30.1	11.4	11.7	10.2	24.5	5.5	3.7	2.8	0.1	100.0	15.200 (df=9)
	여	2,469	32.0	8.7	11.3	10.2	25.9	5.9	3.0	2.8	0.0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30.0	11.5	13.2	11.9	22.8	5.0	2.9	2.7	0.0	100.0	42.201* (df=27)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31.6	10.3	11.8	11.6	23.5	5.3	3.5	2.3	0.1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30.8	9.7	10.5	8.8	27.5	6.1	3.5	3.0	0.0	100.0	
	읍·면(군)지역	324	33.6	7.1	12.3	9.6	23.1	6.2	3.7	4.3	0.0	100.0	
연령	19~29세	929	25.2	10.8	15.9	12.3	25.1	5.1	2.5	3.1	0.1	100.0	117.936*** (df=36)
	30대	870	25.4	11.3	16.2	11.8	25.1	4.9	2.9	2.4	0.0	100.0	
	40대	1,046	33.8	9.0	10.4	8.5	24.9	6.6	3.6	3.1	0.1	100.0	
	50대	1,084	33.6	10.1	7.7	9.3	26.8	5.8	3.9	2.8	0.0	100.0	
	60~74세	1,071	35.5	9.5	8.7	9.6	24.2	5.9	3.8	2.8	0.0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33.4	10.6	10.8	9.9	23.3	5.9	3.6	2.5	0.0	100.0	34.914*** (df=9)
	자녀 없음	2,073	27.7	9.4	12.5	10.7	27.9	5.4	3.1	3.3	0.0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30.7	11.4	12.0	10.1	24.5	5.7	3.6	2.0	0.1	100.0	10.076
	기타	3,963	31.2	9.7	11.4	10.2	25.4	5.7	3.3	3.1	0.0	100.0	(df=9)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28.5	12.5	14.6	10.1	23.8	5.3	3.0	1.9	0.2	100.0	21.180*
	기타	4,474	31.4	9.8	11.1	10.2	25.4	5.7	3.4	3.0	0.0	100.0	(df=9)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29.5	10.5	9.9	10.2	25.1	7.0	4.7	2.9	0.0	100.0	4.211
	기타	4,658	31.2	10.0	11.6	10.2	25.2	5.6	3.3	2.8	0.0	100.0	(df=9)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33.2	9.8	10.3	9.3	25.7	6.3	3.5	1.9	0.0	100.0	3.739
	기타	4,572	30.9	10.1	11.6	10.3	25.2	5.6	3.4	2.9	0.0	100.0	(df=9)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36.6	12.0	9.2	8.3	22.6	6.0	3.0	2.3	0.0	100.0	16.794
	기타	4,434	30.4	9.8	11.8	10.4	25.6	5.7	3.4	2.9	0.0	100.0	(df=9)
학력	중졸 이하	104	26.9	7.7	13.5	12.5	23.1	8.7	3.8	3.8	0.0	100.0	20.581 (df=27)
	고졸	886	29.8	10.5	11.5	12.5	24.8	5.0	3.2	2.7	0.0	100.0	
	전문대/대졸	3,545	31.0	10.0	11.8	9.6	25.7	5.8	3.4	2.8	0.1	100.0	
	대학원졸	465	35.1	10.8	8.8	10.1	22.6	6.0	3.7	3.0	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31.8	6.9	8.8	6.9	30.3	6.2	3.4	5.6	0.0	100.0	50.278** (df=27)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31.4	9.8	11.2	11.4	25.1	5.0	3.5	2.6	0.0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29.6	11.3	12.7	10.6	24.3	5.9	3.3	2.2	0.1	100.0	
	600만원 이상	1,340	32.2	10.0	11.3	9.5	24.6	6.2	3.2	3.0	0.0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31.1	11.3	12.9	10.6	21.3	5.6	4.8	2.4	0.0	100.0	135.828** (df=9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30.6	10.7	11.7	10.9	26.4	5.5	1.8	2.3	0.2	100.0	
	사무 종사자	1,214	29.5	8.8	13.5	10.5	25.9	5.8	3.3	2.6	0.0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32.6	11.1	10.5	8.9	22.1	6.8	4.2	3.7	0.0	100.0	
	판매 종사자	210	31.4	11.0	9.5	11.9	21.9	5.2	5.2	3.8	0.0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34.4	18.8	12.5	25.0	3.1	3.1	0.0	3.1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23.6	11.5	17.0	12.1	21.8	7.9	5.5	0.6	0.0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30.4	18.6	8.8	14.7	16.7	5.9	2.0	2.9	0.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26.6	9.0	12.1	12.6	24.1	8.0	1.5	6.0	0.0	100.0	
	군인	13	38.5	0.0	7.7	7.7	38.5	0.0	0.0	7.7	0.0	100.0	
기타	1,325	34.0	9.2	8.7	7.8	28.2	5.2	3.7	3.1	0.0	100.0		

〈표 50-2〉 대학교육혁신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2순위)

구분	응답 비율											χ ²	
	사례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 혁신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대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 혁신	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	대학의 자율 혁신을 위한 대학 평가 체제 개선	특성화 지향 대학 체제 혁신	대학 간 상호 성장할 수 있는 대학 체제 개편	기타	계		
전 체	4,999	16.0	16.4	7.9	6.2	19.7	16.3	11.2	6.1	0.1	100.0	-	
성별	남	2,531	15.6	16.6	8.4	6.4	19.3	16.2	11.4	6.1	0.1	100.0	5.781 (df=10)
	여	2,468	16.4	16.2	7.4	6.1	20.1	16.5	11.1	6.2	0.0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12.6	17.4	6.7	7.2	21.1	17.7	10.6	6.6	0.2	100.0	41.575 (df=30)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15.7	15.7	8.1	6.1	20.6	16.3	11.7	5.7	0.0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8	18.0	16.4	8.3	5.7	18.9	15.5	11.0	6.2	0.0	100.0	
	읍·면(군)지역	324	12.0	16.7	7.7	8.0	17.9	18.2	13.3	6.2	0.0	100.0	
연령	19~29세	928	16.1	13.7	9.2	7.3	19.0	16.7	10.3	7.5	0.2	100.0	57.750* (df=40)
	30대	870	14.3	14.7	8.7	7.1	19.0	19.0	10.7	6.6	0.0	100.0	
	40대	1,046	15.5	16.7	8.2	4.9	21.3	15.9	11.8	5.7	0.0	100.0	
	50대	1,084	17.5	17.9	8.1	5.8	18.1	15.3	11.3	5.8	0.1	100.0	
	60~74세	1,071	16.2	18.3	5.6	6.3	21.1	15.3	11.9	5.3	0.0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16.0	16.9	7.2	5.8	20.2	16.8	11.6	5.4	0.0	100.0	20.142* (df=10)
	자녀 없음	2,072	16.0	15.6	8.9	6.9	19.0	15.6	10.7	7.1	0.1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14.7	16.7	8.0	5.4	19.5	18.1	12.1	5.6	0.0	100.0	7.806 (df=10)
	기타	3,962	16.3	16.3	7.9	6.5	19.8	15.9	11.0	6.3	0.1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14.3	15.4	8.4	4.9	20.2	20.2	11.2	5.5	0.0	100.0	9.243 (df=10)
	기타	4,473	16.2	16.5	7.8	6.4	19.7	15.9	11.2	6.2	0.1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16.4	14.9	8.2	6.4	21.3	15.5	12.6	4.7	0.0	100.0	3.316 (df=10)
	기타	4,657	15.9	16.5	7.9	6.2	19.6	16.4	11.1	6.2	0.1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13.6	19.4	7.9	5.6	18.9	17.5	11.2	5.8	0.0	100.0	5.472 (df=10)
	기타	4,571	16.2	16.1	7.9	6.3	19.8	16.2	11.2	6.2	0.1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18.0	18.9	7.8	4.8	17.8	15.0	12.4	5.3	0.0	100.0	10.000 (df=10)
	기타	4,433	15.7	16.1	7.9	6.4	20.0	16.5	11.1	6.2	0.1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14.4	10.6	10.6	9.6	26.0	12.5	10.6	5.8	0.0	100.0	37.662 (df=30)
	고졸	886	17.7	14.4	6.4	6.1	21.0	15.2	13.7	5.4	0.0	100.0	
	전문대/대졸	3,544	15.7	16.6	8.5	6.2	19.6	16.7	10.3	6.3	0.1	100.0	
	대학원졸	465	15.1	19.8	5.8	5.8	17.2	16.1	13.8	6.5	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19.8	16.6	8.6	6.9	17.4	12.7	11.4	6.5	0.2	100.0	40.872 (df=30)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15.6	15.5	8.4	5.6	20.6	15.8	11.6	6.9	0.1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59	14.7	16.2	8.3	6.6	20.2	16.7	11.5	5.8	0.1	100.0	
	600만원 이상	1,340	16.6	17.7	6.6	6.4	19.0	17.8	10.4	5.5	0.0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14.5	17.4	6.4	6.1	19.6	17.2	12.7	6.0	0.0	100.0	88.057 (df=10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16.4	15.7	8.1	5.3	19.2	18.2	10.7	6.6	0.0	100.0	
	사무 종사자	1,214	14.5	16.4	7.9	6.5	20.2	16.6	11.4	6.4	0.1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17.4	12.1	12.6	8.4	20.5	15.8	7.9	5.3	0.0	100.0	
	판매 종사자	210	19.0	14.8	8.6	6.7	17.6	15.7	11.4	6.2	0.0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9.4	25.0	0.0	15.6	25.0	9.4	12.5	3.1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12.7	13.3	6.7	6.1	25.5	20.6	10.3	4.8	0.0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10.8	13.7	6.9	7.8	18.6	20.6	13.7	7.8	0.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13.1	12.6	8.0	8.0	23.1	17.6	13.1	4.5	0.0	100.0	
	군인	13	15.4	15.4	0.0	23.1	23.1	7.7	15.4	0.0	0.0	100.0	
기타	1,324	18.4	18.3	8.2	5.6	18.7	13.7	10.9	6.2	0.2	100.0		

〈표 50-3〉 대학교육혁신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1+2순위)

구분	응답 비율											χ^2	
	사례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 혁신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대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 혁신	대학 운영의 투명성 과 책무성 강화	대학의 자율 혁신을 위한 대학 평가 개선	특성화 지향 대학 체제 혁신	대학 간 상호 성장할 수 있는 대학 체제 개편	기타	계		
전 체	5,000	23.5	13.2	9.7	8.2	22.5	11.0	7.3	4.5	0.1	100.0	-	
성별	남	2,531	22.8	14.0	10.0	8.3	21.9	10.8	7.5	4.5	0.1	100.0	19.378 (df=12)
	여	2,469	24.2	12.5	9.4	8.1	23.0	11.2	7.1	4.5	0.0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21.3	14.4	10.0	9.5	22.0	11.3	6.7	4.6	0.1	100.0	51.523* (df=36)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23.7	13.0	9.9	8.9	22.0	10.8	7.6	4.0	0.0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24.4	13.1	9.4	7.2	23.2	10.8	7.2	4.6	0.0	100.0	
	읍·면(군)지역	324	22.8	11.9	10.0	8.8	20.5	12.2	8.5	5.2	0.0	100.0	
연령	19~29세	929	20.6	12.2	12.5	9.8	22.0	10.9	6.4	5.3	0.2	100.0	172.187*** (df=48)
	30대	870	19.8	13.0	12.5	9.5	22.0	12.0	6.8	4.5	0.0	100.0	
	40대	1,046	24.7	12.9	9.3	6.7	23.1	11.2	7.7	4.4	0.0	100.0	
	50대	1,084	25.6	14.0	7.9	7.6	22.5	10.6	7.6	4.3	0.0	100.0	
	60~74세	1,071	25.8	13.9	7.1	8.0	22.6	10.6	7.8	4.1	0.0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24.7	13.8	9.0	7.8	21.8	11.4	7.6	4.0	0.0	100.0	56.731*** (df=12)
	자녀 없음	2,073	21.8	12.5	10.7	8.8	23.4	10.5	6.9	5.2	0.1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22.7	14.0	10.0	7.8	22.0	11.9	7.8	3.8	0.0	100.0	16.123 (df=12)
	기타	3,963	23.7	13.0	9.6	8.3	22.6	10.8	7.2	4.7	0.1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21.4	14.0	11.5	7.5	22.0	12.7	7.1	3.7	0.1	100.0	25.844* (df=12)
	기타	4,474	23.8	13.2	9.5	8.3	22.5	10.8	7.3	4.6	0.0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23.0	12.7	9.1	8.3	23.2	11.3	8.6	3.8	0.0	100.0	4.434 (df=12)
	기타	4,658	23.6	13.3	9.7	8.2	22.4	11.0	7.2	4.5	0.1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23.4	14.6	9.1	7.5	22.3	11.9	7.4	3.9	0.0	100.0	5.264 (df=12)
	기타	4,572	23.5	13.1	9.7	8.3	22.5	10.9	7.3	4.5	0.1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27.3	15.5	8.5	6.5	20.2	10.5	7.7	3.8	0.0	100.0	36.776*** (df=12)
	기타	4,434	23.0	13.0	9.8	8.4	22.8	11.1	7.3	4.6	0.1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20.7	9.1	12.0	11.1	24.5	10.6	7.2	4.8	0.0	100.0	49.802 (df=36)
	고졸	886	23.8	12.5	9.0	9.3	22.9	10.1	8.4	4.1	0.0	100.0	
	전문대/대졸	3,545	23.3	13.3	10.1	7.9	22.6	11.2	6.9	4.6	0.1	100.0	
	대학원졸	465	25.1	15.3	7.3	8.0	19.9	11.1	8.7	4.7	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25.8	11.7	8.7	6.9	23.9	9.5	7.4	6.0	0.1	100.0	56.288* (df=36)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23.5	12.7	9.8	8.5	22.8	10.4	7.6	4.7	0.0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22.1	13.8	10.5	8.6	22.3	11.3	7.4	4.0	0.1	100.0	
	600만원 이상	1,340	24.4	13.8	9.0	7.9	21.8	12.0	6.8	4.3	0.0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22.8	14.3	9.7	8.4	20.5	11.4	8.8	4.2	0.0	100.0	163.790** (df=12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23.5	13.2	9.9	8.1	22.8	11.8	6.2	4.4	0.1	100.0	
	사무 종사자	1,214	22.0	12.6	10.7	8.5	23.1	11.2	7.3	4.5	0.0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25.0	11.6	11.6	8.7	21.3	11.3	6.1	4.5	0.0	100.0	
	판매 종사자	210	25.2	12.9	9.0	9.3	19.8	10.5	8.3	5.0	0.0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21.9	21.9	6.3	20.3	14.1	6.3	6.3	3.1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18.2	12.4	11.8	9.1	23.6	14.2	7.9	2.7	0.0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20.6	16.2	7.8	11.3	17.6	13.2	7.8	5.4	0.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19.8	10.8	10.1	10.3	23.6	12.8	7.3	5.3	0.0	100.0	
	군인 기타	13 1,325	26.9 26.2	7.7 13.7	3.8 8.4	15.4 6.7	30.8 23.4	3.8 9.4	7.7 7.3	3.8 4.6	0.0 0.1	100.0 100.0	

〈표 51-1〉 교육 행정 권한과 책임: 유·초·중·고 교육정책의 수립

구분	응답 비율						χ^2	
	사례수	교육부 장관	시·도 교육감	학교장	잘 모르겠다	계		
전 체	5,000	36.8	38.1	17.2	7.9	100.0	-	
성별	남	2,531	37.7	38.4	17.6	6.3	100.0	19.144*** (df=3)
	여	2,469	35.9	37.7	16.7	9.6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34.1	38.3	20.4	7.2	100.0	23.437** (df=9)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36.7	38.4	17.1	7.7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37.9	37.8	15.4	8.8	100.0	
	읍·면(군)지역	324	37.3	38.0	20.4	4.3	100.0	
연령	19~29세	929	36.3	33.7	16.4	13.7	100.0	63.936*** (df=12)
	30대	870	37.5	40.6	15.1	6.9	100.0	
	40대	1,046	38.5	39.0	16.0	6.5	100.0	
	50대	1,084	36.1	38.9	18.9	6.1	100.0	
	60~74세	1,071	35.9	38.1	19.0	7.0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36.5	39.2	18.4	5.9	100.0	44.957*** (df=3)
	자녀 없음	2,073	37.3	36.6	15.4	10.8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38.3	40.1	17.0	4.6	100.0	20.113*** (df=3)
	기타	3,963	36.4	37.5	17.2	8.8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38.6	39.9	17.1	4.4	100.0	10.369* (df=3)
	기타	4,474	36.6	37.9	17.2	8.3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38.3	42.1	14.9	4.7	100.0	7.751 (df=3)
	기타	4,658	36.7	37.8	17.3	8.2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39.7	37.1	18.7	4.4	100.0	8.958* (df=3)
	기타	4,572	36.5	38.2	17.0	8.2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38.3	39.8	17.7	4.2	100.0	11.869** (df=3)
	기타	4,434	36.6	37.9	17.1	8.4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32.7	36.5	12.5	18.3	100.0	51.563*** (df=9)
	고졸	886	29.9	39.4	19.9	10.8	100.0	
	전문대/대졸	3,545	38.0	38.1	16.7	7.1	100.0	
	대학원졸	465	41.7	35.7	16.6	6.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38.1	33.1	15.7	13.1	100.0	53.458*** (df=9)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33.3	39.4	17.6	9.6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37.2	40.4	16.6	5.8	100.0	
	600만원 이상	1,340	40.1	35.4	17.8	6.6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36.1	41.2	18.7	4.0	100.0	92.580*** (df=3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40.7	38.1	15.5	5.7	100.0	
	사무 종사자	1,214	37.1	38.6	16.1	8.2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36.3	35.8	20.5	7.4	100.0	
	판매 종사자	210	34.8	36.2	24.3	4.8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43.8	43.8	12.5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32.7	41.2	18.2	7.9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43.1	46.1	6.9	3.9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30.7	32.7	20.6	16.1	100.0	
	군인	13	46.2	30.8	15.4	7.7	100.0	
기타	1,325	35.2	36.5	17.3	10.9	100.0		

〈표 51-2〉 교육 행정 권한과 책임: 필수 교육과정의 결정

구분	응답 비율						χ^2	
	사례수	교육부 장관	시·도 교육감	학교장	잘 모르겠다	계		
전 체	5,000	36.9	34.9	21.0	7.3	100.0	-	
성별	남	2,531	36.0	35.4	22.3	6.2	100.0	14.089** (df=3)
	여	2,469	37.7	34.3	19.6	8.4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36.0	34.1	22.4	7.5	100.0	12.170 (df=9)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38.2	33.7	21.4	6.7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36.8	35.5	19.8	7.9	100.0	
	읍·면(군)지역	324	34.0	38.0	23.5	4.6	100.0	
연령	19~29세	929	39.5	29.2	18.0	13.3	100.0	97.227*** (df=12)
	30대	870	40.3	34.5	19.1	6.1	100.0	
	40대	1,046	37.1	37.4	20.1	5.4	100.0	
	50대	1,084	33.7	36.5	24.9	4.9	100.0	
	60~74세	1,071	34.7	36.1	21.9	7.2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35.3	36.6	23.1	5.1	100.0	74.003*** (df=3)
	자녀 없음	2,073	39.1	32.5	17.9	10.4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36.1	36.8	24.2	2.9	100.0	42.790*** (df=3)
	기타	3,963	37.1	34.4	20.1	8.4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38.8	34.6	23.6	3.0	100.0	17.026** (df=3)
	기타	4,474	36.6	34.9	20.7	7.8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36.8	38.9	21.9	2.3	100.0	14.149** (df=3)
	기타	4,658	36.9	34.6	20.9	7.6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34.3	38.1	24.8	2.8	100.0	18.281*** (df=3)
	기타	4,572	37.1	34.6	20.6	7.7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32.5	37.8	27.2	2.5	100.0	36.969*** (df=3)
	기타	4,434	37.4	34.5	20.2	7.9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33.7	24.0	22.1	20.2	100.0	51.293*** (df=9)
	고졸	886	31.5	35.8	23.4	9.4	100.0	
	전문대/대졸	3,545	38.1	34.6	20.6	6.6	100.0	
	대학원졸	465	38.5	37.6	18.5	5.4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37.8	31.6	18.1	12.5	100.0	42.029*** (df=9)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34.9	35.2	21.8	8.1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35.9	37.8	20.7	5.6	100.0	
	600만원 이상	1,340	40.0	32.4	21.3	6.3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34.1	39.9	22.7	3.2	100.0	109.333*** (df=3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38.2	34.0	21.9	5.9	100.0	
	사무 종사자	1,214	41.8	31.9	19.1	7.2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34.2	42.1	16.3	7.4	100.0	
	판매 종사자	210	35.2	33.3	25.7	5.7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31.3	34.4	31.3	3.1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28.5	42.4	23.0	6.1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38.2	29.4	28.4	3.9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27.1	29.6	28.1	15.1	100.0	
	군인	13	30.8	15.4	46.2	7.7	100.0	
기타	1,325	35.8	35.6	18.7	9.8	100.0		

〈표 51-3〉 교육 행정 권한과 책임: 교과목 표준 학습성취 기준 마련

구분	응답 비율						χ^2	
	사례수	교육부 장관	시·도 교육감	학교장	잘 모르겠다	계		
전 체	5,000	23.1	39.4	29.4	8.1	100.0	-	
성별	남	2,531	22.3	41.3	29.4	7.0	100.0	12.899** (df=3)
	여	2,469	24.0	37.5	29.4	9.1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22.6	38.8	30.7	7.9	100.0	6.649 (df=9)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24.9	38.3	29.1	7.7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22.2	40.2	29.0	8.6	100.0	
	읍·면(군)지역	324	24.4	39.5	29.6	6.5	100.0	
연령	19~29세	929	25.4	37.6	23.3	13.8	100.0	113.041*** (df=12)
	30대	870	25.5	42.5	24.5	7.5	100.0	
	40대	1,046	24.7	39.9	29.5	5.9	100.0	
	50대	1,084	21.4	36.5	36.7	5.4	100.0	
	60~74세	1,071	19.4	40.9	31.3	8.4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22.5	39.2	32.5	5.8	100.0	70.018*** (df=3)
	자녀 없음	2,073	23.9	39.7	25.0	11.3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23.9	39.2	33.5	3.5	100.0	41.820*** (df=3)
	기타	3,963	22.9	39.5	28.4	9.3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27.2	39.9	29.3	3.6	100.0	18.678*** (df=3)
	기타	4,474	22.6	39.3	29.4	8.6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23.1	38.3	36.0	2.6	100.0	18.879*** (df=3)
	기타	4,658	23.1	39.5	28.9	8.5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20.6	39.0	37.1	3.3	100.0	24.167*** (df=3)
	기타	4,572	23.4	39.4	28.7	8.5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21.7	37.8	36.9	3.5	100.0	29.389*** (df=3)
	기타	4,434	23.3	39.6	28.5	8.6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25.0	27.9	26.9	20.2	100.0	51.177*** (df=9)
	고졸	886	20.3	37.2	31.2	11.3	100.0	
	전문대/대졸	3,545	23.6	40.0	29.0	7.4	100.0	
	대학원졸	465	24.1	41.7	29.9	4.3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21.7	39.1	25.6	13.5	100.0	42.638*** (df=9)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21.4	39.5	29.6	9.5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23.2	39.1	31.3	6.3	100.0	
	600만원 이상	1,340	25.6	39.7	28.3	6.4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22.4	43.3	30.3	4.0	100.0	81.999*** (df=3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24.5	39.1	29.7	6.7	100.0	
	사무 종사자	1,214	26.9	38.8	26.5	7.8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21.1	38.9	32.1	7.9	100.0	
	판매 종사자	210	22.4	34.3	37.6	5.7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31.3	43.8	12.5	12.5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17.6	38.2	35.2	9.1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18.6	51.0	25.5	4.9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17.1	40.7	27.1	15.1	100.0	
	군인	13	15.4	38.5	38.5	7.7	100.0	
기타	1,325	21.3	38.2	30.0	10.5	100.0		

〈표 51-4〉 교육 행정 권한과 책임: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구분	응답 비율						χ^2	
	사례수	교육부 장관	시·도 교육감	학교장	잘 모르겠다	계		
전 체	5,000	26.0	30.1	35.5	8.4	100.0	-	
성별	남	2,531	25.1	30.1	37.5	7.3	100.0	13.836** (df=3)
	여	2,469	26.9	30.2	33.5	9.4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26.7	31.7	33.6	8.0	100.0	16.861 (df=9)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26.3	29.9	36.1	7.7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26.3	29.3	35.1	9.2	100.0	
	읍·면(군)지역	324	20.4	32.4	41.7	5.6	100.0	
연령	19~29세	929	30.7	29.7	25.4	14.2	100.0	206.839*** (df=12)
	30대	870	31.8	34.6	25.2	8.4	100.0	
	40대	1,046	28.0	31.0	35.2	5.8	100.0	
	50대	1,084	21.1	28.0	44.9	6.0	100.0	
	60~74세	1,071	20.1	28.3	43.5	8.1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23.7	30.2	39.9	6.3	100.0	89.134*** (df=3)
	자녀 없음	2,073	29.2	30.1	29.4	11.3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26.7	31.1	37.7	4.4	100.0	26.568*** (df=3)
	기타	3,963	25.8	29.9	34.9	9.4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29.7	33.3	33.1	4.0	100.0	19.370*** (df=3)
	기타	4,474	25.5	29.8	35.8	8.9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26.9	30.4	38.0	4.7	100.0	6.722 (df=3)
	기타	4,658	25.9	30.1	35.3	8.6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23.8	28.5	43.5	4.2	100.0	19.213*** (df=3)
	기타	4,572	26.2	30.3	34.8	8.7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20.1	31.4	44.2	4.2	100.0	35.138*** (df=3)
	기타	4,434	26.7	30.0	34.4	8.9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24.0	25.0	30.8	20.2	100.0	57.058*** (df=9)
	고졸	886	21.4	29.0	38.8	10.7	100.0	
	전문대/대졸	3,545	27.0	31.0	34.0	8.0	100.0	
	대학원졸	465	27.5	26.9	41.5	4.1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24.7	26.5	34.8	14.0	100.0	49.110*** (df=9)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24.1	29.4	36.4	10.2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25.8	31.9	36.1	6.3	100.0	
	600만원 이상	1,340	29.0	30.4	34.0	6.6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24.8	32.9	37.7	4.7	100.0	90.262*** (df=3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27.8	31.4	33.6	7.2	100.0	
	사무 종사자	1,214	29.6	32.4	29.8	8.2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23.2	29.5	39.5	7.9	100.0	
	판매 종사자	210	28.1	25.2	41.9	4.8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25.0	37.5	31.3	6.3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20.6	29.7	42.4	7.3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21.6	37.3	35.3	5.9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20.1	27.6	37.2	15.1	100.0	
	군인	13	23.1	23.1	46.2	7.7	100.0	
기타	1,325	24.0	26.6	38.4	11.0	100.0		

〈표 52〉 사교육 변화 정도

구분	응답 비율											F
	사례수	매우 줄어 들었다	다소 줄어 들었다	별다른 변화가 없다	다소 심화 되었다	매우 심화 되었다	종합결과			평균 (5점)	표준 편차	
							심화됨	보통	완화됨			
전 체	5,000	0.4	5.1	51.8	32.1	10.7	42.8	51.8	5.4	2.52	0.8	-
성별	남	2,531	0.4	5.0	52.6	30.8	11.2	42.0	52.6	5.4	2.53	0.8
	여	2,469	0.3	5.2	51.0	33.4	10.2	43.5	51.0	5.5	2.52	0.8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0.4	3.9	50.6	34.3	10.8	45.1	50.6	4.3	2.49	0.8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0.4	6.2	51.1	31.4	10.9	42.4	51.1	6.6	2.54	0.8
	중소도시(시 지역)	2,359	0.3	4.9	52.1	31.8	10.9	42.7	52.1	5.2	2.52	0.8
	읍·면(군)지역	324	0.3	5.6	56.2	29.9	8.0	38.0	56.2	5.9	2.60	0.7
연령	19~29세	929	0.2	4.0	47.4	35.3	13.1	48.4	47.4	4.2	2.43	0.8
	30대	870	0.2	3.3	52.4	32.8	11.3	44.0	52.4	3.6	2.49	0.7
	40대	1,046	0.4	5.7	49.1	32.2	12.5	44.7	49.1	6.1	2.49	0.8
	50대	1,084	0.6	5.9	54.3	30.4	8.9	39.2	54.3	6.5	2.59	0.8
	60~74세	1,071	0.4	6.0	55.2	30.3	8.2	38.5	55.2	6.3	2.60	0.7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0.5	5.9	52.1	31.9	9.6	41.5	52.1	6.4	2.56	0.8
	자녀 없음	2,073	0.2	3.9	51.4	32.3	12.3	44.5	51.4	4.1	2.47	0.8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0.5	6.8	46.3	35.0	11.5	46.5	46.3	7.2	2.50	0.8
	기타	3,963	0.3	4.6	53.2	31.3	10.5	41.8	53.2	5.0	2.53	0.8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0.8	6.5	47.3	33.3	12.2	45.4	47.3	7.2	2.50	0.8
	기타	4,474	0.3	4.9	52.3	31.9	10.5	42.4	52.3	5.2	2.53	0.8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0.3	7.6	41.5	34.2	16.4	50.6	41.5	7.9	2.41	0.9
	기타	4,658	0.4	4.9	52.6	31.9	10.3	42.2	52.6	5.3	2.53	0.8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0.5	7.5	46.7	36.2	9.1	45.3	46.7	7.9	2.54	0.8
	기타	4,572	0.3	4.9	52.3	31.7	10.8	42.5	52.3	5.2	2.52	0.8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0.2	6.2	53.9	32.0	7.8	39.8	53.9	6.4	2.59	0.7
	기타	4,434	0.4	4.9	51.5	32.1	11.1	43.1	51.5	5.3	2.51	0.8
학력	중졸 이하	104	0.0	2.9	60.6	27.9	8.7	36.5	60.6	2.9	2.58	0.7
	고졸	886	0.5	5.5	55.6	30.8	7.6	38.4	55.6	6.0	2.60	0.7
	전문대/대졸	3,545	0.4	5.1	50.8	32.3	11.4	43.7	50.8	5.5	2.51	0.8
	대학원졸	465	0.0	4.5	49.9	33.5	12.0	45.6	49.9	4.5	2.47	0.8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1.1	4.3	53.8	29.2	11.6	40.9	53.8	5.4	2.54	0.8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0.2	5.5	53.5	31.1	9.7	40.7	53.5	5.7	2.56	0.8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0.3	4.9	51.1	34.0	9.7	43.7	51.1	5.3	2.52	0.7
	600만원 이상	1,340	0.3	5.0	49.9	32.0	12.8	44.9	49.9	5.3	2.48	0.8
직업군	관리자	621	0.2	5.5	47.3	36.7	10.3	47.0	47.3	5.6	2.48	0.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0.3	5.0	51.3	32.4	11.0	43.4	51.3	5.3	2.51	0.8
	사무 종사자	1,214	0.2	5.0	50.2	32.8	11.7	44.5	50.2	5.3	2.49	0.8
	서비스 종사자	190	1.1	6.8	53.2	31.6	7.4	38.9	53.2	7.9	2.63	0.8
	판매 종사자	210	1.0	8.6	50.5	28.1	11.9	40.0	50.5	9.5	2.59	0.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0.0	12.5	50.0	21.9	15.6	37.5	50.0	12.5	2.59	0.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1.2	3.0	50.3	32.7	12.7	45.5	50.3	4.2	2.47	0.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0.0	5.9	52.9	32.4	8.8	41.2	52.9	5.9	2.56	0.7
	단순노무 종사자	199	0.0	4.0	56.3	27.6	12.1	39.7	56.3	4.0	2.52	0.8
	군인	13	0.0	7.7	53.8	23.1	15.4	38.5	53.8	7.7	2.54	0.9
	기타	1,325	0.4	4.4	55.1	30.6	9.6	40.2	55.1	4.8	2.55	0.7

〈표 53〉 사교육비 부담과 사교육 효과 체감 정도

구분	사례수	응답 비율																계	χ^2	
		고부담 - 고효과	고부담 - 중효과	고부담 - 저효과	고부담 - 효과 없음	중부담 - 고효과	중부담 - 중효과	중부담 - 저효과	중부담 - 효과 없음	저부담 - 고효과	저부담 - 중효과	저부담 - 저효과	저부담 - 효과 없음	부담 없음 - 고효과	부담 없음 - 중효과	부담 없음 - 저효과	부담 없음 - 효과 없음			
전 체	5,000	19.1	21.7	12.3	4.1	2.6	13.1	4.6	1.9	1.1	4.1	4.4	1.8	0.4	1.5	2.2	5.0	100.0	-	
성별	남	2,531	18.3	20.6	13.7	4.1	2.6	12.7	4.3	1.9	1.5	4.0	4.7	2.0	0.3	1.2	2.3	5.8	100.0	33.767** (df=15)
	여	2,469	19.9	22.8	10.8	4.1	2.7	13.5	4.9	2.0	0.8	4.3	4.1	1.7	0.5	1.7	2.1	4.2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20.5	19.6	13.8	3.3	2.5	14.3	4.1	1.1	0.9	5.0	4.8	1.4	0.4	1.2	2.0	5.0	100.0	49.930 (df=45)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19.4	22.3	10.6	4.1	2.9	13.0	4.0	2.6	1.4	4.2	4.2	2.5	0.4	1.4	2.3	4.6	100.0	
	중소도시(시 지역) 읍·면(군)지역	2,359	18.7	22.6	12.7	4.4	2.5	12.3	4.7	2.0	1.1	3.7	4.4	1.7	0.4	1.6	2.2	5.2	100.0	
연령	19~29세	929	19.9	23.5	9.0	2.0	2.2	14.2	4.0	1.9	2.0	5.3	5.4	1.4	0.3	2.2	1.9	4.7	100.0	126.977*** (df=60)
	30대	870	20.1	21.6	8.9	3.4	2.6	14.5	6.7	1.3	1.0	4.6	4.7	2.2	0.2	1.4	2.2	4.6	100.0	
	40대	1,046	21.3	23.0	13.1	3.9	3.1	13.4	4.1	1.9	0.6	3.1	3.0	2.0	0.5	1.1	2.5	3.4	100.0	
	50대	1,084	16.8	20.2	14.9	5.2	2.3	11.5	3.5	2.5	1.0	4.2	5.1	2.0	0.4	1.3	2.5	6.6	100.0	
	60~74세	1,071	17.6	20.4	14.4	5.5	3.0	12.3	5.1	2.0	1.1	3.6	4.0	1.6	0.5	1.5	2.0	5.3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17.9	21.0	13.4	4.6	3.1	13.1	4.7	2.3	1.1	3.7	4.4	1.9	0.4	1.3	2.1	5.0	100.0	35.331** (df=15)
	자녀 없음	2,073	20.8	22.7	10.8	3.3	1.9	13.1	4.5	1.5	1.2	4.6	4.4	1.7	0.4	1.8	2.4	4.9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17.3	22.3	12.4	3.2	3.1	14.1	5.4	1.9	1.2	4.2	4.9	2.5	0.1	1.1	2.2	4.1	100.0	19.029 (df=15)
	기타	3,963	19.6	21.5	12.2	4.3	2.5	12.8	4.4	1.9	1.1	4.1	4.3	1.7	0.5	1.6	2.2	5.2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16.9	23.2	10.5	2.9	3.8	14.3	5.5	1.9	1.1	4.6	4.2	3.2	0.2	1.3	2.1	4.4	100.0	18.184 (df=15)
	기타	4,474	19.3	21.5	12.5	4.2	2.5	13.0	4.5	1.9	1.1	4.0	4.4	1.7	0.4	1.5	2.2	5.1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17.3	21.1	13.5	3.8	2.6	17.0	3.8	2.0	0.9	3.2	4.4	2.9	0.0	0.6	2.6	4.4	100.0	13.121 (df=15)
	기타	4,658	19.2	21.7	12.2	4.1	2.6	12.8	4.7	1.9	1.2	4.2	4.4	1.8	0.4	1.5	2.2	5.0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18.0	21.3	15.0	3.3	3.0	13.1	5.6	1.9	0.9	4.0	5.4	1.4	0.0	0.9	2.3	4.0	100.0	10.513 (df=15)
	기타	4,572	19.2	21.7	12.0	4.2	2.6	13.1	4.5	1.9	1.2	4.1	4.3	1.9	0.4	1.5	2.2	5.1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19.6	21.2	14.3	5.3	2.8	11.1	4.9	2.3	0.9	3.9	4.9	1.1	0.4	1.2	1.6	4.4	100.0	11.892 (df=15)
	기타	4,434	19.0	21.8	12.0	3.9	2.6	13.4	4.6	1.9	1.2	4.1	4.3	1.9	0.4	1.5	2.3	5.1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14.4	20.2	5.8	7.7	3.8	21.2	4.8	6.7	1.9	3.8	5.8	1.0	1.0	0.0	1.0	1.0	100.0	110.701*** (df=45)
	고졸	886	17.7	18.8	10.6	5.6	2.9	12.6	4.3	4.1	1.5	4.7	4.2	1.9	0.7	2.4	2.0	5.9	100.0	
	전문대/대졸	3,545	19.5	22.4	12.4	3.9	2.6	12.9	4.8	1.3	1.0	4.1	4.6	1.7	0.3	1.4	2.2	4.9	100.0	
	대학원졸	465	19.8	22.4	16.3	1.9	2.2	14.0	3.9	1.5	1.1	3.0	2.8	2.8	0.4	0.6	2.8	4.5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17.6	19.8	10.3	7.1	3.2	9.7	4.3	4.7	1.7	4.5	3.7	1.9	1.1	1.7	2.8	5.8	100.0	103.086*** (df=45)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18.8	22.4	10.8	4.7	2.2	14.2	4.5	1.8	1.3	3.4	5.1	1.5	0.2	1.7	2.3	5.0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17.6	21.4	13.5	3.3	3.2	13.1	5.4	1.6	1.0	5.2	3.9	1.9	0.5	1.5	2.6	4.2	100.0	
	600만원 이상	1,340	21.7	21.9	13.3	3.2	2.3	12.9	4.0	1.5	0.8	3.5	4.3	2.2	0.2	1.1	1.4	5.6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18.4	16.3	15.3	3.9	3.2	12.9	6.0	2.7	1.0	3.1	4.8	3.2	0.3	1.1	1.9	6.0	100.0	215.469*** (df=15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18.7	23.3	12.1	2.7	3.0	14.0	5.5	1.7	1.0	3.6	3.8	2.0	0.3	1.3	2.7	4.4	100.0	
	사무 종사자	1,214	19.3	23.1	11.3	4.0	1.9	14.8	4.4	1.3	1.5	4.6	4.4	0.9	0.2	1.3	2.5	4.4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25.8	17.4	13.2	4.2	4.2	6.8	3.7	3.2	0.5	3.7	6.8	3.2	0.5	1.6	1.6	3.7	100.0	
	판매 종사자	210	18.6	17.1	14.3	4.3	4.8	9.0	6.7	1.9	0.5	5.7	3.3	2.9	0.5	2.4	1.9	6.2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21.9	15.6	12.5	6.3	3.1	12.5	6.3	3.1	0.0	3.1	6.3	3.1	0.0	3.1	0.0	3.1	100.0	
	기능원 및 관련 가능 종사자	165	21.2	15.2	9.1	5.5	3.6	12.1	6.7	1.8	0.6	5.5	7.3	1.2	0.0	1.8	1.8	6.7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22.5	12.7	16.7	4.9	3.9	8.8	4.9	2.0	1.0	5.9	6.9	1.0	2.0	2.0	1.0	3.9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18.1	21.1	9.0	4.5	1.5	10.6	4.0	2.0	2.5	6.5	10.1	3.0	0.5	0.5	3.0	3.0	100.0	
	군인	13	15.4	0.0	15.4	0.0	0.0	23.1	23.1	0.0	0.0	15.4	0.0	0.0	0.0	0.0	0.0	7.7	100.0	
	기타	1,325	18.2	25.1	12.0	5.0	2.2	13.3	3.0	2.1	1.1	3.5	3.0	1.5	0.5	1.8	2.0	5.6	100.0	

〈표 54〉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정책

구분	응답 비율											χ ²	
	사례수	방과후 학교 (초등돌봄 교실포함) 운영	EBS 강의	EBS 수능 연계	선형 학습 금지 정책	과제형 수행 평가 금지	고교 체제 단순화	대입 전형 단순화	수능 (영어, 한국사 등) 절대 평가	기타	계		
전 체	5,000	11.4	12.7	26.1	11.5	9.6	6.0	15.5	6.3	0.9	100.0	-	
성별	남	2,531	10.7	12.5	26.3	11.0	9.1	6.2	17.0	6.0	1.2	100.0	25.538 (df=18)
	여	2,469	12.0	12.8	26.0	12.1	10.0	5.8	14.1	6.6	0.6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7.6	11.3	26.6	13.7	10.4	6.0	18.4	5.0	1.1	100.0	72.735* (df=54)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10.9	13.3	26.4	11.4	9.9	6.3	15.0	6.0	0.9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12.7	12.5	25.6	11.1	9.1	5.7	15.2	7.2	1.0	100.0	
	읍·면(군)지역	324	14.8	15.4	27.8	8.3	9.3	7.4	11.7	5.2	0.0	100.0	
연령	19~29세	929	9.1	12.1	26.4	10.9	12.3	7.0	12.9	7.5	1.8	100.0	107.758** (df=72)
	30대	870	10.9	12.5	24.9	12.2	12.4	7.2	13.9	5.2	0.7	100.0	
	40대	1,046	12.0	11.9	25.3	11.4	9.6	5.7	17.0	6.4	0.7	100.0	
	50대	1,084	11.2	11.6	28.0	11.9	7.1	5.6	17.3	6.5	0.8	100.0	
	60~74세	1,071	13.2	15.1	25.9	11.3	7.4	4.8	16.0	5.8	0.7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12.3	12.3	25.2	12.1	8.9	5.4	16.8	6.1	0.6	100.0	43.662** (df=18)
	자녀 없음	2,073	10.0	13.1	27.4	10.7	10.5	6.8	13.7	6.5	1.3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10.5	11.1	24.0	13.6	10.0	6.1	17.5	6.6	0.7	100.0	18.455
	기타	3,963	11.6	13.1	26.7	11.0	9.4	6.0	15.0	6.2	1.0	100.0	(df=18)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13.9	12.0	20.9	12.7	11.8	6.3	15.6	6.3	0.6	100.0	18.907
	기타	4,474	11.1	12.7	26.8	11.4	9.3	6.0	15.5	6.3	1.0	100.0	(df=18)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8.2	9.9	24.3	14.0	8.5	7.6	19.0	7.9	0.6	100.0	16.180
	기타	4,658	11.6	12.9	26.3	11.3	9.6	5.9	15.3	6.2	0.9	100.0	(df=18)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7.7	10.3	26.2	14.3	9.6	5.6	19.4	6.1	0.9	100.0	20.286
	기타	4,572	11.7	12.9	26.1	11.3	9.6	6.0	15.2	6.3	0.9	100.0	(df=18)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9.4	9.7	28.1	13.6	7.6	4.6	19.8	6.2	1.1	100.0	41.701**
	기타	4,434	11.6	13.0	25.9	11.3	9.8	6.2	15.0	6.3	0.9	100.0	(df=18)
학력	중졸 이하	104	13.5	5.8	26.0	10.6	14.4	6.7	14.4	8.7	0.0	100.0	58.911 (df=54)
	고졸	886	12.9	12.8	23.3	13.8	9.7	7.7	13.2	6.0	0.8	100.0	
	전문대/대졸	3,545	11.2	12.9	26.9	11.0	9.7	5.7	15.5	6.1	0.9	100.0	
	대학원졸	465	9.5	11.8	25.8	11.2	6.9	4.9	20.6	8.0	1.3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14.6	15.3	21.9	9.2	8.4	7.7	13.8	8.2	0.9	100.0	84.175** (df=54)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11.6	13.5	27.8	11.3	9.3	6.1	14.1	5.4	1.0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11.3	12.2	25.1	12.8	9.9	6.5	15.6	5.8	0.8	100.0	
	600만원 이상	1,340	10.0	11.3	26.9	11.1	9.9	4.6	17.9	7.2	1.0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10.6	11.9	24.6	15.1	10.3	6.1	14.7	5.8	0.8	100.0	188.508 (df=18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11.5	11.7	26.9	11.6	9.8	5.2	16.5	5.4	1.4	100.0	
	사무 종사자	1,214	11.0	11.9	28.6	11.4	11.0	5.1	14.0	6.6	0.4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12.6	15.8	28.4	12.6	6.8	7.9	12.1	3.7	0.0	100.0	
	판매 종사자	210	8.1	15.7	24.8	13.8	9.0	4.3	15.2	6.7	2.4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12.5	12.5	34.4	12.5	6.3	6.3	15.6	0.0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10.3	11.5	26.1	12.7	13.3	6.1	13.3	6.7	0.0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10.8	13.7	29.4	12.7	11.8	5.9	11.8	2.9	1.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7.5	14.1	17.1	11.1	10.6	13.1	18.6	7.0	1.0	100.0	
	군인	13	7.7	7.7	15.4	23.1	23.1	7.7	7.7	7.7	0.0	100.0	
기타	1,325	13.1	13.3	25.0	9.1	7.3	6.3	17.4	7.5	1.1	100.0		

〈표 55-1〉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1번)

구분	사례수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학교 수업을 잘 따라 가지 못해서	응답 비율								χ^2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들 보다 앞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	남들이 하니까 심리적 으로 불안 하기 때문에	특기· 적성을 개발 하기 위해서	방과후 집에서 공부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자녀가 혼자 서는 공부를 하지 않아서	기타	계		
전 체	5,000	22.6	23.5	29.3	17.2	4.0	2.2	0.9	0.2	100.0	-	
성별	남	2,531	19.7	24.4	31.5	17.5	3.9	2.2	0.7	0.2	100.0	38.946*** (df=9)
	여	2,469	25.6	22.6	27.2	16.9	4.1	2.2	1.2	0.2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21.8	25.4	29.1	17.0	4.1	1.3	1.0	0.3	100.0	26.549 (df=27)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22.7	20.8	30.5	18.5	3.9	2.0	1.3	0.1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22.7	24.3	29.0	16.5	3.8	2.8	0.8	0.2	100.0	
	읍·면(군)지역	324	24.7	22.5	28.1	17.9	4.6	1.9	0.3	0.0	100.0	
연령	19~29세	929	20.3	23.7	31.1	16.7	5.0	2.3	0.8	0.2	100.0	51.904* (df=36)
	30대	870	21.6	21.6	31.6	18.6	3.3	2.4	0.7	0.1	100.0	
	40대	1,046	24.9	23.0	27.1	16.8	4.3	2.3	1.4	0.2	100.0	
	50대	1,084	25.6	25.0	27.7	15.8	3.6	1.3	0.6	0.4	100.0	
자녀 유무	60~74세	1,071	20.3	23.7	29.9	18.4	3.6	2.9	1.1	0.1	100.0	21.054* (df=9)
	자녀 있음	2,927	23.7	24.3	27.6	17.0	3.8	2.4	1.0	0.2	100.0	
초중고 학부모	자녀 없음	2,073	21.1	22.3	31.8	17.5	4.2	2.0	0.9	0.1	100.0	20.507* (df=9)
	초중고 학부모	1,037	25.7	25.2	25.1	16.5	4.1	2.3	1.1	0.2	100.0	
초등학생 학부모	기타	3,963	21.9	23.0	30.5	17.4	3.9	2.2	0.9	0.2	100.0	21.876** (df=9)
	초등학생 학부모	526	24.0	22.4	26.0	17.7	4.8	4.0	0.8	0.4	100.0	
중학생 학부모	기타	4,474	22.5	23.6	29.7	17.2	3.9	2.0	1.0	0.2	100.0	27.794** (df=9)
	중학생 학부모	342	26.9	23.7	25.7	16.4	3.8	0.9	2.0	0.6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기타	4,658	22.3	23.5	29.6	17.3	4.0	2.3	0.9	0.2	100.0	17.166* (df=9)
	고등학생 학부모	428	27.8	26.2	24.5	15.9	3.3	0.9	1.4	0.0	100.0	
대학생 학부모	기타	4,572	22.2	23.2	29.8	17.3	4.0	2.3	0.9	0.2	100.0	51.144*** (df=9)
	대학생 학부모	566	28.6	26.7	25.6	14.0	2.8	1.2	0.4	0.7	100.0	
학력	기타	4,434	21.9	23.1	29.8	17.6	4.1	2.3	1.0	0.1	100.0	34.348 (df=27)
	중졸 이하	104	21.2	15.4	29.8	20.2	5.8	6.7	1.0	0.0	100.0	
	고졸	886	22.8	22.0	29.7	17.7	4.2	2.1	1.4	0.1	100.0	
	전문대/대졸	3,545	23.2	23.8	28.6	17.4	3.9	2.0	0.9	0.2	100.0	
월평균 가구소득	대학원졸	465	18.5	25.6	34.4	14.4	3.7	2.8	0.4	0.2	100.0	53.315** (df=27)
	200만원 미만	465	21.5	21.5	29.0	17.0	4.3	3.7	3.0	0.0	100.0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23.5	21.0	29.8	18.1	4.0	2.6	0.7	0.2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21.7	25.5	29.7	16.3	4.2	1.9	0.5	0.1	100.0	
직업군	600만원 이상	1,340	23.1	24.8	28.5	17.2	3.5	1.6	1.0	0.3	100.0	145.900** * (df=90)
	관리자	621	21.6	22.5	27.9	21.9	3.2	2.1	0.8	0.0	100.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21.5	25.0	29.3	17.0	3.4	3.0	0.5	0.2	100.0	
	사무 종사자	1,214	24.1	23.4	28.7	17.1	4.4	1.6	0.6	0.2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16.3	24.7	29.5	20.5	5.3	3.2	0.0	0.5	100.0	
	판매 종사자	210	20.0	24.3	35.7	13.3	4.8	0.5	1.4	0.0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31.3	9.4	37.5	18.8	0.0	0.0	3.1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20.6	19.4	32.7	16.4	6.7	3.6	0.0	0.6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22.5	27.5	27.5	13.7	2.9	2.0	2.0	2.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23.1	21.1	28.1	16.6	6.0	3.0	2.0	0.0	100.0	
	군인	13	0.0	30.8	23.1	23.1	7.7	15.4	0.0	0.0	100.0	
	기타	1,325	24.2	23.5	29.4	15.8	3.4	2.1	1.5	0.1	100.0	

〈표 55-2〉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2번)

구분	응답 비율									χ ²	
	사례수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학교 수업을 잘 따라 가지 못해서	남들보다 앞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	남들이 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특기· 적성을 개발 하기 위해서	방과후 집에서 공부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자녀가 혼자서는 공부를 하지 않아서	기타	계		
전 체	3,387	7.9	19.7	39.9	8.8	12.6	10.9	0.3	100.0	-	
성별	남	1,679	7.3	20.9	41.3	8.8	11.8	9.5	0.5	100.0	15.899* (df=8)
	여	1,708	8.4	18.4	38.6	8.7	13.3	12.2	0.2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676	8.7	20.0	37.7	11.2	11.4	10.5	0.4	100.0	22.081 (df=24)
	광역시, 특별자치시	888	8.0	19.0	40.4	10.0	12.4	9.8	0.3	100.0	
	중소도시(시 지역)	1,596	7.2	19.5	41.1	7.1	13.1	11.6	0.3	100.0	
	읍·면(군)지역	227	9.3	22.0	36.6	7.9	13.2	11.0	0.0	100.0	
연령	19~29세	647	7.3	21.6	36.5	11.0	12.7	10.4	0.6	100.0	82.319*** (df=32)
	30대	599	6.5	16.7	40.2	11.9	16.5	7.5	0.7	100.0	
	40대	723	8.3	18.9	36.9	9.4	10.7	15.5	0.3	100.0	
	50대	713	9.0	21.0	42.2	6.0	11.5	10.1	0.1	100.0	
	60~74세	705	7.9	19.7	43.7	6.2	12.2	10.2	0.0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950	8.3	19.7	39.2	8.6	12.1	11.9	0.2	100.0	11.916 (df=8)
	자녀 없음	1,437	7.2	19.6	40.9	9.0	13.3	9.4	0.5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701	8.3	18.1	33.7	11.8	11.1	16.7	0.3	100.0	54.042*** (df=8)
	기타	2,686	7.7	20.1	41.6	8.0	13.0	9.3	0.3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359	8.6	15.9	32.0	12.0	14.2	17.0	0.3	100.0	38.590*** (df=8)
	기타	3,028	7.8	20.1	40.9	8.4	12.4	10.1	0.3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225	8.0	17.8	35.1	12.9	8.4	17.3	0.4	100.0	21.744** (df=8)
	기타	3,162	7.8	19.8	40.3	8.5	12.9	10.4	0.3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285	8.4	19.6	34.0	11.2	8.8	17.9	0.0	100.0	23.743** (df=8)
	기타	3,102	7.8	19.7	40.5	8.5	12.9	10.2	0.4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367	10.1	20.4	41.1	5.2	10.6	12.5	0.0	100.0	12.567 (df=8)
	기타	3,020	7.6	19.6	39.8	9.2	12.8	10.7	0.4	100.0	
학력	중졸 이하	75	9.3	12.0	48.0	5.3	12.0	13.3	0.0	100.0	14.437 (df=24)
	고졸	562	6.8	19.8	41.1	9.4	11.9	11.0	0.0	100.0	
	전문대/대졸	2,425	8.2	19.6	39.1	8.9	12.7	11.0	0.4	100.0	
	대학원졸	325	6.8	21.5	42.2	7.4	12.9	8.9	0.3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18	6.6	19.5	40.3	6.3	11.6	15.7	0.0	100.0	36.761* (df=24)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095	7.7	16.8	40.3	9.0	14.7	11.1	0.4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060	7.9	20.2	39.0	9.2	12.8	10.3	0.6	100.0	
	600만원 이상	914	8.4	22.5	40.6	8.8	10.1	9.5	0.1	100.0	
직업군	관리자	386	9.1	22.0	35.0	12.2	11.7	9.6	0.5	100.0	87.317 (df=8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646	8.4	19.7	39.5	6.7	14.2	11.1	0.5	100.0	
	사무 종사자	839	7.9	19.2	40.0	9.1	13.9	9.7	0.2	100.0	
	서비스 종사자	124	8.1	16.9	42.7	8.9	15.3	8.1	0.0	100.0	
	판매 종사자	136	8.1	16.2	47.1	8.8	11.8	8.1	0.0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6	12.5	0.0	56.3	12.5	12.5	6.3	0.0	100.0	
	가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03	3.9	17.5	46.6	9.7	11.7	10.7	0.0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63	12.7	22.2	30.2	17.5	9.5	7.9	0.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34	6.7	26.9	32.1	12.7	10.4	11.2	0.0	100.0	
	군인 기타	9 931	0.0 7.2	0.0 19.5	33.3 41.7	11.1 7.2	11.1 11.0	44.4 13.0	0.0 0.4	100.0 100.0	

〈표 56〉 사교육비 부담 정도

구분	응답 비율											F	
	사례수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	별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	다소 부담 된다	매우 부담 된다	사교육을 하지 않는다	종합결과			평균 (5점)	표준 편차		
							부담됨	부담 안 됨	사교육 안 함				
전 체	1,173	0.1	3.8	43.0	51.3	1.9	94.3	3.8	1.9	2.49	0.6	-	
성별	남	640	0.2	3.3	41.6	53.0	2.0	94.5	3.4	2.0	2.47	0.6	2.004 (df=1)
	여	533	0.0	4.3	44.7	49.3	1.7	94.0	4.3	1.7	2.52	0.6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236	0.4	3.4	42.8	52.5	0.8	95.3	3.8	0.8	2.50	0.6	0.279 (df=3)
	광역시, 특별자치시	305	0.0	4.3	43.3	50.8	1.6	94.1	4.3	1.6	2.50	0.6	
	중소도시(시 지역)	553	0.0	3.6	42.7	51.0	2.7	93.7	3.6	2.7	2.47	0.6	
	읍·면(군)지역	79	0.0	3.8	44.3	51.9	0.0	96.2	3.8	0.0	2.52	0.6	
연령	19~29세	19	0.0	5.3	57.9	36.8	0.0	94.7	5.3	0.0	2.68	0.6	2.880* (df=4)
	30대	221	0.0	3.6	51.1	43.0	2.3	94.1	3.6	2.3	2.56	0.6	
	40대	611	0.2	3.4	43.9	51.2	1.3	95.1	3.6	1.3	2.50	0.6	
	50대	294	0.0	4.8	33.7	58.5	3.1	92.2	4.8	3.1	2.40	0.6	
	60~74세	28	0.0	0.0	46.4	53.6	0.0	100.0	0.0	0.0	2.46	0.5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173	0.1	3.8	43.0	51.3	1.9	94.3	3.8	1.9	2.49	0.6	-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0.1	4.0	41.9	52.5	1.6	94.3	4.1	1.6	2.48	0.6	0.471 (df=1)
	기타	136	0.0	2.2	51.5	42.6	3.7	94.1	2.2	3.7	2.52	0.6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0.2	4.0	45.8	48.9	1.1	94.7	4.2	1.1	2.53	0.6	4.997* (df=1)
	기타	647	0.0	3.6	40.6	53.3	2.5	94.0	3.6	2.5	2.45	0.6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0.0	2.6	40.9	55.0	1.5	95.9	2.6	1.5	2.45	0.6	2.222 (df=1)
	기타	831	0.1	4.2	43.8	49.8	2.0	93.6	4.3	2.0	2.51	0.6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0.2	4.0	38.1	55.6	2.1	93.7	4.2	2.1	2.45	0.6	3.273 (df=1)
	기타	745	0.0	3.6	45.8	48.9	1.7	94.6	3.6	1.7	2.51	0.6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193	0.0	4.1	38.9	54.9	2.1	93.8	4.1	2.1	2.45	0.6	0.893 (df=1)
	기타	980	0.1	3.7	43.8	50.6	1.8	94.4	3.8	1.8	2.50	0.6	
학력	고졸	129	0.0	3.9	41.9	51.2	3.1	93.0	3.9	3.1	2.47	0.6	3.403* (df=2)
	전문대/대졸	913	0.1	2.8	43.3	51.8	2.0	95.1	3.0	2.0	2.47	0.6	
	대학원졸	131	0.0	9.9	42.0	48.1	0.0	90.1	9.9	0.0	2.62	0.7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0	0.0	5.0	40.0	45.0	10.0	85.0	5.0	10.0	2.40	0.8	0.857 (df=3)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239	0.0	2.5	42.3	53.6	1.7	95.8	2.5	1.7	2.46	0.6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515	0.2	2.9	43.1	52.2	1.6	95.3	3.1	1.6	2.48	0.6	
	600만원 이상	399	0.0	5.5	43.4	49.1	2.0	92.5	5.5	2.0	2.52	0.6	
직업군	관리자	258	0.4	3.5	39.9	54.7	1.6	94.6	3.9	1.6	2.47	0.6	0.608 (df=1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28	0.0	4.8	46.5	47.8	0.9	94.3	4.8	0.9	2.55	0.6	
	사무 종사자	338	0.0	2.7	43.8	52.4	1.2	96.2	2.7	1.2	2.48	0.6	
	서비스 종사자	42	0.0	4.8	35.7	57.1	2.4	92.9	4.8	2.4	2.43	0.6	
	판매 종사자	60	0.0	5.0	43.3	48.3	3.3	91.7	5.0	3.3	2.50	0.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5	0.0	0.0	60.0	40.0	0.0	100.0	0.0	0.0	2.60	0.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42	0.0	0.0	45.2	47.6	7.1	92.9	0.0	7.1	2.38	0.6	
	장차·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7	0.0	5.9	47.1	47.1	0.0	94.1	5.9	0.0	2.59	0.6	
	단순노무 종사자	23	0.0	4.3	43.5	52.2	0.0	95.7	4.3	0.0	2.52	0.6	
	군인	4	0.0	0.0	25.0	75.0	0.0	100.0	0.0	0.0	2.25	0.5	
	기타	156	0.0	5.1	41.7	49.4	3.8	91.0	5.1	3.8	2.48	0.7	

〈표 57-1〉 사교육 관련 생각: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

구분	응답 비율											F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종합결과			평균 (5점)	표준 편차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전 체	1,173	5.7	21.9	36.1	28.3	7.9	36.2	36.1	27.6	2.89	1.0	-	
성별	남	640	6.1	22.5	33.1	29.2	9.1	38.3	33.1	28.6	2.87	1.1	0.454 (df=1)
	여	533	5.3	21.2	39.8	27.2	6.6	33.8	39.8	26.5	2.91	1.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236	8.5	24.6	37.7	24.2	5.1	29.2	37.7	33.1	3.07	1.0	7.594*** (df=3)
	광역시, 특별자치시	305	8.5	24.6	34.4	24.6	7.9	32.5	34.4	33.1	3.01	1.1	
	중소도시(시 지역)	553	3.6	20.4	36.2	30.0	9.8	39.8	36.2	24.1	2.78	1.0	
	읍·면(군)지역	79	1.3	13.9	38.0	43.0	3.8	46.8	38.0	15.2	2.66	0.8	
연령	19~29세	19	10.5	36.8	52.6	0.0	0.0	0.0	52.6	47.4	3.58	0.7	5.998*** (df=4)
	30대	221	8.6	26.7	39.4	17.6	7.7	25.3	39.4	35.3	3.11	1.0	
	40대	611	5.4	19.6	36.8	30.9	7.2	38.1	36.8	25.0	2.85	1.0	
	50대	294	4.4	22.1	31.3	31.6	10.5	42.2	31.3	26.5	2.78	1.0	
	60~74세	28	0.0	21.4	35.7	39.3	3.6	42.9	35.7	21.4	2.75	0.8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173	5.7	21.9	36.1	28.3	7.9	36.2	36.1	27.6	2.89	1.0	-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5.1	21.1	37.1	28.6	8.0	36.6	37.1	26.2	2.87	1.0	5.328* (df=1)
	기타	136	10.3	27.9	28.7	25.7	7.4	33.1	28.7	38.2	3.08	1.1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5.5	21.1	37.6	28.1	7.6	35.7	37.6	26.6	2.89	1.0	0.014 (df=1)
	기타	647	5.9	22.6	34.9	28.4	8.2	36.6	34.9	28.4	2.89	1.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5.6	17.0	41.5	28.4	7.6	36.0	41.5	22.5	2.85	1.0	1.015 (df=1)
	기타	831	5.8	23.9	33.9	28.3	8.1	36.3	33.9	29.7	2.91	1.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4.9	22.9	35.7	28.0	8.4	36.4	35.7	27.8	2.88	1.0	0.114 (df=1)
	기타	745	6.2	21.3	36.4	28.5	7.7	36.1	36.4	27.5	2.90	1.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193	4.1	19.7	35.2	31.6	9.3	40.9	35.2	23.8	2.78	1.0	2.927 (df=1)
	기타	980	6.0	22.3	36.3	27.7	7.7	35.3	36.3	28.4	2.91	1.0	
학력	고졸	129	7.0	22.5	41.9	24.0	4.7	28.7	41.9	29.5	3.03	1.0	2.238 (df=2)
	전문대/대졸	913	5.4	21.4	36.0	28.3	9.0	37.2	36.0	26.7	2.86	1.0	
	대학원졸	131	6.9	25.2	31.3	32.8	3.8	36.6	31.3	32.1	2.98	1.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0	0.0	30.0	30.0	25.0	15.0	40.0	30.0	30.0	2.75	1.1	1.219 (df=3)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239	6.3	24.7	37.7	25.5	5.9	31.4	37.7	31.0	3.00	1.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515	5.8	19.8	37.9	28.0	8.5	36.5	37.9	25.6	2.86	1.0	
	600만원 이상	399	5.5	22.6	33.3	30.6	8.0	38.6	33.3	28.1	2.87	1.0	
직업군	관리자	258	7.0	24.0	35.7	24.8	8.5	33.3	35.7	31.0	2.96	1.1	1.405 (df=1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28	5.3	18.0	34.6	34.2	7.9	42.1	34.6	23.2	2.79	1.0	
	사무 종사자	338	5.9	20.7	36.4	30.5	6.5	37.0	36.4	26.6	2.89	1.0	
	서비스 종사자	42	2.4	33.3	38.1	16.7	9.5	26.2	38.1	35.7	3.02	1.0	
	판매 종사자	60	10.0	20.0	36.7	23.3	10.0	33.3	36.7	30.0	2.97	1.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5	0.0	0.0	60.0	40.0	0.0	40.0	60.0	0.0	2.60	0.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42	4.8	31.0	35.7	21.4	7.1	28.6	35.7	35.7	3.05	1.0	
	장차·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7	0.0	29.4	41.2	17.6	11.8	29.4	41.2	29.4	2.88	1.0	
	단순노무 종사자	23	26.1	21.7	30.4	8.7	13.0	21.7	30.4	47.8	3.39	1.3	
	군인	4	0.0	25.0	25.0	50.0	0.0	50.0	25.0	25.0	2.75	1.0	
	기타	156	1.3	21.8	37.8	30.8	8.3	39.1	37.8	23.1	2.77	0.9	

〈표 57-2〉 사교육 관련 생각: 필요하다

구분	응답 비율											F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종합결과			평균 (5점)	표준 편차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전 체	1,173	5.3	31.7	31.4	25.1	6.6	31.6	31.4	37.0	3.04	1.0	-	
성별	남	640	5.0	28.4	30.9	27.5	8.1	35.6	30.9	33.4	2.95	1.0	12.080** (df=1)
	여	533	5.6	35.6	31.9	22.1	4.7	26.8	31.9	41.3	3.15	1.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236	5.5	33.9	32.6	23.3	4.7	28.0	32.6	39.4	3.12	1.0	1.933 (df=3)
	광역시, 특별자치시	305	9.2	29.5	31.5	23.3	6.6	29.8	31.5	38.7	3.11	1.1	
	중소도시(시 지역)	553	3.4	31.8	31.3	25.7	7.8	33.5	31.3	35.3	2.97	1.0	
	읍·면(군)지역	79	2.5	32.9	27.8	32.9	3.8	36.7	27.8	35.4	2.97	1.0	
연령	19~29세	19	5.3	47.4	31.6	15.8	0.0	15.8	31.6	52.6	3.42	0.8	1.810 (df=4)
	30대	221	3.6	32.6	33.5	23.1	7.2	30.3	33.5	36.2	3.02	1.0	
	40대	611	6.5	32.2	29.6	26.7	4.9	31.6	29.6	38.8	3.09	1.0	
	50대	294	4.1	30.3	31.0	24.5	10.2	34.7	31.0	34.4	2.94	1.1	
	60~74세	28	3.6	17.9	57.1	17.9	3.6	21.4	57.1	21.4	3.00	0.8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173	5.3	31.7	31.4	25.1	6.6	31.6	31.4	37.0	3.04	1.0	-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5.7	31.8	31.2	25.0	6.3	31.2	31.2	37.5	3.06	1.0	2.195 (df=1)
	기타	136	2.2	30.9	32.4	25.7	8.8	34.6	32.4	33.1	2.92	1.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6.3	33.5	29.7	24.3	6.3	30.6	29.7	39.7	3.09	1.0	2.324 (df=1)
	기타	647	4.5	30.3	32.8	25.7	6.8	32.5	32.8	34.8	3.00	1.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5.8	30.1	31.3	26.0	6.7	32.7	31.3	36.0	3.02	1.0	0.142 (df=1)
	기타	831	5.1	32.4	31.4	24.7	6.5	31.2	31.4	37.4	3.05	1.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4.4	31.1	32.2	25.5	6.8	32.2	32.2	35.5	3.01	1.0	0.645 (df=1)
	기타	745	5.8	32.1	30.9	24.8	6.4	31.3	30.9	37.9	3.06	1.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193	4.1	30.6	26.9	31.1	7.3	38.3	26.9	34.7	2.93	1.0	2.605 (df=1)
	기타	980	5.5	31.9	32.2	23.9	6.4	30.3	32.2	37.4	3.06	1.0	
학력	고졸	129	2.3	32.6	36.4	26.4	2.3	28.7	36.4	34.9	3.06	0.9	0.099 (df=2)
	전문대/대졸	913	5.5	31.9	31.2	24.3	7.1	31.4	31.2	37.3	3.04	1.0	
	대학원졸	131	6.9	29.8	27.5	29.0	6.9	35.9	27.5	36.6	3.01	1.1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0	0.0	20.0	50.0	20.0	10.0	30.0	50.0	20.0	2.80	0.9	1.315 (df=3)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239	4.2	36.0	33.1	23.4	3.3	26.8	33.1	40.2	3.14	0.9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515	5.0	30.9	30.9	26.6	6.6	33.2	30.9	35.9	3.01	1.0	
	600만원 이상	399	6.5	30.8	30.1	24.3	8.3	32.6	30.1	37.3	3.03	1.1	
직업군	관리자	258	7.0	32.2	26.0	27.1	7.8	34.9	26.0	39.1	3.03	1.1	0.681 (df=1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28	3.9	26.8	33.3	30.3	5.7	36.0	33.3	30.7	2.93	1.0	
	사무 종사자	338	6.2	32.0	31.7	24.0	6.2	30.2	31.7	38.2	3.08	1.0	
	서비스 종사자	42	7.1	31.0	33.3	21.4	7.1	28.6	33.3	38.1	3.10	1.1	
	판매 종사자	60	8.3	23.3	33.3	26.7	8.3	35.0	33.3	31.7	2.97	1.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5	0.0	20.0	80.0	0.0	0.0	0.0	80.0	20.0	3.20	0.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42	0.0	28.6	47.6	16.7	7.1	23.8	47.6	28.6	2.98	0.9	
	장차·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7	0.0	35.3	47.1	11.8	5.9	17.6	47.1	35.3	3.12	0.9	
	단순노무 종사자	23	17.4	26.1	34.8	13.0	8.7	21.7	34.8	43.5	3.30	1.2	
	군인	4	0.0	75.0	0.0	25.0	0.0	25.0	0.0	75.0	3.50	1.0	
	기타	156	1.3	41.7	28.2	23.1	5.8	28.8	28.2	42.9	3.10	1.0	

〈표 57-3〉 사교육 관련 생각: 종류는 부모가 결정한다

구분	응답 비율											F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종합결과			평균 (5점)	표준 편차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전 체	1,173	4.7	34.4	34.3	22.9	3.7	26.6	34.3	39.1	3.14	0.9	-	
성별	남	640	5.5	32.7	37.0	19.8	5.0	24.8	37.0	38.1	3.14	1.0	0.006 (df=1)
	여	533	3.8	36.6	31.0	26.6	2.1	28.7	31.0	40.3	3.13	0.9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236	6.4	35.2	31.4	24.6	2.5	27.1	31.4	41.5	3.18	1.0	2.684* (df=3)
	광역시, 특별자치시	305	5.2	39.3	32.5	20.0	3.0	23.0	32.5	44.6	3.24	0.9	
	중소도시(시 지역)	553	3.6	32.5	34.5	24.6	4.7	29.3	34.5	36.2	3.06	0.9	
	읍·면(군)지역	79	5.1	26.6	48.1	17.7	2.5	20.3	48.1	31.6	3.14	0.9	
연령	19~29세	19	5.3	26.3	52.6	15.8	0.0	15.8	52.6	31.6	3.21	0.8	0.787 (df=4)
	30대	221	2.7	38.5	30.3	24.9	3.6	28.5	30.3	41.2	3.12	0.9	
	40대	611	4.7	34.9	35.0	22.4	2.9	25.4	35.0	39.6	3.16	0.9	
	50대	294	6.1	32.7	33.7	22.1	5.4	27.6	33.7	38.8	3.12	1.0	
	60~74세	28	3.6	17.9	42.9	32.1	3.6	35.7	42.9	21.4	2.86	0.9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173	4.7	34.4	34.3	22.9	3.7	26.6	34.3	39.1	3.14	0.9	-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4.9	34.4	34.2	22.8	3.7	26.4	34.2	39.3	3.14	0.9	0.387 (df=1)
	기타	136	2.9	34.6	34.6	24.3	3.7	27.9	34.6	37.5	3.09	0.9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6.3	37.1	32.1	20.7	3.8	24.5	32.1	43.3	3.21	1.0	6.443* (df=1)
	기타	647	3.4	32.3	36.0	24.7	3.6	28.3	36.0	35.7	3.07	0.9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4.1	33.3	35.4	22.2	5.0	27.2	35.4	37.4	3.09	1.0	0.956 (df=1)
	기타	831	4.9	34.9	33.8	23.2	3.1	26.4	33.8	39.8	3.15	0.9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3.7	33.2	36.0	24.1	3.0	27.1	36.0	36.9	3.11	0.9	0.700 (df=1)
	기타	745	5.2	35.2	33.3	22.3	4.0	26.3	33.3	40.4	3.15	1.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193	1.6	32.6	35.8	25.9	4.1	30.1	35.8	34.2	3.02	0.9	3.745 (df=1)
	기타	980	5.3	34.8	34.0	22.3	3.6	25.9	34.0	40.1	3.16	0.9	
학력	고졸	129	3.1	27.1	41.1	25.6	3.1	28.7	41.1	30.2	3.02	0.9	1.199 (df=2)
	전문대/대졸	913	4.7	35.8	33.1	22.3	4.1	26.4	33.1	40.5	3.15	1.0	
	대학원졸	131	6.1	32.1	35.9	24.4	1.5	26.0	35.9	38.2	3.17	0.9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0	5.0	30.0	25.0	25.0	15.0	40.0	25.0	35.0	2.85	1.2	2.831* (df=3)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239	4.2	28.9	39.7	23.0	4.2	27.2	39.7	33.1	3.06	0.9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515	4.7	32.6	35.0	24.1	3.7	27.8	35.0	37.3	3.10	0.9	
	600만원 이상	399	5.0	40.4	30.6	21.3	2.8	24.1	30.6	45.4	3.24	0.9	
직업군	관리자	258	5.8	36.0	36.0	18.2	3.9	22.1	36.0	41.9	3.22	0.9	1.081 (df=1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28	5.7	33.3	29.4	27.2	4.4	31.6	29.4	39.0	3.09	1.0	
	사무 종사자	338	4.7	35.8	36.4	21.0	2.1	23.1	36.4	40.5	3.20	0.9	
	서비스 종사자	42	4.8	40.5	21.4	23.8	9.5	33.3	21.4	45.2	3.07	1.1	
	판매 종사자	60	8.3	25.0	33.3	26.7	6.7	33.3	33.3	33.3	3.02	1.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5	0.0	40.0	20.0	40.0	0.0	40.0	20.0	40.0	3.00	1.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42	0.0	28.6	40.5	26.2	4.8	31.0	40.5	28.6	2.93	0.9	
	장차·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7	0.0	41.2	35.3	23.5	0.0	23.5	35.3	41.2	3.18	0.8	
	단순노무 종사자	23	0.0	21.7	65.2	8.7	4.3	13.0	65.2	21.7	3.04	0.7	
	군인	4	0.0	75.0	25.0	0.0	0.0	0.0	25.0	75.0	3.75	0.5	
기타	156	2.6	34.0	32.1	28.2	3.2	31.4	32.1	36.5	3.04	0.9		

〈표 57-4〉 사교육 관련 생각: 공부에 도움 안 되는 취미활동은 말린다

구분	응답 비율											F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종합결과			평균 (5점)	표준 편차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전 체	1,173	2.2	14.2	28.8	39.0	15.7	54.7	28.8	16.5	2.48	1.0	-	
성별	남	640	2.7	15.5	28.1	38.3	15.5	53.8	28.1	18.1	2.52	1.0	1.572 (df=1)
	여	533	1.7	12.8	29.6	40.0	15.9	55.9	29.6	14.4	2.44	1.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236	2.1	20.8	31.4	32.6	13.1	45.8	31.4	22.9	2.66	1.0	7.950*** (df=3)
	광역시, 특별자치시	305	4.6	15.1	31.1	34.8	14.4	49.2	31.1	19.7	2.61	1.1	
	중소도시(시 지역)	553	1.3	10.8	26.4	43.9	17.5	61.5	26.4	12.1	2.34	0.9	
	읍·면(군)지역	79	0.0	15.2	29.1	40.5	15.2	55.7	29.1	15.2	2.44	0.9	
연령	19~29세	19	5.3	21.1	47.4	26.3	0.0	26.3	47.4	26.3	3.05	0.8	2.141 (df=4)
	30대	221	3.2	15.4	30.3	33.9	17.2	51.1	30.3	18.6	2.53	1.0	
	40대	611	1.6	13.1	28.2	41.7	15.4	57.1	28.2	14.7	2.44	1.0	
	50대	294	2.4	14.3	29.3	37.8	16.3	54.1	29.3	16.7	2.49	1.0	
	60~74세	28	3.6	25.0	14.3	42.9	14.3	57.1	14.3	28.6	2.61	1.1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173	2.2	14.2	28.8	39.0	15.7	54.7	28.8	16.5	2.48	1.0	-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2.1	14.9	28.1	39.3	15.5	54.9	28.1	17.1	2.49	1.0	0.268 (df=1)
	기타	136	2.9	8.8	34.6	36.8	16.9	53.7	34.6	11.8	2.44	1.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2.1	15.6	27.9	38.4	16.0	54.4	27.9	17.7	2.49	1.0	0.135 (df=1)
	기타	647	2.3	13.1	29.5	39.6	15.5	55.0	29.5	15.5	2.47	1.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2.3	11.7	28.7	42.1	15.2	57.3	28.7	14.0	2.44	1.0	0.949 (df=1)
	기타	831	2.2	15.3	28.9	37.8	15.9	53.7	28.9	17.4	2.50	1.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1.9	17.1	27.1	39.3	14.7	54.0	27.1	18.9	2.52	1.0	1.017 (df=1)
	기타	745	2.4	12.6	29.8	38.9	16.2	55.2	29.8	15.0	2.46	1.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193	0.5	15.5	25.9	43.5	14.5	58.0	25.9	16.1	2.44	0.9	0.417 (df=1)
	기타	980	2.6	14.0	29.4	38.2	15.9	54.1	29.4	16.5	2.49	1.0	
학력	고졸	129	1.6	11.6	38.0	38.0	10.9	48.8	38.0	13.2	2.55	0.9	0.446 (df=2)
	전문대/대졸	913	2.1	14.9	27.3	39.3	16.4	55.8	27.3	17.0	2.47	1.0	
	대학원졸	131	3.8	12.2	30.5	38.2	15.3	53.4	30.5	16.0	2.51	1.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0	0.0	5.0	20.0	45.0	30.0	75.0	20.0	5.0	2.00	0.9	2.399 (df=3)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239	2.5	13.4	34.3	37.7	12.1	49.8	34.3	15.9	2.56	1.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515	2.5	14.4	30.1	36.1	16.9	53.0	30.1	16.9	2.50	1.0	
	600만원 이상	399	1.8	15.0	24.3	43.4	15.5	58.9	24.3	16.8	2.44	1.0	
직업군	관리자	258	1.6	18.6	29.5	35.7	14.7	50.4	29.5	20.2	2.57	1.0	2.558** (df=1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28	3.5	11.0	28.5	40.4	16.7	57.0	28.5	14.5	2.44	1.0	
	사무 종사자	338	2.7	16.3	24.9	39.6	16.6	56.2	24.9	18.9	2.49	1.0	
	서비스 종사자	42	2.4	16.7	40.5	26.2	14.3	40.5	40.5	19.0	2.67	1.0	
	판매 종사자	60	3.3	15.0	36.7	36.7	8.3	45.0	36.7	18.3	2.68	0.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5	20.0	40.0	40.0	0.0	0.0	0.0	40.0	60.0	3.80	0.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42	0.0	11.9	38.1	35.7	14.3	50.0	38.1	11.9	2.48	0.9	
	장차·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7	0.0	11.8	35.3	41.2	11.8	52.9	35.3	11.8	2.47	0.9	
	단순노무 종사자	23	0.0	17.4	34.8	26.1	21.7	47.8	34.8	17.4	2.48	1.0	
	군인	4	0.0	0.0	25.0	75.0	0.0	75.0	25.0	0.0	2.25	0.5	
	기타	156	0.6	6.4	26.3	48.7	17.9	66.7	26.3	7.1	2.23	0.8	

〈표 57-5〉 사교육 관련 생각: 공부 안 하면 불안하다

구분	응답 비율											F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종합결과			평균 (5점)	표준 편차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전 체	1,173	7.3	38.3	34.5	15.7	4.2	19.9	34.5	45.6	3.29	1.0	-	
성별	남	640	8.0	35.0	35.0	16.1	5.9	22.0	35.0	43.0	3.23	1.0	5.423* (df=1)
	여	533	6.6	42.2	34.0	15.2	2.1	17.3	34.0	48.8	3.36	0.9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236	8.5	39.8	31.8	17.8	2.1	19.9	31.8	48.3	3.35	0.9	1.700 (df=3)
	광역시, 특별자치시	305	9.8	38.0	33.4	14.1	4.6	18.7	33.4	47.9	3.34	1.0	
	중소도시(시 지역)	553	6.1	38.2	36.0	14.8	4.9	19.7	36.0	44.3	3.26	1.0	
	읍·면(군)지역	79	2.5	35.4	36.7	21.5	3.8	25.3	36.7	38.0	3.11	0.9	
연령	19~29세	19	5.3	36.8	47.4	10.5	0.0	10.5	47.4	42.1	3.37	0.8	2.630* (df=4)
	30대	221	4.5	33.0	36.7	19.9	5.9	25.8	36.7	37.6	3.10	1.0	
	40대	611	6.7	40.4	34.9	14.1	3.9	18.0	34.9	47.1	3.32	0.9	
	50대	294	10.5	38.1	31.6	15.6	4.1	19.7	31.6	48.6	3.35	1.0	
	60~74세	28	10.7	35.7	32.1	21.4	0.0	21.4	32.1	46.4	3.36	1.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173	7.3	38.3	34.5	15.7	4.2	19.9	34.5	45.6	3.29	1.0	-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8.0	39.8	33.6	14.9	3.8	18.6	33.6	47.8	3.33	1.0	20.630*** (df=1)
	기타	136	2.2	26.5	41.9	22.1	7.4	29.4	41.9	28.7	2.94	0.9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7.2	41.1	32.7	15.4	3.6	19.0	32.7	48.3	3.33	0.9	1.656 (df=1)
	기타	647	7.4	36.0	36.0	15.9	4.6	20.6	36.0	43.4	3.26	1.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8.5	40.6	32.2	14.3	4.4	18.7	32.2	49.1	3.35	1.0	1.653 (df=1)
	기타	831	6.9	37.3	35.5	16.2	4.1	20.3	35.5	44.2	3.27	1.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9.1	38.1	36.0	14.3	2.6	16.8	36.0	47.2	3.37	0.9	4.735* (df=1)
	기타	745	6.3	38.4	33.7	16.5	5.1	21.6	33.7	44.7	3.24	1.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193	7.8	40.9	32.6	16.1	2.6	18.7	32.6	48.7	3.35	0.9	1.010 (df=1)
	기타	980	7.2	37.8	34.9	15.6	4.5	20.1	34.9	45.0	3.28	1.0	
학력	고졸	129	4.7	36.4	35.7	20.2	3.1	23.3	35.7	41.1	3.19	0.9	0.991 (df=2)
	전문대/대졸	913	7.8	37.8	34.9	14.9	4.6	19.5	34.9	45.6	3.29	1.0	
	대학원졸	131	6.9	43.5	30.5	16.8	2.3	19.1	30.5	50.4	3.36	0.9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0	0.0	35.0	45.0	5.0	15.0	20.0	45.0	35.0	3.00	1.0	1.129 (df=3)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239	6.7	36.8	39.3	15.1	2.1	17.2	39.3	43.5	3.31	0.9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515	8.0	35.9	35.0	16.1	5.0	21.2	35.0	43.9	3.26	1.0	
	600만원 이상	399	7.3	42.4	30.6	16.0	3.8	19.8	30.6	49.6	3.33	1.0	
직업군	관리자	258	8.5	34.9	38.0	14.3	4.3	18.6	38.0	43.4	3.29	1.0	0.886 (df=1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28	7.9	39.9	32.9	14.9	4.4	19.3	32.9	47.8	3.32	1.0	
	사무 종사자	338	6.5	39.3	33.7	16.3	4.1	20.4	33.7	45.9	3.28	1.0	
	서비스 종사자	42	9.5	42.9	19.0	19.0	9.5	28.6	19.0	52.4	3.24	1.2	
	판매 종사자	60	8.3	38.3	40.0	10.0	3.3	13.3	40.0	46.7	3.38	0.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5	0.0	20.0	80.0	0.0	0.0	0.0	80.0	20.0	3.20	0.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42	9.5	23.8	40.5	21.4	4.8	26.2	40.5	33.3	3.12	1.0	
	장차·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7	0.0	23.5	47.1	23.5	5.9	29.4	47.1	23.5	2.88	0.9	
	단순노무 종사자	23	0.0	43.5	26.1	17.4	13.0	30.4	26.1	43.5	3.00	1.1	
	군인	4	25.0	25.0	25.0	25.0	0.0	25.0	25.0	50.0	3.50	1.3	
기타	156	6.4	43.6	32.1	16.7	1.3	17.9	32.1	50.0	3.37	0.9		

〈표 57-6〉 사교육 관련 생각: 학원이나 과외를 하면 마음이 편하다

구분	응답 비율											F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종합결과			평균 (5점)	표준 편차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전 체	1,173	3.8	32.0	43.1	16.9	4.3	21.1	43.1	35.8	3.14	0.9	-	
성별	남	640	3.9	28.1	43.9	18.6	5.5	24.1	43.9	32.0	3.06	0.9	10.986** (df=1)
	여	533	3.8	36.6	42.0	14.8	2.8	17.6	42.0	40.3	3.24	0.8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236	3.8	36.9	40.3	15.7	3.4	19.1	40.3	40.7	3.22	0.9	1.367 (df=3)
	광역시, 특별자치시	305	5.2	32.1	42.0	15.1	5.6	20.7	42.0	37.4	3.16	0.9	
	중소도시(시 지역)	553	3.4	29.1	44.5	19.0	4.0	23.0	44.5	32.5	3.09	0.9	
	읍·면(군)지역	79	1.3	36.7	45.6	12.7	3.8	16.5	45.6	38.0	3.19	0.8	
연령	19~29세	19	0.0	47.4	42.1	10.5	0.0	10.5	42.1	47.4	3.37	0.7	1.787 (df=4)
	30대	221	2.7	28.1	43.0	20.4	5.9	26.2	43.0	30.8	3.01	0.9	
	40대	611	4.1	34.0	42.2	15.1	4.6	19.6	42.2	38.1	3.18	0.9	
	50대	294	4.1	29.9	44.9	18.0	3.1	21.1	44.9	34.0	3.14	0.9	
	60~74세	28	7.1	28.6	42.9	21.4	0.0	21.4	42.9	35.7	3.21	0.9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173	3.8	32.0	43.1	16.9	4.3	21.1	43.1	35.8	3.14	0.9	-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4.1	33.2	42.3	16.5	3.9	20.3	42.3	37.3	3.17	0.9	10.401** (df=1)
	기타	136	1.5	22.8	48.5	19.9	7.4	27.2	48.5	24.3	2.91	0.9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4.0	31.7	41.1	18.8	4.4	23.2	41.1	35.7	3.12	0.9	0.515 (df=1)
	기타	647	3.7	32.1	44.7	15.3	4.2	19.5	44.7	35.9	3.16	0.9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3.2	36.5	43.0	13.2	4.1	17.3	43.0	39.8	3.22	0.9	3.341 (df=1)
	기타	831	4.1	30.1	43.1	18.4	4.3	22.7	43.1	34.2	3.11	0.9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4.7	34.6	42.8	15.2	2.8	18.0	42.8	39.3	3.23	0.9	6.756** (df=1)
	기타	745	3.4	30.5	43.2	17.9	5.1	23.0	43.2	33.8	3.09	0.9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193	3.1	35.2	45.6	14.0	2.1	16.1	45.6	38.3	3.23	0.8	2.405 (df=1)
	기타	980	4.0	31.3	42.6	17.4	4.7	22.1	42.6	35.3	3.12	0.9	
학력	고졸	129	3.9	30.2	47.3	17.1	1.6	18.6	47.3	34.1	3.18	0.8	0.775 (df=2)
	전문대/대졸	913	3.6	31.9	42.9	16.6	4.9	21.6	42.9	35.5	3.13	0.9	
	대학원졸	131	5.3	34.4	39.7	18.3	2.3	20.6	39.7	39.7	3.22	0.9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0	0.0	20.0	55.0	10.0	15.0	25.0	55.0	20.0	2.80	1.0	2.675* (df=3)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239	3.3	30.5	42.7	18.8	4.6	23.4	42.7	33.9	3.09	0.9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515	4.1	29.3	44.5	18.1	4.1	22.1	44.5	33.4	3.11	0.9	
	600만원 이상	399	4.0	36.8	40.9	14.5	3.8	18.3	40.9	40.9	3.23	0.9	
직업군	관리자	258	3.5	32.2	41.5	19.0	3.9	22.9	41.5	35.7	3.12	0.9	0.459 (df=1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28	3.1	32.9	42.5	17.5	3.9	21.5	42.5	36.0	3.14	0.9	
	사무 종사자	338	5.0	29.9	45.9	14.2	5.0	19.2	45.9	34.9	3.16	0.9	
	서비스 종사자	42	4.8	33.3	42.9	14.3	4.8	19.0	42.9	38.1	3.19	0.9	
	판매 종사자	60	5.0	35.0	36.7	20.0	3.3	23.3	36.7	40.0	3.18	0.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5	0.0	60.0	20.0	20.0	0.0	20.0	20.0	60.0	3.40	0.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42	7.1	16.7	47.6	23.8	4.8	28.6	47.6	23.8	2.98	0.9	
	장차·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7	0.0	23.5	64.7	11.8	0.0	11.8	64.7	23.5	3.12	0.6	
	단순노무 종사자	23	4.3	17.4	56.5	8.7	13.0	21.7	56.5	21.7	2.91	1.0	
	군인	4	25.0	0.0	25.0	50.0	0.0	50.0	25.0	25.0	3.00	1.4	
기타	156	1.3	40.4	38.5	16.7	3.2	19.9	38.5	41.7	3.20	0.8		

〈표 58〉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미래 사회 변화

구분	응답 비율										χ ²	
	사례수	저출산 고령화	지능 정보 사회(4차 산업 혁명 등)의 도래	장기 적인 저성장 추세	다인종 다문화 로의 진전	글로벌 경쟁 확대	통일 시대/ 남북 관계	사회 양극화	기타 (교육의 정치화 등)	계		
전 체	5,000	42.3	16.5	11.6	7.6	10.8	2.2	9.0	0.1	100.0	-	
성별	남	2,531	43.0	15.5	12.2	7.1	10.7	2.5	8.8	0.1	100.0	14.917 (df=9)
	여	2,469	41.7	17.5	10.9	8.1	10.8	1.8	9.2	0.0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38.8	14.9	14.2	8.6	11.5	2.6	9.2	0.2	100.0	36.907 (df=27)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42.2	17.6	11.6	8.4	10.1	1.8	8.3	0.1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44.0	16.6	10.5	6.8	10.6	2.0	9.4	0.0	100.0	
	읍·면(군)지역	324	41.0	16.0	11.4	6.5	12.7	3.7	8.6	0.0	100.0	
연령	19~29세	929	37.9	17.1	13.3	10.1	9.9	3.3	8.0	0.3	100.0	83.554*** (df=36)
	30대	870	40.3	15.1	12.2	10.1	12.2	3.1	7.0	0.0	100.0	
	40대	1,046	41.2	18.5	11.3	6.4	10.4	1.5	10.6	0.0	100.0	
	50대	1,084	45.8	16.1	10.9	5.3	10.7	1.8	9.5	0.1	100.0	
	60~74세	1,071	45.5	15.6	10.5	6.8	10.8	1.4	9.4	0.0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42.6	16.4	12.3	7.2	11.1	1.6	8.8	0.0	100.0	20.283* (df=9)
	자녀 없음	2,073	42.0	16.6	10.5	8.2	10.4	2.9	9.3	0.2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37.7	19.6	13.4	8.1	10.6	1.5	9.1	0.0	100.0	21.851** (df=9)
	기타	3,963	43.6	15.7	11.1	7.4	10.8	2.3	9.0	0.1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36.5	19.0	13.7	8.9	10.5	1.5	9.9	0.0	100.0	12.859 (df=9)
	기타	4,474	43.0	16.2	11.3	7.4	10.8	2.2	8.9	0.1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34.8	21.3	12.3	7.3	12.6	2.3	9.4	0.0	100.0	11.854 (df=9)
	기타	4,658	42.9	16.1	11.5	7.6	10.6	2.1	9.0	0.1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36.4	20.8	12.9	7.2	11.7	1.6	9.3	0.0	100.0	11.199 (df=9)
	기타	4,572	42.9	16.1	11.4	7.6	10.7	2.2	9.0	0.1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45.4	18.4	11.1	5.8	10.2	1.4	7.6	0.0	100.0	9.177 (df=9)
	기타	4,434	41.9	16.3	11.6	7.8	10.8	2.3	9.2	0.1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41.3	11.5	10.6	12.5	10.6	1.0	12.5	0.0	100.0	58.953*** (df=27)
	고졸	886	41.3	12.0	12.6	10.7	12.2	2.6	8.6	0.0	100.0	
	전문대/대졸	3,545	42.6	17.0	11.8	6.9	10.6	2.0	8.9	0.1	100.0	
	대학원졸	465	42.4	22.6	7.7	5.4	9.5	2.6	9.9	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46.2	13.3	8.4	6.5	9.2	2.6	13.8	0.0	100.0	48.096** (df=27)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40.9	16.5	11.9	8.5	11.4	2.3	8.4	0.1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39.9	17.1	12.8	7.9	11.5	1.8	9.0	0.1	100.0	
	600만원 이상	1,340	45.7	16.9	10.7	6.5	9.8	2.2	8.1	0.1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38.5	16.7	13.4	8.7	12.2	2.6	7.9	0.0	100.0	143.713*** (df=9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42.9	19.4	9.3	7.6	10.2	2.0	8.4	0.1	100.0	
	사무 종사자	1,214	44.2	15.4	12.2	7.9	11.0	2.2	7.0	0.0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37.4	13.2	18.4	6.8	10.5	2.6	11.1	0.0	100.0	
	판매 종사자	210	41.0	15.7	16.2	6.2	10.0	1.4	9.5	0.0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40.6	12.5	6.3	12.5	18.8	6.3	3.1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47.9	11.5	12.7	8.5	9.1	1.2	9.1	0.0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34.3	14.7	15.7	11.8	12.7	2.9	7.8	0.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32.2	15.6	12.6	13.1	12.1	5.0	9.0	0.5	100.0	
	군인	13	30.8	7.7	7.7	7.7	30.8	0.0	15.4	0.0	100.0	
기타	1,325	44.5	17.1	9.6	5.7	9.9	1.6	11.5	0.2	100.0		

〈표 59-1〉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한 과제(1번)

구분	응답 비율											χ^2	
	사례수	유연한 학교 제도 (학제) 구축	진학 진급 제도의 탄력적 운영	교육 과정 내용량 축소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자율성 확대	온라인 -오프 라인 학습 병행	학교 밖 학습 경험 인정	학습자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교과 교사, 학습컨설 턴트, 특별 전문강사 등 교원 다양화	잘 모르 겠다	계		
전 체	5,000	23.0	14.5	12.9	14.0	16.6	4.6	8.8	0.7	4.8	100.0	-	
성별	남	2,531	22.3	14.3	13.1	15.6	15.7	4.5	8.9	0.8	4.8	100.0	13.048
	여	2,469	23.7	14.7	12.7	12.5	17.5	4.7	8.8	0.6	4.9	100.0	(df=8)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20.4	13.4	16.7	14.5	17.4	4.7	8.0	0.4	4.4	100.0	37.007* (df=24)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23.9	15.0	11.9	14.1	15.9	4.0	10.1	0.7	4.5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23.5	14.3	12.3	13.4	17.0	4.7	8.7	0.9	5.2	100.0	
	읍·면(군)지역	324	22.8	17.3	9.9	17.3	13.9	5.9	7.1	0.6	5.2	100.0	
연령	19~29세	929	20.1	12.7	15.0	15.3	14.9	6.0	6.4	0.4	9.3	100.0	132.590*** (df=32)
	30대	870	24.5	13.8	14.9	14.8	15.1	5.6	6.2	0.2	4.8	100.0	
	40대	1,046	23.4	15.0	11.3	13.9	17.5	3.7	11.0	1.3	2.9	100.0	
	50대	1,084	24.4	13.7	11.7	11.6	18.7	4.5	10.9	0.9	3.5	100.0	
	60~74세	1,071	22.3	17.1	12.2	14.9	16.2	3.4	9.0	0.6	4.3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23.1	15.9	13.1	13.9	16.0	4.0	10.0	0.9	3.1	100.0	70.220*** (df=8)
	자녀 없음	2,073	22.9	12.6	12.6	14.2	17.4	5.4	7.2	0.5	7.2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22.0	16.2	14.9	14.3	15.5	3.7	10.1	1.0	2.3	100.0	31.452*** (df=8)
	기타	3,963	23.2	14.1	12.4	14.0	16.9	4.8	8.5	0.7	5.5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21.5	14.8	16.0	16.0	14.6	4.2	9.3	0.8	2.9	100.0	12.969 (df=8)
	기타	4,474	23.2	14.5	12.5	13.8	16.8	4.6	8.8	0.7	5.1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22.2	15.5	16.7	13.5	15.2	3.5	10.2	1.2	2.0	100.0	13.556 (df=8)
	기타	4,658	23.0	14.4	12.6	14.1	16.7	4.7	8.7	0.7	5.0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21.7	17.5	14.3	12.4	16.8	2.8	11.9	0.7	1.9	100.0	21.594** (df=8)
	기타	4,572	23.1	14.2	12.8	14.2	16.6	4.7	8.6	0.7	5.1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24.7	14.5	9.5	12.2	18.9	4.2	12.2	1.1	2.7	100.0	25.690** (df=8)
	기타	4,434	22.8	14.5	13.3	14.3	16.3	4.6	8.4	0.7	5.1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17.3	12.5	16.3	9.6	21.2	4.8	6.7	0.0	11.5	100.0	58.629*** (df=24)
	고졸	886	18.2	16.1	14.3	15.8	17.5	3.7	7.6	0.6	6.2	100.0	
	전문대/대졸	3,545	23.6	14.3	12.8	14.0	16.4	4.7	8.8	0.8	4.5	100.0	
	대학원졸	465	28.4	13.8	9.9	12.0	15.5	4.9	11.8	0.6	3.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23.4	12.7	9.0	11.6	18.3	5.6	7.1	0.4	11.8	100.0	85.177*** (df=24)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21.3	13.7	14.6	14.3	18.1	4.4	8.5	0.7	4.3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22.9	15.7	13.3	14.7	15.8	4.0	9.0	0.6	3.9	100.0	
	600만원 이상	1,340	24.9	14.8	11.7	13.8	15.1	5.1	9.6	0.9	4.1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19.6	14.5	15.3	18.7	15.5	4.0	9.8	1.0	1.6	100.0	170.454*** (df=8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26.8	14.9	10.5	13.9	16.7	5.4	8.3	1.1	2.5	100.0	
	사무 종사자	1,214	24.5	14.8	13.3	13.9	16.1	4.4	8.1	0.6	4.3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25.8	16.8	10.0	13.7	15.8	4.7	7.4	0.5	5.3	100.0	
	판매 종사자	210	21.9	14.3	12.4	14.8	14.8	4.8	10.0	1.9	5.2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12.5	25.0	15.6	28.1	15.6	0.0	3.1	0.0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19.4	13.9	13.9	16.4	16.4	4.2	9.1	0.6	6.1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10.8	18.6	14.7	23.5	16.7	2.0	6.9	0.0	6.9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14.1	11.6	17.6	15.1	21.6	3.5	6.5	0.5	9.5	100.0	
	군인	13	7.7	23.1	30.8	7.7	15.4	0.0	15.4	0.0	0.0	100.0	
	기타	1,325	23.4	13.6	12.3	10.6	17.1	5.0	10.0	0.5	7.5	100.0	

〈표 59-2〉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한 과제(2번)

구분	응답 비율										χ ²	
	사례수	진학 진급 제도의 탄력적 운영	교육 과정 내용량 축소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자유성 확대	온라인 -오프 라인 학습 병행	학교 밖 학습 경험 인정	학습자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교과교사, 학습컨설 턴트, 특별 전문 강사 등 교원 다양화	지역사회 (마을) 공동체의 구심점 등 학교의 역할 확대	계		
전 체	4,758	4.5	2.4	4.9	13.8	14.2	30.5	23.2	6.5	100.0	-	
성별	남	2,410	4.6	2.0	5.2	13.2	13.9	31.5	22.3	7.2	100.0	10.479 (df=7)
	여	2,348	4.3	2.7	4.6	14.3	14.6	29.6	24.0	5.9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31	3.3	1.8	4.7	15.6	16.9	29.2	23.8	4.6	100.0	32.962* (df=21)
	광역시, 특별자치시	1,283	4.7	2.7	5.0	14.3	14.6	29.5	22.7	6.5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237	4.9	2.5	4.7	12.6	13.4	31.7	23.3	6.9	100.0	
	읍·면(군)지역	307	4.6	2.0	6.5	14.7	10.7	30.3	21.8	9.4	100.0	
연령	19~29세	843	4.2	2.1	3.7	11.9	18.0	30.4	23.1	6.6	100.0	58.810** (df=28)
	30대	828	4.2	1.3	6.3	15.5	18.2	27.8	20.2	6.5	100.0	
	40대	1,016	4.9	3.0	4.8	13.9	12.3	29.4	24.9	6.8	100.0	
	50대	1,046	5.1	2.6	4.5	14.1	11.3	31.4	25.0	6.2	100.0	
	60~74세	1,025	4.0	2.5	5.4	13.6	12.8	33.2	22.0	6.5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835	4.6	2.6	5.3	13.9	12.5	31.5	23.1	6.4	100.0	21.204** (df=7)
	자녀 없음	1,923	4.3	2.0	4.4	13.5	16.8	29.1	23.2	6.7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13	4.3	2.8	5.4	13.5	13.7	31.0	24.0	5.2	100.0	5.778 (df=7)
	기타	3,745	4.5	2.2	4.8	13.8	14.4	30.4	22.9	6.9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11	3.9	2.0	6.3	14.7	14.1	30.9	22.1	6.1	100.0	3.765 (df=7)
	기타	4,247	4.6	2.4	4.8	13.7	14.2	30.5	23.3	6.6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35	5.1	2.4	5.4	13.4	13.7	31.6	23.6	4.8	100.0	2.392 (df=7)
	기타	4,423	4.5	2.4	4.9	13.8	14.3	30.5	23.1	6.7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0	5.2	3.8	4.8	11.0	14.0	30.5	25.7	5.0	100.0	10.352 (df=7)
	기타	4,338	4.4	2.2	4.9	14.0	14.2	30.5	22.9	6.7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51	5.4	3.8	5.1	11.4	9.6	33.0	25.4	6.2	100.0	21.423** (df=7)
	기타	4,207	4.4	2.2	4.9	14.1	14.8	30.2	22.9	6.6	100.0	
학력	중졸 이하	92	1.1	2.2	5.4	10.9	19.6	34.8	21.7	4.3	100.0	39.111* (df=21)
	고졸	831	4.7	1.8	4.2	14.0	16.5	32.0	21.4	5.4	100.0	
	전문대/대졸	3,384	4.4	2.6	4.7	13.7	14.0	30.7	23.1	6.8	100.0	
	대학원졸	451	5.5	1.6	8.0	14.9	10.4	25.5	27.1	7.1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10	5.1	2.7	3.7	14.6	13.4	32.7	19.0	8.8	100.0	29.120 (df=21)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564	4.0	1.6	4.6	12.7	15.0	32.0	23.3	6.8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499	4.5	2.3	5.0	14.5	14.9	28.9	23.7	6.2	100.0	
	600만원 이상	1,285	5.0	3.2	5.6	14.0	12.8	30.0	23.6	5.9	100.0	
직업군	관리자	611	3.3	2.8	4.4	15.9	12.8	31.3	21.9	7.7	100.0	101.580** (df=7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06	4.1	3.0	4.9	14.2	14.1	26.7	25.2	7.8	100.0	
	사무 종사자	1,162	5.7	1.9	4.9	13.7	15.0	32.5	20.8	5.5	100.0	
	서비스 종사자	180	4.4	1.7	6.7	14.4	16.1	28.3	23.3	5.0	100.0	
	판매 종사자	199	3.0	2.0	3.5	15.1	15.6	31.7	21.1	8.0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3.1	0.0	0.0	12.5	25.0	40.6	9.4	9.4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55	3.2	0.0	5.8	16.8	14.2	32.9	21.9	5.2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95	1.1	1.1	11.6	6.3	15.8	40.0	23.2	1.1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80	3.3	3.9	6.7	11.7	18.9	27.2	25.0	3.3	100.0	
	군인	13	0.0	7.7	7.7	30.8	0.0	15.4	38.5	0.0	100.0	
	기타	1,225	5.2	2.4	4.4	12.5	12.9	30.6	24.9	7.0	100.0	

〈표 60-1〉 미래 학교에서 더 강조될 역할과 기능: 초등학교

구분	응답 비율										계	χ ²	
	사례수	지식의 전달 및 학습	자기주도 학습 등 문제 해결 역량 교육	공동체 역량 및 협동·협업 역량 교육	SW 교육 및 코딩 교육	융합 교육	미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탐색 및 교육	아동·학생들의 보육 혹은 돌봄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 체육, 예술 등의 평생교육	기타 (인성 교육 등)			
전 체	5,000	7.8	21.7	21.1	11.0	8.1	4.0	24.7	1.6	0.0	100.0	-	
성별	남	2,531	8.7	22.0	22.5	11.2	7.3	4.4	22.3	1.6	0.0	100.0	30.145*** (df=9)
	여	2,469	6.9	21.4	19.6	10.9	8.9	3.6	27.1	1.6	0.1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7.0	23.4	22.2	12.9	8.9	3.4	20.4	1.6	0.1	100.0	44.020* (df=27)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8.1	21.4	21.0	12.1	8.3	3.4	24.5	1.2	0.0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8.0	21.5	20.1	10.0	7.6	4.7	26.2	1.9	0.0	100.0	
	읍·면(군)지역	324	7.1	19.4	25.9	8.6	8.0	2.8	27.2	0.9	0.0	100.0	
연령	19~29세	929	6.4	21.6	20.8	15.1	10.1	7.2	17.1	1.6	0.1	100.0	152.826*** (df=36)
	30대	870	7.0	21.6	20.2	14.8	7.0	4.8	22.8	1.7	0.0	100.0	
	40대	1,046	8.4	24.6	19.9	9.5	8.3	2.6	24.8	2.0	0.0	100.0	
	50대	1,084	7.8	22.2	23.3	7.7	7.4	3.2	26.8	1.4	0.1	100.0	
	60~74세	1,071	9.0	18.6	21.0	9.4	7.7	2.7	30.4	1.2	0.0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8.1	22.0	22.0	9.6	7.9	3.2	25.8	1.3	0.0	100.0	36.888*** (df=9)
	자녀 없음	2,073	7.3	21.3	19.8	13.0	8.3	5.1	23.1	2.0	0.0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7.1	24.4	22.8	11.3	8.7	3.5	20.9	1.3	0.1	100.0	20.647* (df=9)
	기타	3,963	7.9	21.0	20.7	11.0	7.9	4.1	25.6	1.7	0.0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8.6	27.2	20.7	10.5	8.7	4.9	18.1	1.1	0.2	100.0	30.113*** (df=9)
	기타	4,474	7.7	21.1	21.1	11.1	8.0	3.9	25.4	1.6	0.0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5.8	22.2	24.3	12.3	8.5	3.5	21.6	1.8	0.0	100.0	5.935 (df=9)
	기타	4,658	7.9	21.7	20.9	10.9	8.1	4.0	24.9	1.6	0.0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6.1	20.1	26.9	11.7	9.1	2.3	22.7	1.2	0.0	100.0	15.179 (df=9)
	기타	4,572	7.9	21.9	20.6	11.0	8.0	4.2	24.8	1.6	0.0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7.2	22.8	25.1	9.5	7.4	2.7	23.7	1.6	0.0	100.0	10.442 (df=9)
	기타	4,434	7.8	21.6	20.6	11.2	8.2	4.2	24.8	1.6	0.0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6.7	15.4	20.2	10.6	13.5	5.8	25.0	2.9	0.0	100.0	50.411** (df=27)
	고졸	886	10.8	20.2	19.6	11.7	8.4	3.4	24.4	1.5	0.0	100.0	
	전문대/대졸	3,545	7.1	21.7	21.0	11.1	8.1	4.3	25.2	1.6	0.0	100.0	
	대학원졸	465	7.1	26.5	25.2	9.2	6.5	2.8	21.3	1.3	0.2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9.2	19.8	17.8	8.8	6.9	4.1	29.7	3.7	0.0	100.0	49.193** (df=27)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8.8	20.9	22.1	11.1	8.2	4.0	23.6	1.2	0.0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7.1	21.9	20.1	11.0	8.3	4.7	25.1	1.7	0.1	100.0	
	600만원 이상	1,340	6.9	23.1	22.2	11.8	8.1	3.1	23.7	1.1	0.1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8.5	22.1	21.3	11.6	7.9	3.4	24.8	0.5	0.0	100.0	91.827 (df=9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7.1	22.2	23.5	11.6	7.6	3.9	22.4	1.7	0.0	100.0	
	사무 종사자	1,214	7.2	21.7	21.3	12.1	7.3	4.0	24.6	1.5	0.1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7.9	17.4	19.5	10.5	8.4	6.8	26.3	3.2	0.0	100.0	
	판매 종사자	210	8.6	24.8	20.5	6.2	11.0	2.4	25.2	1.4	0.0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9.4	25.0	28.1	6.3	15.6	6.3	9.4	0.0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9.1	21.8	21.2	12.7	9.1	6.1	18.8	1.2	0.0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7.8	24.5	16.7	11.8	10.8	2.9	23.5	2.0	0.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12.6	18.1	17.6	15.1	7.5	3.0	23.1	3.0	0.0	100.0	
	군인	13	7.7	0.0	30.8	30.8	23.1	0.0	7.7	0.0	0.0	100.0	
	기타	1,325	7.3	21.8	20.1	9.3	8.1	4.2	27.5	1.7	0.1	100.0	

〈표 60-2〉 미래 학교에서 더 강조될 역할과 기능: 중학교

구분	응답 비율											χ ²	
	사례수	지식의 전달 및 학습	자기주도 학습 등 문제 해결 역량 교육	공동체 역량 및 협동·협업 역량 교육	SW 교육 및 코딩 교육	융합 교육	미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탐색 및 교육	아동·학생들의 보육 혹은 돌봄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 체육, 예술 등의 평생교육	기타 (인성 교육 등)	계		
전 체	5,000	9.8	32.9	17.6	11.6	11.1	13.6	2.3	1.0	0.0	100.0	-	
성별	남	2,531	9.4	31.1	18.5	12.8	11.5	13.3	2.1	1.3	0.0	100.0	25.060** (df=9)
	여	2,469	10.2	34.8	16.7	10.3	10.8	14.0	2.5	0.6	0.1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8.6	32.3	17.0	12.5	12.7	12.6	2.9	1.1	0.1	100.0	23.371 (df=27)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9.3	32.8	17.9	11.8	10.3	14.1	2.8	1.1	0.0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10.6	33.1	17.8	11.1	10.9	13.6	2.0	0.9	0.0	100.0	
	읍·면(군)지역	324	9.9	34.0	17.0	11.4	11.4	15.1	0.6	0.6	0.0	100.0	
연령	19~29세	929	6.5	23.3	15.2	16.8	12.6	19.7	5.0	1.0	0.1	100.0	199.448 *** (df=36)
	30대	870	10.1	29.3	18.4	12.0	11.6	14.7	3.2	0.7	0.0	100.0	
	40대	1,046	10.3	37.4	17.8	10.3	9.8	11.9	1.3	1.2	0.0	100.0	
	50대	1,084	9.7	37.9	18.6	9.1	10.4	12.2	1.4	0.6	0.1	100.0	
	60~74세	1,071	12.0	34.9	17.8	10.4	11.6	10.7	1.0	1.5	0.0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10.7	35.6	17.9	10.5	10.8	12.0	1.8	0.8	0.0	100.0	54.098*** (df=9)
	자녀 없음	2,073	8.6	29.2	17.2	13.0	11.7	16.0	2.9	1.3	0.0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10.2	38.2	16.6	9.9	10.2	12.2	1.8	0.8	0.1	100.0	23.970** (df=9)
	기타	3,963	9.7	31.6	17.9	12.0	11.4	14.0	2.4	1.1	0.0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10.8	38.8	15.6	9.9	10.1	11.8	2.1	0.8	0.2	100.0	20.642* (df=9)
	기타	4,474	9.7	32.3	17.8	11.8	11.3	13.9	2.3	1.0	0.0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12.3	40.4	12.9	11.1	9.9	10.2	1.8	1.5	0.0	100.0	18.137* (df=9)
	기타	4,658	9.6	32.4	17.9	11.6	11.2	13.9	2.3	1.0	0.0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7.5	38.6	16.8	10.3	10.7	13.8	1.9	0.5	0.0	100.0	9.810 (df=9)
	기타	4,572	10.0	32.4	17.7	11.7	11.2	13.6	2.3	1.0	0.0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8.7	38.2	17.0	9.0	10.8	15.0	1.2	0.2	0.0	100.0	18.464* (df=9)
	기타	4,434	9.9	32.3	17.7	11.9	11.2	13.5	2.4	1.1	0.0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10.6	29.8	20.2	9.6	16.3	12.5	1.0	0.0	0.0	100.0	43.661* (df=27)
	고졸	886	12.0	29.5	17.3	9.9	13.4	14.2	2.8	0.9	0.0	100.0	
	전문대/대졸	3,545	9.2	33.5	17.7	11.8	10.9	13.4	2.3	1.1	0.0	100.0	
	대학원졸	465	9.9	36.1	16.6	13.1	7.5	14.4	1.3	0.9	0.2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12.3	29.7	18.7	8.2	11.6	14.2	2.2	3.2	0.0	100.0	51.859** (df=27)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10.4	31.4	18.5	12.1	11.2	13.4	2.0	1.0	0.0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8.8	33.8	17.4	12.2	11.2	13.3	2.4	0.8	0.1	100.0	
	600만원 이상	1,340	9.4	34.9	16.4	11.3	10.9	14.1	2.5	0.4	0.1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10.0	33.3	18.8	11.6	11.4	12.2	1.4	1.1	0.0	100.0	93.137 (df=9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8.2	32.1	18.1	13.7	11.3	14.0	1.9	0.8	0.0	100.0	
	사무 종사자	1,214	9.4	34.9	17.2	12.0	9.4	13.5	2.8	0.7	0.1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8.9	31.1	17.4	11.6	11.1	15.3	4.2	0.5	0.0	100.0	
	판매 종사자	210	8.1	30.5	20.0	10.5	12.9	15.2	1.4	1.4	0.0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6.3	31.3	12.5	6.3	31.3	12.5	0.0	0.0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8.5	30.3	22.4	13.9	9.1	10.9	3.0	1.8	0.0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12.7	32.4	16.7	9.8	10.8	13.7	3.9	0.0	0.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11.6	22.1	20.6	10.1	14.6	17.1	2.5	1.5	0.0	100.0	
	군인	13	7.7	38.5	0.0	23.1	30.8	0.0	0.0	0.0	0.0	100.0	
기타	1,325	11.4	34.2	16.0	9.9	11.3	13.7	2.1	1.4	0.1	100.0		

〈표 60-3〉 미래 학교에서 더 강조될 역할과 기능: 고등학교

구분	응답 비율										계	χ ²	
	사례수	지식의 전달 및 학습	자기주도 학습 등 문제 해결 역량 교육	공동체 역량 및 협동·협업 역량 교육	SW 교육 및 코딩 교육	융합 교육	미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탐색 및 교육	아동·학생들의 보육 혹은 돌봄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 체육, 예술 등의 평생교육	기타 (인성 교육 등)			
전 체	5,000	11.2	19.9	11.6	8.6	11.9	31.6	3.1	2.0	0.0	100.0	-	
성별	남	2,531	10.7	18.5	12.4	9.1	12.4	31.4	3.5	2.0	0.0	100.0	14.635 (df=8)
	여	2,469	11.7	21.3	10.8	8.1	11.5	31.7	2.7	2.1	0.0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12.7	19.7	9.3	9.5	11.7	30.9	4.1	2.0	0.0	100.0	27.775 (df=24)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10.8	20.3	10.9	9.5	12.2	31.0	3.1	2.3	0.0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11.1	19.5	12.9	8.1	12.1	31.6	2.6	1.9	0.0	100.0	
	읍·면(군)지역	324	9.3	21.9	12.0	5.9	10.2	35.5	3.4	1.9	0.0	100.0	
연령	19~29세	929	11.7	17.4	10.9	13.2	13.5	26.2	4.8	2.2	0.1	100.0	126.769*** (df=32)
	30대	870	13.7	18.2	12.4	10.2	10.9	26.9	5.1	2.6	0.0	100.0	
	40대	1,046	12.0	22.0	11.1	7.0	12.0	32.3	1.8	1.8	0.0	100.0	
	50대	1,084	9.3	20.9	11.9	7.4	12.6	34.0	2.1	1.7	0.0	100.0	
	60~74세	1,071	10.0	20.4	11.8	6.2	10.7	36.8	2.1	2.1	0.0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11.1	21.5	11.4	7.1	11.5	33.1	2.6	1.7	0.0	100.0	44.301*** (df=8)
	자녀 없음	2,073	11.4	17.7	11.9	10.7	12.6	29.4	3.7	2.6	0.0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13.3	22.6	10.6	7.0	12.2	30.0	3.2	1.1	0.0	100.0	22.129** (df=8)
	기타	3,963	10.7	19.2	11.9	9.0	11.9	32.0	3.1	2.3	0.0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12.7	21.1	11.0	6.1	10.8	32.9	3.8	1.5	0.0	100.0	8.972 (df=8)
	기타	4,474	11.1	19.8	11.7	8.9	12.1	31.4	3.0	2.1	0.0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14.0	24.6	6.4	9.1	11.4	31.9	1.8	0.9	0.0	100.0	19.795* (df=8)
	기타	4,658	11.0	19.6	12.0	8.6	12.0	31.5	3.2	2.1	0.0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11.9	23.1	10.7	7.5	15.0	27.3	4.0	0.5	0.0	100.0	16.831* (df=8)
	기타	4,572	11.2	19.6	11.7	8.7	11.7	32.0	3.0	2.2	0.0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11.1	23.5	10.4	6.5	11.1	33.4	2.3	1.6	0.0	100.0	11.194 (df=8)
	기타	4,434	11.3	19.4	11.8	8.9	12.0	31.3	3.2	2.1	0.0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9.6	20.2	16.3	3.8	12.5	31.7	3.8	1.9	0.0	100.0	36.511* (df=24)
	고졸	886	9.4	18.4	12.0	9.6	9.3	34.9	3.5	3.0	0.0	100.0	
	전문대/대졸	3,545	11.5	19.9	11.3	8.7	12.4	31.0	3.1	1.9	0.0	100.0	
	대학원졸	465	13.1	22.4	11.8	7.5	13.3	29.2	1.7	0.9	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11.4	17.6	11.4	7.3	9.0	35.3	3.0	4.9	0.0	100.0	50.843** (df=24)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9.8	19.8	11.1	10.2	11.2	32.6	3.2	2.0	0.0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12.0	19.9	11.7	8.5	12.6	30.2	3.3	1.7	0.1	100.0	
	600만원 이상	1,340	12.0	20.7	12.2	7.2	13.1	30.6	2.8	1.4	0.0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10.1	22.2	11.8	8.1	12.2	29.6	4.5	1.4	0.0	100.0	116.805** (df=8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11.4	21.1	12.3	9.0	11.7	29.4	3.2	1.8	0.0	100.0	
	사무 종사자	1,214	12.2	19.3	10.7	10.4	12.4	30.2	2.6	2.1	0.0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7.9	20.5	13.7	7.9	11.6	32.1	4.7	1.6	0.0	100.0	
	판매 종사자	210	11.4	20.5	10.5	8.1	13.8	32.9	2.4	0.5	0.0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3.1	15.6	18.8	15.6	25.0	18.8	0.0	3.1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13.3	9.7	9.1	12.1	11.5	34.5	7.3	2.4	0.0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6.9	17.6	15.7	10.8	12.7	32.4	3.9	0.0	0.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6.0	17.6	13.6	6.0	9.0	40.2	2.5	5.0	0.0	100.0	
	군인	13	0.0	7.7	15.4	7.7	30.8	30.8	7.7	0.0	0.0	100.0	
	기타	1,325	12.4	20.4	11.2	6.8	11.2	33.5	2.1	2.3	0.1	100.0	

〈표 61-1〉 자녀의 학교교육 거부에 대한 학부모 태도: 초·중·고 전반

구분	응답 비율					χ^2	
	사례수	그 학교가 아니더라도 정규학교는 꼭 다니게 하겠다	꼭 정규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대안을 찾겠다	잘 모르겠다	계		
전 체	5,000	41.6	51.1	7.3	100.0	-	
성별	남	2,531	42.2	50.7	7.0	100.0	0.990 (df=2)
	여	2,469	41.0	51.4	7.5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42.4	50.9	6.7	100.0	9.035 (df=6)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43.3	50.0	6.7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40.6	51.3	8.2	100.0	
	읍·면(군)지역	324	40.4	54.6	4.9	100.0	
연령	19~29세	929	37.0	51.1	11.8	100.0	62.473*** (df=8)
	30대	870	38.0	53.6	8.4	100.0	
	40대	1,046	42.4	53.3	4.3	100.0	
	50대	1,084	43.1	50.7	6.2	100.0	
	60~74세	1,071	46.3	47.2	6.4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45.2	49.1	5.7	100.0	50.378*** (df=2)
	자녀 없음	2,073	36.7	53.8	9.5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42.3	53.0	4.6	100.0	13.766** (df=2)
	기타	3,963	41.5	50.6	8.0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40.1	54.6	5.3	100.0	4.816 (df=2)
	기타	4,474	41.8	50.7	7.5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43.6	52.3	4.1	100.0	5.561 (df=2)
	기타	4,658	41.5	51.0	7.5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42.5	54.0	3.5	100.0	10.018** (df=2)
	기타	4,572	41.6	50.8	7.6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46.5	49.3	4.2	100.0	12.070** (df=2)
	기타	4,434	41.0	51.3	7.7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31.7	51.9	16.3	100.0	22.996** (df=6)
	고졸	886	41.8	50.2	8.0	100.0	
	전문대/대졸	3,545	42.0	50.8	7.2	100.0	
	대학원졸	465	41.1	54.8	4.1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38.1	51.4	10.5	100.0	11.527 (df=6)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40.7	51.7	7.5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42.6	50.6	6.7	100.0	
	600만원 이상	1,340	42.8	50.7	6.5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44.6	50.6	4.8	100.0	47.757*** (df=2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40.8	54.4	4.8	100.0	
	사무 종사자	1,214	42.2	51.1	6.8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40.5	52.1	7.4	100.0	
	판매 종사자	210	43.8	49.0	7.1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43.8	53.1	3.1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33.3	60.0	6.7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34.3	53.9	11.8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38.7	50.8	10.6	100.0	
	군인	13	30.8	61.5	7.7	100.0	
	기타	1,325	42.3	47.8	10.0	100.0	

〈표 61-2〉 자녀의 학교교육 거부에 대한 학부모 태도: 초등학교

구분	사례수	응답 비율				χ^2	
		그 학교가 아니더라도 정규학교는 꼭 다니게 하겠다	꼭 정규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대안을 찾겠다	잘 모르겠다	계		
전 체	5,000	50.8	41.8	7.5	100.0	-	
성별	남	2,531	51.5	40.8	7.7	100.0	2.006 (df=2)
	여	2,469	50.1	42.7	7.2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49.4	43.4	7.2	100.0	4.469 (df=6)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51.3	41.7	7.0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50.7	41.2	8.1	100.0	
	읍·면(군)지역	324	53.4	40.7	5.9	100.0	
연령	19~29세	929	44.3	42.6	13.0	100.0	85.284*** (df=8)
	30대	870	47.7	44.0	8.3	100.0	
	40대	1,046	51.2	44.1	4.7	100.0	
	50대	1,084	52.1	42.4	5.4	100.0	
	60~74세	1,071	57.0	36.2	6.7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54.3	39.9	5.8	100.0	48.754*** (df=2)
	자녀 없음	2,073	45.8	44.4	9.8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54.8	40.9	4.3	100.0	21.426*** (df=2)
	기타	3,963	49.7	42.0	8.3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51.5	43.2	5.3	100.0	3.936 (df=2)
	기타	4,474	50.7	41.6	7.7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55.3	40.1	4.7	100.0	5.515 (df=2)
	기타	4,658	50.5	41.9	7.7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57.0	39.7	3.3	100.0	15.053** (df=2)
	기타	4,572	50.2	42.0	7.9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53.9	42.8	3.4	100.0	15.769*** (df=2)
	기타	4,434	50.4	41.6	8.0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47.1	38.5	14.4	100.0	31.717*** (df=6)
	고졸	886	47.4	42.6	10.0	100.0	
	전문대/대졸	3,545	51.7	41.1	7.2	100.0	
	대학원졸	465	51.0	45.8	3.2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52.5	37.2	10.3	100.0	20.858** (df=6)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49.4	41.7	8.9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51.4	42.1	6.5	100.0	
	600만원 이상	1,340	51.1	43.1	5.7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49.6	45.9	4.5	100.0	45.069** (df=2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48.9	43.8	7.3	100.0	
	사무 종사자	1,214	51.6	42.8	5.6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47.9	44.7	7.4	100.0	
	판매 종사자	210	51.9	39.0	9.0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50.0	46.9	3.1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50.3	40.0	9.7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44.1	43.1	12.7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48.2	40.2	11.6	100.0	
	군인	13	38.5	46.2	15.4	100.0	
기타	1,325	53.3	37.6	9.1	100.0		

〈표 61-3〉 자녀의 학교교육 거부에 대한 학부모 태도: 중학교

구분	응답 비율					χ^2	
	사례수	그 학교가 아니더라도 정규학교는 꼭 다니게 하겠다	꼭 정규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대안을 찾겠다	잘 모르겠다	계		
전 체	5,000	42.6	47.4	10.0	100.0	-	
성별	남	2,531	42.6	47.3	10.2	100.0	0.137 (df=2)
	여	2,469	42.6	47.5	9.8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42.7	47.0	10.3	100.0	0.877 (df=6)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42.3	47.6	10.1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42.6	47.4	10.0	100.0	
	읍·면(군)지역	324	43.8	47.5	8.6	100.0	
연령	19~29세	929	40.6	43.4	16.0	100.0	62.352*** (df=8)
	30대	870	40.3	48.5	11.1	100.0	
	40대	1,046	42.8	49.8	7.4	100.0	
	50대	1,084	43.5	49.4	7.0	100.0	
	60~74세	1,071	45.0	45.6	9.4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44.7	46.6	8.7	100.0	19.355*** (df=2)
	자녀 없음	2,073	39.7	48.6	11.8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43.7	48.3	8.0	100.0	5.804 (df=2)
	기타	3,963	42.3	47.2	10.5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42.4	48.7	8.9	100.0	0.872 (df=2)
	기타	4,474	42.6	47.3	10.1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44.2	48.5	7.3	100.0	2.964 (df=2)
	기타	4,658	42.5	47.3	10.2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43.5	49.3	7.2	100.0	3.995 (df=2)
	기타	4,572	42.5	47.2	10.3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45.4	47.9	6.7	100.0	8.104* (df=2)
	기타	4,434	42.2	47.3	10.4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32.7	50.0	17.3	100.0	20.648** (df=6)
	고졸	886	42.8	45.0	12.2	100.0	
	전문대/대졸	3,545	42.9	47.4	9.7	100.0	
	대학원졸	465	41.9	51.4	6.7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38.5	47.1	14.4	100.0	20.241** (df=6)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41.2	48.0	10.9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43.1	47.8	9.1	100.0	
	600만원 이상	1,340	45.2	46.3	8.4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42.2	48.5	9.3	100.0	39.766** (df=2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40.4	51.7	8.0	100.0	
	사무 종사자	1,214	44.8	46.5	8.6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39.5	50.0	10.5	100.0	
	판매 종사자	210	43.8	45.7	10.5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34.4	56.3	9.4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33.3	53.3	13.3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43.1	44.1	12.7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42.7	41.7	15.6	100.0	
	군인	13	15.4	61.5	23.1	100.0	
	기타	1,325	44.2	44.6	11.2	100.0	

〈표 61-4〉 자녀의 학교교육 거부에 대한 학부모 태도: 고등학교

구분	사례수	응답 비율			계	χ^2	
		그 학교가 아니더라도 정규학교는 꼭 다니게 하겠다	꼭 정규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대안을 찾겠다	잘 모르겠다			
전 체	5,000	34.8	54.0	11.3	100.0	-	
성별	남	2,531	34.5	53.8	11.7	100.0	0.738 (df=2)
	여	2,469	35.0	54.1	10.9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37.0	51.1	11.9	100.0	4.888 (df=6)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35.1	54.1	10.8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33.8	54.8	11.4	100.0	
	읍·면(군)지역	324	33.6	55.9	10.5	100.0	
연령	19~29세	929	29.5	54.4	16.1	100.0	65.900*** (df=8)
	30대	870	31.5	54.0	14.5	100.0	
	40대	1,046	36.7	55.0	8.3	100.0	
	50대	1,084	34.9	56.0	9.1	100.0	
	60~74세	1,071	40.0	50.5	9.5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38.2	51.7	10.0	100.0	40.548*** (df=2)
	자녀 없음	2,073	29.9	57.1	13.0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37.6	52.7	9.7	100.0	6.221* (df=2)
	기타	3,963	34.0	54.3	11.7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35.2	52.9	12.0	100.0	0.416 (df=2)
	기타	4,474	34.7	54.1	11.2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39.2	51.5	9.4	100.0	3.693 (df=2)
	기타	4,658	34.4	54.1	11.4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38.6	53.5	7.9	100.0	6.572* (df=2)
	기타	4,572	34.4	54.0	11.6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39.9	53.5	6.5	100.0	17.656*** (df=2)
	기타	4,434	34.1	54.0	11.9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26.0	57.7	16.3	100.0	20.140** (df=6)
	고졸	886	33.9	51.7	14.4	100.0	
	전문대/대졸	3,545	35.4	53.9	10.7	100.0	
	대학원졸	465	33.8	57.8	8.4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30.8	54.6	14.6	100.0	17.442** (df=6)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33.1	54.3	12.6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35.8	53.9	10.3	100.0	
	600만원 이상	1,340	36.9	53.4	9.6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35.6	53.6	10.8	100.0	36.393* (df=2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32.4	57.8	9.8	100.0	
	사무 종사자	1,214	36.7	52.1	11.3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29.5	56.8	13.7	100.0	
	판매 종사자	210	38.1	50.5	11.4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28.1	56.3	15.6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24.2	61.2	14.5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31.4	50.0	18.6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33.2	49.7	17.1	100.0	
	군인	13	38.5	53.8	7.7	100.0	
	기타	1,325	36.5	53.3	10.3	100.0	

〈표 62〉 우리 사회에서 자녀교육 성공의 의미

구분	응답 비율							계	χ^2	
	사례수	자녀가 명문 대학에 들어갔다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컸다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잘 산다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전 체	5,000	11.3	22.0	21.7	6.2	14.0	24.7	100.0	-	
성별	남	2,531	11.7	22.6	21.2	7.1	13.3	24.1	100.0	10.099 (df=5)
	여	2,469	11.0	21.4	22.2	5.4	14.7	25.2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10.2	22.2	21.3	7.8	13.4	25.2	100.0	27.324* (df=15)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11.3	22.4	23.4	6.3	11.8	24.8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12.3	21.3	20.7	5.8	15.3	24.5	100.0	
	읍·면(군)지역	324	8.0	25.0	23.5	4.0	15.7	23.8	100.0	
연령	19~29세	929	6.4	22.5	23.3	8.7	17.4	21.7	100.0	124.979*** (df=20)
	30대	870	8.5	22.0	24.0	8.6	14.1	22.8	100.0	
	40대	1,046	14.1	23.0	18.1	4.7	13.6	26.5	100.0	
	50대	1,084	15.4	20.1	20.7	5.0	10.1	28.7	100.0	
	60~74세	1,071	11.1	22.6	23.1	4.9	15.3	23.0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11.9	21.6	21.9	5.5	13.5	25.6	100.0	12.360* (df=5)
	자녀 없음	2,073	10.6	22.6	21.4	7.3	14.7	23.4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11.8	21.7	20.7	6.0	13.5	26.3	100.0	2.665 (df=5)
	기타	3,963	11.2	22.1	22.0	6.3	14.2	24.2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10.8	22.2	20.7	7.6	13.3	25.3	100.0	2.458 (df=5)
	기타	4,474	11.4	22.0	21.8	6.1	14.1	24.6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12.9	18.7	21.9	4.7	15.2	26.6	100.0	4.940 (df=5)
	기타	4,658	11.2	22.3	21.7	6.4	13.9	24.5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13.6	22.7	19.4	4.4	12.9	27.1	100.0	7.257 (df=5)
	기타	4,572	11.1	22.0	21.9	6.4	14.1	24.5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15.7	20.1	20.8	3.7	11.7	27.9	100.0	23.842*** (df=5)
	기타	4,434	10.8	22.3	21.8	6.6	14.3	24.3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9.6	15.4	21.2	10.6	19.2	24.0	100.0	37.906** (df=15)
	고졸	886	9.7	21.4	24.0	7.8	14.9	22.1	100.0	
	전문대/대졸	3,545	11.6	22.6	21.5	6.1	13.8	24.5	100.0	
	대학원졸	465	12.9	20.4	19.1	3.2	12.9	31.4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11.2	22.4	20.0	5.8	15.7	24.9	100.0	19.625 (df=15)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11.0	22.3	21.7	6.7	14.8	23.5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10.6	22.5	22.8	7.2	12.4	24.6	100.0	
	600만원 이상	1,340	12.7	21.0	21.1	4.8	14.3	26.1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13.5	22.9	20.9	7.9	13.4	21.4	100.0	75.026* (df=5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9.9	22.6	20.8	5.7	13.1	27.9	100.0	
	사무 종사자	1,214	10.7	23.1	22.6	6.3	13.5	23.8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14.7	18.4	26.8	6.8	13.7	19.5	100.0	
	판매 종사자	210	11.4	25.7	21.9	6.2	10.5	24.3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9.4	25.0	9.4	12.5	9.4	34.4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8.5	17.6	25.5	10.3	15.8	22.4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7.8	25.5	19.6	11.8	10.8	24.5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13.1	20.6	26.1	7.0	13.1	20.1	100.0	
	군인	13	7.7	0.0	30.8	7.7	23.1	30.8	100.0	
	기타	1,325	11.8	20.8	20.4	4.5	16.2	26.3	100.0	

〈표 63-1〉 향후 희망하는 자녀의 생활(1번)

구분	응답 비율										χ^2	
	사례수	경제적으로 운택함	명예가 많음	권력이 많음	학식이 많음	가족이나 주위 사람 들과 원만 하게 지냄	사회에 봉사 하며 살아감	본인의 흥미와 적성을 살림	건강 하게 살아감	계		
전 체	5,000	40.8	3.2	5.9	6.7	25.4	4.2	13.8	0.0	100.0	-	
성별	남	2,531	39.3	3.6	6.4	7.0	26.3	5.4	12.0	0.0	100.0	42.509*** (df=7)
	여	2,469	42.4	2.8	5.3	6.4	24.6	2.9	15.7	0.0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41.2	4.7	7.1	8.5	22.6	2.5	13.4	0.0	100.0	48.130** (df=21)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41.0	3.4	5.1	7.6	25.0	4.3	13.6	0.0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41.4	2.4	5.7	5.4	26.5	4.7	14.0	0.0	100.0	
	읍·면(군)지역	324	34.9	3.7	6.8	6.8	28.4	4.9	14.5	0.0	100.0	
연령	19~29세	929	35.6	5.0	9.1	10.2	28.0	1.9	10.1	0.0	100.0	196.119*** (df=28)
	30대	870	39.7	3.8	9.9	9.1	23.4	2.8	11.4	0.0	100.0	
	40대	1,046	44.0	3.2	4.2	4.8	24.2	3.5	16.1	0.1	100.0	
	50대	1,084	43.6	1.9	3.4	4.8	24.7	5.5	16.0	0.0	100.0	
	60~74세	1,071	40.3	2.5	3.8	5.4	26.8	6.4	14.7	0.0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43.9	2.9	4.8	5.9	24.1	4.6	13.7	0.0	100.0	49.121*** (df=7)
	자녀 없음	2,073	36.4	3.6	7.4	7.8	27.4	3.5	14.0	0.0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43.4	3.8	5.8	5.9	23.3	4.0	13.9	0.0	100.0	7.344 (df=7)
	기타	3,963	40.1	3.1	5.9	6.9	26.0	4.2	13.8	0.0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42.8	4.8	6.7	7.8	21.9	2.7	13.5	0.0	100.0	12.997 (df=7)
	기타	4,474	40.6	3.0	5.8	6.5	25.9	4.3	13.9	0.0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47.1	3.5	5.0	3.8	22.2	5.0	13.5	0.0	100.0	10.863 (df=7)
	기타	4,658	40.4	3.2	5.9	6.9	25.7	4.1	13.8	0.0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40.2	3.5	3.7	4.9	28.7	4.7	14.3	0.0	100.0	8.436 (df=7)
	기타	4,572	40.9	3.2	6.1	6.8	25.1	4.1	13.8	0.0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44.5	2.1	3.5	4.6	23.0	6.5	15.7	0.0	100.0	26.529*** (df=7)
	기타	4,434	40.3	3.3	6.2	6.9	25.8	3.9	13.6	0.0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43.3	2.9	3.8	11.5	26.0	2.9	9.6	0.0	100.0	56.787*** (df=21)
	고졸	886	39.1	4.6	8.9	7.4	24.4	3.6	12.0	0.0	100.0	
	전문대/대졸	3,545	41.1	3.0	5.6	6.7	25.5	4.2	13.8	0.0	100.0	
	대학원졸	465	41.5	1.9	2.8	3.7	26.7	4.9	18.5	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40.4	2.8	3.4	5.6	23.7	6.7	17.2	0.2	100.0	66.190*** (df=21)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38.7	3.2	7.5	6.8	26.7	3.9	13.2	0.0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41.3	2.9	6.5	8.1	23.5	4.5	13.3	0.0	100.0	
	600만원 이상	1,340	43.1	3.7	4.0	5.3	26.7	3.2	14.0	0.0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42.0	3.5	5.8	6.1	24.2	6.0	12.4	0.0	100.0	143.558*** (df=7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39.5	2.9	6.5	7.6	25.9	3.4	14.1	0.0	100.0	
	사무 종사자	1,214	41.2	3.2	5.8	7.6	26.3	3.7	12.2	0.0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40.0	3.2	6.8	7.4	28.4	7.4	6.8	0.0	100.0	
	판매 종사자	210	45.2	4.3	7.6	4.8	21.9	4.3	11.9	0.0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34.4	3.1	12.5	9.4	25.0	3.1	12.5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39.4	3.6	15.2	7.3	24.2	2.4	7.9	0.0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29.4	3.9	6.9	11.8	37.3	1.0	9.8	0.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40.2	6.0	6.5	7.5	21.1	5.0	13.6	0.0	100.0	
	군인 기타	13 1,325	30.8 41.7	7.7 2.5	7.7 3.5	23.1 4.8	30.8 24.9	0.0 4.2	0.0 18.3	0.0 0.1	100.0 100.0	

〈표 63-2〉 향후 희망하는 자녀의 생활(2번)

구분	응답 비율										X ²	
	사례수	경제적으로 윤택함	명예가 많음	권력이 많음	학식이 많음	가족이나 주위 사람 들과 원만 하게 지냄	사회에 봉사 하며 살아가감	본인의 흥미와 적성을 살림	건강 하게 살아가감	계		
전 체	5,000	1.5	1.4	3.4	18.6	10.2	36.0	28.8	0.1	100.0	-	
성별	남	2,531	1.7	1.6	3.6	17.7	11.2	37.5	26.7	0.1	100.0	24.243** (df=9)
	여	2,469	1.3	1.2	3.2	19.5	9.2	34.5	31.0	0.0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1.5	1.4	4.3	21.3	11.4	34.3	25.8	0.0	100.0	30.117 (df=27)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1.4	1.9	3.6	17.9	10.9	35.4	28.8	0.0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1.4	1.3	3.2	18.1	9.1	36.7	30.1	0.1	100.0	
	읍·면(군)지역	324	1.9	0.6	1.9	16.4	12.3	38.3	28.7	0.0	100.0	
연령	19~29세	929	2.0	1.4	4.6	19.1	11.3	37.6	24.0	0.0	100.0	86.599*** (df=36)
	30대	870	1.1	2.0	5.2	22.4	11.4	33.6	24.3	0.1	100.0	
	40대	1,046	1.9	1.5	3.2	16.9	9.3	36.7	30.4	0.1	100.0	
	50대	1,084	1.4	1.6	1.9	17.6	8.7	37.8	31.0	0.0	100.0	
	60~74세	1,071	0.9	0.7	2.8	17.6	10.9	34.1	32.9	0.1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1.3	1.3	3.1	19.1	9.9	35.7	29.5	0.0	100.0	10.954 (df=9)
	자녀 없음	2,073	1.7	1.6	3.9	17.8	10.7	36.4	27.8	0.1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1.2	1.9	3.9	17.9	11.8	36.8	26.5	0.0	100.0	10.615 (df=9)
	기타	3,963	1.6	1.3	3.3	18.7	9.8	35.8	29.4	0.1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1.7	2.3	3.6	18.1	11.4	36.3	26.6	0.0	100.0	5.537 (df=9)
	기타	4,474	1.5	1.3	3.4	18.6	10.1	36.0	29.1	0.1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0.9	2.3	5.0	17.3	11.1	37.1	26.3	0.0	100.0	7.335 (df=9)
	기타	4,658	1.5	1.4	3.3	18.7	10.2	35.9	29.0	0.1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0.9	1.6	3.0	16.8	13.6	38.8	25.2	0.0	100.0	10.445 (df=9)
	기타	4,572	1.5	1.4	3.5	18.7	9.9	35.7	29.1	0.1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1.2	0.7	2.5	20.0	9.0	38.0	28.4	0.2	100.0	14.712 (df=9)
	기타	4,434	1.5	1.5	3.6	18.4	10.4	35.7	28.8	0.0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1.0	0.0	2.9	25.0	19.2	26.9	25.0	0.0	100.0	51.120** (df=27)
	고졸	886	1.7	1.8	4.2	19.2	12.4	30.8	29.9	0.0	100.0	
	전문대/대졸	3,545	1.5	1.3	3.4	18.9	9.7	37.2	27.9	0.1	100.0	
	대학원졸	465	1.3	1.7	2.6	13.1	8.0	39.1	34.2	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1.1	0.9	2.6	15.9	9.7	32.9	36.8	0.2	100.0	42.184* (df=27)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1.7	1.5	3.3	17.6	11.0	36.5	28.4	0.1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1.4	1.5	3.6	19.2	11.2	36.3	26.9	0.0	100.0	
	600만원 이상	1,340	1.5	1.5	3.7	19.9	8.4	36.2	28.7	0.0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1.9	2.9	4.3	19.6	9.7	36.1	25.4	0.0	100.0	163.655*** (df=9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1.6	1.6	3.4	18.3	10.9	37.0	27.1	0.0	100.0	
	사무 종사자	1,214	1.7	0.9	3.5	21.1	11.4	35.3	26.0	0.0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0.5	2.1	6.3	17.9	10.5	33.7	28.4	0.5	100.0	
	판매 종사자	210	2.4	2.4	2.9	18.6	9.0	37.1	27.6	0.0	100.0	
	농림어업 속련 종사자	32	3.1	0.0	9.4	6.3	25.0	34.4	21.9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0.6	0.6	3.6	24.8	14.5	30.3	25.5	0.0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0.0	1.0	6.9	15.7	12.7	42.2	21.6	0.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2.0	2.0	3.0	19.1	10.1	32.2	31.7	0.0	100.0	
	군인	13	0.0	7.7	0.0	0.0	23.1	69.2	0.0	0.0	100.0	
	기타	1,325	1.1	0.8	2.3	15.8	8.0	36.5	35.3	0.2	100.0	

〈표 64〉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담 의향 기간

구분	응답 비율											χ^2	
	사례수	중학교 졸업까지	고등학교 졸업까지	대학교 졸업 까지	대학원 석사 까지	대학원 박사 까지	취업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평생	기타	계		
전 체	5,000	0.3	11.4	51.1	5.7	4.3	17.2	7.0	2.6	0.3	100.0	-	
성별	남	2,531	0.2	10.6	50.6	6.2	4.1	17.6	7.5	2.7	0.4	100.0	11.845 (df=11)
	여	2,469	0.3	12.3	51.6	5.2	4.5	16.8	6.5	2.6	0.3	100.0	
거주 지역	서울특별시	974	0.1	9.9	49.6	8.1	7.0	15.1	6.6	3.5	0.2	100.0	76.302*** (df=33)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0.4	11.9	54.7	5.2	3.2	15.7	5.9	2.6	0.3	100.0	
	중소도시(시 지역) 읍·면(군)지역	2,359	0.2	12.0	49.5	4.9	3.8	18.7	8.1	2.5	0.4	100.0	
연령	19~29세	929	0.2	14.1	46.8	6.7	4.5	19.9	4.6	2.5	0.6	100.0	200.866*** (df=44)
	30대	870	0.1	16.9	50.2	8.2	5.4	12.3	5.1	1.6	0.2	100.0	
	40대	1,046	0.2	12.0	59.2	4.1	3.5	13.4	4.7	2.7	0.2	100.0	
	50대	1,084	0.4	7.7	51.2	4.6	3.9	19.4	9.8	2.8	0.3	100.0	
	60~74세	1,071	0.4	7.8	47.3	5.6	4.4	20.4	10.2	3.5	0.4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0.3	7.7	52.1	5.4	4.7	18.3	8.6	2.8	0.1	100.0	141.975*** (df=11)
	자녀 없음	2,073	0.2	16.7	49.6	6.1	3.7	15.7	4.8	2.4	0.7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0.1	8.2	61.0	5.8	5.1	13.6	4.6	1.5	0.0	100.0	71.960*** (df=11)
	기타	3,963	0.3	12.3	48.4	5.7	4.1	18.2	7.6	2.9	0.4	100.0	
초등 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0.2	9.3	59.7	6.3	4.9	13.3	4.9	1.3	0.0	100.0	26.548** (df=11)
	기타	4,474	0.3	11.7	50.0	5.7	4.2	17.7	7.3	2.8	0.4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0.0	9.4	60.8	5.6	4.4	12.9	5.6	1.5	0.0	100.0	17.560 (df=11)
	기타	4,658	0.3	11.6	50.3	5.7	4.3	17.5	7.1	2.7	0.4	100.0	
고등 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0.0	7.5	63.1	4.7	5.6	14.3	3.5	1.4	0.0	100.0	38.598*** (df=11)
	기타	4,572	0.3	11.8	49.9	5.8	4.2	17.5	7.3	2.8	0.4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0.0	3.9	53.5	4.9	4.6	20.0	8.8	4.2	0.0	100.0	49.192*** (df=11)
	기타	4,434	0.3	12.4	50.7	5.8	4.3	16.9	6.8	2.4	0.4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1.9	13.5	48.1	4.8	7.7	15.4	4.8	2.9	1.0	100.0	146.078*** (df=33)
	고졸	886	0.9	14.8	45.4	6.4	3.8	17.7	8.8	1.8	0.3	100.0	
	전문대/대졸	3,545	0.1	10.9	54.1	5.3	3.7	17.1	5.9	2.6	0.3	100.0	
	대학원졸	465	0.0	8.6	39.6	7.7	8.8	17.6	12.5	4.7	0.4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465	0.4	17.8	49.0	5.4	1.1	15.7	5.6	3.4	1.5	100.0	136.263*** (df=33)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0.4	13.5	52.8	5.2	4.0	15.6	6.0	2.0	0.4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0.3	10.7	52.2	6.3	4.7	16.3	6.8	2.6	0.1	100.0	
	600만원 이상	1,340	0.0	7.5	48.3	5.7	5.3	20.8	9.0	3.2	0.1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0.2	7.4	53.5	6.9	6.0	16.1	7.7	2.1	0.2	100.0	614.861*** (df=11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0.2	12.4	48.1	6.9	5.4	17.1	6.7	3.0	0.2	100.0	
	사무 종사자	1,214	0.2	12.9	55.6	5.1	2.9	15.9	5.3	2.1	0.2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0.0	19.5	49.5	2.6	4.2	11.1	11.1	1.6	0.5	100.0	
	판매 종사자	210	0.0	10.5	50.5	5.7	6.7	18.1	5.2	2.9	0.5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3.1	3.1	46.9	18.8	6.3	15.6	0.0	6.3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0.6	14.5	49.1	7.3	2.4	16.4	7.3	2.4	0.0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0.0	8.8	49.0	2.9	14.7	14.7	5.9	3.9	0.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1.0	19.6	44.2	7.0	2.5	16.6	3.0	5.5	0.5	100.0	
	군인	13	0.0	7.7	46.2	15.4	7.7	15.4	0.0	0.0	7.7	100.0	
	기타	1,325	0.3	9.2	49.7	4.8	3.3	20.2	9.1	2.7	0.6	100.0	

〈표 65〉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의 존재 정도

구분	응답 비율						χ^2	
	사례수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	일부 존재하나 심각하지 않다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계		
전 체	5,000	56.8	32.5	6.5	4.2	100.0	-	
성별	남	2,531	55.4	33.7	6.5	4.4	100.0	4.766 (df=3)
	여	2,469	58.2	31.2	6.5	4.1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55.0	33.0	8.3	3.7	100.0	15.041 (df=9)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56.2	33.3	6.3	4.2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58.5	31.3	5.7	4.5	100.0	
	읍·면(군)지역	324	51.5	36.4	7.4	4.6	100.0	
연령	19~29세	929	44.0	38.2	9.3	8.5	100.0	147.152*** (df=12)
	30대	870	51.7	35.3	8.5	4.5	100.0	
	40대	1,046	61.7	30.9	5.1	2.4	100.0	
	50대	1,084	64.1	28.7	4.5	2.7	100.0	
	60~74세	1,071	59.8	30.6	5.9	3.7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60.3	31.1	6.1	2.5	100.0	69.711*** (df=3)
	자녀 없음	2,073	51.9	34.4	7.0	6.7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61.2	30.5	6.7	1.6	100.0	27.113*** (df=3)
	기타	3,963	55.6	33.0	6.5	4.9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59.5	30.8	7.8	1.9	100.0	10.381* (df=3)
	기타	4,474	56.5	32.7	6.3	4.5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62.6	30.1	5.6	1.8	100.0	8.654* (df=3)
	기타	4,658	56.4	32.7	6.6	4.4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62.4	30.8	5.8	0.9	100.0	15.349** (df=3)
	기타	4,572	56.3	32.6	6.6	4.5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64.8	30.2	3.4	1.6	100.0	28.586*** (df=3)
	기타	4,434	55.8	32.8	6.9	4.6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48.1	31.7	7.7	12.5	100.0	48.912*** (df=9)
	고졸	886	57.6	28.0	8.4	6.1	100.0	
	전문대/대졸	3,545	56.2	33.9	6.2	3.8	100.0	
	대학원졸	465	61.9	30.8	5.2	2.2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59.1	28.0	4.5	8.4	100.0	52.025*** (df=9)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55.7	32.1	6.8	5.4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55.0	34.5	7.5	3.0	100.0	
	600만원 이상	1,340	59.4	32.2	5.7	2.8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58.8	30.3	7.7	3.2	100.0	98.657*** (df=3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54.8	35.5	6.6	3.1	100.0	
	사무 종사자	1,214	57.2	33.4	6.8	2.5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57.4	36.3	4.7	1.6	100.0	
	판매 종사자	210	61.9	27.1	8.1	2.9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28.1	56.3	9.4	6.3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54.5	33.3	6.7	5.5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50.0	41.2	7.8	1.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49.2	32.2	7.5	11.1	100.0	
	군인	13	53.8	30.8	7.7	7.7	100.0	
기타	1,325	58.6	29.5	5.2	6.7	100.0		

〈표 66〉 우리나라 학벌주의에 대한 전망

구분	응답 비율						χ^2	
	사례수	악화될 것이다	큰 변화 없을 것이다	심화될 것이다	잘 모르겠다	계		
전 체	5,000	16.5	58.1	20.6	4.9	100.0	-	
성별	남	2,531	17.5	56.1	22.0	4.4	100.0	13.934** (df=3)
	여	2,469	15.4	60.2	19.1	5.3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18.4	55.5	21.5	4.6	100.0	14.026 (df=9)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15.9	56.6	22.6	4.9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16.3	59.3	19.5	5.0	100.0	
	읍·면(군)지역	324	14.5	63.9	17.0	4.6	100.0	
연령	19~29세	929	15.4	50.7	25.6	8.3	100.0	78.035*** (df=12)
	30대	870	16.2	55.5	22.9	5.4	100.0	
	40대	1,046	15.0	64.0	17.9	3.2	100.0	
	50대	1,084	18.6	58.0	19.7	3.6	100.0	
	60~74세	1,071	16.8	61.1	17.7	4.4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16.6	60.4	19.6	3.4	100.0	40.829*** (df=3)
	자녀 없음	2,073	16.3	54.9	21.9	6.9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17.2	58.5	21.3	3.0	100.0	10.213* (df=3)
	기타	3,963	16.3	58.0	20.4	5.3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15.8	58.6	22.2	3.4	100.0	3.496 (df=3)
	기타	4,474	16.5	58.1	20.4	5.0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15.8	57.0	22.5	4.7	100.0	0.884 (df=3)
	기타	4,658	16.5	58.2	20.4	4.9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18.9	59.1	19.6	2.3	100.0	8.139* (df=3)
	기타	4,572	16.2	58.0	20.6	5.1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19.3	59.2	19.6	1.9	100.0	14.611** (df=3)
	기타	4,434	16.1	58.0	20.7	5.2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13.5	54.8	18.3	13.5	100.0	32.045*** (df=9)
	고졸	886	12.9	60.2	21.8	5.2	100.0	
	전문대/대졸	3,545	17.2	57.7	20.3	4.8	100.0	
	대학원졸	465	18.7	58.1	20.4	2.8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15.9	55.1	19.6	9.5	100.0	42.288*** (df=9)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15.9	58.1	20.1	5.9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16.3	60.5	19.9	3.3	100.0	
	600만원 이상	1,340	17.5	56.4	22.3	3.8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18.5	54.8	23.5	3.2	100.0	78.269*** (df=3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17.9	56.6	21.3	4.2	100.0	
	사무 종사자	1,214	15.7	59.0	22.1	3.2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17.4	57.4	22.1	3.2	100.0	
	판매 종사자	210	14.8	59.5	21.9	3.8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28.1	53.1	12.5	6.3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13.9	56.4	22.4	7.3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11.8	63.7	17.6	6.9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13.6	49.2	27.6	9.5	100.0	
	군인	13	15.4	46.2	30.8	7.7	100.0	
기타	1,325	16.2	61.2	15.8	6.8	100.0		

〈표 67〉 대학 서열화에 대한 전망

구분	응답 비율						χ^2	
	사례수	악화될 것이다	큰 변화 없을 것이다	심화될 것이다	잘 모르겠다	계		
전 체	5,000	12.6	59.2	23.7	4.5	100.0	-	
성별	남	2,531	13.3	57.8	24.5	4.4	100.0	5.188 (df=3)
	여	2,469	11.8	60.6	23.0	4.6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13.4	57.7	25.2	3.7	100.0	13.205 (df=9)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13.3	56.7	25.2	4.8	100.0	
	중소도시(시 지역)	2,359	11.9	60.6	22.9	4.6	100.0	
	읍·면(군)지역	324	11.7	63.9	19.4	4.9	100.0	
연령	19~29세	929	12.5	52.4	27.0	8.1	100.0	74.277*** (df=12)
	30대	870	13.6	54.9	27.1	4.4	100.0	
	40대	1,046	11.8	62.0	23.1	3.2	100.0	
	50대	1,084	13.6	62.3	21.8	2.4	100.0	
	60~74세	1,071	11.6	62.7	20.7	4.9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12.6	61.8	22.6	3.0	100.0	48.907*** (df=3)
	자녀 없음	2,073	12.5	55.5	25.4	6.7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12.3	60.4	25.4	1.9	100.0	21.023*** (df=3)
	기타	3,963	12.6	58.9	23.3	5.2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11.2	58.4	27.6	2.9	100.0	8.088* (df=3)
	기타	4,474	12.7	59.3	23.3	4.7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13.5	59.9	24.0	2.6	100.0	3.122 (df=3)
	기타	4,658	12.5	59.1	23.7	4.6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12.9	63.3	22.7	1.2	100.0	13.147** (df=3)
	기타	4,572	12.5	58.8	23.8	4.8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14.5	62.5	21.6	1.4	100.0	17.890*** (df=3)
	기타	4,434	12.3	58.8	24.0	4.9	100.0	
학력	중졸 이하	104	8.7	53.8	21.2	16.3	100.0	47.982*** (df=9)
	고졸	886	10.6	59.3	24.4	5.8	100.0	
	전문대/대졸	3,545	13.3	59.0	23.6	4.1	100.0	
	대학원졸	465	11.2	61.5	24.5	2.8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13.3	55.1	21.7	9.9	100.0	47.631*** (df=9)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11.7	58.6	24.4	5.3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12.8	60.6	23.3	3.3	100.0	
	600만원 이상	1,340	13.0	59.8	24.1	3.1	100.0	
직업군	관리자	621	13.7	57.0	26.1	3.2	100.0	91.983*** (df=3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11.5	59.0	25.9	3.6	100.0	
	사무 종사자	1,214	13.8	58.2	25.2	2.8	100.0	
	서비스 종사자	190	14.2	58.4	22.1	5.3	100.0	
	판매 종사자	210	13.3	59.5	23.3	3.8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31.3	43.8	18.8	6.3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13.3	58.8	23.6	4.2	100.0	
	장차·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9.8	62.7	23.5	3.9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99	7.5	50.8	30.2	11.6	100.0	
	군인	13	7.7	61.5	15.4	15.4	100.0	
	기타	1,325	11.7	62.8	19.3	6.2	100.0	

〈표 68-1〉 교육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경제적 부의 증대)

구분	응답 비율											F
	사례수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 이다	다소 작다	매우 작다	종합결과			평균 (5점)	표준 편차	
							작음	보통	큼			
전 체	5,000	19.3	48.9	28.4	2.9	0.5	3.4	28.4	68.3	3.84	0.8	-
성별	남	2,531	20.2	47.8	28.3	3.1	0.6	3.7	28.3	68.0	3.84	0.8
	여	2,469	18.4	50.1	28.4	2.7	0.3	3.0	28.4	68.5	3.84	0.8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20.4	48.4	27.3	3.3	0.6	3.9	27.3	68.8	3.85	0.8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18.4	49.4	29.0	2.9	0.3	3.2	29.0	67.8	3.83	0.8
	중소도시(시 지역)	2,359	19.7	48.8	28.2	2.9	0.5	3.3	28.2	68.5	3.84	0.8
	읍·면(군)지역	324	17.3	49.7	30.2	2.2	0.6	2.8	30.2	67.0	3.81	0.8
연령	19~29세	929	17.5	43.7	33.7	4.4	0.6	5.1	33.7	61.2	3.73	0.8
	30대	870	21.0	45.2	29.9	3.4	0.5	3.9	29.9	66.2	3.83	0.8
	40대	1,046	19.1	49.6	27.7	3.1	0.5	3.5	27.7	68.7	3.84	0.8
	50대	1,084	20.6	51.7	24.8	2.7	0.3	3.0	24.8	72.2	3.90	0.8
	60~74세	1,071	18.4	53.1	26.7	1.3	0.5	1.8	26.7	71.5	3.88	0.7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19.3	51.4	26.2	2.6	0.4	3.0	26.2	70.7	3.87	0.8
	자녀 없음	2,073	19.3	45.5	31.4	3.4	0.5	3.9	31.4	64.8	3.80	0.8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18.8	50.1	27.4	3.2	0.5	3.7	27.4	68.9	3.84	0.8
	기타	3,963	19.5	48.6	28.6	2.9	0.5	3.3	28.6	68.1	3.84	0.8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20.2	50.6	25.7	2.9	0.8	3.6	25.7	70.7	3.87	0.8
	기타	4,474	19.2	48.7	28.7	2.9	0.4	3.4	28.7	68.0	3.83	0.8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20.2	48.2	27.5	3.8	0.3	4.1	27.5	68.4	3.84	0.8
	기타	4,658	19.3	49.0	28.4	2.9	0.5	3.3	28.4	68.2	3.84	0.8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16.6	49.8	30.4	3.0	0.2	3.3	30.4	66.4	3.79	0.8
	기타	4,572	19.6	48.9	28.2	2.9	0.5	3.4	28.2	68.4	3.84	0.8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21.7	52.3	22.8	3.2	0.0	3.2	22.8	74.0	3.93	0.8
	기타	4,434	19.0	48.5	29.1	2.9	0.5	3.4	29.1	67.5	3.83	0.8
학력	중졸 이하	104	14.4	45.2	39.4	0.0	1.0	1.0	39.4	59.6	3.72	0.7
	고졸	886	17.7	51.0	28.4	2.1	0.7	2.8	28.4	68.7	3.83	0.8
	전문대/대졸	3,545	19.6	48.1	28.7	3.1	0.4	3.6	28.7	67.8	3.83	0.8
	대학원졸	465	21.1	52.0	23.2	3.4	0.2	3.7	23.2	73.1	3.90	0.8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20.4	48.0	28.8	1.9	0.9	2.8	28.8	68.4	3.85	0.8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17.1	49.2	30.5	2.6	0.6	3.2	30.5	66.3	3.80	0.8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18.5	49.9	27.8	3.4	0.4	3.8	27.8	68.4	3.83	0.8
	600만원 이상	1,340	22.5	47.9	26.2	3.1	0.3	3.4	26.2	70.4	3.89	0.8
직업군	관리자	621	21.7	48.8	25.9	3.4	0.2	3.5	25.9	70.5	3.89	0.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20.1	49.3	27.2	3.2	0.1	3.3	27.2	69.4	3.86	0.8
	사무 종사자	1,214	19.4	47.3	29.8	3.3	0.2	3.5	29.8	66.7	3.83	0.8
	서비스 종사자	190	20.5	47.9	28.4	2.6	0.5	3.2	28.4	68.4	3.85	0.8
	판매 종사자	210	21.4	46.7	29.5	1.4	1.0	2.4	29.5	68.1	3.86	0.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9.4	50.0	34.4	3.1	3.1	6.3	34.4	59.4	3.59	0.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12.7	51.5	30.9	2.4	2.4	4.8	30.9	64.2	3.70	0.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18.6	52.0	26.5	2.9	0.0	2.9	26.5	70.6	3.86	0.7
	단순노무 종사자	199	23.1	39.7	31.7	4.0	1.5	5.5	31.7	62.8	3.79	0.9
	군인	13	15.4	38.5	46.2	0.0	0.0	0.0	46.2	53.8	3.69	0.8
	기타	1,325	17.6	51.7	27.8	2.3	0.6	2.9	27.8	69.3	3.83	0.8

〈표 68-2〉 교육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사회적 지위 향상)

구분	응답 비율											F	
	사례수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 이다	다소 작다	매우 작다	종합결과			평균 (5점)	표준 편차		
							작음	보통	큼				
전 체	5,000	23.2	47.0	24.1	5.2	0.6	5.7	24.1	70.2	3.87	0.8	-	
성별	남	2,531	24.3	45.3	23.9	5.8	0.8	6.5	23.9	69.6	3.87	0.9	0.204 (df=1)
	여	2,469	22.2	48.7	24.2	4.5	0.4	4.9	24.2	70.8	3.88	0.8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26.7	42.7	24.2	5.7	0.6	6.4	24.2	69.4	3.89	0.9	0.355 (df=3)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23.5	47.1	23.2	5.4	0.7	6.1	23.2	70.7	3.87	0.9	
	중소도시(시 지역)	2,359	22.0	48.2	24.5	4.7	0.6	5.2	24.5	70.2	3.86	0.8	
	읍·면(군)지역	324	20.4	50.0	23.5	5.9	0.3	6.2	23.5	70.4	3.84	0.8	
연령	19~29세	929	21.0	38.8	32.1	7.1	1.1	8.2	32.1	59.7	3.71	0.9	16.679*** (df=4)
	30대	870	23.0	41.4	28.2	6.6	0.9	7.5	28.2	64.4	3.79	0.9	
	40대	1,046	22.9	49.3	22.5	4.6	0.7	5.3	22.5	72.3	3.89	0.8	
	50대	1,084	26.3	50.1	19.3	4.1	0.3	4.3	19.3	76.4	3.98	0.8	
	60~74세	1,071	22.5	53.2	20.2	4.0	0.1	4.1	20.2	75.7	3.94	0.8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23.6	50.1	21.3	4.7	0.3	5.1	21.3	73.7	3.92	0.8	22.880*** (df=1)
	자녀 없음	2,073	22.7	42.6	28.0	5.8	0.9	6.7	28.0	65.3	3.80	0.9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24.3	48.7	21.4	5.2	0.4	5.6	21.4	73.0	3.91	0.8	3.262 (df=1)
	기타	3,963	22.9	46.5	24.8	5.1	0.6	5.8	24.8	69.5	3.86	0.8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24.1	49.8	20.9	4.8	0.4	5.1	20.9	74.0	3.93	0.8	2.475 (df=1)
	기타	4,474	23.1	46.6	24.4	5.2	0.6	5.8	24.4	69.8	3.86	0.8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27.5	45.9	21.3	4.7	0.6	5.3	21.3	73.4	3.95	0.9	3.230 (df=1)
	기타	4,658	22.9	47.1	24.3	5.2	0.6	5.8	24.3	70.0	3.87	0.8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22.9	49.3	22.0	5.8	0.0	5.8	22.0	72.2	3.89	0.8	0.303 (df=1)
	기타	4,572	23.3	46.8	24.3	5.1	0.6	5.7	24.3	70.0	3.87	0.8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26.9	50.9	17.5	4.8	0.0	4.8	17.5	77.7	4.00	0.8	14.492*** (df=1)
	기타	4,434	22.8	46.5	24.9	5.2	0.7	5.9	24.9	69.2	3.85	0.9	
학력	중졸 이하	104	18.3	41.3	32.7	7.7	0.0	7.7	32.7	59.6	3.70	0.9	9.745*** (df=3)
	고졸	886	19.5	46.3	27.9	5.6	0.7	6.3	27.9	65.8	3.78	0.8	
	전문대/대졸	3,545	23.8	46.6	23.8	5.2	0.6	5.8	23.8	70.4	3.88	0.9	
	대학원졸	465	27.1	52.3	17.0	3.2	0.4	3.7	17.0	79.4	4.02	0.8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22.4	45.2	28.6	3.0	0.9	3.9	28.6	67.5	3.85	0.8	10.178*** (df=3)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20.4	46.7	26.4	5.7	0.9	6.5	26.4	67.1	3.80	0.9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22.2	48.6	22.9	6.0	0.3	6.3	22.9	70.8	3.86	0.8	
	600만원 이상	1,340	28.1	46.0	21.0	4.3	0.4	4.8	21.0	74.2	3.97	0.8	
직업군	관리자	621	28.7	45.1	22.1	4.0	0.2	4.2	22.1	73.8	3.98	0.8	4.454*** (df=1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23.4	49.0	22.2	5.3	0.2	5.5	22.2	72.3	3.90	0.8	
	사무 종사자	1,214	23.2	46.8	24.6	5.0	0.3	5.4	24.6	70.0	3.88	0.8	
	서비스 종사자	190	26.3	41.1	23.2	7.4	2.1	9.5	23.2	67.4	3.82	1.0	
	판매 종사자	210	23.8	43.8	22.9	9.0	0.5	9.5	22.9	67.6	3.81	0.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6.3	46.9	43.8	3.1	0.0	3.1	43.8	53.1	3.56	0.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16.4	46.7	26.7	9.7	0.6	10.3	26.7	63.0	3.68	0.9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18.6	41.2	32.4	6.9	1.0	7.8	32.4	59.8	3.70	0.9	
	단순노무 종사자	199	22.1	33.7	34.2	7.5	2.5	10.1	34.2	55.8	3.65	1.0	
	군인	13	15.4	46.2	30.8	7.7	0.0	7.7	30.8	61.5	3.69	0.9	
기타	1,325	21.9	50.5	23.1	3.8	0.8	4.5	23.1	72.4	3.89	0.8		

〈표 68-3〉 교육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심리적인 만족감)

구분	응답 비율											F	
	사례수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 이다	다소 작다	매우 작다	종합결과			평균 (5점)	표준 편차		
							작음	보통	큼				
전 체	5,000	19.7	42.1	31.6	6.0	0.7	6.6	31.6	61.8	3.74	0.9	-	
성별	남	2,531	20.2	40.8	31.6	6.5	0.9	7.4	31.6	61.0	3.73	1.513 (df=1)	
	여	2,469	19.3	43.4	31.5	5.4	0.4	5.8	31.5	62.7	3.76		0.8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74	20.9	41.3	30.7	6.8	0.3	7.1	30.7	62.2	3.76	0.281 (df=3)	
	광역시, 특별자치시	1,343	19.0	42.5	32.4	5.4	0.7	6.1	32.4	61.5	3.74		0.9
	중소도시(시 지역)	2,359	19.9	41.9	31.6	5.8	0.8	6.6	31.6	61.8	3.74		0.9
	읍·면(군)지역	324	17.6	44.1	30.6	7.1	0.6	7.7	30.6	61.7	3.71		0.9
연령	19-29세	929	17.8	33.3	38.5	9.0	1.4	10.4	38.5	51.0	3.57	20.831*** (df=4)	
	30대	870	17.0	38.6	36.0	7.7	0.7	8.4	36.0	55.6	3.64		0.9
	40대	1,046	19.1	45.4	30.0	5.0	0.5	5.4	30.0	64.5	3.78		0.8
	50대	1,084	20.8	48.0	26.5	4.2	0.5	4.7	26.5	68.8	3.85		0.8
	60-74세	1,071	23.1	43.4	28.6	4.6	0.4	4.9	28.6	66.5	3.84		0.8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927	20.8	45.0	28.6	5.1	0.4	5.6	28.6	65.8	3.81	37.918*** (df=1)	
	자녀 없음	2,073	18.2	38.0	35.7	7.1	1.0	8.1	35.7	56.2	3.65		0.9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037	19.1	44.5	30.3	5.9	0.3	6.2	30.3	63.5	3.76	0.649 (df=1)	
	기타	3,963	19.9	41.5	31.9	6.0	0.8	6.7	31.9	61.4	3.74		0.9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526	20.5	42.4	29.7	7.0	0.4	7.4	29.7	62.9	3.76	0.156 (df=1)	
	기타	4,474	19.6	42.1	31.8	5.8	0.7	6.5	31.8	61.7	3.74		0.9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342	18.7	45.3	29.8	5.8	0.3	6.1	29.8	64.0	3.76	0.208 (df=1)	
	기타	4,658	19.8	41.9	31.7	6.0	0.7	6.7	31.7	61.7	3.74		0.9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428	17.1	46.0	32.2	4.4	0.2	4.7	32.2	63.1	3.75	0.060 (df=1)	
	기타	4,572	20.0	41.7	31.5	6.1	0.7	6.8	31.5	61.7	3.74		0.9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566	20.7	48.8	26.0	4.4	0.2	4.6	26.0	69.4	3.85	10.537** (df=1)	
	기타	4,434	19.6	41.2	32.3	6.2	0.7	6.9	32.3	60.8	3.73		0.9
학력	중졸 이하	104	15.4	35.6	38.5	10.6	0.0	10.6	38.5	51.0	3.56	11.260*** (df=3)	
	고졸	886	16.9	39.7	35.3	7.2	0.8	8.0	35.3	56.7	3.65		0.9
	전문대/대졸	3,545	19.9	42.2	31.5	5.6	0.7	6.3	31.5	62.1	3.75		0.9
	대학원졸	465	24.7	47.1	23.0	4.9	0.2	5.2	23.0	71.8	3.91		0.8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5	20.6	36.3	35.9	6.0	1.1	7.1	35.9	57.0	3.69	11.181*** (df=3)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35	17.8	41.1	33.9	6.5	0.7	7.2	33.9	58.9	3.69		0.9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60	18.6	42.2	32.0	6.7	0.5	7.2	32.0	60.8	3.72		0.9
	600만원 이상	1,340	23.1	45.2	26.7	4.4	0.6	5.0	26.7	68.3	3.86		0.8
직업군	관리자	621	23.0	40.6	30.4	5.6	0.3	6.0	30.4	63.6	3.80	2.766** (df=1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9	19.9	42.0	31.1	6.5	0.5	7.0	31.1	61.9	3.74		0.9
	사무 종사자	1,214	18.0	44.1	31.1	6.1	0.8	6.9	31.1	62.0	3.72		0.9
	서비스 종사자	190	18.9	44.2	26.3	8.9	1.6	10.5	26.3	63.2	3.70		0.9
	판매 종사자	210	17.1	47.1	30.0	5.2	0.5	5.7	30.0	64.3	3.75		0.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12.5	34.4	34.4	15.6	3.1	18.8	34.4	46.9	3.38		1.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17.0	39.4	35.2	8.5	0.0	8.5	35.2	56.4	3.65		0.9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14.7	47.1	28.4	5.9	3.9	9.8	28.4	61.8	3.63		0.9
	단순노무 종사자	199	17.6	33.7	37.7	10.1	1.0	11.1	37.7	51.3	3.57		0.9
	군인	13	15.4	30.8	46.2	7.7	0.0	7.7	46.2	46.2	3.54		0.9
	기타	1,325	21.4	41.5	32.5	4.2	0.4	4.5	32.5	62.9	3.79		0.8

연구보고 RR 2020-33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0)

발행	2020년 12월
발행인	반상진
발행처	한국교육개발원
주소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7
	전화 : 043-5309-114
	FAX : 043-5309-819
	http://www.kedi.re.kr
등록번호	1973. 6. 13. 제16-35호
인쇄처	(주)다원기획 044-865-8115
ISBN	979-11-5666-447-5 93370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 연구보고 RR 2020-33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KEDI POLL 2020)